

한국 근대 잡지에 나타난 '민족' 관련 자료집

자료집총서① : 근대시기 다문화 관련 지면자료집

한국 근대 잡지에 나타난 '민족' 관련 자료집

이춘복 편

발간사

올해는 30년만의 최고 무더위라 할 만큼 유난히 더웠던 한해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무더위가 가시고 어느덧 풍성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의 계절인 2010년 가을을 맞이하여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은 『다문화 지면자료집』의 첫 번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은 2007년 12월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문화 관련 자료집의 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체와 타자의 존재방식과 재현양상’에 주목한 학술총서 『다문화의 이해』를 발간하여 학내외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과 공존을 위한 문화콘텐츠 연구개발’이란 총괄아젠다를 실천하기 위해 연구팀을 다문화 사회에서의 타자의 존재방식 연구팀(제1세부과제)과 타자의 재현양상 연구팀(제2세부과제)으로 나뉘었습니다. 존재방식 연구팀 즉 제1세부과제 팀은 총괄아젠다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주체와 타자의 존재방식 연구와 다문화콘텐츠 개발-역사·이론적 접근”이란 아젠다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지면자료집은 1단계 제1세부과제의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로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1단계가 마무리되면서 『한국 근대 잡지에 나타난 ‘민족’관련 자료집』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지면자료집을 꾸민 것입니다.

이 지면자료집은 1단계 1차년도의 기초조사와 자료분류, 그리고 2차 년도의 근현대 지면자료의 조사 수집을 바탕으로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본 연구단의 연구교수 1인(이춘복)의 책임과 보조연구원 1인(김선규)의 실무 하에 우선 근현대시기 지면자료를 근현대 잡지·언론기사와 팸플릿·연설문을 구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잡지·언론기사에 초점을 맞추어, 그 분류와 목록작성을 하고 자료를 축적하였습니다. 자료 축적은 근현대시기 신문과 잡지에 나타난 다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족’·‘국가’·‘인종’·‘민주’·‘민족국가’에 관한 분류(키워드 분류)와 목록작성 및 자료 축적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족’과 관련된 학문적 관점은 ‘민족’을 고대로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고 전근대시기에서 그 역사적 근원을 찾아 연속성을 강조하는 ‘원초론(Primordialism)’적 시각과 ‘민족’을 근대화의 부산물로 간주하는 ‘도구론(Instrumentalism)’적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논의는 민족 공동체 형성과 민족사

에 대한 ‘당위론’에서 시작하여 ‘근대의 산물’ 혹은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본 연구단에서는 ‘민족’ 개념이 고대로부터 존재해 온 원초적인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대에 생겨난 역사적 구성물로 본다는 측면에서 도구론적 시각과 가깝습니다. 본 연구단은 이러한 ‘원초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수집 대상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1900년에서 1940년까지 근대 한국 잡지에 나타난 순혈적 민족주의의 탄생과 형성과 관련된 ‘단일민족’·‘민족개념’·‘단군시조’·‘민족영웅’·‘제국주의’라는 키워드로 분류하여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지면자료집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대시기 민족개념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의 순혈적 정통성에 바탕을 둔 단일민족·단일문화·단일민족국가 신화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 자료집이 한국사회가 ‘단일문화/단일민족/단일국가’로 대표되는 문화적 갈등 극복하고 건전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2010년 9월 28일

중앙대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연구교수 이춘복 삼가 씀

목 차

I. 한국 근현대 잡지 “단일민족” 관련 자료

1. 개벽 제59호(1925년 05월 01일): 十字橋 우에서	1
2. 삼천리 제3권 제11호(1931년 11월 01일): 「朝鮮問題에 對한 日本人 態度」 研究	7
3. 삼천리 제4권 제4호(1932년 04월 01일): 三千里 전체회의 No.2 만주 문제, 新滿洲國과 吾人의 態度	10
4. 삼천리 제7권 제1호(1935년 01월 01일): 朝鮮民族起源의 文化的 考察	16
5. 삼천리 제7권 제2호(1935년 02월 01일): 朝鮮民族起源의 文化的 考察	20
6. 삼천리 제9권 제1호(1937년 01월 01일): 三千里論壇	24
7. 삼천리 제10권 제11호(1938년 11월 01일): 넷 同志에 告함	27

II. 한국 근현대 잡지 “민족” 관련 자료

1. 대한자강회월보 제5호(1906년 11월 25일): 團體然後民族可保	35
2. 대한협회회보 제6호(1908년 09월 25일): 家族教育이 全國民族單體의 機關	37
3. 태극학보 제22호(1908년 06월 24일): 有大奮發民族然後 有大事業英雄	38
4. 대한협회회보 제6호(1908년 09월 25일): 家族教育이 全國民族單體의 機關	40
5. 서북학회월보 제8호(1909년 01월 01일): 民族主義論	41
6. 대한홍학보 제7호(1909년 11월 20일): 喚起 我半島 帝國之 民族的 觀念	42
7. 개벽 제4호(1920년 09월 25일, 류홍중): 民勢學上으로 보는 朝鮮民族	43
8. 개벽 제5호(1920년 11월 01일, 이돈화): 朝鮮人의 民族性을 論하노라	46
9. 개벽 제14호(1921년 08월 01일, 로아): 八字說을 基礎로 한 朝鮮民族의 人生觀	51
10. 개벽 제15호(1921년 09월 01일, 이돈화): 生活의 條件을 本位로 한 朝鮮의 改造事業, 이 글을 特히 民族의 盛衰를 雙肩에 負한 靑年諸君에 부딪	57
11. 개벽 제19호(1922년 01월 10일): 藝術과 人生 (未定稿), 新世界와 朝鮮民族의 使命	65
12. 개벽 제20호(1922년 02월 08일, 로아자): 少年同盟과 朝鮮民族의 復活	77
13. 개벽 제20호(1922년 02월 08일): 民族興替의 分岐點	80

14. 개벽 제22호(1922년 04월 01일): 國民生活에 對한 思想의 勢力— (르.본 博士 著 「民族心理學」의 一節)	81
15. 개벽 제23호(1922년 05월 01일, 이춘원): 民族改造論	87
16. 개벽 제31호(1923년 01월 01일): 汎人間的 民族主義	90
17. 개벽 제33호(1923년 03월 01일): 歐洲大戰 以後의 民族的 理想의 進化	94
18. 개벽 제34호(1923년 04월 01일): 곳 해야할 民族的 中心勢力의 作成	96
19. 개벽 제35호(1923년 05월 01일): 民族一致, 大同團結을 云爲하는 이에게	101
20. 개벽 제35호(1923년 05월 01일): 日本 사람이 본 朝鮮의 民族運動 과 社會運動	105
21. 개벽 제51호(1924년 09월 01일): 民族과 階級, 現代 政治에 在한 民族과 階級과의 關係	106
22. 개벽 제53호(1924년 11월 01일): 社會生活의 根本原理와 戰爭, 「 民族과 階級」의.....其2	110
23. 개벽 제54호(1924년 12월 01일): 國家組織의 形式과 民族團體의 意義, 民族과 階級...其3	114
24. 개벽 제55호(1925년 01월 01일): 民族과 階級(終)	119
25. 개벽 제57호(1925년 03월 01일): 民族感情의 心理와 그 社會的 意義	125
26. 개벽 제61호(1925년 07월 01일): 朝鮮民族만이 가진 優越性	130
27. 동광 제1호(1926년 05월 01일): 個人的 日常生活의 革新이 民族的 勃興의 根本이다.	133
28. 동광 제1호(1926년 05월 01일): 民族的 肉體改造運動, 個人的 生活 뿐 아니라 民族 全體의 運命을 支配하는 健康問題	136
29. 동광 제7호(安自山 안자산): 古朝鮮民族의 二大別, 朝鮮古代史研究 一端	140
30. 동광 제9호(1927년 01월 01일): 劇界로 본 우리의 民族運動	143
31. 동광 제10호(1927년 02월 01일): 체크 民族의 精華 「소쿨」運動 이란 무엇인가, 肉體的 健全과 精神的 健全이 民族的 自由를 어듬 에 큰 關係	147
32. 동광 제15호(1927년 07월 05일): 民族과 民族語	150
33. 별건곤 제12·13호(1928년 05월 01일): 내가 자랑하고 십흔 朝鮮 것—民族的 道德性	152
34. 삼천리 제1호(1929년 06월 12일): 民族文學과 無産文學의 合致点 과 差異点	153
35. 삼천리 제2호(1929년 09월 01일): 民族保健의 恐怖時代, 肺病療養 所の 設置 提議	155

36. 별건곤 제32호(1930년 09월 01일): 世界各國 弱少民族의 生活相, 夢幻國 安南	157
37. 삼천리 제8호(1930년 09월 01일): 愛蘭의 復活祭動亂, 愛蘭民族運動의 一斷面	159
38. 별건곤 제32호(1930년 09월 01일): 安南民族의 解放運動	163
39. 별건곤 제32호(1930년 09월 01일): 世界各國 弱少民族의 生活相, 苦悶하는 印度	171
40. 삼천리 제9호(1930년 10월 01일): 印度民族運動	173
41. 별건곤 제35호(1930년 12월 01일): 世界弱小民族의 三大反亂, 千古의 悲壯史 南阿의 大反戰記	173
42. 별건곤 제35호(1930년 12월 01일): 世界弱小民族의 三大反亂, 北清大事變 淸國義和團大暴亂	176
43. 별건곤 제35호(1930년 12월 01일): 世界弱小民族의 三大反亂, 印度의 뮤니-틱(土兵反亂), -及칸디運動의 初期-	179
44. 삼천리 제11호(1931년 01월 01일): 朝鮮 民族의 代表의 選出問題	182
45. 동광 제17호(1931년 01월 01일): 新興民族歷訪記(其一), 國運隆盛의 波斯國-政治와 産業이 同時에 進展	187
46. 별건곤 제37호(1931년 02월 01일): 最近 獨立說을 傳하는 比律賓의 民族運動	189
47. 동광 제18호(1931년 02월 01일): 책크民族의 國父 토마쓰 마사릭 博士	192
48. 삼천리 제14호(1931년 04월 01일): 民族保健과 體育獎勵(一)	195
49. 별건곤 제39호(1931년 04월 01일): 新幹會 解消後의 民族的 協同戰線을 엮절가	197
50. 삼천리 제15호(1931년 05월 01일): 民族保健과 體育獎勵(2), 歐米各國의 現勢와 吾人의 覺悟	199
51. 삼천리 제17호(1931년 07월 01일): 印度特輯, 印度民族運動의 綱領	202
52. 삼천리 제3권 제9호(1931년 09월 01일): 異民族과의 結婚是非	207
53. 동광 제25호(1931년 09월 04일): 民族的 對立과 滿鮮事件, 在滿同胞問題特輯	210
54. 삼천리 제3권 제10호(1931년 10월 1일): 朝鮮民族의 文化向上과 民族의 大計	213
55. 삼천리 제3권 제11호(1931년 11월 1일): 弱小民族運動과 領主國態度	214
56. 삼천리 제3권 제11호(1931년 11월 1일): 弱小民族 文藝特輯	219
57. 동광 제28호(1931년 12월 01일): 民族問題에 대한 나의 誤謬	223
58. 동광 제30호(1932년 01월 25일): 朝鮮民族運動의 三基礎事業	224

59. 삼천리 제4권 제2호(1932년 02월 01일): 民族的 公敵인 分裂主義 者 撲滅, 地方熱과 派爭打破論	227
60. 삼천리 제4권 제2호(1932년 02월 01일): 民族生活區의 意義	230
61. 삼천리 제4권 제3호(1932년 03월 01일): 異民族間 戀愛의 悲劇(實 話三篇)	235
62. 삼천리 제4권 제3호(1932년 03월 01일): 誌上 三千里全體會議, 第 一部門=民族問題, 現下의民族主義勢力과社會主義勢力	244
63. 삼천리 제4권 제3호(1932년 03월 01일): 民族과 階級關係의 究明, -나의 BAC的 멧가지-	249
64. 삼천리 제4권 제3호(1932년 03월 01일): 民族保健問題, 民衆保健과 體育普遍化의 急務	253
65. 삼천리 제4권 제4호(1932년 04월 01일): 民族生成論, 民族生成過程 과 基要素	254
66. 삼천리 제4권 제5호(1932년 05월 15일): 민족적 협동 문제	258
67. 삼천리 제4권 제5호(1932년 05월 15일): 民族的 經濟運動의 三要素	264
68. 삼천리 제4권 제8호(1932년 08월 01일): 民族的 大統一黨 結成 前 提로 現有 諸團體 解體 提議	266
69. 삼천리 제4권 제10호(1932년 10월 1일): 朝鮮民族은 南進乎, 北進乎	269
70. 동광 제39호(1932년 11월 01일): 完譯 三民主義(1), 民族主義 第1講	272
71. 삼천리 제5권 제4호(1933년 04월 01일): 民族的 文化事業의 統制 에 대한 建議書	281
72. 삼천리 제5권 제4호(1933년 04월 01일): 孫逸仙과 民族主義, 三民 主義의 全風貌	283
73. 삼천리 제5권 제9호(1933년 09월 01일): 民族的 自覺	287
74. 삼천리 제6권 제9호(1934년 09월 01일): 民族興亡과 戰爭	289
75. 개벽 신간 제1호(1934년 11월 01일): 朝鮮民族性의 新建設	293
76. 삼천리 제7권 제1호(1935년 01월 01일): 朝鮮民族起源의 文化的 考察	296
77. 삼천리 제7권 제1호(1935년 01월 01일): 新民族文學의 樹立	300
78. 삼천리 제7권 제1호(1935년 01월 01일): 朝鮮民族의 全盛時代	302
79. 삼천리 제7권 제1호(1935년 01월 01일): 民族發展에 對한 人民投票	306
80. 삼천리 제7권 제2호(1935년 02월 01일): 朝鮮民族起源의 文化的 考察	309
81. 삼천리 제7권 제2호(1935년 02월 01일): 新民族文學의 樹立	313

82. 삼천리 제7권 제8호(1935년 09월 1일): 雄偉스런 民族性을 배우 자, 偏狹拙劣한 小市民性 撲滅論	314
83. 삼천리 제7권 제9호(1935년 10월 01일): 民族에 關한 몇가지 생각	317
84. 삼천리 제7권 제10호(1935년 11월 1일): 民族改造社란 무엇인가	320
85. 삼천리 제8권 제2호(1936년 02월 01일): 民族興亡의 自책을 차저	322
86. 삼천리 제8권 제2호(1936년 02월 01일): 大轉換期の 民族과 國家	330
87. 삼천리 제8권 제11호(1936년 11월 1일): 極東 諸民族의 苦悶, 西 南派의 沒落과 中國의 統一問題	342
88. 삼천리 제10권 제5호(1938년 05월 1일): 協和會와 朝鮮民族의 舞臺	349
89. 삼천리 제10권 제10호(1938년 10월 1일): 民族神聖原則	353
90. 삼천리 제11권 제4호(1939년 04월 1일): 民族問題의 方法論, 下 村海南氏 「鮮滿支의 民族問題」에 對하여	354
91. 삼천리 제12권 제3호(1940년 03월 1일): 大戰과 弱小民族 動搖	356
92. 삼천리 제12권 제3호(1940년 03월 1일): 伯林 올림픽 映畵 『民 族의 祭典』을 보고	361
93. 삼천리 제12권 제8호(1940년 09월 1일): 民族의 祭典	366
94. 삼천리 제12권 제8호(1940년 09월 1일): 戰爭文學과 民族文學, 나 치스와 民族文學	376
95. 삼천리 제12권 제8호(1940년 09월 1일): 戰爭文學과 民族文學, 中 國文學의 世界史的 理念	380
96. 삼천리 제12권 제8호(1940년 09월 1일): 戰爭文學과 民族文學, 조 라의 戰爭小說	382

Ⅲ. 한국 근현대 잡지 “단군” 관련 자료

1. 개벽 제1호(1920년 06월 25일): 檀君神話	386
2. 동광 제4호(1926년 08월 01일): 檀君窟에서(妙香山)	388
3. 동광 제7호(장도빈): 檀君史料 一小發見과 余의 喜悅, 朝鮮古代史 研究一端	388
4. 동광 제7호(황의돈): 檀君考證에 對한 新記錄의 發見, 朝鮮古代史研 究一端	390
5. 동광 제7호(김도태): 十月三日을 當하여 檀君을 追慕함	392
6. 동광 제12호(1927년 04월 01일): 古朝鮮 檀君	395
7. 별건곤 제12·13호(1928년 05월 01일): 檀君及其研究	402
8. 삼천리 제8권 제4호(1936년 04월 01일): 檀君陵	411

IV. 한국 근현대 잡지 “영웅” 관련 자료

1. 대한협회회보 제2호(1908년 05월 25일): 英雄을 求호는 者 困窮 호 人을 崇拜호라	414
2. 대한협회회보 제11호(1909년 02월 25일): 讀無名氏英雄傳	415
3. 서북학회월보 제2호(1908년 07월 01일): 時世가 造英雄	416
4. 태극학보 제8호(1907년 05월 24일): 韓國興復은 英雄崇拜에 在함	417
5. 태극학보 제13호(1907년 09월 24일): 讀崔友洋英雄崇拜論賦次帝國 山河	418
6. 태극학보 제18호(1908년 02월 24일): 無名氏의 英雄	419
7. 태극학보 제22호(1908년 06월 24일): 有大奮發民族然後 有大事業 英雄	420
8. 대한학회월보 제1호(1908년 02월 25일): 時代난 英雄之冶爐	421
9. 대한학회월보 제3호(1908년 04월 25일): 能行公議者其英雄乎	422
10. 대한학회월보 제7호(1908년 09월 25일): 英雄會場에 快論半島文明	424
11. 대한학회월보 제8호(1908년 10월 25일): 英雄會場에 快論半島文 明 (續)	426
12. 대한홍학보 제11호(1910년 03월 20일): 大英雄 那翁의 戰鬪訣	427
13. 동광 제31호(1932년 03월 05일): 英雄主義와 과시즘, 李光洙氏의 蒙을 啓함	428
14. 동광 제38호(1932년 10월 01일): 聖者와 英雄(全1幕)	432
15. 동광 제40호(1933년 01월 23일): 新年을 當하야 學生에게 보내는 公開狀, 英雄이 되라	436
16. 별건곤 제27호(1930년 03월 01일): 칼세이지의 愛國英雄 한니발	437
17. 별건곤 제43호(1931년 09월 01일): 求婚 女子 三十萬人 突破한 人氣飛行家 린드버크 夫妻, 大統領 以上の 二十世紀 英雄	443
18. 삼천리 제3권 제9호(1931년 09월 01일): 아아 太平洋을 征服한 蒼空의 英雄 『린드·버크』, 전세계를 놀내이든 그는 었던 인물	445
19. 삼천리 제4권 제1호(1932년 01월 01일): 1932年の 英雄的 建 設事業인 『半島突進隊』 運動	447
20. 삼천리 제6권 제11호(1934년 11월 1일): 英雄論	457
21. 삼천리 제7권 제7호(1935년 08월 01일): 英雄과 豪傑論	459
22. 삼천리 제8권 제6호(1936년 06월 01일): 朝鮮 體系 英雄	461
23. 삼천리 제10권 제10호(1938년 10월 1일): 英雄 名將과 時勢	462

V. 한국 근현대 잡지 “제국주의” 관련 자료

1. 개벽 제6호(1920년 12월 01일): 第三帝國主義는 무엇인가?	466
2. 개벽 제52호(1924년 10월 01일): 非基督教大同盟宣言, 資本帝國主義者가 基督教을 保留하는 그 裏面	466
3. 삼천리 제8호(1930년 09월 01일): 朝鮮問題 等에 對한 日本學者의 所論, 元題 帝國主義와 殖民政策	468
4. 삼천리 제17호(1931년 07월 01일): 英帝國主義와 印度運動	471

I. 한국 근현대 잡지 “단일민족” 관련 자료

1.

잡지명: 개벽 제59호

발행년월일: 1925년 05월 01일

기사제목: 十字橋 위에서

필자: 金基鎭

기사형태: 문예기타

十字橋 위에서

金基鎭

너는 여기에 있다. 이리 지나간 냇날 負兒嶽 아래에 宛然한 宮牆을 들르고 6曹大路를 벌닌 後 東西兩方에 十字路를 命名하였을 때 그때의 백성들의 손으로 노히여졌든 돌다리를 거더버리고 그 代身으로 지금 너는 여기에 있다. 너는 여기에 있다.

나는 네 우에 섰다. 지금 새로 丹粧하고 서있는 光化門을 바라보며 지금 새로 세워진 花崗石으로 된 宏莊한 朝鮮總督府의 新建物을 바라보며 上下累10年동안 依舊한 形態를 持續하여오는 負兒嶽-北岳山을 바라보며 나날이 變하여가는 靑松落落한 木覓-南山을 바라보며 또한 共進會 법석 後에 行方을 몰르게 된 해태의 모양을 눈 압해 그리면서 나는 지금 네 우에 섰다. 세멘트로 다지어지고 돌덩어리로 구더져 서있는 十字橋라는 너무에 섰다. 十字橋야 너의 일홈인 十字橋의 由來를 너는 아느냐 或은 모르느냐.

아아 光化門아. 依舊한 北岳아. 날로 變하여가는 南山아. 改造되어가는 朝鮮의 自然아. 建築物아. 百姓아. 나는 지금 갈피엎는 생각에 목이 메었다. 목이 메었다.

李太王 2年 4月로부터 5年 7月까지 實로 民血民膏로 된 740餘萬兩의 巨額을 드리여 建造한 後 以來 57年동안 許多한 風霜을 격거내려온 景福宮아 舊都의 廢墟여! 아아 光化門아 北岳과 仁旺 스카이라인과 妙한 調和를 보히여가며 崇嚴한 姿態로 王宮을 직히든 大門아. 그때의 너를 싸을 때 얼마나 만흔 百姓들의 피와 땀과 기름이 었던 強制에 이기지 못하여 너를 爲하여 흘렸스며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너를 짓밟고 뜨더 고치기에 또한 얼마나 百姓들의 피와 땀과 기름이 새로운 XX(?)을 爲하여 흘리고 잇는지 아느냐 或은 모르느냐. 일즉이 몇해 前에 너는 었던 異民族人이 너를 哀悼하고 讚美하고 너의 滅亡을 救援하고자 하여 詩的으로 咏嘆한 일이 잇섯든 것을 記憶하느냐. 오! 光化門아 그 後로 너의 얼굴은 몇번이나 化粧되었섯스며 몇번이나 <28> 賣笑를 強要當해야 왔드냐. 그리고 지금은 또한번 너는 너 안에 열니는 무슨 共進會 때문에 마음에도 업는 化粧을 하고 웃음을 팔게 되었다. 變할대로 變한 네 모양아 울너지도 안는 北岳山과 總督府 新廳舍와 너와의 『아이로니칼』한 콘트라스트! 이와가티 되어엿는 너를 바라볼 때 나에게는 원갓 너무도 明確한 事實 儼然한 事實로부터 오는 슬픔이 있다. 그러타 否定하는 것이 아니라 事實을 事實 그대로 認定하는 슬픔이 있다.

朝鮮의 自然은 나날이 變形되어간다. 그리고 이것은 이의 是非好惡을 超越한 었더케 하여볼 수 업는 事實이며 大勢가 아니냐. 事實肯定-에서 일어나는 悲哀는 決코 적다고 말할 수 업는 바이다. 오오 흰옷 닌은 백성아 朝鮮民族아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의 現狀을 잘 알 있다...

箕子朝鮮 以前の 史實은 仔細히 물론다 하드래도 左右間 엇겟스나 神話的 傳說을 바더서 말
하야 일은 바 檀君으로부터 箕子 40代 衛氏 3代 武帝 4郡과 三韓을 지나서 三國時代를 건너
新羅 高麗 朝鮮에까지 이르르는 所謂 半萬年 歷史를 確實히 몰르기도 하려니와 또한 지금에
이르러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드리내일 필요도 업다고 생각한다. 이곳의 民族이 單一民族이
아니고 蒙古族과 漢族으로 混成된 것인지 안인지도 또한 採根할 必要도 지금에 업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이곳의 백성들이 붓그러워 하여라. 너희들은 不斷의 歷史上 慘敗者인 것을! 遙
遠한 過去는 말하지말고 다만 西記 1392년에 李太祖 建國以來 27王, 519年동안을 지내다가
西紀 1910년에 이르러 韓日合併하기까지의 史實만을 가지고서라도 너희들은 너희 自身이 不
斷의 慘敗者이었섯음을 알아야만 한다.

나는 지금 李朝 500年史를 記錄하고 심흔 생각은 죽음도 업다. 더구나 四色의 더러운 黨爭史
를 記錄하여보고 심흔 생각은 秋毫도 업다. 나는 다만 이곳의 民族이라는 것은 네나 지금이나
드러운 黨爭에 大局을 忘却하야 버리는 人種인 것만은 알고 있다. 그것만은 알고 있다.

實로 보아라. 1392年으로부터 1910年 8月 22日까지-더 자세히 말하면 4일 午後 3時 30分까
지-의 李朝 500年史는 무엇으로 그 數多한 페-지를 채우고 잇는가를. 나는 거기에서 東人,
西人, 南人, 北人, 老論, 少論과 또는 이것들이 多少變形된 類派와 黨爭 以外에 아모것도 發
見하지 못한다. 政치는 무엇이엇느냐? 그것은 다만 이것들의 權勢 <29> 爭奪의 材料인 記號
에 지나지 못하였섯다. 人民은 무엇이엇느냐? 그것은 다만 그들의 倉庫를 보담 더 豊裕하게
하여주는 驢馬에 지나지 못하였섯다. 이리하고 朝鮮이 었지 亡하지 아니하였스랴. 그럼으로
朝鮮은 亡하였다. 朝鮮은 亡하였다.

그러타. 朝鮮은 亡하였다. 이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朝鮮은 全然 亡하고만 마릿느냐?

그러나 朝鮮은 이러나고 있다는 또 한 개의 事實을 니저서는 아니된다. 朝鮮이 亡하였다는 것
은 國體를 일음인 것을 아라두어야만 한다.

朝鮮은 亡한 것이 아니다. 만흔 사람이 『朝鮮은 업다. 일즉이 이 땅에서 잇든 朝鮮은 이의
업서젓다!』고 덜네이는 소리를 나의 귀는 드르면서 나는 만흔 사람이 『업다!』는 그 朝鮮을
내 압헤 잇는 그 朝鮮을 이가티 보고 있다. 그러타-決斷코 朝鮮은 『업지』 아니하다. 일즉이
쁘록크가 『XX과 智識階級 속에서 露西亞를 보았슴과 가티 나는 지금 朝鮮을 보고 있다.

원갓 것이 모든 存在가 苦痛과 屈從과 離散을 體驗하도록 運命바닷다. 그러나 朝鮮은 이와가
티 屈從하는 속에서 새로운-그리고 새로운 意味의 偉大한 것이 되여 나오지 아니하면 안된다.
일즉이 16年前에는 期待하여보지도 못하든 새로운 것으로 되여 나오지 아니하여서는 안된
다. 쁘록크가 말한 바 人類의 靈魂 속에 國民의 靈魂 속에 녹어드러가 잇든 그 計劃이 그네
들을 붓잡어 매엿든 울타리를 끈코 담을 헐고 쓸 데 업는 언덕의 一部를 까뭇개고서 밋친
물결과 가티 突進하는』 그러한 期待가 잇지 안어서는 안되겟다.

아아 그러나 나는 悲觀하지 안이할 수 업다. 519年동안의 歷史를 먹칠하여 노흔 똑 그와 가
튼 同一한 모티-프가 지금의 朝鮮의 現狀을 亦是 먹칠하야 바리는 까답이다. 때는 봄이다. 5
月の 女王이 燦爛한 웃음을 가지오는 이때 모든 生物이 새로운 期待에 感激하는 이때(아-쓸
쓸하고나 조선아!) 나는 갈피업는 생각에 목이 메엿다.

오오, 景福宮아. 十字橋아. 北岳아. 光化門아. 共進會場아. 봄바람에 나뭇기는 흰옷자락아! 때
투성이야. 가난방이야. 가난방이야. 지저분한 서울아...

十字橋야 너는 文明하였다는 늘날에 建造되엿다. 참말이다. 너는 事實 文明한 道具로 構造되

얏다. 네가 이와가티 혼쫓하게 서게 된 것을今日の文明에感謝하여라. <30>

오오 朝鮮의 自然아. 너의들도感謝하는 것이 조차 안으나 . 千態萬狀으로 改作되어 文明의 光輝를 날리게 된 것을...

참말로 나는 본다. 원갓 곳에 文明이 浸潤하여 잇는 것을. 顏色이 조차못한 勞働者의 얼굴 위에서 쥐잡는 藥을 먹고 自殺하는 사람들에게서 父兄의 집을 버리고 逃亡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또는 두 주먹만 쥐고서 滿洲로 떠나가는 무리에게서 모든 곳에서 文明의 姿態를 나는 볼 수 있다. 이거나 저거나 모도가今日の 資本主義文明의 德澤이 아닌 것이 어대 잇스랴. 무슨 까닭으로 故郷을 떠나서 두 주먹만 쥐고 異域으로 向하느냐? 거기에는 現代資本主義에 征服當한 非文明人의 悲哀가 있다.

무슨 까닭으로 안색이 조차 못한 노동자가 해마다 느러가느냐? 거기에도 역시 정복당한 종족의 고통이 있다.

무슨 까닭으로 쥐잡는 藥을 먹고 죽지 안으면 안되느냐? 거기에는 生命을 拒絕하는 慘敗者의 悲痛이 잇는 까닭이다.

무슨 까닭으로 父兄의 집을 버리고 나오지 안으면 안되느냐? 거기에는 必然으로 그와가티 식히는 資本主義文明의 征服이 잇는 까닭이다. 알기쉬웁게 말하면 在來의 家族制度가 하로 잇틀 문혀져 가는 까닭이다.

그러타 지금의 世上은 完全히 資本主義의 社會다.

그리고 이것은 必然의 事勢이다. 是非好惡의 問題를 超越한 事實이다. 朝鮮의 歷史가 1910년에 閉幕되었슴과 가티 朝鮮의 家長家族制度가 그 國體의 崩壞와 더불어 資本制度生産 때문에 그 殘影을 나날이 업시 하여가는 것이다. 父兄의 집을 버리고 나오게 되는 그 原因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무슨 까닭으로 朝鮮의 家長家族制度는 崩壞하지안코서 견디지 못하였드냐? 이따위 말은 아모 意義가 업다. 무슨 까닭이라니. 그것은 家族經濟制度가 個人主義的 經濟制度로 變하기 때문이다. 밧구어 말하면 個人主義的 經濟制度에 適應한 살님을 하기 爲하여 自然히 個人的 生活이 實行되었다는 것이다.

家庭의 分裂은 所得의 個人化에 原因한다. 일즉이 朝鮮에 잇서서 家族制度가 完全한 形態로 存在하였을 때는 大家族이 家長의 힘 하나로 扶養되었을 때이었스며 따라서 家長에게 扶養力이 잇섯슴으로 말미암아 充分한 支配力이 잇섯든 때이다. 그러나 家長의 支配力은 卽 <31> 扶養力은 漸漸 주러 드리갓다. 朝鮮百姓 中の 반나마 大多數의 無產階級者는 사내나 女子나 어버이나 子女나 할 것 업시 모도 다 生産場에 나서서 賃金을 바더오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었다. 그 勞働의 種類는 如何하였든지 何如間 各 사람이 얼마식이라도 버러오지 안으면 生活할 수 업게 되었다. 일즉이 家長되는 사람 하나가 全家族을 爲해서 所得을 가져오든 것이 오늘날 와서는 한 집안의 所得이 個人化하였다. 그리하여 生活의 基礎인 所得이 個人化하는 以上 家庭에서의 家長의 支配權도 漸次로 減退되지 안코서는 그대로 잇지 못하게 되었다. 家庭의 不和는 家長에 對한 信賴와 服從이 減退함으로 말미암아 이러나는 것이다. 家族은 家長의 扶養과 支配를 信賴하고 服從할 수 업다. 웨 그러냐하면 一家의 生活은 이미 家長의 所得만을 가지고서는 到底히 하여나아갈 수가 업게 되었스닛가. 全家族의 所得의 合計로도 오히려 一家의 生計가 어려움거늘 엇지 家長의 支配力이 이 以上 더 持續될 것이라.

父兄의 집을 버리고 나간다는 것은 要컨대 家長인 父兄의 支配에 對한 絶對의 廻避다.

無產階級 말고 지금 中產智識階級者 中에도 父兄의 집을 버리고 나오는 사람이 많다. 그리하여 이것은 所得의 個人化라고 말 못한다하야도 要컨대 家族經濟時代가 지나가고 個人主義의 經濟制度가 施行됨에 따라서 個人主義의 精神이 浸潤한 까닭임은 疑心 없다. 새 時代의 所謂 새 思想의 洗禮를 바든 子弟가 家族主義의 頑冥을 固*하는 父兄과 相和할 수는 업는 일이다. 거기에 當然한 經濟組織이 불러올리는 가장 深刻한 家族制度에 對한 反動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面所에 아들은 工場이나 會社에 딸은 女學校나 或은 商店에 다니기 爲하야 四方으로 離散하게 되는 오늘날에 와서 엇지 家族制度의 崩壞를 막을 수가 잇스랴. 이것은 大勢다. 必然의 傾向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價値判斷의 圈外에 超越하얏다.

원갓 現實의 悲慘은 在來의 社會制度가 다른 한 개의 制度와 번을 드러 갈리게 되는 곳에 있다. 그리고 이 傾向은 人生社會가 經濟적으로 또는 社會적으로 進化함에 따라서 必然적으로 이러나는 막지 못할 偉대한 힘과 더부러 온다. 일즉이 家族主義가 未來永劫을 支配하지 못하여슴과 마찬가지로 今日의 個人主義도 將次 未來永劫을 支配하리라고는 保證못한다. 밧구어 말하면 일즉이 <32> 이곳의 社會를 支持하든 家長家族의 經濟組織이 문허졌슴과 가티 今日의 資本制 經濟組織도 멀지 아니하야 문허진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歷史의 過程에서 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今日의 社會制度가 未來永劫에까지 支持되어 가리라고 保證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必然으로 崩壞되고야 만다. 그러나 그 時機가 自然히 到來하는 때까지 기다리고 잇지는 못한다. 歷史는 轉換된다. 그러나 사람은 歷史라는 그것이 轉換되어 오는 때까지 傍觀하고 잇지는 못한다. 冷靜한 唯物史觀을 말하는 사람이 熱血한 階級鬭爭을 力說하는 論理 上의 矛盾이 實로 이로 말미암아 잇게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호을로 맑쓰의 矛盾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使徒들의 矛盾도 된다.

朝鮮은 混沌하다. 그리고 참말로 새로운 意味에 잇서서 混沌하다. 나는 겨우 얼마되지 못하는 騷音을 듯고 잇슬 뿐이다. 그러타. 그것은 한 개의 騷音에 지나지 못한다. 四色의-實로 새로운 意味에서의 四色의 黨爭 以外の 아모 것도 아니다. 그것은 씨스티마틱한 아모 것도 아니다. 리과인된 아모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의 騷音에 지나지 못한다.

神經組織만 가지고서 사람이 살 수 업는 거와 마찬가지로 血液成分만 가지고서도 사람은 살지 못한다. 그러나 朝鮮은 이 두 개 中의 한 개만 가지고 잇는 不具者다. 우리들은 第一 첫째 살지 아니하여서는 안된다. 그러타. 살지 아니하여서는 안된다.

現實은 悲慘하다. 今日은 混沌하다. 그러나 實로 새로운 意味에서의 크다란 期待와 努力이 업서서는 안된다. 新시대 생활로 하는 새로운 출발이 업서서는 안된다. 充分한 現實認識이 업서서는 안되는 同時에 價値에 對한 批判이 업스면 안된다. 現實認識은 存在에 關한 說明과 指摘이며 價値의 判斷은 行爲의 決定임으로 이 두 개가 同時에 存立하지 안으면 안된다. 그는 存在의 說明 指摘 뿐만이 生活이 아닌 까닭이며 現實認識이 不足한 곳에 行爲의 決定이 업는 까닭이다. 그리고 生活이라는 것은 實로 行爲에 잇고 實行에 잇고 그 外에는 업다. 그리하야 이 認識과 行爲의 兩者를 兼備치 못하는 때에 生活은 절늑바리가 된다. 이 말은 所謂 誤解밧는 淺薄한 生活至上主義者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참말로 나는 말한다. 生活을 떠난 人生의 實體가 어대 잇느냐?

나는 거듭 말한다. 神經組織만을 가지고서 사람이 살 수 업슴과 가티 血液成分만을 가지고서도 사람은 살 수가 <33> 업다고. 그런데 今日의 主知主義의 文明은 사람으로 하여곰 한갓 神

經組織에 依하여서만 生活을 營爲하게 하는 傾向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存在의 說明指摘뿐 만으로 能事를 삼는 사람이 느려가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存在는 안다. 그러나 重大한 行爲는 니저 버리고 있다. 充分한 現實認識 우에서 出發되는 價值判斷의 行爲야 말로 人生의 實體인 것을 니저 버리고 있다.

나는 생각한다. 果然 우리들의 先輩는 充分한 現實認識이 잇섯드냐고. 그리고 今日의 先輩 及 友人은 果然 얼마나한 實行을 하고 잇느냐고.

그러나 나는 이 말을 말하기에 躊躇한다. 『모든 것은 絶望이다!』

나는 언제인가 幻滅期의 朝鮮을 넘어서 참말로 우리들이 할 바의 일을 行爲하자고 말한 일이 잇섯다. 그 後에 나는 었던 동무로부터 다음과 가튼 詩 1篇을 바튼 일이 잇다.

(당나귀)

청국 사람 동네의 었던 한 집의
음침하고 지저분한 조고만 집을
길거리로 난 문 압헤 서서
나는 서너 사람의 행인과 함께 드러다 보고 잇다.

양쪽의 눈은 압만 보도록 가리우고서
뼈만 남은 듯 심흔 당나귀 한 마리
무거워 보히는 방아확(臼)에 붓들녀 매여서 잇다.
조곰 잇다가 방아확에는
밀(小麥)이 하나 가득 담기어 짓다.

기다란 머리 꼬리를, 머리에다 칭칭 동여매고서
더러운 옷을 낚은 청국 사람이
답부로 하는 격으로 체를 치기 시작하얏다
대쫓가리를 뚫들기는 소리
갓치리, 갓치리 갓치리린

당나귀는 방아를 돌기 시작했다. 그것을 밧고
내 곁헤 섰든 었던 사람이 『아-얼마나
불상한 動物이나 1年에 365日
언제까지든지 똑가튼 곳을 빙글빙글 도라다닌다니!

그러닛가 또 한 사람이 말하기를 <34>
『그러닛가 動物이라지
感情이란 것이 업스닛가』

이 말을 듯고서 나중 사람이 말을 하기를,
『사람 중에도 저 따위 천치가 만히 잇다네』
이가티 짓거리고서 세 사람은

가장 유쾌한드시 껄껄 웃었다.

그러나 당나귀는 아모 말 업시 도라 다닌다.
빠어진 밀가루는 샘물과 가터
작고작고 소사 나온다
당나귀는 아모 말 업시
힘을 다하여 돌기만 한다

천치?
불상한 동물?
그러나 밀가루를 빨 줄은 니저 버리지 안는다,
그리고 그 밀가루는
사람에게는 重要한 것이다.

오오 그러타, 사람에게는
밀가루가 必要하다-나도
밀가루를 빠야겠타, 그리하여 빠키 위하야는,
당나귀라도 되자,
눈도 가리자,
천치라도 되자.

당나귀는 힘을 다하여 매암 돌고 잇다
빠어진 밀가루는 샘물과 가터
끈칠 새 업시 밋해서부터 소사 나온다.

나의 귀에는 아직도
대쫓가리를 뚜드리는 소리가 귀에 남았다,
갓치리, 갓치리, 갓치리린.

나는 이 詩의 詩的 價値를 云爲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것을 여기에 記錄한 것은 안이다. 더구나 이것은 내가 翻譯한 것임으로. 다만 나는 이와가튼 것을 參考로 보힐 뿐이다.

조타. 이 詩의 意味하는 것이 설영 僞善이라하야도 나는 이와가튼 用意를 조타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와가튼 <35> 用意는 充分한 現實認識을 밝어온 「行爲의 決定」임은 勿論이다. 그것은 所謂 主知的으로 考察할 때엔 一種의 愚劣에 지나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서 意志의 行動을 본다. 生活에 對한 感激을 본다.

지금 우리들에게 必要한 것은 엇더하게 行爲하여야겠느냐 엇더하게 生活하여야겠느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意志의 喪失은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보아라. 果然 지금 몇 사람이나 그 意志를 喪失하지 안이한 사람이 잇는가. 새로운 意味에서의 큰 期待는 意志의 힘이 업고서 는 엇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朝鮮은 519年間の 歷史를 먹칠하여 낫튼 똑 그와가튼 同一한

모티-프로 말미암아 먹칠되여가는 늦감이 업지 아니하다. 새로운 意味에서의 큰 期待라는 것이 다 무엇이냐? 오오 이곳의 백성들아. 끈임업는 歷史의 敗殘者들아. 이 엇지 슬퍼할 만한 事實이 아니랴.

十字橋야. 지금 나는 봄바람을 마지면서 네 우에 서서 지나간 뱃일의 虛無함과 將來하는 運命의 暗懨함을 늦기였다. 오오, 丹粧한 光化門아. 廢都의 새악시야. 너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化粧을 거듭하였느냐.

아아 지저분한 서울아! 廢都 漢陽아. 나는 지금 갈피업는 생각에 목이 메었다.

25, 4, 18, <36>

<28-36>

2.

잡지명: 삼천리 제3권 제11호

발행년월일: 1931년 11월 01일

기사제목: 「朝鮮問題에 對한 日本人 態度」 研究

필자: 金東煥 김동환

기사형태: 논설

「朝鮮問題에 對한 日本人 態度」 研究 (「조선문제에 대한 일본인 태도」 연구)

金東煥

朝鮮總督府의 수뇌자와 (중략-원문) 정부의 爲政當路者和 在野한 정객들은 조선문제에 대하여 엇더한 태도, 엇더한 견해를 가지고 잇는가? (3行 락-원문) 일본인의 대표적 견해를 시시로 주의하여 둬이 또한 무용한 일이 아니겠다.

이달부터 본란을 設하고 매월 그네들의 의견을 소개하려는 본의가 오로지 여기에 잇는 바이다.

본문의 요지는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조직한 일대 조사기관을 설치하여 英印관계모양으로 조선문제를 공동연구협의하자는데 중점을 둔 것이 주의를 끄은다 할 것이다.

丸山鶴吉所論 『朝鮮統治의 目標를 定하라』

소개=丸山鶴吉은 己未 직후에 齋藤 總督, 水野 政務總監 아래에 警務局長으로 4년 반을 잇섯다가 그 뒤 東京에 드러가 조선협회 간사로 잇스며 또 경시총감을 經하야 현재 貴族院 의원이 되어 잇다.

「조선통치의 목표를 정하라」하는 이 一文은 상당히 長文임으로 비교적 중요치 아니한 전반부의 요지를 일괄하여 抄記 하건대 그(丸山)는 조선에 나와서 경무국장으로 잇는 동안에 네번채나 자기의 主見이 달너 젓더란 고백부터 시작하였다. 즉 부임 초초의 자기 主見에는 「日韓合併이 옳코 그런 것은 양자 각각의 처지에서 생각한다면 시비의 論도 잇겟스나 현재 별서 합병은 한 개의 사실로 되어 잇스니 일본인은 최후의 1인까지 조선을 노치 안으리라」 하야 전연 조선독립을 부인하는 강경론을 가지고 그를 기회마다 부리지저 왔다. 그러나 이 主見은 조선인의 마음을 정말 붓잡지 못할 것임을 얼마 뒤에 알아내었다. 즉 당시의 조선

실정은 上海에 임시가정부가 설치되어서 不遠에 독립정부가 京城에 서려니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각종의 「음모」가 鮮內 각지에 행하고 잇서서 「非常に不安なる形情」를 보이였으므로 자기의 主見도 스사로 이에 「善處」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운운.

그래서 이에 이른 그는 다시 『연구를 거듭한 결과』로 「조선사람들이 희망하는 바는 알엇노라. 조국을 이룬 민족이 되어서 생각한다면 최초의 희망으로 독립을 도모함도 그럴 듯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 정도를 가지고 조선이 독립하여서 一國을 경영하기에 그 실력에 잇서 불가능하니 먼저 문화의 촉진과 실력의 양성에 힘쓰는 것이 급무이다」라고 하고 이 뜻을 역설하였다 한다.

즉 독립은 안되고 엇저고 한 대야 그 말이 조선인의 머리에 드러가지 안을 것은 정한 일임으로 차라리 실력양성, 문화촉진에 全注意를 집중케 하여 「실업에 힘쓰고 풍속 습관의 개량이라거나 문화향상에 힘을 쓰도록 하려함이었다. 이리하여 「음모」라거나 「소요」를 진정하려 하였다고 그는 솔직하게 말하였다.

이 의견에 동의하여 閔元植 등의 國民協會運動이 나왔다. 한편 조선의 「諺文新聞」에도 점차 이러한 의견이 유력하게 되어서 문화촉진, 실력양성의 기운이 크게 떨치면서 全鮮 각지에 청년회가 簇生하고, 더욱 교육열이 비상이 발흥하여 학교증설운동이 잇섯고, 실업 방면에는 조선인 경영의 실업회사, 은행이 만히 이러났다. 이러케 되면 『結局 不知不識の間に 所謂民族思想, 獨立思想が 磨滅して 來るだらう 獨立運動に 正面から 反對すれば 却つて 反撥して 來るに 相違ない, それよりは 寧ろ 斯の如く 落着いた 運動に 赴けば 長い期間を経て 次第に民族意識を 消磨し, 獨立運動も 鎮靜するだらうと云ふ考へてあつた』라고 그는 또 말하였다.

그런데 세 번째 予의 생각은 변하지 안을 수 업섯다 하고 丸山은 자기의 의견을 계속한다. — 「이리하여 민족의식의 마멸을 기대하였든 중, 조선의 사상적 지도자들은 벌써 이 점에 착안하고 이 운동의 발달을 몹시 두려 하엿다. 그래서 폭력운동 대신에 언론 문장에 의하여 민족의식을 환기하려 하엿다. 그 따답에 각 단체는 「獨立思想を 鼓吹する 機關でもあるが 如く變化し」「内地人の 缺陷, 内地人の 横暴を 力説 高調」하야 조선 内地의 모든 문장과 언론이 反日的 反日人的 경향을 띄게 되었다. 그래서 「期待は 全く裏切られる結果」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 뒤 太平洋會議로 日本의 지위가 움지길 수 업는 것이 되자 그를 기회로 그제부터는 日本의 통치에 순응하지 안으면 안된다 라는 의견을 갖고 그 방침으로 나왔노라...고 마즈막 고백하였다. 如上의 서술이 잇슨 뒤 그는 결론으로 또한 이러케 말하였다.

大正 8년 소요후에 행한 제도의 개혁은 엇재든 획기적의 것이었다. 同 13년까지 5개년 간에 거지 반 여기 대하여 하등 부가한 바가 업섯을 뿐더러 조선인에게 그 장래의 희망에 대하여 <13> 하등 지시하는 바가 업섯다. 그러고 우리들은 다만 언론과 문장으로 조선인의 사상을 좌우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잇는 것인 것 가치 생각하여온 바는 중대한 착오이엇다고 생각한다. 今後 조선인의 사상을 선도한다 하여도 조선의 장래를 근본적으로 엇더케하면 조흘가 하는 점을 결정하고 나아가지 안으면 안되겟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하면 今日까지 창도되는 内地延長主義 内地의 府縣과 同樣으로 점차 此를

개발하여 마치 北海道와 가치 又 沖繩縣과 가치 内地와 同様の 제도를 폐야 한다는 방침으로써 하면 과연 조선인을 원활하게 잇글어 나갈 수 잇슬가? 혹은 조선 4천년의 역사와 2천만의 결합한 민족을 기조로 하고 조선인 본위의 정치, 환연하면 조선을 자치령으로 하여 此에 임할 것인가? 2者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한다 할지라도 비밀이라거나 *測을 排하고 他에 꺼리김이 업시 治鮮의 근본방침을 확정하고 순차 나아갈 방향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 후의 歐羅巴의 정세에 徵할 지라도 소수민족의 문제는 항상 어렵다. 조선 현재의 인구는 2천만, 기 역사, 기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日本의 府縣과 가튼 거름을 갖게 함이 반드시 적당할 것이나 아니나 또 실상 그것이 실현될 것이나 엇질 것이나 하는 데는 多大한 의문이 있다. 그러타고 지금 즉시 조선인이 독립한다 하여도 용이히 실현될 일이 아니다.(하락-원문) 운운.

又 曰...日本의 조선통치에 관한 근본방침을 결정한다는 것은 원래 至難한 일이다. 됴 수 잇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때에 官民朝野, 日鮮을 통하여 유력한 인사를 망라하여 일대 조사기관을 設하여 이에 의하여 日鮮 양자의 만족할 해결안 及 장래의 근본방침을 연구하는 일은 본 문제해결에 대한 一방법이 아닐는가고 생각한다.

본안에 반대하는 논자는 英國에 잇서 印度問題 때문에 누차 회합이 잇서 그때마다 효과를 보이고 잇지만은 한편에서 항상 이것이 식그러운 의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가치 조사기관의 설치는 얼마나한 공적을 거둘가 함이 의문이라고 비난하나 그러나 현상대로 한갓 공수방관 하고만 잇서서는 언제까지든지 해결이 나지 안을 터이니 오히려 불철저하지만 이 방법을 採 하는 것도 一案이 아닐는가고 생각한다. 만일 公변된 조사기관의 설치가 곤란하다 하면 그 전제로 진실로 조선을 思念하는 유력한 「리-다」를 一黨에 모이게 하여 「푸라이베-트」로 기탄 업시 담합하고 조선의 장래를 고려 연구하여 나아간다면 스사로 거기에서 한방책이 나올 것이 아닐가. 이리하여 此 방안이 대체의 기초가 되어 그런 뒤 公변된 조사기관에 내어 걸어도 하등 지장이 업을 것이다. 요컨대 治鮮에 관한 我國 策을 결정하는 것이 刻下의 급무가 아닐가고 생각한다. 더욱 조선의 현상은 표면적으로는 비상히 온화하게 보이나 이면에 드러가 보면 左傾主義의 魔手が 작고 버드러 갈 뿐더러 조선인의 日本 及 日本人에 대한 사상도 점차 악화하여 가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나중엔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에 이를 는지도 모를 정세에 노여 있다. 그럼으로 우리는 조선통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들 보일 수 잇도록 적정한 방도를 속히 강하기를 內鮮朝野識者에 향하여 절망하는 바이노라...운운. (昭和 6년 10월 1일 外交時報 所載)<14>

日本經濟研究會 所論『朝鮮의 重要性』

본론의 요지는 무역에 잇서서 조선은 日本의 독점지이지만은 대중의 빈곤화로 구매력이 감퇴되어서 자본주의에의 엇던 작용을 말한 데 있다.

1. 貿易

「조선은 日本의 독점시장으로 거기에는 他 열강의 세력은 일보도 침입을 거절되어 있다.」라는 冒頭에서 본문은 起하여 昭和 5년도의 조선의 대외국 수출이 근 2,500만원으로 日本에의 移出의 1할에 불과한 사실 등을 열거하였다. 특히 米의 수출은 6,500만원으로 日本에의 전수출액의 반을 넘고, 大豆 700만원, 어류 140만원, 生絲 960만원, 석탄, 금은 등 광물의 260만원 등으로 기 태반이 농산물이다. 제국주의 XX時에 잇서서의 日本의 식료품 자금

자족 계획 때문에 조선은 식료품 공급자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또 수입에 있어서도 조선이 英米獨 등으로부터의 기계류 수입은 昭和 5년도 380만원으로 日本부터의 기계수입의 3할에 해당할 뿐이다. 라고 수자를 열거한 뒤

「요컨대 조선은 일본상품 때문에 독점적 판매지다. 日本에서부터의 수입액은 日本의 對支 수출액에 거지 반 필적하여 기계류, 자동차 철제품, 비료, 세멘트 등 日本의 중공업 부문의 수출지로서 조선의 역할은 더욱 크다. 그런래 금년에 드려서부터 日本부터의 수입은 격감하였다. 昭和 5년도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1할 2분 減인데 소화 6년 5월까지를 전년도 5월까지의 누계와 비교하면 실로 2할 7분의 감소이다. 이것은 XX대중의 궁핍화의 진화, 구매력의 체감을 말하여...자본주의의...을 더욱 집요하게 하여가는 한 동기라 할 것이다.(이하 次號 계속)

經濟學博士 英雄策郎씨 所論『拓務省을 廢止하지 말어라』

본문의 요지는 日本의 인구 及 食糧 문제의 해결과 관련 식혀서 해외 移植民과 국방 기타 拓植事業을 통제하기 위하여 拓務省을 존속하자 부르지졌다.

要旨,『日露戰爭에 의하여 日本은 樺太의 南半을 영유하고 關東州의 조차권 及 滿鐵에 관한 권리를 획득하였고 또 전후하여 臺灣, 樺太, 朝鮮 등을 영유함에 이르러 「新附의 영토에 대한 통치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拓務行政」을 하여왔다.

「吾人은 此 이상 外國의 예를 들려 하지 안으나 米國 이외의 식민제국에서 본국에 독립한 식민성을 두지 안은 곳은 거지 반 없다. 특히 獨逸은 1884년 처음으로 南西阿佛利加를 점령한 이후 과족의 勢로서 獨領東阿佛利加, 도-고-, 카메룬, 南洋諸島青島, 등을 영유 하였는데 1907년부터는 종래 外務省의 소관이든 것을 옮기어 독립한 一省을 설립하였다. 최초의 大臣에 임한 것은 명성 분분한 「힌덴부루히」 이엇는 바 이때를 一新紀念으로 獨逸 식민 정책이 다시 광채를 발한 것은 누구나 知悉하는 일이다...운운」

10월 1일 外交時報 所載<15>

<12-15>

3.

잡지명: 삼천리 제4권 제4호

발행년월일: 1932년 04월 01일

기사제목: 三千里 전체회의 No.2 만주문제, 新滿洲國과 吾人의 態度

필자:

기사형태: 논설

三千里 전체회의 No.2 만주문제, 新滿洲國과 吾人의 態度 (삼천리 전체회의 No.2 만주문제, 신만주국과 오인의 태도)

滿洲問題 縱橫觀

一, 머리말

歐洲대륙에는 독립의 국가가 흠뻑 만음에 반하여 亞洲대륙에는 독립의 국가가 흠뻑 적다. 歐洲에는 수십국의 독립국가가 있는데 亞洲에는 數三國에 지나지 못한다. 모든 국제적 회의 場裏에서 발언과 提議의 權을 가진 者가 歐洲의 사람이 만든 것 만치 歐洲人의 회합을 곧 국제적 회합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만치 되었다. 따라서 歐洲사람의 여론은 곧 세계적 여론이 되고 만다. 亞洲의 사람으로 그러한 회합에 참가할 때마다 應當 그 고독함을 느기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그나 그 뿐이라! 현하의 亞洲사람들은 저끼리 서로 물고 차면서 歐洲사람에게 哀願과 소송하려 다니기에 奔忙하며 歐洲사람의 질책과 혹은 勸告의 말을 듣기에 餘暇가 업을 만치 되었다, 참으로 그 누가 亞洲人의 인격을 사랑하며 亞洲에서 어른 노릇을 하여 붙여고 할진대 第一步로 亞洲대륙도 歐洲대륙이 가진 것 만치 독립의 국가의 자유의 민족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어찌로 보든지 가장 맞당할 것이며 가장 옳을 것이다. 歐洲대륙의 모든 나라가 독립한 국가적 생활을 하는 것 만치 하자면 亞洲대륙에서도 그만 못지 아니한 독립의 국가와 자유의 민족들이 부흥 혹은 新興할 수 넉넉하다. 이제 亞洲동북에서 독립의 국가가 탄생 하였스니 그 일홈을 滿洲國이라고 稱한다. 그 땅은 滿洲민족이 발상한 땅이다, 민족자결의 大義라면 그 일홈을 滿洲國이라 하여도 無理는 아닐 것이다. 더구나 그 건국의 元首가 滿清帝國末代의 황제이든 宣統帝라고 한다. 독립의 국가가 적은 亞洲의 사람으로는 축복하기를 그다지 吝嗇히 할 것도 업는 듯하다.

(九行略-원문)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인간사회에 탄생한 以上에는 「잘 자라서 남과 가치 완전한 인간 노릇을 하여라!」하는 것이 人道上의 축복일 것이다. 그러타면 一方으로는 합동민족의 인류애를 표방하고 他方으로는 민족자결의 현대어를 표방하고 탄생한 滿洲國도 그 어떠한 사람의 干涉도 맞지 말고 名實이 상부하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생활을 하라고 축복할 수도 있다. 一를 축복한다면 현대의 사회는 축복하는 그 사람을 정직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천하에는 영구불변하는 정의가 업다. 다만 시간시간에서 그 시간의 정의를 따라가는 것이 시간적 생활을 하는 吾人의 取할 途程인가한다. 滿洲新國에 대한 <8> 것을 以下에서 몇 가지로 살펴보자.

二, 滿洲獨立國의 起源

현대의 자본주의는 자기의 필요에 의하여 잇든 국가를 업세기도 하며 업는 국가를 새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제국주의적 전쟁에서는 멸망의 禍를 당하는 민족도 생기고 신흥의 機를 得하는 민족도 생긴다. 이런 종류의 觀察論은 일종의 공식적 혹은 歸納的 觀法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 以上으로 길게 말할 것은 업겟다. 滿洲新國의 起源을 차져보자. 當初에 滿清제국이 漢族의 민족혁명에 의하여 長城以南의 地를 失하고 붕괴된다할지라도 滿洲에서 滿族이 능히 독립자주할만한 민족적 존재를 소유하였든들 辛亥의 武昌혁명과 함께 滿洲에는 滿洲인의 국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戰勝者의 威福을 누리든 滿洲族은 삼백년도 未滿하는 동안에 문화적으로 漢族에게 도리어 同化가 되고 말었다. 중화민국이 성립된 후에 滿族이란 것은 考古學上의 一名稱에 불과하고 실제에서 滿洲語와 滿洲文을 쓰는 滿洲人은 地上에서 업서지고 말었다. 그 남어지가 잇다면 滿族의 의복제도를 漢族전체가 取하게 된 것뿐이다. 戰勝者로서 威福을 누린者도 滿族과 如한 者가 업을 것이며 戰勝者로서 滅族의 禍를 當한 者도 滿族만한 者가 업섯다. 羅馬제국의 멸망과 함께 滿清제국의 멸망을 조곡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이제 滿洲國의 領土라는 東北四省의 地域은 英吉利 혹은 日本제국의 국토보다 3倍나 되고 그 인구가 삼천만에 지난다. 그만하면 독립한 一國이 되기에 부족이 업을 것이다. 兼하며 그 기 후는 北溫帶에 居하며 歐亞해륙 交通상의 要衝이며 천연의 富가 豊足하고 군사상 정치상에서 東亞의 자본주의의 列強이 必爭의 地이다. 이대로 보든지 독립의 일국이 되기에 손색이 無하다. —(八十行略—원문)—

그런데 吾人이 滿洲新國에 대한 日中間의 현재의 태도와 그 前途에 대하여 주시할 一點이 있 으니 그 것은 외교적 折衝보다도 무력상의 齟齬이다. 현재의 사태로는 日中間의 何國이든지 一國이 희생적 양보를 不肯한다면 외교적 해결은 절망이요 무력에 再訴하는 一途가 有한 것 뿐인가한다. 그런 종류의 무력적 충돌이 생긴다면 거기에서 신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충돌의 결과로 그 어떠한 중대 변화가 東亞천지에서 생길는지 자못 관심되고 吾人의 주의를 끄는 點이라 하겠다.

四, 歐米諸國과 滿洲新國

다시 歐米諸國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하면 그 처음에는 米國이 此를 승인치 안이할 태도를 표시하더니 연맹총회의 결의를 보게된 今日에 至하야는 娑베트 聯邦 以外の 諸國은 總히 승인하지 아니할 태도를 가지게 되고 말었다. 무엇에 의하야 하는 말인가? 하면 연맹총 회의의 결의는 국제간에서 起할 수 있는 一切의 분쟁과 분의는 성질과 起源의 如何를 불문하 고 總히 평화적 수단에 의하야 해결 할 것이라고 巴里不戰條約을 고조하고 다시 논하되 『연 맹규약 혹은 巴里조약에 反하는 방법으로써 실현될 정세 조약 乃至協定을 승인치 아니함은 聯盟諸國에 課하는 의무임을 선언한다』고 云云하였다. 이 것은 곧 日中間의 군사적 충돌의 결과로써 생기는 滿洲新國의 독립을 승인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이다. 연맹총회의 결의가 如斯한 以上에는 歐米제국의 실제적 內情이 如何하든지 滿洲新國을 승인하지 아니할만한 표면 적 태도만은 결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연맹 외에 在한 米國으로 論하면 米國은 발서 錦州에서 日中の 군사적 충돌이 汲汲하든 시간에서 연맹의 결의문과 殆히 同一한 의미와 語句의 聲明을 行하였다. 말하자면 今番 연맹총회의 결의문은 米國의 그 聲明을 追隨한 것이 라고 봄이 可할 것이다. 歐洲 제국중에서 연맹외의 국가로는 <9> 오직 娑베트연방만인 데 娑베트연방은 그 국제적 입장이 제국과 相異한 동시에 滿洲에 대한 관계가 어느 정도에서 日本과 협조를 取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다. 그럼으로 娑베트연방이 滿洲新國에 대한 태도 는 승인도 아니요 반대도 아닌,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娑베트연방이 新國에 대한 태도는 日露間의 國交如何에 의하야 今後에 礎定될 것이다. 世間에는 娑베트연방만을 日本과 합 께 滿洲新國을 승인하리라고 論하는 말도 있다.

一國家의 독립에는 그 내부적 필요한 諸條件이 具備하더라도 국제적 승인을 得하지 못한다면 가장 困難한 경우에 빠지게 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실제에서 능히 독립한 政權을 維持 할만한 力量을 有한다면 국제적 승인을 得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적 독립이 瓦解될 것 은 아니다. 만일 滿洲新國으로 하여금 日本의 승인을 第一着으로 得하고 娑베트연방의 默認 을 得하다면 그 국가의 존립상에서 그다지 걱정될 만한 難境에는 빠지지 아니할 것이다. 日露 이외의 제국이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此 新國이 탄생하기 전부터 예상하고 건립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러타면 이 국가의 존립은 당분간만은 그대로 進歩될 것이다. 日中間에서 생길 新變化와 혹은 日米, 日露 등 모든 국교관계에 의하야 생길 수 있는 변화와 또는 滿洲國 구 성분자인 熱河 黑龍江省 등의 내적 변화 등이 장차 그 어떠한 意外의 波瀾을 惹起할는지 자 못 안심키 難한 정세이다.

五, 滿洲國과 우리 移住同胞

滿洲에 대하여 그 누구가 特殊한 權益과 관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至大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者는 없을 것이다. 連陸과 接壤의 지리적 관계로든지 민족적 역사상 관계로든지 其他 무엇으로든지 우리와 갖지 特殊하고 深大한 관계를 가진 者는 없을 것이다. 移住同胞의 수가 一百幾十萬에 達하고 日中事變으로 因하여 非常한 고난과 희생을 당한 자는 朝鮮사람이다. 그럼으로 우리가 滿洲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와서 비로소 생긴 것이 안이요 줄잡아도 반세기 以上の 切膚的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다. 滿洲에서 新國家가 건설되었다고 비로소 관심되고 문제가 生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滿洲에 민족적 차별을 그다지 하지 안이하는 국가가 건설되었다고 우리의 輿論이 打開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심하면 關東廳當局은 朝鮮總督府에 通牒하되『滿洲 新國家는 이제 겨우 건설의 途에 登하얏슴으로 정치적 聯關도 아즉 完備치 못하였다. 이러한 때에 漫然한 渡滿은 위험한 것인즉 총독부에서는 이 만연한 渡滿을 阻止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 시간에서 이 통첩은 일부의 사람들이 滿洲新國에 대하여 速斷과 過分の 희망을 가진 것을 證明함이다. 아직 盲目적으로 渡滿할 시간이 아니다. 日中事變으로 피난하였든 수만의 移住同胞도 아직 갈 곳을 잊지 못하고 彷徨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타고 恨嘆과 憂慮만은 無用이다. 在滿同胞에 관한 문제가 만치만 當面문제나 논의하고 그만두자. 日中事變이 나기 전부터 日中事變이 발생한 이후 또는 滿洲國의 성립 전후에서 在滿同胞의 문제가 더욱 當面문제로 化하였다. 따라서 群論이 생겼다. 그러나 이 글에서 그 群論을 거론할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여 在滿同胞가 急先 且기 본적으로 取할바의 大답을 말할려고 한다.

첫째로 在滿동포는 急先적으로 滿洲정권에 대하여 시민권(歸化權)을 獲得하여 永久한 土着적 생활의 기초를 確立할 것, 둘째로 移住民은 그 거주지대를 擇하여 집단적으로 部落의 생활방범을 圖할 것, 셋째로 移住民의 생존과 인권의 保障을 唯一의 本義로 하고 各種의 政變과 정권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시간문제로 취급하면서 酬應할 것 등이다.

前記한 세 가지 중에서 第一과 第三에는 설명을 要할 것이 <10> 업고 第二의 거주지대를 택하자 하는 데에 一言을 加할 바가 있다. 곳 滿洲는 廣漠한 지대이다. 이 廣漠한 지대에서 함부로 이리저리 그 거주지를 정하는 것이 不可하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省略하자. 吉林省 東南路(間島)一帶가 우리 移住民의 거주지로 가장 적당한 지대이고 其次는 奉天省의 南東지대와 第三으로 奉天으로부터 吉林까지의 철도선 東南의 지대인가 한다. 蒙古와 黑龍江省에 移住하는 것은 어디로 보든지 위험한 지대라고 생각된다.—(3, 14, 서울에서)—

新興滿洲國과 朝鮮人

朴浣

一

滿洲에 移住한 朝鮮동포 문제를 攻究하라 할 때에 어느듯 신설된 滿洲國을 연상하면서 의논하지 아니 할 수 업은 정세에 이르렀다.

滿洲國이 (二行略-원문)임이 一독립국으로 출현해야 모-든 준비와 施設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며 또 역사상으로는 그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건설된 국가가 적지 아니 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니 갖가운 例를 든다면 지나간 歐洲大戰 후에 獨逸의 부흥이나 쑸베트 露西亞

의 赤化선전에 공포를 感하고 그것을 未然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획한 英, 佛의 深謀遠慮에서 新興된 국가가 얼마나 만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史實에 의하셔도 今般에 건설된 滿洲國의 운명이 반드시 세상에서 생각하는 바와 가티 그다지 짜르리라고 마는 미더지지 아니한다. 그 뿐만 아니라 아모리 滿洲國에 대하여 南京정부가 절대로 不承認을 선언하며 국제연맹총회에서 上海事變과 아울러 滿洲문제까지도 포함하여 연맹규약 第 15條를 적용한다는 결의안을 採擇하였스며 米國이 또한 中國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한 9個國 條約을 前提로 滿洲國을 불인정한다는 태도를 표시하였다할지라도 이것은 마치 長鞭이 不及馬腹之格으로 依然히 日本軍이 滿洲에 駐屯하게 되며 동시에 日本이 세력이 우월한 地立를 지속하게만 되면 滿洲國은 新興국가로서 嚴然히 지속하게 될 것이 아닌가한다. 그리고 滿蒙에 親日적 국가가 건설되는 그것은 현재의 滿蒙權益을 擁護하는 점에서나 또는 장래의 발전을 위하여서나 단연히 日本側에 유리한 것만 사실이다.

(六行略-원문) 그러타고 하면 今後의 滿蒙은 中國의 일부로서 張學良 等 軍閥의 支配下에 있든 때와는 그 통치 형식이 변경될 것이며 諸般施政도 多少 改善하게 됨에 따라서 漸次 近代의 國家의 통치형태를 具備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滿蒙에 居住하는 朝鮮人은 此新興家에 대하여 엇더한 태도로 臨함이 可할가?

二

滿蒙에 居住하는 朝鮮동포는 대개 소작 농민으로서 朝鮮에서 생활난을 모니기어 滿洲는 농토가 흔하다는 그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하고 男負女帶하여 赤手空拳으로 移住한 농민들이다. <11>

그러나 이와 가튼 無資本하고 무세력한 移住民들을 保護 지도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슴으로 오늘날까지 그들은 中國 지주의 무리한 搾取와 無智한 軍警의 壓制에 거기에서도 또한 생활에 안정을 엇지 못하고 慘憺한 현상으로 지내왔다.

그럼으로 在滿동포의 當面문제는 엇더케 하면 무리한 地主의 착취와 橫暴한 軍警의 압박을 과거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랴고 노력하지 아니한 바는 아니나 우리는 힘이 업고 게다가 中國 측의 오해와 日本 당국자의-로 因하여 國籍문제라던지 商租權 문제가 未해결 되어잇었다. 그리하여 각급 中國人과 朝鮮人間에 갈등과 충돌에 이러나게 되며 따라서 불상사를 惹起하게 되었다.

그러나 滿洲國이 건설된 후에는 그 건국의 主旨에 잇는 바가치 모-든 주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하여 민족의 異同을 불문하고 평등으로 小民權을 享有하게 될 터임으로 年來에 兩 民族間에 충돌이나 오해의 원인되는 것이 國籍문제와 商租權問題해결로써 제거되리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또한 速하게 해결하자면 정치적 활동이 필요하게 될 것임으로 이것은 정치문제를 말할 때에 다시 論하기로 하고 먼저 경제문제를 들어 말한다면 압흐로 朝鮮人도 滿洲國의 인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물론 가지게 될터임으로 朝鮮人은 주로 농업에 잇서 소작인이나 자작농임을 막론하고 경제적 기초를 鞏固히 하는 동시에 발전과 향상을 圖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 현재와 如히 農奴제도와 다름이 업고 소작생활로써 경제적 발전을 云云함은 무리한 주문이라 할수도 잇스나 과거와 가치 무리한 지주의 착취와 軍警의 略奪이 제거되고 또는 아모리 소작 생활이라도 하거다 消費조합, 購買조합, 생산조합등을 設하여 잘- 이용만하면 생활의 안정은 期待할 수 가 잇는 것이다. 그러케 되면 따라서 상품도 발전이 될 것이며 소규모의 공업도 勃興하게 될 것이다. 혹은 朝鮮人의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조선내의 대자본을 滿洲에 투자케 하여 대집단농장을 건설하자는 의

논도 업지 아니하나 현하 朝鮮人의 形便으로 그 실현이 곤란할 것이며 또 多少의 실현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소작인 本位로 시설이 되지 못하면 자본가에게 이용만 되게되면 계급층 둘 기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니 그것은 충분히 고려할 바가 아닌가 한다.

三

滿洲에 잇는 동포의 생활 안정문제도 여간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아니나 그러나 동포 자체에 대한 교육문제도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업다.

滿洲國 정부에서도 일단 주민의 교육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주의할 것이나 朝鮮人에게는 조선인 本位の 교육을 施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滿洲國 건설의 本義가 각민족을 단일민족으로 同化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각 민족이 호상협조 단합하여 이상적의 일대 자유국을 건설하는 데에 있다고 하면 朝鮮 민족성을 무시하는 교육은 절대로 排斥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滿洲國 통치 범위 외에서 朝鮮人 독자의 교육을 요구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滿洲國의 교육 方針이 許하는 범위 내에서 朝鮮人 민족성에 適應한 교육을 요구할 뿐이다. 滿洲로 말하면 지리적으로 朝鮮에 접근한 까닭에 滿洲에 거주하던 朝鮮人이 다시 朝鮮내지로 歸還하게 됨이 多繁하게 될 것임으로 그 점으로만 보드래도 朝鮮人은 朝鮮人으로서의 적응한 교육을 受할 필요가 잇게 된다. 우리는 압흐로 교육문제에 잇서서 深甚한 自心을 가지게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四

滿洲에 移住한 朝鮮人의 수가 확실한 조사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하드래도 南北滿洲를 통하여 무려 2백만에 近할 터이니 그 수로 보아서 滿洲國의 주민 중에 漢族, 滿族 다음에 가게된다. 그러면 이 點만으로도 滿洲國에서 朝鮮人 문제가 꺾- <12>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 滿洲國 정부에서도 朝鮮人에 대한 모-든 문제를 신중히 취급하여야 할 것이며 朝鮮人 자체에서도 滿洲國에 대하여 정당한 인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정중히 취급하지 아니하면 의외에 중대한 결과를 生케 할 것이다.

滿洲와 우리와의 인연이 아모리 깊고 또 우리와 특수한 관계로 해서 자유로 移住할 수 잇는 지역이라 하드래도 滿洲는 우리의 식민지는 아닌 것이다.

滿洲가 무슨 우리의 세력 범위에 잇는 것도 아니며 또는 何等의 우리의 권익이 滿洲에 존재한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생활을 위하여 토지가 廉하고 풍토가 足한 滿洲로 移住하며 中國에서는 善隣의 의미에서나 그러치 아니하면 우리를 이용하여 滿洲의 荒蕪地를 開拓하라는 계획에서 朝鮮人를 환영할 것이다.

그럼으로 滿洲가 中國의 영토로 잇을 때에는 滿洲의 朝鮮人은 생활의 안정과 재산의 확보를 위하여 中國人과 동일한 권리를 獲得하고 목적으로써 日本의 國籍를 離脫하고 中國에 입적할 필요를 感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만주국이 성립된 후에는 滿洲에 거주하며 所定の 법적 手續만 履行하면 滿洲國의 당당한 국민으로 모-든 공민권을 행사하게 될 터임으로 국적문제로 자연히 소멸될 것이며 또 懸案으로 내려오든 商租權문제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그러케 철저히 공평히 노력해 줄 수업는 것만은 사실이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과거에 마흔 辛酸한 경험을 가지고 잇다.

그럼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활동이 필요하게 되며 또 잇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치운동이란 것은 물론 滿洲 移住民의 이익을 위한 운동에 불과함으로 조선민족전체

의 이익을 위한 朝鮮내의 정치운동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그리하여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는 朝鮮人 자주적의 통일적 기관을 설립하고 朝鮮人에 관한 모든 문제고 농업, 상업, 교육, 其他를 전반적으로 취급하며 朝鮮人의 생존권 획득과 문화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13>

<8-13>

4.

잡지명: 삼천리 제7권 제1호

발행년월일: 1935년 01월 01일

기사제목: 朝鮮民族起源의 文化的 考察

필자: 金明植 김명식

기사형태: 논설

朝鮮民族起源의 文化的 考察 (조선민족기원의 문화적 고찰)

金明植

1

최근 識者들의 기쁜 研究와 만흔 調査에 의하여 民族文獻이 이어 發表됨은 必然한 일이고 또 반가운 現象이다. 실로 과거 朝鮮의 真相을 밝히고 또 그것을 文獻의으로 整理함은 浩浩茫茫한 寗김이 업지 안타. 그럼으로 비록 총총한 시대라고 할 지라도 時間餘裕 있는者는 맛당히 이를 위하여 노력할 義務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眞實을 發見하고 事理를 究明함으로써 貴한 것이니 虛僞와 誇張으로 眩惑과 混難를 惹起함과 가튼 일은 업서야 할 것이다. 대개 眞理는 科學을 要求하고 科學은 利己의 方法과는 兩立하지 아니함으로써이다.<52>

2

무릇 個人이나 集團이나를 莫論하고 거의 社會生活에서 獨自의 生活能力이 形成됨과 함께 각각 個性이 構成된다. 이 原理는 民族 또는 民族集團에도 適用된다. 그리고 歷史는 원래 進化하지마는 部分的으로는 退化하는 일도 있다. 그럼으로 後期社會에서 醜惡을 發見할 수 있고 前期社會에서 善美를 立論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部分的 事實로 歷史의 進化를 否定하지 못한다. 原始社會는 封建社會에 비하여 粗朴한 觀念과 單純한 制度가 優雅한 것이 있다. 그러나 生産力의 발달에 의하여 前者는 破壞되고 後者가 形成되어 前者보다 複雜 또 豊富한 內容의 文化를 建設하였다. 그럼으로 封建社會를 咀呪하고 原始社會를 讚美함은 詩人의 感傷的 衝動으로는 興趣있는 일이지마는 社會學者의 科學的 觀察로는 何等의 價値가 업다. 그리고 新羅 高麗 李朝 등 時代의 文化는 確實히 檀君時代보다 進歩하였다. 또 檀君時代의 자랑은 다른 모든 民族의 共通한 原始社會의 特徵이오 朝鮮民族의 固有한 보배가 아니다. 물론 각 民族의 生活意識은 그를 構成하여서 部分觀念에 濃淡, 深淺, 厚薄重輕의 差가 잇서 각각 다른 民族의 特色을 나타내지마는 그러나 이 各異한 部分이 社會生活에 影響하는 範圍는 극히 制限한 것이오 또 그것은 文化의 進歩에 의하여 점차 解消될 必然性을 가진 것이다. 米國은 여러 民族으로 組織되었지마는 각 民族間의 各異한 性格은 거의 調和되어 다 가튼 米國民이 되었다. 그리고 오즉 從來文化의 差가 低劣한 民族은 이제 오히려 近代文化의 創造者의 班列

에 參加하지 못하였다.

그럼으로 民族文化를 研究하는 目的은 어느 民族의 文化的 水準을 究明하여 進歩한 文明을 理解하고 建設할 準備가 있는지 업는지 考察함에 잇는 것이오 과거로 復歸하기 위함이 아니다. 여기서 民族文化의 研究는 族譜學과 決定的으로 다른 것이다.

3

그런대 民族文化는 比較研究가 필요한 것이니 朝鮮古代의 優雅한 原始狀態를 了解한 우리는 가튼 時代의 다른 民族의 社會生活를 觀察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文籍에 나타난 露西亞의 머루와 獨逸의 막크와 英國의 마을 印度의 村落 共產體 등은 모다 原始社會와<53> 宗教의 民主的 直觀的 創造的 樂天的 武俠的 調和와 優雅를 자랑하거니와 同一時代의 朝鮮民族도 이러한 樂天的 生活를 享福하얏스리라. 그러나 民族研究者는 如何히 誇張하야도 文獻에 나타난 朝鮮民族의 과거 生活文化는 이상 諸民族의 그것보다 貧弱한 것이 事實이오 또 그 까닭에 朝鮮民族의 古文化는 오즉 斷片的 記錄을 남기고 말었다.

그리고 民族集團의 生活本能은 어느 民族은 遠心的이오 다른 어느 民族은 求心的이라는 特色이 잇는 것이 아니다. 또 原始民族에 잇서서도 自然觀念의 純粹性은 保障할 수 업는 일이어니와 近代民族은 모다 文化觀念의 混含體이다. 히트레一派는 獨逸民族의 純粹性을 强辯하지 마는 現 獨逸民族은 게루마니族, 쉼튼族, 을랍族 나살族 등의 混合體인 것은 歷史가 立證하는 바이오 밋 猶太族 歷史上 時間的 新舊 밋 長短의 差는 업지 아니하나 또 混合體인 本質은 現 米國民도 다르지 안다. 그리고 烏居龍藏씨의 研究에 의하면 「古 日本民族은 아이누族 以外에 1. 朝鮮, 滿洲, 沿海州, 東蒙古 등 지방으로 渡來한 固有民族과 2. 쓰마토라 보르네오, 세레베쓰, 比率賓, 臺灣 등으로부터 渡來한 印度네지안系의 것과 3. 南支那에 예로부터 居住한 苗族 系統 즉 印度 支那民族이라고」하얏거니와(有史以前의 日本) 朝鮮民族도 能粹한 單一民族이 아니다. 人種的으로는 아르타이族과 崑崙族이 混合되엇고 民族으로는 滿洲 諸民族 漢族, 蒙族 등이 混合되엇다. 그리하여 日本民族間에 여러 民族의 差異가 이미 消滅된 것과 가튼 朝鮮民族의 그것도 揚棄되어 歷史的 社會的 朝鮮民族이라는 一型의 生活과 意識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 民族研究는 여기서 出發하지 아니하면 아니한다. 즉 어느 人群이 一型의 生活과 意識도 形成한 文化段階에 이르러서 비로소 一民族을 構成하는 것이니 氏族觀念이나 部族觀念은 즉 原始民族의 生活과 意識은 近代民族 研究의 中心問題가 될 수 업다. 그리고 三國時代 이후의 朝鮮民族과 漢民族과의 差異은 言語와 衣服 이외의 精神生活에서는 發生할 수 업슬 만큼 消滅되엇고 또 그것은 朝鮮의 固有한 文化를 破壞함으로써 實現되엇슴으로 朝鮮의 封建文化는 朝鮮의 特色이 업거니와 그러나 현재는 朝鮮民族은 이 過程에서 形成된 것이오 原始民族의 延長이 아니다. 그리고 朝鮮의 古文獻에 中國의 書傳과 詩傳 가튼 또는 日本의 古史記와 萬葉集가튼 民族的 經典이 업서 民族의 生活를 單的으로 表現해 오지 못한 것은 遺憾이나 그러나 朝鮮民族의 歷史的 또는 社會的 存在가 업지<54> 안다. 그럼으로 이제 세삼시럽게 神話에서 一片 童話에서 一片 歌謠에서 그리고 詩에서 一句 또 文에서 一節을 주어 모혀서 「續三綱行實」을 出版할 必要는 업다. 엇지 그래나 하면 일즉 「三綱行實」의 社會的 功果를 안 朝鮮人은 그를 朝鮮人의 事蹟만으로 新編한다고 더 만흔 效果가 잇슬 것을 약속할 수 업슴으로써이다.

4

그리고 多神思想 家族主義 太陽崇拜 등은 中世紀 이전의 모든 民族의 共通한 生活觀念 밋

儀式이어니와 특히 多神思想의 宗教民族은 文明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또 太陽崇拜時代의 朝鮮民族은 스스로 文化段階를 展開하지 못하고 一層 進化한 外來文化을 輸入하였다. 이것은 文獻的으로 證할 수 업스나 人類文化의 歷史段階를 理解함으로써 斷言할 수 있다. 원래 太陽을 崇拜하는 多神民族은 社會進化에 의하여 必然的으로 一神民族이 된다. 中世紀의 基督教가 歐洲를 席捲한 것은 다른 付隨的 이유도 잇지마는 그 根本理由는 그의 一神思想이다. 다시 말하면 歐洲 諸民族의 太陽崇拜思想은 그의 必然的 發展形態인 一神思想에 歸依치 아니치 못한 것이다. 그러나 朝鮮의 原始民族은 歐洲의 諸民族과 가치 太陽을 崇拜하였지마는 마침내 一神宗教를 가지지 못하고 多神民族이란 것은 그間 多神民族의 進歩한 文化를 輸入한 까닭이다. 그럼으로 이제 종래 朝鮮民族의 多神思想을 讚美함은 野蠻를 證歌함과 가튼 것이다. 또 歷史上 朝鮮民族은 種族奴隸를 가진 일이 업스나 奴隸制度가 업지 안코 또 奴隸가 업지 아니 하였다. 모든 民族의 私有財産制度의 起源인 奴隸制度가 朝鮮民族의 限하여 업슬 일이 아니냐. 그리고 丁若鏞의 牧民心書에 奴隸에 관한 一編이 잇섯는데 最初 出版者가 削除해 바*다. 그 이유는 古來로 朝鮮의 奴隸制度가 너무도 殘忍하여 그를 外人에 알릴 수 업슴으로써 이라고 하였다. 그런대 朝鮮民族이 古來로 種族奴隸를 가져 보지 못한 것은 周圍의 征服者로서 나타나 보지 못하였음을 說明하는 條件이니 그로써 非武俠的 生活은 立證할 수 잇스나 武俠的 特徵은 證明되지 안는다. 그리고 만일 朝鮮民族이 希臘民族가티 만흔 種族奴隸를 가질 수 잇스면 朝鮮의 古代文化는 希臘의 文化에 비하여 遜色이 업섯을 것이오 그와 동시에 朝鮮民族은 一層 理和的인 또 <55> 創造的인 榮冠를 썼스리라. 그러나 希臘民族과 가티 周圍를 征服하지 못한 朝鮮民族은 (그러한 對象도 업섯지마은) 多大數의 奴隸를 가지지 못하여 小數 奴隸를 酷使하였고 그러나 人數에 制限된 저들의 黃金의 알(卵)은 支配階級의 亨樂과 奢侈를 制限하여 貧弱한 文化를 產出함에 그쳤다. 그럼으로 우리는 慶州의 古文明을 觀賞할 때 당시의 奴隸大象의 生活을 생각해 보는 것은 原始社會를 憧憬함과 가튼 感傷的 衝動이 아닌 것이다.

5

그런대 朝鮮民族과 가튼 滿洲族인 女眞, 契丹, 遼, 金 等 族은 東征西伐하여 武侯과 勇猛을 世界的 떨치고 朝鮮民族은 겨우 乙支文德, 淵蓋蘇文 등의 守勢戰에서 武勇의 자취를 傳할 뿐이지마는 그러나 현재 以上の 滿洲族은 各地에 散在한 人口를 總合하여도 300만명에 지나지 안코 또 그 文化는 朝鮮民族보다 低級이다. 그러타고 저의 固有한 言語와 文字가 업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兩者間에 數와 資의 懸殊한 差가 생긴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問題는 一般으로 民族的 優越性을 主張하는 者의 解決하난 바 아니다. 그리고 이 問題를 解決하지 못하면 朝鮮民族의 歷史的 및 文化地位를 理解할 수 업다.

滿洲民族은 蒙古民族과 가티 牧畜民族으로서 農業을 兼營하였다. 그럼으로 定位性이 缺如하고 또 저의 移動할 지역은 四面으로 展開되어 南征北伐 일삼은 동안 農業文化를 가질 수 업섯다. 그와 反하여 朝鮮民族은 半島에 定着하여 進歩한 封建文化를 樹立할 수 잇섯슴으로 비록 武勇은 저를 미치지 못하였스나 數를 增加하고 또 質을 向上하였다. 그리하여 朝鮮民族은 新羅이후 高麗이후 李朝를 통하여 滿洲民族과 다른 生活 및 意識을 가지었다. 그리고 農業文化의 集中的 表現인 佛教와 儒敎가 이 시대의 朝鮮人 生活과 結合한 것은 偶然한 일이 아니다. 그럼으로 朝鮮民族은 原始時代의 優秀한 特性이 佛教 및 儒敎의 輸入에 의하여 破壞한 것이 아니오 그 過程에서 滿洲族보다 優秀한 文化를 建設하여 一型의 民族을 形成하갈 또 그 存在를 確立하였다. 그리고 家族主義는 이 시대의 中心思想인데 朝鮮에는 일찍 中國에서

와 가튼 大家族制度가 實現되지 아니한 것은 人多地狹하야 土地를 *分하지 아니할 수 없었음으로써이다. 따라서 朝鮮의 集約農業이 일즉 中國보다 發達한 것을 理解할 수 있다.<56> 그리고 中世 이후의 朝鮮民族은 儒佛敎의 影響으로 말미암아 派閥의이 되고 또 批判에 短한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은 朝鮮民族의 固有한 弱點도 아니다. 封建文化은 모든 民族으로 하여금 다 가티 그러한 弱點을 가지게 하얏다. 中世紀의 歐洲 諸民族도 그리하얏고 현재의 漢民族도 印度民族도 그리하다. 요컨대 文化民族을 바리고 原始民族을 배오는 이유는 內容이 汲지 못하다. 그리고 山鹿素行의 理論은 歷史的 傳統의 體系가 잊거니와 이제 그를 直譯한 理論은 朝鮮民族史의 解說이 될 수 업다.

6

나는 民族研究들 反對하는 者가 아니오 그의 必要를 切實히 寗김으로 그 方法에 대하여 卑見을 말지 아니할 수 업다. 그리고 民族을 研究하는 方法은 經驗的 思想을 바리고 經驗的 知識으로써 文化的으로 中斷되지 아니한 과거와 현재를 聯結하야 그을 어느 哲學的 體系=世界觀 社會觀 우에서 現實的 眞相을 理論的으로 組織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從來 民族研究者 中에는 혹은 과거 史實에 重視한 傾向을 가진 者 업지 아니하야 현재의 自我를 科學的으로 究明할 수 업서 發展的 契機를 살피지 못한 嫌이 잇슴을 否定하기 어래울 줄로 알러니와 그것이 마춤내 朝鮮魂은 原始主義=바베리즘이 되고 朝鮮心은 多神主義=사마니이즘이 됴에 이른 것은 必然한 歸結이 아닐가. 그리고 그것이 進步的 動力과 對立함은 어느 物質的 勢力보다도 오히려 큰 것이 잇슴을 이저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社會的 根據가 後者보다 汲흔 까닭이다.

원래 民族은 自然觀念이 아니오 文化觀念이어니와 아인슈타인은 時空의 絶對性을 否定하도록 時代가 變한 이 때에 잇서서 文化의 不變性은 즉 完成한 文化意識으로써 出發한 民族研究는 取할 바 아니오 또 큰트의 所謂 神學的 時代가 形而上學的 時代로 다시 形而上學的 時代가 科學的 時代로 變한다 함은 科學時代에 이르러서는 宗教, 道德, 法律, 政治 기타에 관한 傳來의 文化意識이 揚棄함을 이룸이 아닌가.

17世紀 이후 白人種이 世界를 征服하든 過程에서 저들은 民族에 대하여 先天的 優劣論을 唱言하얏다. 그리하야 有色人種이 저의 奴隸* 된 것을 하날님께 感謝하얏다. 그러나 有色人種이 前進함을 따라 저의 民族原理는 變하지 아니할<57> 수 업섯다. 米國 클라크大學을 中心으로 한 民族心理學派가 出現하야 先天的 原理에 의한 民族優劣論을 破棄하얏다. 同學派의 참뵈렌(1843-1914년)은 文化 및 原始生活을 生物學的(自然的) 類推로부터 버서 나나서 心理的으로 分析하얏는 대저는 人種의 差異 文化와 野蠻의 差異는 生物學的 및 心理學的 差異에 의함 보다도 歷史上의 機會에 依存함을 明白히 論破하얏다. 푸란즈보쓰는 이 思想을 繼承하야 文化的 成果를 精神的 本能에 의하야 測定함을 科學的으로 證明할 수 업는 것 文化的 差異는 生物學的 原因보다도 歷史的 原因에 의한 것 白人種은 心理學的으로도 優秀하지 안코 또 生物學的으로도 모다 高級으로 發達하고 잇지 아니한 것 등을 立證하얏다. 뿐만 아니라 地理的 環境은 住民의 身體的 形相을 變할는지 모르나 그의 變更의 樣式 및 程度는 明確하지 안코 또 地理的 環境에 의하야 완전히 文化가 決定되지 아님을 主張하얏다. 저는 人類의 心意의 同一說을 支持하고 原始人과 現代人과의 間에 본래의 精神能力의 發達程度에 관하야는 何等的 差異가 업고 文化上의 各各 差異가 잇슴은 오즉 그의 發達하는 機會에 差異가 잇는 때문이라고 하얏다. 그리하야 보쓰는 쓰벤사 푸레자 테를노 및 기타 古典人類學者의 主張하는 바 人類 및 文化의 本質 및 能力에 差異가 잇다는 從來의 學說을 완전히 否定하얏다.

그럼으로 현재의 民族研究는 形面上學的 時代의 文化研究가 아님은 물론이요 生物學的 本質 및 能力의 立證도 說明도 必要치 안다. 文化와 野蠻의 差異는 歷史上의 機會에 依存함을 생각하여 民族研究의 端緒를 資本에서 發見하여야 한다. 물론 近代民族은 資本主義의 產物이니 인저 近代國家의 民族意識을 理解하지 못하면 民族研究는 學理的 基礎를 세울 수 업는 것이다.<58>

<52-58>

5.

잡지명: 삼천리 제7권 제2호

발행년월일: 1935년 02월 01일

기사제목: 朝鮮民族起源의 文化的 考察

필자: 金明植

기사형태: 논설

朝鮮民族起源의 文化的 考察

金明植

최근 識者들의 기쁜 研究와 만흔 調査에 의하여 民族文獻이 이어 發表됨은 必然한 일이고 또 반가운 現象이다. 실로 과거 朝鮮의 眞相을 밝히고 또 그것을 文獻的으로 整理함은 浩浩茫茫한 甞감이 업지 안다. 그럼으로 비록 종종한 시대라고 할 지라도 時間餘裕 잇는者는 맞당히 이를 위하여 노력할 義務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眞實을 發見하고 事理를 究明함으로써 貴한 것이니 虛僞와 誇張으로 眩惑과 混難를 惹起함과 가튼 일은 업서야 할 것이다. 대개 眞理는 科學을 要求하고 科學은 利己의 方法과는 兩立하지 아니함으로써이다.<52>

무릇 個人이나 集團이나를 莫論하고 거의 社會生活에서 獨自의 生活能力이 形成됨과 함께 각각 個性이 構成된다. 이 原理는 民族 또는 民族集團에도 適用된다. 그리고 歷史는 원래 進化하지마는 部分的으로는 退化하는 일도 있다. 그럼으로 後期社會에서 醜惡을 發見할 수 잇고 前期社會에서 善美를 立論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部分的 事實로 歷史의 進化를 否定하지 못한다. 原始社會는 封建社會에 비하여 粗朴한 觀念과 單純한 制度가 優雅한 것이 있다. 그러나 生産力의 발달에 의하여 前者는 破壞되고 後者가 形成되어 前者보다 複雜 또 豊富한 內容의 文化를 建設하였다. 그럼으로 封建社會를 咀呪하고 原始社會를 讚美함은 詩人의 感傷의 衝動으로는 興趣잇는 일이지마는 社會學者의 科學的 觀察로는 何等の 價値가 업다. 그리고 新羅 高麗 李朝 등 時代의 文化는 確實히 檀君時代보다 進歩하였다. 또 檀君時代의 자량은 다른 모든 民族의 共通한 原始社會의 特徵이요 朝鮮民族의 固有한 보배가 아니다. 물론 각 民族의 生活意識은 그를 構成하여서 部分觀念에 濃淡, 深淺, 厚薄重輕의 差가 잇서 각각 다른 民族의 特色을 나타내지마는 그러나 이 各異한 部分이 社會生活에 影響하는 範圍는 극히

制限한 것이오 또 그것은 文化의 進歩에 의하여 점차 解消될 必然性을 가진 것이다. 米國은 여러 民族으로 組織되었지만은 각 民族間의 各異한 性格은 거의 調和되어 다 가튼 米國民이 되었다. 그리고 오즉 從來文化의 差가 低劣한 民族은 이제 오히려 近代文化의 創造者의 班列에 參加하지 못하였다.

그럼으로 民族文化를 研究하는 目的은 어느 民族의 文化의 水準을 究明하여 進歩한 文明을 理解하고 建設할 準備가 있는지 업는지 考察함에 있는 것이오 과거로 復歸하기 위함이 아니다. 여기서 民族文化의 研究는 族譜學과 決定的으로 다른 것이다.

그런대 民族文化는 比較研究가 필요한 것이니 朝鮮古代의 優雅한 原始狀態를 了解한 우리는 가튼 時代의 다른 民族의 社會生活를 觀察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文籍에 나타난 露西亞의 머루와 獨逸의 막크와 英國의 마을 印度의 村落 共產體 등은 모다 原始社會와<53> 宗教의 民主的 直觀的 創造的 樂天的 武俠的 調和와 優雅를 자랑하거나와 同一時代의 朝鮮民族도 이러한 樂天的 生活를 享福하였스리라. 그러나 民族研究者는 如何히 誇張하여도 文獻에 나타난 朝鮮民族의 과거 生活文化는 이상 諸民族의 그것보다 貧弱한 것이 事實이오 또 그 까닭에 朝鮮民族의 古文化는 오즉 斷片的 記錄을 남기고 말었다.

그리고 民族集團의 生活本能은 어느 民族은 遠心的이오 다른 어느 民族은 求心的이라는 特色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原始民族에 있어서도 自然觀念의 純粹性은 保障할 수 업는 일이거나와 近代民族은 모다 文化觀念의 混合體이다. 히트레一派는 獨逸民族의 純粹性을 强辯하지만은 現 獨逸民族은 게루마니族, 추톤族, 을랍族, 나살族 등의 混合體인 것은 歷史가 立證하는 바이오 및 猶太族 歷史上 時間的 新舊 및 長短의 差는 업지 아니하나 또 混合體인 本質은 現 米國民도 다르지 안타. 그리고 烏居龍藏씨의 研究에 의하면 「古 日本民族은 아이누族以外에 1. 朝鮮, 滿洲, 沿海州, 東蒙古 등 지방으로 渡來한 固有民族과 2. 쓰마토라 보르네오, 세레베쓰, 比率賓, 臺灣 등으로부터 渡來한 印度네지안系의 것과 3. 南支那에 예로부터 居住한 苗族 系統 즉 印度 支那民族이라고」하였거나와(有史以前の 日本) 朝鮮民族도 能粹한 單一民族이 아니다. 人種의으로는 아르타이族과 崑崙族이 混合되었고 民族으로는 滿洲 諸民族 漢族, 蒙族 등이 混合되었다. 그리하여 日本民族間에 여러 民族의 差異가 이미 消滅된 것과 가튼 朝鮮民族의 그것도 揚棄되어 歷史的 社會的 朝鮮民族이라는 一型의 生活와 意識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 民族研究는 여기서 出發하지 아니하면 아니한다. 즉 어느 人群이 一型의 生活와 意識도 形成한 文化段階에 이르러서 비로소 一民族을 構成하는 것이니 氏族觀念이나 部族觀念은 즉 原始民族의 生活와 意識은 近代民族 研究의 中心問題가 될 수 업다. 그리고 三國時代 이후의 朝鮮民族과 漢民族과의 差異은 言語와 衣服 이외의 精神生活에서는 發生할 수 업을 만큼 消滅되었고 또 그것은 朝鮮의 固有한 文化를 破壞함으로써 實現되었으므로 朝鮮의 封建文化는 朝鮮의 特色이 업거나와 그러나 현재는 朝鮮民族은 이 過程에서 形成된 것이오 原始民族의 延長이 아니다. 그리고 朝鮮의 古文獻에 中國의 書傳과 詩傳 가튼 또는 日本의 古史記와 萬葉集가튼 民族의 經典이 업서 民族의 生活를 單的으로 表現해 오지 못한 것은 遺憾이나 그러나 朝鮮民族의 歷史的 또는 社會的 存在가 업지<54> 안타. 그럼으로 이제 세삼시럽게 神話에서 一片 童話에서 一片 歌謠에서 그리고 詩에서 一句 또 文에서 一節을 주어 모혀서 「續三綱行實」을 出版할 必要는 업다. 엇지 그래나 하면 일즉 「三綱行實」의 社會的 功果를 안 朝鮮人은 그를 朝鮮人의 事蹟만으로 新編한다고 더 만

흔 效果가 잇슬 것을 약속할 수 업슴으로써이다.

그리고 多神思想 家族主義 太陽崇拜 등은 中世紀 이전의 모든 民族의 共通한 生活觀念 및 儀式이어니와 특히 多神思想의 宗教民族은 文明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또 太陽崇拜時代의 朝鮮民族은 스스로 文化段階를 展開하지 못하고 一層 進化한 外來文化을 輸入하였다. 이것은 文獻的으로 證할 수 업스나 人類文化의 歷史段階를 理解함으로써 斷言할 수 잇다. 원래 太陽을 崇拜하는 多神民族은 社會進化에 의하여 必然的으로 一神民族이 된다. 中世紀의 基督教가 歐洲를 席捲한 것은 다른 付隨的 이유도 잇지마는 그 根本理由는 그의 一神思想이다. 다시 말하면 歐洲 諸民族의 太陽崇拜思想은 그의 必然的 發展形態인 一神思想에 歸依치 아니치 못한 것이다. 그러나 朝鮮의 原始民族은 歐洲의 諸民族과 가치 太陽을 崇拜하였지마는 마침내 一神宗教를 가지지 못하고 多神民族이란 것은 그間 多神民族의 進歩한 文化를 輸入한 까닭이다. 그럼으로 이제 종래 朝鮮民族의 多神思想을 讚美함은 野蠻을 證歌함과 가튼 것이다. 또 歷史上 朝鮮民族은 種族奴隸를 가진 일이 업스나 奴隸制度가 업지 안코 또 奴隸가 업지 아니 하였다. 모든 民族의 私有財産制度의 起源인 奴隸制度가 朝鮮民族의 限하여 업슬 일이 아니냐. 그리고 丁若鏞의 牧民心書에 奴隸에 관한 一編이 잇섯는데 最初 出版者가 削除해 바*다. 그 이유는 古來로 朝鮮의 奴隸制度가 너무도 殘忍하여 그를 外人에 알릴 수 업슴으로써 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朝鮮民族이 古來로 種族奴隸를 가져 보지 못한 것은 周圍의 征服者로서 나타나 보지 못하였음을 說明하는 條件이니 그로써 非武俠的 生活은 立證할 수 잇스나 武俠的 特徵은 證明되지 안는다. 그리고 만일 朝鮮民族이 希臘民族가티 만흔 種族奴隸를 가질 수 잇스면 朝鮮의 古代文化는 希臘의 文化에 비하여 遜色이 업섯슬 것이오 그와 동시에 朝鮮民族은 一層 理和的인 또<55> 創造的인 榮冠를 켜스리라. 그러나 希臘民族과 가티 周圍를 征服하지 못한 朝鮮民族은 (그러한 對象도 업섯지마는) 多大數의 奴隸를 가지지 못하여 小數 奴隸를 酷使하였고 그러나 人數에 制限된 저들의 黃金의 알(卵)은 支配階級の 享樂과 奢侈를 制限하여 貧弱한 文化를 產出함에 그쳤다. 그럼으로 우리는 慶州의 古文明을 觀賞할 때 당시의 奴隸大象의 生活을 생각해 보는 것은 原始社會를 憧憬함과 가튼 感傷的 衝動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朝鮮民族과 가튼 滿洲族인 女眞, 契丹, 遼, 金 등 族은 東征西伐하여 武侯과 勇猛을 世界的 떨치고 朝鮮民族은 겨우 乙支文德, 淵蓋蘇文 등의 守勢戰에서 武勇의 자취를 傳할 뿐 이지마는 그러나 현재 以上の 滿洲族은 各地에 散在한 人口를 總合하여도 300만명에 지나지 안코 또 그 文化는 朝鮮民族보다 低級이다. 그러타고 저의 固有한 言語와 文字가 업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兩者間에 數와 資의 懸殊한 差가 생긴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問題는 一般으로 民族的 優越性을 主張하는 者의 解決하난 바 아니다. 그리고 이 問題를 解決하지 못하면 朝鮮民族의 歷史的 및 文化地位를 理解할 수 업다.

滿洲民族은 蒙古民族과 가티 牧畜民族으로서 農業을 兼營하였다. 그럼으로 定位性이 缺如하고 또 저의 移動할 지역은 四面으로 展開되어 南征北伐 일삼은 동안 農業文化를 가질 수 업섯다. 그와 反하여 朝鮮民族은 半島에 定着하여 進歩한 封建文化를 樹立할 수 잇섯슴으로 비

록 武勇은 저를 미치지 못하였으나 數를 增加하고 또 質을 向上하였다. 그리하여 朝鮮民族은 新羅이후 高麗이후 李朝를 통하여 滿洲民族과 다른 生活 및 意識을 가지었다. 그리고 農業文化의 集中的 表現인 佛敎와 儒敎가 이 시대의 朝鮮人 生活과 結合한 것은 偶然한 일이 아니다. 그럼으로 朝鮮民族은 原始時代의 優秀한 特性이 佛敎 및 儒敎의 輸入에 의하여 破壞한 것이 아니요 그 過程에서 滿洲族보다 優秀한 文化를 建設하여 一型의 民族을 形成하고 또 그 存在를 確立하였다. 그리고 家族主義는 이 시대의 中心思想인데 朝鮮에는 일즉 中國에서와 가튼 大家族制度가 實現되지 아니한 것은 人多地狹하여 土地를 *分하지 아니할 수 없었음으로써이다. 따라서 朝鮮의 集約農業이 일즉 中國보다 發達한 것을 理解할 수 있다.<56> 그리고 中世 이후의 朝鮮民族은 儒佛敎의 影響으로 말미암아 派閥의이 되고 또 批判에 短한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은 朝鮮民族의 固有한 弱點도 아니다. 封建文化은 모든 民族으로 하여금 다 가티 그러한 弱點을 가지게 하였다. 中世紀의 歐洲 諸民族도 그리하였고 현재의 漢民族도 印度民族도 그리하다. 요컨대 文化民族을 바리고 原始民族을 배오는 이유는 內容이 汲지 못하다. 그리고 山鹿素行의 理論은 歷史的 傳統의 體系가 잊거니와 이제 그를 直譯한 理論은 朝鮮民族史의 解說이 될 수 없다.

나는 民族研究들 反對하는 者가 아니요 그의 必要를 切實히 寗김으로 그 方法에 대하여 卑見을 말치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民族을 研究하는 方法은 經驗的 思想을 바리고 經驗的 知識으로써 文化的으로 中斷되지 아니한 과거와 현재를 聯結하여 그을 어느 哲學的 體系=世界觀 社會觀 우에서 現實的 眞相을 理論的으로 組織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從來 民族研究者 中에는 혹은 과거 史實에 重視한 傾向을 가진 者 업지 아니하여 현재의 自我를 科學的으로 究明할 수 업서 發展的 契機를 살피지 못한 嫌이 잇슴을 否定하기 어래울 줄로 알러니와 그것이 마춤내 朝鮮魂은 原始主義=마베리즘이 되고 朝鮮心은 多神主義=사마니이즘이 됴에 이른 것은 必然한 歸結이 아닐가. 그리고 그것이 進步的 動力과 對立함은 어느 物質的 勢力보다도 오히려 큰 것이 잇슴을 이저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社會的 根據가 後者보다 汲흔 까닭이다.

원래 民族은 自然觀念이 아니요 文化觀念이어니와 아인슈타인은 時空의 絶對性을 否定하도록 時代가 變한 이 때에 잇서서 文化의 不變性은 즉 完成한 文化意識으로써 出發한 民族研究는 取할 바 아니요 또 큰트의 所謂 神學的 時代가 形而上學的 時代로 다시 形而上學的 時代가 科學的 時代로 變한다 함은 科學時代에 이르러서는 宗教, 道德, 法律, 政治 기타에 관한 傳來의 文化意識이 揚棄함을 이룸이 아닌가.

17世紀 이후 白人種이 世界를 征服하든 過程에서 저들은 民族에 대하여 先天的 優劣論을 唱言하였다. 그리하여 有色人種이 저의 奴隸* 된 것을 하날님께 感謝하였다. 그러나 有色人種이 前進함을 따라 저의 民族原理는 變하지 아니할<57> 수 업섯다. 米國 클라크大學을 中心으로 한 民族心理學派가 出現하여 先天的 原理에 의한 民族優劣論을 破棄하였다. 同學派의 참파렌(1843-1914년)은 文化 및 原始生活을 生物學的(自然的) 類推로부터 버서 나나서 心理的으로 分析하였는 대저는 人種의 差異 文化와 野蠻의 差異는 生物學的 및 心理學的 差異에 倚함보다도 歷史上的 機會에 依存함을 明白히 論破하였다. 푸란즈보쓰는 이 思想을 繼承하여 文化的 成果를 精神的 本能에 의하여 測定함을 科學的으로 證明할 수 업는 것 文化的 差異는 生物學的 原因보다도 歷史的 原因에 의한 것 白人種은 心理學的으로도 優秀하지 안코 또 生

物學的으로도 모다 高級으로 發達하고 있지 아니한 것 등을 立證하였다. 뿐만 아니라 地理的 環境은 住民의 身體的 形相을 變換는지 모르나 그의 變更의 樣式 및, 程度는 明確하지 안코 또 地理的 環境에 의하여 완전히 文化가 決定되지 않음을 主張하였다. 저는 人類의 心意的 同一說을 支持하고 原始人과 現代人과의 間에 본래의 精神能力的 發達程度에 關하여는 何等の 差異가 없고 文化上的 各各 差異가 있슴은 오즉 그의 發達하는 機會에 差異가 있는 때문 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보쓰는 쓰벤사 푸레자 테를노 및 기타 古典人類學者의 主張하는 바 人類 및 文化의 本質 및 能力에 差異가 있다는 從來의 學說을 완전히 否定하였다.

그럼으로 현재의 民族研究는 形面上學的 時代의 文化研究가 아님은 물론이요 生物學的 本質 및 能力的 立證도 說明도 必要치 안타. 文化와 野蠻의 差異는 歷史上의 機會에 依存함을 생각하여 民族研究의 端緒를 資本에서 發見하여야 한다. 물론 近代民族은 資本主義의 產物이니 인저 近代國家의 民族意識을 理解하지 못하면 民族研究는 學理的 基礎를 세울 수 업는 것이 다.<58>

<52-58>

6.

잡지명: 삼천리 제9권 제1호

발행년월일: 1937년 01월 01일

기사제목: 三千里論壇

필자: 本誌主幹 金東煥

기사형태: 논설

三千里論壇

本誌主幹 金東煥

南總督 大野政務總監 祕書官 등 現統治首腦部는 어제까지 滿洲國政에 關여하든 분들이라 그 南總督이 植田大使와 회견한 저 유명한 圖們會談의 結果로 朝鮮一如의 政策이 확립된데 대하 여서는 吾人으로 감히 容解코저 하지 않거니와 다만 文化施政에 있어서까지 滿洲國표준으로 我朝鮮을 律하여서는 吾人은 크게 불복을 唱하는 바이다. 생각컨대 彼滿洲國은 건국한지 겨 우 4箇年, 그 민족의 構成에 있어서도 彼는 日滿漢蒙鮮 등 純一되지 못한 雜多민족의 집합체 임에 反하여 我朝鮮은 檀箕以來의 단일민족이며 彼滿洲國에는 아즉 文化上 燦然한 역사적 유 산이 쌓여있지 않음에 反하여 我朝鮮은 三國時代 이래의 대문명이 수천년동안을 두고 쌓여 있어 堂堂한 文化민족으로서의 전통과 영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 彼는 3천만 我는 2천만 彼는 아즉 低度의 文化를 가졌음에 反하여 我는 施政 30년에 맞어 이미 比較적 高度文化를 가지고 있슴에 불구하고 었지 文化施政上에 있어서 彼와 동일시함에 자감하랴. 吾人은 이 점에 크게 불복하는 바이다.

듯건대 滿洲國은 爲先 言論을 통제하여 諺文紙로는 滿*日報 一社主義로 進한다 한다. 또 학 교교육도 重農重商主義로써 實業教育에 一貫할 방침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言論 一社主義 나 교육의 重農商方針은 단지 滿洲國 施政上的 그 一例에 불과하다. <68>

그러나 彼에 없는 地方自治機關과 中樞院 各道參與官制를 가지고 있어 이미 어느 정도의 정

치적 자유를 가진 我朝鮮에 있어선 2천만 인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現有 三民間紙만은 어디까지든지 許與할 관용을 가지기를 바란다. 단 非國民的 태도에 대하여 일시적 응징을 가함은 此는 예외겠지만 요건대 언론과 교육에 있어서는 행혀 꿈에라도 滿洲國과 我朝鮮을 混同말기를 바란다.

百萬圓財團을 세워 놓아야 中學校를 허락한다는 富永學務局長의 新教育政策에 我等은 찬성할 수 없다. 이것은 민간측에 현재 교육자금으로서 中學 12校의 수천만원이란 거액의 돈이 集積되어 있는 것을 파리쫓듯 스사로 물니쳐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日本內地에서는 현재 評價 15억원 云하는 전기사업조차 「民有國營」으로 하고 있고 또 私鐵에 대하여도 前田錢相은 亦民有國營을 주장하려 聲明하는 때라. 民間人士의 품에서 돈을 내게 하여 私學을 크게 勃興케 함은 一面 그네에게 「花を持せ乍ら」總督府 교육정책에 協調 合流식힘이나 다름없는 좋은 結果를 낳지 않는가 況 현재 總督府豫算에 교육비가 넉넉하여 학교시설이 포화상태에 있다면 別 문제이겠지만一. 教育令만 엄중준수식히게 하고 民有國營的인 이 私學案을 엿재서 거부하려는고, 안타깝기 그지 없다.

吾人は 기억하노라. 大正 8년 卽後 *藤文化總督이 거느리고 온 幕下에 柴田氏란 學務局長이 있었음을, 이 柴田局長은 校舍야 엿갯든 학교자금이야 있든 없든 모든 것을 不問에 부치고 私學을 크게 獎勵하였다. 그래서 教育令도 그때는 「法三章」<69> 정도로 극히 간단하게 구성하여 1, 2천원만 가져도 講習所 私立學校를 마구 허락, 제도도 몹시 관대하여 晝學可也 夜學可也 朝晝夜 三部제도 可也 또 빠락크도 可也 木製草家도 可也 定員도 책상 놓을 자리만 있으면 1,000명도 可也 2,000명도 可也 이리하여 中東學校 등 都鄙處處에 교육기관이 林立, 글소리 街衢에 차다. 덕택에 向學熱이 크게 勃興하여 합병 20년만에 처음 보는 문화의 盛運을 이루다. 不知커라. 教育首腦者로서 이 賢明과 이 勇氣는 柴田氏一代에 끝치고 마든가.

私學 拒否의 이富永 이즘의 근본적 所由來를 吾人は 不知커니와 우리의 상식으로 制斷하면 선진사회의 一先例를 중심으로 謳歌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大隈伯이 早稻田大學을 처음 25,000원으로 시작했고 福澤諭吉씨 또한 慶應義塾를 40,000원으로 처음 창설했다. 그 때 富永 이즘이 만일에 당시의 文部大臣 頭腦를 지배하는 정책이 되었던들, 그래서 100萬圓을 모아오기 전에는 大學을 허락하지 않았든들 뒷날 明治 大正 昭和의 50년간을 두고 日本 全文化에 絶大한 공적을 끼쳤든 저 早稻田 慶應兩大學이 있었을리 있엇으랴. 따라서 永井柳太郎 高田草苗 등 廟堂에까지 선 功臣 인재들이 낳았을 수 있었으랴.

더구나 早稻田 慶應이 私學이라 하여 남으라는 분은 朝野에 아모도 없었다. 만일 이 「私學」의 존재가 失政失策이었다면 大隈早大總長이 재상이 되었을 적에 자기의 早大를 곧 帝國大學으로 곳쳐 놓아야 충신의 道에 어그러짐이 없엇겠고 慶大總長 鎌田榮吉씨 또한 직접 文部大臣에 취임하였을 때 취임 卽日 「私立慶大」를 國立慶大로 간판을 곳쳐 놓았어야 옳지 않았을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大隈鎌田 高田의 <70> 諸大臣을 아모개도 失政이라 부르지 않았다. 말이 이에 미치매 비록 4, 50만원식 가지고 시작하려는 오늘의 安岳高普 義州高普 慶州高普 水原高普 등 낙타가 바늘구멍 뚫느려는 것 같이 지극한 관문을 통과치 못하여 무수한 난행중에 있는 저 12 「私學」이 오늘은 비록 그 존재가 微微하다 할망정 10년 20년후에 早稻田, 慶應에 떠러지지 않는 큰 學府가 되어 昭和문화에 크게 공헌할 날이 있음을 누

가 부인하라. 重言 復言을 피하거나와 富永局長의 이 新教育이즘이 名辭가 무엇인지는 吾人은 不知하나다만 X政이 아닌 것만은 明瞭한 듯.

德壽舊宮속에 5층博物館이 신축되느라고 「甲子乙丑春三月에」엥야라차 하는 저 土役꾼 소리 들림은 크게 깃부다. 그러나 一步更進하야 古史互片만을 集積하는 이 博物館외에 또 원숭이 코키리를 모아두는 동물원 사업외에 李王家의 王家 100년의 사업으로서 美術學校나 音樂學校를 창설할 의사가 없는가. 법률 정치를 배우자는 학부설립을 감히 청하는 바 아니거나와 적어도 현재의 李王職 雅樂隊를 확장하여 東京 上野音樂學校나, 또 石造殿의 미술품진열을 확대하여서 東京美術學校 정도로 美術學校를 만들어 이 땅 「藝術」을 키워주는 모태가 되게 할 수 없을가. 현명한 條田 李王職長官과 本誌主幹 李恒九次官의 3考를 促.

曾經 共產黨員들을 改過遷善식하기 위하여 지난 12월부터 思想犯 保護觀察法이 실시, 그 이후의 추세를 살펴보면 대 첫재 民間新聞社에서 前科者란 이유로 이 多數社員(물론 曾經共產黨員)을 도로혀 驅逐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不穩思想」을 <71> 拋棄치 않는 不逞人에 대하여는 그도 당연하려니와 그렇지 않은限 다수한 인텔리층에게 집단적 실업을 주어서 或也 그네들에게 자포자기의 심리를 부어넣는다면 모처럼의 保護觀察精神이 도로혀 뜻하지 않은 역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가. 吾人은 생각건대 新聞社의 이 정책은 當局의 意에 迎順하기 위하여 소위 「打たれろを恐れ先づ尾を振ろ 野良犬かな」의 심리로 그리함이 많일가. 그렇다면 이 疑心暗鬼을 풀기 위하여 當局은 관대한 일개의 聲明이 있어야 옳지 않을가.況 「觀察法」의 소리에 절니워 벌서 「曾經黨員」으로서 해외에 도피하는 자 接踵하는 현상임에라. 그네가 국내에서 安住의 地를 얻지 못하고 도로혀 실의하여 國외에 내다르면 5년 10년의 긴 세월을 두고 장차 鮮內의 안녕 질서를 攪亂하려는 暗行工作에 나아갈 역심리를 가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리요. 었지 이 심리와 이 결과는 一新聞社에 지하라. 다수한 銀行 會社 學校 官廳에서도 新聞社를 본받아 전과자 追出의 學를 본받을 것이 明若觀火하다. 이 점에 대하여 절실히 法務, 警務, 兩當局에 深慮를 촉하는 바이다.

가본적 없는 扶餘는 모르겠으나 慶州 松都 平壤 등 옛 史上의 王都를 찾아가보면 한가지 遺恨이 있다. 그것은 이 古都들이 겨우 石碑나 頽落하는 樓閣射亭 몇 개를 가지고 있을 뿐으로 風致로나 景物上으로나 시인의 情懷를 찍어 당기는 아모 힘도 없는 것이다. 奈良에 사슴과 佛寺를 두어 千古의 風韻을 자아내게 하고 北京萬壽山에 학두름과 黃龍 그런 畫舫을 두어서 淸朝 300년의 故都 情調를 어떻게나 潤 흐르게 하고 있듯이 우리도 平壤의 萬壽台고 大同江에 적어도 「平安監事」의 <72> 榮華時代나 하다못해 회상하도록 푸르정청 수양버들 수천 그루쯤 심을지며 新羅 古都 慶州에는 학두름이나 사슴 수백마리 처서 또한 半月城 雁鴨池의 옛 풍취를 돕게 하여야 옳지 않을가. 慶北 金瑞圭知事の 發案으로 幸히 新羅祭가 생기어서 一年一度 紅袍角冠에 三絃六角 삼히는 옛 盛時를 회상케 하는 祭禮가 있다기는 하나 이것도 一時의 「御祭り騒ぎ」로 끝쳐버릴 뿐이라. 좀더 깊이 있고 *德스러운 祭日로 만들자면 여기에는 生硬한 道事務官級의 두뇌보다도 민간의 예술가들의 힘이 있어야 할 것이다. 當局의 着眼이 늦어진다면 민간단체나 新聞社에서 이만한 일을 할 수 없을가. 탄말이나 鐵과 공그리로 다진 沒風情한 근대도시 東京의 銀座通에 東京朝日 新聞社의 明斷으로 수양버들 수백 그루 심은 뒤 「銀座の 柳き」라고 하여 어떻게나 시대인의 마음에 그윽한 풍미를 던져 주었던고. 그대로 본받으라 함은 아니나 적어도 지금의 殺風景한 서울 鍾路大街에도 수양버들

몇몇 그루쫘 심은들 서울 長安이 얼마나 柔해지고 軟해질고. 그래서 모룩코나 모나코, 巴里 베니스같이 예술도시로서의 가랑할 그 계열에 서울도 설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었지 一遊客의 閑談일 뿐이라. <73>
<68-73>

7.

잡지명: 삼천리 제10권 제11호

발행년월일: 1938년 11월 01일

기사제목: 넷 同志에 告함, 「自然의 길」 = 前 左翼 諸友에게 答함

필자: 車載貞

기사형태: 논설

넷 同志에 告함, 「自然의 길」 = 前 左翼 諸友에게 答함

車載貞

내가 공산주의 민족주의 及 기타 일체의 반국가적 사상 계열에 대하여 배격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지도 받서 3년이 되어 온다.

그것을 표명할 당시 얼마 동안은 좌익 청년들의 脅迫狀도 날려 드리웠고 옛날의 좌익 동지였던 우인들의 간곡한 충고도 있었고 더러는 나를 面罵하는 용감 기특한 투사도 있었다. 그것도 잠시엔 불과했었고 于今 2년 반 여를 통하여 반대다운 반대에도 봉착하지 못했었다. 깃것 있었대야 지극히 저열한 개인에 대한 讒誣中傷이 고작이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조선내 좌익의 殘滓란 허잘 것 없는 무기력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나는 그렇게도 보지 않는다. 그들의 지속하는 침묵과 관망에는 정당한 방면이 있다는 것을 긍정하며 그들에게 일편의 존경의 念까지도 가진 일이 있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자면 나로서는 좀 더 강력한 반대를 기대하였었으며 도전을 바라고 있었다.

그들의 나에게 준 바 협박 중상, 唾罵, 충고 등등 가운데서 특히 대표적인 것을 기록해 보면 첫째로 협박 중상 부류에 속한 것으로는 판에 박은 듯한 저급한 것이다. 계급의 裏切リモノ, 민족의 裏切リモノ, 背教者, 제국주의의 스파이, 제국주의자에게 매수된 자 죽인다. 등등 한아도 경청할 만한 것도 없고 소위 부족 掛齒의 類에 불과하나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조선의 과거 공산주의자 及 그들의 판 가운데에 이 레벨에서 지나치는 부류가 과연 幾許나 될지 나는 의심한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공산주의가 한 종교 형식으로써 드리백혀 있는 것이다. 村夫 村女의 愚氓들에게 耶蘇敎나 불교의 비판 眼이 없어 그저 맹신 맹종에 굽치는 것과 같이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도<109> 의식이 분명치 못한 대중 층에는 그것이 종교나 다름없을 것도 당연한 일이며 운동 그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나는 과거에 있어서나 공산주의의 신도는 아니었다. 나는 공산주의를 조선 민중의 향상과 발전의 길로 인식하고서 그것을 실천코저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과 배치되는 한 공산주의는 받서 무용한 것이다. 과거 10년 동안의 조선에 있어서서의 공산주의 운동의 이론적 及 실천적 결과는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他日의 기회가 있으려니와 간단

히 주요한 맺 가지를 擧示하자면 첫째 조선의 민족적 개성과 역사 전통 及 現下 실정은 공산주의의 실천을 전면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것, 둘째로 콤포테론의 국제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최악적 지도는 조선 민중 운동의 정당한 발달과 향상을 파괴하는 것 셋째로 과거 4반세기 동안의 조선 민중의 고투의 존귀한 체험과 東亞史 발전의 신 방향은 主客 양 조건의 완전히 조선 민중에게 「자연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 준 것 등이다.

그러나 如上의 맺 가지는 원래로 맹종적인 공산 교도의 인식할 바 아니다. 그들은 조선 민중의 이익과 발전보담 오죽 공산주의의 活字에 충실하기를 원하는輩이며 민중의 복리보담은 관념의 法悅에 독선적 만족에 포만하려는 자들이다. 과거 조선 공산주의 진영에는 이러한 수준의 인물들이 비단 대중층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당의 지도층 인문에서도 차저볼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민중은 과학의 법의를 입은 經文의 活字를 요구치 않는다. 생생한 현실의 완전한 개선을 요구한다.

둘째로는 怒髮 沖天해서 唾罵하는 부류이다. 이들의 直情에는 실로 정에 늦기워진다. 었던老 지사는 여러 가지로 나를 面罵한 나머지 「내 비록 먹을 것은 없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베풀어주마... 나는 네가 그럴 줄이야-」하며 거짓 없는 揮淚를 하는 것을 보았다. 이와 동형의 옛날 동지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간 뒤에 조용히 혼자서 비판해라고」하고는 갈렸었다.

이들은 대개가 실천과 경험을 주로 하는 10년 20년의 역사를 가진 옛날의 투사들이다. 이들은 오죽 절조로써 모든 것을 비판하는 척도를 삼는 좀 頑冥한 편에 속한 사람들이나 나는 이들에게 은근히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가지고 현실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가진다면 그들을 국가주의에의 과감한 전향을 할 수 있는 直情 勁行의 인물들이다.

셋째로 충고파이다. 이들은 가히 더부러 의론해 볼만한 부류이다. 첫째 그들은 우리의 주장하는 국가주의의 조선에 있어서의 여부와 국가주의에 의한 조선 민중의 장래의 운명을 먼저 고려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110> 가장 당연한 태도이다. 그러나 그들은 대개가 일본 국내의 현실 분석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요소의 힘과 공산주의 세력의 역량을 과대 평가하는 데서 또는 소련과 중국 쏘벳 세력에 대한 同様の 지나친 평가에서 우리들의 국가주의를 반대한다. 그들의 이러한 비판이 失當한 점은 첫째 그들의 비판이 근본적이 아니고 너무나 정책적인 것과 또 보담 더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없는 것과 콤포테론에 대한 역시 근본적인 비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국내의 대부분의 민중은 강력적인 대륙 정책을 이해치 못하며 그리고 2, 26 사건과 같은 국내 혁신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일본에 팻쇼정치가 수립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다는 논거에서 조선에서 국가주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至難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그러한 인식이 정당치 안타는 것은 그 후의 모든 정세의 변화에 의하여 여실히 증명된 것이나 2년 전에 나에게 그러한 논거에서 국가주의 운동의 전개를 至難한 일이라 하여 그 중지를 권하든 그들 공산주의 진영의 留守 부대도 이제는 현저하게 그 인식이 정정되었을 줄 아다.

이상에서 나는 2년 數ヶ월 전의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국가주의 운동의 신 전개에 대한 반대의 경향을 타진 보고하였거니와 이것은 당시의 조선 좌익 운동의 동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도 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었다는 점을 드러 공격만을 삼고저 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나 개인에 대하여 여하한 박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로 문제가 아니다. 내가 우리 몇몇 동지들로 더부러 조선에서 반공 운동을 전개하고 국가주의 운동을 이르고저 한 동기는 좌익 운동의 결함과 조선의 특이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의연히 좌익 진영을 고수하고저 하는 좌익 요소들 가운데도 우리와 동일한 인식 과정에 도달된 때에는 반드시 우리들의 국가주의 진영으로 기입하리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진실한 민중의 지도자는 한 사상 체계에 충실하기 위하여 민중의 운명을 그르치지 않을 양심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주의는 공산주의 배격의 조건 아래서만 성립된다. 그러므로 과거의 공산주의자로서 국가주의에의 이행은 그다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종래의 그들이 생활하고 있던 세계에 대하여 절연하고 더 나아가 충구를 드리대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장 약한 인테리에게는 원래로 요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주의 진영의 진실로 精銳로운 지도자는 그들 중에서만 구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111> 한 가지 문제될 것은 昨今の 소위 「전향」이다. 이 전향이란 표현은 원래는 지극히 단순한 의미로서 좌익 운동에서 탈각하여 선량한 국민이 된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 같이 해석 되었었으나 나의 생각하는 바로는 국가의 법률이 그들 공산주의자에 요구하는 전향은 그것만으로 족할는지 모르나 그들 공산주의의 영향하에 노여있든 민중에게 대하여 그렇게 독선적인 전향행위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심한 轉向型에 이르러서 官警에게 대하여 각드시 전향을 약속하고도 외부 대중에게 대해서는 의연히 모호한 좌익적 口吻을 弄하는지 극히 비겁한 前 좌익들도 있다. 그런 型의 前 좌익들이 금후 여하히 발전될 것인가는 매우 흥미 있는 거리이나, 그러한 태도는 꼭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중지도의 책무가 있는 자는 전향 후라도 그들의 대중에게는 동일하게 책무가 남아있다.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는 간단한 이유다. 그러나 현명한 대중은 그들의 지도자가 전향하기 전에 앞서 앞질러 자기의 갈 길을 택해서 견실한 보조를 내 드리고 있다. 그것은 곧 조선 민중의 개성과 전통 及 현실이 지시하는 「자연의 길」이다.

昨今 수년 來의 특히 사변 이후의 조선 민심의 동향을 살펴보건댄 그것은 한 새로운 民衆 理想의 樞軸을 형성하려는 노력의 표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심 경향이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며 일시적 인공 소산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바치는 노력의 가지가지에 엉뚱할 진지성이 숨어있고 그 개개의 노력 자체가 이미 한 힘을 구성하여 있기 때문이다.

조선 민중이 사변을 통하여 현저하여진 일본 국민으로서의 자각적 표현과 亞細亞 우수민족의 일원으로서 이번 사변에 맞치는 모든 의무는 비록 자연생장적인 일면으로 엿볼 수 있다 하겠으나 그러케 됴에는 여러 자지로 과거 생활에서 축적된 정치적 사상적 자각이 크게 힘입어있다고 보겠다.

즉 今般 사변을 통하여 본 조선 민심동향의 특징은 그것이 놀랄만치 현실 귀의적인 것이라는 것과 동시에 일본을 사랑한다는 점이다. 今般 사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조선 민심의 현실 귀의의 특징은 그들의 과거 4 반세기 동안의 이상 추구의 생활이 결정해 준 자각이다. 그들이 일본을 사랑하는 대단한 표현을 하게된 것도 동일한 경로이다.

과거의 그들의 생활이 無理想한 凡凡한 생활이었든들 금일과 같은 이러한 비약적 현상은 기대키 어려웠을 것이다. 그들은 XX운동에서 공산주의 운동에서 실로 존귀한 체험을 쌓았다. 이상 추구의 공허를 만끽하는 일면 역사와 현실이 결정하여 주는 자기의 개성을 충분히 자각한 것이다. 이러한 자각이<112> 있었음으로만 비로소 과거에 대한 하등의 顧念 집착도 없이 솔직 대담한 국민 행진을 감행할 수 있었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일본의 번영을 바라고 일본의 興隆을 염원하게 되는 것은 「밝아오는 새 일본」을 동경의 표적으로 삼은 까닭이다.今次 사변에 나타나는 신 일본의 포부와 이상이 그들로 하여금 과거를 一擲케하였든 것이다. 2, 26 사건 이후의 혁신 조류와 이것의 유력한 실천 표현으로서의 대륙정책의 강행 - 支那 사변 등등 신 亞細亞 행진의 대규모의 소음은 조선 민중을 그들의 長夢에서 불러 깨인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과거의 조선의 좌익적 諸 운동은 功罪相半이다. 엇던 논자와 같이 더퍼노코 과거는 불살너 버릴 것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조선 민중 근대적으로 자각시켜 그 의식 수준을 세계 수준에 노아준 것은 분명히 좌익의 공이다. 맑스주의 - 공산주의 그것에 대하여도 역시 同様の 발언을 할 수 있다. 現下의 사회는 무수히 匡正해야 할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결함을 극명, 면밀하게 세계적 규모에서 지적하고 그 匡正의 방법까지 부분적으로 지시하여 준 것은 분명히 맑스주의의 공로이다. 우리는 맑스주의의 정당한 부분까지도 거부할 이유는 없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영양소이다. 원래로 맑스주의는 추상적인 사상 체계이다.

그러한 추상적 공식이 무조건하고 전적으로 해당될 구체적 사회란 현실 세계에는 어디나 존재치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것을 세계의 맑스주의의 포교사들은 그것을 그대로 현실하는 천국을 몽상하였든 것이다. 공산주의가 범한 죄악은 그 책임이 맑스 자신에 있는 것은 아니며 그 후의 해석자, 포교사들에게 있는 것이다. 원래로 개개의 구체적 사회에 대한 변혁이란 몇 개의 공식에 의해 될 것이 아니니 이것은 맑스주의 자신이 거부하는 바일 것이다.

더구나 콤포테룬과 같은 우상적 조직을 두너로 한 각 국 각 민족의 운동이 當該 국민 사회의 개성과 전통에 일치될 수 없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콤포테룬의 세계정책의 실패는 곧 각개 국민사회의 승리이다. 한 민족 사회의 樞軸은 과학이 아니라, 개성이며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맑스주의의 세계적 규모의 실천에서 배운 것이다.

이러한 고귀한 교훈을 조선 민중은 今次の 사변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실천해 옴진 것이다. 過般의 長鼓峯 사건을 통해 볼 때에도 조선 민심은 추호의 동요도 없었다.

2, 26 사건을 목도하고 그 후의 혁신 조류를 보고 또 今次の 사변을 통하여 나타난 일본의 이상과 포부를 듯고도 오히려 일본의 제국주의 운운을 말할 자는 크렘린의 과대 몽상광 환자들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행여 불행하게도 조선에도<113> 있다면 그것은 이미 塚中の 腐爛屍나 다름없는 태양에 등진 사람들일 것이다.

나는 이상에서 一應, 과거 좌익 운동의 정당한 방면을 드려 辯解하였으나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는 일본의 국가적 興隆과 아울러 조선 민중의 신생활 목표는 공산주의적 殘滓의 일호일지라도 용납될 수 없다.

조선 내에만 수천의 前 좌익이 있다. 그들 가운데에는 昨今의 조선 민중의 새로운 애국적 국민적 경향을 대할 때에 가벼운 불유쾌를 느길 것이며 묵묵한 가운데 사변의 발전이 엿지될 것

인가를 주시하는 동시에 사변의 장기화에 반하는 민심의 해이에 꺾임한 기대를 붙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선 민중은 과거 4 반세기 동안 하늘의 별을 따는 곡예를 해 온 경험이 있는 민중이다. 그러한 空漠한 희망에도 수십 년의 고초를 사양치 않은 민중이려든 하물며 한 고개 넘으면 녹야의 복지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소소한 충후의 부자유를 거부 회피할 이유는 없다. 타산에 현명한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일뿐더러 또 타산을 떠난 관찰로라도 조선 민중의 세계사적 운명이 이미 일본 전체의 운명과 동일한지는 오래다. 이제 새삼스러히 일본 전체의 운명과 殊異한 독자의 운명이 있을 것은 아니다. 과거 4 반세기 동안의 우리의 공허한 노력이 그것을 여실이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 차라리 우리는 과거 4 반세기의 노력의 결과에서 조선 민중의 독자의 운명을 발견키느커녕 그와 반대의 명제를 추출하지 안었는가. 그 동안의 다각적 노력은 더욱 더욱 양 민족의 일체 不可離를 거듭 확인케 되었을 분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 동안의 상극 반목은 도리혀 양 민족의 차별면과 障害部面을 완전히 磨滅시킨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것은 커-다란 역사의 숙명이며 세계사의 配劑이다. 이제 그러한 愚蒙을 되푸리하려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역사의 반역자이며 태양에 등진 우울한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는 극동 諸 민족의 변혁 이상을 검토해 볼 때 現下 진행되어 있는 일본의 대륙 이상 이외의 여하한 우수한 이상도 발견하기 어렵다. 문화, 전통, 지리, 언어, 族系 등의 연원을 같이 한 和鮮滿支의 諸 민족이 그들의 자유와 행복을 향유하면서 東亞적 대국가 계통을 수립하여 歐米에 병립하여 東亞인의 東亞를 건설하려는 포부는 일호의 무리도 부자연도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길이다. 더구나 이러한 東亞史 창조의 큰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內鮮兩 族이 일체가 되어 그 중추 핵심을 구성하여 爾余의 諸 민족에 대하여 지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손톱 만한 불명예와 불행도 조선 민중에게 <114> 없을 것은 제 3자의 공명을 기다리지 않드래도 자명한 일이다.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혼란 있고 교양 있는 조선의 민중은 이미 이것을 이해하고 남음이 있다. 사변 중 일본 내지를 여행한 자가 조선의 충후 국민의 의기를 내지의 그것과 비교하여 조선이 오히려 일보 전진한 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의 대륙 정책의 심원한 이상을 이해하는 점은 조선 민중이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나도 생각한다. 일본 내지에는 자유주의 계열이 조선에 비하여 근거 깊고 또 2, 26 이전까지는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 廟政의 중심이 되었을 뿐 아니라 유신 후 70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그러한 자유주의 계열에 있었든 만치 대륙 정책, 기타 국내 문제에 있어서 조선의 그것과 같이 단순치는 않다. 그러한 諸 점에서 조선이 일보 전진했다는 것은 수궁할 수 있는 奇說이다. 그럼으로 역사는 기이한 것이다. 여하튼 조선의 금후는 국가주의 이외의 여하한 사회 이상도 성장할 조건은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이러한 신 일본의 이상을 대변함에 대하여 몇 가지 반문을 하는 것이 통례이다.

첫째 內鮮一體라 하는데 그것은 가능할 수 있느냐는 무름이다. 이러한 반문은 대개 민족주의 계열에서 발하는 의문인데 과연 민족주의자들의 식견에서 볼 때에 그것은 커다란 의문임에 틀림없다.

그들의 이해하는 한의 민족이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민족이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한 역사적인 것이니 생성, 발달, 몰락할 수 있는 역사적 범주이다. 그럼으로 현존 민족의

구성을 상세히 검토해 볼 때에 純正 단일민족이란 잊지 안다. 가장 純正을 말할 수 있는 현재의 일본민족일지라도 조선을 除하고서도 北海道, 琉球, 기타 수세기 내지 수십세기 전의 조선민족의 이주 등의 사실을 열거할 수 있으니 況 기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럼으로 內鮮兩族은 민족으로서 일체가 될 수 있다는 원리를 거부할 논거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근본 문제 이외에 정책적 의문이 있으나 그것은 누구나 한 번은 의심할 만한 문제이다. 한아는 內鮮 일체는 조선 민족의 XX을 의미하지 않는가 하는 것인바 內鮮 일체는 조선 민족의 XX이 아니라 조선 민족의 발전이다. 발전도 XX으로 해석하면 논리의 유희로는 가능한 형식이다. 팽창하지 못하는 민족은 멸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愚問은 고루 편협한 견해의 일종이며.<115>

그 다음은 통치 當路者 및 내지인 일반이 조선인을 동일 민족으로서 무차별하게 취급할 아량과 용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그것은 비교적 현명한 층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우발되는 질문인 바 과거 30년 동안 來鮮 내지인의 실정을 잘 아는 그들로서는 당연한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한다. 「조선에 와서 조선인을 상대로 해 온 과거의 來鮮인은 과거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발서 새 일본의 추진력이 될 수 없고 그들은 한 수년 지나면 죽어버린다」라고 과연 조선의 來鮮인은 조선을 개발하는 데 큰 공로도 있었으나 그들의 30년 來 변함 없는 頑冥한 생각은 조선 통치에 장애되는 일면도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점은 극히 사소한 문제로서 원래로 대세를 결정할 것이 아니다.

內鮮兩族이 同祖同根을 구두로 문서로 가장 열심히 일본 전 국민에게 웨치는 사람은 동경 등지에 浪人들이 있고 그리고 현 南總독이다. 그는 內鮮一體를 신념화식혀있다. 南總독의 內鮮一體론이 일본 전 국민에게 무조건으로 납득될 리는 없다 하더라도 그 대세를 지도할 만한 힘이 있는 것은 無疑의 사실이라 하겠으니 내지인 일반에게는 대세적으로 동일 민족으로서 조선인을 처우하는 데 이론이 없을 것을 용이히 추단할 수 있다.

특히 今般 사변 이래 조선을 통과한 출정 壯士는 실로 감격하여 조선 민중의 好인상을 각자 향리에 통신하여 일반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깊어졌다 한다.

萬條의 정책보담도 內鮮一體의 가장 첩경은 內鮮兩族의 완전한 이해의 일치이다. 內鮮兩族은 이미 천청의 각 일방에 달려있으니 역사시간의 진전은 이것을 스사로 해결할 것이다.

이에 수반한 것으로는 언어 풍속 습관 등이나 이것은 원래로 문제시할 것이 아니다. 인위 強作이 아니고서도 이것은 시일의 경과를 따라 실생활의 편의에 따라 消長이 결정될 문제이니 억측을 불허할 바이다. 그것의 유력 실례로 수일 전의 南 總독은 면회석상에서 「조선의 부인복을 內鮮을 물론하고 착용케 하고 십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아 총독 정치의 저의가 조선 풍속 습관을 強作적으로 철폐할 의사가 없는 것은 명확하지 않는가.

그 다음으로 조선의 인텔리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갖고고서 우리에게 발문하는 것은 「명일의 일본, 새 일본을 말하자면 명일의 일본은 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하는 지극히 중대한 設問이다. 그럴 때마다 간단한 답변을 試한다. 「2, 26 사건 이전의 자유주의의 정권은 - 한 계급의 정권이었으나, 그 이후의 정권은 전 국민의 정권이며 정부이다」라고 나는 항상 생각한다. 2, 26 사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116> 비난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반역죄로서 治罪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본 전 국민에게 준 정신적 충격이란 실로 막대한 바이 있으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본 전 민족의 전통의 자량은 다시 사라났고 일본 민족의 갖고 있는 「민족의 피」는 다시금 鼓動키 비롯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일본의 전 민족을 外化의 타락에서 구하였고 고유한 일본 정신을 환기한 것이다. 그럼으로 한 범죄가 사

회적으로 맞아주는 객관적 효과는 법률과는 별 문제인 것이다.

이상의 나의 간단한 답변은 소위 「명일의 일본」을 窺知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이다. 이제로부터의 일본은 자기의 가고저 하는 「자연의 길」을 일본 민족의 역사적 사명의 명하는 바에 의하여 세계사의 결정하여 주는 방향으로 향하여 묵묵히 驀進할 뿐이다. 일본 정신적 사회가 완성 - 근대적으로 완성되는 곳에는 계급도 없고 착취도 없다. 이민족에 대한 박해도 식민지적 지배도 거기에는 존재치 않는다.

「(이하 6줄 일본문)」

명일의 일본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내적 혁신 정책의 강화와 사변과의 상관 관계이다. 支那事變의 의의는 이미 국민 일반의 깊이 이해하는 바러니와 單히 사변을 가르쳐 暴支을 항일정권의 근절 등등만으로는 사변의 역사적 의의를 참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日支事變은 국내적 혁신공작의 중요한 일면이라는 것을 - 즉 사변과 국내 정세와의 내부적 관련을 이해치 않고서는 이 사변의 중대성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支那事變은 국내 혁신의 구체적 과정의 일부이라는 것이다.

이 사변을 통하여 우리는 국내문제를 처리하고 동시에 東亞의 문제를 처리코저 한다. 일부 資本閥 등은 나이푸 포크를 작만해 갖고 대기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금번의 사변은 일본의 자본 閥들에게 長江의 鮮魚나 北支의 羊肉을 맥이기 위하여 고귀한 희생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로 이번 사변이야말로 전 일본의 국력을 賭하여 歐米의 脅威와 침략에서 東亞를 해방하고 일본 자신의 완전한 해방을 기도하는 결정적 싸움인 것이다. 국내의 資本閥들은 當와 財의 추구에만 몰두하여 국가 백년의 대계라든지 민족 영원의 경론이라든지 생각지 못하는 데서 이번 사변에 대한 인식을 다른 그야만로<117>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과 동일한 것으로 하여 전쟁의 결과와 그들의 이윤을 저울에 달고 數盤알을 굴리고 있을는지 모르나 그들은 未久에 크게 실망할 것이다. 아니 눈치 빠른 상인배는 벌써 실망하고 있을는지 모른다. 이러한 점은 사변과 국내 문제와의 사이에 幾分の 복잡성을 가하는 문제중의 한아이다.

자본 政黨輩 기타 상인 재벌 등은 일시 對英開戰論을 주장하였었다. 그 근거는 그들 독자의 事變觀에서 支那시장 獨占을 몽상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번 사변의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支那시장의 帝國主義的 독점이 아니다.

차라리 금번 사변의 본질로 보아 그 역사적 의의로 보아 사변의 완전한 종국을 맺기 위하여는 對蘇一戰이 예상될 법한 일이다. 일본의 국체 또는 동양의 평화 동양적 개성의 창달 동양전통의 수호 일본정신의 發揚 등으로 보아 소련이 빠치는 극동 루-트는 조만 파괴치 않고서는 아니 될 필연적 숙명에 있다. 세계의 푸로레타리아와 약소민족을 기만하여 소련 옹호의 藩屏을 삼고저 하는 콤포테론의 卑劣한 瞞着을 근절치 않으면 안된다. 소련에 일격을 가하는 것은 금번 사변의 임무의 중요한 일부이며 그것의 완성 부분이다.

내외의 좌익 제군은 아연할지 모르나 조선의 민중은 對蘇一戰을 차라리 요망할 것이다. 그것은 조선의 지주나 자본가가 아니라 농민이며 노동자들이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생활 목표가 쥐여져 있고 그들의 민족적 개성과 전통에 합치되는 국가적만이 자기들이 갈 진로라는 것을 과거의 모든 실천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사변의 결과가 그들에게 어떠한 운명을 제재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보아 좌익 제군이 이 사변의 추이에 반하여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내적 諸 問

제에 대하여 그들은 하등의 기대도 갖을 수 없다. 그들은 머지 않아 전쟁에 관한 모든 콤포멘트의 테-제를 불살러 버리지 않고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할 것은 사변 이후의 조선 내에서 나타나는 諸 현상이다. 사변이 나자 시국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의 활동이 부분적이거나 현저하여졌다. 그래서 소위 「時局に躍る名士」라는 것이 據然 배출한 것은 은폐할 수 없는 사실인 바 그들 명사의 면면을 볼 때 제군은 하품할는지 모른다. 제군은 사변 하의 총독 정치에 적지 않은 기대를 갖었을 것이다. 교육령의 개정, 지원병 제도의 실시 등 이것들은 그에 좌익 제군의 만족을 幾分이라도 산 줄로 안다. 그러나 기타 예를 들면 관민 콤포비의 시국활동이라는 데 나타난 총독부의 방침을 볼 때 제군은 異口 同音으로 (1頁略)(제 134頁에 續)<118> 나는 이 글의 冒頭에서 침묵 관망을 지속하는 前 좌익제군에 일편 경의를 갖인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들이 그 거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다는 것을 지칭함인 바 그들에게 이 조잡한 一文을 供하여 빛나는 국민 전사가 되는데 一助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 (끝) -

附記 「지금 전시하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취급한다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어서 좀 더 생각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점도 있었으나, 자연히 체계도 아모 것도 없는 한담이 되고 말았다」 - 10월 5일 - <134><109-118, 134>

II. 한국 근현대 잡지 “민족” 관련 자료(1900년~1940년)

1.

잡지명: 대한자강회월보 제5호

발행년월일: 1906년 11월 25일

기사제목: 團體然後民族可保

필자: 著者 南嵩山人 張志淵 저자 남송산인 장지연

기사형태: 논설

團體然後民族可保 (단체연후민족가보)

著者 南嵩山人 張志淵

○夫國家之所以成立者 由乎其民族之團體集合耳라 雖有曠邈土地와 許多民族이라도 缺團合之義하며 乏團合之力하고 惟逐水艸轉移無常하야 欲自動自活하며 自營自私於穹環之間이면 是 野蠻之一部落耳라 在水蒙古鴻濛淳熙之時代則可커니와 在今日競爭劇烈之社會하야는 惡能逃劣敗漸滅之患也哉아.

團體之主義를 今舉國中稍有知識者는 皆能言之矣라 各報館之孜孜說明者 此也오 各社會之諄諄講演者 此也로되 夷者全國컨디 果有能零其實而充其旨者 抑幾人乎哉아 非惟國民全體之大團을 不能이라 卽一萬分之小小團體도 亦不能也하며 非惟頑固愚陋者之不能이라 抑號稱開新有志者도 亦不能也하니 嗚乎라 苟此不團合之惡性을 終不可以變也면 則此螺螺芸芸之所謂 二千萬民族이 竟不能有脫此羈絆之日矣오 竟不能有免此劣敗之厄하야 終底於萎枯漸滅而止矣리니 安得不痛恨이며 安得不太息이며 安得不骨寒而血熱也리오.

試問波蘭 越南之所以亡其族墟其國而蕩鴻逃竄하며 束縛箝制하야 以呻吟哀痛於寤寐食息者는 其罪 曷由哉오 豈非以政黨之間에 互相分派而裂門하며 民族之中에 <1> 各自附外而依他하야 同朝雖軋하며 同族相殘하야 營一己之私肥하고 忘公益之大義하다가 竟至於國亡家滅하야 并其私計而蕩然俱空하고 身及子孫이 隕穽而莫保者歟아.

嗚乎라 今我韓이 不幸近之矣라 如欲警惺而悔改之면 不得不溯究其受病之源因而論其鍼砭故로 略舉其由而說明之호리니 夫其由는 有五種病根焉이라.

一曰黨派之痼疾이니 蓋自國初로 已有歧視南北之漸하야 西北之枳塞人材와 庶孽之禁錮子孫이 已非大公保合之道어던 況其民族制度之界限等級이 狹隘太甚하야 使勢力으로 集合於中而起黨爭之端緒하고 使元氣로 消耗於下而積懦弱之兆朕하니 此 朋黨之所以發生而國勢之所以缺裂也라 一自色目之分峙로 挾私憾하야 以及於政治하며 藉公事하야 以濟其私意하니 於是焉同室操戈하야 家族이 便作仇讐하고 同堂按劍하야 朝廷이 化爲戰場이라 習成痼疾에 調和沒方일식 雖至今日之悲境이라도 內懷黨同之私하고 表示歧異之態하야 睚眦軋轢에 旗鼓各張하니 所謂杯酒之間에 肝膽이 楚越이오 談笑之場에 口腹이 蜜劍이라 如是而惡敢望團結保合하야 以求同心於興復哉아 嗚乎라 今日我韓之國民은 母論東西南北之人하고 上下貴賤이 均之爲奴隸之氓也라 彼位躋一品하고 勳敍一等하야 身爲陸軍副將府部大<2> 臣之高官者라도 等是奴隸而已오 雖家是三韓甲族이오 地是十代名閥로 田庄이 羅列於州郡하고 僮僕이 充滿於門閭者라도 等是奴隸而已라 奴隸之不已면 其結果는 終於自然之漸滅而已리니 可不悲哉며 可不惕哉아 當此之時하야 凡黨仇之嫌과 色目之戰은 宜付之水流雲空하야 一切滌除하고 坦夷蕩平에 同心協力하야 以圖同族之保合이 可也니 昔에 英國之保守自由兩黨이 傾軋衝突하야 曾無寧歲하다가 及格尼亞

之戰爭이 起則雖反對政府之黨도 亦群起助力하고 日本之自由進步兩黨이 角立對峙해야 意見이 各異하더니 及藩閥內閣之解散議會則忽相提携해야 結爲一憲政黨而抗之하니 此는 其爭也 | 出於愛國之公義而已라 國若不國이면 登有黨派之可爭歟아 惜其智不及此하고 徒鷸蚌相持하며 鷸雀相害해야 不知漁人彈夫之竊笑其後也하니 此 | 不能團合之第一病根也오.

二曰忌嫉之惡癖이니 蓋此雖風氣之錮閉者 | 儻然이나 寔亦由於黨派之流毒이 馴致耳라 吾國人之 此種惡疾이 豈其土性然哉아 積之屢百年에 受諸種性之遺傳하며 染諸社會之習慣해야 幾皆深入於人人之腦中而不能自拔者라 夫拙者 | 妬人之能하며 窮者 | 忌人之達하며 無令聞者 | 猜人之名譽하며 無事功者嫉人之成務하며 力薄者는 被擠하고 勢勝者는 樹援해야 奔波逐臭에 莫可調停하니 彼野味者는 固勿論하고 <3> 稍謂尢新之士도 日以團體로 號於全國而甲地에 股一會하면 乙黨이 立一異해야 始也에 互相輕하다가 繼而互相妬하고 終焉互相殘해야 不敗不止하니 如是而望團合이면 豈非磨磚作鏡이며 蒸砂成飯也리오 夫其宗旨不同則昌言以攻之可也오 地位苟不侔則分功以赴之可也어늘 乃若宗旨同地位同인된 奚不戮力同心해야 以共義務也오 苟同歸而殊途하고 一致而百處라도 目的이 既共指一處하면 其成也에 終必有携手一堂之日矣오 即不然이오 或不能達此目的이라도 吾 | 不失爲義務而可以無愧吾志矣라 藉使因此而事苟有濟면 成之何必在我而後에 爲快耶아 彼欲同族相殘하며 同志角勝해야 排倒他人하고 獨占一席하다가 竟使國滅蒙敗해야 胥溺於蛟鰐之惡浪者는 是誠何心哉오 若其愚昧者는 固無望焉이로되 號稱開明而有忠者는 不容不以是爲告也하노니 此 | 不能團合之第二病根也오.

三曰依賴之結癮이니 夫團體者는 協心之謂也오 非雷同苟合之主意라 以故로 能獨立不羈야 不依賴他力하고 昂然有獨往獨來之思想者라야 能團體而結合이오 苟有絲毫依賴的思想이면 是는 黨同而非團合也라 今我國之痼習은 依賴一念이 深結癮癖해야 學問者는 依賴古人而不敢自發新理하고 政治者는 依賴他國而不能自做事業하며 官吏는 依賴君主하며 人民은 依賴政府해야 乃至一國之人이 各各放棄<4> 責任而惟依賴是務하니 於是乎不學無術者라도 依賴其族黨勢利해야 以巧沾爵祿하며 游手閑忙者 | 依賴其親戚財產해야 以仰活衣食하나니 不寧惟是라 甚至有賣其國賣其主해야 以依賴外國而苟竊權柄하고 甘圖聽命焉하며 又其鄉閭愚昧者는 惟知自國之不能自立而日望他人之藉手와 旁觀之助臂해야 曰某國之勢力이 今何如며 某國之公論이 今何如오 해야 不思自起自立하며 自強自奮之道하고 只望外國之救助我扶立我하니 豈不愚哉며 豈不愚哉아 試思國家之至於今日者 | 豈非此種依賴之習이 有以馴致者歟아 余嘗謂新羅武烈王及金庾信이 能討滅麗濟하고 統合邦土하니 其 功烈이 可謂偉矣나 驅唐兵而狀吾同族이 豈足謂能事哉아 因此而啓千餘年依賴外國之思想해야 滅自國之威風하고 增他人之勢力하니 嗚乎라 此 | 依賴之癮이 所以爲不能團合之第三病根也오.

四曰懶怠之痼症이니 夫此懶怠之症은 由於依賴之癮結해야 濡染習慣에 逐成痼疾者니 日本文學士田淵友彥氏言에 曰 韓人之懶怠는 世界上에 不得多見者니 彼等の 終日事業은 在睡眠與喫烟하고 明日必要之米鹽을 都不料理하며 又不特明日米鹽이라 雖 今日米鹽이라도 了不計劃하고 午睡悠遊가 自是常態라 하며 又曰 韓人은 總乏抵抗力해야 幾百年專制政治之下에 其發奮邁往之精力이 消耗殆盡하고 絕無對外反抗之力이라<5> 하니 蓋其懶怠之性質은 傍觀者 | 已言之盡矣라 以故로 諸凡事業을 多致半途而虧篲하고 靡免勇始而鮮終해야 曾不欲自謀己身커던 而況於社會之公益乎아 由是로 乏團結之念而少結果之效하니 此 | 懶怠所以不能團合之第四病根也오.

五曰 無國家之思想이니 蓋 我韓人이 古來로 乏愛國的 思想하고 缺公共的觀念해야 不知國民當行之義務 故로 外國人이 論韓國民之性質曰 韓國은 古來로 家族的結合이오 家族的發達일식 是以韓人은 總皆家族的觀念에 支配하고 共國家的 觀念은 絕少해야 未見有愛國心者하고 又未

見有何等 公共의設備와 公共의機關이라 하니 卽 公共의觀念이 由乎國家思想而發出者어날 素乏國家之思想 故로 所以無公共의觀念者니 學國이 盡在私益上 慾望하야 不知公益之爲何物하니 此ㅣ 不能團合之第五病根也라.

此其爲病之大略也나 若詳言之則如傲慢如執拗如迂愚如懦弱如嗜利如好私如鄙陋頑固之種種習性이 皆足爲團體之蠱賊而社會之大蠹也라 有一於此라도 團合不成커던 況兼有各種病根也哉아 以如是之民族而欲望團體之協力이면 猶緣木而求魚也오 以如是之社會而欲望國權之恢復이면 猶責璧而疾行也니 其必無效也ㅣ 明矣라.<6>

嗚乎라 然則吾四千年神聖良族이 終無保合之望而竟底於萎落漸滅而止가 可乎아 夫優勝劣敗는 卽天演界之公理라 劣者昧者孤立者自弱者는 不得不催敗滅絕而讓於優者明者團合者自強者之勝利矣니 此는 天擇自然之淘汰結果也라 優劣之道ㅣ 不一而能團體與不能團體가 實爲其主要點하니.

嗟夫我韓之人은 念此羈絆之恥而奴隸之辱하고 宜發奮省悔하야 洗滌一切痼疾癰癰之病하며 斷絕從前黨同忌嫉之習하고 痛祛依賴懶怠之症而振起愛國之思想하며 挑撥公共之觀念하야 以提携同歸於一團之體하야 努力於協同之途하면 天下之至強이 豈有加於此者乎리오 此卽自強之術而自保之道耳라 既團體協同則孰敢有侵害我自由之人權而加之以無理之束縛이며 孰敢有干涉我獨立之主權而加之以格外之欺凌哉아 團體之效果가 不惟保全民族而已라 能使國力強大하야 鞏固我獨立之基礎者ㅣ 實帷在此하니 不得不以此警告於有志諸君子而懇懇焉祈望之不已也하노니 吁其勉哉근저.<7>

<1-7>

2.

잡지명: 대한협회회보 제6호

발행년월일: 1908년 09월 25일

기사제목: 家族教育이 全國民族單體의 機關

필자: 金愼圭 김신규

기사형태: 논설

家族教育이 全國民族單體의 機關 (가족교육이 전국민족단체의 기관)

金愼圭

目下我國現象에 對하야 論者ㅣ 輒曰 教育이 至急하다 團體가 必要하다 하니 此는 歐美風潮가 震撼全珠하야 東亞四千年傳來하던 制度文物이 寒暑晝夜와 如히 一切 相反하야 苟不改絃易轍하야 肩馳角逐이면 競爭時代에 生存을 自保키 不得할 줄로 思惟하느 빅로다. 挽近學界狀況이 可謂盛矣라. 學部에서 其 請願을 認準키 不暇하고 報筆에 其 趣旨를 記載키 不勝하니 表面으로 觀하면 教育이 文明에 到達하고 團體가 確實히 成立할 듯하나 其 內容을 推測컨디 一端 疑點이 不無하도다. 國內學校에 對하야 一一이 質查키 不能하나 大概 見聞한 바를 據하면 社會上 有志紳士의 眞의熱心과 正常한 義務로 資金을<18>不惜하며 名譽를 不要하고 靑年子弟의 新知識을 發育하며 愛國心을 活養하야 獨立의 基礎를 準備하고 自由의 效果를 希望하느 者도 多有하거니와 太半同地方에서 學校와 學校間에 圭角罅隙이 層生하며 或 同校內에서 任員과 師生間에 惡憾反動이 激起하야 設立未幾에 尋爲廢止者도 有하고 設或 未廢라

도 繼續手段과 維持方針이 全無호는 者도 有호고 或 維持는 僅足호나 分乖缺裂호야 有名無實 者도 有호니 其 故는 何也오. 蓋 各人 發起에 心如其面호야 一時釣名의 思想과 好勝의 氣癖과 挾雜의 慾望으로 前後를 不量호고 形式을 徒倣호야 創立은 容易호나 僞善이 易怠호고 虛想을 難副호야 鄙吝之根이 復萌에 公益上 事業은 便屬先天호고 猜媚之門이 漸開에 團合의 主意가 遂成畫餅故로 外人이 曰 韓國學校는 流行病과 如호다 호니 可勝歎哉아 何幸天誘其衷 호야 家族教育이 稍稍發現호니 愚는 大韓民族의 團體機關이 此에 在호다 호노라. 傳에 曰 一家仁이면 一國이 興仁호고 一家讓이면 一國이 興讓이라 호니 國內 諸姓에 各其 鼻祖以下로 派分호는 雲仍을 勿論 疏遠卑賤호고 一體聯合호면 多者는 數萬에 可達이오 少者도 幾千에 不下호리니 數三巨族에 一國所慕者로 爲始호야 教育의 方法을 擴張進步호고 敦睦情誼를 親密融合호야 文明의 光彩가 花樹에 生호고 團結의 固體가 磐石에 比호야 他族의 模範을 作호고 全國의 標準을 立호면 兵法에 云호는 바 一人이 學成에 百人을 教호고 百人이 學成에 萬人을 教함과 如호리니 國民團體가 此에 機關됨이 安인가. 或이 難之曰 教育의 至急과 團體의 必要는 全國 同胞를 通指함이라. 子言과 如호면 僻姓孤族엔 普及키 不能호고 且 巨族中에도 頑昧反對者가 全無호고 融通和合호는 難호 何以確信호나뇨. 曰 凡天下無情之物도 吸引의 力과 結合의 性이 <19>皆 有호거던 況 人乎哉아. 今 夫 僻姓孤族이라도 講其聯親호면 必大姓巨族也니 聲氣의 相通과 臭味의 相合과 影響의 相及이 固有호지오 公私學校가 在在立立호니 教育의 普及키 不能을 何患之有리오. 家族教育之成立也에 年行이 最高호며 位德이 俱邵호는者 | 主張而命令之호고 時勢에 通曉하며 事務에 練熟호는者 | 組織而施行之호고 財産이 富호는者는 捐附之호고 學識이 優호는者는 教導之호야 凡子弟之及學齡者 | 莫不入學이면 其 中에 設有頑昧之人이라도 將勸諭開發호야 不日而化矣니 何敢反對乎아. 蓋 教育者는 團體의 要素라 諸家族의 各 部分 小團體를 組成호고 各 部分이 一部 大團體를 結合호야 三千里 江山이 一家를 作호고 二千萬 同胞가 一身를 成호면 心城堅高에 金湯이 失險호고 力車 | 衝突에 砲艦이 挫銳호리니 太極章旗를 萬國에 炫耀하고 大韓帝國이 世界에 屹立호기를 家族社會에 對호야 忠告血祝호노라. <20>

<18-20>

3.

잡지명: 태극학보 제22호

발행년월일: 1908년 06월 24일

기사제목: 有大奮發民族然後 有大事業英雄

필자: 中叟 중수

기사형태: 논설

有大奮發民族然後 有大事業英雄 (유대분발민족연후 유대사업영웅)

中叟

氣象이 極慘則有時而哭호고 情節이 少舒則有時而歌호야 亂呼焉狂躍焉者를 謂之大奮發民族耶아. 曰 否否며. 號令이 得行則有時而喜호고 智勇이 或困則有時而努호야 叱咤焉震暴焉者를 謂之大事業英雄耶아. 亦曰 否否로다. 大抵 大奮發民族云者는 其歌也 其哭也 | 가 一己의 一時關係를 由함이 絶無호지라 我能自由焉歌호고 不能自由焉哭호며 我能獨立焉歌호고 不能獨立焉哭호며 我能富強焉歌호고 不能富強焉哭호며 我能文明焉歌호고 不能文明焉哭호야 一夫一婦

之歌也에 全國 江山이 一齊歌呼하며 一豎一孺之哭也에 全國 林菴이 一聲哭泣하야 一歌之有思也이 其 國이 能興하고 一哭之有思也이 其 國이<9>能感하야 死生焉與同하고 休戚焉與同이 其非大奮發民族耶아. 大事業 英雄의 資格을 求觀할진디 臨時應變하느 謀略이 種種 不一하나 其 範圍는 大同하리라. 一喜一怒가 自己에 由치 안코 一死一生을 茶飯으로 視하야 大事業의 目的을 進取함의 一往無前하며 百折不回하야 千山萬嶽이 一時에 崩圯하더리도 不以爲意하고 怒濤驚瀾이 脚下에 號鳴하야도 不改其容하며 猛虎가 牙爪를 舞하야도 不動하고 霹靂이 頂上에 旋하야도 不驚하며 舉世의 俗論이 囂囂하야도 我的 主見이 如苦하며 政派의 鎮壓이 紛紛하야도 我的 主見이 如故하야 惟是 慈善慈悲한 一心으로 一定한 目的地에 勇赴하느 者 | 曰 英雄其人이라. 雖如此한 英雄이 偏起하야 大事業을 經營할지라도 單純한 一二英雄의 能力으로 非常한 大功을 奏하기 決코 難하도다. 必也 一般民族이 大奮發을 加하야 一號令에 千萬人이 同聲을 諾하고 一舉手에 千萬人이 同情을 表하야 死生休戚을 一致可決한 後에야 大英雄이 此 中에서 生出할지오. 大事業이 亦 此 中에서 生出할지로다. 是故로 西人이 有言曰 世界는 鑄出英雄之冶工場이라 하니 斯言이 信矣로다. 現今 我國을 環顧하진디 大奮發한 民族이 有하다 謂할가. 設或 幾個 奮發한 同族이 有하더리도 亂呼狂躍에 幾近치 아닌가. 嗚呼. 我民族 同胞여. 堂堂神聖靈苗로 血氣가 尙有하거든 土地家屋을 盡失하야 巢居할 處가 無하야도 奮發할 줄 不知하며 山林川澤을 盡奪하야 營作할 處가 無하야도 奮發할 줄 不知하며 爾를 奴隸로 使用하야도 是甘하며 爾를 牛馬로 鉗勒하야도 是順하야 毫絲奮發의 心이 無하니 人性이 有하고야 此를 可忍하리오. 第試思之하라 雖乳臭의 孩兒라도 已手의 執한 物을 他人의 게<10>讓與하기를 不肯함은 天性이 固然할 뿐더러 設或 強奪을 被하면 大聲叫啼하야 期於更索하거늘 嗚呼. 我二千萬 同胞는 生命 財産을 盡數被奪하야도 一叫一啼를 不能하고 慘慘黯黯한 地獄에 轉輾陷入하니 嗚呼라. 不忍言不忍聞者矣로다. 民族이 如此어니 大事業 英雄이 何處로 從하야 出하짓는가. 單拳으로 破秦하든 項羽도 麾下子弟 八千이 有하얏고 呼風喚雨하든 諸葛亮도 部下精兵 百萬이 有하얏스며 北米의 獨立主 華盛頓도 無名 華盛頓에 團體力을 賴하얏고 試觀日本之維新也에 吉田翁이 挺身一呼이 伊藤 大隈 井上 後藤 板垣 諸子가 風起水涌而出하야 今日 效果에 至하얏도다. 嗚呼라. 向者에 八千弟子가 無하얏드면 項羽가 初不渡江하야슬 것이오 百萬精兵이 無하얏드면 諸葛이 初不抗魏할 것이오 華盛頓 部下에 無名 華盛頓이 無하면 北米 獨立을 不可期할 것이오 吉田 門下에 藤隈 諸子가 無하면 吉田의 名譽가 埋沒하여슬지라. 然한즉 英雄이 大英雄의 徽號를 得함도 全國 民族이 隨聲齊應함에 在하고 事業이 大事業의 結果를 得함도 全國 民族이 同心齊力함에 在하도다. 假使 今日 我國의 民族 程度로는 十百英雄이 一時에 輩出할지라도 如何히 成功할 兆朕이 無하도다. 拿坡崙, 訥耳遜은 曠世名將也로디 兒童을 驅하야 隊伍를 編하면 必敗할 것이오 麥志倫哥倫布는 航海大家也로디 寸葦를 乘하고 風濤를 遇하면 必危하리라. 今에 我國의 一般民族이 奮發을 大加하야 曰 我的 體膚를 可損이언정 我的 自由는 不可失이라 하며 我的 手足을 可斷이언정 我的 獨立은 不可奪이라 하야 一定한 幟鵠을 注目치 아니면 英雄의 着手가 無路할 것이오 設又着手하더리도 甲乙의 覆轍이 在前하리로다. 然한 則<11>民族 同胞가 一朝一夕이라도 亟亟奮發하야 我를 活하실 大英雄을 喚起하며 我를 救하실 眞英雄을 求見할지어다. 英雄의 淵藪가 名區勝地와 深山別巷이 아니라 英雄을 胚胎하느 門이 卽 學校며 英雄을 製造하느 場이 卽 學校로다. 嗚呼라. 一般同胞여. 學校教育을 擴張하야 大事業을 英雄을 養成하며 社會教育을 組織하야 大奮發한 民族을 結合할지어다. 且 内外國 遊學하느 同胞여. 民族을 鼓動하야 奮發心을 發生케 할 者 | 諸君이 아니며 英雄을 延攬하야 事業的을 經營할 者 | 諸君이 안닌가. 昔에 德相 俾斯麥이 勝法凱旋하느 路에 小學校의 功을 先拜하얏스니 功을 善知한 者라

謂호지로다. 今日 我國의 國權 挽回와 民權 恢復이 大英雄에 在호다 호나 大英雄을 產出호는 門戶는 學校라 호지오 學校랄 擴張호는 原因은 民族 奮發에 在호다 호노니 嗚呼. 同胞여. 亟亟 奮發호지어다.<12>

<9-12>

4.

잡지명: 대한협회회보 제6호

발행년월일: 1908년 09월 25일

기사제목: 家族教育이 全國民族單體의 機關

필자: 金愼圭 김신규

기사형태: 논설

家族教育이 全國民族單體의 機關 (가족교육이 전국민족단체의 기관)

金愼圭

目下我國現象에 對호야 論者ㅣ 輒曰 教育이 至急호다 團體가 必要호다 호니 此는 歐美風潮가 震撼全珠호야 東亞四千年傳來호던 制度文物이 寒暑晝夜와 如히 一切 相反호야 苟不改絃易轍호야 肩馳角逐이면 競爭時代에 生存을 自保키 不得호 줄로 思惟호는 빅로다. 挽近學界狀況이 可謂盛矣라. 學部에서 其 請願을 認準키 不暇호고 報筆에 其 趣旨를 記載키 不勝호니 表面으로 觀호면 教育이 文明에 到達호고 團體가 確實히 成立호 듯호나 其 內容을 推測컨디 一端 疑點이 不無호도다. 國內學校에 對호야 一一이 質查키 不能호나 大概 見聞호 바를 據호면 社會上 有志紳士의 眞的호 熱心과 正當호 義務로 資金을<18> 不惜호며 名譽를 不要호고 青年子弟의 新知識을 發育호며 愛國心을 活養호야 獨立의 基礎를 準備호고 自由의 效果를 希望호는 者도 多有호거니와 太半同地方에서 學校와 學校間에 圭角罅隙이 層生호며 或 同校內에서 任員과 師生間에 惡憾反動이 激起호야 設立未幾에 尋爲廢止者도 有호고 設或 未廢라도 繼續手段과 維持方針이 全無호 者도 有호고 或 維持호는 僅足호나 分乖缺裂호야 有名無實者도 有호니 其 故는 何也오. 蓋 各人 發起에 心如其面호야 一時釣名의 思想과 好勝의 氣癖과 挾雜의 慾望으로 前後를 不量호고 形式을 徒倣호야 創立은 容易호나 僞善이 易怠호고 虛想을 難副호야 鄙吝之根이 復萌에 公益上 事業은 便屬先天호고 猜媚之門이 漸開에 團合의 主意가 遂成畫餅故로 外人이 曰 韓國學校는 流行病과 如호다 호니 可勝歎哉아 何幸天誘其衷호야 家族教育이 稍稍發現호니 愚는 大韓民族의 團體機關이 此에 在호다 호노라. 傳에 曰 一家仁이면 一國이 興仁호고 一家讓이면 一國이 興讓이라 호니 國內 諸姓에 各其 鼻祖以下로 派分호는 雲仍을 勿論 疏遠卑賤호고 一體聯合호면 多者는 數萬에 可達이오 少者도 幾千에 不下호리니 數三巨族에 一國所慕者로 爲始호야 教育의 方法을 擴張進歩호고 敦睦情誼를 親密融合호야 文明의 光彩가 花樹에 生호고 團結의 固體가 磐石에 比호야 他族의 模範을 作호고 全國의 標準을 立호면 兵法에 云호는 바 一人이 學成에 百人을 教호고 百人이 學成에 萬人을 教호고 如호리니 國民團體가 此에 機關됨이 安인가. 或이 難之曰 教育의 至急과 團體의 必要는 全國 同胞를 通指호는이라. 子言과 如호면 僻姓孤族엔 普及키 不能호고 且 巨族中에도 頑昧反對者가 全無호고 融通和合호는 줄노 何以確信호나뇨. 曰 凡天下無情之物도 吸引의 力과 結合의 性이<19>皆 有호거던 況 人乎哉아. 今 夫 僻姓孤族이라도 講其聯親호면 必大姓巨族也

니 聲氣의 相通과 臭味의 相合과 影響의 相及이 固有홀지오 公私學校가 在在立立호니 教育의 普及키 不能을 何患之有리오. 家族教育之成立也에 年行이 最高호며 位德이 俱邵호者 | 主張而命令之호고 時勢에 通曉하며 事務에 練熟호 者 | 組織而施行之호고 財産이 富호 者는 捐附之호고 學識이 優호 者는 教導之호야 凡子弟之及學齡者 | 莫不入學이면 其 中에 設有頑昧之人이라도 將勸諭開發호야 不日而化矣니 何敢反對乎아. 蓋 教育者는 團體의 要素라 諸家族의 各 部分 小團體를 組成호고 各 部分이 一部 大團體를 結合호야 三千里 江山이 一家를 作호고 二千萬 同胞가 一身를 成호면 心城堅高에 金湯이 失險호고 力車 | 衝突에 砲艦이 挫銳호리니 太極章旗를 萬國에 炫耀하고 大韓帝國이 世界에 屹立호기를 家族社會에 對호야 忠告血祝호노라.<20>

<18-20>

5.

잡지명: 서북학회월보 제8호

발행년월일: 1909년 01월 01일

기사제목: 民族主義論

필자: 栢軒 羅錫璡 백현 나석기

기사형태: 논설

民族主義論 (민족주의론)

栢軒 羅錫璡

今夫世界 五洋六洲에 海山이 複雜호고 風氣가 乖異함으로 其 內에 容處만 人民에 氏族도 <38>各異호야 黃種과 白種과 黑種과 紅種이 有호니 其 區分은 亞細阿人族 歐羅巴人族 奧大利人族 亞美利加人族 等이라. 惟其方以類聚호며 物以群分故로 其 人의 心性도 其 風土를 隨호야 各異호니 於是乎 民族競爭論이 生호는지라. 近來 各國 歷史로 試觀컨디 普法之七年戰爭과 日俄之滿洲大役에 砲風丸雨와 血海骨山이 世界를 震盪하되 不以爲疚者는 何也오 由其 民族之不合也라. 譬컨디 水火不相處호며 龍虎不並穴은 性質이 不同호며 位置가 各異함이라 然則 吾人 保存生活은 何를 由호야 生호고 競爭者는 所以保吾民族之主義也라. 稂莠를 不除호면 嘉穀이 不長호고 鴟鴞를 不逐호면 仁鳥가 不集호는니 我的 害되는 者는 皆 是稂莠와 鴟鴞라 호며 我的 氏族안인 者는 亦 可曰 稂莠鴟鴞라 호지라. 所以로 鐵血灑國호 俾斯麥은 同氏族되는 日耳曼을 聯合호여 一大 普國을 立호며 一聲唱起호 瑪志尼는 老獘호 意太利를 鼓動호여 一少年氣像를 吸取호니 此 等人에 心性은 同氏族을 保存함에 不外호지라. 然이느 競爭만 有호고 教育이 無호면 永久히 保存함을 不得일시 其 國에 宗教를 確立호지니 在昔孔孟이 筆이 禿호고 舌이 弊토록 著書立言호 것은 宗教에 一統을 扶함이오 近來 廬援은 弊衣乞食호되 學說를 唱起호야 世界에 顯揚케 호니 歐洲의 文明獨擅이 此를 由호지라. 若宗教가 無호면 南阿黑奴와 北米紅種之慘을 烏可得免이리오. 我國의 宗教를 想橡컨디 尙屬幼稚호니 今日之慘境은 不言可想이라. 然則 今日에 急務는 何에 在호뇨 宗教 教育을 確立호야 世界에 競爭力을 不失호고 民族主義를 確定호야 歐米 列強과 牛耳의 <39>盟을 執함을 是祝호노라.

<40>

<39-40>

6.

잡지명: 대한홍학보 제7호

발행년월일: 1909년 11월 20일

기사제목:喚起 我半島 帝國之 民族的 觀念

필자: 尹台鎭 윤태진

기사형태: 논설

喚起 我半島 帝國之 民族的 觀念 (환기 아반도 제국지 민족적 관념)

尹台鎭

秋夜寒燈에 按劔獨坐하야 顧念祖國現狀하니 初焉 太息다가 繼焉痛哭이로다. 嗟我<30>檀箕之赫赫民族과 麗羅之堂堂山河로 奈之何衰頹懦弱이 至有今日之甚乎아 夫國之興亡盛衰가 決非一朝一夕之偶然 結果요 必有累年累代之所由原因이니 其 欲回亡求興하고 回衰求盛인딘 先宜講究 其 所以 亡所以衰之原因이라야 方可收得 其 可以興可以盛之結果로다. 然則 帝國之有今日도 亦 決非偶然이요 必有使然者矣리니 其 使然之原因이 安在오 帝國 國民이 自聖朝 五百餘年 以來로 久浴於偃武修文昇平治化之恩波하야 唯一 身之安逸焉是求하고 一家之幸福焉是貪하야 害人利己之心然의凶策으로 同隣同城之人을 認作秦楚之仇敵하야 誰是孰非之道德의學說과 他黨已派之謀害의 政論으로 做成兵器하야 互相 攻擊誅戮타가 不知火已棟梁하고 病既骨髓로다. 然 以今日之危急으로 徒責往咎가 鳴已晚矣라. 有何小補哉아 善後 方針에 有一由舊進新之妙路하니 我韓은 誇世無雙之尙倫國也라. 父子兄弟之互相親愛와 族戚姻아 之互相救護가 寔盡人道之極度하니 豈 非壯哉며 可不讚哉아 一此若推 親族의 觀念而擴及於民族의 觀念이면 二千萬口가 均是父子兄弟族戚姻아라. 誰敢侮蔑이며 孰敢侵略가 一身之安逸도 從生於此 中이요 一家之幸福도 從得於此 中이며 一國之興隆도 從期於此 中이로다. 泰西列強之有 今日이 亦 皆 不外乎善養這箇觀念之結果也라. 若欲保國家於慘毒如彼之滅裂戰鬪하고 全身命於激烈如此之生存競爭인딘 何不猛省快悟하야 速伴於彼之進而速效於彼之美하고 躊躇因循으로 坐待 其禍아 昔於 鎖國時代엔 不知國外에 有國하고 洲外에 又 有洲하얏쓰니 國民<31>檀箕之相愛가 及於親族의 觀念이라도 亦 云壯矣美矣ㄴ 當 此 風船火車가 遍通全球하야 南極 北極에 飛馳倏忽을 如尺地寸步하고 以國滅國과 以洲侵洲의 警報가 踵相喧傳하니 可不懼哉며 可不驚哉아 同家者ㅣ 雖日 不相和而與他家相爭이면 救先於何家며 同族者ㅣ 雖 曰 不相睦而與他族相鬪면 護先於何族이고 同國者ㅣ 雖 曰 不相愛而與他國相戰이면 助先於何國가 以他家爭吾家하고 以他族鬪吾族하며 以他國戰吾國者를 未嘗聞也로라. 然則 所謂 同家者之不知는 前於爭他家之時也요 同族者之不睦은 前於鬪他族之時也며 同國者之不愛는 前於戰他國之時也ㅣ 明矣로다. 嗟我同胞며 愛我同胞여 帝國今日之大患이 於此三者에 居何오 尙是未覺耶아 覺 亦 故然歟아 砲聲이 雷鳴하고 劍光이 電閃에 諸氏之父母兄弟가 時就捕縛하고 日就誅戮하니 如此不已면 不出幾年에 檀箕之民族이 盡作北邱之冤鬼오 麗羅之山河가 必作敵家之田圃矣리니 到此而猶言誰是孰非며 他黨已派等學說政論之世嫌乎아 是乃余之向所謂太息者痛哭者也로다. 維新以前之日本는 猶 有甚於今日我韓之現狀하니 七十餘 諸侯가 各自 割據一隅而疾視爭雄하야 干戈日尋타가 幸賴慷慨多士의 早早看破時代之變遷而殺身絕叫之效하야 復政權於統一하고 變政體於立憲하야 上下 國民이 自負一般義務하고 舉全力盡瘁하야 務茲孜孜한 結果로 囊於甲午之役에 使全球莫大之清國으로 割地而請和하고 甲辰之役에 又 使現代莫強之露國으로 俯首而謝罪케 하얏쓰니 大哉라. 民族的 國民之團合力이여. 若使日本으로 無如此民族的<32>團合力이러면 不過是五千萬之小數人民으로 安敢生意於與有四億萬, 三億萬人民之清露로 爭鋒取勝乎아

民族的 團體力之關於國家興亡盛衰之如何는 昭昭之證跡이 如彼하고 歷歷之實效가 如此로다. 若使我固有之親族的 美德으로 擴及於民族的 觀念이면 帝國之獨立을 唾手可期며 指日可回어 날 何不爲此而昏昏然默默然猶作桃源之春夢乎아 余雖不才는 略有見聞之所感하야 茲敢以數行 蕪辭로 泣告焉<33>

<30-33>

7.

잡지명: 개벽 제4호

발행년월일: 1920년 09월 25일

기사제목: 民勢學上으로 보는 朝鮮民族

필자: 醫師 劉洪鍾 의사 류홍중

기사형태: 논설

民勢學上으로 보는 朝鮮民族 (민세학상으로 보는 조선민족)

醫師 劉洪鍾

우리가 눈을 들어 地球上을 一觀할진대 眞實로 16億萬 人구의 活舞臺요 喜劇悲劇이 교류하는 극장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지구상에 生할하는 총 人구를 이르되 世界 인류라 하나니 이 인류는 世界역사 生긴 이래 無수한 變化를 經과하면서 金일과 如한 現象을 形成하다. 이제 人類各部를 觀察할진대 역사와 풍속과 언어와 衣服居處가 同一하야 此가 一團을 形成하야 一정한 구역과 境界를 가지고 잇나니 此를 이르되 民族이라 하며 此 民族의 전부 혹은 일부가 國家를 조직하야 통일적 生活를 現出하니 此를 이르되 國民이라 하나니 民族에는 비록 다른 점이 잇다 할지라도 또는 그 구역과 境界를 絶대라 안이할지라도 國家라 하면 그 구역과 그 境界가 絶對하다. 이와 가튼 國家가 羅立하야 或者는 興하며 或者는 衰하며 或文或野或强或弱或長或短에 그 差異가 著明하다. 如此한 强弱文野의 原因은 國民의 强弱文野의 差라 然則 國民은 그 國家 그 民族의 强弱과 文野를 左右하나니 此 根本이다. 이와가튼 根本되는 人民生活의 형세를 徵知하는 바 學을 民勢學이라 稱하나니 此學은 各 國民의 運命을 忖度하는 者라 故로 以下에 그 大義를 論하야 독자 僉位의 參考에 供코저 하노라.

民勢學上 가장 重要한 것은 衛生統計요. 그 中에도 生産死亡에 대한 통계니 此는 各 國民의 壽命如何를 徵知함에 필요한 者요 아울러 各 國民의 運命을 徵知하는 尺度라 하여도 可하니 물론 그 國民의 사망이 적고 生産이 多하면 그 國民은 증식될 터이오. 이와 반대로 사망이 多하면 그 人구는<63> 감소되리니 딸아 그 國民의 수명이 短하며 此에 附隨한 모든 問題가 잇스리니 만일 增殖이 업고 減少가 된다고 하면 그 國民 그 國家 又是 그 民族은 멸망을 當할 것이라. 이럼으로 民勢學上 生死統計는 가장 重大視하며 그 調査를 精確히 하나니 國民이 만타고 반듯이 强國은 안이나 人구가 감소됨은 民勢學上으로던지 國家運命상으로던지 不祥의 事라 안이치 못할 것이다. 이럼으로 人口증식이 적은 國家, 例하면 佛蘭西 가튼 나라에서는 獨신남녀에게 벌금을 제정하야 증식을 도모함도 此에 意味함이라. 以下에 世界 各國 人口 總數와 其 生死統計의 槩況을 擧하야 供覽에 資코저 하노라.

支那 三億三千萬人 露國 一億四千萬人

獨逸 六千五百萬人 奧國 五千萬人

佛國 三千九百萬人 印度 二億九千萬人

米國 九千二百萬人 日本 五千七百五十萬人

英國 四千五百萬人 伊國 三千五百萬人

土國 三千萬人 朝鮮 一千六百萬人

以下는 生死統計니 每千名에 대한 比例

以下는 매년 人口增殖率을 畧舉하노라.

米國 2.10(每年) 露國 2.09(每年)

日本 1.48(同) 獨逸 1.36(同)

英國 1.09(同) 奧國 0.89(同)

伊國 0.66(同) 佛國 0.18(同)

以上 別表를 一覽하면 각 國민의 增殖 如何를 徵知할 수 잇스며 그뿐으로는 흥미가 적다. 이 增殖 如何와 그 國민의 強弱文野를 비교하여 봄이 적지 안은 흥미와 참고가 되나니 大槩 그 國민의 增殖이 만코 弱하며 文化 진보가 안된 者 업스며 그 國민이 점차 감소하고 그 國이 强하며 文化의 진보된 者를 볼 수 업스니 곧 그 國민의 運命 如何를 그 國민의 增殖<64> 如何로 一部를卜하기 能하다 하노라.

인구증감하는 원인을 탐구하면 물론 그 國민의 衛生思想 그 국가 衛生施設 如何에 잇나니 今日 現象으로 此를 否認하기 不能하다. 곧 衛生發達 如何에 관계함이니 물론 위생은 예방의학이라 의학의 一分科라 卽 의학발달 如何에 관계함이니 그럼으로 衛生狀態의 개선과 衛生思想의 향상에 國민된 者 누구나 다 留意치 안이치 못할 者라 하노라. 다만 위생이라 하면 肉體保健에만 限한 줄 오해하기 쉬우나 全然 不然하니 육체가 弱한 者에는 사망이 多하고 반대로 노동물은 적을 것이며 육체의 不(?)한 原因은 대부분 不衛生에 原因 함이니 이곳 정신계에는 영향됨이 多하니 철학자 「칸트」씨 이르되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잇다 함은 세상 一個 적절한 格言이 되엇도다. 이와 가티 結果가 육체정신 양면이 不健康한 國민의 모든 事爲는 强者보다 劣할 것이오 그 사망률이 만코 동시에 平均壽命이 적을 것은 事實이면 그 국가 그 國민의 運命은 如何할가. 「안즌뱅이」는 짓는 者를 딸을 수 업스며 「절뚝발이」는 뛰는 者를 딸을 수 업는 것이니라.

이러함으로 一國의 衛生狀態, 衛生思想, 衛生行政施設, 衛生統計 生死統計는 그 국민의 強弱 文野 如何를 보는데 焦點이 되는 동시의 現今 重大히 보는 것이다.

이 民勢學上 見地를 가지고 朝鮮民族을 보고저 함도 徒勞가 안이라 그 中 重要한 生死統計를 알아야할 것이며 그 먼저 衛生思想, 衛生狀態, 衛生行政을 보아야 한다.

衛生思想은 幼穉하기 比할 수 업는 것은 누구나 다 首肯할 바니 全民族으로 算하만 그 중에 일부분은 위생을 이해할지나 대부분은 衛生이라 하는 述語부터 攻擊이다. 守舊主義에도 그런 守舊主義는 업다. 생물은 자기의 생명을 보전함으로 第一義를 삼는데 자기생명을 보전하는 保身上 知識을 배척함은 生을 구함인가 死를 구함인가. 如何間 長論할 배업시 위생사상은 零이하라 암흑계를 未脫이오 위생상태를 보면 不言이라도 可知니 實行은 思想에서 胎함이어늘 思想이 零이하면 그 實行도 零이하를 免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근일에 이르러서는 점차 향상 개선하는 도중에 이르는 것은 慶賀할 바라. 그러나 그 속력에 노력을 가하고 知識을 調和하라 하노니 落伍者가 되어 先進者를 追後하라면 先進者 以上の 속도를 가져야 하리니 此에 대한 知識의 涵養 實行의 迅速하기를 누구나 힘쓰니 안이치 못할지니라.

위생행정에 대하여는 다소 改善하며 進行중에 잇스나<65> 의료기관으로 漢方醫에 대한 정책과 避病院의 不備不足과 위생통계에 대하여 徹底한 誠意가 업다고 하는 비난은 免치 못할 것이다. 행정기관중 위생행정을 보면 그 정치의 善政惡政 如何를 窺 알 수가 잇는 것이니 조선에도 가급적 완전한 위생행정을 施하기를 바라는 바나 詳論치 안이하노라.

衛生統計중 重要한 生死統計의 精確할 것이 업슴은 衛生行政의 幼穉함인지 一般 衛生思想의 幼穉함인지 如何***이다 朝鮮人口를 呼曰 二千萬이라하나 此는 何時 조사에 의함인지 明言키 難하며 大正3年度末 조사에 의하면 그 인구가 千五百六十二萬七百二十이오 그 사망률은 如左하다.

滿十世迄 0.0496

滿二十世迄 0.0055

滿三十世迄 0.0077

滿四十世迄 0.0088

滿五十世迄 0.0120

滿六十世迄 0.0243

滿七十世迄 0.0537

滿八十世迄 0.0973

滿九十世迄 0.1489

조선인구를 二千萬이라 함은 수십년 전부터 이르던 바라 그 중에 二千萬未滿 一千幾百萬이라 하더라도 現今 조사와 비교하면 그 증식이 多大치 못함은 가히 추측할 수가 잇다 하노라. 일

본의 매년 인구 증식이 五十萬이라 조선을 此의 比例로 하면 少하야도 매년 十萬以上の 増殖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토지의 면적과 인구를 비교하면 稀少함은 사실이다<66>
<63-66>

8.

잡지명: 개벽 제5호

발행년월일: 1920년 11월 01일

기사제목: 朝鮮人の 民族性を 論하노라

필자: 李敦化 이돈화

기사형태: 논설

朝鮮人の 民族性を 論하노라 (조선인의 민족성을 론하노라)

李敦化

一. 民族的 特性

세계의 어떤 민족을 물론하고 既히 민족으로써 세계의 他의 민족과 대립이 된 이상은 그에 딸아 민족과 민족의 간에 대립할만한 정신적 혹은 성질적 或 物이 고유케 되는 것이다. 그는 언어, 풍속, 종교, 도덕, 습관 등-모든 것에 다 가티 특수이 차이가 나타날 뿐 아니요 그 민족으로써 민족 전체를 대표할 만한 즉 언어, 풍속, 종교, 도덕, 습관을 총대표하야 그로써 융화되고 순화된 或 鍾의 특성이 그 민족의 간에 스스로 표현케 되는 것이라. 개인으로써 개인성의 특질이 各殊함과 가티 민족도 또한 민족으로의 특성이 各異하나니 그를 칭하야 그 민족에 대한 민족성이라 통칭하는 것이다. 각 민족은 각각 그 민족에 在한 특수이 민족성을 가졌음으로써 그 각 민족성에 인하여 나타나는<2> 문화의 光도 또한 다소 특수이 색채를 발휘함은 실로 피치 못할 선천적 약속이라 하야도 과언이 아니로다.

茲에 갑을병 각 민족이 동일한 문명의 조류를 受하였을지라도 그 문명이 각각 그의 민족성에 의하여 조화되며 단련되며 융화되며 靈化되는 間에는 茲에 방식과 조직과 색채가 판이한 특종의 문화를 生케 됨은譬컨대 동일한 雨 동일한 光을 受한 각 식물이 각각 그 식물성에 말미어 桃에 桃實을 結하며 李에 李實을 成하며 杏에 杏子를 生함과 동일하나니 고로 그 민족의 문화에 대한 장래 及 과거를 연구코저 하면 먼저 그 민족성의 여하를 고찰함이 필요한 경로라 할 것이다.

동일한 希臘羅馬의 문명조류가 현대 歐洲 각 민족의 間에 유입하는 際 영국은 영국성의 문화 佛國은 佛國性 독일은 독일성 露國은 露國性 미국은 미국성 각각 그의 특수한 문화적 색채를 帶케하였고 동일한 印度支那의 고대 문명이 동양제국에 보급함에 及하야 일본은 일본성 조선은 조선성 支那는 支那식 인도는 인도식의 문화가 生케되 었나니, 이-민족으로써 다소 특수한 민족성을 가졌음으로써-라.

일즉 모 외국인이 동양 삼국의 고대 예술에(특히 불상 조각) 就하야 일언하되 支那는 純厚에 善하고 일본은 색채에 능하고 그리하야 조선의 예술은 此 양자를 兼全한 觀이 有하다 하였나니 이는 지리적으로 관찰할지라도 그럴듯한 고찰이라 할지라. 원래 조선은 支那의 예술을 受

하야 그를 一層美化한 후-일본에 전하였는 고로 조선의 예술은 스스로 此 양자를 兼全하였다 할지로다. 如斯한 관찰이 능히 동양예술관에 적중한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如何든지 동일한 문명을 受한 삼국의 예술이 스스로 그에 대한 다소의 차이가 생케됨은 사실이며 그리하야 그 차이는 각각 그의 민족성에 딸아 표현케 될 것도 無疑한 事이니 然하면 각 민족은 그 민족성이 有하야 처음으로 민족의 민족된 가치를 나타낼 것이오. 민족의 민족된 表障이 있다할 것이 아니냐.

二. 朝鮮民族의 民族性은 何이나

如斯히 세계 각 민족은 각각 그 민족적 정신에 특수한 발휘가 있다하면 이제 그를 민족심리학 상으로 관찰하야 吾 朝鮮민족에게는 무엇이 가장 卽 朝鮮민족을 總代表 할만한 민족성이 될가. 更言하면 朝鮮민족에게도 민족적으로 <3> 다수한 美點과 惡點이 교착하야 잇슬지라도 그 중에 가장 優越한 특성이 朝鮮민족의 정신화를 대표할만한 특성이 될가. 이를 일언하야 卽 사회 비판을 구함도 또한 閑人의 閑事가 아닐 것이며 그리하야 그를 전체 민족의 활동상에 도약케 하야 민족적 권선징악의 미덕을 발휘케 함도 필요하니 그러한 후에야 가히 卽 민족의 眞意義가 나타날 것이오. 또한 卽 尙來문화의 진가치가 표현하리로다.

吾人이 유대인을 언할 때에는 스스로 그의 禁慾性을 연상케 되며 인도인을 언할 때에는 스스로 그의 형이상적 理想心을 연상케 되며 支那人을 언할 시에는 스스로 그의 근검심을 연상케 되며 그리하야 일본인을 언할 시에 忠心, 佛國人을 언할 시에는 진취심, 영국인을 언할 시에 진실 保守의 心을 연상케 되나니 如斯히 각 민족과 及 그의 민족적 특성은 互相聯想적 표현이 된다하면 朝鮮민족은 그 민족의 특성으로 如何한 성질을 연상케 될가. 물론 조선은 역사가 장구한지라 스스로 언어가 異하며 풍속이 異하며 종교도덕이 異함으로써 그로 민족의 민족된 특점을 가졌다 할지라도 終에 필경 그 언어, 풍속, 종교, 도덕을 대표할만한 精神化적 특성이 업지 안이치 못할지니 그를 일언으로 蔽하면 如何한 者이라 할가.

吾人은 일즉 모 외국 잡지에서 동양인의 심리를 평한 중, -「支那人은 直心, 일본인은 충심 조선인은 善心이라.」 書한 구절을 瞥見한 일이 잇섯나니 吾人은 그로써 능히 동양 삼민족의 심리를 대표한 관찰이라 추천하는 동시에 더욱이 조선인의 민족성을 적당히 고찰하였다 자 인하노라.

과연-조선인의 민족성은 善이나. 善 一字로 능히 조선인의 미덕을 발휘할만 하나라. 조선인은 선으로 능히 동방군자의 國이 되었던 것이오. 半島禮儀의 邦이 되었던 것이오. 의관문물의 燦然한 도덕적 민족이 되었던지라. 고로 조선인을 논하면 반듯이 선을 연상치 아니치 못할 것이오 선을 논하면 또한 반듯이 조선인을 연상치 아니치 못할지니 조선인의 미덕은 거의 此 善 一字로써 능히 그 정신화 방불하였다 할 것이다.

抑조선인의 민족성인 此 善心은 실로 역사적 심원한 근거로부터 울어나온 것이니 아니 유사 이전에서 조선인은 此 「선」의 이상을 동경하였던 민족이라 할지나 그는 檀君神歌 중에 「善」의 이상을 찬미한 점으로 보아도 능히 此를 증명할수 잇나니.<4>

어아어아 우리 한배금 놓흔 은덕 배달국에 우리들이 백천만년 잇지마세. 어아어아 「선심」은 활이 되고 악심은 貫射이라. 우리 백천만인 활줄 가티 바른 「선심」 활줄 가티 일심이라. 열탕 가튼 「선심」중에 일점 雪이 악심이라.

이는 단군신화 중 일절인데 如斯히 조선인의 「선심」은 그 발원이 역사이전에서 始하야 단군 시에는 기히 종교적으로 순화되었스며 고구려 시에는 이미 군가로 사용함에 至하였다.

조선인의 「선심」주의는 민족적 특성이 되어 사천년의 장구한 광음과 共히 순화되었는 고로

조선인에는 교화중-모든 것에 속한 것이 선으로써 표방치 아니한 것이 없다. 人을 贊함에 善人이라 하며 行을 贊함에 善行이라 하며 事를 贊함에 善事라 하며 言을 贊함에 善言이라 하며 曰 積善의 家에 반듯이 餘慶이 있다 하며 曰 복은 선에 緣하여 생한다 하며 그리하여 자손을 敎함에는 반듯이 선하라 하며 도제를 訓함에 반듯이 선하라 하며 幼少를 導함에 반듯이 선하라 하나니 이 실로 조선인의 미덕이며 미풍이였다. 자랑거리며 광채이것다. 吾人 이 今에 신문화의 수입을 주창하며 신도덕의 건설을 絶?하는 금일에 際하여 아모리 구도덕·구인습이 여지없이 파괴를 당한다 할지라도 此 「선」 일자는 영원히 보존하며 영원히 항상케 하며 영원히 미화케 하여 우리의 찬란한 미풍을 保하고 그리하여 그로써 신문화의 건설을 益益助長케 하며 益益大成케 하기를 切望하노라.

三. 善의 眞意義를 誤解치 勿하라

吾人은 선언하노니 吾조선민족에는 민족성으로써 此 「선심」이 有함이 吾人에 대한 약점이 아니요. 그가 有함으로써 조선인의 조선인 된 美點이 有하다 하면 吾人은 어대까지던지 此 「善」의 眞意義를 정당히 해석할 필요가 有치 아니하라.

근대 吾조선인은 선을 넘우도 소극적으로 해석하며 退屈的·비열적으로 해석한 점이 만이 있다. 從食無爲를 가르쳐 선이라 하며 退屈自弱을 가르쳐 선이라 하며 천치적 무능을 가르쳐 선이라 하며 무주의 무주장을 가르쳐 선이라 하였다. 이는 실로 李末文弱의 교화가 선을 惡解하여 茲에 至케 함에 급급하였다. 고로 조선민족은 당초-善으로써 <5> 흥하고 다시 善으로써 쇠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즉 단군 고구려의 전성시대는 善으로써 흥하였나니 이상에 述함과 가티 단군은 善의 神歌로써 其民을 발달하였고 고구려는 善의 軍歌로써 其民을 강성케 하였다. 그리하여 李末에 至하여야는 선을 소극적 退屈的으로 오용한 결과는 필경 인민으로 退屈無爲에 陷케 하였다. 然하면 선의 진정 의의는 何에 在하나. 吾人은 此를 일언하야써 吾조선민족성의 美點을 擧코져 하노라.

원래 우주 진리는 진선미로써 表類되었스며 인심의 표현도 또한 진선미의 발휘임은 다시 韋언을 요할 바 아니었다.

원래-人의 心은 一의 靈體이나 그 표현하는 방면과 활동하는 계급에 의하여 스스로 3개의 異한 결과를 생케하나니 즉 心의 과학적 방면으로 나타날 때는 이를 眞이라 칭하며 종교도덕적 방면으로 나타날 때는 이를 善이라 칭하며 예술적 방면으로 나타날 때는 이를 美라 칭케 되는 것이다. 是等の 의의하에서 만일 「선」을 종교, 도덕적 방면으로 보게 되면 기중에 스스로 仁이 잇스며 愛-잇스며 자비가 잇스며 人道-잇스며 정의-잇스며 평등이 잇스며 자유가 잇게 될것이라. 즉 「선」이 종교적 방면에서 仁·愛·자비 등 성질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요. 도덕적 방면에서 人道·정의·평등·자유 성질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고로 선은 선 그것의 구체적 의미에서 仁하여야 하며 愛하여야 하며 자비하여야 하며 人道正意를 실행하여야 하며 평등자유를 주창하여야 할 것이다. 此에 응하는 자는 이곳 선이 될 것이며 此에 反하는 자는 이곳 惡이 될 것이다. 고로 선은 결코 消極이 아니며 退屈이 아니며 비열이 아니며 徒食自弱이 아니니 어대까지던지 精進自修치 아니함이 불가하며 어대까지던지 도덕적으로 勇往邁進치 아니함이 불가하니 고로 吾人은 선의 성질적 방편상 左의 幾條를 첨부치 아니하면 완전한 선이라 云치 못할지라 단언하노라.

一, 선은 생활상 모든 방편을 선으로 활용케 함을 이름이라 함. 吾人의 원래 주창하는 바는 사람의 설정한 바 모든 행위와 방편은 다가티 사람의 생활을 최선히 향상키 위하여 그를 설정하였스며 또 그를 활용하는 것이라 단정하는 것인 고로 선도 또한 생활상 방편을 선히 향상케

함에서 그 의의가 특히 표현된다 함이니 가령 이를 종교 도덕학상 의미로부터 해석하면 吾人은 下와 如히 단언함을 마지아니 하노라.<6>

何故로 如斯한 조직을 가진 우주가 유하나 又 何故로 如斯한 性情을 가진 인생이 유하나 함은 是萬古哲人의 미해결의 문제라 吾人은 감히 此를 關知치 못한다. 다못 吾人이 사실로 知할바는 如斯한 性情을 가진 사람이 如斯한 조직을 유한 우주의 間에 在하야 日夜營營 생활의 지속과 만족의 획득을 圖코저 함은 사실의 사실로 認하는 것이다. 時로 사람은 우주의 근저를 求코저 하며 時로 귀신의 의지를 窺코저 하며 又 時로 萬有의 목적을 知코저 하나 필경컨데 是等은 皆彼의 고유한 性情을 기초로 하고 생활을 지속하며 만족을 획득코저 하는 方面에 不外한 者임을 단언하야 두노라. 그는 종교도 그러하고 도덕도 그러하고 抑亦 정치·법률·경제·과학 모든 것이 다-그러함을 단언하리라. 如斯히 단언한 하에서 선이라 함을 고찰하면 선은 사람이 고유한 性情을 기초로 하야 그의 생활을 지속하며 만족을 획득코저 하는 유일의 方面으로 그는 어대까지던지 생활의 恒상적 근본의의를 떠나 결코 선의 진정한의의가 無하리라하며.

二, 선은 退屈이 아니오=활동이라함. 이상에 述함과 가티 선이 既히 사람의 생활을 지속하며 만족을 획득코저하는 최고의 이상적 方面이라 하면 선은 성질상 退屈이 아니오. 활동의 활동이니 寢하면서 복을 구함이 是-선이 아니며 안식하고 행운을 望함이 是-선이 아니며 優遊하면서 생애를 圖함이 是 善이 안이며 退屈하야 무료를 樂함이 是-선이 아니니 고로 선은 어대까지던지 大히 動하며 大히 取하며 大히 食하고 大히 樂함에서 진정한 선의 의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노라. 만일 「선」을 근대 吾조선인과 가티 무활동한 退屈無爲, 安息優遊로써 自斷한다 하면 그는 既히 멸망의 道어니 무엇이 우리 생활의 恒상적 方面이 되리오. 고로 선을 위함에는 고인의 이른바 「살신성인」의 대활동으로 자아를 위하며 가정을 위하며 사회를 위하며 국가를 위하야 최선히 노력하고 최선히 활동하는 자-되지 아니함이 불가하나니 是等の 의미에서 현대 노동 문제와 如함은 선의 의의를 사실로 표현하는 자라 하리니 何故으 노동 문제는 활동을 본위로 하야 침식무위의 사회적 불한당을 排斥함으로써-라 고로 吾人은 獨善自存하는 道學先生과 自孤獨樂하는 仙人道客은 결코 선을 위하는 자라 칭키 難하고 寧히 日夜營營하는 노동 생활, 孜孜勤勉하는 지사의 행위, 이야말로 진정한 「선」을 계속한다 할지로다.

三, 善은 弱이 아니오 自強이라 함. 獨逸의 열광적 철인 니체는 일즉 선악을 판단하야 「強則善, 弱則惡」이라 하였다<7>. 이는 물론 과격의 言이라 吾人은 이로써 선악의 표준을 삼을 배 아니나 然이나 這理에는 일종 신성의 교훈이 伏在하엿슴은 忘치 勿할지어다.

蓋善의 중에는 철두철미 무조건의 強을 의미하엿다 함은 아니나 弱의 중에도 또한 幾多의 죄악의 분자가 업지 아니 함으로써 보면 「선」은 어떤 의미에서 純粹弱의 분자를 총제한 自強의 정신을 가졌다 할지니 更言하면 선은 優로써 볼수 잇스나 劣로써 볼수 업슴과 가티 强으로써 볼수 잇스나 弱으로써 볼 수 업나니 이 점에서 強則善弱則惡의 교훈도 해석상 적당한 진리가 포함하엿다 할지라 이상에 述함과 가티 선은 철두철미 사람의 생활방침의 向上方便을 말한 것이며 그리하야 그 向上 方便은 철두철미-활동을 본위로 하야 나온 것이라 하면 선의 의미에는 스스로 자강의 의미가 備하엿다 할지니 자강 하엿는지라 능히 생활을 恒상케하고 자강하엿는지라 능히 최선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 아니겠나냐.

자강이라 함은 물론 자기의 인격을 완성하엿다 하는 의미니 아니 자기의 인격을 완성키 하야 스스로 勇進不息함을 이룸일 것일지라 고인의 이른바 「鶴鳴而起??爲善」이라 함은 이 자강을 이룬 것이며 「川流不息」이라 함은 이 자강을 이룬 것이며 「精進不退」라 함은 이 자강

을 이룬 것이니 人이오 자강이 無하고 어찌 他를 化하며 抑又他를 愛하며 他를 濟하리오. 고로 吾人은 자강키 위하여 知를 求치 아니치 못할 것이며 德을 修치 아니치 못할 것이며 體를 養치 아니치 못할 것이니 知를 求하며 德을 修하며 體를 養함은 이곳 자강인데 吾人은 知를 求키 위하여 부모처자를 離하고 만리이역에 羈旅생활을 위함도 可하며 德을 修키 위하여 汎情汎欲을 斷하고 극기반성을 强爲함도 可하며 體를 養키 위하여 安息退屈을 排하고 夜에 走하며 산에 奔함도 가하나니. 어찌 구구이 不遠遊의 古揆들 고수하며 또 어찌 구구히 頭足正重의 인습에 自囚할소냐. 그리하여 그의 所學과 所得을 가지고 世를 濟함에 급급하며 人을 敎함에 勤勤하면 이 자강의 본의에 達한 것이니 善의 道-玆에 至하여 其庶幾라 할진저.

「善」의 定義로 돌아오는 世界現象

금후의 세계는 반듯이 도덕 승리의 세계가 되리라. 도덕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가 되리라. 然한데 玆에 도덕이라 하면 <8> 世人이 動輒因襲陳腐의 觀을 가지고 此를 대할 수 있스나 그러나 본래 도덕이라 云한 語는 고인의 사고와 가티 고정적 편협의 者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님으로 어대까지던지 시세와 반하며 진보와 병행하는 인생의 일상행위를 지칭하여 言한 자임을 忘치 勿할지어다. 吾人은 항상- 인생의 일상행위라 하면 그를 通例 卑近容易한 자라 思하나 然이나 일상 라하여 결코 卑近容易함이 아니니 즉 其 吾人의 일상행위는 아즉도 완전히 「善」 그것대로 표현치 못한 것은 사실이라. 然한데 此 도덕이 今에 문득 유력한 현상으로 나타나(다함은 하등의 이유에 由한 것이냐 하면 그는 근래-정치·경제·법률·가정사회의 모든 문제가 此경향으로 나타나 옴을 보았습으로써니 이른바 「국제연맹」이라 하며 「노동문제」라 하며 「부인문제」 「인간문제」라 함은 다가티 도덕을 표상하고 일어난 것이며 이른바 「데모크라시」라 하며 「인도정의」라 하며 「자유평등」이라 함은 다가티 도덕을 방편으로 하고 나타난 것이라 更言하면 장래의 모든 현상은 선을 표상으로 하며 선을 방편으로 하고 나타날 것이니 철인의 이른바 「천지우주는 日로 선을 향하여 진화한다」 함은 대개 這裡의 소식을 漏한 者라 하리라.

호르토 박사는 「전후의 세계」라 題한 논문의 중에 歐洲文明은 자살적 문명이 自斷하야 曰 만일 如斯한 자살적 문명이 계속하야 今度の 전쟁과 如한 慘毒이 이,삼회-계속 繰返하면 歐洲의 천지는 불원에 여실한 자살적 문명을 不有한 황색 혹은 흑색인종에게 점령됨에 至하리라 하였습은 확실한 獅子吼이라 할 수 있다. 즉 박사는 歐洲에 在한 물질적 문명이 과거와 如히 계승하면 歐洲의 천지는 물질적 문명을 불유한 他 인종에게 점령되리라 함이니 此와 如한 감상은 獨히 호르토 박사뿐 아니오. 타의 인도정의를 주장하는 모든 식자와 일반의 인민은 다가티 此정신의 지배를 受하는 것인 즉 만일 如斯한 관념이 日을 隨하야 팽창하면 금후의 세계는 실로 물질문명의 세계가 아니오 확실히 道德勝利의 세계가 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후에야 선의 진정승리가 각방면의 활동에 의하여 사실로 나타날 것이니 嗚呼라 지상의 천국도 거의 虛誕이 아니라 可推할 지로다.

朝鮮人의 자량거리

조선인은 과거 세계 현상으로 보아 확실히 劣敗者의 一이였다. 특히 물질문명의 패자였다. 물질로써 빈혈자이였다. <9> 고로 조선인이 금후행로는 먼저 물질 문명에 착수치 아니함이 불가하니라. 물질을 연구하고 발달하야 人과 共히 향상하며 人과 共히 발전치 아니함이 불가하니라. 과학에 전념하며 人工에 전문하며 기계를 造하며 공예를 연구치 아니함이 불가하니라.

그러한 후에야 조선인의 조선인된 생존권을 어드리라. 그러나 조선인이 금후로부터 아모리 물질문명에 전념한다 할지라도 그로써 세계의 열강에 응비하여 물질문명의 조선이라 하는 휘호로 세계의 覇名을 얻기는 불능하리라. 단 물질문명은 직접생활의 方針을 향상키 위하여 人과 共히 肩進併行 하기는 可타 하려니와 그로써 人의 선각자가 되며 선진자가 되기는 어느덧 시세의 許치 못하는 바니 즉 조선인이 금후로부터 驚天泣鬼의 才로 물질문명이 세계를 능멸한다 할지라도 그로써 세계인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지라. 何故오 今後의 세계는 물질문명의 세계가 아닐것임으로써라. 그러타하여 余는 결코 물질문명을 배척하는 자는 아니니 세계인이 皆 물질 문명을 배척할지라도 오즉 조선인 하나는 물질문명을 熱拜치 아니하면 불가하리라. 그는 조선인이 조선인의 생활을 人과 共히 향상키 위함이며 人과 共히 병행키 위함에 불과한 자요 특히 조선인으로써 장래 세계에 문화적 芳名을 후세에 遺할 대원인은 조선인의 민족적 특성되는 「선심」을 善히 해석하고 善히 활용하여 善心主義로써 세계의 비인도 부정의를 정복함만 不如하나니 고로 장래 조선의 자랑거리도 「선심」이며 장래 조선문화의 雄飛 세계의 大原因도 또한 「선심」이니 조선인이어 고유한 선심◆의 미덕을 발휘하여 오로지 自彊不息하라. 조선인이어 신의 영광이 선심의 上에 항상 照臨 하엿음을 忘치 勿할지어다. 本題는 우리의 가장 중대한 문제와 동시에 중대히 연구할 필요가 有함으로 本號에는 但히 사회여론을 喚起키 위하여 그 문제만 나타냄에 불과하온 바 機를 見하여 更히 구체적 연구를 重코저 하나이다.<10>

<2-10>

9.

잡지명: 개벽 제14호

발행년월일: 1921년 08월 01일

기사제목: 八字說을 基礎로 한 朝鮮民族의 人生觀

필자: 魯啞 로아

기사형태: 논설

八字說을 基礎로 한 朝鮮民族의 人生觀 (팔자설을 기초로 한 조선민족의 인생관)

魯啞

어떤 부인이 잉태 못하는 것을 걱정하여 자궁수술할 여부를 그의 친지에게 묻는 양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목슴과 가티 여기는 朝鮮여자의 열정과 잉태 못하는 朝鮮 안해의 비애를 보입니다. 그는 자궁수술의 難易와 수술 후의 유효여부를 한참이나 걱정스러이 못더니 문득 自嘆하는 어조로 「다 八字지」하고 한숨을 지웁니다. 그 말을 들은 친지는 新교육을 바든 여자라, 팔자가 무슨 팔자냐고 반박을 합니다. 그는 한참 묵묵하더니 이윽고 극히 자신 잇는 어조로 「팔자지, 팔자에 태어나는 게지, 웨 어떤 이는 왕으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거지로 태어나나」하야 왕이 거지 될 수도 업고 거지가 왕이 될 수도 업는 것을 말하고 다시 여러가지 예를 들어 사람의 一生禍福은 都是 팔자에 태인 것이라, 인력으로 면할 수도 변할 수도 업다는 숙명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 잇다가 그는 다시 친지를 향하야 「수술하면 잉태가

될가」하고 무릅니다. 그는 「자궁의 위치의 잘못됨이 成胎치 못하는 원인인 경우에는 수술만 하면 10에 5는 成胎를 한다」는 대답을 듣고 일어나 가면서

「글세 秋節을 기다려 수술이나 하여 볼가」하고 다시 「그러나 팔자야」합니다.

나는 여기서 朝鮮 민족의 생활의 根柢에 깊이 박힌 무서운 신념의 불길을 보고, 아울러 그 신념이 과학적 新人生觀을 맞나 다소간 동요하는 빛을 보이면서도 아즉도 여전히 朝鮮민족의 생활을 지배하고 힘이 <35>잇습을 보았습니다. 그 신념은 곧 八字說입니다.

그 부인은 자기가 잉태 못하는 것을 팔자라 하고, 세상사람의 부귀와 빈천과 壽夭가 전혀 이 팔자에 달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新의학에서 자궁수술을 한다는 말을 들으며 과학의 힘에 의지해 볼가 하고 반신반의의 생각이 나지마는 그래도 수십백代 遺傳을 통하여 그의 피에 흐르는 민족적 신념의 魔力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수술을 해볼가」, 「그래도 팔자지」 하는 중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그 부인만의 심리상태일가요. 이 부인의 사상은 현대 朝鮮 민족의 사상을 대표한 것인가 합니다. 朝鮮 민족의 인생관의 基調를 成한 근본사상은 팔자설입니다. 王公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그 사상의 근본의 근본을 캐어 보면 숙명론인 팔자설입니다.

그러나 이 숙명론의 鐵軌의 압력에 눌린 朝鮮 민족은 여러가지 음양설과 雜神敎에서 겨우 歸依의 위안을 求합니다. 팔자의 一點이나 一劃은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변할 것이 아니오 오즉 神의 힘으로만 다소간 완화할 수 잇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神이란 百種千種입니다. 山神, 木神, 水神, 마술, 대감, 서낭당가튼 자연물의 神, 또 그러한 자연물에 접하는 神, 帝釋天, 三神, 부처, 菩薩, 閻羅使者가튼 西域으로서 이주하여 朝鮮化한 諸神, 男鬼, 女鬼, 兒鬼, 독감이 가튼 사람 죽어 된 귀신, 다음에는 祖先승배에서 온 祖先의 혼령, 다음에는 道敎에서 들어온 天地日月星辰의 모든 仙官, 神將, 또는 집의 모든 부분을 지키는 귀신, 즉 守門將, 竈王神, 成造神, 마당귀신, 울안귀신 이러한 무수한 神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귀신에게 빌어 팔자의 點劃을 개정하러 하는 예식을 가르쳐 祭祀라 하고 그 중에 제사 맞는 神의 종류를 딸아 祖先의 忌日祭, 佛供, 山川祈禱, 七星祈禱, 굿, 마지, 告祀, 山神祭, 龍神굿, 서낭祭, 經, 무르츠개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에 말한 것 중에 山川祈禱, 七星祈禱, 龍神굿 가튼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이어니와 祖先의 忌日祭, 四時의 告祀(어떤 집에서는 굿과 佛供까지) 가튼 것은 거의 어느 집에서나 다 行하는 연중행사외다. 그리고 혼인이나, 喪事나, 먼 여행이나 기타 특별한 大 사건이 잇을 때에는 누구나 특별한 정성으로 告祀를 지냅니다.

그리고 祖先의 분묘의 자리가 子孫의 운명에 관계한다는<37> 신념은 墓地規則을 復歸케 할 만큼 견고하며 집의 方位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시골서는 四時에 牛, 鷄를 잡아 그 洞里的 수호신인 城隍祠에 祭를 지내며 旱魃이나 惡疫가튼 재앙이 臨할 때에는 특별한 祭를 지냅니다.

근년에(특히 平安北道지방) 무당과 장님이 차차 더욱 勢를 어더 촌락에서는 북소리 쟁과리 소리가 끈히지 아니하며 病人이 생기면 의약을 救하기 전에 먼저 무당이나 장님의 집으로 가서 어느 귀신이 發動하는가를 묻고 다음에 漢藥을 써보고 최후에 洋藥을 써볼 형편입니다.

누가 朝鮮민족의 종교를 유교라 합니까. 윤리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바든 것은 사실이지마는 朝鮮민족의 근본신앙을 作한 것은 (그것이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아즉 역사적으로 확언할 수 업지마는) 숙명론적 雜神敎외다. 입으로 孔孟의 道를 부르짖는 儒者의 집도 孔孟의 道를 談하는 것은 밋사랑뿐이오 한번 中門을 들어서면 곧 숙명론적 雜神敎의 세상이외다. 그 雜神敎의 승려가 무당이라는 여성인 모양으로 이것의 가장 열렬한 信徒도 대부분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는 大闕이 이 雜神敎의 본부라 할만한 형편이었나니 무당서방 叅頌은 누구나 다 아주 잊지 아니한 것일 줄 압니다.

이러케 朝鮮민족의 근본신념이 숙명론적 雜神敎이기 때문에 외국으로서 수입되는 종교도 차차 朝鮮化하여 숙명론적 雜神敎의 색채를 띠게 됩니다. 부터님은 원래 숙명론적도 아니요 잡신교적도 아니지마는 朝鮮민중은 그 역시 木神이나 대감가튼 성격을 만들어 노코야 맙니다. 그보다도 더 새로운 사실은 耶蘇敎의 한운님이니 朝鮮에 들어온지 아주 얼마가 아니되었지만 朝鮮민중은 그를 西洋서 온 대감이나 龍神가튼 이로 알아 병을 고치며, 여자를 생산케 하며, 돈을 모호게 하며, 잇다금 當場의 罰을 나리워 집에 불을 노코 인명을 상해하는 큰 귀신으로 알게 됩니다.

朝鮮서 가장 민중에게 영향을 만히 주는 經典이 무엇입니까. 四書五經입니까. 新舊約聖經입니까. 나는 말하기를 이도 저도 아니요 鄭堪錄이라 합니다. 朝鮮민중 중에 鄭堪錄을 어더 본 사람은 몇명이 아니 되리다 마는 兒童을 除해 노흔 朝鮮민중 치고 鄭堪錄 중의 1, 2절을 못들은 者도 업고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 중에 몇句를 아니 밋는 者가 업스리라 합니다. 一世의 호걸인 大院王도 그의 필생의 정력을<37> 鄭堪錄에 예언된 李朝의 運命의 進路에 바치기에 다하였다 합니다. 지금도 鷄龍山으로 사람들이 만히 모혀든다 하니 이것을 일부 愚民의 妄舉라고 一笑하여 버릴 수 업는 것이오 진실로 朝鮮민족의 혈액 중에 흐르는 숙명론적 인생관의 발로라 할 수 있습니다. 鷄龍山으로 짐을 싸가지고 가는 者는 몇백이나 몇천에 지나지 못하더라도 「갓스면」 하는 생각을 품은 者는 수백만에 달할 것이며 「求人種於兩白」, 「求穀種於三豐이」라던지, 眞人이 從海島中出來라던지 「庚申辛酉 流血成川」, 「壬戌癸亥 萬事可知」 하던지 하는 예언을 확신하는 者, 半信하는 者, 그럴는지도 모르리라 하는 者는 거의 30세이상 된 朝鮮민족의 전부라고 할만 합니다. 누구나 혹은 신변의 위험을 두려하며, 혹은 人에게 迷者라는 嗤笑를 받기를 꺼리어 筆舌에 이러한 뜻을 發치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胸臆에는 이러한 생각을 祕藏하고 잇는 이가 저마다인가 합니다. 이는 다만 無敎育한, 또 書堂式敎育을 바든 者 뿐이 아니요 지식정도로 보아 중류이상인 계급도 이 遺傳的 미신의 臭氣를 脫하지 못합니다. 대저 新敎育이나 新환경은 인생의 생활의 表皮를 변하나 그 心臆의 성격은 수십백代의 遺傳의 축적을 통하지 아니코는 變키 어려운 것입니다. 학교에서 新敎育을 바다 言辭로는 新생활을 하는 듯 하지마는 그의 心臆에는 여전히 祖先전래의 신앙과 인생관이 숨어 잇서 무슨 급한 일 重한 일을 당할 때마다 新敎育에서 어든 表皮는 아모 힘도 업서지고 이 心臆의 괴물이 그 인격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부스럼이 나면 新式병원으로 가되 좀 생명에 관한 중병이면 漢醫에게 問하고 더욱 위중하게 되면 무당이나 장님에게로 가게 됩니다. 입학이나 졸업에는 날바지도 할 수 업지마는 혼인이나 搬移에는 宮숨을 보고 날을 맞고 고사를 지냅니다.

우에 말한 婦人도 電燈미테서 윤전기에 인쇄된 신문을 보고 淸마의 소설과 월손의 연설을 보면서 그날의 天氣豫報를 이용 關王廟에 자식 빌러 갈 준비를 합니다. 그의 말하던 바와 가티 今秋에 건강이 회복되어 어느 의학박사의 손에 德國製 멧서로 腹部수술을 하게 된다 하면 그는 응당 수술 前에는 수술을 무사히 지내게 해달라고 어느 부터님이나 대감께 빌 것이오, 수술이 무사히 된 뒤에는 자식 점지하기를 빌다가 만일 남자를 어드면 이는 수술과 神明의 덕일 것이오, 불행히 잊지 못한다 하면 이는 자식업슬<38> 팔자일 것이외다.

이상에 말한 바와 가티 朝鮮 민족은 그 일상생활에나 또는 민족의 운명에나 그네의 心臆에 根柢 깊히 박힌 숙명론적 인생관의 지배를 받습니다. 毋論 이러한 숙명론적 미신적 유전의 인생관의 마취에서 완전히 벗어난 者와 벗어나려고 애쓰는 者의 계급도 잇게지마는 그것은 아주

少數외다. 李敦化씨는 朝鮮이 이미 사상적 혼돈기, 방황기가 지나가고 統一期에 入한다 하십니다. 이것은 朝鮮 민족 중의 最高한 지식계급이라 할만한 一계급만을 割取하여 노코 본 말 이요, 朝鮮 민족 전체를 본 말은 아니외다. 朝鮮 민족 전체로 보면 겨우 舊사상이 新사상의 압해 파괴되려 하는 「混沌期」에 入하는 初步라고나 할 수 잇슬가 합니다. 新사상의 風雨가 舊사상의 磐石을 완전히 霉爛하야 완전한 混沌期(天地가 새로 剖判하라는)에 達함에는 아즉도 만흔 세월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합니다.

철도가 깔리고 전선이 노히고 아스팔트 도로가 되고 電燈 미테서 운전인쇄기에 박아낸 신문을 보게 되었지마는 이 민족은 정신생활은 아즉도 舊시대외다. 기차 타고 名卜과 名刹 차자 단이고 전등 켜고 고사 지나는 형편입니다. 電信電話線이 거미줄과 가티 얹히는 것이 朝鮮의 문명에 어떠한 관계가 잇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李氏 末端에 「千里長松, 一朝白立」이라는 鄭堪錄의 李朝 운명의 예언이 마즌 것에 더욱 흥미를 가지며, 철도와 朝鮮민족의 생활과 어떠한 것을 생각하기보다 철馬來嘶漢水濱의 예언이 마즌 것을 신통히 여깁니다. 南大門通이니 太平通이니 하는 길들은 20세기식이지마는 주민의 中門을 들어서면 모든 배치와 활동이 다 舊朝鮮式인 것과 가티 우리의 정신적 생활도 表新裏舊의 이중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이러케 因襲한 宿命론적 舊사상의 보루가 아즉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민생의 생명을 嘶殺하는 大碗口를 끈힘업시 듯는데, 게다가 또 近年에 日本을 거쳐 새로 수입된 洋式 宿命설마저 들어와 所在에 砲壘를 싸코 과학의 냄새를 뿜 毒瓦斯를 발사합니다. 아즉 이러한 사상을 대표한 사상가나 文士의 명성은 들어나지 아니하였지마는 근래 청년이 쓰는 시, 소설, 書簡, 談話 등에 흔히 「아아 운명이로다」, 「아아 내 운명이여!」하는 등 語句가 흔히 보이고, 또 이러한 語句는 독자에게 깊은 共鳴을 주는 모양이니 <39>그것은 그럴듯한 일이외다. 대개 자기가 회미하게 생각하던 바를 남에게 분명히 들으면 자기가 생각치 아니하던 것보다 더욱 인상이 깊혀지는, 심리와, 또 자기도 회미하게 미드나 올흔지 그른지 모르던 것을 자기보다 세력이나 知力이 우수한 者가 승인함을 보면 자기도 더욱 깊히 신앙하게 되는 심리를 통하여 그러케 됨이외다. 유전적 宿命론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철도와 電信과 비행기를 발명한 洋人의 운명론에 심취함은 진실로 그럴만한 일이외다. 기실 洋人의 宿命론은 洋人중에 가장 懶惰한 洋人의 造出에 불과하건마는.

中國으로써 수입된 五行說에 기초한 팔자설은 한문의 세력의 失墜로 더불어 衰하기도 하려니와 洋風에 불려 들어와 지식계급의 청년의 腦髓에 浸潤하는 洋式 팔자설이야말로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케 宿命론적 인생관이 우리 민족의 생활을 지배한다 하면 거기서 어떠한 결과가 生하였는가.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깊히 생각할 것이니 지금까지 내가 累累히 진술해 온 것도 진실로 이를 위함이외다.

개인이나 민족의 盛衰興替는 오즉 팔자와 運數에 달린 것이니 이것은 죽음이라도 緩和하는 방법은 오즉 神明의 陰祐를 빌기에 잇다 하는 宿命론적 인생관은 「懶惰」, 「僥倖」, 「迷信」, 「依賴」가튼 개인과 민족의 생활의 毒이 되는 諸惡의 어미가 됩니다. 懶惰, 僥倖, 迷信, 依賴! 이것이 우리 민족의 공통한 습성이 아닙니까.

生年月日時의 四柱八字와 相貌와 掌紋에 이미 일생의 吉凶禍福이 결정되었다 하면 구태 심신을 勞하야 일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될 팔자」가 아닌 者는 아모리 노력하여도 부자될 수 업고 「귀인될 팔자, 장수할 팔자」가 아닌 者는 아모리 수양과 修學과 위생에 힘을 써야 쓸대업슬 것입니다. 또 一國이 亡함도 運數니 구태 붓들려고 애쓸 필요도 업고, 興함도 運數니 구태 興케 하려고 경영할 필요도 업슬 것입니다. 그러한지라 自來에 소위 運을 알아

난세에 나오지 안코 산에 숨어 국가의 멸망을 초월시키는 者를 賢人이라 칭합니다. 國運이 기울어지매 一命으로써 이를 버티려 하지 아니하고 제손으로 제 목숨을 끈는 愚學를 하는 者를 忠臣이라 합니다. 이러케 運이란 핑계로 「莫非運」, 「命也奈何」, 「天之亡我也」가튼 듯기 조흔 漢文句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乾乾, 孜孜히 進取하자 創作하자 建設하자 <40> 挽回하자는 進取의 기상을 乏함이 모다 懶惰에 속할 것이외다.

甚至에 학생들조차 시험의 及落第는 運이라 공부 잘하고도 낙제하는 수도 있고 공부 아니하고도 우등하는 수도 있다, 하며 야구나 정구가튼 경기의 승부도 운에 있다, 는 말을 하게 되어 공부와 연습의 誠勤을 闕합니다.

숙명적임을 信함으로 무슨 일이나 그 일이 성공되도록 심신의 精力을 들이지 아니하고, 그 일이 성공되기를 오즉 僥倖에 맞기게 됩니다. 재산이면, 형제, 줄부, 功名이면 우연한 기회의 異跡的 功名, 一국가나 민족에 관하여서 혹은 神人の 現出, 혹은 어떤 외국의 異跡的 援助. 학교시험에는 請이나 雜手로 僥倖的 우등. 이리하여 최고급의 志士도, 지식계급도, 실업가도, 학생도, 男도, 女도, 모다 각자의 所願의 功을 요행에서 成하려 합니다.

실력업시 학교에 입학하는 이도 요행의 信者, 넉넉한 인물과 금전의 예산도 업시 사업에 착수하는 이도 요행의 信者외다. 우리 중에 무슨 일을 경영할 때에 그 일을 일우게 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시하기에 족한 인물과 금전의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비릇오 그 일에 착수하는 이가 머치나 됩니까. 만일 이러케 正經大道로 경영하는 사업이고 보면 결코 시작이 꺾치 되고 龍頭蛇尾가 되는 추태를 現出하지 아니할 것이로되 근년에 우리 중에 넘우 만흔 사업들이 갑자기 蔚興하였다가 갑자기 슬어지는 것은 요행이란 기초 우에 건설되었던 증거입니다.

요행을 바라는지라, 남에게 (그 「남」이 神이던지 人이던지) 의뢰할 생각이 납니다. 「請을 한다」는 관념은 누구던지 가지고 있습니다. 입학에서, 직업을 구함에나, 公事에나 「請을 하는 것」이 실력보다도 성공의 捷路로 압니다. 그럼으로 가장 우수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란 가장 유력한 請을 할만한 上典을 모신 사람이외다. 古來로 朝鮮에서 勢道를 하던 者는 실력을 넉넉히 가진 者보다 請할 곳을 만히 가진 者였습니다. 科擧에 장원급제도 請으로, 牧使 監司도 請으로, 陸軍參領, 副領도 請으로, 죽을 죄를 면하는 것도, 남을 죽을 죄에 넣는 것도, 모다 請으로 되었습시다.

그리고 一國의 경영조차 依賴로 일을 삼아 俄가 侵하거든 日에 請하고, 日이 侵하거든 淸에 請하엿습시다. 금일에도 혹은 美에 請하고 혹은 俄에 <41> 請하야 만사를 남에게 의뢰함으로써 해결하려 하니 참 딱한 일이외다.

이러함으로 우리 중에 정신상으로나 경제상으로 독립한 생계를 가진 개인이 드물어 一個의 有實力한 개인의 등에 數個 내지 數十百個의 無實力한 개인의 떼가 업혀 사는 지경이니 貧은 더욱 貧하고 弱은 더욱 弱하야질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부모의 보육하의 상당한 교육을 바닷거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기의 생활을 자기의 줍억 위로 하여 간다는 독립자주성을 가지어 자기의 줍억 위로 엇지 아니한 지위나 재산을 坐享하기를 큰 수치로 알게 되고, 一步를 내켜서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천재와 능력을 발휘하여 학술에나 사상에나 前人未到의 境의 闖入하고 富로나 貴로나 壽로나 出衆한 인물이 되리라는 氣概가 잇서야 할 것이어늘 오늘날 우리 중에는 高等한 전문교육을 바든 者조차도 父祖의 遺業에 의뢰하는 釋態를 免치 못합니다.

미신에 대하여서는 우에 말한 것이 만흐니 다시 煩論하려 아니합니다.

또 懶惰하야 성공을 요행에 바라는 고로 猜忌가 생기고 허위와 巧詐가 생깁니다. 무슨 일이나

성공함은 오직 실력에 있다, 정직한 노력에 있다 하는 신념이 강할진대 자기보다 偉한 공을 成한 者라고 이를 시기하여 모함할 필요도 없고 巧智詐計로 남을 들어 넘을 필요도 업슬 것이외다. 근일 東亞日報에 연재된 李朝人物略傳을 봅시오. 그 인물들의 서로 殘害함이 모다 猜忌와 巧詐로가 아닌가. 正業에 근면하는 농부는 이러한 惡을 行할 여유가 업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거름을 내고 물을 대고 기심을 매는 것만이 오직 자기의 秋收를 만케 하는 길인 줄을 잘 압니다. 그럼으로 그는 구태 이웃의 곡물을 해치려 아니하고 돌이켜 旱災나 蟲災가 잇슬 때에는 大同의 患으로 이를 구제할 생각을 가집니다. 요행이나 猜忌나 巧詐를 꾸며내는 者는 흔히 懶惰한 者입니다. 제 노력을 안들이고 남의 노력으로 된 功을 앗으려는 者의 즐거서 하는 바입니다.

法國의 석학 르본박사는 그의 著 민족심리학에 一國民의 역사는 반듯이 그 종족의 심리조직에 胚胎하는 것이라 하여 그 국민의 심리적 특징(해부적 특징에 대하여)만 알면 足히 그 국민의 생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判定할 수 잇스리라 하며 一國民의 <42> 문명을 조직한 각 요소는 전혀 그 국민의 정신의 發現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정신은 극히 단순한 1, 2개의 근본사상을 기초로 하는 것이니 一國民의 萬般제도와 문물이 전혀 그 사상의 표현이라 하여 여러 민족의 실례를 들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라틴族은 복종을 조화하고 평등을 조화함으로 專制主義의 국가를 조화하고, 앵글로색슨族은 자주와 자유를 조화함으로 국가의 권력을 최소한도에 축소한 自治制度를 조화한다 하여 前者의 예로 박사의 고국인 法國과 西班牙를 들고 後者의 예로 英國과 美國의 예를 들었고 또 라틴族의 미신적 이상적임과 앵글로색슨族의 과학적, 실제적인 특징을 지적하여 前者의 後者에 比하여 산업이나 식민지의 繁昌치 못함을 이 원인에 돌렸습니다.

또 박사는 초대 로마의 末年의 로마의 국민의 근본사상의 변천이 로마의 성쇠와 흥망의 원인이 된 것을 지적하여 로마국민으로 하여곰 세계의 주인공이 되게 하던 奮鬪의 정신이 頹廢하여 姑息逸樂의 정신과 자리를 바꾸게 되매 大로마제국은 壞滅하였다고 痛嘆하였습니다.

어떤 민족이 흥할 때에는 그를 흥케 하는 일종의 근본사상이 잇고 망할 때는 그 사상이 頹廢된 때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사상이란 아모 幽玄奧妙한 것이 아니요 극히 단순한 것이니 가령 로마인의 奮鬪라던지, 希臘人の 審美性이라던지, 英美人の 실제적 성격이라던지, 印度人の 退嬰無爲의 성격, 中國人の 非사회적 이기심 가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현재의 쇠퇴를 招한 근본적 사상은 진실로 八字說을 중심으로 한 숙명론적 인생관과 떨어져 나오는 모든 병적 성격이외다. 그럼으로 우리 민족을 이 쇠퇴에서 끌어내는 근본방침은 爲先 이 咀呪바든 숙명론적 인생관을 타파함이니 이 사상이 다수의 朝鮮민족을 지배하는 동안 결코 금일의 쇠퇴를 벗어날 수 업는 것이외다. 다시 말하면 朝鮮민족을 쇠퇴로 끌어 너흔 재래의 근본사상을 그의 腦筋에서 刮去해 버리고 건전한 新근본사상의 植皮術을 행함이외다. 新인생철학을 주고 新신앙을 줌이외다.

그러면 이 숙명론적 사상을 타파하는 방법이 무엇일가. 그의 제1의 길은 과학교육이외다. 그중에도 자연과학의 교육이외다. 과학의 교육은 다만 朝鮮민족의 생활의 물질적 풍부를 위하여서만 필요한 <43> 것이 아니요, 진실로 그의 민족적 생명을 蠱毒하는 근본사상의 바틸스를 박멸하는 가장 효력이 위대한 注射요 祛惡生新한 膏藥이외다.

그런데 재래의 우리 新교육계에서는 과학, 특히 생물학가튼 자연과학은 輕히 여기는 弊가 잇섯는 듯합니다. 理科교육은 이를 맞는 학생은 물론이요 이를 주는 교사까지도 그 眞意義를 모르는 것 가뜰니다. 어학이나, 역사, 문학가튼 것은 상당히 注重하면서도 과학은 輕히 여겼습니다.

해외의 유학생들을 보더라도 法, 政, 경제, 문부가튼 文科부류의 학과를 배우는 者만 만코 理科부류의 학과를 택하는 者는 적읍니다. 의학, 공부가튼 應用理學을 배우는 者는 혹 잇스되 과학을 위하여 과학을 배우는 者는 거의 업다고 할만합니다. 우리 중에 高等師範의 理科에 博物을 배운 이가 2, 3人 잇슬 뿐입니다. 그래서 아즉 朝鮮에는 과학적 정신, 과학적 空氣라는 것이 생기지를 못하였습시다. 금후의 우리의 물질적 생활자료를 얻기에나, 민족적 新정신을 振作할 과학교육에 주력함은 극히 필요한 일이외다. 그보다도, 다만 과학적 지식을 학생의 두뇌에 주입하기보다도 동시에 과학의 眞意義, 즉 과학과 인생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게 하여 과학적 지식을 가진 者만 되게 말고 과학적 정신을 가진 者가 되게 함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정신과는 결코 하나이 아니니 윤리적 지식을 가졌다고 반듯이 德잇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리 윤리적 정신(情과 意를 主로 한)이 生한 뒤에야 그것이 行에 發함과 가티 과학적 지식이 잇다고 과학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오 그 지식이 情意와 合하여 과학적 정신이 된 뒤에야 비로오 그를 가진 者의 생활이 과학적이 되는 것이외다. 英國의 헉슬리, 德國의 헤켈가튼 이는 그 동포에게 과학적 정신을 주입하기로 유명한 학자들이외다.

다음 민족적 근본사상을 새로 줌에는 앵글로 색슨족의 인생철학의 정신을 주입함이니, 르 본 박사의 말과 가티 현대 諸民族 중에 가장 생활에 適者될 소질을 가진 者는 英美人이외다. 그네의 인생철학인 功利主義(Utilitarianism) 그것을 더 철학화한 實用主義(Pragmatism)를 실어들이는 것이 가장 긴요한 일인가 합니다. 母論 甲민족의 사상을 고대로 乙민족에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마는 이 사상이 朝鮮민족에게 들어와 소화되고 흡수되는 동안에 朝鮮式 색채를 띄게 될 것은 면치 못할 일이오 또 致賀도<44> 할 일이지마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철학은 이것인가 합니다.

나는 이상에 지금까지의 朝鮮민족의 생활을 지배하던 근본사상이던 것과 그의 금일의 쇠퇴를 招한 원인이 이 근본사상에 잇스니 이것을 打破하기 전에 그는 신생의 道에 나서지 못할 것과, 그리함과 과학적 정신과 실용주의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였습시다. 그러나 실용주의가 어떠한 것인가 함에 대하여는 말할 여지가 업슨즉 다 기회를 기다리려니와 이 小論이 민족의 前途를 우려하는 사상가, 교육가 諸君에게 微微한 참고가 되고 토론의 제목이 된다 하면 幸甚이겠습시다.<45>

<35-45>

10.

잡지명: 개벽 제15호

발행년월일: 1921년 09월 01일

기사제목: 生活의 條件을 本位로 한 朝鮮의 改造事業, 이 글을 特히 民族의 盛衰를 雙肩에 負한 靑年諸君에 부딪

필자: 李敦化 이돈화

기사형태: 논설

生活의 條件을 本位로 한 朝鮮의 改造事業, 이 글을 特히 民族의 盛衰를 雙肩에 負한 靑年諸君에 부딪 (생활의 조건을 본위로 한 조선의 개조사업, 이 글을 특히 민족의 성쇠를 쌍견에

부한 청년제군에 부딪)

李敦化

- 1) 少年의 朝鮮半島
- 2) 生活의 條件과 宗教의 信條
- 3) 生活의 條件과 道德의 觀念
- 4) 生活의 條件과 藝術
- 5) 生活의 條件과 勞働問題
- 6) 生活의 條件과 戀愛問題 其他

一. 少年의 朝鮮半島

吾朝鮮의 今日을 稱하야 少年의 朝鮮이라 이르라 老年의 朝鮮이라 이르라. 나는 우리 朝鮮의 현재를 일러 少年의 朝鮮이라 함을 마지아니한다. 長江의 初發源과 가티 萬里의 前程을 둔 朝鮮이며 一陽의 初動機와 가티 三春의 장래를 豫期한 朝鮮이며 그리하야 聖哲英傑의 資格을 準備하고 있는 秀才와 가티 少年의 朝鮮半島임을 선언하고 십다.<2>

兄弟들이여. 朝鮮은 老成의 朝鮮이 아니오 少年의 朝鮮임을 永遠히 잊지 말지어다. 兄弟들의 頭上에는 大天星辰이 燦然하며 兄弟들의 足下에는 大地山河가 鬱蒼하며 그리하야 兄弟들의 眼中에는 澄澄한 瞳子가 있스며 胸中에는 熱烈한 火의 氣가 있스며 精神에는 활발한 靈魂을 가졌나니 이곳 우리 少年半島를 改造할 資本이며 少年半島를 革新할 基礎이거니 우리에게 다시 무슨 우려가 있스며 비참과 공포를 가질 여지가 있스랴.

兄弟들이여. 兄弟들의 背後에 四千年 歷史가 있다 하야 구구히 그것 뿐으로 兄弟들의 영광을 삼지 말라. 過去의 文化는 祖先의 文化이오 兄弟들의 文化가 아니며 歷史의 事實도 祖先의 事實이오 兄弟들의 事實은 아니었다. 兄弟들의 文化와 兄弟들의 事業은 現在 兄弟들의 魂으로 創造하며 兄弟들의 피로 整頓하며 兄弟들의 손으로 자아낼 뿐이니 兄弟들은 모름즉이 新生의 憧憬과 復活의 氣概로써 삼가 少年의 少年人이 될 것이며 少年의 少年半島를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일즉 어떤 哲人이 사람의 生死를 論함에 「사람의 生死는 一種의 歸幻作用이라」 한 句節을 본 일이 있었다. 歸幻作用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死後精力은 결코 消滅함이 아니오 恒久히 社會的 精神과 融合하여 영원히 歸幻作用을 계속한다 함이니 例하면 前代 億兆의 精力은 現代 億兆의 精神과 融合活動하고 現代 億兆의 精力은 다시 後代 億兆의 精神과 融合一致하여 恒久活動하는 作用을 일러 歸幻作用이라 칭하는 것이었다. 吾人이 高一此言의 中에 一種의 眞理가 있다 하면 此理를 延長하여 全 民族 혹은 全 世界의 榮枯盛衰도 또한 如斯한 理由下에서 歸幻作用을 繼續한다 이르리라. 즉 우리 祖先의 文化가 어떠한 程度에서 그 시대에 適合하리만치 發達의 極致에 到達하고 보면 그 文化로부터 스스로 老成의 色彩를 帶하야 가면서 그 自體에서 弊害와 澁滯가 生하야 되디어 壞滅乃已하고 다시 根底로부터 一種의 新萌芽가 도드면서 他一種의 新文化를 그 基礎의 上에 建設하는 作用을 吾人은 文化의 歸幻作用이라 할 것이었다. 이 原理를 歐洲文明의 潮流에 비추워 보면 彼古代 아시리아 猶太 埃及의 文明이 一變하야 希臘文明이 된 것이며 希臘文明이 다시 羅馬文明으로 변한 것이며 羅馬文明이 近代文明으로 轉한 것이며 近代文明이 更一層 今日 一種의 新文明으로 轉機코자 하는 作用은 이곳 世界文化의 歸幻作用이라 할 것이며<3> 그리하야 一民族의 盛衰榮枯는 곧 그 一民族의 文化의 歸幻作用이 되는 것이니 如斯히 一民族이나 一世界의 文化가 다 가

티 轉又變해야 一文化가 다시 他一文化로 榮轉하는 間に 永遠의 創造와 永遠의 建設 不絶히 繼續되는 것이었다.

이 原理로써 보면 우리 朝鮮의 今日은 文化의 歸幻作用의 初步에 들어가는 중이니 우리 朝鮮에 在하야는 古代 檀箕의 文明에 三國時代의 文明으로 變하엿스며 三國時代의 文明이 高麗文明, 高麗文明이 李朝文明으로 變하엿스며 그리하야 今日은 世界潮流의 文明이 吾祖先의 文明과 融合하야 一層 大韓 一層 新한 文明이 歸幻作用에 의하야 建設의 頭緒를 露出하는 千古一遇의 大機會에 接着하엿섰다. 이상에 述함과 가티 一文明이 그 時代에서 어느덧 發達의 極致에 達하고 보면 그 文明자신의 病的 現像으로 돌이어 壞滅乃已하는 衰運에 入하고 그 裡面으로 一種의 他一文明이 萌芽하나니 吾朝鮮은 近代 屢百年 이래-文化의 極端한 消極的 變化를 致하야 內로 積極的 改善이 업섯고 外로 時代的 順應이 업섯든 結果는 되디어 그 文化 자신으로부터 自壞의 悲運을 致하야써 今日의 衰退를 致케 한 것이라. 그럼으로 朝鮮의 近代 現像은 衰함이 其極이며 退함이 其極이었다. 이제 다시 보다 이상의 衰를 招할 餘地가 업스며 보다 이상의 退를 둘 餘日이 업는지라 이제로부터 歸幻作用의 原理에 의하야 衰-轉하야 盛에 登하는 路程에 잇스며 老-化하야 少에 歸하는 作用에 이르렀나니 우리 兄弟는 실로 少年의 少年人이며 우리의 半島는 실로 少年의 少年半島이었다.

如斯히 우리에게 이미 歸幻作用의 움이 도닷다 하면 그의 萌芽는 날로 新鮮한 生命에 의하야 不知不識의 成長力이 胚胎되엿스리라. 勿論 우리의 中에는 아즉도 腐敗의 臭와 退屈의 氣가 둘러잇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죽어 가는 사람의 最終의 呼吸에 지내지 안홀 것이요 그 氣分의 中에는 空中의 新芽와 가티 新生의 元氣를 가지고 歸幻作用의 動脈이 쉬지 아니함을 默然의 裡에 占得할 수 잇스리라.

우리에게 이미 歸幻作用의 動脈이 循環하게 되었다 하면 吾人은 이를 青年의 元氣에서 기다릴 것이며 青年의 山 魂에서 그의 맥박을 診察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山 元氣와 그들의 山 精神 속에는 少年의 朝鮮이 눈을 뜨고 잇슬 것이요 少年의 朝鮮이 魂을 깨고 잇슬 것이다. 그들에게는 새 朝鮮의 새 文化가 날로 成長하야 갈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 <4> 朝鮮의 장래는 그들의 山 精神에 의하야 모든 것을 改造하게 될 것이었다.

내가 이제 朝鮮의 改造事業이라 題하고 宗教를 논하며 道德을 논하며 藝術 及 其他 모든 것을 抽象的으로나마 一言코저 하는 것은 그 뜻이 他에 在함이 아니요, 우리 朝鮮은 少年의 朝鮮인 故이며 少年朝鮮은 青年의 元氣에 의하야 建設될 것임으로써 이며 그리하야 青年의 元氣는 精神改造에 의하야 徹底히 그의 自覺이 날 것이며 精神의 改造는 宗教 道德 藝術이라 하는 精神的 覺醒여하에 의하야 建設될 것임으로써-라.

우리 朝鮮사람이 어느덧 精神問題라 하는 抽象的 改造問題에 至하야는 점차 嫌忌의 風이 유행하며 又是 중요시, 徹底視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잇섯슴은 나는 이를 크게 우려하노니 何者오. 朝鮮人은 아즉도 精神改造라 하는 위대한 力을 맛보지 못한 결과-이로써 人格의 해방을 완전히 엇지 못하엿스며 따라서 모든 改造事業의 파탄을 生케 하는 것이라. 원래-인류가 精神을 중요시하는 것은 생활의 조건에 대개 十二分- 精神의 건전을 待치 아니하는 者-업슴으로써이어늘 世人이 왕왕이 古道學 先生의 所考한 바와 가티 精神과 生活條件을 구별하야 精神現像은 生活條件에 관계가 업다 하는 가정을 전제로 삼는 폐해는 되디어 朝鮮人으로 형식을 主로 하고 실지를 客으로 하는 여폐를 蓄成케 되었다. 즉 朝鮮人은 아즉도 만사를 일종의 연극으로 보아 成敗利鈍을 實力實地이라 하는 精神基礎에 두지 아니하고 虛飾, 假裝, 僥倖, 境遇, 投機, 釣名이라 하는 形式上 색채에 의하야 扮裝하는 것은 이 대개가 우리에게 健全한 精神建設이 업슴으로써이다.

兄弟들이어. 나는 다시 重言復言하노니 우리 朝鮮事業의 건설에 아무리 그 시기가 절박하얏다 할지라도 兄弟들의 基本資財되는 精神이 不健全한 이상은 모든 事業의 건설이라 하는 것은 이 沙上에 屋을 建함과 다름이 업슬지라. 우리가 彼所謂 文明事業이라 하는 모든 建設事業을 볼 때에 그 외형에 나타나는 巍巍한 형식으로써 다못 그들의 虛飾, 假裝, 僥倖, 投機라 하는 일시의 충동으로 생길 것이라 오해하여서는 이 大한 모순이 되나니 表는 裏의 果라 外形의 偉大는 어느덧 그 精神의 偉大를 證明하는 것이니 우리는 삼가 外形으로써 精神을 忘却하지 말자어다.

然한데 精神의 改造는 스스로 宗教의 改造를 預期하는 것이며 道德의 改造를 要하는 것이며 藝術의 改造를 要하는 것이니 彼歐州文明이라 하는 現代文明에 是等の 精神改造로부터 產出한 것임은 吾人은 영원히 이를 잊지 말어야 할 것이다.<5> 그리하여 우리의 改造事業도 是等の 宗教改造 道德藝術의 改造事業으로부터 점차 步를 옮겨 나아가는 동안에는 반듯이 生活條件도 此와 並行하여 改造될 것이며 따라서 少年半島에 少年의 新生活이 展開되리라.

二. 生活의 條件과 宗教의 信條

何故로 이러한 組織이 있는 宇宙의 間에 何故로 이러한 性情을 가진 인생이 잇슬가. 이는 아즉 吾人의 知力으로 判斷할 能力이 업다. 다만 우리의 생각 중에 實際로 업지 못할 유일의 조건은 어찌하여 낫던지 已往 이 世上에 난 이상은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사실이며 已往 살기로 目的할진대 보다 이상의 잘 살기를 구하는 것이 原則이었다. 즉 잘 살기 위하여 모든 생활의 淸부를 구할 것이었다. 이 곳 인생의 先天的 約束이며 本能的 衝動이라 할 것이다. 그럼으로 생활이라 하는 것은 결코 虛飾이 아니며 치레가 아니며 手段이 아니며 過渡가 아니며 偶然이 아니요 人類의 생명이라 하는 高尚한 源泉으로 솟아 나오는 歸結의 實在이며 既定의 행위이며 필연의 目的이 되는 것이라. 이점에서 사람이 잇슴으로 生活이 잇다 하니 보다 차라리 사람이 잇기 위하여 生活이 잇다 함이 더욱 切實할 것이다. 즉 사람은 자기가 잇는 證明으로 生活을 營爲함이 아니요 자기를 살리는 目的으로써 生活을 經營한다 하리라.

원래 生活이라 하는 것은 다만 먹고 입음뿐이 生活이 아니며 다만 衝하고 作할뿐이 生活이 아니라 廣濶한 意味에서 法律, 政治, 科學, 經濟가튼 것이 다- 生活의 條件이며 宗教, 道德, 藝術과 가튼이 다 가티 生活의 範圍에 드는 것이었다.

이제 내가 宗教와 生活의 關係를 一言코저 하는 것은 宗教도 역시 生活의 範圍 안에 잇는 精神的 慾求에 지내지 안는 이상에는 宗教와 生活의 關係를 한層 더- 밀접케 할 필요가 잇다 하는 衷情에 出한 것이니 이곳 世界 今日의 큰 問題이며 더욱 朝鮮 現象에 말지 아니치 못할 큰 사실임으로써 이었다.

世의 宗教信者 중에는 往往이 宗教를 오해하여 宗教는 그 根底를 現實에 둔 것이 아니요 絶對的으로 來世를 위함이라 輕斷하는 者- 有하나니 이는 심히 皮相的 見解라 할지라. 물론 宗教가 그 욕구를 來世에 두었스며 그 희망을 미래에 부텟슴은 말할 것도 업지마는<6> 그러나 우리가 來世를 욕구하며 미래를 희망케 되는 것은 결코 來世의 生活, 미래의 희망을 위하여 그를 신앙함이 아니요 그 실은 現生의 精神生活의 결함을 보충키 위하여 스스로 來世의 希望을 끌어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世에 아모리 絶對的 來世뿐 위하는 신앙이 잇다 할지라도 그들이 來世를 위하여 現實의 精神을 신앙에 공헌케 되는 것은 그들의 현재 精神生活이 그만치 결함이 잇스며 모순이 잇슴으로 그를 보충키 위하여 그를 위안키 위하는 精神的 衝動으로부터 위대한 신앙의 力이 出來케 되는 것이다. 假今 茲에 厭世自殺者가 잇다하면 그가 世를 비관하고 身을 殺한 점에서 외형상 純粹來世를 위함이거나 혹은 現生의 고통을 滅키 위함과

如하나 그러나 深深地 그 근저의 由來를 고찰하면 如斯히 극단한 自殺者의 행위일지라도 그 실은 現生을 위하여 즉 現生의 만족을 위하여 극단의 행위를 감행하였다함에 귀결케 되나니 何者요. 그가 現世에 在한 自己 精神生活上 고통을 소멸키 위한 점에서 즉 自殺者가 如何한 방법으로라도 現在 自己生活의 만족을 얻고자 함에는 자살이 가장 최선의 행위라 생각한 점에서 그가 來世를 위하는 점보다 현실(비록 一刹那일지라도)을 위하는 점에 多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원리 하에서 우리가 宗教를信하여 來世를 희망하는 것도 其實은 信者 그가 現在生活의 精神上 만족과 풍부를 얻기 위하여 信仰生活을 추구함에 불과한 것 이다. 그러므로 宗教도 또한 現實生活條件의 만족을 구하며 現實生活의 결함을 풍부키 위하여 發生한 최후의 진리라 하여도 또한 과언이 아니겠다.

如斯히 宗教도 이미 인생의 現實生活의 이익을 주기 위하여 생긴 것이라 하면 必然의 결과-生活을 離하여 宗教가 업스며 生活을 離하여 信仰이 업을 것이다. 즉 吾人의 現實生活을 無視하며 現實生活과 관계가 업는 신앙은 아모 존재의 가치가 업을 것이다.

宗教와 生活이 이러한 밀접의 관계를 가지는 고로 떨어져 現實生活의 변동은 스스로 信仰生活의 變化를 致케 하나니 즉 宗教의 가치도 필경은 現實生活의 진보를 통하여 그 內容의 信仰觀念을 變改케 하며 又是 진보케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過去時代의 유익한 신앙일지라도 現實生活의 변동에 의하여 現代에 무익케 된 者도 업지 아니할 것이며 그 過去時代에 무익타 하던 신앙일지라도 現代生活의 의의를 從하여 또한 유익케 될 者- 업지 아니할지라. 이 점에서 宗教家된 者- 먼저 現實生活의 內容을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잇스며 떨어져 宗教生活을 現實生活과 <7> 適宜히 순응케 할 필요가 有할 것이라.

現在 우리 朝鮮內 宗教는 이를 三部로써 논하 볼 수 잇나니 1은 固有의 宗教니 儒佛 兩敎가 즉 그것이며 2는 外來의 宗教니 基督教 神敎 등이며 3은 新宗教니 天道敎 大倭敎 外 10餘宗派 등이 즉 그것이라. 이제 이 3부로 鼎立한 종교를 그 宗教 自體의 內容敎理의 長短與否는 근본부터 말할 필요가 업고 吾人이 다만 一言코저 하는 것은 그들의 각 敎가 우리의 生活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환언하면 現在生活과 現在의 宗教는 얼마마한 가치를 가지는가 함을 一考하여 宗教의 신앙을 일층 김히 우리 生活에 의의를 두고자 함이었다.

대개 現代의 각 宗教를 시대의 自然現像으로부터 보면 각 敎 共히 그 내용상 다소 革新改造할 점이 업지 아니하나니 이곳 시대적 生活과 신앙적 生活上으로부터 필연으로 生하는 遺物이라 할지라도.

第1은 각 敎 共히 시대와 경우에 의하여 生하는 弊-니 例하면 吾朝鮮에 在한 儒佛二敎는 活動上 共히 退屈과 頑僻에 偏한 점이 다하여 世界大勢에 순응치 못함과 如한 것이며 基督教는 外來의 新勢로 民風을 改新하는 점이 多하나 지리와 역사의 관계상- 自然 民族的 歷史的 事實을 무시하는 폐- 업지 아니하며.

第2는 각 敎의 敎理로부터 來하는 弊-니 원래 儒佛基 三敎 共히 2천년의 長한 歷史를 가지는지라 그 결과- 2천년 이전에서 生活條件과 적합케 되었던 모든 교훈은 자연히 2천년 이후의 우리의 生活條件과는 더구나 나날이 격변하는 今日의 生活條件과는 자연히 적합치 못한 점이 多한지라 例하면 儒敎의 倫理敎訓인 三綱五倫과 如함은 今日의 生活道德의 변화에 의하여 다소 적합치 못한 者-1, 2가 아니며 又 基佛 二敎의 모든 교훈도 또한 現代生活에 적응치 못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모든 學者들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第3은 각 敎의 편견으로부터 來하는 弊-니 대개 宗教信者 중 일부 폐해는 各其의 偏見固執으로써 我의 信하는 者를 絶對唯一의 眞理로 酷信하고 他人의 所信을 是-異端 혹은 魔敎 등의 명사로써 互相 水火不相容의 境에 至케 됨은 이 실로 가증한 巖窟偶像의 현상이라 할 것이

며.

第4는 각 敎의 新舊信仰의 衝突이니 新舊의 衝突은 一般社會 又は 世界的 流行品이라 할지나 그러나 그가 宗教 信仰上에서 더욱 현저한 경향이 생김은 피치 못할 사실이라 하겠다. 試하여 각敎의 内部形便을 觀하면 각 敎 共히 青年과 老年의 思想衝突로부터 <8> 만흔 澁滯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 대개— 어떤 敎에던지 老年인 舊敎徒는 신앙의 본위는 튼튼하나 時勢에 暗昧하여 退屈에 자처하는 폐가 多하며 그와 반대로 青年인 新敎徒는 신앙의 본위는 미약하나 時勢에 순응하는 長處가 多한지라 如斯히 老少間 각기 一長一短을 가지고 内部의 衝突이 날로 격렬한 모양이었다.

이상에 述한 외에도 다소간 시대와 相違하는 弊— 업지 아니하나 그러나 概括的으로 대개가 此範圍에 包容된 者라 할지라 각 敎 共히 如斯한 폐가 업지 못함으로 生活條件과 신앙의 본위에 不少한 逕庭이 잇게 되어 生活條件을 宗教의 力으로 改善함에 원만한 활기를 생치 못하노니 우리가 만일 특히 우리 朝鮮人이 만일 가장 生活條件과 큰 관계를 가진 宗教 信仰上에서 이러한 폐단을 除却치 못하면 우리의 改造事業이라는 것은 不少한 澁滯가 잇을 것이라. 이제 吾人의 思考한 바 生活條件을 기초로 信仰觀念을 추상적이나마 알에 가터 두어가지 條例를 들어 일반의 참고에 供케 할진대

- 一. 어떠한 敎를 밋던지 그 미듬 자체는 극히 可하며 그리하여 그 미듬을 堅固히 할 것.
- 二. 자기의 信하는 宗教로써 타인의 信하는 宗教를 嫉妬視하며 又 憎惡視함은 결코 現代信仰의 本位가 아니니 각敎 共히 雅量과 德性으로 互相尊敬의 風을 養할 것.
- 三. 神을 信하던지 佛을 信하던지 전혀 來世를 위한다 하여 現世를 罪惡시하며 惡魔視하는 弊를 除去할 것.
- 四. 자기의 미듬을 現代 革新的 生活條件과 矛盾이 업시 할 것이며 進하여 自己信仰의 力으로써 現在의 生活을 보다 이상으로 向上케 할 힘을 養成할 것.
- 五. 자기의 信仰하는 敎理의 内部에 항상 自由批判을 加하여 그 敎理를 時代的으로 解釋하며 時代的으로 引導하기를 힘쓸 것.
- 六. 信仰을 徹頭徹尾— 自我中心主義의 基礎에 立케 하여 信仰의 力으로써 自我의 人格을 向上케 하도록 努力할 것.
- 七. 天國 혹은 極樂이라 하는 理想郷建設을 此世의 上에 引下하도록 할 것. 즉 天上의 理想을 地上의 사실로 化케 할 것. <9>

이상 幾個 條件을 구비하였다 하면 吾人은 어떠한 宗教를 信하던지 그 신앙은 直히 卽 少年半島의 信仰됨을 확보할 수 잇겠다. 그리하여 그러한 신앙은 가장 장래를 만히 가진 青年信仰家의 자각이 날로 늘어감에 잇는 것이니 少年半島의 精神改造를 필요로 하는 人은 먼저 比點에 着眼하여 宗教의 신앙을 生活의 條件과 伴行하도록 改造함이 목하에 급무라 할 것이다.

三. 生活條件과 道德

吾人은 開闢 8월호에 이미 朝鮮人의 道德心의 樹立을 切望한다는 기사를 略述한 바 잇거니와茲에 특히 一言코저 하는 것은 半島의 青年과 半島의 新道德의 관계를 논하여서 道德的으로 生活改造를 絶실히 할 필요가 잇다 함을 概述코저 하는 것이다.

원래 道德이라 하는 것은 古代人의 생각한 바와 가터 古今千載에 固定不動하는 物件은 아니었다. 그러기에 道德이라 함을 一言으로써 말하면 우리의 生活條件이 즉 道德이 된다 하야도 또한 과언이 아니었다. 小하얀 衣食居住로부터 大하얀 國家社會에 及하는 모든 영향이 즉 그의 道德이라 함이라. 고로 개인엔 개인의 道德, 가정엔 가정의 道德, 國家, 社會, 世界에는 國

家, 社會, 世界의 道德이 自有한 것이니까 이곳 道德이 우리 生活條件과 항상 병행하는 것이었다. 만일 道德이 우리의 生活條件을 離하여 別로 존재한 物이라 하면 그와 가튼 道德은 此世에 존재할 何等價値가 업슬 것이겠다.

道德이 이미 우리의 生活條件과 병행한다 하면 變遷의 결과로 生活의 변화는 떨어져 道德의 변화를 致케 할 것은 言을 不竣할지라. 만일 生活이 급변함에 불구하고 道德은 여전히 千古不變이라 하면 그는 경제의 현상이 변함에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支續된다 함과 如함이라. 그럼으로 生活과 道德은 形影의 相隨와 가트여 須臾라도 可히 離치 못할 것이라 하겠다.

우리 朝鮮의 道德이라 하는 것은 본래 儒敎의 道德이 그의 근본 기초었나니 儒敎의 道德은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가티(10) 항상- 과거를 標準한 道德이라 先王의 法이 아니면 行치 아니하며 先王의 言과 行이 아니면 用치 못하리라. 斷定한 道德이라 그럼으로 그 性質이 극히 소극적이며 극히 退屈의이었나니 屢百年來- 이러한 消極的 退屈의 道德을 지켜온 朝鮮民族은 어느덧 創造의 力을 일코 말았으며 活動의 氣를 막고 말았다. 그럼으로 우리가 이제로부터 合時代的 生活條件을 짓고저 함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道德의 觀念을 改造하여 소극으로부터 적극에 나아가는 길을 열지 아니함이 不可하며 退屈로부터 進步에 나아가는 元氣를 養치 아니함이 不可하겠다. 다시 말하면 少年半島의 今日의 道德은 活動主義의 道德이 아니면 今日의 生活條件과 並行치 못하리라 이르리라. 이제 吾人의 思考한 바의 또는 가장 取할만한 바의 道德的 觀念은 알에와 가튼 條件下에 實施되어야 할 것이라. 吽呼함을 마지 아니 한다.

第1은 自主的 道德이니 自主的 道德이라 하는 것은 道德의 觀念을 絶對로 人格主義의 上에 두지 아니하면 不可타 함이라. 과거와 가티 道德을 한 命令的 機械的으로 수행하여 他의 命을 從하며 他의 지배를 隨하여 行케 되지 아니하고 반듯이 자기라 하는 개체의 人格을 主로 하여 그 주체로부터 울어 나오는 道德이라야 可히써 今日의 道德이라 할 것이다. 그럼으로 人格主義의 道德은 자기로 능히 道德을 이해하며 道德을 비판하며 道德을 自主하여 자기의 事를 能히 자기로 판단하는 道德이 되지 아니함이 不可하겠다. 例하면 生徒가 學校規則을 복종함은 是- 道德됨에 異議가 업스나 그러나 學校의 規則이라 하여 生徒가 그를 맹목으로 기계적으로 복종하니 보다 일층 그 규칙을 生徒自體의 正當行爲로 自認하여 비록 學校의 規則이 업다 할지라도 生徒된 者는 반듯이 그러한 규율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되리라 하는 自主的 道德觀念을 養케 하는 것이 可하며 國民이 國法에 복종함은 是- 道德됨에 異議가 업스나 그러나 國法이라 하여 國民이 그를 맹목적 기계적으로 복종하니 보다 일층 進야야 國民自體가 自覺의 力으로써 비록 國法이 업다 할지라도 능히 그만한 人民의 集團에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하리라는 自主的 觀念으로써 法律에 先하여 道德的으로 國民全體의 幸福을 조성케 함이 이곳 自主的 道德이라 할 것이다. 이를 政治의 發達으로써 比較하건대 과거 君主專制의 시대에는 國民이 자기의 國事를 자기들의 力으로 능히 處判치 못하고 一個人 專制君主의 力에 의하여 기계적 맹목적으로 그 國法을 복종케 되었스나 今日의 立憲時代에 至하여는 國民이 자기의 知와 力으로써 <11> 自國의 事를 人民 自體가 처리케 되었나니 道徊◆도 또한 이와 가트여 과거의 道德은 人民의 自主力이 업시 古人의 遺訓 혹은 祖先의 遺法을 맹종함에 지내지 아니하였스나 今日은 政治上에 立憲을 실행함과 가티 道德에도 또한 立憲을 주로 하지 아니치 못할지니 즉 自主主義의 道德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立法者가 되며 司法者가 되며 行政者가 되어 자기의 事를 자기로 능히 處辨할만한 道德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第2는 合時代的 道德이니 合時代的 道德이라 함은 이상에 述함과 가티 道德은 항상- 生活條件과 병행하는 故로 太古의 生活에는 太古의 道德이 필요함과 가티 今日의 生活에는 또한 今日의 道德이 필요하나니 試思하라. 우리의 生活이 이미 祖先의 生活과는 千萬里의 거리가 生

하였습에 불구하고 此에 병행하는 道德뿐이오. 즉 祖先時代의 道德이 필요하다 하면 그는 전혀 時代에 盲目的 者라 이르지 안겟나노. 그럼으로 合時代의 道德이라 하는 것은 결코 습관에 盲從하며 祖先時代의 行하던 일이라 하여 이를 頑守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例하면 祖先時代에는 國家道德上- 國民과 君主의 間에 用하던 道德觀念은 今日에 至하여야는 전부 혹은 일부의 절대 변천이 有함과 가튼 것이며 又 가정도덕상에서 과거에는 祖先중심이었던 도덕이 今日에 至하여 자손중심주의로 변하였스며 부부도덕에서 婦는 절대로 夫에 死守貞操이었던 도덕이 今日에 至하여야는 婦人解放主義에 인하여 婦人의 權利를 남자와 平等으로 인상코져 하는 것이며 社會道德上에서 과거에는 勞働者가 絶對로 資本主에게 맹종하던 습관이 今日에 至하여야는 勞働本位로 인하여 勞資의 조화를 叫呼하는 것과 如한 등은 다 가티 昔日의 道德과 今日의 道德의 間에 정반대의 변천을 생케 한 것이라. 如斯히 道德의 觀念이 生活의 條件과 逐年 병행함에 불구하고 일부 頑固者流가티 道德은 이 千古不變이라 하여 先王의 法이 아니면 行치 아니하며 先王의 言과 行이 아니면 從치 아니하다함은 실로 滅亡性을 預期한 人種이라云치 아니치 못할지라. 吾人은 모름직이 時代의 生活과 병행하는 道德을 創造하며 時代와 順應하는 道德을 養치 아니함이 不可하나니 다시 말하면 道德을 改造를 時代에 병행케 하여야 할 것이었다.

第3은 共同的 道德이니 共同的 道德이라 하는 것은 道德을 일개 개인의 生活條件으로 보지 말고 少하여도 國民 全體의 生活條件 혹은 世界 全人類의 生活條件으로 간주하여 道德의 범위를 世界共通的 條件으로 하면 道德의 活用을 <12> 世界同化的 진리로 응용케 하는 것이었다. 例하면 今日 世界를 통한 人道正義의 聲과 如함은 이 결코 一個人 혹은 一國家에 관한 道德이 아니오 國際的으로 道德의 美를 生活條件의 上에 表顯코져 함이니 今日의 道德은 部落時代 혹은 鎖國時代의 單偏的 生活條件뿐 並行하던 道德이 아니라 비록 一個人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가 문득 세계적 혹은 국제적 生活條件과 伴行하는 實例가 多하나니 그럼으로 余 一個人의 身은 다만 余 一家庭의 身 혹은 余 一國家의 身이라 하니보다 차라리 全世界의 身이 되나니 이 점에서 余 一個人의 道德上 행위는 다만 余의 一家族 又是 一國家에 뿐 止함이 아니오. 어떤 의미에서 전세계의 道德上 행위가 된다 이를 것이라. 共同的 道德이라 하는 것을 간단히 一言으로 要言하면 調和의 道德이라 하는 意味이니 例言하면 前述한 남녀의 道德이라 할지라도 기왕에는 男尊女卑로 잇던 것을 그를 조화하여 男女平等主義의 道德을 써야함과 가티 勞働者와 資本主의 間에 道德도 그러하여야 하고 强者와 弱子間的 道德도 그러하여야 하고 優者와 劣者間的 道德도 그러하여야 할 것이었다. 이 곳 共同的 道德이니 이러한 道德이 아니면 現代의 生活條件과 並行치 못할 것이라.

如斯히 今日의 道德은 積極적 向上적인 活動주의의 上에 두지 아니함이 불가하며 그리하여 그 條件을 철두철미- 生活條件의 上에 두지 아니함이 불가하겠다...(未完-원문)...<13>
<2-13>

11.

잡지명: 개벽 제19호

발행년월일: 1922년 01월 10일

기사제목: 藝術과 人生 (未定稿), 新世界와 朝鮮民族의 使命

필자: 京西學人

기사형태: 논설

藝術과 人生 (未定稿), 新世界와 朝鮮民族의 使命

京西學人

로맨·롤란은 말하셨습니다. 「人生이 만일 완전히 행복되었던들 예술의 필요는 업섯스리라」고. 이는 예술이란 인생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라는 뜻을 말한 것이니, 인생에게 고통이 업섯든 들 위안의 필요도 업섯스리라 함이외다. 그러나 사실상 인생에게는 고통이 잇습니다. 고통이 잇는지라 이것을 위안하기 위하여 종교가 생기고 철학이 생기고 예술이 생기고 기타 모든 유희와 오락이 생기는 것이외다.

과학도 그러합니다. 인생이 만일 전지전능하게 생겼더면 구태 애써서 과학을 연구할 필요도 업섯슬 것이외다. 그런데 사실상 인생은 나면서 무지하고 무능하여 자연과 인사를 대하매 모다 驚異뿐이오 의혹뿐이니 경이에 대한 공포와 의혹에 대한 불쾌를 어찌하면 일소할가 하야 그 경이와 의혹 속에 무슨 법칙을 어더 내게 만족할 說明을 해보자 하야 과학이 생기고 철학이 생긴 것이외다.

小兒는 흙을 주물르고 팽이를 굴리고 연을 날리고 숨박국질과 솟급질 노름을 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기는 해지기까지 이러한 작난으로 지냅니다. 작난은 그의 행복이니 이 행복이 업시 그는 살수가 업습니다. 또 그는 작난하다가 손을 베거나, 동무들에게 매를 마즌 때에 울면서 부모가 계신 집으로 다라납니다. 그는 부모가 자기를 愛로 위안해 주고 力으로 보호해 줄 줄을 밋읍니다. 그래서 작난은 그네의 <1> 예술이오, 부모를 의뢰함은 그네의 종교외다. 小兒에게서 작난의 행복과 부모의 愛를 떼다 하면 그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아마 그는 울다가 울다가 살이 나리고 눈이 어두어 죽어버리고 말 것이외다. 우리는 풍부한 작난과 부모의 愛 속에서 혈색 조케 맘 펴고 자라나는 小兒들을 보는 동시에 작난도 못하고 부모의 愛도 못 보아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뻘뻘 말라가는 小兒들을 봄니다. 전자는 인생의 행복의 상징이오, 후자는 인생의 비참의 상징이외다.

아모리케 해서라도 이 인생을 즐겁게 하자, 행복되게 하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외다. 우리가 족으마한 지구를 春風과 꽃과 우습으로 꾸며서 우리 인생의 아희들의 즐거운 작난터를 만들자.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날로 하여곰 설명절, 보름명절, 수리명절, 가위명절 가튼 명절이 되게 하자.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모든 일이 솟급질 노름과 숨박국질 가튼 재미잇는 작난이 되게 하자. 이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지 안흐람니까.

현재의 우리 인생의 생활은 행복되다고는 할 수 업습니다. 첫째 우리네의 정치 조직은 아즉도

민족적 爭鬪와 殺戮을 버서나지 못하고 우리네의 경제 조직은 아즉도 만인에게 충족한 衣食住의 보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된 개인보다도 불상한 개인이 만코, 행복된 민족보다도 불상한 민족이 만하서 우리의 평화로운 작난터라야 할 지구가 爭鬪와 懊惱의 수라장을 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떠한 국민도 爭鬪와 懊惱을 안 가진 자가 없고 어떠한 개인도 불평과 갈등과 변민을 안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爭鬪요 懊惱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根除해 보라고, 적어도 緩和나 해보라고 인생들은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혹은 지나간 歐洲大戰과 가튼 大戰도 해보고, 혹은 국제연맹도 맨들어 보고, 혹은 태평양 회기도 열어 보고, 또 혹은 사회주의 운동도 하여보고. 그러나 우리는 大戰도 쓸대 업섯고 국제연맹도 우스운 것이요. 태평양 회기도 그리 <2> 대달한 것이 아님을 보았고, 아라사의 勞農政治도 아즉 시험 중이라, 及第, 落第가 판명될 시기가 아닌 것임을 보았습니다.

진실로 현대의 인생은 미로에 立하였습니다. 그네는 국가주의와, 제국주의와, 상공업의 발달과 과학의 발명과 군대와 형법과 조약 가튼 것으로 인생을 행복되게 하리라고 미뎃다가 지금에 와서 그네의 미뎃의 망상인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스나 어찌하여 조흔 것인 줄을 모르고 방황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 조선사람가티 행복을 가지지 못한 백성은 드물 것이다. 제일 못나고 제일 가난하고, 산천도 날만 못하게 되고, 市街도 남만 못하고 가옥도, 의복도, 음식도 남만 못하고, 과학도, 발명도, 철학도, 예술도 업고, 일을 할 줄도 모르거니와 할 일도 업고, 아마 이리케 불상한 백성은 다시는 업슬 것이외다.

형제여, 그러면 어찌하면 이 인생을 즐겁게 할 수가 잇겟습니까. 이에 대하여 예서는 「사랑하라」

하엿고, 톨스토이는 이 가르침을 敷衍하여

「저마다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살아라.」

하엿고, 타골은, 예수와는 다른 근거로,

「우주와 인생의 美를 사랑하고 즐겨하라.」

하엿고, 크로포트킨은,

「노동을 예술화하라.」

하엿스며, 칸트나 피히테는

「도덕적 명령에 복종함으로 저마다 제 의무를 다하라.」 <3>

하엿고, 웰링 가튼 이는 크로포트킨과는 다른 의미로

「인생을 예술화하라.」

하엿습니다.

무릇 古來로 수 업는 성현들이 가르친 바가 어느 것이나 인생을 행복되게 하는 방법이 아님이 업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러한 성현의 가르침을 옳타고 하야 듯지마는 그대로 행하기는 실혀서 여전히 그릇된 자기네의 습관대로만 살아왔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인생을 행복되게 하는 길은 첫째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인생을 도덕화하라」

함과 크로포트킨과 타골의 뜻을 합한 의미로,

「인생을 예술화하라.」

함에 있다 합니다.

각 개인이 행복되랴니 인생의 예술화가 필요하고 각 개인이 사회적 생활을 하랴니 인생의 도덕화가 필요한 것이외다. 무릇 개인의 생활에는 分雜할 수 업는 양면이 잇스니 가튼 개인적 생활과 사회적 생활이외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생활을 개인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개인생활이요 사회라는 견지에서 보면 사회생활이요 단일한 한 생활인데 보는 점이 다를 뿐이외다. 그럼으로 도덕화한 생활과 예술화한 생활이란 것도 결코 二種의 생활이 아니요. 단일한 생활의 양면이라 하겠습니까.

인생의 생활을 예술화하되 도덕적으로 한다면 인생의 생활은 예술이 되고 말고, 또 인생의 생활을 도덕화하되 예술적으로 한다면 인생의 생활은 도덕이 되고마는 것이외다. 이러한 생활은 「愛와 기쁨의 생활」이라 하겠고, 더욱 緊切히 말하면「愛의 기쁨의 생활」이라 하겠습니까. <4>

도덕은 愛요 예술은 기쁨이외다.

도덕과 예술은 하나이니 도덕적 아닌 예술은 참 예술이 아니요, 예술적 아닌 도덕은 참 도덕이 아니외다. 인생에게 죄악을 주는 예술이라 하면 그것은 인생의 배척할 예술이요, 또 인생에게 고통을 주는 도덕이라 하면 그것은 인생이 唾棄할 도덕이외다.

그러면 어찌하야 도덕화하고 예술화한 인생을 만듭고?

이에는 두가지 길이 잇스니 그 근본은 한가지외다. 그 두가지란 무엇이뇨-

첫째는 개인의 욕적 개조, 즉 주관적 개조외다. 여기도 無論 도덕적 及 예술적의 양방면이 잇는데 도덕적으로는 허위와, 詭譎과, 증오와, 분노, 怨嫌, 猜忌를 버림이니 이 중에 虛와 詭譎은 지적이요 기타는 모다 감정이외다. 그런데 행위의 동력은 知보다도 情意作用이기 때문에 도덕적 수양의 중심은 劣等感情의 억압에 잇는 것이외다. 대체 허위나, 詭譎이나 기타 上記한 모든 劣等感情은 동물계의 생활에나 今日까지의 열등한 문화를 가진 인류의 생활에는 돌이어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마는 인생이 神聖에 가까운 행복된 신세계를 건설함에는 爲先 이것을 각 개인의 맘에서 芟除해야 합니다.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주관적으로는 내심의 평정을 깨털임이요, 객관적으로는 남과의 葛藤인데 이것을 업시하랴면 그 근본되는 내 맘속의 악귀를 버서버려야 할 것이외다. 그러치 안코는 아모리 정치 조직을 고치고 경제 조직을 고치고 사회 조직을 고치는 등 외적 치료를 하더라도, 인생의 행복은 증진되지 아니할 것이외다. 이 의미로 나는 국제연맹이나, 태평양 회의나, 또 하딩 대통령이 주장한다는 국가연합이나, 기타 모든 종류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혁명이 인생의 개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 바외다.

사람아 너를 먼저 개조하여라! <5>

이것이 개인의 내적 개조의 도덕적 일면이니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업습니다. 이것으로써 사람의 갈등과 욕적 불평을 除할 수 잇지마는 더욱 적극적이요 건설적으로 인생의 행복을 발하게 하는 것은 人性的 예술적 개조외다.

예술적 개조라 함은 개인이 자연과 人事를 대할 때에 가지는 심적 태도의 방향을 변환함을 가

르침이외다. 사람을 딸아 다르겠지마는 現今가튼 처지에 잇는 우리는 자연과 인생을 우리의 적으로 봅니다. 「자연을 정복한다」는 말이나, 「인생의 분투라」는 말이 이 뜻을 표현하는 말인데, 그럼으로 우리의 모든 직업 (즉 활동) 은 일종 심각한 고통을 띄게 됩니다. 마치 鑛坑에 工夫가 그날의 일원이나 이원의 雇賃를 위하여 하기 실흔 일을 억지로 억지로 하는 것과 가깝니다. 그가 보기에 천지도 자기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난 것 갖고 자기도 오죽 실흔 일을 억지로 하는 고통을 위하여서 나온 저주바든 인생인 것 가깝니다. 「인생의 懊惱」라한 쇼펜하우엘은 아마 이러한 사상을 대표한 哲人일 것이외다. 그러나 과연 인생은 본질적으로 이러케 고통되어야 할 것일가. 도저히 인생의 노력으로 이를 낙원으로 변할 수는 업는 것인가.

그러치 아니합니다. 인생은 행복될 수 잇는 것이요 행복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인생자신의 심적 태도 여하와 노력 여하에 달렸슬 뿐이외다.

여러 종교에서는 현세를 苦海라 하여 도저히 행복되도록 개조할 수 업는 줄로 낙망하여 현세 이외에 낙원을 구합니다. 즉 천국을 구하고 극락을 원합니다. 이는 심히 어리석은 생각이니 오늘날과 가튼 지식을 가진 吾人에게는 이는 한 농담에 불과하는 것이외다. 우리의 낙원은 이 지구상에 우리의 손으로 건설할 것이외다. 현재 지구상에 잇는 자연의 모든 재료를 그냥 두고 우리의 그것에 대한 심적 태도를 변하고 아울러 우리가 사는 사회제도를 변함으로써 이 지구로 하여곰 우리의 즐거운 작난터를 만들 수 잇는 것이외다.<6>

그러면 그 심적 태도란 무엇이나. 그것은 곳 우리가 자연이나 人事를 관찰할 때에 가지는 맘씨를 니름이니, 우리는 이 맘씨 여하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快, 不快 兩樣의 감정을 발 할 수가 잇는 것이외다. 가령 태양을 예로 듭시다. 우리가 태양을 볼 때에 저것이 올라옴으로 우리의 고통이 시작되고 저것이 내려 쪼임으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초목이 말라 버리는 것이라, 하면 이에 우리는 태양을 불쾌한 것으로 볼 것이요. 만일 이와 반대로 태양이 올라오매 무섭던 어두움이 가고, 그 밝은 광선과 고마운 열로 하여 모든 생명이 자라는 것이라고 보면 우리는 태양을 快한 것으로 녀길 것이외다. 또 사랑스러운 小兒를 대할 때에도 저것이 또 모든 죄악을 짓고 모든 고통을 맛보다가 마침내 비참한 死를 당하려고 나왔고나 하면 이에 비판이 잇고, 만일, 저것이 나와 자연의 미를 찬송하며 인류의 생활을 복되게 하기에 한가지 일을 하다가 마침내 死로써 인생의 직무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돌아가리라고 보면 이에 낙관이 생길 것이외다. 이 모양으로 동일한 태양이나 소아에게 대하여 혹은 淸호게, 불쾌하게 보고 혹은 淸브게, 쾌하게 보는 것을 심적 태도라 하는 것이외다. 이 심적 태도의 차이로 하여 혹은 쇼펜하우엘 가튼 비판론자가 되고 혹은 타콜과 가튼 낙관론자가 되고 혹은 피히테 톨스토이와 가튼 준엄한 인생관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외다.

진실로 인생은 한편에는 蕭條寂寞한 曠野가 잇고, 한편에는 百花 찬란한 深園이 잇는 새로 가는 길과 가트니 우리는 隨意로, 즉 심적 태도 여하로 일생을 花園 중으로 갈 수도 잇고 일생을 曠야 중으로 갈 수도 잇는 것이외다.

그러면 그 花園 중으로 가는 법이 어떠냐. 자연과 人事를 볼 때에 그것을 예술품으로 보고, 나를 볼 때에 예술을 감상하는 者로 보아라- 이것이외다. 이러케 하도록 人性을 개조하는 것

이 人性의 예술적 개조외다. <7>

이리함에는 첫째는 자연의 미에 대한 동경의 情을 길러야 됩니다. 歐美人, 그 중에도 南歐人은 자연에 대한 애정을 일혀버렸습니다. 그네는 一月星辰, 山川草木, 건전하고 美麗한 인생의 美에 대한 감각을 일코 靑燈, 紅燈, 赤酒, 綠酒에 대한 쾌락만 차줍니다. 그럼으로 그네의 본색은 懊惱요, 신경쇠약이요, 狂이외다. 그네에게 대한 유일한 구원은 다시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감이외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조선인은 아즉 자연의 미를 즐길만한 감각과 감정이 업습니다. 혹 우리 중에 古來로 吟風咏月하는 詩人 文士가 잇섯다 하여 이것이 자연의 美를 감상한 것이라, 합니까. 나는 이는 唐人이 써 노흔 문자를 갖다가 작난한 것에 불과하다 합니다.

자연미를 사랑하기를 美人을 사랑하듯 하라. 이리하면, 너희 樂이 크리라.

이러케 되려면 역시 수양이 필요합니다. 아동교육에서부터 자연미를 감상하는 情을 길러야 하나니 여기 중심되는 것은 毋論 예술교육이외다. 우리는 자연을 예술적으로 보아 형상과 색채와 음향의 셋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 가지의 배치와 변화로 자연계의 美를 일렀다 할 터인데, 여기 우리의 주관적 요소인 함축이란 것을 더하면 자연의 미를 구성한 요소는 넷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축이-란 것은 자연의 형상이나 색채나 음향에 대하여 우리가 모종의 의의를 付하는 것인데 가령 둥근 형상을 가진 者를 원만이라 하고 청색을 평화, 적색을 열성, 혁명, 고음을 여성적, 저음을 남성적이라 하는 등 이외다. 그럼으로 자연의 미를 감상한다 함은 결국 이러한 형상과 색채와 음향의 모든 배치 변화 속에서 미를 찾는다는 것인데, 그리하라면 이런 것에 대한 수양이 잇서야 할 것이외다. 그럼으로 형상과 색채의 미를 감상하기를 연습하는 (즉 수양하는) 도서와 조각과 음향의 미를 감상하기를 연습하는 음악과 거의 이 모든 것을 종합하였다 할 만한 舞蹈의 교육은 아동 교육, 아니 전 인생 교육에 과학이나 技藝나 도덕이나 다름업시 필요한 것이요, 전 인생의 생활을 통괄하는 의미로 보면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8>

이 맛게 함축 예술을 대표한 것은 詩歌와 劇인데 이것은 음향에 특별한 의의를 함축케 한 것일 뿐더러 자연의 모든 형상과 색채와 음향과 인생의 모든 활동에 일종의 설명과 비판을 주는 예술이니, 詩歌와 劇이 詩歌 자신으로 예술적 가치가 잇는 외에 다른 예술을 추천하고 설명하는 직무를 가진 것이외다.

그러나 우리의 예술은 다만 자연의 미를 감상하는 능력을 양성하기에만 필요한 교과서는 아니외다. 예술품 자신이 자연계와 가티 우리의 예술적 환회의 원천이 되는 것이니 우에 말한 것은 오즉 예술 교육이 아니고는 자연의 미를 감상하고 享樂할 능력을 줄 수 업다 할 뿐이외다. 그럼으로 인생을 예술적으로 개조함에는 예술품을 사랑하는 情을 길러야 할 것이 물론이외다. 자연계를 한 예술품으로 보아라 한 말이 벌써 충분한 설명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일생을 자연계(인생의 활동을 포함한)와 예술품만 감상하고 살수가 업고, 그에게 개인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업이 잇을 것이외다. 이것의 중심이 되어 이것을 대표하는 것은 그의 직업이외다. 인생은 직업이니 직업을 떠나서 인생을 차를 수 업습니다. 인생의 첫 의무, 순서적으로 보든지, 중요한 정도로 보든지,

인생의 첫 의무는 한 가지 직업을 가짐이외다. 첫째 의무라기 보다 아마 직업을 가짐이 인생의 의무의 전체라 하겠습니다. 아모리 한 모양으로 사회제도가 고쳐진다 하더라도 各人이 各人の 직업을 가짐이 절대적인 의무일 것은 지구가 날마다 돌아가는 것이 절대적인 의무일 것과 가깝니다.

인생의 모든 죄악 중에 직업 업습이 최대한 죄악이외다. 五刑之屬三千罪莫大於無職業일 것이외다. <9>

그러하거늘 오늘날 우리의 가지는 직업은 太半이 고통이외다. 대개 직업은 노역을 의미함으로 우에도 말하엿거니와 광부가 雇貫를 위하여 鑛坑 중에서 노역함과 가튼 것이 만합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자인 조선인은 직업 업습으로써 최대 행복을 삼아, 「놀고 먹기」 위하여 노역합니다. 하로라도 바빠 놀고 먹을 날이 오기를 바라서 노역합니다. 그럼으로 그의 근면은 후일의 懶惰를 예상한 근면이니 곳 懶惰를 벗기 위한 근면이외다. 그리고 서양인은 흔히 노력 그것이 인생의 의무라는 생각으로 노역하거니와 이것도 고통은 고통이외다.

인생은 직업을 면치 못하리라 하고 직업은 고통을 면치 못하리라 하면 이런 비극은 업습니다. 아마 다수의 현대인에 인생에 대한 抱懷한 사상이 이것일 듯 합니다. 과연 직업은 고통일가. 직업이 고통 되는 이유는 두 가지외다, 하나는 개인의 직업에 대한 심적 태도의 잘못, 또 하나는 사회제도의 잘못.

개인의 직업에 대한 심적 태도는 상술한 자연과 인생에 대한 심적 태도의 설명에 유추할 수 있는 거시니 곳 「직어본 고통이라」 하는 어떤 불행한 기회의 선입견이 잇서서 지겹이 고토이 되는 것이외다. 최면술에 걸린 자는 찬 것을 덥다 해도 더운 줄 알고 땀을 흘리고, 더운 것을 춥다고 하면 차운 줄 알고 입술이 파래지며 몸이 떨립니다. 이는 被術者가 術者의 말이 암시에 지배되는 까닭이외다. 그런데 전통의 사상이나 인습이 개인에게 주는 암시는 마치 최면술에서 被術者가 施術者에게 주는 암시와 갓거나 그 보다 더 강한 것이외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직업의 苦樂을 생각도 해 보지 아니하고 전통적 사상의 암시를 바다 직업은 고통된 거시라고 정해 노흐니 차운 날에 덥다고 땀을 흘리는 피최면자 모양으로 반듯이 괴롭지 아니 한 직업이라도 괴로운 줄 알아 피곤이 나고 열구리 헛스해 집니다.

이를 실지에 비취어 보더라도 직업이 결코 본질상으로 고통된 것이 아닌 줄을 알 것이외다. 대저 직업이란<10> 반듯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데, 일을 한다 하면, 혹은 신경을, 혹은 근육을 동작하는 것이오, 또 그리하면 반듯이 무슨 결과가 생기는 것이니, 신경이나 근육의 적당한 동작이 일종의 쾌락의 감정의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됨은 우리가 깃불 때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노래 춤으로 말미암아 깃쁨이 더욱 농후하여 짐을 보아도 알 것이외다. 또 일한 곳에 생기는 결과도 우리에게 큰 깃쁨을 주는 것이니 우리의 일은 시작할 때에 의사실현의 깃쁨이 잇고, 진행할 때에 근육동작과 결과에 가까워 가는 깃쁨이 잇고, 일이 결과되매 성공의 깃쁨이 잇는 것이니, 이러케 보면 직업이란 본질상 쾌락의 감정을 伴할 것이오 고통을 伴할 것이 아니외다. 저 아희들이 꽤 차운 날 원 몸이 뽁뽁 어는 줄도 모르고 종일 밧게 나가서 흙과 돌로 집을 짓고 성을 싸할 때에 그네는 거기 미쳐 추운 줄도 배꼽흔 줄도 모르고, 毋論 피곤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 뿐더러 저 근면하는 학자나, 학생이나, 공장이나, 농부를 보건대 억지로 하는 밧이 아니 보이고, 깃버서 하는 양이 나타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볼 것은 그 노역의 깃쁨의 중요한 요건이 자유인 듯 합니다. 곳 자기가 하고 심흔 자기의 직업을 함인 듯 합니다. 깃쁨은 노예적 노역의 산물이 아니오, 자유인의 노역의 산물인 듯 합니다. 이것은 대

단히 중요한 점이니, 사회조직의 합리 불합리의 표준이 여기서 나올 것이외다. 곧 各人으로 하여금 자유인으로 자유의 직업을 취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 사회조직의 근본 원리가 될 것이외다.

그러치마는 심적 태도 여하로 아모리한 직업이라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여 그 노역에 쾌락을 어들 수 잇습은 또한 사실이니, 적더라도 그 고통의 정도를 강하게 하는 효력이 잇을 것이외다. 가령 鑛坑의 광부로 그 날에 할 일을 자기의 일로 알아 땅을 파고 돌을 따리는 대서 쾌락을 얻고 예정한 一日의 업이 功을 成할 때에 쾌락을 얻는다 하면 그는 그와 다른 심적 태도를 가진 자 보다 얼마나 행복 되겠습니까.

네 직업을 네 예술로 알아라, 저 조각가가 끌을 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 때에 石塊 중에서 귀가 <11> 나오고 눈이 나오고, 긴장한 골격이 나오고 優美한 근육이 나옴을 볼 때에 이상실현과 창조의 기쁨에 취하는 모양으로 너도 나날이 노역에, 일생의 노역에 이상실현과 창조의 기쁨을 맛보아라, 이것을 너를 행복 되게 하는 길이니라.

직업의 예술화, 크로포트킨의 말을 빌면 노동의 예술화는 인생을 행복 되게 하는 최대한 길이외다. 그런데 이리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개인의 심적 태도의 적응 여하에 잇습니다. 오래 옥중에 잇던 어떤 修養 잇는 이의 말을 들으면 옥중에서 부자유한 것은 하나도 업더라 하고 그 뿐더러 日日의 복역 생활에 일종의 흥미가 잇더라 하니 이것은 진실로 그의 맘 가지기, 즉 심적 태도에 달린 것이외다. 옥중생활은 누구나 더 할 수 업는 부자유와 고통으로 생각할 것이로되 그 속에서도 심적 태도 여하로는 자유와 행복을 넉넉히 차줄 수 잇다 하면 하물며 世間一般의 직업이리오. 무릇 무슨 일이나 그것을 하는 것을 일종의 예술적 창작으로 알면 그 속에 무한한 자유와 기쁨을 어들 것이외다. 정치가가 자기의 소신대로 무슨 신 제도를 세우리라 하여 동지를 모으고, 의견을 宣傳하여 만흔 적과 장애를 이기고 마침내 그 목적을 달하는 經過나, 도기장이가 자기의 머리 속에 생각나는 모양의 그릇을 맨들량으로 흙을 파고 닦이고 문치고 광선과 열을 이용하여 그것을 구워 마침내 생각하던 바와 가튼 그릇을 일러내는 經過나 다 가티 창조적 기쁨과 자유의 기쁨을 얻는 데는 예술적이라 할 수 잇습니다.

사람의 기쁨의 최대한 원인이 자유인 것은 말 할 것도 업지마는, 그러나 그 자유란 결코 무제한한 것이 아니외다. 첫째, 우리의 생활은 자연계의 모든 법칙에 지배되는 것이니 누가 그 법칙의 일점 일획인들 어길 수가 잇겠습니까. 그럼으로 사람이 비록 국가의 법률을 떠나고 모든 사회의 규약과 도덕률을 떠나 無人絶島에 혼자 잇다 하더라도 무제한한 자유는 누릴 수 업는 것이외다. 하물며 사람이란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잇는 동물이 아니오 사회를 일러서야 살게 된 동물인 즉 그는 가족의 법, 교우의 법, 산업의 법, 국가의 법, 인류에 대한 도덕, 이러한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法網의 속박을 맞는 것이니, 만일 悲觀者流의<12> 생각대로 하면 사람의 일생은 한 땀의 자유도 업는 노예의 생활이라 할 만 하지마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창조의 자유를 享樂할 수 잇는 것이니, 사람의 진정한 자유란 이러한 것이외다.

가령 내가 片手가 되어 시가지에 一가옥을 건축한다 합시다. 그 때에 그는 爲先 引力의 법칙에 위반하여 집을 공중에 매어 달 수가 업고, 역학의 법칙에 위반할 수도 업고, 또 국가나 自治體의 법칙에 위반하여 뒤入 간을 한 길로 낼 수도 업고, 또 그 사회의 도덕이나 習尙에 위반할 수도 업습니다, 그러타 하면 나는 이 가옥을 건축하는 데 대하여 아모 자유도 창조도 업을 것이외다, 과연 그럴가요? 그러치 아니합니다. 첫째 이 모든 나를 속박하는 듯하는 법칙이 반듯이 사실상 나를 속박하는 법칙이 아니니 그 중에 혹 시대의 推移나 개성의 특색에 의하여

한 두가지 내 뜻에 아니 맞는 법칙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내 맘에서나 창조되어 나오나 다름업는, 즉 先人이 창조 혹은 발견하고, 나 자신이 승인한 법칙일지며, 또 설사 이 모든 법칙이 내게는 아모 상관이 업고 오죽 나의 무제한 하기를 바라는 자유행동을 구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속을 밧고 나서도 이 가옥을 건축하기에는 내 창조의 자유를 발휘할 무한한 여지가 잇는 것이외다. 집을 잘 지엿다, 하는 「잘」에 우리의 순수한 창조의 자유와 깃뵤이 잇는 것이외다.

그럼으로 우리는 우리의 심적 태도의 여하로 우리의 직업으로 하여곰 예술적 자유와 깃뵤의 표현이 되게 할 수가 잇는 것이외다.

그러치마는 오늘날 우리의 취할 직업 중에 다수가 노예적이어서 충분한 예술적 성질을 포함치 못한 것이 만흠은 사실이외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점은 고용제도와, 생활비의 확보가 업슴, 의 두 가지외다.

고용제도는 古來로 잇는 것이지마는 산업혁명 이래로 자본주의의 발달됨을 따라 거의 모든 직업의 경영이 소수자본가의 수중에 들어가고 이에 종사하는 개인은 지식계급이나 노동자를 勿論하고 被傭者의 위치에 잇게 되었습시다. 그래서 다수의 被傭者는 소수 자본주의 계급의 의사에 복종하는, 처지에 서게 되었나니, 아마 오늘날처럼 노예만흔 시대는 업슬 것이외다. 이럼으로 다수의 被傭者의 노역은 그 일에 <13> 대한 흥미보다도 그 일로써 나오는 봉급에 대한 욕망으로 좌우되게 되었습시다. 每朔 얼마의 봉급을 엇기 위하여 억지로 억지로 某種의 직업에 종사하는 처지임으로 그의 직업은 노예적 노역으로 화하여 활동의 본연적 성질인 예술적 자유와 쾌락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노예다」하는 자각이 날 때에는 이 고통이 격심하게 되는 것이니 노동자가 임금의 증가를 絶對하던 시대가 지내 가고 사업의 직접 경영권을 요구하게 됨이 실로 이 심리에서 나온 것이외다. 그럼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우리에 충족한 생활비를 달라」는 것만으로 안다 하면 이는 피상적일 뿐더러 심한 오해니, 그의 근본적 요구, 직업의 예술적 자유와 깃뵤이외다. 만일 그에게 이것이 잇다하면, 그는 현재에 가진 이하의 생활비를 가지고도, 만족할는지 모릅시다. 물질적 결핍이 심할 때에 사람은 물질적 풍족이 행복의 전체여니 하지마는 물질적 만족을 어들 때에 사람은 정신적 만족이 근본적인 줄을 깨닫는 것이외다. 사람이란 도저히 정신적인 자유와 창조의 깃뵤을 생명으로 녀기는 동물이니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오 진가외다.

그러치마는 의식의 資를 엇기만 목적으로 하는 직업은 일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동시에 일면 사람의 天性 중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沒却해 버립시다. 그래서 그는 돈만 귀한 줄 알고 직업적 노역의 예술적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게다가 종일 노역한 물질적 보수가 그날의 의식과 오락의 資에 부족할 시에는 더구나 고통과 불평이 생겨 인성은 더욱 더욱 墮落되는 것이니 이것이 오늘날 경제조직의 상태외다. 저 사람들의 그 중에도 노동자들이 심히 고민되고 불평스러운 얼굴을 보시오. 그네는 노역의 예술적 깃뵤과, 그 당연한 보수일 생활의 물질적 풍족을 일흠으로 하여 저러케 된 것이외다. 농촌에서 養牛作農 하는 농부의 만족하고 평화로운 얼굴에 비겨 저 도회 노동자의 얼굴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합니까. 비록 노역은 가튼 노역이라도 농부에게는 창조적 쾌락, 즉 예술적 깃뵤이 잇는 것이외다. 이것이 농부와 도회 노동자와의 얼굴의 美醜의 차이외다. 도회 노동자는 농부가 제 일을 하는 대서 엇는 예술적인 깃뵤을 엇지 못하고 오죽 「돈」을 위하여 노예적 노역에만 종사함을 그는 깃뵤의 飢渴을 가집시다. 그래서<14> 술에 취함으로 족으마한 깃뵤을 엇는 것이니 농부에게는 별로 술에 취

하자는 요구가 업는 것이외다.

저 불평하고 고민하는 표정을 가진 노동자의 얼굴은 얼마를 지내면 自暴自棄의 표정을 가지게 됩니다. 도회 노동자처럼 자포자기의 언어와 동작을 가지는 자가 잇슬가요, 농부는 아모리 빈궁하여도 저다지는 안되는 것이외다. 그러다가 그 自暴自棄의 표정은 분노의 표정으로 변하니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살인, 강도 가튼 죄악이 생기고, 단체적으로는 同盟罷工과 기타의 혁명적 파괴적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외다.

그러므로 인생을 예술화하라면,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한 사회조직을 개조하야, 각인이 자유로운 직업을 위하여 예술적 창조의 노역을 잇는 사회가 되게 하야야 할 것이외다. 그러나 나는 그러케 개조하는 방법이 무엇이나 하는데 대하여서는 여기서 말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즉 한 가지 무슨 형식으로 사회를 개조하는지를 물론하고, 그 개조의 근본 원칙이 될 것만 말하려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가튼,

「네가 너부터 개조하여라」

함이외다. 어떤 종류의 新사회든지 무릇 新사회는 新人으로야만, 그러치, 오즉 新人으로야만 조직할 수 잇는 것이니, 新人이 생기기 전에는 영원히 新社會는 現出치 아니할 것이외다. 새로 건설하라는 사회에 합당한 인물이 상당한 수에 달하야야 新社會가 現出될 것이외다. 그러므로 「너부터 먼저 新人이 되어라」, 그리함이 新社會라는 큰 집의 기초에 한 짐 흙을 부음이니 이것이 新社會를 짓는 유일한 근본적 방침이외다. 그러면, 너부터 개조하는 법이 무엇이나.

네가 우주와 인생을 예술품으로 보는 맘의 습관과 聰明을 기르고, 네가 네 직업을 예술적 창조의 태도로 하는 습관을 기르되 너는 인류사회의 일원인 것을 알아 사랑의 도덕으로써 아름다운 사회의 단결을 <15> 공고히 하고 福樂을 증진하도록 하는 습관 - 더 조흔 말을 쓰면, 덕을 기르도록 노력하라. 너를 조성함이 아마 모든 것 중에 최대한 예술적 것임일 것이 되리라.

동포들이여, 우리 저마다 新人이 되지 아니 하라는가. 그리하야 지구를 天國으로 化그하는 業에 참여하지 아니하라는가. 실현하는 날이 먼 듯 하되 먼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개조가 완성되는 날이 천국이 임하는 날이외다.

우리를 新세계로 인도해 줄 자는 종교와 철학과 과학과 예술이외다. 정치나 경제는 이런 것을 응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 경제적 해결은 개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지마는 순서로는 後외다. 종교라 함은 지금 잇는대로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 靈 속에 잇는 純一한 종교를 니름이니 이 의미에서 종교는 예술과 일치하는 것이외다. 본연한 인성을 도덕적 견지에서, 볼 때에 그것이 종교가 되고, 우리 생활의 것됨의 견지에서 볼 때에 그것이 예술이 되는 것이외다. 철학은 우리의 생활에 통일과 설명과 가치와 따라서 안정을 주는 것이요 과학은 우리의 생활의 자료를 공급하는 것이외다. 우리의 생활을 예술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예술은 최고지마는 우리가 창작하는 예술은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정치나 다 가튼 平面 위에 선 雙胎의 형제외다.

예술이란 말에 兩樣의 의미가 있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우주와 인생을 예술품으로 보아라. 우리의 생활을 예술화 하라 하는 등의 예술이니 이는 인생의 한 원리로의 예술, 즉 생활의 주의로의 예술이요, 하나는 시가, 음악, 미술 등을 가르침이니 이는 인생의 사업의 일부분인 예술이외다. 전자의 의미로 보면 인생의 무슨 종류의 활동이든지, 그 활동자의 심적 태도 여하에 인하여 다 예술이라 할 수 있스니 정치도, 과학도, 簿記帳에 數字를 기입하는 것이나 시장에서 물품을 매매하는 것이나 다 예술이 되지는<16> 후자의 의미로 보면 일정한 형식과 일정한 약속 하에 특별히 지어 노흔 예술품만 지칭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술이란 말의 본래의 의미외다.

이상에 나는 예술적 생활을 말하였거니와 그 중에 은연히 예술이란 무엇이며 예술과 인생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도 말하여 졌다고 미듭시다. 마는 이제부터 우리의 손으로 맨드는 예술품과 인생과의 관계와 및 朝鮮民衆과 예술에 대한 관계를 말하러 합니다.

우에도 말하였거니와 인생 생활은 정치적 생활, 경제적 생활 등 여러 부문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은 안락하게 생을 향락하는 것, 곧 예술적 생활을 하는 것이라 하겠습시다. 정치제도는 왜 개량합니까. 각 개인으로 행복된 생활을 하게 하라고, 산업은 왜 발전시킵니까. 또한 각 개인으로 하여금 행복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외다. 저 일생에 刻苦勉勵하여 상당한 재산이 생기면 그는 곧 맘에 드는 가옥을 건축하고, 정원을 맨들고, 書畵를 사들이고, 서적을 장만합니다. 이에 그에게는 예술의 요구가 생기는 것이외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민족도 그러하니, 知力과 富力이 증진함을 따라 예술의 요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은 근대에 경제적 생활이 破産의 境에 瀕하고, 또 惡政의 압박 하에 인민이 사상과 창조의 자유와 용기를 일허 거의 예술을 안 가졌다 할만한 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생활에는 우습이 업고, 눈물이 업습니다. 진실로 조선의 생활은 순연히 營營汲汲한 노역이나 낮잠자는 懶惰의 생활이요. 정신생활이 업습니다. 진실로 조선생활은 광야외다. 氷世界외다. 그럼으로 냉랭하고 삭막하고 음침합니다, 死의 왕국이외다. 朝鮮人의 靈은 말랐습시다.

조선인에게 예술을 주어라. 예술은 그네에게 쾌락을 주고, 활기를 주고, 향상을 주고, 그 모든 것보다도 창조와 표현의 새 힘을 주리라. 조선이라는 사막을 변하여 예술의 花園을 지어라.<17>

그러나 예술은 生을 위한 예술이니 生을 해하는 예술이어서는 안됩니다. 인생에게 고통을 주고, 활기를 주고, 향상을 주고, 사회생활의 훈련을 주는 예술은 생의 예술이로되, 고통과, 낙담과, 타락과, 갈등을 주는 예술은 死의 예술이외다. 우리는 신선한 日光과 공기와 음식을 요구하는 모양으로 건전한 예술을 요구합니다. 사람을 신경쇠약과, 酒色에 沈淪함과, 또는 불평과 懶惰로 인도하는 예술은 불건전한 예술이요 멸망의 예술이외다. 나는 오늘날 조선 기생이 대표하는 민족 예술이라 할 만한 모든 가곡을 切憎 합니다. 또 「갓주사」, 「漂泊歌」, 「沈順愛歌」가튼 데 들어난 정서와 가튼 예술을 切憎합니다. 오늘날과 가티 新興의 기상을 가져야 할 우리에게는 군악적, 종교악적인 정서를 넘으키는 예술을 가지고 싶습니다. 멜리케트한 것보다도 순박한 것, 優美한 것보다도, 장엄한 것, 悲調를 띤 것보다도 상쾌한 것이 願입니다. 내 생각을 천박하다 하시오, 深淺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천박도 조흐니 원컨대 조선

인에게 쾌활한 우습과 潑刺한 활기와 자유로운 창조력을 주는 예술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은 양반적, 신사적이어서는 못쓰입니다. 자본주의적이어서도 못쓰고, 도회적이어서도 못 쓰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중 전체의 향락할 만한 성질의 것이라야 합니다. 진정한 민중 예술은 천하 모든 민중의 요구하는 것이겠지마는 특히 우리 조선 민중의 요구하는 것이외다. 「무식하고, 빈궁한 조선 민중」의 골고로 향락할 예술이야말로, 오늘날 조선이 갈망하는 예술이외다. 조선의 예술로 하여금 조선 민중의 정신과 함께 자라게 하고십지, 病兒에게 억지로 약을 먹이는 모양으로 서양이나 일본 직수입의 질이 넘우 다르고, 넘우 신사적이오 자본주의적인 高價한 예술을 억지로 먹이고 십지 아니합니다. 이에 高價라 함은 예술에 대한 특별한 長歲月의 소양과, 가격이 高等한 예술품을 니름이외다.

이러한 요건에 適하라면, 그 예술은 가장 넓히 감상할 수 잇습, 가장 적은 금전으로 감상할 수 잇습, 가장 적은 소양으로 감상할 수 잇습 등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표준으로 보면 오늘날 조선에는 詩歌, <18> 극, 음악, 무도, 건축, 회화, 장식 미술, 조각의 次序로 됩니다. 詩歌는 一個人이 작품이 인쇄를 통하여 근소한 代價로 일반 민중의 손에 들어갈 수 잇는 것이외다, 소설도 그러합니다. 극도 一個人의 작품이 數人, 내지 十數人의 배우를 통하여 근소한 대가로 일반 민중의 눈에 도달할 수 잇고 음악과 무도도 그러합니다. 그 뿐더러 시가, 극, 음악, 무도 가튼 것은 건축, 회화, 조각 등에 비겨 가장 감상하기 쉬운 성질을 가진 것이외다.

그러치만 형식보다도 내용이니 아모리 시가, 극, 음악 가티 맛보기 쉬운 형식의 것이라도, 그 내용 여하로 가장 맛보기 어려운 예술이 될 수 잇는 것이니 그 중에도 시가는 더욱 그러합니다. 근래에 조선에 꽤 유행하는 모양인 象徵派의 문예 가튼 것은 무슨 맛인지 알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니 아마 이것은 민중에게 준다야 울지도 웃지도 아니 할 것이라 일부 好奇人士의 예술에 불과할 것이외다. 극이나 음악이나 기타 무슨 예술이든지 그러합니다. 무릇 예술은 자기의 생활을 그려냄이 아니면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니 조선 민중의 예술은 조선 민중의 생활을 그리는 것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시가나 극과 가티 생활을 설명하는 의미를 포함한 예술은 물론이어나와, 음악이나 무도와 가티 순전한 음악과 동작으로 된 예술도 그 민중의 전통적 이상에 접촉치 아니하고는 그 민중의 嗜好에 합하기 어려울 것이외다. 그럼으로 서양의 명곡이라도 우리에게는 돌이켜 줄음 오는 것이 잇습니다.

총명한 조선의 예술가는 조선 민중의 생활에 基한 新예술을 창작하는 자외다.

그러타고 민중에 阿諛하거나 降伏하여 자기의 예술적 이상을 不顧하고 「通俗」이란 語의 조치 못한 반면의 의미로 대표하는 예술을 지으라 함이 아니니 여기 예술가의 어려운 점이 잇습니다. 이 어려운 점을 이기는 법은 첫째 예술가가 高遠하고 건전한 예술적 이상을 확립하고 둘째 그의 예술의 감상자인 <19> 조선 민중의 생활을 철저하게 이해함이외다. 理想 업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오, 민중의 心絃에 響鳴하지 안는 예술도 예술이 아니외다.

우리 민중의 감정은 아즉 복잡, 섬세한 것을 감동할 만 하지 못합니다. 그네의 즐겨하는 바는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외다, 비겨 말하면 굵은 선으로 굴곡이 분명하게 그린 것이외다. 색채로 말하면 모든 間色보다도 농후한 純色이오, 시가나 극이나 기타의 문예도 심리의 섬세한 묘사

보다도 동작이 굵은 線的인 것을 조하할 시대외다. 이러한 예술이 반듯이 저급의 예술이 아니외다. 이러한 단순하고 소박한 예술 중에서 참으로 건전한 민중 예술이 생장할 것이외다. 부질없이 외국 예술을 모방하여 저도 잘 알지 못하는 高遠하고 섬세한 것을 소박한 민중에게 強仍하는 것은 극히 해로운 일이외다.

우리는 이러한 예술을 우리 민중에게 줌으로 우리 민중의 정신적 생활을 부활시키고 아울러 그네에게 한업는 것쁨과 창조력을 줄 것이외다. 우리는 그네의 일상에 부를 노래를 주고 읊조릴 시를 주고 보고 들을 劇과 음악과 무도를 주고 또, 그네 자신으로 하여곰 짓게 하여야 합니다.

나는 인생의 행복의 요건으로 인생의 예술화를 말하고 다시 예술과 인생과의 관계와, 조선 민중의 요구하는 예술이 어떠한 것일 것을 말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의 나아갈 길은 우리 자신을 각각 예술화하는 것과, 또 우리 민중을 예술화하는 것이외다. 우리는 아즉 세계를 돌아 볼 새가 업스니 우리가 세계를 돌아 보는 길은 오즉 우리 민족을 돌아 봄에 잇슬 뿐이외다. 그럼으로 우리 민중에게 그네 예술이라 할 만 한 예술을 주는 것은 진실로 중대한 사업이외다. 나는 정치, 경제, 과학, 교육, 이런 것을 輕易히 녀기는 것이 아니어니와 민중에게 예술을 주어 그 생활을 예술화 함은 우리 민족의 운명에 중대한 관계가 잇는 것임을 확신합니다.<20>

인생의 최고 이상이 무엇이나, 인생의 생활 자신을 전부 예술 함이외다. 그의 생각도, 행동도, 의식주도, 사회도, 촌락도, 도회도, 전부 예술화 함이외다. 우리의 이 원시적이오, 沒趣味한 주택을 예술화하고, 우리의 실내의 장식과 기구를 예술화 하고, 우리의 單調한 의복을 예술화하고, 우리의 식탁과 마당과, 학교와 시가를 예술화 하자. 그래서 조선 전체를 예술화하고 차차는 전 인류세계를 예술화하자. 우리의 先人은 예술적 天分이 넉넉하섯다. 그 天分은 三國적 능묘의 벽화에만 들어날 것이라, 세계를 천국으로 化하는 설계나 벽화에는 못 들어날 것이라. 불행히 과거 5천년의 우리 민족의 생활은 세계의 문화에 그리 대단한 공헌이 업섯지마는 이제 부텨이 우리의 天分을 발휘할 차례가 아닐가. 지금 세계는 혼돈상태에 잇다. 그네는 새로운 사상을 渴仰한다. 새로운 「미새아」의 구제를 渴仰한다. 국제연맹, 태평양회의, 과격파운동, 모두 이러한 것이 다 이 새로운 「미새아」를 부르는 절규가 아니냐, 생각건대 우리 비단 가튼 조선의 강산이 도덕화 되고, 예술화된 신세계의 모퉁이 돌이 아닐가, 아아, 진실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무기 무력도 아니오, 富力도 아니오, 新生活의 모범이 아닐가, 이러케 생각할 때에 우리 胸중에는 꾀 업는 희망과 것쁨과 확신이 떠오름을 깨다릅니다.

공중에서 최후 심판의 喇叭 소리가 울렷습니다. 이제야 별이 떨어지고 땅이 흔들립니다. 구세계가 가고 신세계의 서광이 비추입니다. 愛와 美의 세계! 종교와 예술의 세계! 이야말로 창세 전부터 약속된 세계외다. 「사람아 너를 개조하라」 하는 웨침은 「거듭나라」 하는 웨침과 가튼 웨침이외다.

「사람아 愛와 美로 너를 개조하라!」

(辛酉 12월12일 夕)<21><1-21>

12.

잡지명: 개벽 제20호

발행년월일: 1922년 02월 08일

기사제목: 少年同盟과 朝鮮民族의 復活 (少年에게 (其四))

필자: 魯啞子 로아자

기사형태: 논설

少年同盟과 朝鮮民族의 復活 (少年에게 (其四)) (소년동맹과 조선민족의 부활 (소년에게 (기사)))

魯啞子

이미 3회에 互하여 우리 조선민족의 현상을 말하였습니다. 즉 그는 도덕적으로도 파괴하였고 경제적으로 그리하였고 지식적으로도 그리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대로 가면 白衣人種의 그림자가 영영 조선땅에서 소멸되리라고 痛嘆하였습니다.

民族運命圖

그러면 여러분! 조선민족의 운명은 어떠하겠습니까. 亡입니까, 興입니까. 그 대답은 前者일 수도 있고 후자 일 수도 있습니다. 亡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망할 것이요 흥하는 길을 차자 全力을 다 하면 興하기도 할 것이니 이 조선민족의 운명에 대한 이 두 가지 問辭中에서 어느 것을 답하는 것은 전혀 우리 소년 남녀에게 달린 것이외다. 고등보통학교와 보통학교에 다니는 <57> 數十萬의 소년 남녀에게 興이나 亡이나의 問辭가 노혀 그 답사를 구함이 급합니다. 아아 소년이어 어느 답사를 擇하랴나뇨, 興이뇨 亡이뇨?

진실로 조선민족의 운명은 소년 남녀에게 달렸고 오즉 그네에게만 달렸나니 저 路上에 冊襟 끼고 가고 오는 소년들, 운동장에서 아조 무심히 공치는 소년들, 스케트 메고 어름 지치러 가는 소년들, 또는 치운 밤에 갈뚝만두 외오고 다니는 소년들, 또는 모든 해외에 호터져 잇는 소년들을 보고 생각할 때에 「저네가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의 흥망이 저네의 조고마한 손에 달렸다」하는 한곳 슬프고 한곳 깃브고도 아슬아슬한 희망의 感懷를 금할 수가 업습니다.

아아 조선의 소년들아

네 이름을 못는 이 잇거드란

金之요 李之요 할줄이 잇스라

우리는 조선의 운명이오라 하라.

과연 오늘날 조선의 소년들은 全民族의 운명이니 그네는 네요 내요 金之요 李之요 할 수가 업시 오즉 「우리」라는 일인칭 복수를 써야 할 것이외다. 그네가 바로 이때를 타서 조선의 땅에 조선의 사람으로 난 것은 진실로 큰 뜻이 잇스니 대개 지금 12, 3세 이상, 20세 내외의 소년 남녀들의 일생이 될 40년 내지 50년간이 조선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시기일 것이외다. 운명의 바늘은 마치 전류계의 指針과 가티 興과 亡 두 자의 중간에 잇서 순간 순간이

氾動하면서 어느 한 편을 향하여 一分 一分을 마갑시다. 그런데 민족적 생활력이란 전기를 발하는 발동기의 동력의 원천되는 불은 꺼지려 합니다. 시각 시각으로 발동기의 폭음은 떠나고 약해 가니 잦닥하면 이 발동기는 영영 그 회전을 休하고 말아 저 氾動하는 지침이 亡의 편에 고정되고 말 것이외다.

불을 집혀라! 장작이라도 집히고 石炭이라도 너허라! 진실로 시각이 급하다. 아니다, 이 발동기를 돌릴 火力은 오죽 저 소년들의 뜨거운 정성이나, 끝는 땀이다. 그네의 기름이오, 살이오 빠다. 소년들아 너희는 일심으로 너희의 원 통을 저 아궁지에 집어 너허 氾動하는 저 指針의 방향을 돌리지 아니하라느냐, 저 발동기의 폭음으로 조선의 원 땅을 흔들어 저 어느 편을 향하려 하는 指針으로 하여곰 興을 지나 盛을 지나 무한의 영광의 限업는 度를 밟아 올라 가게 하지 아니 하라느냐.

世人이 혹, 天運을 말합니다. 작년 8월호 本誌 상에 나는 「조선 민족의 숙명론적 인생관」이란 一篇의 <58> 소설문을 써서 그 중에 우리 민족이 아즉도 천운설, 숙명론을 밋는다는 것을 論하였고, 나아가 이 숙명론적 인생관을 타파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개조도 창조도, 따라서 부흥도 업슴을 논하였습시다. 숙명론, 또는 천운설이라 하면 우리의 운명의 指針을 돌리는 動力이 우리 .인력 이외의 무슨 神秘한 힘임을 일커름이어니와 나는 단정코 이를 배척하여 이 운명의 指針을 돌리는 원동력은 결코 天運도 地運도 時運도 아니오 오죽 사람의 힘에 달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가튼 사람의 힘 중에도 저 지식 계급들이 흔히 말하는 세계의 大勢나 어떤 제삼자의 돕는 힘이 아니오 오죽 그 흥망의 주인 되는 사람, 조선의 경우에서는 오죽 조선인의 힘이 잇슬 뿐이라 합니다.

이는 누구나 넘우도 잘 알고 흔히 말하는 이치이기 때문에 극히 평범한 듯 하지마는 진리란 흔히 일상에 넘우 친숙하여 평범하게 보이는 것 중에 舍在하다는 古語와 가티 아모리 평범하더라도 진리는 진리외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흔히 다 아는 듯 하면서도 其實은 만히 모르는 모양이외다. 즉 일부의 동포는 우리의 興盛과 행복을 혹은 어떠한 편에서 大勢에 무슨 급격한 변천이 생겨서 갑자기 큰 수나 날 것을 기다리니 이것이 벌써 「제 운명의 指針은 제 손으로야만 돌린다」는 진리를 모르는 확증이니 몰라서 모르는 것은 가르쳐서 알게만 하면 그만이어니와 알고도 모르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걱정이니 이는 오는 특히 오늘 조선사회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이외다.

조선 민족의 운명의 指針을 돌릴 자는 오죽 조선민족이 잇슬 뿐이니 이 진리를 不顧하고 모든 요행에 바라는 것은 모두 外道요 異端이오 멸망의 길이외다.

그런데 나는 왜 右에 그린 運命圖에 조선민족의 운명의 指針을 돌릴 원동력이 「소년의 誠과 汗」에 잇다 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현재의 전 조선인에게 잇다 아니하고 특별히 그 중에도 소년에게 잇다 하였는가. 그것을 말하기전에 먼저 나의 所謂 運命圖란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잇습시다.

첫째 운명의 軌道는 拋物線적 이외다. 古語에 天運이 循環이라 하였스니 循環이라 하면 그 궤도가 원형이나 타원형일 것이니까, 비록 興하더라도 결국은 <60> 衰할 것이오, 또 그와 역으로 비록 쇠하더라도 결국은 興할 것이라. 따라서 興한다고 깃머할 것도 업고 또 衰한다고 크게 슬퍼할 것도 업겠지마는 내가 밋는 바로는 운명의 궤도는 포물선적이라. 따라서 興의 방향으로 향한 운명은 영원히 興으로 갈 수 잇고 衰의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명은 영원히 衰의 방향으로 갈 수 잇는 것이외다. 그런데 운명의 궤도의 자연의 방향은 興에서부터 衰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興하던 개인이나 민족도 그 쓰던 힘, 즉 자연의 방향에 저항하던 힘을 그치면 그 指針은 제절로 점점 衰를 向하고 돌아가는 것이외다. 돌아가다가 포물선의 정점에 니르러

서부터는 더욱 급속하게 떨어져서 떨어질수록 더욱 그 속력이 가하는 것이 마치 가속도의 원리와 가깝니다. 우에 그런 運命圖로 보건대 그 지침은 이미 復이라고 쓴 포물선의 頂點을 지나 衰에 니르는 거의 半에 니른 것이니 이는 조선민족이 저 志士의 흔히 말하는 바와 가티 이미 衰頽의 極點에 달하지 아니하였고, 아즉 얼마동안 더 衰하야 잇다가는 亡에, 마츄내는 씨도 업서지고 영원의 망각에 들어갈 수도 잇다는 것과, 또 그 쇠퇴의 정도가 이미 포물선의 정점을 지나 衰를 향하야 반 이상이나 내려 갓슴으로 그 쇠퇴의 속력이, 이 그림으로 보면 衰를 향하고 다라나는 운명의 指針의 속력이 심히 급속한 것을 표한 것이외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할 일은 진실로 이 지침을 復의 방향으로 역행시켜서 마츄내 興을 지내어 무궁한 영광의 방향으로 영원히 나아가게 함이니 그리하데 가장 先되고 가장 難한 것은 이 지침을 復의 방향으로 끌어올림이외다. 첫째 우리는 지침의 前進를 저항할 만한 힘을 發하야 하갓고 다음에 우리는 이 지침으로 하여곰 一度 一度 復을 向하고 역행케 할 만한 힘을 發하야 할 것이니 이 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 달린 외줄이외다. 그러면 현재 조선민족에게 이 만한 힘이 잇는가, 만일 없다하면 그 힘이 出處가 어델는가. 이것이 진실로 本篇의 論文이 차자 보라는 骨子외다.

저 僥倖(天運과 世界大勢)을 바라는 자는 이 힘을 요행에 어드려 합니다. 어떤 他國民의 원조를 바드라는 자는 이 힘을 他國民에서 어드려 합니다. 이는 마치 하늘에서 황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가티 愚하고 남의 힘이 足히 나의 생명과 건강을<60> 유지해줄 줄을 밋는 것과 가티 痴한 일이외다. 이러한 愚와 痴를 버리고 「내 운명의 指針은 내 손으로야만 돌린다」는 진리에 돌아오는 것이 復活의 第一步인 줄을 아프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힘이 어대 잇느냐. 오즉 「次代の 조선 민족이 誠과 汗에 잇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조된 조선민족의 誠과 汗에 잇습니다. 또는 新生한 조선민족의 誠과 汗에 잇다고도 할 수 잇습니다.

나는 개조라 하엿습니다. 과연 改造외다. 현재에 잇는 것과 가튼 조민족으로는 생존의 능력이 업고 능력이 업스니까 권리도 업습니다. 제가 입는 옷감도, 제 몸 치레하는 물품도, 바늘 한 개, 당성냥 한 개비도, 제가 다니는 길도, 대학교 하나, 도서관 하나, 제가 먹는 약 하나 만들 줄 모르는 조선 민족, 서로 속이고, 시기하고, 잡아 먹고, 용기 업고, 主義 업고, 게을러 빠지고, 진취성 업고, 딸아서 세 놈도 한 대 뭉칠 수 업는 현재의 조선 민족은 생존할 능력도 권리도 업는 무리외다. 그러니까 이 무리로 하여곰 생존할 능력과 권리를 享受케 하라면 그만한 능력과 권리를 가질만한 자격이 잇도록 개조하지 아니코는 안 될 것이니 그림으로 조선민족이 살아날 수 잇는 조건은 오즉 개조외다.

또 新生한 조선민족이라 하엿습니다. 과연 新生이외다. 망하던 백성은 그대로 다시 興하는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니 현재의 조선인은 30년 내지 40년 간에 다 죽어 업서질 것으로 보고 이 30년 내지 40년 간에 新조선인이 나게 하야 하리니 이 의미로 조선민족이 살아날 수 잇는 조건은 오즉 新生이외다.

그런데 이미 30세를 지내어 志가 立하고 意가 定한 자는 즉 도덕적으로는 舊習에 물이 들고, 또 압해 知德修養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자는 개조되기 어려운 것이니 진실로 新人이 될 수 잇는 이는 오즉 소년뿐이오, 오즉 소년뿐이오 오즉 소년뿐이외다. 진실로 조선민족의 운명의 指針을 돌릴 원동력은 오즉 소년의 죽으마한 젊음 속에 잇습니다! 이에 이 글을 특별히 소년 남녀 여러분에게 부티는 뜻과 내가 重言復言 조선의 운명이 오즉 소년의 손에 달렸다는 뜻이 분명하야졌을 줄 미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重任을 마튼 조선소년은 무엇을 하야 할가 어떡케 하야 할가. 이 문제에

대답함으로 우리는 조선민족의 前途 方針을 해결하는 심이 될 것이외다.<61> 그리고 그 해답은 이미 본론의 一回, 二回, 三회에 암시 되엇는 줄 미듭니다.

조선소년의 할 일은 개조되고 新生된 조선민족의 민족적 생활을 (1) 조직하고, (2) 그 조직된 기관을 운전함이니, 그네가 장차 할 사업이 결정되면 그네의 현재에 하여야 함도 결정 될 것이니, 곳 2천만이나 되는 결코 적지 아니한 민족의 단체생활을 조직하고 그 모든 기관을 운전할 만한 사람이 될 공부를 함이외다. 올습니다. 「공부, 공부, 공부를 함이외다.

(1) 소년들아 德行 잇는 사람이 될 공부를 하기로 國界 同盟하자.

(2) 소년들아 아모리 하여서라도 보통교육과 專門學術의 교육을 바다 한 가지 직업을 할 수 잇는 사람이 되도록 공부하기를 동맹하자.

(3) 소년들아 건강한 신체와 기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공부하기를 동맹하자.

(4) 우리의 동맹으로 하여곰 가장 鞏固하게 가장 神聖하게 뭉쳐진 단체가 되어 민족개조의 大業을 성취하기에 위대한 힘을 내도록 공부하기를 동맹하자.

이것을 한 마디로 줄이면 「조선의 소년 남자야 여자야, 조선의 운명의 指針을 돌릴 원동력이 우리의 손에 잇스니 우리는 그 힘을 낼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공부하기를 同盟하자」, 함이외다.

어떻게 동맹을 할 것인가. 동맹은 왜 하여야 할 것인가. 공부하기 동맹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本誌 次號에 계속하여 토론하기로 하고 소년 諸君은 각기 이 문제에 대하여 今後 1개월 간에 연구하심이 잇스시기를 바랍니다.<62>

<57-62>

13.

잡지명: 개벽 제20호

발행년월일: 1922년 02월 08일

기사제목: 民族興替의 分岐點

필자:

기사형태: 논설

民族興替의 分岐點 (민족흥체의 분기점)

우리는 이러케 봅니다.

20세기의 문명의 신은 어떤 의미에서던지 우리 인간의 총동원을 명하얏습니다. 가령 한 집 안의 식구가 열 사람이라 하면 그 열 사람의 전부 한 민족의 동포가 2천만이라 하면 그 2천만의 전부 한 계급의 머리 수가 백만이라 하면 그 백만의 전부가 똑가티 균일한 자각과 균일한 自助로써 제각히 자기를 위하여 起動할 것을 명하얏스며 자기 할 위하여 起動할 理法을 가르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 집에 잇서서는 그 집의 家長 한 사람의 힘 뿐으로써 그 집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업스며 한 민족에 잇서서는 그 민족의 특권자 몇 사람 뿐으로서 그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업스며 한 계급에 잇서서는 그 계급의 우수자 몇 사람뿐으로서 그 계급의 손

利益을 擁護할 수 업는 것을 포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이 보고에 順한 자 ... 그 순한 자가 한 집이거나 한 계급이거나 한 민족이거나를 무를 것 업시... 는 昌하얏고 또 창하는 중에 잇스며 이 명령 이 보고에 逆한 자는 쇠하얏고 또 쇠하는 중에 잇습니다.

고로 오늘날에 잇서 혹 민족의 興隆 여부는 그 민족이라는 명사 속에 포함된 동포의 머리수의 多寡에 잇지 아니하고 그 동포 중에 상당한 머리와 상당한 손을 가진 사람의 수가 전 동포수의 幾分에 당하느냐 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그 민족의 일반 문화 정도가 어떠하냐 하는 문제에 움~하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4억 3천여만의 동포 수를 가진 중국의 國勢가 如何히 不振하며 근 4천5백만의 국민을 가진 英國의 行世가 如何히 宏壯한 것만 보아도 곳 짐작되는 일입니다.

이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조선의 형편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신문화의 건설을 부르짖는 소리는 四野에 聒흔지 이미 이윅하얏스나 그 소리가 과연 얼마나 우리 민중에게 철저하얏스며 개조· 剗造의 선전은 우리의 귀에 사모친지가 벌써 저 넷 적이나 그 진의가 과연 얼마나 일반에게 철저하얏습니까. 우리의 도시를 보는 이외에 우리의 농촌을 구경하면 어떠하며 우리의 有識者 有産者를 대하는 이외에 우리의 無識者 無産者를 대하면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우리로서 자나 깨나 애써 생각할 문제는 전혀 이에 잇는가 합니다.

몇 사람의 대표자로서 살 수 업스며 또한 생각과 말 뿐으로써 살 수 업는 조선의 사람 사람이 어떠케 하면 우리의 사람 사람이 민족 전체의 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총동원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리하야 2천만이면 2천만 형제의 각자가 다 가티 우리가 원하는 街頭에 나서는 자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20세기의 문명의 신은 어떤 의미에서던지 우리 인간의 총동원을 명한지 이미 오래엿습니다. 우리는 이에 순응하야 望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또한 이에 逆하야 쇠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리하고 저리함은 전혀 2천만 사람의 자유의사에 매엇삽거니와 조선민족 興替의 분기점은 전혀 이에 잇다고 합니다.<1>

14.

잡지명: 개벽 제22호

발행년월일: 1922년 04월 01일

기사제목: 國民生活에 對한 思想의 勢力- (르.본 博士 著 「民族心理學」의 一節)

필자: (譯) 魯啞

기사형태: 논설

國民生活에 對한 思想의 勢力- (르.본 博士 著 「民族心理學」의 一節)

(譯) 魯啞

나는 우에 民族의 心理的 性格은 固定性을 가짐과 또 國民의 歷史는 이 性格에서 나오는 것임을 證明하고 또 一民族의 心理的 要素는 解剖的 要素와 가티 歲月의 지나감을 딸아 遲遲한 遺傳的 蓄積으로 變化한다 함을 證明하얏거니와 文明의 進歩란 대개 이 변화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心理的 變化를 誘致하는 原因은 여러 가지니 要求 生存 競爭, 어떤 境遇의 影響, 科學 及 工業의 進步, 敎育, 信仰, 其他 여러 가지 原因이 잇서 各各 그 影響을 미치는 것이외다. 나는 이미 이러한 여러 가지 勢力을 研究하기 爲하야 一書를 著하엿스니 여기서 다시 反覆할 必要는 업고 다만 그 中에서 主要한 몇가지 要因을 들어 그 勢力을 미치는 方法만 研究하면 그만 일 것이라, 本章이하는 이것의 研究에 바치려 합니다.

開闢以來로 連하야 일어난 各種의 文明을 研究해보면 그것이 僅少한 根本思想에서 發展되어 나온 것이 分明합니다. 만일 一國民의 歷史를 思想의 歷史로 본다 하면 그 歷史는 決코 길지도 크지도 아니할 것이외다. 一國의 文明이 美術, 科學, 文學, 또는 哲學의 範圍에서 一世紀間에 指導的 根本思想을 2,3個만 지어내었다하면 그 文明은 空前絶後の 光輝잇는 文明이라 할 것입니다.

어떤 思想이 民族魂에 實際로 影響을 미치는는 極히 遲遲한 醞釀의 結果로 늘 動搖한 思考域을 떠나 吾人의 行動의 動機를 發하는 固定的 感情에 들어간 뒤에야 되는 것이니, 대개 思想은 이때에 비릇오<27> 性格의 要素가 되어 行爲에 影響을 미치는 것이외다. 性格이란 元來 一半은 無意識의 思想의 層疊으로 組織되는 것이외다.

思想이 이러한 遲遲한 醞熟을 經한 때에는 偉대한 勢力을 어더 理知를 조차 壓倒하는 것이니 어떤 思想을 確信하야 그 思想의 支配를 받게 되는 날에는, 그것이 비록 宗教的 思想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推理力도 이를 動搖치 못하는 것이외다. 그가 아모리 智慧로운 者라도 그러합니다. (이러케 된 뒤에는) 남이 아모리 내게 대하야 非難할 思想이라도 自己가 確信하는 觀念의 範疇에 집어너흐라고 힘쓰게 됩니다. 或은 意識의으로, 大部分은 無意識의으로. 이러케 함에는 思考의 方便을 取하야 往往이 적지안케 그 形態를 變하는 수도 잇을 것이외다. 思想이란 眞實로 意識界에서 無意識界에 徐徐히 내려간 뒤가 아니고는 作用이 生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을 보아도 우리는 思想의 變化가 얼마나 遲緩한 것이며, 또 一大國의 文明의 指導的 思想이 어찌 그리 僅少하며 그 進化에 그러케 긴 歲月을 要하는 것임을 알 것이외다. 그러나 이것은 돌이켜 다행한 일이니 만일 이러치 아니 하면 文明에는 아모 固定性이 업을 것이오. 新思想이 긴 歲月을 지나서 採用되는 것도 多幸한 일이니 만일 舊思想이 絶對로 不變한다하면 文明에는 아모 進步도 實現할 수 업을 것이외다. 우리의 心的 變化가 遲緩하길내로 新思想을 扶植하는 데도 여러 世代의 만흔 사람이 잇서야 하고 이것을 消滅함에도 亦是 여러 世代의 만흔 사람이 잇서야 하는 것이니 가장 큰 文明의 域에 達한 國民이란 그 指導的 思想을 可變性과 固定性과의 同距離에 存續케 할 줄 아는 國民이외다. 古來로 이 平均을 持치 못하는 國民은 滅亡하얏나니 그 頽垣廢墟는 東西의 歷史에 充積합니다. 이럼으로 各國民의 歷史를 通讀할 때에 吾人이 가장 注目할 것은 그 國民의 思想이 富膽하고 嶄新한가 하는 點이 아니오 돌이켜 그 思想이 極히 僅少한 것, 그 變化가 遲緩한 것, 또 그 思想의 勢力이 大한가 하는 點이외다. 文明이란 몇가지 根本的 思想의 結果니 이 思想이 變化하면 그 文明도 變化할 것이외다. 中古時代에는 오즉 二種의 根本思想에 依하야 生存하얏나니 곳 宗教思想과 封建思想이외다. 當時의 美術이나 文學이나 또 그 一切의 人生觀은 다 이 二種의 思想에서 胚胎한 것이외다. 그러다가<28> 文藝復興時代에 이르러 이 思想에 若干 變化가 오고 希臘羅甸의 舊世界의 理想이 다시 勃興하야 歐州全幅을 風靡하게 되매 그 人生觀을 머리로 하야 美術, 哲學, 文學할 것 업시 모다 變化하기를 始作하얏습니다. 그 後 漸次로 傳說의 憑據에 動搖가 生하고 科學的 眞理가 次次 天啓의 眞理를 代하게 되매 이에 다시 新文明이 組織된 것입니다. 今日 至하야는 昔日의 宗教的 思想은 이미 太半이나 그 勢力을 決定的으로 일혀 버렸고, 딸아서 그 思想을 基礎로한 社會의 모든 制度가 다 傾倒할 地境에 니르렀습니다.

무릇 思想의 發生, 全盛, 衰微, 變化 及 消滅 等の 歷史는 여러 가지 事例를 들어 證明하여야 할 것이어니와 萬一 仔細히 尋究할진대 文明의 各要素되는 哲學, 信仰, 美術, 文學 等は 極히 進化의 遲緩한 僅少의 指導的 思想에 從屬함을 證明하기 어렵지 아니 할 것이외다. 科學도 이 法則에 버서나는 것이 아니라 近世의 모든 物理學은 勢力不減論의 思想에서 出한 것이오, 一切의 生理學은 進化論의 思想에서 出한 것이며 일체의 의학은 無限小作用의 사상에서 出한 것이니 이러한 思想들의 歷史를 보건대 비록 無數한 天才가 輩出하였다 하더라도 그 成立이 어떠한 遲緩하고 困難하였는지를 알 것이외다. 모든 것이 長足으로 進化하는 現世紀에도, 더욱이 利慾問題에 아모 干連이 업는 研究界에서도, 한가지 根本的 科學思想을 成立케 함에는 25年은 걸려야 한다 하며, 가장 分明하고, 가장 證明하기 쉽고, 또 異論이 일어 날餘地가 업는 思想이라도 그것이 成立됨에는 긴 歲月이 걸리는 것이니 저 血液循環論의 思想을 보아 알 것이외다.

科學的 思想이나, 藝術的 思想이나, 宗教的 思想이나, 무릇 어떠한 思想이든지 그 傳播되는 方法은 同一한 것이니 침에 少數의 宣傳者가 이를 採用하고, 다음에 이 宣傳者는 그 신앙의 勢力과 名聲의 權威로 一大 威信을 作하는 것이외다. 이런 境遇에 宣傳者는 論證보다도 돌리어 勸誘로써 만흔 感化를 及하는 것이니 勸誘法의 要訣은 論證의 效力에 잇는 것이 아니외다. 사람이란 自己의 思想을 鼓吹하매 或은 自己의 가진 威信으로써 或은 人의 物慾에 訴함으로써 하지마는 다만 理知만 가지고는 아모 影響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論證으로 信服하는 것이 아니오 오즉 斷言으로만 信服하는 것이외다. 그런데 이 斷言의 權威는 전혀 이 斷言을 하는 者의<29> 地位와 威信에 達된 것이외다.

宣傳者가 一小團體의 隨信者를 得함에 成功하여서 新宣傳者를 養成한 때에 비릇오 新思想이 論議 域에 入하는 것이외다. 最初에 一般의 反對를 當함은 在來의 既成思想과 衝突하기 때문이니 新思想을 擁護하는 宣傳者가 이 反對를 當하고 憤慨함도 自然한 일이어니와 이러한 反對가 잇는 것이 돌리어 그네가 다른 衆人 中에 卓然히 뛰어남을 自覺케 하는 것이외다. 그래서 그네가 強硬히 新思想을 擁護하는 것은 만듯이 그 思想이 眞理가 되어서 그런다기 보다-흔히 그네는 그것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다만 그 思想을 採用하였기 때문이외다. 이러하여 新思想에 대한 論評이 더욱 만케 됩니다. 그러나 實상은 或은 이를 大體로 採用하는 者와 大體로 이를 排斥하는 者가 잇서 다토아 斷定과 否定을 交換하지마는 論證을 交換하는 것은 甚히 드문 일이외다. 大多數의 民衆便으로 보면 어떠한 思想을 採用하고 아니 하는 唯一의 理由는 오즉 感情이오 推理가튼 것은 것처럼 關係가 잇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論爭이 더욱 激烈하여지는 結果로 思想은 徐徐히 浸潤하나니 新時代의 사람들은 그 論爭을 보면 다른 理由는 업더라도 다만 論爭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歡迎하는 傾向이 잇습니다. 青年은 恒常 獨立과 自由를 渴仰하는 者임으로 在來의 思想에 對하여 大體로 反對되는 것이면 가장 接近하기 쉬운 것이외다.

이러케 思想이 그냥 發展하여 얼마 안되면 아모 支撐도 업시 서게 되나니 이리되면 思想은 傳染의 길을 通하여 單純한 模倣의 結果로 到處에 傳播하게 됩니다. 대개 모방의 能力은 萬人이 다 가진 것이니 近代의 科學이 人類의 先祖라 하는 人猿類와 다름이 업나니다.

傳染狀態에만 들어서면 사상은 성공하는 것이외다. 一步를 나아가 여론이 이 사상을 채용하게 되면 이에 일중 滲透力을 어더 萬人의 두뇌에 침입하며, 동시에 일중의 특별한 분위기를 이루고 떨어져 일반의 사고법을 짓는 것이외다. 어떠한 곳에나 침입하는 미세한 塵埃와 가티 그 사상은 당대 일체의 관념이나 작품에 투입하게 되나니 이러케 되면 그 사상과 그것의 결과는 유전의 家寶의 부류에 편입되어 교육으로써 후대에 주입합니다. 사상이 승리를 得하하여 감정

의 범위에 入하면 영원히 이를 侵蝕할<30> 者가 없게 됩니다.

일국민의 문명을 지도하는 이러한 각가지 사상 중에 어떤 사조, 가령 예술이나 철학에 관한 사상은 고급 국민뇌리에 유존하고 기타의 사상, 특히 정치적, 종교적 관념에 관한 사상은 민중의 心底에 침전합니다. 침전하면 벌써 원형을 損하지마는 한 번 이 지경에 이르면 이론의 힘이 엮는 소박한 민심에 광대무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외다. 於是乎 사상은 일종의 不可抗物이 되어 그 영향이 일사천리의 勢로 傳之又傳하야 어떠한 힘으로 이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느 사상이 한 번 그 국민을 정복하는 날이면 그 국민 중에는 그 사상을 옹호하기 위하여 목숨조차 앗기지 않는 者가 여러 十萬이나 뛰어 나오는 것은 흔히 보는 일이니 이때에 비릇오 혁명의 대사변이 일어나 역사를 攪亂하는 것이라, 이는 실로 오죽 민중만 수행할 수 잇는 일이외다.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성립되는 것은 文士나 미술가나 철학자의 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지구의 半이나 점령한 저 宏大한 제국을 건설함도 그러하고 歐洲의 天地를 震蕩한 정치, 종교의 대혁명도 그러합니다. 이런 것은 어느 것이나 다 어떤 사상의 지배를 바다 이를 전파하기에는 水火를 가리지 않는 무식한 민중의 손으로 된 것이외다. 亞刺比亞 광야의 遊牧之民이 이론상으로 극히 평범하면서도 실제상으로는 극히 強大한 학식을 구하야 希臘羅馬의 舊版圖의 一半을 정복하야 역사상 가장 거대한 一帝國을 건설한 것이나 民約議會의 용감한 병사가 무장의 歐洲에 항전하야 승리를 制함도 또한 이러한 심적 학식-사상의 권세-를 구한 까닭이 아닙니까.

무릇 구든 확신은 불가항력을 가진 것이니 이것과 힘이 상대한 확신이 아니고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외다. 신앙을 대적할 자는 오죽 신앙뿐이니 굳센 감정과 신앙을 가지지 못한 物的 세력과 신앙과 서로 쟁투한다 하면 이길 者는 신앙이외다. 그러나 강약이 가튼 신앙과 신앙이 서로 마조칠 때에는 극히 격렬한 전쟁을 現出하거니와 그 승리는 부가의 사세, 흔히 심리적 附加事情으로 결정되는 것이외다. 예컨댄 규율의 정신의 유무 편제의 良否가튼 것이외다. 吾人은 우에 인증한 아라비아인의 역사를 자세히 연구하야 보건대 그네의 첫번 정복에는 (이러한 정복은 극히 곤란하고도 극히 중요한 것이외다) 그네의 적은 兵制는 대단히 정교하였지마는 정신적으로 심히 약하였습니다. 아라비아인이 시리아에서 첫번<31> 비산쓰軍과 접전할 때에 비산쓰軍은 용병이라 생명을 賭하고 싸울 각오가 엮섯슴으로 강한 신앙을 가진 아라비아軍은 용기가 백배하야 이상업는 적군을 용이하게 과멸하였스며 옛날 회랍도 애국심에 고취되어 波斯王 크셀세스의 大軍을 격퇴한 것이외다. 만일 이 아라비아인이 수백년 전의 로마軍과 싸왔다 하면 이러하지 못하였을 것이니 정신적 세력이 相等할 때에는 편제의 우월한 편이 이길 것임이외다. 안디안人也 열렬한 신앙과 견고한 확신을 가졌거니와 國約議會의 병사도 그만큼 강고한 확신을 가졌고 겸하야 그 兵制가 전자보다 우승하였슴으로 승리는 마침내 후자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종교나 정치에도 성공은 확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회의자에게는 아니 돌아갑니다. 사회주의의 원리는 부조리한 폐가 잇지마는 그 주의자가 모다 진실한 확신을 가진 者들임으로 장래의 세계가 사회주의자의 손에 돌아갈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현대의 유식계급은 만사에 대하여 신앙을 일혀 그네는 아모 것도 맞지를 못합니다. 사방으로 밀어 들어오는 야만인의 역습에 대하여 자위할만한 자신조차 업습니다.

사상이란 탐구시대, 개량시대, 변성시대, 논의시대, 선전시대를 經하기에 다소의 세월을 費하고는 마침내 결정적 형체를 得하야 민중의 심리에 入하게 되는 것이니 그리되면 이에 일종의 원리를 구성하야 다시 논의를 許치 아니하는 절대적 진리와 가티 되는 것이외다. 이에 국민 존립의 기초되는 일반의 신앙에 분야를 生하였다가 되디어 그 보편적 특징으로 우월한 세력을

잡게 되는 것이외다. 역사상의 성대란 것은 (로마의) 아우구스트時代나 法國의 루이 14세 시대나 다 사상이 탐구시대와 논의시대를 脫하여 고정성을 得하여 민중의 사고를 지배하는 주권자가 되어진 시대외다. 이때에는 사상은 광명이 혁혁한 등대가 되어 무릇 그 빛에 비추어지는 만사로 하여곰 광휘를 발케 하는 것이외다.

신사상이 한 번 세력을 잡으면 쇠세한 모든 문물에도 그 인상을 아니 박는 것이 업지마는 이 사상에서 모든 결과가 生하기는 사상이 민중에 心底에 깊이 침투한 뒤의 일외다. 사상이 그 발생한 지식의 정점으로부터 민중의 心에 접근하기 쉬운 형체가 되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에는 階一階 下降하여 끈힘업시 形을 변하고 質을 변하다가 마침내<32> 몇 마디 안되는 말에 응결하여 버립니다. 혹시 외마디 말에 응결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一語는 유력한 환영을 發하여 능히 사람을 현혹하고 공포케함으로 항상 人心에 印刻할 영상을 現出하는 것이외다. 中古時代의 천당지옥의 語는 그 一例니 一言이 능히 만사를 설명하여 愚夫愚婦게 대하여서도 능히 萬事를 해석할 수 있는 마력을 가졌던 것이외다. 사회주의라는 말도 오늘날 노동자에게는 人心을 지배하는 마술적이요 종합적인 公理외다. 사상이란 그 투영을 맞는 사람을 딸아 영상이 各異한 것이라, 비록 그 영상의 윤곽은 동요불정하다 하더라도 영향하는 바는 심히 큰 것이외다.

프랑쓰의 이론가는 사회주의라 하면 천당의 모양을 상상합니다. 여기서는 만민이 평등이 되어 국가의 간섭은 지도하에 일종의 이상적 행복을 향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獨逸 노동자에게 생각되는 것은 술 냄새 나는 술집인데 거기는 순대와 배추나물이 산가티 싸히고 맥주가 몇 억만 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무료로 누구나 맘대로 먹으라고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추나 물을 몽상하는 者나 평등을 몽상하는 者는 그 분배물의 실제의 분량이라던지 분배를 맞는 者의 수라던지를 알라고 힘쓰는 者는 업습니다. 이 모양으로 사상의 특성은 절대로 강제적이어서 아모 논란도 허락지 아니함에 잇는 것이외다.

사상이 한 번 감정으로 化하여 일종의 정리가 되고 보면 그 세력은 펍 오랜 것이라, 아모러한 이론으로도 이를 움츠리지 못하는 것이외다. 무론 아모리 신사상이라도 나중에는 그가 밀어낸 舊思想과 同一한 運命을 當하고야 마는 것이니 곧 신사상도 한 번은 낡아 썩어져 업서지고야 말 것이외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업서지기까지에는 몇 번을 衰微하고 몇 번을 변형하여 여러 백년의 세월을 요할 것이외다. 우리는 「선입견」이라야 하야 진부한 유전적 사상인 줄 알면서도 오래두고 이를 존중하다가, 그러다가야 마침내 아주 煙滅되고 마는 것이외다. 구사상은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도 업스면서도, 한 헛가비와 가티 보이면서도 일종의 마력을 가져 우리를 정복하는 것이외다.

진부한 사상, 의견, 규약 등의 다 낡아빠진 유산은 이 모양으로 지속되어 우리도 공순히 거டு복종하지마는 만일 죽음이라도 이를 논의하라고 만들면 우리의 一喝의 이론에도 능히 견딜만한 것이<33> 업스리라. 그러치 마는 제 나라에 고유한 사상을 논의할 수 잇는 이가 며치나 됩니까. 또 족으마한 논의에라도 견딜만한 사상은 며치나 됩니까.

논의는 이러케 위험한 것이니까 애어 아니 하는 것이 조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행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일이 적읍니다. 비평의 능력은 희유하게 우월한 者나 가진 것이지 다수의 범인은 오즉 모방의 능력을 가졌을 뿐이외다. 세간 다대수의 인중은 여론이 하라는대로 교육이 전하는대로 기성의 사상을 아모 논의도 업시 채용하는 것이외다.

이러케 유전, 교육, 경우, 전염과 여론 등으로 각 시대 각 종족의 각 개인들은 어떤 일정한 공통개념을 가지며, 이러기 때문에 서로 매우 유사하며 그 유사함이 심한지라 우리는 그들이 간지 수백년 후에도 그 미술적, 철학적 及 문학적 작품을 모아 그네가 어느 시대에 생존하였던

가, 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외다. 아모렘 그네가 서로 모방하였다고만 볼 수는 업지마는 그네가 꼭 가튼 감정과 사고의 방식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자연 심히 유사한 작품을 만들게 된 것이외다.

이러함은 돌이켜 경하할 일이외다. 웨 그러나 하면 어떤 국민의 혼을 조성하는 것은 진실로 이 공통적인 전설, 사상, 감정, 신앙 及 사고방식의 망상조직인 까닭이외다. 이 망상조직이 강고할수록 그 국민의 혼도 더욱 강고할 것은 우리가 이미 증명한 바외다. 진실로 국민을 유지하는 것은 이 망상조직이외다. 그릇습니다, 오즉 이 망상조직이 잇슬뿐이외다. 이 망상조직이 파탄되는 날은 곧 그 국민이 해체되는 날일 것이외다. 이 조직은 국민의 진정한 세력인 동시에 그 진정한 주권자외다. 사람들의 말이 東洋君主들을 무엇이나 제 맘대로 하는 전제자가티 말하지마는 그 소위 任意行之라는 것도 기 실은 돌이켜 심히 좁게 제한된 것이외다. 전통의 망상조직이 가장 강고한데는 東洋인데, 종교적 전통도 우리 나라 (프랑스)에서는 만히 동요되었지마는 東洋서는 아즉도 그 전권을 보지하는데, 제 아모리 任意行之하는 전제자인들 이 전통과 여론에는 저항치 못할 것이외다. 웨? 이 두 가지는 저보다도 권위잇는 二大 君主인 줄을 아는 까닭이외다.

현대의 문명인은 희유한 역사적 공황기에 잇습니다. 신문명을 나하 노흔 구사상은 이미 권세를 일헛고, 신사상은 아즉 성립되지 못하였스며 언론은 자유로<34> 할 수 잇는 까닭이외다. 昔日에는 습관과 여론의 세력이란 어떤 것이며 또 이 대세력과 싸움에는 아모리 용감한 개혁자라도 어떠케나 신고를 맞보았는지, 는 넷날 문명의 世에 올라가든지 그러치 안흐면 적어도 2,3세기 이전에 올라가지 안코는 알지 못할 것이외다. 무식한 수사가들은 회랍인을 아즉 자유로운 인민이던 것처럼 말하지마는 기실 그네는 여론과 습관의 멍에미테 말할 수 업시 놀려 살던 것이외다. 국민은 누구나 다 신성불가침의 신앙의 굴레에 얼키엇고 선입의 사상에 대하여서는 감히 입을 버리라는 이도 업고 아모 반대할 맘도 가져 보지 못하고 忍受한 것이외다. 회랍인은 信敎의 자유도 모르고 私生涯의 자유도 모르고 아모리한 자유도 몰랐습니다. 아텐의 법률은 시민의 군중을 떠나서 생활하기를 허치 아니 하엿고 國際日을 敬虔한 맘으로 축하치 안키를 허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러케 그 압박은 완전하였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일반 전쟁의 상태에서 살앗스니 이러한 처지에 사는 사회의 개인들이 사고와 행동의 자유를 가진다하면 그 사회는 하로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외다.

현대의 문명에서는 습관과 여론의 근저가 되었던 구사상은 이미 거의 다 깨어져서 이제는 人心에 대한 권위가 심히 박약하여 졌습니다. 소멸의 變徵期에 들어 온 것이니 이 시기에는 구사상이 (사상의 권위를 일코-역자 補) 선입견의 상태로 변합니다. 아즉 무슨 신사상이 들어서지 못하는 동안 정신계는 무정부 상태에 잇습니다. 오늘날 모든 논의가 인용되는 것은 이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이니 이런 시기는 다시 엿기 어려울 것인 즉 文士나 사상가나 철학자된 이들은 모르미 이 시기를 향낙하야 잘 이용하야할 것이외다. 아마 이것이 래세의 조짐인지도 모르지마는 어쨌든지 언론이 이러케 자유롭기는 세계사 상에 罕見한 비외다. 이 시기가 길지는 못하리라. 歐洲의 모든 국민은 현재의 문명 기준으로 언론도 자유도 인용치 아니 할 사회상태를 향하고 진행하는 중이니 장차 나오라는 新定理도 아마 실상은 아모 논의도 許하지 아니하고 前代의 定理와 가티 不認容主義라는 조건으로야만 성립되리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는 사회의 기초가 될 사상을 지금도 탐구하는 중이지마는 위험은 참말 여긔 잇습니다. 일국민의 중요한 것, 또는 그 국민의 운명에<35> 김흔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혁명도 아니요, 전쟁도 아니요-이러한 참화는 얼는 업서지거나 쉬웁니다-근본적 사상의 변화외다. 이 변화는 그 나라의 문명의 모든 요소를 變改하고야 마는 것이니 일국민의 존립에 참으로 위

험한 혁명은 오죽 그 국민의 사상에 투철하는 혁명이 잇슬뿐이외다.

신사상을 채용하는 것이 어찌하야 그 국민에게 위험한고 하니 구사회에 대신 할 신사회의 구조를 견고히 할 기초되는 사상을 차즈라면 여러 가지 사상을 차례로 시험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니 이에서 더 큰 위험이 어대 잇습니까. 사상이 위험한 것은 그 사상이 잘못 된 것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우리가 지금토록 가지고 온 종교사상처럼 잘못된 사상이 또 잇겠습니까-신사상이 과연 이를 채용하라는 사회의 요구에 맞나, 아니 맞나, 를 알자면 여러 해를 두고두고 시험을 해 보아야하기 때문이외다. 불행히 어떤 사상의 유익의 정도는 경험의 아니고는 민중은 알지 못하는 것이외다. (中略-원문)

그러나 사상이 한 번 人心에 들어가고 보면 아무도 그 진행을 막을 수는 업습니다. 그 사상은 어대까지든지 진행을 쫓내고야 말 것이외다.

그래서 흔히 첫 희생이 된 이들이 그 옹호자가 됩니다. 羊이 屠所에 끄는 이에게 순순히 끌려가는 모양으로 우리는 사상의 권세 압해는 고개를 숙으리지 안치 못합니다. 사상이 어떤 일정한 발전기에 달하면 그때에는 추리나 논증도 이를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으로 일국민이 어떤 사상의 명예를 버서나라면 오랜 세월과 무서운 혁명을 요하는데 어떤 때에 둘이 다 잇서야 하는 수도 잇습니다. 이리되면 벌써 사상을 자기가 지어 낸 환상으로는 볼 수 업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차차로 이를 위한 희생이 생기기 때문이외다.<36>

<30-36>

15.

잡지명: 개벽 제23호

발행년월일: 1922년 05월 01일

기사제목: 民族改造論

필자: 李春園 이춘원

기사형태: 논설

民族改造論 (민족개조론)

李春園

弁言

나는 만흔 희망과 끝는 정성으로, 이 글을 朝鮮民族의 장래가 어떠할가, 어찌하면 이 民族을 현재의 쇠퇴에서 건져 행복과 繁榮의 장래에 인도할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들입니다.

이 글의 내용인 民族改造의 思想과 計劃은 在外同胞 중에서 發生한 것으로서 내 것과 일치하야 마춤내 내 일생의 目的을 이루게 된 것이외다.

나는 朝鮮 내에서 이 思想을 처음 전하게 된 것을 無上한 榮光으로 알며, 이 귀한 思想을 先覺한 위대한 頭腦와 共鳴한 여러 先輩 同志에게 이 기회에 또 한번 尊敬과 感謝를 들입니다. 원컨대 이 思想이 사랑하는 靑年 兄弟姉妹의 純潔한 가슴 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 꽃이 피고 열매가 매쳐지이다.

辛酉 十一月 十一日 太平洋會議가 열리는 날에 春園識

上

民族改造의 意義

근래에 전세계를 통하여 改造라는 말이 만히 유행됩니다. 일즉 歐洲大戰이 끝나고 巴리에 平和會議가 <18> 열렸을 때에 우리는 이를 세계를 改造하는 會議라 하였습니다. 因하여 國際聯盟이 組織되매 더욱 狂悅하는 熱情을 가지고 이는 세계를 改造하는 機關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改造하는 말이 만히 流行되게 되었습니다.

改造라는 말이 만히 流行되는 것은 改造라는 觀念이 多數 世界人의 思想을 支配하게 된 標입니 다. 진실로 오늘날 신간 書籍이나 新聞雜誌나 演說이나, 심지어 商品의 廣告에까지, 또 일상 會話에까지 改造란 말이 만히 씌운 것은 아마도 空前한 現象일 것이외다. 무릇 어떤 觀念이 支配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어떤 다른 觀念이 支配하라는 시대가 올 때에는 반드시 人心에 更新이라든지, 改革이라든지, 變遷이라든지, 革命이라든지 하는 觀念이 드는 것이 지마는 更新, 改革, 革命 가튼 觀念만으로 만족치 못하고 더욱 根本的이고 더욱 組織的이고 더욱 全般的, 滲透的인 改造라는 觀念으로야 비릇오 人心이 滿足하게 된 것은 실로 이 시대의 特徵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改造의 時代다!」하는 것이 현대의 標語외다, 精神이외다. 帝國主義의 세계를 民主主義의 세계로 改造하여라, 資本主義의 세계를 共產主義의 세계로 改造하여라, 生存競爭의 세계를 相互扶助의 세계로 改造하여라, 男尊女卑의 세계를 男女平權의 세계로 改造하여라...이런 것이 현대의 思想界의 소리의 全體가 아닙니까.

이 時代思潮는 우리 땅에도 들어와 각 방면으로 개조의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朝鮮사람으로서 시급히 하여야 할 改造는 실로 朝鮮民族의 改造외다.

대체 民族改造란 무엇인가. 一民族은 다른 自然現象과 가티 時時刻刻으로 어떤 방향을 取하여 變遷하는 것이니 한 民族의 歷史는 그 民族의 變遷의 記錄이라 할 수 있습니다. 檀君時代의 朝鮮民族, 三國時代의 朝鮮民族, 高麗나 朝鮮時代의 朝鮮民族, 또는 가튼 李朝時代로 보아도 壬亂以前과 以後, 甲午以前과 以後, 이 모양으로 朝鮮民族은 끈힘없이 변화하여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난 뒤 三十年間으로 보더라도 조선이 어떠한 변화였나, 정치는 말 말고 衣服, 住居, 習慣 등 밋게 들어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思想의 內容, *情의 傾向까지 몰라보게 변화하여 왔습니다. 남자가 상투를 버리고 여자가 쓰개를 버서버<19>린 것이 어떠한 무서운 변화오니까.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날이 변화하여 갑니다. 더욱이 재작년 三月 一日 이래로 우리의 정신의 변화는 무섭게 急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今後에도 限量없이 계속될 것이외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의 변화외다. 또는 偶然의 변화외다. 마치 자연계에서 끈힘없이 행하는 물리학적 변화나 화학적 변화와 가티 자연히,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연히 행하는 변화외다. 또는 무지몽매한 野蠻 人種이 自覺 없이 推移하여 가는 변화와 가튼 변화외다.

文明人의 최대한 특징은 자기가 자기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達하기 위하여 계획된 進路를 밟아 노력하면서 시각마다 자기의 속도를 測量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본능이나 衝動을 딸아 행하지 아니하고 생활의 목적을 確立합니다. 그리하고 그의 一舉手 一投足의 모든 행동은 오즉 이 목적을 향하여 統一되는 것이오, 그럼으로 그의 特色은 計劃과 努力에 있습니다. 그와 가티 文明한 民族의 特徵도 자기의 목적을 意識的으로 確立하고 그 목적을 達하기 위하여 일정한 組織的이고 統一的인 計劃을 세우고 그 計劃을 實現하기 위하여 組織的이고 統一的인 努力을 함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原始時代의 民族, 또는 아즉 분명한 自覺을 가지지 못한 民

族의 歷史는 自然現象의 變遷의 記錄과 가튼 記錄이로되 이미 高度의 文明을 가진 民族의 歷史는 그의 목적의 變遷의 記錄이요, 그 목적들을 위한 計劃과 努力의 記錄일 것이외다. 말하서 原始民族, 未開民族의 목적의 變遷은 오즉 自然한 變遷, 우연한 變遷이로되 고도의 文明을 가진 民族의 목적의 變遷은 意識的 改造의 過程이외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改造의 現象이 생기나. 이미 가진 民族의 目的과 計劃과 性質이 民族의 生存 繁榮에 적합치 아니함을 자각하게 되는 경우외다. 그 性質로 그 目的을 향하여 그 計劃대로 나아가면 滅亡하리라는 判斷을 얻는 경우외다. 이러한 자각과 判斷을 얻는 것부터이 별서 고도의 文化力을 가졌다는 證據니 그것이 업는 民族은 일즉 이러한 自覺을 가져보지 못하고 不識不知 중에 마춤내 멸망에 들어가고 마는 것이외다. 능히 전 民族의 生活의 핵심을 洞察하여 이 방향의 진로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20> 하는 분명한 判斷을 얻는 것이 그 民族의 更生하는 첫 거름이외다, 萌芽외다. 그리고 한번 이러한 判斷을 얻거든 총명하게 새로운 進路 새로운 目的과 計劃을 정하여 民族生活의 針路를 전하도록 意識的으로 組織的으로 노력하는 것이 그 民族의 更生하는 유일한 길이니 이는 꼭 총명하고 勇斷있고 活氣있는 民族 아니고는 능치 못할 것이외다.

나는 以上에 民族改造한 것이 民族의 生活의 進路의 方向變換, 즉 그 목적과 計劃의 根本的이요 組織的인 變更인 것을 暗示하였습시다. 오즉 어떤 부분을 改革하거나 修補한다는 것이 아니요 집으로 말하면 그 안즌 방향과 基礎와 室의 配置와 構造와 材料를 전혀 새로운 設計에 의하여 다시 짓는다 함이니 비록 낡은 材料를 다시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新設計에 마초아 쓸만한 것이면 쓰는 것이 될 뿐이외다. 이럼으로 民族의 改造라는 것은 여간한 경우에 輕易히 부르지를 바가 아니니 아까도 말한 바와 가티 이대로 가면 망한다 할 경우에 乾坤一擲의 大決心, 大氣魄으로 할 것이외다. 과거의 역사로 보건대 一民族의 專生涯(四千年이나 五千年)에 만하야 二三次되기가 어려운 일이외다. 청년다운 生氣가 업시는 도저히 못할 일인 듯합니다. 다음에는 世界 歷史上에 民族改造運動의 實例 몇가지를 들어 더욱 民族改造라는 思想을 分明히 하려 합니다.

歷史上으로 본 民族改造運動

첫재로 들 것은 古代 希臘에 在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의 民族改造運動이외다. 당시 希臘은 波斯에 對한 戰勝과 商業의 發展과 文化의 爛熟으로 人民이 利己와 巧詐와 遊迭에 흘러 民族의 生活一즉 鞏固한 團體生活의 힘이 날로 消耗하여지고, 그 時勢의 產物인 詭辯學派가 一世를 風靡하여 國民道德이 地를 拂하게 되었습시다. 「各人의 準繩은 自己라」하는 詭辯學派의 標語는 奉公이라든지, 相互扶助라든지 하는 團體生活에는 生命이라 할 道德의 權威를 無視하는 말이외다. 이때에 소크라테스는 「이대로 두면 망한다」는 慄然한 自覺으로 憤然히 일어나 正義의 實在와 奉公의 德의 權威를 力說하였고 그의 首弟子 <21> 플라톤은 國家中心의 道德을 絶叫하였습시다. 지금에는 소, 푸 兩氏를 哲學의 祖로 전하지마는 기실 兩氏의 目的은 哲學의 建設이 아니요 자기네의 사랑하는 國家와 民族의 救濟외다. 그네의 哲學은 千古에 전하야 崇仰의 標的이 되지마는 그네가 畢生의 精力을 다하야 救濟하려 하던 祖國은 마춤내 救濟치 못하고 말았스니 그네의 主觀으로 보면 그네는 생활에 失敗한 사람이외다. 그네의 地下의 靈이라도 祖國은 가고 哲學만 남은 것을 못내 슬퍼하였을 것이외다.

흔히 國家를 바로잡을 뜻을 가진 者는 그 國家의 政權을 자기의 手中에 掌握하기를 유일한 길로 압니다. 더욱이 東洋이 그러하고 더욱이 고대에 그러하였습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國家의 興亡이 政權에 잇는 것이 아니요

16.

잡지명: 개벽 제31호

발행년월일: 1923년 01월 01일

기사제목: 汎人間的 民族主義

필자:

기사형태: 논설

汎人間的 民族主義 (범인간적 민족주의)

主義와 主義

인류와 인류가 서로 석기어 살며 미처 가장 능히 人類自己의 의식을 힘있게 발휘하는 者는 각 自我의 생활이라 하는 것이다. 자아의 생활을 他에 비교하여 뒤 最大 且 最善히 향상코저 하는 관념은 人類自己내의 최초의 의식인 동시에 또한 최종의 의식이 되나니 어린 兒孩들이 자기의 玩弄物에 비교하여 善否를 판단하는 의식은 국가가 자국가의 부강을 타국가에 비교하여 그 우열을 판단하는 의식과 족음도 다른 것이 업스리라. 인류는 크나 적으나 또는 개화나 미개를 논할 것 업시 그러한 공통한 의식을 가졌스며 그리하여 그 공통한 의식으로 발휘되는 구체적 안건은 곧 자기생활에 대한 이해타산이었다.

자기생활에 대한 이해타산의 관념은 卑近한 곳으로 원대함에 나아가고 불완전으로부터 완전에 나아가게 되나니 그럼으로 인류의 자기생활에 대한 최초의 의식은 이기주의의 형식을 가지고 나타났었나니 이해타산을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자기에게 利하고 便한 者를 조차 모든 생활의 단서를 열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기주의는 필경-이기주의 독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절대 확장치 못할 것은 필연의 理勢가 될 것이니 다수한 개체가 다가티 자아를 중심으로 한 생활상 이해타산은 자연히 권리와 福兆를 용인케 됨으로써 <2> 거기에는 스스로 이타주의라 하는 것이 엄연한 일대진리가 되어 이기주의와 병행함을 요하게 되는 것이다.

古昔 中國 思想界에는 楊朱라 하는 이기주의자와 墨翟이라 하는 이타주의자가 잇서 일대의 사상을 풍미함과 가티 그러한 兩兩反對의 사조는 獨히 中國에뿐 고유한 者가 아니요, 何時代 何民族을 물론하고 다가티 此 사상의 조류를 보게 되었나니 근대에 이르러는 니체의 개인주의 사상과 톨스토이의 인류주의의 사상은 힘있게 현대의 정신을 자극하였든 것이니 吾人은 此 양자의 사상 중에는 한가지로 꺼지지 아니할 심원한 진리가 포용하였음을 공인하는 배라.

생활상 이해타산을 이기주의로써 보거나 이타주의로써 논하거나 그것은 각기 관찰자의 자유의 사에 잇는 것임으로 이기주의의 확장은 필경 자기의 族屬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가 되어갈 것이요, 이타주의의 확장은 到頭 인류주의가 되어 나아가는 것이었다.

思忖대 금일의 사상계는 민족주의와 인류주의의 兩對 併立을 보게 되었나니 민족주의가 생활의 이해타산을 민족으로 하게 됨과 인류주의가 그를 또 인류 全體上으로 본 것은 그가 政治上 社會思想上으로 나타나게 됨에는 혹은 국가주의가 되며 제국주의가 되며 혹은 사회주의가 되며 혹은 정의·인도 문제가 되며 종교·도덕 문제가 되어 천하의 億兆-그 所向을 未知하게 되고 더욱 근일 우리들의 조선 사상계에 잇서는 민족주의와 인류주의(사회주의)가 兩兩併立하여 互相 언론과 筆鋒으로 그 雌雄을 決코저 하는 태도를 감행하는 중에 잇나니 吾人은 此際에 잇서 此 兩個主義의 利弊를 一言하야써 汎人間的 민족주의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들의 취할 바 正道인 것을 概言코저 하노라.<3>

民族主義

역사상 의미의 민족주의는 一言으로써 蔽하면 이기주의의 확대로 볼 수 있나니 利己의 관념을 자기 일개인의 上으로부터 연장하여 민족이라 하는 자기의 種屬의 上에 그 관념을 옮겨 노케 한 것이라. 인류가 자기의 생활상 이해타산을 料理함에 미쳐 사실상 자기 일개인의 力으로써 자기의 행복을 圖치 못할 것을 각오한 이상은 필연의 결과-타인의 力을 합할 필요를 심각히 각오한 것이며 그리하여 타인의 力을 합함에는 스스로 비교적 친근한 자기의 가족으로 시작을 할 것이요. 그리하여 가족적 관념은 延하여 가족과 가족이 연결한 민족의 力을 依하게 된 것이니 究竟 민족주의는 이기주의의 大結晶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민족주의는 해석의 여하에 의하여 다소 그 폐해를 완충할 점도 업지 아니하나 그러나 역사상 의미의 민족주의는 발달한 금일 인류의 사상 上에는 到底 許키 不能한 점이 만히 포함되어 있겠다. 이제 역사상으로 흘러 온 민족주의의 폐단을 一言하면

1. 민족주의는 인류를 평등으로 보지 않는 점이니 古昔 중국민족이 자칭 曰 中華라 하고 他의 민족을 칭하여 東夷, 西戎, 南蠻, 北狄이라는 악명을 付하여 인류의 천연적 평등 관념을 破壞케 한 것이라. 이러한 민족적 관념은 아즉 인류의 間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動輒 타민족을 멸시 또는 배척하는 성질을 養하게 되어 인도·정의의 발달을 방해케 하는 것이다.
2. 민족주의는 자기의 민족 뿐 시인하고 他의 민족을 멸시 또는 배척하는 결과-그 폐해는 遂히 타민족의 생존권을 침해하며<4> 약탈하는 것이니 근대의 군국주의 제국주의적 跋扈는 식민지를 확장하여 타민족의 토착권을 침해하고 자기 민족의 번영을 시도하는 것과 如한 것은 가장 그의 적절한 예를 들어보아 알 것이며
3. 민족주의는 민족과 민족을 대립케 하여 互相 배타적 관념을 強케 하는 것인고로 그에 인하여 악육강식의 악성을 조장하여 영구히 전쟁을 유인할 원인을 적게 하는 것.

이상은 역사상으로 흘러온 민족주의가 인류의 폐해를 준 점뿐 一言하여 두는 것이니 금일 이후에 민족주의는 그러한 역사상으로 남겨둔 민족주의로는 결코 금일에 유행하는 인류주의 사상과 부합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욱 弊毒이 생길 뿐이니 그럼으로 금일 이후의 민족주의자는 이점에 중대한 안목을 着하여 민족주의적 관념을 合時代的으로 개조치 아니하면 결코 불가할 것이라 하노라.

가령 일례로써 우리 조선민족과 가튼 현대문명에 낙후한 者로써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深深히 고찰하여 본다 하면 그 결과는 이러할지니 우리가 우리 민족뿐 시인하고 他의 민족을 배척 又 약탈코저 하는 관념을 길든다 하면 이것은 우리와 가튼 약한 민족에만 불이익일 뿐 아니라 어떠한 강한 민족에든지 그 민족에 불이익이 될 것은 明若觀火한 사실이니 만일 茲에 甲민족이 잇서 자기에 強力만 밋고 他의 乙민족을 압박한다 하면 乙민족은 다시 甲민족을 압박할 적개심을 起케 할 뿐 아니라 관계가 無한 丙민족, 丁민족까지도 또한 一轍로 甲민족의 비행을 저항코저 하여 甲민족은 僻境 孤立無援의 地에 陷하고 말 것이라. 그럼으로 금일 이후에 민족주의는 스스로 인류주의의 見地下에 그 기초를 세워 두지 아니하면 결코 시대에 적합한 사상이라<5> 말하지 못할 지니라.

人類主義

민족주의가 이기적 사상으로 結晶됨과 가튼 인류주의는 이타적 사상의 結晶으로 볼 수 있나

니 즉 개인의 생활상 이해타산을 전인류로부터 料理하여 인류 전체의 행복의 중에 자기의 행복을 시인하자 함이라. 그럼으로 인류주의의 下에는 민족과 민족의 차별을 구별함이 불가하며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差定할 필요가 업게 된 것이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미 인류이면 공동한 권리와 행복을 受할 天賦의 조건이 잇다 함이다.

인류주의의 사상은 본래-新成한 것이 아니오 어느덧 이삼천년의 옛날부터 哲人·聖者의 주창에 의하여 사해동포의 관념으로 그 사상에 흘러온 것이니 논할 것 가트면 석가의 사상, 기독교의 주의와 如함이 다 그러한 것이라. 그러나 인류주의는 다만 종교의 성질상으로 보면 별로 문제가 업스며 또는 이상적 방면에 잇서는 可히써 圓滿無缺한 것이라 볼 수 잇스나 실행의 점에 잇서와 또는 경우의 차별점에 잇서는 그 효과를 輕輕肯定키 難한 것이니 例하면 第一, 인류주의는 민족과 민족에 차별관념을 소멸케 하는 것인고로 이췌것 小弱의 민족으로 잇든 그이에게는 민족적으로 享受할 福利를 소멸케하는 동시에 개인의 정도로서는 심한 沒我主義에 投入하여 全然한 優勝劣敗의 敗滅을 招할 우려가 업지 아니할가 함이라. 민족이 민족적 단결 하에 집중한 力이 잇고보<6> 事-가능하나 그러나 이미 低等의 민족으로서 進하여 자기들의 권력을 옹호하는 민족적 위력이 소멸되고 보면 개인의 福利는 더구나 보잘것업시 약소하게 될 것이라. 그럼으로 미약한 민족에 잇서는 進하여 他를 배척코저 하는 비인도적 민족주의를 고집함도 자기의 불이익이 될 것이며 又 退하여 沒我的 인류주의에 消化되는 것도 또한 불이익이 될 것이라.

第二, 인류주의는 形勢上으로 자연히 他의 제민족과 연합하여 공동히 실행치 아니하면 안될 것인 고로 勢不得已 인류자연 진보의 大運을 기대리지 아니치 못할 것이라. 금일의 형편에 잇서는 아췌것 민족이라 하는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타민족과 자민족을 공동 조건하에서 모든 것을 취급하지 못할 것이니 언어 문자가 공통히 되지 안흔 이상 풍속과 습관이 통일되지 안흔 이상은 세계 전민족이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내 해가 내 해요, 내 해가 네 해라는 沒差別한 경계에 들어가지지 못할 지라. 요컨대 금일의 인류주의는 이상으로는 찬성하나 실행으로는 前途多少한 세월을 待치 아니치 못할지요. 그리하여 인류주의가 斷然히 今日明日로 철저히 실행되기 이전-자진하여 어떠한 민족이 자기의 민족적 사상을 소멸케 하고 極端한 沒我思想에 投化한다 하면 그는 海中의 진주를 採하기 위하여 爲先 자신을 水中에 投死케 하는 愚를 취하게 될 것이라.

이러케 생각하고 보면 吾人은 因襲의한 민족주의를 절대 배척하는 동시에 또한 극단의 沒我的한 인류주의도 배척치 아니치 못할지라. 환언하면 우리는 由來의 민족주의를 合時代의으로 개조하여 그 주의를 善히 인류주의와 迎合할 포용성을 기르게 하고 又 인류주의는 당분간 세계 각 민족을 단위로 하고 민족과 민족간의<7> 권리 행복을 평균케 함이 인류주의 발전상 당연한 順字가 되리라 함이라.

汎人間的 民族主義

개인의 사상으로써는 어떠한 주의를 취하든지 또는 종교적 도덕적 방면에 잇서는 어떠한 貞操를 지키든지 그는 다-별문제로 돌려 노코 우리는 민족으로써 즉 민족적 사상으로써는 범인간적 민족주의를 가져야 하겠다함을 단언하여 두노니 범인간적 민족주의라 함은 역사상 완고한 민족주의를 배척하고 전세계의 민족을 동일한 인류라 하는 평등적 조건 하에서 각 민족이 각기 자연한 상태 하에 공동평등의 행복을 受하자 함이라.

第一,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세계를 국가단위로부터 민족단위에 進케 하자 주장함이라. 국가와 국가가 대립하여 세계의 事를 토의하든 그것을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여 共同한 해결을 짓자함

이라. 그 緣故는 세계가 사실상 민족상도 결합된 세계인즉 민족 그 者가 自進해야 세계의 事를 토의함이 지극 당연한 일이라. 소수의 국가와 국가가 小弱民族의 이익을 멸시하고 專히 자기네의 獨利的 이해타산으로부터 세계를 料理하는 것이 실로 민족의 권리를 유린함이 심한 것이라云치 아니치 못할 것이라.

작년 이래-布哇에서 개최된 萬國記者大會와 혹은 國際辯護士會와 太平洋商業大會에 조선인으로 그에 參加케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실현으로 볼 수 있나니 그러한 것을 다만 사회사업상 의미로 뿐 범인간 민족주의를 취할 것이 아니오 나아가 정치상 국제회합에까지 그를 연장케 할 도리가<8> 존재한 것이라. 각 민족이 회합하여 세계 전인류의 利害禍福을 토의 해결하는 것이 이 실로 神的意思에 적합한 운동이며 진정한 세계행복을 圖하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임으로써이라.

第二.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각 민족이 互相 도덕적 원조하에서 각자 성장을 遂하자 함이니譬컨대 樹木의 枝葉이 天枝萬葉으로 分派되었다 할지라도 그 天枝萬葉이 각자의 성장력에 의하여 장성하는 것이오. 결코 甲의 枝葉이 乙의 지엽을 害하여 長하는 것은 아니며 一身에 百體가 비록 大小長短은 다르다 할지라도 大한 者가 小한 者를 침해하여 長하는 것은 아니니 세계의 각 민족은 비록 대소강약의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소강약이 각 자기의 역량하에서 평등의 생활을 營하자 하는 主義이라. 甲민족은 자기의 생활을 강대키 위하여 결코 乙민족의 福利를 侵하지 말 뿐 아니라 돌리어 優한 甲의 민족이 약한 乙의 민족을 원조하여자기와 동일한 程度를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 대개 인류의 욕망은 무한하고 물질의 소유는 유한하거늘 무한한 욕망으로써 유한한 물질을 취코저 하면 勢不得已 타의 이익을 침해케 될 것이라. 그러므로 玆에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민족으로써 타민족의 소유권 침해를 防遏할 뿐만 아니라 進하여야는 인류의 무한한 욕망을 유한적 물질적 경쟁에 희생치 말고 無限的한 창조적 생산에 用心하게 되면 인류는 스스로 각자의 행복하에 인도적 생활을 경영하게 될지니이것이 범인간 민족주의의 요점이라. 즉 一民族이 타민족의 소유를 침해치 勿하고 그 力을 무한한 창조 충동의 방면으로 이용하여 자기 天然의 力으로써 자기 생활의 力을 조장케 하자함이라.譬컨대 자기의 창조력을 이용하는 것은 태양의 광선을 이용함과 如하여 甲이 광선을 多受할지라도 乙이 害毒을 受할 우려가 업을 것이오. 又是 공기의 호흡과 如하여 丙이 공기를 多吸한다하여 乙의 吸力量을 방해케<9> 할 理-만무할 것이니 범인간적 민족 主義의 생활력도 이와 가타야 각 민족이 무한한 창조 충동의 力에 그의 生力을 開拓하고 보면 강자가 결코 약자의 福利를 奪치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자기 생활력의 증가를 연장케 할지라.

第三.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현대의 가장 最善한 문화를 표준점으로 하고 세계 각 민족의 程度를 그 표준점의 수평선상으로 引上케 하자 함이라. 그리하여 그를 인상케 하는 방법은 우등한 민족이 결코 약소의 민족을 강제적으로 함이 아니오. 어대까지든지 인도적 정의적 원조하에서 그 권리와 행복을 擁護케 하여 인류의 최후의 이상향을 지상에 건설하기로 노력할지라.

이상은 대개 범인간적 민족주의의 개념을 一言함에 지내지 아니하나 만일 우리 조선민족의 사상으로 此主義를 把持하고 나아간다 하면 우리는 세계 각 민족의 一分子로 他的 諸諸의 민족과 선의와 도덕으로 악수하여 민족공동의 행복을 圖하기로 목적할 것이오. 일면으로는 민족적 단합력을 공고히 하여 타민족의 무리한 침해를 정의의 수단으로 防遏할 것이오. 又 일면으로는 민족적 창조 충동의 力에 의하여 자기의 程度를 자진하여 세계 최선의 문화에 적합케 하도록 노력할 것이오 말하서 그 기풍을 우리로부터 煽揚하여 他的 열등의 민족으로인류 공동의 문화에 참여케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10>

<2-11>

17.

잡지명: 개벽 제33호

발행년월일: 1923년 03월 01일

기사제목: 歐洲大戰 以後의 民族的 理想의 進化

필자:

기사형태: 논설

歐洲大戰 以後의 民族的 理想의 進化 (구주대전 이후의 민족적 이상의 진화)

歐洲大戰이 개시된 동기는 德 法 俄 삼국의 군국주의적 제국주의의 물질적 욕망의 충돌이었다. 거기는 아모 도덕적 동기도 업섯고 민중적 동기도 업섯다. 그러나 德國이 白耳義의 중립을 침해함을 구실로 英國이 참전하게 된 때에는 적더라도 언론상으로는 정의와 人道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도덕적 동기가 加하여졌다. 英國政府가 그 국민과 및 세계에 그 참전의 이유를 설명할 때에는 자기의 참전이 正義人道의 옹호상 부득이한 의무에서 나온 것임을 반복 설명하였고 또 국민군을 모집할 때에도 德國을 庸懲하는 것은 인류의 문명을 위하여 정의와 人道를 위하여 英國國民이 진 신성한 도덕적 의무라고 반복역설하였다. 그리고 그 국민은 적더라도 그 중에 병사로 응모되는 순결한 청년들은 정부의 이 참전이유를 그대로 미더 도덕적 양심의 발동으로 전장에 나아갔다. 그들은 진실로 英國의 왕실의 영토의 확장이라든지 배상금의 획득이라든지 훈장이라든지 이런 원시적 물욕으로 날어난 것은 아니오 분명히 엄숙한 도덕적 동기로 날어난 것이었었다.

그리다가 상선 격침에 대한 항의의 불응을 이유로 한 米國의 참전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도덕적 동기가 농후하였다. 당시 米國의 지도자이던 윌슨의 도덕적 동기와 성의는 아모리 그에게 대하여 악의를 가진 자라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그의 관찰이 不明하고 계획이 유치한嫌疑이 잇섯다 하더라도 그가 大戰 당시의 전세계의 도덕적 양심을 대표한 위인이던 것은 사실이다. 인류 중에 군국주의에 沉醉하여 양심이 <16> 마비하지 안이한 대다수 민중은 모다 진심으로 그를 신뢰하고 그의主義의 실현을 빌었다. 그가 무배상 무합병 민족자결 국제연맹이라는 前古未聞한 3대원리를 提하고 벨사이유의 평화회의에 임할 때에는 진실로 세계의 救主의 感이 잇섯다. 全米國의 순결한 청년들이 그의 도덕적 동기에 공명하여 자원하여 歐洲의 전장에 출전하였고 본국에 남아 잇는 米國民들도 거의 史上에 전례가 업는 일치한 열성으로 그를 후원하였다.

이리하여 米國 참전 후의 歐洲大戰은 그 開戰의 최초동기는 全然히 니저 버리고 마치 인류의 도덕적 양심과 악마와의 전투와 가튼 感이 잇섯다. 그래서 당시 악마를 대표하던 德國도 그 국민을 격려하기에는 그 도덕적 동기에 訴하지 아니치 못하였다. 철학자 오이켄은 「德國의 敗北은 德國文化의 絶滅을 의미한다. 德國의 문화의 絶滅은 전인류의 최고문화의 絶滅을 의미한다. 그럼으로 德國國民이 德國을 위하여 싸호는 것은 곧 인류만년의 행복과 영광을 위하여는 도덕적 의무라」는 의미를 역설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歐洲大戰에 참가한 각국민은 물질적 동기를 위하여 싸움이 아니오 모다 엄숙한 도덕적 동기를 위하여 싸호는 觀을 朞하였다. 각국의 주권자나 통치자계급의 심리는 오직 도덕적 동기를 일종의 이용책으로 췌스려니와 적더라도 당시의 중심인물이던 윌슨씨와 순

결한 각국민중의 衷情은 이러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월손이 중심이 된 평화회의가 열니매 여기 모힌 각국의 治者階級은 임시로 찢던 羊皮를 벗고 본색인 狼心을 發露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월손이 제창하던 3원리 중에 무배상무 합병은 아조 과멸하여 버리고 민족자결과 국제연맹은 체면상 껌데기만이라도 생겼다. 이리하여 大戰이 끝나매 민중의 양심의 소리는 세력을 일코 각국의 治者階級은 다시 네로부터 굴러 내려 오던 궤도를 안심코 굴러 내려 가게 된 듯 하였다. 그리고 그네들에게 농락된 월손은 병으로 눕고 각국의 민중은 心症을 내었다.

그러나 하번 깬 인류의 양심은 다시 잠들일 길은 업섯다. 소위 국가주의 군국주의란 것이 <17> 민중 자기네 것이 아니오 자기네를 壓하고 搾하는 소수계급의 自衛物인 줄을 자각하였고 국가와 正義人道를 위한다는 전쟁이 기실 그네 소수계급의 유희요 민중 자신은 그 소수계급의 淸覺에 供하는 鬪牛에 불과한 것을 자각하였다. 이리하여 혁명의 기운은 각국의 각성한 민중의 심중에 瀰滿하였다.

시간의 전후는 잠간 무시하더라도 俄國의 勞農革命, 德 奧의 혁명 등은 이 혁명의 기운의 발단이다. 그네의 절규하는 표어는 군국주의와 자본주의의 倒壞다. 인류가 자본주의의 해독—해독이라기보다도 다수 민중이 소수 자본가계급의 유린하는 노예인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것을 倒壞하자는 결심과 盟誓를 한 것은 歐洲大戰의 결과 중에 하나이다. 그네는 인류의 모든 불행이 군국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오는 것임과 인류의 행복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신사회를 건설함에 잇습을 자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歐洲大戰의 중심되는 결과는 아니다. 중심되는 결과는 인류의 도덕적 양심의 각성이다. 오랜동안 마키아벨리즘의 인위적 주사에 마비되었던 천연의 양심의 각성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애를 근본원리로 하는 신세계를 건설하자는 종교적 열망이다.

毋論 이러한 인도주의적 이상주의는 사상상 문예상으로 네로부터 잇섯다. 孔子의 教는 결국은 이것이라. 불교, 耶穌教 등 모든 고등종교의 가르침도 이것이었고 기타 인류의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빛—모든 위인의 사상도 결국은 相愛의 원리를 기초로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자는 인도주의적 이상주의였섯다. 그러고 근대에 니르러서는 유고 톨스토이 러스킨 더욱 최근에 니르러서는 西에 로멘 놀랜 東에 타골 가튼 시인 사상가들이다. 이 主義를 제창하였고 또 지구상의 수억의 순결한 靈이 그들의 제창에 공명하였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부작용이라 할 만한 무서운 현실주의와 생존경쟁주의는 이 이상을 閒人의 讕語로 笑殺하여 버렸다. 더욱이 治者階級, 자본가계급, 학자계급 등 현실주의, 생존경쟁주의의 승려는 귀족인 자들은 이 이상을 일종의 위험사상, 타락된 사상으로까지 보았다. 그래서 그네의 <18> 지도를 밟고 그네를 敬仰한 민중은 과연 그러한가 하고 맘에는 공명되는 것도 짐짓 笑殺하여 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大戰은 저 현실주의, 생존경쟁주의의 승려들의 설교가 허위인 것을 분명히 폭로하였다. 그래서 그 승려들로 하여곰 언론상만으로도 人道와 정의를 표어로 하는 이상주의에 개종치 아니치 못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大戰이 끝나자 「사랑하자 모든 국가적 민족적 편견을 버리고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자는 主義미테서 만민은 하나이 되자」하는 톨스토이와 로멘 놀랜과 타골의 부르지짐이 새로운 감격과 위력을 가지고 歐羅巴人과 印度人의 靈을 響動하였다. 「우리의 이상대로 세계를 개조하자 완전히 하자」하는 獨逸의 표현주의는 다만 예술상의 한 主義만으로 볼 것은 아니다. 大戰의 교훈을 가장 절실히 바다 구세계의 해악을 가장 절실히 자각하는 獨逸人을 통하여 發하는 인류의 소리다. 天의 소리다. 이러한 운동은 장차 예술에서 올마 도덕에 갈 것

이다. 도덕에서 올라 정치적 혁명으로 갈 것이다.

이의 혁명으로 왔다. 그것은 칸디의 印度革命이다. 「진리의誓」와 「不殺의誓」를 도덕의 원리로 무저항을 방법으로 印度를 휩쓰는 칸디의 혁명은 결코 다만 印度一個만의 민족적 운동으로 보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印度人을 통하여 發한 인류의 소리다. 天의 소리다.

이 모양으로 歐洲大戰을 一紀元으로 구세계의 현실주의는 몰락하고 신생세계의 진리와 愛의 이상주의가 頭를 擡하였다. 이의 이것은 이론이 아니오 確정한 信條다.

「사람들아 相爭의 원리, 권리주장의 원리상에 세웠던 구세계를 흔히 버리자. 이것이 지금 알고 보니 인류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었었다. 역사상의 모든 개인 대 개인 민족 대 민족간의 갈등의 원인이었었다. 모든 과학 그 중에 생존경쟁주의의 경전이던 法理學, 경제학, 사회학, 사학 등이 이 모든 갈등을 변호하고 시인함으로 우리는 어리석게 속아왔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깨었다. 우리는 그 眞因을 알았다.

「사람들아 그런즉 구세계를 깨트리고 진리와<19> 愛의 신세계를 세우자」하는 인도주의적 이상주의는 순결한 人子들의 信條가 되고 말았다.

부국강병을 민족적 이상으로 하던 시대는 이의 니저 버렸거니와 소위 商義主義的 文化主義를 민족적 이상으로 하던 시대도 벌써 지내 갔다. 금일의 민족적 이상은 세계의 천국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국의 천국화일 뿐이다. 즉 세계를 진리와 愛의 세계로 개조하는 第一步로 우리 민족이 사는 땅에 진리와 愛의 나라를 먼저 실현하자. 이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제하는 길이오 아울러 우리가 人道에 대하여 가진 신성한 의무다. 이 의무를 다할 도덕적 「힘」의 有無와 大小가 민족적 가치판단의 유일한 표준이다—이러한 것이 歐洲大戰의 영향으로 진화된 민족적 이상이다.

현재에 가장 이러한 민족적 이상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분투하는 민족은 勞農俄羅斯와 德意志와 印度다. 그리하고 가장 頑冥하게 구세계의 꿈을 꾸는 자는 歐羅巴에 잇서서는 法國과 英國일 것이다. 그 중에 法國은 아마 頑冥한 자의 대표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전승국인 것이다. 전승국이기 때문에 구시대의 治者階級이 아직 法國民衆을 지도하고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민중의 靈에는 벌써 新理想이 발효할 것이다. 아마 세계 모든 민중의 靈에 모도 이 이상이 발효할 것이다. 원컨댄 不畚晝夜하고 발효하여라. 원컨댄 세계의 한모퉁이 한모퉁이에서 천국이 실현되어라! <20>

<16-20>

18.

잡지명: 개벽 제34호

발행년월일: 1923년 04월 01일

기사제목: 곧 해야할 民族的 中心勢力의 作成

필자:

기사형태: 논설

곧 해야할 民族的 中心勢力의 作成 (곧 해야할 민족적 중심세력의 작성)

조선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중심세력이 없다. 중심세력이 업는 민중은 민족도 아니다. 더구나 한 국민은 아니다. 한국 시대에는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양반계급이 중심세력이었으나 합병 후에는 조선의 민족적 중심세력은 업서지고 말았다. 중심세력이 업슴으로 조선인은 조선이란 한 지역에 모여 사는 數多한 개인의 떼다. 그네는 조직된 단체는 아니다. 比컨대 신경중추 업는 四肢百體다. 팔은 팔대로 발은 발대로 놀 뿐이오 거기는 아모 통일이 업는 것과 가티 朝鮮 민족에게는 아직 민족적 의식이 업고 말하서 민족적 이상 민족적 의지 민족적 의견이란 것이 업다.

민족적 의식이란 우리 2천만인은 가튼 이상을 향하여 조직된 단일체라 하는 신념이다. 엇던 조선인이 다른 조선인을 대할 때에 피차에 생소한 사람이라도 서로 談話도 안이 하였고 통성명도 안이 하엿더라도 서로 공통한 이상의 一點을 가졌스리라고 미들 수 잇는 것이 민족적 의식이다. 그리하고 민족적 이상이라던지 민족적 의지 의견이라던지는 그 중심세력되는 단체의 이상이요 의지요 의견을 가르친 것이다. 중심세력이란 天의 북극과 갓고 태양계의 태양과 가튼 것이니 衆星이 북극을 표준으로 회전하는 모양으로 태양계의 諸遊星이 태양을 표준으로 도는 모양으로 통일된 민족의 각 개인은 그 중심세력을 표준으로 意志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이러함으로 비로소 민족적 생활과 민족적 사업이 성취되는 것이다.<4>

민족적 중심세력이란 반듯이 그 통치주권자나 또는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안이다. 古代에는 과연 군왕이나 治者階級이 민족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지금도 그 정부가 民意를 대표하는 동안 중심세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론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민족적 중심세력을 作하는 것이 안이오 민족적 중심세력이 정부를 産하는 것이다. 민족적 중심세력이 정부의 母다. 그러나 민족적 중심세력이란 반듯이 政府的에 한한 것은 안이다. 역사적으로 보건대 종교로도 중심세력이 될 수 잇고 또 現今의 아라사 가튼 데서는 사회적 理想으로 뭉친 단체가 민족적 중심세력이 되었다. 엇더턴지 그 민족에게 가장 합당한 다시 말하면 가장 그 민족의 마음에 드는 理想을 理想으로 하고 그 理想을 달하기 위하여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굳게 단결된 단체가 그 민족의 중심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중심세력은 곳 곳고 큰 단체다. 단체를 이룸이 업시 결코 중심세력이 되는 법은 업다. 중심세력이 업시 결코 一民族이 통일되어 민족적 생활과 사업을 성취하는 법은 업다. 혹 개인인 영웅이나 성인이 一民族의 중심세력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가 잇거니와 이것은 무식이다. 역사상에 동지를 糾合함이 업시 다수의 동지를 糾合하여 훈련하여 힘잇는 대단결이 됴이 업시 중심세력을 作한 영웅은 업다. 자기가 몸소 단결을 짓지 안이하엿스면 임의 일위진 단결을 이용이라도 하엿다. 그 가장 현저한 실례는 근대 각국의 정치적 단체다.

그런데 조선에는 嚴正한 의미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중심세력이 될 단체가 업다. 이것이 조선 민족의 특이한 처지 중에 중요한 特異의 하나이다. 比律賓에도 중심세력이 있다. 比律賓 독립운동은 이 중심세력의 운동이다. 인도에도 중심세력이 있다. 간디 일파의 운동은 이 중심세력의 운동이다. 이것을 간디 一個人의 운동으로<5> 알아서는 잘못이다. 간디 一個人의 운동이 안이라 간디가 대표하는 一大團體의 운동이다. 愛蘭에는 신펜黨이 있다. 데 발레라는 신펜黨의 수령이다. 아라사에는 볼세비키黨이 있다. 레닌은 볼세비키黨의 대표자다. 猶太민족에는 유태교를 기초로 한 시온黨이 있다. 그럼으로 인도의 국민의 의사를 알라거든 간디에게 무르면 된다. 간디는 인도국민의 중심세력인 국민의회의 수령인 까닭이다. 愛蘭민족의 理想을 들으랴거든 데 발레라에게 가거라. 그의 말은 곳 愛蘭 민족의 말이다. 그러나 조선민족의 의사를 누구에게 무르면. 李完用에게 무르랴 金明潛에게 무르랴. 또는 獨立主義란 東亞日報社長이나

東明主幹에게 무르랴 또는 社會主義라는 新生活雜誌社長에게 무르랴. 무르면 각각 대답은 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대답이다. 그네의 대답을 아모도 조선민족을 대표한 대답이라고 허락하지 안이할 것이다.

만일 李完用이나 金明潛이 조선민족의 중심세력이 될 만한 대단체를 대표하는 자라 하면 그의 의사를 조선민족의 의사라 할 수 잇을 것이다. 그러나 그네는 개인이다. 개인은 오직 개인의 자격으로는 결코 민족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이다. 독립주의자나 자치주의자나 사회주의자도 그와 가타서 그네의 의사가 조선민족의 의사가 되랴거든 爲先 그네의 主義로 조선민족의 중심세력이 될 만한 대단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엇던 신문이나 잡지도 그것이 중심세력되는 단체의 의사를 발표하는 것일 때에 비로소 그것이 여론을 대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더욱이 조선민족은 민족적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여야 할 시대에 있다. 그것이 동화주의든지 자치론이든지 독립주의든지 사회주의든지 물론하고 조선인은 이 중심에 어느 것 하나를 취하여 민족적 의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치 안이하면 조선은 영원히 아모 것도 안인 흐터진 개인의 무리이고 말 것이오 통일적인 민족적 생활과 <6> 사업은 성취할 수 업슬 것이다. 甲論乙駁에 밤낮 논쟁을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논쟁에 불과한다. 그것으로 민족적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업다. 아모리 저마다 이천만 조선민족을 대표하노라 하더라도 결코 대표가 되지 안이한다. 모스크바에 조선민족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同時에 13인이 모혔더란다. 모스크바 정부에서는 그 중에 어느 것을 진정한 조선민족으로 알아야 할지를 몰랐다. 13인은 다 엇던 단체 명의를 信任狀을 가졌다. 그러나 그 단체는 대개 命薄도 업고 회비수입도 업는 단체엿섯다. 13인은 서로 자기가 正式되기를 다토티스나 결국은 하나도 正式이 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네는 다- 조선민족의 중심세력되는 단체의 대표자가 안인 까닭이다. 아모리 신통한 경륜과 術法을 가진 이라도 중심세력되는 단체의 일함으로 함이 안이고는 一民族을 대표할 수는 업는 것이다.

그럼으로 네가 동화주의자나 네 목적을 달하랴거든 단체를 만들어라. 자치주의자나 독립주의자나 진실로 네 主義를 실현하랴거든 민족의 중심세력이 될 단체를 만들어라. 그리하지 안이하하고 하는 모든 일은 허사다.

그런데 이러케 중심세력될 단체가 필요한 조선에 단체가 업다. 단체가 업시도 무슨 일이 될 것 가티 떠들고덜 다닌다. 우리 보기에 조선인은 아직 단체의 필요를 깨닫지 못한 것 갓다. 그러치 안이하면 조선민족의 각 방면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이가 단체 만들기를 힘쓰지 안이하리가 업다.

혹은 말하리라. 조선의 지도자들이 벌써부터 단체를 만들고 잇지 안이하냐고. 지나간 것은 말 말고라도 현재로부터라도 民友會 朝鮮青年會聯合會 또다른 방면으로는 維民會 小作人相助會 또 다른 방면으로는 大東同志會 國民協會 등의 단체가 잇지 안이하냐고. 올타. 과연 그러한 단체가 있다. 또 그 단체들이 각각 조선민족의 <7> 근본세력이 되랴는 自負로 적더라도 희망으로 생겼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단체들이 왜 힘이 업느냐 왜 떨치지를 못하느냐. 혹은 또 말하리라. 첫째 조선인은 단결력이 업고 둘째 독립주의나 사회주의의 단체는 정부의 압박으로 동화주의나 자치주의의 단체는 인민의 不響應으로 떨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 대답에도 과연 일리가 있다. 조선인은 과연 아직 단체생활의 要義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오 독립주의나 동화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각각 그 主義의 실현에 큰 장애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諸君은 넘우 團體不發展의 책임을 정부와 인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안이나. 넘우 諸君 자신의 內省自責을 피하는 것이 안이나. 새로 실현할 主義가 있다 하면 그것은 성질상 현재의 사회상태에는 모순될 것이다. 만일 현재의 사회상태에 모순되지 안는 主義라 하

면 그것은 새삼스럽게 실현할 필요도 업슬 것이다. 정부에서도 찬성, 인민들도 일치 찬성할 그런 主義가 있다 하면 구태 諸君의 노심초사와 磨頂放踵을 요구할 필요가 업슬 것이다. 장애가 만흔지라 실현하기에 큰 힘을 요하고 큰 힘을 요하는지라 大 團體를 요하는 것이니 만일이 만한 곤란을 이기지 못하여 대단체를 成하지 못한다 하면 이는 諸君이 그 主義를 실현하는데 무 능력자인 것을 자백함일 것이다. 그럴진댄 맛당히 입을 닛고 붓대를 집어너코 물너가 공부나 더 하는 것이 맛당할 것이다.

지금 조선에 잇는 모든 단체가 왜 모다 龍頭蛇尾가 되느냐. 왜 發起하는 날이 전성시대가 되고 세월이 갈수록 니저버려지고 마느냐. 우리는 이러하게 한 책임을 조선인민의 죄만이라고 아니한다. 정부의 압박만이라고도 안이한다. 진실로 그 최대한 책임은 단체를 發起하는 지도자들에 잇다고 단정한다. 發起者들에게 조선인의 특이한 상태를 간파하는 明이 업고 이 특이한 상태에 응할 계획을 세울 지혜가 업시 다만 남들이 하는 양을 모방하기에 <8> 止하는 곳에 조선의 모든 단체가 떨치지 못하는 원인이 잇는 것이다.

단체생활에 대하여 조선인은 아직 深切한 자각과 경험이 업다. 그래서 엇던 단체의 일원이 되기를 許하는 이유와 일원이 된 뒤에 가질 의무와 권리를 고려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조흔 뜻 하면 名簿에 일함을 올린다. 올리고는 니저버리고 만다. 그는 그 단체의 규칙을 한번 通讀한 일도 업다. 하물며 그 主義와 계획을 비판해 본 일도 업다. 그는 집합에 두어 번 출석하였고 두어 달 회비를 내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는 아주 니저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 동포의 단체관념이다.

그런데 우리가 단체를 만드는 방법이 엇더하냐 하면 爲先 2, 3인 또는 4, 5인이 우연히 모힌다. 우연히 話頭가 엇더한 일로 향한다. 「조타」고 모다 일치한다. 엇던 점까지 일치하였는지 피차에 정확하게 그 정도를 알아보라고도 안이하고 아모조록 피차의 의견이 일치한 것처럼 생각하려 한다. 그리하고 그 일치하였다는 主旨는 다수에게는 불분명한 관념들이다. 그는 그 主義를 위하여 반듯이 일생을 헌신하리라는 素志를 가지고 온 것도 안이오 우연히 말을 들어본즉 그럴 뜻 하야 일시적 흥분으로 응낙해 버린다. 그러는 그 主義가 정확하게 일치되거나 말거나 아는 사람이면 도와 들어서 發起會를 연다. 거기서 규칙제정위원회 생기고 다시 會가 열려 從多數로 규칙이 통과되고 임원이 선거되고 이리하여 단체가 조직된다. 趣旨書가 돌고 신문기사가 나고 그리고는 벌써 전성시대를 지내어 쇠퇴기에 入한다. 이 이것이 우리 단체들의 모형적 역사가 안이나.

단체의 發起人이 명확한 자각과 정연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 분명히 확실히 일치되어 그 단체를 위하여서는 일심으로 헌신하기를 피차에 작성한 자가 안임으로 단체된 이튿날부터 의견이 不一하고 사흘날부터 하나씩 <9> 둘씩 떠러져 나가고 새로 勸入하는 회원도 그 자각과 實心이 단체의 主旨에 합하는가 아니하는가를 確的히 알아보지 안이하고 함부로 名簿만 채우기를 爲主함으로 그 회원이 입회를 한대야 단체에는 아모 効益이 업다. 못노니 지금 오는 단체가 집회에 출석하는 의무와 회비를 納하고 규칙에 복종하는 회원을 가진 자냐. 會에는 출석 안이 할수록 점잔코 회비는 바드라는 것부터 점잔치 못한 일이다. 會經費는 기부금으로 쓸 것이지 회비로 쓰자는 것부터 비우슬 일이다.— 이것이 우리 단체들의 현상이 안이나. 이러한 단체가 자라긴들 어이하며 자란대야 무슨 힘이 나겠느냐. 단체를 조직하는 本義가 무엇이나. 우리는 단체를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안이오 일을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다. 큰일을 하려면 큰힘이 필요한지라 그 큰힘을 엇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다.

단체가 왜 큰힘이 잇나? 會員名簿가 힘이냐. 會員名簿가 힘일진댄 戶口調査表가 가장 힘잇는 단체일 것이다. 趣旨書가 힘이며 規則書가 힘이나. 그럴진댄 우리는 空日날 심심한 때에 하로

의 4, 5장의 趣旨書와 規則書를 지을 것이다. 일간신문의 인사소식란에 모모회장 모모씨라고 오르는 것이 힘이나. 某某會의 명의로 연설회나 강연회를 여는 것이 힘이나. 慶節祝賀 때에 모모단체라고 불러다니는 것이 힘이나. 연설회나 강연회는 청년회관 빌리는 세 35원만 잇스면 될 것이오 慶節祝賀에는 기생조합도 참여할 수 잇는 것이다.

단체의 힘이란 그것이 안이다. 또 瞬昧한 추상적 主義니 綱領이니 하는 것도 안이다. 그러면 단체의 힘이란 무엇이나. 同主義를 위한 各員의 일심과 그 主義를 달하기 위하여 내는 회원의 金錢과 시간이다. 세월이 가도 불변, 핍박이 와도 불변, 곤란이 잇고 손해가 잇서도 불변, 감옥에를 가도 불변, 主義를 위하여 사형대에 올라도<10> 불변하고 나는 아모 단체의 主義를 실행하는 자로라 하는 회원의 일심과 그 단체의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일정한 회비를 꼭꼭 내고 만일 단체의 法定한 결의면 집과 가마솥이라도 팔아대고 단체가 부를 때에는 모든 私事를 버리고 그 부름에 응하는 것, 이것이 단체의 힘이다. 동일한 主義에 一心하는 회원인지라 그 會 名簿가 힘의 標가 되고 개인으로는 당할 수 업는 큰 재력을 받을 수 잇는지라 會員名簿가 힘의 상징이 되는 것이니 主義에 一心도 안이고 내자는 돈도 안이 내는 회원이 백만명 천만명인들 무슨 힘이 날 것이나. 이러한 회원은 마치 不換紙幣다. 이러한 회원을 가진 단체는 마치 不換紙幣만 금고에 가득이 너허 노코 안즌 부자다. 힘이 잇는 듯 하면서도 기실은 맨퐁문이다. 아아 맨퐁문이 단체가 얼마나 만흔가?

그러면 독자는 무르리라. 어느 단체는 그러케 힘잇는 단체가 되기를 원치 안이 하겠나냐고 다 원하건마는 우리 동포의 단체적 훈련이 부족한 것을 엿지 하느냐고. 이 역시 일리잇는 듯 하나 기실 책임을 자기 이외 조선인에게 전가하는 말이다. 아아 조선인은 할 수 업는 백성이로다. 단체라고 만들어야 一心은 안이하고 서로 시기하고 爭鬪만 하니 조선인은 할 수 업는 백성이로다 하고 가장 자기 할 일을 다한 듯이 高處에 서서 長嘆하는 사이비志士의 口吻이다. 만일 진실노 조선인이 이상적으로 견고한 단체를 지을 수 업다 하면 그야말로 조선인은 영영 민족적 생활을 할 수 업단 말과 가틀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고한 대단체를 만들 수가 있다! 그 방법은 이리하다.

첫째로 네가 명확한 신념을 가져라. 그리고 일생을 그 신념의 실현에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너 혼자 그날부터 실행하면서 그 신념을 달하기에 가장 완전하다고 밋는 계획을 세워라. 이리하여 신념과 계획과 실행의 가능성과,<11> 이 3요소가 확정되거든 꼭 이 3요소에 동의하는 동지를 하나 구하여라. 그 동지가 분명히 너와 동지인 것을 확인하거든 너희 兩人이 또 제3인을 구하여라. 이 모양으로 하기를 이제는 우리 단체의 기초(목적한 사업의 大小를 말하 기초의 大小가)가 확립하였다는 자신이 생길 때까지 하여라. 그런 후에 단체를 조직하고 넓히 회원을 모집하되 역시 하나씩 하나씩 꼭 그 뜻이 너희의 신념과 계획과 실행의 결심에 合致한 것을 확인한 뒤에 하여라. 이러하면 결코 의견의 충돌이 잇슬 리도 업고 一心 안이할 리도 업슬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계약(규칙은 계약이다)에 위반하는 자가 잇거든 결코 사정을 두지 말고 제명하여 버려라. 일개 회원을 失하는 것이 단체를 死하는 것보다 낫지 안이한나. 단체생활의 요건은 (1) 主義의 일치 (2) 一心 (3) 규칙의 엄수다. 이 3者 중에 1을 缺하여도 단체는 망한다. 그 중에도 규칙의 불엄수 즉 법의 違犯은 大로는 국가와 小로는 학생동창회에 이르히 단체의 死因이다. 이 3요건 외에 또 하나 無形한 듯 하면서도 그 결과는 무섭게 有形한 것은 회원 상호간의 信과 愛다. 동지 서로 미더 결코 의심함이 업고 서로 사랑하야 피차에 용서하는 것은 단체생활의 근본도덕이다.

이 모양으로 하면 發起한 지 1개월 내에 수백이나 수천의 회원을 得하는 그러한 성황은 업슬 것이다. 그러나 發起가 곧 전성시대가 되는 그러한 滑稽도 업슬 것이오 조금씩 조금씩 가속도

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회원이 늘고 회원이 늘수록 힘이 늘 것이다. 이러해야 진정한 의미의 단체가 되고 민족적 중심세력인 대단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대단체가 생기는 날이 조선인의 민족적 생활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것이 민족주의거나 사회주의거나<12> 또는 同化主義거나 自治主義거나 나는 그 실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이러한 대단체를 이루어 민족적 중심세력이 되는 자가 조선민족을 대표할 자다. 그때에야 조선민족의 민족적 이상과 계획과 의견을 조선인 자신도 알 수 있고 남에게 알릴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있다. 그러한 대단체는 機運만 오면 인물만 나면 一朝一夕에라도 되는 것이라고. 아아 이것이 지금까지 조선인이 속아 오든 말이다. 機運과 인물! 이것을 안저 기대리노라고 얼마나 귀한 세월을 허송하였는고! 百千의 機運이 온들 그것에 응해야 動할 힘이 업스면 무엇하며 幾個의 인물이 난들 그네에 응할 세력이 업스면 무엇하랴. 發動機의 준비가 정돈된 배는 밤물 낮물이 다— 出帆할 機運이나 風帆의 준비도 업는 배에게는 滿潮와 순풍도 아모 의미가 업는 것이다. 인물로 보와도 그러타. 배가 잇슨 뒤에 선장이지 배도 업는 선장은 무엇하나.

또 인물이란 별다를 것이 아니다. 그 단체 중에 신임을 받는 이가 인물이다. 그가 그 단체를 대표하는 자요 또 그 민족을 대표하는 자다. 그 민족의 중심세력적 실력을 가진 단체의 수령을 누가 감히 그 민족의 의사를 대표한 자이라고 안이하랴. 그럼으로 단언한다. 중심세력적 대단체를 이루는 것이 민족적 사업성취의 機運을 致하는 것이요 인물을 産하는 것이라고. 이 밋게는 機運을 致하고 인물을 産하는 방법이 결코 업다고.

아아 느꼈다. 이제사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심히 느꼈다. 느꼈기 때문에 곧 해야 한다. 다름 박질쳐야 한다.<13>

<4-13>

19.

잡지명: 개벽 제35호

발행년월일: 1923년 05월 01일

기사제목: 民族一致, 大同團結을 云爲하는 이에게

필자:

기사형태: 논설

民族一致, 大同團結을 云爲하는 이에게 (민족일치, 대동단결을 운위하는 이에게)

우리 朝鮮 兄弟들이 언제부터 내세워 오는 標語이거니와 大同 一致 團結의 吶號는 最近年에 들며 一層 喧傳되어 입만 열면 붓만 잡으면 누구나 한번式 論議하며 또는 主張하려든다.

무슨 까닭으로 우리는 반드시 一致하여야 하고 團結하여야 되는가. 其 理由는 자못 簡明하다. 즉 우리는 政治나 經濟 어느 것을 무를 것 업시 民族的으로 壓迫을 맞는 者이며 民族的으로 破滅을 當할 境遇이니 이 形便에서 救援되는 對策의 첫째는 우리가 全 民族的으로 一致 團結

하여야 되겠다 함이며 또는 우리 朝鮮사람이 넷째 한 넷적의 일은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近代의 몇 百年間의 歷史에 잇서서는 大同一致치 못하였슴(黨爭뿐을 일삼고)으로 衰頹하였스며 今日 당장의 形便(上海의 國民代表會議서도 싸우고 서울의 青年黨大會, 青年聯合會에서도 싸우고 그 外 某某의 團體 內에서도 싸고 個人間에서도 싸움과 가튼 것)으로 볼지라도 一致團結하지 못함으로 因하여 蹉跎되는 오늘인즉 우리는 蔽一言하고 2,000萬人이 한 사람 한 몸뚱이 가티 大同하며 一致하며 團結하여 모든 問題의 衝에 當하자 함이다.

果然하다. 우리가 일즉히 一致團結하지 못하였슴으로 衰敗한 것도 事實이오 우리가 이제라도 一致團結하여야 救援될 것도 事實일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가티 지나간 것도 事實이오 이제 올 것도 事實이거늘 우리는 엇지하여 오늘까지 事實로 一致團結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眞實로 考究하여 볼 問題는 여기에 잇는가 한다. 즉<13> 漠然히 一致團結할 必要를 高調할 뿐 아니라 一致 團結할 方式을 討究함이 第一일가 한다.

假令 여기에 남과 가티 누가 잇서 다못 가로되 우리가 우리의 것혜 잇는 敵을 防禦하기 爲하여 或은 우리도 남과 가티 살고 또 잘 살기 爲하여 一致 團結하자 하면 그 즉지에서 一致團結이 되겠느냐 못 되겠느냐. 말노써 「암 一致 團結하여야 되지」할 共鳴까지 할년지는 모르나 事實로는 안이 되는 것이다. 그와 가티 漠然한 標準 밋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적어도 그 敵을 防禦하는 대에는 엇더 엇더한 計劃으로써 하고 우리가 잘 사는 대에는 엇더한 方式으로써 한다는 標準이 잇지 아니하고는 안되는 것이다. 생각하라 우리가 엇던 會社의 株主의 一員이 되는 때에 그 會社의 定款 또는 損益의 料量書를 보고야 참가하지 안는가. 또는 그보다 더 尋常한 하루 저녁의 暫時 暫間 모혀 안는 音樂會 가튼 곳의 出席에도 묻저 그 프로그램의 如何를 보고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적은 일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2,000萬 사람의 一致를 云爲하는 것이며 一致하되 最後의 一刻까지를 期함에서 이리요. 아닌 게 아니라 近來의 우리 사람의 多數는 文化運動이란 거기에 다시 말하면 教育을 普及하고 産業을 振興하여 實力을 養成하자는 거기에 一致하였스며. 最近에는 이 實力運動의 一具體案인 物產獎勵의 運動에 一致하였다. 그래서 現 社會의 自稱 指導者級에 屬한 이는 勿論이오 民衆의 多數까지도 이러케 文化運動만 盛히 하면 實力은 곧 養成해지는 것이오 實力만 養成만 하면 問題는 스사로 解決되는 것이라 하였다. 달니 말하면 오늘 우리 朝鮮사람의 當한 形便을 무슨 病에 걸니인 患者라 하면 그 患者에게는 그 病室의 들창이나 조금 방싯하게 여러노코 미음이라도 한술式 맥일 道理만 하면 그는 곧 完人이 되리라 밋음과 가타섯넌 ◆. 그런데 事實은 그와도 틀녀서 그 患者는 바야흐로 氣息이 奄奄하여 如干 들창을 열고 미음을 勸하는 그것으로는 벌서 때가<14> 느졌고 적어도 食鹽(원문과 동자입니다.)注射와 가튼 非常手段을 講究치 아르면 안되게 되었스며 그 中에도 切迫한 事情은 그 患者의 形便이 비록 百步千步를 讓하여 한술 두술의 미음을 要求한다 할지라도 그 한 두술의 미음을 求할 수가 업게 되었스며 그것을 求하는 동안에 患者는 病에 죽지 아르면 爲先 굴머서 죽게 된 그것이다. 一部の 兄弟는 드대여 이것을 알었다. 이 悽慘 切迫한 形便을 알었다. 방싯이 들창을 열고 한 두 술의 미음을 勸함과 가튼 姑息的 看護가 그 患者를 事實으로써 救援함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반다시 中門을 洞開하고 應急注射를 行할 수밧게 업는 것을 알었다. 여기에 多少의 危險이 따르지 안는 바가 아니나 事實 이밧게는 달니 할 道理가 업는 것을 알었다.

眞實로 말이다. 우리 朝鮮의 사람은 다시 한번 새로운 局面을 展開하지 아르면 안되고 새로운 方式을 取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 안다. 只今에 우리가 高調하는 文化運動으로 論議하면 文化運動 그 自體가 틀녇다 하거나 或은 그러한 文化運動으로 救濟된 實例가 업섯다 함도 아니

다. 오늘의 우리 形便에 잇서는 그와 가튼 運動은 너무나 原則이오 너무나 平凡하다. 밥을 먹으며 사는 것이 原則은 原則이나 당장 重病에 걸니여 죽으려하는 사람까지 만다시 밥을 먹어야 사는 것은 아니다. 假令 우리의 只今 當한 形便이 金玉均氏 一派의 奔走하던 甲申年間만 갖고 日本이 維新하던 明治 初年頃만 갖다 하면 今日의 文化運動으로써도 救濟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의 形便이 그때가 아닌 것은 누구라도 認하는 바가 아닌가. 이제 우리가 文化運動의 必要를 認한다 하면 그 程度는 다못 原則이다 하는 거지에서 즉 어느 때에라도 그것은 할 것이다 하는 거기에 限할 것이오 만일 여지에서 한 거름을 그릇하야 文化運動 이것으로써 우리가 完全히 救濟될 것으로 맞는다 하면 이는 큰 잘못이다.

文化運動은 달니 말하면 곳 實力養成의 運動이라 政治의 배경을 떠나서 實力을 養成할 수는 잇스며 假令 百步<15> 千步를 讓하야 우리가 僅僅히 하나이나 或은 둘만한 實力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바루 것해서 열이나 스물의 實力을 얻는 者가 따로 잇다 하면 그것이 무슨 實力이 될 바가 잇슬가. 토끼의 힘이 아닌 바는 아니나 수리개의 엽해서는 아모려한 힘도 되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바이라 而況 今日의 우리가 論議할 問題는 엇더한 問題보다 먹고 살을 問題 즉 經濟問題인데 오늘의 經濟組織을 背景으로 한 資本家の 黑手 밧해서 經濟的 實力을 養得하자 함은 이것이야말노 椽木求魚의 非理에서도甚한 것이라 到底히 想像할 수 업는 虛夢이다.

그러면 엇더케 할가. 우리가 今日의 生乎 死乎의 切迫한 境遇로부터 救援되는 唯一의 方策이 엇더하며 여지에서 救援되야 새로히 到達할 그 標準點이 또한 엇더한 것 엇더한 것일가. 우리가 바라볼 唯一한 標準點을 認하고 거기에 到達할 唯一한 方途를 發見하야 꼭 同一한 信念과 꼭 同一한 組織과 꼭 同一한 覺悟의 밧해서 絶對의 約束을 가지고 새로히 來會하는 主義的 團結! 우리는 써하되 이것뿐이 朝鮮의 民衆을 政治的 또는 經濟的의 衰敗에서 救出하는 唯一한 力이라 하며 現下에 나타나 잇는 教育運動도 産業運動도 다- 가티 이러한 情神 밧해서 活動을 是行하는 때에서 뿐 意義가 잇스리라 한다.

그 唯一한 標準點이 무엇이겠느냐. 또는 거기에 到達할 唯一한 方途가 무엇이겠느냐. 이것은 엇던 한 사람이 演說하도록 하야 發見할 바도 아니며 이러케 붓곳으로 理論하야 作定할 바도 아니다. 제 各其 單 하루동안이나마 寢食을 除하고 苦心焦思하야써 어렵게 깨다라 가지고 分明히 엇어진 그것으로써 먼저 自己 自身이 거기에 終始할 것을 覺悟하고 다음 自己가 가장 밧는 한箇의 親友에게 그 意思를 表示하야 靈犀의 一點이 서로 通함이 잇거든<16> 이에 비로소 그 標準 밧해서 그 方途를 갖치 차차 나가기로 하되 이러케 이러케 하야 十人에 及하고 百人에 及할 策을 取하는 外에는 他途가 업슬 것이라. 그런데 그 標準點을 取하는 대에서 한가지 생각할 것은 標準 그것이 적어도 萬人의 共鳴하기에 足한 今不聞 古不聞 今不比 古不比 즉 開天闢地의 大理想이 아니면 안될 그것이라.

무슨 이러한 것이 업고 漠然하게 文化運動을 말하며 民族一致를 말하며 大同團結을 말한다하면 이는 흘너가는 물에 글씨를 씌고 가튼 지라 그 당장에 무엇이 그럴듯하게 보이지 아눔도 아니나 周圍로 모라드는 다른 勢力은 곳 그것을 흐리여 업셀 것 뿐이라, 何等의 勢力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眞實로 엇더한 標準을 認하고 엇더한 覺悟를 가티한 主義的 團結만 잇다하면 이것은 그 사람 數가 비록 千을 넘지 못하고 또는 百을 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其 勢力의 所及은 只今 거히 朝鮮 全體의 사람이 떠드는(漠然하게) 文化運動 그것에서 甚함이 잇슬 것이다. 이와 가튼 主義的 團結이 爲先 萬名만 넘으면 朝鮮에는 벌써 中心勢力이 생긴 것으로 밧어도 道할 것이다. 朝鮮에 唯一한 中心勢力이 생기는 때 그 때가 朝鮮사람이 무엇이나 힘있게 組織있게 일할 수 잇는 날이라 한다. 假令 文化運動이라 할지라도 그 때에만 徹底

할지오 文化運動 以上の 困難을 要하는 運動이 잇다하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업는 바이다. 우리는 伊太利의 팻시즈黨이 또는 印度의 수라지運動이 그 엇더한 것인지를 모르나 想必 이러한 根據로 現出되는 것인가 한다.

우리는 本誌의 前號에 잇서 「곳 해야 할 民族的 中心勢力의 作成」이라 하고 무엇보다도 今日의 朝鮮에 잇서는 中心勢力 作成의 必要를 말하고 그 勢力의 作成은 從來의 무슨 俱樂部의 設立과 가티 그러케 쉽게 作成할 것이 못 될 것을 말하였다. 우리는 百番 생각하여도 그 밋게는 他道가 업는 듯 십다. 여기에 對하여는 여러 말을 더하지<17> 안켓다. 最后로 한 말만 加添할 것은 이와 가튼 主義的 團結을 지음에는 人心 조케 萬人을 통한 利害의 一致를 標準할 수가 업스리라하는 그것이다. 즉 漠然하게 大同一致를 생각할 수가 업스리라하는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튼 朝鮮사람 새이라도 반다시 利害가 갖지 아니하리라하는 그것이다. 利害가 갖지 아니한 사람은 事實上 一致가 될 수 업는 것이다. 그것을 無視하고 一致하자 함은 結局 되는대로 지내자는 말과 거희 밋찬가지 말이다. 아모 힘이 되지 못하는 동시에 아모 實効가 업는 것이다. 世上에 혹 한자리에 모혀서 술 한잔을 가치 난후고 한 演劇場에 느리가 그림 한편을 가티 봄으로써 大同一致를 하엿다 할넌지도 모르나 그것은 쓸대 잇는 主張이 아니다. 우리가 이러케 말함은 兄弟間에 잇서 싸움을 식히자는 것이 아니라 眞實로 우리 兄弟들이 大同一致하야 싸움이 업게 하려면 爲先 이러케 하지 아느면 안된다. 즉 이러케 매 싸웁게 兄弟間이라도 싸울 者에게는 싸울 覺悟로써 나아가는 辛辣한 團體가 아니면 그 團體가 到底히 現 朝鮮의 中心勢力이 되기까지 充實될 수가 업고 그 勢力이 업스면 우리는 밤낮 싸울 것이다. 것해서 제 아모리 싸우지 마라 一致團結하라 할지라도 그들은 반다시 싸울 것이다. 스스로 衰盡하도록 싸울 것이다. 보라. 主張이 업는 집에서는 언제던지 싸울 것이 다. 한 集群에 잇서 中心勢力이 생기지 못한 그것은 마치 主張이 업는 亂家와 잣다. 사람 사람이 다 各其 自己의 責任에 살고 喜悅에 사라 萬人이 곳 하나이오 하나가 곳 萬人이 되여 잇는 그 때에는 主張이니 中心勢力이니 할 것을 論議할 餘地가 업겠지마는 그러키 前까지는 그것이 업시는 안되는 것이다. 더욱히 엇더한 한 現狀을 改造하야 새로운 棼 現狀을 지여내고저 함에는 그러한 中心的 力이 업시는 아모 것도 될 바가 업는 것이다.

遺憾이나 오늘의 朝鮮사람에게는 이러한 中心力이 서지 못하엿다. 自他가 是認할 만한 主義의 團結이 업다.<18> 거희 모도가 하로 하로이오 臨時變通의이다. 最近에 드러오며 社會運動의 氣分이 거희 萬人의 心琴을 건드리며 잇는 것은 事實이나 그것의 要領을 捕捉하야써 自然히 흘러가는 主流가 업다. 따라서 一般은 漠然하야 엇더케 손을 대일 수가 업다(勿論 여러 가지의 形便은 그것에 손을 대이지 못하게 함도 잇지마는). 이 모양으로서는 안된다. 이것이다 - 한 때의 免할 수 업는 現狀이라 할 사람도 잇겠지마는 免할 수 업는 것이라 하야 그대로 보고만 잇스면 永永히 免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免치 못하면 結局은 自盡할 것 밋게 업다. 自盡하는 날에는 結局 이 글을 쓰는 筆者도 自盡할지요. 이 글을 읽는 讀者도 自盡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케 다 - 가티 自盡할 運命을 가진 바에야 그대로 눈이 멍하게 잇슬 수가 잇슬가. 이대로만 가면 左右間 우리는 못 산다. 우리는 살기 爲하야 한層 더 새로운 計劃을 니르켜 보자. 그것은 무엇이나. 民族一致냐 大同團結이나. 아니다 아니다. 비록 한 部分 한 階級의 사람일지라도 到達할 唯一한 標準點을 認하고 그 標準點에 到達할 唯一한 方式을 發見하야 그 標準 又 方式 밋해서 主義的으로 團結하자 함이다.<19>

<13-19>

20.

잡지명: 개벽 제35호

발행년월일: 1923년 05월 01일

기사제목: 日本 사람이 본 朝鮮의 民族運動과 社會運動

필자: 一記者 일기자

기사형태: 논설

日本 사람이 본 朝鮮의 民族運動과 社會運動 (일본 사람이 본 조선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一記者

(1) 朝鮮總督을 始하여 朝鮮에 있는 日本 官公吏를 暗殺하고 (2) 그와 同時에 朝鮮 內에 있는 諸 官公署를 爆破하고 (3) 仍히 其間의 混雜 乘하여서 朝鮮의 革命的 獨立을 力行하기로 計劃하다가 지난 3月 15日의 中途에 破謀洩檢舉한 今回 義烈團의 事件은 朝鮮 及 日本의 當局者를 茫然케 한 것은 勿論이오 朝鮮 及 日本人의 全般을 舉하여 大驚騷動의 渦中에 陷게 하였나니 이는 이 事件의 發佈됨과 共히 朝鮮 及 日本의 모든 新聞紙가 一齊히 이에 對하여 社說을 내인 것으로 보아서 알 바이라. 이에 對한 各 新聞紙의 論評은 區區不一한 中 特히 日本 新聞紙의 論評은 例의 一視同仁 東洋平和의 云下에서 論議를 進하여 아모려한 傾聽의 値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을 遺憾으로 생각하난 바이나 그들이 我田引水의 本論을 세우기 爲하여 묻져 緒言格으로 近來 朝鮮 內의 民族運動 及 社會運動에 對한 視察을 行한 것은 事實에 合하고 合지 않는 것은 別問題라 할지라도 他山의 石과 가타서 한 번 넘어볼 만한 興味는 있스며 이제 朝鮮 안에 있는 朝鮮新聞 日本 안에 있는 東京 朝日, 讀賣新聞, 大阪毎日 等 有數한 新聞의 그 事件에 對하여 쓴 社說 中에서 朝鮮의 獨立運動 及 革命運動에 對한 視察의 概意만을 摘取하면 如左하다.

朝鮮人의 最極左傾運動

= 讀賣新聞의 觀察

(前略) 現在 朝鮮人의 思想的 派別이 其 政治運動上으로 表出된 者 中에는 約 4種의 區別이 있다. 內地延長, 一視同仁, 同化, 文化의 樹立을 標榜하는 現 總督政治에 加擔하는 參政權運動者類가 其1이오 이에서 一步를 進하였다 할 內政 獨立運動者가 其2이오 獨立論者가 其3이다. 그런데 從來는 獨立論者로써 極左派라 하였는데 最近에는 이에서 一層 左傾한 最極端의 共產主義者 無政府主義者가 문득 其 勢力을 增加하게 되었다. 그리고 第3의 獨立論者 中에도 專혀 實力의 養成을 主唱하는 者와 어대까지 爆裂手段에 訴코져 하는 2派로 난호였다. 그런데 其 暴力獨立派와 共產主義 無政府主義者와는 現在로 朝鮮 內外에 互하여 最極左派로 거히 共同한 覺悟 밋헤 있는데 今回의 陰謀團은 卽 其便에 屬한 者인 듯 십다.

以上 4派 中 參政權運動者는 參政權運動의 基礎되는 內地延長主義가 現在의 形便으로는 거히 窒息되는 狀態에 있는 故로 朝鮮 內地에 勢力을 有치 못하였고 第2의 內政獨立運動者는 第3의 獨立運動에게 壓迫되야<27>微微不振의 狀態에 있고 第3의 獨立運動者까지 最近에는 第4의 最極左派에게 壓倒되는 傾向이 現著하여 京城의 東亞日報는 鮮內의 唯一이라 할만한 諺文新聞으로써 5萬의 讀者를 有하여 實力의 獨立論者의 代表機關이라 할만한 것인데 最近에는 그것이 亦是 第4의 最極左派의 壓倒的 勢力에 困厄을 當하는 中인즉 最近 極左派의 思

想運動이 如何히 急激한 形勢로써 鮮內의 靑年階級을 支配하고 이로 因하여 實力獨立論者와 가튼 것은 既히 微溫的 不徹底한 것이라고 排斥되야 專혀 絶對的 非妥協的인 一路를 向하여 慕進하는 大勢를 推知하기에 足하다.

反日的 思想에 對한 一考察

= 朝鮮新聞의 考察

(前略) 此種 陰謀의 動機에 就하여야는 種種의 觀察을 下하는 者가 有하나 此를 大別하면

1. 帝國(日本) 政治의 下에 在함을 不快하여 朝鮮의 獨立을 恢復코져 하는 것
2. 만다시 獨立을 要求함도 아니나 生活上의 不安은 彼等을 驅하여 自暴自棄에 陷케 하여 險惡한 思想에 感染되기에 至한 것
3. 單純히 煽動을 맞아서 輕舉盲動하기에 至한 것 (以下畧)

第三期에서 第四期

= 大阪 毎日新聞의 관찰

(前畧) 大義만 摘取하면 韓國合併 以後의 朝鮮獨立運動은 3期에 分할 수가 있다. 卽 併合 以後로 各處에서 暴動을 起하여 暴力으로써 朝鮮의 獨立을 圖하던 暴力派 全盛의 時代를 第1期라 하면 그後 大正 8년 中에 米國 又は 英國의 國際的 援助에 依하여서 目的을 達하기로 하고 民族 自體의 大論을 舉한 萬歲의 運動으로써 第2期라 할지며 更히 第3期에 入하여야는 暴力을 排하고 依賴心을 去하고 一意 自己의 實力涵養에 努力코져 하는 一派를 生하였스니

是가 卽 文治派이라 曰 教育의 普及, 産業의 振興은 이 派의 標榜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注目할 것은 이 文治派의 分身이라 불만한 一派 中에 過激한 社會革命의 思想이 漸浸되며 잇는 것이다. 主로 血氣에 走하는 靑年의 間에는 文治派의 主意로 하는 民族의 覺醒을 復함이 前途遼遠함을 感함과 共히 드대어 其 漸進的 態度를 棄하고 急進過激한 手段에 訴코져 하는 傾向이 近時에 現著하였다. 卽 社會革命의 思想에 集注하게 되었다. (以下略)

觀察의 重復 繁鎖를 避하여 다시 다른 日本新聞의 論報를 譯文치 아니하나 右의 3種 新聞의 觀察 그것으로써 불지라도 그들이 將來 朝鮮의 更生運動을 縱으로 또 橫으로 觀察함에 際하여 다 - 가치 目下 乃至 今後에 趨勢는 社會革命運動의 便에 傾하얏스며 또 傾할 것을 斷言한 것은 分明하다. 우리의 實際 形便을 우리 스사로가 觀察할 때에 그들의 觀察이 어느 部分까지 合致되고 或은 背致될가. 이 機會에 우리 各自도 우리 今日을 한번 高요히 觀察함이 如何. <28>

<27-28>

21.

잡지명: 개벽 제51호

발행년월일: 1924년 09월 01일

기사제목: 民族과 階級, 現代 政治에 在한 民族과 階級과의 關係

필자: 大山郁夫, YS譯 大산옥부, YS역

기사형태: 논설

民族과 階級, 現代 政治에 在한 民族과 階級과의 關係 (민족과 계급, 현대 정치에 재한 민족과 계급과의 관계)

大山郁夫, YS譯

第一章 序論

『戰爭을 終熄식히는 戰爭!』—"The war that ends war!"

에취, 지, 웰스의 저서의 題名인가 어대서 빼내온 것 가튼 이 말은 연합측 제국 민간에서 과거 世界大戰의 특징을 표시하는 기호로 지극히 중히 녀이든 것이다. 그것은 평화를 애호한다 칭하는 선량한 사람들의 總吶하든 것이다. 그것은 『永久平和에』의 열렬한 憧憬을 표백하는 표어로 항상 애용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런고로, 多大한 동정으로써 뚫든 말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것은 너무 조급히, 경솔히, 좀 더 露骨하게 말하면 너무 無省察하게, 無分別하게 한 말이 아닐가? 물론 옛던 시대의 옛던 나라든지 대외 전쟁의 진행 중에는 敵愾의 맹렬해야 짐을 따라서 평시에는 듯지 못하든 물이성적 연사가 상당히 사려깊다 할 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世界大戰의 계속 중에도 연합 측이나 동맹 측이나 다가티 諸대학의 학자 교수들까지 가두의 군중과 소리를 합하여 지금 와서 보면 단지 一片의 애국심 혹은 擬애국심으로 말미아마 생긴 일대 편견의 표본으로 맞게 볼 수 업는 여러 가지 의견을 아무러케도 녀이지 안코 오히려 비상한 열심으로 高唱하든 것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때요 이것도 한때라, 그런 일들이 거의 전부 는 지금 와서는(18) 벌써 지나간 꿈이 되엇거나 혹은 되려 하고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아직도 전연히 니저 버리지 못할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은 대개 다 이성만으로 생활을 정리해 가기가 지상에 사는 옛던 사람에게 대해서든지 如何히 불가능하다 함을 증명하는 실례로 우리의 기억 속에 얼마큼 중요하게 보존해 가지고 있는 종류의 것에 불과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나는 여기서 일일히 들추어 내랴고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과거의 사건을 穿鑿하기에는 우리의 현대 생활이 너무 밋부다. 그러나, 그런 것 중에도 單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의미가 잇슬 뿐이 아니오, 동시에 우리가 장래에 조만간 遭遇할 諸문제의 해결에 밀접한 관계가 잇는 것이 종종 잇는 것은 우리가 승인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런 종류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만 우리의 생활이 너무 밋부다는 이유만으로 냉담하게 잇슬 수가 업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活문제에 대하는 주의를 이런 종류의 것에 傾하는 충동을 感치 아니치 못한다.

그런 종류의 것의 하나로 나는 본서의 劈頭에 世界大戰의 계속중 적드라도 연합측 諸국민간의 유행어이든 『戰爭을 終熄식히는 戰爭!』이라는 문구를 회상하고, 그것에 나의 주의를 집중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은 너무 무성찰하게 너무 무분별하게 한 말은 아니엿슬가? 하는 의문을 붓쳐 두었다. 물론 그것은 사람들이 전쟁열에 취했슬 적에 생각지안코 한 말이다. 따라서 그것은 전쟁의 종결과 共히 니저버린 것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져 업서지기도 하엿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이 옛던 고혹적 힘을 가지고 잇는 까닭에 언제 다시 무심한 사람들을 襲하여 그들에게 달녀 붓홀는지도 모르는 위험성이 잇는 말이다. 그런고로 우리는 그것을 일시 사람들이 녀고 있다 해서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업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녀고 잇는 사이에 짐짓 그것을 攆집어내서 냉정하게 그 본체를 응시하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존속을 許치 못할 것이라는 이유를 발견할진대 지금 그것을 뿌리채 뽑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거기 대해서 위에 쓴 의문을 발한 것이다.

第二章 戰爭과 平和와의 關係(19)

물론 나의 右疑問은 저 기독교 聖典중의 有名한 문구인 『劍으로써 興한 者는 劍으로써 滅한다』함과 가튼 種類의 警句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런 종류의 警句는 대개 그것을 發하는 그때그때의 卽興의인 主觀적 견해의 산물에 불과하는 것인 고로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 진리의 표백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적 설명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설사 그런 警句가 었던 과학적 설명과 합치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적드라도 객관적 진리의 탐구자의 견지에서는 우리는 솔직하게 전자를 버리고 후자에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어디까지던지 警句에는 警句 그것의 의의 이외의 의의를 認하려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右에 示한 것 가튼 종교적 견지를 전연 떠나서 좀 더 과학적 견지에서—혹은 좀 더 상식적 견지에서라도—생각해 볼지라도 우리가 『戰爭을 終熄시키는 戰爭』이란 것의 성립의 가능성을 의심할 근거는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다. 인류 생활상의 소위 『原始時代』의 異종족간의 전쟁의 경우에 종종 잇섯다고 想定하는 것과 가티 勝한 종족이 敗北한 종족의 總員을 鑿殺하는 행위가 현대의 諸국가간의 전쟁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 혹은 전쟁에 의하여 전쟁을 종식시킬 기회가 전연 오지 않을 리가 없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實際上 그런 일이 잇든 시대는 적어도 『文明人』—이런 표현이 긍정될가 안될가 하는 문제를 떠나서, 통속적 관용적 의미의—이 그 역사의 행정우에서 먼 뒤에 남겨 두고 온 것이오. 그런 일이 이제 다시 우리의 眼前에 재현되리라고는 夢想도 못할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시적 諸종족간의 전쟁에 右에 述한 것과 가튼 일이 잇섯다 할지라도 그 경우에 그 전쟁이 종식시킨 것은 當該 諸종족간의 전쟁뿐이오, 일반적으로 전쟁이란 것을 종식시킨 것은 아니다. 도리혀 그런 경우에 한 종족으로 하여금 他種族을 정복하고 鑿殺하게 한 원인은 또다시 그 종족으로 하여금 타종족과 전쟁하도록 인도한 것은 정한 일이다. 그리하여 적어도 과거로부터 현재에 니르기까지의 인류의 역사가 가르치는 바는 전쟁이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단지 한번도 그 예가 업을 뿐 아니라, 차라리 한 전쟁은 예외업시 다른 전쟁의 씨를 뿌리는 직임을 하였다 하는 것이다. 무론 한 전쟁과 다른 전쟁과의 중간에는 길거나 짧은 평화의 기간이 잇는 것이 보통이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교전국의 숨돌닐 동안의 休憩시간 가튼 것에 불과하는 것이다. 네나 이제나(20) 전쟁과 평화는 항상 서로 表裏의 관계를 가지고 잇는 것이다.

인류가 인류로 지내온 무한히 긴 과거의 기간에 었던 때는 여러 호르드(原姑의 放浪群)가 서로 충돌하고 혹은 융합하는 가운데서 부족이나 민족이 발생하고, 었던 때는 부족적 혹은 민족간의 정복 피정복의 관계 속에서 국가가 형성되고, 었던 때는 諸국가간의 정복 피정복의 관계 속에서 幾多국가의 융체흥망과 신진대사의 夢幻劇이 반복되였다. 이러한 변화 꺾이는 장면을 따라 내려와서 마침내 최후로 우리의 眼前에 니러난 世界大戰까지를 보아 온 우리의 인상 위에 가장 깊히 삭여진 것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계속이라는 항용하는 套語의 틀넘이 업다는 확증뿐이다.

우리는 현대에 잇서서도 세계의 교통로의 한편에 떠러져 잇는 채로 존속하고 잇는 名處의 야만인의 諸종족의 생활상태에 관한 기록을 넓을 때마다 얼마나 群과 群사이의 끄님 업는 전쟁이 그들의 생활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잇나 하는 사실에 놀낸다. 그리고 우리는 爲先 이 사실로부터 유추할지라도 일반 인류생활의 원시시대에 호르드와 호르드와의 사이에, 혹은 부족과 부족과의 사이에 싸호는 전쟁이 얼마나 보통적 현상이었섯스며, 또 얼마나 間斷업는 연중행사

이것은 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런 일이 單히 원시사회, 혹은 우리의 시대의 야만인의 諸종족간에만 한한 일이라고 정해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대의 소위 文明諸國민이 그러한 부단의 전쟁상태를 임의 輒신 전에 지나 너머 와서 지금은 전연 別 지에 처한 것으로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과연 우리의 시대의 소위 文明諸國민의 생활의 외부적 諸조건이 원시적 혹은 야만적 생활의 그것과는 비상이 懸殊하게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전쟁중심의 군단적 생활의 續行이라는 一點에 관하여는 우리의 소위 『文明』생활은 실질상 그 주요점에 잇서, 원시적 혹은 야만적 생활의 面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잇는 것이다. 무론 우리 소위 文明諸國민 사이에는 전쟁의 단위인 群團의 범위도 확대하였고, 전쟁의 방법도 『進歩』되었고, 또 전쟁에 쓰는 기구도 정교하여지고 『科學的』으로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시적 혹은 야만적 생활에 대한 이러한 변화도 그 근본적 사실인 전쟁 그것을 죽음도 좌우하지는 못한다. 만일 우리의(21) 時代에 전쟁과 전쟁의 중간에 평화한 기간이 비상이 길어졌다고 할 수가 있다 하면 동시에 거기 대해서 전쟁의 장면의 범위가 극도로 확대되고, 또 그 참해의 정도가 무한히 증진했다는 것들도 지적할 수가 있다.

이러케 생각해보면, 적어도 전쟁과 평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보면, 현대 文明인들의 생활이 원시적 혹은 야만적 생활과 다른 점은 單히 양적임에 불과하는 것이요, 그것은 결코 질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데 과거에 잇서서는, 전에도 말한 것과 가티, 전쟁은 전쟁을 종식시킨 것이었든 것보다도 오히려 한 전쟁은 다른 전쟁을 유발한 것이었었다. 그러타 하면 무한히 긴 과거의 기간을 통하여 일관한 이 원칙이 현대에 니르러서 급히 그 적응성을 失하고, 도리혀 전쟁이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새로운 원칙이 代한다 함은 우리에게는 참되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單히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世界大戰이 종결하든 때로부터 금일에 至하기까지의 僅僅 수년간에 生한 幾多의 국제적 사건으로부터 귀납할지라도 또 실증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임의 벨사이유평화조약체결의 순간부터 再戰의 脅威가 歐羅巴 全土의 위에 임하고 거기서부터 延하여 전세계상에 及한 것을 感하였다. 뿐만 아니라, 一時는 전쟁이 임의 脅威라는 정도를 넘어서 현실문제가 된 경우를 다 보았다.

최근 上土耳其와 希臘을 중심으로 하여 起한 近東의 갈등과 가튼 것은 卽 그 일례요, 그를 따라 잠시 세계의 시청을 集한 로산누會議은 주로 그 뒤처리를 위하여 열니었든 것이다.

그런데 이 회의가 아직도 그 불안한 진행을 계속하고 잇을 동안에 例의 수년간의 懸案인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巴里四國首相會議가 결렬하고 佛蘭西는 즉시 그 年來의 주장대로 루얼지방에 대하여 군사적 점령을 단행하였다는 飛報가 세계 각지에 전했다. 佛蘭西의 이 행동은 아모리 벨사이유조약 중의 조항에 입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현재의 국제적 정황하에서 실행해서는 不測의 禍機를 促進하는 가능성을 가진 것은 누구나 容易히 認할 것이다. 적드라도 그것이 歐羅巴 구제의 사업을 위하여 亞米利加를 끌어낼만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한에는 직접으로 금후의 歐羅巴 국제관계상에 惡化적 영향을 及하는 정도를 測知키 어려운 것은 명백하다.(22)

이러한 사정을 생각하기만 해도 지나간 世界大戰은 그 당시 만흔 선량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잇든 것과 가티 『戰爭을 終熄시키는 戰爭』으로 그 局을 結한 것은 결코 아니요, 오히려 다른 전쟁의 씨를 뿌리기 위한 전쟁으로 그 행정을 비롯한 것이라고도 보려면 볼 수가 잇는 것이다. 또 그 위에 만일 리우가 諸交戰國의 어느 것에게는 終生 풀 수 없는 원한 감정을 주고, 또 그들의 었던 것에도 何等의 만족을 주지 못한 벨사이유조약의 그 후의 成行에

縲線하는 일체 사정을 종합하여 고찰할 시에는 그런 일의 당연한 것이 더 명백히 우리에게 감지된다.

우리는 『永久平和』에 대한 우리의 열정때문에 현재의 잇는 사실에 고의로 눈을 감아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그러지 아니할진대 우리는 적어도 右의 諸事實만은 용인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우리의 결론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전쟁이 아니오, 만일 전쟁이란 것이 언제든지 인류생활에서 전연 떼여 버릴 수가 잇는 것이라 하면, 그것은 전쟁이외의 엇던 것에 의해서가 아니면 아니된다 하는 一事에 귀착한다.(23) <18-23>

22.

잡지명: 개벽 제53호

발행년월일: 1924년 11월 01일

기사제목: 社會生活의 根本原理와 戰爭, 「民族과 階級」의.....其2

필자: 大山郁夫, YS 譯 대산옥부, YS 역

기사형태: 논설

社會生活의 根本原理와 戰爭, 「民族과 階級」의.....其2 (사회생활의 근본원리와 전쟁, 「민족과 계급」의.....기2)

大山郁夫, YS 譯

社會生活의 根本原理와 戰爭

세계대전이 진행하는 중에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이란 표어가 대단히 유행한 그 이면에는 물론 당시의 여러 정치가의 책략이 暗躍한 것도 숨길 수 업는 사실이다. 그들은 전쟁을 진행시키는 데에 여러 가지로 딸너오는 무서운 부담아래에 숨이 겨워하면서도 각각 자기 나라의 참전이유를 합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분칠하기에 태만치 안엇섰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가티 한쪽에서 『오-르크라시에 對한 떼모크라시의 전쟁』이라고 부르지줄 때에도 한쪽에서는 『상업주의에 대한 인도주의의 싸움』이라는 표어를 들고 나서는 일이 혼이 잇섰다. 어느 때는 교섭단체의 兩便국민들이 가티 업드려 절하든 『唯一絶代の 神』에게 향하여 그들은 서로 피차에 반대편의 不正不義를 호소하고 彼此에 상대편에서 망하기를 기도하여 그 『唯一絶代的 神』을 갈광질광하게 맨든 우수한 일도 잇섰다.

그러나 交戰團體의 양편이 실제상으로서 행하는 이러한 종류의 선전적 정책 외에 우리는 여러 이상가들이 인류생활상의 근본적 개혁의 희망을 세계대전의 결과우에 붓잡어 맨 사실이 잇는 것도 부인할 수 업는 일이다. 과연 大戰 후 세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변화 중에도 더욱 세계역사상으로 대변화라고 云할만한 것이 적지 안케 발생한 것도 또한 사실이니 그것에는 영토의 이동도 잇스며 국경의 更新도 잇거니와 또 新국가의 건설도 잇스며 <16>舊국가의 붕괴도 잇섰다. 또 강대국가의 지위에서 약소국가의 지위로 急轉直下한 나라들도 잇거니와 그와는 반대로 도리혀 조흔 지위로 올너간 나라도 잇섰다. 그리고 교만하든 자는 굴욕을 당하며 영화를 자랑하든 자가 쇠하며 갓챇든 자가 해방되며 蹂躪을 당하

든 자가 일어나는 업해 이러한 여러 가지 비극희극이 뒤섞여서 전개되었다. 그 중에도 더욱 로마로후家와 함프스뵐그家와 호-헨틸레문家의 몰락이라든가, 勞農로시아의 蹶起라든가, 新獨逸共和國의 형성과 가튼 것은 특별히 현저하게 색채를 드러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어느 것이나 하나일지라도 세계역사상의 대변화라고 불느니 않을 수 업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를 물론하고 부정할 수 업는 사실이다. 그러하나 이러한 모든 변화가 과연 여러 理想家들이 생각하든 바와 가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상태로 삼는 세계로부터 전쟁이 업는 영구평화의 세계로 전환하는 1시기를 劃할 만한 근본적 변화를 대표하는 종류의 변화이나 안이나 하는 것은 全然히 별문제로 볼 수 맞게 업는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나오는 대답을 기다릴 것도 업시 大戰 後 발생한 국제정치상의 허다한 사건은 그러한 理想家들의 품고 잇든 희망이 필경 일편의 공상에 불과하든 것을 무참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러한 理想家들 중에 진실치 못한 사람들은 彼等 自身이 당시에 그와 가튼 희망을 품고 잇섯다는 사실을 아주 無反省하게 니저버리고 잇지마는 彼等 中에 진실한 사람들은 오늘날 와서는 현실폭로의 비애를 痛切히 맛보고 잇다. 그러나 그것은 彼等이 감수치 안어서는 안이될 당연한 운명이다. 그것은 대전의 사건의 진행된 것이 책임이 잇는 까닭이 안이라 도리혀 彼等 自身이 당초에 誤算한 것이 회피치 못할 책임이라 할 것이다.

그러하다는 것은 如斯한 所致다. 一원래, 인류생활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常態가 되는 세계로부터 전쟁이 업는 영구평화의 세계로 移轉하여 간다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변화는 사회진화의 과정상에서 한 新階段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사회진화의 과정상에서 일파의 사회학자들의 소위 『動的變化』-Dynamir Change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말하서 그것은 한편으로는 사회진화의 과정상에 잇서서 종래의 惰性的 又は 습관적 진행이<17>돌연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다른 편으로는 그와 동일한 사회진화의 과정우에서 全然히 참신한 진로를 개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쉽게 말하면 그것은 사회생활의 근본원리의 徹底的 革新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如斯한 사회생활의 근본원리의 徹底的 革新은 사회조직의 근본원리의 徹底的 改造에 의한 후에야 능히 진행되는 것을 그의 필수적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도 누구를 물론하고 당연 이상의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 일이다.

그런데 사회조직의 근본원리의 철저적 개조가 어떠한 종류의 전쟁으로서야만 초래할 수 잇겠느냐, 업겠느냐 하는 문제는 전쟁 그 자체가 사회진화상에서 행하는 그 작용의 고찰에 의하여서야 비로소 해결될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만일에 전쟁은 今後의 사회진화의 과정에 右에 말한 의미의 『動的變化』를 가져올 만한 가능성을 능히 가졌다는 판단이 내릴 때에는 그 유명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표어와 가튼 것에도 비로소 실질적 내용을 붓쳐서 볼 수가 잇지마는 만일에 前述한 바와 가튼 斷案이 업슬 경우에는 그가튼 표어는 다만 外飾만 찬란하고 아무러한 실질적 내용이 업는 一片의 警句맞게는 못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마는 전쟁이 과연 今後 사회진화의 과정상에서 우에 말한 의미의 動的變化를 가져 올 가능성의 有無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것이 과거에 잇서서 사회진화 과 ●상에서 如何한 작용을 하면서 왔는가 하는 사실을 討究치 안아서는 안이된다. 사회진화 개념의 입지에서 보면 현재는 과거의 繼續이요, 장래는 현재의 延長이다. 이런 견지로부터 우리는 전쟁의 장래에 장차 할 작용은 그것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하여온 작용의 계속이고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나는 전쟁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하여온 작용에 관한 고찰을 아주 簡易하게라도 하 번 말해보는 것이 내게는 당연할 순서라고 생각한다.

社會에 在한 戰爭의 作用

吾人は 曾往에 전쟁이라는 것이 사회진화의 과정에서 어느 종류의 動的 變化를 激成하는 매개체로 동작한 일이 었든 것을 想定할 수가 있다. 즉 인류의 집단생활이 원시적 血族단체의 생활양식에서 如何한 형식에서든지 국가적 지배의 생활양식으로 變移한 또는 변이된-과정에서 전쟁은 그러한 轉向期를<18>촉진하는 요소로 동작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사회진화를 설명한 여러 학자의 말한 바에 의하면 사회과학적 지식으로써 溯源의으로 考究할 수 있는 한에서의 인류생활상의 원시시대에서 그 곳에는 아주 如何한 원형적 형식이 있슬지라도 「국가」라는 것의 체제가 발생되지 않는 곳에서는 各個의 인류집단생활의 單位는 血族의식에 근거하여 종합된 공산적 생활단체였다. 이러한 血族적 공산단체는 그 내부의 統員의 협력에 의하여 食物의 搜索獲得과 가튼 경제적 행동과 對敵共同 及 防禦共同과 가튼 군사적 행동을 위하여 집단생활을 했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가튼 단체는 그 생활상태에서 종종 호르드-Horde-의 지칭을 받았든 것이다. 이와 가튼 호르드는 종류의 合同裏에서 점차로 부족-Tribe-이 성립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점에 附隨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한 고찰은 本書의 주제의 闡明에 직접 관계가 업는 것임으로 여기서는 일절 생략하거나와 本書의 當局한 필요한 일은 그러한 원시적 집단생활의 단위-또는 간단하게 말하면 원시적 社會群-의 성립의 근본원리와 如何한 형식하에 在하여 국가조직의 성립의 근본원리의 間에 表明한 바의 한 중요한 근본적 相異點을 들추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는 拙作 「정치적 사회기초」의 서론 중에서 비교적 詳論했슴으로 여기서는 중복하여 설명의 煩을 피하려 한다. 그런데 나는 순수하게 本書의 필요를 填充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간단한 형식으로 그 핵심된 요점을 이에 摘記하려 하는데 그는 곳 이러한 곳에 귀착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원시적 血族단체의 내부에서는 그 곳에 자연적 불평등이 나타나는 외에는 제도화된 불평등-특히 제도화된 계급적 불평등-의 나타난 일을 볼 수가 업지마는 이에 반하여 如何한 형식의 국가의 내부에서든지 그 곳에는 자연적 불평등이 출현됨과 共히 제도화된 불평등-특히 계급적 불평등의 現出이 병존된 것을 알 수 있슬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원시적 국가에 在한 제도화된 계급적 불평등의 최초의 형식은 노예와 自由民과의 차별적 지위에서 그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如何한 형식의 국가조직이든지 적드래도 국가조직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가장 현저한 특징은 그 내부에 반드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두개의<19>집단이 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고 또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에 비하여 언제나 小數의 인원을 성립되었다는 일도 예외없이 국가조직의 표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정치적 의미로 말하면 통치계급과 피통치계급과의 차별이오, 또 그를 경제적 의미로 말하면 착취계급과 피착취의 차별이다. 게다가 이 경제적 의미는 항상 정치적 의미의 根抵를 이르는 것이다. 또 역사적 견지로 보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과의 차별은 원시국가에 잇서서는 자유민과 노예의 관계에서 중세기적 봉건국가에 잇서서는 무사의 집단과 농노와의 관계에서 근대적 자본국가에서는 자본계급과 무산노동계급과의 관계에서 각각 그 극단적 對照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이다.

그래 인류의 집단생활이 당초 제도화된 계급적 불평등이 존재하지 아니했든 血族적 공산단체

의 생활양식에서부터 그러한 계급적 불평등의 필연적으로 동반하게된 국가적 지배하에 在한 생활양식으로 변이해 간다는 일은 대체 엇더한 권력에 의하여 촉진된 것인가? 는 無論국가계약설과 가튼 것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各人의 자유의사의 선택에 기본적인 계약에 의하여 어느 집단내의 대부분의 인원이 자진하여 노예의 苦役에 나아갔다는 일은 正氣로 밋아드리는 것은 아무나 어리석은 설명이다. 또 그는 그에 관해서 누차 얼러맞추어 꼬집어오는 分勞說에 의해서드래도 적어도 최종적의 설명을 與할 수는 업는 것이다. 즉 엇던 집단내의 생활에서 엇더케 엇더케 分勞가 필요하다 하드래도 그 곳에 何等의 강제가 업는 경우에 집단내의 多數人이 자진 挺身하여 非常한 고난이 伴하는 굴욕적인 그리고 보수가 적은 일에 종사해야만 되는 지위에 나아간다는 것도 너무나 超理的 또는 沒理的 설명이다.

이러한 일을 생각하고 잇스면 결국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집단간의-또는 諸社會群 간의-전쟁 及 그에 伴하는 정복, 피정복의 관계에서 생긴 것이라는 斷案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임이 인류생명상의 순수한 원시적 階段에 잇서서는 群과 群間的 충돌은 征服群이 被征服群을 殲殺하는 것과 가튼 결과를 伴했든 일이 잇섯든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 잇서서는 발서 征服群이 被征服群을 노예로 살려두어 그 우에 嚴酷한 手足의 노동을 강제하는 편이 결국 自群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잇는<20>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경우가 되기에는 그곳에 艱難한 계속적 노동이 필요함과 동시에 그 노동의 수익도 상당한 종류의 산업이-例하면 어느 정도까지 발달된 목축업이든지 농업과 가튼-이임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人工의 필요가 征服群에게 痛切하게 늦기게 됴므로써 그 必須한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는 동시에 또 경제생활의 진화의 상황과 일반의 사회진화의 과정상에 在한 動的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최후에 내가 우에 인용해 온 「사회진화의 과정에 在한 動的변화」라는 語義에 대하여 一言을 부가하려 한다. 가튼 근본원리상에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조직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변화는 그것이 엇더케 인류생활양식의 「改善」상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드래도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動的」이라는 일홈을 쓰지 안는 것이다. 우리는 찰아리 그러한 변화를 일정한 사회조직의 정적 상태의 완성의 방향을 향하여 동작하는 점진적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 변화는 암암리에 續起하는 「動的變化」의 준비적 과정으로 볼 수 잇는 경우가 잇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타 하드래도 점진적 변화 그것은 「動的變化」라고 할 수는 업다. 우리는 「사회진화의 과정에 在한 動的變化」라고 하는 것은 전혀 社會組織의 근본원리 그 자체상에 일엽는 변동과 관련하고 잇는 것이다. 적어도 나는 本書에서 그러한 의미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제에 대해서는 넘으나 짚은 상술한 설명에 잇서서도 전쟁이라는 것이 과거의 사회진화의 과정상에 在한 動的變化를 激成함에 잇서서 표시해 온 작용의 윤곽만을 나의 立脚地에서 말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다음에 할 일은 과거의 사회진화의 과정에 在한 動的變化를 激成하기 위하여 중요한 책무를 해 온 전쟁 그 자체가 今後의 사회진화 상에 在한 動的變化를 惹起하는 데서도 同様の 동작을 할 힘(力)을 가지고 잇다고는 생각할 수 업다는 一點을 闡明하는 것이다. 적어도 나는 전쟁 그 자체가 單獨히 그러한 힘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나의 사고의 중심점을 미리 요약할 것 가트면 이러케 된다. -곳 전쟁과 그에 伴해 온 정복, 피정복의 관계는 금일에 보는 것과 가튼 통치, 피통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 지배권에 재한 사회생활양식을<21>유도하는 동기가 되어 온 것이지만 이러한 의미에 在한 전쟁, 그 자체가 과거에 잇서서 유도해 온 금일의 국가적 지배하의 사회

생활양식을 장래에 絶滅하는 작용을 示現하리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적드래도 별로히 다른 하등의 사회적 원인이 更加되지 아니하면 전쟁 그 자체로써 종래 밝아온 진로에서 급격히 一轉하여 장래에 그러한 작용을 새로히 나타나리라고는 논리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별로히 다른 하등의 사회적 원인이 새로 更加되어서 전쟁이 그러한 작용을 새로히 이루게 된다 할 것 가트면 그 경우에는 우리는 새로히 첨가된 사회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표명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요점을 현재의 국제정치상에도 또한 강한 힘으로 동작하고 잇고 민족관계 及 계급관계에 관련해서 고찰하려고 하는 것이다. (未完) <22>

<16-22>

23.

잡지명: 개벽 제54호

발행년월일: 1924년 12월 01일

기사제목: 國家組織의 形式과 民族團體의 意義, 民族과 階級...其3

필자: 大山郁夫(作), YS生(譯) 대산옥부(작), YS생(역)

기사형태: 논설

國家組織의 形式과 民族團體의 意義, 民族과 階級...其3 (국가조직의 형식과 민족단체의 의의, 민족과 계급...기3)

大山郁夫(作), YS生(譯)

國家組織의 形式

국가조직은 엇더한 형식으로써 나타난 경우라도 항상 통치 피통치의 관계 위에 기초한 점은 국가의 발생 이래 시종일관하여 변하지 아니한 바이다. 그것이 국가조직의 가장 현저한 특징인 것은 임이 논술하였다. 그러나 국가조직은 그를 형식이란 점으로 관찰할 때에는 無論 일정한 경로를 딸아 내려왔지마는 여러가지 변화의 諸 계단을 지나온 것이다. 우리는 원시사회에 잇서서 부족형식으로 된 곳에 임이 그곳에 국가조직이 적드래도 원형적 형식의 맹아를 차차 볼 수가 잇는 것이다. 그와 가튼 시대 이래 역사상에 나타난 국가의 형식으로서는 고대의 「도시국가」라든지 「세계국가」, 중세기의 「봉건국가」 또는 근세기의 「민족국가」 등을 꼽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근대의 민족국가가 어느 정도에서 자본계급의 지배하에 잇게 되었을 때는 그들 보통 「자본국가」라고 칭하였다. 물론 자본국가라는 명칭은 국가의 형식에 관계한 것이 아니요 국가내의 권력의 중심점의 소유에 관련된 것이지마는 우리가 여기서 새로히 그곳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구태여 無用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의 勞農로시아와 가튼 것을 「형식의 과정에 在한 공산주의의 국가」라고 칭할 수가 잇을 것 가트면 이도 또한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주의해 둘 필요가 잇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조직의 형식상에 엇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 및 그에 伴하는 정복 피정복의 사실을 계기로 하는 것이요 또 일정한 형식하에 在한 국가조직이 존속하는 이상 그 유지와 존속도 또한 <40> 늘 전쟁 및 정복의 성과로서의 권력의 행사에 의하게 되는 것

이다. 이는 원시적 정복국가 이래 근대의 민족국가에 이르기까지 終始 일관하여 변하지 아니한 경로이다. 그러나 특히 「민족국가」의 성립과 존속은 근대의 어느 기간에 일어나서 현대까지 계속해오는 것임을 그는 우리에게는 특수한 흥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근대적 민족국가의 성립일지라도 그것이 여하한 예외 업시 전쟁 及 정복에 의한 것인가는 근대사를 읽는 사람들의 아모리 하여도 넘겨볼 수 업는 사실이다. 이는 근대의 英國에 관해서든지 佛蘭西에 관해서든지 伊太利나 獨逸에 관해서든지 또는 그 외의 민족국가라는 민족국가에 관해서 적확하게 알 수 잇는 것이다. 맞찬가지로 근대 日本의 탄생도 전쟁 及 정복을 떼어 노코서는 생각할 수가 업는 것이다.

일반으로 국가의 성립이 전쟁과 정복에 의하게 되는 것과 가티—그리고 또 근대적 민족국가의 성립이 역시 전쟁과 정복에 의하게 되는 것과 가티—그 민족국가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민족 그 자체도 또 그 성립에 관해서는 필연적으로 전쟁과 정복에 의하게 된 것이다.

이 점은 저 월타! 파치윙트가 임이 1864년에 발표한 저작의 「物理와 政治」중에 적절하게 지적한 바이다. 그는 원시시대의 인간의 무리가 오르지 종사한 일을 「민족형성」하는 일ियो 그래서 그는 彼等の 間에 在하여 간단업는 전쟁에 의하여 성취된 것이라고 논증하였다. 得當한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自然學法의 영향이 아즉도 현저하게 잔존된 그는 당시의 영국 의 정치사상상에 이러한 新방면을 개척한 것은 확실히 큰 탁견이라고 할 수가 잇는 것이다. 다만 그는 민족개념을 종족개념과 혼동해서 一민족을 동일종족으로 성립하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그의 가장 큰 오류였다. 민족의 발생이 전쟁에 의하게 된 것은 물론이지마는 그는 異종족간의 전쟁에 의한 것이라 하지 아니하면 불충분한 설명인 것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나는 이 점에 관해서는 군프로-뵈츠가 1883년에 발표한 저서 「종족투쟁」 중에 인종다원론의 논거로부터 내리운 설명이 가장 啓發的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군프로-뵈츠의 「인종다원론」에는 반대론이 꽤 만치마는 오늘날까지 본 바로서는 그것이 가장 유리한 학설인줄 맞는다) 엇갠든 오늘날에 잇서서는 민족이 종족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만은 정치상의 상식이 되 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41>

민족이 종족과 동일하지 안타는 것은 의아할 수 업는 일이지마는 그러면 민족은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해결이 심히 곤란한 문제의 하나가 된다. 현대의 정치문제상에 비상하게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잇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吾人은 무엇보다도 특히 민족과 계급을 들 것을 주저하지 안치마는 이상스럽게도—혹은 그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마는—이 두 개는 다 가티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심히 곤란한 것이다. 其 중에도 민족에 잇서서 더욱이 그러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럼으로 그를 정의하려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은 「무엇무엇인가?」하는 데 관해서 簡條를 들기 전에 그것은 「무엇무엇안인가?」에 관해서 簡條를 들려는 방식을 취하는 사람이 적지 아니하다. 그와 동시에 그는 심히 흥미 잇는 문제다. 그러치마는 나는 本書에 잇서서 이 문제를 상론할 여가가 업슴으로 그는 他日의 기회에 讓하거니와 여기서는 오즉 순수하게 나의 논제에 관계잇는 범위 안에서만 그에 관한 요점을 각금각금 논술하기에 긋쳐두려고 생각한다.

民族團體의 意義

민족은 종족과 가튼 것이 안임과 가티 국가와도 가튼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세기의 역사를 움직이게 한 긋센 힘(力)이 되어 활동해온 바의 소위 「민족국가사상」이라는 것이 본래는 민족이 他민족의 국가적 지배로부터 이탈해서 제 자체가 一국가를 구성하려는 정치적 욕구를 표백했다는 사실로써도 긋 판명이 되는 것이다.

또 민족은 공동 종교단체도 아니다. 그러나 종교나 종파가 諸민족의 離合관계상에 중대한 영향을 及케 하는 것은 예하면 愛蘭민족과 로-마 舊敎와의 관계라든지 발칸반도상의 諸민족과 로-마교회 및 그리스교회와의 관계에서 가장 적절한 예증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알쓰타 지방의 주민의 대부분은 아일랜드의 諸지방의 민족운동에 향하여 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異종족에 속한 까닭이 아니오—그러나 同지방의 북동부에는 스코틀랜드인 계통이 석여 있지마는—또 그들이 풍속습관을 달리하고 있는 때문도 아니오 그는 諸지방민이 열렬한 「法王黨」임에 反하여 그들이 英國敎의 신도인 까닭이다」 「썬르빠아인과 크로아-트인의 경우에 있어서서는 종교의 相異가 특수한 민족형식의 導火까지 되었다. 본래 크로아-트인은 썬르빠아인과 공동종족<42> 단체에 속하였었다. 現今에도 썬르 호, 크로아-트의 명칭이 남아 있다. 또 크로아트인의 언어는 썬르빠아語에서 轉訛한 것이다. 그러치마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들과 썬르빠아인과의 兩融合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종교의 相異다. 곧 크로아-트인은 대개는 로만카톨릭 교도임에 反하여 썬르빠아인은 그리-크·가드리크 교회의 자치적 분파인 썬루빠아 교회의 신도다.」 쿠-노 著 「뎁쓰의 역사, 사회 及 국가학설—하권 제 22頁에서」 그러치마는 그와 동시에 동일 민족의 내부에 있어서 幾個의 相異한 종교나 종파가 병행해 있다는 것도 꽤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또다시 민족은 공동언어 단체라는 것도 만흔 사람들이 누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오 또 그것은 가장 만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마는 그러나 그것도 아모때나 꼭 그에 限한다는 것은 아니다. 吾人은 일방에 있어서서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와 쓰칸지바아 반도상의 2민족의 경우에서와 가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이한 민족을 구성한 실례를 볼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어서서는 또 지방지방을 딸아서 혹은 독일어를 혹은 불어를 혹은 이태리어를 적드래도 3개국어를 사용하면서 1민족으로서의 생활을 평화적으로 생활하는 瑞西민족과 가튼 실례—그러나 군프로-바이트츠와 가튼 사람은 瑞西를 다민족으로 된 1국가로 보지마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동언어라는 것이 가장 만흔 경우에 있어서 1민족간에 민족적 공동의식을 보급케 하는 것과 가튼 심리적 작용을 가장 민활히 한다는 사실은 吾人이 십분 승인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최후에 민족은 「공동문화단체」라는 정의는 오늘날에 있어서 상당히 광범하게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치마는 이 정의는 吾人이 보는 바에 있어서서는 결코 완전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적어도 이 정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에 관해서 각양의 제한적 설명을 제출할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이 정의를 수용하려고 할 때 먼저 제일로 조우하는 난관은 공동문화의 단위는 민족이란 것 보다도 훨씬 협의상에 목표를 둘 수도 있는 것이오 또 그보다도 훨씬 넓은 곳에 목표를 둘 수 있는 것이 반드시 민족만을 공동문화의 단위로 보아야 될 확실한 논거는 업는 것이다. 우리는 옛던 특수한 지방색에 입각한 지방문화 혹은 향토문화를 인정함에도 하등의 지장을 感치 안할 것이오 또 그와 동시에 歐羅巴 全土를<43> 境城하는 歐羅巴문화라든지 北米合衆國을 근거하는 아메리카 문화를 인정하는데 전연 이유가 업다고는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문화를 동양문화, 서양문화로 난우아 보는데도 전연 사실적 근거가 업는 것이 아니오 또 옛던 의미로 보면 세계문화가 現今에 점점 형식이 되어간다는 것까지도 결코 말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리적 境城을 떠나서 그 立脚地를 옛던 집단생활상에 두는 바의 계급문화—뿔으쪼아 문화라든지 프로레타리아 문화라고 하는—를 시인하는데 적어도 현대의 諸公衆國의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민족은 무론 유일의 공동문화 단체라고 할 수 업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斷案해버린 다음에도 오히려 민족은 그러한 공동문화단체의 일종이 아니냐는 문제가 그 뒤에 남는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나의 답안은 半는 「그러나」요 또 半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민족이 공동문화단체의 하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그것을 요약하면 「민족문화라는 대체 무엇이나?」하는 문제에 귀착하는 것이다.

민족문화는 一민족간에 있는 어느 종류의 공동한 사상 감정에 입각한 소위 민족의식 裏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은 그것이 열는 집어내서 말할 수 있는 이만치 말해서 반대할 여지도 적은 것이다. 그러치마는 동시에 그것은 그 자체 단독으로서는 그러한 공동인 사상감정이 엇더한 원인에 의하여 양성도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원인을 설명하라는 사람들 중의 엇더한 이는 그러한 공동한 사상 감정은 一민족이 항상 동일한 지리적 境域 안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서부터 동일한 지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안에 자연히 그와 가튼 공동한 사상 감정을 발생케 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러한 共同한 사상 감정은 한 역사적 산물인데 좀더 자세히 말하면 그는 一민족의 공동의 역사, 공동의 전통, 공동의 광영, 또는 공동의 굴욕과 가튼 대로부터 醞釀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前者는 「地理的 決定說」이라고도 할 것이요 後者는 일종의 「歷史的 決定說」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4>

民族文化의 考察

이 兩說 중에 전자에 따르면 一민족간의 사상 감정의 조류는 물론이요 그 全생활의 방향까지가 다 주거의 인접에서 오는 소위 隣保感情 또는 향토적 정신에 의하여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지리적 諸상황, 곳 예하면 기후의 寒暖이라든지 영위기의 乾濕이라든지 산천의 凝伏, 地味の 肥瘠이라든지 항만의 深淺과 가튼 다시 말하면 지리적 환경이란 명칭하에 포괄할 수 있을 諸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說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제로 인간이란 개인으로서든지 집단으로서든지 그 全생활상에 지리적 환경의 영향을 각인하지 아닌 것이 엇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의하면 예컨대 원시시대에 山野와 접근하여 주거하던 사람들은 자연히 수렵생활을 배우게 되고 河海邊에 주거하던 사람들은 자연히 어업생활을 배우게 된다. 그러는 동안에 그러한 생활양식이 무의식한 중에 그들의 정신이나 기풍 우에까지 영향을 것이요 그래서 인간생활이 무한히 복잡화하게 된 현대에 잇서서도 지리적 환경의 영향은 여전히 각처에서 인간의 생활을 형성하는데 강대한 영향을 及케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는 까닭으로 소위 민족성이라든지 민족정신이라든지 민족의식이라는 것은 물론이요 이러한데서부터 흘러내려온 민족문화도 또한 궁극에 잇서서는 다 지리적 환경의 산물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대체로 이렇게 말한다.

물론 인간의 개인생활과 집단생활이 어느 정도에서 지리적 환경의 영향을 맞는다는 것은 아무도 異論할 수 엇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와 가튼 지리적 환경의 영향은 그것을 결코 과대하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인류문화의 진화에 관해서 지리적 결정설을 주장한 사람들 가운데도 특히 빠스칼가튼 이는 그의 명저 「영국문화사」 중에서 지리적 환경이 인간문화상에 及하는 영향을 극단으로 과장하여 논술했었다. 그러치마는 그가튼 만흔 예증에는 얼마든지 예외를 들 수 있는 것이 만흔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경우에 잇서서는 그 자체가 지리적 환경의 영향으로 생활을 좌우하게 하는 일이 잇는 동시에 반대로 그 자체가 지리적 환경 우에 능동

적으로 작용하는 일도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무한히 만흔 실례 중에서 다만 한개를 들면 예컨대 트라이트츠크가 그의 「정치학」 제1권(此書는 <45>浮田박사의 「군국주의 정치학」이라고 題한 和譯이 있다) 중에 었더한 구절에 말했습과 가티 빨칸반도 諸지방이 고대 羅馬제국의 관리하에 잇섯든 동안에는 관개가 편익한 아름다운 沃野가 잇섯지마는 그것이 그 뒤에 토르코인의 행정하에 넘어간 뒤에는 보잘 것 업는 瘦土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첫말에 나의 요점을 말하면 그는 지리적 환경이 인간의 개인생활이나 집단생활상에 及하는 영향은 찰아리 간접적이오 결코 근본적의 것도 아니오 최종적도 아니라고 할 수 잇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근본적이오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나 하면 그는 사회적 경제적 원인에서 오는 영향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이것은 만흔 경우에서 지리적 결정설의 주장자의 설명 裡에 암시된 바가 만흔 것이다. 다만 그들은 자기 방어 때문에 그곳 에 직접으로 포착하기를 두려워 했을 따름이다.

후자 곳 역사적 결정설이 說하는 바와 가티 一민족 내의 공동한 사상 감정은—떨아서 민족문화는—究極에 잇서서 역사적 산물이라고 해 버리면 이것도 극히 대체로운 의론인만치 그만 치는 별로 반대론을 제출할 여지가 적지마는 그러나 그 대신에 그 소위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이 상세히 말하면 었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는 조금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경향을 대표하는 자의 다수는 一민족 내의 공동한 사상 감정은 그 민족의 공동한 역사 及 공동의 전통이라는 명칭하에 포괄할 수 잇는 諸조건의 抱合裡에 유출된 것이라고 하는 상례다. 그러치마는 제일 내가 먼저 말한 바와 가티 민족이란 것이 적드래도 그 기원에 잇서서 직접 간접으로 異종족간의 전쟁의 성과라고 할 것 가트면 一민족 내에 정복군과 피정복군이 항상 병존하고 잇는 것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상론하면 그로에는 우승종족 또는 그 후예가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를 점령하여 존속하고 잇을 터이오 또 劣敗종족 또는 그 후예가 피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를 존속하고 잇지 아니해서는 안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가튼 정복군과 피정복군과의 2개의 집단에 관해서 공동한 역사라거나 공동한 전통 가튼 것을 說하는 것은 심히 의심스런 일이 아닌가?—이러한 의문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所論에 대하여 일어나지 아니하며는 안될 것이다.

이 점까지 이르면 우리는 비로소 민족형성의 과정에 잇서서 어느 종류의 심적 요소가 심히 國 세계<46> 동작하고 잇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一點을 깨닫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一민족 내에 在한 정복군 또는 그 후예인 지배계급은 말할 것도 업시 그 당초의 정복의 성과인 권력에 의하여 피정복군 또는 그 후예인 피지배계급을 그 연속적 복종의 지위를 계속케하기를 노력한다. 그러치마는 정복군이 피정복군에 대하여 하는 것은 단지 권력만에 한한 것이라고만은 하지 못할 것이다. 위선 제일에 정복군은 피정복군을 다른 強群의 침략에 대하여 보호하기를 怠惰하지 안는다. 옷빼이하이마—는 그 名著 「국가」의 었던 구절에 이러한 관계를 예증하기 위하여 곰(熊)이 羊의 무리를 이리(狼)의 습격에 대하여 방어했다는 鬻이 약이들을 인증하였다. 그것은 이러한 견해 하에 둘 수도 잇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박게 정복군은 또 일상 그 권력을 적나하게 과시하는 것보다도 때로서는 그를 「恩情主義」이라든지 「和衷協同」이라는 말과 가튼 오프라이드에 싸는 것이 得策인 것을 아는 것이 흔한 일이다. 一言而蔽之하면 그들은 右手에는 몽둥이를 들고 左手에는 林檎을 들어 보이는 것가튼 구식교육자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데서부터 그들은 사정이 許하는 한에서 만흔 경우에 잇서서는 위압정책을 취하는 것보다도 찰아리 懷柔정책을 시행하도록 가르친다. 그는 마치 자본주의적 사회조직하에서 착취계급인 빨쫘아지가 피착취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에 향하여 恩情주의니 협조주의를 叩집어내는 것과 가

튼 것이다.

一민족 내의 정복군은 원악 그 정치적 의미에 잇서서는 지배계급이지마는 그 경제적 의미에 잇서서는 착취계급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피착취계급인 사실을 할 수 잇는 한에서는 감추려는 충동에 끌리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이 다른 만흔 모든 원인과 결부되야 동작하는데 혹은 정복군이 피정복군 중에 잇는 재능이 우월한 자를 정치상의 樞要한 지위에 拔擢登庸하는 일도 행하고 혹은 정복군과 피정복군 간의 결혼을 장려하는 일이 생기고 혹은 또 그 밋게 다른 種種의 사회적 경제적 원인에 참가되야 정복군과 피정복군과의 雜居가 점점 빈번하게 되고 양자간의 취인 교섭이 더욱더욱 밀접하게 되는 일까지도 現出되는<47> 일이 있다. 이러한 일을 오래 계속하고 잇는 동안에 사회학자 등의 소위 「社會的 同化」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지마는 이 사회학적 동화의 진행하는 정도에 응해서 一민족 내의 諸구성요소의 융합작용이 진행하고 또 그에 응하야 민족적 공동의식이 명확하게 되고 말하서 민족문화라고 말하면 말할 수도 잇는 것이 그 안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치마는 동시에 우리는 근대적 민족국가 내에서는 민족적 공동의식이 명확하게 되어가는 일방에는 그를 중단하는 뿔으쫘아와 프로레타아트 계급의 대립관계가 점점 강렬하게 되어가는 경향이 잇는 것을 넘겨볼 수는 업는 것이다. 이와 가튼 계급적 대립관계는 一민족 내에 잇는 정복군과 피정복군과의 대립관계와는 여러 점에서 현저하게 외관상의 차이가 보임에 불구하고 그 내력에 잇서서는 전자는 후자의 후계자이오 또 그 경제적 착취계급의 관계에 입각해 잇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한 것이다.

<40-48>

24.

잡지명: 개벽 제55호

발행년월일: 1925년 01월 01일

기사제목: 民族과 階級(終)

필자: 大山郁夫, YS生 大산옥부, YS생

기사형태: 논설

民族과 階級(終) (민족과 계급(중))

大山郁夫, YS生

民族意識과 그 政治的 意義

前述한 바 一民族內에 在한 社會的 同化作用은 그 民族이 다른 優強民族에게서 侵略의 威脅을 받고 잇는 境遇에 가장 強烈한 働作을 表示하게 되는 이다. 그럼으로 一民族內의 支配階級은 다른 優強民族의 脅威를 밋는 境遇에는 勿論 自民族內의 모든 社會的 經濟的 勢力을 糾合하기 爲하야 全力을 다하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脅威가 恐懼하기에 足치 못하는 때이라도 될 수 잇는대로 그를 誇大하게 보이기를 盡力한다. 이러한 일은 一民族內에 잇서서 征服 被征服의 關係의 痕跡으로서의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の 差別이 잇는 동안에는 到底히 避치 못 할 일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말미암아 現代의 諸民族內에 잇서서는 支配階級이 民族意識에

政治的 意味을 結附하기에 極度로 努力하는 傾向이 甚히 顯著하게 나타난다. 엇던 意味로 보면 民族意識은 政治的 意味를 떠나드래도 成立할 可能性이 있는 것이나 그러나 現代에 잇서서는 어디를 가든지 民族意識에 政治的 意味를 結附하지 아니한 곳은 없다. 現代의 民族意識이 非常히 顯著하게 軍國主義的 色彩를 띄고 잇는 것은 專히 이 理由에 잇게 된 것이다.

나는 지금 또다시 民族文化에 問題에 도라가련다. 므릇 一民族內의 支配階級은 그 民族的 存立의 繼續이 自階級에게 利益이 잇는 것을 안데서부터 極力 民族意識의 振興을 圖謀하기에 힘쓰게 된다. 더욱이 彼等은 그 四圍에 隣接하고 잇는 다른 諸民族에게 對해서는 自民族의 모든 構成要素가 共同利害關係上에서 서잇다는 點을 高調하는 것을 常例로 한다. 가튼 原因에서 彼等은(48) 自民族內에서 볼 수 잇는 모든 社會的 關係를 民族的 共同意識의 形成 때문에 各樣으로 利用하는 것을 안다. 例하면 彼等은 自民族內의 征服群과 被征服群間에 漸次로 婚姻關係가 行하게 되고 그러고 그 結果로서 同民族內에 血族의 混同이 漸次로 增進해 가는 事實을 보면 早晚間 반드시 이 點을 巧妙하게 粉裝하야 그 民族 全體가 共同祖先으로부터 繁殖해 온 人間의 一集團인 것처럼 彌縫하야 덥혀 버린다. 이러한 일은 各民族의 起原이 茫漠하야 생각할 수 업는 太古에 屬한 것이 되는 때에 가장 容易하게 行할 수 잇는 可能性을 가진 것이다. 民族이 흔히 種族과 混同되기 쉬운 것은 오르지 이러한 原因에 잇다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斷案이 안일 것이다.

맞찬가지로 저들은 結局 自階級の 存立을 爲하야 形便 조흔 眞正한, 또는 擬作한 歷史的 事實을 自民族의 共同한 歷史로 四方에 宣傳하고, 그를 一般으로 流布케 하기를 努力한다. 이 點에 關해서는 그 民族의 다른 隣接한 諸民族에게 對한 外交 及 戰爭의 歷史가 가장 잘 이 目的에 適合한 材料를 無限히 豊富하게 含有한 寶庫로 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民族의 英雄, 民族의 救主, 民族의 共同한 傳統, 民族의 共同的 榮辱과 갖흔 것의 發祥로서 가장 恰如한 것으로 看做하야 貴重하게 保存되는 것이 常例다. 그리하야 이러한 源泉에서 流出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 民族的 共同思想感情, 또 그 우에 築造된 것으로 보게 되는 國民文化가튼 것은 그 眞相을 穿착해 보면 結局은 그 民族內의 支配階級이 直接 間接으로 創作하고 宣傳한 것인 境遇가 甚히 許多하다.

前述한 바와 가티 民族意識은 그 本質上 반드시 政治的 意味를 띄게 되는 必然性이 잇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現代의 民族意識은 어데를 가보든지 반드시 政治的 意味와 結附되어 잇고 그 우에 가장 強烈한 軍國主義的 色彩를 가지고 잇는 일은 掩蔽할 수 업는 事實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에서부터 反復히야 論述한 理由에 依해서 決코 偶發的 現象은 아니다. 그것을 가장 簡短하게 말하자면 찰아리 한 個의 歷史的 必然性的 產物로 볼 수 잇는 것이다.

그래 萬若 將來에 民族意識이 醇化되는 때가 잇슬 것 가트면 - 換言하면 萬一 將來에 民族意識으로부터 政治的 意味가 除去되야 民族文化가 純粹하게 隣保的 感情이라든지 鄉土的 精神에 依하야 結附된 一定 地域上의 民衆의 全生活에서 流露하는 것이 되는 時期가 잇슬 것 가트면 - 그것은 支配 被支配의 關係에(49) 立*되어 잇는 人間의 社會生活의 根本原理上에 徹底的 變革이 일어난 後가 아니면 안될 것이다.

上述한 바와 가티 民族文化는 반드시 一定한 地域上의 民衆의 全生活에서 必然的으로 流露된 것이 아니오 그 民族의 支配階級の 創作과 宣傳의 結果로서 形作된 部分도 決코 적지 안타는 事實에서 온 當然한 結果로 一民族內의 支配階級이 變해 갈 때마다 그 民族文化의 重要的 特徵도 또한 그에 伴하야 變해가는 것은 歷史上 흔히 實例를 보는 바이다. 民族을 한 個의 共同文化團體로 볼 때 吾人은 決코 이 點을 無視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치마는 지금 내게는 이 點을 詳述할 餘暇가 업다. 다만 나는 붓때를 잡은 김에 내가 아는 範圍內에서는

우에 한번 引用한 바의 하인리-스회, 쿠노의 近著요 好著인 「맑쓰의 歷史, 社會 及 國家學說」中에 그에 關한 가장 要領을 得한 論證이 記載되어 있는 것을 附加해 두고 싶다. 譯者-略

要컨대 民族은 한 개의 共同文化團體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다만 그것을 끈히지 안코 形成과 變遷의 過程上에 있는 것이라는 意味에 잇서서만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民族國家思想의 概念

一民族이 一國家을 形成해야 된다는 것을 要求하는 所謂 民族國家思想이 近世史의 方向을 決定하는데 有力하게 働作한 諸要素中の 하나이었던 것은 임이 論述하였다. 그러나 이 意味에 잇는 民族國家思想은 他民族의 國家的 支配下에 繫縛되어 잇는 바의 所謂 被抑壓民族이 政治的 解放運動을 企圖하는데 잇서서만 가장 힘잇는 作用을 示現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抑壓民族이 一旦 그 政治的 解放에 成功해서 제 스스로 一個 獨立한 民族國家를 形成하고 그래서 제가 그 國家內의 支配的 權力的 中心點이 된 以上에는 이러한 民族은 忽然히 從前의 態度를 一變하여 인제는 自民族의 손으로 他民族을 抑壓하기 爲하여 그 支配的 權力을 行使하게 되는 傾向을 빠지게 된다. 그것은 적어도 두 가지 方向으로 向하여 作用한다. 곳이 民族은 一方에 잇서서는 自國內에 包含되어 잇는 다른 弱小諸民族을 抑壓하기를 圖謀함과 同時에 他方에 잇서서는 他諸國家를 構성한 諸民族에 對하여 敵對性을 表示한다.

그러나 이 敵對性은 單히 戰爭形式으로써 表現할 뿐만 아니라, 平時의 外交關係上에 잇서서는 同盟이나 協商이라는 平和的 形式으로써 現出되는 일까지도 있다. 그러치마는 戰爭이라는 것이나, 同盟이라지,(50) 協商이라는 것도 畢竟 各民族의 生存表現慾에서 流出되는 것임으로 그들은 同體의 二相이라고도 할 수 잇는 것이요, 또 그것은 相互로 表裡의 關係를 일운 것 이라고도 볼 수 잇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外交의 結果가 戰爭이다」라든지 「對外交渉의 成功, 不成功은 그 當事者의 戰爭能力의 多少에 달닌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가튼 일은 一般에게 널리 慣用되는 套語가 되게 된 것이다.

또 一國家의 支配的 權力的 中心을 일우는 優強民族이 自國內의 弱小民族에 對할 때에는 반드시 抑壓으로써 始終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흔히 思情主義的 政策이라든가, 協調主義政策 가튼 것을 行使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一民族內의 支配階級이 他諸階級에게 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恒常 반드시 所謂 同化政策 - 婚姻政策이나, 教育 及 言語의 強制的 普及政策과 가튼 것을 通해서의 - 을 行使하는 것이 常例이다. 그것은 이와 가튼 原因에서 나오는 것이다. 곳 第一에는 民族이나, 國家라는 것은 그를 他民族이나 國家에 對立케 하는 데 잇서서 가장 有效하게 그 內部에 잇는 民族意識이나, 國家意識을 튼튼케 할 수가 잇는 까닭이다. 또 第二에는 民族이라는 것이 戰爭 及 征服, 또 그에 續한 社會的 同化作用을 通해서 漸次로 抱合融和된 만흔 異種族에게서 混成된다는 過程의 連續으로 만흔 異民族도 또 同様の 經路에 依하여 長久한 歲月이 經過하는 동안에는 一民族인 것과 가티 形成되는 일도 可能的 까닭이다. 적어도 古來의 歷史上에는 그러한 實例가 數없이 잇는 것을 보아왔다. 民族概念이 一種의 流動概念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대서부터 생긴 것이다. 다만 近代에 잇서서는 各民族의 民族意識이 非常히 明確하게 되게 發達해 온 까닭으로 그러한 일이 이보다 더 引續하여 行해질 可能性이 거의 絶無라고 하게 되기까지 減退된 것은 事實으로써 認定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近代史上에 잇서서 重要的 職責을 任務해온 民族國家思想은 오늘날에 일으 기까지 어데를 가든지 아주 完全하게 事實으로써 現出되어 잇는 것을 볼 수 업는 것이다. 그래

서 오늘날에 있어서 그 國內의 民族關係가 比較的 單純하다고 말하는 國家에서도 그 內部에는 적어도 二,三民族이 반드시 抱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今日의 大國家가 大概是 다 제각기 만커다 적거나 自國內의 民族問題에 괴롭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러원 **있어서 世界大戰의 收穫의(51) 하나로서 現出된 「新民族國家」라고 稱하는 폴란드라거나 체코 슬로박크라거나 유고슬라비아, 가튼 것도 決코 純粹한 民族國家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오늘날의 狀況에서 一國家內的 一民族이 다른 모든 民族에 比하여 懸隔한 優勝的 勢力을 有하는 境遇에서만 그러한 國家가 完全한 民族國家의 型에 比較的 가까운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또한 말하고 싶은 것은 「民族主義」라거나 「國民主義」라는 말에 關해서 一般히 受容하는 用語에 關해서다. 一民族이 他民族 또 諸民族의 國家的 支配로부터 解放되려는 要求은 普通 「民族主義」라는 일함으로써 表示되고 있지만은 이에 反하여 一國家內的 優勝的地位를 占하고 있는 一民族이 一方에 있어서는 自國內의 弱小民族에게 對하여 抑壓 또는 同化政策을 行하고 他方에 있어서는 他民族 及 諸國家에 對하여 各樣의 形式으로 敵對性을 發揮함에 依하여 獨立民族國家로서의 生存表現慾을 填充하기에 努力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 努力의 指導原理는 普通 「國民主義」라고 일운다. 이러한 일은 他民族의 支配下에 있는 民族이 普通 單純히 「民族」이라고 불리우고 임이 一國家를 形成하고 있거나 또는 一國家內的 優勝的 勢力의 中心을 成하고 있는 民族이 「國家을 일우고 있는 民族」이라는 意味로 「國民」이라고 일운는 데서 온 것이다. 그러치만은 이 點에 있어서 우리가 注意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은 通俗的 用語例에 있어서는 내순이라는 用語가 本國에서 흔히 아주 放漫하게 使用되는 것과 가티 그 譯語인 「國民」이라는 말도 또 日本에 있어서 極히 不注意하게 使用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日本에 있어서는 一國家內的 統治權의 客體인 總員을 集合의으로 表示하는 바의 Staatsvolk라는 獨逸語의 譯語로 「國民」이라는 말이 쓰여지는 境遇가 甚히 많다. 우리가 「民族」이라든지 「國民」이라는 말을 使用할 때는 미리 이 모든 點을 辨別할 用意를 가지고 착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階級 及 民族問題의 將來

現代의 各國家의 對內 及 對外 政治上에 있어서 가장 重大한 職責을 任務하는 모든 要素는 지금에 있어 民族關係와 階級關係다. 이 兩者는 現代世界의 政治現象 中에서 때로는 서로 並行하고 때로는 서로 交錯하고 있음으로 그 때문에 政治의 局面을 非常히 複雜하게 만들었다. 그들 가운데 政治的 要素로서의 階級關係에(52) 關해서는 내가 오늘날까지 發表해 온 諸論文에서 임이 여러번 論해 온 바임으로 本書에 있어서는 내가 오늘날까지에 比較的 充分히 取扱할 機會를 가지지 못한 民族關係의 階級關係에 交渉이 있는 方面에 對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要點만이라도 들기를 努力해 온 터이다. 이 以上の 詳論은 他日을 期하여 試驗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本書에서 幾分 그 缺陷을 補足하려는 意味로, 이 點에 關한 쿠노-의 論述의 譯文을 卷末에 「補論」으로 記載했다. 그러치만은 나는 일로부터 本書에 最好의 結論을 하기爲하여 必要한 範圍內에서만 現代의 資本國家下에 在한 階級과 民族과의 關係의 現在 及 將來에 就해서 지금 좀더 論述을 繼續하려고 한다.

말할 것도 업시 現代의 各資本國家에 在한 支配階級은 概括의으로 말하면 資本階級이다. 그런데 現代의 各資本國家內에 在한 支配階級은 從來의 各民族階級內에 在한 支配와 同樣으로 民族意識 또는 그 高度로 發達한 形式인 國民主義를 依然히 自階級の 存續을 爲해서든지 또

그 利益을 爲해서 各樣으로 利用하기를 繼續하고 있다. 民族意識이 現代의 各大國家에 잇서서는 國民主義의 形式으로 主權의 概念과 結附함으로 말미아마 漸漸 만히 政治的 意味를 添加해 가는 傾向이 잇는 것은 全히 그 때문이다.

各資本國家內에 在한 資本階級은 政治的 意味에 잇서서는 支配階級인 同時에 經濟的 意味에 잇서서는 搾取階級이다. 이 點에 關係서도 또 過去의 各民族內 또는 各國家內 支配階級과 그 性質이 가튼 것이다. 다만 그것은 그 性質에 잇서서 그 働作의 規模를 無限히 擴大하고 또는 表現를 非常히 變化케 하고 잇는 點에서 幾分の 相異를 表示하고 잇을 따름이다. 卽 現代의 資本國內에 在한 資本階級은 그 支配階級으로서의 存續을 爲하야 一方에 잇서서는 自國內에 잇는 被支配階級の 全體에 向하야 經濟的 搾取를 行할 必要를 感할 뿐만 아니라 他方에 잇서서는 世界의 各部에 散布되어 잇는 다른 모든 國家와 모든 民族에 對해서도 또 할 수 잇는 대로 그 經濟的 搾取의 길을 넓히기를 努力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一方에 잇서서는 資本主義 그 自體의 發達이 었던 意味에서 國際的 連帶感情을 暗暗裡에 進行함으로 말미아마 적어도 政治的 意味에 在한 民族主義 또는 國民主義를 減退케 하는 方向으로 움죽여감에 不拘하고 資本階級은 지금도 오히려 依然히 民族意識 또는 國民主義와 絶緣하지를 못할 뿐 아니라 各樣의 形式으로 漸漸 그것을 高潮해 가는 傾向까지 表示하고(53) 잇는 것이다.

現代의 資本主義的 帝國主義가 國民主義의 基礎에 建築되어 잇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그것은 政治的 意味에 在한 民族意識의 極度の 利用이다. 그뿐만 아니라 搾取階級으로서의 資本階級과 被搾取階級으로서의 被支配階級과는 經濟的으로는 依然 相反한 利害關係우에서 잇지마는 彼等은 할 수 잇는 대로 이 利害關係의 相反性을 隱蔽하기 爲해서도 漸漸 對外的 敵對性에 立脚한 國民主義를 強調할 必要를 感하는 것이다. 國內에 在한 社會問題의 紛糾를 緩和하기 爲하야 自國民의 注意를 對外問題에 向케 하는 것 가튼 일은 現代 各資本國家의 現實政治家의 慣用手段인 것은 이 또한 一般이 잘 아는 바이다.

이래서 政治的 意味에 在한 民族意識과 그에 立脚되어 잇는 國民主義는 지금도 오히려 依然히 世界政治上에 戰爭의 脅威를 가지고 君臨하고 있다. 疑心할 것 업시 民族意識은 그 政治的 意味를 떠나더라도 成立할 수 잇다는 것은 事實이다. 적드래도 人間生活上에 地方色이라든지 隣保感情이라든지 鄉土的 精神이라는 것이 存續할 餘地가 잇는 限에서는 어느 意味에 잇는 民族意識은 언제까지든지 人間生活上에 지어버릴 수 업는 것이다. 그래서 이 感情的 諸要素는 생각컨대 人間生活과 가티 永遠히 存立해 갈는지 모를 것임으로 따라서 그들 우에 立脚케 되는 一種의 民族意識도 또 永久히 人間生活에 附隨되어갈 것이 아닌가 생각해진다. 이러한 意味에 在한 民族意識은 全人類生活에 向하야 幸福케 하는 일은 잇슬지라도 그 위에 禍亂을 釀成케 하는 것 가튼 脅威가 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치마는 이러한 意味에 잇는 民族意識은 오늘날에 잇서서는 어데를 가든지 아주 充分히 發現될 機會를 가지지 못하였다. 아니 오늘날에 잇서서는 었던 편을 向해보든지 民族意識은 各民族內 또는 各國家內의 支配階級에 依하야 多分の 政治的 意味가 附加되고 있다. 그런데 民族意識에 적어도 政治的 意味가 添加되어 잇는 동안에는 그는 인제 할 것 업시 戰爭을 挑發할 危險性을 必然的으로 伴하고 잇게 되는 것도 最初부터 反復하야 論述해온 바이다. 더욱이 그것이 國民主義의 形式에까지 發達하게 하면 그는 世界上에 絶大한 禍亂의 脅威를 永久히 걸려잇는 것과 가튼 것이다.

現在의 國際政治上의 舞臺上에 잇서서 佛蘭西의 國民主義가 가장 怪惡한 軍國主義色彩를 發揮하고 잇는 것은 우리가 目下 現在 獨逸의 賠償問題에 對해서 同國이(54) 取하는 態度를 通

하야 넘우나 露骨的으로 暴露되어 잇는 바가 아닌가. 世界의 平和愛護者는 지금 그 압해 戰慄한다. 英國의 前 首相이 그의 最近 發表한 論文「民族的 自由로」에서 이 點에 關해서 佛蘭西의 政治家들을 彈劾한 痛烈한 文字는 우리에게 對해서 無限히 興味가 잇는 것이다. 그것은 그 著者인 로이드 조지의 顯著한 政治的 經歷때문이라는 것보다는 찰아리 그도 또 佛蘭西의 이 態度的 遠因을 釀成한 벨사이유條約의 作成者의 한사람이었다는 事實에서다. 그래서 그도 이 獅子吼는 同時에 그의 悔恨의 聲으로도 들리는 것이다. 다만 그의 所謂「民族的 自由」는 얼마나 그 政治的 意味를 脫却한 것인가는 그것은 우리에게 잇서서 한 개의 疑問이다. 우리는 그가 眞正한 世界平和의 使徒로서 부르즈줄 수 잇기 爲해서는 아즉도 멀리 그 思想上에 進步할 餘地가 잇는 것을 생각해 하는 것이다.

結論

人類의 社會生活을 戰爭이 行해지는 것을 常態로 한 現在의 世界에서 戰爭이 업는 未來의 永久平和의 世界로 넘어가리만치 그만큼도 根本的인 變化-또는 내가 위에서 表示한 意味의「動的 變化의-가 일어나는 날이 우리의 時代에서든지 또는 다음 世代에서든지 엇갯든 갓가운 또는 먼 將來에 잇서서 한번은 到來할 것인가? 이러한 問題에 對해서 한 개의 明確한 答案을 하려는 冒險을 試驗하는 것은 極端의 空想家 以外에는 아마 한사람도 업슬 것이다. 그러치마는 萬若 그러한 날이 한번은 到來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라고 할 때 人類는 그 압해 이 政治的 意味에 在한 民族意識과 그 高度로 發達한 形式인 國民主義를 根本的으로 世界의 맞게 一掃해버릴 날을 가지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永久平和를 憧憬하는 사람들은 暫間 그 未來의 유토피아를 그리는 煩勞를-또는 慰樂을-그치고 現實의 問題에 面接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 아닌가, 적어도 그들은 이러한 問題가 꺾나는 날까지는「戰爭을 終熄시키는 戰爭」이라는 標語는 所謂「愚人之 誇라다이쓰」에 屬하는 것임을 眞實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無限의 過去에서 現在의 瞬間에 일으키까지 한 개의 戰爭은 다른 戰爭의 種子를 播殖해온 것이지만은 그러나 戰爭이 戰爭을 決定的으로 終熄케 하는 것 가튼 일은 일즉이 한번도 例가 업섯든 것이다. 그러한 것이 戰爭의 性質이다. 적어도 社會進化의 過程上에 지금 한번「動的 變化」를 惹起할만한 社會的(55) 原因이 새로히 생기지 안는 限에서는 그러한 일은 아마 언제까지든지 戰爭의 性質로서 存續할 것이다. 왜 그러나하면 아즉 한번도 例가 업든 일을 생기게 함에는 그를 促成할 만한 特別한 原因이 새로히 附加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라는 일쯤은 社會進化의 性質에 關한 理解로서가 아니라도 다만 單히 一片의 常識으로도 누구든지 容易하게 認知할 수 잇는 일인 까닭이다.

그러면 그 特殊한 社會的 原因이란 무엇이나 하면 그것은 支配階級 對 被支配階級이든지 搾取階級 對 被搾取階級과 가튼 階級的 差別이 國家生活로부터 全然 除去되는 일이다. 그것이 自然的 原因으로든지 다만 人爲的 原因으로든지 엇갯든 國家生活로부터 消去되는 일이다. 萬若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안코 依然히 國家生活上에 이 階級的 意味에 在한 民族意識과 國民主義를 際限업시 利用해 가는 것은 免치 못할 運命이다. 그것은 社會生活上에 動作하는 一種의「自然法則의 動作의 結果라고도 할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인터내셔널리즘이「國民主義」에 對해서 反抗의 態度를 나타내고 잇는 것은 實은 이 政治的 意味에 在한 民族意識과 國民主義에 反對하고 잇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인터내셔널리즘의 理想의 完全한 實現의 압해 階級的 差別撤廢要求를 들고 잇는 것은 論理的으로도 바른 것이라 말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다만 그 要求가 貫徹될 날이 잇슬가 업슬가? 그리고 萬若 이것이 貫徹될

날이 잇다고 할 것 가트면 그것은 엇더한 經路를 지나서 엇더한 形式으로 現出될 것인가. 이와 가튼 問題는 여기서 내가 解決할 수가 업는 問題도 되고 도 解決을 企圖할 必要도 업는 問題다.

나는 여기서는 다만 資本階級과 恒常 政治的 意味에 在한 民族意識과 國民主義를 強調하기를 熱心으로 함에 不拘하고 그와 逆行하는 傾向이 잇는 一種의 國際的 連帶感情이라고도 할 수 잇는 것이 資本主義 그것의 發達の 當然히 到着點으로서도 임이 적드래도 그 萌芽를 表示하고 잇는 일을 附加해 두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政治的 意味 以外의 民族族 意識이 반드시 이 國際的 連帶感情과 矛盾되는 必然性을 가지고 잇지 안는 것임을 나는 임이 簡單하게 論述해 둔 바이다. (끝) (56)

<48-56>

25.

잡지명: 개벽 제57호

발행년월일: 1925년 03월 01일

기사제목: 民族感情의 心理와 그 社會的 意義

필자: 長谷川如是閑 著, 淸進學人 譯 장곡천여시한 저, 청진학인 역

기사형태: 논설

民族感情의 心理와 그 社會的 意義 (민족감정의 심리와 그 사회적 의의)

長谷川如是閑 著, 淸進學人 譯

民族의 싸힘은 相異한 種族間의 感情의 不和에서 일어 난다고 말한다. 이 感情의 基礎를 일우는 것을 普通 民族感情이라고 불너 온다. 곳 한 種族間에는 共通한 感情이 잇고 그래서 全 種族的의 行動은 이 感情에 基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相異한 種族은 이 感情의 差異 우에서 서로 싸호는 것이라고 말한다.

所謂 國民主義者는 盲目的으로 이 感情에 隸屬해서 이를 生活의 偶像으로 하여 그를 疑心할 能力이 發生하는 것을 非常히 두려워 한다. 所謂 民族感情은 彼等에게 잇서서는 神聖不可侵의 心境이다. 그럼으로 이 感情의 興奮은 곳 民族運動의 信條가 되고 道德이 되고 絶對的 權威가 된다. 엇지하여 그러한 感情이 생기일가를 알려고 하지 안는다. 따라서 그 感情이 民族生存 上에 또 人類 共存 上에 엇더한 動作을 하는 것인지를 알려고 하지 아니한다. 興奮한 感情 그것이 絶對요 그것만이 民族的 生活에 잇서서 實現해야 될 人間的 生存의 眞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民族運動의 여러 곳에서 現出된 事實이다. 따라서 歷史家도 이 感情의 立地에 잇서서만 民族的 運動을 理解하려고 한다. 道德家도 哲學者도 그 感情 그것을 自明의 理로 하여 그 곳에서 出發하려고 한다. 實際 政治家도 이 感情이 엇더한 神秘的인 支配를 行한 것을 是認하여 오죽 그곳에 隸屬한다. 豊太閣의 朝鮮征伐은 日本國民의 이와 갓튼 感情의 興奮과 그를 體得하여 實現케 하려든 太閣 自身の 興奮에 그를 돌너서 畢竟 그 感情으로 朝鮮征伐이라는 事件의 理解가 일워진 줄로 생각한다. 나폴레온의 歐洲 統一도 佛國의 民族的 精神의 興奮과

이를 發動케 할 만한 힘을<15> 가진 나폴레옹의 能力이 實現한 歷史的 事實이라고 생각한다. 要컨대 民族的 感情을 偶像視하고 그를 自明의 理로써 信仰하는 것이다.

哲學者도 倫理學者도 이 感情의 興奮에 對하여서는 批判의 能力을 일러 버린다. 彼等에게 잇서서는 그 感情 그 自體가 絶對로 眞이다. 彼等은 興奮한 處女와 갓티 그 感情에 잇서서는 늘 倫理的과 哲學的 睿智를 喪失한다. 이 모든 睿知는 이 압해서는 奴隸다. 民族的 感情을 傷處 내는 것은 모든 眞理를 落第식히기에 足한 것이다. 同時에 民族的 感情에 貢獻하는 일은 온갖 것을 「眞」으로 맨든다. 彼等 中の 或者는 境遇에 잇서서는 이 傳統을 깨트리려고 한다. 그러치마는 民族에 나타난 感情을 보게되면 彼等은 곧 그 事實에 降服한다. 그래서 彼等은 이 움죽일 수 업는 일은 民族的 感情이라는 專制君主 神聖不可犯侵의 權能에서 나온 것으로 밋어서 그에 隸屬해 버린다. 맞치 古代 끼리시아民과 古代 日本人이 神話를 絶對로 信仰하던 것과 갓튼 態度다. 實상 神話는 民族的 感情의 代辯이었다. 宇佐八幡의 神話는 日本의 民族的 感情이 僭王 許치 아니한 일을 代辯했든 것이다. 이와 갓치 民族的 感情은 無智한 古代民도 睿智의인 近代人까지도 盲目的으로 服從케 한 것이다.

2

民族感情이 이와 가티 專制君主의 權威를 振揚하는 것은 畢竟 必然한 理由를 가진 것이다. 元來 感情은 그 感情 所有者에게 잇서서는 絶對다. 그것은 個的이오 具象的이오 決코 普遍的 이 아니오 또 抽象的은 아니다. 個人의 境遇에 잇서서는 感情은 全히 個性의 特殊性을 갖추은 것이어서 甲의 感情은 決코 乙의 感情은 될 수 업는 것이다. 그래서 各人은 그 自己 特有한 感情의 우에 서서 意志하고 行動한다. 個人心理를 個的으로 보면 全然히 그러케 解釋할 수 맞게 업는 것이다. 그런데 民族感情이란 것은 엇더한 一 民族의 共通한 感情이오 感情生活이 個人에게서와 가튼 個的 性質을 일러 버리고 普遍的 性質을 가지게 된다. 그럼으로 지금까지 個人心理의 研究만이 發達한 狀況 아래서는 民族의 感情이란 것은 아주 本質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 今日도 아즉 集團의 心理의 性質이 充分히 一致한 見解를 엇기까지에 研究되지 아니 하엿다. 그러나 個人心理를 全然히 個的으로 본다는 것은 임이 不可能하게 되어간다.<16> 내가 엇더케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내 一個의 「本質」上에 서서 思考하는 줄로 밋고 잇섯지마는 實상은 그러치 아니 하여 내가 엇더케 생각하느냐는 것은 나의 社會的 環境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가장 本質的으로 個的이라고 생각하든 先天的 特性이란 것까지도 要컨대 우리들이 祖先의 生活에서 經驗한 環境에 對한 順應法이 우리들에게 遺傳한데 不過한 것이다. 理智도 感情도 意志도 모다 우리들의 社會的 生存上에 생긴 心理狀態요 決코 孤立한 것은 아니다. 다만 理智와 感情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誤謬도 疾病도 또한 社會的이다. 옳케 생각하는 일이 個的으로는 될 수 업는 것과 가티 잘못도 또한 單猶◆의 것은 아니다. 全 社會가 잘못 될 때에는 個人도 잘못 된다. 個人이 잘못 되는 때에는 全 社會에 同様の 잘못이 잇다. 如何히 奇拔한 哲學 또는 誤謬라도 決코 그 個人만의 現象은 아니다. 要컨대 釋迦든지 孔子든지 孟子든지 耶蘇라도 그들이 생각한 일은 社會人이 一定한 程度로 생각했든 것이다. 그럼으로 宗教의 普遍性은 彼等 開祖의 생각이 個的으로 힘이 強했든 때문이 아니오 社會的으로 普遍的이엇기 까닭이다. 그래 여긔서 感情도 個的 特徵을 有하면서 社會的 性質에 依하여 살아 잇는 것이다. 民族的 感情은 한 個의 民族의 社會的 環境이 產出한 共通한 心理다. 그것은 實로 個人 個人의 感情이다. 다만 個人이 同一 社會的 環境에 잇는 까닭으로 同一感情을 가지게 되고 또 다시 同一感情이 彼等을 民族的으로 結附케 하는 것이다. 모든 民族的 感情, 例하면 大和魂과 갓튼 것이 客觀的으로 우리의 頭

上에 太陽과 가티 儼存해 인서서 우리를 支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甲과 乙이 同一한 社會的 環境에 있는 때문에 거기에 共通感情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感情의 心理的 特徵은 前에 말한 것과 가티 個人을 絶對적으로 支配하는데 있다. 理智도 그 感情의 處地가 그것을 容認하지 아니하면 何等의 理智의 支配를 個人에게 行使할 수는 없는 것이다. 感情이 興奮하면 다른 모든 心理的 生活을 抑壓하고 또 排除하는 일도 있다. 味覺도 視覺도 觸覺도 聽覺도 感情을 條件으로 하여 비로소 動作할 수 있는 것이다. 感情이 맞아 드리지 아니하면 美味도 美音도 何等의 效果가 없다. 그만큼 힘이 강한 것은 그것이 個的인 境遇보다도 共通的인 것 같으면 一層 힘이 강케 되는 것이다. 同情同感이라는 것이 一層 感情을 闊세계 하는 活動을 하는 것도 그 理由다. 民族의 感情은 이 同感의 作用이다. 그것이 絶對的 權威를 振揚하는 것은 찰아리 必然한 일이다.<17>

3

民族의 感情이 絶對적으로 動作한다는 일은 그 때문에 個人 및 社會의 歷史 上에서 움죽일 수 없는 事實이지마는 그러나 이 움죽일 수 없는 事實이 社會進化 上에서 아주 固定해 있는 나 하면 그런 것은 決코 아니다. 움죽일 수 없는 事實의 실상은 움죽이고 있는 것이다. 밧구아 말하면 感情의 生活이 漸次로 變化해 간다는 것이 人類進化上에서 明確하게 觀察된다.

感情의 生活이란 엇더한 生活이나 하면 人間의 生活 우에서 次第로 發達해 온 다른 心理的 能力을 排除하는 心理生活인데 例하면 理知가 漸漸 發達해 왓슴에 不拘하고 感情은 어데까지 든지 그 理智를 排斥하려고 한다. 또 生存에 必要한 여러 가지 能力 例하면 害物을 두려워하는 恐怖의 心理와 갖튼 것도 또한 感情이 그것을 壓迫한다. 懦怯한 女人도 感情이 興奮되면 소(牛)의 刻參을 한다. 그 一面에 感情은 또 다른 生存能力, 例하면 冒險의 心理와 갖튼 것은 맞치 恐怖를 壓迫하는 것 갖치 壓迫한다. 무서워 하지 아니해도 조홀 일을 두렵게 한다. 萎縮하지 아니해도 조홀 일에 對해서 萎縮케 한다. 이것을 한 말로 하면 感情은 後發的 生活能力을 排除하려는 活動이다. 後發的 能力이란 本能的은 아니오 經驗的 能力인 故로 그와 反對하는 感情은 곧 本能的인 것이라고 말 수 있다. 感情은 필경 먼 祖先의 - 先天的이란 말로써 表示하리만치 먼 - 或은 人間 以前의 先祖의 生活經驗의 反覆이다. 이 反覆에는 後의 生活經驗의 힘이 석겨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닛까 先天的이라고 말해 지는 것이다. 感情은 이 意味의 心的 態度인데 後의 經驗을 排除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後의 經驗을 맞아 드리지 못하는 動物일수록 本能이 强하다. 人間의 生活은 後天的 經驗이 依하여 先天的 本能을 調節해 가는 過程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過程을 가지지 못하는 動物일수록 本能은 强하다. 要컨데 人間의 生活過程에 잇서서는 本能은 經驗에 依하여 漸次로 制限되어 가는 것이다.

感情은 本能的인 때문에 亦是 漸次로 調節되고 制限되는 性質을 가진 것이다. 發達의 程度가 低級한 人間 곧 野蠻人에게 잇서서는 感情은 絶對이다. 그것은 後의 經驗 곧 睿智가 그것을 制限하는 程度가 微弱한 까닭이다. 이와 갖튼 일은 어린애와 精神病者에게서 發見할 수가 있다. 어린애의 心理와 野蠻人의 心理의 近似는 精神分拆學者와 其他의<18> 研究해 있는 바와 갖지마는 그것은 어느 것이나 다 어느 點에 잇서서 精神病의 心理에 더 갖가운 것이다. 오즉 感情의 生活에만이 아니라 野戀人과 小兒와 精神病者는 心理的으로 共通한 點을 만히 가지고 있다. 眞히 研究할 것도 업시 彼等の 行動만을 보드래도 그것은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무(木)와 돌(石)에 生命을 주고 人格을 주고 그와 말하고 그를 眞별하고 非難하고 崇拜하는 일은 精神病者 野戀人 小兒에게 잇서서 共通하다. 이 事實은 感情의 生活에 잇서 野戀人 小兒 精神病者 등이 서로 類似한 點을 表示하는 것인지만은 그 理由는 卽 彼等の 生活이 더 만

히 本能에 支配 되어 있는 때문이다.

感情의 生活은 그 까닭으로 本能的이다. 民族的 感情의 生活도 그 까닭으로 本能的이라고 하면 그 힘이 강한 것은 生活程度가 低劣할 수록 強하게 한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事實이 또한 그러하다. 文明의 程度가 나을 수록 民族感情은 強하고 게다가 그 강한 품은 전혀 非睿智로 生活經驗의 後天的 所得을 排除하는 것이 자못 強烈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즉 盲目的 일 수록 강한 것이다.

4

民族感情은 이와 가티 本能的인 까닭에 後天的의 生活經驗은 排除 되고 盲目的인 感情으로서 發揚되는 것이나 그러나 무릇 엇더한 本能이라도 전혀 後의 生活經驗에 禍가 미치는 때에는 決코 永久히 그 힘을 保持할 理가 업는 것이다. 밋구아 말하면 本能은 原始的 生活에 必要하든가 가티 後의 發達한 生活에 잇서서도 必要한 社會的 作用을 하는 것이다. 本能은 生活을 움직여 내는 行動의 反覆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러한 行動은 野蠻人에게 必要한 것과 가티 文明人에게도 必要한 것이다. 文明이 進展함에 따라서 本能의 活動은 制限되는 것이지만은 그런데도 이 本能의 抑壓의 넘우 甚烈하게 되면 本能이 謀叛을 일으킨다. 文明行程의 終局은 本能의 謀叛에 依하여 復活하는 것이다. 그것은 필경 文明의 生活이 人間의 生活에 업스면 안 될 本能作用까지 壓迫함으로 그 壓迫을 本能이 쫓차 내려고 하는 것이다. 本能은 生活의 根本動力이다. 文明은 갓닥하면 이 本能動力은 抑壓하게 된다. 여긔서 頽廢가 일이 난다. 頽廢는 本能의 謀叛이다. 그래서 原始的이 되고 또 다시 새로운 時代를 初步로부터 비롯하려고 働作하는 것이다. 文明이 頂點에 達하면<19> 이 初步의 野蠻性이 일이 난다. 이것은 世紀末의 現象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本能에 基本한 生活은 반드시 어느 程度에 잇서서 有力한 生活過程을 끄러내 온다. 一個人에 잇서도 큰 일은 어느 程度까지 感情의 興奮을 件한다. 感情이 업서저서는 人間의 動은 成立되지 안는다. 民族的 感情의 旺感한 때는 그 民族이 勃興時代다. 오는 날까지의 歷史에 잇서 이 民族的 感情은 決코 一樣의 強度로 働作하지는 아니하였다. 民族勃興의 時期에는 民族感情이 반드시 盛히 일어난다. 歷史家가 近代國家의 初期를 가르쳐서 民族國家의 勃興時代라고 하는 것 갓튼 것이 그 一例다.

그러나 本能的 民族感情이 언제든지 반드시 民族的 生活을 생케 해야 가는 것은 아니다. 現今 近代의 國家의 勃興을 民族國家의 勃興이라고 하는 것으로써 알려지는 것 가티 中世紀에 잇서서는 民族感情이 반드시 盛했든 것은 아니었다. 歐洲에 잇서서 그 時代는 宗教觀念에 基本한 世界國家의 思想이 支配했든 것이오 民族感情은 世界感情에 依하여 抑壓 되었든 것과 갓했다. 當時는 世界感情이 아니면 鄉土感情이오 民族感情은 近世의 初期에 일으려서 漸次로 勃興한 것이다. 이와 가티 本能이 때로는 強烈하게 活動하고 때로는 微弱하게 働作한다는 것은 무스 까닭이나 하면 그것은 卽 本能이라고 할지라도 그때의 生活經驗에 依하여 働作하기도 하고 休息도 하는 것인데 곳 生活을 살녀 가는 作用으로 喚覺 되었을 때에는 強하게 働作하고 그러치 아니 한 境遇에는 休息하는 것이다. 한 말에 말하면 本能은 한 개의 潛勢力으로서 때때의 生活의 必然 때문에 働作하는 것이다. 民族的 感情도 近代의 初期에 그것이 旺感해졌다는 것은 宗教的 統一과 封建의 割劇가 다 가티 生活을 살녀 가는 組織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文化에 依한 組織이 새로운 生活의 發展을 導出하지 아니 하면 안되게 된 때문에 한 개의 集團의 形式으로서의 民族關係가 民族感情이 되어 깨닫게 된 것이다. 日本에서도 封建의 割劇가 生活의 進化에 伴하는 組織이 못 되어서 비로소 德川末期의 強烈하 民族的 精神이

發興한 것이다. 日本에 있어서서는 歐洲의 基督教精神 곧 所謂 世界國의 思想은 儒敎에 依한 中華의 思想이 그를 代表했든 것이다. 이 儒敎에 依한 心的 統一—日本이 支那에 對한 心的 隸屬 — 도 他 一方의 封建의 小分立과 共히 日本의 生活의 進化에 順應 할 수가 없게 되어 서 비로소 民族的 精神이 發興하고 維新 及 그 後의 民族國家의 勃興이 된 것이다. 이것은 歐洲에서 中世紀에부터 近世에 推移한 過程을 日本이 늦게 踏襲한 터이다. 그러면 民族感情은 生活進化의 感情이<20> 그를 要求하는 때에 喚覺 되는 것이오 이를 要求하지 않는 때에는 休息해 지게 되는 것이다.

生活進化의 過程이 었던 感情의 覺醒을 要求한다는 일은 卽 感情 그 自體의 社會的 性質을 說明하는 것이다. 었더한 사람들은 感情의 本質은 個人的 特性에 잇고 個的 絶對에 잇다고 생각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前述한 비와도 가티 感情은 個體의 社會的 環境이 그를 決定하는 것이다. 一定한 感情을 었던 社會群이 普遍的으로 具有한다는 것은 그 社會群의 生活에 그러한 意識이 임이 要求되고 그에 依하여 生活의 方向을 決定하는 것이 生存의 必然한 傾向인 까닭이다. 生活能力을 가진 者는 同時에 死를 두려워 하고 積極的으로 살려고 한다. 필경은 그러한 心情을 가지지 아니치 못하게 된 것이다. 民族感情도 그 民族의 生存이 그러한 心情을 가짐에 依하여 發展하는 境遇에 彼等의 意識에 覺醒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 生存의 可能이라는 것을 제쳐 노코는 民族感情을 들추어 내세우는 社會的 理由는 업는 것이다. 民族 그 自體가 絶對로 尊貴하다든지 따라서 었더한 때 었더한 場所라도 가장 強烈한 形態로 그것을 發揮하지 아니 하면 안 된다거나 온갖 것은 이 民族感情이 許하는 範圍에 存在한다거나 學問도 思想도 民族感情을 害치는 것은 絶對로 排斥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生存過程의 한개의 心情인 바의 民族感情을 生存過程 그것보다도 尊重하다는 心理로 전혀 顛倒的이다. 그것은 目的地에 達하기 爲한 自働車든지 汽車 갖흔 것을 自的地에 達하는 일보다도 尊重해서 自働車와 汽車를 本位로 하여 目的地를 決定하는 것과 同一한 것이다. 日本의 어느 階級의 가진 民族感情은 이와 가티 興奮하고 이와 갖흔 發達를 要求하는—例하면 아시아統一—까닭으로 日本國民은 아시아를 統一하고 다시 그 感情이 興奮하여 世界統一이 要抱◆되면 世界를 統一하지 아니하면 안 되겟다는 것을 往往히 絶叫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生活의 氣分에 醉하여 生活을 이저 버린 것이다. 興奮하기 爲하여 마신 술 때문에 醉하고 自己가 무슨 까닭으로 그 술을 먹은 것을 이저 버리고 술 때문에 混亂한 心情에 生活을 隸屬케 하는 것이다. 술은 元來 生活을 힘이 긋게 하기 爲한 興奮劑이다. 그에 醉하여 헛개비를 따르게 되어서는 興奮劑는 도로혀 魔醉劑가 되고 그에 基本한 生活行動은 따라서 錯亂的이 된다. 民族的 感情은 生活을 興奮케 하는 心情이지만은 그것이 興奮의 度を 넘어서면 도로혀 生活을 癡痺케 하고 健實한 生活이 理解와 判斷을 일혀 버린다. 모든 感情은 生活을 興奮케 하는 — 生活을 힘이 긋게 하는 — 마음의 働作인 境遇에 그 本能的 效果를 發揮하는 것이다. 性에 關한 感情도 人間의 性的 能力을 發揮케 한는. 換言하면 人類繁殖의 活動을 完成케 하는 마음의 作用으로서 그 興奮의 社會的 意義가 잇다. 性的 感情이 이 社會的 意義를 일어버리기까지 興奮되면 도로혀 情死를 行케 한다. 人類를 繁殖하기 爲한 心理作用이 反對로 人類를 죽이는 結果가 된다. 民族感情도 또 이 點에 잇서서 全然히 이 性的 感情과 갖흔 것이오 그 興奮의 社會的 意義가 일어버리면 그 民族을<21> 살리지 안코 도로혀 죽여버리는 것이다. 國家의 末期에 在한 感情의 興奮은 往往히 더욱 더욱 亡國으로 기우리지는 心的 過程이 되는 것이다. 끼리시 아市民을 살닐 줄 밋엇든 끼리시아哲學의 末期의 興奮은 전혀 亡國的이 잇든 것이다. 伊太利의 社會的 崩壞가 健實한 社會思想에 依하여 處置 되지 아니 하고 파시스트와 가튼 民族的 迷信感情에 依하여 處置 되어 잇는 것도 伊太利國家의 末期 的 感情興奮이다. 그것은 興國의

外觀을 가추운 亡國의 現象이다.

5

感情은 生活을 힘있게 하는 마음의 働作이라고 하면 그 맘의 働作을 生活 그것보다 以上으로 尊重하는 態度는 一種의 錯誤다. 常例의 敎訓「感情으로 뛰어가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곳 이 錯誤를 警戒하는 것이다. 이 錯誤는 心情을 享樂한다는 一種의 生活態度에서 發生하는 것인데 或은 快樂 그것의 또 境遇에는 苦痛 그것을 生活 그 自體로 생각하는 哲學的乃至 實踐的 態度가 그것이다. 快樂과 苦痛은 元來 生活에 伴하는 맘의 狀態다. 生存의 어느 過程에서 快樂이 生하고 다른 過程에서 苦痛이 生活하는 것인데 그 快樂乃至 苦痛 그것이 生活의 本體는 아니다. 快樂은 生存을 利하는 生活에 伴하고 苦痛은 生存을 損하는 生活에 伴한다고 말하지만은 生存은 그 엇던 편의 하나만으로는 成立되지 않는다. 苦痛을 伴하는 生活과 快樂을 伴하는 生活이 뒤섞여서 비로소 生存을 產出하는 것은 맛치 苦味와 甘味が 混淆해서 비로소 美味를 일우는 것과 갓튼 것이다. 耽美派와 가티 決感에만 浸潤하려는 것도 生活을 成立하는 길이 아니지마는 엇던 宗教家와 가티 苦痛 그것을 生活로 하는 것도 社會的으로 生存하는 길은 아니다. 感情은 要件대 그것만으로서는 意味를 일우지 못한다. 他方에 生活이 잇서서 거기에 感情이 產出되는 것은 食物이 잇서서 味覺이 잇는 것과 다름이 업는 것이다. 興奮한 民族感情 그 自體를 滿足케 하는 일이 民族生活의 理想이라고 하는 것은 甘味 그 自體 때문에 食物을 要求한다는 것과 가튼 것이오 全때 病的 錯誤이다.

그러면 民族的 感情은 엇더케 해야 산 感情으로 働作할 수 잇는 것인가. 그것은 前述한 바와 가티 生을 利하는 經驗이 快感을 產出하는 것 가티 民族的 感情의 어느 協同感情에 依하여 發展하지 아니 하면 안 될 境遇에 民族感情이 培養되는 것이다. 맞구아 말하면 民族感情은 民族生活이 엇던 進展을 取할 때에 이에 伴하여 일어나는 心の 狀態이다. 그럼으로 그것은 生活에 따르는 心理作用이다. 흔히 이 感情이 生活에 對하여 主要한 地位에 잇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것은 屢屢히 말한 바와 가티 感情生活의 性質上 感情所有主를 그러케 생각하는 것이오 事實은 生活이 그 心の 狀態를 產出함이 不過한 것이다. (此項未完)<22>

<15-22>

26.

잡지명: 개벽 제61호

발행년월일: 1925년 07월 01일

기사제목: 朝鮮民族만이 가진 優越性

필자: 起田 기전

기사형태: 논설

朝鮮民族만이 가진 優越性 (조선민족만이 가진 우월성)

起田

이압 世上의 制度는 朝鮮 사람으로부터

참, 알다가도 물을 일이지, 근래의 우리 사람들은 함부로 자기 종족을罵하는 경향이 잇것다. 특하면 가로되 亡國人種이니, 해 볼 수 업는 種子이니 하며,甚한 者는 講演會에 「야지」를 한번 당하고도 朝鮮民性 全體를 시비하며, 流行會合의 流會 한 번을 보고도 朝鮮將來의 一般을 悲觀한다. 이뿐이나, 黨派싸움은 朝鮮사람에게만 專有한 것으로 알며, 始勤終怠는 朝鮮 사람의 第2天性으로 녀이것다.

이것은 民性 그것에 대한 叱罵이거니와, 이로 이후의 朝鮮前程에 대해서도 역시 그 모양 (갓추 말하지 안커니와)이다. 그런 중에서도 제일 怪惡한 것은 아주 아모것도 모르는 동포보다도, 무엇을 조금 알고 또 생각한다는 축에서 제일 심한 그것이며, 俗所謂 穩健派나 實力養成派流의 일부는, 아조 그리하는 것으로써 憂國憂民의 行世끼리를 삼는 嫌도 업지 안타.

까마귀를 히다 함이 거죽말임과 가티, 해오래비(白鷺)를 검다 하여도 안 될 말이라. 一派의 國粹學者가 제 눈에 물 대는 格으로, 그저 훌륭한 것은 朝鮮것이니라고 얼빠먹고라도 끄러 부치는 것은 물론 不可하지만, 것들고 淺薄하고 定見업는 짓 말하면 갓지 아는 작자들이 공연히 근세의 掠奪文明, 殺人富強에 心醉, 아니 趨勢하야, 자기의 전부를 暴棄不顧하려는 것은 더욱이나 可憎한 짓이 아닐가.

나는 아직도 此나 彼에 대해서 專門의 研究를 갓지 못하였는지라, 무엇이라고 단정을 내려서 말할 수는 업스나, 구태여 검은 것을 히다 하고 흰 것을 검다고 할 심정을 갓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내가 본 朝鮮」가운데에도 물론 조타는 점과 낫브다는 점이 잇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코져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낫쁘다는<4> 是非의 말이 아니라, 是非와는 거의 別問題인 특이한 점에 대해서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본 朝鮮及朝鮮民族의 특색이라고 할가.

내가 본 朝鮮가운데에 첫재로 특이하게 생각되는 것은 檀君神話이다. 이 神話에 의하면, 냇쪽에 桓因이라 하는 이가 잇서, 아들 桓雄을 두었는데, 雄은 每樣 天下를 理化할 듯을 품고, 世間에 드러나기를 願하였다. 아버지는 天符三個(지금 말로 時間, 空間, 物質이라 함)를 주면서, 네의 마음대로 하라 함으로 雄은 風伯, 雨師, 雲師등 삼천의 무리와 가티 太白山頂에 나타나, 세상을 理化하기에 힘쓰는 중, 그때에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잇서 雄과 同居하며 사람되기를 원함으로 雄은 이 두 짐생에게 엇던 條件을 정해주며 상당기간의 시간을 참으라 하였는데, 범은 그 조건을 직히지 못하고, 곰은 훌륭히 그 조건을 직히여써, 한 여성으로 代 해남으로, 雄은 드대여 그 여자와 더불어 婚誼를 매저, 드대여 檀君王儉을 나았다고 하였다.

더 말할 것도 업시 신화라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원시시대의 우주관, 인생관, 사회관을 상징한 것으로써, 신화의 내용의 如何를 보아써 그 민족의 先天的 性能乃至情調의 如何를 판단할 수 잇는 것이다. 그런대 우에 말한 신화의 寓意로써 보건대, 처음에 桓因이라는 無機, 無極의 天이 잇서, 時間, 空間, 物質의 攝理者인 桓雄이라는 신을 動케 하야, 風, 雨, 霜, 雪, 등의 三千群徒와 가티 世間の 理化에 힘쓰던 중, 畢竟 곰과 가튼 고등동물의 물성을 醇化식히고, 그와 어울니여써 사람(檀君)을 誕生하였다 한 바, 더 서방신화의 대표인 「이스라엘」話에 그져 전지전능의 한울이 떡가루로 떡빚듯이 사람을 지여 냇다는 말과는 스사로 다름이 잇다. 다시 말하면, 한울이 따로 잇서 가지고 그 지능의 일부로써 이러케 저러케 지여 노은 것이 이스라엘 신화의 사람이라 하면, 한울 그대로가 相當 年月과 相當 努力을 비러서 표현된 것이 조선신화에 나타난 사람이다. 이것은 桓因의 子가 桓雄이오 桓雄의 子가 王儉이라 하는 점을 보아서 그리하거니와, 일설에 桓因은 天이오 桓雄은 神이오 王儉은 人이라는 記錄을 보아 더욱 밝다. 天乃人, 人乃天의 寓意를 가진 조선민족의 신화 - 달리 말하면 조선민족의

원시사상은 다른 민족의 그것에 비하여, 과연 특이한 점이 있다. <5>

그리고 檀君神話에 있어서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正義, 善惡에 대한 관념이 가장 풍부하게 강렬하게 표현된 그것이니, 弘益人間이니 在世理化니 하는 기록은 그만두고라도, 檀君敎化의 八理라는 것을 보면, 誠, 信, 愛, 濟의 네 가지가 그 처음이 되었으며, 더욱이 檀君神歌에는 正義, 善惡에 대한 관념을 극도로 표현, 고조하였으니, 가로되

어아어아 善心은 활이 되고, 惡心은 貫射이라. 우리 百千萬人 활줄 가티 바른 善心, 활줄 가티 一心이라, 어아 우리 百千萬人, 한 활장에 無數貫射突破하니, 熱湯가튼 善心중에 一點雪이 惡心이라. 어아 우리 百千萬人, 활 가티 굿센 마음...

운운한 것으로 보면, 실로 세계의 옛던 기록에서도 보지 못할, 무서운 노래이다. 하물며, 삼국 시대에는 이것을 歌曲으로 해서, 궁중에서 閭巷까지 盛傳되었다 함이리요. 사실 조선민족의 심성은 이와 가티도 善에 강하고 또 不善을 죽이는 데에 강하다.

조선종족의 기원이 엇지 된 것이냐, 이에 대한 자세한 말은 여기에 말코져 하는 바가 아니거니와, 대체로 보아, 長白山의 뒤, 松花江의 연안에서 發祥되야, 그 後 漸次로 南下하야, 靑邱半島에 奠居하게 된 것은 삼국시대의 건국경로로 보아서도 判然한 일이다. 이와 가티 山氣磅礴하고 大野廣漠한 白山黑水의 間에 稟得한 - 雄魂義魄을 또 한번 山明水麗의 南半島에 闕鍊하게 된 것은, 과연 조선민족에 대한 意義있는 轉輪이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오늘 조선 사람의 民性이 일본 民性 가티 淺短, 殘忍하지 안코, 또 중국 民性 가티 質鈍, 陰沈하지 안코, 거의 그와는 정반대로 理知에 밝고, 平和性에 富하고, 그리면서도 상당한 深遠性을 갖고 있는 거와 가튼은 모다 이 역사의 所賜이다.

조선민족은 그 처음부터 이와 가티 독특한 사상과 심정과 또는 정치생활을 가졌슴에 불구하고, 그것이 고만 江隣(西의 者와 東의 者)의 정치상 또는 문화상의 侵掠을 바다, 한 과정의 異常한 訓練을 더함이 되었다. 때로는 反抗하고, 때로는 隱忍하고 또 때로는 그의 전부를 소화하는 등의 종종 대책이 있섯스나, 그 과정은 상당히 긴 것이 있섯던 중<6> 특히 李氏조선에 드러와서는, 自外自內의 정치위압이 심한 외에 儒道萬能의 思想上 拘束이 其極에 달하였스며, 더욱이나 근년에 이르러, 정치상으로 당하는 것은 말도 말고, 일상의 경제생활에서 말할 수 업는 고통을 체험하고 있는 바, 조선민족은 이리하야, 정치, 사상, 경제의 가지 각면으로 시련을 하고 있스며, 이 시련을 主宰하고 堪耐하고 善用하고 있는 조선민족 本初의 위대성은 풍우속의 喬嶽과 가티, 激浪밧회 大海와 가티 悠悠然하며 自若然하야, 和風麗日, 雲晴海朗의 대업을 促成하며 있다. 보아라 한 님이 떠러져 천하의 가을됨을 안다고, 우리의 雄魂義魄, 아니, 활줄 가튼 善心은 벌서 幾多의 惡貫射을 향하야 발사되지 아니하였는가.

넷말에도 잊지 아니한가, 한울이 장차 큰 任責을 그 사람에게 내리려 할진대, 먼저 그 心志를 若게 하며 그 骨을 勞게 하야, 그 참지 못할 바를 능히 참게 하며 그 능치 못한 바를 더 능케 한다고. 엇지 한 개인에 뿐이리요, 한 민족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이다. 天稟特越한 조선민족으로서, 이와 가튼 장기의 시련을 밧는 것은, 사실로 일대 意義가 포장된 것이다. 이 자멸의 急途를 疾走하고 있는 동양, 아니 전 세계에 대해서, 弘益, 理化, 濟度의 큰 任責을 擔受한 것이다.

옛던 사람은 前番歐洲大戰으로써, 20세기 자본제국주의의 최후 파탄이라 하는 동시에, 勞農露國의 新興으로써 신세계 조직의 제 1착이라 하였다. 나는 이 말의 可否를 모른다. 그러나 이 세계의 모든 조직 모든 질서가 근본적으로 진동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 동요로 해거 세계의 民人이 다 - 가티 在來式의 一切에 懷疑하야, 相扶相助의 광명있는 새 세상을 陰으로

陽으로 조성하며 잇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와 가티 활줄 가튼 善心이 잇스며, 鍛鐵가튼 시련이 잇스며, 大海가튼
저력(장기간으로써 지여진 최후의 저력)이 있다. 自今の 우리는 다뭇 바람아 부러라, 물결 아
니러라, 이후의 일은 광명은 우리가 발사하리라 하는 한 가지의 喜悅이 잇슬 뿐이다. 이것은
정말 조선민족(요 중에도 낮분 部級이 잇기는 하겠지)만이 가진 특이한 강점이다. 동무들아.
(이러케 漠然하게 말고, 좀 더 依據있게 이 뜻을 써보려 하엿는데, 奔走하고 또 걸키는 곳이
만하서, 爲先 이러케 어물적하고 맙니다.)<7>

<4-7>

27.

잡지명: 동광 제1호

발행년월일: 1926년 05월 01일

기사제목: 個人의 日常生活의 革新이 民族的 勃興의 根本이다.

필자: 長白山人 장백산인

기사형태: 논설

個人의 日常生活의 革新이 民族的 勃興의 根本이다. (개인의 일상생활의 혁신이 민족적 발흥
의 근본이다.)

長白山人

우리가 가진 것 중에는 버릴 것이 만코 고칠 것이 만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행실이나
제도나 다 조치 못한 것임은 우리가 생활이 실패인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조선 사람들의 생각과 행실과 제도가 조했다 하면 우리 생활이 이러케 재미 업게 되지를 아니
하엿을 것이외다. 결과를 보면 알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할고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고칠고.

우리는 갑갑히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禪客들이 頓悟라는 것처럼 일조일석에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일석이조 윈 조선 민족이 새 민족이 되고 힘 잇는 민족이 되기를 받람니
다. 그러나 그것은 안될 일입니다. 아무리 속히 자라는 풀이라도 땅에서 쑥 나오는 길로 길이
넘는 법은 업고 아무리 소리 잘하는 피꼬리라도 알껍데에서 나오는 날부터 소리를 잘하는 법
은 업습니다. 잘 되는 것이나 못 되는 것이나 결코 일조일석에 요술 모양으로 갑작이 되는 법
은 업고 다 조금씩 조금씩 두고 두고 자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더라도 날마나 한 삼 분씩 사 분씩 치료를 주어서 닷새 엿새 두
고 두고 치료를 하여서 점점 점점 낫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의라도 대변에 병을 고치
는 법은 업고 아무리령약이라도 대변에 병을 낫게 하는 법은 업습니다. 『漸』-이것은 만물
이 자라나는 진리입니다.

이와 가티 우리의 인격의 개조와 민족성의 개조도 『漸』이라는 원리를 따라서 되는 것이오
결코 『頓』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 혁명이 터진대든가 하여 무슨 일이 갑작이 되는 듯
한 것도 잇거니와 그것은 력사가의 눈으로 보면 漸으로 모이고 모이고 싸히고 싸힌 것은 한

순간에 터진 것이지 결코 터문이 엮는 곳에 생불집이 나는 법은 없습니다.

조선 사람 치고는 어찌하면 남과 가티 세력 잇게, 남과 가티 지혜 잇게, 남과 가티 넉넉하게, 남과 가티 즐겁게 살아갈가 하는 것이 당연한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조선 사람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위하여 힘쓰지 않는 이가 잇습니까-업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 일을 합니까. 생각하는 이는 만하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는 만하도 몸소 이 일을 하는 이는 드물지 아니한가 의심합니다. 생각과 말로 일이 됩니까-안됩니다.<28> 생각과 말은 이미 넉넉합니다-지나치게 넉넉합니다. 인제 남은 것은 그 생각한 것, 그 말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사람마다-내나 당신이나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자신과 자기 집안의 일상 생활부터 고치는 것입니다-혁명하는 것입니다. 심히 적은 일가트나 이 적은 일이 모이지 아니하고는 전 민족적이 큰 혁명은 영원히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朝鮮을 새롭게 할 것을 생각하고 말하면서 제 몸과 제 집의 생활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는 이가 잇다 하면 그는 비인 말을 하는 이요 거짓말을 하는 이일 것입니다.

만일 朝鮮 사람 전체가 깨끗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이일 것 가트면 그는 그 시간부터 자기의 몸을 씻고 옷을 빨아 입고 구두를 닦고 방과 마당을 깨끗이 하는 일을 실행할 것이요. 만일 원 朝鮮 사람이 다 규를 잇는 백성 되기를 바라는 이일 것 가트면 그는 그날부터 자는 때와 일어나는 때와 밥 먹는 때와 일하는 때와 쉬는 때를 정하고 지킬 것이요 자기가 속한 단체와 사회의 규를 잘 지킬 것입니다. 만일 그가 원 朝鮮 사람이 다 조선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이일진댄 그는 몸숨 하로에 비록 몇 십전씩이라고 朝鮮을 위하는 생각과 일을 할 것입니다. 이 모양으로 자기의 일상생활부터 고치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늘어가는 것이 곧 새 조선의 새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잇기 전에는 결코 다른 일이 잇을 수 업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의 말을 들건댄 사람이 조코 조치 못한 것은 오직 그 습관에 달린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조흔 습관을 기른 사람은 조흔 사람이요 그러치 못한 사람은 조치 못한 사람입니다. 습관에는 고정성이란 것이 잇서서 한 번 일우어지면 이것을 깨트리려고 무척 애를 쓰기 전에는 영구히 일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세 살짜 버릇이 아흔까지 간다는 것이나 제 버릇 개 주나 하는 것이나 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던지 친절이라던지, 규율이라던지, 진실이라던지, 용기라던지, 충성이라던지, 관대라던지, 하는 모든 덕이나 또 그와 반대로 부정직이라던지, 무정이라던지, 불규칙이라던지, 허위라던지, 간사라던지, 겁나라던지, 편협이라던지, 식기라던지, 이러한 악이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결국 습관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종족적으로도 그러합니다. 혈통의 관계(즉 유전의 관계)와 기후 풍토와 사회의 사정(즉 환경의 관계)가 개인이나 종족의 성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과학이 인정하는 바어니와 우리는 스스로 힘씀으로, 또 어린 때를 리용하는 교육의 힘으로 이를 반항하는 새 성격(성격이란 몇 가지 중대한 습관의 모임이외다)을 일울 수가 잇습니다. 만일 그러치 안타 하면 가튼 혈통과 가튼 환경 속에 잇는 이는 다 가튼 성격을 가질 것이 아님니다. 그러킬래 교육의 가능성과 수양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 아님니까.

한 개인의 성공은 그의 성격(즉 몇 가지 중요한 습관)을 아버지로 하고 그의 지식이나 기능을 어미로 한 아들입니다. 아버 혼자만도 아들을 못 나커니와 어미 혼자만도 아들을 못 나흠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흔히 지식이나 기능만으로 개인의 성공을<29> 어들 수 잇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날 남녀 학생들이 만히 이 생각을 가지고 잇는 모양인데 이것을 교육가들은 知力편중의 폐라고 일컫습니다. 이 생각은 18, 9세기 이래로 과학이 발달된 여페로 서양에도 일시 잇섯다 하나 인제는 벌써 지나가서 서양서는(그 중에도 미국서는) 건전한 성격을 만드는

것으로 칼레지 교육까지의 중심을 삼는다고 합니다. 일본서도 근래에는 지력 편중의 폐해를 깨달아서 훈련이라는 것을 교육자들이 력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은 지금 한창 이 폐해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힘쓰는 청년 남녀들도 오직 지식과 기능에만 욕심을 내이고 선량한 습관의 양성 즉 성격의 훈련 즉 도덕적 수양은 말부터도 곱팡내 나는 것 가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성격훈련을 경히 녀기는 것이 큰 병이려든 하물며 우리네와 가티 여러 백년동안 생활에 실패한 백성으로서-우리 생활을 실패케 한 만흔 조치 못한 습관을 깨트리고 그 자리에 조흔 습관을 세워야만 할 백성으로서 이 성격의 수련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중병 환자가 병 고칠 생각을 아니 하는 것과 가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격의 수련-즉 도덕적 수양-즉 낫쁜 습관의 파괴와 조흔 습관의 건설은 무엇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리학자와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습관의 형성은 우리 신경 계통의 연락 중추에 일종의 길이 생김에 있다고 합니다. 길이란 한 사람이 가고 또 한 사람이 가고 하는 동안에 자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와 가티 무슨 일을 한번하고 또 한번하고 련해 여러번 하기를 얼마 『동안』을 계속해 하는 동안에 차차 그 길이 반반해지고 넓어지어서 처음에는 힘들던 것도 나중에는 마치 본능 작용 모양으로 무의식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걸음을 짓게 되기도 비록 종족적 유전으로 짓는 본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 해 동안은 『런습』을 해야 비릇오 제법대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양으로 무슨 습관이던지-가령 정직, 규률, 청결, 친절, 근면, 애국 또는 글씨쓰기, 나무깎기 가튼 것도 조금씩 조금씩 두고 두고 꾸준히 해 가는 동안에야 비릇오 익숙해지고 힘 안들게 되어 마춤내 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결코 무슨 신통력으로 頓的으로 신작로를 내이는 모양으로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익힐 습자(習)는 새 색기가 날마다 날개를 푸덕거려서 날기를 배혼다는 뜻으로 짓우 미테 날 일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 지나에 湯이라는 님금은 아춤마다 세수하고 세수 대야에 다가 『日新又日新』이라고 새겨 노코 아춤마다 세수할 때마다 <30> 보고는 수양에 힘 썼다 하며 또 지나에 曾子라는 이는 『吾 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라 하여 날마다 忠과 信과 習을 내가 하였나 하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양으로 날마다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서 새로운 조흔 습관을 세우기를 힘쓰는 것이 건전한 인격을 일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치 몸의 건전을 위하여 날마다 적당한 음식과 운동을 하는 것과 가튼니다. 이 모양으로 혹은 오륙년, 혹은 십년 수양을 싸혼 사람은 무슨 일이나 성공의 일생을 가질 것이 확실하고 이러한 개인을 만히 가진 백성은 민족적 생활에 성공하는 백성이 될 것이 확실하거니와 그러치 못한 개인이나 민족에게는 오직 실패와 파멸이 잇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 어떠한 옛 습관을 깨트리고 어떠한 새 습관을 세우기를 힘쓸고?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사람마다 성미를 딸아 경우를 딸아 연령을 딸아 각기 차이가 잇슬 것이지 마는 나는 아레 적은 몇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것이라고 미듭니다.

- (1) 거짓말을 말자.
- (2) 할 일이어든 곳 하자.
- (3) 약속을 충성으로 지키자. 특히 내가 지키기로 허락한 단체의 규율을 충성으로 지키자.
- (4) 용기 잇는 사람답자.
- (5) 미워하지 말자. 식기하지 말자. 성내지 말자-사랑하자. 남을 위하자. 용서하자. 그리하여 남을 기쁘게 유익하게 하자.

(6) 날마다 동포를 위하여 어찌할고 생각하자.
 (7) 나의 일생의 직업이 될 것을 위하여 하로도 걸르지 말고 공부하자 일하자.
 (8) 몸과 옷과 거처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자.
 (9) 세 「폐지」 이상의 독서와 삼십분 이상의 운동을 하자.
 (10) 질서를 지키자-모든 일에는 제 때가 있게 하고 모든 물건에는 제 자리가 있게 하자.

이상의 열거한 열 가지 좌우명 중에 (3), (6) 두 가지는 우리의 사회적 생활의 정신을 기루기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재래의 도덕적 수련에는 이 점이 부족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이 열 가지 중에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 (1), (2), (3), (4),외다. 이 네 가지는 건전한 인격의 기초가 되는 정신이요 습관이외다.

독자 중에는 혹 (5)를 습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이가 잇슬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들은 심리학자는 감정의 영구적인 경향이라 하여 <31> (temperament)라고 부릅니다. 성향이라고나 할가. 그러나 이 성향이라는 것도 결국 감정 작용의 습관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나운 게오미테서 눈치밥을 먹고 자란 아이는 암만해도 의심, 원망, 식기가튼 감정의 경향이 만히 발달이 됩니다. 이와 가티 성향이란 것도 결국의 감정의 습관인즉 날마다 힘쓰는 것 여●로 조흔 성향을 기를 수도 있고 나쁜 성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료리 학자의 이른바 情操 (sentiment)라는 것은 거의 전부 교육과 수양으로 되는 것입니다. 眞을 사랑하는 정조, 僞를 미워하는 정조, 善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정조, 美를 사랑하고 醜를 미워하는 정조, 다 畧 々 통속적으로 말하면 진리감, 정의감, 심미감도 결국은 습관의 양성에서 오는 것이니 이것을 품성의 도야라 하는 것도 그 때문임니다. 이러한 고귀한 정조를 가지지 못한 개인이나 종족은 그만한 수양이 업는 까닭인데 이러한 정조가 업시도 혹은 국가를 위하여 혹은 인류를 위하여 고귀한 일을 할 수가 잇겠습니까-업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습관은 일상생활에서 일우어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한 번 할 때마다 조금 더 말 한 마디 할 때마다 조금 더 방 한 번 깨끗이 치울 때마다 조금 더 사람 하나 접 할 때마다 조금 더 자라고 자라는 것이외다. 그와 반대로 타락되는 것도 마치 담배 공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 『니코틴』 독에 조금씩 조금씩 중독이 되어 이삼년 후에는 아주 노라케 되는 모양으로 점점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혁명을 경영하기 전에 너 자신을 혁명하라. 너 자신의 혁명은 곧 네 일상 생활의 혁명이다!』 하고 부르지즈려 합니다. 나는 이 문제가 모든 독자에게, 특별히 배우고 수양하는 중에 잇는 청년 형제 자매에게 새로운 흥미를 들이기를 바랍니다. 웨? 이 문제야말로 우리 조선이 새로워지고 못 새로워지는대 관한 근본 문제인 까닭에.<32>
 <28-32>

28.

잡지명: 동광 제1호

발행년월일: 1926년 05월 01일

기사제목: 民族的 肉體改造運動, 個人的 生活 뿐 아니라 民族 全體의 運命을 支配하는 健康 問題

필자: 世醫專 教授 金昌世 博士 세의전 교수 김창세 박사

기사형태: 논설

民族的 肉體改造運動, 個人的 生活 뿐 아니라 民族 全體의 運命을 支配하는 健康問題 (민족적 육체개조운동, 개인의 생활 뿐 아니라 민족 전체의 운명을 지배하는 건강문제)

世醫專 教授 金昌世 博士

健康은 人生의 根本資本

김창세 사진

인생은 한 기업(Enterprise)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것은 자본입니다. 자본있고도 사업 못하는 수도 있지마는 자본없이 사업이 되는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자본의 풍부와 또 그것을 잘 합리적으로 운용함에 있습니다. 자본없이 사업하려는 이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외다. 보통 사업의 자본은 돈이외다. 공업을 하는 대나 상업을 하는 대나 다 미천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란 것은 제게 없더라도 지혜와 신용만 있으면 은행이나 부자에게서 꾸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잃었다가 찾을 수도 있고 필요한 때는 임시로 어떻게 변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또 필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곳 신용과 지혜외다. 아무리 돈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1> 신용과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다고 해도 반듯이 실패할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신용없고 지혜없는 사람의 하는 사업은 소위 돈 밀치고 사람 밀치는 사업이외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있는 사업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용과 지혜를 닦습니다. 돈은 임시로 꾸어올 수가 있지마는 신용과 지혜는 꾸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가도 더 근본되고 더 중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이외다. 아무리 신용과 지혜와 돈이 넉넉하기로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페리클레스는 아테의 큰 나라 일을 남기어 놓고 죽어버렸고 세계 통일의 대사업을 버리어 놓고 갈망도 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은 죽었습니다. 일본 부자 岩崎彌太郎이 목병으로 죽기 전에 재산의 반과 생명과를 바꾸자고 하였습니다. 아마 그가 바로隕명할 때에 말을 할 수가 있었더라면 재산 전부를 다 줄 것이니 생명을 달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연후에야 돈은 있어 무엇하며 신용과 지혜는 어대 依接하겠습니까.

個人的 不幸, 社會의 짐

설혹 죽기까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늘 병이 있거나 병까지도 없다 하더라도 늘 몸이 약하여 어렵은 노역을 담당할 수 없는 사람은 살아 있다는 것보다 오래 죽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개인으로는 불행한 일생이고 사회로 보면 병신자식 모양으로 걱정되는 무겁고 구찬은 짐이 되는 것이외다. 그러므로 건강은 인생이라는 사업의 첫 자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역사상 偉人의 건강상태

석가모니도 70 이상을 살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알았단 말이 없고 孔子도 일흔 셋, 쏘크라테스도 70을 넘어 살다가 약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워싱턴도 母論 건강하였었고 링컨, 卍

팻스톤, 비스뎀, 레닌 같은 정치가들도 다 건강하였었고 뉴턴, 에디슨, 헥켈,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33에 돌아가시었으나 이는 사람이 죽인 것이니 말할 것 없고 顔子도 早死하였다 하나 그러길래 그의 사업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가 건강장수하였더라면 아마 孔子의 가르침이 다 많이 彰明이 되었었겠지요. 그러길래 孔子께서도 「四不幸短命」이라고 한탄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2> 바울 다 건강 장수하였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건강상태

역사상에 위대한 활동을 한 민족은 다 氣力과 體力이 건강하던 민족입니다. 동양사로 보면 몽고족, 만주족, 서양사로 보면 로마인, 몽고, 꼬비 사막에서 말을 달리고 얼음 위에서 잠을 잘만한 체력을 가진 때에 중원 400州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200년간 정복자로서의 안일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체력이 퇴화하고 떨어져 정신력이 퇴화되어 마침내 漢族에게 쫓기어난 뒤로 이래 6, 70년간 돌이켜 漢族의 노예의 처지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었고 불과 200만의 소수로 그 백갑절이나 되는 한족을 정복한 만주족도 만주의 광야에서 말을 달리던 건강한 종족입니다. 그러나 300년간이나 안일의 생활에 역시 체질이 퇴화하여 지금은 골격이나 근육이 보통 漢族과 다름없이 되었고 돌이켜 아무 육체적 노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와 희랍인의 육체

로마인도 그러합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야 있다』고 하는 격언을 짓어 낸이만은 그들은 건강의 진리를 각오하였고 존중하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남은 로마인의 조각을 보더라도 그들의 각오와 그들이 어떻게 壯大하던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른바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공적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예의 제도를 쓰어서 소극적 안일의 생활을 하여 점점 체력이 퇴화한 것이 대로마제국의 문혀진 것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도 승인하는 바입니다. 이상에 말한 것은 무력적 성공과 체력과 관계의 관계를 말한 것이거나와 정신적인 문화도 건강한 몸에서야 발하는 것을 우리는 희랍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희랍인의 조각이 금일까지 건강한 육체의 模型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희랍인은 체력을 존중히 녀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류가 가진 문화중에 가장 위대한 문화를 가지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닙니까. 정신작용이 뇌의 작용이라 하면 뇌 亦 신체의 일부분이니 병약한 뇌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습니까.

현대 강대 민족의 육체

이상은 고대 민족에 관한 것이거나와 현대 민족으로 보더라도 英, 米, 獨, 佛은 다른 민족에 비기어서 체력이 強壯한 것은 다 알는 바입니다. 일본 어느 학자의 말을 들건대 일본인은 독일인보다 早老한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독일인의 평균 활동연령을 40년간을 잡으면 일본인의 활동연령은 2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3> 일본인은 50년까지 독일인은 70년까지 活動年을 잡은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인지 모르거나와 만일 그러하다 하면 일본인은 서양인의 半만한 활동력밖에 못가지었다고 볼 것이고 이 불행한 차이는 純全한 체력에서 나는 것입니다.

조선 사람의 체질은 如何

그런데 우리 조선인은 정확한 數字로는 말할 수 없지만 일본인보다도 10여년이나 조로하는 듯합니다. 현재 일본에 少壯정치가, 학자라는 이들도 50 내외로 일류 학자에 이르러서는 60

이상인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에서는 신교육이 들어온 연대가 멀지 아니한 까닭도 있겠지마는 50 이상된 남자나 여자로 건장한 활동을 하는 이가 심히 드뭅니다. 李商在 李承薰 두 분을 심히 회귀한 예로 보리만큼 드뭅니다. 이래서 우리는 40만 되어도 새로 공부를 시작한다던가 많은 정력을 요구하는 사업에 착수한다던가 하는 것을 보면 망발이라 비웃읍니다. 이러한 대는 다른 이유도 있으려니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이 부족이라 하겠읍니다. 여러분 알시는 우리 名士를 다 굽아보시고 그 중에 이상적인 건강을 가진 이가 몇 분이나 되는가 생각하시면 스스로 알으시리라 믿읍니다. 조선에 처음 오는 서양인이 조선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감상이 조선사람은 혈색이 부족하고 활기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總히 이것을 우리의 營養不良에 걸립니다. 더욱이 보통 학교, 고등보통학교 남녀 학생의 건강상태로 보더라도 일본의 그것보다 확실히 열등하다 함은 교육에 종사하는 이의 다 같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기 우리는 우리 민족 쇠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의 건강상태대로 간다하면 결코 금일 이상의 좋은 조선을 가질 수가 없다고 믿읍니다. 왜? 지금보다 좋은 조선은 조선인의 힘으로만 될 것인 까닭이고 그 힘의 근원은 조선인의 건장한 몸이기 때문에.

건강은 人意로 좌우된다

그러면 건강은 숙명적인가 우리의 의지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인가. 조선사람은 질병과 壽夭를 팔자니 천명이니 하여 인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것이니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은 生理위생학에 관한 극히 초보의 지식을 가진 <4> 이도 다 아는 것입니다. 조선에서도 古來의 건강 장수한 명사에게 다 일종의 양생법이라는 것이 있어 음식을 節하라던가 邪惡한 생각을 끊으라던가 대개 도덕적 수양을 겸한 것이외다. 이로 보아도 古人도 자기 의지로 자기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었다고 믿는 줄 압니다. 불교의 양생법같은 것은 오늘날의 위생법칙과 일치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現今의 의학과 위생학상으로 보면 자기의 생활방식을 이미 아는 위생학의 법칙으로만 살더라도 병 없이 7, 80년을 살 수 있는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서양인은 우리가 매일 양추와 세수하는 모양으로 위생의 법칙을 복종합니다. 우에 말한 바와 같이 歐米人は 그 체질이 동양인의 것보다 낮은 것은 다소 선천적 소질의 차이가 있다 해도 대부분은 위생의 법칙을 좇고 안좇는대서 온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年前에 일본 징병 검사에 장정의 20년 전과 20년 후의 체질은 검사한 결과를 뚫건대 신장이 평균 2寸이 늘었다 하고 腦位와 체중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읍니다. 또 일본 어느 교육자의 말을 뚫건대 40 이상의 일본 여자와 20 이하의 여자와는 거의 딴 종족이라 할 만한 체질과 성질의 차이가 生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른 듯기는 적은 듯 하나 일본 민족 전체의 운명으로 보면 놀라운 현상이요 놀랍은 행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대로 붙어 나오았나. 의심할 것 없이 영양과 운동과 위생에서 온 결과입니다. 근래에 조선 남녀 靑◆생들도 10년전 학생들보다 체격이나 체력이 증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우리 민족의 체력을 날로 쇠퇴하여간다고 봄이 可하겠읍니다.

민족적 건강운동의 대업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고. 우리는 무섭은 자각과 무섭은 결심을 가지고 우리 민족적 육체의 개조에 시급히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大要를 말하면 個人保健, 民衆保健의 두 문제로 分할 것입니다. 민중보건 문제 중에는 아동위생, 영양위생, 性生活, 오락, 휴식, 흡연, 음주, 公家위생 등의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은 국가의 힘이 아니면 안될 것이지

마는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 또는 단체의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비과학적 생활에서 과학적 생활로

이상에 말한 모든 것을 一言而蔽之하면 비과학적으로 살지 말고 과학적으로 살자 함이고 바꾸어 말하면 우리 재래의 생활은 과학적 생활이 아니요 비과학적 생활이었었다, 우리 생활을 과학적으로 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표어(Motto)라야 하겠읍니다. 以上에 말한 것이 과학적인 진리를 포함하였다 하면 진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옳은 줄을 알고는 주저하지를 말고 곳이 중대한 민족적 육체개조운동에 일심 협력하시기로 굳게 가지는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終)

次號 위생란에는 『사람 잡아먹는 파리』 기타<5>
<1-5>

29.

잡지명: 동광 제7호

발행년월일:

기사제목: 古朝鮮民族의 二大別, 朝鮮古代史研究一端

필자: 安自山 안자산

기사형태: 논설

古朝鮮民族의 二大別, 朝鮮古代史研究一端 (고조선민족의 이대별, 조선고대사연구일단)

安自山

1. 내두리

上古 朝鮮史의 차집새는 아직 학자네의 마새가 일치치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기 가장이 어려운지라 어쩐 일이냐 하면 何國의 역사던지 그 上古에는 모도 똑똑지 못해. 朝鮮史도 上古에 잇서서는 기록이 희미하고 갈피가 어수선하여 말하기가 매우 거북한지라. 그러나 연구의 가치는 어려운데 잇는 것이라 지금 우리가 새로운 연구로써 한 번 제겨 보면 취미도 만흐며 또한 우리 조선인의 고대생활이 어떠한 것을 가히 알 것이라.

時方 나의 연구로 말하면 上古의 朝鮮民族은 二大派로 난우어 진 것으로 思惟하노니 제1파는 滿洲 및 半島에 퍼져 곤달곤달의 부락을 지어 살던 것이요. 제2파는 遼陽大野에 뿌리를 박고 漢族과 씨름하다가 필경 漢地에 深入하여 살던 것이니 前者는 東朝鮮族, 後者는 西朝鮮族이라 命名하여 노코 그 명칭으로써 조금 논술코자 하는 일이라 하노라.

2. 東朝鮮族

東朝鮮族은 달리 本朝鮮族이라고도 이름을 부티다녀 이는 원래 滿洲와 半島에 퍼져잇는 족속이니 扶餘, 肅慎, 濊貊 辰國의 四大部로 별려 잇서서. 其中에 濊貊은 본시 扶餘에 잇다가서 차차 ㄱ字形으로 밀려 내려와 東北의 지방에 잇던 것이요. 辰國은 半島의 서방과 남북에 ㄴ字形으로 잇섯던 바 追後에 馬, 辰, 并 三韓으로 난우어진 것이니

後漢書 濊 自謂 與句麗同種 言語法俗 大抵相類 人性愚戇

三四志 扶餘 其印文言 濊王之印 國有古城 名濊城 蓋本濊貊之地

後漢書韓傳 韓有三種 凡七十八國 各在山海間地 合方四千餘里 東西 以海爲限 皆古之辰國也

이 濊貊의 근본과 辰國에 대한 말은 참 新研究의 發覺이요. 其外の 것은 기왕부터 一致되어 오는 것이니 지금 다시喋喋할 필요가 업서 고만 그치고 西朝鮮族의 일을 끄내고저 하노라.

3. 西朝鮮族

남들의 불확실한 말은 탄할 것이 아닌 고로 他說을 평론할 것은 아니요. 나는 특히 西朝鮮族의 史跡을 세어 말하노라.

본래 漢人이 東方人을 夷라 하여 九種으로 적어 나려온 바 其中에 靺夷라 한 것은 遼陽에 근거하던 大族이라. 靺夷가 무엇이나 하면 고구려니 靺夷의 古音은 (구리) 곳 句麗의 異譯이라. 이 靺夷가 漢族과 씨름을 크게 하다가 둘루 난우어서 一은 扶餘로 들어와 濊貊을 밀어내고 高句麗를 세우고 차차 남으로 내려서서 百濟를 건설한 자라. 또 一은 靑州地方에서 크게 활동하다가 차차 中原의 南方으로 向하여 淮水邊地에서 여러나라를 세우고 살다가 周穆王때에 잠시간<99> 큰 국가를 세웠스니 이 증거는 下文과 가티 여러군데 잇나니라.

史記正義 靺夷既畧 靺夷靑州也 堯命羲仲 理東方靑州靺夷之地 日所出處 名曰陽明之谷

尙書 海岱 惟靑州 靺夷既畧

後漢書 王制云東方曰夷○有九種○夏后氏失德 夷人始叛○桀爲暴虐 諸夷內侵 殷湯革命 伐而定之 至于仲丁 藍夷作寇 自是 或服或叛 三百餘年 武乙衰退 東夷寢盛 遂分遷淮岱 漸居中土○後 徐夷僭號 乃率九夷 以伐宗周 西至河上 穆王 畏其方熾 乃分東方諸侯 命徐偃王 主之○陳涉起兵 天下慣亂 燕人衛滿 避之朝鮮 因王其國 百有餘歲 武帝滅之 於是 東夷始通上京

箕子가 朝鮮王이 되었다 함은 이 西朝鮮族과의 관계요. 東朝鮮族과는 하등의 아랑곳이 업는 줄로 단언하노니 그 증거는 下文과 가트니라.

三才圖會 箕子 率中國五千人 入朝鮮

漢書 殷道衰 箕子去之 朝鮮 教其民以禮義

遼東志 遼東 爲箕子過化之邦

梁書 東夷之國 朝鮮爲大 得箕子之化

隋書 高麗之地 本孤竹國也 周代 以之封箕子

舊唐書 遼東之地 周爲箕子之國

箕子 이후에는 燕人 衛滿의 통치가 잇섯다가 그 三世가 漢에게 亡함이 되어 辰國으로 들어와 辰王이 되어서 그 일파는 中土에 侵入하여 크게 활동하기는 徐偃王이니 그 偃王이 누구냐 하면 東朝鮮族의 여러 創業主와 동일한 傳說인 卵生兒로써 仁義의 정치를 행하여 30餘 國을 통괄하여 일시적의 대국을 건설한 그이라.

史記秦本記正義 博物志云 徐君宮人 有娠而生卵 以爲不祥 棄於水濱 孤獨母有犬鵠蒼街所棄卵以歸 覆煖之 乃成小兒生偃故 宮人聞之 更取養之 及長 襲爲徐君 夏侯志云 翁州上 有徐偃王城 傳云 昔 周穆王 巡狩諸侯 共尊偃王

淮南子人間訓 昔 徐偃王 好行仁義 陸地之朝者 三十二國

文獻通考 舒偃姓子爵 在盧江舒縣 舒鳩偃姓子爵舒之別封 盧江南 有舒城東夷也

同靑州條 海岱惟靑州 靺夷既畧 舜分靑州 爲管州 皆置牧 周以徐州 合靑州 其土益大 川曰淮泗 春秋時 可考者五國 齊莒萊牟譚○秦時爲郡 三齊郡瑯琊郡遼東郡

다시 보아 西朝鮮族의 생활은 어떠터냐 하면 이는 그 토지의 利勢를 取하여 牧畜과 농업으로

써 자뢰하여서, 그 문화라 할 것은 仙이니 이 仙術은 東洋의 중심사상을 지은 것이라. 中原이 神仙을 사모하기는 전혀 遼陽지방의 언저리를 표준하여 갈구한 것이라. 고로 神仙의 道術家도 만히 遼陽지방에 잇서서, 그 神仙의 思想이 一方으로 東朝鮮으로 들어와 또한 本朝鮮의 수천 년 문학사상을 매끈일도 잇나니라.

池氏鴻史 伏羲氏 名曰蒼芽 是謂蒼精故 號春皇 母華胥氏 爲帝於九夷 兆三畫著八卦

歸藏 黃帝東到青丘 過風山 見紫府先生 受三皇內文 以刻名萬神

圖書集成 大道著手東 而本統起乎北易曰 帝出乎震 震東方也

그런데 西朝鮮族이 몹시 날쳐 한족과 각축하였스되 그 中原의 全土를 앗지 못하여서. 그러나 思想上으로는 漢地를 통괄한 세움이니 그 神仙思想은 上下에 퍼져 누구던지 미치지 안흔이가 업서서. 秦始皇 漢光武 가튼 이도 仙道에 미쳐 허둥거렸스며 일반 文士 詩人들도 仙의 催眠에 빠져 국가도 不顧, 家族도 不顧, 오직 山水의 樂에 주잔저 無事閑遊를 爲主하였스니 이 어찌 西朝鮮族의 무형한 성공이라 아니할까 이것은 실상 기피 연구하여 볼 거리니라.

4. 東朝鮮族의 形止 <100>

西朝鮮族이 漢族과 겨러본 동안에 漢人의 文物을 取하여 東朝鮮族에게 傳及하니 東族은 그 문물을 섭취하면서 점점 강성하여 나가서. 그리하여 西朝鮮族의 근거지를 반이나 점령한 일이 잇스니 이는 三國史記와 盧龍縣志를 뒤져 보아도 알기 쉬운 일이니라.

盧龍縣志 城隍廟記 東以全遼並蔽 承平二百餘年 民不識兵革 邇來三韓發難 廣寧以東 幾成甌脫 榆關一線 風鶴時驚 供億輪將 民不堪命 吏於茲土者 惟願與城俱存 不翅以身 視城矣

隋書 高麗 本孤竹國也 周代 以之封箕子 漢世 爲三郡 晉氏 亦統遼東 今來不臣 別爲外域

封禪書正義節文 孤竹故城 在平州 盧龍縣十二里 殷時諸侯孤竹國也

그리할 동안에 西朝鮮族은 仙術을 가지고 東方으로 넘어와 國業을 창설한 일도 만흐니 그럼으로 創業主의 전설은 모도 仙說로 化하여서. 高句麗 始祖도 仙이요. 新羅 始祖의 전설도 仙이요 加耶, 耽羅 등의 始祖도 다 神仙의 說話러라. 그뿐 아니라 地名도 역시 그 便의 것을 떼어 쓴 것이 만흐니 三韓의 韓이라 한 것은 秦의 同族이던 韓人들이 辰國에 와서 살므로써 譯하여 韓國이라 한 것이요. 九月山도 登州의 山名, 平壤도 遼陽의 地名이요 義州도 亦然이라. 그런데 東朝鮮族이 三國 이후에는 南北 2部로 갈라져 버렸스니 北部는 滿洲라 명칭한 것이 그것이라. 그 북방족속은 점점 강성하여 中原을 併呑하기 시작하니 제 1차는 金이라하여 中原의 북반부를 점령이엿섯고 최근에는 中原全土를 점령하여 淸國을 세워 竊경 西朝鮮族의 宿願을 伐成하였다하기 可하다할만큼 되엇나니라.

史記 秦本記正義 同州韓地縣 與秦同祖 秦穆公二十二年 滅之

同韓世家正義 韓城 古韓國也 古今地名云 韓武子 食采於韓原地城也

後漢書 辰韓耆老 自言 秦之亡人 避苦役 適韓國 馬韓 割東界地與之 或名之爲秦韓

尙書傳 孔氏疏 駢 卽韓也 音同而字異也

이의 설명은 여기 그치나 後日의 틈을 타서 다시 상술할 터이옵(終)<101>

<99-101>

잡지명: 동광 제9호

발행년월일: 1927년 01월 01일

기사제목: 劇界로 본 우리의 民族運動

필자: 玄哲 현철

기사형태: 논설

劇界로 본 우리의 民族運動 (극계로 본 우리의 민족운동)

玄哲

1. 文題와 內意

만약에 우리 民族도 劇을 가지었으면, 만약에 우리들도 演劇의 歷史가 잇섯으면, 이번 이 文題의 內容이 우리에게서 나타난 演劇이 우리 民族의 運動을 어떻게 취급하였나 하는 그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것은 且置勿論하고도 우리에게서 演劇이 업섯던 그것만은 사실이다. 그러한 까닭에 筆者가 쓰고저 하는 이 문제는 民族運動으로써 演劇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것을 잠깐 말하고저 하는 것이다.

俗談에 이르기를 코에 끼면 코스고리가 되고 귀에 끼면 귀스고리가 된다는 것과 가티 모든 사물은 이유를 부티기에 잇다고 조금이라도 그 이유를 만들고 꾸미어서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뿐만 아니라 筆者가 무슨 演劇에 意向이 만타고 自己의 生活方便을 취하여 이것을 力說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가티 우리 朝鮮에 잇서서 演劇의 실제 運動家로 그 一身의 生活를 保障할 수 잇느냐 하면 이는 도저히 예상치도 못할 것이요 또는 劇作家로서나 劇論家로서 그 생활을 보장하겠느냐 하면 이는 더욱이 말할 그것도 업는 것이다. 만일에 朝鮮에 잇서서 演劇이란 그것이 營利를 떠나 民族運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잇다고 하면 이는 순전히 犧牲的 精神이 아니고는 아니될 것이다.

마는 民衆을 위하여 행하는 바 모든 운동이 그 어떠한 것을 물론하고 희생 아님이 업겠지마는 그 중에 演劇運動과 가티 2중, 3중의 犧牲은 업슬 것이다. 金錢上 損失은 勿論이요 名譽上 損失까지도 보는 것이며 거기다 더욱 信用上 損失까지 보게 되니 생각하면 지극히 痛念한 事라 아니할 수가 업는 것이다. 이는 다만 抽象的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筆者가 年來로 실지의 경험을 맛보는 것이니 이런 허물이 演劇運動者의 자체에 잇는 것인지 또는 民衆의 이해업는 거기에 잇는 것인지 今日 現象의 朝鮮劇으로서의 이러한 責任을 半半이 난우어가지 아니할 수 업는 것이다. 그 하나는 民衆에게 잇는 것이요 또 그 하나는 演劇運動者의 自體에 잇다고 생각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演劇과 가튼 종합藝術은 本質上으로 單獨行爲로는 行動치 못하는 것이니 다른 藝術 혹은 繪畫라던지 音樂이라던지 文學이라고 하는 것은 그 藝術家가 單獨으로서도 능히 행동할 수가 잇지마는 演劇에 이르러서는 劇作家라는 藝術家도 잇서야 할 것이며 俳優라는 藝術家도 잇서야 할 것이고 其外에 監督者라던지 畫家라던지 建築家까지 여럿이 一線에 서서 作用을 하지 안하면 도저히 劇다운 劇을 演出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今日의 우리 朝鮮에 果然이지 劇作家가 몇 분이나 되며 俳優란 사람이 누구누구이고 監督할 사람이 누가 잇으며 背景을 그릴만한 사람이 몇 분이 되는지 筆者는 頗히 疑心을 품지 아니치 못하는 바다.<48>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民衆으로써 劇을 이해하기는커녕 脚本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몇분이나 되는지 필자가 이런 말을 하면 물론 大怒하실 분이 만흔 줄도 아는 바다. 『脚本을 못 읽다니 우리를 文盲으로 아는 것이지!』 이러케 여기실 것이다. 그러나 각본을 읽는 방법도 결코 그처럼 간단하지는 아니한 것이다. 문자만 읽는 각본도 있고 의미만 읽는 脚本도 잇스며 實演으로 읽는 脚本도 잇는 것이니 문자만 읽는 각본은 글字만 알면 누구던지 모도 읽을 줄 아는 것이요 의미만 읽는 것은 문학에 다소의 素養만 잇스면 능히 읽을 줄 안다고 하지마는 實演으로 읽는 것은 舞臺의 호흡과 배우의 동작 및 擊色까지 읽게 됨으로 舞臺的 素養과 배우적 호흡과 문학적 智能이 업고는 결코 각본을 읽을 줄 안다고 할 수 업는 것이다.

이러케 難事의 難事 중에도 일반의 蔑視가 또한 심한 것이니 오늘날 극에 간섭하는 人士가 학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남의 우에 설 사람이 百에 하나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마는 일반이 이해치 못하는 그것도 또한 넘우나 심하다고 하지 안할 수가 업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필자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第三者에게 대하여 일생에 하는 말이 『玄某는 집안도 그러치 아니하고 사람도 난봉이 아니고 酒色雜技를 조하하는 것도 아니고 智識도 그처럼 업는 터가 아닌데 어째서 그런 연극을 조하하는지 참 알 수 업는 일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것만 보아서 모를 것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니 이러한 말이 얼마나 沈痛한 말이 아닌가? 나를 위한다는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올 적에야 나를 모르는 사람이야 얼마나 비난이 만을 것인가? 이러한 것이 우리 조선에서 연극 사업을 助長케 하지 못하는 一大 原因을 만든 것이니 이러하게 어렵고 용이치 못한 연극 사업을 오히려도 꿈에 꿈꾸고 잇는 玄哲의 心情이 무엇을 바라 그러한지 스스로 알기 어려운 玄哲個人의 일대 問題거리라 아니할 수 업는 것이다. 玄哲의 一生은 한번이나 實現치도 못한 이 연극으로 破滅의 지경에 빠진지 이미 오래니 이는 玄哲個人뿐 아니라 玄哲과 가튼 지위에 잇는 사람이면 다 가튼 느낌에 잇을 줄 아는 바다.

2. 民族的 意志力과 演劇

사람이 萬物의 靈長이라 함은 사람에게 靈이 잇는 그것이 아니라 國魂 意志力이 잇는 까닭이라 할 수 잇는 것이다. 靈이라 하는 그것만은 정도와 차이는 잇슬찌언정 모든 생물로써 靈을 가지지 아니한 것이 업다. 그러나 그 靈의 작용되는 意志力은 人類社會가 가장 만흔 地位를 점령하고 잇는 것이니 이 意志力의 작용 여하에 따라서 그 민족의 消長 盛衰가 딸린 것이다. 그러함으로 그 민족의 의지력이 旺盛하면 그 민족이 旺盛해지는 것이요 그 민족의 意志力이 沈滯해지면 그 민족이 衰退해지는 것은 만흔 민족의 역사가 이미 잘 증명하고 잇는 것이니 이에 다시 말할 것도 업거니와 神經을 가진 사람으로써 찌르면 스리고 때리면 아픈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바이지마는 찌름이 업서도 스스로 쓰림이 잇고 때림이 업서도 저절로 아픈 것이 잇는 것이니 이는 意志力이 명백치 못하고는 알지 못하는 바다. 이른바 俗語에 손톱밧 가시는 알기가 쉬워도 염통밧 쉬스는 것은 알기가 어렵다는<49> 것은 생리적 刺戟과 이지적 刺戟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생리적 刺戟은 촉감에 의하는 까닭에 彼覺의 성질을 다분이 포함하였지마는 理智的 자극은 間感에 의하는 까닭에 자각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이는 理智로 打算하여 의지력으로 分揀하지 안하면 아니될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意志力이라는 것은 그 민족의 消長에 크게 관계가 잇는 것은 필자가 屢屢히 설명할 필요도 업겠지마는 그 민족으로써 뜻잇는 생을 營爲함에는 意志力을 涵養하는 것이 至極히 필요한 것이다. 어떠한 學者가 말하되 意志力이 薄弱한 민족은 亡國族이라 하여 그 例를 印度, 支那, 埃及에

비하였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국민이 自覺力이 없다는 말이니 아파도 어대가 아픈 지 모르고 스리어도 어떠케 스린 줄 모른단 말이니 날로 亡해가는 그 나라를 亡하는 줄 모르는 것은 意志의 力이 없다는 까닭이다. 마치 蕩者가 날로 萬金을 버리면서 酒色에 耽惑하여 來頭에 乞食할 것을 모르는 것 가티 오늘날 우리 민족이 개인적 생활상태로써나 집단적 공동노력이 남에게 비하여 손색이 만흔 것은 어대로 보아서도 列國이 門戶를 서로 이어 생존을 경쟁하는 이때에는 남보다 뒤질 염려가 만흔 것이다. 아니 남보다 뒤질 염려만 만흔 뿐 아니라 사실로 남보다 뒤진일 만흔 것이다. 우리의 처지로써는 남보다 10배나 20배를 노력하고 奮鬪하고 勉勵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실지로 그러치 못하여 혼돈이 날로 심해가는 것은 그것이 무슨 까닭인가? 물론 거기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필자는 제일로 意志力이 박약한 것이 모든 이러한 원인을 招致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여도 그처럼 의심이 없다고 한다. 우리의 민족에게 좀 더 意志力이 잇서 우리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민족에게 이롭지 못한 것이라던지 우리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민족을 구하는 큰 구제책이 된다는 것을 자각할 힘이 잇다하면 우리의 처지의 처지는 오늘날 보다도 좀 더 나을 것이 잇을 것이다. 그러한 見地에서 우리 민중에게 무엇보담도 먼저 힘쓸 것이 잇다고 하면 意志力을 涵養하는 것이 第一條로 필요한 것인 줄 아는 바다.

건전한 국민이 잇서야 건전한 국가를 持持함과 가티 건전한 意志力이 잇서야 건전한 운동을 釀成할 것이니 만일에 우리의 행동 중에서 意志의 力이 박약하다고 하면 오해도 거기에서 생길 것이요 猜忌도 거기에서 생길 것이며 分裂도 거기에서 생길 것이요 파멸도 거기에서 생길 것이다. 民族主義나 또는 社會主義나 其外에 어떠한 主義와 主張을 물론하고 자기의 행하는 바 동작이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도움이 잇다고 하면 그 방식 여하는 물론하고 그 민족을 돕게하는 목적의 歸結은 동일한 것이니 거기에 오해가 잇을 이치도 업을 것이요 猜忌도 잇을 까닭이 업을 것이며 분열도 생길 緣由가 업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우리의 운동 선상에 이러한 弊害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업는 것이니 이 무슨 까닭인가? 간단히 일언으로써 설명할 것 가트면 우리는 우리에게 意志의 力이 박약한 까닭에 자기의 행동에 자기가 그 歸結을 명백케 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月前에 어떠한 기회로써 어떠한 日本人 社會主義者를 만났더니 그는 朝鮮에 어떠한 主義의 운동보다도 먼저 演劇運動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말은 무엇을 의미함인가? 朝鮮사람은 좀더 意志의 力을 <50> 길을 필요가 잇다는 말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면 朝鮮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하고 남을 알아야 하며 朝鮮사람을 알아야 하고 朝鮮社會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함으로 우리 朝鮮에 잇서서는 演劇運動을 한갓 藝術運動의 一部門으로 볼 것이 아니라 民族運動이나 社會運動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잇는 줄 필자는 절실이 느끼는 바가 만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劇界로 보아 우리 民族運動과는 넘우도 間隔이 멀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하등의 關涉이 없다는 것은 유감에도 유감이니 필자는 우리에게 民族運動으로써 民族運動보다도 演劇運動을 일으키어야 할 것이요 社會運動으로써 社會運動보다도 演劇運動을 일으키어야 할 것이니 어찌하여 그러함인가?

3. 人生의 觀照와 演劇

演劇을 藝術이란 견지로 보아 - 더욱이 藝術派의 藝術의 견지로 바아 - 연극을 민족운동의 한 이용꺼리로 하는 것은 가장 불만을 품을 人士도 업지 아니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처지로서는 그러한 豪華로운 말을 할 시기까지는 아직도 길고 긴 時日이 잇는 것 같다. 어찌면 演劇이 우리 民衆에게 生活意識을 명확케하며 어찌면 우리 민중에게 意志力을 甦世케 하고 어찌

면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되게 할까하는 그것이 필자로서는 연극에서 바라는 유일의 所願이다.

어떠한 사람이 詩를 鏡水無風의 大湖와 갖고 소설을 滾滾長流의 大河와 가트며 劇을 斷岸千尺의 瀑布와 갖다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미술은 귀족의 장식품이요 소설은 「불조아」의 消日꺼리지마는 劇이야말로 「푸로레타리아의」 소유물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모두 일리가 업는 말이 아니다. 劇이란 원래에 組成의 본체가 충돌과 갈등으로 된 것이다. 그러함으로 그 충돌과 갈등이 頂點에 이르러서 해결을 짓게 됨으로 斷岸千尺의 폭포라 함이 이를 가리치어 한 말이다. 이러한 까닭에 의사와 의사의 충돌이 있고 행위와 성격과 환경의 갈등을 가지었는 고로 觀者로 하여금 意志의 力을 소양하게 되는 것이다. 연극 의지설에 국민의 의지력이 발달되지 못한 나라에는 演劇이 발달되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意志力이 업는 나라는 모도가 亡國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亡國에는 演劇이 발달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이러한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러한 것은 讀者諸君의 智力으로 現今에 演劇이 발달된 나라와 발달되지 못한 나라를 손꼽아 보고 발달한 나라는 어떠한 것이며 발달되지 못한 나라는 어떠한지 되어 있는가를 비교하여 보면 알 것이다. 아파도 어떠하여 아픈지 괴로워도 어떻게 하여 괴로운지 못살게 되어도 어떻게 하여 못살게 되었는지 그러한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아는 것은 意志의 力이 강하지 안하면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意志의 力으로 明確케 할 필요가 있지 안한가?

미술은 高價品인 까닭에 無產大衆과는 인연이 좀 먼 것이다. 소설은 幾許의 장시간과 識者라는 조건이 붙게된 까닭에 「불조아」의 소일꺼리라는 말이 생긴 것 같다. 그러나 演劇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단시간에 識者나 無識者나 富者나 貧者가 한 곳에서 가티 웃고 가티 울며 가티 질기고 가티 성낼 수 있다는 의미로써 無產階級의 소유물이라고 한 것 같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51>

演劇이란 것이 인생의 생활의 裡面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한 그 인생도 汗慢한 長歲月의 行蹟을 1시간이나 2시간에 緊縮하여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無識者라도 보게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생활 裡面을 觀照케 하는 것이다. 敵國을 攻伐함에는 먼저 敵國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은 먼저 사람을 알 필요가 있다. 朝鮮민족을 위하여 民族運動을 일으키려면 먼저 朝鮮민족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朝鮮社會를 위하여 社會運動을 일으키려고 하면 먼저 朝鮮社會를 알아야 할 것이다. 單角으로 아는 것보다가 多角으로 알아야 할 것이요 平行으로 아는 것보다 충돌도 알아야 할 것이며 순조로 아는 것보다도 갈등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單角이면 편견의 弊가 있고 平行이면 태만하기 쉬운 것이요 순조이면 방심하기 용이한 것이다. 공기 중에 사는 사람으로 공기란 고마운 줄 時時刻刻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스며 날날이 접촉하는 인생 생활을 의미있게 意志力으로 판단해가는 사람이 누구인고? 더구나 10년이나 20년이나 또는 일평생에 생을 凝縮하고 세련하여 우리 민중에게 암시를 주어 스스로 自覺力이 생기게 할 것이 그 무엇인고? 演劇 그것이 이러한 힘을 가진 것이다.

우리에게 先人の 역사를 읽힐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先人の 皮相의 生活記보다가는 그 先人の 생활 裡面史인 演劇으로 그것을 알리게 하는 것이 필요치 아니한가?

필자는 부르지진다.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노력하는 어진 선비들이 먼저 자기를알며 남을 알고 우리의 先人을 알고 後進을 引導할 자각과 암시를 엿기 위하여 뜻있는 演劇運動을 일으키려고!

劇界로 본 우리의 民族運動이 공허함을 항상 슬퍼한다.

(丙寅 陽12월 8일 夜 東國文化協會 편집실에서) <52>
<48-52>

31.

잡지명: 동광 제10호

발행년월일: 1927년 02월 01일

기사제목: 체크 民族의 精華 「소콜」運動이란 무엇인가, 肉體的 健全과 精神的 健全이 民族의 自由를 어둠에 큰 關係

필자: 朴天主 박천규

기사형태: 소식

체크 民族의 精華 「소콜」運動이란 무엇인가, 肉體的 健全과 精神的 健全이 民族의 自由를 어둠에 큰 關係 (체크 민족의 정화 「소콜」운동이란 무엇인가, 육체적 건전과 정신적 건전이 민족적 자유를 어둠에 큰 관계)

朴天主

「소콜」의 語意

「소콜」(Sokol)은 「체크」나라 말로 매(鷹)라는 뜻이다. 「체크」民族은 이 「소콜」이란 말로써 그 나라의 體育協會의 別名으로 쓴다. 그리하여 體育協會에 속한 사람을 「소콜」이라 부르기까지 한다. 「소콜」이란 말의 使用됨이 이리케 廣汎한 것이다.

「소콜」協會에 이름을 둔 자는 모두 다 精神과 肉體의 調和訓練을 爲主하여 理想으로 實行한다. 그 理想은 國 개인의 自立的 精神과 社會의 自治的 訓練이 생기게 함이다. 그를 訓練함에는 극히 強制的이로되 機械的은 아니며 愛國的이로되 政治的은 아니며 道德的 禮儀的이로되 결코 嚴酷에 흐르지는 않는다. 거기에 「소콜」運動의 妙味가 잇는 것이다.

壯快한 「소콜」祭

年中行事로 한해 한 번씩 소콜祭 國 體育祭가 있다. 그 때에는 각 地方으로부터 「소콜」이 체크슬로바키아 共和國의 서울 「푸라그」에 모여 盛大한 儀式을 行한다. 九萬이나 넘는 觀覽客과 六萬의 會員을 一時에 入場하기 가능한 大競技場에는 出入處가 넷이 잇는데 큰 문이 「카텐」으로 가리워 있으며 한편 조금 노른 곳에는 큰 音響板을 背後로 한 奏樂壇이 잇는데 거기에서는 넓은 廣場을 울리는 音樂이 演奏된다.

定刻이 되면 문에 달리어 잇는 「카텐」이 一時에 거더 치워지고 音樂壇으로부터 囀々한 「소콜」의 行進曲이 시작된다. 14,400人의 「소콜」은

隊伍整然히 들어온다. 濃靑色의 아랫바지와 흰 運動服을 입고 帽子에는 소콜(鷹)을 상징하는 매의 깃(鷹羽)을 꼬갓다. 樂隊의 演奏와 함께 소콜式 分列式을 行한다. 이것이 끝나면 全隊員은 『소콜 萬歲』 『大統領 萬歲』를 각히 3呼한 뒤에 이어서 體操가 시작된다. 14,400人의 소콜은 一齊히 하얀 돌의 소리를 連發하는데 그 活潑한 氣象과 輕快한 動作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壯觀이다. 이것이 끝나면 여러 가지의 變化 많은 아름답은 模型을 그리는 分

列式이 시작된다. 그것이 끝나면 곧 극히 짧은 시간안에 隊伍整然하게 걸어서 退場하는데 그 敏活하고도 아름답은 舉止에는 누구나 한 번 보면 驚嘆 아니 할 수 없다.

이와 가티 남자의 소콜 運動이 끝나면 이번에는 12,800人의 女子 「소콜」이 入場하기 시작한다. 흰 옷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었고 머리에는 역시 매의 깃으로 裝飾하였다. 남자와 꼭 가티 分列式과 萬歲와 體操를 行한다.<35>

이 광경을 구경하는 이 중에서 『이것은 運動이 아니고 軍隊의 하는 짓이라고 말하는 이도 잇섯다. 이는 그 訓練이 嚴正하고 輕快함에 놀래어 하는 말이다.

以上은 最近 소콜祭의 報告에 의하여 거기에 參加한 「소콜」 人數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소콜」協會에 속한 人員數는 체크國 人口 1천만 중에서 실로 70만人을 占하였다. 이 70만의 「소콜」이 同一한 訓練 同一한 號令下에서 整然한 行動과 一致한 步調를 함께함에는 진실로 놀래지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소콜」運動의 精神

平時에 상당히 訓練을 바든 소콜은 만일 一旦에 國家에 危急한 일이 잇을 때는 하로 밤 동안에 수천백명의 남자를

戰場에 내어 보내고 組織的 訓練에 익숙한 婦女들은 背後에서 그들을 援助한다. 그 訓練이 얼마만한 정도까지 이르렀는가. 昨年 소콜祭의 第 1日에 마침 風雨로써 남자 「소콜」은 전신이 비에 젖었는데 그 背後에 잇는 婦女의 「소콜」이 어느새에 남자들의 바꾸어 입을 옷을 너럭히 準備하여서 신발까지 하나도 남기지 안코 죄다 갈아 입히기에 한 시간도 못 걸리었다는 사실로서 그 얼마나 敏捷하고 用意周到함을 짐작할 수 잇을 것이다.

이와 가티 소콜의 그 團體的 組織的 訓練도 驚嘆할 일이라니와 그보다 더 그들의 가슴속에 품고 잇는 더욱 점점 노파져 가는 그 「소콜」의 精神에 대하여 더욱 驚嘆할 바이다. 그들의 가슴에는 「체크」人이라는 民族的 精神이 充滿하여 잇슴이다. 民族的 自由를 위하여 民族的 獨立을 위하여 民族的 義奮을 위하여 그들 「소콜」은 그 名譽를 辱되게 하지 안는 것으로 唯一의 信條를 삼는다.

대개 國民은 少數면 少數일수록 더욱 健全하여야 하는 법이다. 그 國家를 構成한 民族의 精神 가운데에서 길리워지는 것이다. 이 民族的 精神가운데 길리워지고 健全한 신체가운데서 자라나는 國家의 生命이라말로 어떠한 權力이라도 壓服할 수는 업는 것이다. 小數요 또 不健全한 것은 自滅의 前兆다. 健全하고 進取的인 民族에게는 榮光이 돌아오는 것이다. 競爭에 이기거나 그러치 못하면 죽음을 選擇하는 것이 우리들의 精神이다 함이 곧 그들의 主張이다. 또 그들은 民族的 繁榮을 위하여 健全한 同胞가 날날이 늘어 가기를 熱望한다. 그리하여 튼튼한 신체를 길우고 썩썩한 精神을 일으키기 위하여 肉體的 精神的의 訓練을 겨을리지 아니하는 바다.

소콜은 어대까지던지 進取的이요 勤勞的이요 常識的이요 規律的이요 組織的이다. 그들은 平等一律로 同一한 精神을 가지며 同一한 理解를 가지려 한다. 그리하여 서로 協調하며 서로 激勵하여 어떠한 일이고 한 번 하겠다는 것은 귀어히 하고야 만다. 그들의 平常時라도 항상 元氣잇고 愉快하고 秩序잇는 言語動作에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곰 信이 잇고 熱이 잇서 보이어 自然히 부러움을 느끼지 안흔 쭈가 업다.

「소콜」運動의 開祖

이 놀랄만한 民族運動의 하나로서의 「소콜」運動이 언제부터 잇섯스며 어떻게 생기었는가. 「

소콜」의 開祖는 곧 미로슬라프 테일스博士다. 博士의 가슴속에 기피 흐르는 보헤미아의 熱血이 「소콜」運動으로 化하여 나타난 것이다.

젊은 天才로 이름이 노푼 테일스博士는 哲學者였는데 푸라그大學에서 哲學을 講義하는 餘暇에 古今美術의 研究에 專心하였다. 獨逸, 伊太利의 古典美術에 沒頭하였을 때에 어느 듯 그 古典美術의 <36> 根底로 흘러있는 어떤 幽玄한 精神을 覺破함에 이르렀다.

테일스博士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보헤미아가 지금 奧太利의 支配 下에 있다

獨立을 일코 나의 同胞인 「체크」人은 이제 저 異民族의 羈絆下에 奴隸的 屈從을 餘地없이 맞고 있다. 이와 가티 自由를 빼앗긴 나라와 民族은 도저히 獨立한 文化의 발달을 기대할 수 없다. 체크의 文化와 체크의 美術은 復興 振行하려면 精神的 肉體的 또는 道德的으로 自由를 엿지 아니하면 안되겠다.

이 民族的 自由를 엿지 못하면 「체크」人은 영원히 民族의 文化의 精神을 發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체크」民族의 自由를 위하여 나의 一生을 바치리라.』 이렇게 굳게 결심하였다. 그의 뜨거운 피는 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躁急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요히 그 方策을 생각하였다.

「소콜」協會의 創始

테일스博士는 그 가장 信服하는 同志 몇 사람에게 이 意思를 통하여 가티 일하기로 작정하였다. 곧 보헤미아의 정신으로써 서로서로의 사이에 秩序있고 規律있는 생활을 하자 또 신체를 訓練하기 위하여 누구나 愉快하고 簡單하게 할 수 있는 體育을 공부하자.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規律과 禮儀를 중히 여기자. 보헤미아의 精神을 發輝하자. 이와 가튼 規約으로써 굳게 約束하였다.

테일스 博士는 그 후에 또 熱心으로 이 일을 知友의 사이에 宣傳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휴-구나 라는 富豪가 테일스博士의 계획에 비상히 贊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自進하여 그 運動의 經費를 支辦하기로 約束하였다. 이에 테일스博士는 휴-구나씨와 協力하여 오로지 「소콜」運動의 宣傳과 發展에 노력하였다.

휴-구나씨는 테일스博士의 民族을 사랑하는 精神이 熱中한 것과 그 理想이 훌륭하고 또 遠大함에 共鳴하여 필경 博士를 자기의 사위를 삼는대까지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테일스博士의 婦人도 熱心으로 「소콜」運動을 援助하게 되었다. 테일스博士가 그 일을 시작하려고 생각한 때는 1859년이었는데 「소콜」협회가 1862년이였다. 當時는 單純히 一個 體育協會로서 創立되었었다. 그 때에 테일스博士의 年齡은 겨우 28歲였었다.

「소콜」運動의 發達

테일스 博士는 事業이 채 完就되지 못하여서 不歸의 客이 되었다. 功든 塔이 문어지랴 博士의 在世時에 千幸萬苦로 활동함과 周到한 計劃下에 幾多의 後繼者를 養成하였으므로 그 事業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後繼者로서 쇠이나씨와 가튼 熱情家도 잇었다. 博士의 未亡人은 쇠이나씨와 協力하여 「소콜」運動의 大成에 노력하기로 결심하였다. 쇠이나씨는 「소콜」 總裁로 選任되기에 이르렀다. 가장 名望이 높다는 마사리크 博士 가튼 人物도 「소콜」에 加入하게 되어 날로 더욱 「소콜」의 發達을 일우게 되었다.

한 가지 알아 둘 것은 「소콜」精神 중에는 보헤미아의 殉教者 쏘헛스의 魂이 숨기어 있음이다. 소콜協會 成立의 처음부터 테일스博士는 熱心으로 헛스씨의 말을 하더니 그것이 실현되어 나타나기는 얼마 지난 뒤의 일이다. 헛스씨의

熱火와 가튼 精神이 「체크」民族의 사이에 彌滿하였다. 그대로만 잇섯서는 그 風雲이 허터질 것 같지도 안했다. (以下 32行 削除-원문) 1926. 12. 30. <37>
<35-37>

32.

잡지명: 동광 제15호
발행년월일: 1927년 07월 05일
기사제목: 民族과 民族語
필자: 間島 鄭載冕 간도 정재면
기사형태: 논설

民族과 民族語 (민족과 민족어)

間島 鄭載冕

우리 民族은 반만년 동안 긴 歲月을 두고 祖先의 珍重한 부탁을 받아서 그것을 保存하여 遺傳한 것은 오직 「우리 말」입니다.

우리말은 祖先에게서 받은 遺産인 동시에 더욱 우리 民族의 精粹입니다. 한 民族을 형성한다면 반듯이 그 民族語를 요할 것이며 民族語는 民族的 精神의 產品인 藝術임으로 참으로 민족적으로 보아서 과연 無上의 珍品일 것입니다. 그럼으로 모든 것이 瓦礫이 될찌라도 民族語는 힘쓰어 보전하려 하며 모든 것이 冷灰가 되었더라도 民族語는 보존함이 그 民族으로 당연한 使命입니다. 筆者는 다년간 外領生活을 계속하는 중에서 「우리 말」의 가치를 절실히 深感하였습니다. 露領에 在留하는 同胞나 中領에 在留하는 同胞에게서도 종종 우리말을 만족히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혹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말을 말하기를 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 民族과 우리말의 關係를 理解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들은 벌써 30여 년 전에 外領에 移住하였음으로 우리 文化에는 얼마나 뒤떨어지었으며 더욱 新文化에 애매함은 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하였으나 여러 방면으로 新運動이 계속됨을 딸아서 우리말의 귀중한 價値를 알고 더욱 힘쓰어 연구함은 그들의 새 주장입니다. 참 고맙은 일입니다.

그런데 筆者가 금년 7월경에 會寧에서 한 親友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의 손을 잡으면서 『곤니찌와 데이상』이란 간단한 말로 인사하더이다. 그는 常識이 구비한 사람인데 7년 간 隔阻하였던 사람을 향하여 『곤니찌와』로 代言하니 참으로 극도의 中毒이라고 解釋할 것입니다. 어찌 그 個人뿐이겠습니까? 靑年 少年 男女를 물론하고 그러한 추세로 향함을 상상하기에 不難합니다. 참으로 民族과 함께 民族語 곧 우리말이 危機一髮의 처지를 당함을 구할 자가 누구입니까. 참으로 유일한 遺産인 우리말은 잘 보존함세다. 그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光輝있게 하여야 겠습니다.

우리말은 참으로 古代에 있어서도 막심한 위기를 피하여 坦然히 보존되었습니다. 이제 史的考察로 보면 檀朝 1,000여 년 간에 우리말은 우리 民族을 잘 糾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나 殷國 王族인 箕子가 東遷하던 때에 우리말은 많은 變動이 되었음은 사실일 것입니다. 箕子는

殷末 당시에는 한 가늠한 文士이었던 것은 그 徒黨을 보든지 그 政略인 洪範九疇를 보아도 넉넉히 추측할 바입니다. 그가 周發이 滅殷함을 보고 心氣가沮喪하였을 것이며 참아 伯夷叔齊와 같이 首陽山에 餓死하려는 消極政策을 취하지 아니 하였읍니다. 그는 장래에 國의 殷祖業을 回復할 一念을 품고 同志를 秘密裡에서 糾合하여 멀리 東方을 향하여 理想的 新王國을 設하고 目的을 貫徹하려고 生聚와 敎訓을 設計하였읍니다. 당시에 불평을 품고 志士로 결합된 亡命黨은 其數가 1,000家族으로 計算하도록 되었읍니다. 箕子는 王族이며 더욱 學者임으로 그의 결속된 徒黨은 다 熱烈한 志士이었을 것입니다. 말이 걸길로 되니 雅諒을 구하나이다. 그들은 黃河를<11> 渡하여 東方을 향하게 되니 웅당 山海關을 넘어 遼西를 지나 遼東에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 扶老携幼하고 먼 길에 시달리어 온 情形은 참으로 처참하였을 것입니다. 그 5,000으로 算하는 다수한 流民을 인솔한 箕子는 참으로 埃及의 紅海를 건느어서 파란 曠野를 당한 모세를 상상하게 되나이다. 그때에 山海關 以東을 管轄하는 檀朝에서 이 다수한 流民이 國內에 들어옴을 보니 手無寸鐵하고 다만 亡命된 상태임으로 道義上 이를 보호함이 國제 간에 당연한 義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련한 流民이 言語를 不通함에 生活上 많은 불편이 있겠으므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劃與하고 廣濶한 農場을 가지게 하였읍니다. 그들은 원래 강고한 결속이 있는 徒黨이며 더욱 理想的 國家를 건설하여 生聚와 敎訓에 전력할 大計劃을 세우었을 것이며 그들 중에는 萬全한 學術과 技藝가 구비하였었고 심지어 醫藥, 卜筮까지 능한 者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鐵工, 木工, 其他 百工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家屋은 模制있게 건축되었으며 그들의 도로는 井然하게 修開되었으며 그들의 農具는 精銳하였으며 그들의 井田制度는 참으로 보기 좋게 그 넓은 들가운데 劃定되었읍니다. 그 넓고 좋은 땅에서 그 가진 農具로 힘쓰어 일함으로 그들의 진보는 日就月將되었읍니다. 그때에 檀朝에서 그들의 生活上 幸福을 도아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政治上 自治를 주어 自由로 활동하게 함으로 참으로 그들의 計劃한 바의 理想國을 형성하였읍니다.

그때 檀朝 人民들은 그들을 流民生活이라고 등한시할 수 없었읍니다. 그들의 理想的 施設과 그들의 生氣가 充溢하는 活動은 참으로 老腐한 檀朝 人民에게 瞠目할 價値를 與하였읍니다. 당시에 漢族의 全般生活은 一大 異彩를 呈하는데 그 名譽는 전부 箕子에게로 돌아가게 됨은 그가 引率者가 된 까닭이었읍니다. 箕子를 酋長으로 한 漢族의 文化는 참으로 檀族에게 막대한 欽羨을 받았으며 더욱 互相傳告하여 箕子의 領域을 觀光하며 그 政治를 시찰함이 盛하였읍니다. 그리하여 漢族文化에 특히 農具와 醫藥에 心醉한 檀族은 그만 箕子를 王으로 추대하는 운동이 勃發하여 檀朝가 顛覆함에 至하였읍니다.

註 (그런데 現今 平壤을 箕子의 都城이라는 傳説은 참 새뻘한 거짓말이다. 大洞江 一名을 溟江이라 하니 溟江은 즉 배를(船으로 渡하는 水)이란 의의다. 그러면 淸川江도 배물이라 하였고 鴨綠江도 배물이며 遼江도 배물이라고 魏文志에 말하였다. 箕子가 배물 東에 居하였다 하였으니 現今 平壤은 배물 西에 位하였으니 그 誤謬됨이 明白하고 險澶(검터) 즉 錦州는 遼江 東 즉 배물 東에 있으니 錦州가 箕都됨이 近理하며 더욱 5,000 流民이 男負女戴하고 어찌 7,000里 旅行을 감행하였으리오. 海路 외 便도 없고 宿泊의 便도 難한 그때 遼江 東까지 당함도 극히 疲勞하였을 것이다. 箕都가 遼江 東임이 타당함.)

그때에 箕子는 檀朝 人民의 重托을 받고 만반 政治를 施設하려 하였으나 文言이 불통함으로 于先 互相간 通情한 言語와 文化를 가르칠 方法을 강구하고 자기의 部下를 各 鄉村에 派送하여 學校 같은 것을 設하고 漢書를 가르치게 되었읍니다. 그들은 朝鮮 農村에 가서 자신의 生活을 謀하며 지나는 동안에 점점 檀朝 風俗에 感梁이 됨은 불가피의 일이라 그의 말은 자연

히 檀朝의 固有한 말을 하게 되고 古來風俗을 지키는 檀朝 風俗으로 생활하면서 互相 通婚하게 되니 자연 檀朝 人民에게 同化되었습니다. 그리하여 小數인 漢族의 同化는 그들이 政權 잡은 까닭으로 인하였으며 檀族은 그들과 政權을 같이 활동하기 위하여 漢學을 배호게 되니 그때로불어 檀朝의 오랜 文化는 남김없이 몰락될 運을 當하였습니다. 그러나 檀族의 習俗과 말 즉 「우리 말」만 그 危機를 면하였으나 다소 變革이 있었다 합니다. 그리하여 箕子의 引率하였던 漢族 5,000은 참으로 一躍하여 朝鮮의 政權을 잡았으나 결국은 檀族에게 同化되었으니 만사는 終局을 보와서 辨定할 바입니다.(以下 21行 삭제-원문)<12>
<11-12>

33.

잡지명: 별건곤 제12·13호

발행년월일: 1928년 05월 01일

기사제목: 내가 자랑하고 십흔 朝鮮 것-民族的 道德性

필자: 朴熙道 박희도

기사형태: 논설

내가 자랑하고 십흔 朝鮮 것-民族的 道德性 (내가 자랑하고 십흔 조선 것-민족적 도덕성)

朴熙道

우리 朝鮮 사람으로서 外國 사람에게 자랑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나는 무엇보다도 民族性을 자랑하고 십습니다. 우리 朝鮮 사람은 다른 民族보다 남을 잘 包容하고 尊重하는 道德心이 만습니다. 과거 歷史로 볼지라도 外敵의 侵害를 防禦는 할지언당 自己의 野慾을 채우기 위하여 남을 침해, 掠奪하는 殘忍 不道德한 일은 업섯습니다. 그것은 國家로도 그러하얏고 個人으로도 그러하얏습니다 우리 朝鮮을 다른 나라에서 東方禮義之國이라고 推崇하는 것도 그 까닭인 것 갓습니다. 近來에 적은 例를 들어 말할지라도 年前에 西洋 사람 「존」博士가 朝鮮에 와서 講演을 하는데 그는 朝鮮말 스숫투름으로 「나비(蝶)가 꽃 속으로 펄펄 날어든다」는 말을 나기(驢)가 꽃 속으로 펄펄 날어든다고 하얏는데 數千의 聽衆이 儼然不動하고 그대로 듯고 잇섯섯더니 그 뒤에 그는 누구에게 자기의 말이 잘못되엿섯다는 말을 듯고는 크게 感歎하야 갈오대 「世界 어느 民族 치고 朝鮮 兄弟처럼 容恕性이 만코 남을 잘 尊重하는 사람은 업다. 만일 日本이나 中國 또 西洋 어느 나라에 가서 그와 가튼 스투른 말로 講演을 하얏스면 嘲笑가 막 나고 講演場이 笑話場이 되엿을 것이다. 그러나 朝鮮 양반들은 조곰도 그러한 氣色이 업고 自初至終으로 잘 드리주니 그런 感謝함이 업다」고<44> 하고 그 사실을 었던 西洋 新聞에까지 발표한 일이 잇섯습니다. 例야 들던지 안이 들던지 우리 朝鮮 사람이 道德性이 만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거리요 또 將來에도 우리 民族이 世界的으로 發展이 되고 優越한 待遇를 받들 素質이라고 하갓습니다. <45>

<44-45>

34.

잡지명: 삼천리 제1호

발행년월일: 1929년 06월 12일

기사제목: 民族文學과 無産文學의 合致點과 差異點

필자:

기사형태: 설문

民族文學과 無産文學의 合致點과 差異點 (민족문학과 무산문학의 합치점과 차이점)

오늘날 시나 소설이나 극 가튼 모든 부문의 조선문학이 사회민중에게 끼쳐 놓는 바 영향과 작용이 여간 크지 안타. 그런데 이러케 중대한 일을 맛하하고 잇는 우리의 문예운동선상을 살펴 보건대 거기에는 민족주의적 운동에 뿌리를 박은 민족문학운동과 무산계급운동에 뿌리를 박은 프로문학의 두 운동이 있다. 글쓰는 문사의 진형이 저절로 이와가치 갈라져 잇슴에 독자의 분야도 그에 따라 갈라지고 있다. 이 형세가 집분 일인가 슬픈 일인가 하는 것은 탄 분의 비판에 맞기려니와 위선 우리는 두 운동이 엇더한 덤에 차이가 잇고 또 엇더한 덤에 합치가 잇는가 함을 잘 알아 두어야 하겟다. 물론 이것이 아메리카나 불란서 사회라면 문학상의 새삼스러운 문제가 되잘것도 업겟지만 또 가튼 조선이라도 만일 삼사년 전만 하여도 문데될 바 업겟지만 오늘의 모든 정세는 또다시 한번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둘 필요에 절박하였다고 우리는 보고 이에 문단체가의 고견을 싣기로 한 바이다. (좌인)

歷史的 地理的이 갖고 哲學的 主義的이 다르다

李光洙

一. 合致點

민족문학과 무산문학은 그 역사적, 지리적, 종족적, 예술론적(즉 문학상의 미학을 가르침)의 諸 조건이 가튼 것이니 좀더 자세히 말하건대

첫째 어학이 같다. 가튼 땅에서 자라난 작가들이니 만치 가튼 조선사람에게 사상감정을 전함에 잇서서 가튼 「가가거겨」로써 한다.

둘째 형식이 같다. 신흥하는 무산문학도 시가, 소설, 극 등 그 문학상의 형식에 잇서서는 재래의 형을 襲用하고 있다.

셋째 기질이 같다. 기질이라 함은 사상감정의 움즈기는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니 가령 그 민족의 민족성이 대체로 樂天的이라하면 작품도 대개 그를 기조로 삼아서 되어질 것이요, 그 반대로 厭世的이라 하면 역시 염세사조가 자연히 기조를 이루어질 것이니 이 기질을 무시하고는 그 작품은 조선인에게서 애독을 맞지 못하고 말 것이다.

넷째, 풍습이 같다. 무산문학이라도 가정을 그리자면 朝鮮가정의 전래하는 풍속습관을 무시하고서 日本가정부터 그릴 수는 업스리라.

二. 差異點

두 문학은 철학적 주의적 諸 조건에 잇서서 알에와 가치 다르다.

첫째 무산문학은 「반드시」 유물론적이어야 하고 민족문학은 유물론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러치 안어도 조타.

둘째 무산문학은 「반드시」 계급투쟁적이어야 할 것이로되 민족문학은 그런 것도 필요하나 반드시 그런 <32> 것에만限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무산문학은 宣傳的이어야 하나 민족문학은 「不必宣傳的」이다.

넷째 무산문학은 반드시 反抗的(현재에 잇서서)이어야 한다. 즉 시간적으로는 전통에 반항하고 공간적으로는 現 制度에 반항하여야 하나 민족문학은 반항도 조흐나 또 반드시 그러치 아니도 조타.

다섯째 무산문학은 반드시 세계적이어야 하나 민족문학은 흔히 애국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울닐 수도 잇는 것이니 露西亞의 위대한 국민문학이라 일컫는 「톨스토이」 작품도 반드시 그 一國에 拘치지 아니하고 널리 세계적 문학으로 일함이 흐르는 것을 보아도 알 것이다. 대개 이상과 갓다고 생각하다.

(文責在記者)

薄弱한 差異點과 兩文學의 合致性

金東仁

민족문학과 무산문학은 모도 다 변변치 안은 문제로 이러타 저러타 다투는 점에서 합치점을 발견할 뿐.

그 차이점은 마치 가마귀의 雌雄과 가타서 알 수가 업습니다.

本質的으로 兩文學은 水炭關係

金永八

一. 民族文學과 浮世文學의 差異點과 合致點

나는 이우의 제목에 너무나 어렵고 말하기가 거북함을 느낀다. 그것은 민족문학과浮世문학이 전연 그 방향이 다르고 또한 사상이 다른 까닭이다.

우리가 얼는 말하는 문학이란 좀 더 널리 말하야 문예만을 단순히 말한다면 모르지만 민족문학 또는浮世문학 무슨 문학문학할 것 가트면 그 곳에는 반드시 엇더한 문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되지 안이하면 안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곳에는 차이라는 소극적 용어로는 너무나 거리가 머러질 것이다. 따라서 그 곳에 합치점이란 도저히 발견되지 안을 것이요, 차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잇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民族은 保守的 浮世는 世界主義的

尹基鼎

귀사에서 무르신 바 『무산문학과 민족문학과 的 合치점 及 차이점』에 대하여 필자: 는 아래와 가튼 견해를 가지고 잇습니다.

一. 合致點

본질적으로 상반되어 水火不相容의 格이다. 그림으로 합치점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업다.

一. 差異點

푸로문학은 세계주의에 입각한 전 인류의 과도기적 문학이요 민족문학은 향토적 보수적이니만
치 푸로문학운동上으로 보아 一個의 반동문학으로 認證할 수 맞게 업다. <33>

<32-33>

35.

잡지명: 삼천리 제2호

발행년월일: 1929년 09월 01일

기사제목: 民族保健의 恐怖時代, 肺病療養所의 設置 提議

필자: 醫學博士 鄭錫泰 의학박사 정석태

기사형태: 논설

民族保健의 恐怖時代, 肺病療養所의 設置 提議 (민족보건의 공포시대, 폐병식양소의 설치 제의)

醫學博士 鄭錫泰

肺病을 警戒하자.

서울이나 平壤 大邱 가튼 큰 도회의 길거리를 거러 다니는 조선사람을 보면 그 중에 十에 6. 7은 분명히 폐병환자들이다. 비록 그것이 초기가 되어서 피도 토하지 안코 또 병석에 누여 알치 안을 뿐으로 환자임에는 틀림이 업다. 그뿐더러 漢方醫들 손으로 曰 氣血부족이니 曰 不足症이니 운운하며 病因조차 철저히 알지 못한 채로 죽여가는 만흔 시체가 대부분이 역시 폐병환자인 것을 이저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만일 이 폐병만 아니엇던들 조선이 결코 세계에 사망률로 제1위에 가지 아니할 것이다.

실로 이 폐병 때문에 피를 토하며 또는 다른 병을 併發하여서 죽여가는 동포 수가 엇더케나 만흔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그 환자는 밤을 자고 나면 자고 날스록 만어간다. 만일 독끼를 든 강도가 街頭를 橫行하며 多數한 人命을 찍어 죽인다 하여도 또 맹렬한 虎列刺 가튼 전염병이 家家戶戶를 범한다 할지라도 폐병의 참화보다는 크지 못하리라. 폐병은 지금 온전히 민족적 보건의 뿌리를 짓밟고 있다. 민족의 수만 수십만이란 헤일 수 업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의 위기가 다 닥쳐왔건만은 사회는 그 救濟를 생각하지 안코 병자 자신은 또 無識泰平으로 그날 그날을 한갓 보내고 잇슬 뿐이다. 이러다가는 엇더케 될가? 폐병으로 亡族할 맞게 업스리라. 나는 이에 폐병이 엇더케나 두려운 것인가 함을 극히 상식적으로 적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말하여 이 글의 罅를 매즈라 한다.

朝鮮이 死亡率로 第一

폐병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안즌 자리에서 죽지 안는 병이란 것과 또 「내야 설마 걸렸스라」 하는 똥만지 가튼 생각을 하여 가지고 등한히 들어 넘길넌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실로 그리

한 태도에서부터 곳치어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잠깐만 정신을 드리어 내 말을 드러 주기를 바란다.

폐병도 역시 다른 병과 가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균으로 전파되는 것인데 이 균은 일즉 6, 70년 전에 獨逸의학자 「코허-」가 발견한 것으로 아조 미개한 야만인의 地方을 내어 노코는 세계의 어느 곳에 업는 곳이 업스리 만치 보편되게 퍼지어 있다. 그런데 폐균은 문명국에 만코 그 문명이 低級할수록 적은 법이다. 그래서 그 순위를 친다면 歐羅巴 各國 美國 日本 朝鮮 中國 印度 이러케 될 것인데 그 중에도 조선과 가치 고도의 문명도 못가졌고 그 대신 야만하지도 안은 중간지방이 <40> 더욱 위험한 법이니 이는 마치 사회사상의 侵潤과도 가튼 것으로 문화를 따라서 폐병균이 드러오면 저항력이라고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 저항력에 대하여는 차츰 말하려니와 문명히 놀할수록 폐병균이 만타는 그 이유를 설명하건대 문명의 시설이 잇는 곳 가령 말하면 기차, 자동차 정거장 등은 물론 극장, 학교, 浴場, 병원, 카페- 등이 만허서 곳곳에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었고 또 공장이 잇서 밤낮 거문 연기를 토하며 길거리에 먼지가 차고 일광이 실내로 잘 드러오지 못함으로 균이 만히 생기고 그 생긴 균이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작고 퍼져가는 때문이라 폐병환자가 하로 동안에 기침이나 춤이나 기타 호흡 등으로 내어 뱃는 균 수가 수억 마리가 된다한 즉 그것이 모다 공기중에 流離하여 다수인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알기게 말하면 기차 자동차가 왓거든 아모리 궁벽한 산골이라도 폐병균이 드러 왓거니 하고 경계하여야 할 일이라 문명은 梅毒이라든 시대는 벌써 지나가고 「문명은 폐병」이란 시대가 다 닥쳐온 줄을 우리들은 먼저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救하여 나갈 길

그리하여 극장, 공장, 학교, 병원, 기차, 교통 등이 만흔 歐美 各國보다도 조선이 폐병환자가 만코 따라서 사망률이 만흔 까닭을 나는 앓가 조선사람의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이라 하얏다.

그러면 그 저항력이란 무엇이뇨. 曰. 그 사람의 체질 曰 그 사람의 심리 즉 낙천자 혹은 비관론자인가 曰 영양 曰 운동 又は 攝生. 曰 병에 대한 단련 혹은 지식 등을 들 수 잇는데 첫째 우리들의 체질은 大體에 잇서서 強壯體格이 못된다. 그리고 정치상 사회상의 영향으로 그 심신이 유쾌한 때라고 별로 업서 대개 憂鬱하며 경제상 관계로 콩나물죽에 조밥 알갱이나 먹으니 대다수는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며 운동은 純無하며 지식이 업스니 저항력이라고 잇슬 까닭이 업다. 잇슬 까닭이 업스매 폐병은 療原의 불길 가치 작고 퍼지는 것이다.

그래도 이러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잇스면서도 산 사람이 죽는 사람보다 더 만흔 까닭은 오직 단련 때문이라 할 것이니 이 단련이란 마치 쓰레기통에서 썩은 음식을 주서다 먹고 남의 집 침아 곳에서 자는 걸인이 무병한데 참외 먹고 조금 찬데서 잤다고 설사하고 야단치는 養生하는 사람의 관계와 가튼 것이다. 이 저항력도 40, 50먹은 이가 더 강하고 시집 장가 갈 철인 25, 6세 이전의 청년들이 약한 법이다.

그러면 엇더케 하여야 조선사람도 근본적으로 폐병을 예방하고 적더라도 저항력이나 만허서든 병과 오래 싸워나갈 수 잇슬가.

1. 가옥이 낮고 방이 좁은 것을 고쳐야 하겟다. 서양 사람들은 그 너른 방에 혼자 잇스며 일본인도 4疊半 1실에 한 사람의 比例로 사는데 우리들은 採風通光이 모다 남분 약 1평 가량의 방에 4, 5명씩 밀집하여 사니 이것을 곳치자.

2. 온돌의 연기가 납부다. 공장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폐병에 아조 납부다함은 이미 말한 바 어니와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매일 조석으로 市中을 덮는 것이 여간 해로운 것이 아니다. 엇더케 이 연기를 피할 도리를 하자.

3. 영양을 섭취하자. 엇더케 피 되고 살이 될 만한 음식물을 먹을 도리를 하자. 그리고 병이 들면 즉시 병원에 달려가서 곤치자. 돈이 업스니 그러하겠지만 병이 나도 그냥 파묻어 두었다가 사경에 이르러 병원문을 <41> 두드리니 그 생명을 엇더케 救하여지랴. 그리고 一年에 한 두번은 山水 조흔 곳으로 避暑다니자. 또 운동도 하고 房事를 덜하고 心神을 愉快하게 가지자.

대개 이러하다. 그러나 이상에 말한 바 여러가지는 푸로레타리아가 대다수일뿐더러 特殊한 처지에 노힌 朝鮮人에게는 거지반 기대하지 못할 조건뿐이다. 그러나 목숨을 병에게 빼앗기는 마당이니 最善最大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이 길을 取히기로 할 것인 줄 안다.

療養所를 設置하자.

마지막에 肺病환자의 症勢를 말하고 療養所設置 提議에 미치자. 肺病의 초기는 늙어서 알토록은 압호지 안으면서도 각금 身熱이 나고 기침이 나며 일하기 실코 口味가 업고 얼굴이 노래가며 몸이 몹시 疲勞하여서 讀書도 오래 못하고 體系있게 思考하기도 실호며 또 조금하면 성이나는 것들이다. 그 뒤에 病勢에 따라 二期 三期까지 가면 그 사람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모양으로 점점 줄어들며 또 感氣나 맞나면 즉시 肺炎을 併發하여 卒死하고 마는 것이다. 대개 第一期로부터 죽기까지 이르는 동안은 6개월경부터 만호면 40년, 50년까지 연명하는 수 있스나 그것은 기적으로 보는 것이 올겐다.

그러면 사회사정 經濟形便으로 朝鮮의 압날에 肺病患者가 더욱만히 증가할 터인데 이 可恐한 病을 무슨수로 막어낼가. 오직 肺病療養所를 주요 각처에 설립하여 노코 官邊에서 경비를 다 이든지 민간의 어느 재단에서 그리 하든지하야 無料로 수용치료하여야 할 것 안줄안다. 실로 獨逸. 英吉利 其他 文明 各國에는 도시마다 國立療養所가 잇서 환자를 무조건하고 얼마든지 치료하여 준다. 日本만 할지라도 爲先 東京一個所에 1200명 환자를 항상 수용하고 잇다한다. 孤兒院. 養老院. 學校가 필요하지 안는 것이 아니나 그 필요정도에 잇서서는 肺病療養所만 못하리라. 朝鮮은 민족보건상 중대위기에 처하여 잇슴을 自覺하고 어서 이 療養所設置에 온갖 방면의 힘을 한데모아 그 실현에 애쓰는 것이 焦急의 일인 줄 아노라.<42>

<40-42>

36.

잡지명: 별건곤 제32호

발행년월일: 1930년 09월 01일

기사제목: 世界各國 弱少民族의 生活相, 夢幻國 安南

필자: 北熊生 북웅생

기사형태: 소식

世界各國 弱少民族의 生活相, 夢幻國 安南 (세계각국 약소민족의 생활상, 몽환국 안남)

北熊生

安南은 安南人이 톤킨(東京) 三角洲에서 南下하기 전에는 인도문명을 전달한 占婆國으로 중국이나 우리 나라에서 林巴國이라 불너오든 나라다.

天空에는 공작이 춤추고 산림에는 鳴禽이 朗嘯하는 남부 安南의 풍광은 동화의 나라 지상의 천국과 갓하여 悠長한 동양적 정취를 악김 업시 부어 주는 평화로운 나라이었다. 그러나 약소한 所致로 일즉 인접해 잇는 다른 나라(東京交趾支那, 라오스(蠻 檻) 감보자(東浦寨))와 한가지 支那의 세력범위 안에 들어 잇섯다가 距今70여년 전에 佛國 나폴레옹 3세의 勃勃한 領地所有慾은 이곳에까지 미치여 西曆 1858년 西班牙와 협력하여 安南을 攻取하고 西貢을 점령하여 1862년 西貢條約 이래로 印度支那半島의 동반부를 완전히 領取하여 유수한 식민지를 만들었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佛國은 交趾支那를 식민지로 하여 총독을 두고 감보자, 東京, 老檻와 한가지 安南은 保護國이란 명목 아래 要路에 자기 나라 관리를 배치하여 통치를 하고 잇는<78> 형편이다. 그러므로 그 實에 잇서서는 식민지임에 틀림이 없다.

이리하●ㄱ 佛人の 자본가들은 이 지방의 중요한 생산업에 빠지지 안코 투자하여 天與의 安南寶庫를 헛치고 빈약한 安南人의 囊中을 털고 노동력을 짜내고 있다.

농작물로는 安南米를 비롯하여 豆類, 甘薯, 棉, 煙草, 珈琲, 야자, 胡椒, 과일 등이 잇스며 金, 석탄 등의 광산이 잇고 安南山脈의 오지에는 千古에 斧鉞이 들어가 본 일이 업는 大密林이 들어차서 紫檀材로 「착크」 家具堅材로는 「림」이란 堅材며 기타 각종의 목재가 鬱密하였는데 다년간 佛國으로 수출되고 지방은 남겨지가 만치 못한 모양이다.

그러나 安南은 면적이 52,100平方 哩에 인구가 5백 9십 5만 2천에 불과한 적은 왕국으로 그 국산품으로 넉넉히 자급자족 할 수 잇든 형편에 잇스나 그 생활상은 말할 수 업시 참담하다 한다. 경제생활에 잇서 그리하고 사회 생활에 잇서 또한 그러하다.

그것이 安南人의 情性和 무저항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 佛人の 오만, 횡포한 학대와 압제를 오히려 동물적으로 감수하고 잇스며 아즉 참다운 민족적 자각이 생기지 못하고 유에 舊都의 城中에 安南阮朝의 高朝 喜隆皇帝가 大南殿의 기초를 세우고 壯麗를 極하든 왕궁을 차지하여 蛟龍을 가로 색인 燦然한 金門玉扉 속에 파묻쳐 9基의 大鼎을 나열케 하여 歷代帝業의 융성을 表證하며 悠長한 安南音樂을 奏聽하는 伶人의 一隊를 압세우고 燦爛한 행렬을 지어 시내 행차를 하는 가운데 安南王의 다 시들어 가는 榮華가 남아 잇스며 王國의 일홈아래 나라를 가졌다는 안위를 安南人에게 가지게 하였든 것인가.

그러나 그 王 그 大臣들에게 무슨 政權이 잇섯든고 「機密院」이란 國政에 속한 최고 諮問機關이 잇서 다못 國務大臣이란 빈 의자를 차지하고 잇는 허수아비 가튼 安南人이 佛人の 州知事와 마조 안저 국정을 議論하는 것이다.

그리고도 各 大臣들은 자기의 官錄을 한자로 색인 소형 象牙牌를 가슴에 차고 威儀堂堂하게 시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치실권이 업는 왕국은 동화의 나라가 안이나 현대를 떠난 듯 고전적 優雅하고 悠長한 정취를 맛보며 일면으로 無智한 백성들의 무지한 신뢰와 안위를 保護國이란 기만적 명목으로 잇 끌고 나아가는 佛國에 罪가 만다.

<78-79>

37.

잡지명: 삼천리 제8호

발행년월일: 1930년 09월 01일

기사제목: 愛蘭의 復活祭動亂, 愛蘭民族運動의 一斷面

필자: 金東煥 김동환

기사형태: 논설

愛蘭의 復活祭動亂, 愛蘭民族運動의 一斷面 (애란의 부활제동란, 애란민족운동의 일단면)

金東煥

여러분 중에 或 愛蘭을 가보신 이가 잇스면 아시겠거니와 首都 떠부린市의 中央停車場에 나리어 東으로 人波를 헤치고 한참 가노라면 中央郵便局의 巍然한 石造建物이 나진다 한다. 이 建物이야말로 愛蘭 民衆들이 自由를 엇기 爲하여 싸우다가 붉은 피를 흘닌 자취이니 눈물업시는 그 압흔 지나기 어렵다하는 터이다.

그것은 實로 1916年 4月 21日の 復活祭날일이라. 그날 快晴하든 天氣는 저녁때에 이르러 大西洋 저쪽으로부터 몰려오는 구름쪼각에 흐리기 비릇하야 조금 잇다가 쌀알가튼 빗방울이 復活祭로 亢奮되어 오고가는 모든 市民의 얼굴바닥을 시름업시 두다리고 잇슬 때에 엇지 아랫스리오. 그 구름쪼각은 비단 비고치를 싣고 온 것이 아니라 英國 東海岸에 켜도 모르게 건너온 獨逸 飛行船 한 척이 이제 「떠부린」하늘에 나타나 爆彈을 던지엿든 것이다. 英人이 만히 사는 西市街의 一部分이 이 爆彈으로 建物이 바서지고 길가든 英人이 그 破片에 마저서 피를 흘니며 街頭에 쓰러질 때에 어대에서 이러났습인가. 고요하든 거리거리에는 간듯하게 武裝한 愛蘭市民 數十名이 한 패 두 패씩 작고 네거리에 모히기 시작하더니 삼시간에 5, 600 名の 多數群衆으로 化하여

「郵便局으로 가자! 郵便局으로 가자!」

하고 暴風雨가치 웨치며 疾馳가는 光景이 보이엿다.

市街에 動亂이 이러났다는 이 警報를 接한 英吉利 守備隊는 即時 營門을 열고 네거리 處處에 機關銃을 내어 걸고서 對陣을 편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湖水가치 뒤로뒤로 작고 달려드는 數萬男女老幼의 愛蘭市民의 數효는 軍器庫에 가득 찼슬 英軍의 機關銃彈丸보다도 오히려 더 만하게 보였슬 뿐더러 어대에서 낫든가 愛蘭市民軍의 손에도 大砲도 잇고 小銃도 잇고 機關銃도 잇서서 거리거리에서 銃火를 서로 맞구고 잇섯다. 復活祭라면 基督教國의 聖節이라. 人世을 祝福하는 教會堂의 晚鍾소리를 들어가면서 市民들은 즐거운 우습과 平和한 꿈으로 이날을 보내야 할 것이로되 엇지 火煙彈雨가 全市街를 덮고 征服者와 被征服者가 武器로 對立하야 殺戮을 開始하여 屢屢한 屍體가 발길에 채일줄 뜻하엿스랴.

마침내 골목골목에서는 英軍과 市民軍의 戰鬪가 始作되엿다. 저 토다닥토다닥 우박 쏘드시 亂射되는 機關銃彈丸소리와 와그륵와그륵 문혀져 나리는 建物の 소리와 나팔소리는 불붓듯 連해 나고 압헤 선 旗手가 삼시간에 시체가 되어 너머지며 또 나서면 또 시체가 되며 멀니 市街의 한 모퉁이에는 炎炎한 불길이 타고르고 잇섯다.

보기만 하여도 뼈가 오실오실하는 慘憺한 市街戰이 刻一刻 猛烈하게 展開될 적에 兩軍이 戰

況은 처음엔 地利의 優良을 占하였든 英吉利軍의 優勢에 도라가섯스나 肉彈에 又 肉彈으로 漸逼하는 市民軍 때문에 마침내 退却이 開始되야 英軍은 中央郵便局附近에 密集하여서 戰線을 縮少하고 最後の 猛射擊을 開始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죽음까지 내어걸면 勝利는 사고마는 法이든가. 마침내 市民軍은 中央郵便局을 完全히 占領하고 <30> 英軍은 그에 따라 敗走함에 이르렀다.

그 이튿날도 市街戰은 繼續되어 雙方에 一層 多數한 犧牲者를 내었섯는데 中央郵便局을 占領한 市民軍은 그 곳을 本部로 삼고 市街의 要地要地를 占領하는 한편 英本國과의 電信電話線을 一切 끈어버리고서

「英軍이 救援兵은 한 도 올 수 업시 되었다. 그것은 愛蘭의 西海岸이 全部 獨逸潛航艇에 包圍된 때문이다」

「벨당」要塞은 마침내 陷落되고 말었다」

「三萬의 獨逸兵은 우리를 救援次로 「케리」에 上陸하고 또 愛蘭人 3萬名은 武器를 가지고 「웍스포드」에 上陸하였다」

「英國은 單獨講和條約을 締結치 안을 수 업게 되었다」

하는 宣傳을 시작하여 그 말이 全愛蘭 各地에 퍼지자마다 反英戰亂이 이러났든 것은 勿論이다. 이리하여 「아일랜드」의 天地는 砲煙彈雨에 歎하고 中央郵便局 지붕 우에는 綠, 白, 橙紅色의 旗가 날니었고 愛蘭共和國 樹立의 宣言까지 그 곳에서 發表되어 氣勢가 크게 떨치었다. 이리하여 「피의 復活祭」의 收穫은 愛蘭民衆에게 百年來 渴求하는 自由의 물 한방울을 주고 말었다. 그러나 그 물방울이 强暴한 英軍의 압해 또 얼마나 짓밟힐 것이든가.

二

그런데 前記와 가치 果然 復活祭의 動亂은 그 날 東海岸에 나타났든 獨逸飛行機의 投彈이 군호되어 一時에 이러난 것은 事實이었다. 그는 21일에 愛蘭 西海岸을 通過하는 中立國旗를 끄른 一汽船을 英國艦隊가 發見하여 調査한 結果 엇지 아렸스리요. 그는 獨逸의 補助巡洋艦으로 愛蘭에 兵火의 援助次 密航하고 잇는 것이 判明되었다. 그 때는 歐洲大戰의 當時라 愛蘭運動을 指導하든 「신펜」黨은 일즉 「떠부린」大學의 獨逸教授를 介하여 獨逸과 氣脈을 通하고 軍需品과 武器의 密輸를 어더 動亂을 이르킬 것을 미리 劃策하고 잇섯든 터이었다.

實로 愛蘭의 民族運動을 溯考할 때에 이와가튼 革命的 叛亂에까지 나아간 그 必然的 事實을 看取할 수 잇스니 卽 16世紀初葉에 英王 헨리8世의 命으로 「크롬웰」의 손에 依하여 愛蘭이 完全히 英領이 된 以後 英國의 奇酷한 植民政策에 羊가티 順하든 愛蘭人은 몇십번을 干戈을 잡고 反抗하였든고. 北部 「얼스터」地方은 礦產物이 豊富하고 또 天然的 工産物이 만쳐서 工業地帶로 愛蘭의 富庫가 되어잇든 것을 銃砲과 資本을 背景으로 한 英本土의 移住民들이 雲霓가치 물려와서 土着民을 쫓쳐서고 마침내 그 土地를 占有함에 이르러 飢餓와 國外流浪이 愛蘭人民의 不可避할 運命으로 되고 말었다. 以來 約 100年間은 民族的 悲劇이 極度에 達하여 後世史家의 指稱하는 모양으로 恐怖時代를 이루고 말었다. 그러다가 1780년에 亞米利亞가 獨立戰爭을 起함애 愛蘭人은 크게 刺戟을 마더 英王에게 立法獨立과 貿易의 自由를 드려 反抗의 氣勢를 보였다. 때마침 英軍은 大部分이 外征하였슴으로 國防을 爲하여 義勇軍을 募集할 새 英政府는 不得已 愛蘭人으로 愛蘭防衛義勇軍을 組織할 수 맞게 업시 되었다.

그러면 오래 武裝解除의 處地에 잇다가 武器를 제 손에 쥐어보게 된 前記 愛蘭義勇兵團은 果然 英政府의 企圖와 가치 英國의 愛蘭의 守護에 盡忠하였든가. 否라. 그네는 愛蘭民衆에게 가장 惡法이든 恒久的 戒懲令의 撤廢와 愛蘭立法機關의 獨立 等を 要求條項으로 하고 英政

府에 對하여 抗爭의 行動에 나아갔든 것이다. 그러나 그 亦 老狡한 英政治家들에게 欺瞞을 當한 바 되자 愛蘭의 運動은 一舉로 地下層暴力運動으로 化하여 國內至處에 白袍團 鐵心團 等の 테로團體가 簇生함에 이르러 非常手段의 運動이 寧日이 업시 繼續되어 오다가 마침내 史上記錄이 큰 저 신펜黨의 前身인 「피니안」黨의 創立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피니안黨은 目的을 爲하여 如何한 手段이라도 조타는<31> 가장 急進的 主張을 가지어 그 運動에는 爆彈 等を 使用하였는데 이 團體는 本國의 暴政에 不勘하여 渡米한 愛蘭人의 發起로 된 것이라. 이와가치 「피니안」黨이 活躍이 全土에 미치매 英政府는 一層 武斷的 高壓으로 나와서 首領級은 大概 建捕投獄함에 이르러 一時頓挫의 不得已에 至하였다. 이 때 多數人의 犠牲을 본 愛蘭 各層 人事는 1870年 5月 19日 떠불닌市에 그 釋放運動을 相議코저 모았다가 그 席上에서 「뱃트」의 發議로 自治運動을 主張함에 이르러 多數한 響應을 어더 「愛蘭自治政府協會」라는 結社를 組織하고 目的을 標榜하니

一, 英國皇帝 及 繼承者와 上下兩院으로 設立된 愛蘭議會는 愛蘭의 行政을 管轄處理하는 權利를 가질 것.

二, 愛蘭國內의 立法은 愛蘭議會에서 맞고 愛蘭 自身の 國庫財源經費는 愛蘭이 自營할 것 等等이라. 그러면 絶對獨立을 標榜하든 愛蘭運動이 었지하여 自治運動으로 突然히 기우러 져든가. 거기에는 너무도 甚한 英本國의 武力的 斷壓에 一時戰術로 局面打開키 爲하여 畸形的 行動에 나온 心理作用도 잇겠지만은 그 조금전에 首相 「핏트」의 손으로 英蘭延長主義로서 愛蘭에 普選權이 實施된 結果 英本國議會에 代議員을 보내어 愛蘭에 有利한 機會를 었자함이 또한 이리케 한 動機었다. 그리하여 會員 3萬을 擁하고 全愛蘭議員 103人 中 60人을 가진 愛蘭自治黨의 出現에 及하여 自治을 爲하여 活躍하여 보았스나 그 結果도 亦是 이 現實 鬭爭에 부담감으로부터 幻滅을 甞기지 안을 수 업시 된 多數民衆들은 다시 議會主義를 離하고 「피니안」黨의 急進的 革命主義를 支持하는 形勢에 이르렀다. 卽 「데이론」가튼 사람은 「愛蘭人아 英國人은 먹고 남은 「광」 찌꺼기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것을 먹고 飽滿의 노래를 부르지 말나! 그것은 恥辱이다.」

하여 저 有名한 土地聯盟의 抗爭을 始作한 結果로 英政府로부터 合計 11億 2千萬圓의 巨額의 低利資金을 融通바더서 愛蘭 貧農들의 生活狀態가 多少 向上된 것을 보고 그 自作農創定案이란 懷柔政策에 頭緒를 못차리는 自治運動一派를 크게 嘲弄하고 警戒하는 말을 하였든 것이다. 그리하여 結局 이 思想의 延長 凝固로 1905年에 「신펜」黨이 組織되었스니 그네는 그네 自身の 힘으로 目的을 達成할 것을 標榜하고 그 資源을 었기 爲하여 各處의 地質測量을 하여 鑛山을 發見採掘하며 愛蘭國民銀行과 愛蘭株式交易所를 說置하며 保護貿易制를 制定하고 또 各國에 領事事務를 開始하러 하였다. 自治黨의 凋落은 「신펜」黨의 活躍이 크니만치 漸漸 甚하였든 것을 吾人은 볼 수 있다.

이리하는 한편 「콘노리」 등의 손으로 社會運動이 크게 展開되어 結局 그 當時 愛蘭運動은

一, 「신펜」黨 運動

二, 「콘노리」 등의 社會運動

三, 自治主義의 國民黨(卽 議會主義)運動의 三足鼎立의 勢를 誘取하였스나 第三運動의 微弱은 날을 따라 漸甚하였었다.

그럴 때에 1914年의 世界大戰亂이 닥쳐왔다. 그 때 愛蘭國民黨의 首領 「레드몬드」는 이 機會를 利用하여 數次 通過되었다가 實施가 되지 못한 愛蘭自治法案의 實行을 目的삼고 英人의 同情을 끄을기 爲하여 愛蘭도 英蘭과 가치 3萬의 兵을 出하여 參戰할 것을 聲名하고 또한 말대로 實施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一種 實現性이 업슬뿐더러 目的은 더 깊은 곳에 잇다하야 「신펜」黨은 交戰에 反對하고 某種의 計策을 不怠하였다. 이 形勢를 본 英國은 腹背受敵의 위험을 벗고저 술선하여 愛蘭에 전시계엄령을 布하고 各處에 約 2萬名의 軍隊를 駐屯식하였다. 이것이 앗가 말한 저 有名한 愛蘭의 復活祭動亂이란 光景을 誘取하였든 것이다.<32>

三

이러한 經路를 밟아온 愛蘭의 運動은 마침내 1916年 4月의 復活祭를 期하야 獨逸의 外援을 얻어 市街戰後에 中央郵便局을 占領하고 共和國을 宣言함에 至하였다. 그리하야 만흔 政令이 共和政府의 입으로부터 나오려 할 때에 未幾에 英本國으로부터 雲霓와 가튼 大軍이 到着하야 最後의 一戰에 그만 愛蘭市民軍이 敗하야 大事 一週日에 終熄되고 말었다.

이 動亂으로 英兵側에 124名의 死者와 400名의 負傷者가 잇섯고 市民軍은 216名의 死者와 514名의 負傷者를 내었고 新펜黨員의 死傷者는 아마 그 以上에 達하였술 모양이니 엇더케 激烈하였슴을 알니라.

그 뿐인가. 其和國宣言書에 署名한 69名은 銃刑이 되고 1,200餘名은 逮捕되어 投獄되었다. 이와가치 今番 動亂은 三日式으로 *壽命이 길지 못하였스나 그러나 舉族一致라 하리만치 全 愛蘭各層이 一齊奮起한데에 注目할 價值가 ** 卽 「신펜」黨이 主動된 것은 勿論이나 그맞게 自*踐踏을 顛覆하여 오든 急進派 國民黨은 愛蘭*勇軍을 起하야 參加하였고 急進勞「者는 市民軍을 編하였고 社會民主黨도 또한 카소릭同盟까지 結束抗爭에 나아갔다. 이는 弱小民族運動에 잇서 언제든지 非常時期에는 社會運動이나 民族의 左右翼이 모다 國民抗爭運動에 浚然 合流함을 말함이다.

그 뒤 愛蘭의 自治法案이 「로이드, 쏘-지」首相時代에 通過되었스나 愛蘭人은 그 自治議會를 設定코져 아니함으로 「페발레라」를 招致하야 로이드, 쏘-지首相은 最大이 讓步를 앗기 고져 아니하였는 터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撤底分離을 主張하는 「페벨레라」는 亦是 不滿을 말하고 愛蘭에 도라와 愛蘭共和國會 卽 테일會議를 開催하고 亦是 自家의 主見을 高唱하였스나 이미 積年戰禍에 極度로 衰弱한 民衆은 英政府의 最大讓步를 一時 맞어드리기로 기우 러졌든 것이다. 이리하야 1921年 12月 6日에 英愛間의 平和調約이 成立되어 愛蘭은 「大英帝國을 組織하는 諸屬領 中の 對等한 一員으로 될」하는 憲章 第一條에 依하야 아직도 愛蘭은 英帝國의 一自治領으로 그 손에 매여잇는 터이다. 그러나 愛蘭은 이제는 確實히 첫거름의 曙光만은 붓잡엇다 할 것이다.

아무튼 愛蘭의 今日은 實로 저 16年前 復活祭日의 「따부린」市 動亂으로 大勢가 急轉直下 決定的으로 쏘니기 시작한 것이니 近世弱小民族運動史를 들쳐보는 *** 이 復活祭動亂은 만 혼 것을 생각하게 한다.

뒷날 「떠부린」市를 찾는 機會가 잇다면 그 中央郵便局을 차저 보자함이 엇지 筆者 한 사람 의 뜻 뿐일가. 斜陽이 빗길제 一時는 屢屢한 砲臺와 屍體로 化하든 郵便局 돌층계에 올라서 新興하는 愛蘭人의 姿態를 바라보며 斜陽立馬吊忠魂에 憤男兒死戰時라 하고 크게 읊혀보고 십다. 一窺—<33>

<30-33>

잡지명: 별건곤 제32호
 발행년월일: 1930년 09월 01일
 기사제목: 安南民族의 解放運動
 필자: 李學仲 이학중
 기사형태: 논설

安南民族의 解放運動 (안남민족의 해방운동)

李學仲

1

印度의 해방운동은 간디씨의 체포로 말미암아 일층 더 악화하여졌다. 이 印度문제는 英國에 있어서 큰 癌痛과 가름으로 세계의 이목은 일제히 印度로 향하게 되고 印度문제는 장차 세계 변혁의 한 機端으로 될 大問題로써 취급되어 있다. 그러나 민족적 독립운동은 반듯이 印度에서만 熾盛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土耳其와 暹羅에서도 이미 국민운동이 일어난 결과 훌륭한 新國家 건설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阿富汗斯坦과 西藏에서도 또한 국민운동의 불이 붙고 있다. 印度의 東鄰인 소위 佛領印度支那(安南 又は 越南)란 나라에서도 지금 맹렬한 해방운동이 이어나 있다. 佛領 印度支那를 綿密히 논하 노흐면 東京, 老檻(哀牢), 東蒲塞(高棉), 安南 及 交趾支那의 五國으로 되어 있는데 交趾支那가 순전히 佛蘭西의 식민지인 이외에는 전부 佛國의 보호국으로 되어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총괄하여 越南이라고 부르는데 그 총면적이 70만 평방 키로메-톨 인구 삼천만으로 算하는데 면적은 우리 朝鮮에 비하여 여간 크지 아니하나 인구는 얼마만치 못하다. 北隣의 中國과 西方의 印度에는 맞지 못하나 南隣의 暹羅에 비하면 펍 크다.

종래 印度의 그늘에 가리어 세계의 眼目에 그리 빛치우지 못하고 佛國측이 또한 숨겨나려 왔습므로 安南의 해방운동은 신문지상에도 잘 보도되지 아니하여왔다.<20>

2

佛國이 安南지방에 着眼한 것은 1664년에 창립된 佛蘭西 東印度會社가 葡萄牙, 西班牙, 英吉利 등의 諸國의 활동에 자극되어 1684년 샤베레란 사람을 東京(동킨)에 派遣한 것이 嚆矢이다.

그다음 2년 후에 또 베레-란 자를 交趾支那에 派遣한 결과, 崑崙島를 商館設置의 최적지라고 하여 선정하였으나 때맞춤 本國에 내란이 잇서 중지치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었다. 其後 60여년을 지나 1749년 植物學者 裴아불 이란 자가 향료를 채취키 위하여 渡來 하았는데 그 조사 보고는 선교사 도-마의 東京事情 報告와 공히 佛蘭西 爲政家の 安南에 대한 食指를 動하게 한 것이다. 당시 印度에 잇서 英佛 양국의 爭覇戰은 遂히 英國측의 승리에 도라가고 말았으므로 佛蘭西는 이에 대한 新根據地를 구할여고 印度支那를 노리고 잇섰다. 맞춤 安南에는 契氏의 후를 니은 新舊 兩阮氏의 다툼이 잇서 舊阮王 阮福映은 新阮王 阮文惠에게 패하여 새이 콘으로 도망가고 更히 新阮王에게 追跡되야 富國島로 다라났다. 舊阮王의 세력이 점점 궁하야짐에 遂히 원조를 求키 위하여 暹羅로 갔스나 暹羅에서는 新阮王을 적으로 삼아 戰端을 開하기를 주저하고 잇는 중에 盤谷에 在한 제쓰이트 派의 僧侶는 그 布敎와 공히 정치적 세력

을 安南에 신장 식힐 것을 기도하고 阮福映을 이용하야 그 목적을 달할여고 하얏다. 그런데 그런 計畫의 首謀者는 아트란 僧正悲柔多巴離란 사람이엿섯다. 기록에 의하면 자칭 천주교 신부라고 하는 悲柔는 눈이 푸르고도 쭉 드리가고 滿面에 수염이 덥히여 한번 바라봄에 그 狡黠한 野心家인 것을 알기에 죽한 풍모의 사나히엿다라고 하얏다. 하여튼 그 사람이 심상한 인물이 아니엿든 것은 사실이다. 그가 1765년 佛蘭西 교회의 推舉에 의하야 동양 선교의 신부로 되야 盤谷에 왓스나 때맞춤 安南에 내란이 잇슴에 機를 失하면 아니 되겠다고 하고 교묘히 阮福映에게 접근하야 말하되 佛蘭西의 원조를 求하는 것이 좇타고 하고 佛蘭西 海軍軍人 慢槐를 추천하야 등용하기를 權히얏다. 처음 阮福映이 盤谷에 잇슬때에 同地에 와<21> 잇는 각국 외교관, 英國人 葡萄牙人 등도 역시 自國兵으로써 도와주겠다는 것을 자조 提議 하얏스나 悲柔는 여기에 반대하야 사절하게 하고 혼자 佛蘭西人의 원조를 求하도록 하얏다. 悲柔 曰

삭손 人種은 외면으로 仁義를 말하면서 內로는 간계를 품고 도덕을 빙자하여 그 간사함을 行한다. 그들의 목적은 土地를 이용할여고 하는데 잇스니 이것을 請하야 나라에 드리오게 한면 반듯이 後患이 잇슬 것이다. 大王이 만일 外援을 어들 것 갓트면 佛國을 除한 외에는 업슬 것이다. 대개 佛國人은 基督의 救世의 가르침을 실행한다. 세계 諸國中 가장 人道를 존경하고 愛他如己하는 것은 佛國人 밧게 업슬 것이다. 그러니 大王이 外援을 求하지 안코도 될 것 갓트면 몰으지만 만일 求한다면 佛蘭西만 할 데가 업슬 것입니다.

하얏다. 이에 1784년 12월에 國書를 닷가 悲柔의게 全權을 막기고 6세의 왕자 景叡를 동반케 하야 印度의 뿐티세리-에 니르러 佛蘭西 總督에게 援兵을 請하고 同 總督의 소개로 更히 1787년 6월 巴里에 赴하야 왕자와 갓티 佛蘭西 皇帝 루이16세의게 謁見하고 阮王의 國書를 奉모하야 遂히 同年 11월 28일 벨샤유 궁전에서 佛外相 몬모렌 伯과의 間에 佛安密約(法越密約)이 성립 되얏다.

該密約의 내용은 佛蘭西는 安南에 步兵 1200 抱病 200외에 250 합계 1650명의 兵員과 軍艦 4척 운송선 수 척을 공급하는 報酬로써

- 1, 安南은 成事後 沱瀑島를 佛國에 貸與하고 又 崑崙島를 佛國에 割讓할 事.
- 2, 佛蘭西는 崑崙島에 잇서 모든 주권을 행사함을 得함.
- 3, 佛蘭西는 安南領土 내에서 通商, 布敎의 특권을 持함.

등이다. 然而 당시 佛蘭西에 대혁명이 발발하야 루이16세는 遂히 단두대 상의 이슬이 되고 말앗슴으로 安南 救援의 議는 실행되지 못하고 이 밀약은 遂히 空文으로 도라가고 말앗다. <22>

처음부터 悲柔는 그 심중에 품고 잇는 大計畫를 일개의 夢事로 녀여 지나 보내고 말지는 못하게 되얏다. 그는 空手로 뿐티세리-에 도라와서 再次 同地 총독의게 援兵의 交渉를 하얏스나 그 목적을 達치 못하야 할 수 업시 商船 2척에 약간의 佛蘭西 將校를 싣고 사이콘에 도라와 阮王에게 薦하야 帷幕에 두게 하얏다.

悲柔僧正은 1799년 10월 9일 병을 어더 歸仁州에서 死去하얏스나 阮福映의 군대는 佛蘭西 의용대의 應援으로 착착 성공하야 遂히 安南의 땅 전부를 들어 舊阮王의 勢力之下에 歸服 식히도록 되얏다. 그래서 1802년 8월에 阮福映은 安南을 통일하고 왕위에 올라 嘉隆王이라고 칭하얏다. 그는 現 安南王朝의 제1세인데 그 해 12월에 사신을 淸朝에 보내여 越南國王에 封함을 바뎠다.

嘉隆王은 悲柔僧正을 중용하였으나 그 사후에 그 무리를 대우하기를 매우 薄하게 하여 1810년 왕자 景徽의 薨去함에 미치는 점점 외국 선교사를 放逐할여고 하는 의사가 났다.

其後 福皎(2세 明命王) 福皎(3세 紹治王)의 世에 일으리는 佛國 선교사에 대한 방침은 더욱 苛烈함을 極해야 섰다. 때에 佛蘭西는 크림야 전쟁이 쉬여 歐羅巴도 겨우 무사하게 되었으므로 황제 나포레온 3세는 크게 동양 침략의 야망을 품고 遂히 1856년 9월에 使를 安南에 派하여 沱瀑島의 割讓을 요구하고 且 선교사의 보호를 求하였으나 다 드러주지 아니 하였다, 그런데 선교사 중에는 西班牙人도 잇섯슴으로 佛西 양국은 이에서 동맹군 조직을 기도하고 佛蘭西는 中國 派遣軍을 西班牙는 마니라 수비군을 각각 動하여 가지고 安南과 싸혼지 3년 有餘인 1862년 6월에 이르러 阮福峙(4세 嗣德王) 힘이 모자람에 和를 請하여 同月 5일부로 安南과의 間에 사이곤 講和條約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 의하여 安南은 佛國에 南邊 3주(邊如, 嘉定, 定祥)와 崑崙島를 주고 又 佛西 양국을 위하여 츠-로 外 2港을 개방하고 戰費 沙백만 法을 지불하기로 되었다. <23>

다음 暹羅, 安南 양국에 속하였든 東蒲塞도 1864년의 조약으로 佛國의 宗主권을 승인하였다. 佛蘭西는 更히 경제적 발전의 손을 安南에 퍼치기를 計畫하고 紅河의 溯上에 성공하여 安南 총독으로부터 통상의 특권을 得하여 安南의 國禁으로 되어 잇는 精鹽의 수입을 기도하여슴으로 이것을 본 嗣德王은 대노하여 즉시 當該 佛國人の 退去를 요구하였으나 佛國측이 거절함에 미치는 양국 間에는 재차 戰端이 개시되었다.

이 전쟁은 佛國측의 豫期하였든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1874년 3월 15일에 체결된 조약에 의하여 佛國은 安南에 대한 宗主권을 획득하고 安南의 독립을 보장하여 何時든지 필요한 동시에는 해륙군대의 파견을 약속하고 安南도 또한 할 수 업시 그 보수으로써 佛軍의 占領諸地를 割讓하고 진비를 배상하고 국내 포교에 대한 특전을 승인하였다.

이상과 가튼 조약으로 말미암아 佛國은 처음으로 河內海防등에 白人式의 군대를 置하였으나 당연 中國 長髮賊의 殘軍 劉永福이 黑旗兵을 편성하고 紅河溯江 중의 佛人에 대하여 통과세를 요구 함에 니르러는 450의 해병을 增遣하여 河內를 점령케 하였다. 그럼으로 佛軍과 黑旗軍과의 間에 충돌이 이리남에 東京은 激戰地로 되었으나 1883년 海將 쿨-베-는 轉戰하여 順化灣의 砲台를 功陷케 하였다. 이때에 安南王(6세 協和王)은 돌연히 나와 和를 請하여 同年 8월 25일 新保護條約이 성립 되었는데 그 내용의 대요는 아래와 같다.

- 1, 安南은 佛蘭西의 保護權을 승인하고 順化駐劄 佛國監督官의 동의를 엇지 아니하고는 타국과 교통치 못함.
- 2, 安南領 빈즈암을 佛蘭西에 割讓할 것.
- 3, 安南의 관세를 佛國의 行政權下에 置 할 것.

其外 佛蘭西는 紅河 연안에 잇서 군대주둔, 사이곤-河內間 道路의 電線의 開發 <24> 安南 軍艦의 收容 등의 諸權利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東京 方面의 전쟁은 꺾이지 아니 하였다. 淸에서는 대병을 派하여 劉永福을 도와 順化의 攘夷派는 協和王을 죽이고 阮福昊(7세 建福王)를 立하고 기독교도를 殺戮 하였다. 1884년 6월 佛軍이 諒山을 占領하려고 하다가 淸軍의게 격파되야 安南 문제는 一轉하여 淸佛의 갈등을 釀成하였다. 佛國은 1200萬法の 상금을 요구하였으나 淸國이 이에 응치 아니함으로 쿨-베-제독은 艦隊를 率하고 閩江을 溯上하여 8월 23일 福建艦隊를 격파하고 10월 23일 台灣諸港의 封鎖를 선언하고 翌年 3월 31일 澎湖島를 점령하였다. 1885년 3월에 淸將 憑子材는 佛軍을 諒山으로부터 격퇴 식혀 佛本國의 여론이 또한 원정을 불가타고 하여 후리에- 내

각이 更迭되고 6월에 李鴻章이 佛國公使 바르노-틀과 天津에서 회견하고 和議를 結하야 佛蘭西는 上금의 요구를 그만두고 淸國은 諒山, 老開의 兩地를 佛蘭西에 양도하고 安南에 대한 佛蘭西의 宗主權을 인정하고 國境무역에 同意하기로 되야 淸佛 間의 繫爭問題는 落着 되었다. 1887년에 이르러 佛蘭西는 交趾支那, 東京, 束滿塞를 합하야 佛領 印度支那라고 칭하고 한사람의 總독을 두어 統轄하기로 되야 越南國은 全然히 有名無實로 되고 말었다.

4

近時 亞細亞, 亞弗利加에서 발흥하고 잇는 유색인 諸國의 민족운동은 간단히 말하면 歐羅巴列國의 식민정책의 破綻이다. 安南獨立運動을 알고져 할진댄 맛츨 佛蘭西의 印度支那에 대한 統治政策을 연구해 보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가튼 불란서의 식민정책이라도 亞弗利加的 알제리아에 잇서의 통치는 과학적으로 세계의 모범인 것을 자랑한다. 그러나 安南의 통치정책은 全然히 이와 반대이다. 佛國은 越南에 잇서 科學文字의 學을 장려하얏다. 八股文, 詩賦, 訓話, 詞章등 이런 학문에 6세 이후 一意專心으로 몰두케 하얏다. 크게 문학을 장려하는 것 가티<25> 들니여 문화정책을 취한 것 가트나 그러치도 안타. 乞人 따위들을 만히 모와 가지고 3년마다 1次式 試驗을 행하야 舉皆 鎮使의 명목을 주었다. 이것은 문학 장려의 가면을 쓴 엇더한 去勢術이 엇든 것이다. 佛蘭西 당국도 얼마 후에는 과거 中독의 弊害가 너무 커진 것을 도라보고 1919년 越南國民의 청원에 의하야 점차 이것을 폐지하얏다. 이 과거제도폐지에 就하야는 歐洲大戰이 한가지 유력한 원인이 되얏섯다. 佛國이 獨逸과 전쟁을 수행함에 當하야는 엇저는 수 업시 식민지 諸領의 실제적 원조를 맞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越南國民도 戰線에 나아간 者 6萬人, 後方勤務에 속하얏든 者 18萬人의 다수이엿섯다. 佛蘭西 당국도 좀더 빨리 과거제도를 폐하얏드라면 보다 더 우량한 越南의 군대를 어더췌스리라는 것을 후회 한 것이다.

그리고 폐지된 과거제도의 代로 엇던 국민 교육이 施設되얏느냐 하면 小學校에는 體操도 업고 唱歌도 업고 교과서란 것은 다만 佛蘭西의 공덕을 찬송한 것뿐이다.

다음 법률은 엇더케 된 것인가 하면 1917년에 처음으로 越南新法의 제정이 잇섯스나 이것은 다만 東京地方(北圻)의 일부에만 시행된 것이고 其外 대부분은 의연히 옛날부터의 蠻法에 빗추워 行하고 잇는 것이다. 그런데 이 新法의 내용은 如何한가 하면 刑法 제2조에는 『중죄의 구분은 사형, 無期苦役, 流罪, 有期苦役, 禁錮, 徒役, 追放의 七種』이라 하고 제9조에는 『무릇 苦役에 處케 된 남자는 最苦의 役을 受할 것으로 함』이라고 定하야 있다. 이것은 주로 하야 언론상으로 국민운동에 종사하는 者를 삼아 법률에 비추어 사형에 處키 難한 者를 반듯이 죽이고져 하야 死地에 두어 두는 것이다. 越南 志士로써 苦役刑으로 하야 죽은 者 자못 幾千人이 될는지 그 자세한 數字를 알기 어렵다고 한다. 刑事訴訟法 제87조에 『형무소는 佛蘭西 武官 1명이 이것을 관리하고 又 佛蘭西 경찰관 1명을 수인 감시에 任함』이라고 하야 安南人은 본시 감시권도 업는 것이다. 제90조에 『수인이 만일 사망하면 곳 관계 주임 관에게 <26>보고함』이라고 하야 한마디도 그 사인을 他에 말치 못하는 것이다. 제40조에는 『무릇 중죄 혹은 경죄를 범하고 범인이 이미 사망하야 처벌치 못하게 된 동시에는 다만 그 손해의 還償 又は 賠償를 하게 한다. 즉 피해자는 이것을 該 범인의 後續者에게 청구함을 得함』이라고 있다. 이 법률은 越南에 잇는 佛國 자본가가 越南人의 金錢을 騙取하고져 할 때에 가장 만히 이용된다. 그런데 佛人이 越人을 逼迫하야 죽게 한 동시에는 제213조에 『무릇 권력을 남용하야 殘暴하게 사람을 자살함에 이르게 한 者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拘禁에 處하고 20원 이상 100원 이하의 벌금을 課함』이라는 조문에 의하여 겨우 6개월의 6◆금과 20원의 벌금으로써 죄가 속하게 되는 것이다.

소위 내란 음모죄에 대한 처형은 가장 가혹한 것으로써 제63조에 『무릇 機謀를 設爲하여 그 목적이 정부의 전복...』 제65조에 『무릇 내란을 이르기 위하여 목적으로 밋그로부터 드리 온 間諜을 自家에 藏匿시킨 者는 流刑에 處함』 제67에 『2인 이상이 그 行爲를 相議하면 이것을 음모로 하여 放逐의 刑에 처함』 제69조에 『내란음모에 관한 중벌은 다시 家産 全부를 몰수함』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조문은 어느 것이나 미리 陷穽을 設하고 越南人民을 그 가운데 빠지게 한 것이 아님이 없다. 대개 設爲機謀 하든가 음모를 圖하다는 등 曖昧不定한 문구는 극히 誣言을 구성하기 쉽다. 하등의 근거될 證憑을 엿지 못한 동시에라도 곧 죄가 되는 것이고 더구나 『2인이 相議하면 이것을 음모라고云함』다 함에 일으려는 자못 評言할 나위가 업는 것이다. 苛斂誅求의 심함도 또한 형언키 難하야 부자던 빈자던 일률로 高稅를 부과한다. 결혼식에 과세, 장례에 과세, 연회에 과세, 가족류에 과세, 3인 이상이 모여 이약이를 하야도 집회라고 看做되고 50리 이상은 국내의 여행이라도 아니 된다. 총독부 최다의 수입은 전매수입인데 이것은 맛업는 專賣酒를 各戶에 억지로 팔고 아편을 禁지 아니함으로 *者가 만히 증가되는 결과이다. 高率의 관세를 課하야 鎖國主義를 取하야 국민으로 하야금 외국의 공기에 觸하는 것을 극도로 공포한다. 越南의 식자들은 이런 佛國의 통치를 絞殺政策이라고 불은다.

5

그런데 越南國民도 어니 때까지던지 울며 제자 먹기로 佛國의 압박을 울며 맞고 잇슬 것은 아니여섯다. 엇더케 하든지 그 羈絆으로부터 버서 나갓다는 이상이 선각자의 가슴속에 떠오른 덧이다. 그리 하야 第1着으로 奮起한 것이 금년 64세의 노령으로써 順化城下에 감시되고 잇는 巢南子潘是漢氏이다.

佛國과의 보호조약에 의하여 安南 망국의 最後幕이 나리여진 때 氏는 열혈이 넘치는 19세의 청년이여섯다. 엇더케 하든지 阮朝時代에 회복 식히갓다고 士族青年의 勤王隊를 조직하고 大事를 講하얏스나 佛國의 압박이 점점 심하야져서 부친은 重患에 빠지고 동지는 체포되야 자살이라도 하갓다는 悲境에 이르러 얼마 동안은 蟄伏해 잇슬 도리 맞게는 업섯다.<27> 其後 십여 星霜을 지나 潘是漢氏가 30여세의 장년이 되엿슬 때 學友요 동지인 鄧蔡坤으로부터 南方에 阮誠이란 勤王黨 首領이 잇다는 것을 듯고 同氏를 면회코져 동행하얏다. 그리하야 쌍방이 서로 만남에 一見이 如舊로 대사를 논하는 중에 阮誠은 大事中の 大事을 타개해 내인 것이다. 그것은 阮朝 제5세 以隆 歷代의 왕은 다만 虛位를 가지고 내려온데 불과하니 5세는 폐위되고 6세는 폐왕되자 독살되고 7세도 독살, 8세는 폐왕의 後 알체리아에 幽閉되고 9세 뿐만은 엇전 썸인지 무난하얏스나 10세는 또한 佛國의 掌中에 들어 잇다. 此際에 勤王黨이 依賴할 데는 다만 1세 嘉隆王의 嫡嗣東宮 景叡王의 直系 畿外候疆를 推載하야 大事를 結行하는 것이 잇슬 뿐이라는 것이다.

당시 中國에는 北京에서 康有爲의 變法自疆運動이 잇고 江南에서는 唐才常史堅如, 孫文諸氏의 혁명운동이 잇섯다. 그리고 比律賓에 잇서 리시-루의 독립운동, 南阿에 잇서 굴-케-루 등의 對英反抗等, 민족적 독립의 기운이 점차 농후하야 젓슴으로 越南도 또한 스스로 그 영향을 受하얏슴이 틀림없다.

1903년에 志士 潘是漢氏는 順化의 궁전에 疆殿下를 訪謁하얏다. 당시 彊는 年이 아직 19세

에 지나지 못하였으나 13,4세 경부터 독립의 大志를 抱하고 九重深處의 왕국 속에서 居하면서 民間志士와의 연락을 바라고 있던 次임으로 깃뚫을 이기지 못하여 潘氏와 提携하여 越南國民黨을 결성하기로 되야 스사로 그 수령인 지위에 就하였스니 畿外候疆의 30년의 고난 생활은 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日露戰爭에 잇서 日本의 승리는 全 亞細亞의 심장을 고동 식혀서 中國, 印度, 土耳其, 埃及等 諸國에서 독립운동과 혁명운동이 이러났스니 安南도 거기에 한 목 끼이게 되었다. 그로 말미 암아 독립국이 압박을 받게도 되었스나 그러나 이상과 가티 해방을 부르짖게 된 나라이 만다. 潘是漢氏는 黨命을 奉하야 국외로 탈출하야 漂然히 日本으로 건너갔다. 潘氏는 東京에 잇서 中國革命의 지사들고 交遊하야 가는 가운데 故國光復의 선결문제가 교육을 식혀 國民의 정신 부터 혁명하는데 잇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潘氏의 뒤를 니어 安南으로부터 만흔 청년지 사가 渡日 하얏다. 中國의 孫文, 黃興, 宋教仁, 譚人鳳, 章太炎 등의 자사도 日本에 망명중이 었슴으로 당시의 東京은 亞細亞 革命의 策源地인 感이 잇섯다.

疆候도 또한 佛國의 嚴戒를 버서나 順化城을 뒤로 두고 도망하야 日本에 몸을 부쳤스니 때는 1906년 그가 나이 22세인 청년시대이엇섯다. 사태가 용이치 안타고 본 佛國은 1907년에 체결 되는 日佛條約을 방패로 삼아 日本에 대하야 革命志士의 인도를 요구함에 니르러 疆候, 潘是 漢氏를 비롯하야 만흔 安南志士의 신변은 위급을 告하게 되었슴으로 遂히 일본을 탈출하기로 되었다.

疆候가 동지의 청년 2인을 동반하고 천신만고로 上海에 遁着하기는 1909년의 엇던 날이엇다. 이때에 배(船)는 발서 60명의 佛國 경관의게 포위되야 잇슴으로 겨우 변장하고 虎口를 버서난 그는<28>혹은 廣東에서 동지와 가티 광복군을 조직하고 혹은 대담하게도 船夫로 몸을 變하 야 그를 잡으려고 하는 적의 소굴인 塞貢에 몰으게 드러가 佛蘭西 政廳을 震駭하면서 溜하기 를 3개월, 혹은 그곳에서 뛰여 歐洲를 돌아 다시 北京에 오는 等 한뜻으로 고국광복을 위하야 寧日이 었섯던 것이다.

6

其後 歐洲大戰이 起함에 佛國은 本國方面에 잇서 전쟁이 급함으로 安南 통치는 자연히 疏隔 하게 되었스나 다만 국대와 군비의 징발에는 게을니 아니하얏다. 그런데 일방의 安南國民黨도 또한 이런 호기를 失할 것은 아니엇섯다. 독립을 부르짖는 소리가 도처에서 이러남과 공히 폭 동이 頻하야 드되여 1915년 8월 順化에서 독립 음모는 佛國政府의 探知한 바 되야 그 불꽃 촌 제10세 維新王(1908년 1916년간)의 머리 위에 나려져 왕은 翌年에 폐위 되야 17세의 소 년 한 몸으로써 단신으로 南印度洋의 孤島 레유우에 유배되야 爾來幽居 12년의 星霜을 지나 同年 29세의 청년인데 年額 僅히 500法 맞게 아니 줌으로 생활비가 부족되야 살님이 여간 궁 하지 안다. 동정하는 인사의 힘으로써 어느 중학생의 음악교사로 드러 갓스나 그래도 수입 부 족이 되야 街頭에서 빠이오린을 타서 행인의 동정을 맞는다 한다.

安南獨立의 기운은 폐왕의 신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釀成되야 安南 學生의 유일한 유학지 인 巴里에서 그 정신적 결합이 일층 왕성하게 되었다. 潘周楨氏를 中堅으로 한 安南獨立黨이 결성된 것도 巴里에 잇서서이다. 氏는 1923년 佛國으로부터 귀국한 후 翌年 10월에 壯志를 達치 못하고 遂히 逝去함에 이때에 國民으로부터 거액의 金전이 釀出되야 사이콘에 크다란 廟가 건립 되었다. 그리고 同年 2월2일 同地에서 개최된 기념추도회에는 수만의 군중이 참가 하야 독립의 기세를 올림에 이르렀다.

또 安南에는 歐洲大戰 이래, 梁玉損의 혁명운동과 芒街平遼의 役과 茫鴻泰의 총독에 한 襲擊 사건과 南定 농민 五千의 폭거와 塞貢兵工廠 千人的 罷工 示威 등이 속출하여 佛國官憲의 심장을 서늘케 하였다.

금년(1930년)에 드러서부터는 그 기운이 일층 숙성하야진 것 같다. 2월로 3월에 걸쳐 군대내에 반란이 起하여 혁명당원과 병합하야 관군를 못건디게 하얏스니 지금 그 경과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安南革命黨員은 미리 의논하얏든 計畫에 의하야 2월 10일 밤 10시 河內市에 잠입하야 同市 裁判所, 警察署 憲兵隊에 니르러 일시에 대폭과를 行하얏다. 不意에 놀란 佛國官憲은 즉시 非常線을 느리웠스나 하등의 소득이 업섯다. 同地 紅河에 가설한 토-메-루大鐵橋의 수비병도 또한 동시에 혁명군의게 殺戮한 배 되얏스나 革軍 자동차가 亦官軍의게 포획하배 되야 첩보, 문서를 압수됨으로 말미암아 동지와의 사이에 연락이 단절되야 頓挫된 感이 잇섯다.

이 돌연 폭발로 말미암아 佛蘭西人은 警愕狼狽하야 措處할 바를 아지 못하고 곳 멀리 난을 피하야 고국으로 다라난 者 대다수이오, 市中 在留民 등은 放砲를 기다려 城內에 피난할 약속을 하고 밤은 오후 8시<29> 이후에는 외출을 절대 禁하는 등 극도로 신경이 예민하얏졌다. 혁명군의 1隊는 夜河內를 距하기 북으로 28키로메틀인 安沛市에 佛國 주둔군을 襲하야 다수의 희생을 내이여섯는데 佛軍 중의 安南 병사가 革軍에 投하는 者 속출하야 或 暗夜를 乘하야 도주하는 者도 잇고 하야 遂히 此를 점령하얏다. 佛軍 측에는 루.다만 대장을 비롯하야 대위 4명 中尉, 小尉 각1명이 전사하고 루노-텔, 로란트 兩 大尉는 중상을 당하얏다. 익일 革軍은 乘勢하야 安沛市 남방 5키로메틀의 지점에서 佛軍과 대치하얏는데 佛軍은 마리웨 대장, 뢰커스, 바렌누 兩大尉를 지휘하야 極力으로 防戰에 노력하얏다.

安沛市에서 爆發된 혁명은 互相 連絡策動하야 1隊는 東京 중부 黑河의 渡船場을 점령하고 즉시 興化에 迫하얏다. 佛軍의 산첻슈-司令官은 守備隊長 로-렌을 督하야 能히 이것을 막엇스나 革軍은 교묘히 폭탄을 장치하야 파괴하얏슴으로 佛軍은 가족을 데리고 遁走하고 革軍은 此를 점령하얏다. 다시 그 길노 람다오를 함락식히고 比寧에 니르러 토카김 知事邸를 襲하야 此에 방화하고 자동차 10여대를 파괴하고 革命旗를 게양함에 근교의 인민이 革軍에 投하는 者 不知其數이엇섯다,

후-드-시에서는 2월 20일 佛軍 쇼벳트 司令 1隊로써 革軍의 不意를 襲하야 交戰時餘에 此를 퇴각식혔다. 革命軍大 隊長 련각쓰-(22세)는 此戰에 重傷하야 捕虜되야 쫓 21일에 死去 하엿다.

2월 16일, 夜河淸市 及其 부근에 一大 폭발이 잇서 佛軍과의 교전 수시간에 互하얏섯는데 쫓 17일에 일으려 佛軍 측에서는 비행기로써 比를 擊破식혔슴으로 촌락이 燒却되야 無辜한 민중만 다수가 살육을 당하고 말앗다.

其外 諒山, 山西, 南定 등 여러 곳에서 폭동이 起하얏스나 극히 단편적이고 連繫가 심히 薄하야 所期의 목적을 達치 못하얏섯다.

20일에 至하야서는 安沛市의 革命軍은 산간으로 총퇴각하얏슴에 맞기에 총독은 安沛市의 戰跡巡閱에 赴하얏섯는데 그때에 폭탄을 투하하얏다. 그러나 隨員 2,3명의 희생을 내이엿슬뿐으로 위험을 면하야섯다.

佛軍에서는今回 動亂의 首謀者를 체포 혹은 居所를 探報하는 者의게는 상금 1,000원을 주겡다고 공고 하얏스나 한사람도 밀고하는 者가 업섯섯다. 河內 探偵局 에서는 安南國民黨員을 수색하기를 엄중히 하야 하등 관계업는 인민까지 拘引 투옥한 者 무려 1,000여명에 達하야 옥내 狹隘로 노천에 蹲踞하는 참상을 모하얏다. 父子兄弟는 서로 눈물만 먹음고 母姊幼妹는

獄前에 다다라 다만 騷然하게 속수무책으로 잇섰다.

爾來 얼마 동안은 平靜히 지나 왔으나 내부에 隱忍하야 기회가 숙성함을 기다린 것인데 4월에 至하야 다시 각지에 동란이 일어 佛蘭西官憲 측에서도 수습하기 不能한 상태로 악화하고 있다. 지나간 4월 10일 朝에 河內市中 80여개소의 地中에 대폭탄을 埋置 하고 일거에 도시 점령을 기도 하였으나 事 未然에 발각되고 말았다. 동시에 官憲은 의심나는 민가는 물론 시중 전부에 互하야 대 수사를 行하얏섯는데 의외에도 수 십 개소로부터 피스틀, 霰彈, 탄약, 手榴彈 등 무수히 藏匿된 것을 발견하얏다. 그리고 최근 즉 6월 27일 巴里 電報에 據할 것 갓트면 佛國 의회에서 安南問題가 登程되야 친구와 의원간에 격렬한 논쟁이 잇다가 필경 45인의 差로 管轄委員 설치안이 否決되얏다고 한다. 이리하야 佛國의 安南問題는 英國 對 印度 米國 對 比律賓 問題와 공히 세계의 <30>주목을 끌고 잇다.

7

去 3월 24일, 오전 河內上審院에서 南定共產黨 사건의 재판이 잇섯을 때 顧問官 포-레스氏를 主席判事로 하야 安南獨立運動에 관한 조직의 보고 발표가 잇섯다.

佛國의 印度支那 통치에 반대하는 反對黨은 國家, 君主, 共和, 社會, 共產 等 各 主義로 분파되야 잇스나 이 여러 黨이 越南으로 하야금 佛國의 통치로부터 이탈케 하야 新政體樹立을 기도하는데 잇서서는 완전히 一致協力하고 잇다.

각 黨의 업적을 皮相으로부터 관찰하면 尋常한 聯合協調會 혹은 합법적 罷業會와 가트나 이면으로부터 보면 심히 전율할 내용을 가지고 잇다는 旨를 발표하얏다.

이제 佛國官邊의 조사에 의한 혁명 각 파는 大體 左의 5당으로 分하야 잇다.

1. 革命黨(畿外候疆에 屬한 者)

이 黨은 국외에 탈출하야 잇는 못 혁명자의 단체로서 당 본부를 廣東에 置하고 孫文의 三民主義를 준거하는데 국가와 계급과를 중히 역이고 당원은 다 越南에 1個의 自治政府를 건설하고 君主 혹은 民主立憲政體를 조직하야 佛國의 통치로부터 독립할여고 하는 것이다.

2. 越南國民黨(阮泰黨의 創立한 것으로써 疆와 깊은 關係를 가지고 잇다.)

이 黨은 1926년의 조직인데 1929년 바잔氏 암살된 후 당내에 대 타격을 受하야 殘部黨員의 다수는 해를 입지 아니한 다른 急迫黨에 가입하얏다. 이 黨員에는 순수적 민주주의에 又 일부에는 과격주의의 兩派가 잇다.

3. 越南青年革命同志會

이 黨은 민주주의의 경향이 잇스나 공산주의자가 우세이다. 총본부를 廣東에 두고 同所에 정치학교를 設하야 다수의 安南人으로 정치경제학을 연구케 하고 각 단체 동지간에 혁명운동의 조직방법, 전술 等を 宣傳廣布하고 잇다. 黨員으로서 黃浦軍官學校에 재학중인 者 적지 않다. 1929년 5월 1일에 香港에서 青年同志會 총회를 開하얏섯는데 성적이 그리 좋치 못하얏다.

4. 東洋共產黨

아직 제3 인테내쇼넬에 가입은 아니 하얏스나 공산의 성질을 띤 것은 명백하다. 越南青年同志會와 相異한 점은 前者는 입당자의 자격을 관대히 하지만 東洋共產黨은 당규 조례를 엄히 하

야 절대 복종케 한다. 此를 犯하는 者는 조사위원회에 附하여 대개 死刑에 처한다. 黨員을 正黨員, 準黨員의 두 가지로 分하였다.

5. 越南共產黨

1929년 5월 1일 東洋共產黨 總本部會議의 직후 새로히 黨內 조직을 변경하여 黨員 中으로부터 제5당을 조직하여 越南共產黨이라고 稱하였다. 공산당 일체의 문서와 각종 그 회의 인쇄물에는 斧와 鎌의 票를 附하는 것은 一手오 각 農民聯合會는 다 가티 별(星)의 徽章을 사용하고 있다.

右 발표와 가티 安南獨立運動者는 5派로 分하여 있는데 更히 此를 요약하여 보면 제1이 安南王을 打倒리 立憲君主國으로 하여는 것, 제2가 土耳其와 가티 大統領을 선거하여 立憲民主國으로 하여는 것, 제3이 娑비에트. 러시아와 가티 共產主義의 國家로 하여는 것이다. 그 중 제1에 속한 越南國民黨은 새로히 主義政綱을 발표하고 王道革命을 표방하여 그 목표에 邁進하고 있다.

吾人은 印度獨立運動의 진전에 주목함과 共히 印度의 그늘에 잇서 意外의 숙성을 보이고 잇는 安南獨立運動도 주의해 보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을 말하여 두고 이에 擲筆한다.<31>
<20-31>

39.

잡지명: 별건곤 제32호

발행년월일: 1930년 09월 01일

기사제목: 世界各國 弱少民族의 生活相, 苦悶하는 印度

필자: 北熊生 북웅생

기사형태: 소식

世界各國 弱少民族의 生活相, 苦悶하는 印度 (세계각국 약소민족의 생활상, 고민하는 인도)

北熊生

印度...라 하면 赤道直下의 불가튼 태양열을 비웃는 듯 皚皚한 白雪을 머리에 인 히말라야의 숭엄한 연봉과 바로 그 앞에서 洋洋히 흐르는 淸지스 江의 살진 언덕 常綠의 야자수 깃든 그늘에 종교적 명상에 잠겨 눈을 지긋이 감고 안근 신비로운 종족을 연상케 된다.<72> 西天西域國...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에 3월 3일날 날아오는 제비를 마지하며 꾀업는 꿈을 꾸든 동화의 나라 印度를 같으킴 이엇섯다. 印度는 釋迦와 佛敎理幽玄한 佛敎의 발생지 었섯다. 그리고 印度는 세계의 寶貝를 3分之1이나 감추운 나라 었섯다.

그러나 그것은 淸날의 인도요, 우리가 동화에서 꿈을 꾸든 나라 었섯다. 지금의 印度는 꿈을 일코, 종교를 일코, 신비를 일코, 주림에 시달니다 못하여 皮骨이 相連한 새깁한 몸동이를 그들의 정복자인 코 크고 눈이 노-란 사람들의 銃뿌리에 드러대며 생명으로 자유를 겨루려 드는 물 끝 듯이 뒤 끝는 印度가 되고 말엇다. 苦悶하는 印度는 었지 되려는지!

『淸지스 江에서 물을 빨아 올닌 海綿을 땀스江에 搾다.』는 말이 잇다. 사실이다. 英國의 對

印度政策이 海綿이라하면 칸지스江은 印度의 富요 댐스江은 英國의 富다.

英國의 東印度會社와 저 유명한 크라이브는 印度國富의 7할을 약탈하였다. 그야말로 英國에는 보물의 비가 쏘다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래도 印度는 죽지 안이 하였다. 印度를 배급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꿈을 일케한 것은 英國의 印度에 대한 工業과 무역정책이었었다.

현재에도 印度의 1년간 產米總額이 4억 7천만 키타로 전세계 產米의 5할 6분을 占하였스되 그들은 주린 배를 움켜쥐고 街頭에 방황하게 되며 棉花가 세계의 <73> 제2위로 110만톤 이로 되

그들의 옷감은 겨우 뽕갈의 소녀들이 손으로 켜 무명 한필 밧게는 더 차지가 돌아오지 못한다.

천연의 광산이 무진장으로 못쳐 잇스되 오로지 남의 손으로 파내이게 되며 냇날에 유명한 布木 印度 가라코는 지금와서 자취도 차츰 길이 없다.

파라몬敎의 아편에 중독이 되야 이 세상의 수난은 사후극락을 간다는 신념으로 데굴데굴 굴너서 수백리 길을 가며 평생을 한손을 위로 들고 지내든 이 인도의 종족도 지금 와서는 현대생활에 눈을 뜨게 되었다.

全印度의 인구는 實로 3억 2천만에 달한다. 그 중 7천만이 回回敎徒요, 1천만은 佛敎其他요 2억 3천만은 힌두교도 이다.

그들은 종교상 반목으로 數百年來 싸움이 끈이지 안이 하였다. 크라이브가 英國세력을 印度에 扶植한 것은 오로지 이 싸움을 잘 이용한데 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칸디의 族入발알에 全印度의 民族이 한데 모여 오로지 반영의 운동만을 목표로 하여 맹렬히 돌진하고 있다.

그릇뿌리텐의 젠틀맨임을 자랑하는 쉘크렛의 점잔한 친구들이여, 그대들에게 피를 빨려 皮膚相連되어 가지고 怨鬼와 가티 그대들의 내어밀은 銃뿌리로 달녀드는 그들을 엇딴게 보는가?!

우리가 한번 印度國內에 발을 드려 노흐면 가는 곳 마다 종교적 신비감을 주는 고대 건축이 別로 엮는 곳이 없다.<74>인도 야-도리 連山の 일단에 잇는 아잔-다-의 29개로 된 연속동굴을 비롯하여 寂寞한 廢都 파-데폴시크리의 모굴탑이 그러하고 아크발의 궁전이 그러하며 쿼파고남의 大堀이 역시 그러하다.

세계 最古美의 포-손을 가진 라메시와라의 대전당은 완전히 벨샤유의 궁전을 연상케하며 빠슈누.템폴의 柱室의 웅대한 조각은 고대 회랍의 그것을 凌駕하기에 붓그림이 없다.

이러한 古色이 창연한 고대 유물이 잇는 한편으로 英國의 기막힌 선물인 현대문명의 諸設備가 縱과 橫으로 뇌여 있다. 이 사이를 벌게 벗고 혹은 흰 장삼을 걸치고 힘 업시 왕래하는 터-번 너들이며 살이 살을 먹고 거랭이가 제 자루를 찌는 격으로 가는 곳마다 擔銃騎馬의 印度兵丁이 살기찬 눈동자를 굴니고 섰다.

압흐로 印度는 엇지 되여 가려는지?

<72-75>

40.

잡지명: 삼천리 제9호
발행년월일: 1930년 10월 01일
기사제목: 印度民族運動
필자:
기사형태: 소식

印度民族運動 (인도민족운동)

인도는 지금 영국의 식민지로 착취와 억압에 신음하고 있음으로 英帝國主義의 지배로부터 버서나서 민족해방을 달성하려고 하는 혁명운동을 하는 중으로 歐洲大戰 后 매우 치열하여 全印度의 폭동 파업 불매동맹 등이 작고 이러나고 있다. 인도민족운동의 슬로-간은

1. 완전한 민족적 독립 并一般決議權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적 공화국의 수립.
2. 大土地所有의 沒收
3. 地租, 小作料, 間接稅의 廢止 及 高率累進所得稅의 負課
4. 國家의 補助의 의한 농업의 근대화
5. 공익에 관계한 재산의 민족화 國家의 보조에 의한 평지의 공업화
6. 8시간 노동과 最低賃銀의 제정

<72>

41.

잡지명: 별건곤 제35호
발행년월일: 1930년 12월 01일
기사제목: 世界弱小民族의 三大反亂, 千古의 悲壯史 南阿의 大反戰記
필자: 崔瑑淳
기사형태: 논설

世界弱小民族의 三大反亂, 千古의 悲壯史 南阿의 大反戰記

崔瑑淳

一. 英國植民政策과 南阿經營

19세기 太半을 亶하여 식민 정책상 亞細亞에서는 英國의 상대자는 露國이었으나 참으로 식민 운동 더욱 海上에서는 露西亞는 문제가 안이되고 和蘭 西班牙 葡萄牙 등은 과거의 남은 세력을 겨우 유지할 뿐이요. 오직 佛蘭西가 식민지 발전에 다소 힘을 썼으나 英國에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더욱 西紀 1866년 이후에는 歐羅巴 天地에는 内外로 多事多難하여 列國은 海外

發展에 눈코 뜰 여유가 업서 歐羅巴 이외 天地는 英國의 獨舞臺이였다.<92>

이때 阿弗利加는 리빙스톤 Livingston 이외 數多의 探檢家의 報告에 의하여 그 內陸의 사정을 알게 되자 英國은 적극적으로 여게 진출하여 外交가 무엇이며 條約文의 眞義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土人 등을 꺾어 혹은 돈과 禮物을 주어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만히 조약을 체결하여 그 토지의 권리를 獲得하여 土人을 壓倒하게 되었다.

二. 트란스발(transval)과 오렌지(orange) 兩國의 狀態

和蘭 植民의 후예되는 보아(Boer)人은 楨(Cape)植民地에서 英國人의 세력에 밀리어 西北方으로 물너와서 『트란스발』共和國과 『오렌지』自由國을 창립하여 영국 정부로 독립의 승인을 어땀다. 그러나 土民의 일부는 『트란스발』국가가 재정 困難과 內訌의 속출로 困苦가 막심한 때를 타서 영국 정부는 1887년에 임의로 군대를 파견하여 首府 『푸레도리아』(Pretoria)를 점령하고 그 全土를 병탄하라 함으로 『트란스발』 국민은 반기를 들고 항쟁한 결과 영국은 다못 外政을 감독함에 긋치고 內政은 자치를 許하였다.

爾後 兩共和國은 國運이 隆盛하였다. 더욱 1885년 『트란스발』 국내에서는 金鑛을 발견하고 『오렌지』공화국에서도 金剛石產地를 발견하여 國人 그 중에도 英國人이 이 지방에 移住植民이 돌연히 증가되야 10만 이상에 달하였다.

그러나 彼等은 다액의 租稅를 分擔하나 하등의 參政權이 업서 항상 불평을 이르키며 정부에 呼訴함이 적지 안었다.

三. 그류겔(Krüger)의 出馬

1880년이래 南阿共和國(트란스발 共和國) 大統領으로 選舉된 그류겔은 敬虔 慎重 剛毅 果斷한 인물이다. 採鑛事業으로 外國인인 수가 날이날 증가되여 그 중에도 영국인의 세력이 점점 팽창함을 보고 불안과 공포를 늦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렌지』대통령 『라이스』(Rijs)와 防禦同盟을 매여가지고 商業上 互相扶助하여 철도 부설까지 협정하였다.

『그류겔』은 또 종래의 國會를 보아人 占有의 第一國會라 하고 따로 交通 鑛地 衛生 民事 刑事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第二國會를 設하고 諸採鑛會社의 대표자의 참가를 許하였다. 또 外國인인 歸和權을 종래 5箇年 거주를 필요조건으로 한 것을 『그류겔』은 1890년에 議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것을 통과 식혀 移住 후 2箇年 이상이 되야 國法을 犯치 안이하고 그 氏名을 兵籍簿에 記入하고 또 歸化 전에 속하였던 國家 君主에 대하여 모던 義務責任을 단절하기를 맹서하는 者의게만 歸化하기로 하였다. 英國人이 침으로 여게 대하여 불평을 이르키여 歸化하지 안이하고 參政權을 어드려 하였다.<93>

四. 세실로-스(Cecil Rhodes)의 出身

『로-스』는 英國 어는 牧師의 아들노 그 집안이 넉넉지 못하였다. 열일곱 살 때에 肺病治療로 南阿에 와서 잇섰다. 『로-스』는 元氣가 왕성하고 정력이 絶倫하고 明敏 大膽하며 冒險投機의 경향을 가지고 잇섰다. 『로-스』는 다른 사람과 가티 긴바리 지방에 대지를 얼마 사 두었는데 거기서 金剛石 맥을 발견하여 줄지에 거대한 자금을 얻게 되고 또 그 手腕이 一般의게 인정하게 되며 南阿에서 第一富豪가 되여 2,3의 金剛石 採鑛會社長을 겸임하게 되었

다. 그 후에 『로-스』는 이것을 다 버리고 本國에 도라가서 다시 옥스퍼드(oxford)대학에 입학하여 수년간 공부하다가 다시 南阿로 와서 南阿 特許會社의 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로-스』의 理想은 南阿 全體를 英國 主權 및 혜 있는 植民聯邦으로 조직하며 北方 埃及까지 철도를 연장식혀 南北을 縱貫식히려 하는 것이 그 理想이었다.

1894년에 『트란스발』 이주민으로 國民協會를 조직하여 參政權 獲得運動을 하여 3만 2천人의 署名한 嘆願書를 共和政府에 제출하고 翌年에 南阿特許會社 支配人 『젼손』 박사(Dr. Jameson)를 식혀 5, 6백의 騎馬 巡査를 다리고 대담하게 공화국에 침입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移住民과 서로 內應하여 기세가 당당하였다. 『보아』人들은 이것을 알고 그 翌年 1월에 『젼손』 박사 일행을 대패식히고 『젼손』을 잡아 가두기까지 하였다. 이때 歐羅巴 列國 중 英國의 침략주의를 미워하는 普魯天王 『위리암』2세는 특히 親書를 남아대통령 『그류겔』에게 보내어 그 성공을 축하하였다 한다.

五. 英國과 트란스발과 外交絶斷

英國 植民大臣 『참버렌』(Chamberlaine)은 트란스발공화국 병합의 急急함을 생각하고 이주민 參政權에 관하여 『그류겔』 대통령의게 憲法改正을 强硬하게 반대하였다. 그리고 英國은 이때를 이용하여 군대를 大輸送하였다.

보아人은 英國 군대가 집중하기 전에 거사하려고 1899년 10월 9일에 최후통첩을 보내어 「兩國의 紛爭은 仲裁 裁判에 의하여 결정할 것 또 英國 增遣軍隊를 철회할 일」 10월 11이 오후 5시까지 그 決答을 요구하였다.

『트란스발』이 이와가티 最後通牒 하게 된 것도 英國의 術中에 빠진 것이며 『참버렌』대신이 미리 기다리고 잇는 때라 英國은 물론 요구를 거절하고 宣戰을 公布하였다. 그러나 英國 政府 政黨에서는 在野黨인 自由黨은 政府의 處置에 대하여 오히려 공격을 하고 도로혀 보아人을 동정하게 되었다. 英國은 보아人의 실력을 잘못 알고 보아人을 輕蔑히 보았다가<94> 第一次에는 실패하였다. 英國 本國에서 이 敗報를 듣고 매우 분개하여 大軍隊를 輸送식히며 양식 무기를 충분히 준비하여 1899년 12월에 『로버트』(Rovert)대장이 총사령관이 되어 翌年 1월에 『젼다운』에 상륙하여 드디어 『보아』人을 굴복 식히고 土兵을 전부 鎮壓하였다.

南阿 대통령 『그류겔』은 75세의 老軀를 不顧하고 怨恨을 품고 和蘭 軍艦을 타고 佛國 南海岸 『마루세이유』에 상륙하여 11월 25일에 巴里에 드러와서 佛國大統領 『루베』를 보고 調停을 依頼하였으나 드디어 실패하고 할 수 업시 12월 1일에 巴里를 출발하여 獨逸에 가서 「위리암」2세의게 또 哀願을 하였으나 이 亦是 목적을 達하지 못하였다. 「列國의 干涉으로 平和 克復의 계획도 수포로 도라가고 할 수 업시 길을 돌리어 和蘭에 가서 病軀를 靜養하게 되었다.

이와가티 되어 보아人의 굴복으로 南阿 戰役은 一段落을 짓고 마렸다.

이 뒤로 『트란스발』 『오렌지』兩 共和國은 英國에 併합이 되고 또 英國의 세력 및 해서 南阿 聯邦까지 조직되어 英國의 식민정책은 如意하게 성공되야 그 세력은 점점 膨脹되었다.

<95>

<92-95>

42.

잡지명: 별건곤 제35호

발행년월일: 1930년 12월 01일

기사제목: 世界弱小民族의 三大反亂, 北清大事變 清國義和團大暴亂

필자: 車相瓚

기사형태: 논설

世界弱小民族의 三大反亂, 北清大事變 清國義和團大暴亂

車相瓚

一. 日清戰爭후 清國의 政界

甲午日清戰役에 여지없는慘敗를 하고 廣大한 領土의 割讓 巨金의 賠償 등 千古에 씻기 어려운 國恥를 당한 清國은 德宗帝를 <88> 爲始하여 一部 志士識者間에 근본적으로 自國의 國정 개혁을 痛感하게 되었다. 그 때에 가장 급격한 개혁을 절규한 사람은 누구나 잘 아는 清末 保皇黨 首領으로 당시 新進氣銳의 인물 康有爲였다. 그는 원래 廣東省 南海縣 사람으로 학문 식견이 一世에 卓越하여 일찍부터 國정 개혁에 큰 뜻을 두고 비밀히 동지를 모아 한 改革黨을 조직하고 一方으로 清帝에게 屢次 國정 개혁에 관한 상소를 하더니 (4년 간에 凡 7회 상소) 따마춤 清帝의 師傅로 잇는 翁同龢(和의 古字)가 平素부터 康의 爲人을 알고 清帝에게 薦하여 御史를 拜하게 되니(1898년 1월경) 康有爲는 清帝를 面謁하고 時政의 積弊와 變法自強의 필요를 痛論하며 또 자기의 所著『日本及露西亞의 改革』을 進하여 日本의 維新과 露國의 帝政改善한 사업을 극구 찬양하니 원래부터 國정 개혁에 뜻이 잇던 清帝는 그 의견을 嘉納하고 즉시 勅令을 發하여 官制 教育 軍務 財政 通信 기타 一般庶政을 일시 개혁하고 또 언론 출판 등 자유를 許하여 넓이 民意를 暢達하며 康有爲 이외 王文照 가튼 급진 과격과 人物을 登用하는 동시에 此에 반대 의견을 가진 보수적 人物을 일제 革面하여 심지어 당시 總理衙門 大臣으로 勳功威名이 一世를 傾倒하는 李鴻章까지 免官을 식히니 당시 개혁의 手段方法이 如何히 급격 신랄하였던 것은 족히 推知할 수 잇는 것이다.

然而이 개혁은 비록 일시에 성공을 하얏스나 원래가 각성한 민중을 토대로 삼은 개혁이 안이요. 일시 몇몇 志士 政客의 策동적 개혁이 되기 때문에 마치 甲申時代에 朝鮮의 金玉均改革黨과 마찬가지로 그 운명이 그다지 오래지 못하게 되었다. 卽 당시 驕侈遙佚한 西太后는 비록 攝政의 位를 退하얏스나 帝政의 實權을 항상 擅弄함으로 德宗의 帝權 擴張을 露骨로 실행하고 暗昧頑迷한 守舊의 權臣은 舉皆 滿人임으로 康有爲 일파 漢族의 득세를 질시하는 동시에 급격 개혁의 결과로 그 지위 권세를 일허버리게 되니 西太后를 중심으로한 守舊黨은 도저히 개혁당을 용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西太后는 자기의 心腹인 端郡王(후일 義和團의 首魁가 된 인물) 등에게 密使를 파견하여 皇族及貴族會議를 급속히 열고 德宗의 폐위와 개혁당의 撲滅을 꾀하얏었다. 이 음모를 미리 안 德宗과 개혁당 일파는 먼저 機先을 制하랴고 당시 威德이 一世를 風靡하는 直隸提督 袁世凱를 密命하여 수구파의 巨魁 直隸總督 榮祿을 天津에서 逮捕 斬殺하고 北京에 進軍하여 西太后를 幽閉하기로 하얏다. 일이 그와가티 順調로 진행이 되었스면 물론 清國의 개혁은 아주 완전한 성공을 하얏을 터이나 원래 李鴻章 門下에서 장성하여 奇狡 權變이 무쌍한 袁世凱는 義理보다도 勢利를 먼저 살피게 되어 攄에는 황제

의 명을 聽從하라다가 다시 西太后 一派 수구당의 권세가 큰 것을 보고 태도를 忽變하여 遂히 德宗의 신임하는 恩義를 背하고 도로혀 그 機密을 榮祿에 고하매 榮祿은 대경실색하여 急急히 西太后를 謁見하고 變을 告하니 西太后는 크게 노하여 淸帝를 불너 질책하되 국가를 멸망할 大賊이라 하고 자기가 다시 聽政을 할 事를 선언한 후 康有爲 일파의 개혁과를 일망타진으로 체포 처형을 嚴命하니 康有爲는 英國 郡艦으로<89> 도주하여 上海에 망명하고(그때 淸帝로부터 망명하라는 密詔를 受함) 此外 多數한 개혁당과 淸帝를 奉仕하던 50여 인의 宦官 등은 무참한 斬刑을 당하고 淸帝 또한 幽廢의 비운을 당하게 되니 淸國의 정계는 다시 西太后를 중심한 수구파로 도라가고 마렀다.

二. 反動黨의 得勢와 義和團 蜂起

如斯히 反動黨이 다시 세력을 엇게 되매 頑冥暗昧한 당시 淸國의 일반 인민은 外夷攘斥의 思想이 일시 격발하여 각지에서 배외 폭동을 이르케스니 그 폭동의 第一目標은 天主教의 선교사와 及其敎의 박멸이었다. 원래 淸國은 朝鮮과 마찬가지로 儒敎 이외에 타종교를 異端으로 배척하는 사상이 根據가 깃들 뿐 아니라 年來 西洋人의 淸國領土 其他利權侵害는 전혀 선교사의 선도로 된 것인즉 근본으로 선교사와 교회를 撲滅함이 可하다 오해하고 江蘇를 筆頭로 하여 安徽, 山東, 直隸, 各 省에서 선교사의 박해, 교회당의 破壞 등 폭동의 사건이 날로 일어나는 중 加之 政府는 此를 禁止하지 않을 뿐 아니라 往者 日淸戰爭後 英佛露獨에게 무리하게 旅順, 膠洲灣, 廣州, 威海衛 등을 租借한 후 그 覺醒을 따라서 영토 보전에 특별 유의하매 伊太利가 浙江海岸의 三門灣을 요구함에는 强硬히 거절하고 此를 기회로 하여 政府는 각 성 총독 巡撫에게 訓令하되 『만일 外敵이 중국의 국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政府의 명령을 待치 말고 兵力으로 擊退하라』하고 또 西太后는 *敕를 命하여 각지로 巡視하며 군대 편제의 필요를 訓示하니 이에 淸國은 상하 일치로 排外熱이 극도로 熾盛하게 되었다.

이때를 타서 山東省에서는 義和團이라는 큰 暴動團이 또 蜂起하였스니 此는 원래 白蓮敎派의 一派로 扶淸滅洋을 標榜하고 專혀 기독교 배척과 외국인 驅逐을 일삼으며 그 信徒는 義和拳이라 칭하는 일종의 拳術을 행하여 此에 熟達하면 능히 銃砲劍戟을 방지한다고 聲言하니 인민의 附和하는 者가 만코 따라서 拳匪라고도 칭하였다. 원래 淸國은 인민의 공연한 集會結社를 嚴禁하는 반면에 秘密結社가 극히 교묘하게 발달되야 제 19세기 초엽에는 소위 大刀會라는 폭도가 이러나 일시 국내를 크게 소란케 하다가 그 뒤 질서가 회복됨에 따라서 此種의 폭도는 다시 民兵團을 조직하여 民兵團이라 칭하다가 1899년 여름에 이르러 또 이 義和團이란 명칭을 가지고 이러났스니 소위 大刀會니 白蓮會니 民兵隊니 무슨 團이니 하는 것은 其實 異名同體의 暴動團體였다. 그들은 상술함과 가티 일반의 排外熱이 熾盛한 기회를 타서 扶淸滅洋의 깃발을 흔날이며 도처에 봉기하여 외국인을 만나는 대로 학살하고 기독교 신자의 박해 교회당의 파괴를 함부로 하니 그 행동이 비록 난폭하나 일반 민중은 한 救國愛民의 단체로 인정하고 東西呼應하며 西太后를 중심으로 한 政府의 수구파 要路人物들은 暗暗裏에 氣脈을 상통하여 표면으로 此를 鎮撫하면서 내면은<90> 助長 鼓舞하니(山東省에서 袁世凱가 義和團을 討伐虐殺한 例外의 事가 잇섯지만은) 그 勢가 바로 熾省하게 되어 濟南에서는 一時 수백 명의 기독교 신자가 학살을 당하고 교회당 신도의 家屋 燒失된 者 5천여 戶에 달하였다. 그런 중에 그 때 北淸 일대에는 前古 未曾有의 흉년으로 인심이 크게 흉흉하니 義和團은 此를 千載好機로 생각하고 四方에 傳檄하여 인민을 크게 선동하니 도처에 軍民과 亂兵이 望風呼應하여 1900년 봄에는 벌써 直隸省까지 無人之境과 가티 드러와서 철도 교량을 파괴하고 전선

을 切斷하여 北京, 天津間 交通을 단절하고 外人을 크게 살해하니 北京에 在留하는 열강의 公使團은 淸國 政府에 그 鎮撫를 누차 요구하였으나 하등 효과가 업을 뿐 아니라 관병이 도로혀 義和團을 聲援하여 그 暴威가 日甚하니 이에 日英米佛露伊獨 七國은 不得已 각 國 水兵將校 4백여 인으로 列國公館을 보호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원래 義和團의 세력이 宏大하여 그것으로는 도저히 公館 보호가 불능함으로 다시 天津에 있는 각국 陸戰隊에 應援을 請하니 英國 東洋艦隊 司令長官 『시-모아-』는 2천여 인의 陸戰隊를 引率하고 급히 天津을 發하여 北京에 向하였으나 때에는 벌써 淸兵이 中路를 遮斷하여 감히 進行치 못하고 각국 公使館은 重圍에 빠져서 日本公使館 書記官 杉山과 獨逸公使 『갯데레루』는 亂兵에 살해를 당하고 기타 外國인도 다수한 迫害을 당하였다.

三. 聯合軍의 北京侵入과 講和條約

사태가 이와가티 되매 淸國은 철저히 外敵을 구축하여 多年間 싸여오던 國恥를 雪하라고 이에 正式으로 각국에 宣戰布告를 하고 北京, 天津 등지의 外國인 居留地를 포위 공격하니 列國은 此에 應戰하여 먼저 太沽砲臺를 함락하고 次에 天津總攻撃을 개시하여 7월 14일에는 遂히 天津城을 함락하고 8월 4일에는 總指揮官 獨逸元帥 『와루데루제』 인솔 하에 日兵 8천人, 英兵 千6백人, 米兵 千 6백人, 露兵 3천 7백人, 佛軍 8백人, 獨兵 2백人, 奧兵 60人, 伊兵 20人의 總聯合軍은 天津을 출발하여 日,英,米 三國의 兵은 白河右岸으로 進軍하고 其外 五國의 兵은 左岸으로 進하다가 獨逸 3國兵은 天津으로 도라오고(天津保護를 위하여) 佛兵은 楊村에 留屯케 한 후 日英米露의 연합軍은 乘勝長驅하여 破竹의 勢로 北京을 追擊하니 官兵과 民兵은 烏合의 衆과 가티 四散敗走하고 靑帝及西太后는 西安으로 蒙塵하니 연합軍은 이에 北京을 佔領하여 公使館을 구출하고 다시 軍을 派하여 山海關·北塘을 略하며 또 保定을 奪取하니 淸廷은 大勢의 엇지할 수 업슴을 깨닫고 慶親王과 李鴻章을 北京에 派遣하여 各國 公使와 협의하여 休戰을 선언하고 12월에 至하여는 獨逸公使及日本書記官殺害에 대한 謝罪使의 파견 匪團首魁의 처벌<91> 賠償金 4억 5천만불(약 9억원)의 지불을 위시하여 太沽砲臺의 破壞, 公使館 보호병 設置, 北京天津間 要地駐屯兵 設置 등 범 12개조를 約하고 翌 1901년 9월에 議定書에 調印을 하니 이 사변은 이에 아주 終局을 結하였다.

然而이 拳匪의 亂으로 인하여 1899년부터 1900년까지 外國인의 학살을 당한 자는 新敎宣敎師及基家族이 188人 舊敎僧尼 44人 北京包圍 시대에 일반 살해자 76명인 바 此에 제일 제이 兩回의 救援隊의 死傷者를 총계하면 列國의 손해도 막대하러니와 淸國 軍民의 사상자로 말하면 실로 수만 이상에 달하여 일시 北京 성내가 尸山血海가 되었었다.(此戰爭에는 주로 日兵이 先鋒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또 1900년 7월에는 黑龍江畔 『뿌라고비에스치엣스크』에서 中國의 移住民이 義和團과 관계하였다는 혐의로 露國 官廳에게 4천 5백여의 무고한 사람이 2일간 대학살을 당하고 또 此를 구실로 하여 滿洲의 여러 도시 존락을 陷沒하고 영토를 佔領한 것은 또 한 中國인의 잊지 못할 일이며 미래 日露戰爭의 原因을 지은 것도 누구나 기억되는 일이었다. <92>

<88-92>

43.

잡지명: 별건곤 제35호

발행년월일: 1930년 12월 01일

기사제목: 世界弱小民族의 三大反亂, 印度의 뮤니-티(土兵反亂), -及 간디運動의 初期-

필자: 蔡萬植

기사형태: 논설

世界弱小民族의 三大反亂, 印度의 뮤니-티(土兵反亂), -及 간디運動의 初期-

蔡萬植

1757년 6월 23일 英國의 印度經略史上 大恩人 크라이스트가 풀렛시에서 印度(뽕갈候 시라지.우드.도우라)의 군대와 佛蘭西의 군대로 된 印佛聯合軍을 擊破함으로부터 英國의 제국주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인도에 수립되었다. 이래 1백년간 東印度會社의 손으로 간지스江의 물을 빨아다가 뎀스江에 짜놓는 소위 海綿政策 「平和로운 英國統治(Pax Britannica)」의 꿈은 1857년의 뮤니-티(土兵反亂)로 인하여 허무하게도 깨어지게 되었다.

물론 이 뮤니-티는 東印度會社라는 일개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그 통치권이 英帝國의 손으로 넘어가는 원인을 지어 주기도 한 것이나 그러나 동시에 「平和로운 英國統治」가 「印度의 不安」으로 변하는 한 소리의 전주곡이었었다.<84>

이에 잠깐 뮤니-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어보자.

풀렛시 전쟁 이후 英國의 文豪 마코-레-는 「寶貨의 비가 나린다」고 한 말이 있다. 그것은 그 전쟁으로 인하여 英國의 印度에 대한 霸權이 확립됨을 따라 無盡한 富가 印度로부터 英國으로 쏘다져 드리오는 것을 형용한 말이다. 과연 英國은 東印度會社의 손을 거쳐 일백 년만에 印度의 富의 7할을 빠러먹었다.

이와갓치 富의 略奪을 하는 한편 英國 사람은 印度 사람을 虐待하기를 옛날의 뿌라만이 그 이하 계급에 대하여는 이상으로 더 하였다. 「白色뿌라만」은 英國 사람의 잔학한 壓迫에 대한 淸호였었다.

處地가 이와가티 되어 감에 제 아모리 문화가 退化된 無知한 印度 民衆일지언정 자기네의 前途에 滅亡이 가로놓여 있음을 몰라 리가 없으며 따라서 不平이 그 가슴에 싸히지 안이하엿을 리가 없는 것이다.

과연 그네의 가슴 집히에는 鬱忿과 不平의 熱이 方今 터져오르려는 火山과 가티 잠기어 잇서 導火線을 찾고 잇을 따름이었었다.

때는 1857년 英國 印度總督 갠닝卿이 새로 赴任하여 얼마 안이되엿든 때였었다.

印度의 土兵 사이에는 다음과 가튼 所聞이 전파되었었다.

「英國 사람이 주는 火藥包는 도야지 기름칠을 한 것이다.」 원래 印度 사람에게 대하여 도야지는 가장 不神聖한 것의 하나이었었다. 그러한데 그러한 宗教上 不神聖한 것을 日常에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神을 冒瀆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머리 속에는 漸漸 뚜렷한 正體를 나타내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 해 5월 10일 (日曜日)의 午後에 미루트의 土兵이 公公然하게 反亂을 이르키어 爲先 監獄을 破壞하고 囚徒를 解放하고 다시 英兵의 駐屯所로 가서 만흔 白人을 殺戮하였다. 乘勢한 反亂土兵들은 페리-부근으로 진출하여 그곳의 守備土兵과 囚徒를 煽動하여 반란에 참

가게 하고 그 때 마침 英國사람에게 王位를 빼앗긴 모굴帝 빠하둘.샤의 幕下로 모혀들어 一大勢力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가티 한번 反旗가 날니자 印度의 天地는 물 끝툃이 이에 呼應을 하였다.

英國으로부터는 다수한 군대가 輸送되었다. 그리하여 18개월 동안을 두고 印度는 피를 흘리며 싸웠다.

그러나 勝敗는 본시 作定된 것이었었다. ***土兵의 反亂을 「大英帝國」이 엇지 鎮壓치 못하리오.

그러나 *이 뮤-닉티에서 흘닌 印度 사람의 피는 결코 헛되이 도라가지 안이하었다. 이때-東印度會社의 손에서 英帝國의 屬國으로 된 印度는 뮤닉티를 劃期로 그들의 反英運動은 日常鬭爭化하였다. 그 중 歐洲大戰 以後의 초기의 그것은 무엇보다도 매우 猛烈하였다.<85>

1917년 印度는 당시 歐洲大戰에 참가한 英國을 위하여 10억 원의 거대한 軍費를 조달하였다. 그뿐 안이라 印度人으로 編成된 步兵 2師團 騎兵 2師團을 마루세이유-에 上陸식혀 연합군에 참가하고 다시 步兵 1사단을 英領 南阿에 또 1사단을 메소포타미아에 마스켓트와 아덴에 일부 군대를 파견하여 전시의 英國 植民地를 충실히 警備하여 주었다.

이러한 것은 印度 民衆이 결코 英國에 대하여 충성을 가져서가 아니었었다. 그들은 다만 그러함으로써 英國이 閹狄-를 통하여 印度 民衆에게 約束한 「自由」 그것을 엇기 위한 교환 조건 提拱이었었다.

이와가티 印度 民衆이 간접으로 필를 흘닌 보람도 업시 大戰이 終息되자 英國은 「自由」 대신에 그들에게 彈丸으로 洗禮를 하였다.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印度人 가운데 親英派와 뿌르조아의 조고만한 歡心을 사는데 지나지 못하는 有名無實의 印度 國民議會이었었다.

印度 民衆은 별때가티 일어났다.

이 시기를 기회로 英國의 皇叔 콘노-트 殿下는 新政을 統察하며 民心을 撫摩하기 위하여 印度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무마하러든 印度의 反英運動은 조금도 가려안지 안이하고 燎原의 불과가티 퍼지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印度 사람의 日常 鬭爭으로까지 변하였다.

이제 당시의 상황을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가티 抄한다. (以下 大阪毎日 發行 「有色人種의 大不平」에서)

1919년 12월 13일 페리-電報- 非妥協運動이 라호-르지방에서는 暴力化하여 閹狄-를 首領으로 한 同運動의 黨員은 國內 州議員 選舉의 投票者에게 폭행을 가하고 數名을 襲擊하였다. 이로 인하여 一般은 투표하기를 두려하며 棄權者가 續出한다.

1911년 1월 10일 아라하바-드 電報- 라이라 바레 兩地方(칼카타의 西南)에서는 대규모의 農民-揆가 이러나서 各村의 지주들을 습격하고 농작물과 가옥 등을 파괴하였다. 當局에서는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 중인데 그 背後에는 정치적 煽動이 숨어 잇는 듯하다.

同 12일 마드라스電- 印度 國民黨員은 콘노-트 殿下의 印度 방문을 기회로 英貨排斥熱을 선동하기 위하여 不絶히 元威行列을 하는 중이며 마드라스의 市電從業員은 필경 同盟罷業을 하였다.

그들이 행렬의 선두에는 「콘노-트가 무엇이냐! 우리를 救하기에 힘입을 바가 되지 못한다.」는 旗入발을 내세우고 있다.

同 18일 英國公報- 약 60명으로 편성된 마쉴드族의 一隊는 잔지라(뽀베이 부근)에서 英國哨兵의 保護 下에 작업을 하고 있는 工兵 2개 중대를 奇襲하여 白兵戰을 이루었고 英國側은 死者 7명 부상자 38명을 내었다. <86>

同 22일 لندن公報- 뽀갈州의 무드델불 지방에서는 重大한 폭동이 이어나 시장을 습격하였다. 同 同 아라하바-드에서는 다시 폭동이 이어나 사태는 매우 重大하게 되었고 오-트 洲의 一市 파사밋드는 습격을 바든 家宅이 65戶에 及하였다.

同 25일 런던電- 파사밋드의 폭동은 점점 중대화하여 方今 1만여 군중은 防備警官을 屠戮할 목적으로 대대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정부에서는 同地方에 군대를 輸送 중이다.

同 同 아라하바-드의 反英의 農民一揆은 점점 擴大되어 살가온 지방에서는 군중이 警官 1명을 撲殺하고 부근의 곡물 창고를 燒却하였다. 警官隊는 一揆軍에게 發砲하여 數名을 殺傷하였다.

同 29일 마드라스電- 파사밋드 바레리 아구라 지방의 非協同派들은 소작인 계급을 선동하여 자체의 운동을 강화하려는 중인데 사태는 이미 不穩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同 31일 마드라스電- 라홀지방의 學生盟休는 더욱 蔓延되야 全數 1,900여명 중 登교하는 者는 겨우 30명에 불과하다.

同 2월 2일 마드라스電- 칸디는 콘노-트 殿下에게 「印度의 3억의 無辜한 민중은 10만에 불과한 英國人의 威脅裡에서 살아왔다. 英國의 施政은 印度人을 학대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非協同運動이 余의 手中에 있는 以上 英國의 통치력은 心靈을 去勢한 썩은 고기에 지나지 못하였다」는 書簡을 보내었다.

同 8일 마드라스電- 7일 콘노-트 殿下가 페리市에 도착되자 전 市街는 一齊히 상점을 閉鎖하고 「콘노-트 殿下가 印度에 온 것은 印度人의 悲哀를 가리려 하는 마스크에 지나지 못하다」는 비라를 뿌리었다.

9일 칼캇타電 -東印度 鐵道會社 工場의 동맹파업은 점점 확대되야 참가 인원이 2천명에 달하였다.

同 11일 마드라스電- 라쿠노-에서는 鐵道 機關手が 反英運動의 示威의 의미로 同盟休業을 하고 일제히 列車의 運轉을 중지하였다.

同 22일 마드라스電- 판잡州의 라홀 지방에서는 중대한 종교적 폭동이 이어나 시-크교도 중 다수한 사상자가 생기었다. 英印 軍隊는 현장을 포위하고 진압하는 중인데 다시 부근의 시-크

族은 동족의 학살당한 데 대한 復讐를 계획 중이다.

同 23일 公報에 의하면 라흘지방의 종교적 폭동에서 시-크族은 67명의 殺害를 당하였는데 英印 軍隊는 현장에서 撤歸하였으나 警官의 大部隊는 依然戰鬥을 계속 중이다.

同 24일 마드라스電- 카라치에서 造船職工의 同盟罷業이 일어났는데 反英非協同派에서는 배후에서 그것을<87> 助勢하는 중이며 더욱이 무산계급의 鬭爭團體까지 조직하였다.

同 3월 1일 칼카타電- 印度 勞動組合과 印度 電信組合의 노동자 약 5백 명은 全 조합이 一致하여 파업을 안이함을 보고 단독적으로 28일 오후 5시경에 칼카타 中央停車場을 습격하여 선로를 점령하고 신호기를 파괴하고 교량을 소각하고 電信線과 선로까지 파괴하였다. 이 騷動에 信號手 1명은 撲殺을 당하고 기타 종업원의 부상자가 다수에 달하였다.

同 3월 29일 마드라스電- 中央州道府나 구풀에서는 非協同派의 一揆가 폭력화하여 富豪의 집을 掠奪하며 放火를 함부루 함으로 警官은 多數한 군중을 逮捕하였으나 一般은 그에 屈치 안이하고 대집단을 이루어 棍棒과 돌로 警官과 對戰하여 逮捕된 사람들을 탈환 하였다. 이에 대하여 警관은 발포를 하여 군중을 물리쳤는데 군중 가운데 4명이 死傷하였다.

同 同 라그샤의 중앙 감옥에서는 7백여 명의 囚徒가 脫獄을 하였는데 獄史는 銃砲로 그것을 阻止하였으나 체포된 자는 겨우 110명에 불과하다.

同 4월 28일 마드라스電- 25일에 나카나 지방에는 중대한 一揆가 이러나 26일에는 警部補 1명 巡查 3명이 被殺되고 기타 만흔 관리도 부상하였다.

同 5월 7일 마드라스電- 6일 시카루풀에서는 5천여 명의 反英派印度人이 親英派印度人の 집 회소를 습격하여 6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88>

<84-88>

44.

잡지명: 삼천리 제11호

발행년월일: 1931년 01월 01일

기사제목: 朝鮮 民族的 代表의 選出問題

필자:

기사형태: 설문

朝鮮 民族的 代表의 選出問題 (조선 민족적 대표의 선출문제)

太平洋會議, 萬國基督教大會, 東洋佛教大會, 其他 對內 對外的 各 大會에 朝鮮代表의 選出方法과 權限을 엇더게 決定할가?

「朝鮮民族의 대표」라 하면 對外的의 성질을 띠는 경우와 또한 對內的의 성질을 띠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 줄 안다. 즉 근래에 여러번 잇슨 저 太平洋會議란다든지 弱少民族大會나 佛教大會, 基督教大會, 國際辯護士大會 등 국제적 성질을 띠는 모든 會合에 朝鮮대표라 하여 나아가는 그런 때에는 대외적 대표(5行略-원문) 그런데 대외적 관계일 때에도 그 會合의 성질에 따라서 스사로 두가지 구별이 잇슬 줄 아니 가령 종교의 성질을 띠는 경우와 정치적 경제적 성질을 띠는 경우가 잇슬 터인 바 종교적 대표인 경우에는 그 종파 종파끼리의 發者 言者가 한곳에 모여서 (기독교인 경우에는 監理派나 長老派의 대표가 모여서 결정하는 것) 그를 선출하기에 그다지 手續上 權限上에 難問題가 부틀 것이 업슬 것이며 그네의 손으로 選定된 대표도 또한 조선 내의 一基督教나 一佛教의 부문을 대표하는 것임으로 그 성질과 권한도 局部的으로 스사로 제한이 되어질 것인 줄로 안다.

이 방면 일은 종래 그 편에서 하여 오든 행동을 별로 是非할 거리가 못되나 그러나 일단 前記와 가터 종교에 국한된 회합이 아니고 널리 全 朝鮮사람의 利害 休戚과 面目에 관계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회합에 至하면 그 選出이 크게 어려운 문제가 된다.

생각건대 종래에 이러한 회합에 가는 대표를 보면 대개 스사로 적임이라고 일컫는 분들이 一部薦或 自薦에 갓잡게 出席하였슬<2> 뿐이요 특히 朝鮮사회의 공통된 또는 중요한 發言機關에서 公的으로 選定하여 보낸 적이 별로 업다. 다만 그 결과에 잇서서 自任代表가 외국 각지에 가서 한 그 행동이 비교적 다수의 朝鮮人의 인식에 어울닐 때에는 그를 默認하여 왔고 또 그러치 못하고 우리 전체를 辱되게 할 때에는 「그는 우리의 대표가 아니었다」하고 그의 否認을 中外에 聲明하여온 터이다. 이것이 소극적인 태도이나 우리네와 가튼 非常한 경우에 잇서서는 總意思를 結付 討議할 마당이 업슴으로 부득이한 일이라.

다시 대내적으로 代表云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네의 행위가 우리 대다수의 인식에 合致한다면 그를 묵인하여 왔고 그러치 못한 때에는 否認하는 길을 취하였든 것이다.

이제 아프로도 여러가지 경우에 朝鮮의 전체 혹은 일부를 대표하는 發言者의 選出이 필요할 터인데 나는 아직 그 규정을 지을 만한 腹案의 준비가 업거니와 대체로는 종래와 가튼 소극적 처리에 맞게 더 나아갈 길이 업지 아늘가 한다.

發言權과 表決權 安在鴻

朝鮮民族의 대표라 하면 그는 朝鮮사람의 利害休戚을 가장 정당하게 대표하고 그 감정과 의식을 如實하게 표현할 관계에 잇는 이라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을 정당한 절차(手續)를 밟아서 具現시키자면 一般의 總意를 그대로 반영시킬 일정한 手段을 취하여야 할 것인데 종래의 만흔 경우에는 그것이 그러케 되지 못하였섯고 또 그리될 수도 업섯든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을 모다 善意로 解釋하여서<3> 형식 절차에서 미비하였더라도 一般이 그를 支持 擁護하였섯다면 그러한 절차문제는 차라리 第二義의일 것입니다.

그야말로는 朝鮮대표라고 하여도 편의상의 용어이지 분명히 국한된 一部門을 대표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은 그다지 까다롭게 따질 필요도 업슬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장 基督教青年會系統으로 되는 汎太平洋會議에 출석하는 朝鮮대표 가튼 것은 嚴正한 의미로 朝鮮委員이라고 하여서 朝鮮側 關係方面의 위원이란 의미있게 가지시 못하는 것이니 그는 관계 방면에서 處決할 바이요 汎太平洋佛教大會가튼 경우에는 더욱 명백하게 佛教라고 제한하니 만큼 佛教측

에서 대표가 감으로 족할 것입니다. 世界基督教大會도 똑가튼 것이지요.

그 밋게 弱少民族大會 혹은 이에 準할 국제적 회합은 이와는 펍 다를 것입니다. 평소에 잇서 온갖 의미로 朝鮮人의 總意를 정말 진정하게 대표할 單一的인 단체가 잇서서 그 단체의 選出과 任命 등이 그대로 朝鮮의 정당한 대표로 될 수 잇다 하면 그는 돌이어 간단하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실체에 잇서 그러치 못하다면 그는 全朝鮮 各層의 각 부문을 대표하는 民衆의 支持를 밋는 온갖 機關을 대표할 만한 여러 인물들이 모여서 뽑거나 그러치 아르면 그 의미라도 모아서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형식을 지내서 選出한다면 그는 嚴正한 의미로서의 대표로서 비로소 정당한 발언권과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잇고 딸아서 그 위임한 趣意를 위배하지 안는 限에 그 발언과 표결은 우리 일반을 구속하고 책임지게 하는 효력이 잇을 것입니다.

財政은 各團體負擔 崔麟

세계 대세의 추이와 朝鮮문화의 발전에 딸아서 아프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를 밋게 될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외다. 그래서 과거에도 업섯든 일은 아니지만 아프로 우리들의 국제적 交際는 더 복잡하고 또 마니질 터인데 그럴 때마다 朝鮮사람을 대표하여 혹은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발언할 사람을 누구로 정할가 하는 문제는 실로 긴급하고도 중대한 것인 줄 압니다.

爲先 明夏 北平에서 開催되는 저 太平洋會議에는 누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가리어 어떠한 보낼가 人選과 경제문제가 여기에 붓홀 터인데 내 생각에는 우리들 사회에서 認定하는 여러 중요한 사회단체와 신문사 등 언론기관과 관계 종교단체 등의 대표자 모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물을 選定하고 그리고 또 비용을 각 단체에서 應分據金하도록 함이 조홀 것 갖치 생각됩니다. 파견비용이야 반듯이 均擔이 아니어도 조켓지요. 재정적 여유가 좀 마흔 단체에서는 더 만히 내고 적으면 적은 대로 내도록 함이 올홀 줄 압니다.

團體에서 人選 鄭雲永

太平洋會議라든지 萬國基督教大會라든지 무슨 佛教大會가튼 소위 국제적 성질을 띠었다는 종래의 온갖 회의를 불지라도<4> 회합을 發起하는 동기가 그러케 신통할 것이 업섯든 까닭으로 그 席上에서 결말을 지었다는 것도 吾人에게 그리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업섯다. 그럼으로 이미 표면화한 그런 종류의 대외적 회의에 우리로써 무슨 큰 기대를 가지고 가고 시프라마는 그러나 아프로 그러한 성질의 회의만 잇스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니까 우리네 대표선출에 대한 의견을 暫間말하여 보려 한다.

今後부터는 특수한 회합 즉 基督教 佛教가튼 회합을 除한 일반적 대외의 회의에 朝鮮사람의 대표를 뽑아 보내자면

현재 우리 사회 안에 잇는 각 부문의 대표 단체에서 유력한 분들이 모혀 적당한 사람을 선정케 하여 보내는 것이 타당할 줄 안다.

그리고 보낸 뒤에도 엄중한 감시를 하여야 할 것은 물론일 것이다.

國際會議와 朝鮮 李晶燮

과학이 국제간 距離를 短縮하여 국제 회합이 거이 끈임없이 거듭함을 말하 근래의 朝鮮도 이러한 회합에 각급 그 대표를 파견하게 된다. 太平洋會議과 弱少民族大會라 하는데 朝鮮인 대표가 참석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 大體에 있어서 一民族의 대표라 하면 회합하야 토의하며 결정하려는 문제에 있어서 그 민족의 權威者요 選良이라 看做할 수 있음으로 대표의 一舉一動은 곧 민족 전체의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누가 대표를 選定할 것이냐 엇더한 방법으로 選定하여야 그것이 『오덴틱』한 朝鮮人의 대표될 수 잇슬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대표를 選定할 資格者와 방법을 缺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朝鮮人 대표가 국제 회합에 파견될 때마다 사회의 일부에서 是是非非의 議論이 舊舊하게 내려났었다. 아니 其實은 국제 회합에 참석하는 대표 뿐 아니라 단순히 海外同胞慰問次로 內地同胞를 대표하야 가는 그 사람에게까지 朝鮮대표로의 『오덴틱시티』를 물게 된다. 시비를 니르키는 그 사람들을 글르다고 말한다면 그는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다. 국제 회합에서 토의 결정할 사항이 朝鮮人에게 얼마나한 중요성을 가지고 잇느냐 하는 것을 물을 필요가 엷는 것이다. 적어도 朝鮮人을 대표하야 타민족과 접촉하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이유로는 朝鮮人된 者는 누구나 關心하여야 할 일이요. 말하서 대표에 대하여 시비론을 니르키는 사람들을 글르다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돌리어 글으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 할 것이다.

원래부터 국가의 대표 선정이 안인 사회적 의미의 민족 대표를 選定한다는 것은 至難의 일에서 어느 민족이나 이에는 多少의 곤란을 늦길 줄 밋는 바 특히 朝鮮과 가튼 데서는 대표 선정에 대한 名案이 엷다고 단언하여도 그닥지 속단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웨 그러냐하면 현재의 朝鮮에는 朝鮮人의 중심 세력이라고 자타가 공인할 만한 組織體가 엷는 까닭이다. 以下 그 이유를 略述하여 보려 한다.

一民族의 대표로의 『오덴틱시티』를 가지려면 그 민족전체의 意思反映이라는 것을 原理原則으로 함은 贅語를 不要이다. 그러나 그러타하야 太平洋會議나 弱少民族大會가튼데 대표를 파견하기 위하여 마티 大統領이나 選舉하드키 전민족이 떠들석한다는 것은 차라리 滑稽에 속한 일인 餘에 事實論으로 보아 全然 不可能인 것이다. 여기서 대표 선정의 衝에 當할 者는 할 수 엷시 既成團體에 限하게 될 것이다. 그런즉 만일에 朝鮮에 엇더한 중심 세력 단체가 있어서 朝鮮人의 多大數가 그 단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며 권리를 행사한다든가 적어도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웃독히 소사난 엇더한 유력한 단체가 있어서 그의 號令이 全朝鮮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러한 단체가 指定하는 사람으로써 朝鮮의 대표라 容認하기에 躊躇하지 안이할 것이다. 웨 그러냐하면 이러한 문제에 限하야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안할 수 엷는 까닭이다. 현재의 정치를 형식적으로 보면 多數專制가 안이면 最強者의 獨裁이다. 多數專制는 頭數政治요 最強者 獨裁는 力量政治이다. 頭數거나 力量이거나 그 무엇으로든지 一民族를 지배할 수 잇는 지위에 선 단체라면 그 단체의 <5> 의사로써 그 민족의 의사라 봄을 정치는 許한다.

然而 現下의 朝鮮에는 이상에 말한 두 가지 의미의 단체 가운데 그 하나도 존재함을 발견할 수 엷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국제 회합의 대표라 혹은 海外同胞慰問兼調查次로 가는 대표라 하야 一團體에서 選定한 이른바 『朝鮮의』대표에 대하여 他團體가 異議를 提唱하며 또는 提唱하는데 대하여 이러타 할 만한 辯明도 능히 못할 것이다. 웨 그러냐하면 朝鮮의 대표라고 命名할 권리 가진 者 혹은 실력 가진 者 그 누구냐? 무슨 엉터리로 『朝鮮의』라는 形容詞로 대표라는 名詞를 賦性할 수 잇슬 것인가? 하는 의문이 이러나는 까닭이다. 抽象論을

바리고 具體的으로 말하여 보자.

만일에 民族單一黨을 理想으로 하는 新幹會가 朝鮮의 가장 유력한 단체로서 同會의 選定에 의한 대표에게만 『朝鮮의』라는 形容詞로 賦性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과연 天道敎 耶蘇敎 佛敎 등 종교단체로부터 그 외의 사회단체 혹은 실업단체가 속히 수긍할 것이며 이와 반대로 某종교단체에서 우리가 가장 유력한 대표적 단체라 할 때 다른 정치운동 단체나 사회운동 단체가 곧 그를 容認할 것이냐 하면 그러차 안타고 할 바게 업는 것이다. 理論보다도 證據가 제일이다. 과거에 잇서서 이러한 諸團體間에 『朝鮮의』대표 선정에 際하여 오락가락 말성이 잇지 안이 하였는가?

그럼으로 朝鮮人의 다대수가 적극적으로 支持하는 단체 또는 적어도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유력하게 웃뚝히 소사난 단체가 기성단체 가운데서 생기던지 혹은 새로히 出現하기까지는 국제 회합의 朝鮮人 代表 選定은 항상 말성거리가 되지 안홀 수 업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단체가 존재하지 안이한 이 때에 잇서서 취할 방침이 잇다면 不完全하나마,

1. 朝鮮人의 意思가 비교적 公평하게 表現되었다고 볼 수 잇는 언론기관에서 그 대표를 選定하는 것이 그 한가지일 것이다. 朝鮮의 언론기관은 타민족의 그보다도 特殊 地位를 가졌을 뿐만 안이라 朝鮮의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등 實情에 관해서도 비교적 세밀한 조사를 하기에 노력하는 처지에 잇슴으로 이 點으로 본다하여도 朝鮮의 대표로서 그닥지 만흔 遜色은 업슬 줄로 생각하나 다만 보는 사람에 의하여는 각 언론기관마다 정치적 색채의 『렛테르』를 부치려는 傾向이 잇다는 것과 둘째로는 언론기관의 영업정책상 만흔 旅費를 써 가면서 까지 특별한 意義업는 국제회의에 대표를 倂견할 것인가 하는 것과 셋째로 그러한 旅費를 支出할 능력 잇는 언론기관이 과연 몇치나 될가 하는 諸難問題로 해서 이 방면에 만흔 기대를 가질 수는 업지 안홀가 한다.

2. 자기가 選定하려는 대표에게 대하여 일체의 비용을 支出할 수 잇는 기성단체의 詮衡에 의하여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다른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첫째로 無產者團體는 자기가 선정하는 대표의 비용을 支持할 능력을 缺하여 그 때문에 人數는 상당히 만흔에도 불구하고 그내들의 意思가 『朝鮮의』대표 형식으로 국제 회합에 반영시킬 수 업슬 경우와 둘째로 대표 선정에 관한 단체간의 詮衡이란 항상 원만할 수 업다는 등 無理와 不便利가 잇는 것이다.

이와가티 以上 말한 두 가지 방법에 利害得失이 相伴하기는 하나 당분간은 그래도 이 두 가지 가운데 其一을 취하게 됨이 자연의 勢안일가 생각한다.

協議機會가 必要 宋鎮禹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아직 기쁜 생각을 하여 본 적은 업습니다마는 종래에 朝鮮사람의 대표라 하여 외국서 열리는 각 방면의 회합에 倂견 참석하는 그 인물은 간혹 部分人士가<6> 모여 選出한 것이 아니면 흔히 自選代表가 마넛지요.

이러한 까닭에 그분이 바게 나아가 面目問題를 이르키는 일도 間間 잇섯든 듯이 記憶됩니다. 그러나 언제 까지든지 이 상태로 버리어 둘 수는 업겟지요. 그 회의가 우리들 多大數에 다소라도 관계를 가졌다 할진대 가장 중요한 대표선출을 無關焉한 태도로 바라볼 수 업슬 줄 압

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표를 결정할가? 우리에게 무슨 대중적 선거의 길이 있다면 두말없이 그에 쫓쳐야 할 것이나 여러가지 客觀事情이 그러치도 못한즉 부득이 사회 각 부문의 意思를 종합하여 존재하였다고 볼 각 단체와 각 언론기관에서 爛商熟議하여 결정하여 내는 것이 조할 줄 압니다.

이만한 程度로라도 選出의 規程을 잡어 노아야 그 대표 자체에게 권위도 있고 또한 社會 民衆도 안심할 것이 아니오리까.<7>

<2-7>

45.

잡지명: 동광 제17호

발행년월일: 1931년 01월 01일

기사제목: 新興民族歷訪記(其一), 國運隆盛의 波斯國-政治와 産業이 同時에 進展

필자: 白民 백민

기사형태: 논설

新興民族歷訪記(其一), 國運隆盛의 波斯國-政治와 産業이 同時에 進展 (신흥민족력방기(기일), 국운륭성의 파사국-정치와 산업이 동시에 진전)

白民

인구 약 1천만명, 朝鮮의 반밖에 못되는 동양고국의 하나인 波斯가 남북으로 침입하는 외국의 세력을 제어하고 완전한 자주독립의 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은 동양의 신흥기운을 위하여 기뻐할 일이다.

1927년에는 치외법권을 全廢하며 관세자주권을 회복하며 국제연맹에서는 이사국으로 당선된 이 波斯는 과연 어떠한 나라인가.

波斯는 이란고원에 위치하여 동서에는 「메소포타미아」와 亞富汗國이 있고 남북에는 인도양과 「가스비아」內地海가 있다. 면적 약 63만方 英里의 老帝國으로 최근 200년간 土耳其族인 「가자르」왕조 치하에 잇섯는데 惡政의 결과 국력이 점차로 쇠퇴하여 국내 각 민족은 점차 반란을 일으키고 민심은 離叛하게 되는 동시에 남북으로 英露의 제국주의가 침범하여 내외 정사의 亂脈이 恰似히 甲午 이후의 朝鮮과 같았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국내의 군대는 露國士官과 瑞典憲兵의 지휘하에 조직되어 겨우 황궁의 문이나 지키는 형편이요, 각국 영사관은 自家에 手兵을 養하여 호위하는 형편이었다. 국가재정은 극도로 문란하여 관리의 봉급도 밀리는 형편임에 불구하고 국왕은 관세를 저당하여 英露에서 大金을 차용하여 歐米 유람비에 허비하는 형편이었다.

日露戰爭이 발발되어 「포츠머드」조약이 체결되고 露國內에 혁명이 일어나 회의가 설치되매 波斯 국민간에도 沛然한 혁신운동이 이러나매 1906년 10월에 의회가 소집되어 신 기운이 움즈기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호시탐탐하는 英露 양국의 침략주의는 때를 보아 毒爪를 버리게 되니 1907년

英露협정은 波斯를 양분하여 양국의 세력범위로 하고 더구나 국왕은 外人과 통하여 신흥기운을 막으려고 1909년에 「쿠데타」를 행하여 의회를 해산하라다가 실패하여 露國으로 망명했다. 그 후로 국내는 신구충돌의 비극이 끊일 새가 없고 1911년에는 망명했던 왕이 復辟運動까지 했으나 실패하였다.

이리하여 外로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內로는 신구충돌의 혼란기를 당하여 자칫하면 국가를 擧하여 外人의 魚肉을 만들 형세에 잇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세계대전이 발발되자 중립을 선언한<21>것도 弱國의 비애로 無効에 도라가고 土耳其, 獨逸, 奧太利 등 동맹측과 英露 등 연합측의 대항전이 開始되어 舉國이 전쟁의 慘禍를 입을 뿐 아니라 결국 전후에는 英國의 보호국 되는 조약을 調印아니 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世人은 波斯가 제2의 印度가 될 것을 이미 결정된 결론으로 생각하였더니 수십년간 양성한 민족적 실력이 헛됨에 도라가지 안아「리자 한」이라는 영웅이 한번 나매 북으로 新進하는 「쓰베트 聯邦」의 신 국제정책, 신 민족정책을 이용하여 국권회복의 猛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다.

1921년 「리자 한」은 일방 赤露國과 평등조약을 체결하고 英軍을 국경 外로 격퇴하며 회의로 하여금 보호조약을 부결케 하고 米人 「밀스포」를 재정고문으로 초빙하여 銳意 稅制의 정리와 재정기초의 확립을 圖하며 교통을 改新하며 사법을 개혁하고 교육과 산업을 장려하므로 신흥국가의 면목은 一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리자 한」은 1925년 波斯왕위에 오르고 1927년에는 치외법권철폐, 관세자유회복을 완전히 획득하여 「게말 파샤」下의 土耳其와 双立하여 遠東의 신흥국이 되었다. 波斯國 서울 「테헤란」에는 각국이 경쟁하여 공사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新興氣分이 橫溢한 波斯가 경제적으로 전도양양한 것은 그 農礦, 교통, 공업 등을 통하여 명료하다.

비록 사막의 땅이 많다하되 解雪을 관개하여 경지를 발전한 결과로 면화, 果物, 아편의 재배가 발달되어 輸出하는 형편이요, 麥과 米도 自作自給의 정도는 된다. 露西亞의 자본을 흡입하여 면화재배를 확장하는 중이다.

교통으로 보면 15세기 이전에 동서교도의 중심지든 것이 해로의 발견으로 쇠퇴했으나 近年에 와서는 英國의 횡단철도계획과 露國의 종단, 獨逸의 斜斷線路계획의 중심지가 되었으니 비록 삼자는 未成功에 끝짓지마는 目下 波斯 자신의 손으로 철로敷設에 전력하니 露國의 중앙아세아철도와 連絡하여 교통이 발달될 것은 無疑하다. 또 歐洲과 인도를 연락하는 공중항로에는 中央大道가 될 것이 無疑하니 波斯의 전도는 더욱 유망한 것이다.

광산으로는 석유산액이 년 500만噸에 달하여 전세계 산유국의 제4위를 占하나 장래는 露墨을 능가하고 米國에 버금하여 제2위를 차지하리라 한다. 현재 英米露 등에 유전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波斯人 자신의 손으로 유전을 개척할 것이다.

국내공업으로 「카페트」 직조는 古來로 유명하며 최근은 양잠을 크게 장려하는 중이다.

세계대세의 波濤中에서 일직이 분할의 운명을 아실아실한 점에서 免하고 기운을 타서 독립자주의 신국가를 형성한 그들은 행운도 행운이려니와 또한 國人的 각성과 노력에 의함일 것이다.<22>

<21-22>

46.

잡지명: 별건곤 제37호

발행년월일: 1931년 02월 01일

기사제목: 最近 獨立說을 傳하는 比律賓의 民族運動

필자: 李如星 이어성

기사형태: 논설

最近 獨立說을 傳하는 比律賓의 民族運動 (최근 독립설을 전하는 비룰빈의 민족운동)

李如星

舉國一致한 分離決議

比律賓은 3백년간 西國統治下에서 잇섯든 관계로 주민의 十分之九는 기독교신자가 되고 그 외 약1할은 回敎信者인 바 이 주민의 9할을 占하는 기독교신자는 일즉부터 文化가 열니고 정치적으로 또한 覺醒되어 比島運動을 전개하여 왔스나 少數의 回敎信者는 국내 기독교 比人의 우월감가지는 것을 증오하는 반면 그들의 주장하는 比島獨立運動까지를 반대하게 되었스니 이는 국내 이교도에게 彼等이 통치바들 것을 더욱 恥辱스럽게 아는 것이었스며 彼等の 정치적 지각이 甚히 低劣한 까닭이였다.

미국은 『막칸레』대통령의 선언과 『존스』법령으로 일즉 比島통치의 근본의를 선명한 바 잇섯스나 比島가 米國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경우에는 『모로』人의 國內叛亂이 可 일어날 것이 라하여 比島治安問題가 重大하다는 것을 말하며 또 『모로』人의 불안으로 比律賓 정부가 받는 재정적 곤란은 거대할 것이라 하여 恒常 『모로』人關係를 중대시하였다. 그럼으로 比島運動의 急進分子는 『모로』人문제를 큰 두통꺼리로 아는 동시에 『모로』인에 대하여는 항상 그 무지를 痛罵하여왔다.

그러나 작년 1930년 新春 倫敦에서 五國海軍軍縮會議가 열니여 세계의 視聽을 집중하고 잇슬 때 比島人은 3월 26일 수도 『마닐라』에서 比島獨立會議를 열고 比律賓獨立與否를 일לט 국민대표의 採決에 附하게 되었든 바 종래를 독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오든 『모로』人까지 전부 贊意를 表하였슴으로 比島運動에는 일반의 <7> 광명을 가지게 되고 대외적 관계에 잇서서도 힘잇는 追窮을 할 수 잇게 되었다.

當時 『모로』人을 대표한 40명 대표는 그들이 비록 少數대표자라 할지라도 比島운동의 宿痾를 一日에 털어버리고 청년 比島의 元氣를 북돋우어 준 점으로 보아서는 위대한 힘을 보였다. 그때 의결된 比島獨立案은 全文 14개조에 노니여 잇는바 그 주용한 것을 들면,

一. 比島의 독립은 『존스』법령의 적용일 것.

二. 比律賓人은 일즉 共和政治의 독립국이든 바 전쟁의 결과 외국에 합병된 것임으로 다시 이전의 독립을 回復하려는 것.

三. 比律賓人은 今日若干의 독립국 국민보다도 정치경제상 一層완전한 조건을 가진 것.

四. 독립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독립 자신에 잇는 것 등이다.

米國의 反對理由

比島問題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정당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다르다. 미국의 민주당은 대체 南方本位の 정당으로서 南米國의 砂糖產地 『루이자나』 煙草產地 『켄타키』 등지의 생산자가 比

島로부터 廉價한 移入品이 들어와 自家生産品에 타격 줄 것을 제어하여 하로하도 速히 比島를 독립케 하라는 노력은 직접 同黨政策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원래 민주당은 진보적인 同生과 가터스며 공화당은 뻣뻣한 伯兄과 가터서 比島독립문제에 관하여도 민주당이 늘 진보적이었나니. 예하면 민주당 대통령 『윌슨』시대에는 比島독립승인이 거의 결정적으로 되었던 것이로되 공화당 대통령 『하-딩』이 들어선 뒤로부터는 滌然히 冷淡하여진 것 가튼 것이니 比島人이 민주당을 擁護하고 공화당을 排擊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미국은 과연 엇더한 이유로서 比島의 독립을 猶豫未決하고 잇는가. 나는 다음으로부터 大概一般이 인식하고 잇는 바이지만은 좀 그것을 정리하여 나열해보고저 한다.

一. 比島는 『카피』로서 『쁘라질』과 경쟁하고 護護로서 영국을 牽制하기 위하여 미국에 업지 못할 屬領인 동시에 砂糖 麻 『코코·넛츠』油 등은 미국 내지에서 다량으로 수입하는 중요생산물인바 만일 比島가 독립된다면 미국국민은 국내생산자의 독점적 폭리징수에 堪耐하지 안으면 안될 경우에 이를 것이다. 比島는 미국의 제16위에 해당하는 수출국으로서 미국 수출의 1분4리를 사주는 곳이고 또 제12위에 해당하는 수입국으로서 미국 수입의 2분 8리를 공급하는 곳에 지나지 못하나 比島의 독립은 미국무역총액에 감소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미국 산업계 일부의 중대한 타격이며 또 그로 말미암아 증가되고 잇는 실업자는 더욱 激増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比島에 이미 투자된 1억 5천만불의 자본은 종래 미국권력의 보호하에서 그 거액의 이윤을 얻게 된 것이매 比律賓이 독립이 된다면 비록 양국간에 或種의 계약이 성립된다할지라도 昔日의<8> 번영을 그대로 연장할 수는 업을 것이다.

二. 미국이 태평양상의 霸權을 日·英 其他 諸國과 경쟁하기 위하여는 布哇島 『구암』島 比律賓諸島의 領有가 절대로 필요하다. 미국이 比島를 점령할 때는 비록 大戰後 國際聯盟에서 창안한 위임통치와 가튼 의도이었다할지라도 그 정치적 또는 그 군사적 의욕은 반듯이 布哇 『구암』과 가티 比島의 영유를 요구한다.

三. 미국은 比島독립 후 정치적 자립은 可하다할지라도 재정적 군사적 자립은 매우 곤란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1927년 比島수출입 상황을 보면, 수입총액 124,943,942弗 중 77,324,193弗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오 수출총액 150,000,909弗 중 110,932,75弗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서 比島외국무역에 거의 7할 이상이 미국과의 무역임으로 第一比島가 독립할 경우에는 比島産品の 최대한 시장인 미국을 일케되는 관계상 比島産業은 甚한 窮地에 빠져 일반 재정의 一大 恐慌을 일으킬 일이다. 따라서 軍備의 충실을 바라기 어렵다.

四. 比島의 독립은 일본의 남진을 誘導하고 영국의 동방세력을 더욱 興起시켜 태평양 資本戰을 一層 激化케 하는 동시에 미국의 對東方貿易에는 甚大한 不利를 초래케 할 것이다.

五. 比島內에서도 南北比人이 종교를 달리하고 언어 풍속 혈통이 또한 다르며 정치적 감정이 통일되지 안었습므로 독립 후는 益益內騷가 喚起되어 치안을 유지키 곤란할 것이다.

等이유로 반대 혹은 尙무를 말하는 것인 바 그 가운데는 무리한 臆測도 만흐나 第一第二의 경제적 이유 가튼 것은 미국 자체로 보아 반듯이 比島독립은 躊躇치 안을 수 업는 중대한 조건이였다.

比人運動의 將來

그러면 미국은 어느 때까지든지 比島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잇을 것인가.

比律賓문제는 영국의 埃及관계와 가티 미국의 자발적 태도에 따라 해결될 문제가 안이오 比人自體의 운동이 究竟解決을 促進할 것이다. 米西役 以後로 比島人은 국내에서나 米 本國에서나 미국의 僞善을 폭로하고 미국인의 杞憂를 設伏하여 일반 미국인의 輿論을 일으키는 동

시에 여러번 이 문제를 국회에 제출케 하였다. 比島議會에서는 늘 그 大議員을 華盛頓에 駐在케하여 독립운동을 촉진시키고 있는 中 比島上院議長 『켄슨』氏까지 병을 무릅쓰고 出馬 하엿스며 작년 11월경 『마닐라』통신에 의하면 米西 米比 兩戰役의 老將 『에리오·아기날도』氏까지 당시 (米西戰爭) 참전한 2만3천인 同志의 일치한 의견과 『켄슨』씨 등의<9> 慫慂으로서 今年 1월경 미국으로 건너가 比島독립 촉진운동에 착수하리라하는 바이니 米比의 『圓卓會議』개최도 점차 機運이 濃熱하고 있다.

미국의원 중에서 比島독립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되였다. 例하면 元老院議員 『킹』氏는 比律賓의 卽刻 독립을 단연 제창하며 元老院議員 『반덴벨록』氏는 10년 내에 독립안을 案出하여야 할 것을 論하고 同院議員 『뽕감』氏도 『마닐라』의 圓卓會議개최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代議院議員 『넬슨』氏는 미국과 比律賓에 대한 全 문제를 건의하기 위하여야 할 것을 제의한 바 잇섯스니 비록 比島문제가 즉각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 할지라도 不遠한 장래에 엿더한 조건부로서든지 比島에 날리는 星條旗는 그림자를 감출 것 잏다. 미국인은 일즉 자유를 부르지저 영국으로부터 해방된 역사를 가진 者임으로 『하와이』 『구암』 比律賓의 제국주의적 영유 『큐바』 『파나마』 『니카라가』 등의 제국주의적 간섭이스사로 그 역사의 모순인 것을 깨닫지안을 수 업섯나니 『에취·케·놀튼』氏의 논문 『米帝國이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中에 『吾人は 제국은 가지지 안엇스나 제국적 문제를 가지고 잇는 것은 확실하다』하는 것을 보아도 그 일면을 窺探할 수 있다. 米本國人は 比律賓人에게 미국 역사를 가르키고 『와싱턴』의 위대한 자유의사를 嘆美케 하여 노흔 뒤 그 『非帝國的 帝國主義』의 모순을 掩蔽하기는 극히 곤란할 일이 안이면 안이였다. 만일 미국으로서 그 자체의 重性的 모순을 掩蔽치 못할 경지에 이르렀다면 一, 強壓 一, 獨立承認—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것이든지 잡어들지 안을 수 업슬 것이매 각가운 장래의 美比의 관계는 더욱 흥미잇는 문제이면 그 문제가 落着됨에 따라 세계식민정책상 중대한 영향이 波及될 것이다.

年來 美本上에서는 종래 이민법 權外에 잇든 比律賓人 입국문제에 대하여 幕然 중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比律賓人は 1882년후의 中國人, 1924년후의 日本人과 가티 그 移來 制限을 법률상으로 제한 바들 機運을 逢着케 되엿스니 그 이유는 年來 非常한 속도로서 在米比人이 늘어가는 까닭이다. 布哇만 볼치라도 1910년에는 2361인에 불과하엿스되 1925년에 49335인으로 격증되엿는바 그 가운데 팔천인 즉 일할 육분 가량은 미국인 同様の 시민 소유자임으로 더욱 중대시되고 米本土에 在住하는 者는 10만인 잏가히되는 터임으로 比人排斥은 處處에서 일어나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比島人は 미국의 偏頗한 勞働保護主義를 排斥하고 人種的 민족적 차별주의를 痛罵하야 外國人으로서 排斥당한 中國人 日本人보다 더욱 侮辱的인 排斥인 것을 지적하고 미국인의 僞善主義를 폭로하엿다.

작년 3월 5일 『마닐라』고등학교생 1만명의 대규모적 盟罷運動은 一個 米人敎員의 侮辱的言辭로서 導火線된 것이로되 그 裸面에는 在米比人의 排斥이 한가닥 이유될 것도 推定된다. 만일 미국으로서 此際에 결정적 태도를 보히지 안흐면 比人운동의 방향이 어느 곳으로 쏠닌는지 누가 豫斷할 수 잇슬 것인가. 미국의 정치가는 比島에 고도의 자유주의를 베풀어 比人運動을 只今까지 穩健한 議會運動으로만 끄을고 올 수 잇섯든 것이나 比人의 民權思想과 민족적자각이 고도로 發揚된 今日에 잇서 그 엿더한 順應的 태도를 取할 것인가. 比島문제는 가장 切迫한 식민지 문제에 하나이라 할 것이다.

최근 通信에 依하면 기독교의 一別派인 呂宋島 『코로람』종파는 今年 1월 11일 돌연 反米主義의 叛亂을 일으켜 『타유그』지방의 주둔하는 미국 병영을 점령하고 將校 등의 邸宅을 襲擊하며 그 附近의 다수한 건물을 燒却하는 등 一時는 形勢險惡하엿슴을 傳한다. 그러나 米國

軍警의 출동으로 同日 夕刻에 다수한 사상자를 내고 『목산니콜라스·아싱간』방면으로 遁走하고 말었다한다. 今番 이 『코로람』團의 반란은 농지문제에 대한 불평과 정부의 학대가 그 動因인 바 평화한 比島에도 정치적 불평이 타오르면 鮮血이 그 지표를 물드리게 된다. 『모로스』인의 반란보다는 전연 목표가 다른 곳인 만크 미국정부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回避치 못할 것이다. 최근에 미국공화당은 5개년 試驗附 比律賓독립안이라는 것을 회회에 제출하였는데 上院議員 『리드』는 同案이 통과될 것을 예언하였다고 한다. 민주당의 機先을 制하기 위하여 漸次濃熟되어온 比律賓문제를 我黨案으로서 해결코저한 것인바 이것이今回에 통과되지 안는다하여도 각가운 장래에는 무던히 分명한 統治法輪廓이 설정될 것 가티 관측된다.<11>

<7-11>

47.

잡지명: 동광 제18호

발행년월일: 1931년 02월 01일

기사제목: 체크民族의 國父 토마쓰 마사릭 博士

필자: 哲學博士 白樂濬 철학박사 백악준

기사형태: 소식

체크民族의 國父 토마쓰 마사릭 博士 (체크민족의 國부 토마쓰 마사릭 박사)

哲學博士 白樂濬

緒言

疆域이 넓은 것으로 나라의 大小를 정하거나 兵力의 虛實로 民族의 強弱을 斷하거나 金錢의 다소로 一人의 成敗를 判하려는 標準上으로 본다면 면적이 5,500方里에 불과하고 병력이 15萬에 넘지 못하는 체크슬로박기아 大統領 마사릭을 위대한 人物이라 일컫지 아니 할 것이다. 그러나 300년 동안 民族의 生活을 繼續지 못하고 (中略-원문) 國家를 組織하였다면 그 民族의 所有한 疆土야 얼마나 되든지 그 兵力이야 얼마든지 적은 民族이라 말할 수 없으려니와 (中略-원문) 이러한 意味下에서 우리는 「체크슬로박기아」 現任 大統領 「토마스 깨릭 마사릭」의 일생을 알아보려 한다.

마사릭의 準備時代

마사릭은 1850년 3월 7일에 모레비아의 邊境 호돈닌에서 낳으니 그의 아버지는 슬로박기아 出生이요 그 母親은 獨逸에 半化한 체크族이다. 그 아버지는 모레비아에 잇는 奧國 皇室 遊苑의 苑直이었다. 토마쓰는 어렸을 때에 체크語와 獨逸語를 겸하여 배웠고 처음에는 체크人의 學校에서 修學하다가 敎員 生活을 목적하고 독일식의 6년제 中等學校에 입학하여 2년을 畢하고 現實의 압박에 쫓기여 비에나로 가서 한 鎖匠의 徒弟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冶匠의 職業을 배우게 되었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전 中等學校에 잇을때 가르치든 先生 하나가 그 父母를 勸誘하여 토마쓰는 1865년에 다시 毘나시움에 입학케 되었다. 이번 다시 입학하는 목적

도 전과 같이 敎員生活의 준비였다. 김나시움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苦學으로 겨우 학업을 계속하였으나 마사릭은 天主教敎義에 厭症이 생기게 되었다. 天主教의 懺悔禮를 反抗한 까닭으로 김나시움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비엔나로 가서 中等學校와 大學을 優秀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사람이 누구나 어려서 받은 인상이 장성한 다음에도 남아 있어 生의 哲學을 形成함에 影響을 주는 實例가 없지 아니하다. 마사릭이 어렸을 때에 매년 奧國皇帝 이하 政府大官들이 <18> 자기 아버지가 守直하든 遊苑에 산양 올때마다 값이 많은 외투를 벗어 자기 집에 두고 산양을 나가면 洞里 사람들은 顯貴한 大官들의 값비싼 외투를 구경하려고 마사릭의 집에 와서 그 燦爛한 衣服을 흘롱히도 여기고 부러워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마사릭은 장성한 후에 말하기를 자기는 그런 것들을 눈들어 보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무슨 까닭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입은 華麗한 服裝에는 도리어 어떠한 矛盾이 있다고 보았다. 그 可憎스럽고 밋든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였다. 마사릭이 어렸을 때에 이처럼 받은 인상이 후일 그 활동을 시작하고 계속함에 어떠한 影響을 주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줄 안다. 마사릭이 비엔나에서 鎖匠의 徒弟가 될 때는 芳年이 15세 되든 해였다. 이러한 少年時代에 있어 호기심과 冒險心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이 때에 마사릭의 胸中에 무슨 생각과 夢想이 있었든지 모르지만 鎖匠의 業을 배우게 된 것은 마사릭이 장성하여 한 말을 들어보면 순전히 大都市에 放浪하는 鄉村少年의 經濟問題의 肉迫에 쫓겨 된 것만이 아니라 한다. 소년 마사릭에게는 鎖匠이 잠긴 것을 열고 감추인 것을 끌어내는 요술장이처럼 생각되었다. 鎖匠이 鐵과 銅으로 無限한 秘密을 開閉하는 것을 마사릭은 꽤 취미있게 생각하고 이 業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마사릭은 필경 鎖匠의 徒弟로는 성공치 못하였다. 技巧한 意匠으로 鎖筒이나 鑰匙를 제조하게 배워주지는 아니하고 細少한 일부분을 종일 12시로 14시 내지 16시간까지 꼭 같은 한 조각을 가지고 꼭 같은 일을 繼續하게 되니 마사릭은 討厭을 금치 못하여 마침내 退業하고 말았다. 이처럼 마사릭은 15세시에 벌써 現代工場 生活의 内幕을 體驗하여 보게 되었었다.

마사릭이 김나시움에서 공부할 때에 天主教 儀式을 不服함으로 學業을 중지하게까지 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는 儀式化한 基督教과 싸우기를 계속한다. 儀式에 얽매어서 宗教의 眞髓를 잃어버리는 것은 마사릭이 지극히 미워하는 바이다. 마사릭은 장성한 다음에도 이 精神이 일관한 생활을 계속하였으니만큼 天主教會는 마사릭을 거의 仇敵視하게까지 되었었다. 그러나 마사릭은 基督을 排斥한 사람은 아니다. 한번은 마사릭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보다 더 좋고 훌륭하고 거룩한 生을 살은 이가 없다」 하였고 또 한번은 루소의 말과 같이 『만일 소크라테스가 哲學者와 같이 고통을 받고 죽었다 하면 예수는 神과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하얏으며 連하여 예수의 生은 眞理다. 神의 아들은 지극히도 단순하셨다. 진정한 意味下에서 예수는 純潔과 거룩의 啓示다. 예수를 얽매는 儀規가 없었고 그의 一切行動은 그의 內的 生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絶對의 眞과 善과 美의 所有者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마사릭은 어려서부터 純眞한 眞理의 追求者요 力行하는 少年이요 外製과 虛飾을 미워하는 사람이었다.

마사릭의 學者時代

마사릭은 1879년에 29세의 청년으로 비엔나 大學에서 <19> 哲學科 講師가 되었다가 그 이듬해에 라임직 大學으로 옮겨가서 研究를 계속하든 동안에 美國 紐育 찰매니아 보험회사 社長의 따님 샬로트 개릭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이가 장래 靑島로박기야 大統領의 夫人된 사

람이다. 살로트양도 당시 라임직 大學에 留學중이었는데 마사릭이 이 아메리카 여자로 百年佳約을 맺게 된 발단은 빼끝의 「文明」史를 같이 읽은 중에 취미와 意志의 合一을 발견한 것에 있다 한다.

1881년에는 처음으로 社會學에 대한 연구를 發表하게 되었으니 『近代文明의 現象으로 본自殺』이 그 책이다. 1882년에는 프락, 모레비안 大學의 教授가 되었고 1883년에는 「아테나움」이란 評論雜誌를 創刊하였고 1885년에 「構體的論理」라는 鴻篇을 발표하여 마사릭의 이름이 學界에 점점 높아가게 되었다.

마사릭의 이름과 事業이 비록 學者들 사이에는 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대중의 推尊은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囊中에 들어 있는 송곳(錐)이 나올 때가 있는 것과 같이 1886년은 마사릭이 學者로, 또한 진정한 愛國者로 그 이름을 전국에 들리게 되었다. 당시에 마사릭이 全國的 騷動을 이끈 것은 케닉긴호쁘 寫本問題다. 소위 케닉긴호쁘 寫本은 19世紀 初葉에 체크人 2人이 뽀히미야에도 中世紀에 있어 高等한 文藝의 發展이 있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위조한 케닉긴호쁘와 끄루언벅 兩大寫本에 대한 문제다.

체크民族은 國家의 獨立을 상실하고 奧國의 羈絆아래에서 民族조차 멸종되어 가는 奴隸生活에 鬱憤과 悲哀와 苦痛이야 하늘에 사모칠 듯 하였었다. 현실의 苦哀에서 일시적이거나 과거의 榮輝를 돌아보고 그 民族의 歷史가 赫赫하였음을 기억함으로 如干한 위안이라도 얻고자 하는 생각에서 체크의 文人詩客은 민족의 과거를 빛내려고 이러한 大僞造를 시험하였던 것이다.

이 寫本에 대하여 슬라부 言語學者 중에 疑訝를 두었든 사람도 있었지만은 1886년에 마사릭이 체크의 言語學者 게바워와 같이 語學的 또한 社會學的 立場에서 그 寫本들이 僞造임을 마사릭의 아테나움 誌上에 발표케 되었다. 이 발표야말로 체크民族의 國寶에 대한 *瀆이다. 체크 民族 전체는 마사릭의 행위를 분노히 여겨 마사릭을 國賊이요 獨逸의 悵鬼라고까지 공격하였다. 그러나 진리를 손에 쥐인 마사릭은 조금도 挫縮치 아니 하였을 뿐더러 도리어 詐欺的手段으로 自欺, 欺入하여 국민의 위대를 謊言으로 虛張하려는 자들을 積極的으로 공격하며 『眞理의 기초우에 건설치 아니한 國家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하였다. 이 때로부터 마사릭은 浪漫的 空虛한 愛國主義를 배척하고 愛國愛民에 충성과 실행이 있었을 따름이다.

이 케닉긴호쁘 寫本問題는 단순히 마사릭의 개인 문제가 아니요 실로 民族的 문제며 이번 마사릭의 勇斷은 진리를 追求하는 學者의 책임을 다한 것만이 아니요 실로 체크人이 復活할 진로를 개척함이다. 이야말로 虛僞와 假裝을 버리고 現實運動에 나아가는 第一聲이었다. 이로부터 체크슬로박기아에는 政治 文學 哲學에 다 現實思想 곧 寫實主義가 성행하였으니 마사릭의 후일 成功도 이 主義의 성공이라 <20> 하겠다.

1893년에는 마사릭이 푸락 大學의 教授로 있으면서 「우리 時代」라는 月刊雜誌를 經營하였고

쏘콜運動에 참가하여 이 運動을 指揮하는 동시에 말과 글로 대중의 귀에 거슬리는 忠言과 솔직한 글을 많이 쓰게 되었다. 마사릭은 社會科學을 연구하는 學者니 만큼 당시 체크 青年을 心醉케 하든 맑쓰主義의 史的唯物論을 批判하여 1898년에 체크語와 獨逸語로 『맑쓰主義의 哲學的 社會的 基礎』라는 심오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마사릭이 15세의 소년으로 鎖匠의 공장에서 나온 것은 創作的, 活動的이 아니요 機械的이요 無變動의인 까닭이었고 天主教會를 반대한 것도 儀式的 宗教와 기계화한 制度를 미워함이요 資本主義와 싸움도 그 機械文明을 咀呪함이요 奧匈帝國과 싸운 것도 機械的 服從밖에 없는 政治制度를 미워함이며 맑쓰의 唯物主義와 싸움도 역시 사람이 獨創力과 理想이 있음도 불구

하고 순전히 환경의 지배를 복종하는 機械로 간주하는 까닭이었다. 이처럼 마사릭은 自由의 生과 現實의 生을 추구하였음으로 불공평과 機械的 束縛으로 더부러 싸워왔었다. 마사릭은 「實」을 깨달아 알고 이 實을 生活化하여야만 虛僞, 奸計, 利己, 空論, 怯懦 등에서 완전한 解脫의 自由가 잇을 줄로 믿었었다.

마사릭은 歷史家요 社會學者인 동시에 또한 哲學者다. 哲學的 論文으로는 이상에 말한 「構體的 論理」 이외에도 1882년에 발표한 「흠의 懷疑主義와 蓋然性의 理論」과 「빠클에 의한 歷史理論」등 書가 있다. 마사릭은 哲學上으로도 寫實主義者다. 흠과 밀과 콘트와 스펜서를 祖述하고 비판하였고 칸트派 哲學을 반대하였다. 마사릭은 實行에는 너무도 관심치 아니하고 理論만 편중하는 獨逸人의 理想主義와 슬라브族의 대표적 哲學觀念인 톨스토이의 惡에 대한 不抵抗主義에서 反動하여

寫實主義의 分派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마사릭은 인생은 精神的 宗教的 理智的 政治的 모든 方面을 종합한 全一的 總체로 보았다. 이 모든 方面에 잇어 마사릭이 眞과 實을 얼마나 주장하였음을 가히 추측할 수 있으나 그만두고 톨스토이의 不抵抗主義에 반대한 理論만 略舉한다면 마사릭은 惡은 어대서 언제든지 對抗함이 善의 실현이요 自衛의인 正當防衛의 행동과 侵掠的 暴行이 차별이 잇는 동시에 소위 폭행은 그 동기를 살펴 是非를 정할 것이요 抵抗이 無條件으로 옳지 아니 하다는 것은 否認하였다. 이처럼 마사릭은 人道主義者로서 그 人道主義의 실현에는 人格의 완비한 발전에 支障되는 磨阻物을 抵抗함이 옳다고 보았다.

마사릭과 톨스토이는 서로 가까운 親友였다. 야스나야, 팔리아나에서 톨스토이를 여러번 방문하였다 한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전하는 逸話가 하나 있다. 톨스토이가 農民 生活를 체험하면서도 喫煙하는 습관이 잇는 것을 보고 마사릭은 톨스토이더러 『당신이 農民 生活를 하면서 農民으로는 堪當치 못할 價비싼 喫煙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구려』 하였드니 톨스토이는 喫煙이 얼마나 비싼 것이라고 일즉 생각치 못하였다고 자백하고 其後부터는 斷煙을 실행하였다고 한다.(以下 次號) <21>

<18-21>

48.

잡지명: 삼천리 제14호

발행년월일: 1931년 04월 01일

기사제목: 民族保健과 體育獎勵(一)

필자: 秦蕃 진번

기사형태: 논설

民族保健과 體育獎勵(一) (민족보건과 체육장려(일))

秦蕃

戰慄하고도 남을 1914년 世界大戰亂은 드디어 全世界人類의 健康 및 道德을 餘地없이 紊亂케 하였으며 또는 心身의 過勞과 營養不足으로 因한 直接飢餓는 幾多의 民族을 救援하여내지 못할 荒廢에 보내지 안었는가. 飢寒에 못견대여 울고잇는 小兒의 무리(群) 혹은 不治의 疾病

에 苦悶하는 者가 그 나라에 充滿해야 잇슴은 勿論 其中에도 오죽 强健해야만 될 軍隊內部에는 花柳病이 猖延해야 잇섯다. 그리하여 그나라마다 體育을 鼓吹하며 身體的 鍛鍊을 獎勵하여 國民의 健強을 增進케 할 道理를 講究하고 잇섯든 것은 勿論이다.

現下 朝鮮의 體育界는 過去 10여년간의 發達이었스며 其以前의 隆盛은 아니었스니 其理由는 海外로부터 偏智의 文明을 輸入함에 急急하고 身體의 健康을 度外視하여 第2의 國民을 形成할 兒童教育에 잇서서 뿐만 아니라 上級學校의 教育方針에 잇서도 너무 智의 方面에만 注力하여 왔슴으로 體育方面에는 何時에 餘念이 업섯든 것이 事實이다. 이와가튼 風潮는 家庭에 드리갓스며 또는 社會를 左右하였고 曄으로는 오늘날 民族保健上 큰 障害를 짓치어 주었다.

특히 民族保健의 根柢는 消極的인 疾病의 豫防과 治療 또는 養生法에 잇지안코 積極的으로 進出하여 一般民族의 身體를 鍛鍊함으로써 各自가 所有한 바 健康을 더욱 健康케 하는데 잇스며, 强健한 民族을 養成하여 各般의 疾病 또는 外襲의 不良한 影響에 대하여 遺憾업는 抵抗力을 涵養할 것이 必要할 것이니 茲에 歐米各國의 實情과 對照하여 體育改善에 注力함도 必要할 것이다.

1. 列國의 運動競技와 其施設方針

(1) 瑞典 ... 歐洲의 極北에 잇는 瑞典國은 其最南端이 北緯55度이다. 이 北쪽에 잇는 「랏부란트」와 갓흔데는 北極圈內에 屬하여 잇스며 首都인 「스톡홀름」은 60度에 갓가운 位置에 잇다. 其關係上 全國의 氣候는 一般으로 不良하여 1년중에는 半年以上은 夜의 國으로 눈「雪」이 덮힌 밋해서 生活할 수 밋게업다. 이와가튼 까닭인지는 모르나 一般死亡率は 勿論 乳兒死亡率과 肺結核死亡率は 날이 갈수록 增加하여 잇섯스며 半年동안의 屋內蟄居生活은 風俗廢頹를 招來하여 花柳病의 蔓延도 甚하얏고 寒國特有의 飲酒癖로 因하여 「알콜」中毒者도 漸次로 만어갓다. 이와가치 不良한 衛生狀態이었슴으로 强健한 體質者가 안니면 이 外的 不良의 影響을 克勝치 못하고 死亡하여 버리었다.

이와가튼 狀態를 默過할 수 업다하여 同國政府當事者와 國內有識者는 奮起하여 官民의 覺醒에 의하여 꼭 이 狀態를 打破하고자 國民의 體質을 改善하고 强健케 하여 抵抗力을 養成함이 急務이라는 意辭에 一致하여 잇섯다. 方法으로는 小兒及青年期男女에 대하여는 屋外運動을 獎勵하고 身體의 鍛鍊을 圖謀하기로 決定되였다. 특히 嚴寒積雪에 屈服치 안코 이것을 征服할 「스키」를 普及하얏든 바 이 勇壯活潑한 運動은 男女年少者들의 歡迎하는 바되어 數年이 못되어 全國에 普及케 되어 돌이켜 그들은 겨울이 늦게 오는 것을 <66> 미워할 만큼 苦待하얏다. 從來와 가튼 陰鬱, 退嬰的의 氣風도 해를 거듭할수록 사라지고 오죽 活潑, 樂天的의 氣風으로 변하얏스며 室內密居의 惡風도 漸次로 그 影子가 熹迷하야갓다. 이와가튼 步調를 取하여 왔슴인지 1904년에는 全國各地의 運動俱樂部를 統一하여 半官半民的의 中央運動協會이라는 團體를 組織하고 政府는 同時에 法律로써 所謂 「콧헨뵐크」式的 制限附節酒法을 實施하고 或은 肺結核療養所의 普及을 圖謀하여 其結果로 一般死亡率は 1880년에는 人口每千에 대하여 27.00이었든 것이 30년후 1909년에는 半減하여 13.1%가 되어 其後 1920년도까지 13乃至4이었스며 以後는 13以下이다. 그리하여 前日에는 世界有數의 乳兒死亡國이었든 것이 輓近에는 出生百人에 대하여 不過 6 乃至 7에 지내지 못하여 實로 世界第一의 乳兒死亡이 적은 邦國에 處하여 잇스며 肺結核도 半減되였다 한다. 例하건대 都會에 잇서서 肺結核死亡率は 都市人口 千에 대하여 1915년에 2.34이었든 것이 1921년에는 1.59까지 減退하얏다.

이와가튼 것은 全혀 都市에 잇서서 運動獎勵施設의 普及에 基因한 바 만었다. 上述한 바와

가치 一般國民保健狀態가 改善된 原因의 大半은 全國民에 對한 運動獎勵의 結果라고 斷言할 수 있다. 그러면 一般壯丁의 平均身長도 其間에 2吋餘의 增加를 意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偉大한 體格의 所有者들도 이 나라가 世界第一이라고 한다. 저 「스웨덴」式이라는 體操의 發祥地인만큼 只今에 와서는 一般運動熱이 旺盛하야 잇스며 輒近에는 運動場이 不足하야 政府에서는 25만 「쿠론」의 補助金을 下附하야 이것을 助長하얏다한다.

(2) 芬蘭 ... 此國의 面積은 373.604平方 「키로메돌」 人口總數 不過3.269,401명으로 1 「키로메돌」의 人口는 10명에 止내지 못한다. 首都 「헨싱홀스」의 人口는 17만4백5십2명에 不過한 北歐洲의 小國인데다가 天惠의 恩澤은 조금도 맞지 못하는 地方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每回의 國際 「올림픽」大會에 잇서 其成績의 實質은 거의 世界第一이라는 結果를 보이고 名選手가 續出하고 잇다. 이것은 엇던 理由일가? 瑞典과 加치 氣候不良한 國土에서 其生을 保有하야 生活하고 活動함에는 오로지 이것의 難關을 擊破함에 適當한 健康을 國民全體에게 주지안으면 안된다는 輿論에서 政府當局及 國內識者가 主唱者가 되여 身體鍛鍊을 위하야 特別히 全力을 다하야 獎勵함에 쓴데 잇다고 한다. 政府는 먼저 各國에 優秀한 視察員 또는 研究生을 보내여 各國의 特長을 輸入하야 이를 實行케 하얏다.

最初에는 瑞典, 獨逸 다음으로 英國을 研究케 하고 最近에는 米國의 運動熱에 刺戟되여 目下 有名한 指導員을 米國에 派遣하야 其長所를 輸入하야 이것을 消化하며 一方研究도 하야 身體鍛鍊에 應用하고 잇다. 이와가튼 事實로 비로소 이 나라가 人口로 보든지 氣候로 보든지 이렇타 할만한 特長을 갖지 못하엿스나 比較的 健實하야 一般國民의 保健狀態도 漸次改善되여서 國際올림픽競技에서 最近 優秀한 成績을 收得하고 잇습이 實로 이나라 體育史를 크게 裝飾하야 주엿다. 中短距離의 名星 「누루미」君은 芬蘭國의 至寶이니 方今 米國에 滞在하면서 同地大學에서 「코취」를 하는 중이라한다. -(此號繼續)<67>

<66-67>

49.

잡지명: 별건곤 제39호

발행년월일: 1931년 04월 01일

기사제목: 新幹會 解消後의 民族的 協同戰線을 엇절가

필자: 金致鈺 김치옥

기사형태: 논설

新幹會 解消後의 民族的 協同戰線을 엇절가 (신간회 해소후의 민족적 협동전선을 엇절가)

金致鈺

별건곤 三月號에 金俊模君의 『新幹會는 엇더케 되나』하는 豫斷的 論議가 잇섯다.

新幹會는 한참동안 解消 非解消로 말성이 만엿다. 그러나 아즉 新幹會가 解消된 것은 아니나 임이 그 決定的 運命에 잇서서는 解消된 것이나 아무 다름이 업다. 解消가 大衆의 힘으로 實施斷行되엿다면 그후 투쟁의 길이 열니엿을 것이요. 따라 새로운 투쟁 要素밧해서 다시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엿을 것이나 新幹會가 存在한 그대로 無能에 非鬭爭的에 轉落된 까닭에 部

門운동이나 전체운동이 그대로 쇠잔 멸락해 버리었다.

이제 新幹會는 解消하기보다 自然轉落을 免치 못할 운명이다. 新幹會의 役割과 任務는 이에 종결을 고했다.

그점에 잇서 金俊模君은 解消가 아니면 轉落되리라고 했스나 이제 轉落된 것은 벌써 既定의 事實이니 그후의 남은 問題는 民族的 協同戰線을 엮더케 할 것인가 하는 다시 새로운 重大한 문제가 逢着되지 않을 수 없다.

民族的 協同戰線을 표방하는 新幹會가 轉落되었스니 그러면 이제부터는 民族的 協同戰線의 必要도 消滅된 셈일가.

協同戰線이란 그 民族을 構成한 人員의 總協同 總망羅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永遠의 存在物이 아니다. 그가 必要한 때에 協同하는 것이요. 그가 必要치 않은 때에는 當然히 거부할 것이어야 한다. 이제 朝鮮에 잇서 協同戰線이라면 農民 勞働者 小市民層의 協同일 것이니 資本家は 벌써 투쟁의 能力을 일컬을 뿐 아니라 임이 反動化하고 있다. 여기에 反動이라 함은 계급운동의 立場에서 말함이 아니요 民族的으로 보아 임이 그들은 反動하고 잇고 타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小市民層이란 中間의 不動層이여서 그가 一定한 階級과 힘을 갖지 못하고 항상 부동하고 잇스니 朝鮮의 小市民層이란 그들은 農民이나 勞働者 그러한 無產계급에 沒落될 운명을 갖고 있다. 朝鮮人の 大多數는 農民이다. 투쟁力이 가장 銳利强大한 것이 勞働者이나 朝鮮은 工業의 後進國 아니 XX地인 만큼 工業의 勃興이 업섯고 따라 勞働者가 적다. 農民은 封建的이요 保守的이요 非科學的이다. 그 점이 朝鮮운동의 難關이요 特殊한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主體로 하고 그들의 利益을 代表한 政治的或은 경제력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

新幹會는 왜 能率을 못 내었든가.

農民을 地盤으로 한 組織이 업섯다. 그의 指導分子의 大部分은 小市民層에 所屬한 非투쟁력의 사람들이었다. 그럼으로 新幹會는 아무런 힘을 내이지 못혔고 그저 一種의 社交室이 되고 마렸든 것이다.

新幹會의 해소를 왜 부루지짓는가.

新幹會가 잇서 운동의 中樞로 自處하고 잇스되 組織이나 實地에 잇서 何等存立의 意義가 업슬 뿐 아니라 도리혀 民衆으로 하야금 현혹케 하야 階級운동까지도 쇠잔멸락케 함으로써이였다. 그러면 이제는 農民을 地臺로 한 農民組織이 急先務일 것이요 그의 完成과 함께 農民이 운동의 中樞가 되어 다시 民族協同組織에 進出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곧 朝鮮의 農民을 思想的으로 政治的으로 모라 내이기는 甚히 곤란한 일일 것이다. 곤란하다기보다 차라리 可能이 업는 일 갖다. 그들을 잇그러 啓蒙에 努力하면서 경제력의 조직으로 誘入하여야 하겠고 그 階級에서 政治意識의 喚起 覺醒을 促하여야 한다.

다음은 勞働者の 조직이다. 農民이 운동의 中樞가 될 것은 勿論이나 그의 伴侶가 되고 先驅가 되어 줄 者는 오즉 勞働者가 잇슬 뿐이다. 勞働者는 團結力이 强하고 科學的이여서 政治나 經濟에 대한 각성이 速하다. 따라서 그들은 언제나 農民의 先頭에 스(立)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조직의 擴大 強化가 그 急務의 急務로 우리 眼前에 當着되어 온다. 小市民層은 그가 浮動的이면서도 巧滑하고 機智에 長하며 知識階級이 多數인 만큼 언제나 運動의 牛耳를 삼으려 하며 또는 實地에서 <4> 운동은 그들의 손에서 조종되는 때가 만타. 그들은 中間層이라 勇氣와 힘이 업고 따라 進就性이 薄弱하야 政權者에게 아첨하기가 일수이요. 그저 左右편에

추파를 보내기에 분주할 뿐이요, 결코 운동을 확대하거나 강화하지 못한다.

그러면 금후의 協同戰線이란 農民이 土臺가 되고 노동자가 그 中心이 되어 先頭에 나스고 小市民層을 붓잡고 나아가는 그런 조직이 必要할 것이요, 따라 必要으로 그런 조직이 올 것이다. 그리고 具體的의 行動을 提示한 協동전선이 산출하여야 한다. 또 朝鮮에는 宗教란 大衆組織이 있음을 이저서는 안 될지니 宗教 그 中에도 여러 가지가 잇서 確然히 民族을 害毒하고 잇는 宗教도 잇스나 過去 또는 將來에서 만흔 功獻과 期待를 갖는-(政治的으로)- 宗教가 업지 안다. 그들은 農村에 그 土臺를 두엇고 多數의 農民을 包藏하엿스며 組織과 訓練이잇서 政治的 經濟的으로 進就된 大衆을 갖고 있다. 朝鮮의 과□° 운동에 잇서 그들은 언제나 重大한 役割을 하엿고 또는 하려고 한다. 그를 宗教團體라 하여 一蹴해 버리기보다 그를 모라서 協同戰線의 大部隊의 큰 力量과 큰 任務를 堪當시키여야 한다. 그가 금후의 協동전선 特히 新幹會 解消 後의 民族的 協同戰線에 잇서 당면의 중대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투쟁 過程에 잇서 最大限度的 協同할 範圍까지 전선의 協동을 원하고 또는 몸소 體驗하여야 할 것이요 거기에서 운동의 進展이 잇고 歷史의 意義가 잇는 것이다. 그런 政治的 투쟁은 그가 완곡무쌍하야 그렇게 단순하게 책상에서 생각튼 대로 實現되지 안는 것이니 實地에 잇서 투쟁을 거듭하고 잇는 동안에 그 體驗으로 잇는 智識은 우리로 하여금 大部隊의 協동전선을 간곡키 원하게 되엿고 그를 扶持하야 참된 힘을 내이고 운동의 前進를 計함에는 새로운 地盤과 조직이 必要하게 되엿다. 그냥 基盤의 조직업는 이름만의 協동전선은 아모 소용업는 것임을 깨다려 아렸다.

여기에서 우리는 新幹會 해소 후의 民族的 協同戰線 그는 農民이 地盤이 되고 노동자가 그 先頭에 나스고 小市民層을 붓삼어 그 전선에 集中시키며 農民조직의 大衆단체인 宗教와 協同하야 具體的의 行動을 提示한 그런 투쟁과 조직이 展開될 것을 밋는다. 따라서 신간회의 해소가 곧 協동전선의 果實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5>

<4-5>

50.

잡지명: 삼천리 제15호

발행년월일: 1931년 05월 01일

기사제목: 民族保健과 體育獎勵(2), 歐米各國의 現勢와 吾人의 覺悟

필자: 秦蕃 진번

기사형태: 논설

民族保健과 體育獎勵(2), 歐米各國의 現勢와 吾人의 覺悟 (민족보건과 체육장려(2), 구미각국의 현세와 오인의 각오)

秦蕃

3. 獨逸

戰敗國으로써 세계적 怨態의 的이 된 獨逸은 패전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그것보다도 오히려

국가의 우려는 오로지 건전상태를 가지고 국가의 일을 볼 청장년남자들의 대부분을 戰地에 보내어 死傷여케 하였다. 1920년경에는 연합국측의 압박은 점차로 심하였스며 군비제한은 물론 안녕질서유지의 임무에 당할 巡查까지라도 조직적 훈련은 할수 업서 飢餓와 외적 압박및 경제적 파산상태때문에 국민일반은 신음하야 잇섯고 大戰中 年少한 까닭으로 出征召集을 면한 자들은 空閑를 직히고 잇든 婦女로 인하야 童貞을 깨르려버리어 淫靡에 물들어 잇서 好學心을 버리어 獨逸國의 前途는 참으로 한심하야 잇섯다. 此際에 잇서 정부 及 유식자의 취할 태도는 운동장려에 의한 적극적 신체단련을 국민에게 강제할 방침을 가졌섯스니 其對策의 일단으로는 1921년 伯林郊外에 잇는 獨逸大運動競技場을 개조 후 解放하고 차에 관한 專門學校를 설치하야 장래 본사업보급을 위하야는 전국에 배치될 指導員의 양성에 주력한바 잇서 전후 獨逸 國內의 運動熱의 勃興은 성대하야져 간다.

歐洲大戰전까지는 사회체육단체수가 8천6백, 회원 약 110만인이든 것이 현재에 벌서 俱樂部數만 3만5천에다 회원 4백만인에 달하야 其中 2백만인은 俱樂部員이라한다. 戰後에 갑자기 체육계가 융성한 것은 정부의 指導援助와 국민들에의 國세인 애국심에 기인되엇다고 아니할수 업다. 또 전국의 體育俱樂部는 통일되여 잇서 獨逸國民體育團을 창설한 것이다. 현재 大學校에서만 加盟한 것이 30, 기타 약40의 大體育團體를 포함하야 잇스니 其重要團體는 다음과 같다.

1. 獨逸運動競技協會 本會는 11地方支部의 연합으로 조직되야잇서 1914년 조사에 의하면 正會員數는 15만3천4백3십4명으로 此에 관한 會友가 25만6천명에 達하야 잇섯다.
2. 獨逸力技運動協會 1911년 창립되야 1914년도에는 11箇所의 支部와 會員3만1천7백4십명.
3. 獨逸蹴球協會 1900년 창립되야 1913년에 잇서서는 1,936의 支會와 16만1천6백13명의 會員을 가지고 잇서 競技回數는 1913년도에는 백십2만백8십8명의 競技者로 5만1천5십4回の 試合을 하엇다.
4. 獨逸庭球協會 1902년 설립, 會員 약2만2천명.
5. 獨逸自轉車協會 1884년설립, 戰前 會員數4만8천명.<44>
6. 獨逸自轉車及自動自轉車協會 本會는 직업적 운동에서 自轉車와 自動自轉車 등을 이용하는 運動者의 團體이다.
7. 獨逸水泳協會 1896년 설립, 4백의 支會와 약6만人의 會員을 가지고 잇다.
8. 獨逸短艇協會 1883년 설립, 參加團體 340, 熟練會員은 약2만5천명으로 1914년에는 49의 『레캣트』와 621隻의 『뽀-트』를 가지고 잇다.
9. 獨逸帆走協會 設立 1888년으로 48團體은 會員1만2천명, 戰前은 會員所有의 帆走船은 1,610隻이다.
10. 獨逸滑冰協會 1890년 설립, 70團體와 2만의 會員.
11. 獨逸스키協會 1905년 설립, 335支會와 3만會員으로 成立.
12. 獨逸保身協會 1861년 설립, 會員4만人.
13. 國民及青年遊戲中央聯盟 1891년 설립, 此聯盟은 조직복잡하나 500支會와 350公共團體를 包括하야 2만1천의 會員成立.
14. 獨逸大學身體鍛鍊協會 1905년 설립, 會員3만人.
15. 新獨逸團結社 1911년 설립, 大戰勃發前에는 약75萬의 會員이 此結社에 속하야 잇다.
16. 獨逸運動雜誌新聞協會 1910년 설립, 體育理論普及에 注機關.
17. 運動及身體保健中央協會 本會는 勞働者의 體操及運動團體이다. 此中央協會에 屬한 會員은 勞働者體操及運動의 會員 약30만명, 勞働者自轉車協會 약10만명, 勞働者水上協會員1만5

천명, 勞働者競技會員 2백명, 合계 42만5천명의 大會員을 抱擁하고 있다.

4. 체코.슬로바키아

中歐의 新興國 『체코.슬로바키아』는 首府『뿌라-크』를 중심삼아 興國氣運이 충만하여 있다. 이 『체코』民族은 오랫동안 樊國밧해서 쓰라린 생활을 하면서도 시기만 엿보아 이 霸棼에서 버서날 意氣를 감추고 민족규합의 楔子로서 一種의 민족적 대운동회 즉 『쏘클.파스트』를 4년 또는 8년마다 『뿌라-크』市郊外의 『아래-나』에 열고 『뽀헤미야』의 각 지방에서 대표적 청년남녀를 보내어 참가케 하여 그들의 고유인 『도라하드』를 입은 여자의 무리(群)로 하여금 스사로 위안을 주며 조국의 부흥을 위하여 祈禱하고 잇섯든 것은 <45> 물론이었다. 歐州大戰의 뒤를 니여 민족자결의 한 결과로서 이 『체코』국은 독립되었다. 최초의 運動祭 『쏘클.파스트』는 이 이처지지 안을 獨立祭를 겸하여 1920년6월에 성대히 개최되어 전국에서 모히여든 약10만의 대표적 남녀가 참가하여 더욱 異彩를 발휘하였다한다. 이 나라에서는 이 『쏘클』운동으로써 조국적 감정을 高調케하는 동시에 국민건강의 향상을 꾀하고 잇서 이와가튼 체조회가 『체코』국민에 잇서서 그 얼마나 有意義하였스랴? 獨勻國政治下에 잇서서라도 그네들은 이 체조회로 인하여 『체코』민족고유의 必身을 涵養하고 잇섯든 것은 틀림없다. 보아라! 그리하여 지금은 그네는 자기고유의 조국을 차저 잇섯다. 체조회로 말미암아 여자의 체조는 여성답게 優美性을 띄워 잇섯고 남자의 체조는 남성답게 활발性을 가지고 잇서 그들은 항상 이와가튼 心身과 아울러 强健하게 교육밧어 4년이면 거행되는 國民祭에 잇서 그네들의 자랑인 마음과 몸을 국민과 가치 축복하여 잇섯다. 이것이 新興『체코』국의 國民祭로써 이 이상 더 위대하고도 신성한 것은 또달니 업을 것이다. 그리하여 不遠間 米國에서 개최될 國際올림픽大會에서 好成績을 表示할 것도 의심없다.

5... 樊國

이 나라도 歐州大戰으로 戰敗國이 되었다.大戰의 종결과 동시에 소위 민족자결주의에 딸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뉴고.슬로바키아』의 분할 독립이 되어 이 결과는 樊帝王國 破壞의 싹을 지어 王位는 소멸되고 共和國이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食糧產出의 농촌이 적어 잇섯고 기타 物產에도 경제상으로 보아 貧弱한 小國이다. 다만 過大한 首都『위웁』만이 往時帝王朝時代의 번영을 말하고 잇을 뿐이다.大戰後인 1919-20년경은 비참이 절정에 달하여 잇는때가 되어 混沌한 사회상태, 중심세력업는 政界의 事情은 국민으로 하여금 悲境에 잇끌뿐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를 형성하고 잇는 內閣各省中에서는 社會行政省이 가장 중요하여 잇서 他省에는 次官1명뿐인데 社會行政省에는 次官2명이 잇서 社會行政院 及 國民保健院의 兩機關이 웃듬이 되어잇섯다. 이 國民保健院에서는 戰後 물질적으론 거의 결핍하여 其 결과정신적 타격을 밧어 국민의 士氣는 不振되야 국민전부는 영양부족으로 不治患者가 늘어 잇서 風紀頹廢는 男女 各階級者間에는 花柳病을 慘害의 밧는 者 자못 만어져 잇슴으로 그 구제와 국민보건상태의 개선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와가튼 참담한 暗黒界에서 光明世界로 前途잇는 국민을 인도함에는 오로지 少靑男女에 대하여 활발한 운동을 장려함이 무엇보다도 急務中에 爲主라하여 이것에 관한 行政上의 중심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잇서 國民保健院에다 身體保健院과 身體鍛鍊課를 창설하고 其披露를 兼하여 同院이 주최가 되어 1919년 4월14일 『위웁』에서 身體保健 及 身體鍛鍊에 관한 회의를 열고 각 방면에서 권위자의 參集을 구하여 협의한 바 잇섯다. 당일 同課主務局長 『카뽀』氏의 報告演說은 戰後 비참한 국민생활과 幼少年者 사망률의 증가, 幼年者體育障害, 母性的

保健, 학교와 가정의 관계로부터 論始하여 共和制尙新인 新國將來의 興廢는 다만 국민건강 如何에 잇스며 일반국민에 대하여 신체단련은 가장 적당한 시설이라 밋으며 其指導獎勵에 當할 목적으로 同課를 창설한 所以라 말하였다. 同國에서는 運動競技에 참가할 자는 運動醫의 檢診을 밋을 것은 물; 이요 自進하여 專門醫學者의 研究資料되기를 甘受하는 관습이 잇다한다.

6. 瑞西

瑞西는 나라 전체가 공원이며 遊覽地이다. 또는 冬期의 瑞西는 『썬모리스』를 대표적 장소로 하여 국내도처에는 歐洲各國中의 最良한 『윈터.스포스』의 장소다. 또는 여름(夏節)의 『알프스』는 세계의 등산객이 운집하여 있다. 말아서 국민은 자발적으로 운동삼어 등산에 흥미를 가져 등산을 장려하고 잇스며 국가 및 各州, 기타 공공단체는 될 수 잇는대로 이 목적에 부합한 시설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일즉이 歐洲列強國中央에 介在한 小國으로 국방上 特殊의 盟約이 잇다 하드라도 거의 남자는 更生부터 신체를 단련하여 國民皆兵의 思想을 가지고 있다. 然故로 전국적 운동, 경기대회는 年年 各地에서 개최되야 州市등을 대표한 선수가 참가하여 榮冠을 다투는 것이다. 이 대표선수가 출발하기 전의 시위행렬을 보면 선수의 一隊는 樂隊를 선두로 하여 다음에는 선수중의 대표자가 選手旗를 들고 일반선수는 다음에 서서간다. 이 행렬은 처음에는 소수이나 其 行路의 좌우에서는 적은 國旗나 『한가취프』를(제63頁에) <46> 으며 뛰어나와서 행렬에 뒤로뒤로 참가되어 노래를 함하여 歎呼聲에 和하여 三三五五 떼지어 말아와 邦終에는 一大長蛇列를 지어 半日 全市中을 巡廻한다. 이와 가튼 행사는 시민전체가 自由스럽게 운동할 목적인데 『알』河가 『배룬』市에 들어가 S字形으로 屈曲하여 흐르고 잇는 곳에 中央政廳이 잇다. 이곳에서 對岸 『헬와에지아.뿌랏스』에 글치여 잇는 『길헨휠트』橋가 잇다. 其鐵橋下에 廣場이 잇서 이곳이 시립대운동장이 잇다. 이 운동장은 그닥지 넓지는 못하나 경치가 아름다워 잇스며 橋上을 통과하는 시민은 항상 이 勇敢한 운동을 보고 얼마큼 운동의 鼓吹를 보았다할이다. 또는 各 地의 대도시에도 이것과 유사한 시설이 잇다.

또는 瑞西의 老幼男女는 殊히 가족적으로 『알프스』등산을 위하야는 쾌락을 느기고 잇다한다. 深綠色을 띄워잇는 목장에 艷色한 花草를 밟으며 풀뜨더 먹는 소(牛)목에 달린 방울(鈴)이 『스프스』 저쪽 山谷에 울닐제 이것을 俗謠로 謳唱하야 아버지가 소래하면 兒孩는 딸아 부르며 千古의 白雲白雪이 皚皚潔潔한 峻峰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情景은 全幅의 光景... 어느것이 詩 그것이 안니랴? 이와갓해서 同國民은 여름(夏)을 환희하며 겨울(冬)에 屈服치 안코 大自然을 이용하야 自然的 不利를 배격하는 동시 신체단련과 운동의 증진을 도웁고 잇다한다.(次號繼續) <63>

<44-46, 63>

51.

잡지명: 삼천리 제17호

발행년월일: 1931년 07월 01일

기사제목: 印度特輯, 印度民族運動의 綱領

필자: 印度人 빠룸 닷트

기사형태: 논설

印度特輯, 印度民族運動의 綱領

印度人 빠름 닷트

민족을 위한 싸움은 幾多의 사회층—노동자, 농민, 하층 중산계급, 지식계급, 及 일부 「빨조아」뿐인—싸움이다. 이 싸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제국주의 지배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하고 추구하는 일반적 조직이다. 그러한 조직은 그 내부에 결합될 모든 주요부의 직접의 필요 及 목표를 체현할 일반적 강령을 기조로써 실현되게 된다. 그러한 강령업시는 투쟁을 위한 유력한 결합은 불가능하다.

노동자에 잇서서는 농민에 잇서서 하층 중산계급에 잇서서—彼等は 합체하고 畛히 대다수뿐 아니라 또 사실상 전민족을 구성하는—「스와라지」는 이것이 彼等の 희망을 실현하려는 의의를 명료하게 표시치 않는 이상, 단지 空辭에 불가하다. 이것은 彼等の 직접의 요구를 체현할 일반적인 민족적 강령에 의하여 뿐이 표시되게 된다. 조직의 최초의 임무는 그러한 일반적인 강령을 작성할 일이다. 한 번 그러한 일반적인 강령이 승인되면 자연 다음의 조직 문제가 고려되게 되는 것이다.

民族運動의 綱領

그러한 강령은 무엇을 포함치 안흐면 안되는가? 제1에 그것이 업시는 유효한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가튼 권리—언론자유, 출판 及 집회자유, 선거의 권리—의 일반적 요구를 포함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제2에

농민 及 노동자, 소수 자유직업 계급, 기타의 일상생활에 영향하는 직접접의 諸문제를 들추어 낼 것이 필요하다. 此等の 문제는 취중, 토지, 조세, 노동조건, 건강 及 사회조건, 교육 등의 諸문제를 포함한다. 현재의 민족운동은 아직 此等の 방향의 어느 것에 잇서서든지 명료한 강령을 제기치 안했다. 현재의 분석은 필요적으로 만흔 집합적 사업과 연구와의 결과가 아니면 아니되는 정세한 강령을 제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심히 간단하게 諸문제의 각각의 부분에 머물너 잇는 약간의 원칙을 고려하는 일은 허사가 아닐 것이다.

A. 公民權

넓히 퍼져진 일반적 XX 及 조직의 제1의 필요 事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초보적인 공민권의 획득이다. 이것 등을 위한 싸움은 민족운동의 모든 부분을 합동시킬 최초의 기초적 싸움이다. 싸움에 획득할 근본의 諸권리는 다음과 가튼 것에 성립된다.

1. 언론의 자유.
2. 출판의 자유.
3. 결사의 자유.
4. 보통선거.
5. 세습적 특권 及 종족적 차별의 철폐.
6. 모든 종교적 及 인종적 차별의 폐지.

민족운동은 전제로 하고 모든 박해되는 신문이나 모든 언론상의 囚人이나 또한 정부에 의하여 공격된 印度人 結社 혹은 조직의<43> 모든 형태 등의 방위를 지버치울 것이다. 신문법, 특별 조건령 기타 모든 억압적 법령의 철폐의 요구는 모든 투쟁의 장래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이 XX은 모든 XX의 중핵이다. 그 수단에 의하여 정치문제는 보다 더 명백하게 끼치게 된다.

B. 土地

토지는 명백하게 印度의 현 단계에 있어서는 印度에 의해야는 사회상 及 경제상의 중추적 문제다. 토지에 관한 민족운동의 강령은 민족운동이 농민대중을 대표되게 되는 범위를 결정한다.

토지문제의 諸조건은, 통계는, 2억2천1백만의 농민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고 中 9백9십만은 지주계급에 속하며 (地代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3천7백8십만은 토지를 소유치 못한 노동자 及 그의 가족이라. 그 다음 남은 1억7천3백만이 소농 及 자작농이란 것을 지시하고 있다.

제1에 강령이 幾千萬의 지주계급을 대표하고 있는가 혹은 2억1천만인의 농민 及 토지를 소유치 안한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가를 명백하게 할 일이 필요하다. 兩者의 이익을 대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농업은 현재에 있어서는 하등의 餘剩도 최저 생활비까지도 생기지 않는다. 또 실제의 경작자의 덕택으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彼等の 적이다. 正直正銘하게 민족 卽 민족 대중을 대표하는 민족적 강령은 2억1천만의 이익을 물리치고 幾千萬의 이익을 도모할 일은 안된다.

토지 賃借의 중심문제에 접촉안된 농업발전 즉 촌락 재건의 일반적 제안을 토지문제의 현실에 當하게 하려는 일은 불가능하다. (註)농민 及 토지를 소유치 못한 노동자는 토지의 결핍에 의하여 飢餓하려 한다. 印度의 평균 토지소유는 전제로써 5 「에-카-」이다. 「인크란드」及 「월-쓰」에 있어서는 노동자 1인당 평균 경지 면적21 「에-카-」이며 「아메리카」 「알젠틴」 及 南 「아프리카」의 大農制度에<44> 있어서는 460 「에-카-」에 넘고 있다. 彼等の 현재의 토지 소유에 기초두고 또 彼等の 이용하게 되는 설비로써는 경작자의 대부분은 불가피적 부채를 등지고 있다. 그리하여 借金의 이자 정부수입 及 과세는 불가피적으로 彼等を 일층 빈곤에 逐放케 한다. 그런 故로 토지의 근본문제는 매년에 긴급의 度を 증가케 한다. 통계는 토지에 대한 압박이 부단히 증가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註)최근에 임명된 정부 농업위원회(1926년)는 특히 토지임차 또는 정부의 토지수입을 고려할 일을 위탁 조항에 있어서 금해야 있다. 「현재의 토지 소유제와 한 가지로 소작제 혹은 토지수입 及 관개비용의 불입에 관하여 建言할 일은 위원회의 의무의 범위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농촌의 번영과 농업인구의 행복에 영향되는 주요한 諸 요소」에 관하여 보고할 것으로 상상해야 있다.

부분적에는 공업적 생산의 팽창은 불가피적으로 이 상태를 구원하리라. 또 농업방법 及 설비의 발달은 토지부터의 수확의 수준을 徐徐로 노피리라. 그러나 此等은 긴 과정에 있지 목전의 위기에 응하는 것은 아니다. 지주제도 「大領有地, 과중한 地代 及 부과 그와 한가지로 대금의 收歛의 문제가 당면되지 안하면 안된다.

민족운동은 정부 及 대지주의 공동적 이익에 대항하여 유예업시 2억1천만의 농민 及 토지를 소유치 안한 노동자와 동일의 戰列을 陣치 안하면 안된다.

토지문제의 유일한 궁극적 해결은 토지의 사회적 소유 및 대규모 생산의 조직 따라서 무익한 기생적 收稅 비과학적 경작 및 적당한 설비 업시의 노동의 野蠻한 虐使의 廢絶에 있다. 이 일은 대지주의 수탈과 토지의 국유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집약적 대규모 생산의 조직은 필연적으로 長期에 亙한 과정이며 만혼 단계를 필요로 한다. 그런 故로 일층 광범한 생산조합의 조직을 발달케 함에는 보다 강력한 경제적 기초에 도달토록 농민을 원조하는 일이 첫째 필요하다. 농민 및 토지를 소유치 안흔 노동자의 제1의 필요는 토지다. 大領有地는 수탈되고 그리하여 大戰 이래 만혼 歐洲國에 있어서 만혼지 적든지간에 그 범위에 있어서 행하든 거와 가티 농민 및 토지를 소유치 안흔 노동자에게로 양도치 안흐면 안된다. 여기에는 大생산에 압서서 小생산을 발전시키려는 것가튼 것은 문제가 아니다. 도리혀 그 반대로 목적은 彼等이 그러한 뒤 다시 발전하고 그리하여 증대될 생산조합을 통하여— 대규모 생산으로의 서서히 추이에 도달케 하는 거와 가튼 기초 위에 농민들 據置하는 일에 있다. 최근의 통계는 1921—2년의 英領印度에 있어서서는 경지, 未경지의 다음과 가튼 割合을 지시하고 있다.

耕地 單位百分「에-카-」

播種된 純面積 223.1

休閑地 54.5

耕地에 利用難된 森林 153.1

休閑地以外의 耕作케 되는 荒蕪一地 151.2

(印度年鑑 1924년)

「休閑地 이외의 경작케 되는 황무지의 수자는 全 면적중 甚大한 割合 즉 6억6천3백만 「에-카-」중 1억5천백만 「에-카-」를 점하고 있다. 모든 경제적으로 경작케 되는 그러한 토지를 국가의 보조에 의하여 경지로 만들어 말미아마 농민에 있어서 이용되게토록 하는 일이 긴급하다. 직접수단으로는 모든 현재의 地代가 인하치 안흐면 안될 또 강제 農働, 식량저장 혹은 특별과세(결혼의 축연, 수렵 기타에 대한)의 어느 것이라든지 모든 무조건한 收歛은 폐지하여야 될 것이다. 同様の 일은 특별세의 부과 혹은 정부로부터의 勞役的 요구에 대하여도 적용이 된다. 압박적으로 증가된 정부의 토지수입은 실제의 수확의 최저 확정 步合에 인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말미아마 한 번 개인적 地代의 誅求와 특별의 收歛이 제거되던가 또한 低減되게 되면 적어도 조세의 양이 소득으로부터 징수되는 그만치의 증가 步合이라면 그것의 농민으로서도 가히 低한 地代 총액을 끼치게 될 수가 있다.

부채의 부담에 대하여 철저적인 諸수단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민족적 강령은 저당물건 처분의 금지 이자의 법률적 제한 및 저리대부의 규정을 요구할 것이다. 현재의 부채의 부담은 유리한 조건을, <45> 특별법정의 심리에 付할 것이고 농민은 그것에 직접으로 대표할 것이며 또 실질적으로 현저하게 증대케 될 권력을 부여할 것이다. 그보다 더 필요 事는 경작자에 향하여 미치어 농업의 발달에로 향하여 직접의 幫助를 제공할 일이다. 이것은 홀로 국가에 의해야 뿐이어 들 수 있다. 농민은 근대적 기계를 이용할 수단도 편의도 갖지 안헀다. 또 彼等은 생산조합적 기초에 근본하여 급속으로 발전되게 되려면은 경제적으로 너무도 미력하다. 국가는 농민을 위하여 저리대부나 대출케 될 농구 저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게하며 또 실제로 농업의 발달 및 근대화를 보조하게 할 것이다.

그것에 의하여 이 농업으로의 보조가 수행케 될 기관을 위하여 민족운동은 (촌락의 모든 농민 및 노동자에 의하여 평등으로 선출되다) 촌락회의의 설립과 승인에 가담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畛히 토지대차조건의 관리뿐이 아니라 광범한 법률적 조직적 기능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 최후의 것은 畛히 「분열」— 즉 임이 얼마 안되는 소유지의 분리된 屢屢遠隔에 있는

細片으로의 분할 따라 노동의 최대한의 낭비 及 경지 무능—뿐아니라 재해와 다투는 수단 及 보다 큰 생산조합적 농업으로의 전진을 준비할 길을 개척한다. 此等は 농촌에 잇서서 민족적 선전의 기초를 공급하고 또 운동을 농민의 기초에 힘세게 뿌려세울 강령의 요점을 구성한다.(中略 - 원문)

C. 教育

印度에 잇서서 讀, 書의 능력은 현재 7 「퍼-센트」이다. 이것을 日本 95 「퍼-센트」에 대조시킬수가 있다.

1919-20년에 잇서서 교육비 지급액은 연합국에 잇서서 8천5백만磅, 즉 1인당 2磅에 비교하여 천2백6십만磅 즉 인구 1인당 약 11片이었다. 「싸-, 엠, 비-스베스바라야」의 「印度改造論」에 의하면 「四村落中 三村落은 校舍업다.」 수업료 무료의 일반적인 초등초등교육의 요구는 민족강령의 불가결한 一綱領이다. 민중을 고의로, 무지로 끄리게 한다는 일은 현재의 행정에 대하여 괴로운 공격이다. 각 방면으로 교육의 강조될 필요가 잇스나 일반적인 초등교육은 제일로 행하지 안흐면 아니된다. 동시에 기술적인 중등 及 고등교육은 모든 민족적 발전에는 긴요하다. 말미아마 이것 等 3자는 모든 교육강령에 잇서서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중등교육은 대개 부족하고 있다. 기술적 교육은 과거에 잇서서는 극단으로 빈약하였스나 그러나 徐徐로 발달하게 시작되었다. 또 장래에 잇서서는, 新산업 계획하에 일층 발달시키어질 것 가트다. 대학교육은 수에 비례하여 他 부문보다 비교적 완비되었다. (인구에 대하여 英國의 割合의 5분지1 그리고 獨逸의 10분지1.) 허나 그것은 기계적인 관료적인 방법 及 정치적 관리에 의하여 표준을 저하시키어져 잇고 외국어로 연구하지 안흐면 아니된다는 학생의 곤난에 의하여 阻害하고 잇스며 또 민족의 사회적 급생산적 생활부터 遮斷되었스며 그 결과 학생의 대부분은 실업인가 그러치 안흐면 쓸대업는 「크라-크」의 노동을 하고 잇는 꼴이다. 이 최후의 상태의 이유는 제일에 이용할 수 잇는 훈련된 자에게 捌口를 與할 수 잇는 필요한 학교 의료 及 同様の 근로는 아직도 넓히 결하고 잇는 사실에 제2에 모든 형태의 고용에 잇서서 비교적 노쁜 지위가 주로 歐羅州의 손에 돌아가 잇는 사실에 그리고 제3에 진보된 교육사업 及 조사가 의연하게 미미한 것이란 사실에 있다. 모든 此等の 이유부터서 민족운동에 의한 진보적인 교육 及 사회강령의 채용은 小 「뿔조아」지식계급— 幾千의 유능한 XX者나 선전자를 제공할 수 잇는— 적극적 지지를 획득한 도움이 되리라. 언어의 문제는 신중한 주의를 요한다. 문화적 고립의 정책은 결코 장려할 것이 못되나 대학의 표준까지의 또 이것을 포함한 교육이 학생 자신의 국어에 의하여 처음으로 만족하게 바들 수 잇는 것이 보통의 경험이다. 말미아마 고등 또는 전문정도에 달할까지는 보다 광범하게 축적하기 위하여 타국어로 옮기면 아니된다. 중등학교 及 소학교에 잇서서는 이 일은 명백하게 적용된다. 말미아마 「국제어」의 문제는 고려할 값시 잇다. 吾等は 교육의 자유를 위하여 싸홈치 안흐면 안된다. 英國에 잇서서까지 관료는 학교나 대학이나 혹은 교사로의 비정통적 의견을 압박하고 있다. 印度에 잇서서는 특히 그러하다. 이고테는 교육은 관청의 선전기관에 옮겨잇다.(下略 - 원문)<46>

<43-46>

잡지명: 삼천리 제3권 제9호
 발행년월일: 1931년 09월 01일
 기사제목: 異民族과의 結婚是非
 필자:
 기사형태: 논설

異民族과의 結婚是非

特殊性을 考慮하라

金炳魯

엇던 민족이든지 다른 민족과 결혼하여서 못쓰란 법이 잇슬 까닭이 업겟다.
 이것은 인류의 문화발달을 생각하는 이로서 누구나 원측적으로 승인할 바이다.
 그러나 이러케 평범한 진리조차 이 문제는 우리에게 크나큰 생각을 던지어 준다. 무슨 까닭일
 가? 우리의 정치적 환경이 이것을 한번 고려하게 한다.
 대체 민족이란 무엇이나. 조선민족이고 앵그로, 색슨민족이고 한족(漢族)이고 하는 민족이란
 무엇이나.
 그것은 학자들이 일치하게 말하는 모양으로 그 땅우에 살고잇는 주민의 체질(體質)이라든가
 언어(言語)라든가 풍속전통<26> 또한 정치적, 문화적의 역사적 집단밖에 별다른 것이 안이나
 인류를 구별할 때에 이밖에 황색인종 백색인종 흑색인종 하는 등의 구분이 붓자면 또 붓겠지
 만.
 그래서 제민족의 혈통이나 교육문화를 옹호 발전하자는데서 혹은 민족주의자도 나오고 애국주
 의자도 나오는 것은 우리들이 늘 목도하는 바이다.
 사회주의자들은 흔히 언어 피부빛 체질 등으로 인류상의 차이(差異)를 설치할 것이 안이라 그
 런 것은 자본주의하에서는 계급적 이해 밋해서 일체가 해소되어 민족적 대립이란 잇슬 수 업
 다고 또 그것은 부질업는 일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조선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하는 말일뿐이
 다.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드려가서 나는 외래민족 또는 이민족(異民族)과의 결혼문제에 대하여 결
 론을 말하건대 우리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조혼 일이나 그러나 정치적 엇더한 작용
 밋해서 불순하게 이루어지는 결혼만은 굳게 피하라함을 권고한다.
 엇재서? 말하기 거북한 노릇이기에 그만두거니와 그냥 인간성과 인간성의 순수한 접촉이면 그
 것을 애써서 말니자고 할바가 업겟스나 우리의 처지가 십상팔구는 그러치 못할 것이다. 딴 민
 족과 결혼한다함은 벌서 그 가운데는 불순한 동기가 만히 끼워잇서 질줄 안다.
 그럼으로 나는 되도록은 또 당분간 민족의 고유성을 보존하여 혼혈(混血)을 피하는 필요상 우
 리는 제민족끼리 결혼할 것이라고 본다. 원측적으로는 어느 민족과나 결혼하는 것이 인간을
 까닭이 업겟스나 불순한 정치적 경제적의 동기 아래에서 출발한 결혼만은 굳게 피함이 옳을줄
 안다.
 마즈막에 오늘날 세계의 국제사법(國際私法)은 결혼하면 녀자는 남자의 국적에 입적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그럼으로 조선남자가 외국녀자를 데려오면 조선인구가 늘어갈 것이요 조선녀자가 외국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조선인구가 줄어질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조선녀자의 외민족출가가 만히질것이 아닐가.

在日 在滿 同胞問題와 國際主義

韓龍雲

조선민족은 조선민족끼리 서로 결혼하고 사라야한다 하는 말은 우리는 승인할 수가 없다. 만일 그러타하면 경기도사람은 경기도사람과 함경도사람은 함경도사람과 반드시 결혼하고 지내어야 한다는 결론에 떨어질 것이니 이래서는 첫째 사람이 안타가워서 살수가 업을 것이다. 인류의 문명은 서로 흐르는데서 진보가 있고 발달이 잇는 모양으로 인류의 피도 항상 다른 피와 다른 피의 접촉이 잇는데서 향상하고 발달되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사해가 한집안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가튼 동포라하는 국제주의(國際主義)가 전성하는 시대에 엇지 우리만이 결혼두 우리끼리 하려 하여야 하고 의식주도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여 살아야 한다 할것이고?

듯건대 유다야(猶太)민족들은 비록 국가는 멸망이 되었슬망정민족의식만은 매우 강렬하여 유대인종은 유대인종끼리 되도록 결혼을 하여 그 혈통(血統)을 깨끗하게 직히어 온다 하지만은 그러케 혈통을 한사하고 직혀온 유대민족들이 대체 일하여 노은 것이 무엇이나.

그네는 그러케 열망하면서도 아직 유대국가의 독립조차 이루지 못하고 잇지 안느냐. 그외의 여러 가지를 무러보아 무엇하랴.

대국으로 볼때에는 이러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에 처한 조선민족들은 이 문제를 그러케 가비엿게 취급할 성질이 아니다.

우리는 늘 보지 안느냐. 북만주에 가잇는 일백여만의 조선사람들이 혼기에 달한 그 子女를 본국에 보낼수가 업서 부득이 그곳에서<27> 중국인남녀와 결혼식히게 하는 현상을.

경제가 점점 군박하고 또 정치적 관계로 조선인 배척문제가 전성하는 이때인것만치 압흐로 조선인은 다른 민족과 본의업는 결혼을 할 기회가 만호리라.

이뻗게 가장 중대하게 고려할 것은 우리와 갓가운 땅에 잇는 그 외래민족과 사이에 장려가 되어잇는 동화적 결혼문제라. 이것은 크나큰 정치문제 사회문제로 한 장의 원고로 열는 기록하기 어려운 노릇이지만은.

요컨대 정치적, 경제적 불순한 동괴밋해서 이루어지는 외래민족과의 결혼에 대하여는 우리는 조선민족의 순결을 위하여 어대까지든지 피하지 안으면 안될줄 안다.

黑人の 例와 異民族間 結婚은 不幸

黃愛施德

내가 미국 잇슬때에 흔히 본일이외다마는 미국녀자들은 얼굴이 색가만 흑인종들에게 즐기어 시집을 가오테다. 엇재서 세상에 나뻗게 엽다하는 고만스럽든 그 미국 젊은 녀자들이 보잘 것 업는 흑인종을 조와해서 결혼하느냐하면 흑인종은 돈이 만호니까 그돈을 가지고 자기의 허영심을 만족식힐수 잇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흑인종들은 백인종을 저보다 몹시 높히보는 버릇이 잇다합니다. 그런데다

가 더욱 백인의 여자이니까 장가든 뒤는 자기의 안해인 백인 여자에게 극진히 공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여자들은 돈만코 저를 하늘까지 떠바쳐주는 흑인종들에게 얼마든지 시집을 간다합니다.

이 사실을 바라볼 때에 미국여자의 생각은 조선여자의 사상과 거리가 대단히 멉니다. 미국이라하는 나라가 원래 여러 각국인종들이 혹은 동에서 혹은 서에서 흘러드러와 모인 합중국으로 혈통(血統)에 대한 관념이라고 업습니다. 그우에다가 미국남녀들은 국가를 생각하겠는가 사회를 생각하겠는가 대부분은 개인주의에 흘러서 제한물이 잘 입고 잘 쓰면 그만이란 관념이 머리에 딱 박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여자들이 흑인종들에게도 작고 시집을 가고 미국남자들이 흑인종 여자들에게 장가드는 사실이 만타고 그것이 즉시 우리들도 외국인종과 서로 결혼하여 조타하는 리론은 서지안을 터이리라.

생각건대 우리 민족은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 민족과 서로 통혼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이민족에 대한 의무가 되어 올홀줄 압니다.

더구나 말하기 대단히 거북한 노릇이지마는 우리들은 지금 엇던 불순한 동괴미테서 우리의 혈통이 낫분 방향으로 작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래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되도록 피하여야 할것이외다.

말이 낫스니 말이지만 실상 판 민족자녀와 다른 판 민족자녀 사이에 이러난 결혼가정을 보면 불행하게 꾸을 맺는 것이 대부분이더이다. 내눈으로도 조선녀자로 영미국사람에게 출가한 이나 조선남자로 중국녀자 그밖에 다른 민족의 녀자를 취쳐한 가정을 보건대 열에 아홉은 행복스럽지 못하고 잇더이다.

엇더한 까답이나?

그것은 극히 간단합니다. 첫재 말이 다르고 둘째 수천년을 흘러내려오는 풍속습관이 맞지 안코 그러고 업는 듯 하면서도 가슴속 김히 흘러가는 민족감정 때문에 그리되더이다.

이미 행복스럽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차례의 경험에서 맛본 우리가 이제 또다시 외래민족간의 결혼의 잘못임을 이제 다시 거듭할 필요가 절대로 업는가 합니다.<28>

政策的 結婚만 排擊

禹鳳雲

조선녀자들이 일본청년이나 중국, 아메리카 로서아 등지의 외국남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 데는 대체로 세가지 리유가 그속에 잇다. 즉

첫재는 연애 때문에

시집을 간다. 생각건대 이러한 실례는 과거에도 펍으나 만하였다. 저 동경이나 북평에 류학갔든 조선녀학생들이 그곳 일본청년이나 중국 남자들에게 시집을 간 일을 그는 그러기 쉬울맛게 만리타국에 젊은 녀성이 혼자 가 잇스매 인정이 그럽고 그 인정을 찾자함에 그곳에서는 일상 생활상 접촉하기 쉬운 것이 오직 외국남성들 뿐임으로 자연히 그네와 교제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성간에 연애가 시작되기 쉬운 것이다.

대체로 이것은 류학이라도 갈만한 돈잇는 집 따님들의 행사이나 그러나 나는 그 동괴가 불순치 안은 한에서 외방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납부다고 생각하지 안는다. 물이 저절로 흐르는

것가치 순결한 젊은 사람의 이성을 찾는 불길이 저절로 불타기 시작하는 그 마당에 잊어서 「민족」이 다르다는 리유로 그 사이를 막자하여도 될 까닭도 업겟거니와 그리할 必要가 아예 업는 일이다. 연애는 국경을 초월한다. 민족의 계선(界線)과 종족(種族)의 방축을 뛰어넘어서 흐른다. 엇지 연애뿐이라. 모든 현상이 래일날은 모다 그러케 되어야 올홀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결한 동지에서 나와 행복스러운 연애거든 어서어서 국경을 초월하여라. 민족의 한계를 끈어버리고 흘러라. 크게 흘러라.

둘째는 노예결혼이다.

즉 돈 때문에 외래민족에게 시집을 간다. 돈이 업스매 그 빚 때문에 안해와 딸을 중국인 지주들에게 팔아먹는 실례가 남북만주에 엇더케나 만흔가.

배추 한폭에도 정조를 더럽히는 일이 잇섯다함은 우리들이 각급 신문지상에서 보는 일이 아니냐.

이 사회에서 생활하여 가자면 비참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두가지 아닌 속에 이 돈 때문에 외국인에게 시집을 가는 사실도 만히 잇다.

이 노예결혼은 과거에도 막혔거니와 압력으로 빈천계급의 격중 따라에 더욱 만히질 것이다. 비참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대로 안즌대로 잇는 한에는 엇절수 업는 일이다. 피하래야 피할수 업는 뚜렷한 현실일 따름.

셋째는 허영적, 인형적 결혼이다.

무엇이 허영적(虛榮的)이요 무엇이 인형적(人形的)이나. 그것은 제삼자를 깃부게 하기 위하여 남의 꼬임을 받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다. 즉 국가의 정약상 갑의 민족의 혈통과 을민족의 혈통을 혼합시켜 혼혈인종(混血人種)을 창조하자는 견지에서 하는 소위 동화정책적 결혼이 잇다. 이것은 빨조아사회에 잇서 정복국가가 흔히 자기의 식민지에 대하여 식민정책상 쓰는 일이 만타.

나는 거북하여서 더 자세한 례를 들지 안는다.

또 허영적 결혼이란 무엇이나. 국가나 통치자가 바라는 바의 엇든 형태의 결혼을 이루는데서 무엇인가 보수를 받는 일 다시 말하면 관리에 등용하기 쉬웁고 은행에서 돈을 쓰기 쉽고등... 이런 종류의 결혼은 만타. 그러나 이것은 모다 인격업는 해자비들 행사라 족히 조쿠 그르고 엇저고 론평할 여지업는 일이다.

우리는 이 인형적, 허영적 결혼을 배격하여야 한다. 무슨 정책상에 하는 결혼- 엇더케나 더러운가.

문제는 엇지 조선녀자와 외국남자에게 시집가는데만 쫓치랴. 외국녀자가 조선남자와 결혼하는데 대하여도 그것을 분석하여 보면 전깃한바 세가지 리유밧게 업고 그 리유에 대하여는 녀자 출가와 가튼 견지로 비판할 뿐이다.<29>

<26-29>

53.

잡지명: 동광 제25호

발행년월일: 1931년 09월 04일

기사제목: 民族的 對立과 滿鮮事件, 在滿同胞問題特輯

필자: 日本 長谷川萬次郎 일본 장곡천만차랑

기사형태: 논설

民族的 對立과 滿鮮事件, 在滿同胞問題特輯 (민족적 대립과 만선사건, 재만동포문제특집)

日本 長谷川萬次郎

이것은 일본의 좌익 평론가가 본 滿鮮事件의 비판이다. 좌익의 입장에 섰느니만치 민족문제는 극히 객관적 태도로 본 것이다. 지면 관계로 그 頭尾 양단만을 抄譯하였다.

최근 만주에서 빈발되는 支人の 鮮人 압박과 거기 대한 鮮人の 대규모적 보복 행위와는 금일 고도의 자본주의적 발달의 세계에서 투쟁형식으로는 매우 원시적인 것이었다.

18세기의 歐洲 諸國의 신세계에 대한 발전은 민족 경쟁의 形으로 싸웠으나, 산업혁명의 진전과 같이 점차로 경제투쟁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커늘 滿鮮에 在한 최근의 투쟁은 더욱 「민족적」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 같다. 자본주의적 투쟁의 무대로서 최신의 투쟁 형식으로 싸와지리라고 생각되는 만주대륙에서 고대적 민족 이동의 경쟁에 相似한 원시적 폭력적 쟁탈전이 국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통신 기관의 발달로 그 투쟁의 심적 전파력이 스피드업되어 萬寶山 사건이 곧 조선 내지로 반영되는 사태를 生하였다.

고도의 자본주의적 경쟁무대에 이러한 구세기적 민족투쟁이 발발하는 것은 재작년 秋에 팔레스타인에 일어난 유대인과 아라비아인의 투쟁이며 인도에서 빈번히 발발한 회교도와 인도교도간의 투쟁과 같이 금일의 경제투쟁이 고대 중세의 그것과 같이 「민족」의 이름으로 싸와지는 것을 보이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低度の 경제투쟁으로서의 농민적 민족전쟁의 形을 취할 경우거나, 고도의 경제투쟁으로 자본가적 국가투쟁의 形을 취할 경우거나 다 같이 「민족적」이다. 오직 支那의 농민과 조선의 농민이 싸우는 경우의 배경인 「민족」은 원료 그대로이지마는 각국 자본가가 支那 대륙에서 경쟁할 때는 「민족」의 정제된 것, 즉 「민족국가」를 배경으로 한다.

(중략-원문)

만주에 관한 日支간의 諸問題는 支那에 대한 열강의 자본주의적 침략이 支那 자체를 식민지로부터 자본주의 국가로 成育하는 과정으로 밀어 올린 당연의 결과로 生한 것이어니와, 최근의 조선인 배척 문제도 요컨대 자본주의화하는 支那가-즉 支那의 자본주의사회가-외국의 착취지역이 되어 있는 자기의 영역을 자신의 착취 지역으로 독점하려는 필연적 요구에서 생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

支那의 국민운동은 외국 자본주의적 勢에서 해방되려는 운동이지마는 결코 그 자체의 자본주의 세력에서 해방되려는 운동은 아니다.<8> 자체의 자본주의 세력에서의 해방이 아닌 이상 외국의 자본주의 세력에서 해방되겠다는 것도 불가능의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민족국가의 자본주의적 대립은 전혀 개개의 자본가의 대립과 마찬가지로 결국 최고 자본국의 세력에 통일되는 성질의 것인 까닭이다. 금일 여하한 독립국가라든 미국의 세력에서 전혀 독립할 수 없다는 것도 그 관계다. 그러나 시민혁명은 그 봉건적 국가형태를 타파함에 있어서 당연히 관념적으로 민족적이 되는 것이요 자본주의적 국가경쟁으로의 진출에서도 국가적 단위 되는 자격을 얻지 못하면 그 경쟁에 있어 각종의 국가적 수단을 충분히 실행할 수 없는 불이익에서 면할 수 없다. 支那의 민족주의적 배타도 이 목적을 因함으로 민족정신의 昂奮에 動機

하는 것이 아니요 자본주의적 타산에 動機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자본주의 발달에 대하여 결코 불이익이 아닌 사실을, 또한 자본주의적 타산에서 유리한 사실을, 민족적 배타주의의 形으로 거부하는 예가 不少하다. 예하면 흑인의 미국에 在한 발전은 아메리카의 자본주의에 何等 불리를 持來한 것이 아니나 미국인의 흑인의 배척은 더욱 熾烈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의 중심적 利害만이 민족적 심리를 독점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부득이한 일이다. 미국의 흑인의 경우에는 저렴한 노동력이 대량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그보다 고가의 노동력을 가진 아메리카 노동자에게는 치명적 타격이 되는 까닭으로, 인종적 감정은 이 노동상품의 경쟁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의 배타는 인종적 반감이 없더라도 당연히 일어나는 사실이다. 전시 중에 영국 노동자는 대륙에서 피난 노동자의 침입해 오는 것을 반대했을 바 이것은 배타가 결코 인종적 감정에 근거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일례다.

조선인의 만주에 대한 침입도 또 그러한 사정으로 支那側에게 거부될 이유는 잇는 것이나 이것은 다시 그를 일본의 자본주의 침략에 伴한 인구 이식의 수단으로 본다는 2종의 배척 이유가 있다. 금일의 鮮人 배척이 차라리 그러한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고 하면 이는 도리어 순연한 자본주의적 대립을 동기로 하는 것이다. 만주의 支那 농민 자체는 차라리 鮮人을 농노와 같이 虐使하거나 혹은 그 개간지를 합법적으로 掠取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나 결코 단순한 인종감정에서의 배타는 行치 않는 것이다. 萬寶山 사건과 같은 것은 水利문제라는 특수한 사정이 支那측 농민과의 충돌을 지었으나 여기에도 정치적 동기에 의한 선동이 잇었다고 한다.

만주의 鮮人 배척이 주로 정치상의 이유에 의한 것임은 支那側이 鮮人에게 귀화를 강요하는 것을 보아도 명백하다. 경제적 배타의 경우에는 도리어 귀화는 거부되는 것인데 支那側이 귀화한 鮮人에게는 배척을 완화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支那人은 일본이 자본주의적 침략의 수단으로 鮮人 이식을 試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대항하는 것이 틀림없다.

일본이 과연 그런 의도를 가지는가 아닌가는 문제나 비록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일본은 원래 만주 경영의 목적을 일본의 인구문제의 해결에 둔 것인즉 그런 추측을 받아도 부득이하다.(중략-원문)

현재 我内地로의 침입은 매우 엄중히 防壓되고 公私의 기관에서 송환의 방법까지도 취하고 잇거니와 그래도 일본의 노동자의 最低층은 거이 鮮人으로 독점되라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만주는 그 점에서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유를 가지고 있음으로 그 방면으로 이동이 行하는 것은 자연적 경향이요, 비교적 장애가 없이 금일에 이른 것이다. 만주 及 내몽고에 잇는 支那人의 인구는 약 3천만으로 추산되는 바 거기 대한 鮮人은 일층 부정확하나 백만 내외라고 한다. 외국인의 본국 인구에 대한 비율로는 적은 편이 아니나 그러나 그 경제적 충격의 적었든 것은 미대륙의 歐洲 인구의 그것과 相似하든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 경향을 防壓하는 것은 전혀 민족 국가의 대립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관념적 대립으로 생활 利害와 몰교섭으로 흥분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조선에서 支那人에게 대한 鮮人의 보복<9>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민족적 대립이 既述과 같이 시민형태로서 필연의 것이라 하면 滿鮮事件은 가장 미세화된 형식을 취하여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따라 금일의 자본주의의 고도의 표현으로서 민족국가는 이러한 원시적 撞着을 최후의 투쟁형식, 전쟁으로까지 발전시키는 일은 萬萬 없다.

오직 支那는 만주에서 고도의 자본주의적 경쟁의 수단으로 이 鮮人 인구 이동의 문제를 이용하기 위하여 혹 위험 形相을 모하게 될 일은 잇겠지마는 그런 사태는 쌍방의 자체로서 진정 될 것이다.

그러나 민족국가의 대립 그 물건은 既述과 같이 제국주의로서 그 최고 형태를 취하고 결국 전쟁의 심적 준비로서 물질적의 군비와 같이 현재의 국가로서 지지되고 자본주의 그 물건과 함께가 아니면 결코 약해지지 아니하리라.

자유주의 시대의 불주와 평화주의가 마츨내 민족의식을 극복치 못한 것도 그것이 자본주의적 사회형태에서의 정치국가의 당연한 성질인 까닭이다. 그것은 몰락의 전쟁을 자극하는 심리로서 몰락 그것이 오기 전에는 결코 해소안될 의식이다.

(批判 7, 8월호에서) <10>

<8-10>

54.

잡지명: 삼천리 제3권 제10호

발행년월일: 1931년 10월 01일

기사제목: 朝鮮民族의 文化向上과 民族的 大計

필자: 上海 安昌浩 상해 안창호

기사형태: 논설

朝鮮民族의 文化向上과 民族的 大計 (조선민족의 문화향상과 민족적 대계)

上海 安昌浩

오늘날 朝鮮의 現狀을 멀리 해외에서 觀察하건대 經濟적으로 어려운 處地에 빠지어 잇서서 全民族의 대부분이 생활의 곤란을 느끼고 극소 부분의 자산계급도 급속도로 몰락하여 가는 현상이 각 신문 잡지 등의 통계에 나타나는 바에 의하여 명백함에 불구하고 他面 이러한 민족적 수난을 타개하여 민족의 생활과 정치적 지위를 신장하려는 民族的 大計가 이와 동일정도로 집중 표현되지 못하고 계급 운동자는 계급 독자의 정치적 주장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의 현실 내용과 거리가 먼 넘거나 주관적 운동으로 열중하는 경향이 있고 민족 운동자는 넘거나 退嬰的 소극적 태도를 취하여 통일된 정치적 주장과 정치적 견해를 집중치 못함과 갓틈은 심히 憫着하는 바이다. <2> (중략)

그러나 一面 최근에 이르러 군중의 문화적 계몽과 정치적 의욕을 지도 표현하는 출판물이 과거보담 양적 질적으로 놀라운 내용을 가지고 만히 나타나는 것은 심히 김버할 현상이다.

이것은 오늘날 조선이 아모리 빈궁한 가운데 잇다 할지라도 문화적으로 전보담 훨씬 진보되고 또한 대중이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려고 하려는 욕구가 전보다 더욱 강하여짐을 例證하는 바니 이때에 잇서 조선의 모든 지도자는 각자 편협한 견해와 주관적 입장을 떠나 전민족의 힘과 요구를 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좀더 深刻한 民族的 大計 우에서 통일 집중하여 조선운동의 新機運이 전개되기를 企望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잇서 잡지 三千里도 일부의 역할을 演할 것을 기대하고 또한 그리하고 잇는 것을 알고 김버하며 이제 三週年을 맞는 주간 金東煥氏의 노력을 稱揚하여 그 前途를 祝하는 바이다(下略-원문) <3>

<2-3>

잡지명: 삼천리 제3권 제11호
 발행년월일: 1931년 11월 01일
 기사제목: 弱小民族運動과 領主國 態度
 필자:
 기사형태: 논설

弱小民族運動과 領主國 態度 (약소민족운동과 령주국 태도)

比律賓運動의 現狀과 米國 態度
 金佑枰

1. 緒言

1847년대부터 比島人의 민족적 의식은 싹트기 시작하였다. 당시 「그래씨아노, 로페즈, 제나」(Graciano Lopez Jaena)씨는 比島人의 민족적 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라, 솔리다리다드」(La Solidaridad) 신문을 창설하였다. 邇來 보급되는 민족적 의식은 날로 강대하게 되었으며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靑年比律賓黨을 중심으로 한 「리잘」(Rizal) 「마세셀로, 델필라」(Marcelo Delpilar) 「로페즈, 예나」(Lopez Jaena) 及 「아폴리나리오, 마비니」(Apolinario Mabini)씨 등에 의하여 더욱 굳세게 되었다.

그리하여 1891년 리잘씨를 首領으로 한 「리가, 필리피나」(Liga Filipina)라는 단체가 조직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카티푸란」(Katipunan)이란 단체도 조직되어 회원 수는 실로 40만을 산하게 되었다. 민족적 의식에 의하여 (The Cry Of Ralintawak)의 제 1聲을 부르짖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이도 1898년 米西戰爭의 결과 巴里會議로 인하여 比律賓人은 5백만 磅의 금전으로 주인을 못처 米國人에게 팔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네는 생기를 진작하였다.

문화의 발달에 의하여 민족적 자결사상은 全피압박민족을 통하여 전폭적으로 과급됨에 比島人의 민족운동도 계속하여 맹열하여야겠다. 그 위원회를 조직하여 同위원회 公會 혹은 언론기관을 통하여 미국의 여론을 所期의 방향에 전환 集注 시키려고 비상히 노력하는 중이라 한다.

1930년에는 특히 가을 마닐라에 제 1회의 全比島會議가<2> 개최되어 종래에 업든 구체적 때몬스추레손이 잇섯으며 따라서 운동은 劃時期的 활약을 試하게 되었다.

2. 왜 比島人은 獨立을 願하는가

「比島는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며 또한 그 일부를 구성한 영지도 아니다. 다만 所領이다. 比島民은 米國시민도 아니며 또한 米國으로 보아 外人도 아니다. 如斯히 애매한 比島 及 比島民의 지위가 如何히 我等의 정신적 향상을 저해하는가 헤아릴 수 없다. 比島民은 물질적 풍요 보다도 차라리 국민으로서 독립하기를 열망하는 바이다」라고 한 것은 華盛頓駐在 比律賓위원의 1인이 米國議會에서 논술한 1절이다. 뿐만 아니라 比島 독립을 주창하는 國民黨의 수령인 「임마뉴엘, 케손」씨는 「比島가 언제나 었더한 국가에 예속하여 잇슬진대 차라리 해저에 침몰되어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절규하였다. 비록 이것이 간단한 형용문구이나 比島民의 심정을 그대로 표시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좀 더 상세히 比島民의 독

립에 대한 심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獨立議會 최후의 총회에서 가결된 결의안이 열거된 독립 요구 主旨 14개조를 논하면 이러하다.

1. 쏘스법이라고 하여 주지된 米比규약의 실행할 시기는 도래하였다. 吾人은 米人의 약속을 존중히 생각한다.
 2. 吾人은 민족자결주의를 승인한다. 그리하여 米人지배의 下에 在한 최선의 정부도 실코 比島民 자신의 手에 의한 如何한 정부라도 이것이 勝하다고 확신한다.
 3. 吾人은 전쟁에 의하여 亞細亞에 잇서서의 최초의 공화국을 失하였다. 吾人은 재차 此를 획득하기 까지에는 정신적 평화를 늦기지 못한다.
 4. 다수한 독립국민에 비교하여 吾人은 정치, 경제 양 방면에 보담 우성한 준비를 하였다. 吾人은 독립에 대한 책임과 위험과를 직면할 준비가 잇스며 또한 직면하기를 焦慮한다.
 5. 독립에 대한 최선의 준비는 독립하는 것이 곳 그것이다. 그리하여 吾人은 外人지배의 번뇌에서 탈출한 자유의 분위기에서 민족으로서 가장 우량한 지능과 才力을 진전 실현할 수 있다.
 6. 米國의 지배 하에 잇습이 一日이라도 長하면 米國과 정치 及 경제적 관계를 斷하기가 그 만큼 곤란하다.
 7. 比島에 잇서서의 米國정치대표자의 정책은 항상 동요하여 혹자는 獨裁官과 如히 오만하며 혹자는 민주적 정책을 수립하여 比島民으로 하여금 절망과 의혹에 고뇌케 한다.
 8. 比島독립문제가 결정되기 까지에는 比島民은 他 절박한 문제를 不顧하겠다.
 9. 제국주의론자에게 의하여 악선전된 소위 <3> 「국민으로서의 吾人의 무능력」이라는 汚名으로 인하여 자기비판은 장려되지 못하며 사회적 及 정치적 진보는 이로 인하여 저해된다.
 10. 比島의 자연적 부단의 경제적 발전은 관세 제한으로 인하여 저지되었으며 제한된 자유통상은 불합리한 그것으로서 차별적 경제입법에 의하여 脅威되는 중이다.
 11. 최근 太平洋 연안의 頻頻한 소요의 사실을 본다면 米比 양민족이 동일 國旗 下에 친화적 접촉을 보유하기를 그 종족, 역사, 문화의 상위에 鑑하여 곤란하다.
 12. 比島의 독립은 米國의 역사와 전통과에 합치되는 유일한 정책이다. 今日 比島共和國을 실현식힘으로 인하여 米國은 재차 被억압민족의 투사가 될 것이다.
 13. 比島의 독립은 亞細亞에 新光明을 주는 것이다. 대륙의 最端까지 米國의 민주주의와 공화정신을 보급 식이는 세움이다.
 14. 자유와 독립과는 米比간에 우교와 이해를 촉진하나 保持와 지배와는 불신과 惡感을 양성한다. 吾人은 對米 우정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고로 米國이 此 우정을 불변케 하는 유일한 정책을 취하기를 기도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즉 比島의 독립이 이것이다.
- 如斯히 比島民은 민족적 자결을 切願하며 평화와 정의의 숭고한 심정을 米人에게 보이었다. 그러나 米國人的 그 소위 해결정책이란 것이 구체적 강령을 의미하는 것이란 것 보다 차라리 彼等の 도의적 감격에 불과하였다.

3. 米人의 比島獨立觀

米人의 심리가 如斯함으로 米國 역대 주권자의 생각에 의하여 比島獨立運動의 실현 방법 及 조건도 각양각색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政形과 경제적 상태가 변함에 의하여 彼 米人의 지배욕은 따라서 확대되어 今日에 至하게 되었다. 이에 彼等の 반대 이유를 條目으로 설명하면 이러하다.

1. 比島에는 언어의 수로 말하드라도 43종이나 되며 종족별노 보드라도 그 수가 또한 그러타. 그리하여 互相 猜忌가 多하다.

2. 교육도 불충분하여 전인구의 6할이 문맹이며 겹하여 우세하다는 기독교계 比人에는 아주 민주정치적 훈련이 부족하다.

3. 比島는 現下 米國에의 사탕 등 무세수입 及 煙草稅 拂戻의 덕으로 재정을 유지하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3억원의 公債도 米國의 보증이 있음으로 低利하다. 如斯한 재정상태도 불구하고 比島가 米國에서 분리한다면 파산을 미면할 것이다. 특히 독립한다면 신규모의 국방비, 공사관 이하 외교기관비가 잇게 되겠스니 안심하지 못할 재정상태가 될 것이 明若觀火의 사실이다.

4. 米國이 比島를 점유함으로 태평양의 군세상 중요한 의의가 있다.

5. 米國의 東洋 무역발전의 배경으로 보아 중대하다. 뿐만 아라 熱帶系 물자를 소유하지 못한 米國에 이것을 공급할 수 잇는 유일한<4> 지역인 때문이라 한다.

독립 반대의 條目으로 대략 5개목을 열거하였스나 1, 2, 3으로 말하면 米國의 터무니 없는 구실이닛가 가히 논의할 가치도 업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現下 국제정세로 보아 4 及 5 즉 정치 及 경제적 이유로 米國은 比島독립을 반대하는 것이라 한다. 太平洋의 均勢를 취한다는 것은 만일 米國이 比島에 독립을 許與하면 日本의 好餌가 될가 하는 의혹이다. 日本의 군국주의는 여하간 現下 민족자결聲이 전세계를 풍미하며 또한 피지배민족의 쓰라린 체험을 389년간이나 가진 比島人으로서 제 3차로 他 민족의 지배를 受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米國이 太平洋上 세력으로 보아 현상을 유지하기 불가능 할가를 우려하는 소치이다. 그러면 如斯한 정치적 이유가 그 하나이나 제 2로는 경제적 조건이라 할 것이다. 一例로 말하면 1929년 米國의회에서 최초로 比島경제문제가 토의되었는데 하원관세조사위원회에서 米國 서부방면의 煙絲糖 업자와 큐바 糖업자가 연합운동하여 比島製糖의 無稅 입국을 여하히 하드라도 변경시킬가 하여 노력한 사실이다.

즉 無稅比島製糖移入高制限案이었다. 그러나 此 案은 華盛頓駐在 比島 독립운동원의 활약에 의하여 부결되었다. 그 다음으로 上院에서 관세 토의가 되었을 때 「뿌루사드」(Broussard)씨는 比島製産의 물자에는 총히 과세함을 得함. 이라는 案을 제출하였스며 補修策으로 「比島가 독립하는 경우에는 同 島의 보전과 주권과에 관한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米國 주최 하에 열강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이면에는 즉 比島독립이란 것 보다도 장래 比島독립이라는 이유로 독립실현 이전에 잇서서 比島産 砂糖에 점진적으로 과세하여 目下 그 경쟁적 지위에 잇는 米國 糖 업자를 이롭게 하자는 것이다.

4. 結論

如斯한 제반 정세로 보아 米國인의 比島獨立觀으로 말하면 현상 유지에 불과한 것이라고 안이할 수 업다. 現下 米比 양국의 관계로 보아 比島의 독립은 米國측의 자발적 행위로서 실현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가장 조흔 일이라 안이할 수 업을 것이다. 現下 米國의 여론도 이 문제가 세력을 得하는 듯 하다. 올타 米國은 존스案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일 약소민족에 대하여 엄숙히 서약한 言質의 청산으로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他便으로 생각컨대 現下 막대한 문제가 되어 잇는 경제적 압박의 결과 比島독립이 실현할지도 모른다. 하여간 如斯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양출되는 국제적 기운의 불가피적 압박의 결과 실현될지도 모를 것이다. 이에 단언하는 바는 假使 米人이 滿幅의 성의로 연신 比島 내의 경제적 자원개발에 공연 협력하여 比島人에게 물질적 번영을 享受케 한다 하드라도 比人은 독립의 이상을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네는 바린다와 公園의 比島운동 제 1聲 紀念像에 모이기를 게을리 아니 할 것이다.

最近의 安南運動과 佛蘭西의 態度

M市에서 柳致觀

一

安南은 면적이 70만키로메-돌(조선의 倍)이오 인구는 3천만명인데 처음 佛蘭西가 安南에 着目하기는 지금부터 267년<5> 前(1664년)으로 역시 佛國 東印度會社가 毒牙를 감추고 드러와서 諸 種의 경제적 활동과 新舊王의 조종과 종교의 포교로 꾀를 어더 나중에는 크게 정치적 세력을 펴게 되어 마침내 安南의 내란을 一期로 佛安密約을 1787년에 체결케 되었스니 거기에는 佛蘭西는 安南에 보병 1,200 포병 200 기타 합계 1,650의 兵隊와 군함 4척을 공급하는 대상으로 泓島를 佛國에 대여하고 又 崑崙島를 할양할 것과 (물론 주권도 행사) 佛國 安南領內에서 통상포교의 특권을 획득하기로 된 것이었다. 그 뒤 獨逸이 膠州灣을 略取하드시 佛國人 선교사의 박해를 구실로 佛國은 1856년 나과룬 3세 때에 대군을 動하여 安南 諸領을 공략할 때 동양침략의 이 노도 가튼 세력을 막을 길이 업섯 또한 「新保護條約」이 強弱不同한 2국 간에 체결(1883년 8월 25일) 되었스니

1. 安南은 佛蘭西의 보호를 승인하고 順化駐劄佛國監督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佛國과 교통함을 不得함.
2. 安南領 「힌즈암」을 佛國에 할양할 일.
3. 安南의 관세를 佛蘭西의 행정 하에 置할 일.

기타 군대주둔, 전선개설, 安南 군함매수 등의 諸 권리를 획득 하였스니 이미 安南의 대세는 此 조약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리하여 승승장구를 1887년에는 佛國은 交趾 支那, 東京, 安南, 東蒲塞 등을 합하여 佛領印度支那라 칭하고 총독을 置하여 전반을 통할함에 까지 至하였다.

二

그러면 佛蘭西 代官들이 安南人을 엇더케 통치하였든가. 그네는 처음 과학식 학문 교수로 국민교육의 宗旨를 삼었스니 中國서 건너온 夢遊文字, 山林文學인 曰「八股文」 曰「詩賦」 曰「詞章」 운운하여 현실과 유리하기 지극한 此種 학문 간에 6세부터 전심케 하였스니 此 「문화정책」이라 그리하여 3년에 한 번씩 이 거지 가튼 腐儒들을 모아 시험을 보여서 「進士」를 주었스니 此가 그네의 정신을 거세함에 잇서 위대한 功効가 잇섯을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업스리라.

積年の 이 폐해가 其 극에 달함에 식자의 奮起가 잇서 약 10년 전에 겨우 이것이 폐지 되었스나 그러나 그에 繼하는 신교육 방침을 보건대 금번은 소학교라 하여도 체조나 창가 가튼 것은 전부 업고 오직 잇다는 교과서도 전부 佛蘭西의 화려위대를 찬탄하는 기록 뿐이었다. 법률로 말할지라도 실로 無所不至하여 사형 종신처형이 朝飯事요 苦役의 類에 이르러선 극도라 할 것이다. 더욱 내란죄 운운하여 민중운동자를 혹벌하되 하등 의거할 증거 업서도 체포, 감금처형이 가능하고 「二人 이상이 商議하면 此를 음모로 본다」 함에 이르러는 실로 言語道斷에 다할 뿐이었다.

엇지 여기에 止하랴 苛斂誅求가 又 심하여 일반 公課의 중압은 물론 결혼하자면 결혼세 사람이 죽어 장례하자면 장식세 연회에 연회세 가축에 가축세 3인 이상 집회하면 집회세 그 외에 맛업는 전매국 연초를 팔며 아편을 금치 안코 고을의 관세로 왜국주의를 취하는 등 각 방면 골고로 그 소위 철저한 바가 잇슬 뿐이다.

그러나 중압이 있는 곳에 자유운동은 또한 필연적으로 이러나는 것이라 巢南子潘是漢씨가 64세의 老軀를 들고 쫓기하였스니 원래 同씨는 安南이 최후 망하든 때에 19세의 청년으로써 士族청년들로 勤王隊를 조직 활약하였고 이후 40년을 침식이 단 때가 업시 日本, 中國 등 내외지로 잠행하면서 크게 활동하였든 분이다.(중략-원문)

그 뒤 大戰 직후에는 국내의 강압이 너무 심함에 뜻있는 청년이 巴리에 만히 모여서 潘周楨씨를 중견으로 安南黨을 조직하고 활약하였고 그제부터는 민중운동은 遼遠의 火勢로 확대 강력화 하였스니 즉 「사이곤」의 난, 총독습격사건 南定農民 5천의 운동 사이곤兵工廠 천명 노동자의 盟罷 그리고 금년에 至하야 2월과 3월 사이에 군대 내에 반란이 起하고 혁명당원의 河內 재판소 경찰서 헌병대에 대한 폭과사건 安市內의 駐屯隊 습격 東京中部黑河 渡船場의 점령 람다오의 함락 知事邸 방화 등 실로 이목을 놀나게 하는<6> 큰 사건이 接踵而起 하는 형세에 이르고 말었다. 이리하는 한편 천여 명은 투옥되었고 또한 체포 감금 처형이 日夜 성행함에 至하였다.(략-원문)

三

이제 최근의 대세나 기록하고 이 붓을 노기로 하자. 去 3월 24일 河內上審院에서 南定공산당 사건의 재판이 있을 때에 고문관 「보즈텐-」씨를 주석판사로 하고 安南독립운동에 대한 조직의 보고 발표가 있었다.

즉 佛蘭西의 印度 支那 통치에 반대하는 반대당은 국가, 군주공화, 사회공산 등 각 主義에 분파되어 잇스나 이 모든 당이 越南을 佛國 통치에서 이탈시키어 新政體설립을 기도하는데는 완전히 일치되어 있다.

이제 佛國 관헌이 조사한 각과 각당을 보건대

1. 革命黨=此 당은 국외에 탈출한 모든 혁명운동자의 단체로 본부는 廣東에 置하고 孫文의 三民主義에 준거한다고 하나 국가와 계급과를 중히하고 당원이 모다 越南에 1개의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통치권에서부터 독립하려 한다.
2. 越南國民黨=1926년의 조직으로 순수적 君主主義의 결사.
3. 越南青年革命同志會=민주주의의 경향이 잇스나 공산주의자가 依然 우세하다. 총본부는 廣東에 置하고 又 同處에 정치학교를 두어 安南人에게 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又 黃浦군관학교에 재학하는 당원이 다수하다.

이렇게 安南에는 東洋共產黨과 越南共產黨이 잇서 활동하고 잇슴을 擧할 수 있다.

즉 이상을 요약하면 제 1은 安南王을 봉하고 입헌군주국으로 하려는 것, 제 2는 土耳其 모양으로 대통령을 선거하야 입헌민주국으로 하려는 것, 제 3은 러시아와 가튼 공산주의국가로 하려는 것이다.

四

그런데 통치자 佛蘭西는 이에 대하여 작년 2월에 내란진압법을 設하야 安南의 운동자를 극력 압박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금 표면은 심히 평온을 飾하고 잇스나 내면으로는 深度의 潛行운동이 잇슴을 웬만한 식자들은 모다 알고 잇는 터이다.

실로 佛蘭西의 安南에 대한 태도는 시종이 일관하게 위압정치였다. 생각하면 저 歐洲大戰 때에 安南人은 6만 명이나 佛蘭西에 출동하야 佛軍과 합작하였고 또 18만 명이나 후방근무를 하야 그 동안에 安南軍의 희생도 不少 하였것만 佛蘭西는 전후에 오히려 더 가혹한 태도로 이 불우한 식민지에 대하였든 것이다.

대전 후의 환멸은 安南人을 시켜 크나큰 자극과 반성을 주어 민족운동은 가장 급속한 도로 성장하여 갔든 것이다.

이제는 安南人의 요구는 자치도 아모 것도 아닌 것이 판명되었다.(중략-원문)

거대한 세력으로 움직여지는 安南人의 운동에 대하여 영주국 佛蘭西는 무엇으로써 이것을 대하려 하는지 나는 오작 이곳에서 이를 주시할가 하노라.(끝-원문)<7>

<2-7>

56.

잡지명: 삼천리 제3권 제11호

발행년월일: 1931년 11월 01일

기사제목: 弱小民族 文藝特輯

필자:

기사형태: 시

弱小民族 文藝特輯 (약소민족 문예특집)

印度

印度에게

사로지니나이두, 異河潤(역)

오! 아득한 옛날부터 끈힘업시 젊은 당신이어!

일어나서요 어머니 일어서서요 당신의 어둠에서 다시 살아나서요

그리하여 天體를 배우하는 고귀한 신부와 가치

당신의 늙지 않는 모체에서 새로운 영광을 나하노서요!

암흑에 억매인 궁민들은 울며

당신에게 기원하야 위대한 서광이 터 오는 곳으로 인도하라고 부르짖나이다...

어머니 오! 어머니 어딴서 주무시고 계시나잇가

일어서서 당신의 자손들을 위하야 대답해주세요!

장래는 여러 가지 소리를 질너 당신을 부릅니다

신월가튼 명예로 화려로 거대한 승리로 인도하라고

깨서요 오! 주무시는 어머니 그리고 왕관을 쓰서요

당신은 일찍이 과거의 왕국 녀왕이었나이다<66>

별가리아

나의 몸도

콘스탄틴.벨리취코브(작), 岸曙(역)

이몸도 이 世紀의 불상한 아들
마음에 신앙일코 뒤복기노라,
십자가를 본단들 생각날 것가
의미 업는 標일 뿐 그저 가노라.

그러컨만 예배당 들여다 보니
어인 일가 하얏케 세인 늙은이,
아들예고 외롭은 늙은 마나님,
위안을 어드랴고 모다 모헛네.
경건한 맘 예수를 대할 때 마다
성당을 내왓노라 깃분 생각에
맘에선 설은 후회 눈물이 되네.

혼자로서 생각을 나는 고요히,
識者들아 그대를 저주하노니,
저 하늘 비엿다고 웨 가르쳤나.<67>

短章

찬코.체르코브스키(작), 金億(역)

우리는 서로서로 바라보거니
말도 업시 잠잠코 그저 보나니
우리들은 모도다 병어리든가
안이라면 무엇이 생기람인가

그러나 우리들이 문득 웃을때
그와 나는 다가치 뜻을 알거니
눈과 눈이 언어를 가릿길래로!
우리는 바라보며 그 뜻을 아네

저녁일제

들우를 헤매들며

머리우의

별들을 헤여보노라.

어이하야

하늘에 별들이 안뵈는가

아니러라 그것은

그대의 두 눈알인 것을

附記 이 拙譯 두 편은 「별가리아」 사람으로 일찍히 대신이 된 일까지 잇는 시인의 것으로
에쓰 어역 「별가리아 문집」에서 옮겨왔습니다. 「별가리아」국에서 전원시가로의 이 시인의

명성이 상당히 높다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몸도」 마찬가지로 그 문집에서 옮긴 것이외다.<68>

애란

덧

제임스.스티븐스(작), 異河濶(역)

별안간 고통의 부르짖음이—
덧 속에 툇기가 걸닌 것이다
이제 다시 그 소래가 들너는 오나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업노라

그러나 그가 구원을 어드려고
어디서 부르는지 알 수 업노라
놀내인 대기 우에 소리 지르며
무에나 모두다 두려웁게 하며

무에나 모두다 두려웁게 하며
적은 낫홀 우으로 집흐려 올니며
또다시 구원을 부르지즐 때
그곳을 나는 찾지 못하겟노라

그의 발목이 덧 속에 끼인 곳
그곳을 나는 찾지 못하겟노라
적은 것이어! 오 적은 것이어!
곳곳이 다니면서 나는 찾노라<69>

헝거리아

늪은 총각의 노래

칼로즈세이(작), 岸曙(역)

노리터에 저녁이 하도 깃불제
잔 들고 흥이 겨워 담배를 피네
길 나서 선 모자를 모로 채쓰고
멋붙이며 계집에 뒤를 딸으네

이 인생은 무심히 즐겨 걸으니
안해의 불평이나 아희놈들의
작난 소리 울음과 각가지 우환
가정으로 생기는 걱정 몰으네

그러든걸 親故집 갖다 들느니
어인일가 가슴에 상처를 맞네
불지어다 이 맘에 날세는 향수

이 생애다 가정을 못잡는지라
무심코 쓸쓸하게 나오는 탄식—
「개천령 혼자로서 죽는단 말가?」

附記 이것은 에쓰어문학전문잡지 「문학세계」에 발표된 현에쓰시단 유명한 「헝가리아」시인 「칼로츠세이」씨의 短詩를 한편 원의를 땀다는 것 보다는 직역하다십히 정형시의 압운에다 옮겨본 것이외다. 말할 것도 업시 시란 그 의미에 잇는 것이 아니요 그 음조와 의미로의 조화 불가분할 만한 묘미에 잇는 것인 이상 나의 역시로는 그것은 볼 수가 업는 것이요 또한 나의 것에는 의미있게 남은 것이 업다할 만 하외다. 자세이 알아볼 수가 업더라도 원문을 읽어보라는 한 마디를 하고 나의 책임을 면하라고 합니다.

南露
꿈소몰—까
南露 아렉산더—자—롭(작)

대낮의 네 시까지 바느질
赤衛軍에게 입힐 옷을 짓는다
나의 깃불 꿈소—몰이네
나의 심장이여—
푸른 머리칼과 가튼 밤중에
내가 너의 명주 목도리를
푸러서 줄 날도 잇스리
어릴 때에 비둘기를 만지드시
하늘빛의 눈섭을 만지리라
그러할 날이 다닥쳐올 겐요
나는 이제는 粗暴하지는 안타

그러나 지금은—
월사이 업시 로동한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너는 나아간다
나의 깃불이여
꿈소몰— 어여
쟁투와 노동 가운데의 나의 동무여! <71>

中國
墳墓
陸志韋(작), 파인(역)

臺城下有一個新墳 墳上寫的...

「陸軍某師步兵團...副兵某人 河南信陽州人」

중압된 XX

전사한 병정이어 우리는 그대를 나무랄 수는 업다 그대는 단지 흉년 때문에 길을 잘못 드되엿
슬이다

그놈들은 그대를 목거서 XX로 하엿다

그러기에 군은 언제든지 배가 불느지 못하엿다

그대들 산자들은 모다 부자가 되엿다

생각하여보면 군의 死도 거룩은 하지!

그대는 살인도 하지 안엇고 약탈도 하지 안엇기에 기아를 참지 안으면 안되엇든게지

그러나 千人에게 뒷손 꼬락뺏고 萬人에 嘲笑를 맞든 일도

지금에 이르런 臺城路傍의 이 흙 한줌이 된 것을

그래도 자비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여기 와서 미지의 군을 弔喪하는 것이다—

아아 은의에는 도리가 원한에는 주인이 잇다

불상한 蓬髮居士 피에 저진 귀신이어

君은 중국인이 무엇에 괴로워하는 줄 아는가...<72>

<66-72>

57.

잡지명: 동광 제28호

발행년월일: 1931년 12월 01일

기사제목: 民族問題에 대한 나의 誤謬

필자: 都有浩 도유호

기사형태: 문예기타

民族問題에 대한 나의 誤謬 (민족문제에 대한 나의 오류)

都有浩

編輯局長 足下

貴誌 7월호에 실린 저의 글을 다시 읽고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운 생각을 금치 못하겠사옵기에
몇 마디로 貴誌 同人 諸氏와 및 讀者 諸位께 謝罪하옵니다. 거기에 실린 民族 云云의 소리는
모다 저의 輕率한 탓이엿습니다. 印象記 중에 그런 學術上의 理論을 云謂한 것부터 저의 잘
못이엇을 뿐 外라 그것은 全部 不合理한 論法 뿐이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크리스마스』
休暇 중이엿습니다. 저는 이것을 틈타서 Y先生께 한 約束을 履行할라고 짧은 時間에 無理
한 執筆을 하게 되엿습니다. 그 때 마침 저는 그 原稿 외에 또 放送演說을 하나 準備하노라

고 支那研究所로 東洋學 『세미나』로 東奔西走하는 판이었습니다. 그리하오와 그 글은 참말 눈이 핑핑 돌아가는 동안에 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 그 중의 저의 안 된 論法은 그야말로 엉터리 뿐이었습니다. 오직 여러분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編輯局長 足下 그리하오와 저는 이번 民族問題에 대한 좀 정돈된 글을 發表해볼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의 事情上 크리스마쓰 休暇가 오기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오와 여기에는 다만 극히 중요한 점 몇 가지를 들고 그치겠습니다. 첫째로 民族問題(National Frage)와 人種問題(Rassen frame)는 아조 딴 것으로 이들은 嚴然히 區別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XXXX지배 하의 XX地에 관한 民族問題는 그 X地의 XX 즉 그 民族의 X이 X國 自体 내부의 變革을 必要로 하는 境遇와 그러치 않고도 可能한 境遇와를 區別하여 생각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以後의 植民地가 資本主義的으로 發展할라면 거기에는 극도의 모순이 包含되는 것으로 그것은 境遇에 의하야는 相對的으로 또는 絶對的으로 不可能하다는 것을 여쭙어둡니다. 그리고 또 『레닌』의 民族問題論은 大體로 보아서 適切을 극한 것이오나 그것은 1922년 『콤민텐』 第二大回 以前에 쓴 論文들로 이것을 벗어나는 안됩니다. 또 『레닌』의 波蘭問題에 대한 理論이나 瑞典과 『노르웨』에 대한 理論 등은 注意하지 않고 읽다가는 誤解하는 수가 많다는 것을 여쭙어 둡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謝罪합니다.

1931년 10월 8일

獨逸에서 都有浩 拜伏

東光社 編輯局長 足下 <89>

58.

잡지명: 동광 제30호

발행년월일: 1932년 01월 25일

기사제목: 朝鮮民族運動의 三基礎事業

필자: 李光洙 이광수

기사형태: 논설

朝鮮民族運動의 三基礎事業 (조선민족운동의 삼기초사업)

李光洙

民族運動

近來에 民族이라는말을 忌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얼 맑시스트의 무리다. 그들은 大明을 祖國이라고 부르던 者와 같은 奴隸思想을 가진 무리다. 왜 그런고 하면 적어도 이 世紀에 있어서 吾人의 認識에 들어오는 實在은 오직 민족이 잇을 따름인 까닭이다. 그야 佛敎徒에게 있어서는 세계의 佛敎徒는 다 그들의 同志일 것이다. 共產主義者에게 있어서는 世界의 共產主義者는 다 그들의 同志일 것이다. 또 佛敎徒에 있어서 印度가 敬仰의 目標가 되고 共產主義者에게 있어서 소비엘·로시아가 敬仰의 目標가 될 것도 容許할 일이다. 그러치마는 朝鮮의 佛敎徒가 佛國을 建設할 공은 印度도 支那도 아니요 朝鮮의 땅과 사람일 것임을 잇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一宗教나 一主義는 民族生活의 일부분, 또는 一時代에 관계함에 불과

함이라. 민족생활은 어느 一宗教보다도 크고 길고 어느 主義보다도 크고 긴 것이다. 宗教는 있다가 없고 이것이다가 저것이 되더라도 民族은 그냥 있고 主義에 關하여서도 그러한 것이다. 宗教信者의 눈에 그 信仰이 最大하고, 主義者에 눈에 그 主義가 最大하게 보임도 容許할 일이지마는 그가 그 信仰과 主義를 包容하고 呑吐하는 民族을 잇을 때에 그는 가장 重大한 認識錯誤에 빠지는 것이다.

民族은 永遠의 實在다. (中略) 이러한 때에 잇어서 民族이란 말을 忌하고 辱하는 者는 마땅히 民族의 罪人이라고 極言하여야 할 것이다.

民族運動의 正當한 認識

오늘날 朝鮮人은 民族運動에 對한 正當한 認識을 缺한 듯하다. 아직 多數人(1民族을 某方面으로 끌고갈만한 數와 團結의 人數)이 信條로 삼는 民族運動의 理論이 承認되지 못한 狀態에 있다. (中略) 極言하면 오늘날 朝鮮人이 해야할 最大 緊要事는 朝鮮民族運動에 對한 理論을 把握하는 일이다. <13> 그러타고 2千萬 朝鮮人이 全部 同1한 理論을 抱懷해야 한다는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理論이 잇을수 잇으나 (中略) 이것 - 某 理論 下에 朐친 有力한 團結이 없이는 (中略) 마치 三民主義 下에 朐친 國民黨이 없이 中國의 民族運動을 想像할수 없음과 같다.

그러면 現在 朝鮮에는 어떠한 民族運動의 理論이 잇나. 우리는 아직 그것이 넓히 一般에 討議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거기는 檢閱關係도 잇을 것이지마는 우리는 合法的 範圍 內에서 自由로 討議될 理論도 아니 가질수 없는 것이다.

이에 나는 내가 抱懷한 民族運動의 理論을 畧述하여 一般同胞의 批判에 訴하려하는 것이다. 이 理論의 大綱은 實로 修養同友會의 理論이지만 그 中 一部分은 나 個人的 私論인 것을 말하여 둔다.

(1) 인텔리겐치야結成

(中略) 문화의 向上을 基調로하는 民族의 運動의 原動力을 作하는 것은 一般 大衆이 아니요 實로 인텔리겐치야層이다. 일본의 明治維新이나 獨逸族의 振興은 無論이어나와 勞農大衆의 運動이라는 러시아의 共產主義運動도 그것을 시작한 原動力은 實로 인텔리겐치야層이다.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勞働者도 아니요 農民도 아니다. 將來 勞働者 農民의 것이 될 것이겠마는 勞働者, 農民을 組織하고 訓練하여 그들에게 자주력을 주는 자가 인텔리겐치야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朝鮮의 民族運動도 過去에도 그러하였지마는 現在에도 인텔리겐치야層이 擔當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다. (中略) 그러므로 이러한 (5字略) 民族運動者될 資格者를 두르찾아한 理論과 한 精神으로 結成하는 것이 알파의 알파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修養同友會運動이 잇는 所以다.

그러면 이 인텔리겐치야層을 結成하는 理論은 무엇인가. 거기는 아직 아모 政治的인 것을 加味할 必要가 없다. (중략)

만일 朝鮮民族이 組織的 生活, 組織的 運動의 訓練을 가진 백성이라 하면 이러한 運動은 不必要할지도 모른다. 必要한 때에 레디메이드한 人物을 糾合하여 必要한 運動을 할수도 잇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過去의 經驗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朝鮮人은 現在 잇는 대로의 사람들-組織的 生活와 運動에 訓練이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힘잇는 團結的 運動을 이르키는 것이 不可能한 것을 自覺하기 (中略) 그러면 이 運動의 綱領은 무엇인가 (中略)

(1) 團結의 信義를 지키기

(2) 明確한 個人生活 及 民族生活의 理論을 가지기(우리 多數는 無理論의 生活을 하고 있다.)
(중략)

(4) 共同體에 對한 責任과 義務를 尊重하여 自己를 犧牲하기

(5) 一種의 學術이나 技藝를 完全히 修得하여 一種의 堅實한 職業을 가지기

(6) 團結의 規律과 自己가 定한 指導者의 指導에 服從하기

(7) 朝鮮과 朝鮮民族을 사랑하되 自己 個人 以上으로 하기 等이다. 極히 平凡한 것이요 極히 初步의 것이다. 그러나 3歲兒 說得 80行不得이라는 말과같이 「行하」는데 要點이 있는 것이다.(中略)

그러나 이 候補軍, 豫備軍의 一團이 結成이 되기前 모든運動은 虛事일 것이다. 修養同友會의 理論이 여기 있는 것이다.

(2) 農民 勞働者 啓蒙과 生産向上

(중략) 農民과 勞働者의 啓蒙과 生産力向上이다. 啓蒙이라 함은 知識과 訓練을 주는 것이요 生産力向上이라 함은 生産技術과 販賣消費의 合理化를 意味한것이다. 이 두 가지요 하나요 <14> 둘이요 둘이요 하나다.

첫째로 朝鮮人의 最大多數인 農民과 勞働者의 文盲을 打破하는 것이 民族運動의 基礎가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에게 必須한 科學的 知識과 社會機構의 知識을 주는 것이 萬般活動의 源泉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아직 家庭生活 以上の 社會生活의 訓練을 缺如한 朝鮮의 農勞 大衆에게는 消費組合, 生産組合, 衛生組合, 文化組合(이러한 말은 다른 社會에는 없는 것이지만은 朝鮮에서는 必要한 것이라고 믿는다) 體育組合(이것도 새 말이다) 等 全히 政治에 關係없는 團結訓練을 줄 必要가있다. (中略)

그러면 이러한 啓蒙運動은 어떠한 方法으로 할 수 잇을까. 그 運動自身을 또한 團結의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同一한 理論을 가지고 多數人이 하여야될 것이기 때문에.

今日에는 農村啓發問題가 重大라는 認識이 普及되어 예수敎會에서도 이 問題에 相當히 用力하게 되었고 其他도 農村을 對象으로 하는 團體와 定期刊行物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대단히 喜賀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 完全한 理論과 統制잇는 計劃 下에 多數의 同志가 活動하는 農村運動은 아직 나오지 아니 하였다.

이에 우리는 農民勞働者 啓蒙運動의 한 有力한 團體 - 宣敎師의 組織과 熱을 가진 團體를 組織할 必要를 提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財團法人 通俗敎育普及會의 設立趣旨가 여기 잇는 것이다.

(3) 協同組合運動 前項에는 主로 啓蒙運動에 關하여 말하였고 生産力 向上이라는 問題는 提起만 하였을 뿐이다.

生産力 向上에는 前項에 말한 바와 같이 生産技術의 傳習과 販賣消費의 合理化를 必要로 하는 外에 浪費의 習慣을 矯正하고 그 자리에 家政經濟의 法則化의 習慣을 樹立하는 것과 또 細民金融問題의 解決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生産技術의 傳習은 啓蒙運動 속에 넣을 수가 잇고 革舊習立新法도 當然히 거기 들어갈 것이 어니와 生産資本의 融通(農組資, 農漁糧, 工場, 失業對策 等を 包含한) 과 販賣, 消費의 合理

化의 任務를 할 協同組合의 創設, 經營, 訓練이 生産力의 向上을 爲하여 絶對로 必要한 것이다. 近來에 各地에 協同組合이 發生하는 것은 甚히 기쁜 일이어니와 아직 棼棼히 普及도 되지 못하였을 뿐더러 또 信賴할만한 指導者와 統制機關이 없다.

農民勞働者 啓蒙을 目的 으로 하는 一團 中에는 이러한 協同組合, 組織 經營의 優秀한 技師를 包含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은 文盲打破, 知識教授를 맡은 技師들이 돌아간 뒤를 따라다니며 農村과 工場에 協同組合의 組織을 指導할 뿐더러 或은 定期로 或은 特別한 招請에 依하여 巡廻指導하여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全朝鮮 各地에 數十 또는 數百의 協同組合이 成立되면 中央에 그것을 指導, 統制하는 大協同組合을 設立하여 그 속에는 農産物, 漁産物, 工産物을 販賣하고 各 地方組合의 要求에 應하여 日用百貨을 購買하는 任務를 行할 機關이 있고 또 多數의 優秀한 産業技師, 組合組織技師를 두어 地方組合의 發達을 指導할 것이요. 1步를 내켜서는 組合自身이 大農場, 大漁場, 大工場을 經營하여 組合員의 自作自給을 完就하도록 할 것이며 不得已 外國에서 輸入하여야할 必須品은 組合의 汽船에 依하여 産地에 直輸入하도록 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金融에 關하여도 組合에 金融部를 두어 組合員에게 低利로 資金을 融通할 것이요 좀더 發達이 되면 金融部가 預金과 爲替의 事務를 보아 銀行으로 分化할 것이다.

朝鮮의 農民勞働者層의 生活을 安定케할 民間努力의 길이 오직 이것 하나가 잇을 뿐이니 이 協同組合이 發達하는 날에 朝鮮의 産業의 統制는 當然히 이 組合의 手中에 들어올 것이요. (下略) <15>

<13-15>

59.

잡지명: 삼천리 제4권 제2호

발행년월일: 1932년 02월 01일

기사제목: 民族的 公敵인 分裂主義者 撲滅, 地方熱과 派爭打破論

필자: 李鍾麟 이중린

기사형태: 논설

民族的 公敵인 分裂主義者 撲滅, 地方熱과 派爭打破論 (민족적 공적인 분열주의자 박멸, 지방열과 파쟁타파론)

李鍾麟

1. 내가 이 論題를 마튼 그때는 내가 나의 반생을 消受하여 바린 다각적 장면을 다 쳐 바리고 잠차 孤鶴隻琴, 悠悠自適의 몸이 되어 수양의 산이나 朗吟의 水, 어디로든지 飄然 拂袖冷然 長往하랴든 1월 1일이였다. 이때의 나는 과거의 悔悟와 장래의 想望에 글쳐 누어서 黃金如水 美人如花, 그 무엇으로든지 깨트릴 수 업는 침묵의 나이였지마는 이 논제가 민족을 이산하고 국가를 邱墟한 문제임으로 나의 침묵은 깨여지지 아니할 수 업다.

2. 지방열과 파쟁은 類聚群居 하야사는 吾人의 可할 수 업는 원칙일 것이다. 지방적 정열, 이

것이 자라서 민족적 단결이 생기고 黨派爭, 이것이 커져서 국가적 통제가 서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면 吾人은 맞당히 이것을 민족적으로 배양하여야 할 미덕이고 이것을 국가적으로 옹호하여야 할 常道이겠거늘, 我 등은 이것 때문에 민족이 이산하여지고, 我 등은 이것 때문에 국가가 邱墟하여진 것은 何故인가. 이에 두 가지 원인이 잇스니 하나는 지방적 단결은 본래 민족의 이해를 위하여서의 단결이 아니라 개인의 利害를 위하여서의 단결이었으며 당파적 투쟁은 一事도 국가의 존망을 위하여서의 투쟁이 아니라.

自黨의 존망을 위하여서의 투쟁인 까닭이었으며 또 하나는 既是 개인의 이해를 목표로한 단결이고 自黨의 존망을 중심으로한 투쟁일지라도 이에 부지불식 중 전민족이 끌닐만한 그 덕이 있거나 그러치 못하거든 엇더한 반대당이 잇더라도 이것을 능히 누르고 나갈 만한 힘이 잇서야 할 것이어늘 저들 중에는 오늘날까지 그 덕과 그 힘을 가진 사람이 한아도 업슨 까닭이다.

3. 지방열과 파쟁의 頭領들은 자기 품안에 안기여 잇는 안해 한사람도 감화식힐 수 업는 그들이 전민족을 포용하여 보겠다고 짜른 팔을 암우리 벗었스들 이 품안에 안겨질 자 그 누구이라. 설혹 잇다한들 그것들은 일전의 추파에도 정조를 팔니우는 淫婦인지라. 淫婦일사록 반다시 질투로써 유일의 정조를 삼는 까닭에 이간, 중상을 일삼나니 이에 무슨 단결이 잇슬 것이냐. 자기 슬하에 끌려 잇는 자녀도 통제할 수 업는 그들이 전 국가를 조종하여 보겠다고 죽은 주먹을 암우리 부르짖들, 이 주먹 아래 놀니울 者 그 누구이라! 假使 잇다한들 그것들은 몽매간에 自己亡父만<8> 보여도 정신을 상실하는 병신들인지라. 병신일사록 반다시 미신으로써 無二한 운명을 삼는 까닭에 占相 祈禱를 일삼나니 이에 무슨 통제가 서질 것이냐. 李朝 500년간 당쟁사를 들추어 보라. 그 어느 페이지가 淫婦들의 嫉妬錄이 아니며, 그 어느 句頭가 병신들의 운명론이 아닌가를.

출옥한 민중대회 인사들

4. 병신만이 사는 가정에는 성한 사람이 도로혀 狂人이 되여지고 淫婦만이 사는 부락에는 精한 여자가 도로혀 醜婦가 되여지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열의 淫婦와 당파쟁의 병신이 충만하여 잇는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동서를 한 지방으로 보는 그 사람을 도로혀 무정조한 醜婦라 할 것이며, 2천3백만 죽을 일당으로 보는 그 사람을 도로혀 정신빠진 광인이라고 할 것이 아닌가. 이와 가치 아주 移豐易性이 되여진 이 지방열과 당파쟁을 타파할 자 그 누구이라. 과연 그 사람이 잇다 하자. 지방열을 고취하는 자일사록 반다시 이것을 공격하며 당파쟁을 醞釀하는 자일사록 반다시 이것을 배척하는 것이다. 보라? 우리 사회는 모두가 이것을 타파하는 자이고 모두가 이것을 격려하는 자이니 明月蘆花 渾一色의 野에서 皓鶴을 찾는 것과 가치 엇던 사람이 진정한 超지방, 超당파적 그 사람이며 엇던 이론이 진정한 打지방적, 打당파적 그 이론임을 차저낼 것이냐! 爲先 그 사람을 밋지 못하거니 엇지 그 사람의 이론만을 밋을 것이며 그 이론을 取치 안하거니 엇지 그 이론의 방법만을 취할 것이냐! 그럼으로 우리가 이것을 타파하자면 엇더한 이론, 엇더한 방법보다도 먼저 그 사람을 택하여야 할 것이며 그 사람을 택하자면 辯舌보다도 책략보다도, 금력보다도, 엇더한 변설에든지 窮치 아니하며, 엇더한 책략에든지 녹지 아니하며, 엇더한 금력에든지 動치 아니할 그 주의의 사람을 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람을 엇은 이상에는 그 사람의 이론과 방법을 절대신봉하여야 할 것이다. 신봉하자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을 밋자는 것이 안이라 그 사람이 신봉하는 바의 그 主義를 밋자는 것이다. 무슨 主義든지 철저한 主義를 가진 그 사람은 그 主義 이외에는 親疎가 업고 恩仇가 업는 것이다. 이에 親疎가 업고 恩仇가 업스니 이에

무슨 지방이 있고 파쟁이 있을 것이며 만일 恩仇, 親疎가 있다면 이는 그 主義 때문에 親疎일<9> 있을 것이나, 만일 있다면 이는 그 主義 때문에 恩仇일 것이요, 결코 인간적으로서의 親疎와 恩仇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主義가 갖힌 사람은 超越도 便是 弟兄이요, 主義가 갖지 안니한 사람이면 제형도 便是 超越일 것이다.

天下事는 理論策略, 무엇무엇하여야 필경은 力으로써 결정되는 것이고 천하의 힘은 금권무력, 무엇무엇하여야 절대의 강자는 오즉 主義 그것이다. 勿驚하라. 耶蘇 갖힌 이는 한 유신론자이지마는 거의 천하를 포용하고 잊지 아니한가. 맑스 갖힌 이는 한 유물학자이지마는 이제 세계를 威嚇하고 잊지 안이한가. 그럼으로 강한 主義 압해는 이론과 책략이 없다. 무력도 금권도 없다.

5. 대개 지방열의 起因은 최초 동일한 국민으로서 동일한 應役은 다하여도 동일한 권리를 향유치 못한 지방으로부터서 시작된 것이며, 파쟁의 기점은 정권쟁탈에서 시작된 것이 시대가 변천되고 국면이 전환됨을 따라서 그의 末流는 마참내 一飯之恩과 一盃之怨까지의 원인과 원인이 매처지고 一嚔之憾과 一顧之情까지의 관계와 관계가 지여진 것이다. 그럼으로 是 등의 결합은 一椀飯, 一盃酒이면 이를 죽히 괴멸식힐 수도 있는 것이며 一嚔一笑로도 능히 이를 결합식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聚羶의 蟻는 羶盡則散하고 集腥의 蠅은 腥枯則去하는 것이니 是 등의 부류는 그의 근성을 滅絶치 못할 바에는 그 집단을 깨트려서 다른 방향으로 전염성을 유포식히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대로 방임하여 두어 바리고 단 두사람이라도 主義만 갖힌 그 사람끼리 따로 결합하여 가지고 무엇을 목적하든지 그 주위에 저것들을 초래할 만한 汚穢物과 臭腐性이 업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건전, 적당한 방법이 아닐가 한다. 그러나 때마침 중심단체의 건설론과 범민족적 표현단체의 재건론이 고조되는 此際에 이론일망정 단 두사람이라도 主義 갖힌 그 사람끼리 따로<10> 결합하자는 것은 차치하면 파쟁을 반발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갖가운 말이 아닐는지도 모르겠으나 진정한 主義의 결합이 아이고는 엇더한 金 간판을 내여걸고 엇더한 鐵조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간판은 마참내 떠러지고야 말 것이며, 그 조직 역시 깨여지고야 말 것은 멀리 과거의 유례를 들 것 업시 최근의 新幹會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명하고 잊지 아니한가. 그뿐만 아니라 종파종파끼리 결합하고 계급계급끼리 대립하는 것은 엇더한 이론, 엇더한 정책으로서 動할 수 업는 원칙 이며 진리이다. 그럼으로 오늘날 이 논제의 주안은 각 종파를 뿌되려서 한 宗統을 만들자거나 각 계급을 깨트리여서 한 파당을 건설하자는 것이 아니요, 오즉 한 종파, 한 계급끼리의 이러나는 지방열과 파쟁을 타파하자는 것일 것이다.

6. 그러나 各人自掃門前雪 不管他人屋上霜이라고 원래 그 사상과 목적을 달니하여 잇는 단체로서 타 단체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은 너무나 猥越한 짓이라고 할 것이나 國與國 간에도 조정과 제재가 업지 아니하거든 孰是孰非간 암우 관계가 업다고 해서 갖힌 혈족으로서 그 혈족끼리의 싸움을 도외시한다면 이는 사회로서의 권위가 업는 사회이며, 민족으로서의 애정이 마른 민족이 안닌가. 그러타면 금후의 우리는 엇던 계급, 엇던 종파를 불문하고 그 파쟁이 진정한 主義로서의 잊지할 수 업는 싸움이라면 모르거니와 만일 권력 때문에 싸움 감정 때문에 싸움이라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폭로식히고 민중적으로 제재하여야 할 것이며 그 제재의 嚔식은 그 파쟁의 중심분자에게 상응한 기간을 부쳐서 그 기간에는 사회인으로서의 일체 권리를 許與치 안이하는 공약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오즉 문제인 것은 금일 我 등의 사회가 과연 이러할 권위가 잇스며 이리할 용감이 잇는가가 문제이지, 이것이 실행만 되는 날이면 질투를

정조로 파는 淫婦들은 淫婦끼리 물너지고, 미신을 운명시하는 병신들은 병신끼리 쪼겨질 것이다.

그런 후이라야 우리 사회는 진정한 단결적 사회가 되여지고 우리 민족은 진정한 통제적 민족이 되여질 것이다. 그런 후이라야 成敗得失간 엇더한 결과가 잇을 것이다.<11>

<8-11>

60.

잡지명: 삼천리 제4권 제2호

발행년월일: 1932년 02월 01일

기사제목: 民族生活區의 意義

필자: 金明植 김명식

기사형태: 논설

民族生活區의 意義 (민족생활구의 의의)

金明植

1. 맑스의 皮肉과 宋時烈의 述懷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계급운동은 먼저 계급조직을 가진다. 그와 동시에 무민족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계급운동은 먼저 문화단위로의 민족적 생활과 창 의 및 건설을 기도한다. 이것을 모순이라 할가. 전자에 대하여는 카우츠키에게 무려볼 일이오 후자에 대하여는 朴日馨 씨 및 그 일파에게 무를 일이다.

제1인터나쇼넬이 생긴 뒤에 엇더한 회합에서 佛蘭西의 어느 국제주의자가 우리는 발서 국민이니 민족이니 하는 지리적인,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철저히 초탈 하았다고 滔滔한 웅변을 說往說去한 곁헤 맑스는 「지금 어느 변사로부터 「우리는 발서 국민이니 민족이니 하는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초탈하았다」고 웅변이 잇섯스나 그러나 그의 연설은 이 會席에서는 그 자신 이외에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佛蘭西語이였다」고 그로 하야곰 뼈가 제리도록 例의 맑스의 皮肉이잇섯다. 그런데 현재 露西亞민족은 그리고 中華민족은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朝鮮語로 웅변하는 어느 국제주의자 몇 사람은 푸로레타리아사상은 근대사상이오, 민족자치구는 제국주의자의 영토욕의 파생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대사상은 뿌르조아사상이오, 푸로레타리아사상은 현대사상이다. 또 대영제국은 근대국가이오, 노농연방은 현대국가이다. 그리고 노농연방의 민족자치구는 제국주의의 파생물이 아니다. 「1犬吠, 2犬吠, 3犬吠, 4犬, 5犬, 6犬, 7犬(7道の 意)吠어늘 呼童出門視하니 圓上梧桐 第一枝라」고 어느 때의 宋時烈의 述懷이다. 너무 오만하다.

그런데 1927년 中央協議를 부셔버리고 新幹會를 조직할 때에는 13道이엇섯다. 지금은 몇 道인지?

2. 階級運動의 2개 原則

무계급사회와 무민족세계를 전망하는 푸로레타리아운동의 독재정치와 민족연맹 및 成群 이주

민족의 자치구 조직은 과도기적 동일과정의 2개 형태이다. 이것은 푸로레타리아운동의 A, B, C이다. 그리고 독재정치는 계급적 감정 및 이해에 주의한 대립조직이지마는 민족연맹 및 成群 이주민족의 자치구 조직은 감정 및 이해에 의한 대립조직이 아니요, 협동조직이다. 그럼으로 전자는 다른 계급의 존재를 승인치 아니하되 후자는 민족평등의 원칙 하에서 다른 민족의 존재를 승인할 뿐만 아니라 대민족, 소민족 또는 강민족, 약민족의 구별이 업시 평등한 지위에서 互相 의존하는 것이다. 大露西亞主義는 싸아의 유물이요, 他국민 및 他민족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XXXX뿌르조아지의 의식이다. 그리고 만일 현재 中國의 江西省, 湖北省, 湖南省 등<33> 3성이 東3省이 되엇스면 在間島조선인의 조직은 엇더한 것이 되엇슬가. 결코 中國人の 江西省 등과 가튼 것은 되지 안이할 것이다.

그러면 민족연맹 및 成群 移住民族의 자치구 조직은 엇더한 이유에 의한 것인가. 그 하나는 민족평등(계급평등이 아니다)의 원칙 실현이요, 그들은 각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산업의 협동과정에서 과도기적 푸로레타리아 문화 및 산업의 생산능률을 기계적으로 압살치 안이하고 자연한 자발적 정신으로 발휘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과도기적 푸로레타리아트의 세계적 문화 및 산업의 내용을 풍부케 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在露조선인은 기술문제도 잇거니와 그보다도 露西亞의 언어와 문자를 알지 못함으로 무리하게 일반적으로 露西亞민족과 가치 露西亞의 건설사업에 참가하면 문화적 및 산업적 생산능률을 그들의 재능대로 발휘할 수 업스나 조선인의 자치구에서 집단적 조선인이 조선어와 조선문으로 신건설을 실행하면 그들의 재능을 잇는대로 창달할 수 잇는 것이다.

주입주의 교육과 획일주의 산업정책의 至酷한 세례를 밧아온 XX사람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넉넉히 이해할 만한 경험이 업지 안이할 것이다. 그럼으로 在內在外를 막론하고 민족적 생활구 문제가 관념적 유희가 되면 그 민족의 생활이 암담한 것은 물론이요, 과도기적 푸로레타리아트의 세계문화 및 산업에도 큰 영향이 잇는 것이다. 민족연맹 및 成群 이주민족의 자치구 조직이 독재정치와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과 또 그것이 원칙의 하나이 된 것은 이 까닭이다.

3. 人間對立의 決定條件

무릇 세계가 잇고 인류가 잇고 그리하여 인류적인 다종다양의 문화와 산업이 잇는 우주사회의 건설은 하나의 큰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먼저 인종 및 민족이 하나이 안이요, 계급이 하나이다. 즉 먼저 계급 업는 사회이다. 그리고 인종 및 민족간의 언어, 문자의 不同과 그로 말미암아서의 동일문화의 내용의 參差와 동일경제의 산업종류 및 기술의 상이는 인간대립의 결정조건이 아니다.

또 人羣生活의 지리적 상이도 대립조건이 아니다.

물론 역사상 문화적 조건—언어 및 문자, 기타와 자연적 조건—지리 및 기타가 人羣生活에 지대한 영향을 주엇섯고 그와 동시에 人羣대립의 표면적 관계를 做出한 것은 사실이다.

봉건시대에 잇서서는 말할 것도 업고 그것은 자본시대에까지 전래하여 백인종의 우월감과 유색인종에 대한 멸시는 이제 오히려 백인종사회의 도덕률로서 세계적 현실에 반동적, 반작용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족적의 또는 인종적의 배타사상은 언제나 경제적 침략을 위한 또는 피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물질적 원인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요, 문화적 및 지리적 상이로 말미암은 것이 안이다. 北米合衆國의 풍기를 위하야, 문화를 위하야 유색인종을 배척한다는 오만한 口吻은 봉건사회에서나 발견할 수 잇는 경제적 배타정책이다. 그럼으로 봉건민족은 물론이요, 뿌르조아민족도 엇지한 형식으로 표현하든지 모도 경제적인 배타적 내용을 가진 것

이다. 그러나 푸로레타리아민족은 문명 및 지리적 존재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뿐이요, 他민족을 배척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他민족을 배척할 이유, 즉 경제적으로 어느 민족 푸로레타리아트와 다른 민족 푸로레타리아트와가 대립할 조건이 엮는 까닭이다.

그럼으로 대립할 조건이 엮는, 즉 경제적으로 대립치 아니한 민족연맹 및 成群 이주민족의 자치구 조직에 대하여 「민족적 잔존 감정에 주의」한 대립형태로 이해하는 것은 근대사상이요, 현대사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상은 경계하지 아이하면 아니된다. 그리고 물론 뿌르조아지의 主義로의, 민족은 主義로의 XX와<34> 가치 배격하지 안이하면 안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를 배격함에 급급하여 무성찰한 반동으로 푸로레타리아트의 민족적 일체를 도라보지 안코 「민족적 현실에서 완전 또 철저히 초탈하야다」는 佛蘭西의 어느 국제주의자의 흥분한 관념을 밀수입한 것은 푸로레타리아운동의 때문이 아니다.

그럼으로 보라... 朴씨는 「自治領結成論의 문제 역시 XXX쟁과의 관계 하에서만 생각할 수 잇는 문제라」고 기탄없이 제국주의의 XXX쟁을 고창하지 안이하얏는가, 朴씨여? 엇지한 XXX쟁이 자치령을 결성하든가 그리고 勞農聯邦은 同等國聯邦이요, 主從國聯邦이 아니다. 또 在露조선인자치구 조직은 어느XXXX의 연장이 안이요, 露領에서 노농연방의 통치 하에서 자치구 조직이다.

그것은 대영제국의 통치 하에서의 加奈陀, 南阿 등등의 자치와는 절대로 상용할 수 엮는 본질과 내용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전자의 자치구 문제는 XXX쟁과 미지근한 관계 하에서 생각하는 것이 안이요, 그것 그대로 푸로레타리아트의 XXX쟁인 것이다.

그리하여 中國의 노동자, 농민은 XXXX를 세우고 在中조선인은 자치구를 조직할 것이다. 그럼으로 一國一黨主義 하에서 전자가 성공치 못하면 후자는 실현될 수 엮고, 또 후자와 실현되지 안이하면 전자의 성공을 약속할 수 엮는 것이다.

4. 自治區의 現實性

이제 우리는 中國의 현실을 살펴보자. 만일 東3省이라 하는 中國의 영토가 보장되지 안이하면 그를 衷切한 朴씨의 「제국주의적 XXX쟁」은 성공하지마는 푸로레타리아트의 그것은 그만한 타격을 맞들 것이다. 현재 南京政府의 광동파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이며 또 錦州문제는 엇더케 되었는가. 씨 등은 한갓 관념으로만 자기도취하야 堂上의 燕子와 가치 喃喃하고 잇는 동안 화재는 전가옥을 소진하면서 중천에 놓히 떴다.

이에 대하여도 맹목할 것이냐?

원래 자치구의 목인은 兩個 XXXX세력의 균형적 대립이 지속하는 한에서만 현실성이 잇고 또 그리하여 제도상의 해결이 잇슬 것이나 양자 중 그 어느 하나 이 東3省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종래 在日本조선인의 자치구가 문제도 되지 안이하할 것과 가튼,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맞게 다른 도리가 엮는 실현이 전개되지 안이하얏음을 보장할 자 엮슬 것이다.

그리고 씨의 「씨는 (필자: 를 지칭한 것) 엇더한 독재정치가 대립자에게 早産의 승인을 구함을 보았는가」고 한 抑說은 물론 흥분된 탓이겟고 자본 각국의 봉쇄로부터 노농연방이 자본국가의 승인을 반대한 일이 엮는 것과 또 종래 在間島조선인의 어느 정도의 자치생활을 中國의 지배계급이 묵인한 사실이 잇는 것을 씨도 부인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早産케 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회에 자치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대립자에게 내의 살 길을 귀의 식히는 것인가」 그와 반하여 그들의 세력균형을 파괴하는 것이 대립자에게 내의 살 길을 귀의 식히는 것인가. 물론 朴씨가 그를 파괴한 위인은 아니다. 그러나

文字로써 其勵한 偉勳은 업지 아니하다. 그리고 蔣介石 등의 통치를 化石化 하던 씨의 形而制上철학은 또다시 내의 말한 「이러한 관련에서」 압력으로 제도상의 해결이 있을 것이다」고 한 「관련」을 화석화 하여 가지고 그 관련의 발전성을 목살하였을뿐만 아니라 金若水씨의 정당히 지적한 「在滿조선인의 양대진영」의 민족운동에 대하여는 털끝만한 사려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물론 現 만주에 있어서 이 양대진영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관련」에 대한 화석적 관찰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돌진한朴씨의 卓論을 再讀까지 하게 된 것은 어느 쪽으로 보든지 적지 아니한 불행이다. 그리고 씨는 내의 「저의 야심은 자위적이고, 침략적이 <35> 안이다... 즉 蔣 등의 몰락을 전제한 것이다」의 「蔣 등 몰락의 전제」는 빼어버리고 「씨는(同上) 현재단에 있어서 저의 (中國의) 영토적 야심은 자위적이고 침략적이 아니라 해야 蔣介石 등의 慇懃한 추파를 보내면서 그들의 목인을 기다리는 모양이라」고 위조로써 성공의 비책을 삼았다.

또 씨는 「그럼으로 자치구 문제가 在中조선인의 XX의 중심 슬로칸으로 제기할 모멘트가 있을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아니하나 이 슬로칸은 그들을 中國의 무산계급운동에 동원, 참가시키기 위한 선동 슬로칸이 될지언정 蔣介石 등의 목인을 기대하는 관련 하에서는 채용되지 못할것이다. 씨는 燈下不明이다. 金若水 씨는 「... 僑民 또는 귀화자의 자격을 가진 그대로 中國의 법권을 시인하면서—對滿정책의—국제적 갈등에 선처할 것이다—그리하여 —中의 구축에는 객체의 노력이 증대되는 우려를 生케 하고 객체의 확대에는 中의 역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문케 하는 등의 意匠을 凝해야 그 어느 국가로서도 독자적 횡포로서는 도저히 조선 사람을 퇴치치 못할 기초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세력균형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조선인의 자치생활의 목인을 확립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중심 슬로칸을 실현할 것이라 함이다. 그러나 이 세력균형의 사실은 파괴되고 東3省은 새 주인을 마자드리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5. 討論의 收穫

그런데 씨등의 자치구와 자치령과의 혼동, 근대사상과 현대사상과의 혼동, 그러나 그러한 사상을 푸로레타리아사상으로 방송하는 용기, 그리하여 「민족적 연맹의 민족적 잔존감정」 운운 더욱이 「滿蒙自治領 건설론, 그것이 근대사상과 일종의 성분」 운운은 가관인 것이다. 씨등이여! 정치상의 근대사상과 자치령사상은 하나이요 둘이 아니다. 그러나 모던이즘(근대주의)의 「모던결」 「모던뽀이」의 「팬스」작란은 노동남녀의 피착취생활이 아니다. 즉 현대사상이 아니다.

또 보라!朴씨는 「金씨여! 내가 어느 곳에서 在滿조선인자치구 설정문제가 蔣介石 등의 영토욕의 파생물이라고 말하였는가? 씨야말로 「이것」의 물적 증거를 보이라」고 하였다. 인쇄술이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건망증으로 자기를 변호하려하는 공상은 차라리 동정할 일이다. 그러나 물적 증거만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朴씨의 「첫째 蔣介石 내지 그의 동일한 부류에게 中國의 정권이 장악되어 있는 동안까지는 그들의 영토적 욕망—그렇타! 차라리 문제는 이곳에 있다. 金씨가 중시한 제도상의 문제도 결국 이것에서 파생하는 것이다—이것 이를 不許할 것이고」의 「그들의 영토적 욕망」 하에 설명선을 끌어놔코 金씨가 중시한 제도상의 문제도 「결국」 「이것」에서 파생하는 것이다」고 한 「결국」은 무엇을 의미한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가르킨 것인가? 그러나 「직전과 직후에 있는 구절을 읽어보라」고 이것은 시간의 낭비다. 그 직전에는 「자치령 결성론 이 문제 역시 XXX쟁과의 관련 하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 雄偉한 제국주의적 XXX쟁의 주문 곁에 金씨의 소론을 나는 배경한다. 웨?」라

고 하얏고 직후에는 「설혹 중국의 제도상으로는 승인된다 할지라도」라고 蔣介石 등의 통치 하에서 자치구가 제도상으로 설혹이나마 승인될 것이라는 무지한 가공망상을 토하여 노았다. 그리고 「日本은 이 문제 자치구)에 대한 태도를 현재 그들이 입적문제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와 동일하게 할 것이니 모처럼 결성된 자치구의<36> 실제적 효과문제가 문제인 까닭이라」고 漢江 중에 귀 씨스러갈 것 갇튼 淸狂을 자랑하얏다. 그러나 전회에는 원칙문제이니 근본문제이니 하는 고조적 卓說만 토출하더니 「우리의 밋는 바 XX적 XX의 혹독함을 새삼스러우나마 「늦것든 터이다」고 晩覺의 감탄을 호소하면서 방침설명에까지 이르렀다. 엇더턴 자치령과 자치구와의 구별 밋 자치구란 것은 蔣介石 등의 영토욕의 파생물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과 또 구체방침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토론의 收穫이다.

6. 殘務處理

요컨대 滿洲에 잇서서 어느 양국의 세력균형이 파괴되면 在中조선인의 자치구는 목인될 수 업는 것이오 또 그럼으로 말미아마 강대자의 세력이 더욱 증대하면 조선인의 중심 쓸로칸만이 아니라 국제적 既成事實에까지 영향이 잇스니 中國의 영토보장문제는 전문제의 초점이 된 것이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입지에서 그들의 세력균형을 이용하야 몬저 자치구의 목인을 확립하는 것이 크나큰 계급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그럼으로 「白旗」「절망」「召還」등등은 영원의 인연이 업스니 차자가라고 적선을 요구하얏지마는 엄숙한 현실을 그들과 씨와의 곱흔 인연을 지어주엇스니 그것은 무력한 내의 선의의 간섭을 許치 안는다. 그리고 씨는 「어대 中立無辜한 평화의 노동자농민이 잇느냐」고 하지마는 현재 滿洲에 XX측도 아니오, 中國측도 아니오, 그러나 XXXX에 동원되지도 아니한 조선인 노동자농민이 잇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어느 의미로는 그들이 在滿조선인의 중견이오, 전부인 것을 이해하야야 한다. 또 금번의 피해자는 거이 그들 뿐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제국주의 XX에 대한 평화의 입지를 주장하는 것은 牧師의 일이 아니오, 계급 XX의 일이니 여기서 朴씨의 양심은 물을 것이 업다.

또 「우리의 밋는 바 XX적 XX의 혹독함을 새삼스러우나마 늦것든 터 이다고. 그리하야 근본 문제만 잇고 방침은 업섯다고 자기변호한 朴氏는 내의 「... 따라서 반XXXX운동에 동원식힐 수 업는 자는 어느 별동대가 되지 못하도록 주의할 방법이 업스면 아니된다」고 한 것은 「全 방침을 주의라는 智謀로써 장식한 것이라」고 하고 또 「씨의 (필자: 를 지칭한 것) 所論 中에서 소위 (1). 부류(어느 별동대) 밋 (2). 부류(방축된 민족주의자 밋 그 영향 하에 잇는 자에 대한 방침과 「對X방침 及 대중방침」과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분리식혔다」고 창의를 제시하얏다.

그러나 씨는 「그들을 기계적으로 분리식혀 노앗는가. 사실적으로 결합식혀 노앗는가. 또 한번 비판, 작년 12월호의 拙文을 읽을 필요가 잇다.

朴씨여! 씨의 흥분은 百害가 잇슬 뿐이니 삼갈지어다.

(1932.1.5)<37>

<33-37>

61.

잡지명: 삼천리 제4권 제3호

발행년월일: 1932년 03월 01일

기사제목: 異民族間 戀愛의 悲劇(實話三篇)

필자:

기사형태: 문예기타

異民族間 戀愛의 悲劇(實話三篇) (이민족간 연애의 비극(실화삼편))

赤露鐵窓에서 女囚와의 哀戀曲 —賣음도 眞情이 잇섯다—

玄鍾伊

생각하면 어적게 갓흔 기억이 잇스나 실상인 즉 지금부터 7년전 일이니 적지 안은 시절(時節)이 박귀여 잇습니다.

그때의 나는 거대한 침예 사상을 가슴에 품고 동경(憧憬)의 나라 쏘-베트 러시아를 향하엿습니다.

떠러지든 가을 입사귀는 과거가 되고 찬 바람이 귀를 어일여는 초겨울이엿습니다. 이때에 넓은 두만강(豆滿江)을 해염처 건너서 국경의 밤거리를 건너든 두려움과 쓰라림은 너무도 기가차서 말문이 <88> 닳쳐집니다.

이력저력 두 국경을 탈출하여 서백리아에 들어서니 적위병(赤衛兵)은 나를 체포하여 국제적 스파이라는 죄명 밋해서 옥중에다 몸을 던져 너어버렸드랍니다.

그때입니다.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사실이—인상 깊은 에피소-드인—평범하지 안은 특이한 연애의 기록을 공개 하겟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진정이 잇스며 량심이 잇슴을 그때에야 비로소 절실이 깨달엿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워하는 애인은 순-라라는 매음부이엿습니다. 여러분은 놀나시겟지요. 매음부와 무슨 연애가 잇슬것인냐고!

그러나 잇섯습니다. 슈-라는 진정이 잇섯습니다.

내가 매음부인 슈-라를 처음 안 때는 어느듯 겨울이 지나가고 서백리아 쓸한 벌판에도 봄이 차져 왓슬 때입니다.

하로 한번식 50분간이라는 짧은 시간을—더럽고 냄새나는 감방—밤새도록 먼지를 마시며 잠한 심 못자다가 아참이면 그리운 햇발을 췌일 때입니다. 청소한 공기를 가슴속에 들벽 마시며 따뜻한 봄— 움돋는 땅을 밟으면서 멀고먼 남쪽나라 우리 조선이 한량업시 눈압헤 어리고, 구든 악수로 헤어지든 동지와 늙으신 부모가 보고 심헛습니다.

붉은 벽돌을 나란히 깔리논 산보도(散步道)에서 원형을 지으며 메리꼬-라운드처럼 빙빙 돌 때 저쪽 흰벽으로 된 녀자 감방 살창에서 「여보 중국사람 젓찬(オリヰリ) 의복이 보기 좇꾸려」 큰 목소리로 나를 희롱하는 젊은 녀자의 목소리가 들녘습니다.

여기서 말해 둘 것은 서백리아에서 옥중에 세비로 의복을 입은 사람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 까닭은 그 곳 감옥에서는 체포 할 때에 입었던 옷 그대로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래동안 감방 사리하는 사람은 옷이 다러지고 때가 못어서 볼풀이 못되지요.
내가 입은 옷은 할빈에서 중국 돈 20원으로 싸게 산것인데 그 곳 감옥에서는 훌륭하고 빳싼
옷이라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나는 녀감방 들창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이것은 보기 어려운 동양—황색인종 더욱이 췌찬 양
복을 입은 젊은 나를 녀자들이 희롱이나 할녀고 소리쳐 부름이 틀넘엿습니다.

「쯔돔스차—(야—)

허—연 무와 갓치 부대하고 흠벅스런 팔뚝을 내놋코 움푹 드러간 눈초리로 무엇을 눈기는 뜻
한 표정을 해 가면서 나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거니는 젊은 녀자가 잇섯습니다.

「여—」

나도 역시 우스면서 이렇케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각금 지나가는 남자들을 놀리며 작난치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흥 저것들은 죄다 매춘부랍니다.」

나와 갓치 것고 잇든 라스킨 로인이 눈우습을 치면서 이렇케 말하였습니다. 한번 돌고서 돌아
오는 길에 또 그 녀자들은 말을 거니우기 시작합니다.

「어지간이 암전을 부리는군.」

「유난스럽게 잠갓코 잇네.」

「무슨 말이든지 좀 하구려.」

이런 말을 듯고 웃기 외에는 아모것도 방책도 업섯습니다.

「여보 할아범 그 중국사람이 당신하구 친히 아는 사람이우?」

이번에는 라스킨 로인에게 말을 건디립니다.

「그렇타. 나와는 각별이 사히가 조흐니라.」

「여보세요! 로인—」

갑작이 팔뚝에 먹줄을 너은 녀자가 부릅니다.

「뻬야」

라스킨이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중국사람에게 슈—라를 소개하시오」 <89>

「그러나 그러나 이사람은 녀의들을 일으려 마가진(장사)이라고 한다.」

「마가진이 무어야요.」

슈—라가 이렇케 반문 하였습니다.

「마가진이 마가진이지 뉘야.」

「응 알엇다. 이것을 가지고 그랫단다.」

유난스럽게 국다란 녀자가 아라채린듯이 이렇케 말하며 손가락을 동구락케 해 보혔습니다. 녀
자들은 몸을 비꼬며 우습이 터집니다. 근처에서 건니고 잇든 남자들도 일제히 웃섯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산보할 때마다 그 녀자들이 나를 볼너 세워 놋코 놀니지 안을 때가 업섯습니
다.

「여보 파 샷서요?」

「네. 샷소.」

「돈이 만쿤요. 오날은 얼마 샷서요?」

「한 목금에 13 카페—타이엇소.」

「씩조흔 것이겠지요?」

「그다지 좇치 못합니다. 오날 것은 줄이 족족저서 보기에다 승업습니다.」

나는 파-란 파를 씹어먹고 잇섯습니다. 거문빵과 승용 갓흔 스-푸쁜인 감옥의 음식은 파-란 파뿐으로써 말할 수 업는 식득이 나는 것입니다.

「한무금 주지 안을 테욕?」

슈-라가 나에게 이럿케 말을 떠질 때의 표정은 애정의 극단을 갓는 것 갓했습니다.

「가지고 십소?」

나는 한 목끔의 파와 사탕과자를 보혀 주엇습니다. 슈-라는 어린 처녀 모양으로 대답도 업시 흐벅진 몸동이와 무엇을 끄르는 얼굴을 업흐로 돌려 버렸습니다.

나는 슈-라가 성이나 난 듯 십혀서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돌아올 때에 슈-라는 콘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바라보며

「여보 중국사람!」 하고 불너 세웁니다.

나는 아모 말업시 그를 노려 볼 뿐이엇습니다.

이럿케 가장 기억된 일이 잇는 후에서부터 슈-라는 언제든지 간수의 눈을 피해서 나에게 편지를 살작 던져 주기를 각금 해왔습니다.

지저분한 글자도 문법도 몰으는 편지의 내용이엇스나 날이 갈수록 진정한 애정이 떠오름을 차차 깨달엇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편지 꾀해는 반다시 회답 해달나고 신신 부탁이엇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날마다 한번씩 하는 산보가 더 한층 즐거웠습니다. 구진 비가 나리나 회오리 바람이 모라치나 나는 그 시간에는 운동장에 나가지 안을 때가 업섯습니다.

슈-라의 얼굴은 엇더케보면 두려울는지 몰으나 쪽 빼세운 곳대—옴푹 드러간 눈—헛트러진 머리카락을 굵다란 손구락으로 수습할 때에는 젊은 사나히의 맘이 누군들 움죽이지 안으릿가! 그 후 어느날 이런 일이 잇섯습니다. 둘 사이에 비상한 변화가 잇섯습니다.

「슈-라 저 사나히 말이냐?」

머리털이 검붉은 녀자가 시드러진 꽃송이로 벽을 치며 슈-라에게 물어 봅니다.

「응 그래. 저 중국사람 말이야.」

슈-라는 이럿케 대답하고 매춘부임에도 순진성이 떠올낫스며 얼굴 양볼에는 홍색이 물드럿섯습니다.

「여보 중국사람. 슈-라가 당신을 이저 버릴 수가 업다고 그림니다.」

이 말을 듣는 나의 입에서는 나도 몰으케

「그럿소. 나도 그럿타오. 이즐 내야 이즐 수 업구로!」 라고 대답이 쏘다져 나왔습니다.

슈-라는 반가운 듯이 러시아 녀성이 가진 독특한 매력으로 나를 노려보앗습니다.

「그럼 웨? 답장도 해 안주우?」 하는 슈-라의 말소리는 들일 듯 말 듯 하엿습니다. 「나는 쓸줄 몰우오.」

「무슨 까답에?」

슈-라는 웃눈섭을 슬적 올니며 눈을 스프득 감어 버립니다.

「승집구료.」

엽헤 잇는 녀자들도 낫차보는 것처럼 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는 웃슴으로서 답하엿습니다.

<90>

잇때 한편에서 이 관경을 살피든 동무 이완이가 말을 끄집어 내엿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글자나 독일 일본말 영어 중국말 조선말 등을 죄다 잘합니다. 중국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입니다. 큰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증거가 없어서 오해를 받고 감옥사리를 한다우.» 하바롭스크에 살든 이완은 나의 포부를 잘 이해하는 옥중 동무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녀자들은 내가 조선 사람이란 말을 듣고 펍 깃부게 생각하는 모양 이었습니다.

후에 말을 들으니 극동에 잇는 우리 동포는 어느 나라 사람보담도 신용이 잇고 사람다우며 더욱히 녀성에게 대해서 신의가 잇슬 뿐 아니라 애정의 변화가 업서서 러시아 녀성들에게 펍 승배를 맞는답니다.

그리고 영어를 하는 것이 위대한 인격자이었습니다. 그래서 슈-라는 그럭케 나를 회롱하기를 조화 하드니 일시에 침착해졌스며 무언으로서 나에게 대한 향이를 표하는 것 갓습니다.

나라는 정체를 안 이후에는 나에게 대한 회롱도 업서지고 수-라도 극히 간단한 인사뿐이었습니다. 편지도 뜨게 보내 주었스며 더구나 답장을 보내달나는 말은 업서졌습니다.

그럼으로 나는 펍도 쓸쓸해졌습니다. 산보도를 갓는 때도 실증이 낫섯스니 우서운 비극이 었습니다.

솔직한 이완을 무한히 원망하었습니다. 녀자들이 회롱하는 상대자가 아니라는 방축령(放逐令)을 여지업시 밧었습니다.

쓸쓸한 시일이 반달이 지난 어느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나도 로동을 하게 되여서 뺨낄칠도 하게 되고 벽돌 깃트리는 일도 하엿슬 때 녀자 죄수 변소를 내가 칠하게 되여서 한 사람의 독일인과 갓치 치를 한 후 나혼자 벤까 어드러 사무실노 드러갈 때 수-라를 맞났습니다. 수-라는 사무실 입구 잇는 의자에 안젓다가 나를 보고 아모 말도 업시 반가히 이러섯습니다.

「여-수-라 이곳에서 무엇을 하심닛가. 하-얀 옷 입은 수-라는 몹시 정결해 보혔습니다. 나는 또다시..」

「쓰떡모—(엇떳소)..」

란잡한 나의 인사에 수-라는 사방을 둘러 본 후에 나를 갓가히 하며

「나요? 오늘 출옥이라우.» 이상한 표정의 얼굴노 고개를 숙일 때 나는 깃브면서도 한 가지의 실망으로 머리를 흔드렸습니다.

「출옥이요. 좃꾸료..」

이 말에 수-라는 대답이 업시 무엇을 생각하드니 애수적인 표정으로」

「여보 세상에서 나를 매춘부라고만 인정한답니다. 나는 진실만 당신에게 하소연하고 싶혀요. 모-든 것슬요...」

말을 계속 하려다가 끈허버리는 수-라의 심정을 잘 알었습니다.

「수-라」

「...」

「당신의 집은 일르콥크이지요..」

나는 수-라의 가는 집을 여러 가지로 상상하여 보았습니다. 혹은 사모왈의 늘어선 화분으로 장치한 이중창의 방일가? 그러치 안으면 벽이 떠러지고 야비한 그림 업서가 붓흔 지하실의 난잡한 방일가? 하고! 이때에.

「네-일르콥크애요..」

그리고 수-라는 친절히 주소를 가르켜 주고

「당신이 나오건 꼭 나에게 들니세요. 네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드리지요。」하면서 수-라는 나의 곁에 잔뜩닥어섰답니다. 흔들리는 수-라의 어깨를 발견하였스니 그는 자기의 불순한 과거를 생각함인지 흑흑 늦겨 울고 이섯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욕하는 매춘부의 맘에서 나오는 진정한 울음이엇든가바요!

이때에 사무실 문이 열니드니 사무과장은 머리를 내밀고!

「이제는 나가도 좇소.」

이 말을 듯자 수-라는 땀땀 세상의 자유스러운 몸이 되여 버렸습시다. <91>

「잘게서요.」

「몸 성하시오.」

「길이 안령하십쇼.」

뒤편만 보여주든 슈-라는 다시 도라서서 다정한 어조로

「당신 먹을 빵이 잇습닛가?」

「빵—업습니다.」

「그런 줄 알엇습니다. 내가 꼭 차입해 드리지요.」라는 말을 꺾치고

슈-라는 멀니로 사라졌습니다. 한업시 쓸쓸하였습니다. 멀니간 슈-라가 꺾업시 그리웠습니다.

고마운 일이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슈-라를 못된 매춘부로 알엇스나 나에게는 둘도 업는 동정자이며 사랑의 상대자엇습니다. 그는 어김업시 나에게 빵을 차입해 주엇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연줄을 두어 조선인 골리야 석군에게 이약이 하여 소련 본부에다가 석방 해주라는 청까지 너엇답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슈-라에게는 임이 내가 물으는 신병이 잇섯서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엇습니다.

출옥한 후 나는 누구보담 먼저 슈-라를 차졌습니다만은 그는 차되찬 부동체(不動體)가 되고 말엇답니다. 그가 나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기니다 갖섯습니다.

「사랑하는 동방의 애인이여!」

나는 당신 갖치 진실한 사람을 연모하였습니다. 러시아 백색계에서 시달님 뵈은 나로서는 사랑다운 사람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모리 맘을 꺾었다고 해도 나를 리해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업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새 러시아를 원망하지 안습니다. 다만 넷 제정 러시아를 저주합니다.(中略—원문)

나는 영원히 감니다. 얼마동안 신성하게 맞나든 「수-라로」.

그 편지를 뵈어든 나는 눈물을 먹음고 유서를 영구히 보존할여고 헛스며 께배우의 한 사람으로서 싸워 나갈 결심이 더 한층 잇섯엇답니다.

여러분 매춘부에게도 진정이 잇스며 사람이 이섯드랍니다. 그리고 정당한 의식을 가졌섯습니다. -(꺾)—

크다—란 記憶입니다

異月喜

上海부두를 탈-니하는 仁川行의 汽船은 싯퍼런 바다入물결을 휘여잡어 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배우에서 多難의 기록을 지여준 上海의 全景을 바라보면서 「뽕뽕」 소래 지르는 싸

이런 소리와 갓치 늦겨 울지 않을 수 업섯습니다.

國際港인 上海를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곳에 가고 십혀서 白晝夢조차 맛본다는 말을 드른 뜻 십습니다만은 너무도 눈물겨운 역사가 만든 그 곳이니 생각만해도 진저리가 짓칩니다. 그래서 上海를 머-르니 할 적의 내맘은 상쾌하였더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냐고 자신에 自問할 때에는 「허이구」하며 대성통곡을 하고 십혔습니다. 이 지구덩이가 넓기는 하되 조그마한 이 한 계집의 몸이 어디에 의지할가 문제이니 공포와 선율에서 떨게 되어졌소이다.

웨이런 잔소리를 하느냐고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습으로 그러움을 무릅쓰고 다음에 나의 모-든 과거를 공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朝鮮에 잇슬 때—上海에 들어가기 <92> 전—에는 문제의 美人이라는 말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라는 이 몸덩어리가 몹시 불행하였스니 부모도 형제도 업는 외로운 계집에 엇담니다. 그러면서도 上海에까지 불니워 가게 되었스니 그동안의 풍파도 적지 안었스리라고 여러분과 함께 인증해 두십시다.

봄! 아지랑이도 다—거더지고 나무잎피 몹시 푸르지 못한 첫 여름이엿습니다. 나는 上海의 공기를 마시기를 一年이나 넘어한 때엿습니다. 세상 모-든 남성들에게 모조리도 시달니고 사달닌 나는 복수의 념을 품고 某 판쓰·홀에 들어가게 되었담니다.

저녁해가 찬란하게 넘어가고 무서운 악마 불의은 피를 뿌려 노흔 뜻한 서쪽 하늘이 달너지면 平和의 밤이 옵니다. 上海 여름의 밤은 너무나 조흐되다. 너무나 情緒를 끄으려내더이다. 고민에서 우는 나 또는 오-랫동안 단순한 航海入 길에 피로해진 나그내를 순간이나마 위로해 주기에는 힘들지 안었슬 것입니다.

판쓰·홀의 하로밤이 시작되면 산테레에—아래서 발과 발의 박자가 꼭 마저 나가는 소리! 비단옷의 맛씩거리는 소리! 담배연기! 알콜냄새! 또한 官能的 짜즈에 맞쳐서 몸을 움죽이면서 속삭이는 남자와 여자의 말소리! 우습소리! 모-도가 인생의 고민을 이져버리기에는 넉넉한 材料가 될 것이엿습니다.

上海의 춤추는 계집들은 너나 할 것 업시 海軍—젊고 씩씩한 사나회 그들을 깃브게 마저 준담니다. 그래서 觀樂의 宮殿이라고 일홈지을 판쓰·홀에 밤의 나래가 덤히기 전에 元氣잇는 그들의 목어운 구두발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닙니다. 不自由한 그들에게 잇서서 판쓰·홀의 하로 전녁이 다시 업는 유쾌하고 행복된 꿈일것입니다만은 그 꿈이 오라지 안어서 깨여지고 말어버리니 뒤에 남는 것은 애닦흔 悲哀의 자취뿐이지요.

푸른 입사귀가 누른 빗홀 띄이든 때— 맑게 개인 하로 저녁이엿습니다. 몇 萬頓되는 英吉利의 軍艦이 큰 황소의 울음소리와 갓치 汽笛을 내뿜으면서 上海港에 기여드더니 수천명의 海軍 服입은 국극한 사나회들을 토해 노앗담니다. 그들도 역시 자기들을 반가히 마저 주는 판쓰·홀를 차저 옵니다.

내라는 이 못생긴 계집은 몹시도 거만했습니다. 얼굴이 잘 낫다는 것을 自他가 認證했든 탓으로 누구나 나와 춤 한번 추기를 꾀업시 바랐든 것도 사실이엿지요만은 나는 실흔 남성과 춤추기를 실패했섯습니다.

그러나 못된 내 눈에도 꾀업시 조화보이는 사나회가 잇섯스니 그는 英吉利의 海軍—순진치 못하든 계집을 어린애갓치 만드려주든 아즉 꺾었지 못하는 라는 일홈을 가진 청년이엿습니다.

남달니 키가 크고 血色 조흔 얼굴에 英國人으로서도 보기들은 검은 머리와 검은 눈동자—뽀족한 코—사내답은 말소리 어느 것이나 처음보는 내 가슴에 집흔 인상을 박어주더이다.

FD 그와 나는 춤추기는 몇번이 안이었으나 얼마 안되는 그 사이에 나는 그를 잊지 못할 한 사람으로 알아졌스며 그도 역시 얼마 남지 안은 안타가운 리별을 몹시 슬허하엿답니다.

그들의 軍艦은 일곱밤을 새워도 떠나려는 눈치를 뵈워추지 안터니 여들래 되는 날 밤 11시나 되어서 上海의 밤 공기를 더 한층 진동 식히는 요란한 싸이렌이 울렷왔습니다. 그러자 히색이 만면했든 해군들의 얼굴이 창백해 줄답니다.

나는 FD와 매일 저녁갓치 춤추기보다 上海의 밤거리를 산보하면서 내 우거의 모—든 허물을 告해 밋치는 것으로 유일의 즐거움을 삼엿습니다. 나는 그를 맞아서부터 내라는 죄악이 가득 찬 몸 덩어리를 솔죽하게 고백하고 심혔습니다.

英吉利의 군함이 크게 울니든 그날밤도 FD와 나는 XX公園 뻘취 우에 안저서 꺾업시 울든 때입니다. 나의 참회의 눈물이 변해서 구슬흔 리별의 눈물이 될 때<93> FD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업시 쏘다젓습니다.

군함으로부터는 연방 독축의 싸이렌이 들려옵니다. 애닦은 리별의 悲哀를 늦기는 두 절은이의 가슴은 몹시도 안타가웠습니다.

이 우에도 몇번이나 이악이 하엿지만 나는 여러나라 남자들에게 시달여서 세련될대로 단단히 굳어진 심장이엿건만 FD를 알면서의 나는 어린애갓치 순진해졌슴을 자신으로서 늦겼답니다.

울니는 싸이렌은 작고 울어서 내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서가더이다. 언제 만날지 물으는 두 사람의 마음은 다를 길이 업서스리다. 그러나 통곡한들 무엇하며 살점을 무러뜨든들 무엇함닛가? 가는 그이는 가고 말엿스니 남아 잇는 내 가슴이 쓰리고 압흘 뿐이엿지요.

번잡한 上海의 밤거리엿스나 임이 소리업시 잠드릿슬—새로 1시에 잊지 못할 그 사람을 담이 실은—우리들의 고훈 꿈을 악착하게도 깨트린 밋살스런—英吉利의 크—다란 군함은 어두운 밤 바다 저편으로 사라젓습니다.

그의 손수건이 연긔 모양으로 보—얏케 사라지니 그의 형체도 사라젓습니다.

悲哀의 하로밤이 밝엿스나 가슴에 몹시 박힌 상처는 여전하엿답니다. 울고 십고—(제 八十五으로)<94>—(第九十四頁에서)— 밋치고 십혀서 저녁에 가든 판쓰.홀에도 발을 돌니지 안엿습니다. 다만 바라고 잇는 것은 FD—어디로 홀넛는 지도 모르는 사랑하는 그 사람의 다시 올 길을 기다리면서 여섯달이란 찰지안은 세월을 魔都인 上海에서 지나게 되엿섯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난 날이 마즈막 이엿든지 한 장의 편지조차 업섯습니다. 이즈려야 잊치지지를 안는 그를 이저버리기 위해서 多難의 기록을 남겨준 上海港을 떠났습니다만은 그의 그림자는 아즉껏 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안으니 찔브면서도 길—다란 기억이고 적으면서도 크다다란 기억입니다.<85>

그리운 넷날의 꿈터

—Nishi Gawa—

對建時代의 殘夢이 아즉도 어느 곳텡엔가 남아 잇는 내 고향—廣島에서 아버지의 무서운 눈을 속여가면서 어머님 혼자서의 주선으로 東京으로 향하게 되든 때도 별서 재작년 봄일이외다. 넷날 榮光만을 자랑할 줄 아는—시대에 뒤떠러진 부모님의 외딸노 귀엽게 자라난 나로서도 배워야 한다는 것만은 막연하게 머리에 인식하게 되엿습니다. 廣島高等女學校附屬裁縫科

를 2년에 맞추고 그대로 되게 안칠여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한 해 동안은 가정에서 밥짓고 바느질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 등을 배우는 것으로 세월을 허송하엿습니다만은 그 이듬해 봄이 되어서 누구는 東京音樂學校로 누구는 女子大學으로 하고 공부갈 준비한다는 소문이 이곳 저곳에서 들리게 되엿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 몰래 東京갈 준비를 슬금슬금하게 되엿습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명령대로 집에서 부모님의 귀여운 딸 노릇을 하엿드면 오늘에 잇서서 이러한 悲境에서 울지를 안을 것ेल요.

봄도 다-가서 싸구라 꽃 구경군의 발자취 소리도 끈혀진 첫 여름 어느날 아침입니다.

오히려 압창을 열어놋코 掃除하는 것이 나의 하로의 푸랭의 한 가지엿습니다. 이날 아침에도 창문을 열어고 몇칠 전에 새로운 그린-의 카-텅을 거두엿답니다. 바로 그때엿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마즘편 집 2층—동쪽으로 붉은 방—창문에서 우울한 얼굴 빗츠로 이쪽을 몹시 바라보는 나 젊은 사나이가 이섯답니다. 그이의 얼굴이 똑똑히 보이고 그가 노려보는 눈초리가 현저하기 보일만하게 그 방과 내 방의 거리는 멀지 안엿습니다.

일홈도 물으는 그의 침울한 얼굴—사나운 눈초리가 무서웠다고보담 오히려 그것이 내 가슴에 이상한 속크를 던져주게 되엿습니다.

하로 잇틀 그리고 사흘—이렇게 아침이나 저녁이나 나는 그린-의 카-텅을 살색이 들고 어린 처녀의 가슴을 뛰놀니면서 남몰래 그의 방을 몇번이나 엿보앗습니다. 그의 방 창문에는 카-텅도 걸니지 안엿지요.

일홈 물을 그이는 언제 보아야 첫번 보든 그 얼굴과 그 눈초리 그대로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잇는 방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잇슬 뿐이엿습니다.

말엽시 가슴만 뛰놀게 하든 두 달 동안이 지나가 버리고 푸른 하늘에 환상과 갇힌 한 줄기의 구름이 떠도는 어느 여름날이엿섯서요.

밋층의 어린애(信者)가 급하게 충계를 짓는 발자취 소리가 들니자 「아즈머니 이것 보아요 편지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라는 황급한 소리에 뛰어나갓드니 二重 봉투에 능한 솜시로 내 주소도 안쓰고 일홈만 「西川靜子」라고 써운 편지 안장을 줍니다. 물론 보내는 사람의 일홈도 주소도 업섯스나 나는 즉각적으로 건너편에 잇는 그 청년이 보내는 편지라고 추측하게 되엿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 하엿습니다.

「멀지 안은 그 곳이 천리보담 더 멀게 늦겨지고 움죽이는 당신이 나에게는 그림에서 지나지를 안으니 안타가울 뿐입니다.」<95>

언제나 보고 싶던 그이의 편지엿만은 웬일인지 무서운 생각에서 자세히 읽어보지도 안코 찌저 바렷스며 그의 방을 다시 건너다 볼 용기쫓차 업서갓스니 그에게 편지 회답을 보내 理致가 업섯습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그의 방엔 전등도 켜지지 안엿스며 그의 그림지쫓차 보이지를 안엿습니다. 나는 불안한 맘에서 방에 그양 안젷슬 수 업서서 그의 방에서 갓가운 정월에 나아가 한참이나 그의 방을 쳐다보앗습니다만은 역시 아모 인적도 업섯습니다.

나는 실망을 늦기고 잔디 풀우에 털석 안즈려고 하는 때—어디서인가 「西川氏」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너주는 소리가 들엿습니다.

그는 틀림업시 건너집 그 청년—내가 보려고 하든 그이엿습니다.

그는 대리석 모양으로 똑 벋쳐서서 나의 태도만 보고 잇섯습니다.

또다시 「西川氏」하고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검은 눈썹과 높흔 코가 잘 보였습니다. 밤이엿지를 안엿스니 조용한 교외의 밤 거리는 조용할대로 조용하엿고.

정원으로서는 지나치게 스푼이 자욱한 그 속에 그와 나는 돌우에 나란히 걸쳐 안졌습니다.

松林 사이로 느진 저녁 별들이 蠟燭과 갓치 잔약한 빛츠로 고요히 빗쳐주니 청춘의 달콤한 哀愁를 同情하는 것 갓했습니다. 알지 못했든 남성의 일흠과 征體까지 잘 알고보니 나의 고향에서 멀지 안은 姫路—엿던 富豪의 아들로 현재 대학에 재학중이며 일흠은 藤井行雄라고 하엿답니다.

省線—水道橋驛前에서—멀지 안은 神田區表猿樂町 X번지에 새 살님을 차리든 때는 여름 방학도 절반이나 지나 갓섯슬 적인가마요. 보고 십든 어머니님 생각도 이저버리고 藤井氏의 부드러운 품안에서 고훈 꿈만 매즐 뿐이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수 업는 것인가마요.

밀크색의 月光이 어섬푸러하게 빗쳐여 주는 하로스 저녁에 藤井氏와 나는 언제나 걸든 산보길을 걷고 이섯습니다. 몹시 밝지 안은 저녁이라 잘 보이지 안으나 어딴서인가. 「미스터!」 김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니드니 藤井氏의 얼굴색과 동작이 달너지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놀나지 말어 주십시오. 藤井氏는 틀림업는 「미스터」 金이엿슴을 알게되엿스니 그로부터의 나의 맘이 얼마나 우울하여졌겟슴닛가.

사랑엔 국경도 업다고 하지만은 처음부터 異國人인 줄 몰났다가 새삼스럽게 알게되엿슬 적엔 적지 안은 悲哀를 늦기게 됨에 따라서 그와 떠날 것까지 나 혼자서 걱정하엿습니다만은 정작 떠날여고 하니 너무나 애처럽고 설어워서 못떠났습니다.

藤井—金씨는 전보담 나에게 향하는 맘이 더 김혀지고 나도 늦기든 悲哀를 살나버렸스니 그로부터 우리의 살님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질 뿐이엿습니다. 여름이 가고 눈나리는 겨울—이렇게 시절이 맞귀임을 따라서 한쌍의 비들귀처럼 우리는 곱게 자라고 이섯슬 뿐입니다만은 운명의 神은 심술구저서 우리들의 행복스러운 꿈자리를 너무도 무심하게 짓밟어 버리려고 마렸습니다.

귀여운 딸이 공부만 잘하고 잇스리라고 밋엇든 부모님께서는 어그러진 길을 걷고 잇는 나에게 무서운 宣告장을 보냈드랍니다.

그러나 부모님 안테에 변명의 편지쫓차 하지 안엿슴은 사랑하는 그 사람 곁에 잇다면 세상에 누구보담 행복스러우리라고 밋엇든 까답이엿지요만은!

모—든 것은 자최만 남기고 살어질 뿐입니다. 그는 나를 버리고 갓습니다.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올테니 일주일만 기다리오.」 하고 떠나가든 그는 한주일—또 한주일—이렇게 몇주이 되도록 도라올 줄 몰났답니다.

나는 눈물에 석긴 애원의 편지를 몇번이나 그의 간곳—東萊—에다가 보내여 보앗스나 한 장의 답장도 업섯습니다. (第 八十五頁에속) <96> —(第九十六頁)— 사랑에 불타는 가슴을 억제하기도 어려웠습니다만은 얼마 안 남은 압날을 생각할제 공포와 선율에서 떨 뿐이엿습니다. 한 달 두 달 밀닌 집세 때문에 主人에게 쫓겨난 나는 갈 곳이라고 아모 곳도 업섯습니다. 넷날에 친하든 동모도 친척도— 모—도가 나를 버려둡니다. 나는 목어운 몸덩이를 움죽여 가면서 하엿업는 눈물만 흘닐 뿐이엿습니다. 떠나가버린 그 사람을 원망하면 무엇하릿가. 다만 내 못된 운명을 저주하면서 밤이면 술취한 사나히들의 통낙물이 되고 낮이면 가엾은 어린애를 안고 안저서 행복된 압날을 꿈꾸든 넷날의 꿈자최를 되푸리 할 뿐이지요. 뜻김든 그 여름은 또 다시 과

거가 되어지고 哀愁의 情을 던져주는 가을철이 왔습니다. 멀리 玄海灘을 건너 조선의—그 땅에도 이 가을은 왔을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이는 올 줄 몰으니 내 아즉껏 가삼이 안타가울 뿐입니다.<85>

<88-96, 85>

62.

잡지명: 삼천리 제4권 제3호

발행년월일: 1932년 03월 01일

기사제목: 誌上 三千里全體會議, 第一部門=民族問題, 現下의民族主義勢力과社會主義勢力

필자:

기사형태: 대담·좌담

誌上 三千里全體會議, 第一部門=民族問題, 現下의民族主義勢力과社會主義勢力 (지상 삼천리 전체회의, 제일부문=민족문제, 현하의민족주의세력과사회주의세력)

民族主義的勢力의 系列

安在鴻

記者...오늘 現在에 잇서서 이마 결성되어 잇는 조직적 민족주의층 세력을 헤자면 무엇을 가르칠수 잇겠습니까.

安...민족주의적 세력으로 말하면 그동안 우리에게 不可避的으로 닥쳐온 여러 가지 客觀的 情勢때문에 강대한 조직을 가질 시간과 기회가 업시 그냥 力量이 분산된 대로 지내어 온 것이 사실이엇습니다. 그러키에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에서 가지는 것 가튼 一定한 규율미테 이루어진, 단체적 훈련을 통한 집결체는 몇낫이 아니 되지 만은 그러터래도 각지각처에 민족주의자라고 부를 수 잇고 민족주의단체라고 볼 수 잇는 巨然한 세력들 蔚然히 존재해 잇스며 또 존재할뿐더러 맹렬히 성장되어 나가고 잇는 것은 사실입니다.

記者...新幹會를 諸分散된 민족주의층 세력의 領導勢力으로 보아 오든 터인데 이제 解消過程에 처한 오늘에 잇서서는 아조 완전히 「消失된 過去의一勢力」으로 맞게 더 평가할 수 업겠습니까.

安...그러치요 新幹會로서의 세력이란 인제다 분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올겠지요.

記者...그러타면 지금의 主要勢力은 어디에 잇다고 보겠습니까.<2>

安...대체로 宗教團體에 잇지요.

記者...宗教團體라면?

安...朝鮮에서 第一큰 宗教團體를 헤자면 天道敎, 基督教, 佛敎의 셋인데 그들이 민족주의단체라고 표방하고 아니하고는 別問題로 하고 最短時日안의 過去史에서 그네의 역할을 본배 잇습으므로 一般은 이러케 규정짓는대로 큰 틀님이 업슬 줄 압니다.

즉 天道敎는 靑友黨이 前衛가 되어 黨內의 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고 잇는 중으로 그 數

조도 상당하다고 전합니다. 元來 天道敎는 일정한 통제가 선 점에 있어서 유력하였습니다 過去의 어느 機會에서도 孫義庵 以下 諸氏의 采配와 통제가 훌륭하였든 까닭에 보답 만흔 功效과 인식을 바닷든 것입니다. 그 때에 특성은 基督教側에 오히려 더 만렙섯다고 합니다.(七行略-원문)

記者...그러면 基督教과 佛敎는?

安...基督教은 최근에 朝鮮耶蘇敎聯合公議會아래 각지의 세력이 한데 뭉쳐지고 있습니다. 海外에 나갓든 인재들도 만히 도라오고, 새로운 조직과 훈련이 잇스려 하는 중이며, 佛敎亦 百萬圓의 中央敎務院인 財團法人을 결성하여 가지고 또 佛敎靑年總同盟까지 조직하고서 敎育에 산업에 큰 노력을 하려하고 잇는 모양입니다.

記者...第一 궁금한것은 「朝鮮物産獎勵會」에 대한 평가입니다. 物産獎勵會는 民族主義的補助勢力의 地置에 서고나 잇습니까.

安...朝鮮物産獎勵會는 經濟運動을 하는 단체가 아닌가요? 그러나 特殊한 지역에 노힌 곳에 모든 운동이 政治運動과 全然 관계성이 업시는 하나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는 點에서 物産獎勵會를 政治運動의 한 部門의 勢力으로 볼 수 잇을 것 입니다.

記者...그러타면 그를 마치 外地의 消費組合, 協同組合이 非常時에 하는 특수역할 가튼 것을 마틀수 잇는 것인 줄로 볼 것이겟습니까.

安...시기가 아직은 일느지요. 아직은 거기까지 自體는 成熟되어 잇지 안타고 봅니다.

記者...그러면 新聞社는? 더구나 朝鮮日報社는 民族主義的一勢力으로 보아서 틀넘이 업겟습니까.

安...신문은 그 本質的인 媒介力에 의하여 운동과 민중을 密着식히게 하는 객관적 가치는 크지만은 社가 직접운동의 主流가 되어 움지겨야 하리라고 볼 時機는 벌써 지나간 줄노 압니다.(五行略-원문)

記者...朝鮮日報의 모든 세력은 주로 어느 지방 어느 층에 잇다고 보십니까.

安...全朝鮮과 海外를 통털어 新興勢力層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잇습니다. 지방별로는 公開할 성질이 아닙니다.

記者...그러면 東亞日報는?

安...남의 신문사를 云謂하기는 거북한 노릇이지만 東亞日報의 세력도 勿論 큰줄로 압니다.

記者...海外의 민족주의적 세력에는 一切 言及을 피하겠습니다만은 다만 한가지 朝鮮안에 뿌럭지를 가지고 잇는 興土團系를 엇더케 보십니까. 더구나 東亞日報社와의 관련성에 잇서서.

安...그 亦 공개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記者...以上에서 新幹會解消後의 民族主義的 主勢力은 天道敎, 基督教, 佛敎層에 잇고, 物産獎勵會도 한 主要勢力이며 따로 朝鮮, 東亞, 中央의 三新聞과 諸雜誌가 媒介勢力으로 잇는 것이 現下의 집성된 민족주의적 세력의 全系列이라 함을.

安...그러타고 할가요? 그러나 그 全體系가 무슨 統制가<3> 잇는 집결된 세력으로는 볼 수 업지요. 민족주의적인 列立되어 잇는 諸勢力으로서 집중할 수 잇는 各部門을 일우고 잇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勞働農民層에서도 새로운 의미에서 左翼的인 민족주의에 결국 입각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社會主義勢力의 一瞥

鄭雲永

記者...현재 조직된 勞働者의 陣營과 數자는 얼마나 됩니까, 勞總에서 的確하게 조사한 것이 업다면 현재 勞働總同盟의 傘下에 집결되어 있는 諸勢力은 얼마나 됩니까.

鄭...勞働總同盟은 창립 이래 諸般情勢로 有機的 活動이 一切 封鎖되어 있습니다. 그러치만 이 러케 불리한 속에서도 현재 훈련된 노동자가 2만 3천명이 加盟하여 있고 단체수로는 57개가 가입하여 있습니다. 가맹단체의 단위는 지방에 따라서 聯盟自體가 가입한 곳이 만흔데 즉 10 組合 20組合으로 결합된 연맹이 一單位로 참가하여 있기 때문에 勞働組合의 數자로 보면 그 보다 훨씬 더 만흔 줄로 압니다, 그리고 前記 2만 3천의 組合員은 모다 조직된 의식 있는 勞働者들이외다.

記者...그러면 農民總同盟系의 諸勢力은?

鄭...農總亦 集會禁止를 당하여 있는품이 勞總과 조금도 다를바 업는데 그런 중에도 加盟團體 50餘, 盟員 3만 7천이라는 龍大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小作人層인 貧農들로 조직 된 農業푸로테타리아-트 들이지요.

記者...그러면 지금 解消理論중에 싸여있는 靑總의 세력은 엇더합니까.

鄭...加盟團體 50餘 現在盟員餘萬餘에 達하여 그亦 意識分子로만 集결된 세력입니다.

記者...그런데 現下의 社會主義的 諸勢力의 主導力量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鄭...물론 前記한 三總의 陣營에 集결된 세력이 전부라고 봅니다. 그 以外에 아직 總同盟에 加盟안한 團體와 組合員이 있다고 할 터이나 그것은 극히 소수요 또 不遠에 모다 加盟되리 라고 보여지니 동일세력이라고 看做하여 可하지요

記者...全部라 한다면 李晟煥氏系의 全朝鮮農民組合勢力은 社會主義的 勢力에 編入치 안습니 까.

鄭...될 것이 못되지요. 그는 社會民主主義系의 集團입니다. 또 그 結社의 構成分子도 지역적 으로 보아 대부분이 平北에 국한되어 있지요.

記者...그러치만 우리가 調査한 바에 의하면 加盟된 農民組合이 數十 組合員 數萬을 算한다하 니 그를 엇더케 적은 勢力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鄭...얼마전에 咸鏡南道 端川에서 全朝鮮農民組合系를 排擊聲討한다는 報道가 新聞紙上에 나 타나지 안었습니까. 또 그<4>외에도 각지각처에서 의식있는 분자들이 모다 이 社民系 團體 를 排擊하는 聲明이 頻繁치 안었습니까. 이점으로 보아 이 세력은 민중의 각성에 따라 漸漸 XX될 下向線에 서리라고 봅니다.

記者...그러면 가튼 農民푸로테타리아-트系로 天道敎의 農民社가 있지 안습니까, 이 세력은 사회주의층 세력에 편입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鄭...그것은 더구나 문제가 아니됩니다 가튼 이유로.

記者...그러면 푸로테타리아-트의 補助勢力은 업습니까.

鄭...左翼民族層이나 잇을까요...

記者...全朝鮮農民組合系나 農民社系는 그러면 三總勢力에 대하여 對蹠的 地位에 서잇습니까.

鄭...x動勢力일 따름이지요.

記者...그런데 현재의 勞總, 農總은 오직 農民과 勞働者를 구성요소로 삼고 잇지만 朝鮮은 海

岸線이 만고 그리고 漁物産額이 또한 巨額을 算하야 漁業푸로레타리아-트가 상당히 만홀줄 아는데 이 세력은 순전히 算定의 圈外에 둡니까.

鄭...아니지요. 勞總에서 漁業푸로레타리아-트도 吸入하고 잇는 중이외다. 조직된 漁業勞働者 數를 算하면 前日 新聞紙上에 만히 喧藉되는 海女-主로 濟州道와 全南海村을 중심 삼은 海女群-約7천명이 잇는터인데 이 세력도 모다 勞總속에 편입하고 한말이외다.

記者...그런데 이상에서 朝鮮現下의 조직된 사회주의층세력을 算定하자면 주도세력은 三總의 約 6만 盟員에 잇고 그리고 보조세력으로는 左翼민족주의층을 헤이는 것 外에 업다고 보아 틀님이 업겠습니까. 물론 표현운동에만 限한 말씀이지요.

鄭...그것이 현실입니다.

記者...이것은 旣 問題입니다. 사회주의층세력을 못자는 것이 本意였스니까. 그러나 餘外로 先生의 견해를 알고저 한가지만 더 못겠습니까. 朝鮮現在의 민족주의층세력을 엇더케 보십니까. 鄭...민족주의의 집결된 세력은 오직 宗教團體에 모이고 잇습니다. 그런데 天道教를 보아도 基督教을 보아도 佛教를 보아도 그 세력은 退함이 잇고 盈함이 잇을 뿐이요, 充함이 업고 進함이 업습니다. 그 證據로 教堂에 가보면 의식잇는 청소년은 그림자를 볼 수 업고 오직 老爺老嫗나 갓난 어린애들밖에 업습니다. 민중의 각성됨에 따라 이 趨勢는 加速度的으로 더욱沒落의 斷相을 보여줄 것임니다.

記者...그러면 新聞社의 세력은?

鄭...비록 통제와 훈련을 經치안은 분산된 세력이나마 그 세력이 비교적 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더구나 東亞日報에 至하여는 興土團과 긴밀한 접촉이 잇는 모양이니만치 自體가 세력범위의 擴充에 노력하는 諸相이 歷歷히 看取할수 잇습니다.

최근 李忠武公의 墓所問題와 在滿同胞의 救濟問題를 擧하야 정신적으로라도 民族的 動員을 試驗하는 等等 隱然한 세력이 輕視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朝鮮日報 亦 갓지요.

記者...민족주의층 세력이 압흐로 더 성장될 可燃性이 보임니까.

鄭...업습니다 업다고 봅니다 오직 쇠퇴가 잇을뿐이겠지요.<5>

兩勢力의比較

金若水

記者...現下의 社會運動과 民族運動의 兩大세력을 비교하여 말씀하여 주세요. 세력이라 하야도 그것은 確然하게 指導情神이 서고 훈련을 통한 力量을 가진 단체에 限할 것으로 아직 未組織分散勢力은 論外로 할 것임니다. 또 그 반대로 吾人의 시야에 비취지 안는 地下的 勢力가튼 것도 亦論外로 하고 말씀임니다.

먼저 민족주의진영에 대하여 못겠습니까. 오늘 이 진영의 중심세력이 어디 잇다고 보십니까. 金...대체로 두 세력의 비교연구는 容易한 노릇이 안이외다. 그것은 사회사정이 대단히 復雜多端하야 一瞥만으로는 이것이 이 쪽 세력 저것이 저 쪽 세력이라고 구분하기 곤란 때가 만습니다. 더구나 植民地에 잇서 反X運動上 이 두세력은 때에 따라 과정상의 互交的 특질도 만히 가지고 잇습으로.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말할 수 잇는 범위안으로만 간단하게 대답하여 보기로 하지요. 민족운동의 중심세력인 興否까지는 아직 말할 시기가 아니지만 그 조직과 훈련과 지도정신을 窺잡으랴하는 단체로 興土團이 잇다고 하겠습니다.

安昌浩의 興土團을 海外의 것이라고 거론하기 滋味업다면 同根異枝인 李光洙 等の 同友會를

가르치겠지요. 興土團이나 同友會는 모다 투쟁적 단체가 아니고 後方에 안저 지도자 참모자들
로만 집결된 단체일 뿐더러 회원도 겨우 5백(?)을 가진 점으로 보아 그러케 巨然한 세력이라
할 수 업슬 뿐 아니라 그 운동에 意義가 있다면 미래에 배치할 인물의 選舉 그것 밋게는 아
무것도 업슬 것이요. 그 결과로 全民族으로부터 自己孤立化를 초래하게 될 것이올시다. 말하
자면 민족주의자의 영원한 隱遁所라 할 것이나 그러나 하여간 현실에 잇서서 興土團이라는
단체가 잇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記者...興土團의 존재가 큰 것은 거기에는 衛星이 잇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 단체의 주위
에 흐터져 잇스면서 그를 싸고 도는 有力한 衛星이 만히 잇는 까닭이 아니겠습닛가.

金...그 點이 잇지요. 그것은 某新聞社와 基督教의 일부 등이지요. 東亞日報와 同友會에는 위
선 가튼 사람이 兩者에 발한 쪽식 드리어노코 잇슨이가 만치 안습닛가?

또 두 곳의 정신과 동작이 어스비스하고 그리고 오늘의 基督教내부에도 興土團의 세력이 상
당히 드리와잇는 줄 압니다. 원래 基督教안에는 安昌浩系 李承晚系가 역사적으로 오래 침투
되어 잇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력에 잇서서는 後者가 훨씬 크다합니다. 이모양으로 혹은 신문 그 신문의 경영자
층 또 基督教 中 一部 平安道 商工層 등이 모든 外國의 세력이 興土團의 존재를 더 크게 한
점이 잇겟스나 엇갯든 민족주의의 陣營에서는 일종의 의문집단이라 하겠지요.<6>

記者...宗教團體는 엇더케봄닛가?

金...宗教團體도 民族陣營의 一部隊라고 볼 수 잇겠지요. 그중에도 基督教가 가장 有勢한 줄
로 압니다. 남들은 天道教를 통제의 整然, 훈련의 周倒한 점에서 첫손가락에 꼽는 모양이나
내가 보기에는 亦基督教가 第一 성한 것 갓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케 보느냐고? 그것은 지
방에 펼쳐잇는 골고루의 세력과 여러 가지 사업과 인물을 통하여 그러케 판단됩니다.

記者...物產獎勵會는?

金...그것은 아직 그러케 중요평가할 존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記者...그밋게는?

金...별로 업슬겔요. 잇다면 新聞社 등이 잇지요. 忠武公의 墓所問題도 끄으려들고 在滿同胞救
濟問題 가튼것도 끄으려들고서 민족의식을 고조하는 일이 잇지요. 그러나 이것은 집결된 一方
의 雄的勢力이라고 볼수 업겠지요.

記者...그러면 사회운동의 진영세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세요.

金...지금 현상으로 말한다면 勞農層의 세력은 勞總, 農總, 靑總, 權友會 등에 잇지요. 이것은
표현운동을 말하는 이로 누구나 다-공통하게 인정하는 바이니 새삼스러히 말치 안어도 조할
줄 압니다.

記者...또 그리고?

金...그 밋게 여러 가지 階級的 勢力이 망라되어 그것이 한 세력을 이룰 터이겠지요. 즉 反宗
教的 團體 등이나 또는 階級的 美術家, 音樂家, 文學家 等 諸多의 結社가 한 계열에 서서 푸
로 文化聯盟을 형성하는 것 가튼 폭이 널분 세력을 가질 수 잇겠지요.

記者...또 그리고는?

金...그리고는 民族左翼의 一部隊가 보조세력으로 잇게 되지요.

記者...三總이외에도 계급투쟁의 진영이 잇지요. 天道教내의 朝鮮農民社系, 朝鮮勞働社系及李

晟煥氏의 全朝鮮農民組合系 기타 協同組合 消費組合 등도,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金...그것은 全然 算外로 칠수는 업슬 세력이란 程度에 可칠 것인 줄노 압니다. 더구나 協同
 組合運動에 이르러는 그것은 오늘 現象에 잇서서는 오직 기만일 따름이외다.
 記者...經濟恐慌에 차츰 몰락과산되어 가는 商工層, 地主階級은 환멸의 비애에서 반발적 심리
 로 한 有力한 세력을 이룰 것가치도 생각할 수 업겠습니까.
 金...기대치 안는 것이 옳겠지요 .그네는 그럴사록-힘을 일코 오직 阿諛가 잇슬 것 뿐이니까.
 (下略-원문)<2>
 <2-7>

63.

잡지명: 삼천리 제4권 제3호
 발행년월일: 1932년 03월 01일
 기사제목: 民族과 階級關係의 究明, -나의 BAC的 뱃가지-
 필자: 春谷 춘곡
 기사형태: 논설

民族과 階級關係의 究明, -나의 BAC的 뱃가지- (민족과 계급관계의 구명, -나의 BAC적 뱃가
 지-)

春谷

1. 우리는 엇지하여 민족적 문제를 문제로 하는가?

(1)민족 혹은 계급적으로 의 문제취급의 如何 近來 우리 사회에는 그 論이 맞당히 민족에 관한
 것으로 進來되여야 할 것이 往往 계급에 관한 것으로 진행되는 일도 잇고 또는 당연히 계급
 문제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 민족문제로 취급되는 일도 잇서 자못 혼돈의 感이 적지 아니하다.
 그리고 계급적 입장에서 立論하고 문제를 취급한다면 그것을 시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민족적
 입장에서 立論하고 문제<13>를 취급한다면 그것을 낙오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예컨
 대 在滿同胞의 문제와 가튼 것은 당연히 민족문제로 취급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급
 문제로 취급하되 재만동포를 조선이라는 식민지의 약소민족이 생활의 길을 차저서 남의 땅에
 이주한 민족이라 立論하지 안이하고 이것을 계급투쟁의 선상에 출동한 투사나 용사로 입론하
 고 그 문제를 계급적으로 취급하는 이도 있다. 그리고 인테리겐자층의 합동과 가튼 것은 당연
 히 계급문제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데 이것을 민족문제로 취급하되 이들은 그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안이하고 오즉 민족운동자들인 것처럼 취급하야 그들의 합동을 민족적으로 가능할 것
 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그 입론과 문제의 취급이 시대적인가? 혹은 낙오적인가? 함은 논자의 계급 혹은 민족
 적 입장을 으지하여 구별이 생길 것이 안이라 오즉 그 입론과 문제의 취급의 여하한 것을 따
 라서 생길 것이다. 환언하면 계급적 입장에서 입론하고 문제를 취급한다고 반듯이 시대에 적
 중하는 것도 안이오 민족적 입장에서 입론하고 문제를 취급한다고 반듯이 시대에 뒤떠러지는
 것도 안이다. 계급적 입장에서 문제를 취급하야도 시대에 뒤떠러지거나 혹은 뛰여 넘치는 俗

論과 空談의 오류를 범하는 논자도 있고 민족적 입장에서 문제를 취급하더라도 조류에 순응하며 시대에 적응하는 정론을 발하는 논자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논제의 대상이 계급적인가? 혹은 민족적인가? 하는 구별에 따라서 입론하며 문제를 취급할 것 뿐이고 그 논자의 자신이 그 어느 입장에서 論을 진행시키며 문제를 취급한다고 거기에 으지하여 시대적 혹은 낙오적의 구별이 생할 것은 아니다.

試하여 一瞥한다면 동일한 계급적 입장에 서서서 論戰하는 이들의 중에도 각국과 각파를 따라서 그 입론과 문제의 취급이 不一하여 互相矛盾과 배격이 심하고 동일한 민족적 입장에 서서서 論戰한다는 이들 중에도 역시 각 團과 각 派의 입론과 문제의 취급이 不一하여 절대적으로 背馳도 되며 相容치 못하는 형세를 모하고 있다. 따라서 계급적 입장에서 인류의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이도 있고 민족적 입장에서 역시 그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분투하는 이도 있다. 물론 계급과 민족이라는 것은 명칭과 본의는 서로 다르고 자못 氷炭과 가치 背馳되는 점도 있지만 그 究竟의 목적을 위하여 분투하는 도정에서 互相 容納되고 공통되는 점도 적지 아니하다. 그럼으로 此兩者 간에서 界線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는 동시에 협동과 제휴를 力圖할 점도 不少할 것이다. 이하에서 그것을 略論하자.

(2)민족과 계급이라는 불행은 언제까지? 현대 인류사회에는 두가지의 큰 불행이 있스니 한아는 자본주의에 으지하여 생긴 계급적 대립의 불행이요 한아는 제국주의에 으지하여 생긴 민족적 反目的 불행이다. 만일 인류사회에서 이 두가지의 불행이 업서진다면 그러케 큰 불행은 다시 업을 것이다. 이 두가지의 불행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맑스와 레닌도 생겼고 칸디와 孫文도 생겼다. 그러나 아즉도 이 두가지의 불행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보다 날노 심하여가는 중이다. 계급적 투쟁이 오늘가치 심한 시간이 과거에 업섯고 민족적 분쟁이 오늘가치 심한 시간이 별노히 만치 못하였다. 이 두가지의 불행은 과연 언제나 업서질 것이냐! 이것을 제거할여는 모든 주의와 이상을 거론하자면 너무나 浩繁하여 질 것이라 여기서 막론하고 오즉 『인류가 행복이라고 동경하는 이상적 그 사회는 계급적 투쟁의 사회도 아니요 민족적 反目的 사회도 안이요 계급간, 又は 민족간의 대립이 업서지고 인류의 共存同榮적 그 사회라』는 一言이나 하여두자.

그런데 인류가 행복이라고 동경하는 그 사회는 건설의 曙光이 그다지 빨리 보이지 안이한다. 다만 자본주의는 第三期적<14> 恐慌에서 진로가 업서서 헤매고 잇스며 따라서 제국주의도 말기적 劇幕을 필연적으로 연주하게 되었다. 학자는 이것을 가라쳐서 역사적 필연의 과정이라고 하며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이 역사적 운명을 회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預言한지가 오랐다. 이러한 역사과정을 과정하면서 봉건사회가 자본사회로 개조된 것과 가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사회도 필연적으로 그 무슨 사회로 개조되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그 필연적으로 개조될 그 사회에 대하여 이 이상으로 더 高調하지 안이할여 한다.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고 노래하라는 것보다 목하의 불행을 더 高調하고 쉽다.

(3)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은 각각 어느 곳에 군림하는가? 다시끔 試하여 전인류의 사회를 一圓으로 하고 살펴 본다면 先進諸國에는 푸로레타리아가 그 제국민의 百分나 99%되고 식민지와 후진제국의 약소민족은 전인류의 十分의 7,8이나 점하였다. 이것이 先進諸國에는 계급운동이 군림하고 식민지와 후진제국에는 민족운동이 군림하는 所以이다. 그러나 先進諸國에도 민족적 모든 운동이 업는 것이 안이며 식민지와 후진제국에도 계급적 모든 운동이 업는 것은 아니다. 다만 先進諸國의 민족적 모든 운동은 파시즘의 운동으로 화하고 식민지와 후진제국의 민족적

모든 운동은 사회주의 이상과 영합도 되며 배치되는 점이 그리케 만치 안이하다는 것 뿐이다. 여기에서 동일한 명칭을 가진 민족운동도 전자에 在하여야는 타민족을(略-원문) 自族만이 잘 살자는 것이오 후자에 在하여야는 타민족의 (略)하고 타민족과 함께 잘 살어 보자는 구별이 있다. 이러한 엄연한 구별을 도라보지 안이하고 단지 민족운동이라는 명칭하에서 그것을 일률로 비난도 배격도 할여는 것은 맞치 계급운동이라는 명칭하에서 제2, 제3의 인터나시오날을 일률로 간주하는 것과 달느지 안이할 것이다.(十行略-원문)

現階段에서 현계단을 망각 혹은 不顧한다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 ,현조선의 사람으로서 現朝鮮을 망각 혹은 不顧하고 先進諸國의 원칙과 이론을 그대로 복사할여는 경향이 잇다면 잘된 경향이라 할 수는 업다. 朝鮮의 땅은 식민지이며 朝鮮의 사람은 식민지의 민족이다. 이것은 三人의 아들도 잘 알 것이다. 식민지의 민족이 가질 바의 운동과 그 나아갈 길은 동서의 모든 학자와 이상가들이 말하여 둔 것이 적지 안이하다. 別로히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도 그다지 업는 줄로 안다. 자신에 요구되고 상응한 길을 간다면 別로히 낭패가 업을 것이다. 그 러케 가지안이치 못한 것은 역사의 운명이며 시대의 강박이다.

2. 우리의 當面問題는 民族的 生存과 繁榮

(1)民族的 生存과 繁榮을 當面問題로 하는 所以. 우리의 당면문제를 민족적 생존과 번영이라 하는데서 異議가 업지 안이할 것이다. 爲先, 민족적 생존과 번영에 관련될 諸問題는 어떠한 것이냐? 하면 경제와 정치와의 양대부문에 속한 諸問題와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부문에 속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민족적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잠시도 등한히 할 수 업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日刊의 신문지와 月刊의 잡지들이 모다 이것을 당면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요약하여 말하자면 민족적 생존과 번영에 대한 당면문제라고 할 것이다. 모든 주의와 이론이 이것을 당면의 문제로 한 뒤에라야 수립될 것이며 모든 분투와 노력이 이것을 당면의 문제로 한 뒤에라야 출발될 것이다. 그러치 못하면 공상과 徒勞에<15> 도라가고 말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전인류의 운명을 능히 좌우할 만한 처지와 역량이 잇다면 그야말노 우리 자체의 생존과 번영을 力圖하는 동시에 전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역시 우리의 당면문제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세계에는 우리만이 閉關하고 고립할 수 업슨 즉 전인류의 생존과 번영의 문제를 우리의 당면문제로 취급하지 안이치도 못할 것이다. 다만 우리의 현계급의 처지와 역량이 우리의 민족적 생존과 번영만을 唯一且 근본적의 당면문제로 하지안이치 못하게 되 었다는 것 뿐이다. 그럼으로 우리가 우리의 민족적 생존과 번영만을 당면의 문제로 삼는다고 하여서 전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반듯이 등한시한다는 것은 안이고 오즉 그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의 당면문제로 취급하기에는 자격에 넘치고 역량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 뿐이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민족적 생존과 번영을 당면의 문제로 치중하는 동시에 전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관한 모든 문제도 우리의 이상적 동경적 諸問題로 취급하며 자격과 역량이 及하는데 까지는 대동과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기중에도 亞細亞의 약소민족의 문제는 우리에게 직접 혹은 간접으로 지대한 관계와 영향이 잇는 문제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2)『민족적』이라는 말은 勞農과 細民層의 大衆을 標準. 『민족적』생존과 번영을 당면의 문제로 취급한다 함은 물론 원칙상에서 『민족적』이라는 말은 민족의 전체를 가라치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異議가 생길 수 있다. 곧 계급적 입장에서부터 『민족의 전체』라는 가운데는 利害가 서로 달은 유산과 무산의 양대계급이 있다. 이제 利害가 不同한 양계급을 『민족적』

이라는 한마디로써 포괄하는 것은 푸로레타리아의 계급적 의의를 박약케하며 뽀조아의 虛僞的 용어를 助勢하여 주는 말이다. 무엇이나 『민족적』이라고 할만한 문제는 그다지 만지 못하고 계급적으로 취급하여할 문제가 열의 7, 8이나 된다. 그리고 조선민족 중에서 그 생존과 번영이 우려되고 문제될 것은 뽀조아를 포함한 『민족적』이 안이고 푸로레타리아의 그것이 우려되고 문제된다. 그러타면 『민족적』이라는 말을 그만두고 그 代에 『푸로레타리아』를 쓰고 그 계급적 이익을 당면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可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타 그러한 이의가 어느 점에서 무리라고 할 수가 없다. 다만 그 이의가 미국 혹은 불란서 등 선진국에서는 가장 적절한 이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이며 後進諸國에 속하는 朝鮮에서는 그 이의를 전제로 그대로 승인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생략하고 다만 『민족적』이라는 語義의 원칙에서는 각계급을 포함한 것이지만 『민족적』으로 우려되며 문제되는 생존과 번영의 당면적 문제의 표준은 전민족내에서 절대다수인 농민, 노동자, 도시 細民層의 생존과 번영에 있고 이 표준하에서 민족적 생존과 번영을 당면의 문제로 취급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의 까닭은 『노동자』『계급』이라는 가운데도 귀족적 노동자의 층이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 노동계급의 『계급적』이라는 말을 쓰지 못할 것은 안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이익은 귀족적 노동자의 층을 표준할 것이 안이고 일반적 노동자의 이익을 표준함과 동일한 이유가 될 것이다. 현세계와 現朝鮮에서는 『민족적』으로 利害가 공통되는 당면의 문제가 不少하며 따라서 그러케 요구도 하며 항쟁도 하지 안이치 못할 문제가 적지안이다. 그리고 계급적 의식이 박약하여 질 것이라고 우려하는이만치 우리에게는 민족적 의식이 박약하여 지는 것을 우려하지 안이치 못할만한 점이 있는 것을 누구나 승인할 바인가 한다.<16>

(3)民族的 生存과 繁榮에 대한 憂慮되는 現狀 우리가 당면의 문제로 취급할 민족적 생존과 번영에 대한 표준이 농민, 노동자, 도시세민층의 생존과 번영이라 함은 말한 바이다. 이제 그 현상이 어떠한가? 하면 최근 총독부 통계표는 무식자의 수가 전민족의 4할이 넘고 유식인지? 무식인지? 불분명한 것이 전민족의 1할이상이며 이것을 합하면 그 수가 1,060여만인으로서 거진 전민족의 6할이나 점하게 되었다. 무식자는 衣食을 어들 수가 업고 衣食을 어들 수 업스면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업는 것이다. 조선의 실업자의 다수는 농민이며 도시 소매상인과 해안의 어민들이며 其次로는 광산 혹은 공장의 노동자들이다. 이러한 무식자 곧 실업자를 단순한 세계적 불경기 혹은 선진제국의 실업자와 동일한 원칙에서만 생겼다고 간주할 수는 업다. 이러한 무식자와 기타 노농대중의 생존과 번영에 관한 문제를 민족적으로 당하는 급박한 당면문제라고 하지 안이할 수 업다. 제 1보로 이 현상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엇지 못하면 민족적 생존은 xx적으로 위험하게 될 것이다. 생존상의 위험이 이러한 민족으로서 번영을 바란다는 것은 일종의 과분한 희망이며 유토피아적 환상일 것이다.

번영이라는 말은 자녀를 잘 생육한다는 말이다. 衣食을 엇지 못하여서 생존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민족이 자녀를 생산하여 교육을 잘 식혀서 번영되기를 엇지 바랄 것이냐! 방금도 각신 문지는 입학기의 아동의 입학난을 당면의 문제로 하며 따라서 걱정이다. 만은 입학이나한들 무엇하랴! 지난해에는 통학중의 아동들이 월사금을 물지 못하여 퇴학된 수가 약8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의 번영에 대한 민족적 현상이다. 이것이 곧 우리가 당면문제로 하여 민족적으로 救急이라도 하여야 할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민족적 생존과 번영에 대한 急迫한 당면의 문제인 줄이야 누가 알지 못하리오 만은 그 해결의 책이 末由한 까닭에 누구나 속수무책으로 지낼 것이다. 필자: 도 그 무슨 남

달이 특이한 묘안이 있어서 이 현상의 이 문제를 고조하는 것은 안이다. 다만 너무도 不忍한 대서 걱정이라도 일반으로 더부러 함께하자는데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에 초하야도 역시 대개는 동일할 것이다. 오즉 당면한 문제를 당면한대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문제가 민족적 생존과 번영에 관한이만치 민족적 총역량을 집중하여서 해결의책을 강구하며 노력할 수 박게 업다고 생각할 뿐이다. 主義를 가지고 논란할 시간이 안이다. 문제를 차저 가지고 해결에 노력할 것 뿐인가 한다.

1932년 2월9일 서울에서.<17>

<8-17>

64.

잡지명: 삼천리 제4권 제3호

발행년월일: 1932년 03월 01일

기사제목: 民族保健問題, 民衆保健과 體育普遍化의 急務

필자: 朝鮮體育研究會主事 金保榮 조선체육연구회주사 김보영

기사형태: 논설

民族保健問題, 民衆保健과 體育普遍化의 急務 (민족보건문제, 민중보건과 체육보편화의 급무)

朝鮮體育研究會主事 金保榮

옛날 사람은 不老不死藥을 산중에서 구하였고 현대 사람은 불노장생건강술을 과학에서 탐구하고 있다. 이것을 보아 生을 好하고 死를 惡함은 고금이 일반이며 인생의 본능적 욕망임을 알 수 있다. 然而 우리는 장생을 욕구하는 동시에 건강증진을 바라지 안할 수 업다 『신체건강은 萬事之本』이라는 古人의 哲言이 있다. 참으로 그러하다. 사람으로써 건강을 失한 생존은 그 활동욕을 구현치 못하는 동시에 생존의 의의를 缺하는 가련한 존재이다. 사람은 심신의 건강을 保하고 자기의 全的 활력을 완전히 발휘함으로써 인생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그럼으로 건강을 떠나서는 행복도, 금전도, 영예도, 사업도 업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건강은 單히 개인의 운명을 지배하고 행, 불행을 결정하는데 不止하고 一家一族의 성쇠를 지배하며 進하여는 사회, 민족의 흥망, 消長을 지배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잇는 것이다. 그러면 이 건강이란 如何한 방법으로 유지하며 또는 증진할 수 잇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현대과학에 의하여 淸안된 보건체육운동법이 가장 적절하다. 然而 현재 우리 朝鮮의 체육계의 현상은 엇던한가? 現下 우리 반도에 각종운동경기라 長足の 勢로 진보되어가는 현상은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慶賀할 바이다. 그러나 이 운동경기를 실행하려면 시간도 상당히 소비되고 금전도 不少히 소용되는 동시에 상당한 설비를 요함으로 결국은 극소수의 운동이 되고마는 형편이다. 또는 전조선의 각학교에서 체육운동을 만히 지도장려하는 바이나 第一로 학교에 통학하는 수가 전인구에 비하여 극소수인 동시에 第二로는 학교체육도 역시 보편화가 되지 못하고 일부의 선수양성에 불과하는 현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民鱗◆本位로 체육장려하는 의미로 볼 때에는 누구나 寒心痛嘆치 안할 수 업는 일이다. 現下 우리의 급무로는 소수의 세계적 선수를 내는 것도 조흐나 그보다도 전민중에게 체육을 보편화 식히는데 잇는

것을 잘 아려야 한다. 駐日丁抹公使 『미라-』씨는 『올림픽 경기대회에 多額의 금전을 소비하면서 선수를 보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마는 국민 일반의 체육으로 볼 때에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차라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체육을 普及體得케 함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흥 『체크』의 『소콜』團은 『소수의 우수한 정예보다도 전국민적 일치의 단련에 있다. 만민이 다가티 알지 못하면 안다고 하지 못하며 만민이 함께 협력하여야만 참다운 사업이 성공된다.』는 것을 유일한 표어로信하고 있다. 現下 사망률이 매년 증가되어 가는 우리에게 민중보건체육이 얼마나 급무인가? 더욱이 文弱하고 침체하고<18> 위축되어 가는 현실의 조선에 있어서.

(1)청년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2)민중에게 勇壯, 剛毅의 기풍을 養하고.

(3)협동단결의 훈련을.

식히라면 무엇보다도 민중체육보편화의 봉화를 들지 안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하로 맞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朝鮮體育研究會는 左記諸項을 표준하고 조선민중 보건체육법고안을 1931년 9월부터 착수하여 現下 구체적 안을 심의하는 중에 있다. 不遠한 장래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체육법이 발표될 터인바 速行실행하기를 切望한다. 표준사항

1. 근육이든지 내장이든지 圓滿均齊的 발달을 식히고 위험성이 업는 운동.
2. 운동은 일일이 의미를 有하고 숙련할 사록 우리의 실생활에 要用될 것.
3. 일정한 시간에든지 餘隙의 시간에든지 행할 수 잇는 각자 편리하고 자유롭게 행할 운동.
4. 협소(실내외불문)한 장소에서나 광활한 장소에서나 행할 수 잇고 간단한 복장(평소의 복이라도 무방)으로 행할 수 잇는 운동.
5.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인으로 보건단체로 협동적 훈련이 될 운동.
6. 자발적이고 흥미를 가질 운동.
7. 단시간에 운동량이 만하고 피노회복이 속할 운동.
8. 기구, 기계를 不要하는 운동.

이상

1932, 2, 10<19>

<18-19>

65.

잡지명: 삼천리 제4권 제4호

발행년월일: 1932년 04월 01일

기사제목: 民族生成論, 民族生成過程과 基要素

필자: 辛泰嶽 신태악

기사형태: 논설

民族生成論, 民族生成過程과 基要素 (민족생성론, 민족생성과정과 기요소)

辛泰嶽

一

근래에 우리 평론계에는 민족에 관한 문제가 만히 논의된다. 참 喜賀할 현상이다. 이 민족문제는 저 계급문제와 함께 현세에 아주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懸案으로 이 두가지 문제의 연구는 현대의 신흥계급의 신흥의식과 함께 우리에게 심중한 의의를 齎來한다. 이에 말하는 『민족』이라함은 長久한 역사상의 진화의 결과이다. 인류의 발달과정을 추적하여 보면 그 진보의 경로를 밟은 각계급은 생계를 영위하는 수단의 혁명으로 그 특색을 삼는다. 즉 진화의 계단이라 함은 인류사의 최초의 大경제혁명과 그 운명을 함께 한 것이다. 역사상에 나타난 『群』이라던지 그로부터 『集群』 그리고 그로부터 『部族』 이러한 경과가 전부 그 생계의 수단의 변혁에서 온 것이다. 이 『部族』이라는 것이 었더한 사회적 목적에 대한 협력 또는 투쟁에 의하여 보담 큰 『部族』—그에는 정복자의 심리적 同化정책이 작용하여 그리하여 長久한 역사의 결과로서 동일한 혈족이라는 관념—이 구성된다. 이 部族의 혈족관념이라는 것은 지금 이에서 공명하랴 하는 『민족관념』이라는 것과는 전연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한 顯著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혈족관념이라는 것이 牧畜적인 部族적 사회의 공동단체로의 관념이었던 것과 가치 민족관념이라는 것은 농업적인 또는 수공업적인 영토적 사회의 경제적 공동단체로의 관념에서 발달한 것이 분명하다.

二

따라서 이 민족관념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잇습이래 처음부터 형성된 관념이 아닌 것은 스사로 명백하다. 이것이 『민족관념은 유동관념이라』는 까닭이다. 즉 고대의 『에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 제국은 물론이거니와 希臘(그 개화에 伴하여 민족관념에 至하는 門口가 또한 나타났다는 說도 잊지마는)이나 羅馬시대에도 또한 민족관념—민족의 구성내지 민족성의 형성—은 아주 發芽치 안엇섯다. 그것이 「게르마니」 인종(즉 獨逸인)의 大이동에 의하여 처음 민족주의는 세계에 수입되엇다. —(루-나 설교집중에서)이 인종의 原住地는 未詳하지마는 아마 亞細亞 方面에서 점차 西進한 것 가트며 이것이 羅馬帝國시대에 至하여 그 동북변에 몰여와서 畢竟 歐洲의 중앙부로부터 「바르트海」의 南岸에 분포되엇었는데 그것이 제4세기에 至하여 一大운동을 이르켜 乃終에는 西羅馬帝國을 붕괴시켰다. 이 史蹟은 서양史上에 민족구성상—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유하얏슴으로 이에 가장 <39> 중요한 部族과 大이동후의 건국地를 표시하면 다음과 갓다.

이와 가티 「게르마니」 인종의 大이동은 어느 정도의 민족관념을 배양시켰다. 즉 그들은 점차 定住적 농업을 영위하는 생활상태에 들어가자 남들과 隔離된 주거구역 우에 생활의 근거를 정하고 그리하여 점차 특수한 문화생활 樣式을 가지게 되어서부터 점점 명확하게 종족문화 及 종족성이 형성되게 되엇다. 이 점차 명확하게 되여진 각 종족이 동일한 혈족과 풍속 습관을 가진 토민의 공동단체로서의 『민족』이 되게 되엇다.

三

以上에 述한 바에 의하여 대략은 알게 된 것 가티 민족생성의 과정은 생활자료의 획득 즉 생산방법의 변천에 伴한 경제적 공동단체로의 필연적 구성의 길을 밟아왔다. 그리고 이는 다시 「전쟁」의 형성 及 수단에 의하여 激成되고 진화된다. 민족생성의 과정에는 물론 종교 개혁 (이것도 생활양식의 변천에 의하여 이러났다.) 가튼 것도 사실상 만흔 힘을 가졌섯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민족관계의 一產物인 동시에 그 발달의 一요소—이것도 전쟁의 형성과 수단에 의하여—가 되었다. 1337년으로부터 1453년에 亶한 백년전쟁에 際하여 「노르만」인과 「앵글로삭손」인과의 대항심은 佛蘭西에 대한 적개심때문에 소멸되어 전부 一국민이 되었고 1618년으로부터 1648년에 亶한 30년전쟁은 獨逸帝國의 조직을 변경하얏스며 또한 瑞西와 和蘭의 독립이 되었고 그리하여 神聖羅馬帝國은 전혀 支離滅裂되어 마치 小독립국의 분립가티 되었다. 또 일면에는 「네자텐드」(현재의 和蘭, 白耳義의 地에서 西班牙인의 유혈 재판에 반항하여 이리난 和蘭의 혁명은 실로 참담 辛苦를 지나 1558년에 북부7州의 연합국회를 開하게 되어 드디어 和蘭이라는 一新 민족국가가 건설되게 되었다. 이 종교적 軋轢의 형식으로 시작된 和蘭의 반항은 一轉하여 一方에는 민족개성의 주장이 되고 他方에는 정치상의 자유—근대 정치가들의 所謂 『민족자결』—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북방 大전쟁(1772년, 1793년, 1795년)이라던지 7년전쟁(1757년—1763년)에 잇서서 국가세력의 消長에 의한 국민적 활약, 列國분할에 의한 민족적 반란 등은 확실히 민족의식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이 시대는 때가 바로 武士專橫의 봉건시대이엇슴으로 그 문화는 武士문화이엇고 農◆시의 농민가튼 것은 국민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지 못하얏다. 따라서 당시의 「국민」이라는 관념은 오늘날의 관념과는 그 사이에 비상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때는 움겨 농업시대로부터 공업시대로의 과도기에 이르러 자연생장에 의한 신흥세력이 抬頭하여 드디어 佛蘭西혁명이 되어 출현하얏다. 실로 인류문제중에 가장 중요한 민족관념이라는 것은 이 佛蘭西혁명과 그에 딸은 전쟁의 결과이다. 당시의 佛蘭西는 제3급의 勃興(승려, 귀족의 정치적 압박, 경제적착취의 결과에 의하여 그 경제적 불균등 財政의 곤란, 財政정리의 실패는 드디어 혁명의 폭발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라보우」의 동의에 의한 국민회의, 평민주의에 의한 院外운동의 성공에 딸아 所謂 정통주의는 전연히 死滅되고 평민주의의 승리는 완전하게 되자 귀족豪富는 국외에 도주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 국민의회는 全歐羅巴에 향하여 민권을 선언하얏다. 이에 자극된 당시의 列國 지주자들은 이 佛蘭西혁명의 前轍이 장차 자기들의 머리에 낙하될 것을 생각하고 여러나라는 일치하여 군사를 일으켜 佛蘭西의 공격을 개시하얏다. 이에서 <40> 佛蘭西에 입법회의는 드디어 1792년 4월 20일에 宣戰의 布告를 가결하고 歐州各國을 적으로 하여 분투하게 되었다. 이와 가티 국민적 大難境에 陷한 혁명 佛蘭西는 드디어 「나폴레온」가튼 독재관을 나케되었다.

四

이 군사적 독재관의 지배하에는 이전부터 존재하얏던 착취와 정복으로 일삼는 경향은 의연히 계속되었다. 아니 오히려 독립되고 발달되었다. 이 독재관은 자기—及其 후원자인 당시의 권력계급—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佛蘭西공화국의 정복정책의 유지를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민의 내적불만을 대외적 적개심에 訴하여 정복에 정복으로써 하얏다. 이와 반대로 他方—佛國의 敵—은 엇절수 업시 그 원조를 국민정신에 구하얏다. 따라서 당시는 어대를 물론하고 『자유와 민족성』이 여론의 중심이엇다. 그러나 이와 가튼 大戰亂後(1789—1815년)의 처치를 논의하랴고 모히엇던 「위인」 회의는 의연히 당시의 각국 지배계급의 집합이엇슴으로 그 당시의 일반 정세에는 何等주의함이 업시 도로혀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一層 武斷정치를 勵行할 필요를 感하게 되어 결국 神聖동맹을 조직하게 되었다. 이 경향은 드디어 「멧테르니히」를 나케되어 억압주의의 정책으로써 3,40년간 歐州를 통합하얏다. 그러나 당시의 諸도시의 勃興과 시장을 위한 생산의 급속한 발달에 딸아 이미 국민문화급 所謂 국민思想의 支持者는 武士계급이라던지 帝王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新興한 富裕하고

교양있는 諸도시의 시민계급이었다.

이 시민계급은 自계급의 안전을 정치에 구하여 드디어 민주주의의 高調가 되고 그 경제적 발전을 圖하기 위한 국민적 응원을 구하여 드디어 민족국가 이론의 확립이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그러한 정책에 굴복하고 있던 일부분의 인민은 맹렬한 반항을 일으켜 최초에는 希臘 다음에는 白耳義가 국민적 존재의 分離의 권리를 주장하여 성공하였고 波蘭도 그대로 잊지는 안었다. 그리고 「오-스토리아」에서는 「체크족」 「마디아-르족」 「그로-드족」들이 민족적 실재감에 눈뜨게되어 그리하여 자기를 주장하여 싸웠었다. 또한 「빨간」의 인민은 土耳其의 지배에서 독립되고 기간에 통일되고 독립한 伊太利는 출현하였으며 통일되고 獨逸帝國은 건설되었다. 1905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분리되고 또한 1912년의 「빨간」 전쟁 전년의 세계大戰은 더욱 더 인류의 민족적 의식을 심각케 하였다. 그리하여 「체크스로바키아」 「유코스로비아」를 爲始하여 大小의 민족국가가 새로 건설됨을 보았으나 아즉도 세계에는 英國, 佛蘭西, 其他諸國의 내부에 숨겨있는 민족주의의 소요의 지구력은 민족성이 일반 사람들의 심리상에 비상이 강한 힘을 가졌다는 것과 그것이 다만 현재에 隱忍하여 이 세계에 無數한 힘을 해방할 조흔기회를 기대리고 있을 뿐임을 증명한다.

五

上述한 바와 가티 『一민족이 一국가를 조성할것』이라는 所謂 민족국가思想이라는 것은 一민족이 他민족의 국가적 지배력에 억매이게된 所謂 被억압민족이 정치적 해방운동을 企圖하는 데서 勃興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被억압민족이 일단 그 정치적 해방에 성공하여 스스로 일개의 독립한 민족국가를 형성하여 그리하여 스스로 그 국가내의 지배적 권력의 중심이된 후에는 곧 종전의 태도를 一變하여 다시 自민족의 손으로 他민족을 억압하기 위하여 그 지배세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향에 빠지게된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질서에 잇서서는 민족억압은 필연적 결과인 까닭이다. 그리하여 지금 와서는 일즉 각국 빨조아지-가 자기 옹호때문에 쓰던 『민족자결권』의 표어 또는 민족의 자유분리의 주장은 一轉하여 세계의 帝國주의에 억압되어 잇는 弱小민족의 해방운동의 표어로 쓰이게 되었다.

요컨대 민족주의의 과정은 전에도 暫間말한 바와 가티 경제적 <41>공동이해관계 우에서 촉진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이 정치, 종교, 언어, 환경 등—其他 사회적 충동—에 의하여 完美되고 전쟁 또는 국민적 적대성에 의하여 격화되고 진화되었다. 즉——말은 좀 중복되나 1806년의 「텔시트」의 굴욕적 和議 그리고 普佛전쟁후, 大戰까지의 침략적 욕망이 獨逸의 국민적 결속을 견고케하였고 18세기 더욱 1792—3년頃에 新主權國의 주위에 잇는 舊制度國의 寇壓을 拒逐할 필요에 際會하여 佛國의 민족적 단결심은 조성되었다. 또한 露西亞의 민족적 단결심은 「나폴레온」의 寇代을 만나 발생하였고 英國의 민족적 단결도 西——葡3強이 남북 米대륙을 壟斷하랴하는 專橫에 대항할 필요를 기록으로 하여 크게 抬頭하게 되었다. 또한 전년의 세계대전은 각국민의 민족의식을 힘있게 정치적 의미에 叩으려 들었다. 그리하여 大戰과 함께 전세계의 被억압민족은 일제히 자기해방의 운동을 이르켜 혹은 실패하고 혹은 성공하여 전세계에 新興의 민족국가가 적지않게 생기었다. 이와 가티 각민족의 국가적 적대성은 민족의식을 정치적으로 강렬케 하고 그러한 민족의식은 다시 전쟁이나 他민족의 민족적 억압에서 激進된다. 그럼으로 우리 동양에 잇서서도 例컨대 日本의 大和민족이라는 민족적 구성이 어느때 어느시대에 生成하였는가? 함은 別문제로 하고라도 그것이 日淸, 日露의 戰役에 의하여 전민족으로의 의식이 强케 되었고 전민족으로의 단결이 鞏固하게 된 것은 사실

이다. 필자: 는 本稿를 草하야 이에 이르러 滿洲의 新국가가 건립된 今後에 잇서서 淳良한 滿洲인과 朝鮮민족의 關係에 想到할때 이에 非常한 흥미를 感하게 된다.

—(1932년 3월 11일)— <42>

<39-42>

66.

잡지명: 삼천리 제4권 제5호

발행년월일: 1932년 05월 15일

기사제목: 민족적 협동 문제

필자: 陳榮喆

기사형태: 논설

민족적 협동 문제

陳榮喆

1. 문제의 소재와 견해의 錯亂

계급진영에 잇서서 이론 투쟁은 반듯이 일정한 한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요 또한 전술 문제에 대한 견해의 相違로써 일어나는 논쟁은 그 논지를 기초로 하여가지고 실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이론의 귀결점을 발견하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金若水군은 『조선운동의 신전개』와 및 『민족적 협동 문제의 귀결』 등 논문을 집필하면서 이론의 정당성을 파악하기에 노력을 소비한 것 보담도 兒戲적인 惡口로써 페이지-를 연장식히기에 정력을 전적으로 낭비하였습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金군의 心算이 꼭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다시 더 말할 필요도 업겠지만은 金若水군이 적어도 정치적 견해의 相違點에서 일어나는 논전에서 『그 女的 질투 운운의 조롱으로써 만족하고 저하는 것은 金군 자신의 인격 여하를 대중의 압제 폭로하는 것이다.

이것은 별문제로 하고 金若水군은 논전의 중심적 문제에 대하여는 혼란과 도피로써 대신하려는 企圖를 가지고 잇는 것이 또한 金군의 이론적 근거가 박약한 것을 自證하는 것이니 이제 그 내용을 다시 追求하여 본다면 이러하다.

金군의 일홈으로 발표된 『조선운동의 신전개』(批判2월호) 중에 군의 그것은 (宋군이 在滿 동포문제협의회에 참가한 것 필자: -)임시 돌발의 특수 문제에 대한 X爭조직의 일면으로써 그 가능분자에 한한 X爭의 割X이란 의미에서 옳은 행동이 되고라 하여 민족주의자 등(이는 좌익도 우익도 구분할 수 업는 분자 등)이 새로 모여 民族愛란 美語로써 민중 기만책을 강구하는데 斥候隊가 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다시 金군은 『민족적 협동 문제의 귀결』(批判 4월호)에 와서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는 무조건적 협동설을 되푸리하는 것이 아니라 좌익민족주의자의 배후에 잇는 小뿌르조아지-중의 XX的 요소인 빈곤한 下部隊를 그들의 영향 하로부터 분리시켜 무산계급의 진영으로 戰取함에 잇다는 것을 다시 주장한다』라 하여 엄정한 戰取만을 고집하였스니 제후와 戰取문제에 대한 金군의

몰이해와 혼란은 제3기에 이르렀다.

이와 가티 논쟁의 중심적 문제인 제후와 戰取에 대한 문제는 자기 자신이 구분조차 할 줄도 모르면서 허구의 中傷만으로 自家의 모순을 蔭蔽하려는 가련한 企圖는 그야말로 苦笑를 참을 수 없다.

金균이 주장하는 바와 가티 現下의 諸 정세가 좌익 민족주의자의 영향 하에 있는 대중을 戰取하는 것만이 정확한 이론이라면 좌익인지 우익인지 그 정체를 모를 민족주의자 등의 새로운 결성은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斥하여야 할 것이요 결성 중의 민족주의자적 진영의 斥候가 되려거든 푸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의 戰取를 단념하여야 될 것이다.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 이론이라 하여 필자: 의 제후 문제에 대하여는 일격을 가하면서 宋군의 민족주의자적 진영의 斥候隊의 활동은 특수적 문제라 하여 정당하다고 고집하니 이것이 무조건적 동지 구출을 위한 可憎한 분파적 심리의 發作이 안이고 무엇이나.

현명한 대중은 君의 才算에만 도취하여 보드러운 우습으로만 껴칠 리 만무하다. 君은 좌익 민족주의자의 異狀이란 小題 하의 경험 비판적 인식방법의 발로를 그냥 그대로 도피하기 위하여 『이 구절은 요컨대 그것은 필자: 의 사상 강연이 아니라 좌익 민족주의자의 형이상학적 동태 그대로를 반영시킨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필자: 의 개성과 하등의 공통성이 없는 彼等の 서술법으로서 彼等の 비물질론적 동태 그대로를 묘사한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면 君은 제후와 戰取문제만의 혼란과 착각이 안이라 한 거름 더 나아가서 때로는 비물질론적 동태의 대변자도 되고 때로는 물질론적 동태의 대변자도 된단 말인가?

다시 말하자면 金若水군은 뿌르조아지의 대변자도 되고 푸로레타리아-트의 대변자도 된단 말이 안인가? 이는 金균 자신의 변명이 안이라 金균의 自混亂의 물적 증거를 제공하는 즉 자기 궤에 자기가 빠지는 요술이 안이고 무엇이나? 이러케 계급적 界線도 찾지 못하게 변태 무진한 정치적 대변자는 계급 진영에 잇서서 최악의 독소가 안일 수 업스니 金균의 所論의 正體를 그 어데서 차질 것인가? 만일에 金균이 계급적 이론문제를 논의한다면 뿌르조아지-의 대변은 단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계급의 협조도 아무것도 안이니 金균의 이 따위 논조가 정신 착란에서 이러난 과오라면 오히려 容許의 여지가 잇을 것이다.

2. 전술의 공개 문제에 대하여

金균은 언제든지 논쟁의 상대자의 이론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안이라 거기에 자기에게 편리할 때로 參削을 임의로 한다. 예를 들면 『반 XXXX요소』란 言句에다 『막연』이란 말과 『협동』에다가 『무조건』적이란 말 등을 첨부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가티 고의로 약점을 허공에다 만들어 낚코는 여기에다 비판을 가한다. 이것 뿐만 아니라 金균은 『陳君의 漠然한 反X요소』라는 견지에서 출발된 무조건적 협동설에 대하여 개개의 투쟁을 통치 아니한 뿌르조아 민주주의XX 그것은 한 개의 형식적 공식주의가 되는 동시에 주관적으로는 여하히 푸로레타리아-트의 독자성과 헤게모니-를 관념할지라도 객관적으로는 푸로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사명과 이해와를 농민에게 追隨케 하는 실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라고 반박하였다.<11>(批判 4월호 민족적 협동 문제의 귀결)한 후에 필자: 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투쟁해야 한다는 방법론이 업서서는 안된다고 반박하였다는 것을 말한 뒤에 金균은 『필자: 의 그것은 다만 투쟁의 가치를 말한 것이요 결코 그 투쟁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아니다. 아니 공개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陳균은 거기에 대한 공개를 강박할 자유를 가진 모양이다. 陳균에게 그러한 자유와 권력이 잇다면 동시에 陳균은 계급 운운의 필요성도 소멸될 것이다

』(同上揭書)라 하였다.

金군의 이론 투쟁 방법이 이와 갓티 기만적이요 관념적이요 도전인데 대하여 필자: 는 놀래지 않을 수 업섯다. 무조건적 협동을 주장하였다는 구실로써 뿌르조아 민주주의XX이 농민에게 追隨케 하는 실재를 나타내게 된다고 결론을 나린 것은 金군 자신이 필자: 의 『조선운동의 신전망』에 『민족운동의 特質』이란 小題 하의 논문은 一句一節도 읽어보지 아니하고 하는 소리이니 이는 그야말로 金군의 인식력의 부족을 공개하는 것이요 金군은 필자: 가 戰術的의 공개를 강박하였다는 말을 하고 십허서 허위의 물적 재료를 만들고저한 可惜한 행동이니 필자: 가 만일에 조건적 협동설을 주장하였다면 金군의 『농민 追隨』운운의 一句는 가엽스나 中傷의 물적 증거맞게 아무 것도 아니된다.

필자: 는 『조선운동의 신전망』중에 푸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의 XX적 가치를 구분하여 釋明하였고 다시 협동문제에 대하여 同 논문 중에 무조건적 협동이 안이라 계급 의식의 論殺이나 계급적 활동을 양보하지 아니하는 한에서 또는 彼等 小뿌르조아지-가 XX적으로 하는 한에서 협동하여야 하겠다는 조건을 붙치였스니 金군은 도모지 이런 구절을 읽어 보지 못하였다는 말인가? 그러치 안니하면 金군의 눈에는 이러한 구절이 보이지 안었다는 말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결할 문제의 초점이 안이니 이 말만은 여기에 낄치고 金군의 가장 하고 십혔든 말인 소위 『투쟁의 내용 공개』란 문제로 옮기기로 한다.

이는 金군이 스스로 시인하는 동시에 그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투쟁의 방법론』이란 말을 『투쟁의 내용』으로 轉變식힌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잇서서 『투쟁의 내용』이라하면 조직 문제까지를 포괄할 수 잇지만은 『투쟁의 방법론』이라하면 전술 문제만에 국한된 것이란 것을 金군도 깨달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별문제로 하고 金군의 心算은 뿌르조아 민주주의XX문제에 대한 방법론을 『투쟁의 내용』이라고 한 모양이나 필자: 는 이를 일정한 전략에 대한 전술로서 해석한다. 그리도 또한 金군이 이를 『개개의 투쟁』이라 하였스니 이는 일정한 시간에 국한된 전술일 것이다.

그러면 金군이 주장하는 바와 가티 전술이란 것은 언제든지 무조건적으로 발표를 부정하여야 될 것이며 이를 논의하거나 발표한다면 이는 계급 운운을 말할 필요가 과연 소멸되는가?

金군의 말에 의하면 필자: 가 전략과 전술문제에 잇서서는 대답이 곤란하야 레닌주의 서적의 謄寫 운운의 말로 대신하였다고 몇 번이나 되푸리하였스나 실제에 잇서서 金군은 전술이란 그 무엇인지 이해조차 하지도 못하는 모양이다.

金군은 이 전술 문제를 일정한 X合法的 조직의 내용인 것처럼 가상하여 가지고 이에 공개를 강박하였다고 역설을 함으로써 만족하는 모양이나 필자: 는 부분적 투쟁의 구체적 방법론의 수립을 주장한 바 잇섯지만은 이 문제까지도 金군에게 강박할 만한 책임도 권리도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조차 늦기지 안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군은 무슨 위협이나 늦기는 듯이 투쟁의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발악을 한다. 그러면 누가? 어디케? 언제? 그러케 金군에게 투쟁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강박을 하든가? 내용 공개의 강박 운운은 그야말로 金군의 잠고대가 안이고 무엇인가?

그러면 전술이란 언제든지 발표하며 토의하며 수립할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안이다. 전술이란 도적을 무서워하는 보물이 안이요 대중행동의 감잇는 指南이다.

그럼으로 비록 계급적 대중운동 그것은 일시적으로 X合法的XX을 지속하고 잇다 할지라도 행동에 대한 구체적 스로-간은 언제나 X合法的 영역을 넘어서 광범한 대중의 머리 우에 떨어져 잇서야 한다. 金군은 이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하며 自家 인식의 착오를 깨달아야 한다.

3. 現下 정세의 본질적 특징

제휴이나 戰取나 하는 문제는 사회적 모방이나 급진적 假面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계급 세력간의 변화 及 그 이동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의 절대적 조건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문제의 해결은 現下 諸정세의 본질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現下 정세의 본질적 특징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는 그야말로 과거의 무조건적 협동과정에서 푸로레타리아-트의 해계모니-의 확립과 및 小뿌르조아지-의 戰取과정으로의 과도적 과정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는 것이다. 푸로레타리아-트는 민족주의적 諸세력의 분산과 혼돈이 극한 이 시기에 잇서서 X進的인 X領을 揭揚하는 것으로써 민중적 戰取를 기도하는 一方 기성 민족주의적 諸집단의 대중적 지도권의 탈취를 위하여 계급적 前衛分子의 분산적 활동과 및 좌익민족주의와의 일시적 제휴가 필요할 것이니 이는 계급적 행동의 양보를 하지 아니하는 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급진적인 小뿌르조아지層과 및 그 대변자인 좌익민족주의자 등이 XX주의와의 완전한 타협으로써 무산계급의 XX的 XX을 감행한다면 이는 별문제이지만은 현재까지도 彼等 좌익민족주의자 등은 급진적인 小뿌르조아지-의 부분적 이익을 대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동시에 그 계급적 의존처를 선명히 하지 아니하고 있는 까닭에 무산계급은 계급적 활동의 양보가 없는 한에서 彼等の 중립화나 일시 제휴는 가능한 일이고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는 彼等 좌익민족주의자 등을 맹목적으로 신임하고 있는 무의식한 대중을 푸로레타리아-트의 영향 하에 흡수하기 위한 과도적 方略인 것이다. 이 과도적 과정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現下 정세의 특징인 것이다. 現下의 諸계급세력간의 XX은 일반적으로 그 세력관계의 變化-移動-分化 과정에 노획 잇나니 이는 XX的 위기로의 발전인 것이요 혼란을 過渡的한 특징인 인 것이다.

그런데 金군은 이러한 시간적 정세는 전혀 망각하고 미래의 戰取과정만을 연상하는 데에서 무조건적으로<12> 급진적인 粉裝만을 꾀하는 것이니 이는 조선에서 새로 발생된 의식적 경향이 안이오 일찍이 1921년대의 러시아에서 일어났든 트로츠키즘의 再生이오 1927년경 일본에서 山川均等の 전략상의 과오를 범한 것과 가튼 경향의 모방이다.

1921년 러시아에서 뱌프를 선포하였을 때에 트로츠키-는 이를 자본주의에도 투항하는 것이라 하여 좌익적 가장을 하였스나 실상은 제2 인터나쇼날의 견해와 일치되었스며 1927년경에 山川均은 일본의 전략 과정이 러시아의 1917년 3월 XX이후의 그것과 동일하다 하여 급진적인 것처럼 호언을 토하였스나 실상은 현실을 무시하고 실제적 XX을 도피하는 관념론자로 규정된 것과 가티 金군은 現下의 諸정세를 무시하고 白紙가티 순결하고 깨끗한 공식만을 요구하여 戰取戰取만을 독주하면서 『특수』또는 『돌연적』이란 註로써 동지의 애호에는 자기의 존재까지 沒覺한다.

그러나 이는 人情主義者로서 동정할 여지는 잇슬지는 모르지만은 탁월한 계급 투사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의 계급운동의 전 영역이 急速度的으로 확대되고 전 대중이 그 자신의 X治的 경험에 의하여 좌익 민족주의자의 전 용모를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저들과 분리함을 주저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좌익민족주의자가 急角度的으로 그 전체가 우익화하고 잇다면 새삼스럽게 그들과 제휴나 그들의 중립화를 요구할 필요를 늦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現下의 諸정세가 압날에 이

러한 과정을 압두고 急速度的으로 발전되는 諸계급勢 간의 分化와 혼란을 극복하기 모든 노력을 앓기지 말아야 할 *에도 불구하고 金균은 이 실재적 諸조건은 거부하여바리고 다만 미래의 새로운 과정만을 동경하는 것으로써 만족을 느낀다 함은 투쟁을 회피하고 그야말로 방관주의를 선언한다는 哀願曲뻑게 아무 것도 아니다.

준비 업시 미래의 영화를 꿈꾸는 자는 공상주의자이오 실재를 거부하면서 급진만을 高調하는 자는 사회투기주의자일 것이니 金균은 그 어내 편에 全屬되는가? 이제 金균에게는 저주와 분노와 妬嫉보담도 容觀的 諸정세의 분석과 및 그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니 공리심에서 끌어 나오는 焦焦한 감정만은 억제식히고 냉정히 자기 비판을 해야할 것을 깨달아야 한다.

비록 이 제휴의 필요가 전체적 운동으로 보아서 가장 적은 부분이오 이 과정이 극히 짧은 순간이라 하드라도 이를 그냥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업는 것이니 저들 급진적 小뿌르조아지-와 및 그 대변자가 미약하나마 反XXXX的 요소로써 존립하고 있다면 이에 그 제휴는 가능한 것이오 일정의 조직상의 원리로 보아서도 정당한 것이다. 이는 이론만의 주장이 안이고 실재가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잇지 안이한가? 나날이 뿌르조아지-신문지상에서 보는 바 反XXXXXX과 및 그 XX과 조직적 발전은 어디로 가는 것이며 무엇을 반증함인지를 金균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다면 公式主義的 妄斷은 金균이 깨달을 수 잇을 것이다.

4. 모방과 실재 문제의 分區

1902년경에 러시아 무산계급 운동이 서구의 先進諸國의 계급 운동 그대로를 모방하는 데에서 일부 대중이 혼란과 착각을 미면하였든 바와 가티 조선에 잇서서도 先進諸國의 이론을 무조건적으로 직수입하여 이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에서 또한 幾多의 혼란과 착각을 일으키여 왔든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도 일본 무산계급 운동의 이론을 그대로 인수하여다가 모방하려고 하였든 경향은 가장 농후하였든 것이다. 그런데 金若水군의 좌익민족주의자의 XX力의 否定 문제는 또한 이러한 경향에 물든 소치이라고 규정할 수 뵈게 업다. 이제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종주국에 잇서서 小뿌르조아지-의 대변자 등은 사회 과시즘화 하여 사회민주주의자까지도 帝國主義의 斥候로써 그 萬全을 기하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업지만은 식민지에 잇서서의 급진적인 小뿌르조아지-의 대변자는 反XXX의 요소로써 등장함을 마지 아니하고 잇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는 마치 1917년대의 러시아에 잇서서 면쉬비키-가 帝國主義 정책에 追隨한데 反하여 1926년대의 중국의 국민정부가 객관적으로는 결정적 反XXXX的 정책을 취하였습과 가티 일본에 잇서서의 小뿌르조아지-의 대변자의 동향과 조선에 잇서서의 급진적인 小뿌르조아지-의 대변자의 동태는 그 사회계급만을 본질적으로 동일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그 정치적 동향의 기본적인 차이가 잇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金균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小뿌르조아지-의 정치적 동태에 대하여는 그 기본적인 구분을 하는 바를 보지 못하였다. 다만 金균은 小뿌르조아지- 그것을 그 본질적 구명에서 非무산계급적 부대라는 공식적 결정을 나리는데에 꺾치고 특수적 조건에 의하여 彼等 小뿌르層이 反X요소가 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 金균은 反X요소를 말할 때는 자기 인식의 부족은 깨닫지 못하고 막연한 反X요소라고 더듬거리고 있다.

여기에 金균의 맑스주의적 이론의 근거가 심히 박약한 증거가 나타나고 잇스니 自體한 뿌르조아지-의 대변을 하는지 푸로레타리아-트의 대변을 하는지 그것까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金균은 이러한 견지에서 新幹會의 解消 그것도 급진적인 小뿌르조아지-와의 분열을 위한 XX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新幹會의 解消 그것이 力의 분산에 잇는 것이 안이오 푸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결성의 확대와 강화와 및 헤게모니-의 확립에 잇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金균이 생각하는 바와 가티 이에 대한 구체적 XX방법을 한 개의 머리 속에 숨겨 두는 데에서 결정될 것이 안이오 현하 정세에 대한 과학적 비판과 그에 대한 XX의 구체적 방법론- 즉 실제 정세에 適應한 전술의 확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보아서 金균의 푸로레타리아-트의 운동에 대한 이해는 공식적이오 사물에 대한 인식 방법은 唯物과 唯心을 방황하는 혼돈된 이원론적이라는데 그 正體가 숨어 잇는 것이다.

金若水군은 조선 푸로레타리아-트 운동선상에 잇서서 손꼽아 세일 수 잇는 명예 잇는 투사이 엿스나 그러나 이제 전술상의 부분적 문제의 토의에서 金균 自進하야 뿌르조아지-의 의식 그 대로를 반영식히었다고 자백하는 것은 심히 애석한 일이다. 이와 가티 金균의 뿌르조아지-인 테리로의 移行은 계급운동의 일대 손실이 아니면 아니된다.

그러나 필자: 는 이것이(제15頁에) <13> 의식적 행동이라고는 밋고 십지 안타. 金균은 모방과 실재를 구분할 줄 알 것이오 唯物과 唯心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잇스며 자기 자신의 비물질론적 대변이 뿌르조아지-의 대변자가 되는 줄을 자각하리라고 밋는다. 이는 金균 자신의 관념적 자만이나 氣配에서만 청산되는 것이 안이오 대중의 알에 자괴 잘못을 고백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어야 한다.

5. 약간의 해답과 論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金균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약간의 해답을 하고저 한다.

金균은 『批判』誌를 계급적 출판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高所의 잡지라고 한 것을 필자: 가 계급적 출판물이라고 하였다 하야 『高所』가 『계급』이나고 대성 嫉呼하였다.

그러면 『批判』誌은 『彗星』誌에 비하여서 3층 양옥에서나 발행하기 때문이나 『彗星』社는 남쪽 잇고 『批判』社는 북편에 잇스니까 高所의 잡지인 것을 필자: 가 『高所』를 『계급』으로 이해하였다는 말인가? 그러치 안으면 양자가 동일한 비계급적 출판물인데 『批判』은 『階』字와 『級』字가 더 만히 실니엿스니 高所란 말인가? 이에 대한 필자: 의 이해력이 부족하였다면 필자: 는 金균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한다.

金균의 사회평론지에 대한 구구한 해석은 『高所』운운과 함께 『批判』誌의 옹호가 안이오 계급의식의 말살을 위한 비물질론적 해답인 것도 이로써 이해할 수 잇나니 金균은 관념적으로 『기술은 발전이오 성장이오 극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잇서서 『사회평론』이란 術語는 『발전』도 『극복』도 거부하고 靜態 그대로 만족을 구하는 모양이니 金균의 이론과 실천과의 불합리는 여기에 枚擧하기 어려울만큼 山積하였다.

그리고 다음에 金균이 제일 자랑거리로 말하는 『전망』과 『전개』의 문제에 잇서서 『전망』이란 그 術語가 『관망』이란 語意와 동일한 문구이라면 그것을 청산하기에 주저하지 아니한다. 이만하면 金균은 대승리나 한 것 가티 만족할 지 모르나 그러나 術語의 해석 그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근본적 전술문제나 사물의 인식 방법에 잇서서 투쟁 도피적이나 비유물적 방법이라면 이는 전체적으로 반동적 언사땃게는 아니되는 것이니 이에 대한 金균의 잘못을 깨달어야 할 것이다.

이 따위 문제는 적은 口論에 지나지 못하는 부분적 문제이지만은 계속적으로 쌍방이 논전을

전개한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 문제는 金군이 말하는 바와 가티 『小兒의 翫具』작란이나 『乙女的 妬嫉』에서 출발된 것이 안이오 전술문제의 견해의 相違에서 출발될 것이니 이에 대한 해결은 계급 운동을 위하여 적지 않은 의의를 갖는 것이다.

실재와는 하등의 상관적 관계가 업시 일시적으로 관념적 이론상으로만 우월한 지위에 있다가나 皮肉의 언사를 교묘히 사용하여 상대방의 敵氣心を dots다고 승리를 얻는 것은 아이다. 일정한 이론에 대한 비판과 극복은 실재에 대하여 정확한 비판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하여 극복할 만한 힘(力)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金군은 사회계급세력간의 변화가 如何한 移動과 分化와 그 대변자 등의 동태는 如何한 코-스를 갖고 있다는 데는 일언반구도 논하지 아니하고 원칙적 이론만을 공식적으로 나열하는 데에서 좌익적 假裝안을 피하는 것은 임시응변은 될 수 잇슬는지 모르나 실천화할 수 잇는 행동의 指南은 될 수 업는 것이다.

만일에 金군이 참으로 이론의 실천화를 기도한다면 우선 전술공개에 전율할 필요가 업는 것이오 비방과 惡口로만 방어에 고심하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무용의 배설물이다. 金군의 이론은 대중의 압해에서 一枚의 재담의 레코-트는 될지언정 행동의 指南으로써 섭취할 만한 言句는 찾을 수 업다. 이는 달음이 안이라 陳榮喆 개인에 대한 皮肉과 惡口와 비방으로만 페이지-를 연장식히었기 때문이다.

金군 자신이 선언한 바와 가티 제3자적 관광 기분을 분쇄코저 한다면 君의 躍出은 지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에서도 빗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君의 실천을 나의게 제시하라고 강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 안심할 것이다.

金군과 필자: 와의 논전은 이것으로 귀결을 지으려 한다. 金군의 이론이 사물에 대한 일정한 비판에서 그야말로 일보일보 발전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전후 2編을 통하여 점점 모순의 발로만을 열심히 감행하고 잇슴에는 민망스러운 생각이 들어 다시 붓을 들기 실태.(本稿는 오래 전에 썼든 것이다)<15>

<11-13, 15>

67.

잡지명: 삼천리 제4권 제5호

발행년월일: 1932년 05월 15일

기사제목: 民族的 經濟運動의 三要素

필자: 薛泰熙 벽태희

기사형태: 논설

民族的 經濟運動의 三要素 (민족적 경제운동의 삼요소)

薛泰熙

우리의 現下事情이 무슨 憧憬 무슨 이상보다도 爲先 當面한 死線에서 버서날 운동 그것이 급무일 것이며 그러한 운동 가운데서도 생명지속에 불가피할 경제운동이 最先 且 最繁한 급무일 것이니 우리가 평일에 土産運動을 이르킨 것도 물론 이에 대한 切要한 방편이라고 생각한

까닭이외다. 그러나 지금까지에 그 운동은 한갓 宣傳機關됨에 불과하였고 실지사업으로는 姑且一件도 성취한 것이 없었으며 설혹 今後에 自作自給의 結條下에서 朝鮮人本位の 産業—특히 각종 공업이 處處에 勃興한다고 하더라도 自由經濟主義 즉 資本主義的 現經濟制度下에서 強食弱肉의 상태로서의 모든 산업이 전개되는 時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天下大勢에 순응되는 平和基調의 산업이 아닐뿐 아니라 지금의 朝鮮人的 財力과 智力으로는 도저히 해외수입품을 抗爭勝利할 利法이 없을것이었던 機宜의 살피야 될 것이니 그 機宜의 소재는 朝鮮産業의 最大策源인 농촌일 것 이외다. 농촌을 망각하고 산업을 云謂한다 함은 더구나 朝鮮사람으로서 緣木求魚의 망상일 것이외다. 그러면 농촌의 부흥책이 과연 무엇일가요? 원래 수단과 방편은 1, 2가 아니러니와 가장 다방면으로 浩機가 될 것은 爲先 左의 3種기관을 조직이라고 단언할 수 있으니 즉 全朝鮮을 통하여 1은 面單位의 생산조합의 조직 2는 2面合同1個의 鄉村金融組合의 조직 3은 洞 或 里單位의 商店1個의 조직이외다. 이제 그 조직과 경영의 방법을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 생산조합이란 것은 일반의 通例가 잇거니와 一面을 단위로 한다하면 그 面內에 고유한 생산재료와 又は 他處에서 구입한 원료로 가공제품하는 物 모든 생산수단을 조합 一個所의 一手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품양을 ◆ 齊一製品賣出의 共同機械器具 등의 共同 其他 모든 방편을 共同으로 이용하려는 조직이니 그 損益計算은 부득이 現制度대로 出資口數를 表準할 수 있게 업슬 터이나 되도록 그 面內전주민의 均被其益하는 정신으로써 함이 切當하고 鄉村金融組合의 조직도 역시 現勢대로 出資口數의 표준적 損益이 될 터이나 이것은 鄉村有産階級の 責任上으로 半犧牲的 營利經營으로 하지 아니치 못 할 것이외다. 이 조합은 各自 管內의 生産組合 及 洞里 상점의 融通자금의 후원과 내외 도시와 향촌간의 爲替營業의 從事에 當하는 機關임으로 최초 성립상 당국의 허가를 요케될 동시에 各 銀行 及 半官的 金融組合과의 연락을 取게 될 것은 물론이외다. 洞 或 里의 상점조직은 절대적으로 주민의 均勢로 조직하여야 될 것임으로 그 出資에 限하여서도 每戶 10원이면 10원 20원이면 20원으로 均일케 할 것인데 其中 빈민의 부분은 有産者가 先貸하고 將來利益 當時에 此를 結 제케 함이 조할 것이외다. 그리하여 增築戶數는 次第로 가입될 것이오. 移住來去에 관한 股權 도 보통 現制度의 隨入의 得失과는 조금 다르고 寧히 鄉村會社와 가치 居住戶에게 均分의 享受의 利樣을 付與할 것이외다. 이 洞 或 里商店의 利益見當은 말할 필요도 업시 거대함이 명백하다. 大抵 洞里商店은 구매와 매출에 共히 5, 6處式 거처서 中間상인 及 중개자의 취득되는 손실을 免하여 自洞里의 이익 즉 수용자 자신의 이익을 圖하는 機關이니 예컨대 구입도 製造處에서 直輸入을 하고 매출도 직접 도시에 輸移出하는 연락을 取하는 가장 洞里를 富興케 할 活機關이 되는 것이외다. 一洞里의 소비율 一手로써 配達케 되는 점으로는 소비조합이나 구매조합과 갖고 일동리의 생산량◆을 일수로써 매출케 되는 점으로는 생산조합과 갖고 이에 대한 股權을 이용하는 점으로는 신용조합과 갖고, 일반물가 時勢를 覺醒케 되는 점으로는 중요한 경제개념을 常習케 하는 機關이 되고 도시의 흡수력을 抗退하는 점으로는 농촌이 도시화할 張本이 되고 一村落의 利害를 共히 하는 점으로는 部落社會心理의 도덕화 될 경향을 促할 兆朕이 잇고 그 촌락의 利害를 중심으로 하여 구입할 것만을 구입하고 그 불리한 것 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점으로는 농촌통관의 세력이 잇고 기타 직간접으로 농촌문화의 소개소가 되는 好기관이 될 것은 頂히 眞言할 바이외다. 더구나 이러한 機關이 스스로 농가의 부업장려를 하게되는 大効益이 잇고 따라서 農民離村의 예방이 되야 도시 노동자 증가의 폐해가 防杜된다하면 이 動搖의 過渡期를 短縮케하는 平和助長의 효력이 크고 클것이외다.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는 데는 이것을 各個 농촌형제의 自發을 기대하거니와 적지아니한 사업적 아니 민족적 又は 사회적으로 책임사상을 가진 一般兄弟의 협동노력이 現下의 正세로는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그것도 조직이 잇서야 될 것이니 이것은 財團으로 獎産社를 發起함이 엇더할가 합니다. 가령 全朝鮮을 총조직하려는 경영으로 4기에 分하여 제 1기에 50郡의 선택하여 그 50군의 所管面 略 6백處에 생산조합 6백개소를 조직하도록 督勵할 것이요. 이 구역내에 향촌금융조합 3백개소를 설립한다하면 이 설립이 懲憑과 성립된 後業務를 지배할 지배인 혹은 理事의 任을 가담할 인원 2백명을 양성하여 그 衡에 當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 인원의 報酬는 적어도 설립후 2개년까지는 獎産社의 부담으로 하여야 될 것이외다. 獎産社는 이 책임을 負하고 一面으로는 전국 要樞에 출장소 등을 置하고 총생산조합과 總洞里上점의 구입매출의 위탁중개업에 종사할지니 이 종사에는 상당한 수입이 잇을 터임으로 총부담 지출의 充用에는 넉넉할 것이외다.

이러한 경영으로써 獎産社를 설립하는 데는 적어도 백만원을 총자금액으로 하고 此를 4기에 分하여서 제 1기에 25만원을 모집하는 방안을 세움이 조켓다고 생각합니다. 有志한 有産階級과 有識階級の 表情으로써 이 管見에 贊同하여 獎産社를 발기성립하기를 적절히 懇望하는 바이외다. 이 계획의 실현은 거이 조선민족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謀猶라고 확신합니다. 원컨대 우리 형제중 有産有識階級の 人士는 祖先을 위하여 현재를 위하여 자손을 위하여 모든 저주의 干板됨을 면하기 위하여 최고의 榮譽을 위하여 黃金一擲 此事業一件에 성의를 표하여야 할 것이외다. 능력이 잇서도 잘 쓰지 아니하면 貴치 아니하고 금전이 잇서도 잘 쓰지 못하면 도로혀 禍端이 되는 理諦를 審察하여 잘 쓰고 잘 될일이 此一事에 잇는 줄을 김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12>

<12>

68.

잡지명: 삼천리 제4권 제8호

발행년월일: 1932년 08월 01일

기사제목: 民族的 大統一黨 結成 前提로 現有 諸團體 解體 提議

필자:

기사형태: 대담·좌담

民族的 大統一黨 結成 前提로 現有 諸團體 解體 提議 (민족적 대통일당 결성 전제로 현유 제 단체 해체 제의)

삼년전, 大 「新幹會」가 崩毀된 이후 그러케 우리사회에 橫溢하든 人材와 모든 활기는 다시 자취를 감추고 寂然 無聞하다. 이때에 모든 識者가 考究할 當面의 문제는 우리의 總意를 표현하는 大統一기관의 결성이리라, 그래서 現下 최대 긴급의 과제로 되어잇는 농민구제 문제와 교육의 보급문제 등을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또 혹은 전면적인 정치운동으로서 해결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前記 통일단체의 결성에 선행하여 吾人이 留意할 문제는 흔히 派閥과 지방적 편견 혹은 부분적으로 결합된 諸部門운동의 단체를 모다 깨긋하게 이 기회에 해체함이 可하지 안을가 함이라 이 點에서 우리는 當路 諸씨에게 左와 如한

질문과 제의를 하여 그 회답을 어덧노라.

六千의 會員을 擁한 朝鮮物産獎勵會에 對하여

出現이 可能하다면 朝鮮物産獎勵會 明濟世

本社側—몬저 朝鮮物産獎勵會 의 會勢부터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재산, 회원, 사업진행상태는 엇더케 되어잇습니까.

明濟世—회원은 名簿에 올너잇는 이가 約 6천명에 달하지만 그 중에서 회비도 내고 자기가 物産獎勵會員인 줄을 인식하고 그리고 會規를 잘 지켜 나가는 분이 반은 되는 줄 압니다. 그 중에도 서울의 현상은 회원 3천 중 정말 분명한 회원은 그 5分之 1인 約 6백으로 볼 수 잇습니다.

本社側—지방으로는 어느 곳이 가장 우세합니까.

明濟世—平壤이 가장 큼니다. 회원 1,000명을 算하니까.(단 平壤만은 支會는 아니외다.) 그리고는 寧邊, 安州, 開城, 咸興, 通川, 金泉 等地가 다 유세합니다.

本社側—會의 자산은?

明濟世—多少 거치는 회비가 정상적 수입이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事務費 等を 써왔습므로 지금에 남아잇지는 아니하였고 빠고다공원 뒤에 잇는 獎勵會 회관도 지금은 엇든 사정으로 우리 소유가 아니며 그 밧게 動産不動産은 別無합니다.

다만 신회관 建策을 위하여 興一社 1,000원 京城紡織 500백원 등으로 建策費를 기부하여 주기로 된 곳이 잇습므로 결국 不遠에 10,000원 정도의 신회관 하나는 建策되겟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會의 자산으로 될 것임니다.<3>

本社側—物産獎勵會는 지금까지 소비자층에 會勢를 확장하려 하였습니까.. 또는 생산자층에 주력하였습니까..

明濟世—생산자층에 힘을 만히 켜지요. 織造공업가라든지 고무공업자라든지 위선 생산업자 층을 모이고 단합식하기에 힘을 켜지요 그래서 全鮮 각지의 생산자치고 우리 회원이 아니된 분이 적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생산애용자 방면에 더 주력하고 잇습니다.

本社側—생산자라면 그는 엇더케 규정잇습니까..

明濟世—「朝鮮人の 자본으로 朝鮮人の 노력으로」『朝鮮人 需要의 物貨를 생산하는 者라』합니다. 그러기에 京城紡績은 우리 회원이 될 수 잇스나 釜山방직이나 동대문땃 鍾紡은 우리 회원이 될 수 업습니다.

本社側—여러가지 點으로 土産은 外貨보다 優秀치 못할 터인데 그것이 廣汎하게 애용이 되겟습니까.

明濟世—外貨보다 못한 點이 잇기야 하지요. 그러치만 그 대신 값이 싸니까.—그리고 질기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표어는

「못하더라도 내 것을 써라.」

하고 부르짖습니다.

本社側—아presso 이 物産獎勵운동이 前朝鮮적으로 전면적으로 크게 떨칠 날이 잇서지리라고 보십니까.

明濟世—當路者인로 우리로서야 그러한 抱負와 희망이 업슬 수 잇겟습니까.

本社側—이제 전면적 운동을 이르킬 새 단체의 출생에 대하여 모든 部門운동을 하여오든 종래

의 諸단체가 잇는 그것이 몹시 障礙가 된다면—위선 物産獎勵會도 障礙가 된다 假定하면 해체하여 버리는 것이 옳다하겠습니까.

明濟世—그러케 우리들이 理想하는 것 가튼 大統一단체가 나와지리까. 나는 껍으나 의문으로 봅니다. 객관정세와 內情의 不利로—그러치만 우리의 理想대로 만일 그리만 된다면 物産獎勵會 지금의 단체를 해체할 수도 잇을 것이외다. 위선 과거를 回顧하면 우리의 목적이 奈邊에 잇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大正 12년 1월에 창립이후 大正 15년에 이르러 전면적 진출을 각오하고 우리는 民興會 를 發起결성하였지요. 그것이 新幹會와 합동하여 후일의 新幹會가 되엿는 것이외다.

대체 物産獎勵를 하자면 朝鮮人 산업보호의 의미에서 자연히 관세정책에 言及하게 됩니다. 그런데 <4> 이러한 정치문제의 처리에는 한 개의 物産獎勵會로서만은 힘에 不逮합니다. 요컨대 大단체 결성이 완성된다면 우리는 그 모임 속에 융합하기를 거부치 안겠습니다.

二千의 會員을 擁한 朝鮮教育協會에 對하여

別立도 無關할 듯 朝鮮教育協會...俞鎮泰

本社側—교육협회 는 현재 얼마나 되는 회원을 가지고 잇습니까.

俞鎮泰 —嶺南, 湖南방면에도 회원이 만흔 바 모다 합하면 2천명은 넘습니다.

本社側—재산은?

俞鎮泰—鎮川에 2백石 추수하는 땅이 잇지요. 그러치만 그것은 停車場에서 70리나 드러가서야 잇는 토지이기에 地價가 높흐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추수 2백石을 每石 6원씩 잡으면 1,000여원이 되는데 그 토지의 세금이 430원이 들고 그리고 서울 잇는 水標町의 이 교육협회의 세금과 전화료 수도료 등을 통떠러 年 6백여원은 됴므로 이것저것 公課 등을 잡고 나면 한분도 사업자금으로 짓지는 안습니다.

本社側—현재 하고 잇는 사업은 무엇무엇입니까.

俞鎮泰—돈이 잇고야 사업도 사업답게 되어가지요. 돈이 업는 곳에 사업이 또한 업슴넌다. 그러서 세상에 뚜드러지게 하여나가는 우리 會의 사업이라고는 別般업고 요지간 회관 안에서 漢語강습 등 학술강습을 하고 잇습니다.<5>

本社側—新幹會以上으로 더 완전하고 더 유효한 大統一단체가 결성된다면 교육협회도 그 안에 드러가서 일을 함이 조치안겠습니까.

俞鎮泰—大統一단체라함은 정치운동 단체를 말함이겠지요. 그러치만 반드시 그 속에 드러가지 안어도 일할수야 잇겠지요. 더구나 우리는 교육방면을 위한 단체이니까.

本社側—小단체가 分립하여 잇다는 것은 결국 派分の 惡思潮을 끼치게 되까 그 點에서 모든 기준세력이 새 단체의 傘下에 모혀지는 것이 옳치안겠서요.

俞鎮泰—모이지 안코라도 가치 손맛잡고 일하여 갈 수 잇겠지요. 또 경우에 의하여는 해체하고 드러가도 조쿠요.

그러치만 나보기에는 큰 단체가 이러설 것 갓지 못함테다. 첫째 돈이 업지요. 자 보시오. 역사 잇슨 후 무슨 일 치고 돈이 넉넉지 안코 되어진 일이 한 가지인듯ᄇᆞᆫ 잇섯습니까. 그리고 3分 5裂된 현재의 朝鮮사람의 思想을 가지고는 어려운 줄 압니다.(下略—원문)

百四十의 會員을 가진 同友會에 對하여

修養團體니까. 同友會...李光洙

本社側—同友會 회원은 현재 얼마나 됩니까.

李光洙—朝鮮안에 있는 이로 140명이나 됩니다.<6>

本社側—興土團은?

李光洙—興土團은 해외에 約 400명이나 된다고 하는 바 그러나 同友會와 興土團이 전연 연락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케 緊密한 관계에도 있지 않습니다.

本社側—그러면 興土團은 오늘 이 논의에서 전혀 論外로 합시다. 최근 某 소식통으로 들건대 민족적 大統一단체의 결성을 위하여 유의하는 분이 만하져서 그 기운이 점차로 濃熟하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측으로서 未久에 신간회 이상의 대단체가 나와지리라고 보는데 그러다면 동우회를 해체하고 이 대단체 속에 드러가서 합심하여 여러분과 가치 뜻을 이루워 봄이 올치안겠습니까.

李光洙—새로 나오는 큰 단체가 우리 同友會의 主義정신과 전연 일치한다면 해체하고 드러감에 조금도 躊躇치 안겠습니다.

그러치만 同友會는 修養단체외다. 밋갓헤서는 정치운동 단체로 보는 이가 간혹 잇는지는 모르나 또 밋갓헤 잇는 興土團도 그것이 정치운동 단체는 아닙니다. 과거 24개년 동안에 그 단체가 정치운동을 하엿든 實例가 어디 잇섯습니까. 잇섯다면 개인으로 관계한 1,2의 例밋게 업겠지요.

本社側—아무리 修養단체라 할지라도 朝鮮동족의 利害休戚에 무관심할 수야 잇겠습까.

李光洙—그야 無論이지요. 생각건대 새로 나오는 단체라면 그는 농민문제를 해결지어야 할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겠지요. 實로 지금은 비상시기로 島山말슴 모양으로 갓가히 보면 「농민의—요 멀니 보면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농민문제의 전개 如何에 누구나 관심할 處이지요.(下略—원문)

此外에도 해체를 제의하여 본 단체가 잇섯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省畧합니다. (편집자)
<7>

<2-7>

69.

잡지명: 삼천리 제4권 제10호

발행년월일: 1932년 10월 01일

기사제목: 朝鮮民族은 南進乎, 北進乎,

필자:

기사형태: 세태비평

朝鮮民族은 南進乎, 北進乎, (조선민족은 남진호, 북진호,)

西伯利亞에 移農

韓龍雲

흰옷 입은 우리들은 장차 어디에 安住의 땅을 차츰내고, 南인가? 北인가? 南이라하면 米洲나 布哇나 東京大阪, 北海道일 것이요, 北이라하면 滿洲와 西伯利亞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넷땅에서 농사할 거리가 업고 입에 풀칠할 것 업시된 貧農들은 어디로 가려내고?

나는 한마디로 웨치고 십다. 우리들은 이 땅을 떠나지말자고.

그러나 아마 이말은 사실에 즉 한말이 되지 못하리라, 총독부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海外에 흐터져 잇는 朝鮮人 數는 2百萬을 넘는다 하는데 이는 해마다 증가하여 가고 잇는 것을 통계는 말하고 잇다, 그러기에 故土를 떠나고 십던마던 貧農層은 衣食을 위하여 작고 밋갓으로 흘너가고 잇슴이 뚜렷한 사실이다,

이 趨勢를 막을 수 업는 현실을 우리들은 가졌다. 가진以上 이미 흘너간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 조흘가 하는 그 방향의 檢討에 당연히 逢着하게 된다,

그런데 南方에 잇는 布哇나 米州가 念頭에 떠오르지 안음이 아니나 지금 移民法때문에 勞働할 목적으로서 그 곳으로 渡往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잇다.

그리고 東京, 大阪이나 北海道 等地로 간다면 그는 농사지으려 감이 아니라 공장 노동자로서 가는 것인 즉 그 數조차도 스스로 제한밧을 것이요, 또한 多數한 농민이 移住할 곳이 못된다. 於是乎갈 길은 北進이 남게 된다,

그러나 近日 滿洲移住를 말하는 이가 잇는데 그야 토지가 廣濶하고 隣接地인 점에서 누구나 갈 수 잇게 된 곳이지만 신문紙上으로 보아도 그 곳에는 아직도 騷亂하다, 馬賊 등의 피해로 同胞의 苦難이 자심한 바 잇다 한다,

그럼으로 나는 간다면 西伯利亞로 집단적 移住함이 유일한 길이 아닐가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先行조건이 붓는데 아무튼 어느 지역을 100年이고 50년의 無償拂下를 바더 거기에서 農作을 지어먹으며 生途를 開拓함이 올치 안을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잇스나 아직은 결론만 提示하고 말려 한다.

失業勞働者와 進路

林元根

대체로 이런 문제는 오직 皮相的 관찰下에 彌縫의 答변을 할 수 밧게 업는 것이니 그는 문제 自體가 아무런 永久한 해결성을 가져지<51> 못한 까닭이다,

南은 必然 日本을 云謂함이요. 北은 南北中領의 滿洲나 西伯利亞들을 가라침일 것이다.

그러타면 이런 문제는 이제 새삼스럽게 우리들아페 가로노힌 그것이 아니요 임이 과거 몇10년동안에 互한 長久한 역사적 體驗으로서 그의 보다 가능한 移住의 길을 취할 수 잇을 것 가티 생각된다,

그러나 南에서 北에서의 移住同胞들의 생활현실은 어떠한가? 東京大阪에는 임이 40萬의 朝鮮人이 移住하게 되었다. 물론 그 數字가 모다 朝鮮勞働市場에서 驅逐된 실업노동자라 할 수는 업는 것이나 그의 8割까지는 거의 鮮內에서 생활의 길을 일코 그곳까지 出稼한 것으로 볼 수 밧게 업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오늘 依然히 그곳에 잇서도 실업群의 圈內를 버서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XX의 차별감정下에서 住宅難 취업난 등의 諸生活苦로써 커다란 受難을 당하고 잇는 것이다, 더구나 數年前부터는 임이 일반이 周知하는 바와 가티 朝鮮人의 日本渡航手續의 극히

곤란하게 되야 특히 朝鮮실업노동자의 南進에 대한 莫大한 支障을 이르고 잇스니 日本의 산업이 또다시 振興되고 그의 國策이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도모지 現狀打開가 곤란할 것이다. 그러다고 北에서는 또한 北으로서의 눈물겨운 情景이 전개되어 잇스니 南北滿洲에 移住하여 잇는 2百萬의 多數 朝鮮人은 지금 그 어떠한 情景下에서 辛酸한 호흡을 마시고 잇는가? 그들의 現狀을 哀訴하기에는 임이 붓곳이 무디었고 神經에 녹이스렀다. 일즉이 荒涼한 바람이 부러오던 滿洲땅은 그들의 쉬지않는 노력과 귀중한 피땀으로 因하여 지금엔 기름진 沃土가 되고 자랑스럽은 穀倉이 되어 바렸다,

그러나 그들은 그로부터 쫓겨나고 그로부터 分散되어 바렸다. 까닭모를 驅逐 疾病 등등 모든 것만이 평소의 그들의 尊貴한 희생적 노동에 대한 유일한 報酬이다. 그들의 닥가노흔 新長路 坦坦大路는 그 어느 한 兩班의 발자취를 머물게 할 것인가.

南에서 北에서의 그들의 現狀은 如斯하다. 그러면 어찌할가. 집에서도 먹을 것이 업고 나가서도 먹을 것이 업는 그들은 그데로 坐而餓死를 甘受할 것인가 나는 도모지 南進北進의 그 어느 편의 가능성을 말할 수 업다, 그럴 필요도 업다, 그저 되는 대로, 저 갈 대로, 아모대도 시원한 풀이 업슬 것을. 그래도 北쪽으로 가는 것이 시원한 大陸바람이라도 마시는 편이 좀 나을까.

移民法업스면 布哇로

呂運弘

나는 항상 米洲와 布哇 等地의 移住同胞가 비교적 생활안정을 얻고잇는 사실로 미루어 半島內的 貧農들이 갈 곳은 南方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 南方으로만 가면 氣候도 더워서 농사도 1년에 두 번씩은 지을 수 잇겟고 그곳의 경제는 이곳보다 훨씬 潤澤하여 收入과 勞債이 만코 또 그곳의 법률과 제도에 만흔 자유가 잇서 펍으나 살아가기 편하리라고 .

그러치만 불행하게도 거기에는 移民禁止가 되어 잇습니다, 농사나 노동을 하기 위할 목적으로 入國함을 금지하고 잇습니다. 그러기에 이 방면의 정치적 새로운 條約이 잇서지라고 빌따름으로 아직은 遺憾이나 단념을 할 맛게 업습니다.

그 다음에 東京, 大阪, 名古屋 等地를 헤이게 되는데 불경기가 심한 이즈음의 노동시장으로는 朝鮮人들이 着足하기가 매우 곤란하외다.

이러한 관계로 결국 갈 곳이 잇다면 北滿맛게 업게 됩니다. 北滿에 移住하는 조선농민들을 爲政者들이 특별히 보호하여 그 생명재산을 완전케 하여만 준다면 勤勞性이 富한 조선농민은 거기에서 비교적 定住의 地를 발견할 수 잇을 것이라고 봅니다.<52>

異域에 流離는 不可

金璟載

南進이나 北進이나가 문제가 아니외다. 鄉土를 버리고 異地에 流浪케 됨은 생활의 根據를 잃은 까닭이외다. 요컨대 南으로 간다는 것은 大阪이나 名古屋 東京 等地에 가서 공업노동자가 된다는 것이요 北으로 간다는 것은 滿洲에 가서 荒地를 開拓하여 농업으로 살 길을 찾는다는 것이겟습니다.

오늘의 朝鮮과 가튼 경우에 빠진 민족이 경제적으로 X되는 것은 임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나 그러타 해서 異域에 流離滅裂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는 못할 것이외다. 莫不得已하야

異域에 流離케 되는 것 가트나 그 결과에 잇서서는 그 민족의 XX力의 滅殺이라는 現象을 招致하는 것입니다.<53>

<51-53>

70.

잡지명: 동광 제39호

발행년월일: 1932년 11월 01일

기사제목: 完譯 三民主義(1), 民族主義 第1講

필자: 孫文 原著 손문 원저

기사형태: 논설

完譯 三民主義(1), 民族主義 第1講 (완역 삼민주의(1), 민족주의 제1강)

孫文 原著

이것은 中國國民黨總理 孫中山先生의 著述인 「三民主義」를 全譯한 것이다. 本來 講演體로 된 것인데 朝鮮말로 옮김에 잇어서 簡潔을 위하여 略吐를 使用하였다. 이 講演은 講演이니 만큼 重言複言한데가 많이 있으나 도리어 그것이 그의 主張을 明瞭히 하는데 效果가 있다. 이 講演이 現在 國民黨이 主張하는 三民主義의 「聖經」인 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겠다.

原著는

民族主義 6講

民權主義 6講

民生主義 4講 (未完)

으로 되어 잇는데 여기 실는 것은 民族主義 第1講이다. (譯者識)

民族主義 第1講(1月27日)

諸君 오늘은 諸君과 더브러 三民主義를 이애기 하고저 한다. 三民主義란 무엇이나. 가장 簡單히 定義하자면 三民主義는 國 救國主義다. 主義란 무엇인가. 主義란 一種의 思想 一種의 信仰 또한 一種의 力量이다. 대개 人類가 무슨 일을 대해서든지 그 眞髓를 研究할 때에는 먼저 思想이 發生되고 思想이 貫通된 이후에 信仰이 생기고 信仰이 잇은 후에 力量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主義라는 것은 먼저 思想에서 시작되어 信仰에 이르고 信仰으로부터 力量을 낳은 후에야 完全히 成立된다. 三民主義가 國 救國主義라고 함은 어쩐 말인가. 三民主義는 中國의 國際的 地位의 平等, 政治的 地位의 平等, 經濟的 地位의 平等을 促進하여 中國으로 하여금 永久히 世界上에 適存케 하는 것이므로 三民主義가 國 救國主義라 하는 바다. 三民主義가 이미 救國主義라 할전대 문노니 今日의 우리 中國이 果然 救援을 要하는가. 아니하는가. 萬一 救援을 要한다고 認定하면 마땅히 三民主義를 信仰할 것이다. 三民主義를 信仰하면 能히 偉大한 勢力을 發生시킬 수 잇고 이 偉大한<50> 勢力은 能히 中國을 救援할 수 있다.

家族主義와 國族主義

오늘은 먼저 民族主義를 이야기 하려 한다. 이번 國民黨을 改組함에 당하여 採用할 救國方法은 宣傳을 注重하는 것이다. 國人을 대하여 널리 宣傳하고자 함에 가장 요긴한 것은 主義를 밝히 解明하는 것이다. 우리 中國에 10餘年來로 思想이 잇는 사람은 三民主義에 대하여 귀에 익도록 들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透澈히 그것을 理解하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오늘은 먼저 民族主義를 가지고 詳細하게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民族主義란 무엇인가. 中國의 歷史上 및 社會上 習慣의 모든 형편을 돌아 보아 나는 한마디 簡單한 말로 말할 수 있다. 卽 民族主義는 國族主義다. 中國인이 가장 崇拜하는 것은 家族主義와 宗族主義다. 그래서 中國에는 家族主義나 宗族主義는 있으나 國族主義는 없다. 第三者인 外國人は 말하기를 中國人は 호터진 모래와 같다고 하니 이 原因이 어디 잇는가. 다름아니라 一般人民이 오직 家族主義와 宗族主義만 가지고 國族主義가 없기 때문이다. 中國人は 家族이나 또는 家族에 대한 團結力은 非常히 強大하여 往往히 宗族을 保護하기 위하여는 一身一家의 生命을 犧牲하는 일도 있다. 가령 廣東에서 一姓과 他姓間에 싸움이 나면 兩族의 사람들은 生命과 財産을 얼마를 犧牲할지라도 끄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은 모두 宗族觀念이 깊은 연고요 이런 主義가 人心에 깊이 박이어 있으므로 능히 그 主義를 위해서 犧牲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國家라는데 이르러서는 이를 위해서 絶大의 精神을 가지고 犧牲해 본 일이 아직 한번도 없다. 그러므로 中國人の 團結力은 宗族에서 벗어나 國家로까지 그 範圍가 擴張되지 못했다고 하겠다.

지금 말한 것 같이 民族主義가 곧 國族主義라고 하는 것은 中國에서는 適當한 말이나 外國에서는 不適當한 말이다. 外國人は 民族과 國家間에는 區別이 있다고 말한다. 英語로 民族이란 名詞를 「네슌」이라고 하는데 이 「네슌」이란 글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한가지는 民族이요 또 한가지는 國家다. 비록 글자는 하나요 뜻만 둘이라 하나 그 두 가지 뜻은 매우 明白하여 混亂을 허락지 않는다. 中國 글자 中에도 글자는 하나라도 뜻은 두 가지인 것이 매우 많다. 가령 社會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쓸 수 있으니 한가지는 一般 人類集團을 가르켜 말하는 것이요 한가지는 一種 組織을 가진 團體를 가르켜 말하는 것이다. 本來 民族과 國家는 서로 關係가 매우 깊어 分立시키기 어려우나 그 中에는 一定한 限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國家가 무엇이며 民族이 무엇인지를 分間하여야 되겠다. 民族은 곧 國族이라는 말이 中國에는 適當하되 外國에는 不適當하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中國은 秦漢以來로 竝다 一民族으로 一國家를 지어온 연고다. 外國은 一民族이 여러 國家를 만든 것도 잇고 또 一國家 內에 여러 民族이 包含된 것도 있다. 가령 英國은 現在 世界上 가장 強國인바 그 나라 안의 民族은 白人을 本位로 하여 褐色人, 黑人을 結合하여 비로소 「大브리튼帝國」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英國에 있어서 民族이 곧 國族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不適當하다. 다시 香港을 보자면 그것은 英國의 領土나 그 속에 잇는 幾十萬人的 民族 中에는 中國의 漢族도 <51> 參加되어 있다. 그러므로 香港의 英國 國族이 卽 그 民族이라고는 말이 되지 않는다. 또 印度를 보자. 이것도 英國의 領土나 英國國族으로 말하자면 그 中에 3億 5千萬의 印度人이 있으니 萬一 印度의 英國 國族이 곧 民族이라 하면 역시 不適當하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英國의 基本民族은 「양글로 삭손」人이다. 그러나 「양글로, 삭손」人은 英國에 限하여 잇는 것 아니라 米國에도 또한 많다. 그러므로 外國에 있어서는 民族이 곧 國族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王道卽民族, 霸道卽國家

民族과 國家는 一定한 限界가 있으니 이것을 明白히 區別해 놓는 方法은 무엇인가. 가장 適當한 方法은 民族과 國家가 根本上으로 어떤 힘에 의하여 造成되었는 가를 보면 된다. 中國의 政治歷史를 가지고 證明하자. 中國人의 所謂 王道는 自然에 順하는 것이니 바꾸어 말하면 自然力이 곧 王道다. 王道로서 이룬 團體는 곧 民族이다. 武力은 霸道니 霸道로서 이룬 團體는 곧 國家다. 가령 香港을 만든 原因은 決코 數十萬 香港人이 英國人을 歡迎했음이 아니요 英國人이 武力으로 割據하였음이다. 옛날에 中國이 英國과 戰爭하여 진 까닭으로 香港의 土地와 人民을 英國에 割據한 것이 오랜 歲月을 지나 現在의 香港을 이룬 것이다. 또 英國이 今日의 印度를 이룬 經過도 香港과 같다. 英國의 現在의 領土는 全世界로 擴張되어 있다. 英國人의 俗談에 『英國에는 해가 떠러지지 안는다』 한다. 다시 말하면 每日 24時間에 日光이 쏘이는 곳에는 다 英國 領土가 存在하다는 뜻이다. 가령 우리 東半球에 있는 사람이 해 뜰 제부터 시작하여 쫓아 보자면 먼저 「뉴질랜드」, 「澳洲」, 香港, 「싱가포르」를 비치고 西로 西로 「세일튼」島, 印度를 지나 다시 「아덴」, 「말타」로 다시 英本國을 비치고 또 西로 굴러서 西半球로 가면 「가나다」를 지나 다시 香港, 싱가포르로 돌아온다. 이리케 每日 24時間 日光이 비치는 때마다 반드시 英國 領土가 있다. 이제 英國의 이처럼 많은 領土를 보면 그 중에 하나도 霸道를 아니 가지고 이룬 것이 없다. 自古로 至今에 國家를 造成함에 霸道를 使用하지 않은 것이 없거니와 民族을 造成함에는 그러치 아니하여 完全히 自然에 의하여 되는 것이요 秋毫라도 強制力을 加하여 될 수 없는 것이다. 香港의 數十萬 中國人이 團結하여 一個 民族이 된 것은 自然이 그러케 된 것이니 英國이 아무런 霸道를 쓰더라도 全然 改變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團體가 王道로써 自然力에 의하여 結合하여 되었으면 이것은 民族이요 霸道로써 人爲力에 의하여 結合하여 되었으면 이는 곧 國家다. 이것이 곧 國家와 民族의 分別이다.

民族形成의 各種 要素

다시 民族의 起源을 말해 보자. 世界人類는 本是 動物이다. 단지 普通의 飛禽 走獸와는 달라 사람은 萬物之靈이 된다. 人類를 分類하면 첫 階段은 人種이나 白色, 黑色, 紅色, 黃色, 褐色의 五種의 分別이 있고 또 人種을 細分하여 許多的 族으로 갈은다. 가령 亞細亞洲의 民族中에는 著名한 것으로 蒙古族, 馬來族, 日本族, 滿洲族, 漢族이 있다. 이런 種種의 民族을 이룬 原因은 統括적으로 말하면 自然力이요 分析해 말하자면 매우 複雜하다. 그 중에도 <52> 가장 큰 原因은 血統이다. 中國人이 黃色인 原因은 黃色血統을 根源으로 함이다. 先祖의 血統이 어떤 것이라 하면 그것이 永遠히 遺傳이 되어 一種의 人民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血統의 힘이 매우 크다.

다음으로 큰 것은 곧 生活이다. 生活을 營爲하는 方法이 다르면 結成되는 民族도 달라진다. 가령 蒙古人은 水草를 따라다니며 살아 遊牧生活을 한다. 어느 땅에 水草가 있다면 곧 그 땅을 遊牧을 가고 그땅으로 移住한다. 이런 種類의 轉居하는 習慣도 역시 結成하여 一民族을 形成할 수 있다. 蒙古가 忽然히 强盛할 수 잇었던 原因이 여기 있다. 蒙古가 가장 强盛했을 때에 元朝의 兵力이 西로는 中央아시아와 아라비아와 유로바의 一部分을 征服했으며 東으로는 中國을 統一하고 거이 日本을 征服할 뻔하여 歐亞 兩大陸을 統一했었다. 其他 民族으로 가장 强盛한 것은 漢族이 있으나 漢나라와 唐나라의 武力이 가장 盛하든 때에도 西로는 겨우 裏海에 達했을 뿐이요 羅馬民族의 武力이 가장 클 때에도 東으로 겨우 黑海에 達했으니 어느 民族이나 그 武力이 歐亞 兩洲에 미치어 元朝의 蒙古民族처럼 强盛한 者가 없었다. 蒙古民族이 能히 그처럼 强盛한 原因은 곧 그 人民의 生活이 遊牧이란데 있다. 平常時의 習慣이 먼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長處가 잇었슴이다. 第3의 큰 힘은 國 言語다. 萬一 外來民族이 우리의 言語를 배우면 우리의 感化를 쉽게 받아 長久한 동안에는 同化하여 한 民族이 되고 만다. 그 反對로 우리가 外國 言語를 알면 外國人의 同化를 받기가 쉽다. 萬一 人民의 血統이 서로 같고 言語도 같으면 同化의 効力은 더욱 容易할 것이다. 그러므로 言語는 世界上에서 民族을 造成하는데 매우 큰 힘이다.

第4의 힘은 宗教다. 대개 人類가 같은 神을 崇拜하거나 같은 祖宗을 信仰하면 또한 結成하여 一民族을 이룰 수 잇나니 宗教가 覇族을 造成하는 모든 力量 中에 또한 極히 雄大한 것이다. 가령 아라비아와 猶太 兩國은 이미 亡한지 오래지마는 아라비아人과 猶太人이 아직까지도 存在한다. 國家는 비록 亡했으나 民族은 能히 남아 잇는 理致는 各其 그 宗教가 잇는 까닭이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現在의 猶太人은 各國에 많이 散在하여 잇다. 世界上 매우 著名한 學者 卽 맑스, 아인스타인 같은 이도 다 猶太人이다. 또 英米 各國의 資本勢力과 같은 것도 역시 猶太人의 操縱을 받는다. 猶太民族의 天質은 매우 聰明한데다가 宗教의 信仰을 加入하였으므로 비록 各國으로 流離해 단니기를 오래 하엿지마는 그 民族을 維持할 수 잇는 것이다. 아라비아人이 能히 存在하는 理致도 역시 그들에게 무하메드의 宗教가 잇는 까닭이다. 그밖에도 印度와 같이 佛敎의 信仰이 極히 깊은 民族은 國家는 비록 英國에게 亡했어도 種族은 永久히 消滅키 不能하다.

第5의 힘은 風俗習慣이다. 萬若 人類 中에 一種 特別히 共通되는 風俗習慣이 잇다 하면 또한 自然히 結合되어 一個 民族이 될 수 잇다. 서로 같지 아니한 許多의 人種이 能히 結合하여 種種의 같은 民族을 이루는 까닭을 研究해 보면 自然히 以上 말한 다섯 가지 힘 卽 血統, 生活, 言語, 宗教, 風俗習慣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이 다섯 가지 힘은 天然의 進化에 의하여 되는 것이요 武力으로 征服하여 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힘과 武力과를 比較하므로 能히 民族과 國家를 分別할 수 잇다.

中國民族의 危機 <53>

우리가 古今의 民族 生存의 道理에 비추어 中國을 救하고 中國 民族을 永遠히 存在케 하자 하면 반드시 民族主義를 提唱해야 할 것이며 民族主義를 提唱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 主義를 完全히 理解한 後에라야 能히 빛을 發揮하여 國家를 救援할 수 잇다. 中國民族으로 말하자면 總數가 4億인바 그中에 他種이라고는 幾百萬名의 蒙古人과 百餘 萬名의 滿洲人과 數百萬名의 西藏人 百數十萬名의 回教徒인 突厥人에 不過하니 外來族의 合計가 1千萬名에 不過하다. 그런즉 大多數로 말하자면 4億의 中國人이 다 漢人이라고 할 수 잇다. 같은 血統, 같은 言語文字, 같은 宗教, 같은 習慣으로 完全히 一個의 民族이다. 이같은 우리 民族이 現在 世界上에서 어떠한 地位에 處해 잇는가. 世界上 各 民族의 人口와 比較해 보면 우리 人口가 가장 많아 가장 큰 民族이다. 그런데다가 文明敎化가 이미 4千餘年인즉 이것도 能히 歐米 各國과 同等의 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中國사람은 오직 家族과 宗族의 團體만 잇고 民族의 精神이 없으므로 비록 4億의 사람이 一個의 中國을 結成했지마는 事實은 한줌의 흩어진 모래에 지나지 않는다. 今日에 이르러서는 世界上에 가장 貧弱한 國家가 되어 國際上 가장 낮은 地位에 處하여 도마에 오른 魚肉을 지었으니 우리의 地位는 이때가 가장 危險하다. 萬一 아직도 깨우쳐서 民族主義를 提唱하여 4億의 사람을 堅固한 一民族으로 結合하지 못할진대 中國은 마침내 亡國 滅種의 險境에 잇다. 이 危險을 救援하자면 반드시 民族主義를 提唱하여 民族精神으로 나라를 救하여야 될 것이다.

列強各國의 人口增加

우리가 民族主義를 提唱하여 中國의 危急存亡을 救援하려면 먼저 우리 民族의 危險處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고 이런 危險한 形편을 알고저 하면 第一로 中國人과 列強人民을 比較해 보면 一層 明瞭하게 알 수 있다. 歐洲大戰 以前에 世界上에서 列強이라고 일컫는 나라가 7, 8國이 있었다. 가장 큰 나라가 英國이었고 가장 강한 나라로 獨逸, 奧地利, 露西亞가 있었고 가장 富한 나라로 米國이며 새로 일어난 나라는 日本과 伊太利었다. 歐洲大戰 以後에 셋이 거꾸러지고 現在 남아 있는 一等國은 오직 英, 米, 佛, 日, 伊의 各國이다. 英, 佛, 露, 米의 各國은 다 民族으로 나라를 세웠다. 英國이 發達되어 나온 基本 民族은 「앙글로 삭슨」人이요 그 基本國土는 「잉글랜드」와 「웰스」다. 그 人口中 겨우 3千 8百萬 名을 純粹한 英國의 民族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民族이 現在 世界上에서 가장 强盛한 民族이 되고 그들이 이룬 國家는 世界上 가장 强盛한 國家가 되었다. 百年 以前에는 그들의 人口가 1千 2百萬에 不過하였는데 現在는 3千 8百萬이니 百年 동안에 3倍로 는 셈이다.

日本維新과 民族主義

東方에 한 섬나라가 있으니 可히 東方의 英國이라고 할 수 있다. 곳 日本이다. 日本나라도 또한 一民族으로 된 나라다. 그들의 民族을 大和民族이라 하여 開國 以來로 今日까지 한번도 外力의 併呑을 받아 본 일이 없다. 元朝 蒙古의 强盛을 가지고도 日本을 征服하지 못했다. 그 現在의 人口는 朝鮮과 臺灣을 除하고 5千 6百萬 名이다. 百年 以前의 人口는 알기 매우 어려우나 近來의 人口 增加率의 <54> 比例로 計算하건대 勿論 3倍의 增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즉 百年以前의 日本人口는 大略 2千萬을 上下했을 것이다. 이같은 大和民族은 그 精神이 지금에도 喪失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歐洲文化가 東漸함을 따라 歐米의 風潮 中에서 科學의 새로운 法을 利用하여 國家를 發展시켰다. 維新 以後 50년에 現在는 亞洲의 가장 强盛한 國家가 되어 歐米 各國과 同等의 勢力을 가지어 歐米人이 敢히 輕視하지 못한다. 우리 中國은 人口가 世界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음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남에게 輕蔑을 받는 까닭은 곳 남은 民族主義가 있는데 우리는 民族主義가 없는 데 있다. 日本도 維新 前에는 역시 國勢가 매우 衰微하였었다. 領土는 겨우 四川省 一省만밖에 못하고 人口도 四川省 一省에 맞지 못하여 역시 外國의 壓制의 耻辱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들은 民族主義의 精神이 있었으므로 능히 英雄精神을 發奮하여 50年 以內에 衰頹한 國家로부터 强盛한 國家로 變했다. 中國을 强盛케 하라 함에 있어서 日本은 좋은 模範이라 하겠다.

亞洲人과 歐洲人을 比較하건대 前日에는 世界上에 聰明과 才智를 가진 사람은 오직 白人이요 모든 일이 다 白人의 壟斷하는 바가 되었었다. 우리 亞洲人은 한때에 白人의 長處를 學得할 줄 모르고 國家를 强盛케 할 方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國家를 富源케 하자는 點에 있어서는 中國人뿐 아니라 亞洲 各 民族이 다 같이 失望했었다. 그러다가 近日에 와서 忽然히 日本이 新興하여 世界上의 富強한 一等國이 되었다. 日本이 富強해진 고로 亞洲 各國에도 無窮한 希望이 생기게 되었다. 日本의 前日 國勢도 現在의 安南이나 緬甸과 다름이 없었거늘 現在의 安南이나 緬甸은 도저히 日本과 比較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日本人이 能히 歐洲를 배워서 維新 以後에 歐洲를 따라간 까닭이다. 歐洲大戰이 끝난 후에 列強이 「베르사이」에서 世界和平을 討論할 적에 日本의 國際上 地位는 5, 6強國의 하나로 列하게 되었다. 亞細亞에 관한 事情을 의논할 때는 「列強보다 日本의 主張을 들고 日本의 뒤를 따랐다. 이로써 우리는 白人이 하는 일을 日本人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世界上의 人種이 各各 色은

다르나 그 聰明才智에 이르러서는 差異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亞洲에도 今日에는 强盛한 日本이 있기 때문에 世界上의 白人種이 日本人만 輕視 못할 뿐이 아니라 亞洲人 全體에 대하여 輕視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日本이 强盛한 今日에는 非但 大和民族이 一等民族의 尊榮을 享有할 뿐 아니라 다른 亞洲人도 역시 國際上의 地位를 높였다고 하겠다. 前日에는 歐洲人이 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못해서 그랬거니와 今日에는 日本人이 있어 능히 歐洲를 배웠으니 우리도 能히 日本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日拔◆이 한 것을 배우면 將來에는 可히 歐洲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겠다.

新興露國의 民族主義

露西亞는 歐洲大戰 때에 革命이 일어나 帝政을 打破하고 現在는 前日과 크게 다른 한 개의 新國家 卽 社會主義의 國家를 이루었다. 그들의 民族은 「슬라브」族이라 하여 百年 以前의 人口는 4千萬이요 現在는 1億 6千萬이니 前日에 비겨 4배나 되었고 國力도 또한 前보다 4배나 되었다. 最近 百年 以來로 露西亞는 實 世界上 가장 强한 나라로 亞洲의 日本과 中國이 그 侵入을 두려워 할 뿐이 아니라 歐洲의 英國, 獨逸도 그 侵入을 두려워 하였다. 그들이 <55> 帝政時代에는 侵略政策에 專心하여 領土를 擴張하였으므로 現在 露國의 領地는 歐洲의 절반을 占하고 亞洲에서도 절반을 가져 그 領土가 歐亞 兩大陸을 타고 있다. 이러케 큰 領土는 全部 歐亞 兩大陸을 侵略해서 얻는 것이다. 日露戰爭 當時에 各國은 다 露國이 中國의 領土를 侵略하는 것을 두려워 하였다. 그들이 露國의 中國領土 侵略을 두 ㅁ워 한 까닭은 露國이 中國을 侵略한 뒤에는 다시 世界 各國을 侵略하여 各國이 다 露國에게 占領될까바 무서워 한데 있다. 露國人은 本來 世界를 併呑할 생각이 있었으므로 世界 各國은 그를 制禦할 方法을 생각해 되었다. 日英同盟은 實 이 政策을 抵抗키 위하여 생긴 것이다. 日露戰爭 以後에 日本은 朝鮮과 南滿洲에서 露國을 몰아 내고 露國의 世界侵略政策을 깨트려 버리어 東西의 領土를 保存하며 世界上에 一大 變化를 이룩하였다. 歐洲大戰 以後에 露國은 스스로 帝國主義를 깨트리고 帝國主義 國家를 새로운 社會主義 國家로 變해 버리어 世界上에 다시 한번 더 큰 變化를 이룩하였다. 이 變化는 成功한지 不過 6년이나 이 6년 동안에 內部를 改組하여 前日의 武力을 쓰든 舊政策을 고치어 和平的 新 政策을 세웠다.(中略 - 원문)

於是乎 世界 各國은 다시 露國을 무서워 하게 되었다. 現在 各國이 露西亞를 무서워 하는 법이 前보다 一層 甚하니 그 和平의 新政策은 露國의 帝國主義를 打破함에 그치지 않고 世界의 帝國主義를 打破하는 것이며 世界의 帝國主義를 打破할 뿐 아니라 또한 世界의 資本主義를 打破코저 하는 까닭이다. 現在 各國은 비록 表面上의 政權은 政府가 가지고 있는 듯하나 實際에 있어서는 資本家가 權力을 잡고 있는 터인데 露國의 新政策은 이 權力을 打破코저 하는 고로 世界上의 資本家は 크게 두려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世界上에는 한 개의 큰 變動이 생기고 이 變動으로 인하여 世界上의 潮流도 따라 變할 것이다. 歐洲의 戰爭史를 보면 前日에는 恒常 國家間의 戰爭이 發生되었다. 最近의 歐洲大戰은 獨, 奧, 土, 勃 諸 同盟國側과 英, 佛, 露, 日, 伊, 米의 諸 協商國側 사이에 잇은 戰爭이다. 4年間의 大戰爭으로 氣盡脈盡하여 雙方이 停止하였다.

世上의 預言者들은 將來에는 歐洲에서 다시 이러한 國際戰爭을 이룩할만한 導火線이 없으리라 하고 그 대신에 免치 못할 것은 或 한바탕의 人種戰爭 가령 黃人 對 白人의 戰爭이 되라고 한다. 그러나 露國에서 새로운 變動이 發生된 以後에는 나 個人으로 已往의 大勢를 觀察

하고 將來의 潮流를 預測하건대 國際間의 大戰爭은 不可避라 한다. 그러나 이 戰爭은 異色人種間에서 생길 것이 아니요 同種間에 생길 것이다. 白人種과 白人種이 갈라 서서 싸울 것이요 黃人種과 黃人種이 갈라 서서 싸울 것이다. (中略 - 원문)

土耳其는 歐洲大戰 以前에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弱한 나라로 振興하기가 不能하여 歐洲人은 다 그를 가르켜 近東의 病人이라 하여 응당 滅亡할 것인 줄 알았다. 歐洲大戰時에 獨逸側에 加入하여 協商國에게 敗北하여 各國은 그를 分割하려 하니 土耳其는 거이 亡하게 되었었다. 뒤에 露國이 나아와(中略 - 원문) 土耳其를 도와 希臘을 물리치고 一切의 不平等 條約을 改正하게 하였다. 今日에 이르러서는 土耳其가 비록 世界上의 一等 強國은 못 되었을 망정 이미 歐洲의 2, 3等國은 되었다. 이것이 무슨 힘을 입었나. 온전히 露國의 도움을 입은 것이다. (中略 - 원문) 歐洲大戰때에 英國과 佛國이 獨逸의 帝國主義를 打破코저 하여 露國도 이에 加擔하였으나 그뒤에 許多한 生命과 財産을 犧牲하고 나서 中途에 軍을 돌려 革命을 <56> 宣佈했으니 무슨 까닭인가. (中略 - 원문) 當時에 歐洲 列強은 다 이 主義를 反對하고 共同으로 出兵하여 露國을 쳤으나 다행히 露國에는 「슬라브」民族의 精神이 있어 마침내 列強을 打破하였다. 지금에는 露國을 대하여 武力으로는 反對하지 못하고 오직 그를 國家라고 承認만 하지 않아 消極的으로 排斥할 뿐이다. (現在는 英國이 이미 正式으로 露國을 承認하였다) 歐洲 各國은 왜 露國의 新主義를 反對하는가. (中略 - 원문) 그러므로는 列強은 지금도 露國을 滅하려 한다. 露國도 革命을 하기 前에는 強權만 알고 公理를 몰라 대단히 頑固한 나라이었으나 지금은 이런 것을 反對한다. 各國은 露國이 이런 것을 反對하므로 一齊히 出兵하여 露國을 쳤다. (中略 - 원문) <457>

獨逸과 米國의 人口

獨逸은 百年 前에 人口가 2千 4百萬이더니 歐洲大戰을 經過하여 많이 減少가 되었으나 그래도 아직 6千萬이 있으니 百年 동안에 2倍半으로 增加되었다. 그 人民은 「튜톤」民族이라稱하는데 英國人과 매우 가깝고 매우 聰明하다. 그래서 그 國家가 매우 强盛하다. 歐洲大戰을 지난後 武力에 失敗하였으므로 自然 公理를 主張하고 強權을 主張치 못하게 되었다.

米國人口는 百年 前에는 9百萬에 不過하든 것이 現在는 1億 以上이다. 그 增加率は 極히 커서 百年 동안에 10倍로 늘었다. 이러케 增加된 人口는 大部分이 歐洲로부터 移民하여 온 것이요 米國에서 生育된 것은 아니다. 歐洲 各國 內의 人民은 最近 數十年來로 土地는 좁고 人口는 稠密하여 本國에서는 生業을 할 수 없어 짐을 싸가지고 米國으로 와서 生活을 營爲하게 되었다. 그 까닭으로 米國의 人口는 非常히 빠르게 增加하였다. 各國의 人口의 增加는 많이는 生育으로 말미암는 법인데 米國의 人口增加는 받아 드리는 것으로 되었다. 米國의 種族은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더 複雜하다. 各洲 各國의 移民이 다 있으니 米國으로 들어온 後에는 곳 鎔化가 되어 所謂 한 풀무불에 녹이어 내어 一民族을 이루니 이 民族은 決코 本來의 英人, 佛人, 獨人이 아니요 또는 利太利人이나 其他의 南歐人도 아닌 전혀 다른 새 民族이 된다. 이것을 「아메리카」民族이라고 부를수 있다. 米國은 獨立한 民族이 있기 때문에 獨立한 國家를 이루었다.

佛蘭西人은 「라틴」民族이다. 「라틴」民族으로 歐洲에 散在한 國家는 西班牙, 葡萄牙, 伊太利等이요 米洲로 건너 와서는 墨西哥, 페루, 칠리, 콜롬비아, 부라질, 아르헨틴 及 其他의 中米의 諸小國이 되었다. 南米 諸國의 民族이 다 「라틴」人이기 때문에 米國人은 모두 그들을 가르켜 「라틴 아메리칸」이라고 한다. 佛蘭西의 人口는 增加가 매우 느리다. 百年前에 3千萬이든 것이 지금은 3千 9百萬이나 百年 동안에 4分 之1이 增加함에 不過하다.

列强人口 増加와 中國

이제 世界人口의 増加率は 比較해 보건대 近百年 동안에 米國은 10倍, 英國은 3倍, 日本도 3倍, 露國은 4倍, 獨逸은 2倍半, 佛蘭西는 4分 之1을 増加하였다. 이 百年間에 人口가 많이 増加된 原因은 科學이 昌明되고 醫學이 發達되어 衛生設備가 해마다 더욱 完全해 가서 死亡은 적어지고 生育은 많아진 까닭이다. 그들의 人口가<57> 이렇게 迅速히 増加하는 것이 中國과 무슨 關係가 있는가. 各國 人口의 増加數를 가지고 中國의 人口와 比較할 것에 나는 毛骨이 聳然함을 깨닫는다. 가령 米國人口가 百年前에 不過 9百萬이든 것이 現在는 1億 以上인 즉 다시 百年을 지나는 동안에 예와 같이 増加하면 응답 10倍 以上이 될 것이다.

中國人이 平常에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는 人口가 많아서 他人에게 消滅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元朝가 中國을 支配한 後로 蒙古民族이 中國人을 消滅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도리어 中國人에게 同化를 입었으니 中國이 亡하지 않을뿐 아니라 도리어 蒙古人을 吸收하였다. 滿洲人이 中國을 征服하여 260餘年을 統治했으나 滿洲民族도 역시 中國人을 消滅치 못했을뿐 아니라 도리어 漢族에게 同化를 받아 漢人이 되어 버려 現在 許多의 滿人이 다 漢人의 姓을 가졌다고 한다. 이런 까닭으로 많은 學者들은 設使(中略 - 원문) 白人이 中國을 征服하는 일이 있더라도 中國人은 오직(中略 - 원문) 白人을 吸收할 뿐이니 安心해도 좋다고 말한다. 百年以後에 米國人이 10億으로 増加하면 우리 人口의 2倍 半이나 될 것을 모르는 말이다. 前에 滿洲人이 中國民族을 征服 못한 것은 그들이 겨우 百幾 十萬에 不過하여 中國의 人口와 比較하여 그 數가 너무 적었든 것이니 中國人에게 吸收된 것은 當然한 것이다. 萬一 米國人이 中國을 征服한다 하면 百年 以後에는 10名의 米國人 中에 겨우 4各의 中國人이 섞일 것이니 中國人은 곧 米國人에게 同化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은 中國의 4億 人口라는 것이 어느 때 調査한 것인지 아는가. 古 滿清 乾隆時節에 調査한 것이다. 乾隆 以後에는 다시 調査한 일이 없다. 乾隆에서 今日에 이르기가 거의 2百年 인데 아직도 4億이다. 百年 前에 그 4億이었던 즉 百年後에도 勿論 4億일 것이다. 佛蘭西는 人口가 너무 적어서 産兒를 獎勵하여 만일 한 사람이 3子를 낳면 賞이 있고 4, 5子를 낳면 큰 賞이 있다. 쌍둥이를 낳면 더욱 賞을 加한다. 男子가 30歲가 되어서 장가를 아니 들든가 女子가 20歲에 시집을 아니 가면 罰이 있다. 이것은 佛蘭西의 産兒獎勵法이다. 佛蘭西로 말해도 그 人口가 주는 것은 아니요 오직 増加率이 다른 나라처럼 크지 못할 따름이다. 佛蘭西는 農業으로 立國하여 國家가 富裕하고 人民은 裕足하여 每日 快樂을 求한다. 百年 前에 英國에 學者가 한 분 있었으니 이름은 「말더스」라고 한다. 그는 世界上에 人口는 過多하고 供給할 物産은 限定이 있는 것을 염려하고 人口의 減少를 主張하여 一種 學說을 創立했으니 가르되 「人口의 増加는 幾何級數요 物産의 増加는 算術級數라」하였다. 佛蘭西人은 快樂을 좇는데 이 學說이 그들의 心理에 符合하여 極히 이를 歡迎하고 男子는 家庭의 책임을 받지 않고 女子는 産育을 아니하기를 主張하였다. 그들이 人口減少에 使用하는 方法은 種種의 自然的 方法을 쓸 뿐 아니라 또한 許多의 人爲的 方法을 쓴다. 佛蘭西의 百年前 人口는 다른 모든 나라보다도 더 많았는데 「말더스」의 學說이 佛國에 宣傳된 以來로 모든 사람의 歡迎하는 바 되어 人民이 다 人口減少를 實行하여 今日에는 人口가 너무 적어서 苦痛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다 「말더스」學說에 中毒된 까닭이다. 現在 中國의 新靑年 中에도 또 똥◆ 「말더스」學說에 傳染되어 人口減少를 主張하는 者가 있으나 그들은 佛國이 이미 人口減少의 苦痛을 알고 時方 施行하는 바의 新政策은 人口의 増加를 提唱하여 民族思想을 保存하고 法國民族

과 世界上 民族이 永久이 並存하겠다는 것임을 모르는 수작이이다.<58>

百年後의 中國人口

우리 人口는 오늘에 있어서 結局 얼마나 되는가. 增加하는 수효가 비록 英國이나 日本을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乾隆時로부터 세어 보아서 적어도 5億은 될 것이다. 그런데 前日 「록힐」이라고 하는 米國公使가 中國에 와서 各處로 다니며 調査한 후 가르되 中國人口가 많아야 3億에 不過하다 하였다. 우리 人口가 結局 얼마나. 乾隆時에 이미 4億이었는데 米國公使의 調査에 의하면 4分 之1이 減少되었고 設或 現在도 그냥 4億이라 할지라도 이대로 나아가면 百年後에도 그냥 4億대로 있을밖에 없지 안느냐.

日本人口는 現在 6千萬이어니와 百年後에는 2億 4千萬이 될 것이다. 米國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으므로 現在 各國을 向하여 呼訴하는 말이 島國의 人口가 너무 많아 不得不 밖으로 發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東으로 米國을 가면 「칼리포니아」洲에서 門을 닫고 들이지 아니하며 南으로 澳洲을 가면 英國人이 澳洲은 白色人의 澳洲니 다른 色人種은 侵入을 不許한다고 한다. 日本人은 到處에서 拒絶을 당한 까닭에 各國을 向하여 說明하기를 日本人은 아모데도 갈 곳이 없으니 不得不 朝鮮과 滿洲를 經營한다고 말한다. 各國도 日本人의 意思를 밝히 알고 그 要求를 容納하였다. 日本이 中國으로 殖民하더라도 白人의 本國에는 影響이 없을 터 인고로.

中國人 滅種의 危機

百年後의 全世界 人口는 반드시 數倍의 增加를 보일 것이다. 獨逸, 佛蘭西 등은 이번 大戰爭을 지나 죽은 사람이 너무 많으므로 戰前의 狀態를 恢復키 위하여 人口生育을 獎勵할 것이니 반드시 2, 3倍의 增加가 있을 것이다. 現在 全世界의 土地와 人口를 比較해도 이미 사람이 滿員인 盛이 있다. 이번 歐洲大戰을 어떤 사람의 말로는 「太陽」을 다투는 것이라 한다. 歐洲列強은 대개가 寒帶에 가까이 잇는 고로 戰爭을 이르키는 까닭은 모두 赤道와 溫帶의 土地를 淨奪함이니 可히 太陽의 光線을 爭奪코저 함이라고 하겠다. 中國은 全世界中에서 氣候가 가장 溫和한 땅이요 物産이 가장 豊富한 땅이다. 各國人이 아직 中國을 併呑치 못하는 까닭은 人口가 中國에 比하여 너무 적은 까닭이다.

百年 以後에 이르러 萬一 우리 人口는 늘지 못하고 저들의 人口는 많이 增加하면 그때는 多數를 가지고 少數를 征服하여 반드시 中國을 併呑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中國은 主權을 잃어 亡國이 될 뿐 아니라 中國人조차 다른 民族에서 消化되어 滅種이 될 것이다. 前날에 蒙古와 滿洲가 中間을 征服할 때는 少數로써 多數를 征服하고 多數의 中國人을 利用하여 奴隸를 만들고저 하였거니와 萬一 列強이 將來에 中國을 征服하면 多數로써 少數를 征服하는 것이나 그들은 우리를 奴隸를 만들려고도 아니할 것이다. 우리 中國人은 그때에 있어서는 奴隸노릇도 해 먹을 수가 없겠다.<59>

<50-59>

71.

잡지명: 삼천리 제5권 제4호
발행년월일: 1933년 04월 01일
기사제목: 民族的 文化事業의 統制에 대한 建議書
필자: 金東煥 김동환
기사형태: 논설

民族的 文化事業의 統制에 대한 建議書 (민족적 문화사업의 통제에 대한 건의서)

金東煥
綜合民立大學 創立을 위하여 六大專門學校長에게

普成專門學校長 金性洙氏에게
세부란쓰 醫學專門學校長 魚丕信氏에게
延禧專門學校長 魚丕信氏에게
佛敎專門學校長 朴漢永氏에게
梨花女子專門學校長 亞編薛羅嬢에게
崇實專門學校長 尹山溫氏에게

金性洙, 魚丕信, 朴漢永, 尹山溫, 亞編薛羅 等 6대 專門大學校長 諸位께 生은 今에 一書を 呈하나이다. 諸位가 자신은 몸에 弊袍를 의하면서 수십만의 大金을 投하여 半島에 최고학부 6個所나 經營하여 나가는 그 열정에는, 민족의 일원으로 감사의 熱淚를 難禁하나이다, 실로 上下4千載一 찬연하든 넷 문물제도와 山河田野의 當源이 최고학과의 힘을 빌지 안코, 어느 한 가지인들 부흥되며 개척되어 나가리까. 이 점에서 早稻田大學과 慶應大學을 창설 經營하든 大隈, 福澤의 그 雄圖와 黃浦軍官學校를 창설하든 孫文, 蔣介石이나, 마니라 大學을 세이든 아기날드 장군 등의 所意를 알겠나이다. 실로 우리는 明治維新을 생각 할 때에 早稻田 慶應 出의 俊才를 제외하고는 그 완성을 헤아릴 수 업스며, 中國改革에 亦 黃浦軍官 出의 청년사 관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업습니다. 마친가지로 半島의 장래를 생각 할 때 엇지 六大專門大 學校를 除置하고 생각 할 수 잇사오리까. 모든 것이 뒤떠러져서 인문과학이 外邦를 따르자면, 수십 년의 日月을 필요로 하는 이때이때 더욱이나 諸位의 崇高한 이 敎育사업에 머리를 숙이 나이다.

그러나 도리켜 생각하면 이와가치 민족 백년의 桂礎되는 最高敎育事業이 大局上으로 바라다 볼 때, 무의식중에 犯하고 잇는 諸位의 중대한 오산 때문에, 그 효과를 반감하여 늦는 실수가 업스리까. 이것을 지적하려 하나이다.

첫째, 諸位의 學府는 너무 群雄割據의 이외다. 普專이면 普專, 世專이면 世專이 金性洙, 魚丕信 개인의 학계에 대한 城廓 모양이 되야, 그 城廓에 據하야 金性洙系, 魚丕信系의 學閥를 새로 만들고 잇습니다. 둘째, 이미 群雄割據의 이때 학교 經營에 잇서서 맞갖해서 보기에는 경 비의 낭비, 시설의 중복 등 폐해가 막대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결점을 들 수 잇겠습니다 만은, 그리되면 작고 諸位의 인격과 사업에 誹 妨을 가함과 가튼 본의아닌 오해를 살가 보아서 그만 두겠습니다. 엇갯든 이 두가지 欠點이

諸位의 사업에서 발견되어지는데, 첫째의 欠點때문에 諸位의 사업이 識者의 눈에 얼마나 거칠게 보여지며, 사회의 熱熱한 響應心を 殺滅하여 斃는지 아십니까, 예컨대 極端의 人은 普專을 金性洙氏가 東亞日報를 하고, 紡織會社라는 商事會社를 경영하드시 자기의 세력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것이라하며, 또는 그 학교는 金性洙學校지 우리들의 것이냐, 하야 대스롭지 안케 價値評價하여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 까닭에 六大專門學校에 대하여 그 경영자, 출신자, 교수, 학생 이외에는 그리 대단하게 아라주는 사회인사가 적습니다. 둘째로 무엇이 시설의 중복이요, 경비의 낭비나 하면, 「제 學校 第一主義」의 排他根性 때문에 조그마한 학부 안에 日商科, 法科, 文科 云云하야 차릴 것을 다 차려노흐려 함으로, 그 규모가 적어지고,各科마다 不振하며, 甲校乙校로 동일 시설이 중복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에 비 합리화한 收支의 부분이 있게됩니다. 무엇이나 전체성에서의 통제를 버서난 부분적 사업이란 그 효과가 반감되고 경비에 不節約이 있게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오니까. 그러기에 生이 今에 건의하는 요지를 述할 기회에 다다랐습니다. 生은 간절히 六校長諸位께 청하나이다. 그것은 諸氏의 各校를 한데 뭉치자 함이외다. 朝鮮에 民立大學創設運動이 있든지 약 10여 년. 이것만은 사회인사의 熱熱한 지지와 기대가 잇든 큰 사업이건만, 그것이 중절되야 千秋의 恨을 만인에 품게하고 있지 안습니까. 지금 생각건대 民立大學은 먼데 잇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諸位의 足下에 그 桂礎가 벌써 노이고 잇는 것이었습니다. <15>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六大專門學校를 一傘下에 모으기만 하면, 그리고 그 우에 一脾의 힘만 加하기만 하면 완성되어지는 것이로소이다.

總督府學務局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6개 전문학교의 1개년 소요경비가 약 83만원이며 건물, 基地, 기구 등 總資額을 數하면 1,300만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收容學生數는 약 1,200명으로 매 학생 1인당 680원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官立專門學校 7個處의 1년 경비90만원에 1校가 적은 분수를 하여 상등하며 매 1인 학생당 지출이 법전의 320원, 水原高農의 비하야 평균 100여원이 더 만습니다. 이로써 바라보면 1개년의 소요경비로 보아, 私學이 官學보다 그 시설이 우량하여야 할 터인데, 일즉 우량하다는 말을 못드렸으며, 또 학생 每人의 경비가 더욱 적을 줄 아는데 私學生이 官學生보다 더 만습니다. 이것이 무삼 까답입니까. 官學은 總督府의 통제가 조와 그러함에 反하야, 私學은 그러치 못한데서 오는 폐단이 이 속에 뭉친 까답일 것이외다.

그러기에 生은 미숙하나마 私案 한 개를 진술코저 합니다.

六學府에 현재 投下되어잇는 그 자본으로 기본금을 삼고 朝鮮民立大學이란 綜合大學을 창설한 뒤, 諸位가 경영하고 잇는 各校를 단과대학으로 승격 식히자 함이외다 현재의 學制에 의하건대 대학을 창설하자면 정부에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되니 종합대학으로서 이것을 납입하고, 그리고 그 餘의 투자액을 조절하여 과부족이 업게 各校의 정도에 마쳐 그 시설과 經費를 안배한다할진대 분과대학이 모다 건전하게 발전되어갈 것이외다. 듯건대 현재 普專에는 法科, 商科의 兩科가 잇고, 延專에는 문과, 數科, 商科의 3과가 잇고, 梨專에도 문과, 음악과, 가사과의 3과가 잇으며, 기타의 專門에도 각각 數三學科씩 잇다고 합니다. <16> 이러케 各校本位로 빈약한 各分科를 둘 것이 아니라, 生의 생각에는 각각 단과대학으로 그 내용을 單純化식히자 함이외다. 즉 전통과 역사와 現時의 諸情勢로 보아서, 朝鮮民立大學은 정치과, 문과, 의과, 農科, 商科의 5科를 두는데, 정치과는 普成專門을 政治科大學으로, 延禧專門을 文科大學으로, 세부란쓰 醫專을 醫科大學으로, 崇實專門을 農科大學으로, 그리고 佛教專門이나 梨專을 商科大學으로 하고, 그리고 男女共學制을 실시할진대 이것이 理想이 아니되오리까. 이리되면 民族的 自恰에 吾族은 勇躍歡喜하오이다. 各校가 이 민족의 最高學府가 될 것이요,

또 수용학생의 증가, 소요경비의 절감, 이리하여 事半切倍의 好結果를 내어 진실로 先千年의 人文의 光輝를 復與하고 後千年의 人文의 桂礎를 놓는다 할 것이외다.

이 案이 空想이리라. 否라. 이 案은 즉시 실현 할 가장 가능한 私案이외다. 다만 여러분께서 群雄割據의 그 심리를 이 숭고한 教育事業에서 削去하고, 分散的 排外的 部分的이 아닌 그야말로 民族百年의 大計라는 大局에 눈을 쏘아준다면 실현이 易易한 일이 있다. 若或懸念되는 것은 前記 6專門學校中 外國인의 外資로 所營되어나가는 數個學校가 잇스나, 특히 外國인에 바라는 바는 諸位가 시장을 달나면 반도의 시장이 벌써 자유로 되어있고 제위가 布敎의 근거를 달나면 교회, 병원 등이 또한 벌써 자유로 경영 할 수 있는터이라 何必曰 학교오리까. 英才教育의 학교는 그 본의에 조차 또 2천만 民意에 조차 半島全人民의 手에 선선하게 委讓하여야 30年來 文教에 專力하여오든 그 本旨에 맞지 안으리까, 생은 이만한 雅量이 잇서질 줄 深信하나이다.

지금은 各國에 계획경제, 통제경제가 그 국가경제의 기*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력을 통하여 모든 것이 그 통제 하에 서게 되어 그 모든 것이 全體性 및해서 통제되고 합리화 되어 나가는 때외다. 半島의 諸事業을 **할 때에 文化上, 經濟上 통제성을 띄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외다, 그런데 그 중에도 이 교육문제가 가장 압서나이다.

噫라, 후에 民族百年의 教育적 柱*를 세워노치 못하면, 어느 날 다시 그 기회가 올 것인고, 噫라, 후에 全社會의 棟梁될 인재를 우리 학부에서 양성하여 내지 못한다면, 어느 날 다시 그 기회가 잇사오리까. 有志하신 六大校長이여. 綜合民立大學의 창설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全誠意와 열정과 資産을 모다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하여 사회 인사의 공동 토의의 기회를 다시 만들려 하거니와, 爲先 미숙한 私案이나마 案頭에 제출하오니 숙고하여 주시압소서.

府記—民立大學 建設問題에 계속하여 신문, 잡지, 及 出版社業, 中等教育, 극장 등 文化各層事業의 통제에 대한 건의와 아울러 경제방면에도 가튼 所及이 장차 잇스려 합니다.<17>

<14-17>

72.

잡지명: 삼천리 제5권 제4호

발행년월일: 1933년 04월 01일

기사제목: 孫逸仙과 民族主義, 三民主義의 全風貌

필자: 孫中山 先生(述), 雲從學人(譯) 손중산 선생(술), 윤종학인(역)

기사형태: 논설

孫逸仙과 民族主義, 三民主義의 全風貌 (손일선과 민족주의, 삼민주의의 전풍모)

孫中山 先生(述), 雲從學人(譯)

第一編 民族主義

第一講 民國13年(1925년)1월 27일

諸君. 오늘은 諸君으로 더부러 三民主義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三民主義는 무엇인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三民主義는 즉 救國主義이다. 그러면 主義는 무엇인가? 主義는 곧 일종의 사상이요 일종의 신앙이요 또 일종의 역량이다. 무릇 사람이 어떤 사물에 대하여 그 중의 도리를 연구하는데 처음에 사상이 생기고 사상이 풀린 다음에는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잇스면 곧 역량이 생기나니 그럼으로 主義는 먼저 사상으로부터 신앙에 이르고 다음에 신앙으로부터 역량을 산출한 뒤에야 완전히 성립되는 것이다.

어찌하여 三民主義는 救國主義라고 하는가? 三民主義는 中國의 국제지위의 평등과 정치지위의 평등과 및 경제지위의 평등을 촉진하여서 中國으로 하여금 영구히 世界에 適存케 하는 것임으로 三民主義는 곧 救國主義라고 한다. 三民主義가 救國主義라면 한번 물어보자. 오늘날 우리 中國은 응당 구하여야 될 것인가를. 만일 구하여야 될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곧 三民主義를 신앙하여야 될 것이요 三民主義를 신앙하면 곧 一大 勢力을 발생 할 수 있나니 이런 위대한 세력이라야 中國을 구할 수 있다.

오늘은 먼저 民族主義를 말하려고 한다. 이번 國民黨을 개조하는데 쓴 바 방법은 선전에 치중한 것이니 國人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선전하려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主義를 설명하는 것이다. 근 10여 년 이래에 中國의 思想 잇다는 사람은 三民主義에 대하여 모다 귀가 젓도록 드렸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것을 이해하자면 許多한 사람이 아직 만타. 그럼으로 오늘 먼저 民族主義를 가지고 諸君에게 상세히 이야기하려고 한다.

民族主義는 어떠한 것인가? 中國의 역사상 사회의 諸般의 情形에 빚춰서 가장 간단히 말하자면 民族主義는 곧 國族主義라고 한다. 中國인의 가장 숭배하는 것은 家族主義와 宗教主義이다. 그리하여 中國에는 다만 家族主義와 宗教主義가 잇을 뿐이요 國族主義는 업섯다. 방관하는 외국인들은 말하기를 中國인은 一盤 散沙라고 한다. 그 원인이 어대 잇는가? 곧 일반인민이 다 못 家族主義와 宗教主義만이 잇을 뿐이요 國族主義가 업는 까닭이다.

中國인의 가족과 종교에 대한 단결력은 비상히 강대하여 往往히 종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身家와 性命을 희생하려고 한다. 廣東의 兩性の 機鬪와 가튼 것은 兩族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더라도 꺾치지 안으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다 종족관념이 너무 깊은 까닭이다. 이러한 主義가 깊히 人心에 드러 박혔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능히 희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 대하여서는 <72> 한번도 극대한 정신으로써 희생하여본 때가 없다. 그래서 中國인의 단결력은 다만 종교에 꺾치고 아직 國族에는 확충되지 못하였다.

내가 말한 民族主義는 곧 국가라는 것이다. 그는 中國에 잇서서는 적당하니 外國에서는 不適한 것이다. 外國인은 민족과 국가를 구별하여 말한다. 英文中에 민족이라는 명사를 「네이션」이라고 한다. 이 「네이션」(Nation)이라는 글자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잇스니 하나는 민족이요 하나는 국가이다. 한 글자가 두 가지 해석이 잇스나 그 해석은 비상히 명백하여서 混雜되지 안는다. 中國에서도 한 글자가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것이 매우 만타. 즉 사회라는 2자 가튼 것은 곧 두 가지 용법이 잇스니 하나는 일반의 人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요 하나는 일종의 조직된 단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본래 민족과 국가는 상호의 관계가 대단히 만혀서 구분하기 難하나 그러나 그 중에 실상 일정한 한계가 잇서서 우리는 반듯이 어떤 것이 국가이고 어떤 것이 민족인 것을 갈너야 한다. 내가 말한 민족이 곧 國族이란 것이 어찌하여서 中國에서는 적당하고 外國에서는 부적당한가? 中國은 秦, 漢 이후로 모도 한 민족이 국가를 구성하였고 외국에서는 한 민족으로써 여러 국가를 구성하기도 하고 한 국가 안에 여러 민족이 잇기도 한 까닭이다. 英國가튼 나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彼國內의 민족은 백인으로써 本位를 삼고 棕色人과 黑色人의 민족들을 결합하여 비르소 一大 뿌리텐

帝國을 이루은 것이다. 그럼으로 민족이 곧 國族이라는 말은 英國에서는 부적당하다. 그리
 하여 香港가튼 곳은 英國의 영토이나 그러나 그 중의 민족은 幾十萬의 中國의 漢族이 석기
 여 있다. 그래서 만일 香港의 英國族은 곧 英國民族이라면 맞지 않는 것이다. 또 印度가튼
 곳도 현재 英國의 영토이니 英國의 국족이라면 그 중에 곧 3억 5천만의 印度人也 있는 것
 이 다. 그런데 만일 印度의 英國國族가 곧 英國國民英이라고 하면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다.
 諸君은 英國의 基本民族이 「앵글로 색슨」人인 줄을 다 알 것이다. 그러나 「앵글로 색슨」人
 은 英國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美國에도 다수의 「앵글로 색슨」人이 있다. 그럼으로 外國에
 서 민족은 곧 國族이라고 말할 수 업는 것이다. 그래서 民族과 國家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명백하게 분별하려고 한다. 무슨 방법이 있는가? 가장 적당한 방법은 민족과
 국가는 무슨 힘으로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간단히 분별하여 말하면 민족은 天然力으로 조
 성된 것이요 국가는 무력으로 조성한 것이다. 中國의 정치역사로써 증명하면 中國人은 말하
 기를 王道는 자연력에 順隨하는 것이라 하였다. 환언하면 자연력이 곧 王道이니 王道로써
 조성한 단체가 곧 민족이다. 무력은 곧 霸道를 써 조성한 것이 곧 國家이다. 香港은 幾十萬
 의 香港人民이 英國人을 환영하여서 된 것이 아니오 英國人이 무력으로써 제거하여서 얻은
 것이다. 또 英國이 印度를 차지한 것도 香港과 가튼 것이다.

現在 英國의 영토는 全世界에 확장되어서 영국 속담에 「英國은 해질 때가 업다」고 하는 말
 이 있다. 다시 말하면 매일 주야로 일광이 빛치는 곳에 모도 英國의 영토가 잇서서 가령 우
 리 東半球의 사람이 해 도들 때부터 치면 처음에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香港, 新加坡에
 빛치고 다음에 西으로 기우러져서 실론, 印度에 빛치고 다시 더 西으로 기우러져서 아덴과
 말타에 빛치고 더 西으로 기우러져서 英本國에 빛치고 다시 西半球로 도라서 加拿다가 잇고
 도로 도라서 香港 新加坡에 이르는 것이다. 그럼으로 每晝夜 24시간의 일광이 빛치는 곳에
 반듯이 英國의 영토가 잇는 것이다. 英國과 가티 이런 큰 영토는 하나도 霸道로써 造成 안
 은 것이 업다. 네로부터 이제까지 국가를 조성한 것이 하나도 霸道 안인 것이 업다. 그러나
 민족을 조성하는 것은 그와 달라서 완전히 자연력으로 인하여 되는 것이요 조금도 역지를
 가할 수 업다. 香港의 幾十萬 中國人이 단결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은 자연히 그러케
 되는 것으로 英國이 아모리 霸道를 쓰더라도 도모지 改變할 수 업는 것이다. 그래서 王道인
 자연력으로 인하여 결함된 단체가 민족이요 霸道인 人爲力으로 인하여 결함된 단체가 국가
 이니 이것이 국가와 민족의 구별이다.

다시 民族主義의 기원으로 말하면 世界의 인류는 본래 일종의 동물이나 다만 普通 飛禽走獸
 와 다른 것은 인류가 만물의 靈長이 된 것이다. 인류의 분별은 제1급으로 인종이니 백색, 홍
 색, 황색, 棕色的 5종이 잇고 다시 種에서 세분하여서 許多한 族이 잇스니 <73> 亞細亞民
 族의 저명한 것은 蒙古族 馬來族 日本族 滿洲族 漢族이다. 이러케 여러 가지 민족을 조성하
 는 원인을 개괄하여 말하면 自然力이다. 그것을 분석하면 매우 복잡하나 그 중 가장 큰 힘
 은 「혈통」이니 中國人의 황색인 원인은 그 근원이 황색혈통인데 있다. 祖先의 血統如何는
 곧 영구히 유전되어서 一族의 인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으로 혈통의 힘은 대단히 큰 것이
 다.

다음의 큰 힘은 「생활」이니 謀生하는 방법이 갖지 안으면 결성된 민족도 갖지 안은 것이다.
 蒙古人가튼 것은 水草를 따라 살아서 유목으로써 생활을 함으로 水草가 잇는 지방이면 곧
 유목을 하여가서 거기에 이주한다. 이러케 遷居하는 습관으로 인하여서도 결함하여 한 민족
 을 이루울 수 잇고 蒙古가 능히 忽然히 강성하게 된 所以가 곧 여기에 있다. 蒙古族이 가장
 강성할 때에 元朝의 병력은 西邊으로 中央 亞細亞와 아라비아를 정복하여 歐羅巴 一部分에

밋치고 東邊으로는 中國을 통일하고 거의 日本을 정복 할 번하여서 歐亞 2洲를 통일하였섯다.

기타 민족 가장 강성하다고 하든 漢族 가튼 것은 漢唐의 무력이 가장 컸을 때에도 西邊으로 겨우 裡海에 밋쳤고 羅馬民族 가튼 것은 무력이 가장 컸을 때에 東邊으로 겨우 黑海에 밋쳐서 어떠한 민족이고 元朝의 蒙古民族가튼 능히 歐亞2洲에 밋친 것은 업다. 蒙古의 그러케 강성하였든 원인은 彼等の 생활이 유목인데 있다. 평일의 습관이 行路하는데 멀은 것을 두려워 안이하는 長技가 잇섯던 까닭이다.

제3 큰 힘은 「언어」이니 만일 외래민족으로 우리의 언어를 통하면 곧 우리들에게 감화되기가 쉽고 그것이 오래고 오랜 동안에는 마침내 동화되어서 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환언하면 우리가 만일 외국의 언어를 알면 우리도 외국에 동화되기가 쉬운 것이다. 만일 인민의 언어가 서로 갖고 언어가 서로 갖다고 하면 그 동화의 효력은 더욱 용이하다.

그럼으로 언어도 世界上的 민족을 조성하는데 대단히 큰 힘이 있다.

제4의 큰 힘은 곧 「종교」이니 무릇 인류가 동일한 신을 奉拜하거나 혹은 동일한 신을 신앙하면 또 결합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기가 쉬웁다. 종교는 민족을 조성하는 힘 중에 대단히 웅대한 것이다. 「아라비아」와 「猶太」의 兩國은 임의 근한지가 펍 오래지만 「아라비아」人과 「유대인」은 아직도 존재한 것이다. 彼等の 국가는 비록 망하였스나 민족이 능히 存한 이유는 곧 각각 자기의 종교가 잇는 가답이다.

諸君은 다-알 것이다. 현재의 유대인은 각국에 散在 住民이 대단히 만코 세계에서 극히 유명한 학자「맑스」가튼 이 「아인스타인」가튼 이가 모두 유대인이다. 그리고 또 세계 각국의 資業勢力도 猶太에 조종되고있다. 猶太民族은 天質이 매우 총명한데다가 종교의 신앙을 더 하였습므로 각국으로 流離하고 遷涉하더라도 오히려 민족을 영구히 유지 할 수 잇는 것이다. 「아라비아」人이 능히 존재하는 이유도 彼等 이 「모라메단」의 종교가 잇는데 있다. 그 박게 불교를 집히 신앙하는 印度는 국가는 비록 英國에게 망하였스나 종족은 영원히 소멸되지 안을 것이다.

제5의 힘은 「풍속 습관」이니 만일 인류 중 특별히 相同한 풍속습관이 잇다면 오래고 오랜 동안에 또 결합하여 한 민족을 이루울 수 있다. 우리가 허다한 갖지 안은 인종이 결합하여 잇다금 상동한 민족을 이루는 이유를 연구하면 자연히 功을 혈통, 생활, 언어, 종교 및 풍속 습관의 5종의 힘에 돌리지 안을 수 업다. 이 5종의 힘은 천연적으로 진화하여서 된 것이오 무력으로써 정복하여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5종의 힘과 무력을 비교하면 곧 민족과 국가를 분별 할 수 있다.

우리가 古今의 민족 생존의 도리에 비취서 中國을 구하려면 中國民族을 영구히 존재하게 하려면 민족주의를 제창하여야 된다. 몬저 이 主義를 완전히 이해 한 뒤에야 능히 발휘하고 光大하여써 국가를 구할 수 있다. 中國의 민족으로 말하면 총 수가 4억만 人인데 그 중에 석긴 것이 수백 만의 蒙古人과 100여 만의 滿洲人 수백만의 西藏人과 백 수십만의 回敎의 突厥人으로 外來한 총 수가 1천만인에 불과한다.

그래서 다수로 말하면 4억만의 중국인은 완전히 漢族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혈류 동일한 언어문화 동일한 종교 동일한 풍속습관으로 <74> 완전히 한 민족이다. 이런 우리 민족으로 現世界에서 이러한 지위에 처하였는가? 世界上的 各民으로더부 비교하면 우리는 인류가 가장 만코 민족이 가장 크고 문명교화는 4천년이나 되어서 맛당히 歐美 各國으로부터 並駕齊驅 할 만하다. 그러나 중국인은 다만 가족과 가족의 단체만 잇고 민족의 정신이 업습므로 비록 4억만이 결합하여 1개의 中國을 만들었다 하나 其實은 一盤 散沙로 今日에는 세계에서 가장 빈

약한 국가가 되어서 國際上에서 가장 低劣한 지위에 처하여서 남은 刀俎가 되고 나는 魚肉이 되었다. 우리의 지위는 이때에 잇서 가장 위험하다. 만일 다시 單心하여 민족주의를 제창하여서 4억만 인이 결합하여서 한 견고한 민족을 이루지 못하면 中國은 곧 亡國滅種의 염려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危亡을 挽救하려면 곧 민족주의를 제창하여서 민족적 정신으로써 국가를 구하여야 한다.

우리가 민족주의를 제창하여서 中國의 危亡을 挽救하려면 먼저 우리 민족의 위험이 어대잇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 위험의 情形을 알냐면 중국인과 열강의 인민을 비교하여보면 가장 명백하다. 歐戰 以前에 세상에서 열강이라고 하던 것은 7, 8國이 있다. 最大 한 것이 英國이요 最強한 것이 德國 奧國 露國이요 最富한 것이 美國이요 新興한 것이 日本과 伊太利였다. 歐戰以後에 三國이 넘어가고 현재에 남은 一等 強國은 英國 美國 日本, 伊太利 뿐이다. 英國, 露國은 모두 민족으로써 立國하였다. 英國이 발달하는데 쓰인 민족의 本位는 「앵글로 색슨」人이요 지방의 단위는 「잉글랜드」와 「웰스」이다. 人數는 다만 3,800萬이 순수한 英國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민족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민족이요 그의 造盛한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국가이다. 100년 이전을 거슬러 보면 人數는 다만 1,200萬이던 것이 현재에는 3,800萬이 된다. 100년 동안에 곧 3배가 증가되었다.

우리 東方에 1개 島國이 잇스니 그것은 日本으로 東方의 英國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도 1개 민족으로 조성한 것이니 그 민족을 「大和」民族이라고 한다. 開國으로부터 현재까지 外力의 併呑을 맞더보지 안어서 비록 元朝 蒙古의 강함으로도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그 현재의 인구는 朝鮮과 台灣을 除한 外에 5,600萬이다. 100년 이전의 인구의 확실한 수는 考究하기 어려우나 그러나 근래의 인구증가율의 비례로써 계산하면 3배는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잇스니 그러면 100년 이전의 日本 人口는 대개 2천만 좌우로 볼 수 있다. 이 「大和」民族의 정신은 지금까지 아직 상실되지 안코 歐洲의 문화가 東漸하는 지음에 歐洲와 美國 中에서 과학적 방법으로써 국가를 발전식혀서 維新한지 50년에 문득 亞細亞의 가장 강성한 국가가 되여 歐美 各國으로 더부러 並駕各驅하여도 歐美人도 감히 경시치 못한다. 그런데 우리 中國의 인구는 어떤 나라보다도 만흐나 지금 남에게 경시받는 이유는 곧 하나는 민족주의가 업는 데 있다. 日本도 維新하기 전에는 國勢는 심히 미약하였고 영토는 四川 一省만 박게 안되었고 인구는 四川 一省에도 부족하여서 역시 外國의 壓制와 모욕을 맞엇었다. 그러나 彼等은 민족주의의 정신이 잇슴으로 분발하여 웅대하게 되어서 50년을 불과하여 문득 쇠약한 국가로서 강성한 국가가 된 것이다. 우리가 中國을 강성하게 하려면 日本이 곧 일개의 훌륭한 모범이다. (以下 次號續) <75>

<72-75>

73.

잡지명: 삼천리 제5권 제9호

발행년월일: 1933년 09월 01일

기사제목: 民族的 自覺

필자: 崔承萬 최승만

기사형태: 논설

民族的 自覺 (민족적 자각)

崔承萬

佛蘭西 어떤 예술가가 자기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2백세까지 살고 싶다고 한 말이 있다. 율타, 사람은 더퍼노코 長壽長生을 바라서는 안되겠다. 下等의 계획 下等의 목적도 업시 그저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것이라고 안이 말할 수 업는 것이다. 친구를 위해서 隣人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이냐 하나 유익한 일을 해 노코 죽겠다는 생각이 업서서는 안되겠다. 여기에서 사람의 생활이 禽獸보다는 다르고 禽獸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이다. 고로 더퍼노코 목적이 업시 살겠다는 불상한 생각을 버리고 내일 죽더라도 목적이 있게 의미가 있게 살겠다는 귀중한 생각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곧 長壽요 長生이니라.

세계의 풍조를 따어서 우리 사람 일반생활에도 향락적 기분이 만히 홀느는 것 갓치 보인다. 조선 백성들아 우리는 英國사람도 안이요, 米國사람도 안이라 朝鮮사람이다. 偏狹한 民族主義를 떠드는 것은 안이지만은 누구나 우리를 가리켜서 朝鮮人이라 하고 또 사실상 朝鮮人이다. 朝鮮人으로 태어났슬진대 朝鮮人으로서 현재의 지위와 형편을 잘 살펴 보아 우리는 우리로서 할 일을 하고 우리로서 취할 것을 해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도 인류의 一分子로서 世界文化에 공헌할 雄志가 잇슬진대 반드시 우리로서 나갈 방향을 정해야 하겟고 우리로서 노력할 바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코리안(KOREAN)이라 하면 대접을 맞는다는 말은 自慰的言辭에 불과한 것이요 실은 『可憐兒』라는 말에 불과한 것이 안인가 한다.

얼는 말하면 오늘날 朝鮮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업다고해도 과언이 안이다. 또 여기에 대하여 안타가운 생각을 갖는 이조차 점점 적어지는 것 가튼 생각을 不禁케 될 때에 오죽 한심할 뿐이다. 우리는 장차 어대로 가랴는나.

나는 우리가 현재 남들에게 당하는 모든 창피와 凌辱을 鬱憤히 녀인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여기에 잇서서 너무도 반성이 업고 자각이 업시 지남을 더욱 鬱憤히 생각하는 바이다. 적어도 욕을 욕으로 알지 못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 하면 사람으로서 가질 바를 못가진 가장 불상한 민족이라고 안이할 수가 업는 것이다.

어째서 우리가 현재에 이가튼 지위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어대잇는가. 과거에 어떻게 하였는가. 현재에 어떻게 하고 잇는가 누구의 탓인가. 누구의 죄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대접을 맞고 욕을 먹지 안케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회를 유익케 하고 <16> 인류의 일원으로서 세계에 공헌할 바이 잇슬가. 이러튼이 생각을 안이하면 안될 것이다. 이것이 업다하면 사람이라고 할 자격조차 업슬 것이다.

우리의 형편을 돌아볼진대 사소한 감정이나 벤벤치 못한 일로서 이려고 저려고 큰소리 내서 서로 떠들고 서로 다툼 여유가 업는 줄 안다.

과거의 역사가 이러튼한 분쟁으로 始終하야 불행한 결과를 매겼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더욱 警戒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처에 派黨云云은 무슨 까닭이나.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살펴보아 一致協力치 안으면 안될 필연성을 깨다를 것이요. 따라서 큰 자각 하에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勇進해야만 될 것이다.

天은 公平無私하신지라 우리가 하는 이만치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실 줄 맞는다. 복을 取코저 하는가. 복 맞을 만한 일을 행할 것이다. <17>

<16-17>

74.

잡지명: 삼천리 제6권 제9호

발행년월일: 1934년 09월 01일

기사제목: 民族興亡과 戰爭

필자: 金璟載 김경재

기사형태: 논설

民族興亡과 戰爭 (민족흥망과 전쟁)

金璟載

1. 戰爭이 民族間의 鬭爭으로서 存在하기는 그가 原始的 社會時代이었고 國家制度의 形式以來의 戰爭은 民族間의 戰爭이었대기보다 特殊한 組織을 갖고 成立되어 있는 階級間의 싸움이였다. 그럼으로 人間社會의 戰爭은 그가 처음에는 一般 社會의 動物 間에서 우리가 日常目睹하는 바와 같치 었던 一群과 다른 1羣이 잇서 生物學的 存在을 다투는 戰爭이었을 것이나 그러나 人類社會에 잇서 生産組織의 發達은 政治國家의 成立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는 支配現象이잇고 階級の 分化가 일게 되었으며 그리고 政治的 이데오로기-는 生産關係와 交換關係가 그의 實體上의 基礎가 되지 않을 수 없다.

原始人의 生活에는 政治가 업섰다. 그들이 나무 우에서 깃드리고 살든 때이다. 또는 地上에서 生活을 形成하고 잇든 때에도 아주 素朴한 生活樣式에 지나지 못했다. 그들은 自然生食物의 獲得으로서 滿足했든 것이다. 魚食을 하고 火食을 하게 되어서도 亦是 食物의 대부분이 動物, 果實, 草根類이었으며 따라서 原始經濟生活에 잇서 女性은 採取했고 男性은 鳥獸狩獵이 그들의 勞働의 分化이였다.

政治支配의 成立 人間不平等의 發生은 經濟的進歩를 따라서 土穴生活에서 住居生活이 되고 家庭이 成立되고 家族財産이 形成되며 거기에 社會的組織이 開始됨에서 그가 비롯된 것이다. 人口의 自然增殖은 人口過剩을 보게 되었고 그리 하여 勞働의 進歩,<26> 生産組織의 새로운 展開가 必要케 되니 여기에서 새로히 達成된 生産樣式은 原始時代와 는 다른 意味의 社會關係가 發生되었다. 從來의 狩獵이나 捕魚 이외에 牧畜, 農耕의 發達을 足하였으니 따라서 鐵製의 農具가 緊要하게 되었고 石, 煉瓦等の 家屋의 建築材料가 잇서야 하며 火食이 시작되니 肉食, 穀類의 食物을 使用키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勞働部門의 分化는 從業者間을 差別을 보게 되고 統一的 組織者가 必要하게 되니 經驗에 富한 家長이 組織者, 支配者가 되었으며 이에 家長 對 成員間의 關係는 政治的 支配關係가 形成되었고 한 氏族이나 種族은 다른 氏族이나 種族과 戰爭을 하여서 捕虜를 取하니 거기에서 奴隸制度가 나고 階級的 關係가 이

루워것으며 戰爭이 잇는 反面에는 이들의 氏族 種族團體間의 交換作用이 잇섯나니 그리 하여 近代式 經濟作用의 發端은 벌서 이때에 胚胎된 것이었다.

原始共產體가 崩壞되고 家長對成員의 分化, 奴隸支配가 이 時代의 特徵이여서 征服氏族 種族의 酋長이 古代的 國家로서 廣大한 地域을 統括함에 이르기까지에 中間時期이니 바빌론 中國, 印度, 埃及等 所謂 亞細亞의 古代國家, 기리샤 로마 등의 西洋의 古代國家가 成立되기以前에 氏族이나 種族共同體의 政治形態이였다.

當時의 支配 現象이 奴隸 對 所有者의 關係를 主로하고 其他, 富民과 貧民, 農民과 手工業者, 魔術士 등의 特權者와 一般人民 등의 間에 利害의 差는 그가 漸次로 增大하고 이것으나 그러나 階級對立의 程度는 거의 눈에 띄우지 안으리만큼 幼稚, 微弱한 바가 이섯다. 그는 當時의 經濟가 狩獵에서 牧畜에 農業에 發展하얏다 할지라도 自然依憑의 程度가 강하니만큼 政治思想도 生産의 指導者인 家長에 대하여 尊敬을 갖게 되고 그리고 僧侶나 妖術士를 通하여 天體自然에 대한 恐怖心을 늦기게 되었고 따라서 祭政一致의 政治思想이 그의 根底가 되엇이였다.

2. 古代國家는 氏族, 種族支配形態의 矛盾의 結果로서 生成한 것이며 보다큰 權力集中의 <27> 必要에서 發生한 것이다. 그 形式은 民主政體도 잇고 君主政體도 잇으며 貴族政體等 等 幾多의 形式이이엇으나 그가 古代的奴隸制度우에 成立되엇다는 것은 그 어느 것에나 共通된 現象이였다.

이 時代의 特徵은 公共團體及國家財産 以外에 個人的으로 動産不動産의 私有制가 創始되아서 그가 發展成長함을 따라서 交換市場의 發達이 一層 現著해졌고 그리고 都市와 農村의 對立, 都市의 國家와 農村의 國家와 의 對立이잇고, 都市自體間에도 産業과 海上商業과의 對立을 보게되엇으며 그리하여 이時代의 政治支配關係는 自由市民과 經濟的搾取層인奴隸와 의 對立關係도 一層現著해졌나니 기리샤時代의 諸國家는 그의 代表的이다. 그러므로 그政治的規模의 擴大는 그가 私有財産制度의 發展을 招致하얏나니 로마時代의 私有財産의 發展이 그 것을 證明하고 잇다. 로마時代에는 奴隸以外에 平民의 小農이 現在의 푸로레타리아트와 類似한地位에 轉落하야서 有産市民과奴隸와의 中間地帶에 處하야 個人的企業의 進展을 보게되엇으나 東洋에 서는 政府의 集中的權力干涉에 依하야 土地所有로 集中的形態을 取하게되엇다. 西周時代의 王侯百姓對庶民, 臣僕과의 身分의階級對立이 그 것을 말하고 잇다.

이때가 氏族時代의 後를承하야 文化的發展, 政治理論의 一大飛躍時代이여서 政治學은 哲學과 共히 百花亂滿의 感이이섯다. 政治에 잇서서는 데모크라시-의 아테네貴族 寡頭制의 스파타, 데-베의 民主國家等은 그가 全部奴隸制度의 우에 成立되엇든 것이고 哲學에 잇서서는 밀레도스學派의 本體論, 비다고라스學派의 數論, 헤라쿠레이토스의 로고스 등이 그 것이다.

古代國家가 都市나 或은 小領域에서 出發하얏음에 反하야 農村에서 出足한 封建的의 國家形態가잇다. 沒落하고 잇는 로마제국의 最後數世紀에 瓦한 野蠻人에 의 한征服은 農耕을 低下식키였고 産業의 販路를 파괴하얏으며 그리하여 商業을 紊亂케했다. 農村及都市人口는 漸減하야 完成되엇든 로마의 大帝國은 드되여 崩壞되고 마렀다.<28> 그後 게루만人의 軍制支配下에 封建的財産制度가 成長하얏으니 封建的財産이란 種族財産 及 公共團體財産과 同樣으로 共同組織에 基礎를두엇든바 그의 支配的政治階級으로 敎權과結託한 從臣, 貴族, 封建諸族等 이잇고 그의 被支配層으로 農奴의의 小農이 잇서 그와 對立關係에 이섯다. 그는 土地所有를 根據로하고 農業을 中心産業으로하는 封建制度의 機構이니 그를 中心으로하고 各種의 이데오로기-가 成立되여이섯다. 中國에 잇서 春秋以後의 官僚對人民, 地主對農夫, 師傅對徒弟의 身

分的階級的 對立이 그것이다.

그러한 經濟政治制度는 同一時期에 世界的으로 發生 또는 消滅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地域的, 文化的, 歷史的諸條件에 制約되야서 서로 그時期를달니하는 것이다.

封建時代에 잇서 가장 飛躍的의 發展을 이룬 것은 生産力이다. 複雜한鐵製武器, 軍用車, 木造船, 城壁等の 築造가이섯고 農業에 서는 肥料를使用하게되고 森林의 採伐, 耕地的 擴張이 잇고 牧畜이發達되얏으며 簡易한 纖維工業, 打穀機, 水車製紛所, 織物製造術 등의 發達도 보게되엇으며 戰爭은 武士團과 指揮者에게 土地專有의 特權을 갖게하얏나니 指揮者에게 侯, 伯, 男, 기사등의게 獲得한土地를分與하야 年貢맛을 權利를 주엇다. 封侯는 戰爭에 依하야 漸次로 大中小로分化하얏고 征服者는 封土로서 被壓服者에게 土地를與하는 形式을 取하야 家臣領主의 關係는 樹立되엇으며 그러한封侯와 并立하야 武士, 祭司, 僧侶等の 支配層이잇서 侯伯과갓흔 貴族의 班列에 스(立)케되얏다. 그러한支配層은 古代國家에 서는 奴隸制度의 우에 結成되엇든 것이나 封建國家는 農奴를 基礎로하고되여잇다.

以上에서 우리는氏族 種族支配, 古代國家, 封建國家의 3期를 概括的으로이나마 考察를 加했다. 그를 추리어 보면 原始共產體시대에 업섯든 私有制度가 發達하야 氏族 種族間의 戰爭으로 되엇고 그의 結果로 領地 及 사람까지라도 捕獲하야서 그를 氏族財産化 하얏고 그리하야 交換現象이잇고 家長權力の 強大化를 따라서 家長은 氏族財産에서 <29> 自己所有의 財産을 區別키에 이룬 것이엿다. 그러나 그時代에도 支配現象이잇고 政治의 發生을 보기는 헛으나 아즉 統一한 國家權力の 確立을 보지 못헛고, 古代國家에 와서 그가 비로서 結成을 보게되엇으며, 封建國家에 와서는 그의 支配方法 一層分化的인 同時에 거의 完備에 到達하고 잇는 것이다.

3. 都市制度時代는 交換及市場의 發達에 따라서 이러나는 資本主義의 前兆이다. 封建制末期의 貧弱한 手工業으로서는 封侯와 農民의 需要에 應해내는 수가 업섯다. 그리하야 手工業은 都市를 中心으로 하고 급격히 發達하얏으니 戰爭이 그의 發達을 促成한 것임은 물론이다. 11世紀에서 13世紀間에 都市는 非常한 發展을 보게되 었고 15,6世紀에 와서는 君主의 權力이 伸長하야 近代的 國으로서의 統一에 이르기까지에 그威勢를 볼수이섯다. 그에서 1步를 나간 것이 民主主義國家이니 그의 經濟的土臺는 商業資本主義와 工業資本主義에 잇다. 商業資本主義는 商業의 發達, 貨幣의 發達, 工業資本主義에 依한移行이란 3個의 階段을 받게되나니 中世아라비아人은 中央亞細亞에서 스칸디나비아에 渡하야 東西兩洋의 交換作業에 從事하얏으며 빈자친은 그後를承하야 13世紀에 이르기까지 歐洲商業의 中心地가 되여섯다. 이태리는 빈자친과歐洲와 의 中間에 잇서 商業에 注力한일이 잇으나 佛蘭西의 海賊의商業으로하야 그만 失敗하고마렀다. 11世紀의 初期에 伊佛의 武士가 中心이되여 回教徒와 싸와서 그를擊退한일이 잇는바 그는 佛伊商人에 대하야 回教徒가 그의 障礙가되는까답이엿다. 그럼으로 中世商業의 開拓者는 武士團을 갖고 잇는 封侯이잇고 그가 都市貴族이되고 高利貸金業者가된 것이다. 近世에 이르러 葡萄牙商業이 植民地獲得에서 伊太리를 壓倒하얏고 西班牙의 亞米利加發見으로 그가 날로隆盛하고이섯으나 葡萄牙는 西班牙는 國內의 經濟的發達이 그의 商業과 照應하지못하야 그만 急激한沒落을 보게되엇고 工業이發達되고 漁業에 經驗이 富한 和蘭이잇서 西班牙의 商船을 약탈하야 自己發展을 圖謀헛으며<30> 英國의 啊業도 西班牙船襲擊에서 그가 矯失를지엿다. 이럿케 歐洲資本主義發達의 第1段階인 商業資本主義는 半海賊 半商人의 態度로 그 發展의 初步를지엿고 그리고 強制的 약탈적 交換에 依하야 貿易이實施되고 植民地를맨드렀다. 그리하야 商品商業과共히 貨幣商業도 發展되엇고 高利貸 銀行, 取引所, 株式合資會

社等이 나타나서 紙幣制度도 始作된 것이었다. 이들의 金融業者가 封建諸侯에게 貸付를하게 되니 그가 封侯沒落의 原因이다.

商業資本主義가 發達하면할수록 市場의 擴大, 商品需要의 向上이 生하고 大量生産이 必要케 된다. 여기에서 商業資本主義는 工業資本主義에 올마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商業及工業資本主義에 基礎되어있는 政治制度는 民主主義國家를 柱礎로 한다. 루네산스의 휴머니즘哲學은 敎政의 分離를主張했고 스피노사, 루소 등의 社會契約說은 從來의 君權神授說을 否定하는同時에 불죄아지의 政治的 擡頭를 理論化시키었으며 라이부닛츠의 悟性形而上學에 英佛의 經驗心理學을 結合시킨 칸트는 自我의 概念을 確立시키고 루소와 共히 自然狀態의 社會에서 契約에 의한 國家의 成立을 眞理로 했다. 칸트의 認識論哲學은 횃데, 세링구에 依하여 精神概念에까지 發展되었고 그는다시 헤겔의 神.精神의 觀念哲學에 까지 完成되었다. 그럼으로 이時代의 理論의代表로서는 루소와 헤겔이었다.

封建主義의 카소릭구神學을 改革키위하여 果敢한 鬭爭을 開始하였든 불죄아는 이제는 헤겔의 理念의神을 새로운位牌로마저드렸다. 封建的 神秘를 打開키위하야는 科學的精神을 發揮했든 것이나 自己體制를직키기위하야 새로운 神秘主義에 退却치 안을 수 업섯다. 商品崇拜, 利潤中心의 이데올로기가 그의 本質이 되어 있는 것이다.

4. 19世紀의 好況과 1,900年에서 1,903年에 이르는 恐慌으로써 칼텔은 全經濟生活의 基礎의 하나가 되었고 資本主義는 帝國主義가되었다. 따라서 獨裁國家時代란<31> 民主主義가 칼텔의 支配의 完成에 依하여 그가 獨占의 經濟機構의 移行과 共히 獨裁의 傾向이 濃厚하여진 1900年前後의 時期를가라쳐 하는말이며 特히 歐洲大戰以後 資本主義의 一般的危機에 臨하야 파쇼運動이 擡頭한이후에 그는 一層現著해졌다. 産業의 合理化란 美名下에서 生産이集中되니 거기에는 金融資本의 發生을 보게되고 그政策은 對外하야는 原料生産地와 外國市場의 獲得, 資本輸出市場의 發見에 努力하게되며 對內하야는 獨占市場으로서의 獨占價格의 維持를 要求케된다. 이러한 對外强硬政策과 對內支配의 強化는 안으로는 를 보게되는同時에 民主主義國家에 重要な政治制度인 議會政治는 新興불죄아지-의 封建的階級과의 鬭爭에서 角逐하고 있는 불죄아간의 調停競爭의 마당에로 轉換하야써 獨占의金融寡頭와 政黨뽀스와 의 獨裁의政治가 尤一層強化될지며 對外的으로는 列強간의 角逐競爭이 戰爭의 危機를 誘導하고 있다.

5. 『過去一切의 歷史는 0000의 歷史이다』

여기에 歷史라함은 有史以來의 그것일지니 그렛타해서 거기에는 階級對立만을 보고 民族的인方面을 全然無視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왜그러냐하면 民族과階級の 交互關係가 過去의 社會制度이었고 또는 現在의 그것이며 그가 人間에 잇서 基本的인 政治問題인가답이다.

『社會의 經濟的構造가 그가 社會實體上的 基礎이고 우리는 그에 依하야서 歷史上의 各時代의 法律上 政治上의 諸制度에서 宗教哲學上 其他諸思想에 이르기까지 上層建築全部에 대한 究極의 說明을 할수있다』는 그것을 가라친말일 것이다.

그럼으로 오늘날의 民族의 觀念은 原始的의 種族觀念하고는 그가다른바가잇스니 政治國家의從屬關係에서 生한 後天的의 同族感情이다. 同種族이라도 國家的으로分裂되면 異民族이되고 異民族이라도 政治國家的으로 統一되면 同一民族感을 갖게된다.<32>

그는 英國人과米國人的 關係가 그를 證明하야준다. 따라서 오늘날의 民族感情은 그가 封建的分裂의 國家形態가 近代의交通의 結果로서 發達한産業의 組織的, 또는 地理的擴大로하야 政治的機能을 일코 大國家에 統一되는 그때에 그사실의 意識形態로서 形成된 것이 民族組織이엇

으며 그리하여 近代의 民族國家가 完成된後의 일이다. 이렇케 近代國家의 形態는 産業的社會形態의 擴大의 結果이지만 觀念的으로는 原始的의 民族感情의 復活을 보게되니 이러한 古代的構造의 復活은 近代的 市民의 産業組織 이러한 民主主義의 思想은 人民主權의 觀念에 依據하게됨으로 『人民』이란 同種意識이 民族觀念을 도두워주게되였다.

이러한 市民社會의 國家에 와서 戰爭은 비로소 民族的으로 나타나게된 것이였다. 그는 戰爭이란 다른 것이아니고 近代的商業運動이 나흔 新世界開拓의 전쟁이니 그가 市民階級自身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임으로써이다. 葡萄牙, 和蘭, 英國의 海外侵略戰爭은 國家의 特許를받은 시민의 0적행동이엇든 것이 그것을 雄辯하고 있다. 그후 市民社會가 完全히 國家權力을 掌握한 후에는 戰爭은 從來모양으로 商人의 私的戰爭이아니고 國家戰爭이되였다.

6. 要件대 民族은 16世紀以來 歐羅巴에서 封建制度의 解體와 資本主義 發達過程에서 成立되였으며 國內市場의 統一, 對外競爭의 開始, 中央集權의 成立등과함께 發達된 것이다. 世界大戰後 亞細亞의 10億의 人(畧)는 그리하여 世界資本主義와 00코저한다. 近代歐洲의 資本主義는 亞細亞諸民族을 搾取하여 그를 犧牲食糧으로서 自己發達을 이룰 것이다. 日露戰爭 歐洲資本主義의 束縛에서 버서나려는 第1次의 跳戰이였고 世界大戰과 露西亞의 00은 歐羅巴의 資本主義로하여금 亞細亞搾取의 致命의 打撃을 주었으며 1928年以後의 世界恐慌은 全亞細亞諸民族에게 民族意識을 激昂시키였다. 이러한 民族은 일정한 範圍 안에서 自身獨自의 法則을 갖고 人間社會의 <33> 發展과 衰亡에 具體的의 作用을 주고 있다. 社會의 變遷은 經濟機構의 變化, 그와 따르는 諸階級の 分裂에서 促進되고 잇는 것이 事實이나 그러나 現實의 變遷은 그 것뿐으로만 이러나는 것이아니고 그社會를形成하고 잇는 民族의 歷史傳統, 政治, 經濟, 習俗, 社會心理, 精神文化等의 領域에 흐르고 잇는 固有한主觀, 客觀的의 要因에 依하여 換言하면 民族의 特殊性에 依하여 그가 다르다는 것이다. 英, 米獨佛等의 諸國이 그가 資本主義 生産方式에 立脚하고 있다는점은 同一할지나 各自가 그獨特한個性과 多樣性을 갖고 잇는 社會이라는데에 그가特色이있다. 이러한 個性을 民族의이라고한다. 따라서 民族도 다른 一般의 社會의存在와 맞찬가지로 그가 歷史的의 過程이니 그는 언제까지나 固有한形態를 갖는 것이아니고 條件의 變化에 依하여 發展도하고 再生도하고 或은 沒落도한다.

民族은 한固의 生活體이다. 그럼으로 그는 獨自의 目的을 갖게된다. 過去의 偉大한民族은 自己의 個有한 創造品을 남기였다. 民族間의 衝突의 根底에는 階級關係가 作用하고 잇으나 그러나 한個의 民族이 衰亡하는때에 그중에서 어느한 階級만이 남어서 繁盛하지못한다. 그럼으로 民族과 階級과의 交互關係가 가장 根本的인 政治問題이다.

(1934.8.20) <34>

<26-34>

75.

잡지명: 개벽 신간 제1호

발행년월일: 1934년 11월 01일

기사제목: 朝鮮民族性의 新建設

필자: 李敦化

기사형태: 논설

李敦化

위대한 이상 하에서 엄정한 현실을 개척하자] 하는 말은 人間性을 다른 動物性과 區別해야 낸 抽象的 證明이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갖지 않은 점은 여러 가지로 구체적 설명을 요할 수 있으나 그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하여 추상적으로 갈나본다면 종종 의 이상을 가진 점과 그리하여 실제적 현실을 의식적으로 개척하는 점이라 할 것이다. 사람은 그 관념에서 초현실적 이상과 혹은 비현실적 공상을 생각하고 잇는 것과 현실적 實際界에 잇서도 본능적 衝動的 행위로부터 의식적 技術的 동작을 하는 점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경계선이다. 이 경계선은 동물과 사람 뿐만이 안이오 사람과 사람之間에도 몽롱하고 극히 불분명하지만은 다소간의 구별을 가지고 잇다 볼 수 잇다. 이상적 상상력이 비료적 위대하고 현실적 실행력이 비교적<2> 강대한 사람과 그와 반대되는 최저선에 잇는 사람 새이에는 그의 동기여하와 그의 환경여하는 별문제로 하고 그의 경계선은 스스로 명백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은 민족과 민족 새이어나 동일민족이라 할지라도 역사적 관계 즉 시대 진보상 階段에서 이 경계선의 차별을 차자낼 수 잇다. 여기서 미개민족 개화민족 야만민족 등 구별을 짓게 되고 가튼 민족으로도 열리지 못하였든 시대의 민족과 열린 시대의 민족의 差 등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긴 역사를 등에 지고 흘러오는 인류群은 각시대마다 일정한 특징을 나타내면서 각시대의 념새를 후세에 유전하여 준 것은 인류진화상 대체적 形迹이니 이것이 인류성을 지여 노흔 대사실이며 그리하여 여기에 민족성이란 것도 각자의 풍토습관에 따라 각자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각자의 민족성은 비교인류학상에 잇어서 호상의 장단을 가지고 잇으나 그러니 우리는 엇더한 민족을 물론하고 그 민족으로서의 장래에 큰 희망의 실현이 잇스리라 밋는 점을 두 가지 원리로 나눌 수 잇스니 무엇이냐 하면 그 민족에게 위대한 이상이 수립되야 잇느냐 하는 것과 그리하여 엄정한 현실을 개척할 만한 根氣가 잇느냐 하는 점이 그것이다. 즉 위대한 이상하에서 엄정한 현실을 개척할만한 민족성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었다.

위대한 이상이란 말은 곧 그 민족의 정신적 체계와 정신적 발전성을 이룸이며 그리하여 그 이상으로서의 골자되는 점은 민족적 초인성과 민족적 초민족성이 그것이었다.

초인이라하면 누구나 니체의 철학적 초인론을 연상할 수 잇다. 니체의 초인론은 철학적 대이상이니만치 그는 생물진화학상 고찰로부터 현재의 인류가 超猿으로부터 우주생물의 신계단을 지여 노앗습과 가치 우리들의 현재의 인류 중에도 다시 현재의 人을 초월하여 신인간을 나아 노홀 超人이 잇다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소위 超人은 力萬能의 강자가 안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 학설은 철학자의 이상이니만치 영원한 장래를 두고 하는 말이며 또 혹은 학자적 공상 일는지도<3> 알 수 업스나 이론적 체계로서는 진화를 永遠의 鐵則으로 보는 법칙에서 결코 虛*한 미신이 안이었다.

니체의 초인론이 결국 공상일는지 허*일는지는 별문제로 하고 광의적 해석과 실제적 응용에 잇서서는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든지 초인의 사실을 차자 낼 수 잇다. 즉 초인이란 사실을 생물학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인류의 역사적 진화과정으로 본다면 한 역사가 보다 이상의 큰 역사로 낫는 점에서 뒤의 역사는 항상 먼저 역사의 초인으로 볼 수 잇스며 뒤의 인류는 항상 먼

저 인류의 초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초인이란 뜻을 이러케 현실적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보면 우리는 여기서 초인적 정신을 실제적 행위로 응용할 수 있스며 그리하여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한계의 회열과 무한의 강력을 彈出할 수 있스며 모든 死氣와 정력 속으로부터 생기와 활력을 배출할 수 있스리라 맞는다.

「사람은 항상-금일의 자아보다 보다 큰 자아가 있는 것을 이저서는 안된다」한 타골의 말은 현실적 역사적 해석에서 니체의 초인론과 同曲異調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은 금일의 자아에 이외에 더 큰 자아가 업스리라 단념될 때에 그 자아는 곧 사멸에 빠지는 것이며 타락에 드러가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이나 민족을 물론하고 다 가티 타락적 向下線을 밟고 내려가는 무리들이다. 그 實 사람은 금일의 자아보다 明日의 자아가 보다 이상 크리라 맞고 의식하는 점에서 모든 생기와 활력이 이러나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明日의 自我가 今日의 自我보다 커질 때에 처음으로 그는 초인적 원리를 응용하였다 할 수 었다. 웨-그러느냐하면 그는 정신상에 있어 明日의 자아가 今日의 자아를 초월하였습으로써이다. 즉 明日의 人이 今日의 人을 초월한 것이다.

이와 가튼 초인적 진리는 개성의 발전에 있어 거의 본능으로 되어진 것이니 생리의 성장 지식능률의 계발 즉 肉的 정신적으로 明日의 자아가 今日의 自我보다 커져야 하고 또한 커지는 원리를 가졌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초인은 다못 본능적 상태를 이름이 안이 오 의식적으로 作之不變하는 修成的 행위를 가르쳐 하는 말이니 「不知老之將至」라한 孔子의 <4> 격언과 가티 사람은 의식으로서 항상 明日의 자아가 今日의 자아보다 커지는 원리를 각오하고 그리하여 그를 실천하는데서 인간의 가치는 그 존재가 선명해야 질 것이다.

개성으로서 초인은 학자적 혹 英傑적 修行을 이름이나 민족성으로서 초인은 이것을 일너 우리는 초민족성이라 이름하고 쉽다. 우리가 말하는 초민족성이란 것은 민족성을 무시하는 인류주의를 이름이안이라 었든 민족이 현재에 가지고 있는 민족성보다 보다 우월하고 보다 활력이 있고 생기있고 희망이 充溢하고 현실에 조화된 위대한 민족성을 건설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사람은 今日의 자아보다 明日의 큰 자아가 있는 것을 잊지 말 때에 보다 큰 활력과 보다 큰 사업을 감행할 수 잇습과 가티 一民族도 역시 그리하여 현재의 민족보다 明日의 큰 민족이 있는 것을 잊지 말 때에 처음으로 그 민족의 장래를 점 칠 수 있다. 그러한 민족이야말로 今日은 비록 약하나 明日은 강해질 수 있고 그러치 못한 민족이야말로 今日은 강한 듯 하되 明日은 衰하야 지는 것이다. 우리 조선 사람은 민족성으로 보아 하로 밥비 초민족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과거의 민족성을 초월하여 보다 자립성이 있고 보다 단결성이 있는 민족성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민족성이란 무엇이나 하는 것은 여기에 말할 제제가 안임으로 뽐하고 말거니와 우리 朝鮮 사람의 민족성은 현재의 사실로 보아 극히 유감되는 일이 만타. 사대성, 의타성, 당파성, 惰力性 등등은 다-가티 우리가 공인하는 欠点이다. 우리는 이러한 민족성을 초월하여 가지고 보다 위대한 새 민족성을 건설해야 한다

보다 위대한 민족성을 기르는 데는 위대한 이상이 전제되는 것이다. 이상이 업는 민족은 明日이 업는 민족이다. 이상은 곧 明日의 사실의 의미하는 말이니 사람은 항상 明日을 위하여 현재를 희생하는 데서 행복의 활로가 지여짐과 가치 민족도 역시 明日의 민족을 위하여 今日의 民族이 진력하는 곳에서 그 민족의 장래를 볼 수 있다.<5>

우리들의 현재는 실로 보잘 것이 었다. 하나 우리는 明日의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祖先이되자 悲壯한 결심하에서 정성잇고 공경잇고 신용잇고 부지런하고 根氣잇는 마음으로 장래를 위하여

활동하지 안으면 안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위대한 이상이다. 위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은 苦中에도 樂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엄정한 현실을 開闢하자? 우에 말한 위대한 이상이란 것은 정신문제에 속한 것이어니와 여기에 이른바 현실의 開闢이란 것은 실천적 행위에 속한 것이다. 현실이란 원래가 冷薄하고 頑強하고 무정한 것이다. 거기에는 비굴한 애원과 惰力的 不平과 가튼 것은 절대적 砒霜이다. 현실은 비굴한 애원과 惰力的 불평에 대하야는 여지없는 멸망을 주는 것이다. 그는 도리혀 완강한 저항 潑刺한 활기로써 대하지 안어서는 안된다.

에마손은 일즉 악운에 대하는 방법으로 이런 말을 하였다 한다. 악운은 애원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점점 그 마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악운이 오는 때에는 또 오나라 싸와보자 하는 태도로 그 큰 저항하는 곳에 악운의 신은 스스로 물러간다 하였다. 과연 일리가 있는 말이다. 현실은 악운과 갖하야 심히 심술구준 것이다. 그는 애원하면 애원할수록 악운을 내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엄정한 현실을 대할 때에 악운을 대함과 가치 인내 잇고 강력 잇고 활기 잇고 정대한 실력으로써 그와 싸와야 한다. 그의게는 비굴한 애원은 절대로 금물이다. 해보자 싸와보자하는 대장부적 기개로 그를 개척하지 안으면 안된다.

우리의 현실은 불운의 현실이었다. 經濟的 困難 문화의 低級 모든 이 현실을 무엇으로써 開闢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전에 가졌든 事大性 墮力性 黨派性 등 이러한 비굴한 애원으로서는 절대로 拯濟할 수가 없는 시대이다. 어대까지든지 自立 自誠 自敬 自信의 정신으로써 내 살림은 내가 한다는 기백으로 沈痛 果斷 隱行 自動 自力으로써 한쪽으로 경제력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한쪽으로 민족적 신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 「修人事待天命」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대한 태도이다.<6>

<2-6>

76.

잡지명: 삼천리 제7권 제1호

발행년월일: 1935년 01월 01일

기사제목: 朝鮮民族起源의 文化的 考察

필자: 金明植 김명식

기사형태: 논설

朝鮮民族起源의 文化的 考察 (조선민족기원의 문화적 고찰)

金明植

1

최근 識者들의 기쁜 研究와 만흔 調査에 의하여 民族文獻이 이어 發表됨은 必然한 일이고 또 반가운 現象이다. 실로 과거 朝鮮의 眞相을 밝히고 또 그것을 文獻의으로 整理함은 浩浩茫茫한 寔感이 업지 안다. 그럼으로 비록 匆匆한 시대라고 할 지라도 時間餘裕 있는者는 妥當히 이를 위하여 노력할 義務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眞實을 發見하고 事理를 究明함으로써 貴한

것이니 虛僞와 誇張으로 眩惑과 混難을 惹起함과 가튼 일은 업서야 할 것이다. 대개 眞理는 科學을 要求하고 科學은 利己의 方法과는 兩立하지 아니함으로써이다.<52>

2

무릇 個人이나 集團이나를 莫論하고 거의 社會生活에서 獨自의 生活能力이 形成됨과 함께 각각 個性이 構成된다. 이 原理는 民族 또는 民族集團에도 適用된다. 그리고 歷史는 원래 進化하지마는 部分的으로는 退化하는 일도 있다. 그럼으로 後期社會에서 醜惡을 發見할 수 있고 前期社會에서 善美를 立論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部分的 事實로 歷史의 進化를 否定하지 못한다. 原始社會는 封建社會에 비하여 粗朴한 觀念과 單純한 制度가 優雅한 것이 있다. 그러나 生産力의 발달에 의하여 前者는 破壞되고 後者가 形成되어 前者보다 複雜 또 豊富한 內容의 文化를 建設하였다. 그럼으로 封建社會를 咀呪하고 原始社會를 讚美함은 詩人의 感傷의 衝動으로는 興趣있는 일이지마는 社會學者의 科學的 觀察로는 何等の 價値가 없다. 그리고 新羅 高麗 李朝 등 時代의 文化는 確實히 檀君時代보다 進歩하였다. 또 檀君時代의 자량은 다른 모든 民族의 共通한 原始社會의 特徵이요 朝鮮民族의 固有한 보배가 아니다. 물론 각 民族의 生活意識은 그를 構成하여서 部分觀念에 濃淡, 深淺, 厚薄重輕의 差가 잇서 각각 다른 民族的 特色을 나타내지마는 그러나 이 各異한 部分이 社會生活에 影響하는 範圍는 극히 制限한 것이요 또 그것은 文化의 進歩에 의하여 점차 解消될 必然性을 가진 것이다. 米國은 여러 民族으로 組織되었지마는 각 民族間의 各異한 性格은 거의 調和되어 다 가튼 米國民이 되었다. 그리고 오죽 從來文化의 差가 低劣한 民族은 이제 오히려 近代文化의 創造者의 班列에 參加하지 못하였다.

그럼으로 民族文化를 研究하는 目的은 어느 民族의 文化的 水準을 究明하여 進歩한 文明을 理解하고 建設할 準備가 있는지 업는지 考察함에 잇는 것이요 과거로 復歸하기 위함이 아니다. 여기서 民族文化의 研究는 族譜學과 決定的으로 다른 것이다.

3

그런대 民族文化는 比較研究가 필요한 것이니 朝鮮古代의 優雅한 原始狀態를 了解한 우리는 가튼 時代의 다른 民族의 社會生活을 觀察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文籍에 나타난 露西亞의 머루와 獨逸의 막크와 英國의 마을 印度의 村落 共產體 등은 모다 原始社會와<53> 宗教의 民主的 直觀的 創造的 樂天的 武俠的 調和와 優雅를 자랑하거니와 同一時代의 朝鮮民族도 이러한 樂天的 生活을 享福하였스리라. 그러나 民族研究者는 如何히 誇張하여도 文獻에 나타난 朝鮮民族의 과거 生活文化는 이상 諸民族의 그것보다 貧弱한 것이 事實이요 또 그 까닭에 朝鮮民族의 古文化는 오죽 斷片的 記錄을 남기고 말었다.

그리고 民族集團의 生活本能은 어느 民族은 遠心的이요 다른 어느 民族은 求心的이라는 特色이 잇는 것이 아니다. 또 原始民族에 잇서서도 自然觀念의 純粹性은 保障할 수 업는 일이어니와 近代民族은 모다 文化觀念의 混合體이다. 히트레一派는 獨逸民族의 純粹性을 强辯하지마는 現 獨逸民族은 게루마니族, 추톤族, 을랍族, 나살族 등의 混合體인 것은 歷史가 立證하는 바이오 및 猶太族 歷史上 時間的 新舊 및 長短의 差는 업지 아니하나 또 混合體인 本質은 現 米國民도 다르지 안다. 그리고 烏居龍藏씨의 研究에 의하면 「古 日本民族은 아이누族 以外에 1. 朝鮮, 滿洲, 沿海州, 東蒙古 등 지방으로 渡來한 固有民族과 2. 쓰마토라 보르네오, 세레베쓰, 比率賓, 臺灣 등으로부터 渡來한 印度네지안系의 것과 3. 南支那에 예로부터 居住한 苗族 系統 즉 印度 支那民族이라고」하얏거니와(有史以前の 日本) 朝鮮民族도 能粹한

單一民族이 아니다. 人種적으로는 아르타이族과 崑崙族이 混合되었고 民族으로는 滿洲 諸民族 漢族, 蒙族 등이 混合되었다. 그리하여 日本民族間에 여러 民族의 差異가 이미 消滅된 것과 가티 朝鮮民族의 그것도 揚棄되어 歷史的 社會的 朝鮮民族이라는 一型의 生活과 意識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 民族研究는 여기서 出發하지 아니하면 아니한다. 즉 어느 人群이 一型의 生活과 意識도 形成한 文化段階에 이르러서 비로소 一民族을 構成하는 것이니 氏族觀念이나 部族觀念은 즉 原始民族의 生活과 意識은 近代民族 研究의 中心問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三國時代 이후의 朝鮮民族과 漢民族과의 差異은 言語와 衣服 이외의 精神生活에서는 發生할 수 없을 만큼 消滅되었고 또 그것은 朝鮮의 固有한 文化를 破壞함으로써 實現되었으므로 朝鮮의 封建文化은 朝鮮의 特色이 업거니와 그러나 현재는 朝鮮民族은 이 過程에서 形成된 것이오 原始民族의 延長이 아니다. 그리고 朝鮮의 古文獻에 中國의 書傳과 詩傳 가튼 또는 日本의 古史記와 萬葉集가튼 民族的 經典이 업서 民族的 生活을 單的으로 表現해 오지 못한 것은 遺憾이나 그러나 朝鮮民族의 歷史的 또는 社會的 存在가 업지<54>안다. 그럼으로 이제 세삼시럽게 神話에서 一片 童話에서 一片 歌謠에서 그리고 詩에서 一句 또 文에서 一節을 주어 모혀서 「續三綱行實」을 出版할 必要는 업다. 엇지 그래나 하면 일즉 「三綱行實」의 社會的 功果를 안 朝鮮人은 그를 朝鮮人의 事蹟만으로 新編한다고 더 만흔 效果가 잇슬 것을 약속할 수 업슴으로써이다.

4

그리고 多神思想 家族主義 太陽崇拜 등은 中世紀 이전의 모든 民族의 共通한 生活觀念 및 儀式이어니와 특히 多神思想의 宗教民族은 文明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또 太陽崇拜時代의 朝鮮民族은 스스로 文化段階를 展開하지 못하고 一層 進化한 外來文化을 輸入하였다. 이것은 文獻的으로 證할 수 업스나 人類文化의 歷史段階를 理解함으로써 斷言할 수 잇다. 원래 太陽을 崇拜하는 多神民族은 社會進化에 의하여 必然的으로 一神民族이 된다. 中世紀의 基督教가 歐洲를 席捲한 것은 다른 付隨的 이유도 잇지마는 그 根本理由는 그의 一神思想이다. 다시 말하면 歐洲 諸民族의 太陽崇拜思想은 그의 必然的 發展形態인 一神思想에 歸依치 아니치 못한 것이다. 그러나 朝鮮의 原始民族은 歐洲의 諸民族과 가치 太陽을 崇拜하였지마는 마침내 一神宗教를 가지지 못하고 多神民族이란 것은 그間 多神民族의 進步한 文化를 輸入한 까닭이다. 그럼으로 이제 종래 朝鮮民族의 多神思想을 讚美함은 野蠻를 證歌함과 가튼 것이다. 또 歷史上 朝鮮民族은 種族奴隸를 가진 일이 업스나 奴隸制度가 업지 안코 또 奴隸가 업지 아니 하였다. 모든 民族의 私有財産制度의 起源인 奴隸制度가 朝鮮民族의 限하여 업슬 일이 아니냐. 그리고 丁若鏞의 牧民心書에 奴隸에 관한 一編이 잇섯는데 最初 出版者가 削除해 바*다. 그 이유는 古來로 朝鮮의 奴隸制度가 너무도 殘忍하여 그를 外人에 알릴 수 업슴으로써 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朝鮮民族이 古來로 種族奴隸를 가져 보지 못한 것은 周圍의 征服者로서 나타나 보지 못하였음을 說明하는 條件이니 그로써 非武俠的 生活은 立證할 수 잇스나 武俠的 特徵은 證明되지 안는다. 그리고 만일 朝鮮民族이 希臘民族가티 만흔 種族奴隸를 가질 수 잇스면 朝鮮의 古代文化는 希臘의 文化에 비하여 遜色이 업섯슬 것이오 그와 동시에 朝鮮民族은 一層 理和的인 또<55>創造的인 榮冠를 썼스리라. 그러나 希臘民族과 가티 周圍를 征服하지 못한 朝鮮民族은 (그러한 對象도 업섯지마은) 多大數의 奴隸를 가지지 못하여 小數 奴隸를 酷使하였고 그러나 人數에 制限된 저들의 黃金의 알(卵)은 支配階級의 享樂과 奢侈를 制限하여 貧弱한 文化를 產出함에 그쳤다. 그럼으로 우리는 慶州의 古文明을 觀賞할 때 당시의 奴隸大象의 生活을 생각해 보는 것은 原始社會를 憧憬함과 가튼 感傷的 衝動이 아닌 것이

다.

5

그런데 朝鮮民族과 가튼 滿洲族인 女眞, 契丹, 遼, 金 等 族은 東征西伐하여 武侯와 勇猛을 世界的 떨치고 朝鮮民族은 겨우 乙支文德, 淵蓋蘇文 등의 守勢戰에서 武勇의 자취를 傳할 뿐 이지마는 그러나 현재 以上の 滿洲族은 各地에 散在한 人口를 總合하여도 300만명에 지나지 안코 또 그 文化는 朝鮮民族보다 低級이다. 그러타고 저의 固有한 言語와 文字가 업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兩者間에 數와 資의 懸殊한 差가 생긴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問題는 一般으로 民族的 優越性을 主張하는 者의 解決하난 바 아니다. 그리고 이 問題를 解決하지 못하면 朝鮮民族의 歷史的 및 文化地位를 理解할 수 업다.

滿洲民族은 蒙古民族과 가튼 牧畜民族으로서 農業을 兼營하였다. 그러므로 定位性이 缺如하고 또 저의 移動할 지역은 四面으로 展開되어 南征北伐 일삼은 동안 農業文化를 가질 수 업섯다. 그와 反하여 朝鮮民族은 半島에 定着하여 進歩한 封建文化를 樹立할 수 잇섯슴으로 비록 武勇은 저를 미치지 못하였스나 數를 增加하고 또 質을 向上하였다. 그리하여 朝鮮民族은 新羅이후 高麗이후 李朝를 통하여 滿洲民族과 다른 生活 및 意識을 가지었다. 그리고 農業文化의 集中的 表現인 佛敎와 儒敎가 이 시대의 朝鮮人 生活와 結合한 것은 偶然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朝鮮民族은 原始時代의 優秀한 特性이 佛敎 및 儒敎의 輸入에 의하여 破壞한 것이 아니코 그 過程에서 滿洲族보다 優秀한 文化를 建設하여 一型의 民族을 形成하갈 또 그 存在를 確立하였다. 그리고 家族主義는 이 시대의 中心思想인데 朝鮮에는 일즉 中國에서와 가튼 大家族制度가 實現되지 아니한 것은 人多地狹하여 土地를 *分하지 아니할 수 업섯슴으로써이다. 따라서 朝鮮의 集約農業이 일즉 中國보다 發達한 것을 理解할 수 잇다.<56> 그리고 中世 이후의 朝鮮民族은 儒佛敎의 影響으로 말미암아 派閥의이 되고 또 批判에 短한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은 朝鮮民族의 固有한 弱點도 아니다. 封建文化은 모든 民族으로 하야곰다 가튼 그러한 弱點을 가지게 하였다. 中世紀의 歐洲 諸民族도 그리하였고 현재의 漢民族도 印度民族도 그리하다. 요컨대 文化民族을 바리고 原始民族을 배오는 이유는 內容이 汲지 못하다. 그리고 山鹿素行의 理論은 歷史的 傳統의 體系가 잇거니와 이제 그를 直譯한 理論은 朝鮮民族史의 解說이 될 수 업다.

6

나는 民族研究들 反對하는 者가 아니코 그의 必要를 切實히 寗김으로 그 方法에 대하여 卑見을 말치 아니할 수 업다. 그리고 民族을 研究하는 方法은 經驗的 思想을 바리고 經驗的 知識으로써 文化的으로 中斷되지 아니한 과거와 현재를 聯結하여 그을 어느 哲學的 體系=世界觀 社會觀 우에서 現實的 真相을 理論的으로 組織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從來 民族研究者 中에는 혹은 과거 史實에 重視한 傾向를 가진 者 업지 아니하여 현재의 自我를 科學的으로 究明할 수 업서 發展的 契機를 살피지 못한 嫌이 잇슴을 否定하기 어래울 줄로 알러니와 그것이 마춤내 朝鮮魂은 原始主義=바베리즘이 되고 朝鮮心은 多神主義=사마니이즘이 됨에 이른 것은 必然한 歸結이 아닐가. 그리고 그것이 進歩的 動力과 對立함은 어느 物質的 勢力보다도 오히려 큰 것이 잇슴을 이저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社會的 根據가 後者보다 汲흔 까닭이다.

원래 民族은 自然觀念이 아니코 文化觀念이어니와 아인슈타인은 時空의 絕對性을 否定하도록 時代가 變換한 이 때에 잇서서 文化의 不變性은 즉 完成한 文化意識으로써 出發한 民族研究는

取할 바 아니오 또 큰트의 所謂 神學的 時代가 形而上學的 時代로 다시 形而上學的 時代가 科學的 時代로 變한다 함은 科學時代에 이르러서는 宗教, 道德, 法律, 政治 기타에 관한 傳來의 文化意識이 揚棄함을 이룸이 아닌가.

17世紀 이후 白人種이 世界를 征服하든 過程에서 저들은 民族에 대하여 先天的 優劣論을 唱言하였다. 그리하여 有色人種이 저의 奴隸* 된 것을 하날님께 感謝하였다. 그러나 有色人種이 前進함을 따라 저의 民族原理는 變하지 아니할<57> 수 업섯다. 米國 클라크大學을 中心으로 한 民族心理學派가 出現하여 先天的 原理에 의한 民族優劣論을 破棄하였다. 同學派의 참뵈렌(1843-1914년)은 文化 및 原始生活을 生物學的(自然的) 類推로부터 버서 나나서 心理的으로 分析하였는 대저는 人種의 差異 文化와 野蠻의 差異는 生物學的 및 心理學的 差異에 의함 보다도 歷史上의 機會에 依存함을 明白히 論破하였다. 푸란즈보쓰는 이 思想을 繼承하여 文化的 成果를 精神的 本能에 의하여 測定함을 科學的으로 證明할 수 업는 것 文化的 差異는 生物學的 原因보다도 歷史的 原因에 의한 것 白人種은 心理學的으로도 優秀하지 안코 또 生物學的으로도 모다 高級으로 發達하고 잇지 아니한 것 등을 立證하였다. 뿐만 아니라 地理的 環境은 住民의 身體的 形相을 變할는지 모르나 그의 變更의 樣式 및, 程度는 明確하지 안코 또 地理的 環境에 의하여 완전히 文化가 決定되지 아님을 主張하였다. 저는 人類의 心意의 同一說을 支持하고 原始人과 現代人과의 間에 본래의 精神能力의 發達程度에 관하여는 何等の 差異가 업고 文化上의 각각 差異가 잇슴은 오즉 그의 發達하는 機會에 差異가 잇는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보쓰는 쓰벤사 푸레자 테를노 및 기타 古典人類學者의 主張하는 바 人類 및 文化의 本質 및 能力에 差異가 잇다는 從來의 學說을 완전히 否定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民族研究는 形而上學的 時代의 文化研究가 아님은 물론이오 生物學的 本質 및 能力의 立證도 說明도 必要치 안타. 文化와 野蠻의 差異는 歷史上의 機會에 依存함을 생각하여 民族研究의 端緒를 資本에서 發見하여야 한다. 물론 近代民族은 資本主義의 產物이니 인저 近代國家의 民族意識을 理解하지 못하면 民族研究는 學理的 基礎를 세울 수 업는 것이 다.<58>

<52-58>

77.

잡지명: 삼천리 제7권 제1호

발행년월일: 1935년 01월 01일

기사제목: 新民族文學의 樹立

필자: 中公 중공

기사형태: 문예평론

新民族文學의 樹立 (신민족문학의 수립)

中公

1

나는 民族이 가지고 잇는 藝術이, 그 民族의 燭自性을 養育하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藝術을 가진 民族은 永遠히 滅亡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政治上으로는 如何했든 壓迫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時代의 한 時代相에 不過한 것이고 民族의 獨自性은 결코 侵犯되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다.

世界에는 만흔 民族이 있다. 그러다 그 중에 가장 偉大한 藝術을 가진 民族은 가장 偉大한 事業을, 이 世界人類에게 遂行한 것이다.

2

이것을 古代希臘에 비추어 보면 나의 말이 결코 無味치 않을 것을 알 수 있을 터이다.

現在 伊太利에 存在한 가장 尊重할만한 文化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것은 藝術이다.

그러나 그 藝術은 결코 古代希臘의 武勇을 자랑하든 스파타의 產物은 아니다. 참으로 그것을 가지고 立國의 基礎로 한 아덴스가 產出한 것이 아니었는가.

古代希臘의 스파타 敎育에서는 人類에게는 아모 것도 주지 못하였다, 武力을 자랑하고 戰爭을 조와하든 스파타人은 오히려 希臘의 滅亡을 催促하든 한 原因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아덴스의 어디까지든지 平和스러운 文化主義는 지금도 오히려 永遠하게 人類를 指導하고 있는 것이 안인가. 武力은 一時로는 勝利를 占領도 할 터이겠지. 그러나 그것은 永遠한 勝利者는 아니다. 永遠의 勝利者는 平和이다. 平和스러운 文化主義인 것이다. 그래서 藝術은 그 中軸을 이르지 않으면 안이 된다.

3

現代에 있어서 人類文化의 指導를 藝術運動에서 구하고 있는 民族은 露西亞이었다.

보라. 露西亞民族 解放의 先驅者인 「라덴쉬게에푸」는 「모퍼터스부르크의 <220> 旅行」이라는 冊을 著作해서 農奴의 悲慘을 呼訴하였다. 헬르쓰헨은 「우리들은 무엇을 하겠느냐」를 著作해서 露西亞青年의 갈길을 指示하였다. 이러한 것은 모도가 露西亞解放의 黎明을 만든 藝術運動이 아니었는가. 투르게네프는 自然主義 作家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그의 「獵人日記」는 農奴解放의 原因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다시 「그 前날 밤」 「아버지와 아들」 등은 그 얼마나 露西亞青年의 가슴을 뛰게 하며 그들은 「우 나로드!」하며 부르짖게 하였든 것인가. 알 토티세프를 보라. 톨스토이를 보라. 떠스토에후스키를 보라. 그들의 著作은 한아일지라도 苦惱하는 露西亞民族의 生活의 表現이 아니었는가.

4

朝鮮民族은 古代希臘에 있는 아덴스인보다, 光輝있는 4,000년의 歷史는 즉 平和스러운 文化主義에 一貫되어서 있다. 그래서 그 곳에 偉大한 藝術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제는 舊來의 朝鮮藝術을 必要치 안한다. 舊來의 朝鮮藝術은 博物館에 歷史的 存在로서나 存在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舊來의 一切 藝術을 否定한다. 그리고 새로운 人類的 使命, 民族的 使命을 成就하고 發展시킬만한 藝術을 要求한다. 이것이 朝鮮의 새로운 藝術運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略) <221>

<220-221>

잡지명: 삼천리 제7권 제1호
 발행년월일: 1935년 01월 01일
 기사제목: 朝鮮民族의 全盛時代
 필자: 申采浩 신채호
 기사형태: 논설

朝鮮民族의 全盛時代 (조선민족의 전성시대)

申采浩

東洋의 古史를 연구하라면 반드시 朝鮮 古文化의 源流를 탐색치 안코난 도저히 史의 根據와 史의 眞髓와 史의 體系와 統志를 작성할 수 업을 것이다. 그러면 朝鮮 古文化를 강구함에는 先히 朝鮮 舊疆版圖範圍부터 劃定하여야 되리니 古代文獻의 考證을 어디서 차자낼 것이냐. 「神誌」의 九變震壇圖가 傳치 못하고 「檀君」系統인 扶餘가 祖業을 계승하여 滿蒙大陸에서 赫赫文化 1천여 년을 發揚하여 오다가 春秋列國時代에 及하여 漢族과 전쟁을 이르켜 或勝或敗하며 장기간에 亘한 戰雲이 息寧의 日이 無하더니 齊 桓公 때에 와서는 朝鮮族의 衰運期라 敗蹟이 날노 多하매 滿蒙西南部에 居하는 朝鮮族의 根據가 甚히 重要하여 永平府 以東까지 國域이 축소되었스며 其後 「秦始皇」의 東南戰爭은 專히 朝鮮族을 東北으로 驅逐함이라 「萬里長城」을 朝鮮支那에 國界로 하고 大工事を 起하여 萬餘 里를 延長한 것이다. 그러므로 古朝鮮의 文獻考證은 屢十百年 兵燹의 消失되고 또한 朝鮮의 國都가 敵禍로 因하여 자주 遷徙되었스니 疆域의 <59> 變縮함이 더욱 만을지니 中古에 至하여 愚儒輩의 曲解抑斷이 大華主義에 盲狂하여 「檀君疆域」을 마음대로 주리고 「扶餘國都」를 되는데로 遷徙하여 심지어 「寧邊妙香山」을 「白頭山」이라 하고 「阿斯達」을 「黃海道」라 하며 「箕子」를 「大同江」에까지 갖다 못어 노왓스니 엇지 痛恨할 배 아니리오. 소위 史家덜에 적어 노은 國史를 보면 붓끝마다 다를 말끝마다 맞지 아니하여譬컨대 羣盲 終夜길에 헤매며 目的地의 소재를 찾지 못함과 같도다. 萬里長城이 우리 朝鮮과 宿命이 깊흐니 만콰 萬里長城考는 곳 우리 古疆을 찾는 데 一證據가 훌륭하다 하노라. 「淮南子」 가로대 萬里長城은 (北擊遼水東結朝鮮)이라 하였으니 「淮南子」 당시에 도 萬里長城이 朝鮮과 支那의 國防界로 싸은 것이 明白하니 長城을 아는 자 반듯이 古朝鮮을 알 것이다.

* 앞 高句麗 운운 이하 中國XX朝鮮史修編室에서까지 원본 없음.

「高句麗」 「蓋蘇文」이 가로대 (自扶餘로 築長城하여 南至海하니 長千餘里)라 (此國史上之最長城)이라 하얏고 「羅馬」 「該撒」이 가로대 (因北寇頻逼築城於萊因河北, 其長至數百里)라 하니 (此는 西洋史上城之最長者也)이라 하였다. 그러나 「秦始皇」이 「蒙恬」으로 하여금 北으로 長城을 築하여 「臨洮」에 起하여 「遼東」에 至하니 長이 萬餘里라 하였으니 이곳 세상이 말하는 萬里長城이라. 東西史上의 最長城일 뿐만 아니라 진실로 有城以來로 오즉 始祖되는 長城의 巨擘일 것이다. 이제 萬里長城의 傳記를 考하건대 萬里長城이 「秦始皇」의 創築한 것이 아니오, 秦始皇 때에 至하여 固有한 長城을 擴大延長하여 加築함이며 또한 長城을 加築함이 秦始皇뿐 아니라 秦始皇 이후에도 長城을 修築한 者 多하였다. 그러나 大工事を 가져 擴築

하기는 秦始皇 以上에 出한 者 無함으로 마참내 秦始皇의 萬里長城이 되야 萬古에 獨雄한 것이다. 長城의 歷史가 甚히 晦寒하야 朝漢 양국 당시의 國境의 分界임을 명백히 分辯키는 어렵도다. 이제 「甲」「乙」「丙」三者를 擧하건데 「甲」은 秦始皇 以前의 長城이니 「史記匈奴傳」曰「趙武靈王」北破林胡，樓煩，築長城自代并陰山下 至高闕 爲塞而置雲門 鴈中)이라 하엿스니 이는 「趙」의 長城이 오(燕有賢將 「秦開」 爲質於胡胡甚信之而歸襲破東胡，胡却千餘里，燕王喜時，亦築長城，自造陽，至陽平，置上谷，漁陽，右北平 「遼西，遼東，郡以拒胡)라 하엿으니 이는 「燕」의 長城이 오(「秦始皇」時殘殺「義渠我王」 秦有隴西北地上郡築城以拒胡)라 하엿으니 이는 秦始皇 以前의 長城이라 한다. 「乙」 秦始皇 以後의 長城을 말하건데 「北齊書」(顯祖天保六年發民一癘◆八十萬 築長城，自幽州，夏口，西至恒州，九百餘里)<60>(七年自西河總秦戍築長城東至海)(後主，大統六年，自庫堆東距海隨山屈曲二千餘里塹山築城)이라 하엿으니 이는 「高齊」의 長城이오. 「周書」(文帝開皇六年二月發丁男十一萬修築長城)(七年二月發丁男十餘萬修築長城)이라 하엿스니 이는 「隋」의 長城이오. 「熱河日記」에「同徐中山築長城」이라 하엿스니 이는 「明」의 長城이니 秦始皇 以後의 長城이 또한 이러하며, 「丙」 秦始皇의 長城은 「史記秦本記」(始皇 三十二年，燕人盧生，使入海還，秦錄圖書，曰亡秦者，胡也，始皇乃使蒙恬渡河取高闕，陶山北，假中，築亭障)「三十四縣適治獄吏不直者築長城」 「匈奴傳」(秦滅六國而始皇帝使蒙恬將十萬之衆北擊胡悉收河「白羊河」南地因河爲塞築四十四縣城臨河徙適戍以充之通直道自九原至雲陽因邊山險塹谿谷可繕者治之起臨洮至遼東萬餘里라하고)「蒙恬傳」(起臨洮，至遼東，延裏萬餘里)이라 하엿으니 이는 秦 秦始皇의 萬里長城이 이니라. 以上の 所述은 中國歷代의 長城의 畧史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3개 問題가 復有하니 「一」 「秦始皇」의 長城이 「燕趙」와 및 「昭王」의 舊址를 基因하야 繼修增築擴大함이나. 또한 拓地를 廣遠히 하고 더욱히 北域에 移築함이나. 「二」 秦始皇 以後의 長成은 다 秦의 舊城址를 修築할 畧이 엿느냐? 或內退外進하야 秦의 城基를 變遷한 것이냐? 「三」 그 西界는 本來臨洮(嘉裕關)에서 起點하얏스나 그 東界는 다못 遼東에 至하얏다 하엿으니 遼東은 엿던 地界까지를 指稱함이나? 하는 것이 問題이다. 「魏書長孫陳傳」을 據하건데 「陳」(爲羽林郎，征和龍，賊自西門出，將犯外圍，陳擊退之追至長城下)라 하니 이處◆ 長城이 龍城 박게 잇는 것이 明瞭하고 「杜佑通典」曰「蘇州北至廢長成塞二百五十里」라 하고 「朴燕岩」이 가로대(山海關의 長城은 「明」時「徐達」의 所築)이라 하니 可히 卓見이 되나니 이는 第一 問題가 解決됨이오. 秦皇以後의 長城이 만일 秦皇의 建築의 舊址를 仍川치 아니 하얏다 하면 秦皇의 長城이 한 반 다시 燕趙舊墟만을 限하지 아니 하얏을 것이다. 대개 國家의 盛衰強弱을 따라 可히 外地를 遠拓 할 수도 잇고 可히 國防을 縮短할 수도 잇섯을 것이니 그런고로 「匈奴傳」에 가로대「可繕者治之不可繕者別築之」라 함이 長城變移이 特證이 될 것이니 第「二」의 問題가 解明되얏고 第「三」문제는 「遼東」문제로 因한 因難이니 遼東문제를 말하랴함 만다시 二個 問題가 提出될 것이다. 「一」당시 朝鮮의 國情과 國境範圍 如何요 「二」 「燕」의 拓地의 遠近如何라 「紀年兒覽西郭雜錄」等書를 보건대(慕容魔의 扶餘侵入과 李勣의<61> 平壤入寇)가 朝鮮古史를 一炬에 灰燼하얏다 하엿고 「馬史」에 考하면 「六國史記」가(燕史在內皆爲秦始皇燒之)라 하니 朝鮮과 燕의 古史를 考據할 處가 無하야 第二 問題의 鮮決이 甚히 因難하도다. 그러나 이제 斷爛餘燼한 中에서 古史의 片鱗을 採拾하리라. 「文獻考備」曰(孤竹(今永平府)春秋時爲朝鮮所有)라 하엿으니 이는 「魚豢魏畧」의 말한바라. 「魏略」(朝鮮見燕僭稱王欲與伐燕)中畧(燕將秦開詐而爲質於朝鮮朝鮮甚信之秦開歸言於燕伐朝鮮拓地二千餘里至滿潘汗爲界朝鮮遂弱)「司馬氏史記」(秦東胡拓地千餘里)라 하엿으니 「魚豢」가 그때 累百年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考據하야 「東胡」를 改하야 「朝鮮」이라 하고 千里를 改하야 二千里라 하며 또한

엇지하여 그 所拓의 地가 滿潘汗에 至한 것을 아랏난가. 가로대 이 무리는 「魏」의 「母丘儉」의 一類라 하리니 「三國史記」와 「三國志」를 按하면 「三國史記」는 우리史요 「三國志」는 國「中國」의 「蜀吳魏三國史」이다. 「曹魏大將 母丘儉侵高句麗人入丸都城」云云은 대개 「丸都城」의 所藏한 「高句麗」史冊이 「母丘儉」의 手에 入하여 中國의 遺傳함이 多한고로 中國古人이 朝鮮의 史事를 안다는 者는 「魏」의 史官에 過할 者 無하니 「檀君王儉」의 名을 「魏畧」에서 始見함이 아니나. 「陳壽」가 魏에 仕할 때의 所作을 가져 「三國遺事」가 만히 引用한 고로 「箕否」「箕準」의 事를 또한 魏畧에서 보게 되얏고 「扶餘」의 風俗과 「三漢 7,80國」의 名稱을 「三國志」에서 始見케 되얏나니 이는 「陳壽」가 또한 「晉」에 仕하며 著作한 바라 「後漢書」에 비록 「三漢 7, 80國」의 名稱을 記 하엿으나 그러나 「後漢書」는 「范曄」의 所作이니 國「陳壽」의 後人이라. 「秦開」가 朝鮮의 土地를 侵奪한 事實을 또한 「魏畧」을 根據한 것일 것이다. 先儒들이 「永平」以西는 燕이요 永平以東은 朝鮮이라 하여왔다. 「秦開」의 所拓한 地界二千餘리라 할진대 그 足跡이 반다시 「鴨綠江」을 過하야슬지니 「李栗谷」은 太遠하게 二千餘里를 一千餘리로 改하고 「丁茶山」은 太近하게 二千餘리로 正하다 하야 滿潘汗이 「大同江」以南에 在하다고 妄證하얏스니 嗚呼라 엇지 그리 偏見의 考執을 傳하엿는가. 「高句麗」당시에도 항상 「奉天」을 據割하고 「直隸」의 北半部와 「蒙古」東部를 領有한 고로 史冊에 자조 「太原」(今山西省)을 侵入하엿스즉 이는 東蒙古로부터 馳兵南下하던 形勢를 말필 ◆이라. 「唐人, 樊深」의 「高句麗城詩」曰 「僻地城門啓, 空林館堞長, 居然朝市變, 無復管絃鏘」朝鮮이 東蒙古로부터 南下하야 此地에 據하고 築城開都함을 일음이요 燕으로부터 싸우던 자취를 吟詠함이라. 朝鮮의 當時 用兵은 「永平」으로부터 「燕京」以北에 至하고 北으로 「匈奴」(今蒙古地)를 接하고 <62> 南으로 「上爲」(今宣化府)에 及하얏다. 燕에 朝鮮을 反攻함을 보면 (北攻上谷, 南襲孤竹 「今永平府」而至遼河) 「故史記」(燕將秦開伐東胡拓地又言伐胡自造物至襄平築長城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等郡)이라고 하엿으니 이를 考하면 朝鮮이 燕과 接境하엿던 大概를 볼 것이다. 「上爲」는 國「宣化府」요 「漁陽」은 今「順天府」의 北部요 「右北平」은 今「永平府」의 北部요 「遼西」「遼東」은 今「奉天」의 西半部の 北部이다. 「魏畧」이 滿潘汗이라 함은 國「漢武帝」의 分設한 汶潘汗二縣이니 그 일홈을 「漢西遼東郡志」에 明載하니 卽今 蓋平海城等地라 拓地 二千餘리라 함은 「上爲」(今宣化府)으로부터 「襄平」에 至하기까지 其程을 再折하야 南으로 蓋平海城까지 그 里數가 二千餘리라 그런즉 燕郡의 遼東과 秦의 長城所至한 遼東을 可히 알 것이니 第三의 문제도 解釋될 것이다. 「晉書太康地志」에 가로대 樂浪遂成縣碣石山이 長城이 所起한 地點이라 하얏으니 此一段이 讀史者의 疑點을 이르킬 것이다. 「樂浪」은 國「平壤」이요 「遂成縣」은 平壤南에 在하니 (廣寧金州에 古平壤을 云함이요 卽今 平安道와 平壤을 말함이 아니다.) 秦의 長城이 멀니 平壤를 過하얏다. 文法으로 보면 始點을 起라 하고 終點을 至라 하나니 秦始皇 長城의 始起點이 臨洮이 엿나니 엇지하여 樂浪으로 所賾◆地라 書하얏난가. 「北史」와 「隋書」를 考하면 「魏」와 「隋」가 일즉 「上爲」에 在하야 郡을 置하야 「樂浪」이라 하고 縣을 置하야 「遂成」이라 일홈 하얏스니 燕의 長城은 上爲谷에 起한 것이 明白하다. 「晉書」의 書載가 此를 指함이라. 「晉書」作者 「唐太宗」이 「隋」末에 生하야 「晉陽」에 家하매 항상 此를 見하고 燕의 長城을 이갓치 말함이라. 그러면 「碣石山」은 엇지 함이뇨. (禹貢冀州가 夾右碣石이라 하고 其下又云太行王屋至於碣石)이라 하니 이는 一時에 二碣石이 有한 연고라. 「新唐書」에 (平州石城에 有碣石山)이라 하고 (營州柳城에 亦有碣石山)이라 하니 당시에 대개 衆石이 碑碣 갓치 立한 것이면 「碣石山」이라 名함도 그럴 뜻하나니 엇지 上谷인덜 碣石山에 無하리요. 日人歷史學雜誌에 甘氏博氏가 晉書에 樂浪年壤과 長城이 秦始所築임을 말함은 的確한 參考를 加하지 못하야 前人의 誤를 그대로 써

서 사실과 틀림이 多하넌~라.

燕의 長城이 朝鮮과 如何한 關係되었음은 이미 上述하였거니와 「燕」의 關係는 眞蕃, 樂浪, 兩朝의 事이오, 「趙」의 關係는 「扶餘朝鮮」 時의 일이니 扶餘朝鮮이 三朝鮮 중에 最大國으로서 中國과 交通을 先開하였나니 故로 「舜本記」에 가로대 (北山我發息慎<63>)이라 하니 發息慎은 扶餘朝鮮의 誤音이라. 「管子」曰 (八千里之發朝鮮)이라 하고 又曰 (發朝鮮之文皮)라 하였으니 發朝鮮은 또한 扶餘朝鮮의 促音이라. 「史記」에 「濊」 「貉」 朝鮮 혹은 但稱 「濊」라 하며 「貉」이라 하니 「貉」이라 함은 그 文皮를 衣服함에 得名함이라. 濊는 곳 扶餘의 促音이니 其實은 다 同一하다. 趙가 扶餘朝鮮으로 關係되기는 「趙襄子」로 부터서니 「匈奴傳」에 (趙襄子가 破并代臨胡貉)라 하였스니 其後에 扶餘의 屬民魏林, 樓煩이다. 强盛하여 趙의 邊境이 多事하였다. 「趙武靈王」이 服을 變하고 騎射를 練習하여 扶餘로부터 자조 싸우며 長城을 築하여 防禦하였스니 이는 趙의 長城은 扶餘朝鮮을 防하기 위하여 築한 바이다. 「史記趙世家」에 扶餘를 「東胡」라 하였고 「匈奴傳」에는 「樂浪」을 「東胡」라 하였다. 趙의 末葉에 「李牧」이 北邊의 良將으로 「林胡」와 「樓煩」을 破하고 走하였다 하였스니 다못 長城以內에만 禦하였을 뿐이오 能히 長城以外에 進出치 못함이니라. 趙가 이미 亡하매 夫餘 더욱 强盛하여지매 「匈奴」 「單于」 「冒頓」이 恒상 美人良馬를 夫餘에 進貢하였다 하며 「史記」에 (「冒頓」의 地廣을 書하여 曰 自上谷으로 東接濊貉朝鮮)이라 하였스니 그때는 扶餘朝鮮이 冒頓에 敗한 후임이 明白하다. 그런즉 趙의 長城은 專히 朝鮮을 爲하여 築함이오 始皇의 長城이 上谷以來까지는 또한 扶餘拔◆鮮을 防禦함 이니라.

扶餘朝鮮이 燕으로부터 嫌怨을 構할 뿐만 아니라 扶餘가 자조 燕을 伐하였음으로 「管仲」이 「九合諸侯」의 歸衆을 督率하여 「孤竹」을 破함이 그것이다. 數百年間에 扶餘가 三朝鮮의 盟主가 되어 中國을 侵하다가 燕趙가 亡한 뒤에 또한 亡하였스니 嗚呼라 그 間에 「神誌高興之倫」의 그 顛末를 기록한 바 有하였나니 野心만은 君主와 辣腕한 將相이며 忠義慷慨한 將士와 帷幄密勿하던 謀臣들의 可歌可舞可哭可驚할 만한 사실이 다 하였스나 朝鮮이 이미 板蕩되고 古書는 一傳이 無하였스며 中國의 「史馬遷」의 「史記」가 有하나 專히 「尊華攘夷」로 排外적 思想을 取하여 史例를 紊亂하였스니 도로혀 「布魯帶克」의 鄰邦情形을 詳察하고 그 顛末를 具載함만 못하도다. 「馬史」는 그 一二次 隣邦과 接觸된 사실을 記한 外에 다만 自己中國人의 自尊好奇心の 玩賞物과 如할 뿐이다. 一國의 名을 訛하여 數國을 만들었스니 肅慎, 朝鮮, 扶餘, 濊東胡, 등의 國名을 訛함이며 혹 「甲」국의 사실을 「乙」國事로 記하니 「胡貉」의 事를 다 「匈奴」傳에 記한 등이라. 戰를 記하매 勝敗를 顛倒하고 風俗을 論한즉 그 美惡을 變亂하였나니 國都人名의 可考 할 資料가 되지 못할 뿐아니라<64> 그 國際의 交涉來往한 일을 一片의 記錄이 不存하였스니 실로 慨嘆할 바라 이제 朝鮮國境所至와 燕趙秦의 長城을 築한 原因이 匈奴를 爲함보다 匈奴以前에 朝漢兩族의 關係되었음을 비록 明確히 알기는 어려우나 萬里長城을 研究함에 在하여 朝鮮古疆이 얼마나 크며 朝鮮의 强盛함이었던 範圍까지 발전되었던 것을 半의 半을 아라낼 수 잇스며 萬里長城이 東洋研究史上에 在하여 실로 위대한 實物의 參考됨을 確信하리라 하노라.

“附長城小話”

萬里長城이 東洋史의 最重한 秘藏의 寶庫요 建築上의 偉觀만 될뿐 아니라 東西兩洋에 역사적 影響이 至大하다 하노니 長城을 築하기 이전에 鑑하여 扶餘, 匈奴, 諸族이 長弓勁*로 鞭馬南下하여 漢族을 虜殺하며 財穀을 掠奪하여 甚하면 土地를 割據하고 自立國을 建設하는

등이라. 「春秋傳史記」의 보인 昆夷, 徐夷, 萊夷, 赤狄, 中山 등이 中國의 本土內에 在하여 建國稱王하며 橫行自姿하였고 長城을 既築한 후로는 東北의 大國인 扶餘로 故土에 還하여 다시 南下의 形勢를 取하지 못하고 蒙古의 匈奴族도 一枝로 西歐에 竄入하여 「峨特族」과 侵擾를 起하여 마침내 西洋史上의 民族적 大遷動을 이르게하니 「聖羅馬」의 沒落과 「新文藝」의 發生이 萬里長城 有無에 關하여 國際文化 消長된 影響이 과연 엇더한가. 匈奴의 一枝가 쏜 東으로 扶餘에 爭抗한지 累十年에 마침내 扶餘族도 遷動되야 東으로 徙하여 沃沮眞蕃이라 或稱하며 南으로 遷하여 辰韓六部가 되었나니 其詳細는 此에 畧하고 讀史者가 다만 西歐의 民族大遷動만 알고 東西에 또한 同一한 現象이 有한 것을 아지 못함을 慨嘆하며 웃독한 萬里長城을 바라볼 때마다 深刻한 寤김을 禁치 못하노라.

中國XX 朝鮮史修編室에서 <67>

<59-67>

79.

잡지명: 삼천리 제7권 제1호

발행년월일: 1935년 01월 01일

기사제목: 民族發展에 對한 人民投票

필자:

기사형태: 설문

民族發展에 對한 人民投票 (민족발전에 대한 인민투표)

朝鮮人이 大部隊적으로 이왕 海外로 작고 移民되어 나갈 바에는

1. 滿洲로 감이 좋겠습니까.
2. 西伯利亞가 좋겠습니까.
3. 萬里長城 以南의 中國이 좋겠습니까
4. 東京, 大阪이 좋겠습니까.
5. 布哇, 比律賓, 北米가 좋겠습니까.

滿州行은 隨伴現象的

金若水

그는 마치 물이 東西南北 어디든지 흐르기 쉬운 방향을 취하는 것과 갓치 朝鮮사람도 비교적 「最少抵抗線」인 滿洲에로 目的意識的의 移民이라기 보다도 隨伴現象的의 流民이 만히 나리라고 봅니다. 이유는 - 일정한 지역에 주거하는 部族 또는 국민이 澎澎될 때는 그 인접한 지역으로 X出되고<54> 동시에 이의 X力은 前住者의 반발력과 대립하게 되자 前住者의 側에는 多數한 避難者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避難者는 기후의 寒冷한 곳과 地味の 瘦薄한 지방으로 이주도 하고 또는 사막과 山林 속으로 避難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회발달에 비교적 저항력이 만흔 지방을 개척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생

존상에 遭際한 物理的 新障礙가 사실에 잇서서 遁避하여온 舊障礙보담 적은 까닭이다.

그래도 滿洲맞게

徐廷禧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朝鮮人の 海外移住에는 滿州가 잇고 東京이나 大阪에 가서 工業勞働者가 되는 것박게는 도리가 업습니다. 西伯利亞에는 사실상에 잇서 봉쇄되어 잇고 長城以南의 南中國이나 布哇南米 등지에도 大量進出할 곳이 못되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업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는 누가 보내서 가는 경우도 잇으나 그보다도 자기의 生活環境이 願不願을 不願하고 滿州에 나가게 됩니다. 東京이나 大阪에도 實際上에 잇서서는 완전히 勞働者 進出로서는 禁制된 것이 사실입니다. 滿州에 가서 農軍이 되는 것이 제일 가능한 일이고 또 압흐로 작구 나가게 될 것입니다.

自然히 滿州로

咸尙勳

朝鮮民族도 17, 8세기의 愛蘭人和 같이 또 18, 9세기의 印度人和 같이 大量的 海外移住의 運命에 잇는 것 같습니다. 당시 愛蘭人은 北米로 印度人은 南阿로 移住했습니다. 朝鮮人은 滿州로<55> 갈 運命에 잇는가 봅니다. 기왕 가는 이상 19세기의 슬로바키아人的 運命을 받 지나 안토록 經濟的으로 잘 살도록 했스면 좋겠습니다.

結果엔 滿州移民

金璟載

그 民族의 海外進出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강력한 국가적 배경이 잇서서 商品進出과 共히 海外進出을 하게 되며 다른 하나는 前記의 경우와는 반대로 자기의 領地에서 먹고 입고 살 수 없으나 다름업는 경우의 海外進出입니다. 後者의 경우에 잇서 그 民族의 海外移住는 오히려 그 民族의 力을 用하는 결과를 招致한다고 하나 그는 原則論이요, 한 개의 公式에 지나지 못하고 사실에 잇서서 실낱 쫓낱 살 길을 구하여 海外에 移住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貴社에서 무르신 바와 갓치 여러 곳이 잇을 것이나 사실은 누가 보내서 갈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스스로 年復年 滿州에로 나갈 것입니다. 東京이나 大阪 等地의 공장을 차저서 떠나는 무리도 만을 것이나 그는 實際上에 잇서 거의 禁制된 것이나 다름이 업스니 그저 나도 너도 모르는 동안에 滿州에 잇서 朝鮮人の 移住는 작구 작구 느러갈 것입니다.

아모데나 一般

朴英熙

(答) 행복스러운 형편에서 朝鮮사람이 外地로 간다면 특히 장소를 택할 필요가 업겟으나 살수 없어서 아모데로나 流離漂泊하는 신세에 장소를 택할 수 있겠읍니다. 가는데로 흘러가고 땅 넓고 살기 좋은 데는 어데고 流離해서 건강하게 잘 살면 그만일 것 같습니다.

滿州行

朴浣

기왕 나아갈 바에는 滿州로 나아가는 것이 좋타고 봅니다. 滿州로 말가면 朝鮮과 接壤地일

뿐 아니라 우리와 역사적으로 인연이甚히 깊은 지역이요, 또 將來 우리의 발전에 잇서서도 가장 유망한 地帶로 생각하는 만큼 거기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는 현재의 朝鮮人の 海外移住를 00치 아니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금일 朝鮮人の 海外移住라는 것은 우리의 自然發展의 現狀-되도록 여기에서 버티고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西伯利亞로

高永煥

言忠信, 行篤敬이면 어떠한 蠻貊之邦이라도 못살 배가 아니라고 하겠지마는 自己故土에서 가는 길이라 어대선들 환영받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移民을 한다면 西伯利 등 蘇領이 가장 조치 안홀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곳이 어느 곳보다도 가장 地廣人稀하니 만치 말성이 비교적 적으리라고 생각되는 까닭입니다.

已往이면 滿洲로

李仁

民族의 발전과정으로 과잉인구를 領外로 進出活躍함이 안인 貴問에 대하여 말씀하기 거북합니다. 이왕 이 형편이라면 言語 風俗 歷史 氣魂이나 잊지 말고 아모디 가드래도 集團生活을 하면서 朝鮮文化의 <57> 扶植에 힘썼서면 不幸中幸이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가는 길이면 地理的 近距離에 잇는 滿洲로 간스면 좋을 것이옵니다. 往年의 故土이고 인연잇는 곳일 뿐 아니라 經濟的 發展에 가장 힘적기 될 것이옵니다.

種族的 軋轢無處로

裴成龍

何等の 배경을 갖지 못한 移民이 어대로 간들 행복될 수야 잇겠음닛가. 아니 갈 수 없어서 선택 한다면 種族的 軋轢의 비교적 적은 곳을 말할 수가 잇겠지요. 그리고 될 수 잇다면 集團的으로 移住하는 방법을 取하는 것이 조를 줄 압니다.

滿洲가 可

蘇完奎

(理由) 歷史, 地理, 氣候 又是 政治的 現在 경우로 보아서 제일 우리와 밀접 또는 가능한 관계잇기 때문이외다.

地廣한 滿洲로

趙基堉

地歷으로 인연이 깊고 地廣人稀하고 기왕적 현실이 그리된 관계 등등으로 비교적은 滿洲地方이 나올가 합니다.

(編輯者告-此外에도 여러분의 答이 잇서스나 略하였습시다.) <58>

<54-58>

잡지명: 삼천리 제7권 제2호

발행년월일: 1935년 02월 01일

기사제목: 朝鮮民族起源의 文化的 考察

필자: 金明植

기사형태: 논설

朝鮮民族起源의 文化的 考察

金明植

최근 識者들의 기쁜 研究와 만흔 調査에 의하여 民族文獻이 이어 發表됨은 必然한 일이고 또 반가운 現象이다. 실로 과거 朝鮮의 眞相을 밝히고 또 그것을 文獻的으로 整理함은 浩浩茫茫한 寔감이 업지 안타. 그럼으로 비록 종종한 시대라고 할 지라도 時間餘裕 있는者는 當히 이를 위하여 노력할 義務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眞實을 發見하고 事理를 究明함으로써 貴한 것이니 虛僞와 誇張으로 眩惑과 混難를 惹起함과 가튼 일은 업서야 할 것이다. 대개 眞理는 科學을 要求하고 科學은 利己的 방법과는 兩立하지 아니함으로써이다.<52>

무릇 個人이나 集團이나를 莫論하고 거의 社會生活에서 獨自의 生活能力이 形成됨과 함께 각각 個性이 構成된다. 이 原理는 民族 또는 民族集團에도 適用된다. 그리고 歷史는 원래 進化하지마는 部分的으로는 退化하는 일도 있다. 그럼으로 後期社會에서 醜惡을 發見할 수 있고 前期社會에서 善美를 立論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部分的 事實로 歷史의 進化를 否定하지 못한다. 原始社會는 封建社會에 비하여 粗朴한 觀念과 單純한 制度가 優雅한 것이 있다. 그러나 生産力의 발달에 의하여 前者는 破壞되고 後者가 形成되어 前者보다 複雜 또 豊富한 內容의 文化를 建設하였다. 그럼으로 封建社會를 咀呪하고 原始社會를 讚美함은 詩人의 感傷的 衝動으로는 興趣있는 일이지마는 社會學者의 科學的 觀察로는 何等의 價値가 업다. 그리고 新羅 高麗 李朝 등 時代의 文化는 確實히 檀君時代보다 進歩하였다. 또 檀君時代의 자라는 다른 모든 民族의 共通한 原始社會의 特徵이고 朝鮮民族의 固有한 보배가 아니다. 물론 각 民族의 生活意識은 그를 構成하여서 部分觀念에 濃淡, 深淺, 厚薄重輕의 差가 잇서 각각 다른 民族的 特色을 나타내지마는 그러나 이 各異한 部分이 社會生活에 影響하는 範圍는 극히 制限한 것이고 또 그것은 文化의 進歩에 의하여 점차 解消될 必然性을 가진 것이다. 米國은 여러 民族으로 組織되었지마는 각 民族間의 各異한 性格은 거의 調和되어 다 가튼 米國民이 되었다. 그리고 오죽 從來文化의 差가 低劣한 民族은 이제 오히려 近代文化의 創造者의 班列에 參加하지 못하였다.

그럼으로 民族文化를 研究하는 目的은 어느 民族의 文化的 水準을 究明하여 進歩한 文明을 理解하고 建設할 準備가 잇는지 업는지 考察함에 잇는 것이고 과거로 復歸하기 위함이 아니다. 여기서 民族文化의 研究는 族譜學과 決定的으로 다른 것이다.

그런데 民族文化는 比較研究가 필요한 것이니 朝鮮古代의 優雅한 原始狀態를 了解한 우리는 가튼 時代의 다른 民族의 社會生活를 觀察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文籍에 나타난 露西亞의 머루와 獨逸의 막크와 英國의 마을 印度의 村落 共產體 등은 모다 原始社會와<53> 宗教의 民主的 直觀的 創造的 樂天的 武俠的 調和와 優雅를 자랑하거니와 同一時代의 朝鮮民族도 이러한 樂天的 生活를 享福하얏스리라. 그러나 民族研究者는 如何히 誇張하야도 文獻에 나타난 朝鮮民族의 과거 生活文化는 이상 諸民族의 그것보다 貧弱한 것이 事實이오 또 그 까닭에 朝鮮民族의 古文化는 오죽 斷片的 記錄을 남기고 말었다.

그리고 民族集團의 生活本能은 어느 民族은 遠心的이오 다른 어느 民族은 求心的이라는 特色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原始民族에 잇서서도 自然觀念의 純粹性은 保障할 수 업는 일이어니와 近代民族은 모다 文化觀念의 混合體이다. 히티레一派는 獨逸民族의 純粹性을 强辯하지마는 現 獨逸民族은 게루마니族, 추톤族, 을람族, 나살族 등의 混合體인 것은 歷史가 立證하는 바이오 밋 猶太族 歷史上 時間的 新舊 밋 長短의 差는 업지 아니하나 또 混合體인 本質은 現 米國民도 다르지 안다. 그리고 烏居龍藏씨의 研究에 의하면 「古 日本民族은 아이누族以外에 1. 朝鮮, 滿洲, 沿海州, 東蒙古 등 지방으로 渡來한 固有民族과 2. 쓰마토라 보르네오, 세레베쓰, 比率賓, 臺灣 등으로부터 渡來한 印度네지안系의 것과 3. 南支那에 예로부터 居住한 苗族 系統 즉 印度 支那民族이라고」하얏거니와(有史以前の 日本) 朝鮮民族도 能粹한 單一民族이 아니다. 人種의으로는 아르타이族과 崑崙族이 混合되엇고 民族으로는 滿洲 諸民族 漢族, 蒙族 등이 混合되엇다. 그리하야 日本民族間에 여러 民族의 差異가 이미 消滅된 것과 가튼 朝鮮民族의 그것도 揚棄되어 歷史的 社會的 朝鮮民族이라는 一型의 生活과 意識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 民族研究는 여기서 出發하지 아니하면 아니한다. 즉 어느 人群이 一型의 生活과 意識도 形成한 文化段階에 이르러서 비로소 一民族을 構成하는 것이니 氏族觀念이나 部族觀念은 즉 原始民族의 生活과 意識은 近代民族 研究의 中心問題가 될 수 업다. 그리고 三國時代 이후의 朝鮮民族과 漢民族과의 差異은 言語와 衣服 이외의 精神生活에서는 發生할 수 업슬 만큼 消滅되엇고 또 그것은 朝鮮의 固有한 文化를 破壞함으로써 實現되엇슴으로 朝鮮의 封建文化은 朝鮮의 特色이 업거니와 그러나 현재는 朝鮮民族은 이 過程에서 形成된 것이오 原始民族의 延長이 아니다. 그리고 朝鮮의 古文獻에 中國의 書傳과 詩傳 가튼 또는 日本의 古史記와 萬葉集가튼 民族의 經典이 업서 民族의 生活를 單的으로 表現해 오지 못한 것은 遺憾이나 그러나 朝鮮民族의 歷史的 또는 社會的 存在가 업지<54>안다. 그럼으로 이제 세삼시럽게 神話에서 一片 童話에서 一片 歌謠에서 그리고 詩에서 一句 또 文에서 一節을 주어 모혀서 「續三綱行實」을 出版할 必要는 업다. 엇지 그래나 하면 일즉 「三綱行實」의 社會的 功果를 안 朝鮮人은 그를 朝鮮人의 事蹟만으로 新編한다고 더 만흔 效果가 잇슬 것을 약속할 수 업슴으로써이다.

그리고 多神思想 家族主義 太陽崇拜 등은 中世紀 이전의 모든 民族의 共通한 生活觀念 및 儀式이어니와 특히 多神思想의 宗教民族은 文明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또 太陽崇拜時代의 朝鮮民族은 스스로 文化段階를 展開하지 못하고 一層 進化的 外來文化를 輸入하얏다. 이것은 文獻的으로 證할 수 업스나 人類文化의 歷史段階를 理解함으로써 斷言할 수 있다. 원래 太陽을 崇拜하는 多神民族은 社會進化에 의하야 必然的으로 一神民族이 된다. 中世紀의 基督教이 歐洲를 席捲한 것은 다른 付隨的 이유도 잇지마는 그 根本理由는 그의 一神思想이

다. 다시 말하면 歐洲 諸民族의 太陽崇拜思想은 그의 必然的 發展形態인 一神思想에 歸依치 아니치 못한 것이다. 그러나 朝鮮의 原始民族은 歐洲의 諸民族과 가치 太陽을 崇拜하였지만은 마침내 一神宗教를 가지지 못하고 多神民族이란 것은 그間 多神民族의 進歩한 文化를 輸入한 까닭이다. 그럼으로 이제 종래 朝鮮民族의 多神思想을 讚美함은 野蠻을 證歌함과 가튼 것이다.

또 歷史上 朝鮮民族은 種族奴隸를 가진 일이 업스나 奴隸制度가 업지 안코 또 奴隸가 업지 아니 하였다. 모든 民族의 私有財産制度의 起源인 奴隸制度가 朝鮮民族의 限하여 업슬 일이 아니냐. 그리고 丁若鏞의 牧民心書에 奴隸에 관한 一編이 잇섯는데 最初 出版者가 削除해 바*다. 그 이유는 古來로 朝鮮의 奴隸制度가 너무도 殘忍하여 그를 外人에 알릴 수 업슴으로써 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朝鮮民族이 古來로 種族奴隸를 가져 보지 못한 것은 周圍의 征服者로서 나타나 보지 못하였음을 說明하는 條件이니 그로써 非武俠的 生活은 立證할 수 잇스나 武俠的 特徵은 證明되지 안는다. 그리고 만일 朝鮮民族이 希臘民族가티 만흔 種族奴隸를 가질 수 잇스면 朝鮮의 古代文化는 希臘의 文化에 비하여 遜色이 업섯슬 것이오 그와 동시에 朝鮮民族은 一層 理和的인 또<55> 創造的인 榮冠를 췌스리라. 그러나 希臘民族과 가티 周圍를 征服하지 못한 朝鮮民族은 (그러한 對象도 업섯지만은) 多大數의 奴隸를 가지지 못하여 小數 奴隸를 酷使하였고 그러나 人數에 制限된 저들의 黃金의 알(卵)은 支配階級の 享樂과 奢侈를 制限하여 貧弱한 文化를 產出함에 그쳤다. 그럼으로 우리는 慶州의 古文明을 觀賞할 때 당시의 奴隸大象의 生活을 생각해 보는 것은 原始社會를 憧憬함과 가튼 感傷的 衝動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朝鮮民族과 가튼 滿洲族인 女眞, 契丹, 遼, 金 等 族은 東征西伐하여 武侯과 勇猛을 世界的 떨쳤고 朝鮮民族은 겨우 乙支文德, 淵蓋蘇文 등의 守勢戰에서 武勇의 자취를 傳할 뿐이지마는 그러나 현재 以上の 滿洲族은 各地에 散在한 人口를 總合하여도 300만명에 지나지 안코 또 그 文化는 朝鮮民族보다 低級이다. 그러타고 저의 固有한 言語와 文字가 업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兩者間에 數와 資의 懸殊한 差가 생긴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問題는 一般으로 民族의 優越性을 主張하는 者의 解決하난 바 아니다. 그리고 이 問題를 解決하지 못하면 朝鮮民族의 歷史의 및 文化地位를 理解할 수 업다.

滿洲民族은 蒙古民族과 가티 牧畜民族으로서 農業을 兼營하였다. 그럼으로 定位性이 缺如하고 또 저의 移動할 지역은 四面으로 展開되어 南征北伐 일삼은 동안 農業文化를 가질 수 업섯다. 그와 反하여 朝鮮民族은 半島에 定着하여 進歩한 封建文化를 樹立할 수 잇섯슴으로써 비록 武勇은 저를 미치지 못하였스나 數를 增加하고 또 質을 向上하였다. 그리하여 朝鮮民族은 新羅이후 高麗이후 李朝를 통하여 滿洲民族과 다른 生活 및 意識을 가지었다. 그리고 農業文化의 集中的 表現인 佛教와 儒敎가 이 시대의 朝鮮人 生活과 結合한 것은 偶然的 일이 아니다. 그럼으로 朝鮮民族은 原始時代의 優秀한 特性이 佛教 및 儒敎의 輸入에 의하여 破壞한 것이 아니오 그 過程에서 滿洲族보다 優秀한 文化를 建設하여 一型의 民族을 形成하고 또 그 存在를 確立하였다. 그리고 家族主義는 이 시대의 中心思想인데 朝鮮에는 일즉 中國에서와 가튼 大家族制度가 實現되지 아니한 것은 人多地狹하여 土地를 *分하지 아니할 수 업섯슴으로써이다. 따라서 朝鮮의 集約農業이 일즉 中國보다 發達한 것을 理解할 수 잇다.<56>

그리고 中世 이후의 朝鮮民族은 儒佛敎의 影響으로 말미암아 派閥의이 되고 또 批判에 短한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은 朝鮮民族의 固有한 弱點도 아니다. 封建文化은 모든 民族으로 하여금

다 가티 그러한 弱點을 가지게 하였다. 中世紀의 歐洲 諸民族도 그리하였고 현재의 漢民族도 印度民族도 그리하다. 요컨대 文化民族을 바리고 原始民族을 배오는 이유는 內容이 김지 못하다. 그리고 山鹿素行의 理論은 歷史的 傳統의 體系가 잇거니와 이제 그를 直譯한 理論은 朝鮮民族史의 解說이 될 수 없다.

나는 民族研究들 反對하는 者가 아니오 그의 必要를 切實히 寤김으로 그 方法에 대하여 卑見을 말치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民族을 研究하는 方法은 經驗的 思想을 바리고 經驗的 知識으로써 文化的으로 中斷되지 아니한 과거와 현재를 聯結하여 그을 어느 哲學的 體系=世界觀 社會觀 속에서 現實的 眞相을 理論的으로 組織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從來 民族研究者 中에는 혹은 과거 史實에 重視한 傾向을 가진 者 업지 아니하여 현재의 自我를 科學的으로 究明할 수 업서 發展的 契機를 살피지 못한 嫌이 잇슴을 否定하기 어래울 줄로 알리니와 그것이 마춤내 朝鮮魂은 原始主義=바베리즘이 되고 朝鮮心은 多神主義=사마니이즘이 됨에 이른 것은 必然한 歸結이 아닐가. 그리고 그것이 進步的 動力과 對立함은 어느 物質的 勢力보다도 오히려 큰 것이 잇슴을 이저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社會的 根據가 後者보다 김흔 까닭이다.

원래 民族은 自然觀念이 아니오 文化觀念이어니와 아인슈타인은 時空의 絶對性을 否定하도록 時代가 變換한 이 때에 잇서서 文化의 不變性은 즉 完成한 文化意識으로써 出發한 民族研究는 取할 바 아니오 또 큰트의 所謂 神學的 時代가 形而上學的 時代로 다시 形而上學的 時代가 科學的 時代로 變換한다 함은 科學時代에 이르러서는 宗教, 道德, 法律, 政治 기타에 관한 傳來의 文化意識이 揚棄함을 이룸이 아닌가.

17世紀 이후 白人種이 世界를 征服하든 過程에서 저들은 民族에 대하여 先天的 優劣論을 唱言하였다. 그리하여 有色人種이 저의 奴隸* 된 것을 하날님께 感謝하였다. 그러나 有色人種이 前進함을 따라 저의 民族原理는 變하지 아니할<57> 수 업섯다. 米國 클라크大學을 中心으로 한 民族心理學派가 出現하여 先天的 原理에 의한 民族優劣論을 破棄하였다. 同學派의 참파렌(1843-1914년)은 文化 및 原始生活을 生物學的(自然的) 類推로부터 버서 나나서 心理的으로 分析하였는 대저는 人種의 差異 文化와 野蠻의 差異는 生物學的 및 心理學的 差異에 依함보다도 歷史上的 機會에 依存함을 明白히 論破하였다. 푸란즈보쓰는 이 思想을 繼承하여 文化的 成果를 精神的 本能에 依하여 測定함을 科學的으로 證明할 수 업는 것 文化的 差異는 生物學的 原因보다도 歷史的 原因에 의한 것 白人種은 心理學的으로도 優秀하지 안코 또 生物學的으로도 모다 高級으로 發達하고 잇지 아니한 것 등을 立證하였다. 뿐만 아니라 地理的 環境은 住民의 身體的 形相을 變換는지 모르나 그의 變更의 樣式 및 程度는 明確하지 안코 또 地理的 環境에 依하여 완전히 文化가 決定되지 아님을 主張하였다. 저는 人類의 心意의 同一說을 支持하고 原始人과 現代人과의 間에 본래의 精神能力의 發達程度에 關하여는 何等의 差異가 업고 文化上的 各各 差異가 잇슴은 오즉 그의 發達하는 機會에 差異가 잇는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보쓰는 쓰벤사 푸레자 테를노 및 기타 古典人類學者의 主張하는 바 人類 및 文化의 本質 및 能力에 差異가 있다는 從來의 學說을 완전히 否定하였다.

그럼으로 현재의 民族研究는 形而上學的 時代의 文化研究가 아님은 물론이오 生物學的 本質 및 能力의 立證도 說明도 必要치 안타. 文化와 野蠻의 差異는 歷史上的 機會에 依存함을 생각하여 民族研究의 端緒를 資本에서 發見하여야 한다. 물론 近代民族은 資本主義의 產物이니 인저 近代國家의 民族意識을 理解하지 못하면 民族研究는 學理的 基礎를 세울 수 업는 것이

다.<58>
<52-58>

81.

잡지명: 삼천리 제7권 제2호
발행년월일: 1935년 02월 01일
기사제목: 新民族文學의 樹立
필자: 中公
기사형태: 문예평론

新民族文學의 樹立

中公

나는 民族이 가지고 잇는 藝術이, 그 民族의 獨自性을 養育하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藝術을 가진 民族은 永遠히 滅亡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政治上으로는 如何한 壓迫을 맞고
잇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時代의 한 時代相에 不過한 것이고 民族의 獨自性은 결코 侵犯되지
안는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에는 만흔 民族이 있다. 그러다 그 중에 가장 偉大한 藝術을 가진 民族은 가장 偉大한
事業을, 이 世界人類에게 遂行한 것이다.

이것을 古代希臘에 비추어 보면 나의 말이 결코 無味치 안을 것을 알 수 잇을 터이다.
現在 伊太利에 存在한 가장 尊重할만한 文化는 무엇이엇느냐 하면 그것은 藝術이다.
그러나 그 藝術은 결코 古代希臘의 武勇을 자랑하든 스파타의 產物은 아니다. 참으로 그것을
가지고 立國의 基礎로 한 아덴스가 產出한 것이 안이엇든가.
古代希臘의 스파타 敎育에서는 人類에게는 아모 것도 주지 못하엿다, 武力을 자랑하고 戰爭
을 조와하든 스파타人은 오히려 希臘의 滅亡을 催促하든 한 原因이 아니엇든가.
그런데 아덴스의 어디까지든지 平和스러운 文化主義는 지금도 오히려 永遠하게 人類를 指導
하고 잇는 것이 안인가. 武力은 一時로는 勝利를 占領도 할 터이갯지. 그러나 그것은 永遠한
勝利者는 아니다. 永遠의 勝利者는 平和이다. 平和스러운 文化主義인 것이다. 그래서 藝術은
그 中軸을 이르지 안으면 안이 된다.

現代에 잇서서 人類文化의 指導를 藝術運動에서 구하고 잇는 民族은 露西亞이엿다.
보라. 露西亞民族 解放의 先驅者인 「라덴쉬게에푸」는 「모퍼터스부르크의<220> 旅行」이라
는 冊을 著作해서 農奴의 悲慘을 呼訴하엿다. 헬르쓰헨은 「우리들은 무엇을 하갯느냐」를

著作해서 露西亞青年의 길을 指示하였다. 이러한 것은 모도가 露西亞解放의 黎明을 만든 藝術運動이 아니었는가. 투르게네프는 自然主義 作家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그의 「獵人日記」는 農奴解放의 原因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다시 「그 前날 밤」「아버지와 아들」 등은 그 얼마나 露西亞青年의 가슴을 뛰게 하며 그들은 「우 나로드!」하며 부르짖게 하였든 것인가. 알티빠세프를 보라. 톨스토이를 보라. 떠스도에후스키를 보라. 그들의 著作은 한아일지라도 苦惱하는 露西亞民族의 生活의 表現이 아니었는가.

朝鮮民族은 古代希臘에 있는 아테스인보다, 光輝있는 4,000년의 歷史는 즉 平和스러운 文化主義에 一貫되어서 있다. 그래서 그 곳에 偉대한 藝術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제는 舊來의 朝鮮藝術을 必要치 안는다. 舊來의 朝鮮藝術은 博物館에 歷史的 存在로서나 存在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舊來의 一切 藝術을 否定한다. 그리고 새로운 人類的 使命, 民族的 使命을 成就하고 發展시킬만한 藝術을 要求한다. 이것이 朝鮮의 새로운 藝術運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略)<221>

<220-221>

82.

잡지명: 삼천리 제7권 제8호

발행년월일: 1935년 09월 01일

기사제목: 雄偉스런 民族性을 배우자, 偏狹拙劣한 小市民性 撲滅論

필자: 朱雲成

기사형태: 논설

雄偉스런 民族性을 배우자, 偏狹拙劣한 小市民性 撲滅論

朱雲成

筆者는 어떤 先輩와 座談할 때 이런 말을 하였다. 『나는 朝鮮의 指導者라면 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결코 朝鮮人을 敵으로는 싸우지 안겠습니다. 나는 (가령 中國이라면) 閹이나 馮이나의 병졸노릇은 아니할 터이고 국민전체의 병졸이 될 것입니다』하였다. 此一句는 나의 日常 所懷인 바 결코 나는 北軍이 되거나 南軍이 될 맘은 秋毫도 없다. 만일 친구 가운데 그냥 좀 버려지 모양으로 어떤 部門에 付屬하며 남의 慘敗만 陰謀하고 있다면 斷然 絶交를 斷行할 터이다. 세상에 가장 可憐한 자는 「大公에 立脚지 안은 兵卒이라」할 것이다. 하느님이 自我를 내신 本義가 어느 一個人의 權力地盤에나 팔려서 阿諛陰謀나 하라고는 결코 自我를 지은신 것이 아니다. 我一個의 五尺短軀일 망정 천하를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絶對 高價의 그대의 생명임을 알 것이다. 보라! 彼中國南北將領들의 野心의黨*에 무수히 피를 흘리고 巷中에 轉臥하고 있는 彼小卒들의 몸둥이에는 쉬파리떼만이 와글와글할 뿐이고 피비린내가 끈치기도 전에 頭目들의 妥協이 成立되어 一杯酒를 난화 마시니 저 巷中에 쉬쓸고 있

는 死卒들의 생명은 어찌도 그리 安價인고? 可矜의 눈물이 흐를 뿐이다. 한번만 사는 이 세상! 意味甚長한 吾人の 生命的 使命! 어찌 그리도 「땀땀」적 생활로 가버야운 幕을 내리우고 말 것인가? 어찌 遠邦의 中國을 말할 것이라! 500年來 우리의 祖上들은 殆히 絶統하게도 이 黨爭의 渦中에서 「땀땀」을 당하고 말었다.

我等은 放器哀弔할 뿐外 바이 없다. 昔日은 昔日로 치더라도 方今에 있어서까지 또 그 노름을 營爲한다는 것은 그 무슨 精神 빠진 일이며 燈前의 飛蛾일까? 赤子가 將人於井中도 풍수가 있지. 슬픈 망해빠지던 그 짓을 또 하다니! 반영하는 民族이란 所謂 청각이 銳敏한 것이니 分黨而亡한 史話를 밤낮 늘으며 못 깨닫는 일은 참 拊膺切齒할 노릇이다. <99>

一. 嗚呼同胞果何是?

現 我社會를 一瞥하자면 다만 발견되는 것은 猜忌와 暗鬪로 罪惡相 뿐이다. 巨頭들은 서로 勝己者厭으로 밤낮 罪狀論告에 급급하고 있어서 後進 청년들은 사분 오열로 甲巨頭 乙巨頭의 小卒로 되어 鬨말을 속삭이다가 어느 瞬間에 變節을 하는 듯한 半句語만 들려도 卽刻 鳩首 協議로 「클립」 逐出을 圖하며 洋洋한 青年의 進路에 가시網을 놓아 주려고 腐心專事를 하고 있는 등 참 呼泣할 우리 이 社會相이다. 대체 이래 갖이고야 될 것이 무엇이며 되는 것이니 무에랴? 予及汝로 偕亡할 뿐이 아니냐? 同胞여 이 일을 어찌 할고? 남 사는 세계의 一角에 태어난 以上 우리도 살 길을 興할 길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 살 길이 있다면 오로지 團結이요 興할 길이 있다면 오로지 相愛的 人和일 것이다. 如何한 事情과 如何한 理由로 反目이 짓든지 간에 이 일은 一舉清算하여 버리고 人和의 길로 改宗하는 그 시간에야 江山은 潤澤하여 질 것이고 萬事는 正路로 들게 될 것이다.

堯舜時代는 人和의 時代를 말함이고 傑紂時代는 殺戮의 時代를 말함인 것이다. 今日 諸強大 民族을 研究하여 보건대 그네들의 共通的 特性은 묻지 않고 結合性을 발견할 뿐이다. 英吉利族의 相愛寬容性과 腓廉族의 舉族臥薪嘗膽과 스랍族의 結盟邁進과 라틴族의 信義固守와 大和族의 決死團結을 보지 안느냐? 두말할 것 없이 그 民族性과 昇格은 相愛結合에서야 強大 民族이란 榮譽를 얻게 될 것이다. 反目相爭은 오랑캐의 짓이니 이는 民族性의 羞耻를 持續함일 것이다. 고로 우리 4천년 역사를 갖인 燦爛한 文化民族으로서 昔日 祖上의 期待에 逆行하는 것과 같은 莫大之罪가 어디 또 있을 것인가? 同胞여! 귀를 기우를 때는 왔고 입술을 깨물며 決心을 굴일 때는 왔다.

二. 英吉利民族이 보여주는 敎訓

우리는 눈을 들어 西方의 大帝國 英吉利族의 雄偉함을 배울 필요가 있다. 먼저 英吉利民族의 繁榮相을 一瞥하려고 歷史를 遡考하여 보건대 英吉利人과 如히 不可思議의 幸運을 갖인 민족은 他에 볼 수 없다. 전세계의 四分之一이나 되는 地面을 갖고 勝勝長驅의 勢로 膨脹하고 있는 세계 정치의 지도자라 할 만한 偉대한 民族이다. 彼等은 大端히 實際의이며 常識的인 民族이어서 자기의 주위에 있는 것에도 자기를 適合시킬 줄 아는 민족이다. 상식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깨달어서는 실제로 처리하여 나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의 몸가운데 있는 英勇적인 膨脹의 氣分에 끌려서 海外으로 海外으로 번어나가는 국민인 것이다. 특히 英國人은 臨機應變하기에 有名한 特長을 갖인 민족으로서 政治上 失敗를 招來한 일은 全無하여 왔다. 英國에는 과거 300년간 一貫한 統治階級이 있었으니 이는 大地主人 貴族과 貿易에 의하

야 돈을<100> 벌은 金融資本家로 된 것이었다. 이 통치계급이 350년간 영국의 骨髓라 할 만한 정치상 중심이 되어왔다. 그리고 이 통치계급이 非常히 총명한 탓으로 英國은 19세기 전에 「로시아」가 성할 때 크림이아 전쟁으로 싸와 이것고 19세기 초에 奈巴倫을 이기고 佛國을 정복하였고 19세기末로 20세기 초까지에 獨逸이 盛하게된즉 獨逸을 꺾으니 恒常 英國의 明見的 政策으로 繁榮을 持續하였다. 고로 英國의 귀족과 부호의 중에서 흔히 위대한 정치가가 나게 되었다. 英國만큼 젊은 사람으로 大臣이 된 나라는 없었다. 「핏트」는 23세 時에 大藏大臣이 되고 25세 時에 總理大臣이 되었다. 그러나 彼가 25세 時에 수상이 된 것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고 그 부친 「웰리암, 핏트」伯이 이 兒를 아조 丹心으로 養育한 까닭이었다. 「핏트」首相이 英國 第一雄辯家라고 칭하여 진 것은 그 부친이 英國 第一雄辯家였든 까닭이다. 偉大한 民族은 늘 자기의 子를 自己 손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英國人은 兒童教育에 特別한 熱心을 가지고 義勇奉公의 念을 소년 때에 너히 주어서 一旦有事하면 貴族이라도 義勇兵으로 志願하고 出戰하는 것이다. 今般 英國의 青年大臣 「말콤, 맥드날드」도 34세인데 이것도 역시 그 부친이 首相으로 잘 기른 까닭이다. 또 英國에 가장 훌륭한 일은 統治階級에서 萬一 自己네 중에 그렇게 위대한 인재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민중의 가운데서 選出하여 자기네의 頭上에 推戴하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라 할 것이다. 저 大政治家라고 유명한 자담伯은 屢 亂暴한 사람이었다. 當時 統治階級에서 보면 아조 상놈이라할만 하였으나 그의 非凡한 才能을 認定하고 外務大臣, 陸軍大臣 總理大臣으로 昇進시켜 주었다. 非凡하다고 보면 處 登用하기를 躊躇치 않았다. 그네들은 그 다음 平民 중에서 一猶太人인 「지슬레리」를 또 首相으로 推戴하였고 또 一時는 彼爲政者間에 大敵으로 있던 「로이드, 조지」를 歐洲大戰이 시작되자 그 手腕을 認하고 總理大臣으로 登用하였다. 또는 平和論을 絶叫하고 戰爭反對를 한 까닭으로 一時는 國賊으로 몰아서 돌을 던지며 選舉慘敗, 議席奪失, 社交俱樂部와 골프俱樂部에서까지 除名당한 「맥도날드」를 國이 危殆타고 보자 處 그를 保守黨에 迎入하고 總理大臣으로 舉國一致內閣을 完成한 것이었다. 由此觀之에 우리는 大襟度의 民族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얼마나 偉大한 것인가를 再三 吟味할 것이면 어느 듯 우리도 偉大한 民族性을 追隨하게도 될 것이다.

結論

吾人이 不健康을 覺得할 때에 健康을 追求함과 如히 우리 민족의 偏狹拙劣을 痛感할 때에 偉大한 民族性을 追求하여 渴急할 것이다. 健康을 快復하려면 病을 退治하여야 됨과 같이 우리의 民族性을 昇格시킬나면 이 偏狹拙劣한 小市民性을 根本的으로 撲滅하여야겠다.<101>
<99-101>

잡지명: 삼천리 제7권 제9호
 발행년월일: 1935년 10월 01일
 기사제목: 民族에 關한 몇가지 생각
 필자: 李光洙 이광수
 기사형태: 논설

民族에 關한 몇가지 생각 (민족에 관한 몇가지 생각)

李光洙

1. 참으로!

참으로! 거죽말, 거죽일을 不共戴天之讐로 알고 생전 다시는 대면 아니하리라, 하고 저마다 自覺하고 결심하는 것이 첫재겠지요. 개인의 신용의 원천이 참이니까요. 작난으로라도 거죽말 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안 믿는 끝에 어떻게 상업은 興旺하고 조합이나 회사는 잘 되고 단결은 되겠서요. 朝鮮이 여러 가지로 발달하였지마는 거죽도 그와 함께 더 발달되지만 안았는가. 도로혀 그 거죽이 哲學化하고 道德化하고 藝術化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朝鮮의 생명은 眞理把持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거죽없기 동맹을 禁酒斷煙同盟 모양으로 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風潮가 술의 보급과 같은 정도로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을 위하여 殉節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진리에!는 우리에게 최대한 술로 간이겠지요.

2. 行의 禮讚

사실상 보통이하기 아닌 사람은 제가 해서는 안될 것과 해야 할 것을 지식으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청결, 절약, 근면, 공익, 이런 것은 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거죽은 나쁘다, 신용이 좋다, 飲酒喫煙 다 해롭고 뒷 公論 좋지 못하고, 남의 欠讀 옳지 않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알아」하고 누구나 뱉냅니다. 만일 우리네가 옳지 아니한 줄로 아는 것을 곧 고만두고 옳다고 아는 것을 곧 행하기만 한다고 보면 朝鮮은 一日之內에 도덕적으로나 富力으로나 판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行에는 意志力이 필요한데 病弱한 사람이나 기생충이 있는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頹廢한 사람에게는 이 意志力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행하기는 딱 싫습니다. 이에 손 발은 죽고 입만 산<60> 사람이 됩니다. 저마다 저를 행하는 사람을 만들자면 적어도 일주일의 苦役的 노력은 필요합니다. 일주일만 저를 行의 軌道에 몰아넣고 죽쳐대면 정 모쓸 爲人이 아니고는 대개는 行의 습관이 형성되리라고 믿습니다.

曲馬團에서 아이들 재주 가르켜 듯, 증생에게 재조 가르키 듯 저마다 제 調御師가 되어 鐵鞭을 들고 제등과 종아리를 후려 갈기며 惡習떼기, 새 習慣 형성하기에 100일을 노력한다면 그는 신뢰할 만한 公民이오 紳士가 될 것입니다. 行의 예찬이라기 보다도 우리네는 안저 몽개는 사람들로서 거르마를 배워야 하겠지요.

3. 信仰

예수를 믿거나 佛教를 믿거나, 孔孟을 믿거나, 또 老莊을 믿거나, 또 自然科學을 믿거나, 또

는 하나님을 믿거나 山神님을 믿거나 또는 오직 제 양심 또는 良知良能이라는 것을 믿거나 무엇이냐 한가지 꼭 믿고 숭배하고 그 명령에 절대로 복종할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마몬(財神)을 믿는 이가 많거니와 財神과 戀愛神을 믿는 사람은 無所不爲여서 도모지 신용할 수 없고 위험하기가 燥暴性精神病者나 市街에 내어놓고 猛獸毒虫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믿는 것이 없는 사더들이 모여사는 곳이 어떠한 보잘 것이 없음은 우리 자신이 가장 좋은 표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과 無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사 무엇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거짓으로 말만으로, 가장 好意로 해석하면 속만으로 믿는 이들이 많지 아니한가 합니다. 정말 무엇을 믿고 그 믿는 바를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은 一言一動에도 그 믿음이 들어날 뿐더러 그 용모에도 들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바가 없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精神入리가 없고 言行에 常軌가 없어서 或善, 或惡, 或正, 或邪, 或是, 或彼, 도모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交友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약속의 對手, 商去來의 對手도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耳懸鈴鼻懸鈴이요, 不畏天不畏人이요, 개인으로는 인생의 방랑자요 단결의 一員으로는 끄님없는 謀反者일 것입니다.

한가지를 꼭 믿고 그 믿는 바를 따라서 마음을 딱 정한 사람, 그래서 그의 一言一動이 다 그 자신의 第一原理에 맞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인격자로서 신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네는 朝鮮民族의 傳統的 宗教, 哲學의 再認識, 各種 既成宗教의 再認識, 인생관을 포함한 各種思想의 탐구와 再認識이 다만 學的 흥미뿐으로가 아니라 우리네 生活改造上 필요한 일입니다.<61>

4. 女子教育의 重要性

朝鮮民族을 개조하는데 가장 큰 所任을 가진 이는 妻와 母로서의 朝鮮女子입니다. 아동의 어른의 아버지라 하거니와 아동시대의 훈련이 잘못되고는 좋은 어른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격이란 기초되는 신앙우에 세워진 여러 가지 情意的 習慣의 總和를 의미하거니와 세 살적 버릇은 아흔살 가도 못 고친다는 格言모양으로 어려서 가정에서 일러진 情操, 禮儀, 習慣등은 일생의 인격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家庭薰陶의 任을 맡은 聖者는 여자입니다. 예전 獨逸皇帝 카이세르가 좋은 국민을 짓기 위하여서는 k字 세 개, 즉 교회와 부엌과 유치원이라 하엿거니와 부엌이란 곧 가정의 女子의 영역이란 뜻입니다. 과연 지당한 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現今 朝鮮에서는 여자교육을 한 餘興으로 아는 경향이 있고, 또 여자교육기관의 교육 방침도 어떠한가입니다. 勤勞는 朝鮮農村女子의 美風이어니와 獻身奉仕도 그러합니다. 이 勤勞와 奉仕의 德은 남녀에게 다 필요할 것이지만 특히 자녀를 양육훈련하는 母性으로서의 德性의 基調가 될 것입니다. 깨끗한 세레질, 깨끗한 빨래, 깨끗한 걸레질, 嚴正한 질서, 모든 이기적 安閑과 享樂을 제거한 자기희생적 獻身奉仕—자녀가 그 어머니에게서 이 정신을 배와 가지고 사회에 나온다 하면 그는 반드시 개인으로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사회로는 有用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하물며 신앙, 도덕의 모든 귀중한 情操는 어머니에게서 받음이 가장 많음에랴. 그럼으로 어머니는 가정의 敎主요 聖者라야 할 것이니 이것이 인생에 가장 高費한 職分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이러한 聖者가 없이 좋은 민족은 양성해 낼 수가 없으니 여자교육이라는 것이 어떠한 민족적 生命攸關의 重大事가 아닙니까. 그럼으로 民族改造는 반드시 여자교육에서 始할 것이요 여자교육의 기초는 母性訓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子女本位の 가정과 사회

자녀는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어서 우리는 오직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적 생명의 永生과 아울러 정신적 문화적 생명의 永生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네의 일생의 勞役은 자녀를 위함이
라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제 享樂을 구할 때에 타락하는 것이어니와 사람은 자녀를 생각할 때에 자기희생의 열정이 솟고 용기가 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子女本位로, 직업도 子女本位로, 사회의 모든 제도도 활동도 子女本位로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네 朝鮮人은 후손의 영광이라는 희망을 땔때에 전혀 암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子女中心, 子女本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62>

6. 模範部落創立

民族改造의 실행 방법으로 가장 有效한 것은 模範部落의 창립이라는 것이 安島山의 생각인 모양입니다. 개인의 內的 改造運動의 결과는 模範部落에서 구체적 실현을 볼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의 생활은 共同的이어서 一個人을 共同體에 따로 떼어서 완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安島山의 意向에는 우리네 중에서 新生活을 원하는 무리가 특정한 一地點에 모혀서 朝鮮이 높은 문화의 사회가 되자면 各部落이 이만은 해야겠다하는 程度의 문화적 조직과 시설과 정신을 가진 部落을 건설하자는 것인데 島山의 이 案은 空想的인 超人間的인 理想郷의 實現에 잇는 것이아니라, 朝鮮의 現在情勢와 將來展望에 적합할 실제적인 理想部落을 세워서 部落自體로는 新實驗의 경험을 얻고 밖에 대하여서는 넓히 實物模範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 模範部落은 職業學校를 포함하여 그 속에서 직업교육을 施하여 一人一業으로 熟鍊한 직업 기술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가 定住한 部落改造의 使徒가 될 정신과 기술을 주자는 것입니다.

島山の 이 「模範村」案은 民族改造運動에 가장 實際的이고 有效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7. 科學的

신앙과 과학은 背置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미신이 과학의 적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과학적 일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의 과학은 아직 發達途中에 잇기 때문에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잇지마는 과학적인 정신은 인류를 不合理에서 구제하는 등불입니다.

그러면 과학의 적인 미신이란 무엇이나 하면 그것은 원인없는 결과를 바라는 것, 즉 偶然이나 요행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미신은 아직도 朝鮮人의 마음을 짊 그리워서 제 개인의 장래에 대하여서나 제 민족적 장래에 대하여서나 (장래에 대하여서 뿐이 아니라 현재를 설명하는 데도) 因果의 理를 承認하지 아니하고 運이니 八字니 大勢니 하는 관념을 믿고 있습니다. 鄭道令의 출현을 기다리는 생각은 이 非科學性, 非因果性을 가장 잘 實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건강과 수명에 대하여서도 非因果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第1條는 내나 우리의今日の 처지는 내나 우리의 昨日까지의 행위의 결과요. 내나 우리의 昨日까지의 행위가 내나 우리의 明日의 禍福을 결정한다는, 鐵則을 믿는 것입니다.

이 鐵則을 承認하는 데서 우리네의 생활은 再出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진 모든 과학의 진리(특히 자연과학의)를 이용하여 怨咎없이, 불평없이,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明日의 결과의 因을 作하기에 勤勤孜孜할 것입니다.<63>

<60-63>

잡지명: 삼천리 제7권 제10호
 발행년월일: 1935년 11월 01일
 기사제목: 民族改造社란 무엇인가
 필자: 金友琴 김우금
 기사형태: 논설

民族改造社란 무엇인가 (민족개조사란 무엇인가)

金友琴

今日 中國에서 蔣介石씨를 擁護하고 그 독재정치를 원조하여 그로 하여금 대통령의 位에 上壇코저 暗中活躍하고 잇는 것은 藍衣社일 것이다. 이 藍衣社로 인하여 국제적 혹은 대내적으로 제반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何應欽 于學忠등이 張學良과 蔣介石등의 양해를 득하여 同社 暗殺班을 敎唆하여 晨報社長 白逾桓과 國權報社長 胡思溥등을 天津 日本租界 內에서 총살한 것에서 北中문제가 재발되어 日中양국 간의 국제문제화하기에 至하였다.

그래서 일본의 요구를 승인하여 北中에서 蔣介石의 세력을 대표하던 藍衣社이라던가 중양 헌병 제3단이라던가 河北省黨 及 北平天津兩市黨部라던가 중양 제2 제25師이라던가 또는 張學良씨의 여력을 사수하던 于學忠등이라던가 모다 하북성을 去하여 하남성에 이주한 것이나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에 불과하고 그 이면에는 전보다 항일공작이 倍勝한 일본측의 요구조건을 무시하고 打狗隊 民族改造社이란 國體를 조직하여 의연히 항일공작 혹은 排日운동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打狗隊이란 과연 어떤 단체이며 었던 배경과 계통 하에서 활동하게 되었는가? 이 打狗隊는 藍衣社소속원을 중심세력으로 삼는 일개 폭력단체 다시 말하자면 과극분자의 집합한 것으로 중국전사의 요지마다 分派하여서 藍衣社의 2대 사명인 각종 정보의 探集과 此에 기인한 테로행위를 遂行하려는 것이다.

그럼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藍衣社의 확대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日中친선을 방지함에 불과하다. 북평주재의 打狗隊는 종래의 藍衣社 중양헌병 제3단 軍事分會 及 정치훈련소 등의 행위인 항일책동을 상속한 사명을 사명으로 삼는 것이다.

또한 民族改造社이란 陳立夫를 중심삼고 蔡元培 于右任 張學良 邵力子 賈振 潘公展 徐慶譽 張君俊등 발기인이 되어 가장 최근에 조직된 것이다. 그 창립의 동기는 중국인의<130> 身心の 薄弱한 것을 개탄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개조를 기도함에 잇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조 방안이라 하여 발표한 바에 據하면 改造社의 사명은 華北의 건설에 의한 北方開拓 繁榮에 대한 국력충실에 의하여 外力排擊과 황하에 대한 근본적 정리안의 확립을 2대 선행조건으로 삼아 만일에 이것이 완성되는 날에는 처음으로 화북사회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잇고 이 대목적의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위선 과학적 방법에 의한 중국민족의 신심개조에 노력하여서 우수민족이 되라는 強調運動으로 이 改造社창립하기 위하여 吳醒亞일파의 20여명이 상해로부터 북평에 入足한 것이다.

요컨대 陳立夫를 수령으로 한 藍衣社의 일파가 명칭을 改하여 民族改造社의 명의로 北中の 地盤維持를 기도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監察院은 북평分署를 개설한 것이나 그 구성분자를 조사하여 보면 중양헌병 제3단의 고급간부가 가입되었다. 화북에서 항일공작의 제1선에 잇서 가

장 문제를 야기하던 중앙헌병 제3국의 사명을 대행케 하려는 것으로 見測된다. 그럼으로 蔣介石을 중심으로 하는 南京政府는 표면적 일본측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승인하는 동시 그 실행 상 성의가 잇는 듯이 가식하고 그 이면에서는 전술한 바 打狗隊 民族改造社의 기관을 新造하여 화북에 대한 중앙세력 유지와 항일공작을 속행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打狗隊이란 무단적 행동으로 民族改造社이란 문화적 정책으로 상호간 연락을 취하여 종전의 藍衣社보다 敏活하게 착실하게 항일공작과 배일운동을 하려는 것이다.

중국비밀결사의 원조는 남방의 靑幫 紅幫이란 유력한 단체가 있고 북방에는 任家裡가 세력이 잇서 중국의 암흑면을 대표하는 비밀결사로 유명한 것이다. 그러하여 偵探정치이라던지 「테로」정책에 있어서는今日の 중국은 세계에 어떠한 國도 未及할만한 정도로 발달된 것이다. 그리하여 남경정부의 중심인물인 蔣介石은 靑幫의 黑幕裡에서 연극을 함으로써 비밀결사의 수령격일 것이다.

그럼으로 蔣介石정권의 擁護者로 暗中활동을 하여 나온 藍衣社는 昭和6년(1931)년 秋에 黃埔軍官학교 출신이고 蔣介石의 심복인 賀衷寒은 중국의 비밀결사에 취한 建言에 의하여 豐 悌 曾擴清 潘佑強 戴笠 登文儀 蕭贊育 康澤 桂永清 鄭介民 蔣堅忍 杜心樹 胡宗南등 13인이 중앙간부가 되어 藍衣社를 조직한 것인데 그 사원은 10인 1조로 한 300조 즉 3,000인으로 기본단원을 삼아 2,000인을 黃埔軍官학교 학생 중에서 그 他 1,000인은 각 방면에서 모집하기로 하여 同사원에게는 생활비로 매월 200원을 지급하였다. 다시 중앙군관학교 내에 있는 군관 특별연구반으로서 藍衣社의 고급정치훈련기관으로 삼고 군사기관으로 教育總隊를 조직하여 사원에게 강행적 교련을 실시하였고 戴笠을 주임으로 政敵暗殺의 恐怖政策을 수행하기 위하여 鐵血隊를 조직하였고 또한 대외공작으로 정당 학교 軍隊 及 공장등 조사를 행하여 동사 훈련의 완성을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훈련의 완성 후 일거하야 각 省市黨權을 奪取하여 실로 국민당의 명의를 取消하고 同社로써 <131> 대리케하던 등 30여조의 藍衣社총장을 제정하여 정적과 이동분자들을 혈육의 제물로 만드는 참담한 威嚇으로 반대파의 세력을 縮收케 한 이후 藍衣社는 暗中 대활동으로 중국 각지에 세력을 발휘하는 동시 滿洲事變을 기회로 삼고 화북에도 진출하야 그 일파徒黨은 일시 燕趙의 胡地를 蹂躪하야 무인지경을 만드렀다.

藍衣社의 활동은 중국에서 전국적 주목을 受하고 잇을 뿐 아니라 지금에는 세계에서 독일의 黑襟社와 갓치 注意를 拂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표면적 藍衣社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히 藍衣社의 존재를 공표한다면 국민당 내에 更히 一黨을 造出된 우려가 잇기 때문이다. 同社는 黨則에 위반한다는 이유 뿐 만이다. 藍衣社의 형체가 국민당과 가치 분명치 안다는 점도 있다. 그리하여 그 組織條例를 보면 그 활동범위가 단지 공포정책을 행하는 것만으로 목적삼는 것이 아니라 별로 建軍, 建黨 及 建財 이 三綱領을 갖고 있다. 그래서 建軍이란 것은 蔣介石을 중심삼은 군대재건을 圖하는 것이 그 방면에 상당하다.

建財란 것은 地權의 平均화이라던가 恐怖運動의 경제적 기초를 견고케 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 建財운동의 지도자로서는 宋子文이 그 任에 當하였으므로 宋씨는 拘攔하는 一群의 財政及 경제방면의 諸分子가 이에 참가되었다. 그리하여 宋씨의 中國交通兩銀行의 대한 간섭과 대비하여 불 적에 一派상통되는 기세가 잇서 강행정책으로서 兩은행의 실권을 掌握한 것 갓흔 표면의 見測으로 남경정부 財政部가 은행계 통제의 제일보를 시행하는 듯하다. 인사관계상으로 보면 藍衣社의 建財운동의 一翼으로서 藍衣社가 은행계에 대한 지도력을 장악하려던 결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당의 정치세력을 蔣介石중심으로 즉 建黨운동하는 것이다. 그 要綱으로는 총리제도의 부활이라던가 국민당 내의 雜系를 정리하야 黨務를 지배하며 他方으로는 尖銳분자를 양성하여

각급 당의 실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雜系정리란 말 中에는 諸種의 공작이 포함되어 있다. 例하면 정부部內에 상당한 정치지도의 실권을 握하고 있던 汪精衛와 그 부하에게 대하여 기회잇을 적마다 도전하여 나온 것 갓흔 사실도 그 요강의 범위 중에 하나이다. 또한 상해의 時事新報社長 竹平으로 하여금 그 椅子를 去케 하였고 申報社長 史墨方을 암살하는 등 공포 정책에 의한 위압을 가하여 중국언론계를 蔣일파 세력하에 置하려는 方策이라고 볼 수 있다. 今日에 西南波는 屢次 藍衣社의 존재를 비난 공격하며 外遊前 胡漢民의 가장 恐憂하든 것은 藍衣社일파의 난입으로 광둥 광서 방면에 暗入한 藍衣社의 일파를 열심히 총살하였든 것이나今日の 藍衣社이라면 蔣씨 반대의 정치가 군인 신문기자 등은 縮首墨居하여 속언에 다치지안는 귀신에게 罰이 없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藍衣社는 최초에는 비밀결사이었으나 今日에는 공연한 결사가 되고 말았다.

靑幫도 비밀결사로 보였지만 결코 불량단체가 아니라 靑幫 그 단체의 결속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된 것이라 한다.<132>

<130-132>

85.

잡지명: 삼천리 제8권 제2호

발행년월일: 1936년 02월 01일

기사제목: 民族興亡의 자취를 차저

필자:

기사형태: 기행문

民族興亡의 자취를 차저

埃及의 「스핑크」를 바라보고

申興雨

벌써 10년전 일이다.

나는 「歐羅巴」각국을 돌기 위하여 印度를 거쳐 埃及를 들어서, 伊太利의 「羅馬」를 구경하였고 그 길로 佛蘭西를 거쳐 露都莫斯科의 「쿠레무린」궁전까지를 보고 돌아온 일이 있다.

그때에 나는 印度에 들어서 고대 인도문명의 그 황홀찬란하고 어마어마한 자취를 더듬어 보았섯고 또한 猶太國에 들어, 「예루살렘」과 파레스타인의 성지도 보았섯다. 더욱 埃及에 들어서 나일강에 가차운 카이로 시의 古蹟을 보았고 그 길로 오늘날까지 3000년전 埃及문명의 자취를 홀노히 말하고 잇는 저 유명한 「스핑크」과 「피라밋트」등의 거대한 古蹟들을 차저보았섯다. 또한 伊太利 서울 라마에 들어, 고대 라마제국의 황금시대의 뒷자취를 바라보았섯고 佛蘭西에 이르러는 벨사이유 궁전과 훌륭한 국립박물관 등을 모조리 차저보았다. 그 다음 러시아의 수도 莫斯科에 들어서도 쿠레무린 궁전과 유명한 사원들을 보았섯다.

이러듯이 歐羅巴 여러나라들의 과거 몇천년전 몇백년전의 화려하든 융성의 자취를 돌우차져 돌아다니고 나서 나는 가슴속으로 스사로히 느껴지는 바 한가지 사실이 잊었다.<56>

바로 내가 埃及의 「스핑크」와 「피라미트」를 몇 사람의 동무들과 벗하여 구경하든 때의 일이 었다.

印度와 猶太의 그 옛날의 古蹟을 밟아온 우리 일행은 카이로 시가에 잠깐 들엿다가 그 길로 낙타 우에 몸을 실이워 사막을 거쳐 10리나 떠러져 잇는 「스핑크」와 「피라미트」가 웃뜩 솟아잇는 데를 차져 그 앞에 섰을때의 일이엿다.

우리 일행중의 어떠한 외국인 한 사람이 나에게 못기를 「당신이 이 「스핑크」와 「피라미트」를 보고 그 어떠한 감상이 드시요?」하는 의미의 질문을 바든 일이 잇다.

그 때 나는 서슴지 안코 이여 대답하기를

「洋의 동서를 불구하고 오날날까지 내려오면서 과거 인류의 문명이란 종교의 문명임이 사실이다. 내가 印度에서 보든 印度教徒들의 거대한 사원들이나 또한 猶太國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이나 「파레스타인」의 거리에 아직까지 남아잇는 옛자취들이, 어느 하나 고대인의 종교심이 얼마나 무한한 인민의 노력과 헤아릴 수 없는 황금을 기우려 이루어진 자취임을 깨달엿다. 이제 이 「스핑크」나 「피라미트」의 웅장無比한 역사적 거물앞에 서서 생각 키우는 바 사실이란, 역시 埃及의 代文明이란 이 또한 종교심에서 울어져 나온바 역역한 자취임을 가히 알 것이다. 埃及의 그 당시의 군왕이 아무리 호화극치를 다하기 위하여 몇 십만명의 生靈을 희생시키고 수천만의 황금을 업새여 가면서까지 영원불멸의 대현상을 일우워 보려는 저-「스핑크」나 「피라미트」도 오늘날에 와서는 다만 끝없는 사막의 한 가운데 파묻쳐 잇서 현세인의 구경꺼리로박게는 제공되지 못하고

그 당시 군왕의 시체는 겨우 「구라파」 어떤 나라의 박물관 한편 구석에서 여러 사람의 구경감이 되어 버렸습을 볼 때 그 당시의 그 군왕의 죽어간 영혼이나 다상금<57> 살아 잇다면 오죽이나 서러워 할 것이냐! 그러나 넘우나 머나먼 이상과 야욕을 실현하여 보리라는 종교심의 작란은 넘우나 역사적으로 참담한 자취박게 더 무엇을 나어 노왔느냐!

나는 이제 새삼스러운 듯하나 어젯날까지의 모-든 明을 좌우하든 인류는 모두가 종교를 일삼은데서 그러한 결과를 나어 노왔습을 깨달거니와 오늘날 우리 인류는 옛사람들의 전철을 밟으면 또한 그러한 참혹한 결과를 나허 노할 것을 깨닫는 동시에 모-든 인류에게 행하야 『종교를 일삼지 말나!』고 말하고 십다」는 의미의 대답을 주엇섯다.

동행하든 그 사람도 고개를 끄떡끄떡하며 나에게 동감이라는 뜻을 표시하여 주엿다.

「종교를 일삼지 말나!」는 그 말은 즉 다시 말한다면 우리 인류는 「종교」그 물건을 밋지 말고 또한 미들야고도 하지 말나는 것이다.

우리는 「종교」그 물건을 밋는데서는 아무런 소득이 업을 것이요 도리혀 약간하면 사도로 홀너드러가 서로 무러뚫고 식괴하고 형식과 기계적인 인간이 될 것이다. 또한 외형에 잇서서, 그 말에 잇서서, 부르짓는 「종교」는 「피라미트」나 「스핑크」와 갇흔 최후의 조치못한 결과를 나타내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예수」가 말습한 그대로이 각각 자기 스사로가 그 일상생활하여 가는 가운데에 잇서서 늘 행하고 실현만 하여간다면 그는 훌륭한 「종교」가이다. 다만 성당을 홀용하게 짓코, 法衣를 입고 기도만을 올니는 것만이 「종교」신자는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우리들은 『종교를 일삼지 말나!』는 커다란 깨달음을 어덧섯다.<58>

元世勳

일민족의 성쇠와 일국가의 흥망은 역사상에서 보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의 경과를 따라서 人事의 度遷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 우리는 오즉 시간의 경과를 따라서 변천되어가는 人事를 주시하면서 우리의 책무에<58> 충실할 것 뿐이지 었던 일민족이 잠시 강성하며 었던 일국가가 잠시 발흥한다고 그다지 欽도하며 賞讚할 것도 아니며 었던 일민족이 잠시 쇠잔하며 었던 일국가가 잠시 멸망되었다고 또한 그다지 후멸하여 弔喪할 것도 아닌가 한다.

나는 나의 반생에서 었던 민족의 국가가 망하는 것도 적지 않게 보았고 었던 민족은 새로 국가를 형성도 하며 얼마동안 망하였든 조국의 독립을 회복하는 것도 또한 적지않게 보았다. 그 예를 오래고 먼 남에게서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조선반도에서도 넉넉히 차저볼 수 있는 것이다. 滿清帝國의 朝貢國으로 稱臣蕃屬의 半독립의 朝鮮이 일청전쟁의 결과로 대한제국이 되는 것도 보았으며 또 300년이나 되는 비교적 오랜 시간에서 중원의 4억만 漢族을 臣妾으로 대우하며 牛馬와 갓치 驅使하며 亞細亞에서 독패하는 大清제국이 一朝에 멸망되고 한족의 중화민국이라는 신국가가 건설되는 것도 보았으며 歐洲大戰이라는 전쟁의 결과로 러시아제국이 소벳트聯邦공화국으로 변질되며 獨逸제국이 獨逸공화국으로 換形하는 것은 그만두고 오지리 제국이 와해되고 극소의 공화국이 성립된 것도 그만두고 露, 獨, 奧, 삼제국에게 四分五裂되었든 피란민족이 새로히 일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보았으며 체코·스라브와 유고·스라브 등이 발칸반도에서 신국가를 건설하며 토이기제국이 歐洲에서 구축되야 中央亞細亞에서 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최근 東亞로 논하여도 9,18의 日中사변으로 만주국이라는 것도 성립되며 미국사람의 比律賓群島의 마래족이 10년 기한부의 독립자격을 취득하여 가지고 신연방공화국의 건설을 진행중이라는 것도 보고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지 관심하고 주의할 바는 일국가의 흥망보다도 일민족의 성쇠이다. 그 까닭은 일민족의 성쇠에 의하여 었든 국가가 새로 건설될 수도 있고 었든 국가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까닭이다. 만일 그 민족의 존재가 문제되지 아니하는 곳에서 기형적으로 그 국가만이 있다면 그것은 발서 진정한 의미에서 일국가가 아니라 그 지명 혹은 족칭을 잠간 인용하여 표현하는데 지나지 못할 것이다. 此와 反하여 그 민족의 독립한 국가적 생활은 없드라도 그 존재가 실제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 민족을 토대로 하고 건설될 국가는 오즉 시간문제일 것뿐이다. 此는 일국가를 형성하는 요소가 토지, 인민, 주권 등이라 하더라도 그 주된 요소는 민족의 존재인 까닭이다.<59>

그러므로 우리는 일국가의 흥망은 일민족의 성쇠를 표현하는 것이라 하여 었던 국가의 존망을 논할 때에 그 민족의 수와 질을 먼저 살펴보고 그 국가의 장래를 평정하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그 민족의 수와 질과의 양방면에서 넉넉히 그 민족적 일국가의 생활을 하기에 손색이 없게 되었다면 설사 일시 자립치 못하였더라도 他日에 자립할 一日이 必有하리라고 단정할 수가 있고 此와 반하여 그 민족이 어디로 보든지 자립적 일국가의 생활을 유지하기 불능하게 되었다면 설사 현재에서 독립자존적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이 불안할 것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蒙古민족이 완전한 독립적 국가를 가지지 못하였다고 모멸하거나 동정적 일탄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쇠퇴되는 기분이 날로 심하여가는 것을 보고 역사상

蒙古민족의 極盛시에 비하여 현재를 極衰라 하여 장탄하기를 말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제 무엇을 가르쳐서 蒙古민족을 極盛도 하였고 현재에는 極衰한다고 長嘆不已라는가 하면 이것을 이하에서 답하고자 한다.

2, 蒙古民族의 極盛하든 過去

『잘난 자손은 못 생겼든 復興祖라도 빛나게 할 수가 있지만 못 생긴 자손은 復興祖의 업적이나 자랑하다가 자기는 영원히 못 산다』는 격으로 강성하여가는 민족은 그 祖先의 업적이야 었지되었든지 현재에서 그 自族的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기에 급급하고 쇠퇴되어가는 민족은 현재의 생존이 위태하여 갈수록 그 祖先의 업적이나 노래하다가 자멸의 境으로 점점 가까히 가게 되는 것이다. 蒙古민족이 전성하든 과거를 회고한다면 모든 것은 그만두고 成吉思汗 일대의 업적만 가지고라도 인류유사이래의 었던 민족의 강성보다도 자랑하고 나머지가 있는 것이다.

誠하여 成吉思汗 일대의 蒙古민족의 강성을 약술한다면 13세기 초에는 蒙古민족이 다시 강성하여 천하에 횡행할만한 모든 조건이 구비하였다. 무엇보다 그 용감하고 진취성이 풍부한 상무적 정신은 가경할만치 되었다. 그 때에 蒙古 일부락의 추장인 鐵木眞(成吉思汗)은 蒙古의 제 부락을 정복하여 통일하고 타민족에 향하여 침략의 師를 동하게 되었다. 제일보로 만리장성을 넘어서 西夏를 정복하고 金國을 잠식하며 西遼를 병합하며 서방을 공략하기 시작하였다. 裏海沿岸과 波斯를 영유하였다. 고라즘을 토멸한 뒤에 成吉思汗은 哲別과 速不台라는 <60>二將을 보내어 러시아를 공침하였다. 哲別 등은 가브갓스산맥을 넘어서 러시아에 入하여 그 서남부에 있는 토이기종의 일파인 보로후트인을 토벌하기 시작하였는데 남로시아의 제후들은 보로후트인과 연합하여 哲別의 蒙古軍을 각가하반에서 요격하였으나 마침내 蒙古軍에게 대패되고 그 지방도 정복되었다. 그리하여 哲別 등은 다시 회군하여 成吉思汗의 군과 합하여 凱旋歌를 불으면서 도라왔다.

1227년에 成吉思汗이 죽은 뒤에도 그 제삼자 窩?台가 父業을 계승하여 남으로 대금제국을 쳐서 멸하고 동으로 고려를 쳐서 굴복시키고 다시 그 족하 拔都를 보내서 歐羅巴를 치게 하였다. 拔都는 1236년에 여러 형제와 將師와 함께 歐羅巴 원정의 군을 率하고 먼저 러시아에 쳐들어가서 일으키는 곳마다 모든 제후국의 군를 攻破하면서 莫斯科와 끼예브까지 함락시키고 전 러시아를 조공국으로 만들었다.

1241년에는 拔都가 스스로 대군을 거느리고 匈加利를 쳐서 멸하며 푸레스라브를 攻取하였다. 당시 시레싸공 顯理는 波蘭과 獨逸의 연합군을 거느리고 蒙古軍을 저항하다가 마침내 대패하여 *스다트에서 패사하였다. 그리하여 전 歐羅巴를 *동식혔을 뿐만 아니라 그 때에 만일 蒙古帝 窩?台가 崩하지 아니하였드면 拔都는 전 歐羅巴를 석권하고 總히 조공의 제후국으로만 들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拔都가 그 님금의 崩御로 인하여 진공을 정지한데서 全歐 각국이 간신히 殘喘을 보하기 되었든 것이다.

其후에도 拔都는 東歐羅巴와 中央亞細亞의 공약을 계속하다가 1258년에는 이십만의 회회군을 전승하고 시리아에 侵하여 하레푸와 마스구스를 파괴하여 기독교문명과 회교문명을 그 靈地까지 소멸시켰다.

상술한 바와 成吉思汗 일대의 蒙古민족이 전성하여 亞細亞는 물론이고 전 歐羅巴까지 정복하여 그 威武가 東西史乘에서 필적할 자가 없을만치 되었든 史實의 대강이다. 이와같이 蒙古민족은 지금으로부터 그다지 오라지 아니한 약 육백여년전에 전세계에서 감히 저항할 자가 없을

만치 극성하였든 것이다. 그들의 전성시대는 그다지 오라지 못 하고 불과 몇 십년에 歐羅巴와 中央亞細亞방면의 세력은 소멸되고 亞細亞에서 대원제국이라는 국가로서 자자손손이 계승하야 약 이백년동안을 滿州와 蒙古는 물론이고 한족이 본토인 中原을 통치하다가 명태조 朱元璋에게 구축되야 다시 蒙古沙漠의 본거로 퇴각하기 된지가 벌써 오백여년이다.<61>

이러케 극성하는 蒙古민족의 역사상의 자취를 볼 때에 누라서 천하에는 오즉 武強이 有할 뿐이오 文弱은 무용이라는 長嘆을 不發하라! 당시 蒙古민족의 威武앞에서는 歐羅巴의 기독교문명이 稱臣하며 中央亞細亞의 회회교문명이 拜하며 한족의 유교문명이 노예노릇을 하였으니 만국공법이 대포 일문만 不如하다는 이론이 금일까지 성행함도 무리가 아닌 듯 하다.

그러나 한번 그와 같이 극성하였든 蒙古민족이 한족에게 일패도지한 후에 금일까지 오백여년 동안에 재기하기는 그만두고 蒙古沙漠의 유목적 야만민족으로만 세계인에게 인식되게 되었으니 한 때의 극성이 그다지 귀한 것이 무엇이라! 本資와 역량에 넘치는 칭패과 강폭는 그 민족의 전도를 위하여 도리어 유해하다는 一嘆도 難免할 것이다.

3, 蒙古民族의 極衰하는 現在

13세기의 초엽을 蒙古민족의 세계라고 할진대 20세기 초엽은 백인종의 세계이다. 톤돈이나 파리나 華盛頓의 사람들이 蒙古민족의 存在興否를 알지 못 할 뿐 아니라 한가지 東部亞細亞에 있는 조선 사람도 蒙古민족의 有耶無耶를 의심할만치 되었다. 그 까닭은 지도상으로 볼 때에 중화민족의 변방인 蒙古라는 지명을 보게 되는 때에 비로소 一地名으로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蒙古민족의 存在興否는 벌써 문제시하지 않게 되어진 까닭이다. 무슨 까닭으로 그러케 되어 져는가 하면 蒙古는 양모원료의 공급지나 고고학자의 탐험지로나 되어져지 국제적 정치상으로 蒙古민족이 문제될 것이 없을만치 되어진 까닭이다.

이것도 오히려 案上의 汎論이다. 나는 실제에서 北京, 張家口, 長春, 哈爾濱등지에서 蒙古민족의 현상을 目睹도 하였고 오랫동안 蒙古에 있던 李泰俊, 徐日甫, 柳東悅, 金奎植諸氏께서 蒙古민족의 실정을 耳聞도 하였다. 무엇을 目睹하고 耳聞하였는가 하면 總히 그 민족의 극쇠되는 현상과 실정을 目睹도 하고 耳聞도 하였다.

西藏의 班禪活佛이 北京에 왔을 때에 그 종교를 신앙하는 蒙古사람의 男女老幼가 기백, 기천식 作隊하야 멧백리, 멧천리 원정을 도보로 班禪을 차저온 것을 보았다. 『그들은 생전에 반선을 한번 보기만 하면 사후에 극락으로 간다는 믿음 아래서 그와 같이 반선을 차쳐온 것이라 하며 그 차쳐온 사람들은 蒙古민족 가운데서 중류이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행하는 바는 누가 보든지 야만을 미면하였다 할만한 행동이 적지 아니한 것을 目睹하였다.<62>그 가운데서 몇가지 예를 들자면 그들은 北京市街의 변화한 곳을 이리저리 차저다니면서 중국 사람들의 음식점(하등요리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서 언어가 불통이 되야 여러 가지로 紛?를 야기하든 것은 그만두고 그들은 음식을 먹은 뒤에 음식점에서 물을 다고 하여서 먹을 줄은 알지 못 하고 길가에 나와서 가도에 살수용으로 만들어 노흔 수통의 汚穢水를 다투어 가면서 떠서 마시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을 무엇이라고 평할 것인가? 남의 短處만을 차저 다니는 외국의 신문, 통신사 특파원들은 그것을 사진찍기에 열중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저 가운데서는 20세기의 成吉思汗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장탄을 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것도 오히려 그 민족적 무지와 야만의 표현이 될지언정 그 민족의 쇠퇴되는 기상이라고까지 단정할 수가 없었지만 그들이 다시 반선이 있는 처소를 問하고 갈 때에 한 거름에 한*식 절하면서 입으로 그 무슨 염불을 하면서 가는 것을 보고 평생의 소위

가 그것 뿐이라고 하는 말을 『蒙古通』에게 들을 때에 『蒙古민족은 일대 *구적 신세례를 받기 전에는 영원히 쇠퇴하고 말 것이다!』하는 長嘆을 難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옷입은 것과 몸가지는 것과 거름 것은 것 등이 總히 거으르기 짝이 없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곰 하품이 날만치 되어서 『저 민족을 가지고 成吉思汗이 동서양을 정복하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의문이다!』하는 생각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내가 도처에서 目睹한 蒙古 사람으로는 그 얼굴에 생생한 생기를 가진 자를 볼 수가 없었고 무엇을 매매하든지 한족에게 사기를 면하는 자를 드물기 보았다. 심지어 낙타에게 석탄을 실고 단이면서 운반업을 하는 蒙古 사람에게 낙타 한 마리에 석탄을 몇근식이나 실고 단이는가 하면 정확한 대답을 하는 자를 보지 못 하였고 오직 낙타가 적으나 크나 한 마리면 한 마리의 駄價만 바더 가진다는 것을 들을 때에 蒙古민족의 정도가 한족을 따라가자고 하여도 얼마나 오랜 시간을 요하게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할 때에 또한 일탄을 難免하였다.

그러나 저러나 이것은 總히 나의 순간순간의 외부적 관찰인 즉 그것만을 가지고 蒙古민족이 극쇠하여가는 현상이라고 단언하기가 難하고 蒙古에서 여러해를 지내든 분들의 말에 의지하여 그 실정을 듣는다면 蒙古민족의 현상을 장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蒙古에 가서 의사노릇을 하든 李泰俊氏의 말에 의한다면 蒙古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성년이상에는 거진 매독과 임질을 가진 것인데 그들을 그 병을 치료하기를 <63>그다지 원치 아니하더라고 한다. 그 무슨 까닭에 병의 치료를 不肯하든가 하면 그들은 무슨 병이나 부체님께 기도하여 낫기를 원하며 의약으로써 치료하는 것은 붓체님의 뜻에 억으러지는 것인즉 죄라고 생각하더라고 한다. 李氏의 말에 의한다면 蒙古민족은 현상대로 방임한다면 화*병에 멸족의 患을 난면할만치 실정이 되어졌다고 하며

그밖에도 산업, 교육, 교통, 생활양식등 온갖 것이 한아도 쇠퇴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고 하는데 그 실례를 들자면 한도가 없을만치 만다. 그 가운데서 가장 심하여 멸족의 患을 당하고야 말 중대한 일례를 든다면 內蒙古一帶는 발서 거진 한족에게 동화되야 족보상의 蒙古민족이오 실체는 한족화한 자가 다대수라 한다. 이 점은 과거의 만주족이 한족을 통치한다고 하면서 실제에서는 한족에게 동화 흡수되야 결국은 멸족의 患을 당하고만 것과 동일한즉 었지 한심하지 아니하랴!

4, 蒙古民族의 將來는

한번 극성하였든 민족이 한번 극쇠하는 것도 성쇠의 공리라고 할진대 금일에 극쇠한 境에 至할 蒙古민족이 다시 융성할 미래가 有할가 하면 의문이며 難答이다. 현재의 蒙古민족은 사분오열로 이리저리 隸屬되고 있다. 열하를 제외한 內蒙의 蒙古민족은 중화민국에게 隸屬되고 열하와 그 동북의 東蒙古민족은 만주국에 隸屬되었고 外蒙에는 소벳트연방의 一邦이라는 명칭 하에서 외몽의 독립은 소벳트연방에 隸되고 있으며 그밖게도 서백리에 거주하는 蒙古민족은 만주리서에서 蒙古부랴트공화국이라는 소벳트의 일연방도 만들어 짓으며 바이갈호 동방에도 蒙古부랴트공화국이라는 소벳트 연방중의 一邦이 有하며 陝西, 甘肅, 新疆 等省의 변경에 산재한 蒙古민족의 현상은 었더한지 자서히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분오열된 蒙古민족의 장래를 『었지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자못 어려운 것이다. 다만 그 隸屬된 대로 이리저리 동화 혹은 자멸되고 말 것이라는 단언은 누구든지 현상에 卽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外蒙의 蒙古공화국을 위시하여 東蒙, 內蒙 등지의 蒙古민족의 민족적 의식이 점차 대두됨을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민족적 자존생존의 운동으

로 쇠퇴되어가는 그 민족을 지도하며 진흥시켜서 그 역사상의 위대하든 대민족의 後를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명실이 상부하도록 유지할 년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통털어 말하자면 蒙古민족의 장래는 滿州민족처럼 아주<64> 절망은 아니다. 현재 우리 東亞에는 滿州라는 지명이 유할뿐이오 滿州말을 하고 滿州글을 쓰는 滿州사람은 차저보기 힘들게 되었다. 차와 반하야 蒙古는 아즉도 그 민족의 말을 민족어로 하는 蒙古人이 적지 않게 남아 있는 시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蒙古민족의 장래는 그다지 절망되지 아니하고 一縷의 望이 없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터이다.

그리고 최후로 蒙古민족이 怨天할 천혜의 부족도 금후에는 다소간 완화할 터이다. 무엇을 가룻처서 하는 말인가 하면 蒙古민족은 사방 몇 천리의 사막과 초원을 가졌을 뿐이오 江, 河, 海 등의 천연적, 교통의 혜를 가지지 못 하였다. 그 주위에는 蒙古민족에 비하야 약하지 아니한 제 민족이 터를 닦고 살고 있으니 蒙古민족의 발전상에는 그만치 막대한 손해를 주었던 것이다. 이제 현대의 과학문명이 극히 발달되어 육지에는 철도교통과 공중에는 비행교통이 사막, 초원에서 생활하는 蒙古민족에게는 그 교통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차차 세계인으로 더부러 접촉을 빈번하게 하는 중이다. 이 점에서 蒙古민족의 장래는 오히려 과거의 窒塞的 생활을 면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생활자료로 논하여도 內蒙의 모든 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하며 목축의 부산물인 양모 낙타모의 원료도 외인에게 공급하지 말고 자기들이 自手로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에 출품하게 된다면 그 밖에 모든 생활방법도 따라서 개선될 것이다. 이 이상으로 더 말한다면 痴人說夢의 격이라 그만 停筆하노라.

예루살렘聖殿에서 二千年을 생각노라]

洪秉璇

무릇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민족은 모다 흥망성쇠가 잇는 것이다.

내가 埃及이나 猶太를 유람할 때에 그 나라들의 과거문명의 흥과 망을 말하는 그 痕迹을 더듬어 보고 내려나든 감상을 한두어마디 말하고저 한다.

나는 일즉이 埃及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상륙하야 埃及의 <65>서울 「카이로」로 갔섯다가 스위스 운하를 횡단하야 猶太國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중심하고 猶太國 각지를 구경한 일이 잇섯다.

埃及의 찬란한 고대문명을 맨들게 한 富源은 지금도 쉬지안코 물소래도 업시 잔잔히 흐르는 나일강이다.

이 나일강경에 카이로시가 잇고 카이로에서 약 십리를 나아가면 『金字塔』과 『스핑크』가 광막한 沙原 한가운데 웃뜨림이 솟아잇서 현세인의 눈을 놀내이게 한다.

金字塔앞에 서서 5천여년전 埃及문화의 위대함에 놀내이지 안홀자 그 누구랴!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萬年之舊基」를 꿈꾸면서 영화와 극성을 누리든 그 당시는 차저볼 길 바이 업고 다만 끝업는 사막우에 웃득이 선 석탑만이 현세인의 장난감으로 되여 버리고 말엇다.

5천년간 흐르는 나일강은 그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업시 흐르고 잇지마는 埃及에 사는 사람들은 지난날의 埃及을 이저 버린지 임이 올에인채로 무기력하게 대영제국의 발밑에서 움죽이고 잇지 안혼가?

埃及을 지나 猶太國으로 차저 드러가서 山上에 슌 『예루살렘』에 도착하야 『예수그리스도』의

사시든 고적을 차저다니면서 또한 늦게게 된 것은 「저러툏 영화와 낙원을 꿈꾸든 猶太나라도 오늘에 와서는..」하는 생각이 가슴속으로 치바쳐 오르며 역시 「한 민족의 흥망성쇠란 반듯이 역사가 땀들어 낸 것이었든가!」하는 생각이 이어나더이다.

지금에 『예루살렘』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개무량한 동시에 쇠망하여진 인민들의 무기력함을 볼 때에 어쩐지 내 마음의 허그품을 깨닫게 하엿다.

지금의 猶太人들은 매 금요일 저녁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주초석(다윗왕과 솔로몬왕이 논)을 붓잡고 통곡들을 한다!

나는 埃及이나 猶太를 지낼 때에 한 민족 한 사회의 흥망성쇠가 흥과 성도 그러하거니와 또한 망과 쇠란 판 민족이 쳐드러와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두억개우에 노여져 잇는 것이라고 생각하엿다.

『피라밋』(금자탑)이나 『스핑크』밋호로 움죽이는 埃及의 인민들이여!

『파레스타인』이나 『예루살렘』의 거리로 거리 단이는 猶太의 사람들이여!

엇지도 그리 무기력한가?

그들이 한 때에 성과 흥이 잇섯거든 오늘날의 쇠와 <66>망도 永達의 것은 아닐 것이 아니든가?

산 정신 산 희망이 업슴으로 해서 저들은 영원히 쇠망하여져 잇슬 것이 아닌가?

나의 가슴에서 이어나든 이러한 감회가 지금도 아직 기억에 새로웁다.

거듭 말하거니와 오직 한 민족이나 한 사회가 흥하던지 망하던지 함에는 그 땅에 사는 인민들의 정신과 노력 여하에 잇다고 생각한다.

「짚다크」紀念牌를 보고 생각나든 일

三清學人

내가 佛蘭西란 나라에 발을 드러노흔 지는 벌써 10년이나 되어가고 그 나라에서 발을 돌려 고토로 돌아온 지도 5년이 훨씬 넘는다.

이러툏이 오래되는 옛적의 일이라고는 하지마는 아직도 내가 佛蘭西나라에 머물너 잇슬 때에 가장 가슴에 박혀져 잇섯고 지금도 또다시 역역히 생각키우는 일은 「짚다-크」의 기념패와 「벨샤이유궁전」일 것이다.

벨샤이유궁전이라고 하면 너무나 유명함으로 누구나 다- 아시겟지마는 중세기에 잇서서 18세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佛蘭西 민족흥망의 舞台이 엿슴이 사실이다.

보불전쟁이래 獨逸민족에게 극도의 侮辱을 다- 당하든 곳도 이 벨샤이유궁전이엿고 또한 역사가 잇슨 뒤 인류역사상 가장 컷섯든 대혁명인 소위 『佛蘭西大革命』의 씨(종자)를 심어 노왔든 곳도 이 벨샤이유궁전이엿다.

「헨리14세」가 이 「벨샤이유궁전」을 지을 때에는 뒤에 오는 쓰라린 웰헬름1세와 「비스막」의 騷入이며 저- 처참하엿든 「佛蘭西大革命」의 「씨」를 기를 쫓아야 꿈인들 꾸엿을까!

그러나 역사는 가장 공정한 것이여서 최대의 야욕자에게는 최대의 비극을 가져다 주고야 말엿든 것이다.

「짚다-크」의 기념패는 佛蘭西 전국을 돌아단여 보아야 어느 도시 어느 곳에나 그에 기념패

가 서 있지 안흔 곳은 <67>업다. 이만치 「짚다-크」는 佛蘭西의 은인인 동시에 전세계에 그 족적이 빛날 가장 위대한 인물일 것이다. 더구나 그는 여성이라는데서 더욱이 그러하다. 영불전쟁이 오랫동안 계속하여 내려오다가 강한 침입자 영국군에게 佛國軍은 최후의 힘을 다하여 싸우려다가 그만 패전되어 佛蘭西민족은 패망하고 말 危急存亡之秋에 다다랐을 때의 일이었다.

「짚다-크」가 나스기 전까지의 佛蘭西란 나라는 극도의 봉건제도이어서 한 지역지역에 군웅 할거해 잇는 제후들이 각각 자기가 잇는 그 지역의 모든 정치를 一切로 하엿슴으로 그 당시 불국민은 자기의 제후에게는 충성을 다할 필요를 느끼게 되여도 일국의 왕에게는 아무런 충성도 몰랐었다. 이러한 제후들이 여기저기에 잇섯든 그 당시의 불국민은 「佛蘭西나라」라는 애국심이란 조금도 차저볼 수가 업섯든 것이다.

그래서 영불전쟁에 잇서서도 국민일치의 애국심이 업는 그 나라에서 무슨 승리를 어들 것인가!

결국은 역사가 말하는 최대의 국가적 민족적 위기에 직면하고 잇든 그 순간! 아직까지 아니 영원히 인류사 우에 뚜렷이 빛날 佛蘭西의 일개 미약한 여성이엇든 「짚다-크」가 나타나서 애국심을 전 佛蘭西국민에게 고취식히는 동시에 자기 스사로가 의용군대를 조직하여 전선에 나스게 되니 激하기를 잘하고 의분이 끝는 불국의 전 민족은 일제히 들고 이러나서 영국을 물니치게 되엇든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이 「짚다-크」가 나오지 안엇섯든들 佛蘭西의 민족은 민족적일치라는 애국심이 잇섯슬는지가 심히 의문되는 바이다.

이러듯이 위대하엿든 짚다-크의 기념상이 오늘날에 와서는 佛國民의 경모의 표적이 되여잇고 연중행사로 짚다-크를 기념하는 式典은 훌륭한 것이다.

이엇지 우연한 일이라!

나는 이 짚다-크의 상 앞에 서서 오늘날 지리듯이 세계에 뚜렷하게 스게 된 강국 佛蘭西의 어머니」라고 할만한 거룩하고 위대한 모양을 상으로서나마 두 번 다시 보고는 머리를 숙이 엿든 것이다.

짚다-크! 그는 역사 우에 언제던지 빛날 佛蘭西만이 아니라 세계가 가진 위대한 여성임을 알 았다.<68>

<56-68>

86.

잡지명: 삼천리 제8권 제2호

발행년월일: 1936년 02월 01일

기사제목: 大轉換期の 民族과 國家

필자:

기사형태: 논설

大轉換期の 民族과 國家

彷徨하는 東西列國, 發火點은 아직도 남은 第二大戰

安在鴻

1. 戰備途中의 列國의 矛盾

1935年度의 全國際의 政世는 窺하면 큰 動亂이라도 부르터 날듯한 위급한 形勢이 있었다. 東亞의 全局이 이미 暗雲低迷하는 形勢이었는데 3월 16일 나치스 獨逸의 폭탄선언, 10월 2일 파스시티 伊太利의 에디오피아 進격 등등은 生소치 않은 國際通의 사람들로도 제2의 大戰이 一觸直發로 金시에 觸 터질 듯한 緊要한 感覺을 품게 되었다. 이즘의 人們은 戰爭에 對하야 너무 過민한 히스테리에 걸린 셈이다. 벨사이유조약은 第2大戰의 禍殃을 撒는 策로 그 巨禍만을 未봉한 터이니 大戰은 필경 나고야말 바이지만 正작 본무대에서 그 主役을 맡을 열강의 人們은 누구나 그 자기희망의 中대모험인 것을 이 부르터날 第2大戰에서 豫感 또는 豫言하고 있는 것이다. 현상타파를 열망하는 2,3의 後進적인 帝國主義國家가 없지 않다손 치더라도 大戰이<14> 그토록 容易치 못할 것은 두말이 없다. 자신은 全然 이러한 戰事의 國外에 處쳐져 있으면서 입으로만은 氣揚이면 峻論壯談의 불꽃을 피우려는 『인테리』배격의 各國의 이 땅의 『인테리』들 보답은 달라서 자신으로 死活成敗의 대지 吾의 코-쓰를 熱汗으로 踏어가는 人們은 그렇게 一幕物인 寸劇에서 박수갈채로 마감하고 말을 餘裕를 가지지 못한 것이다. 그는 蘇俄의 스탈린 일당이건 英帝國의 勞드윈이-든 일파이건 外他 이에 準한 米亞數洲의 政事家 軍人들이건 또는 그들의 後에 잇작 다가선 各國의 지배자群 등등이건 누구나 모두 如上한 事勢는 잘 알고 있다. 한 말로 가리다면 諸國의 農民 노동자는 그 大部에서 一결같이 戰爭을 안 좋아하는데 지배자층에서도 내가 꼭 익이고 弄弄이만을 營々 없이 踏어 세우리라고 장마다 踴躍이 날 줄 믿는 冥冥이식의 自己를 가질 수 없는 것이 一觸直發을 豫言으로 外우면서 실은 大氣狀態에서의 延期工作에 진땀을 빼고 있는 事勢이다. 現下의 各國은 豫言없이 陸海空의 軍擴에 몰두하는 現象이지만은 그것도 그 背景속인 즉 獨資적인 압迫적 勢로써 戰爭발발을 불가능케하려는 惡劣한 環境에서 그 主觀의 世界는 動개고 있는 것이다. 이는 獨逸의 軍裝制限에서 安穩을 求하려는 佛國이나 對日 5, 5, 3의 比율에서 自기는 高枕安臥하면서 世界제일을 獨占지하려는 米國이나 또는 언제부터 이 心法에서 잔빠가 굴거 이제엔 늙어 渴으리지게 된 英帝國이 모두 그러한 것이오 外他의 赤白各國의 政事家도 거의 同様の道에서 서로 오르나리고 잇는 것이다. 이의 誤算으로 東亞細亞와 東亞弗利加에서 벌써 5,6년래의 各樣의 分畵가 일고지고 한 것이다. 이것이 막연한대로의 한 개의 國際적 豫備상식이다. 요컨대 東西列國은 망서리고 잇다. 망서리는만치 實戰의 발 化點은 아직도 사이 떠 잇는 것이 원칙적인 國際觀의 一要約이다.

2. 反撥現狀의 日英關係

지난 10월 28일이다. 東亞 風雲地帶에서의 一大國際的 要視察人인 『리-스로스』가 宋子文, 孔祥熙 등 소위 歐米派의 要人들과 上海에서 連일 회합한 끝에 1천만磅(1억3천8백萬元)의 英中 크레딧을 設定하고<15> 中國의 幣制개혁을 단행키로 되었다. 1926년 武漢政府 出現 이래 落潮的인 一路를 踏고만 잇든 老대한 英帝國이 그야말로 最後發動線에 접근할만치의 외교적 猪突을 中國에서 시작하고 잇음을 意味하는 것이었었다. 그리고 11월 3일 同中國의

財政部長 孔祥熙의 명의로써 銀國有와 中央銀行에의 銀集中을 단행할 것을 돌연 발표케 되었었다. 이것이 『東亞의 安定勢力』의 지도자로서 自任함이 큰 東京의 政事家와 軍部の 首腦者들에 의하여 언세게 지탄 배격됨은 필연의 순서이엇었고 駐中武官磯谷小將으로서도(同8日) 『今次の 幣制改革에는 단연 반대이다』라고 성명하게 되었었나니 東亞와 太平洋方面에 있어서의 국제정세의 꼬투리는 이것을 핵심으로서도 찾아낼 수 있다. 「에디오피아」의 무장 탄압(武力彈壓과 다르다)이 못소리니의 중대한 違算으로 되어 英伊의 兩帝國이 까딱하면 地中海에서 砲火로 마주보게 되는 것만도 一大事이거든 하물며 海陸 數萬里 東亞에서 또 一大史劇을 맨들어낸다는 것이 英帝國으로서도 심상치 안흔 거대한 脚色인 것은 긴 말할 바 아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기자 北中自治運動이 일어나고 巴里方面에서의 英伊和協案이 재토의되고(비록 실패에 마쳤으나) 米國의 總務官의 중대성명(12월 5일)이 되고 蔣介石委員長의 對日調定方針表明으로 되어 쑸베트 露國이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짐과 한가지 全國際의 중요한 官能은 어느거나 긴밀한 관계성에서 발로되는 동일체계로서의 同根異枝的인 성장 발전의 길을 찾아것고 잇는 것임은 識者의 관심을 깊고 크게 모으는 者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엿다. 그런데 『리-스로쓰』가 上海方面에서 활약하고 廣田外相과 磯谷小將 등이 내외에서 외치고 잇는 그때 런던에서는 정부의 대신들이 閣議에서 깜짝 놀랬드라고 한다. 빨드윈首相과 이-든無任所相(現 外相)이 몬셀海相을 쳐다보며 『네놈이 對伊關係 절박하다고 하면서 東洋艦隊를 다 끌어드림으로 日本이 저처럼 마구 내댄다!』고 덤벼들었다. 『몬셀』은 『아니! 동양함대를 불러드리기는 불러드렸으나 東洋艦隊따위 전쟁에는 소용이 없다. 그 보다는 문제는 리-스로쓰의 인식부족이다. 문제의 군더더기를 해군에게 모러붙이는 것은 성이가시다』고 반박하엿다. 日英兩帝國은 트각이 났다. 그들은 친한 듯 틀렸는 듯 없이 여기는 듯 서로 겁내는 듯 자못 昨是今非의 야릇한 코-쓰를 걸어가고 있다. 20세기 벽두 20년간에 걸쳐서<16> 東西의 양제국의 결합이 極東方面에서 허다한 풍운을 자어내어 뿔뿔 국민들의 激甚興亡史를 결(編)어 내었었는데 그동안 서로 버름한지 십여년에 지금 다시 양제국의 사이에 한개의 커드란 史劇이 차차로 전개되려고 하고 잇는 것이다. 시방 천하의 대세는 한편에 지중해에서의 英伊의 갈등이 있고 다른 한편 東亞에서는 세계전을 불러내는듯한 폭탄 中國의 연소과정이 무럭무럭 *進되고 잇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 國際의 최강한 세력만이 모주리 등장하고 잇는 엄청난 狀勢이다. 가로대 日中, 日米, 日蘇 등등의 대치가 그것이다. 그러나 論者 만일 日英 양제국의 대립되는 新형세를 간과하는 자 잇다하면 그는 오히려 綿密을 缺한 남으람을 면치 못할 자이다. 보라! 日中關係가 핵심부인데다가 日米關係가 한 연쇄이오 日蘇의 갈등이 한 화근이오 그러나 英帝國의 거취는 여기에서 결정적인 역량으로 그 정치적 및 역사적의 구실(役割)을 하고 잇는 것이다. 그런 고로 여기에 잇어 東亞의 정세가 국제안위의 핵심이오 日中の 관계가 또 그 핵심인데 日下에서는 지나간 『스팀슨』원칙의 米合中國보다도 保守黨의 英帝國의 동향이 그 시국발전의 열쇠로 되는 것이다. 웨? 米合衆國이 그 한편의 주력부대인 것이 의연히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필경은 英帝國의 거취에서 그 풍운의 秘機가 오고가는 것인 까닭이다. 論者여 잊었는가? 英帝國은 輓近 數3世紀동안 국제정국을 혼자서 리-드하고 잇었든 것을?<17>

3. 英帝國의 國際的 領導力

자본주의의 발표과정이 일정한 단계에 들어가면... 운운하는 판에 박은 듯한 論法은 이제 도리어 舊聞이다. 어째서냐고? 그것이 만일 틀림없는 진리라면 줄잡아서 그는 이미 識者에게는

상식화한 준비지식인 것이니 구태어 『維歲次』식의 執定的 冒頭를 삼음으로써 비로소 등신이 풀릴 일이 아닌 것인 까닭이다. 전세계에서의 선진인 자본제국주의의 국가인 英帝國의 사람들은 그 절대한 해군력(例, 2大海軍國表準의 압도적인 함대)을 가장 노골적인 구현세력으로 18세기 이래 항상 전세계의 국제정국을 영도하여서 자국본위의 세계정책을 勵行하여 왔었나니 이를 저해한 자 패하였고 이에 협조한 자 生長한 것이다. 그 대모한 자를 건정건정들 건대 大나포레온이 세계정책으로 그에게 결(抗)어서 敗하였고 윌헬름 2세가 그의 급진물인 세계정책(霸制主義)으로 英에게 싸와서 넘어졌고 『뭇소리니』의 伊太利가 지금 바야흐로 上述 2人者의 覆轍을 밟고 있는 사정이다. 1921년의 와싱턴회의가 하딩 미대통령의 발안인 양 실은 英帝國의 使族이엿섯고 윌슨대통령의 국제연맹도 결국은 英帝國의 示唆로 생겨나와 그의 세계정책의 커다란 무기로 되고 말엇섯다. 1899년 12월 中國의 영토보존 문호개방을 선언한 米國國務卿 「존·헤이」의 정책도 그 음밀한 창안은 英帝國의 정치가들(例, 베레스포드, 外 數人)에 의하여 지도된 것이라고 한다. 만일은 19세기 초기(1823년 12월 2일 선언) 이래의 米合衆國의 몬로주의란 자조차도 실은 神聖同盟과 露帝國이 신대륙에 간섭하려는 형세에 인하여 『캐슬레이』와 『컨닝』 등 英帝國의 정치가가 그 이미 포만하여가는 제국적 기구에 의하여 北米의 독립 후의라도 系諸國民의 독립을 방임함으로써 그 得策이라고 여겼음에 말매암음인 것은 外交史家가 이를 증언하는 바이다. 즉 英帝國艦隊의 거대한 포문이 이를 수호함이 아니런들 神聖同盟이 우선 米洲에 입맛을 다시엿을 것이다. 그래서 英帝國이 그 선진강대한 자본주의국가로서의 세계적 독점경향을 발뽀인지 수세기에 아즉 일즉 그를 타도하고 대신하는 용맹한 후진국가가 안나선 것이다. 다만 그 本壘에 맞작 닥어들어<18> 間一髮의 점에까지 그 존립을 위협하였던 자 오즉 佛獨數國이 잇엇고 거대한 항쟁자로서는 舊露帝國이 하나이엿다. 전란이후 세계적으로 第1位를 다투는 米合衆國이 또하* * 그런데 英帝國의 사람들은 그 특성인 陰險老獪한 정략에 의하여 상대국과의 관계가 그 위기절박을 깨닫게하는 경우에는 단연한 그의 타도전에 맹진하는 것이오 그 脅威的인 적의 세력이 마구 다루기에는 좀 미심스러운 때에는 곳잘 節을 굽히어 妥協互讓의 一條活路를 찾는 것이니 대전당시 對燭政策은 전자인 實例이오 대전이후 對米政策은 후자의 예인 것이다. 이제 英帝國은 日米兩國의 사이에 서(立)서 이 전통적인 國策에서 자못 重難한 시련에 들은 것이오. 太平洋의 풍운이 英帝國의 거취를 따라 一低一昂하려는 까닭도 오로지 여기에 있다. 英帝國은 방금(1936년 전후) 太平洋方面에서는 바야흐로 兩個의 脅威的 세력과 마주쳐서 잘못되면 妥協互讓을 찾으려는 배스심으로서의 一段의 적극책을 쓰려는 것이다.

대전이 보듯이 끝난 1920년대에는 英帝國은 하마트면 新興獨逸帝國에게 호되게 타도될 만한 危難만은 갖갖으로 만엇지만 그 자연붕괴의 험덕대는 도정에는 스스로 제몸은 가눌 수 없엇섯다. 우선 米合衆國의 일대 약진으로해서 그 최후 직접적인 역량의 구현인 절대우세 해군력의 상대적 감퇴와 금융패권의 米國에의 이동을 <19> 보게 되엇섯고 세계적 공장지대이든 산업적 우위의 쇠퇴, 특히 그 만체스터 방적공업의 상대적 쇠퇴 국제무역액의 減下, 식민지 공업화에 의한 英本國의 경제적 열세화, 각 식민지 독립국화 경향에 의한 제국적 기반의 龜列的 狀勢 등등은 누구나 열거하는 영제국 쇠퇴 경향의 현저한 조건이엇섯다. 이것이 1921년으로 同 27년 中國 北伐革命의 발전, 및 武漢政府의 혁명외교란 者의 발동을 劃期로 삼어 그들의 東亞와 太平洋方面에서의 진출도 전연 쇠퇴낙조의 경향만을 되돌고 잇엇든 것이니 이는 1926년 그 本國에서의 炭坑夫의 총파업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국노동자의 일반적 총파업과 호응하여 더욱 그 秋風落葉의 감을 이르기엇던 바이다. 그런데 1935년도에 잇어 東亞의 형세가 다시

심상치 않은 바 있어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이다. 즉 일본제국의 대륙진출이 長成以南에서도 자못 남북으로 분방함이 있어 南京政府로서(동년 2월29일)장개석위원장이 有吉公使(현재 大使) 鈴木武官과의 회견이 잇었고 뒤를 이어 『邦交敦睦令』의 발표와 日中經濟提携의 聲浪이 높아가든 바가 그것이니 이는 東亞의 형세가 언뜻 보아 심상치 아니한 전개이었던 바이오. 1932년 上海事變前後 「스팀슨」이 米合衆國이 중대한 결심이라도 할 듯이 그의 극동정책에서 서들든 당시의 정세에 비하면 자못 격세의 감을 이르는 바이엇섯다. 그래서 이 日中經濟提携의 聲浪이 높아지는 때에 제일작으로 놀란 것이 즉 영제국이었고 대사 『카트간』을 보위케 하고저 급작이 파견된 『리-스로쓰』가 실은 失墜만 되어가는 東亞에서의 英帝國의 商權의 만회의 때문에 그 최후적인 공작을 해보려고 한 것이다. 현대 英帝國의 東亞진출에는 필연 日, 米, 露와의 상관적 관계가 생기는 것이니 이는 東亞정세의 국제성이 가장 거대하게 하는 이유로 되는 것이다. 못소리니의 伊太리가 에디오피아 침략을 개시하여 한편에서 紅海의 목을 조르고 또 地中海의 해상권을 횡단하려 하매 英帝國은 단연 그 해군력의 全威力를 동원하여 일거에 伊太리와 輸贏을 다투려고 하는 기세를 보였고 호-어外相이 對伊和協을 詮議하여 국제연맹의 기구를 去勢하려 하매 英帝國의 지배층은 彈硬한 반대로써 그의 퇴직을 요하게 하였나니 그 관계가 非常重大함을 證하는 바이다. 地中海로부터 印度洋에 통하는 해상권과 그의 『힌터라인』배후선이 합쳐서 英帝國의 東方制覇의 생명선이 되는 것은 한 개에<20> 국제상식인 것이다. 그러나 東亞와 太平洋의 北西部의 문제에 있어서는 地中海의 그것과는 輕重도 있고 또 列國의 교착되는 관계가 단일치도 않은 바이다. 英帝國과의 관계를 별문제로 하고 이러한 객관적 복잡성은 全國際性에서는 그것이 곧 一層巨大함과 同一語意로 되는 것이다. 그는 東亞방면에서의 英米와 日英과 및 日米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서로 결린 것이오, 쏘베트 露國의 赤色的인 東進運動이 다시 이에 교착됨에 의하여 더욱 심중한 것이다.

4. 米國極東政略과 日英과 激突

大戰以後 英米兩國의 帝國主義가 全世界的으로 대립하여 있고 太平洋과 東亞의 방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니 蘭領印度의 광대한 영토는 거의 英帝國의 영향하에 놓여있는 터이오 그 지방의 石油業의 쟁탈전을 싸고도는 英米의 暗鬭는 실로 심상치 않은 바이다. 中國大陸에서 既得勢力範圍를 갖지 못한 晚進的인 米合衆國은 독점적인 일본제국과의 필연의 충돌이나 마찬가지로 英帝國의 독점적인 既得權과도 당연 충돌되는 것이다. 英帝國이 滿洲事變 이래 *國聯會議席上에서의 엉거주춤하던 태도를 필두로 1934년 海軍軍縮豫備會議에서 日米간에 不即不離함으로부터 때로는 日本과의 접근을 米國으로 시*위할만치의 태도를<21> 갖은 것은 잘 這間의 소식을 이야기함이다. 그러나 英米兩國의 사이에는 소위 同文同種의 실제적인 연결로써 『물은 피보담 진하다』는 정감상의 관계가 경시할 수 없는 바이니 日米간의 갈등은 純然 利害感인 것과 달리 英米간의 관계는 때로 人情自然的인 경향이 그 이해의 우에 작용할 수 있는 바이다. 하물며 日本帝國의 대륙정책이 長成以南에서 奔放하는 적극적인 진출로 再變하는 판에 있어 英帝國은 그 이해관계상 스스로 晏然할 수 없는 것이오 또는 日本帝國의 『東亞의 安定勢力』으로서의 自任과 그 自主的 外交國策의 발동인 日露전쟁이래 大戰 당시까지의 全然追隨的이든 그것은 단연 과기하는 오늘날에 있어 英帝國의 정치가들은 이미 日本으로써 한개의 『東亞의 紳士國』으로만 다룰 수 없이 된 모양이다. 그러면 日英관계가 이같이 昨是今非를 생각케하는 이때 日米관계가 당연 또 그 詮考 속에 들어온다. 봉건적 말

버릇으로 보아 米合衆國은 한 개의 市井商賈의인 성공자인 것이니 그들의 國策은 되도록 전란을 피하고 되도록 그 상업적 발전만을 독차지하려 하는 것이다. 그의 평화정책이 그렇고 人道正義가 그랬었고 中國의 門戶開放政策이 그런 것이다. 그들은 강대국과의 開戰을 모험할 만용이 있을 수 없는 자이니 그 과거에서 만만한 『멕시코』를 시달리었고 자차분한 中米의 諸國을 들볶았고 「칼리페안」바다의 조그만 섬나라들을 집어 삼키려고도 하였고 노쇠하여 불 붙이 없는 西班牙帝國을 지쳐내어 比律賓群島를 차지하여 주고 하면서 最少抵抗線路에의 진출을 가장 타산적으로 하는 자이니 저 歐洲의 大戰이 5년의 고개가 다 넘어 獨逸의 破敗가 가장 결정적인 때에 비로소 틀림없는 必勝의 師를 내어보내든 그것으로서도 넉넉히 그 태도를 짐작할 바이다. 이제 1931-2년 滿洲事變을 중심으로 일어난 東亞情勢의 급격한 변동과 國聯의 활동이 한참 부품하던 때에 「스팀슨」의 米合衆國을 벨사이유 當年과 와싱턴회의 당시의 활기있는 동작을 이르기여 보았으나 결정적인 東亞의 형세가 이미 좀체로 요정지를 수 없음을 看*하자 그는 이래 處女와 같은 沈靜상태에 배돌고 잇는 것이다. 蔣介石委員長을 總領으로한 南京政府和 國民黨의 요인들이 4,5년래 발동되는 국제적 중압에서 한참 視日的인 雌狀을 지속하는 동안 한풀이 격인 듯 하든 歐米派의 사람들이 리-스로스 經濟使節의 나타남을 얻어 일시에 躍起하는 듯한 대과*을<22> 이르킬 때 『루스벨트』의 米合衆國은 오죽 12월 5일의 聲明으로 그 원칙적인 趣意를 再喚醒시키는데 그치고 말은 것이다. 米合衆國은 배돌고 있다. 그는 輪形陣法을 자랑하는 太平洋優位海軍의 건설로써 渡洋攻勢作戰의 威力을 실현해야 칼날에 피칠 아니하는 승리를 얻기는 의도하는지 몰라도 現下에서는 도리어 침묵하고 있다. 다만 그러나 그것이 폭풍전의 정적인 침묵인 것만은 드디어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런던」에서의 海軍軍縮會議가 英米佛伊四國對 日本帝國과의 係爭으로 결렬의 幕이 刻刻으로 닥어올 때 1월 8일 大阪朝日의 뉴욕特電은 이제엔 옛날인 1921년 와싱턴회의에 앞서 米合衆國의 一大新聞인 뉴욕·타임즈社의 故옥쓰社長과 英帝國의 리-海軍大臣과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 결성되었으리라고 하는 日英同盟의 폐기와 및 日米간의 有事한 때에 英米海軍의 共同作戰을 機軸으로 삼는 英米秘密提携의 존재한 사실을 적발하여와서 東西各國의 外交界에 적지않은 「쇼크」를 주게된 바 있다. 日米는 험악한 침묵의 대치를 하고 있는데 英帝國은 새로운 행동을 이르기었고 日英의 國交는 一進一退하는데 英米의 관계는 提携이나? 疎隔이나? 속단할 수 없는 幕에 들었다. 日米양국의 단독상대는 문제 오히려 평이한 편이나 그러나 英米가 합한다고 하면 평이의 도가 멀리 깨질수 있다. 문제의 꼬투리는 여기에 박혀있다.

5. 消極的인 그러나 險惡한 沈默<23>

1935년도에 있어 太平洋방면에서의 주요한 새 사건은 比律賓이 어찌했던 한 개의 공화국으로 독립의 體勢를 가추게 된 사태이다. 米合衆國의 경제사정과 현대 해군 기계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米로 하여금 비약일본의 近隣에서 잘못되면 전략적 瀕危狀態에 빠지게 될 比律賓을 놓아 그 터나 한 개의 독립국되게 하려는 것이다. 요컨대 1932년 2월 上海事變 同休戰協定과 1933년 日本軍의 長成越境 同 5월31일 塘沽停戰協定 등은 東亞형세의 일시의 결정적인 변동을 초래하였고 中國에서의 제국주의 상호관계가 이미 복잡한데다가 日本의 이러한 逼近한 적극진출과 미국의 隔遠한 소극태도는 皮相에서 우선 安撫되는 듯한 정세를 나타내었다. 갖득이나 米本國에서의 특별한 경제공황과 中國 내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변동은 近年 미국의 자본세력으로 中國에서 경제적 적극활동을 망서리게 하였나니 滿洲國의 성립 및 거기에서의 日本

帝國의 자본세력의 독점의 확립 등은 米合衆國으로 더욱 平常한 진출의 흥미를 일케하였다. 綿麥借款이 불성공으로 되자 歐洲派의 수뇌자인 宋子文이 일시 失勢한 것은 그것이 곧 米中關係의 일시의 落勢를 의미한 것이요 米國의 無忌憚한 銀政策은 米中疎隔의 형세로조차 변화시켰다. 米國 極東政策의 機軸인 文호개방정책은 落勢傾向이 있고 九個國條約조차 김빠진 기세로 되어왔다. 스티븐 원칙이 어쩐지 거탈로만 남은 것 같은 때에 『天羽聲明』이 홀로 哄청대임과 같았다. 오늘날의 日米관계는 구설로써 應酬하기에는 너무 중대할만치 절박하여졌다. 일본이 삼가서 구설을 일상지않고 미국이 또한 구태여 구설을 놀리려고 아니하니 때로 太平洋세력 兩分論도 무책임한 언론으로 튀어나오는 바리오 하우스 大佐 등의 世界再分割論의 국직한 高言壯談으로 날를 뿐이다. 요컨대 米合衆國은 日本帝國과 單獨對戰을 별름과 같은 일은 매우 삼가는 바일 것이요 英帝國이 홀로 日本帝國과의 決戰을 하겠다고 하는 流의 생각도 아즉은 잊으리라고 속단할 수 없다. 英米兩國이 全然 同盟의 결성을 일우어 東亞와 太平洋에서 그 공동의 상대자를 소탕함과 같은 일도 일반적 現下情勢와 英帝國의 전통의 國策이 아즉 단정함을 許치 안는 바이다. 그러한데 1929년 말일까지에 中國에 대한 英의 투자액은 1억9천7백96만餘磅(963,380,000米弗)의 거대한 額에 달하여<24> 당시 滿洲投資를 합한 中國에서의 각국 투자총액의 38%의 압도적인 수량을 보이고 있는 터이니 東亞에서의 권익이 그의 생명선임은 아닐 망정 또한 매우 중대한 관계임을 알 것이요. *面하여 급격 진출하는 日本과의 관계에서 積極敵對하느냐? 妥協並進하느냐?의 양극 중의 하나를 꼭 골러야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동시에 親米排日이나? 親日排米이나?의 정책의 分岐로도 될 수 있는 필연한 정세인 것이다. 그러하매 北中自治問題가 한참 급격화하는 도중에서 (지난 11월 19일)런제-駐米英大使가 米國國務省을 방문하여 필립스 國務次官과 30분의 대책협의 를 하였는데 『런던』에서는 『英國政府로서는 효과적으로 日本政府에 항의를 제출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고 하며 한편으로 그의 駐佛大使가 巴里政府와의 사이에도 頻頻 왕복하고 있었으며 급속히는 무슨 결정적 태도가 없든 것 같은 것은 그 事體의 일반을 엿볼 바이다. 英米數國의 동태가 이러한데 모스크바 방면에서는 신문 잡지와 영화 연극 등에까지 排日的 기세는 높아지고 최근(1월 상순)에는 日獨의 軍事同盟으로 소비에트露國을 東西挾擊할 계획이 성립되었다는 설까지 그곳으로부터 유포될 썸이다. 그러나 米의 유명한 평론가 『워터·리푸 맨』이 말하는 바 『極東에 있어서의 米國의 이해는 英國의 6분의 1밖에 아니되고 中國에 투하한 列國의 자본 중 米國은 겨우 그 16분의 1밖에 아니된다... 日本과 충돌되는 米國의 이해관계는 겨우 一小部分에 지나지 못한다』고 한 것은 米國의 전쟁준비를 掩蔽하는 套語임이 <41> 틀림없으나 一面에서 英米兩國 對中關係의 物力的 근거를 해명할 수 있다.

6. 過渡的 國際鬭力 出現의 可能性

그럼으로 東亞의 시국은 갈수록 복잡성을 가하였다. (1)무엇보다도 緊切한 것은 中國자체의 정치군사적 동향이니 蔣介石 一聯의 國民黨政權이 얼마큼이나 그 가능한 역량의 집중으로 무력의 効*의 준비를 할 수 있는가? 目下에서는 日本과의 상대가 아니되는 것이 喧騒를 극한 채 現勢를 유지하는 근본 이유이요 그 實力的 生長은 아즉도 주목할 가치가 남아있다. (2)는 中國에서의 공산군의 활동형세이다. 共產軍의 長江中腹部와 雲貴 四川방면의 활동까지는 이 지음에 오히려 과대평가를 피한다 하더라도 그의 陝西 甘肅으로 寧夏 新疆과 山西 綏遠방면에의 진출은 그 소비에트 露國과의 연계공작과 赤化된 外蒙古와의 결합될 가능성과 또는 滿洲國과 및 北中정권과의 접촉 발화의 가능성이 충분한 점에서 매우 주목을 요할 점이다. 現下

露國은 自發積極의 對外戰은 극력 회피하여야 할 사정임이 분명하나 그 極東방면에서의 서로 결린 관계는 스스로 또 동일치 않은 바 잇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점에서 그의 상대자에게는 이 방면이 국제윤리상 또는 국제전략상 자못 유리한 최소 저항선로임을 여길 수 잇는 것이다. (3)日英米의 3국관계에서 米國은 차별적 비율주의로써 그 해군정책을 고집하나니 이는 米國의 세계 제일정책의 발로로서 결국 英帝國과의 天下二分함을 실현하려는 정책임을 의미함이다. (4)그러나 日本의 軍備平等權의 요구는 즉 東亞방면에서의 국한적 우위 해군을 企圖하는 바이니 그 결과는 이른바 東亞 門로주의의 수립의 때문인 것이오 日, 米, 英 3국의 天下三分을 상정하는 바로 米英 양국의 極東에서의 第二流的 지위에의 만족을 効進하는 셈으로 되고 마는 것이다. (4)파스시티 伊太利는 지금 일종의 瀕危상태에 빠졌다고 치고 佛國은 歐大陸에서의 雄이오 나치스 獨逸은 아즉 자라가는 범이라 두고 (5)쑤베트 露國은 그 방대한 영토 인구와 사상의 무기에서 다시 追窮不能한 천연 지리상의 유리한 조건을 가져 스스로 일개의 세계를 형성하는 고급에 갈볼 수 없는 세계적 脅威로 된 것이니<42> 줄잡아서 역시 천하의 한 모퉁이를 떼어 차지하려는 강력자로 日, 米, 英, 露의 天下四分의 빨릭적 형세를 맨들어 가는 것이라. 이는 現下 識者間의 상식화하는 國際公案인 者이다. ①그래서 북방대륙이 가장 促急多事한 편이겠는 채로 ②英米양국의 거취는 아즉도 斷案할 氣運에 달하지 못하였다. ③日米양국의 해군세력이 큰 차이가 생기되 米의 해군력이 渡洋攻勢作戰 可能線에까지 도달하려는 때가 의미하는 바 비상시인 것이오 滿洲國에서와 北中에서의 그의 상대국의 정치 경제 등 각계의 공작은 또 그동안의 형세를 변동할 수 잇는 바이라 그 결론과 더구나 일정한 발생 년월일을 忖度하는 것 등은 평론가로서의 삼가야할 객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④英帝國은 가장 擒縱自在의 緩急의 정책을 갖을 수 잇는 國情이니 그는 日米간에서 아즉도 결정 편파적인 거취를 한동안 아니할 것이다. ⑤그러면 나날히 생장되어 가는 第二大戰의 화근은 어디로 귀결될 것인가? 吾人は 가장 심원한 사유에서 두가지 길을 전망할 수 있다. (1)하나는 발전되는 時局이 어느때인가. 자유의사로 돌아설 수 없도록 거대한 과국을 차제로 맨들어 내어 그야말로 전국 제적 전면적인 비상한 국면을 早晚에 나타낼 수 잇는 일이다. 이는 일반적인 汎然한 사유의 결론인 것이다. (2)그러나 許久한 年代동안 積蓄된 역사적 *조건은 아즉도 急轉直下하는 추상적인 발전형태를 실천에서 보여주지 안하는 대신 세계최대의 3, 4 또는 4, 5의 세력이 目下에서 형성하고 잇는 경제빨릭에서 보는 것처럼 天下分割四分<43> 혹은 五分하는 과도적 신형세를 일정한 기간까지 지속할 수 잇는 것이니 이는 경시할 수 없는 一件의 可然形態이다. (3)요컨대 천하의 大事는 一片의 관측으로 용이히 단언할 바 못되는 바이니 이는 岡田이나 「스탈린」이나 『빨드윈』이나 「루스벨트」이나 혹은 蔣介石이나 「히틀러」「라발」 또는 「뭇소리니」등을 불러 그 흥중을 파본다고 치더라도 누구나 역시 預斷할 智見도 역량도 못 가진 바일 것이다.

(1월 12일 平洞書室에서)

埃及의 反英運動과 그의 將來

林元根

埃及의 反英運動은 이미 客臘中間頃으로써 일단락을 고하고 거의 평온상태에 도라간 感이 不無하다. 그런 까닭에 이제 새삼스러히 反英運動에 대한 붓대를 든다는 것은 즈유히 『뉴스-쓰』로 보아서는 뒤떠러진 것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보도인의 자격으로서

그의 뉴스를 전한다기보다도 그의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것으로써 埃及에 吸盤을 부치고 있는 英帝國主義의 동요의 위기를 엿보고 不絶히 약동하는 埃及民族의 새롭은 생활운동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고대 羅馬나 希臘의 찬란한 문화가 일찍이 靑나일河畔에서 발상되었고 중세기 문명에 不少한 공헌을 끼쳐준 유명한 아라비안 夜話도 그 예술의 극치를 오즉 埃及의 살림을 經緯로 삼아 비저내는데서 일층 광채를 발휘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당대의 영웅 씨-사의 봉건적 淫貪이 日本의 <44>大羅馬帝國 建設에 대한 영토적 야심과 아울러 크레 오파트라의 미모를 탐내게 되자 평화스럽운 靑나일의 湖畔에는 이미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埃及의 맑은 하늘을 예찬하든 小羊의 무리들로 언으듯 그 자취가 사라져 바렸다. 그리고 그대신에 쉐쥬리온의 무자비한 군화소리가 全埃及을 요란히 울리었고 『쥬뻬터』의 새로운 神이 점차로 그의 神域을 넓히게 되었다.

그러나 비바람 수세기에 역사박회는 굴고 다시 굴러 마침내 英帝國主義 巨足下에 그는 간열 쫓 여생을 천식하게 되었으니 때로 그가 기회를 찾고 또 만들어 가면서 그 중압하에서 이탈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무릇 생명가진 자의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일 것이며 일체 생물에게 부여된 정당한 요구와 권리라 할 것이다.

그러면 대체로 埃及은 지금 英國과의 사이에 그 어떠한 종속의 관계를 가지고 半獨立의 정치형*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埃及은 往時에 있어 일즉 土耳其의 한 부분으로도 되었었으나 英佛의 세력쟁탈 등의 기구한 운명을 밟아 드디어 1914년 世界大戰의 발발과 함께 英國의 보호령이 되어 가지고 1922년에 발표한 英國의 유명한 선언과 아울러 그의 보호제가 폐지되었으나 그는 英國의 埃及점령과 終始一貫으로 치열하게 이어나는 埃及의 독립운동을 회유 무마하려는 일시적 彌縫에 불과한 것이요 그 實은 의연히 埃及에 대한 종주권을 확보하고 오늘날까지 그의 집요한 교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埃及의 독립운동이라는<45> 것은 英埃간의 정치적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埃及의 독립이 확보되기 전에는 언제나 그 이 불길이 종식되지 않을 것이니 今回の 反英運動은 가장 최근의 사실로는 지난 7일 카이로市에서 재차 봉기된 학생단의 데모스트라익을 비롯하여 客臘中間에 전국적으로 맞이 燎原의 불길가지 이리났든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곳 카이로 대학생들은 埃及독립운동에 急先峯인 『와푸드』당과 협동하여 가지고 『打倒英國, *샤內閣絶對反對』등을 절규하면서 市中을 행진하여 가로등 같은 것을 닥치는대로 破碎할 뿐더러 전차, 버스 등 교통기관에 대하여서까지 방화 투석 등의 新戰術으로써 反英의 기세를 고양하였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는 마침내 정부당국으로도 그를 제재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지 안케 되어 列處마다 警官隊와 示威團과의 사이에 맹렬한 충돌을 惹起하여 수십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며 이로 인하여 각 대학들은 부득이 일주간의 휴학을 선언하게 되었고 이와 호응하여 국내 控訴院判事들은 連名으로써 英國정부의 내정간섭에 대한 항의를 결의 발표하였다.

이리하여 埃及의 反英運動은 急템포로 그의 戰線統一과 擴大強化를 촉진케 되었으니 『와푸드』당과 『자유당』은 마침내 한 기치 아래에 대동단결을 선언하고 그의 합동대회의 결의으로써 1930년에 英埃 양국간에 체결된 조약- 1. 英國政府는 埃及의 주권을 확인함. 2. 英國政府는 책임을 가지고 埃及의 국방에 임함. 3. 英國駐屯은 카이로로부터 스에스운하 일대에 철수함-의 부활을 결정하고 앞으로의 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매진하게 되었다.

地中海上의 험악한 戰雲은 아즉도 低空에 배회하고 있다. 우리는 오즉 變轉하는 대세와 함께 群少生命의 쉬임없는 약동을 살피기로 하자.<46>

蔣介石과 結託한 浙江財閥

北中독립에 중대역할을 연출식히라고 閻錫山을 南京에 불으게 위하여 작년 정월 초순에 蔣介石은 四川에서 西安으로 山西太原으로 비행기를 띄웠다.

우유부단한 石橋男 閻老가 蔣介石의 數日에 亘한 說話에 응하여 南京합류를 결심한 때문에 蔣介石은 太原 滯在 수일만에 14일 南京에 귀래하였다. 그는 곧 소위 南京의 御前會議를 열어 對日策을 토의하여 중요 成案을 어덧음으로 10월17일 문제의 英人 리-쓰로쓰를 초대하여 宋子文 孔祥熙의 4인이 중요 비밀회담을 하였다.

이 회담은 약 1시간 여에 亘하여 되었는데 그 내용은 자세 알 수 없으나 蔣介石이가 對日策에 관하여 최후 斷案을 네루라고 리氏와 회견한 것 또 리氏 來支이래의 행동으로 보아 蔣氏에 對하여 총결산적 회담이었다는<47>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11월 3일 돌연 南京정부가 弊制改革實施를 聲明하고 銀國有令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도 리氏가 이 회담에서 蔣介石에게 英國이 南京정부를 지지한다는 자신을 가지게 할 무슨 口約을 준 것은 의심할 수 없다.

蔣介石에게 준 어떤 硃會덴쓰가 실로 이 회담의 최대 안목이었고 그 때문에 同회담을 극동의 험악한 동요의 근원이라고 보아 중요시 않을 수 없다.

蔣介石은 中國의 독재자이다. 그는 히트러-와 뭇소리-니와 같이 中國의 정계와 재계에 절대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히트러와 뭇소리니와 如히 나치스 파쇼의 統制 있는 사상단체가 없고 사상행동을 하지않으나 그것은 中國이 獨*과 伊太利와 같이 고도 자본주의국이 아니고 반봉건적인 상태에 있고 또 아직 통일과정에 있는 때문에 그 독재성에도 일견 비상한 특이성이 있다.

그리고 蔣介石의 독재력은 히트러와 뭇소리니-와 같이 늘 문제를 차저서 獅子吼할 필요도 없다. 그는 中國中央軍을 사유하고 있으며 신흥자본단인 浙江財閥은 그의 세력과 함께 확대해온 것이면서 그의 세력과 二體同必의存在이다. 따라서 浙江財閥의 金力은 그의 병력과 같이 그의 권력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점이 日本이나 諸外國의 재벌과 정치세력의 관계와는 크게 相違한 바이다.

浙江財閥은 蔣介石이가 北伐革命軍을 인도하여 廣東으로부터 上海방면에 진출하기 전부터 蔣介石의 군비를 贈送하여 그가 南京정부를 조직해가지고 그의 南京정부가 반대세력을 소탕할 때도 항상 군비의 贈送을 인수하였다. 蔣介石은 浙江財閥에게 그 代償으로 이익을 주었다. 同재벌은 蔣氏권력의 확대에 의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여 왔다. 蔣介石氏권력이 今日의 大를 이룬 것은 浙江財閥의 후원에 의하고 浙江財閥이 지배하는 이유는 蔣介石氏세력과의 결합에 있다. 蔣介石의 병력은 다른 軍閥병력의 예상도 않았든 급격도로 팽창하고 정예해져서 재력은 제왕의 재력보다 <48>못하지 않게 되었다. 南京정부의 要人은 모다 장개석의 雇人과 같은 입장으로 되었다.

그래서 支那産業金融界의 집합세력인 浙江財閥과 蔣介石은 어느 쪽을 빼내도 현재의 권력을 이루지 못하여 두 세력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蔣介石의 군사적 배경과 권력은 中國經濟史上으로 보아서 현재에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재벌지배의 지위에 있다.

蔣介石이가 이런 鞏固한 입장에 있음으로 南京정부에서 겨우 군사 최고권위자인 군사위원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南京정부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심적 동향은 즉시 정국에 반영하고 정책에 영향한다.

蔣介石의 심적 변화는 첫째 歐米派를 약진시켰다. 歐米派의 주동적 지위는 宋子文 孔祥熙 孫

科及在外使臣連이며 中國정계에 잇서서 실질적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對日關係의 위기를 일시적 阻止할나는 蔣介石의 汪兆銘 등 친일파를 정치표면에 내세우는 정책에 의하여 暫間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었고 그들의 政權奪回欲은 기회있을 때마다 움죽이고 있었다. 그들은 蔣介石의 심적변화를 보기만 한다면 즉시 행동을 개시하였다. 蔣介石은 특색한 「默不言이라는 전술」로 이것을 암묵리에 양해시키는 태도를 취하였다.

歐米派의 약진은 친일파 세력의 몰락이다. 歐米聯携政策의 부활이요 日本提携策의 사멸이다.<49>

이것이야 6中全會 5全大會에 준비된 南京정부부내의 전환기세이었다.

俄然 11월3일 6中全會가 개최되자 친일파의 거두 汪兆銘 저격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蔣介石의 親日派 不信認정책이 시작되었다. 얼마 안되어 日本의 의도를 배반하고 11월3일에는 英國의 지지를 어더 幣制改革實施를 聲名하였다.

反英의 최강력 진영인 西南廣東 廣西세력파에게 『日本의 對中정책은 中國을 xx시키는 것인데 汪兆銘은 여기에 협동하여 中國을- 지금 余는 이에 정책의 전환을 策하여 舉國一致 難에 當한다.』라고 단연한 결의를 표시하여 西南派를 南京에 합류시킬라 하였다.

이어서 上海에서 中國人의 日本 水兵射殺事件 上海南京路의 日比谷洋行襲擊事件 日本부인에게 硫酸을 뿌리고 덮어쓰이고 日本아동에게 投石하는 등 諸사건이 續發하여 그야말로 上海는 上海事變前보다도 더한 排日 테로단의 橫行에 맞기었다.

이것은 오랜동안 蔣一派의 탄압에 잠재해야 있던 10만의 反日테로 諸단체가 蔣세력의 후퇴에 의하여 탄압이 완화하고 排日의諸勢力 復活之兆에 세력을 회복하고 있는 증거이다.

中國의 反日테로단은 오랜동안 蔣派의 정책에 탄압되어 밥통을 일코 있었고 排日만 이르기면 맛있는 국물을 마실 수 있는 때문에 별로 정부가 지령을 발하지 않고 지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활동을 개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지금 시세는 정말 一陽來福이라고 할 것이다. 하여간 蔣介石의 심적 변화는 이레케 速하게 이레케 놀라울 만한 영향이 있는 것이다.

리-스로쓰가 蔣介石과의 회견시에 준 口約은 다만 中國재정의 更立에 협력하겠다는 정도이고 그것도 그의 정의감과 中國에 대한 동정으로부터 이겟스나 中國사정에 疎隔하면서 그것이 日中관계에 어떤 영향을 <50> 줄는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책임이 많다.

幣制改革에 대하여 그는 英國의 借款문제를 부인하고 있으나 中國에게 幣制改革斷行을 결의시킬 어떤 언질을 준 것은 在中英國銀行이 취하고 있는 바 태도에 의하여 명백하니 이 책임은 물론이요 英國이 對支援助者의 의견과 中國의 歐米派의 의견에 딸린 책임은 東洋평화의 이름으로써 허락할 수 없다.

中國은 咆吼시키고 中國을 反日에 적극화시킬 결과를 招致하였다. 그가 來中이래 회담의 중심인물은 대개 歐米派이었다. 蔣介石의 심적 변화에 그가 준 그의 행동은 英國의 최근 對極東태도와 같이 日本에게 중대한 책임을 짓기지 않으면 않될 것이다.

와신통회의에서 다년의 日英同盟을 폐기하고 盟友日本을 米國에다가 팔았든 것을 위시하여 그 후의 英國의 日本에 대한 악의있는 對中정책은 고사하고 滿州事變후로 今日까지의 태도에 잇서서 英國의 對日 무시는 日本의 日英同盟論者까지 日英一戰論者에게 물엿을 꿀리게 하고 있다.

滿州事變후 세계의 對日白眼視는 滿州國非承認의 원칙으로써 대표된다. 이 원칙을 수립하려고 國際聯盟은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단장은 유명한 英人 릿통卿이였었다. 릿통보고는 極東의

新情勢와 事變에 대한 <51>日本의 필연적 역할에 대하여 인식부족이었었다.

그리고 聯盟總會는 日本의 주장에 反하여 反日적 공기로 동요하여 日本은 연맹탈퇴를 하더라도 주장의 관철을 期하고 있던 긴장한 순간에 東京에 잇는 英國대사관은 『日本朝野는 탈퇴할 기력이 없다.』라는 飛電을 띄워서 日本의 弱腰를 선전하고 日本의 평화적 협력을 무시하는 결의를 하게하여 드디어 日本을 연맹에서 탈퇴하게 함에 이르렀다. 이어서 『滿州國非承認』의 원칙을 수립하게 하였다.

다시 滿州國발전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欽求에 의하여 自國 내의 석유통제를 시행할려 하자 9個國條約을 이유로 재작년 10월 英國정부는 『滿州國에서 석유전매는 9個國條約 제3조의 위반이다』라고 日本 외무성 及 滿州國정부에 항의하고 米國의 同문제에 대한 峻烈한 항의와 상호 호응하여 獨立國 滿州를 中國의 일부로 인정한다는 외교운동을 이르켰다.

9個國條約은 中國을 객체로 하여 日英米佛白 등 9개국에 의하여 체결된 바 支那의 문호개방 기회균등주의를 서약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조약은 日本의 極東발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米國의 발동으로 체결된 부적합한 조약임을 이저서는 않된다.

滿州事變의 결과에 원인한 極東의 새 정세는 언제까지나 極東을 米國의 豫속적 지위에 둘려는 야망으로부터 맨든 조약의 정신을 최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日本은 석유항의에 물론 반대하였다. 英米는 다시 석유불매의 태도로 日本을 洞喝까지 하고 있다. 日本에게 9個國條約 그것에 대한 불만을 어든 형태로 폭발시키지 않코는 않될 것이다. 작년 蔣 鈴木會見후 暗雲의 日支관계를 명랑화할려는 日本의 노력에 의하여 日中提携의 공기가 차차 움죽일려한 2월에 英米兩國 朝野에서는 이 관계를 파괴할려는 공기가 재차 움죽이고 있었다.

英國에 잇서서는 스맛슈장군이 케-프타운에서 『英米공동하여 日本의 中國침략을 저지하도록 對日협동진선을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로시안卿은 『9個國條約관계국을 총동원하여 日本을 저지할 것이다.』라고 <52> 咆吼하였다.

米國에서는 紐育의 와-르드·테래그람紙에 『최근 極東에서 귀래한 사람말에 의하면 蔣介石은 中國 단독으로 日本에 대항 못하고 歐米諸國에도 中國을 위하여 日本과 싸울 의지없는 것을 알고 中國은 멸망에서 구출할 사건의 돌발을 기대하면서 일시를 糊塗하고 있다...』라고 독설하였다. 이 공기와 서로 관계가 있는 것 같이 3월 1일의 華盛頓電報로 英國의 제안에 의한 英米 공동의 對支차관운동의 진행을 報하였다.

駐米英國대사 린제-는 米國 국무성에 국무차관 휘릿프를 방문 『日本의 對中공작을 배퇴하고 英米가 主로 되어 列國 공동에 의한 對支원조』를 할려고 열심히 교섭하고 잇었던 것이었다.

이 사실이 폭로되자 日本정부는 極東이 평화에 향할려는 공기를 再亂시키고 中國에게 對日硬化시키는 것이라고 극도로 긴장하였다.

그 뒤에 이르러 對支공동원조의 제의는 남경정부의 구미파와 歐洲에 잇는 중국 외교관의 제의를 英정부가 들고 또 英國이 주동이 되어 米國을 가입시킬려고 운동하고 잇었던 것이 명백해져서 日本朝野의 對英輿論을 硬化시켰다.

최근의 경향은 極東문제에 있어서 日本의 敵은 米國이라는 것 보담도 차라리 英國이라는 感を 깊이 준다.<53>

米國은 極東문제에 대하여 反日적으로 咆吼하고 英國은 침점하여 실제로 老獪하게 악의에 차서 中國을 反日로 硬化시키는 彈丸戰術을 취한다는 인상을 日本人의 忖도에 깊이 각인하였다.

이러한 英國을 위시로 歐米의 對中정책 日本견제방침에 대한 日本의 대방침은 재작년 4월 天羽聲明에 의하여 명시되어 있다.

즉 그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東亞의 평화 及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日本은 자기의 책임에 있어서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다.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日本의 사명이고 日本은 이것을 결행할 결의를 가졌다. 최근 列國에서 中國에 대하여 공동 동작을 취할나는 일이 있으면 그 명목은 재정적 원조라 하고 기술적 원조라 할지라도 필경 中國에 있어서는 정치적 의미를 띠는 것이 필연적이고 그 형세가 조장되는 때는 中國에 있어서의 세력범위의 설정 국제관리 또는 분할의 단서를 열어 東亞의 평화를 위협할 염려가 있는 때문에 日本은 강경히 이에 반대할 수 없다.』

이主旨에 린제-의 활동은 反한다. 더구나 린제-의 활약은 反日歐米派에게 큰 기대을 줄려고 나섰으나 강경한 日本의 태도와 米國이 數次의 對支차관 특히 재작년 棉麥차관의 실패에 의하여 對支공동원조라 하여도 움죽이지 않은 때문에 英國의 策謀는 실패에 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英國이 단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歐洲에서는 세계공황의 심화와 歐洲數個의 爆發綿危險信號를 게시하여 있고 獨逸이 벨사이유조약 제 5항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再軍備*張에 올라서있을대 極東문제로 日本과 대립하기를 감행할 수가 없었던 때문이다.

그 뒤에 駐支英國大使 카드강이 北平과 南京을 빈빈히 왕래하면서 2천만방의 차관문제를 진전시켰다. 이것은 린제-문제가 차차 신문의 큰 제목에서 없어질 때라서 世人은 린제-문제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그러치 않고 별개로 在中英國銀行과 협동하였든 刀實한 對支원조의 차관이였다.(下略-원문)<54>

<14-54>

87.

잡지명: 삼천리 제8권 제11호

발행년월일: 1936년 11월 01일

기사제목: 極東 諸民族의 苦悶, 西南派의 沒落과 中國의 統一問題

필자: 李友狄

기사형태: 논설

極東 諸民族의 苦悶, 西南派의 沒落과 中國의 統一問題

李友狄

20日 午後 8時에 余漢謀軍의 선봉부대는 廣州에서 입성하였다. 그리하여 昭和 7年이래 廣東을 牙城으로서 廣西派와 提携하여, 蔣介石과 勢力싸움을 계속하여오던 大軍閥의 한 집단인 陳濟棠派는 몰락되었다.

그런데 廣東平定에 성공한 蔣介石은 義勇軍 5萬을 북부 廣東省에 진출시키고 또 4萬의 精銳

로서 桂林壓迫의 姿勢를 취하면서 21日 廣西 실권자 李宗仁 白崇禧에게 즉시 군사행동을 정지하고 속히 下野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 廣西의 몰락도 不遠하다고 보아도 틀림의 없을 것이다.

回顧하건데 胡漢民의 죽음을 기회로서 蔣介石은 곧 자기에 西南派를 壓迫할 것이라고 恐怖를 늦기고 機先을 動해서 현재 중국인의 거이 성격으로 되어 있는 抗日思想과 反蔣의 슬로건을 結付하여 西南派는 敢然히 군사행동을 개시한 것이었다. 여기에 福建派의 輪滅과<102> 赤衛軍에 대한 長年の 투쟁경험을 이용하여 蔣將軍은 買收 懷柔 煽動 威脅 등등의 陰陰하고 巧妙한 수단과 아울러 기타의 모든 정치적 工作 경제적 壓迫을 가하여 西南派의 질문에 맹렬한 대답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蔣의 西南派의 극복은 이러한 南京派 多年의 정치적 군사적 경험과, 廣東財閥에 대한 浙江財閥의 우월성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 조그마한 이유의 한 가지에 불과한 것이다.

무의미한 군벌적 내란에 대한 민중의 憎惡와, 외국 특히 英國帝國主義의 蔣介石의 충실에 대한 信賴가, 이번 蔣의 승리의 결정적 조건이 아니면 아니된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오늘날 같은 수난시대를 일찍이 경험한 일이 있었는가?

이 나라의 多年에 亘한 대외항쟁과는 별로히, 사태는 더욱 더욱 악화되고 있지 않는가? 최근 수년동안에 있어서, 이 나라의 운명이 累卵의 위기에 있다는 것은, 여러말 할 필요가 없이 世人의 잘 알고 있는 바이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危急存亡의 秋에 있어서 남북의 內亂이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나, 이 內亂에 대한 민중의 憎惡를 우리는 단순한 「悲憤慷慨性」으로서 설명하는 것은 誤謬일 것이다.

이 나라의 全 外國貿易은 世界恐慌을 전후하여 逆調에 逆調를 거듭하여 왔다. 그 逆調의 퍼센테-지를 본다면 昭和 元年에 있어서 13.07%, 든 것이 6년에 22.36% 8年 37.51% 9年 31.59% 이다. 금의 수출은 「密字」를 가해서 平均年額 1億 5千萬圓이 넘는데 昭和 8년에는 중국의 金銀이 약 5億이나 해외에 유출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尤大한 對外 借權에 대한 利子 長年の 내란을 위한 거대한 군사비 그리고 世界恐慌의 심각한 진행에 따라서 尖銳化된 金融資本의 시장에 대한 殖民地 百分割에 대한 무시무시한 대립과 角逐을 까닭해서 거대한 犧牲을, 질머지지 않으면 않될 이 나라의 廣大한 민중은, 거의 窒息狀態에 있는 것이다.

농촌은, 全面積으로 崩壞하고 공업은 大規模的으로 破滅되고 아니 全產工은 전반적으로 위기에 처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塗炭에 든 이 나라의 근로자들이 이 軍閥들의 內亂을 熱熱히 憎惡할 것은 사실이 아닌가?

물론 蔣介石이나, 西南派나 동일한 민중의 對立者 이지마는,<103> 이번에 西南派가 所謂 機先을 制한다면서 蔣介石에 대하여 먼저 出兵하는데 의한, 내란 도발자라는 不名譽를 自擔하고 만 拙劣한 政治的 技術이, 蔣介石에게 큰 同盟軍이 되었을지도 몰을 것이다.

물론 西南派는, 抗日 反滿의 大旗를 휘두르고 애국의 至情이 넘치는 말로서 민중에게 訴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지마는, 그만한 美音쯤은, 蔣介石의 목구멍도 뚫을 줄은 아는 것이었다.

우리는, 西南派 敗北의 결정적 조건의 하나로서 英國의 蔣을 위한 好意的 中立을 말하였다. 이 具本的 사실을 필자: 가 들은 바는 아니지마는, 이것은 理論上으로 보아서 넉넉히 推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數二列強의 半植民地로 되어있는 현재의 중국, 이 나라에 있어서의 한개의 勢力의 존재는, 오즉 外國세력의 支持與否에 의해서만 生滅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恐慌을 통하여, 金融資本의 이 나라에서의 白熱한 角逐이 벌어진 오늘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萬一 오늘의 英國에 있어서 西南派의 존재가 필요할 것이었다면, 西南派는 그렇게 容易하게 沒落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물론 一方에 있어서 이 나라와의 거대한 대립적 세력이 潮水같이 進出하기 전까지는 英國에 있어서, 南京派와 地方軍閥과의 대립은 그 歡迎하는 바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昭和 5年代의 前後가 아니다. 그들은 중국에 있어서 민중과의 결정적 對立者인 이 나라의 半封建的, 軍閥의 자본으로 하야금 조그만한 힘이 되게 할 필요를 느기는 것이다. 최근 南京派의 행동은, 英國의 信賴에 值한 바이었다. 南京派는, 英國의 磅政策에 順座해서 幣制의 改革을 斷行하였다. 奧滯鐵道가 完成된다면 長江과 南中과의 英中經濟提携는 육상교통에 의해서 더욱 緊密化될 것이다. 卽 極東에 있어서, 英國의 經濟的 根據地인 香港과 中國內地와의 結合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찍이 香港에 英當局은 리-스, 로-스와 같이 西南派의 財政的 주인인 陳濟棠에게 南京政府의 財政統一에 참가하도록 勸告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로 廣西에 있어서 李宗仁과 白崇禧를 誘導하려고 애써서 활동하지 않았는가?

최근에 와서 長江一帶에 있어서 그 經濟的, 政治的 세력이 萎縮, 후퇴되는 英國은, 極東에 있어서 자기의 사태를 嚴肅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上海을<104> 잃어버리는 것이며, 香港을 잃어버리는 때는 印度를 危險에 들게 하는 날인 것을 英國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한 개의 거대한 勢力이 英米의 龐大한 자본에 대한 자기의 黃金의 劣勢을 보충하기 위하여 무력을 가지고 對抗해 올 때에 있어서, 이 英國, 더구나 歐洲에 多事한 英國은, 중국에 있어서, 猛烈的 政治的 工作을 開始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중국인을 英國의 지도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英國의 이익을 위하여 원조할만한 힘이 되게 할 필요를 그들은 느낀 것이다. 이번 西南派의 몰락은, 英國의 최근 중국에 있어서의 경제활동에 적당한 政治的 工作의 第一步가 아닐가?

하여간 西南派는 沒落된 모양이니 이 西南派 沒落後의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었던 결과가 招來될 것일까?

西南派 몰락을 機會로서 蔣介石將軍은 全國 統一을 생각하는등, 大統領의 꿈을 꿈꾸는등, 그 코구멍이甚히 바람겨춘 바 있다고 한다.

果然 중국통일은 가능한 者일까? 중국은 한 개의 근대적 民族國家로서 성립될 수 있을까?

이것은, 혹은 款問일는지도 몰은다. 웨그러나 하면 오늘날까지의 중국의 통일이 妨害된 큰 이유가 西南派의 存在 그 때문이든가? 하는 反問一番으로 이 의문은 氷釋될 것이 아닌가? 과연 그러하다. 西南派이니 무슨 파이니가 현대의 중국통일을 위해서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이 理致를 얻는 알기 위해서는, 列國의 對中投資의 統計表를 一瞥하는 것이 切경일 것이다.

外國의 對中 投資表

英, 一,一八九,二〇〇,〇〇〇(米弗)

日, 一,一三六,九〇〇,〇〇〇
米, 一九六,八〇〇,〇〇〇
佛, 一九二,四〇〇,〇〇〇
獨, 八七,〇〇〇,〇〇〇
白, 八七,〇〇〇,〇〇〇
和, 二八,〇〇〇,〇〇〇
伊, 四六,〇〇〇,〇〇〇
스칸지나비아 二七六,〇〇〇,〇〇〇
其他

計 三,二四二,五〇〇,〇〇〇

이 거대한 外來資本은 資本 本來의 성질에 의해서, 중국의 영토에 자기의 軍隊와 軍艦과 警察과, 宗教와 기타 文化事業 租界와 租借地, 治外法權 등의 權力-다시 말하면<105> 한 개의 국가 중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世人의 다 아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新疆, 外蒙古에 있어서, 소비에트의 성장과, 중국의 心臟部, 아니 骨髓에까지 들어가 있는 소비에트 중국의 세력을 이저서는 않된다. 백만의 군대를 擁하고 있다는 그들의 세력은, 말서, 外來 帝國主義의 後援 없이 중국의 銀行家, 地主들의 힘만으로서는 對敵되지 못할만한 큰 존재가 아니면 않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커다란 對立者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土着資本은 과연 이들을 모다 「平定」 하고 그들의 이상인 民族國家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 해답을 위하여 결정적인 핵심적 문제는, 이 나라의 土着資本이 이 나라 인구의 絶對 多數인 農民問題를 해결할 수 있고 없는 與否에 있다. 封建的인 高利貸와 商人으로서 구성되고 地主를 겸임한 이 나라의 나 어린 反動的 資本이, 農民問題를 해결할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미 陳腐한 문제이거나와 현실적으로도 최근 約 10年의 역사가 이것을 충분히 證하고 있는 것이다.

이 農民問題를 해결하지 못한 그들의 對內的 對外的 運動이란 모다가 실패할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 아닌가?

北中이 自治되고, 西藏이 動搖하고, 雲南이 離反하려 하고, 外蒙, 新疆이 南京과 告別하고, 소비에트 중국이 백만의 군대를 擁하게 된 것이, 蔣將軍의 정권의 오늘날까지의 중국통일의 업적이 아닌가?

그리고, 倫敦의 海軍軍縮會議가 이 南京을 위해서 破裂되고, 香港에 있어서의 영국의 武裝은 몇 배로 강화되는 동시에 上海의 防衛를 위해서는 南京보다는 倫敦이 중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廣西省의 埋藏富源의 開發을 위해서 安南과 雲南으로부터 佛國이 발을 드러놓고 이 나라를 위하여 머리를 썩히고 있는 것이다.

XX에 대한 憎惡와 중국 소비에트에 대한 恐怖와의 중간에서 動搖하고 있는 「위싱턴」은 亦是 蔣介石에 지지 않게 아니 었더한 나라에도 못하지 않게 이 나라를 위하여(?) 憂心冲冲한 것이다. 北中 方面으로 끼웃거리고 도라다니면서 표면으로 悠悠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은 일변으로 蔣介石은 軍事的으로 積極援助하여 共軍을 공격하는<106> 동시에 XX에 향해서

는 그 第一線에 있어서 영국이 웃줄거는데 一任하는체 그저 이 중국을 위하여(?) 軍艦과, 飛行機와 大砲의 製造에 汲汲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을 위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蔣介石의 「걱정」이 그 곳에 參與할 한 목아치의 「자리」가 있을 수 있을까?

만일 힘과 힘과의 관계가 政治評價의 正當한 方程式이라면 오늘날의 중국에 있어서 이 蔣介石派가 중국을 통일한다는 것은 한 歷史的 喜劇에 불과한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현대의 중국이 걸어갈 길은 오죽 두 가지고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英米 등의 保護를 받느냐? 이 나라의 左翼派가 주장하는 코-스에 따르느냐?

사람이란 妙한 물건이라, 蔣一派가, 자기에의 獨自의 理想과 思想을 마음대로 가지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로 할 수 있지마는, 客觀的 條件이란, 可憎한 者는, 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의 중국에 있어서 南京派의 動靜은, 모다, 蔣 自己의 의사와는 獨立하야서, 이 나라를 중간에 두고 싸호는, 거대한 思想的 物質的 勢力 歷史的 對立 鬭爭의 어느 한 便의 補助的 役割밖에 더 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共軍討伐이 외국을 위한 행동에 不外함과 같이 그들의 幣制改革이 英國帝國主義의 이 나라의 經濟 支配를 위한 大路를 열어 주는데 不過한 것과 같이, 이번 西南派도 중국의 통일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아니 그것은 도리혀 중국의 통일을 크게 妨害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怪辯도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은 뒤떠러진 이 나라의 민중이 중국통일에 대한 幻想을 가지기 쉬운 材料가 되는 동시에 蔣介石의 憲兵役割의 獨裁政權을 더욱 강화시킬 조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의 共同管理主義와 分割主義와의 中間에서 動搖되는 態度가, 現著히 共同管理主義 - 米國의 코-스에 기우러진 것을 표시하는 것일는지도 모르는 바이니! 이것은, 일본의 大亞細亞主義와의 對立의 倍一層 尖銳化를 결과할 것이다. 동시에 米의 弗와 英의 磅와의 角逐을 더욱 激化시킬 것이다.

하여간 이 西南派의 沒落은, 이 나라의 모든 對立勢力의 激化를 助成하는 이외에, 그 무엇을 중국 민중을 위하여 寄與할 것인가? 今後의 중국은, 실로 전에 보지 못한 큰 危機에 當面할 것이 아닌가? <107>

新興比島二大難關

韓普容

昭和 10年 11月 15日 比律賓共和國은 初代 大統領 마뉴엘, 퀴슨씨의 就任과 함께 不完全하나마 (完全 獨立까지에는 아직 10年이라는 獨立準備期間이 있다) 獨立國의 形態을 가추게 되었다.

스페인 虐政에 3百年 동안이니 呻吟하였고 양키-作亂에 36年 동안이나 自由없이 사러온 不名譽스러운 역사를 동진 1千 3百萬의 현재 比島人民이 말로만이라도 獨立國民 소리를 듣게 될 때에 그들의 氣分이 어떠할 것인가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比律賓은 3百餘年 동안을 두고 鬭爭하여오던 民族 自主的 獨立實現으로 인제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는가? 編輯兄의 所請이 新 獨立國 比律賓 共和國 국민적으로 당면한 무슨 難關은 업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함이어나와 독립이라는 數3百年 來의 宿願을 達하게되는 比律賓은 獨立國家로서의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國民的 重大問題가 許多하다. 그리고 比等 國民的 重大問題는 독립운동 시대에는 거이 문제가 되지 안었고 또 多少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같이 重大視되지 안었서스니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대하고 또 先決을 요하는 獨立實現 문제가 있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인제 그 중대한 先決問題의 완전한 해결은 오즉 시간문제로 남아 있게된 比律賓 국민에게는 獨立國의 地位에 伴한 중대문제가 *出하게 되었다.

比島 인구는 1千3百萬에 不過하나 그 種族이 통일치 못하고 네그리트족, 뽀사야족, 다가로족, 이로가이족, 비콜족, 방가시난족, 팜판가족등 10餘 種族이 있어 民族統一 문제라는 중대문제가 있는 外에 此等 諸種族의 언어가 各異하여 互相間에 통하지 못하므로 독립국으로서의 國語問題가 同伴하게 된다. 比律賓의 총 면적은 14萬4千4百平方哩로 그러케 廣大한 것은 아니나 大小 7千8百13에 達하는 각 수의 島嶼로 형성된 群島이지만치 이 地理的 特殊關係로 自然 多數 種族이 살게 되었고 또 과거 330餘年間 異民族 지배하에 있어서<108> 한 때에는 西班牙語가 국어로 되었고 다음에는 英語가 국어로 사용되었다는 이 歷史的 特殊關係로 自然 比律賓으로서의 국어가 생겨날 수 업게 되었다.

이외에 比律賓社會의 중대문제는 黨派的 派爭이다. 즉 比律賓에는 米國仁을 信賴하고 米國과 무었이든지 협력하여야 한다는 親米的 白人派와 比島는 東洋에 있고 比島人은 東洋人이므로 東洋의 趨勢를 무시하고는 존재할 수 없다하여 東洋의 先建國인 日本과 親交할 것이라는 東洋派間에 대립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뽀슨씨를 중심으로 한 現國民黨派 民主派와 아기날도將軍(比島 독립운동 사상에 가장 著名한 歷史的 人物로 親與比律賓共和國의 國父로 볼 수 있다)을 중심으로 한 아기날드(國家社會黨)와의 間에 지금도 상당한 軌轢이 있고 지방에 過激한 思想團體로 거뽀하면 暴力적 行동을 例事로 하는 사크달당이 있어 比島社會의 安寧秩序에 크다란 威脅이 되어있다.

우에 지적한 諸問題가 比律賓에 있어 중대한 사회적 문제임은 누구나 다 公認하는 바이다. 그러나 新獨立國 比律賓共和國에 있어서는 以上 諸問題는 第2 第3問題요 그보다도 더 緊要하고 더 중대한 國民的 大問題는 (一)自主經濟 確立問題와 (二)獨立保障을 위한 外交關係 調整問題라 할 것이다.

比島는 아즉 경제적 입장으로 보아 독립할 수 업다는 아메리카 帝國主義者들의 獨立尙早論에 對하여 比律賓 獨立運動者들은 『獨立은 (딸라)弗 문제가 아니라 쏘울(精神)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먹는 것으로만 唯一의 목적을 삼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것은 당연한 말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치 않으면 死를 달라!』 이것은 아메리카 독립운동 때의 패트릭, 헨리씨가 한 有名한 말이다.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勿論하고 자유를 憧憬하는 마음은 다 가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역시 자유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모든 동물은 먹지 못하면 죽는 것이니만치 경제문제는 究 死活問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히 몇 百年 以來의 宿願渴望이던 政治的 獨立問題가 해결되게 되는 比島 國民에 있어서는 인제 國民經濟의 自立的 確立이 무엇보다도 重大問題며 先決問題가 될 것은 勿論이다.

그런데 比律賓의 國民經濟問題는 獨立實現에 依하여 重大難局에 逢着하게 되었다. 그것은 卽 米國 經濟下에 있는 사이에는 比島의 重要物産인 砂糖, 椰子油<109> 大麻 등이 同一版圖內라는 의미 下에 米本國에 無稅로 移出되게 되는 관계상 比律賓은 경제적으로 크게 有利하였

습에 反하여 독립이 실현됨에 따라 米國政治는 比島産物에 대하여도 他國産品 同様に 課稅하게 되는 까닭이다. 米國이 比島를 독립식하게 된 原因 理由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者는 經濟的 理由이었다. 昭和 8年 統計에 依하면 比島糖 約百萬噸 중에 90萬噸은 米國자본으로 移出되었다. 거대한 米國자본으로 가까운 곳 古巴에서 다량의 砂糖이 생산됨에 불구하고 먼 곳에 있는 比島糖이 이같이 다량으로 米國에 移入되게 됨은 古巴島에는 每封度에 二仙이라는 課稅가 있고 比島糖에는 그것이 업는 까닭이다.

이것은 砂糖에 관하여 만의 이야기요 椰子油라든가 大麻 其他의 農産物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 또 현재 米國은 亞細亞洲 移民을 歡迎치 안코 大正 14年 移民法으로 全然 入國의 길을 막아 노앗스나 比島人만은 동일한 國籍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特別取扱을 받게되어 年年히 勞働者도 어느 정도로는 入國을 許諾하고 있다. 그러나 比島가 완전히 독립하게 되는 날에는 그 特典도 동시에 업서지게 됨은 물론이다. 이 移民問題는 일견 人種차별 問題만으로 생각되지만은 여기에도 역시 經濟的 要素가 潛在한 것을 容易히 看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가튼 경제적 關係가 主因이 되어 米國資本家는 比島産品을 排斥하게 되고 米國 노동자는 比島노동자(生活이 低級한)를 排斥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실현하는 수단 방법으로는 比島를 독립식하는 것이 가장 迅速한 방법이라는데 比律賓 독립문제가 나오게 된 것이요 또 그 실현을 보게된 것이다. 이 關係는 比島獨立案에도 明瞭히 표시 되었었으니 그 중에는 이러한 조건이 있었다. 一, 독립까지의 過度期에는 米國에 無稅輸入品을 精糖 5萬噸, 粗糖 80萬噸, 椰子油 20萬噸, 大麻 3百萬噸에 한하고 독립후 6年만에 5分, 그후 점차 증가하여 10年 후에는 2割 5分의 輸出稅를 부과할 것.

一, 比島人 米國 入國規定은 10個年間 過渡期에는 每年 50人, 독립 후에는 此를 全然 금지할 것.

미국통치하의 比島産業은 온실내의 花草格으로 보호되었으나 독립실현과 함께 溫室的 보호를 떠나 暴風寒雪에 直面하게 되었다. 그리고 國民生計의 자주확립이 독립국으로서의 절대 必要條件임은 말하는 것이 오히려 蛇足이다.<110>

國民生計 자주확립에 못하지 안은 중대성을 가진 문제는 못처럼 어든 고귀한 독립 自主權을 어떻게 하여 영원히 確保하여 나갈가 하는 문제다. 이것은 經濟문제와도 相關되는 중대문제로 昨今 米比人을 중심으로 크게 떠드는 문제이다.

比島 독립을 반대한 미국인의 한 가지 이유는 比島를 독립식하는 날에는 다른 나라에서 此를 占領하리라는 데 있었음은 吾人이 熟知하는 바 사실이어니와 他面에 있어 比島독립을 찬성하는 미국인중에도 그와 꼭 같은 이론이 있다는 것은 滋味있는 현상이다. 比島獨立 賦與가 確成된 뒤인 去年 10月 20日 元比島副總督으로 있던 나카러스, 루-스벨트씨는 加州산 마테오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昭和 10年 10月 24日附 朝鮮日報 朝刊 참조)

不測의 사태가 발생치 않는 한 우리의 다음 시대에는 比島에 XX國기가 날일 것은 틀림없는 것이므로 미국은 지금 곳 比島로부터 손을 뗄 것이다. XX은 他에 전쟁이 이러나는 경우, 특히 영국이 歐洲전쟁에 휩쓸려 드러가는 경우에는 이것을 기회로 신속히 比島는 물론, 蘭領印度와 海峽殖民地까지도 손에 너힐 것이다.

현재 X比問의 經濟적 내지 이민관계로 보아서는 양국사이에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음에 불구하고 米比人은 XX에 대하여 크게 경계하고 있다. 미국인이 그같이 말하는 것은 政策的 宣傳에 엘러멘트도 업는 것은 아니지만은 독립후의 比島를 永世 中立國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든가 財政的으로 넉넉지 못한 比島에 강대한 軍備를 하고있는 사실에 비추어 미국인이 진심으로 미국 이탈후의 比島主權에 관하여 염려를 하고있는 것이 사실 같다. 미국사람의 염려

가 그만치 되게 된지라 此에 직접 관계를 갖고있는 比島人 자신의 恐症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다바오地方의 XX移民 토지문제를 圍繞코 昨今 比律賓에는 排X的 氣勢가 상당히 沸騰하고 있다. 더욱이 國際正義가 여지없이 蹂躪되어 에디오피아 제국의 멸망을 目睹하고 있는 比律賓 국민에게는 이것이 결코 단순한 恐怖症에만 拘치지 않는다고 생각키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로는 不得已한 歸結일 것이다.

이러한 공기 속에서 比島聯邦은 그 주권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裕足치 못한 財政임에도 불구하고 「難攻不落」의 比島건설 목표하에 龍大한 軍備豫算으로 強大한 국방시설에 奔忙하고 있다. 比島는 10年の 독립준비를<111> 經過하여 1946年 7月 4日로써 미국을 완전히 離脫하게 된다. 이 준비기한 내에 「難攻不落」의 比島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昨年 12月 15日 比島 國防法案이 통과를 보았는데 6月 19日 드디어 「國防 10個年 計劃」이 미국 陸軍參議長이오 現 奎슨 대통령의 최고 軍事顧問인 다그러스, 맥 아더 장군의 입안으로 발표되었다. 氏는 말하기를 「10年 후에는 比島를 占領하려면 50萬 大軍과 百億弗의 戰費와 3個年の 日子를 요할 것이다」 하였다.

國防 10年 計劃의 그 내용을 여기서 詳細히 소개할 수는 없으나 此를 간단히 요약하면 陸軍 常備軍은 10年 준비기한 내에는 1萬 6千에 불과하나 주로 豫備軍에 注力하여 매년 壯丁 4萬을 徵募, 강제적 軍事敎練을 행한 후 예비군에 編入하고 그후 50세까지 매년 일정 기간에 軍事訓練을 받게 하는데 10年 후에는 120萬의 대군을 정비하게 된다. 해군은 금후 10年間에 乘組員 88, 水雷發射管 二門備의 시속 60哩性 決速 海上 巡邏艇 50隻내지 百隻을 建造하여 要所에 배치하며 공군도 역시 今後 10年 後엔 爆擊機 2百5臺 建造를 계획하고 있다.

이상 龍大한 軍備計劃은 귀중히 여든 독립국 주권확보를 위한 것임은 물론 이어나와 이같이 힘에 달리고 분에 過한 國防強化의 이면에 許多한 無理가 있고 許多한 無理 있는 곳에 所以 比島의 苦悶이 있는 것이다. <112>

<102-112>

88.

잡지명: 삼천리 제10권 제5호

발행년월일: 1938년 05월 01일

기사제목: 協和會와 朝鮮民族의 舞臺

필자: 金璟載

기사형태: 논설

協和會와 朝鮮民族의 舞臺

金璟載

滿洲에 오시는 이는 누구에게나 爲先 눈에 기이하게 보이는 것은 군인의 양복빛에 제도가 엮 더께 보면 중국의 국민당복 갖하 보이거나 사실은 그와 다르고 외투는 러시아의 끼끄의 그것 갖

하나 또한 자세히 보면 그와 갖지 않은 表服을 입은 사람의 무리는 街里에서나 혹은 무슨 모임(집회)에서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協和會服이외다.

여기에서 協和會란 었던 단체이나, 그의 목표가 무엇이나, 이것이 궁금할 것이외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抑測을 하게 됩니다. 一國 一黨이란 곳에서 혹은 중국의 국민당에도 비교해 보고 또는 伊太利의 파시스트 당, 독일의 나치스 당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만스니다.

그것은 었지되었건, 滿洲 제국이란 한 개의 국가가 광활한 滿蒙의 천지에서 새로히 이루어졌고 그것이 불과 6년이건만, 이제는 안으로는 치안이 확보되고 弊制가 통일되었고 행정 기구가 완비되고 거기에<100> 사는 5족 3천만 인민이 다- 갖치 평화를 구가하고 있으며 박그로는 우방 일본의 지지를 비롯하여 伊太利가 승인하였고 西班牙의 푸랑크 신정권을 滿洲國에서 숭신 승인하였으며 독일과는 통상 사절의 교환 중이나 그가 不遠하여서 정식 승인에 이를 것은 자명한 사실이외다.

이것은 近世史上에 한 개의 위대한 사실이외다. 국제 연맹이 이 위대한 자연 성장적 사실을 의식적으로 부인하려고 해 보았으나 별 수가 업섯고 러시아가 때때로 심술구진 것을 간간히 하려고 드나 정의의 기치 밋해서 旭日昇天의 勢로 발전 성장하고 잇는 滿洲 제국의 신흥 세력에 그저 놀랄 뿐이외다. 이렇게 可驚 可讚의 발전을 하고 잇는 滿洲 제국은 신흥 국가이니 만큼 거기에는 의기가 잇고 열이 사랐고 그리하여 원기가 充溢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상에 접근한 한개의 국가를 창건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상하는 바 한개의 낙토를 실현시키고 있다는 그러한 영웅적 의기와 革心的 정열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滿洲國에서 나타나는 행정 기구는 었더습니까. 경제 기구는 었더합니까.

여기에서 그것의 해설을 하기에는 너무 장황하니까 그만 생략하거니와 다만 우리에게 이상히 생각되기는 정치에 民意를 반영식킨다 하는 것은 그가 근대 정치의 특색이요 우리의 머리가 그것에 저저왔는데 滿洲國에는 의회가 업지 안으나 하는 것이외다.

의회가 업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가 관료의 의지 여하에 의하여 좌우되고 잇다고 보겠고 그리되는 날에는 관료는 자기가 필요한 법률을 자기의<101> 손으로 맨드러 내이고 자기가 필요한 예산을 자기의 마음대로 편성할 것이니 거기에 폐해가 잇지 안을 것이나 하는 그 점이외다. 그러니까 滿洲國에는 常設的의 協和會가 잇지 안으나 이렇케 간단히 대답하실 수도 있으나 滿洲帝國 協和會는 그러한 용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보다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滿洲제국은 道義에 입각하여서 이루어진 국가이외다. 현재 滿洲에 잇서 이 명제를 무시하는 자는 건국의 이단자이외다. 그러니까 滿洲 제국의 이상하는 바 그 목표가 道義 세계의 실천화이요 그 정치는 독창적 왕도정치이니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고 교육받아 온 권리와, 의무의, 관계만으로 사람의 생활을 규제하려는 서양류의 정치하고는 천양의 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滿洲제국은 정치의 중점을 그러한 권리, 의무의 관념 우에 두지 안코 사람 개개인의 양심적 소산인 道義 관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동방 고유의 사상이요 거기에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이해와 투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도의 관념에 기초한 相共親, 相共榮의 憐愛至情이 잇고 민족과 민족 간에도 겸양, 예의가 잇서 마찰하지 안습니다.

여기에서 「滿洲國의 정치는 민주주의적 의회 정치도 아니요 또는 전제 정치도 아니요 민족 協和하여써 정당한 민의를 반영식킬 수 잇는 官民一途의 독창적 왕도정치를 실현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協和會의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동력은 국민입니다. 국민으로 하여금 그 나라의 이상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協力一致하여서 국운의 융성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정열을 일는 때에는 여하한 위정자이라도 그 국가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協和會는 滿洲제국의 국가의 기관이면서 滿洲제국 국민의 기관입니다. 滿洲 건국과 함께 건국의 이상을 국민의 손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창설된 것이요, 따라서 그는 한 개의 동지적 집단이요 그 목적을 관철키 위하여 굳은 신념을 가진 지사의 집단이외다. 協和會 운동은 滿洲제국 발전의 근원이 되는 운동이요 滿洲제국의 내외 정세가 日復日進展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協和會의 본질을 아는 것은 곧 滿洲帝國에 충성함이외다.

우에서 우리는 滿洲제국의 건국정신이 그가 곧 協和會<102> 정신이요 그것에 개념이나마 포착할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거를 더 전진하여서 協和會의 본질이 무엇이나를 구명하기로 합니다. 나는 新京에 있는 관계로 조선에서 滿洲에 드나드는 사람과 비교적 접촉할 기회가 만듭니다. 혹은 명사라는 분이 滿洲에 와서 고관이나 어더할 수 있을가 하고 오는 이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滿洲에 가서 투자하면 2,3년에 큰 부자가 된다고 해서 돈버리를 목표로 하고 나오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한 사정은 그들은 자기의 욕심은 크되 滿洲제국 정치의 특색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연히 아지 못합니다. 그래서 와서 路費만 쓰고 다시 섭섭히 도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도라가는 그들은 滿洲國을 저주합니다. 그것은 심히 딱한 일이외다. 滿洲國은 그런 이권 운동자에게 욕심이나 채워주는 곳이 아니외다. 그런 獵官 운동배에게 벼슬이나 제공하는 곳이 아니외다.

우리는 滿洲國을 착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滿洲國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協和會의 정신을 이해한다는 것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만주에서 아니 동양에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滿洲國의 구성분자의 하나이외다. 가장 충실하여야 할 입장에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滿洲國의 건국 이상을 실천하여 그를 복도두워야 합니다.

協和會는 滿洲제국의 정치 이상을 낳(生)는 곳이외다.

여러분은 滿洲의 건국 선언을 보시었습니까. 「신국가 건설의 旨는 順天安民으로써 위주한다. 시설은 반드시 民意에 循하여 사건의 존재를 容許치 않는다.」 하야 道義에 基한 民意 창달의 대원칙을 발키었으며 신국가 영토 안에 거주하는 者란 모다 親疎尊卑의 차별이 없고 고유의 滿族, 漢族, 蒙古族이나 일본 内地, 조선의 각 민족은 물론이요 기타의 외국인이라도 장구히 거주를 원하는 자에게는 일률로 평등 대우를 바들 수 있습니다. 그의 실례로는 北滿 각지에 흩터져 있는 白系 露人이외다. 이렇케 민족 평등 協和의 관념을 명백히 하엿을 뿐 아니라 다시 민권의 보장, 법률 개량, 지방 자치의 勵行, 인재 俊賢의 등용, 實業의 장려, 금융의 통일, 富源의 개발, 생계의 유지, 警兵의 操練, 匪禍의 숙청, 예교의 존숭 등의 시설의 근본 방침을 자세히 설명하여 있고 「왕도주의를 실행하여 반드시 境內 一切의 민족으로 하여금 熙熙昭昭 春臺에 올음과 갖게하고 東亞 영구의 광영을 갖게하여 세계 정치의 모형이 되게 할 웅대한 이상」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오면 關東軍 사령관의 성명 중에<103> 「민족이 協和하여 진정한 民意를 반영할 官民一途의 독창적 왕도 정치를 실현함」이라 한 그것이외다. 독창적 왕도 정

치란 거기에 김흔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치 형태의 유형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창적의 그것이니 서양류의 민주주의적 의회 정치라던가 또는 독일의 나치스, 伊太利 파시스트와 갓흔 그런 類의 독재 정치도 아니요, 러시아의 콤후니스트와 갓치 친애하여야 할 인류에게 계급적 적개심을 길너서 질시, 반목, 相戢의 사회를 現出시키는 그런 類와는 비교할 바도 아니요 그러타고 해서 중국 고대사에서 볼 수 있는 군주 전제 정치도 또한 아니외다. 민주주의적 의회 정치는 국민 多大數의 의사에 의한 정치를 표방하기는 하나 그가 국민 多大數의 의사를 충족시키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실현 식키고 잊지 못하며 전제 정치는 그것이 봉건적 형태에 있는 것이나 근대적 양상에 수식되어 있는 것이나를 물론하고 지배자의 의사와 피지배자의 의사와의 사회에 원만한 맥락이 保持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외다.

滿洲國의 정치 이상은 이러한 類의 정치 형태와는 그 관점을 달니하여 의회 정치, 전제 정치와는 별개의 독창적 왕도 정치를 考究하여서 그 결과로 설립된 것이 協和會이외다. 協和會는 滿洲제국이 세계 인류에 베풀 새로운 정치 이상의 발현이요, 독창적 왕도 정치를 달성할 사명을 가지고 창설된 기관이요 滿洲 건국이란 웅대한 역사적 產品과 함께 새로운 한 개의 창조이외다.

「協和會는 건국 정신 체득자의 집단이외다.」

여러분은 滿洲사변을 엿더케 보시엿읍니까. 지금부터 7년 전 9월 18일 밤에 奉天의 부근에서 日支軍의 충돌로 이러났다고 보시엿읍니까.

그것이 발단의 近因이 되었으나 그 후 滿洲의 땅에서 이루어진 滿洲 건국은 世界維新의 第一階梯이외다. 滿蒙의 3천만 민중이 大同 원년 3월 1일에 신독립국가를 선언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갓흔 민족자결주의적 독립과는 그 취지가 달습니다. 滿洲 건국이란 사실은 군벌이나 貧官, 汚吏, 馬賊의 擅行함을 밧고 잇든 3천만 민중에게 新生의 靈光을 부여하려는 데에만 拘치지 안코 亞細亞 及 전세계에 새세기를 창조할 일대 이상의 발로이라는 것을 아시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주 건국은 이러한 웅대한 이상의 발로의 첫 계단이니 그는 爲先 滿洲國으로 하여금 완성한 국가를 조성식키여야 하겟고 그 다음에는 그 靖화를<104> 近隣에 及케 하여 步一步 건설의 步程을 進할 것이니 亞細亞의 각 민족 각 민중으로 하여금 현재의 도탄에서 건져내이어야 할 것이요 그것을 다시 발전식키고 장성식키고 化育하여써 쉬이지 안을 것입니다. 그가 오늘날의 支那 사변이요 그 성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重言 復言한 사실을 분명히 條目的으로 발키면 1. 日滿 불가분 관계의 확립이요 2. 민족 協和의 실현이고 3. 王道 樂土의 완성에 잇으며 4. 그는 國 道義世界의 창건을 기도한다는 데에 귀결케 됩니다.

日滿 一體一心은 回鑾 訓民詔書의 중에 임이 그가 명시되어 잇으며, 민족 協和란 종래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대립하는 것이니 滿洲國은 복합 민족의 국가로써 국내에 日鮮, 滿, 漢, 蒙, 露 기타의 민족이 공존하고 互相 제휴하여 국가 이상의 달성에 향하여 進하려는 운명을 가지고 잇읍니다. 이들 국내에 공존하는 각 민족은 갓흔 운명하에 억매여 잇는 공동체입니다. 生을享한 인류는 원래 相共親, 相共榮함이 자연이외다. 共親키 위하여 利己를 制하고 共榮키 위하여 隣愛의 지극이 잇는 것이니 민족 協和를 실현하여써 이를 세계에 베풀고 종족의 鬭, 國제의 爭에 번민하고 잇는 현금 세계에 일대 광명을 點하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王道樂土의 실천화란 國 지상 낙원의 실현이외다. 그것은 우리가 待望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외다. 스사로 노력하고 구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일이니 만일에 滿洲 국민으로 오날의 세계에 차저 넘치는 유물적 조류에 갖치 혼르게 한다고 하면 官과 民이 대립하고 소속의 직업층이 자기의 이익만을 옹호하여서 互相 괴리하여 항쟁하게 되고 그 우에 민족 사회에 마찰이 심하여 王道樂土의 실현은 전혀 가망이 업을 것이외다. 여기에서 滿洲 국민의 생활은 무엇보다도 먼저 도의에서 출발하지 안으면 안됩니다. 도의적 생활이란 개인의 권리를 절대시하는 사상을 청산하고 동방 도덕의 진의를 실천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協和會는 滿洲제국 정부의 정신적 모체이다.」

여러분은 昭和 11년 9월 18일 부로 발표한 關東軍 사령관의 성명을 보시었습니까. 거기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協和會는 정부의 종속 기관도 아니요 대립 기관도 아니요 정부의 정신적 모체이다. 정부는 건국 정신 즉 協和會 정신 우에 구성된 기관으로서 그 관리는 協和會 정신의 최고 열렬한 <106> 체득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協和會는 건국 정신 체득자의 조직체이요 관리, 군인, 민간의 각 층에 亘하여 마치 「에텐」과 가치 滿洲國의 전면을 掩하고 있으며 국가의 표면적 기구는 이 우에 구성된 것이외다. 그러므로 協和會는 정부와 대립적 위치에 선 것이 아니요 정부를 포함한 舉國一致的, 전체주의적 입장이어서 정부의 수뇌자가 공정한 協和會 정신의 체득자로서 구성되어서 이상적 滿洲國의 통치 기구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읍니다. 왕도 滿洲國에 잇서 民意 창달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니 前記 關東軍 사령관의 성명 중에 「건국 정신의 정치적 발로 顯現은 滿洲國 정부에 據하고 그 사상적, 교화적, 정치적 실천은 協和會에 據할 것이니 民意의 창달도 이에 의하여 期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滿洲國의 국가 체제에 관한 근본 이념을 明徵하는 것으로서 그 진의는 진정한 協和會員된 자가 官에 就하여 행정자의 입장에서 그 불타는 건국 정신을 행정 명령으로 하여 민중에 發令하고 이를 실현식킴과 동시에 在野한 協和會員이 일반 민중을 지도하고 교화를 철저히 하여서 양자가 相扶相俟하여서 왕도 국가의 완성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정치 국가에 잇서 정당과 가치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 단체가 아니외다.

국가의 시설로 協和會가 창설된 것은 滿洲제국의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요 官民渾然, 一體協和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창조하려는 노력의 現顯이외다. <107>

<100-107>

89.

잡지명: 삼천리 제10권 제10호

발행년월일: 1938년 10월 01일

기사제목: 民族神聖原則

필자:

기사형태: 잡저

民族神聖原則 (민족신성원칙)

조나래, 디파라紙는 伊太利 文化省 提唱에 依한 伊太利의 夏季 大學敎授가 執筆한 『파시스트의 民族信條』라는 것을 게재하였는데 이것에 의하면 이태리도 不遠하여 猶太人을 진정한 이태리인을 인정치 않는다는 右 民族신조는 左의 10개조로 되었다.

(1) 인류사회에 민족이란 것이 존재해 있다. (2) 민족 중에는 대민족, 소민족이란 것이 존재한다. (3) 민족이란 관념은 順然한 생물학적 근거 위에 서지 않으면 아니된다. (4) 이태리 국민의 대부분은 아리안 인종으로 되었다. (5) 민족의 이동이란 것은 역사상 순수한 전설적인 것이다. (6) 순수한 이태리 민족이란 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7) 이태리 국민이 민족주의자로서의 자신을 명확하게 선언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8) 서양 인종, 동양 인종, 아프리카 인종이란 것의 사이에 명확한 구별이 지어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9) 유대인은 이태리민족에 소속하지 않았다. (10) 心身 共に 순수한 서양인의 소질이란 것을 이태리인은 끝까지 유지치 않으면 아니 된다.

더욱히 이 파시스트 민족신조는 독일의 민족정책을 수입한 것이 아니다. 독일의 그것은 哲學的 宗教的 근거 위에 있지만 이태리의 민족주의는 순수한 생물학적 토대 위에 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05>

90.

잡지명: 삼천리 제11권 제4호

발행년월일: 1939년 04월 01일

기사제목: 民族問題의 方法論, 下村海南氏 「鮮滿支의 民族問題」에 對하여

필자: 印貞植

기사형태: 논설

民族問題의 方法論, 下村海南氏 「鮮滿支의 民族問題」에 對하여

印貞植

一. 朝鮮人이 한 개의 민족적 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嚴肅한 사실이다. 왜 그러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아 朝鮮人은 확실히 언어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지역적 관계에 있어서 풍속 습관 등 민족 생활의 전통이 있어서 경제적 정치관계에 있어서 한 개의 독자적인 민족 단위를 형성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朝鮮人이 한 개의 틀림없는 「民族」을 형성하여 왔기 때문에 금일의 당면한 內鮮一體의 문제는 朝鮮人의 측으로 보아서 확실히 한 개의 민족문제로서 성립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內鮮一體의 문제는 언어 민족문화 민족전통 등<62>

여기에 주의하여 할 것은 내가 말하는 止揚이란 것 즉 「아우웨-벤」이란 말은 민족속성의 단순한 포기 폐지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內鮮一體의 과정에 있어서 朝鮮人은 그의 민족적 속성의 전부를 포기하고 大和民族의 그것에 투입되고 만다는 것이 아니

다. 內鮮一體의 과정은 곧 『朝鮮民族』이라는 편협한 의미의 민족의 개념 즉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분열된 후의 상태의 민족이 보담 광대한 보담 자연적인 역사적 지역적 분열 이전의 상태의 민족-다시 말하면 通古斯의인 의미의 민족으로 통일되고 자연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內鮮一體라는 것은 곧 通古斯 민족의 再現 과정에 있어서의 一分野를 형성하는 것이며 또 금일의 支那事變은 이 재현과정을 促成하고 구체화하는 역사적인 대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또 이 通古斯的인 歷史的 대운동에 있어서 통일의 중심이 되는 핵심적 세력은 물론 大和民族이다. 이것은 과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결정한다. 만일 과거 결정하는 것이라면 蒙古民族이 이 중심으로서 당연히 선택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현실에 있어서 大和民族만이 多岐化된 通古斯 系統의 각 민족 중에 있어서 가장 발달하고 가장 강대하고 가장 창조력이 풍부한 민족이기 때문이 그 은 또한 당연히 이 역사적 대운동에 있어서 중심적 핵심의 지위를 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大和民族이 이처럼 中心的 核心의 地位를 占한다는 것은 大和民族이 그의 固有性 전반을 조금도 止揚함이 없이 그것을 그대로 通古斯 계통의 각 민족에게 외부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은 아니다. 만일 通古斯的 통일을 위해서 장애가 되는 요소라 하면 그것이 아무리 大和民族의 固有性의 일부라 할지라도 (例하면 大和民族의 島國的 근성 같은 것)당연히 지양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內鮮一體의 문제는 또 內鮮一體를 核心으로 하는 東亞의 재편성 문제는 朝鮮人에게 있어서만 민족문제인 것이 아니라 內地人에게 있어서도 또한 민족문제인 것이다. 사실 通古斯的인 大民族統一의 견지에서 볼 때 大和民族으로서도 당연히 止揚하지 않으면 안될 허다한 島國的 개성을 가지고 있다.<63>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 改造新年號에 발표된 下村海峯의 「台鮮滿支의 民族問題」는

1. 첫째로 台鮮滿支의 민족문제를 通古斯的 통일의 입장에서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것
2. 따라서 以上 각 민족문제를 이러한 統一運動의 각 분야로서 파악치 못하였다는 것
3. 또 이 통일운동의 핵심으로서의 大和民族을 그의 당연한 위치에서 이해치 못하였다는 것 등의 출발의 오류를 *줄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우리가 日本精神을 高調하고 日本主義의 宣揚을 力說하는 것도 이러한 日本的인 것이 大和民族에게만 고유한 편협한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만일 日本主義라는 것이 또는 皇道情神이란 것이 것처럼 島國的인 편협성을 도저히 脫離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사실 그것은 『특수성은 있지만 普通성은 없다』는 일부의 論者의 비난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멀리 上古時代에 淵源되는 日本精神이란 것은 사실 通古斯精神의 가장 특수화된 또 가장 순수화된 형태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처럼 특수적인 것이기 때문이 보통적인 것이 아니면 안된다. 특수적인 것과 보통적인 것과는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해-겔』에 의하면 『특수적인 것이 보통적이고 또 보통적인 大統一의 見地에서 문제를 취급치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 氏는 이러한 역사적인 요인을 현실적 견지에서 이해치 못하였다는 비방도 면치 못할 것이다. 즉 이러한 역사적인 『팩터-』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內鮮一體의 根本 動力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명확한 진리이다. 同根同祖라는 것은 사실 2~3,000년 전부터의 일이다. 그러나 그 동안 內鮮一體의 문제라는 것은 한 번도 구체적으로 提起된 일이 없었다. 下村氏가 말한 바와 같이 『況乎 豊臣秀吉의 二度의 朝鮮役 등 內鮮의 역사는 彼我的 間爭史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말도 일부의 이유가 없지 않다.

이것이만이 『특수적』인 것이 될 수 있다<64>

二. 그러나 그러다고 해서 下村씨는 이 점을 전연 무시하기만 한 것도 아닌 것 같아 氏에 의하면 『日本の 姓氏考를 조사해 보면 朝鮮에서 나온 성씨도 참말 적지가 안타. 그들도 혹은 朝鮮에서 왔을는지 몰은다. 그럼으로 同祖者가 적지 안타는 것은 확실히 內鮮一體가 되어야 하고 과거의 역사적 『팩터-』로서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말하여 內鮮一體의 요인을 이러한 역사적인 것에서 구하여 보았다. 그러나 氏는 이러한 同根同祖의 역사적 『팩터-』을 정당한 각도에서 파악하지를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通古斯 그럼으로 內鮮一體가 금일에 있어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提起된 데는 이러 역사적인 『팩터-』이외에 다시 현실인 『팩터-』가 보담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現今에 있어서 內鮮一體의 구체적인 운동을 결정하고 促成하는 것은 무엇보담도 內鮮 兩民族이 通古斯的 견지에 입각하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의 전 운명을 同一하게 되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同根同祖라는 역사적 요인은 이러한 현실적 요인을 더욱 강화하고 促成하고 추진하는 전체주의인 迫力이 될 뿐이다.

확실히 세계는 全體主義的 方向을 前進하고 있다. 大獨逸의 통일을 보라. 또 亞細亞의 通古斯的 통일을 보라. 편협한 의미의 『계급』도 맑스主義인 의미의 『계급』도 모다 철저히 극복하면서 전진하는 이 전체주의적 통일 과정은 그러나 현실적 경제적 운명의 공통을 최대의 추진력으로 해서 固有한 淵源을 찾아서 血의 순수성을 찾아 항상 後方을 회고하면서 전방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이 현실적 요인을 下村씨는 전연 무시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下村씨의 소위 內鮮一如論 혹은 민족문제론은 문제의 중대성에 비해서 너무도 내용이 빈약하다. 말하자면 김-빠진 맥주와 비슷한 感을 준다.<65>

<62-65>

91.

잡지명: 삼천리 제12권 제3호

발행년월일: 1940년 03월 01일

기사제목: 大戰과 弱小民族 動搖

필자: 一記者

기사형태: 논설

大戰과 弱小民族 動搖

一記者

가나다의 戰爭 準備

가나다 수상 맛젠지-·깁구씨는, 3일 저녁 英獨開戰에 대하여 국민에게 방송하고, 勅令에 奉答코져 임시의회를 소집할 뜻을 발표하였다. 動員命은 既히 내리고 神兵의 모집도 개시하였다. 去世界戰爭에 출정한 노병들은 옷다와에 집합하며 있다.

가나다에서는 필요한 경우면 二ヶ師團을 歐洲 전선에 보내려고 조직중에 있다. 英本國과 협력

하는 의미에 있어서, 가나다에서는 무수한 잠수함 방어용의 추격선을 건조하게 되었다. 해군의 要員을 배가하고 공군의 전투 훈련을 맹렬히 실시할 모양이다. 의술, 기계 등의 기술원에 대한 英本國으로부터의 요망이 있으면 곧 응하도록 용의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군수품 공장 及 조선소의 증설에 대하여도 고려하고 있다.

英本國으로부터 가나다 정부에게 第一着의 협력 희망은, 원료품 구입에 관한 편의의 공여 방침에 對하야였었다. 가나다 정부는 조속히 론돈에 예금한 弗 資金의 이용을 제공하였다. 또 신용으로 물자공급을 인수하게 되었다.

맛겐지-강구 수상은 전시내각을 개조하야, 맛겐지-강구씨를 國防相으로 保健相에, 로자-스씨를 勞働相으로 국방상에 보와-씨를 保健相으로 郵務長官에, 맛구라-제씨를 郵務長官으로 勞働相에, 모도다 交迭하였다.

아일랜드 自由國의 中立

아일랜드에 자유국의 의회는 정부의 제안한 긴급법령을 토의하려고 9월 2일 소집하였다. 該 법안은 通貨, 운수, 검열, 생활필수품 등의 통제의 관한 정부의 권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滿場一致 가결되었다.

대통령 제·바레라씨는 아일랜드국은 될 수 있는 限 中立 정책을 유지할 意를 성명하였다.

국민간에는 교전국의 쌍방에 각기 동정을 가진 자가 있는 모양인데 彼等이 결연한 국민일 것 같으면 어디보담도 먼저 자국을 사랑할 것이다 함은 제·바레라씨의 말이었다.

獨逸 대사 헨켈 박사가 목요일에 제·바레라씨를 방문하야 만약 獨逸이 전쟁에 捲込되는 일이 있은즉 아일랜드국에 있어서는 중립을 엄수만하면 獨逸도 아일랜드국의 중립정책을 존중할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바레라씨는 의회에서 말하였다.

중립정책의 가부에 대하여는 양원에서<66> 장시간 토의한 것이었으나 온건한 고스구레-베黨의 잼스·제이론씨는 曰 「아일랜드 국민 대다수는 波蘭과 英佛측에 깊은 동정을 가지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가 인위적의 중립 정책을 취하기로 한다 하드래도 젊은 아일랜드에 사람은 의용병으로써 英國 군대의 투신할 것이라」고.

印度에 「不安」 解消치 않다

英國王 즉 印度 황제로부터 印度에게 선언은 월요일(9월 11일)에 시무라에서 中央立法會議의 역사적 연합회의 석상에서 太守로부터 낭독되었다.

청중은 감동으로써 謹聽하고 태수가 印度에 있어서 王侯, 정당에 지도자들과 기타 각계급의 공동일치 특히 태수의 앞에 申出한 제왕후로나 인민으로의 인적, 금전적 봉사에 대하여 말하였을 時の 萬場에 박수가 요란히 이러났다.

연방제에 대한 태수의 성명은 그것이 戰後까지 연기되었다고 하는 것이였었다.

황제로부터의 선언은 左와 如한 것이었다.

「전세계의 문명이 위협을 받고 금일의 국제정세에 당하야 英本國이 干戈을 잡고 起上한 취지에 대하여 印度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동정을 모으고 있는 점, 朕으로서는 대단히 만족하는 바이다. 또한 印度의 제왕후 及 인민 대중으로부터 申出한 고마운 원조에 대하여서는 朕이 최고하게 평가하는 바이다.

朕 及 朕의 국민이 종사하게 된 전쟁에 대하여서는 공통한 위협으로 印度 대륙의 각지로부터

동정과 원조가 모뎀은 朕이 믿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

英國은 싸움에는 하등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인류 미래에 있는 필수한 정의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말함은 문명국간의 관계가 무력으로 依지 말고 합리적인 掟에 의하여 결정케 됨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비로소 사람들은 전쟁의 데로리즘으로부터 해방되어 인류의 운명이라고도 말할 행복과 복리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印度 태수 겸 총독인 린리스고 후작은 연방에 관한 언명은 심히 危懼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왔으나 일울 것인가. 「印度의 불안 해소치 않는다」의 감을 깊게 하는 左의 뉴-스를 우리에게 전한다.

(倫敦東朝 12月 25日 特電)

今回の 英印문제는 전쟁 勅發 후, 印度 國民會議派가 英國에 전쟁 목적 及 英國 장래에 對印度政策의 관하여, 英國 정부의 설명을 요구할 결의를 가결함으로 비롯하여 印度 총독 린리스고는 이에 대하여 英領印度 及 왕후제국의 대표자 52명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결안이라하여 去十七日 白書를 발표하였으나 國民會議派는 右 白書 中の 諸제안을 不滿하여 同派가<67> 다수를 점한 지방의회 11중 8으로 同派 의원의 사임을 결의하게 이르렀으나 금일까지의 경위이었던 양자의 言分을 보건대, 전쟁 목적에 대하여서는 國民會議派는 英國의 전쟁 목적이 과연 무엇일지.

신세계 질서 건설에는 협력하지만 帝國主義를 강화하기 위하여 帝國主義的인 선에 沿하여 전쟁을 행함에 대하여서는 협력치 못한다 함에 대하여 英國 측에서는 전쟁의 목적은 첩발렌의 최근 성명이 있음과 같이, 그 일반적 목표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고 다음에 國民會議派가 印度의 완전 독립을 요구함에 대하여 本國 측에서는 자치령인 지위를 최종 콜이라하는 意를 공인하여 更히 1935년의 印度통치법의 개정에 여지가 있을지면, 전쟁 종료 후 英印 圓卓會議를 開하고 토의할 일과 及 전쟁 수행중은 총독을 의장으로 한 자문기관을 작성하여, 英領印度 並印度王侯領의 대표를 참가케 할 事를 제의하고 있다. 國民會議派는 英本國의 견해 특히 第2의 점에 관한 견해에 실망하여, 간디-는 18일 그 성명 中の 있어 「印度는 광을 구하라는 데 대하여 얻은 것은 돌이다. 원탁회의 같은 것에 실패는 必至이다.」하고 있다.

「뽀베이 10月25日發 동맹」

印度의 독립 요구에 기운은 英國의 개전과 동시에 漸益熾烈로 되야 각방면에 주목을 끌고 있으나, 25일 뽀베이 州議會는 25일 英國 정부에 대하여 印度의 民主主義 원칙을 적용하라고 한 요청할 결의안을 상정 白熱的 심의를 개시하였다. 同州 수상 벨강가다-루씨는 右결의안과는 別히 印度에게 印度 자신의 헌법이 有하는 독립국가인 지위를 인정하라 한 결의안을 주의회에 제출, 國民會議派 전국 지지의 태도를 명백히 하였다.

1935年 印度 통치법이란 「全印度聯邦」「州의 자치」「중앙책임정부의 수립」의 3항을 지시하는 것이나 제2항마는 현재 실시되어가는중이다.

國民會議派는 간디-를 長老로 하여 푸라사도에 끌려서 印度 최대의 정치 세력인 것은 주지하는 바이나 그의 對英적 입장을 취한 세력이 全印回教徒聯盟이다. 이 편은 종래 비교적 親英적인 태도를 답습하여 왔으나 그렇다고 土侯諸國과 같이 완전한 英國의 괴뢰까지는 평가되어 있지 않다. 토후들에 있어서는 印度의 독립되는 데 있어 종래 향유하고 있던 특권의 상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고로 자연 此度の 歐州전쟁에 當하여서도 對英協調의 태세를 취하며 있는 모양이다.

파레스다인의 動搖

파레스다인의 猶太人事務局에서는 左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英國의 對獨宣傳이란 속명적인 사변에 제하여 파레스다인의 猶太人은 모국의 방위를 위하고 猶太人의 안전을 위하고 英帝國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지<68> 아니하면 안된다.」

「나치스 獨逸로부터 도전케 된 英國에 있어서 전쟁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한가지 전쟁이다. 英國의 군대 及 英國民에 대하여 우리들은 될 수 있는대로 원조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 대전에 있어서 我母國이 당면될 운명에 대하여서는 何人이라도 예측이 되지 않는다.

우리들의 제일 의무는 파레스다인 猶太人의 생명을 존중히하고 그리하여 猶太人史에 있어서 彼等에 부과된 위대한 곤란한 일을 극복하도록 정신력과 체력을 강화할 것이다.」

「2세기간에 공하여, 우리들은 모국의 창조와 건설과에 있어 우리들의 힘을 표현하였다. 이제야 우리들은 단결을 굳게하여 우리들의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왔다. 우리들의 집단적 책임감은 이로부터 강화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相互扶助하여 맹훈련을 행하여 국가적 봉사에 준비치 않으면 아니된다.」

南阿聯邦도 動搖

南阿聯邦議會에서는 9월 5일 수상 헬쏘구 장군이 제안한 對獨戰爭 중립안에 대하여 부총리 겸 法相 스맛쓰 장군의 동의가 있어서 67 對 80票의 다수로 부결하였다.

스맛쓰 장군의 주장으로, 南阿聯邦政府는, 獨逸과의 관계를 절단코, 英帝國 성원으로서의 의무를 盡하도록 할 것이라 한다. 장군은 生粹의 阿弗利加人, 즉, 和蘭人을 선조로 가진 뿔-아인인데, 왕년의 세계전쟁에 제하여 용명을 날려 英主國主義의 南阿에 있어서 지주로서 유명한 사람이다.

南阿聯邦政府는 此際에 對獨참전문제의서 2派로 나노여 藏相 하벤가, 국방상 겸 상공상 빠로- 토지상 켄푸 장군, 철도 及 항만상 후-리에, 土民相 겸 文相 겸 사회복리상 화강 諸氏는, 수상 헬쏘구 장군을 지지하여 농촌상 고린스 대좌, 鑛相 제네이스·레잇 대좌, 내무 及 후생상 스닷다후오-도, 無任相 헨다-손 노동상 로-렌스 등의 각료는 부총리 스맛쓰 장군을 지지하였다.

헬쏘구 장군의 중립정책을 옹호하는 성명에 의하면 「南阿聯邦과 교전제국과의 관계는 현상이 유지되어 전쟁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대처하여 가고 싶다. 즉 어느나라에도 南阿의 영토를 전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리라. 더욱 그것에는 英帝國 及 他에 英帝國自治領과의 관계이나 의무이나의 관하여서는 심분 고려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상의 정책으로써 수행될는지, 南阿聯邦은 오는 대전의 국외에 立하여, 且, 英本國에 대한 의무도 도로혀 효과적으로 하게 될 줄 생각하는 것이다. 해군기지 시몬스다우의 방위에 대하여서는 南阿政府는 독립으로써 할 확신이 십분이 있다고 하는 말은 <69> 부언하지 않으면 안된다.」 스맛쓰 장군의 反駁는 左와 如하다.

「의회가 만약, 수상의 제안을 가결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국제법에 대한 무지를 천하에 폭로하게 될 것이다. 전시에 있어서는 적이나 我方이나에 두 진영밖에 없다. 헬쏘-구 장군은 雙方의 교전국의 대하여 善隣되기를 욕망코 있으나 英獨 어느 곳으로부터라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승인 안 할 것이고 특히 獨逸에 있어서 眞히 받을 의무는 없는 일이니까, 연방은 비상한 위기에 서게 됨은 必定한 일이다. 그것보다는 금일에 있어서 명백한 길을 골라서, 獨

逸과의 관계를 곧 절단함이 현명하지는 아니할까.

단, 英帝國에 대한 忠誠의 문제뿐만 아니라 南阿 장군의 이해로 말하더라도 그 편이 낫다고 믿는다.

他的 자치령만한 대우를 우리들이 받기를 위하여서도, -그것은 그리 멀지는 않다-此際 우리들은 他的 자치령과 同一步調를 취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리하여 他日 獨逸로부터 西南阿弗利加(獨人 약 一萬人)에 舊獨領返還을 요구한 때에 고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用意함이 필요하다. 西南阿弗利加가 만약 잃게 되는 경우에는, 南阿聯邦의 안전은 있을 리 없다고 여기서 단언한다. 고로

1, 연방의 이익을 위하여 獨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의회는 중립정책의 채용을 부결할 것이다.

2, 연방은 英本國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여 우방으로서에 又は 英帝國의 成員으로 하여서 협력을 할 일이다.

3, 연방은 其 영토 방위에 관하여 萬善을 다하여 일즉이 大戰同樣으로 원정군을 보냄은 끄리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四, 연방의 자유와 독립이 此際의 동란으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니 무력의 행사로써 국제적 정책의 수단임에는 반대한다.]

헬쓰-구 수상은 중립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의회를 해산하려고 하였으나 총독 파도룻구·단간卿은 청허치 않았다. 그리하여서 사표를 제출하고 후계 내각은 스맛쓰 장군으로써 조직되게 되었다. 신각료의 顔觸은 수상 겸 외상 겸 국방상에 스맛쓰 장군, 土民相에 레이쓰 대좌, 장상 겸 文相에 호후메야씨, 商工相에 스닷다후오-도씨, 농림상의 고린스 대좌, 내무 及 후생상에 로-렌스씨, 철도 及 항만상에 스다-룻구씨, 체신 及 公共相에 상원의원 구라-구손씨, 노동 及 사회복리상에 메제레이씨, 토지상에 상원의원 곤로이씨, 법상에 스테인 박사, 광상에 스다라-도 대좌, 무임상의 황·젤비루 소좌가 親任되었다.

9월 6일, 총독 발표의 對獨 宣戰의 선고서에는 스맛쓰 장군의 부서가 되었었다.

오-스토라리아

9월 3일 夜 濠洲聯邦의 멘치-스<70> 수상은 濠洲에서도 對獨 전시상태에 入한 意로 성명하였다. 該 성명은 긴급 閣議의 결과 총독 고우리卿의 서명을 득한 것이었다.

국방상 스도리-도씨는 언명으로는, 해군 及 공군은 전시에 卽應할 규모의 동원될 것이나 이에 당하여 신병을 徵召하게 됨은 없을 것이라 한다. 右의 국방상의 언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군사기관에서는 출정 지원병이 무수히 殺到되어 있다.

更히 멘치-스 수상은 수요일(9월 13일)의 의회에서 공군의 6ヶ부대를 연내에 英本國에 제공하도록 결정한 일을 발표하였다.

其中 四ヶ부대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편성된다. 無論, 濠洲의 공군으로서 활약하는 것이다. 차등의 공군부대를 보냄으로써 濠洲에 방비력에는 毛頭 彰響치 않는다.

濠洲의 아연, 동, 錫 등의 스돗구에 대하여서는 英本國으로의 구입 주문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其 가격은 戰前의 시세로써 取引한다.

尙, 歐羅巴로 군대를 보내게 되는 일이 있으면 其前 인민 투표를 行케될는지 모른다고 고려중의 일이라 한다.

9월 16일 정부의 입안으로 모병 계획이 즉시 실시될는지 안될지는 아직 결정 아니되었다.
등등.

국방상 스도리-도씨의 말함의 의하면 英本國으로부터는 결코 원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濠洲로서의 최대의 기여는 濠洲 자신의 방비에 있다고 말하여 있다.<71>

<66-71>

92.

잡지명: 삼천리 제12권 제3호

발행년월일: 1940년 03월 01일

기사제목: 伯林 올림픽 映畵 『民族의 祭典』을 보고

필자: 孫基禎

기사형태: 기행문

伯林 올림픽 映畵 『民族의 祭典』을 보고

孫基禎

昭和 11년(1936년), 분에 넘는 故土 여러분의 성원을 받자와, 伯林에서 열린 제11회 올림픽 대회에 출정하여 영예의 월계관을 획득하였던 일은 나로서도 눈물겨웠던 감격이거니와, 이제 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나는 그 때의 광경을 필름을 통하여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또한 한 새로운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만일 금년에 제12회 올림픽 대회가 열리게 된다면 나는 취직은 무론, 결혼까지 하지 않을 결심이였었으며, 재차 출정하여서 연승을 꿈꾸었던 것이 제2차 歐洲 大戰의 발발로 도저히 제12회 올림픽 대회가 열릴 것 같지 않을 것을 예측하고 취직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내 불 붙던 야망은 그만 수포로 돌아갔음은 섭섭하기 짝이 없는 일이나 나는 다시 앞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11회 올림픽 영화는 제1부, 제2부로, 노니여 있는데 제1부는 『民族의 祭典』이고, 제2부는 『美의 祭典』입니다.

이 올림픽 영화는 獨逸 정부에서 레-니-리-펜슈타-루 여사를 제작 수반으로 하여 올림픽 영화 협회를 결성하여 대회 기록의 영화 채록에 전력을 다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獨逸 영화계가 총동원하였으며, 촬영만도 제1선의 카메라맨이 44명이라 합니다. 특히 현대 獨逸의 카메라의 정수를 다한 것으로, 그 수록으로부터 편집에까지 레-니-리-펜슈타-루 여사는 1개여 년이란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44명의 카메라맨은 총동원하여 모든 입체적 각도에서<132> 촬영한 것이외다.

『民族의 祭典』(Fest der Volker)은 전 12권으로 올림픽아·쿠-로스丘의 성화로부터 시작하여 육상 경기 전부와 마라손의 결승으로 막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촬영 중에는 기구에 의하여 공중 촬영, 즉 俯瞰 촬영도 있습니다.

음악가 安炳昭씨가 귀국하기 전에 獨逸에서 두 번이나 보았는데 그도 매우 좋더라고 말하며, 金源權형도 작년 歐洲 필랜드에 원정갔다가 보았는데 매우 좋더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론 같

은 동포의 勝戰 장면이 있어서 감격했던 까닭도 있겠지요.

어쨌든 나로서도 감격을 不禁하는 바이며, 이 감격 속에는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이 잠재하여서 그 때나 이 때나 늘 나를 격려하여 주고 있음을 잊을 길 없습니다.

지면 관계로 三千里社에서 부탁한 올림픽아 영화 『民族의 祭典』의 감상기와, 伯林 대회 원정 여행 회상기를 다 함께 쓸 수가 없어서 금회는 伯林 대회 원정 여행기를 쓰기로 하고, 『民族의 祭典』 감상기는 차호로 밀리기로 합니다.

漢陽아 잘 있거라

滿洲里의 國境 風景

그것이 昭和 11년 6월 4일이었다. 나는 그날 오후 3시 여러 선생과 사회 인사 다수의 성대한 전별을 받으면서 먼먼 伯林行의 길에 올랐다.

京城 출발시 내 胸裏에 오르내리는 감회와 눈물겨운 감격 받은 일이 한 두 가지 아니었으나 앞을 재촉하는 기술인지라 여기에 이로 기록할 수 없고 그저 「북으로 북으로 심장을 고동시키며 떠났노라」하고저 한다. 그날 밤 열 한시 가로수에 初夏의 금음달빛이 어리우는 것을 보면서 내 고향 新義州에 당도했다. 기차 관계상 나는 그냥 安東縣까지 가서 차에 내리니 거기서 정차장까지 전송으로 나온 가족과 동무들을 만나고 그 이튿날 아침 奉天에 하차하여 시가와 北陵 등을 구경한 뒤 다시 哈爾濱으로 향하였다. 도중 新京에서 성대한 환영이 있었다. 이리하여 각지의 환영은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그럴때마다 오직 우리들은 책임이 중한 것을 통절히 느끼었다.

哈爾濱서 일박하고 연습을 조금 하고 난 뒤 다시 滿洲里에 향하였다. 沿線에는 점점을 찍은 듯한 조고만 산들이 보이고 사막도<133> 處處에 보이고 있었다. 기차가 滿洲里에 가까워 감에 따라 국경 기분이 차츰 농후하여 왔다. 기차에는 수비병이 동승하고 밤에는 카-텐을 모다 내리었다. 滿洲里에 도착하기는 9일 아침이었다. 여관에 少憩한 뒤 우리들은 시외에 나가서 연습을 하였는데 그 때 감상은 더 말할 수 없었다. 겨우 數哩를 격하여 滿蘇 兩國이 대치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더욱 白系 露人들은 고국을 목전에 보면서 돌아가지 못하는 터이라 한다.

婦人 勞働者가 多數

鐵路 修繕하는 西伯利亞

9일밤 滿洲里에서 국경을 넘어서 西伯利亞에 들어갔다. 露西亞의 기차는 滿洲里까지 오기로 되었으나 국경 세관의 검사는 실로 엄중하였다.

이로부터 5일간 西伯利亞 평원을 횡단하는 단조스러운 여행이 계속되는데 망막한 평원이 한 없이 계속되고 있는 삼림은 오직 놀날 밖에 도리가 없었다. 處處에 있는 대도시의 외에는 沿線에는 그리 많이 민가가 보이지 않으나 풀밭에는 도처에 소, 말, 양떼들이 있었다. 철도는 朝鮮 것보다 몹시 廣軌로 규모도 컷스나 시간을 잘 지켜주지 않는 데는 기마꼴다. 어쁜 데서는 30분도 정차하는 까닭에 플랫폼 홈에 내려 연습할 수 있었다.

냉수를 먹을 수 없음으로 기차가 정차장에 도착되기를 기다려 큰 병에다가 茶물 가질너 가든

모양은 몹시 珍妙하였다.

이렇게 시간을 잘 지킬 수 없었음은 선로가 납바서 생각대로 속력을 낼 수 없었든 관계라고 한다. 또 西伯利亞 철도에는 객차는 적고 일반으로 화물차가 많았다. 「웁스크」를 지낸 것은 12일 오후 2시였다. 역시 가도가도 大西伯利亞의 無人之境 같은 광막한 평야 뿐으로 朝鮮의 京釜, 京義線 같이 산이라고 불라야 볼 수 없었다.

철도 沿線에는 다수한 노동자가 일하는 것이 보였는데 그 중에도 부녀자가 철로 레-루 수선을 하고 있는 모양에는 오직 놀랐다.

莫斯科 求景

그로부터 戰地 伯林으로<134>

14일 밤 莫斯科에 도착 車室에서 일박하고 翌朝 대사관을 찾아 안내를 청하여 시가 구경을 하였다. 모스크는 쏘비엣 露西亞의 수도이니만치 여러 가지의 근대적 설비가 훌륭이 되어 있었다. 대건축과 도로의 완비에는 더욱 놀라게 하였다. 구레무린 궁전, 각종의 사원 소문에 들은 赤廣場 등 모다 장대한 것이었다.

공원에 화초로써 이 나라 정치가의 얼굴을 만들고 있는 것은 더욱 눈에 걸니었다. 오후 11시에 莫斯科를 출발하여 波蘭으로 향하였다. 蘇波 국경은 翌 16일 정오에 통과하였는데 역시 엄중한 검사를 하였다. 波蘭의 수도 「왈소」에 도착하기는 그날 오후 8시였다. 약 2시간 자동차를 타고 대강 구경을 끝마친 뒤 정작 戰地인 伯林으로 향하여 우리들은 긴장하여지는 가슴을 안은 채로 떠났다.

大統領에 對한 崇拜熱

數萬 群衆이 如狂如醉

波蘭과 獨逸의 국경을 꿈속에 지내고 이듬날 날이 밝으니 17일 아침 아홉시 쯤에 伯林에 도착 대사관의 안내로 곧 여관에 들어갔다. 코-스의 실지 답사, 시가 구경 등으로 수일을 지내고, 6월 21일에 아조 올림픽村에 들어가기로 작정이 되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보니까 대회에 대한 일말의 불안의 念이 더 커가며 조금치도 안정이 되지 않아서 시가 구경도 잘 하여낼 수 없었다. 올림픽村은 실로 유쾌한 곳이었다. 연습장(400米)를 위시하여 키네마관 목욕장 등이 완비되어 있고 외국 선수와의 쾌활한 교제 등으로 모다 유쾌한 일뿐이었다. 더구나 숙사는 뒷날 兵營用으로서 이번에 신축한 것인 모양으로 매우 편리하였다. 이리하여 올림픽村의 유쾌한 생활에 습관 되어 나서 이제는 조금씩 연습을 행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伯林으로부터 올림픽村까지 뺄스로 40분이 걸린다.

거기에서 伯林까지 와서 당분 緣을 끊고 이 村에 드러 잠기어 다만 대회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8월 1일 개회식, 9일 마라손, 16일 폐회식 등과 대회 프로그램은 순조로 진행되었으나 대회에 대하여는 이미 신문 영화 등에 의하여 상세히 보도되었을 것임으로 여기서는 略한다. 마라손이 다 끝난 뒤 겨우 重荷를 버서 버리고 난 듯한 기분이 나서<135> 백림 시가로 천천히 구경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국가 통제의 下에 마치 한 개의 기계가 움직기 듯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마 獨逸의 일대 특색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의 설비도 이를 잘 표현하고 있었다.

시가지 곳곳마다 너르고 대규모의 공원이 시설되어 있고 도로의 설비는 가장 규칙이 정확하여서 모다 보행차, 말탄 이, 자동차, 마차, 전차가 모다 各異한 길을 짓고 있는 것은 실로 이상적이었다. 또 오후 7시가 되면 모든 상점이 모다 문을 다치고 휴업하는 것도 他處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獨逸의 특색으로 더 한 가지 해려하는 것은 국민간에 히틀러 총통의 숭배열이 왕성한 것이다.

개인간의 인사에도 「하일 히틀러」를 부름은 물론, 스타지움에 히틀러가 한번 나타나면 실로 굉장하다. 장대를 덥고 있는 수만의 군중이 오른편 손을 높이 들어 큰 소리로 「하일, 히틀러!」를 부르는 것은 실로 장관이었다.

丁抹서 對抗 競技하다

飛行機를 타고, 구름 속을 날아

8월 19일 오전 10시 伯林 비행장으로 가서 5, 6명의 동료 선수들 함께 丁抹로 향하였다. 하늘 공기 높이 구름 속을 지나서 미지의 나라로 가는 것은 실로 상쾌하였다. 약 2시간 공중을 나른 뒤 정오경 首府 코벤하-겐에 착륙하였다. 同地는 섬 한쪽 편에 쌓여진 항구로 모든 것이 짜여진 아름다운 도회였다. 丁抹이 모범 농업국이라 함은 이미 들어온 일이나 조합이나 농장, 학교 등을 실지로 보고 다시 그 조직적인 방법에 놀랐다. 8월 21일에 丁抹과의 대항, 경기가 있었고 췌 22일 오전 11시 반 코-벤하-겐의 비행장을 출발하여 우리는 巴리로 향하였다.

奢侈없는 「巴里」

다시 도-바 海峽 건너 倫敦에

코벤, 하-겐을 출발한 뒤 중도에 漢堡에서 잠시 휴게하고, 동일 오후 5시 반 巴리에 도착하였다. 巴리서도 대사관의 안내로 시가의<136> 중요한 곳을 구경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전부터 드러오든 거와 몹시 그 情趨가 달나진 것이다. 巴리는 그저 사치를 몹시 한 화려한 도시라고만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침착스러운 곳이었다. 전후 2차나 巴리에 체재하고 있는 동안 대개 일흠 있는 명소는 모다 구경하였는데 그 중에도 엠피탑, 개선문의 장대함에는 오직 놀났었다.

巴리서 23일 日佛 대항 경기를 끝내고, 췌朝 7시, 巴리를 출발, 一路 倫敦으로 향하였다. 佛蘭西의 카레港까지 기차로 5시간 도-바 해협은 기선으로 두 시간이 걸리었다. 英吉利의 도-바港에 상륙하여 기차로 약 한 시간 가면 倫敦에 도착된다. 우리들은 오후 3시 倫敦에 하차하여 그 날 시가 구경을 끝 마치고 췌朝 9시에 倫敦을 출발하였다.

倫敦은 그야말로 세계 최대 도시의 하나인 만치 그 규모의 큰 것에는 오직 감격할 밖에 없었다. 쉘스河, 倫敦塔, 국회 의사당, 웨드민스타 사원, 박물관 등 유력한 곳은 모다 대개 구경하였다. 倫敦의 특색은 歐羅巴의 다른 도시가 우측 통행을 하는데 朝鮮 모양으로 좌측 통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도시 계획도 우수하여 歐洲의 대개의 도회가 모다 그러하지만 倫敦만은 그 중에도 청결이 잘 되어 있었다. 예정과 같이 倫敦을 출발하여 도-바카레과의 往路를 고쳐 그날 오후 5시에 다시 우리들은 巴리로 귀착하였다.

그리운 옛 文明이여

大羅馬 時代의 歷歷한 자취

8월 27일 아침 6시 巴里發의 기차로 伊太利에 향하였다. 佛利 국경을 넘은 것은 그날 오후 6시 반경 이 부근 일대는 알푸스 산맥에 마키여 국경은 기차로 약 20분이 걸리는 터널이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8시경 토리노-에 도착, 즉시 호텔에 들어갔다. 9월 1일 아침 10시 토리노-發 기차로 首府 「羅馬」로 향하였다. 동일 오후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하여 그 이튿날 대사관의 안내로 시가 구경을 시작하였다. 市中 도처에 옛날 大羅馬 시대의 웅대한 건축물이 보이며 또 천주교의 사원이 많은 것은 羅馬의 일대 특색을 짓고 있었다. 더욱 「유-롭」의 장대한 품은 羅馬의 문명이 어떻게나 찬란하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137>

9월 3일 아침 열시 羅馬를 출발하여 오후에 나폴리 항구에 도착하여 小憩하고 오후 3시 자동차로 폼페이에 향하였다. 폼페이는 부근 화산의 폭발에 의하여 기원 1세기경에 매몰되었든 도시로 근래는 거지반 모다 발굴되어 舊態를 남기고 있어, 당시의 문화를 목전에 이야기하고 있었다. 당시 쓰이고 있던 水道가 그대로 남기여 있는 것도 희한한 것이었다. 도시의 저쪽에는 아직도 화산이 연기를 뿜고 있었다.

약 2시간의 폼페이 구경을 내뚫고 자동차로 「나폴리」에 돌아온 것은 오후 7시경이었다.

印度洋上의 六日

歐洲선 가을이 여기는 여름

나폴리에서 하로 밤을 밝힌 뒤 9월 4일 오후 3시, 아조 나폴리 출발의 伊太利 기선 콘데로-스號를 타고 귀국의 길에 올랐다. 그로부터 3일간의 地中海 航行을 끝 마치고 7일 夜 埃及의 뽀-드, 사이드에 寄港, 일박하고 翌朝 다시 출발, 스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8일 夜 스에즈港에 도착하였다. 스에즈 운하는 全長 161浬라 하는데 수심이 엇기 까닭에 십분 속력을 낼 수 없고 통과에 17시간을 요한다고 한다. 스에즈에 1박하고 9일 朝 同港을 출발, 13일 夜 紅海의 입구 아텐에 寄港, 다시 6일간의 印度洋 航行을 마친 뒤 9월 17일 아침, 印度 孟買港에 입항하였다. 중도의 여행은 사면이 모다 망망한 대양으로 실로 단조를 극하였든 것이나 특히 記코저 하는 것은 아마 紅海 及 印度洋의 더위일 줄 생각한다. 이런 더위는 나는 나서 처음의 경험이었다. 歐羅巴를 출발할 때에 이미 가을 같아졌는데 여기서는 아조 盛夏 白晝에는 103도까지 올라 가고 있었다. 적은 선실에 4개의 선풍기를 놓고도 땀이 작고 흘렀다. 갑판에 나와서 더운 열풍이 바다로 부러 오는 것이 무에라고 말 할 수 없이 괴로웠다.

砲臺 많은 香港 風景

印度 文化를 두루두루 본 뒤

孟買에선 기선의 고장 때문에 1주간 체류하기로 되어 하로라도 속히<138> 고국에 돌아가려

하는 우리들에게는 여간 실망이 아니었으나 그 대신 孟買의 구경은 거지반 완전히 끝내었다. 印度는 대체에 있어 朝鮮보다도 문화 정도가 나쁜 듯이 보였다. 거리거리에는 비교적 큰 건축도 있었으나 상점 등은 대개 빠락式이었다. 도시 설비는 英國人의 경영이니 만치 매우 진보된 듯 하였다. 여기서는 더위 때문에 극장 등은 오후 10시경부터 오전 2, 3시까지의 사이에 開演한다고 한다. 약 1주일 체재 후 기선의 고장도 다 수선되었으므로, 9월 24일 아침, 孟買를 출발하여, 중도 코롬보에 寄港하여 27일 오후 8시 싱가포르에 입항하였다. 거기에서 간단한 시가 구경과 환영회에 임한 뒤 오후 12시 다시 新*坡를 출발하여 香港으로 향하였다. 香港에 도착된 것은 10월 1일 아침 早朝, 여기서도 환영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특히 눈에 띄이는 것은 도처에 포대가 나열하여 있고, 또 많은 군함이 정박하고 있는 것이었다.

上海서 마즈막 一泊

서울에는 飛行機로 돌아오다

香港을 그날 오후 3시 출발 3일 오후 2시 上海에 상륙하여 하로 밤 자고 4일 오후 11시 캐나다 기선을 타고 6일 아침 長崎에 상륙하였다. 거기에서 환영회에 갔다가 오후 5시 長崎發 7일 夜 6시 神戸 입항.

8일 오전 9시, 아조 東京에 도착, 解團式은 그날 있었다. 나는 16일 東京을 떠나 비행기로서 17일 오후 2시 그리운 京城으로 돌아왔다.

이것으로 나의 4개월에 미치는 여행을 대강 기록했는데 다른 기회 보아 좀 더 자세히 쓰고저 하노라.<139>

<132-139>

93.

잡지명: 삼천리 제12권 제8호

발행년월일: 1940년 09월 01일

기사제목: 民族의 祭典

필자:

기사형태: 회고·수기

民族의 祭典 (민족의 제전)

世界的 覇者 「孫基禎, 南昇龍」氏로부터 4年前 伯林大會의 올림픽아映畫 「民族의 祭典」에 대하여 回想을 듣다.

映畫 『民族의 祭典』評

金東煥-지난 7월2일과 3일 양일간 京日文化映畫劇場에서 試寫會가 있는 영화 『民族의 祭

典』에 대해서 그 보신 감상을 말씀해주십시오.

孫基禎-4년전의 일을, 더욱이 내가 다른 장면을 필름을 통해서<48> 이제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실로 感慨無量하기 짝이 없으며 당시 伯林에서 대회광경을 직접 보던 때와는 또 다른 감격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民族의 祭典』은 스포-츠영화요 따라서 한 개의 기록영화지만 레-니·리-펜슈타-르여사의 예술적 天分에 의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준 획기적인 構圖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여러분도 시사회에서 보셨으니 구태여 여러 말을 피합니다마는, 이 영화에서 五大陸 전세계의 끓고 뛰는 젊은이의 피와 肉이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긴장과 흥분 속에서 가장 眞摯하고 순수한 민족투쟁을 계속하는 그 『肉體美의 跳躍』에 보는 이로 하여금 숭엄한 인간미와 장렬한 육체미에 경기자와 같은 긴장과 흥분 속에서 「人間讚美」를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南昇龍-여하간, 올림픽대회는 五大陸의 각 민족이 「平和의 交歡」속에서 투쟁하는 一大民族의 제전인데, 영화 『民族의 祭典』을 통해서 각 경기의 각 선수의 一舉手一投足에 그 절실하고 순수한 감정이 끓어오르며, 그러면서도 그것이 기록영화에만 끄치지 않고 성격이 잘 묘사된 것과 예술적 芳香을 잘 풍겨주는 것에는 저 역시 리-펜슈타-르여사에게 사의를 표하기를 주저치 않는 바입니다.

毛允淑-전 『民族의 祭典』의 감독 레리·리-펜슈타-르여사가<49> 1個의 영화감독만이 아니라 훌륭한 시인인 것만 같이 생각돼요. 그 올림픽아 유적인 古代希臘건물조각과, 남녀 裸像조각의 端正한 형식미의 묘사에 감격했어요.

崔貞熙-내 생각엔 남자감독이라면 기록영화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것처럼 또렷하도록, 올림픽 光景을 눈으로 본 이상으로 나타내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여자감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孫基禎-허어! 이거, 여자자랑을 너무 하십니다 그려.(一同笑)

朴啓周-米國선수로 나오는 흑인 오웬스를 一個의 人間除外의 구로테스크한 괴물로 보겠지만 영화 『民族의 祭典』에서는 어떻게든 인간적인지요! 스타-트線上의 그의 날카로운 응시와, 격한 호흡과, 입살이 말라서 혀끝으로 적시는 그 긴장의 극치에 달한 자태는 실로 인간적이지요, 인간미를 담백 품은 장엄한 자태드군요.

崔貞熙-전 오웬스가 그 초조와 긴장에 쌓여서 허덕이는 진지한 태도와, 그러다가도 그 친구가 씩 웃는데서 어떤 매력을 느꼈어요. 하긴 히틀러總統도 이때까지는 그저 木石과 같은 인간으로 알아왔지만, 자기나라 선수가 出場하면, 특히 여자선수일땐 더욱 남자선수가 나왔을 때보다, 또다른 한가지 표정을 하는데 「그도 亦是 피가 흐르는 인간이로구나」하고 一種의 흥미를 갖게 됐어요.

孫基禎-어쨌든 영화를 통해서 영화가 가진 기능의 最高度를 발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三千里」6월호에도 제가 『民族의 祭典』의 鑑賞記를 썼지만, 제11회 올림픽아영화는 제1부 제2부로, 노니여 있는데 제1부는 『民族의 祭典』이고, 제2부는 『美의 祭典』입니다.

이 올림픽아영화는 獨逸정부에서 레니·리-펜슈타-르여사를 제작首班으로 하여 올림픽아映畫協會를 결성하여 대회기록의 영화採錄에 全力을 다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獨逸영화계가 총동원하였으며, 촬영만도 第一線의 카메라맨이 44명이라 합니다. 특히 現代獨逸의 카메라의 精髓를 다한 것으로, 그 수록으로부터 편집에까지 레니·리-펜슈타-르여사는 1個年이란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44명의 카메라맨은 총동원하여 모든 입체적 각도에서 촬영한 것이외다.

『民族의 祭典』(Fest der Volker)은 전12권으로 올림픽아·쿠-로스도의 聖火로부터 시작하

여 육상경기 전부와 마라손의 決勝으로 막을 닫게 되는데, 그 촬영중에는 氣球에 依하여 空中촬영, 즉 俯瞰촬영도 있습니다.<50>

올림픽競技의 由來

金東煥-올림픽경기의 유래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孫基禎-올림픽경기는 지금으로부터 2천7백년전인 西紀前776년에 希臘나라 올림피아에서 처음 시작되었었는데, 당시 「제우스」神前에 올리는 祭事로서 올림피아경기가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도 4년마다 한번씩 「제우스」神前에 올리는 祭事와 함께 경기도 계속 거행되었으며, 이 祭事を 중심으로 古代希臘의 그 絢爛한 문화가 생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羅馬)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신생활을 육체생활보다 過重視하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올림피아경기는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서기396년, 즉 제293회의 올림피아祭를 맞이하여서부터 2년뒤인 서기394년에 테오도시아스大帝가 올림피아祭의 금지령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1천1백68년간이나 계속해 오던 올림피아祭의 역사적 경기는 그만 폐막의 비운에 봉착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다가 서기476년에 제우스神殿이 콘스탄티노플에 옮기게 되자 불타버렸고, 올림피아聖地에는 코-트族이 濫入하고, 그후 지진까지 있게되어 豪華를 자랑하던 올림피아는 지하20尺 밑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永滅狀態에 속하였던 올림피아경기는, 文藝復興期 이후, 歐羅巴에 있어서 한창 전성시대의 觀을 못하고 있던 進化論사상과 團體의사상이 올림피아 부활운동의 문화사적 母胎가 되었었으며, 19세기에 들어서서는 歐羅巴에 배출된 많은 考古學 학자들은 古代希臘의 연구에 흥미를 가지고 遺蹟발굴사업이 성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결정적 성공을 보게된 것은 獨逸 학자 에른스트·클티우스氏의 발굴사업에 의하여 1874년부터 1881년까지의 만7년간에 올림피아유적은 거의 완전하게 그 姿態를 地上에 再現케 되었지요.

이 올림피아유적의 발굴로 인하여 希臘의정신의 부활을 보게 되었으며, 이에 자극된 올림피아<51>경기의 近代의 부흥을 企圖한 것은 서기1896년 佛蘭西의 교육자 빠-엘·드·크렘단男爵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서 제1회 대회가 由緒 깊은 希臘나라 아테네(雅典)에서 개막되었다 합니다.

朴啓周-그 뒤로 제11회 대회까지의 대회장소 순번은 어디어디였습니까.

南昇龍-제2회 대회는 1900년에 佛蘭西 巴里에서 개최되었고, 제3회는 1904년에 聖路易에서, 제4회는 1908년에 英國 لندن에서, 제4회는 1912년에 瑞典 스톡홀름에서, 제6회는 제1차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중지되었고, 제7회는 1920년에 安府에서, 제8회는 1924년에 佛蘭西 巴里에서, 제9회는 1928년에 암스터-담에서, 제10회는 1932년에 米國 로스안젤스에서, 제11회는 獨逸 柏林에서 개최되었지요.

毛允淑-日本에서 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는 어느해부터입니까.

南昇龍-1912년도에 瑞典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5회 올림픽대회였습니다. 그 당시 마라손경기에는 金栗四三선수가 出場하였고, 그후 매회마다 마라손선수를 파견하였으나, 霸權을 차지 못하다가 24년만에 孫군의 奮戰으로 인하여 비로소 宿望의 世界制覇를 실현케 되었습니다. 이것에는 전혀 故國父兄母妹 여러분의 성원에 있었다는 생각과 동시에 감사함을 不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米洲로스안젤스에서 개최되었던 제10회 올림픽대회에 出征하여 마라손경기에 6着하였던 金恩培형과 9着하였던 權泰夏형, 두분 선배를 생각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孫基禎-사실 그래요. 만일 그 두분 형이 아니었으면 우리들은 세계대회에 출정할 자극도 그리 받지 못했을 것이요, 따라서 두분 선배가 불행히 제패못한 그 雪怨을 부끄러운 말씀이나, 우

리가 갇아야겠다는 義憤과 용기를 얻은 것도 두분 선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朝鮮사회는 그 두분의 존재를 씻은 듯이 잊어버리고, 만일 잊어버리지 않았다고해도 그들을 정신적으로까지 돌보지않는다는 것은 불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1着을 해야 天地가 문어갈 듯이 떠들고, 6着 9着을 했다고 그들을 心的으로까지 후원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두분이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運動朝鮮』을 널리 세계에 알리려고 장구한 시일을 扠하여 奮鬪努力한 그 功을 몰라보는 일이라 생각지 않을수 없습니다.<52>

入場式 光景과 스타지암

金東煥-昭和11년, 伯林에서 개최되었던 제11회 세계 올림픽 경기대회에 51개국이 참가하였는데 각국 선수는 약 몇 명이었나요.

孫基禎-각국에서 모인 선수가 3천여명이었는데, 관중은 10여만이었습니다.

崔貞熙-日本선수는 몇 명이나 참석했나요?

南昇龍-伯林대회에 출정했던 日本선수의 總數로는 각종 경기를 합해서 1백76명이었습니다 마는 선수외에 감독, 코-취, 기타 從員까지 합하면 近 3백명이나 참석했지요.

毛允淑-8월 1일부터 경기가 시작되었다는데 京城서 떠나시기는 언제였습니까.

孫基禎-그해 6월 4일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열리기 近 2개월전에 京城을 출발한 모양이지요.

金東煥-가셔서 2개월동안은 줄곧 연습에만 힘썼습니까.

南昇龍-네, 가서도 그 좋다는 歐洲문명의 諸施設도 구경 못하고, 경기연습에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朴啓周-그때의 입장식 觀景을 爲先 말씀해 주십시오.

孫基禎-영화 『民族의 祭典』에서 보시다싶이 獨逸 히틀러總統은 국제올림픽위원장 랫-루男爵과 獨逸올림픽위원장 레-왈드氏에게 인도되어 입장하고, 다음 각국 선수가 각기 자기나라 국명을 쓴 牌木든 사람과 國旗를 든 사람의 뒤를 따라 입장하는데, 올림픽 발상지의 希臘이 제1회(1896년)올림픽·마라손 우승자 루이스를 선두로, 이하 각국은 ABC順에 따라 서고, 주최국 獨逸이 맨 나중에 입장했습니다. 이리하여 입장이 끝나자 뒤를 이어 히틀러總統이 서서 제11회 올림픽대회 개최를 선언하고, 祝砲聲이 요란히 울리며 數十마리의 비둘기가 대회장의 창공을 날지요. 그때 리히알트·스트라우스작곡의 올림픽頌歌의 합창이 우렁차게 울리는데 이때 希臘 알페오의 궁전으로부터 炬火를 가져오는 最後の 走者 푸릿쯔·실겐(일찌기 5천米와 1만米 기록 保持者)이 會場에 도착하여 마라손塔上에 점화합니다. 이 올림픽聖火는 8월16일인 폐회식 날까지 계속해서 불붙고 있지요. 여기에서 漸間 그 聖火의 유래를 말씀하면, 一種 神話인 모양인데 옛날 希臘처녀의 손에 의해서 태양열에 聖火가 점화되었다 하며, 여러분도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영화 화면에는 希臘선수 콘스탄스·고이리스君이<53> 先頭로 리레식으로 이때까지 열린 7개국대회장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3,075키로를 隔한 伯林경기장에 들어옵니다. 이리하여 聖火가 塔上에 점화되자 뒤를 이어 선수대표로서 루돌푸·이스마엘선수(그는 前回の 重量揚優勝者世界記録保持者)가 宣誓하는데 그 선서는 이러합니다. 『우리들은 올림픽아경기에 있어서 光榮 있는 戰士로서 경기규칙을 遵奉하며 武士道정신에 쫓아 조국의 영예와 스포-즈의 光榮을 위해서 싸우기를 서약하노라』

朴啓周-그런데 영화 『民族의 祭典』을, 통해서 입장식 광경을 보면 51개국 선수가 모두 당당히 한팀이 되어 입장하는데 東洋에 或 어떤 나라가 입장하는 것이 보이지 않드군요. 그럴理야 없겠지요?

南昇龍-네, 참가한 나라중에 或 영화에 보이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드군요.

崔貞熙-今番 伯林대회장의 스타디움은 얼마나 커요? 東京神宮경기장의 몇배나 돼요?

孫基禎-몇배될 건 없구, 東京神宮경기장보다는 크드군요. 아마 東京神宮경기장을 伯林경기장 속에 집어넣으면 폭 들어갈 정도였지?(南氏를 향해 머리를 돌리며 묻는다)

南昇龍-그렇지, 그 정도밖엔 되지못해.

毛允淑-그럼 그리 대단히 큰 건 아니군요.

南昇龍-그래도 스타디움이 東京것보다 훨씬 높아서 굉장해 보여요. 맨 우에선 경기장면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망원경을 가지고야 보게끔 됐어요.

올림픽村과 應援群

崔貞熙-毎日 경기장에 나와서 구경했어요.

孫基禎-못했습니다. 첫날 입장식 때와 그 이튿날 한번 南君과 가치 참석해서 경기구경을 하고는 그 뒤로는 줄곧 南君과 둘이 마라손 연습에만 시간을 보냈어요.

金東煥-늘 올림픽村에서 연습했습니까.

南昇龍-안요. 정말 마라손코-스인 『아브스』도로에서 늘 뛰어다녔지요. 「마라손」경기는 올림픽육상경기의 최후일인 8월 9일 오후 3시에 각국 선수 52명이 참가하여 출발하였는데, 경기장을 일주하고 정문을 나가서 「클비왈드」의 樹林을 지나 「아브스」도로를 왕복하여,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는 고개도 있어서 실로 難코-스입니다.<54>

朴啓周-다른 나라 선수들도 늘 「아브스」도로에서 연습합니까.

孫基禎-별로 연습하는 선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늘 우리 들만 미친 놈처럼 그 고개를 올려뛰고 내려뛰고 했지요. 다른나라 선수들은 대개 올림픽촌에서 연습을 하나 그렇게 매일 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번 마라손에 2등한 英國선수 하-마君도 마라손경기가 끝난 뒤에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毛允淑-올림픽촌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가치 사귀여 지내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南昇龍-올림픽촌은 각국 선수들이 留宿하는 기숙사인데, 올림픽경기가 끝나면 그 기숙사를 항공병사의 기숙사로 사용키로 예산하고 건축한 것이며, 올림픽촌에서 별로 외국선수들과 사귀며 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처제 마라손연습을 하느라고 「아브스」도로에서 뛰고 놀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英國선수들은 별로 사귀이기를 질기지 않는 모양인지는 몰라도 어디에 박혀있는지 통 알 수가 없어요. 그 밖에 외국선수들도 역시 자기들 할 일이나 할 뿐이지 별로 이렇다 하게 사귀이지를 않드군요.

金東煥-米國선수로 나오는 흑인 오웬스君과는 도모지 사귀여보지 못했나요.

孫基禎-오웬스君과도 별로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百메돌경기에 10초2의 기록을 냈고, 走巾跳에 8메돌06이라는 올림픽기록으로 1等했는데, 그 높이 뛰기도 잘하지만 달키도 잘 하드군.(一同笑)

金東煥-영화에서 보면 오웬스君이 스타-드하기 전에 긴장과 흥분에 혈떡어리며 잔뜩 눈알을 치켜뜨고 앞을 노리며 바라보는 그 날카로운 시선은 실로 인간성 그대로를 표현했는데, 장관입니다.

崔貞熙-하기야, 스타지암에서 구경하고 있는 히틀러總統을 보구려. 자기나라 선수가 1등이 못되고 2등이나 3등이 되어서 앞을 다투게 되면, 무의식중에 안타까워서 무릎을 썉썉 굽다가는 궁둥이를 들었다 났다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 光觀을 보면 당대의 영웅도 어린애와 같잖아

요.

毛允淑-별 수 있수, 그두 사람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얼굴을 막 찡그리기도 하고, 자기나라 선수가 지면 자리에 털석 주저앉으면서 입맛을 켜쩍 다시는 것이 꼭 獅子갈더라니까. 그리구 자기나라 선수가 이기면 막 일어나서 박수치는 그 光景이란 실로 人間味 답부리드군요.

朴啓周-히틀러總統과 面會하기는 언제였나요?

孫基禎-마라손경기가 끝난 뒤였습니다. 그 전에는 만날 面目도 없고, 마라손경기가 끝난 다음엔 당당히<55>(笑) 澁谷團長과 함께 스타지암에 앉아있는 히틀러總統을 방문하니 히틀러總統은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주며 악수를 청하기에 악수했지요. 그리고 악수하기 전에 먼저 제가 獨逸式으로 「하이러·히틀러-」를 부르며 팔을 쭉 펴면서 히틀러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내 등을 툭툭 두들겨 주며 칭찬해 주는데 등을 두들겨 주는 품이 똑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만 같아서 좀 안됐드군.(一同笑) 그리고, 그 친구의 눈알과 수염은 실로 무섭고도 묘하게 생긴 명물이두군.(一同笑)

南昇龍-그리구 스타지암에서 응원하는 각국 민족의 그 긴장과 흥분의 열광적 표정은, 여러분도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경기하는 선수들이나, 응원대나 다같이 참으로 각 민족투쟁의 一大 심포니-애요.

競技記錄과 마라손制覇記

金東煥-支那선수들이 참가한 경기가 別般 없나보드군요. 영화 『民族의 祭典』에는 走高跳에 王이라는 선수가 나왔다가 等數에 들지 못하고 마는 것을 본 것 외에는 도무지 없었는데 사실 경기에 있어서도 그랬나요?

孫基禎-사실 이렇다할 경기에도 별로 참가하지 못했지만 우승자도 전혀 없어요. 4億萬이라는 세계최고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그 4億인구 속에서 이렇다할 선수 하나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甞라들이드군.(一同笑) 支那선수가 出征하기는 49명이나 했지요.

朴啓周-이번 육상경기의 일등기록만 말씀해 주십시오.

南昇龍-「圓盤投」에 米國선수 카-펜타-君이 50米48(올림픽기록)으로 일등했고, 「女子圓盤投」에는 獨逸선수 마우엘마이엘이 47米63(올림픽기록)으로 일등했습니다. 「女子槍投」에 獨逸 푸라이셀이 45米18로 일등, 「女子80米障礙」에 伊太利 바-라가 11초7로 일등, 「鐵槌投」에 獨逸 하인君이 56米49로 일등, 「100米競走」에 米國 오웬스君이 10초3으로 1착, 「女子走高跳」에 洪牙利 작크가 1米60으로 일등, 「砲丸投」에 獨逸 웰케君이 16米20으로 일등, 「800米競走決勝」에 米國 옷드라푸君이 1분52초9로 1착, 「三段跳」에 日本 田島直人이 16米(세계기록)으로 일등, 「走巾跳」에 米國 오웬스君이 8米08로 일등, 「5,000米競走」에 新西蘭 라부록크君이 3분47초8(세계기록)으로 1착,<56> 「走高跳」에 米國 존손君이 2米03으로 일등, 「110米高障礙」에 米國 타운스君이 14초2로 일등, 「槍投」에 獨逸 스텝크君이 71米84로 일등, 「10,000米決勝」에 芬蘭 살미-넨君이 30분15초로 1착, 「棒高跳」에 米國 메도우스君이 4米35로 일등, 「女子400米繼走決勝」에 米國템이 46초9로 1착, 「400米繼走」에 米國템이 39초8(세계기록)으로 1착, 「1,600米繼走」에 英國템이 3분9초로 1착, 「마라손」에 우리 孫基禎君이 2시간29분19초2(올림픽기록)으로 1착이외다.

이상 말한 것은 『民族의 祭典』에 나온 육상부의 기록뿐이고, 수영이라든가 스켈트, 스키-등은 올림픽아영화 제2부 『美의 祭典』에 나오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割愛하기로 합시다.

金東煥-다음 마라손 制覇戰이나 얘기해주십시오.

孫基禎-그날이 8월 9일, 올림픽 육상경기의 최종일이자, 마라손이 최종경기였는데, 경기장에

나서니 가슴은 두근거리고 초조한 마음은 이로 형용할 수 없어요. 민족의 투쟁이니만치 이 제전에서 참패한다는 것은 나 일개인의 참패가 아니고 내 민족 전체의 참패인 것만 같아서 이 무거운 짐을 걸머진 나는 아무리 세계기록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연습을 했다고 할지라도 최후의 鬪爭場에 나서니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올림픽대회에서 마라손은 대표적 최고경기요, 그 거리도 42浬195(4,275米, 26哩4分之1), 朝鮮里數로 계산하면 1백7里인데 이 1백7里를 두시간 반에 走破하자니 自轉車만큼은 뛰어야돼요. 그리고 이 경기는 古代希臘의 故事에 則하여 올림픽대회에 加한 것으로, 올림픽경기를 통하여 가장 意義있는 경기요, 1착만 하면 세계의 영웅의 명칭을 가지는 光榮을 입게될 뿐만 아니라, 이 마라손 일등 우승자에게만 한해서 주최국에 동상까지 세워 줍니다.

日本에서는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마라손경기에 있어서 단체작전을 사용하여온 관계로 지금까지는 실패를 보았다고 하며, 그 때문에 伯林대회 때에는 단체작전을 버리고, 나와 南君은 개인작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日本에서 마라손선수로 네사람이 뽑혀갔지만 마라손경기에는 한나라에서 세사람밖에 참가하지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나와 南君, 鹽飽君 셋이 참가했지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그날 오후 3시에 각국선수 52명이 출발하여 경기장 추력을 一周하고 경기장 외로 나가서 「클비알드」의 樹林을 지나 「아브스」도로를 왕복하는데, <57> 스타-트 直後부터 前回 올림픽·마라손에 우승한, 알젠티人 자바라君이 쭉쭉 스피-드를 내어 선두에서 달코 있어서 채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후 약 8浬로까지는 나는 英國선수 하-바-君과 나란히 서서 제2위로 달코 있었지요. 그때까지도 나는 하-바-君이 英國선수라는 것을 몰랐고, 回歸點에서 돌아서서 올 때에도 역시 자바라가 선두에 섰고 나와 하-바-는 그냥 나란히 서서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 30浬되는 지점에서 하-바-君이 英國선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가치 달던 英國선수가 떨어져서 돌아오는 길에서 하-바-君을 열심히 응원하는 것을 보고 그가 英國선수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나 내나 南君은 선두에 서서 달는 前回 우승자 자바라君이나 英國선수 하-바-君보다도 芬蘭나라 「누루미」라는 사람이 코-취하는 芬蘭3選手가 제일 강적으로 무서워했습니다. 그래도 하-바-君의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었는데 호흡상태가 피로된 것을 알고 앞을 내뺄어서 뛰었으며 그 뒤로는 하-바-君이 나를 쫓지 못하고 늘 떨어졌으며, 선두에서 달던 자바라君은 출발시부터 너무 速하게 뛴 관계로 32浬 지점인 고개에 오르는데 와서는 그만 氣盡脈盡하여 醫務員에게 보조되어 기권하자 나는 그때부터 최선두에 서서 달게 됐어요.

그런데 경기 前日 日本응원단에서는 6哩되는 지점에서 응원하기로 정했는데 6哩되는 곳에 와도 아무도 응원하는 사람이 없고, 그야말로 뽕 구어먹은 자리여서 낙심까지 됐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좌우에 늘어선 群衆속을 응원하는 사람 한사람 없이 적적한 마음으로 달키는 하였으나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고, 그러니 뒤에 따라오는 선수가 얼마나한 거리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껍 안타가웠습니다. 그리자 고개를 넘어서 佐勝코-취를 만나게 되어 「꼴」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짐작하게 되었으며, 경기장안에 돌아 들어와서 한바퀴 도는데도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제는 어김없이 1착은 내것이로구나 하고 역시 채조로 꼴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만일 그때의 제 기세로는 40리는 더 뛴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南君도 마라손경주가 더 계속된다면 자기 역시 4, 50리까지는 더 뛴 자신이 있더라고 말하드군요. 여하간 나중에 權泰夏氏에게서 들어서 알았는데 경기장 입구에 돌아 들어와서 추력에서 꼴까지 13초에 뛰었다고 하는데 그 「타임」의 측정은 米國 코-취가 <58> 했

다고 해요. 이리해서 2시간29분19초2로 영예의 月桂冠을 획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全同胞의 至誠의 후원과 지지라고 생각하니 감격하기 짝이 없습니다.

朴啓周-朝鮮에 있을 때에는 얼마의 기록까지 내어 보았습니까.

孫基禎-2시간26분42초였습니다. 그것이 세계기록이었지요.

南昇龍-저는 回路에서 마지막 고개를 달아 올라갈 때, 이 코-쓰가 제일 어렵고 괴로운 코-쓰인데 내 앞에는 맨 선두로 자바라君, 다음은 孫君과 하-바-君, 그 다음엔 바로 내 직전에 芬蘭3選手가 처음부터 언제나 셋이 나란히 서서 달는데, 나도 다른 누구보다 누루미가 코-취한 이 세 선수가 제일 무서워요. 이 세 사람을 떨어트려야 할텐데 꼭 내앞에 서서 셋이 다르면서 기회를 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일편으로 걱정두 돼요. 이 세 선수한테 빼앗기나보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셋을 뚫고 나갈 궁리만 하고 그냥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고개중턱을 지나 올라가서 자동차 한 대가 세 선수 옆을 지나가요. 그때, 웬다 됐구나하고 나는 자동차를 새에 두고 그들이 보지 못하도록 살짝 몸을 빼여 그들 앞에 뛰어나갔지요. 그리하여 자동차가 지나가자 그들은 자기들 앞에 의외에도 내가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때부터 셋은 나란히 달던 것도 집어치우고 나를 떨어트려야겠다고 서로 앞을 다투는데 나 역시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을 양으로 최선을 다해 달았지요. 악을 악을 쓰며 달았는데 그들은 끝까지 나를 떨어트리지 못하고 4着, 5着, 7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시간31분43초로 3着하였습니다. 2着한 英國선수 하-바-君은 2시간31분23초2였었구요.

世界各國의 旅行談

金東煥-세계각국으로 다니시던 여행담이나 이야기해 주십시오.

孫基禎-京城을 떠나서 시베리아를 경유하여 巴里, 런던, 로마, 地中海, 印度를 거쳐 돌아온 세계각국의 여행담은 「三千里」6월호에 仔細히 썼으니 여기에선 여행담은 略하기도 하고, 印度이야기나 하지요.

印度 孟買에 내려서 하루를 묵으려 했는데 의외에도 배가 고장이 생겨서 일주일을 묵게됐지요. <59> 첫째로 印度는 매우 더운 곳이라는 것이 아직도 인상깊게 남아 있는데, 하기는 스에스運河를 지나 紅海에 들어섰을 때에는 어떻게 더운지, 밤에 갑판에 나가서 벌거벗고 앉아도 땀이 좌악좌 손아지는게 도모지 잠잘 수 없어요. 천하에 그런 더위란 처음 당해봤으며, 印度의 밤거리에는 사람들이 左右人道에 쭈욱 나와서 원통 잠을 자요. 거 장관이든군. 이불도 덮지 않고, 길 左右에 폭 덮여서 자는데 정말 이상한 感이 납니다. 그리고 낮에는 모두 누구나 雨傘을 들고 다녀요. 交通巡查까지도 옆구리에 우산을 차고 다니는데, 거, 또한 장관이든데요. 더워서 우산 가지고 다니는지, 혹은 언제 비올지 몰라서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지 알 수 없지만 거리로 다니는 사람마다 우산 들고 다니는 것은 다른 데서 보지 못하던 현상입니다. 심지어 형사까지도 우산을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데!(一同笑) 그리고 더운 탓으로 印度사람들은 혼도시만하고 거리를 다녀요. 영화도 더워서 밤10시반부터 시작하더군요.

南昇龍-그리고 印度사람들은 거리를 가다가 길가에서 파는 붉은 나무껍질을 一錢 주고 나서 씹다가는 배알아버리는데, 마치 껌을 씹다가 배알는 것과 같아요.

孫基禎-나는 처음 그걸 보고 咯血하는 줄 알고, 印度에는 肺病者가 참 굉장히 많구나 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후에 알고 보니 붉은 唾液이더군요.(笑) 그리고 印度에 있는 在留內地인들이 이야기하는데 印度에는 宗教싸움이라는 것이 매우 심하다구 합니다. 宗派와 宗派끼리 意見不睦으로 一大 亂鬪가 일어나는 일이 非一非在인데 그럴 때마다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구해요. 그래도 英國官憲들은 주위를 둘러싸고 구경할 뿐이지 말리거나 중지시키지 않는

다고 하며, 사상자가 많이 나기를 기다린대요. 그것은 印度민족이 멸망하기를 기대하고, 그 민족의 數조차 적어지기를 바라는 例의 老繪한 英國의 惡政策이라고 內地人들도 그걸 구경한 이는 모두 비난합니다. 그리고 藥들을 팔지 않아요. 나두 藥 쓸 일이 있어서 하루종일 돌아다니다가 파는 데가 없어서 못샀는데, 이것도 印度백성이 병나면 그대로 죽으라는 정책인가 봐요.

朴啓周-文化정도는 어때요? 우리 朝鮮人보다는?

南昇龍-잠시 보아서 단언하기는 어려워도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체림체림이라든가, 가옥제도라든가, 또는 風俗, 문화 등이 모두 떨어져 보여요. 마치 우리가 미개한 滿洲人을 대하듯한 기분이 나요.

金東煥-伯林대회가 끝난 후 어디서 <60> 제일 환영합니까?

孫基禎-印度에 있는 內地人民留民들이예요. 巴里에서는 日本대사관에서는 만찬회가 있었고, 그밖에 룬돈이나 羅馬에서도 그렇지만, 印度에서만 성실히 환영해 주더군요.

崔貞熙-印度선수들은 무슨 경기를 제일 잘 해요?

孫基禎-「혹케-」라는 운동인데 올림픽대회에서 印度선수가 제일 잘하고, 또 霸權을 잡고 있어요.

毛允淑-각국 선수의 기질은 어때요?

南昇龍-獨逸청년은 단정하고, 씩씩하고, 英國청년들은 제게 상관없는 일에는 모두 지쳐 견디지 못하는 품이 사실 쥔틀맨이더군요. 그러구 제일 떠들고, 경기때도 시비를 일으키려하고, 映畵場에서도 알개질하는 것은 伊太利청년들입니다. 올림픽촌에서 每夜 그날 경기를 영화하는데 유독 伊太利선수들만 떠들고 알개질하죠.

孫基禎-英國人은 참으로 자기 일에 충실하더군요. 마라손경기가 끝난 뒤에 英國선수 하-바-君이 자기가 먼저 나를 찾아와서 인사를 해야지, 내가 一等人인데 먼저 찾아가서 인사할 필요가 없다고 뿔뿔하면서 뱃장을 내여밀고 앉아 기다렸더니 도모지 오질 않아요.(一同笑) 그래서 나 종엔 할 수 없이 내가 지기로 하고 먼저 찾아가더니 이 친구가 글썽 경기가 끝나가 英國으로 돌아갔다는군요. 공장의 一職工이라는데 공장일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급히 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참 자기직무에 충성스럽더군요.

世界大會를 目標하고

金東煥-세계 올림픽대회를 목표하고 마라손 연습하기는 언제부터였습니까.

南昇龍-저는 대회에 出征하기까지 꼭 11년간이라는 長久한 시일을 연습에 소비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자면 一朝一夕에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長久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라손도 그저 잘뛰면 되려니 하고 우습게 볼지 몰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고향인 全南 順天에서 小學校때 從兄되는 이가 군대에서 주최하는 마라손에 참가하여 늘 일등하는 것이 꼭 부러워서 그때부터 달는 것을 연습했지요. 그리고 16才 때 京城서 열린 朝鮮神宮경기에 全南體育協會에서 저를 順天서 일등한 者라고 과견했었는데 5천메돌에 그만 우승을 못하고 참패했으나 도모지 실망하지않고 다시 고향에서 연습해 가지고 <61> 그 후 매년 京城에 출정해서 1만메돌에 일등과 이등을 했지요. 그 후 東京가서 대학에 다닐 때도 權泰夏, 金恩培 兩兄이 로스앤젤레스대회때 우승못한 것이 원통해서 가구싶은 茶房에도 못다니고 술과 담배도 금하고, 하구싶은 연애도 금하고(一同笑) 마치 修道士 모양으로 禁慾생활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마라손선수는 담배나 술을 먹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라손경기라는 것은 朝

鮮 里數로 1백7里를 2시간30분간에 주파해야 하는데 대개는 70리에 가서 그만 중지하고 맙니다. 70리에서 그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 넘기면 되는데, 이 참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내하는 정신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修道士 모양으로 一切의 금욕생활을 하지요. 孫君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술과 담배를 안먹는 것은 먹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견디어 이기려는 정신훈련과 육체훈련을 위함 이외다. 제가 東京서 대학에 다닐 때 아침저녁으로 매일 마라손연습을 했는데 연습한 후 매일 다니는 목욕탕집 곁에 유명한 「우론자」라는 茶房이 있는 것을 6년간이나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몰랐어요. 하루 학생들이 「우론자」「우론자」하고 말하기에 졸업할 때 물었더니 『아, 이놈이 너의 집 근처에 있는 그 유명한 茶房두 몰라?』하고 놀리운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려면 이렇게 성공하려는 그 일에만 열중하고, 다른 일에는 무관심해야 될 줄 압니다.

孫基禎-저는 대회에 출정하기까지 7년간 마라손연습을 했습니다. 고향인 新義州에서 普通學校때 5천메들에 일등했으며, 그 덕택으로 京城대회에 왔었으나 첫해는 2着하고 말았지요. 그 다음 2回때에 1着을 했지만 그때까지도 마라손이라는 말도 모르는, 실로 촌뜨기였답니다.(一同笑) 그 후 東亞日報社주최의 京城 永登浦間 마라손경기에 처음 마라손이랍시고 해봤는데 일등 못했어요.(一同笑) 그 후 京城 仁川間마라손에도 參戰했었습니다. 마라손 잘하는 덕택에 貧寒한 나는 養正中學에 입학하게 됐고, 그 뒤로는 하루도 빠지않고 줄곧 5년간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비가 오던지, 바람이 불던지, 날이 흐리던지, 눈이 오던지를 도모지 상관하지 않고 연습했지요. 대개 그 코-스는 養正學校에서 출발해서 黃金町, 東大門, 昌德宮, 總督府 앞을 돌아서 學校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龍山을 지나 漢江건너 鷺梁津까지 갔다오기도 했습니다. 경기대회라는 것은 비오는 날도 하기 쉽고 흐린 날에도 하게 되고, 또는 아주 뜨거운 날에도 하게 되는 것이니까<62>언제나 어떠한 기후 속에서든지 늘 연습해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매일 뛰고 달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성공에는 南君의 말같이 「努力第一」이요 「忍耐第一」이요, 「訓練第一」이지요.

後繼者 養成과 스타지암 建設

金東煥-두분께서 앞으로 마라손에 더 주력하시지 않으렵니까. 그리고 계승자를 길러낼 의향은 없으세요?

孫基禎-웨 없겠습니까. 「三千里」6월호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썼지만, 만일 제12회 올림픽대회가 열리게 된다면 저는 결혼도 하지않고 취직도 하지않고 기어히 連勝하려고 꿈꾸었던 것이 東西의 戰火로 제12회 대회가 중지될 것을 예측하고 그만 결혼과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직하고 보니 연습은 커녕, 한달에 한번도 京城운동장에 구경조차 못가게 되니, 寒心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伯林에서 우승하고 돌아올 때는 요렇게까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높은 자리를 바라거나, 놀구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경기도 그냥 계속 연습할 수도 있고 그 방면으로 활동할 여유를 사회에서 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사회가 주는 여유는 커녕 운동방면에서 활동하는 인사들까지도 모른척 하는 데는 氣가 막혔습니다. 卑近한 예를 들면 養正中學이 제 母校요, 따라서 육상경기를 가장 힘쓰는 학교인데 한번두 우리들과 연락을 취하는 법도 없고, 우리를 불러다가 후배들에게 체험담이나, 또는 코-취도 시키지 않지요. 毋論 이론으로는 체조선생이 우리보다 낫다고 할지 몰라도 경험에 있어선, 건방진 말같지만 아무래도 근10년간 수련한 우리가 낫지 않겠습니까.(笑)비단, 내 모교뿐만 아니라 무슨 체육협회이니 하는 체육단체도 역시 이 태도지요. 뛰거나 잘 뛰었지 네까짓 것들이 알기를 무얼 알겠느냐는 태도인지, 世界覇者니 감히

황송해서 연락을 못취한다는 태도인지!(一同笑) 南君의 고향인 順天에서 한번 초빙하여 南君과 가치 가서 코-취해본 일이 한번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답엔 운동계와는 통 連絡杜絶이랍니다.

南昇龍-사실 그래요. 孫君과는 늘 만나면 하는 말이지만 후계자를 길러서 마라손마는 다른 나라에 빼앗기 않고 每回마다 우리 日本이 우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孫君도 늘 말기를 權泰夏, 金恩培, 넷이서 사업도<63>가치 하고 마라손協會나 體育協會같은 것을 창설해서 「마라손日本」으로 세계에 氣焰을 뽐내고싶고 후계자를 양성해서 세계패권을 우리 손에 쥐고 싶고, 또 영원히 계속시키고 싶으나 사회가 후원해주지 않으니 어찌하는 수가 있습니까. 입에 풀칠하기에도 급하니 더 말해 무엇하겠어요.

朴啓周-그러시다면 후계자를 위한 사업을 단념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孫基禎-아니요. 아뭏든 좋은 應援者가 있으면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中學校나 專門學校에서 연락을 취해준면 가장 겸손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체험으로써 후계자 양성에 노력하렵니다.

그리고 한가지 사회에 바라는 바는, 전번 西洋에 가보니 伯林이나 巴里나 羅馬에는 한 町에 한 운동장이 있어서 보건과 체육에 여간 留意獎勵하지 않는데, 우리 京城같은 데도 每町에 하나씩 둘 수는 없어도 3, 4箇는 더 설치해주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이것은 保健을 위해서도 가장 유익한 사업인데, 羅馬에 가보니 「뭇소리니-스타지암」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朝鮮에서도 학교창설이나 그밖에 사회사업에만 유의할 것이 아니라, 각 도시에 각개인 투자의 스타지암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컨대, 京城에도 京城運動場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 崔昌學氏나, 李鍾萬氏나, 尹致昊氏나, 또 朴興植씨, 閔奎植같은 富豪諸氏가 義捐하여서 「뭇소리니-스타지암」이라 하듯이 「崔昌學스타지암」, 「尹致昊스타지암」, 이 모양으로 많은 운동장을 건설하는 것이 보건과 체육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또 그 사회사업이 어느 모으로든지 매우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運動朝鮮」으로 大氣焰을 뽐낼 우리의 빛나는 선수들로는, 力技에 南壽逸氏, 三段跳에 芬蘭헬싱키市까지 출정나갔던 金源權, 競馬에 閔大植氏의 子弟분인 閔병선君, 레스링에는 明治大學 金明夏君, 郭정운君, 기타 스키, 수영, 권투 등에 상당히 유망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축구에는 이론적, 과학적 연구가 깊은 金益斗목사 아드님되는 분도 다 運動朝鮮의 자랑이오, 이들을 더 激勵助長해서 세계대회의 우승자가 되게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사회에 있지않을까요?<64>

<48-64>

94.

잡지명: 삼천리 제12권 제8호

발행년월일: 1940년 09월 01일

기사제목: 戰爭文學과 民族文學, 나치스와 民族文學

필자: 데이트릿히 젯켈 데이트릿히 젯켈

기사형태: 논설

戰爭文學과 民族文學, 나치스와 民族文學 (전쟁문학과 민족문학, 나치스와 민족문학)

데이트릿히 췌켈

현대의 獨逸에서의 사상의 중심이라고 볼 개념은 민족이다. 민족적 통일을 목표로 과거 幾千年의 獨逸國 발전의 자취를 찾아보건대 민족의 이념이 어떻게든 중요하였는지를 곧 알 수 있으리라. 민족의 이념은 추상적, 이론적의 것이 아니고 사라있는 전체로서 우리의 眼前에 있는 현실인 것이다. 생활에서 遊離한 추상적 이론보다 산 현실에의 轉向이 現代 獨逸의 철학, 과학, 경제, 정치, 교육에서의 사상과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다.

문학도 또한 민족 전체의 생활 속에 독자의 역할을 有하며 그 사명은 민족의 본질을 밝히고, 민족생활의 種種相을 究明하여 민족의 存在意義를 描出하는데 있었다. 문학은 현실생활의 彼岸인 공상의 세계에 <208> 安住하는 것이 아니고 純然한 공상의 문학에서라도 현실생활의 창조적인 力으로서 충실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俗塵을 피한 고독의 시인도 무의식 중으로 민족의 생활의 관여하는 것이다. 무의식이라 하지 않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민족의 心體로부터 시를 펴오는 이상 거기에 生하는 작품은 민족정신의 顯現인 것이다. 「국민의 姿를 映한 예술작품이 영속성을 요구」할 수 있다.

문학은 단지 문인들의 唯美的인 향락이 아니다. 獨逸의 시인들은 終始 唯美的 文學觀에 반향하여 세계대전 이래 온갖 非獨逸의인 病的 현상에 대하여 자기를 주장하여 온 것이다.

세계대전은 獨逸人에게만 與한 크다란 비극적 체험으로서 獨逸민족의 魂을 深底로부터 움직인다. 미처 짐질 수 없는 의무와 함께 무한한 淨福과 强健한 蘇生の 힘이 거기로서 生하여오는 바이다.

戰後의 全般的 불안과 초조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들이 갈 길을 힘군게 示하는 者도 없고 부흥은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것같이 생각되었다. 그 사이에 국민 중에는 민족정신을 고수하여 온 孜孜營營한 노력도 있었기는 하였지만 世人이 인정하게 되지는 못하였다. 戰後의 문학은 참된 獨逸魂을 가지지 않은 작가들에 의해서 되었었다. 예컨대 「토마스·만」이며 「하인릿히·만」과 같이 합리주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者도 있으며, 극단으로 심리적 내지 정신분석적인 기교로써 되는데로 病的인 심리문제며, 사회적 붕괴현상적을 묘사하는 者도 있었다. 우수한 기교와 예리한 관찰을 가진 작품도 있기는 있었으나 국민생활의 深奧로부터 遊離하여, 국민적 정조도, 큰 목표도, 민족의 미래를 고려하는 책임감도 없었던 것이다.

문단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유대적 작가는 비상한 호평을 博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작품은 유대적 특성을 가진 「獨逸語로 쓰여진 문학」에 불과하며, 참된 「獨逸文學」은 아니었다. 無論, 유대적 작가 중에는 비상한 동화력을 가지고 獨逸精神의 분위기에 들어간 者도 있었으나, 그들은 겨우 2백년간 獨逸 문화생활에 동무한 客人에서 불과하며, 더욱이 때때로 자기들 마음대로의 客人들이었던 것이다.

勿論, 戰前 及 戰後라고 하지만 獨逸민족의 心髓를 捕捉한 작가도 적지는 않았으나, 전쟁과 혁명과 인플레이션의 여파를 받아서 국민일반에게는 참 價値를 보이게끔 될 힘이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 洞察도 높아지고, 특히 國粹社會主義的인 指導에 의해서 민족이 급속으로 그 건전함을 恢復함과 함께 <209> 오랫동안 파묻혀 있는 수없는 財寶가 밝음 아래에 끌려나왔다. 獨逸精神을 宣明하는 이들의 작품은 민족재생의 대사업을 완성할 힘과 용기와를 국민에 주고 이리하여 시인은 다시 「민족의 소리」가 된 것이다.

시인은 반드시 소리높이 부르짖는 者는 아니다. 獨逸의 시인은 孤獨無言의 탐구자요 往往 냥

만적인 夢想者였다. 어찌하였든지, 인생의 深奧에 생각을 잠입케 하는 타이푸의 인간이었다. 이점은 금후에도 별반 변함 없을 것이다. 허나, 孤獨無言의 시인이야말로 도저히 獨逸的이요, 그들의 입을 뚫고 나오는 것은 바른 민족의 정신인 것이다.

現代 獨逸의 작가는 대체로 세 가지 제네레이손에 노닐 수가 있다. 금일 60세 내지 70세의 長老層의 작가들은 이미 戰前에 처녀작을 쓴 者들이며, 獨逸精神의 영원한 가치가 戰後의 암흑시대를 통하여 문학 속에 남은 것은 주로 이 長老層이 원숙한 창작활동을 묵묵히 계속하여 온 것에 의한다. 다음, 소위 戰爭層이다. 스스로 戰線에 나가 그 체험에 의해서 성격과 인생관을 練綴한 오늘날의 40세 내지 50세의 사람들이다. 다음으로, 少壯層의 작가들은 어렸을 때 戰後의 고난을 맛보고 자랐으며 國粹社會主義운동에 盡瘁하여 금일 붓을 잡고 청년과 獨逸國의 미래를 지도한 사람들이다.

현대 獨逸문학의 주요한 테-마의 하나는 「민족의 운명으로서의 세계대전」이다. 전쟁문학의 중심을 만든 것은 개개의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고, 이 대사건의 민족전체, 즉 獨逸魂과 獨逸的 인간에 대한 의의와 그 영원성인 것이다. 카뮈사·빈딩·뜨벤가-·뻬-나·윤가-, 其他 다수의 작가는 모두 스스로 參戰하여 전쟁에 의해서 露呈된 생명과 존재의 深奧를 洞見하고, 씩씩한 大業, 자기에게 대한 솔직, 전우의 至情, 철과 같은 義務 수행에 눈 뜬 인간의 자태를 直親하는 것이다. 세계와 인간과에 새로운 척도가 부여되었으며, 죽음이야말로 참생을 顯示하는 것이 되었다. 그 題材는 인간존재의 근본문제와 민족적 운명의 문제이며, 이 점에 있어서 군국주의적, 혹은 평화주의적인 전쟁문학들도, 色褪된 전쟁보고들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工場勞働者요 시인인 「하인리히·레루슈」의 「우리들은 죽어도 獨逸은 산다」라는 구절로 끝맺은 시와 같은, 수많은 불멸의 시를 품은 戰爭 抒情詩는 가장 이를 나타내고 있다.

獨逸민족의 또 하나의 운명문제는 현대 가장 우수한 장편의 하나인 「한스·꾸림」作 「生活圈 없는 민족」<210>의 표제에 의해서 示現되고 있다. 多年, 舊獨領 西南아프리카에 살고있는 現實肌의 애국자 꾸림은 獨逸민족이 너무도 狹隘한 생활권내에서 不遇를 卿하는 자태를 아프리카에서 수공업에 종사하는 一獨逸 청년의 운명으로 하여 묘사했으며 快逞한 성격과 불굴의 정신으로써 식민지에서 자기의 인간건설을 뜻하고, 바른 인간의 생활을 모범적으로 實踐躬行하는 겨름 없는 獨逸人의 힘을 나타냈다.

민족의 과거를 長處든지 短處든지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여실히 묘사하며, 국민을 戒하고 奮立케하는 것은 시인의 숭고한 사명이다. 獨逸민족의 영원의 특성, 그 역사적 표현, 운명의 起伏 속에 감초여진 정신력을 직관적으로 포착하여, 산 자태를 구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빌헬름·슈-뻬-」는 獨逸史의 각 시대에 취제한 단편물의 형식으로 이를 試하였다. 골벤하이아-는 중세기말 及 루네산스시대의 큰 정신적 갈등에 새로운 해석을 내려서 이를 다시 소생케 한 우수한 形而上的인 장편을 쓰고 있다. 부롱그는 다시 고대에 거슬러 올라가 獨逸민족의 父祖生成시대에 있어서의 고대 켈만의 세계를 眼前에 髣髴케하는 일련의 장편을 저술하고 있다. 현대 최대의 여류작가 이-나·자이델은 최근 발표한 장편에 있어서 루터이래의 종교적, 도덕적, 창조적인 긴 전통을 가진 프로테스탄트 僧侶의 도덕적 품성과 국민적 德性を 示하며, 그 名시대의 정신을 묘사했다. 먼저 이 여류작가는 정치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波瀾重疊의 나폴레옹전쟁 당시의 獨逸부인의 母性愛를 눈물겨웁게도 따뜻함과 놀랄만치 생활의 풍부함으로 묘사했으며, 獨逸민족의 깊은 속에 머문 본질적인 힘에 대하여 뢰-테·슈테이푸타-와 케라-의 衣鉢을 버금하는 실로 거장적인 해석을 내렸고, 이 장편은 正히 獨逸문학,

아니, 세계문학의 최대 걸작에 손꼽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영원히 변함없을 무한의 창조력을 가진 대자연, 대지, 해양, 天空의 생명, 향토, 동식물, 天候들을 절실히, 그러나 感傷的이 아닌 농민, 어부, 其他 소박한 인간의 원시적 생활에 착안하는 작가도 있다. 「영원의 밭」 「빵」 「소박한 생활」 등의 標題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세 작품의 작자는, 北歐 출생의 농민소설 大家 꾸리-제요, 인간의 운명의 위기와 대자연에 의한 救濟를 말하는 東푸로시아 출생의 뻬-히엘트요, 人跡이 드문 深山에 肥沃한 땅을 구하여 씩씩한 인간의 투쟁을 말하는 알푸스 농민의 시인 빠아쯔게루루다. 여기에도 어머니인 대자연에 친하는 독일적 인간의 영원한 건설력이 나타나 있다. 기술적 문명과 생활을 떠난 지성과 추구하여 대자연에 배반하는 때, 참 인간은 멸망하는 것이다.<211> 인간의 창조적인 인격의 힘과, 위대한 정신력은 자연으로부터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뻬-테 及 낭만파와 같이 현대작가도 시인하고 있다.

슈-만, 뿌룩크마이야와 같은 가장 젊은 시인들과 히틀러·유겐트에 속하는 다수의 청년은 공동체, 友誼, 민족, 국가, 총통을 위한 투쟁이라는 체험을 젊은 영웅적 생활감정과 생활의 욕으로써 묘사하고 있다.

요컨대 현대 獨逸문학은 국민생활의 일환으로 하여 현실에 卽한 생활형성의 문학이요, 인간에게 정신적 윤리적인 힘을 주고 세계의 신비를 感得케 함과 동시에 민족의 국민적 신화를 만들고, 인간의 魂과 민족의 정신을 기르려 함이다. 문학은 전체로부터 생긴 전체에 봉사한다. 한편에 있어서는 신비적, 운명적인 세계의 속인 獨逸의 인간의 참 생활과 정신을 밝히 함과 함께 他方에 있어서는 獨逸민족이 나아갈 미래의 길을 가르치고, 그 大任에 건넬 힘을 주는 것이다. 시인은 민족의 대변자인 동시에 지도자요, 행복과 중대한 의무와 책임을 질머지고 있다.

최후로 독일문학이 외국문학, 세계문학에 대한 관계 如何. 獨逸문학은 獨逸민족의 정신을 顯示한 것이므로, 이것이 他민족에 알려지고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일은 극히 중요하다. 獨逸문학이 他민족의 정신생활에 많은 새로운 가치 있는 것을 寄與함과 如히, 금일 獨逸은 가치 있는 외국의 국민문학에 대하여서도 欣然히 그 문호를 열고 있다. 어떤 민족적 특성을 가지지 않는 소위 「국제적 문학」, 즉 主智의인 大都會 문학은 세계의 어데서든지 容易히 이해되며, 이 때문에 不當의 인기를 博하고 있다. 문학이 민족적이면 민족적일수록 他민족이 이를 참으로 이해하기는 곤란하다. 예컨대 歐羅巴人은 日本의 抒情詩를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그렇다면 예컨대 日本人이 뻬-테에 있어서와 같이, 또는 獨逸人이 호-마-, 판페, 섹스피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他國의 민족문학의 深奧에 부딪치는 沈潛的인 연구는 충분히 값어치는 것이다. 실로 현대 獨逸문학은 그 국민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한 국민적 특성이었기 까닭에 세계문학의 一大 분야를 만들고 있다. 뻬-테가 「세계문학」의 이름 밑에 열거한 문학은 모두 극히 민족적인 문학이었다. 즉, 希臘의 호-마-, 伊太利의 판페, 英吉利의 섹스피아는 모두 철두철미 민족적인 시인이다.

-끝- <212>

<208-212>

95.

잡지명: 삼천리 제12권 제8호

발행년월일: 1940년 09월 01일

기사제목: 戰爭文學과 民族文學, 中國文學의 世界史的 理念

필자: 前北京大學校長 蔡元培 전북경대학교장 채원배

기사형태: 논설

戰爭文學과 民族文學, 中國文學의 世界史的 理念 (전쟁문학과 민족문학, 중국문학의 세계사적 리념)

前北京大學校長 蔡元培

一

歐洲 근대의 문화는 모다 문예부흥시대로부터 展化하여 온 것이며, 더구나 이 시대에 부흥한 문화는希臘羅馬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인하는 바이다.我國周來의 문화는希臘羅馬에 比擬되어 一種 煩瑣철학의 시기를 경과한 점도 또한 歐洲의 중세와 相近하며 문예부흥운동을 有치 않고져 이 衰勢를 만회하기는 불가능하였다. 5.4운동의 신문학운동은 즉 문예부흥의 개시였었다.(중략)

13세기에 及하여 伊太利의 시인 판테는 비로소 伊太利語에 의한 가장 저명한 長詩「神曲」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의연히 천국지옥의 舊套을 답습하였으나, 그 묘사하는 바의 인물은 모다 개성을 발휘하여 교회의 유형에 구애되지 않고, 文辭의 優美 또한希臘문학의 깊은 영향을 受하였으면서 이와 필적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歐洲문예부흥시대의 開山이었다. 그 후 문학에서 예술에, 문예로부터 과학에, 다시 또 정치상, 종교상에서 일종의 혁신운동이 행하여졌다.

我國의 고대문화는 周代로써 가장 徵信할 바라고 한다. 周公의 禮樂을 제작한 것은希臘의「소론」에지지 않으며 東周의 末 孔子의 立行이 모다 중시 되어 循循하게 善誘함은 正히 소크라테스와 如하며, 孟子의 性善을 唱하고 天道를 말한 것은 正히「뿌라-톤」과 如하며, 荀子の 群經를 傳하며 예법을 持하여 稷下의<213> 祭酒될 것은 正히「아리스토-돌」과 如하며, 老子的 神비는 正히「피다고라스」와 如하며, 陰陽家の 五行으로써 만물을 설명한 것은 正히「엔페도, 그레스」의 地水火風으로 우주의 木源이라고 한 바와 如하며, 墨家の 自苦는 正히「스토아」학과와 如하며, 莊子の 樂觀은 正히「에피크로스」과와 如하며, 名家의 韋 변은 正히「소피-스트」와 如히 縱橫家の 言은 正히 웅변술과 如하다. 기타「周體」의 수학「素問」의 의학,「考工記」의 공학,「墨子」의 물리학,「爾雅」의 생물학과 如함은 이미 과학의 기초를 수립하였다.

문학방면에서는「周易」의 潔靜함,「禮記」의 근엄함,「老子」의 名貴함,「墨子」의 質素함,「孟子」의 條達함,「莊子」의 俶詭함,「戰國策」의 悖麗함, 이에 산문의 성황을 볼 수 있으며 風*頌의 시, 荀卿, 屈原, 宋玉, 景差의 辭賦는 써 운문의 성황을 볼만한 바가 있다.(중략)

二

北洋軍閥이후 자유사상의 勃興은 더욱 抑遏할 수 없어, 이것을 대표한 것이 陳獨秀의「新青年」이었다.「新青年」은 民國4년에 창간하여 그「敬告干青年之書」는 특히 下記와 같은 文義

를 말하였다. 즉

- 一. 자주적으로 非奴隸的
- 二. 진보적으로 非退守的
- 三. 진취적으로 非退隱的
- 四. 세계적으로 非鎖國的
- 五. 실리적으로 非虛文的
- 六. 과학적으로 非想像的

民國8년에 至하여 「新青年宣言」이 있는데

「吾人は 이와 같이 信한다. 세계 각국의 정치상, 도덕상, 경제상의 인습적 관념 가운데 進化를 阻礙하며 情理에 합치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吾人は 사회의 進化를 求코저 하면 須히 天經地義를 타파하지 않으면 <214> 안된다. 예전부터 그렇다고 하는 成見은 吾人は 이 舊관념을 포기하는 동시에 일면 前代의 賢哲, 當代의 賢哲, 及 我等 자신이 생각하는 창조상, 도덕상, 경제상의 신관념을 종합하고, 신시대의 정신을 수립하고, 신사회의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吾人の 理想으로 하는 신시대, 신사회는 성실한, 진보적, 적극적, 자유로운, 평등한, 창조적, 아름다운, 선한, 화평한, 相受的인, 互助的인, 勞働을 하여 유쾌한, 전사회의 행복한 사회이다. 그 허위인, 보수적인, 소극적인, 속박적인, 계급적인, 인습적인, 추한, 악한, 전쟁적인 軋轢해서 불안한, 惰懶해서 煩悶的인, 少數만의 행복한 현상이 점차 감소하고 소멸하는데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述하고, 또 「新青年 罪案의 答변서」에는 「저들이 書誌를 비난하는 所以는, 孔敎를 파괴하고 예법을 파괴하고, 貞節을 파괴하고, 舊윤리(忠孝節)를 파괴하고, 舊예술을(中國劇)을 파괴하고, 舊종교(鬼神)를 파괴하고, 舊문학을 파괴하고, 舊정치(특권정치)를 파괴했다는 罪狀밖엔 안된다. 이들 죄상을, 本社 同人은 당연 꺼릴 것 없이 승인한다. 하나 그 본원에 올라가면, 本誌 同人은 무죄다. 오직 德莫克拉西와 塞因斯의 二先生을 옹호하기 物해서만이 하늘이 아는 大罪를 범한 것이다. 德선생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孔敎, 예법, 貞節, 舊윤리, 舊정치에 반대하게 못되고, 塞先生을 塞護하기 위해서는 國粹와, 舊문학과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다. 同誌가 民治주의와 과학정신을 주장한 것은, 正히 前後一如한 것이나, 「舊문학을 파괴시킨 罪案」과, 「舊문학반대」의 성명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공히 國民 8년이였다. 이것은 「新青年」誌上에 문학혁명을 제창한 것이 5년에 起하기 때문이다. 5년 10월, 胡適으로부터의 來書에 「今日 문학혁명을 말한다면 모름직이 八事로부터 入手할 일. 一曰, 典을 사용치 않을 일. 二曰, 陳套語를 사용치 않을 일. 三曰, 對仗을 講치 않고. 四曰, 속자 속어를 피하지 않고, 五曰, 모름직이 문법의 結構을 講求할 일. 六曰, 無病的 신음을 作하지 않을 일. 七曰, 古人을 모방하지 않을 일. 모름직이 자아를 알 일. 八曰, 모름직이 이것을 말함으로서 사물을 알 일」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陳獨秀는 6년 2월에 「문학혁명론」을 발표하고 「문학혁명의 기운은 醞釀已에 一曰뿐 아니라, 처음 義旗를 든 急先鋒은 즉 我友의 胡適이다. 余는 全國 學究의 敵을 滅하고, 높이 문학혁명군의 大旗를 張先生에게도 죄다 嘗試하기를 희망하고 싶다. 이외에 「新青年」의 寄稿家와 國內의 白話文을 짓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만약 자진해서 嘗試한다면, 반드시 성공하기에 이르리라. 옛적에 없던 것이 今後에 반드시 올 수 있음에 틀림없으리라.」고 述하였다.<215> 玄同의 白話文 제창의 노력이 엿보였다.

民國 기원전 10년경에도 白話文은 꽤 유행했다. 당시에 가장 저명한 白話新聞은 杭州에선 林獬, 陳敬第등의 편집하는 것, 無湖에선, 獨秀, 劉光漢 등의 편집하는 것, 北京에선 杭辛齊, 彭翼仲등의 편집하는 것이 있고, 余가 王秀同, 汪允宗 등과 共編한 「俄事警聞」과 「警鍾」과

는, 매일 白話文과 文言文의 논설을 각 일편을 게재했다. 그러나 당시 白話文을 지은 이유는 전혀 통속적으로 알기 쉽고, 상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였지, 文言에 대신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白話로써 文言에 代할 것을 주장하고 높이 문학혁명의 旗幟를 든 것은 실로 「新青年」시대에 시작되었다.

歐洲 문예부흥시대는 인문주의를 표방하고,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에 옮았다. 繪畫에 대해서 말하면, 중세의 神像은 憂鬱枯板, 보통인과 전혀 다르나, 문예부흥시대에 이른즉 모다 산 인간을 모델로 했다. 例하면 라펠로와 같이 그 그린 聖母는 전혀 窈窕한 幼婦, 基督은 죄다 활발한 아동이어서, 보는자로 하여금 지상에 천국을 실현시키는 感を 품게 했다. 라펠로뿐 아니라 同時代의 화가는 죄다 그러했다. 더 나아가서 산 인간의 초상을 그리고, 자연 특성을 一層 表함에 이르렀다. 이것을 神相에서 人相에 전향했다고 칭한다. 歐洲는 중세에 있어서 일종 變態의 라텐語를 통행의 문자로써 사용했다. 문예부흥 이후 羅馬시대 라텐文, 希臘文을 연구하여 古學부흥의 수단으로 했으나, 他面에서는 각 민족의 방언을 신문학의 수단에 이용했다. 伊太利에 판테, 英國에 쏘-사-, 위크리프등, 佛蘭西에 라부래-등, 어느 것이나 종래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방언을 사용하여 聖書를 譯述하고 혹은 詩文을 짓고, 드디어 各國語의 신문학을 產出했다. 우리들의 문예부흥이 白話文으로써 문학혁명의 조건을 한 것은 오히려 판테 등과 동일한 견해다.

歐洲 문예부흥은 보통 初盛晩의 3期에 나뉘었다. 15세기로써 초기로 하고, 1500년부터 1580년까지 盛期로 하고 1580년부터 10세기까지를 晩期로 한다. 예술상에 있어서는 伊太利의 쏈트, 미계란체로, 라펠로, 등에서 佛蘭西의 레스코, 크-장, 스페인의 베라쓰케쓰 등, 獨逸의 듀-레트, 호르하인 일족 등 和蘭 及 푸랑도루의 판·에이크, 루-벤스, 렌부랭트, 반·파이크 등에 이르기까지 문학상에 이르기까지 문학상에 있어서는 伊太利의 판테, 아리오스트, 마카베리, 닷소-등 佛蘭西의 라시느, 몽테뉴 등 스페인의 몽테시-노, 셀바안테스 등 獨逸의 루-텔·짜크쓰 등 英國 시드니-, 썩스피아 등에 이르기까지 인재를 배출하기 3백년에 미쳤다. 我國의 문예부흥은 5.4運動이래 15년에 지나지 않고, 신문학의 成績은 원래부터 성숙했다고 誇稱되지 않는다. 그 과학정신, 民治사상 及 개성표현의 예술에의 영향은 지금 오히려 진행중이다. 그러면서 吾國의 역사와 현대의 환경은 奔馬와 같이 猛進하여 吾人을 쫓아 마지않는다. 적어도 10년의 공작으로서 歐洲 각국이 백년에 당하는 일을 자진하여 期할 일이다. 그러므로 최초의 10년에 대해서 위선 중심사를 하고 吾人으로 하여 既往을 돌보고 장래를 살피며 다음 10년 또 그 다음의 10년에 있어선 中國의 라펠로, 中國의 썩쓰피아 등의 運에 應키를 희망한다.<217>

<213-217>

96.

잡지명: 삼천리 제12권 제8호

발행년월일: 1940년 09월 01일

기사제목: 戰爭文學과 民族文學, 조라의 戰爭小說

필자: 山田珠樹 산전주수

기사형태: 논설

山田珠樹

1891년 9월에는, 조라는 모든 준비가 되었다. 9월1일 쉼단항복 21주년 기념을 당하여, 조라는 신문 르·뤼이가로紙에 「세단」이라題한一文을 기고했다. 이것은 소설 「壤滅」의 서문과 같은 것이다. 「세단」合戰의 敗因을 지적하고, 샤룡의 들에 희생이 된 군대의 참상을 애도하고 「이쥬」돌출부에 있는, 虜囚생활의 비참한 것을 써서 최후로 平和謳歌者를 유토피아를 몽상하는 것으로서 전쟁의 불가피한 것을 논하고 복수를 맹서하는 佛蘭西 국민의 용기를 고취한 것이다. 전쟁의 終止는 인류의 終止와 동일한 것이다. 전쟁은 생명 그것이다. 전쟁이 없고서는 이 자연계에는 무엇이든 생존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번식하지 못한다. 이 세계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또 먹지 않으면 안된다. 好戰국민만이 번영하고<217> 武裝을 풀 때 국민은 死滅한다. 전쟁은 훈련과 희생과 용기와의 단련소이다. 근육을 움죽이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위험에 이르러 형제애를 體得하는 것이 건강 그것이야, 힘 그것이다.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전쟁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우리는 금후 전쟁에 대해서 何等의 위기의 念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급격한 意氣로 말했다. 이一文을 읽은 佛蘭西人은 죄다 하로 바빠 이 사람의 소설이 출현하기를 바랐다.

이 待望의 소설은 신문 「庶民生活」에 게재된 뒤에 1892년 6월에 샤르팡제 서점에서 출판되었다. 同日에 獨乙, 英國, 亞米利加, 스페인, 폴트가르, 伊太利, 보헤미야, 和蘭, 丁抹, 西典, 노르웨, 로시아 各國語譯이 발매된 것이다. 그래서 그 기대는 어그러 안지고 근대의 대소설로 「루꼴마카르총서」중의 白眉였다. (「壤滅」은 大正13년(1924년)에 「陷落」이라는 題로, 渡邊俊夫라는 이가 前半을 번역출판했다)

「大地」를 읽은 사람은 쟁·마카르이란 인물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리라. 이 쟁이 이 「壤滅」의 주인공이다. 쟁은 흙에 도라가려는 뜻을 버리고, 다시 군대에 들어갔다. 이 소설이 시작될 지음에는 제7군단의 비이누이유大佐가 인솔하는 106연대에 속하여, 로슈中尉 부하의 伍長으로서 라인河 가까운 미르-즈에 滯陣해 있었다. 쟁부하에 모-리쓰·라부스-루라는 靑年兵이 있다. 모-리쓰는 일찍이 양친을 잃었는데, 쟁동료 누님 안리에트가 건설한 자임으로 누님한테 길리웠다. 巴리에 가서 法律學을 배우는 중, 늘 잘못하는 일이 있어서, 안리에트의 속을 傷케 했으나, 그래도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바로 이때 普佛전쟁이 발발해서 狂熱的 愛恩에 타는 一方, 이것을 기회로 이때까지의 잘못된 보상을 받자는 마음에서 군대에 몸을 던진 것이다. 쟁은 文盲의 남자로 모-리쓰는 智識의 士였다. 양자간에는, 서로 反目하는 불유쾌한 감정이 반복되고 있었다.

軍團은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北部 佛蘭西를 함부로 右往左往식한다. 죄다 걸리고 쓸데없는 滯陣을 식힌 뒤에 8월 21일에 佛蘭西에 와서 곳 또베르당에 향케 했다. 23,4양일은, 식량의 분배가 없었다. 25일에 본제에 왔을 때 적군의 위치불명 때문에 공격할 수 없는 대로 27일까지 진지에 있었다. 병사의 불평은 大佐의 격려에 겨우 진정되는 정도였다. 28일에 진군의 명령이 났으나 不徹底 했고, 그후 2일간 大雨中을 함부로 右往左往했다. 배급은 물론 없고, 적과도 만나지 못하고, 다만 그 소문과<218> 砲聲에 떨면서 醜暑에 드라다니다가 겨우 세단에 퇴각하기를 정했다. 무-河를 건너려고 오래 기다렸으나, 결국 단념하고 河川左岸을 沿하여 31일에 세단에 드라오게 되었다. 兵隊는 시가를 건너서 북방의 알제리-의 언덕에 간신히 다리를 쉬었다. 全軍이 극도로 피로하였다.

이 難行軍 사이에 쟁과 모-리쓰와는 점차 접근한다. 격렬한 勞働에 견디여 본 일이 없는 모-

리쓰의 고통은 다른 사람의 몇배 이상이다. 짱은 이 남자가 가엾었다. 이것을 격려하고, 때로는 자기의 빵을 나눠 준다. 모-리쓰의 생명을 구해준 일도 있다. 쉼단에 들어올 때에는 두사람은 떠러질 수 없는 友人이 되었다. 쉼단에는 안리에트가 와이쓰라는 남자에게 시집가서 살림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집에서 피곤을 쉬일 수 있었다.

9월 1일에는 이윽고 쉼단의 포위공격이 시작되었다. 106연대는 밤에 업드린채 적의 십자포화를 받았다. 오후에는 용감한 전진을 試했으나, 공교롭게 地理의 利를 이용하여, 整然히 공격하여 오는 적군과 싸울 念도 못내고 大佐는 傷하고, 全軍은 패주했다. 森林을 뚫는 중에 용감한 로슈中尉가 三色旗를 몸에 감고 죽은 것을 비롯하여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짱도 상처를 당했으나, 이번엔 모-리쓰에게 救함을 받아서, 겨우 敵騎에 밟힐 것을 면했다. 하나 짱도 모-리쓰도 또 다른 살아 남은 전우들은 죄다 포로가 되었다.

3면을 강으로 둘러싸운 돌출부에 수용된 포로의 생활은 悲感했다. 식량의 배포는 충분하지 못했다. 장마가 끝지 않으나, 머리 둘 집이 없다. 짱과 모-리쓰사이에는 이 고난의 생활에 더욱더 밀접하게 되었다. 두사람은 獨乙에 보내여 行軍에 오른다. 도중에 두사람은 시민에게서 平服을 사입고 탈주를 꾀한다. 발견된 짱이 또 상처를 받는다. 다행히 모-리쓰가 緣者의 푸샤-르라는 시민의 집에 페를 끼치게 된다.

이 집엔 때마침 싸움에 남편을 잃은 안리에트가 있어서 짱은 그 간곡한 간호를 받는다. 모-리쓰는 쉼단敗戰에 昂奮하여 짱은 누이게게 맡기고 빠르기-를 지나 巴里에 急行한다. 巴里에는 새로 푸로사軍이 습격해 있었다. 남은 짱과 안리에트의 4개월 가까운 생활은 두 사람을 펍 가깝게 했다. 안리에트는 동생과 짱과의 즐거운 생활을 몽상하는 때드 많았다. 그 사이에 짱의 상처도 나아서 다시 출발했으나, <219> 도중 白耳義-에서 病들어서 머물르는 사이에 巴里는 함락하고 平和克服이 되었다. 거기서 새로 생긴 佛蘭西軍에 가입하여 당시 巴里에 이러난 桴-누의 一揆鎮壓을 위해서 巴里에 나온다. 모-리쓰는 再次의 패전에 마음은 전혀 傷하여 혁명적 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정부에 반대하여 桴-누의 一揆에 加하여 정부와 싸운다. 그래서 불행히도 짱은 銃槍에 가슴을 찢리워버린다. 그때 두사람의 뒤를 따라 巴里에 달려 온 안리에트 팔에 안기여 죽어버린다. 안리에트의 꿈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이상이 이 소설의 本流다. 여기에 세 인물의 이야기가 씨워 있었다.

전쟁소설로서 이 소설이 결작인지. 전쟁소설이라면 나는 톨스토이의 「戰爭과 平和」를 상기한다. 톨스토이는 러시아人답게 선이 굵음을 느끼게 하나, 조라는 佛蘭西人답게 섬세한 맛을 느끼게 한다. 조라의 전쟁소설은 여기에 特長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설로서 조라의 소설은 톨스토이나, 발자크 혹은 푸로-벨-같은 대소설가라고 이르는 사람들의 작품에 비교하면 어느 것이나 다 문예적으로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한다. 문예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뭔가 쓸데없는 것이 들어있다. 순수한 寫實뿐 아니라, 뭔가 灰汁을 많이 포함된 것이 들어있다. 이것들 때문에 이 소설을 「戰爭과 平和」와 동일한 의미에서 결작이라 하기엔 주저한다. 그러나 조라는 소설가 범람의 19세기에도 가장 우수한 작가다. 그래서 이 소설은 그 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된 작품이다. 이 소설은 결코 목살해서 좋은 소설은 아니다. 후세에 남길만한 결작의 하나다. 佛蘭西에서는 「大地」에 대해서는 격렬한 공격을 한 아나톨-푸렌쓰가 이 소설에 대해서는 최고급의 찬사를 한 것은 주의할 일이다. 비평가 쾨게도·페리세에도 이 소설이 결작이라는 것을 말했다.

조라는 이 소설의 출판과 함께 非애國자라는 평을 일부에서 받았다. 그것은 이 소설에 佛蘭西兵의 약점을 적발하기 때문이다. 조라는 말한다. 「19세기 初頭 이 세계를 승리자로서 濶步한 국민이 이렇게 粉碎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승리에는 이유가 있다. 敗軍도 역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국민이 점차 이 비참한 세단의 최후에 끌리워 간 경우를 연구하자. 한 나파레옹과 함께 승리의 榮冠을 쓰고, 다른 나파레옹과 함께 패한 것이다.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든가? 이 意氣로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결점을 특히 정신적 결점을 佛蘭西軍 가운데에 발견했다.<220>

그리고 이것을 주저없이 소설로 썼다.

「죄를 자백하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 도의적 정신에 의해서 이 소설은 써졌다. 國軍이 다시 이러서기 위해서는 그 과거의 說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이 결점은 과거의 것이다. 제정시대의 군대의 것이다. 현재의 군대를 공적으로 비방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佛蘭西軍의 패전을 쓴 데 대해서도 공격을 받았다. 조라는 이 敗軍을 되려 天惠라고 보았다. 루-공·마카르총서 18책에 써 왔다. 이 廢頹한 帝政時代의 佛蘭西 국민이 「재생하기 위해선 피와 눈물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서운 시련이었다」라고 생각했다. 조라는 이 소설 계획 중에 다음과 같이 썼다. 「모-리쓰는 여성적이고 신경질적이고, 너무 관대하고 熱血漢이나 움죽이기 쉽고, 온카 사상에 끌리기 쉽고, 덩기도 쉽지만, 절망하는 것도 빠른 남자다. 이것은 帝政에 눈이 팔려 타락하고 理性같지 잃어버리도록 기분을 없이 한 佛蘭西의 樣姿다. 짱은 민족의 이성적 기초인 낡은 佛蘭西의 理性, 節儉과 勞働을 표시하는 것으로, 他日 조국을 재건할 것이다.」 「(모-리쓰의 대표하는)佛蘭西의 나쁜 부분이 위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버리고 다음으로 짱의 손으로 배제되어 버린다.(더욱히 비상한 고통을 참고)곤치기 위해서 手術이었다.

普普佛전쟁때의 佛軍의 상황, 전투, 세단주민의 證述에 대해서도 허위가 많다는 비난도 있었다. 특히 세단包圍戰, 바제이유의 殺戮에 참가해 있었다는 바봐리아軍의 大尉가 佛蘭西軍及 佛蘭西人이 조라가 그리는 것같이 타락하지 않은 것을 쓴 一文을 신문에 투서하면서부터 이 문제는 크게 되었다. 조라는 곳 여기에 대답했다. 임이 바봐리아軍의 사람들로부터는, 그 殺戮는 그릇되었다는 攻撃文을 받았다. 大尉의 투서는 그 문제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敵을 칭찬하고, 佛蘭西人에게 조라가 쓰는 것은 죄다 틀렸다고 믿게 하려는 술책이었다. 혹은 또 獨乙軍이 이긴 것은 우수한 佛蘭西軍이었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一文이었다고 한다.

-(끝)-<221>

<217-221>

Ⅲ. 한국 근현대 잡지 “단군” 관련 자료

1.

잡지명: 개벽 제1호

발행년월일: 1920년 06월 25일

기사제목: 檀君神話

필자: 一態 일태

기사형태: 논설

檀君神話 (단군신화)

一態

一. 檀君의 濟生說

檀君의 전설을 고려 문헌에 現한바로 始하여 그를 탐구하여 보건대 고려 忠烈王朝에 曹溪宗 方禪師—一然의 撰한 삼국지와 同人 撰慶州 佛國寺 事蹟으로 그 大概를 알게 되었다. 一然是 古事記에 의하여 左와 如한 遺事を 썼나니

古記云, 昔有桓國(謂帝釋也) 庶子 桓雄, 數意 天下食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 大伯可以 弘益人間, 乃授天符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白山頂(卽 太白今 妙香) 神檀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態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遣靈艾一炷, 蓼二十枚, 爾輩食之, 不見日光, 百日便得人形. 態虎得而食之, 忌三七日, 態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態女者無爲婚, 故每檀木下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檀君王儉. 以唐堯五十年戊寅, 都平壤城,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山, 又名夸忽山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武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檀君乃移於僉唐京, 後退隱於阿斯達山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云.

이로써 보면 檀君의 降生은 距今 四千二百五十三年이 있다.

二. 天符三印

檀君 敎說에 일러쓰되 동방에 처음 군장이 업고 인종이 희소하여 朝鮮, 支那, 蒙古간 구천리 지방에 淼淼茫茫의 間에 巢居穴處의 原人이 裸體食實하여 彝倫이 無함으로 금수와 無異한지라. 是時에 檀君이 天符三印(과거, 현재, 미래)를 持하고 胚胎法을 行하고 靈覺性을<61> 賦與하였다 하니라.

三. 三神

朝鮮 풍습에 古來로 三神을 祭하는 풍속이 있나니 三神이라 함은 卽, 桓雄, 桓因, 王儉)이니 이는 마치 기독교의 三位一體說과 가티 된 것이다. 桓雄, 桓因, 王儉은 一體의 三位를 桓雄은 과거를 대표한 神, 桓因은 현재를 대표한 神, 王儉은 미래를 대표한 神이라는 의미인 듯 하다.

四. 고시례

檀君 시대에 侍臣 高矢禮가 잇섯다. 그는 실로 賢臣이었섯다. 그는 檀君의 命敎를 承하여 荒

燕를 개척하고 오곡의 농작을 興케 하였습으로 그 餘澤이 만세에 流하여 지금까지 朝鮮 풍습에 新飲食을 대하던지 농민이 田圃의 間에서 노식할 때는 「고시례」 하고 呪呼하는 習俗이 있다.

五. 彭吳

檀君의 高臣으로 고시례와 가티 同德의 大人彭吳가 잇섯다. 그는 산천을 구별하고 도로를 分하여 인민의 行정을 편리케 하였습으로 지금 朝鮮 풍속에 道傍에 성황당을 築하며 大路 嶺上에 國祀堂을 建함은 卽 其 彭吳의 神祠이엇더라.

六. 神誌

檀君의 侍臣중-彭吳, 고시례 외에 神誌라 名하는 高臣이 잇섯나니 그는 문자를 制하고 彝倫을 正하여 인민을 敎育하였습으로 동방에 彝倫이 始明하였더라.(其時 支那에 舜帝의 誕降한 諸憑이 역시 檀君團部中에 在한 것)

七. 八理

檀君은 九千里 지방에 三千團部를 置하고 八理로써 인민을 敎育하였나니 八理는 卽 聖經中 誠·信·愛·濟·禍·福·報·應八字요八字로써 366條가 生하니라.

八. 檀君神歌

檀君時에 神歌가 잇서 인민의 誦祝이 되엇섯나니 그<62> 原本이 左와 如하다.

어아어아 나리한배금가미고이. 배달나라니리다모. 골잘너나도가오쇼. 어아어아차마무가하라다 시거마무니설데다라. 나리골잘다모하라두리온차마무. 구설하니마무온다. 어아어아나리골잘다모 하라하니. 무리설데마부리아. 다미온다차마무나. 어아어아나리골잘다모하라고비오마무. 배달날 아달이하쇼. 골잘너나가머고이 나리한배금나리한배금.

右 神歌는 그 시대의 點에서 아즉 未詳하나 古史記를 據컨대 고구려 東明王時에 가곡으로써 궁중에서 閭港까지 盛傳하였스며 又 廣開土王은 每樣 출전할 時에 군가로 사용하야써 군기를 振興하니라. 然한대 東明王은 神歌를 해석하되 左와 如히 하니라.

어아어아 우리 大皇祖 놉흔 은덕. 배달국의 우리들이. 百千萬年 잇지마세. 어아어아 선심은 활이 되고 악심은 貫射이라. 우리 百千萬人 **가티 바른 선심. 활줄가티 일심이라. 어아어아 우리 百千萬人. 한활장에 無數貫射穿破하니. 熱湯가튼 선심중에 一點雪이 악심이*. 어아어아 우리 百千萬人. 활가티 긋센 마음. 배달달국의 광채로다. 百千萬年 놉흔 **. 우리 大皇祖 우리 大皇祖.

君이여 君이 만일 이 도시를 失치 안이하얏스면 子는 此를 *回하는 愉快를 부득하였슬 터이지... 나는 君에게 감사하오.

「막시마쓰」가 「한니발」로부터 莫 도시를 奪還하고 昔日該 도시를 見*한 「뵤야쓰」에게 일러 준 말이 이말이라. 과연하다 세상에 진정한 愉快가 有하다 하면 既失한 것을 不期何日에 *還하는 그것일 것이다.

비록 仇*의 槍銃이라 하라 오즉 一氣도 命을 殞함은 *히 死를 恐하며 生을 永*에서 勝한 것이다.

閣下시여 제발 *衛* 더 좀 엄중히 하소서 하는 신하의 **에 대한 「시-자」의 答言이다. 筭筭히 生을 是欲하며 戰戰히 死를 是*하는 徒輩에게 죽히 하사를 말하리요.<63>

<61-63>

2.

잡지명: 동광 제4호

발행년월일: 1926년 08월 01일

기사제목: 檀君窟에서(妙香山)

필자: 崔南善 최남선

기사형태: 시

檀君窟에서(妙香山) (단군굴에서(묘향산))

崔南善

아득한 어느 제에 님이 여기 나립시고
버더난 한 가지에 나도 열림 생각하면
이 자리 안 차즈리가 멀다 좁다 하리까

其二

꽃업시 터진 아피 바다 저리 다했다.
그새에 올망졸망 피도 독도 만컨마는
업대어 나뻗들 하다 고개 들 놔 업고나

其三

몇몇번 비 바람이 알옛녁에 지냈는고
언제고 님의 덕엔 맑은 하늘 밝은 해를
들어나 환하시려면 구름 슬쩍 거치라<47>
<47>

3.

잡지명: 동광 제7호

발행년월일:

기사제목: 檀君史料 一小發見과 余의 喜悅, 朝鮮古代史研究一端

필자: 張道斌 장도빈

기사형태: 논설

檀君史料 一小發見과 余의 喜悅, 朝鮮古代史研究一端 (단군사료 일소발견과 여의 희열, 조선

고대사연구일단)

張道斌

1. 檀君古記의 正確과 그 權威

檀君古記는 三國遺事(7백여년 전, 一然의 撰)에 기재된 것을 主함은 世人 周知의 사실이라. 그러나 그가 그보다 약 백여년 전, 舍富軾 著作의 三國史記에도 古記로 최대 근본자료로 하여 三國史記를 편성한 것이 사실이니 그는 三國史記에 곳곳이 『古記云』을 明記함을 보아 분명한 동시에 金富軾의 上에 上 仁宗表文 (곳 三國史記를 進한 箋)에도 가로되 『古記는 文字 蕪拙...』 운운의 구절이 明載한 것을 보면 三國史記는 곳 김씨가 古記를 수정편성한 一書라. 그런 중에 檀君古記를 三國史記에도 기재하였나니 곳 高句麗紀 東川王條에 『平壤은 本 神人王儉의 宅』이라 한 것이 是라. 그는 곳 檀君古記에 檀君이 平壤에 都하였다는 것을 記함에 김씨는 僧者라 怪力亂神을 不語한다는 痴想이 있는 동시에 또 三國史記임을 檀君史로 明記할 필요도 적은 때문으로 김씨는 檀君史記를 거두절미하여 다만 『平壤 本 神人王儉之宅』이라 記하였음이라. 然而 右檀君古記는 高句麗人의 기록을 經한 것이니 그는 古記에 阿斯達, 匪西岬(阿斯達에서 神이 되시었다는 것, 匪西岬 河伯의 女로 后를 삼았다는 것) 등 명칭을 보면 可知할찌라. 곳 達은 高句麗人이 산을 지칭하고 岬은 高句麗人이 海邊의 산을 지칭(中和를 加火岬, 松獄을 扶蘇岬) 한 명사인 때문이라. 玆에 관련하여 소위 余의 발견이라는 小事實을 提言하라 한다.

2. 所謂 一小發見은 眞是 滋味無限

余가 年前에 九月山 부근에 遊할새 당시에 유의하여 檀君古記 所載 阿斯達의 明證을 得코저 하였으나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 중에 우연히 文化(今 信川에 合郡)를 過하면서 文化의 古號가 關口인 것을 思하고 檀君이 阿斯達에 移都하였다는 것, 阿斯達에서 神이 되었다는 古記를 대조하는 동시에 文化郡이 高句麗時代의 關口이던 것을 念及하니 余는 恍然히 覺한바 있었다. 곳 口라는 것은 高句麗人이 海浦入處를 지칭한 名詞니 殷栗을 栗口라 한 것 등이 是라. 곳 穴口에는 穴窟山이 있음으로 穴口라 하였고 栗口郡에는 栗木이 있음으로 栗口라 한 것이다. 그런데 文化郡을 關口라 한 것은 곳 宮闕터 있는 연안 포구에 상당한 곳임으로 (고대에는 금일보다 여안이 近하였던 모양) 口라는 郡名을 짓는 동시에 그 곳은 檀君의 宮闕터이던 고로 關口라 한 것이다. 곳 所謂 檀君이 구월산 부근 唐藏京에 移都하였다는 古記에 부합하는 것이라 그럼으로 余는 분명히 檀君이 初에 平壤에 都하였다가 말년에 九月山 부근에 移都하였다고 認하였다. 동시에 또 一步를 進하여 구월산이 곳 宮忽山の 變稱인가 思하였다. 그는 三國遺事 檀君古記에 『阿斯達 一名 弓忽山』 운운한 것을 보면 忽은 高句麗人이 邑을 지칭한 名詞(達忽, 內米忽 등)니 <95> 忽은 곳 宮忽의 瓦전인줄로 思하는 동시에 高句麗人이 九月山을 또한 檀君宮殿 있던 산이라 하여 宮忽山이라 하던 것이 후세에 그와 相似한 音 곳 구월산으로 된 줄로 思하였다. 동시에 余는 阿斯達의 명사까지 念及하여 혹은 阿斯達이라는 의의가 곳 宮忽山이라는 것이 아니었는가 思하였스니 곳 阿斯가 宮忽이라는 意 있는 古代國語가 아니던가 한다.

3. 檀君 尊號에 關한 一考

일본의 神武天皇이니 중국의 黃帝軒轅씨가 다 그 나라 후세인이 追尊한 명칭 됨이 분명하다. 그와 같이 朝鮮도 후세인이 追尊한 명칭이다. 然而 朝鮮 고대에 史的 觀念이 박약함으로 檀

君 尊號의 追稱이 매우 他國의 그것보다 遲晩하였다. 고대에는 다만 王儉이라 稱呼하여 檀君의 名字를 그대로 불렀고 三國, 南北國, 高麗 이래로 국가적, 민족적으로 추존한 칭호를 不見하였다. 다만 古人이 平壤을 王儉城이라 한 것은 마치 미국 워싱턴, 埃及 亞歷山港처럼 王儉을 숭배한 好名稱이었다. 그리하다가 마침내 조선 초엽부터 檀君이라는 존호를 국가적, 민족적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東國史略, 東國通鑑, 高麗史 등 官撰 書籍에 檀君으로 明記하고 세종대왕이 평양에 檀君廟를 建하고 位牌에 『朝鮮始祖檀君』이라고 書하였다. 그 후 世祖大王이 平壤 檀君殿에 『朝鮮始祖檀君之位』라고 改書하여 之位 2자를 加入하였다. 成宗大王은 九月山 三聖祠에 『檀君之位』라고 書하였다.

桓因 桓雄 桓儉이 是爲三神이시니 上元甲子 10월 3일에 桓儉이 以神化人하여 持天符三印하고 降于太白山(今 白頭山) 檀木下하여 乃設神教而敎民하시니 時에 人民이 被化하여 歸者一如市함으로 有神市民之稱이라 乃寘三千團部하시다. 開天 125년 戊辰 10월 3일에 國人이 推戴神人하여 爲壬儉하니 是爲檀君이시라. 國號를 檀이라 하시다.(稱號 倍達) 娶匪西岬河伯女하사 爲后하시고 生太子扶婁하시다. 當洪水하여 命彭虞하사 治山川하여 奠民居하며 神誌로 掌書契하며 高矢로 治田事하시다. 147년 庚寅에 自太白으로 移都平壤하사 改國號하여 朝鮮이라하시다. 191년 甲戌에 遣太子扶婁하여 往夏禹氏塗山會하시다(交際之始)封支子于扶餘하시며 以余守己로 爲濊君長하여 使其子九人으로 分掌諸郡케하시며 以裊天生으로 爲南海上長하시다. 設祭天壇하시며(壇在江華摩尼山)築三郎城하시다.(城在江華傳灯山)後에 徙都唐莊京하시다(京在文化今莊坪) 217년 庚子 3월 15일에 入阿斯達山(今文化九月山)하사化神御天하시니 開天이 217년이요.在君位가 93년이요 傳不知幾世요. 歷1212년이라 太白과 阿斯達에 皆有祠하니라. (神壇實記) <96>
<95-96>

4.

잡지명: 동광 제7호

발행년월일:

기사제목: 檀君考證에 對한 新記錄의 發見, 朝鮮古代史研究一端

필자: 黃義敦 황의돈

기사형태: 논설

檀君考證에 對한 新記錄의 發見, 朝鮮古代史研究一端 (단군고증에 대한 신기록의 발견, 조선 고대사연구일단)

黃義敦

요새 朝鮮史를 연구하려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檀君에 대한 의논이 매우 왕성한 모양이다. 일 본인 학자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다 檀君을 미들 수 없는 일종의 전설적 인물이라 주장함에 일치한 동시에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그의 전설이 三國史記 저작 시대(서기 1145년) 이후 三國遺事 저작(서기 1275년-동1308년간) 이전에 처음 난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

모양이다.

그의 반대로 조선학자 중에 다대수는 조선의 國祖인 그가 실재적 인물임을 밋고 주장하는 동시에 그의 실재를 변증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잇는 모양이다. 마는 어느 나라 역사를 물론하고 그의 國祖가 다 막연한 전설적 인물로서 정확한 증명을 나리기 어려운 동시에 그를 용이히 부인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딸아서 조선의 國祖인 檀君 그에 대하여서도 나는 아직 어떠한 단안을 나릴만한 연구와 용기를 갖지 못한 동시에 차라리 그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서는 붓을 들지 안흐려 한다. 마는 檀君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본인 학자측에서던지 檀君의 존재를 변호하는 조선인 학자측에서던지 다 각기 고전에 질려 잇는 증거적 기록을 열거함에는 오직 三國史記 東川王 21년條에 『平壤者 本仙人王儉之宅也』라 한 一條를 버릇하여 三國遺事, 高麗史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 등 書에 기재된 문구를 들어서 논단할 뿐.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증거적 기록이 잇슴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에 대하여 적지안흔 유감을 가진 나는 그의 기록을 左記에 들어서 檀君問題를 연구하려는 여러 동지에게 제공코저 하는 바다. 그는 高麗 忠肅王 12년(서기 1325년 乙丑) 三國遺事 저작 後 약 10여년 경에 修史官 李叔珙의 所撰인 尙書司空 趙延壽 墓誌銘에 平壤之先 仙人王儉 至今遺民 堂堂司空 平壤君子 在三韓前 壽過一千 胡考且仙 拜之藩宣 其系蟬聯(下略-원문)

이라 써잇는 것이다. 三國璠記엔 『平壤者 本仙人王儉之宅也』라 써잇고 三國遺事엔 「檀君王儉」이라 써 잇슴에 인하여 檀 壇)君이 高 王儉이요 王儉이 高 檀君임을 聯絡이여 아는 바다.

그러나 王儉 그는 어떠한 인물인가? 三國史記의 기록은 너무 간단하고 三國遺事의 기록은 너무 朦朧하여 그의 내용을 밝게 알기 어렵던 바 前記의 墓誌銘을 어더 읽음에 비릇오 그의 내용적 윤곽이 명확히 들어내게 되었다 할 만하다.

그의 墓誌銘은 朝鮮金石總覽에 실린 바로서 그의 문구가 多少 착오된 점이 잇는 듯하다. 그리하여 경성 박물관에 잇는 그의 원석을 조사하여 보려하였스나 분망한 생활 중임으로 아직 그의 틈을 엿지 못하였다. 마는 그의 誌銘이 전부 12句로서 下端 10句는 다 先字部韻을 달았스되 上端 2句뿐 儉, 空 등의 單 韻을 달았슬 리가 업슬 것이다. 그를 자세히<97> 검사하여 보면 아마 首句에 『平壤之先 仙人王儉』이라 함이 『仙人王儉 平壤之先』이라 한 원문의 倒植인 듯 하다. 그리고 제2句에 『至今遺民 堂堂司空』이라 함은 空字가 先字部韻에 적합치 안홀뿐 아니라 文意가 順通치 못하였고 제 句에 『拜之藩宣 其系蟬聯』이라 함은 또한 文意가 不通될 뿐 아니라 宣, 聯 2字가 다 先字 部韻인즉 一句에 동일한 兩韻을 달음은 銘家에 전례가 업는 바인즉 아마 『至今遺民』의 下에 『其系蟬聯』이 붓고 『拜之藩宣』의 위에 『堂堂司空』이 부터던 原文을 金石總覽 출판시에 착오가 된듯하다. 그를 다시 정정하여야 써 보면 仙人王儉, 平壤之先. 至今遺民, 其系蟬聯. 平壤君子, 在三韓前. 壽過一千, 胡考且仙. 堂堂司空, 拜之藩宣.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시 그의 내용을 해부하여 보면 『仙人王儉, 平壤之先』이라 함은 三國史記에 실린 『平壤者 本仙人 王儉之宅也』라 한 문구와 동일한 의의로서 仙人 王儉이 平壤 사람의 始祖인 동시에 高 平壤이 仙人 王儉의 잇던 高 國임을 말함이요. 『至今遺民, 其系蟬聯』이라 함은 高麗 時代に 유민이 다 仙人 王儉의 후손으로서 平壤 趙씨인 趙延壽도 또한 그의 후손이란 말이요. 『平壤君子』라 함은 仙人 王儉을 지칭함이요. 『在三韓前』이라 함은 仙人 王儉의 시대가 三韓 이전에 잇섯슴을 말함이요. 『壽過一千, 胡考且仙』이 라함은 仙人 王儉의 壽限이

一千年을 지나자 늙어서 仙人이 되었던 말이요. 『堂堂司空, 拜之藩宣』이라 함은 威儀가 堂堂한 司空(官位) 趙延壽가 藩宣 벼슬을 하였던 말이다.

이와가티 解釋하여 읽어보매 간단한 三國史記의 기록과 몽대한 三國遺事의 기록에 대하여 그의 결점을 보충하기 족한 동시에 그의 윤곽이 일층 명확히 들어난다 할말만하다. 다시 말하면 仙人 王儉은 太古 原始 敎政一致時代에 朝鮮人의 신앙하던 國仙敎(支那 仙敎의 別異) 곳 崔致遠 所謂『國有玄妙之道... 包含三敎(儒佛仙)』라 하던 宗教의 敎祖인 동시에 創國의 國祖로 信仰하고 崇拜하여 오던 인물임을 알만 하도다.

以上에 말한 바는 다만 檀君王儉에 대한 고증적 기록의 一節을 소개하였을 뿐으로서 그의 내용을 기피 해부하고 그의 肯否를 단안함에는 異日을 기다리고 이만 끄치는 바다. <98> <97-98>

5.

잡지명: 동광 제7호

발행년월일:

기사제목: 十月三日을 당하여 檀君을 追慕함

필자: 金道泰 김도태

기사형태: 논설

十月三日을 당하여 檀君을 追慕함 (십월삼일을 당하여 단군을 추모함)

金道泰

1

支那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東夷라고 하였다. 그 東夷라는 우리 족속을 맨 처음으로 통치하시던 檀君! 지금으로부터 4천여년 전 草衣를 입으며 木實에 배불리고 岩穴에 居處하던 그 朦昧한 무리를 光明한 세계로 지도하시던 檀君! 滿洲의 넓은 들과 半島에 흐터있던 九夷를 통합하시기에 전력을 바치시던 檀君

그 이 나시던 날이 오늘이란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우리 朝鮮 사람의 祖先들을 처음으로 敎導하시던 이의 탄생하시던 날이다. 朝鮮사람 치고야 누가 머리 숙이어 이 날을 기념치 안하랴.

2

그런데 근래에 일본 학자들이 황송하게도 檀君이 잇느니 업느니 하여 의논이 紛紜하게 됨은 거룩하신 靈前에 미안함이 만케 하는도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단군의 史蹟이 실리어 잇는 곳은 가장 신뢰할만한 三國遺事뿐이다.

그러나 三國遺事が 高麗 無極 一然大師의 著作인 즉 그것을 그대로 미들 수가 업다는 것이다. 거기에 桓國이라던지 하는 것은 불교적 색채를 띄었고 또한 熊의 化身이 檀君을 나חת다는 것이 더욱 불교의 윤리설에서 기인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즉 一然大師가 불교의 승려로서 우리 太古 事蹟을 기록할 때에 자기가 신앙하는 불교의 교리를 근본삼아 기술한 것인즉 檀君時

대에 佛教가 들어오지 안하던 것은 사실임으로 一然이가 상상적으로 지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魏書云 乃性二千載 有檀君王儉 立都阿斯達 (經云 無葉山亦云白岳 在白州地 或云 在關城東 今白岳宮是)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古記云 昔有桓國 (謂 帝釋也) 庶子桓雄 敬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白山 (卽 太白今妙香山) 神檀樹下 謂之神市 是爲桓因天王也 將風伯, 雨師, 雲師 而主穀 主命 主病 主刑 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 神遣 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口光百日 便得人形 熊虎 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跂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故 每於檀樹下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檀 君王儉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唐堯卽位元年 戊辰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 (今西京)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一作方)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 王卽位 己卯封箕子於朝鮮 檀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 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3

이것을 보건대 실로 一然이가 창작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魏書와 朝鮮古記에 있는 것을 참고하여 적은 것에 불과한 즉 魏書와 朝鮮古記를 부정하기 전에는 이 三國遺事의 記事를否認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에 있어서 魏書가 나오지 안코 朝鮮古記를 볼 ~ 엮는 터인즉 그 역시 眞인지 虛인지 알 수 엮는 일이다. <103>

그러나 古人이 憑據를 들어 써 노흔 것을 밋지 안는다 하면 우리는 역사상에 적어 잇는 것을 하나도 미들 수가 엮을 것이다. 하기가 어떤 懷疑學者는 프랑쓰에 나폴레온을 부인하며 支那의 堯, 舜, 禹, 湯을 虛構의 史實이라고 단언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나폴레온이 近者엮 사람 이요 堯, 舜, 禹, 湯 시대의 유적 古器가 가끔 地中에서 발굴된다는 보도가 잇는 이상 누라서 그를 부정할 수가 잇스랴.

虛構의 史實을 적기로 유명하다는 支那의 史記도 그러케 증명되는 바 만커든 더구나 一然大師의 証憑을 적어노흔 것이야 더욱 明明白白한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엮다.

5

대저 人類의 歷史라는 것은 어느 때부터 시작하였을까? 진화론자의 글을 읽어보면 사람은 원숭이 종류의 하나로서 차츰 체력과 지력이 발달되어 文化를 건설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하였다. 이 말과 가뜰쥔대 적어도 그 기한이 몇만년, 몇십만년 혹 몇백만년이나 전부터 인류가 생겼는지 알 수 엮을 것이다.

그러타고하여 그 역사를 남겨 노흔 것은 오늘날까지는 발견되지 안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잇는 기록으로 말하면 東洋史에 잇서서는 支那, 印度 등의 史實과, 西洋史에 잇서서는 이집트, 바빌론 등의 史蹟을 제일 오래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그 오천년이라는 것도 꼭 그 당시부터 기록이 시작되었다고는 할 수 엮다. 적어도 기록이 시작되기는 인류의 지력이 발달되어 문자라는 것이 발명되자부터 되었을 것이다. 이집트에 잇서서는 이집트의 상형문자가 잇슨 후에라야 되었을 것이요. 支那에 잇서서도 大篆, 小篆을 쓰던 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文字 나기 전 사실이라야 전설가튼 것을 적어노흔대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문자를 빨리 창작치 못한 人種에 잇서서는 다른 사람들의 문자를 배워 가지고서야 비릇오 자기네의 전설이나 혹 그 이후의 사적을 적었을 것이다.

6

우리 朝鮮이나 日本 가튼대서는 支那의 어려운 象形文字를 배워 가지고서야 비릇오 自家의 史記라고 적어 노키 시작하였다. 그것이 日本에 잇서서는 日本書記, 朝鮮에 잇서서는 朝鮮古記, 三國遺事와 가튼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 朝鮮은 古來로 支那와 日本의 兩 민족틈에 끼어 支那의 强壓과 日本의 侵掠을 바다 그러한 史記를 保管하기가 어려웠다. 그뿐 아니라 事大主義, 佛教至上主義, 儒敎至上主義에 의하여 自家에 不합한 기록은 모조리 燒棄하여 버렸슴으로 오늘날 와서는 가장 年數로 오래 되었다는 것이 一個人이 적어노흔 三國遺事 뿐이다.

7

그 외에 東國通鑑 外記에

東方初無君長 有神人降于檀木下 國人立爲君 是爲檀君 國號朝鮮 是唐堯戊辰歲也

라 하였고 또 東國史略에

檀君姓桓氏 名王儉 東方初無君長 有神人桓因之于桓雄 率徒三千 降于太白山神檀樹下 謂之神市 在世理化 生子 號曰檀君 唐戊辰卽位

라 하였고 朝鮮略史에

東方初無君長 有神人 降于太白山檀木下 國人立爲君 國號朝鮮 都平壤 徙白岳 後入阿斯達山爲神 是爲檀君

이라하였고 高麗地理誌에 <104>

江華西摩尼山頂 有塹星壇 世傳君檀祭天壇 傳靈山有三郎城 世傳檀君 命三子而築之

라 하였다.

右에 記한 것은 좀 뒤떨어져 기록된 것이나 그것도 역시 그 전의 어떤 기록이나 支那 사람들의 記錄한 것을 참고하여 적었을 것이요 결코 거짓으로 꾸민 것은 아닐 것이다.

高句麗에 高句麗留記, 百濟에 百濟書記, 新羅에 花郎世紀가튼 것이 잇섯다 하지마는 今日에 傳하는 바 업슴을 右에 말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된 것이다. 그와가티 檀君에 관한 기록이 그 이상 명백한 것이 잇슬 것이나 야속하게도 들어나지 안흐은 檀君 聖靈에 황송함이 더욱 많다. 나는 결코 무슨 辨證을 하려는 것도 아니요 또는 그럴만한 능력도 업다. 다만 매년 지키는 이날! 즉 檀君 誕生하신 날에 생각하는바 황송하다는 말을 적을뿐이다.

8

檀君이라 함은 우리 祖先들을 맨 처음 다스리시던 이의 單數를 가르친 뜻이 아니다. 三國遺事에도 檀君 亨壽 1908세라 하엿스니 여기에 대하여는 이조초에 權近이라는 이도 부인하엿지만 결코 一個人의 年령이 아니라 檀君이라 함은 배달나라 님금님이라는 뜻이다. 「배」라는 것은 으뜸이라는 뜻이요 「달」이라 함은 山이라는 뜻이다. 「배」와 「달」을 합하면 으뜸 산 즉 宗山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宗山은 무엇이나? 宗山은 太白山을 가리킨 것이다.

檀君이 太白山 檀木下에 나리섯다 하섯스니 立國한 初에 그 山을 기념키 위하여 國號를 「배달」이라 하신 듯 하다. 그 후에 支那로서 漢文이 전래하매 「배달」을 漢子로 번역할 세 「檀」字 한 字로 한 것이다. 「檀」字가 지금 「박달단」이라 하지마는 그때에는 ㄱ음을 發치 안하던 것이다. 마치 「白川」을 「배천」이라 함과 가티 「배달단」이라고 하엿다. 그러면 檀君은 「배달님금」이다. 「배달님금」은 배달나라님금이다. 배달나라님금이 한 분만이 아니다 여러분

이 계승하섯을 것이다.

1908세라 함은 배달님금이 繼繼承承하여 배달나라가 1908세까지 傳하였다는 것이다. 檀君이 몇분이나 되섯던지 기록이 업서 알 수는 업지마는 맨 첫 번 立國하신 檀君, 즉 第一世 檀君 誕生하신 날이 오늘이다.

9

우리 祖先들은 과연 용감하였다. 支那人들도 우리 祖先들을 찍 두러워하였다. 그럼으로 우리를 東夷라고 불렀다. 東夷라는 것은 무엇이나? 東方에 사는 큰(大)활(弓)을 메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夷」字는 「大」와 「弓」의 습한 字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 祖先들은 항상 큰 활을 어깨에 메고 다닌 것이 분명하고, 이런 용감스럽은 민중을 지도하시던 이의 탄생하신 날에 오직 後裔라고 남은 것들이 모도 병아리 오줌 모양으로 배리배리한 것들이 追憶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이 더욱 惶恐無地하다.

마지막으로 붓을 던질 때에 一掬의 눈물을 뿌릴뿐이다.

檀君紀元 4259년 10월 3일

太古 自黑水至漢南 有九小國 各保 一方 曰畎族 曰干族 曰方族 曰黃族 曰白族 曰赤族 曰玄族 曰風族 曰陽族 是謂九夷 檀君 以神教化之 (古史) <105>

<103-105>

6.

잡지명: 동광 제12호

발행년월일: 1927년 04월 01일

기사제목: 古朝鮮 檀君

필자: 李能和 이능화

기사형태: 논설

古朝鮮 檀君 (고조선 단군)

李能和

一. 檀君稱號의 證正

三國遺事 「古朝鮮 王儉 朝鮮」條에

「魏書云. 迺往二天載. 有檀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 號朝鮮. 與高(高當作堯)同時. 古記云. 昔有桓國(謂帝釋也)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大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 率徒三千. 降於太白山頂.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態一虎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 神遣靈艾一炷蒜二十枚. 曰爾輩食之. 不見日光. 百日. 便得人形. 態虎得而食之. 忌三百日. 態得女身. 虎不能忌而不得人身. 態女者無與爲婚. 故. 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檀君王儉. 以唐高(高當作堯)卽位五十年

庚寅，都平壤城，始稱朝鮮，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又名弓(一作方)忽山，又今彌達，御國一千五百年，周虎王卽位己卯，封箕子於朝鮮，壇君乃移於藏唐京，後，還阿斯達爲山神，壽一千九百八歲。」

라 云云하였다. 由是觀之하면 神壇樹下에서 탄생한 故로 壇君이라 칭한 것이니 其中에 조금도 疑義가 없다. 그런데 후세에 至하여 權近, 李詹 등 撰 東國史略, 鄭麟趾 撰 高麗史 地理志, 徐居正, 孫比長 등 撰 東國通鑑 등 書에 비롯오 「有神人, 降于太白山檀木下, 國人立以爲君, 是爲檀君」이라 하였다. 그래서 上古 神權時代에 壇樹의 제도에 의하여 天地山川 등 神에게 제사하던 의식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상실하여 버리었다. 高麗 忠烈王時에 普覺國尊(一然禪師)라 하는 名僧이 있어서 古代 신비의 기록을 博採하며 閭巷 風謠의 전설을 冥搜하여 三國遺事라 하는 野史를 纂輯하여 金富軾의 東國史乘의 闕漏를 補足하여 우리 後裔로 하여금 神壇祭天開國始祖壇君王儉이 있는 줄을 알게 하였으니 朝鮮民族史에 공로가 多大하다. 그리하나 普覺國尊의 인용한 魏書와 古記에서 壇君이라 稱號한 기록이 昭然明白함에 불구하고 世人은 李朝의 官撰인 東國史略, 高麗史 及 東國通鑑 등 書의 위조한 檀君의 稱號를 盲從하여 왔다. 이는 다소 官撰인 세력의 所致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나 학자의 안목으로써 보아서 檀君의 칭호는 非하고 壇君의 稱號가<6> 是함을 覺知한 사람도 없지 않다. 此等 기록을 左方에 열거하여 우리 학계의 역사연구 諸 大方家の 참고에 제공하건대

(一)南藥泉의 壇君 稱號에 대한 解釋

李朝 肅宗時 人 南九萬 撰 藥泉集 檀君 條에

「舊史檀君記云, 有神人, 降于太白山檀木下, 國人立爲君, 時唐堯戊辰歲也 ... 此說出於三韓古云,而今, 考三國遺事, 載古記之說, 而昔有桓因帝釋庶子桓雄... 降太白山頂神檀樹下, 謂之神, 是謂桓雄天王也, ... 時有一態...得女身, 每於壇樹下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生子曰壇君... 以此言之, 降太白山壇樹下者乃, 壇君之父, 非壇君也, 以其生壇樹下, 故稱壇君也.」

云云하였다. 南藥泉의 壇君 칭호에 대한 해석은 심히 명확하여 檀君 變稱 이후 初見의 考證이라 謂하겠다.

(二)安順菴의 壇君稱號에 대한 견해

李朝 英宗時 人 安順菴 鼎福 撰 東史綱目的 檀君 異稱 條에

「遺事以爲降於神壇樹下, 故稱壇君, 通鑑及麗志, 以爲降於壇樹下, 故稱檀君, 今從通鑑及麗志.」

라 云云하였다. 安順菴은 神壇樹下에 降生한 故로 壇君이라 칭함을 知하였으나 다만 東國通鑑 及 麗史地理志에 檀君이라 칭하였으므로 此를 從한다. 云云함은 그 심중에 官撰과 野史와 의 輕重을 稱量한 듯하다. 그리하나 역사상의 사실에 대하여는 先後的 次序가 필요할지라. 然則 壇君王儉이 古朝鮮 開國始祖됨을 세상에 알게 하기는 三國遺事가 제일 선두에 在하니 비록 野史일찌라도 此書를 從함이 正當하다. 東國通鑑과 高麗史 地理志에 忽然 變改된 檀君의 칭호는 此를 虛僞에 附함이 可할 듯하다. 그리고 檀君 變稱의 이유를 추측하여 보건대 神壇樹의 壇字와 神檀樹의 檀字는 字形이 相類하고 또는 同是 樹木인 관계로 이와 같이 變稱된 것 같다. 道教始祖 老聃이 李樹下에 生한 故로 姓을 李氏라 한 例에 의하여 檀木下에 生한 故로 檀君이라 칭한 것이다. 그리하나 古代 神事의 의식에는 반듯이 山上 樹下에 壇을 設하고 거기서 天地神祇에 제사하였은 즉 古代 神事を 말하는 者가 壇樹의 제도를 不知하면 此는 卽 古代 神敎의 정신 골자를 상실함이니 何等의 가치도 無한 것이다.

(三)申旅菴의 壇君 칭호에 대한 견해

李朝 正宗時 人 申旅菴 景濬 撰 疆界誌의 前朝鮮 條에

檀君王儉, 史記作儉 初降太白山頂神檀樹下, 國入立爲君, 國號朝鮮(柳磻溪馨遠輿地志云, 太伯山在今平安道寧邊府東一百二十餘里許而, 今名妙香山).

愚, 按三國遺事, 神檀作神壇, 檀君作壇君, 蓋三國遺事東方始出之史, 而以神字觀之, 壇墠之壇較是矣, 神壇之. 壇, 雖作檀, 而檀木有二種, 一紫檀有香, 一俗名朴達木堅緻中材用, 太伯山多紫檀, 故, 名以妙香山, 太伯山下人, 以紫檀爲檀君之檀, 江東縣之鎮山曰大朴山, 下有一大塚, 世傳檀君墓, 大朴卽朴達也, 而有檀君墓而名之也」

라 云云하였다. 申旅菴의 해석은 南, 安 二氏에 비하여 更一層 詳明하다. 三國遺事を 東方初出之史로 인정하는 동시에 神壇의 壇字에 意義를 置重하였다. 그리고 또는 檀의 意義의 <7> 해석도 정당하다 謂하겠다. 大抵 今世의 檀君 칭호의 檀字는 朴達木의 檀이 아니요 紫檀香의 檀字인 것이 명백하다. 太白山이 妙香山으로 變稱된 그 경로를 연구하여 보면 高麗 仁宗 時에 宏廓 探密이라 하는 名僧 兩人이 있어서 太白山에 伽藍을 創建하는 동시에 當山에 紫檀이 多産함을 見하고 佛書에 載在한 檀檀香의 의의를 인용하여 山名을 妙香이라 改稱한 듯하다. 余는 三國遺事의 인용한 魏書 及 古記의 기사를 존중하여 古朝鮮 開國始祖(神權天子) 王儉氏의 칭호는 壇君으로 證正함이 正當한 줄로 思한다.

二. 王儉은 主神의 義요 朝鮮은 桓國의 譯이라

(一)王儉은 主神의 義

檀君의 名은 王儉 혹은 桓儉이라 칭하였다. 儉은 恐하건대 古語의 神이라는 名사인 듯하다. 盖 我語의 今用 神字는 본시 漢字를 차용한 것이요 朝鮮語가 아니다. 然則 朝鮮 古代에 반듯이 神이라는 固有名詞가 있었을 것이니 余는 儉 「금」字로써 此를 當하려 한다. 何以然也 오 하면 우리 朝鮮語에 「금」(儉)이 神의 義를 有한 증거는 左와 如하니

一. 「금쪽 혹 금쪽」은 즉 神接의 義니 금은 神이요 쪽은 伴接이라.

一. 「금실」(神室)을 謂함이어늘 時俗에서는 구차히 佛龕의 龕字를 借用하여 龕室이라 하니 가소로운 일이다. 華人 辭源에 龕字의 釋義는 左와 같으니 龕(浮圖塔也, 一曰塔下室也. (杜甫詩)「禪龕只晏如」俗因謂供佛之小室曰佛龕) 由此觀之하면 我俗에 神主 奉安하는 神室은 卽 「금실」이요 龕室이 아님이 명백하다.

一. 日本 古代 神事의 遺俗에 참고할만한 者는 左와 如하다.

朝鮮과 日本과는 地理上 관계로 古代 文物(言語 宗教)이 相通互藉되었음은 사실이 歷然하다. 다만 孰先孰後 誰源誰流에 至하여는 古史 전문 연구가에 맡기어두고 爲先 兩國 神事 相類點에 就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日本古語에 神을 「かむ」라 謂하였으니 此는 朝鮮 古語의 「금」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神事に 主連을 用하니 此는 我俗 神事に 儉繩(儉槎, 金줄)과 相類하다. 余는 朝鮮의 儉槎과 日本의 注連은 古代 神俗으로 붙어 오는 同一 源流가 아닌가고 思한다. 茲에 日本 古代 神事의 遺俗을 言하면 즉 左와 如하다

(一) 注連 혹은 端出之繩

日本書紀에 「天照大神, 入于天石窟, ... 開磐后窺之, 時手力雄神則奉天照大神之手, 引而奉出, 於是, 中臣忌部神則界以端出之繩. 繩亦云左繩端出, 此云斯梨俱米奈波.

和漢三才圖會에 「注連(端出之繩, 和名之利久倍奈波, 七五三繩, 俗云之米奈波) 按注連繩, 神

前及門戶引張之，以避不梁，其繩用稻藁，每八寸許而出本端，數七五三莖，左綯之，故名端出之繩。」

云云하였다. 日本語의 注連은 我 朝鮮語의 袞과 相類하니 此亦 相通된 증거의 一이 될 것이다.

(二) 榊木(カムナム)

日本人 문학박사 宮崎通三郎氏의 古語 考證에

『榊木O「カムナム」トハ皆 朝鮮語ナリ』<8>

라 云云하였다. 然則 「カム는 神의 義니 朝鮮語의 「금」이요 「ナム」는 木의 義니 朝鮮語의 「나무」다. 此等에 徵하여 鮮日 古代에 神事의 同源임을 知하기 足하고 또는 朝鮮 神俗이 日本에 流傳되었음을 證明하겠다.

1. 北夷 古代 神事의 遺俗을 言하면 즉 左와 如하다.

(1) 黑水神壇

今 中國人 章炳麟 撰 太炎文鈔에 「穆天子傳，西膜訓沙漠鴻鷺，謂黑水神壇也. 西膜種，事亞普魯神，義曰上天之子姓，大抵其神壇，在黑水」라

云云하였다. 蓋白山 黑水是 朝鮮 壇君의 發祥之地(申采浩氏 高증에 의하면 壇君 初都 阿斯達은 卽今 哈爾賓의 完達山이 是也라 하니 然則 太白山에서 流出하는 松花江이 哈爾賓을 經유하여 黑龍江에 合流하니 壇君의 地域을 想像하기 足하다.)요 壇君의 子 解夫妻는 北夫餘의 王이었으니 黑水神壇(鴻鷺)에서 祀한 亞普魯神은 恐하건대 즉 解夫妻神이나 혹은 河伯女神(夫餘神)이 그것인 듯하다. 亞普魯는 解夫妻 혹은 河伯女와 昔呼相似할 뿐만 아니라 黑水와 夫餘와 沙漠과는 地分이 인접한 關係로 神事의 풍속이 流入한 것일찌로다. 그리고 또는 我 朝鮮語에 玄字, 黑字, 紺字, 錦字등은 그 訓을 「금물」이라 하니 「금물」은 즉 黑水라. 故로 黑水라 함은 즉 神水を 謂함이요 玄菟는 神土를 謂함이요. 漣川(古積城) 紺岳과 羅州 錦山(兩山皆有神祠)은 神山을 의미한 것이다. 元史語解에 云하되 「蒙古語, 哈喇婁者, 卽黑龍也」라 하였으니 哈喇婁(할루), 黑龍(헝룽), 鴻鷺(홍루) 등 명칭은 音讀이 相類하여 字異而義同한 것 인즉 鴻鷺神壇이 즉 黑龍神壇인 것을 知하겠으며 且 古昔의 葷鬻(훈루), 獬豸(헝문), 匈奴(헝루) 등의 명칭도 鴻鷺, 異龍과 相似하니 恐하건대 厥初에 黑水神壇에서 國名의 起原된 듯하다. 此는 즉 東夷 北夷 諸 古國은 민족도 同源이요 語族도 同源이요 종교도 同源이요 習俗도 同源임을 證明하는 者다.

(二) 朝鮮은 桓國의 譯

壇君이 國號를 朝鮮이라 칭하였다. 史氏의 기록에 의하면 朝鮮이란 것은 즉 朝日鮮明의 意義를 取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하나 壇君 당시에 韓文을 쓰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朝日鮮明을 어떻게 取義하였을까? 余는 이렇게 해석한다. 桓雄天王이 天符印 三箇를 받아가지고 三千徒衆을 領率하고 太白山頂 神壇樹下에 降하여 世事를 治理하여 是를 神市라 謂하였다 하니 是는 즉 草昧時代의 君主 酋長으로 神權을 행사하여 人民을 化導하는 수단으로 至大 현상인 天과 日에 稱托한 神話인 듯하니 猶太의 先知 摩西가 蘇來山頂에서 上帝의 默示를 受하여 天國의 福音을 전함과 같고 中國 黃帝가 大山天壇 第一洞天의 玉清元始宮에 至하여 石匣 中에서 元始天尊混元三皇玉說陰符經(三皇內文)을 得하여 此로써 國家를 治理하고 長生仙術을 얻어 終乃 鼎湖에서 騎龍升天함과 같다. 이제 桓雄天王의 出自인 桓國의 의미를 해석하여 보면 天國

又是 光明國을 謂함이다.

桓國(汗捺)古語의 天國義 又 桓國(桓한 나라 光明國義)

桓雄天王的 子 壇君은 즉 神化의 人格으로 繼天開國하여 朝日鮮明의 의미를 취하여 朝鮮이라 칭호하였으니 是는 즉 桓國(환한 나라)의 義譯이다.

桓雄天王的 桓國(天國漢捺)의 系統的 天 神話 又是 壇君王儉의 <9> 朝鮮(光明國 朝日鮮明의 환한 나라)의 系統的 日 神話 등을 下方에 열거하건대

(一) 夫餘에 天神話 及 日神話의 계통

(天 神話의 계통) 高麗 高宗時 人 李奎報 撰, 東國李相國集 引用.

舊三國史及忠烈王時人 一然禪師撰, 三國遺事引用古記云, 前漢漢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 天帝遣太子解慕漱, 降夫餘古都, 乘五龍車, 從者百餘人, 騎白鵠, 浮於上, 音樂動雲中, 戴鳥羽之冠, 佩龍光之劍, 朝則聽事, 暮則升天, 世謂之天王, 三國中大會, 連日飲食歌舞, 名曰迎鼓, 有軍事亦祭天.

(日 神話의 계통) 夫餘國號 「부여」는 我語에 白의 義니 黎明의 象이요 魏志에 據하면 「夫餘衣尙白이라」하였으나 白衣는 潔淸光明한 圖色을 표시한 것이요. 또는 夫餘王은 그 姓을 解(東夫餘王 鮮夫婁, 北夫餘王 解慕漱)라 하였으니 我語에 日을 謂하여 解(해)라 한즉 要하건대 夫餘의 國號, 王姓, 衣服은 다 日에서 取義한 것 같다.

(二) 濊에 天神話 及 日神話의 계통

(天 神話의 계통) 魏志 「濊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又 云 「曉侯星宿, 豫知年歲豐約(天文曆法의 발달한 증거)」

(日 神話의 계통) 廣韻을 按하건대 濊, 呼會切 「회」 又 滑各切 「휘」라 하였으니 「회」와 「휘」는 我語의 「해」(日)과 相類한즉 恐는건대 濊의 國號는 日에서 取義한 듯하다.

(三) 三韓에 天神話 及 日神話에 系統

(天 神話의 계통) 三國志 「馬韓諸國邑, 各立一人, 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

(日 神話의 계통) 三國志 馬韓 諸國 중에 日華國, 月支國이 有하니 日華 月支는 要하건대 日月宗拜에서 나온 명사일찌요. 辰韓의 辰은 方位의 辰은 東方을 의미함이요 시간의 辰은 日出을 取象한 것이다.

(四) 高句麗에 天神話 及 日神話

(天 神話의 계통) 高句麗 廣開土王 陵碑云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天帝之子, 母河伯女郎, 剖卵降出, 生子, 有聖□□□□□命駕巡車南下, 路由奄利之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鄒牟王。」

(日 神話의 계통) 東國李相國集 引用 舊三國史云 「高句麗始祖東明聖帝(東明은 日出을 象한 것이다) 諱朱蒙, 一云象解(解는 日이니 즉 해를 象함), 先是夫餘王解夫婁薨, 子金蛙嗣位, 於是時, 得太子於太白山南優渤手, 問之曰, 我是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遊,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態心山下鴨綠邊室中私之, 卽往不返, 父母責我無媒而從人, 遂謫居優渤水, 金蛙異之, 幽閉於室中, 爲日所照引身避之日影又逐而炤之, 因而有孕, 生一卵, 大如五升許, 王欲剖之, 不能破, 遂還其母, 其母以物裹之, 置之暖處, 有一男兒, 破殼而出。」

三國史記 高句麗本記 「琉璃明王，諱類利，或云孺留，朱蒙元子，在夫餘，得父遺劍，行至卒本，見父王，王謂類利，汝實我子，有何神聖，類利舉身聳空，乘牖日光，亦其神異，王大悅，立爲太子。」

(五)百濟에 天神話 及 日神話의 계통 <10>

(天 神話의 계통) 三國史記 百濟本記 「始祖溫祚，始設大壇，親祀天也。」

(日 神話의 계통) 百濟 國號 及 王姓을 皆夫餘라도 稱하고 혹은 姓解라 하였다. 要는 건대 百濟는 夫餘 句麗의 계통에서 出하였은 즉 日月 神話에도 그 遺俗이 존재한 것은 無疑한 事다.

(六) 駕洛伽耶에 天神話 及 日神話의 계통

(天 神話의 계통) 三國遺事 駕洛國記 「後漢建武十八年壬寅三月，九干(我刀干汝刀干彼刀干五刀干留水干留天干神天干五天干神鬼干(當時酋長의 名稱이니 干夷 遺族이오 三韓同族이다)，禊洛之日，所居北龜旨，有殊常聲氣，有紫繩自天垂而着地(已上天神話라)，尋繩之下乃見紅幅，裹金盒子，開而視之，有黃金卵六，圓如日(日神話라)，六卵化爲童子，容貌甚偉，日日而大，於其月望日，卽位，始現故云首露，國稱大駕洛，又稱伽耶國，餘五人各歸爲五伽耶主。」

東國輿地勝覽 陝川郡條 崔致遠撰 釋利貞傳云 「伽耶山神正見母主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生大伽耶王惱室朱日，金官國王惱室青裔，又釋順應傳云，大伽耶國月光太子，乃正見之十七世孫，則異腦王乃惱室朱日之八世孫也。」

(七) 新羅에 天神話 及 日神話의 계통

(天 神話의 계통) 三國遺事云 「辰韓六部之祖，似皆從天而降六部之祖，乘高南望，楊山羅井傍，有異氣，電光垂地，有一白馬跪拜之伏，尋檢之，有一大卵，馬見人，長嘶上天，剖其卵，得童男，天地振動，日月清明，因名赫居世，王時人爭賀曰，今天子已降。」

三國史記 云 「辰人謂瓠爲朴，以初大卵如瓠，故以朴爲姓。」(朴은 「밝」이니 光明을 謂함이라. 朴赫居世의 瑞相은 日에서 取象함이다.)

(日 神話의 계통) 三國遺事 「赫居世，蓋鄉言也，或作弗矩內王，言光明理世也。」(弗矩內 「불구레」는 東日初出을 象함이다. 光明理世 四字에 그 意義를 解釋키 足하다.) 三國史記 「新羅炤知麻立十九年春二月，置神宮於奈乙，奈乙始祖初生處也。(奈乙 「날」은 日을 謂함이니 此에 據하여 朴赫居世의 誕生 瑞相은 日出의 象을 取한 것이다.) 隋書新羅拜日月神。」

三. 古代 神壇儀制의 比較 及 旁證

上古時代에 神道로 設敎하여 人민을 化理하였나니 세계 各國의 古史를 연구하여 보면 그 祭天祀神의 형식은 반듯이 壇制에 의하지 아님이 無하여 우리 朝鮮 壇君의 神事와 유사하니 그 諸例를 擧하면 즉 左와 如하다.

(一) 神壇의 제도 <11>

朝鮮 (神壇) 桓雄天王. 於太白山神壇樹下. 將風伯雨師. 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是謂神市.

東北夷 (祈山) 肅慎伐石祈山. (祈必有壇) 金祀長白山神. 封開天弘聖帝. 滿洲堂子立杆祀天

(蹕林) 匈奴祭天地鬼神. 鮮卑豎柳枝. 遼立樹拜天.

日本(神籬ヒモロヤ)神武天皇. 於天香山. 設壇立榊. 祭其祖先天照大神. 名曰神籬.

以(壇)祭場也. 擇平坦之地. 多在山上以土築之. (禮)燔柴于泰壇. 祭天也.

下(郊)祭天地之名. 冬至祀天於南郊. 夏至祀地於北郊.

(郊祀)(禮)郊祀之禮. 所以祀上帝也.

中(圜丘)天壇也. 冬至祭天之處. (周禮疏)土地高者曰丘. 圜者象天圓也. 因高以事天

國(時)祭天地神祇之處. 時者止也. 神靈依止之所即如靈時. (史記)秦漢. 於雍州立時.

祀上帝及日月諸神.

(社稷)社土神. 稷穀神. 建國則立壇壝以祀之社必有樹. 夏后氏以松. 殷人以栢.

周人以栗. 是乃土地之所宜也.

(封禪)泰山上. 築土爲壇. 以祭天. 報天之功曰封. 泰山下小山上. 除地以報地之功曰禪.

(二) 壇樹의 제도

神壇을 樹에 의하여함은 上古 神權時代의 제도라. 今人이 고대의 신화적 종교(壇制神事)를 연구하는 者가 만일 樹를 除하고 壇을言하면 足히 더불어 古制를 논하지 못할지니 歷數하여보라. 上古의 神人, 敎祖의 出生入死에는 반듯이 山壇 及 樹木의 關係가 有하니 例를 舉하면 (帝俊) 摯搖顓臾(山名), 上有扶木, 有谷曰溫源, 谷有神人, 名曰奢比尸, 惟帝俊下友, 帝下兩壇, (山海經)

(老子) 生於李樹下, 指李樹曰是我姓也.(道書)

(釋迦) 誕生於迦毘羅國嵐毘尼園畢鉢羅樹下, 成道於菩提樹下, 入般涅槃於娑羅雙樹下.(佛書)

(摩西) 猶太先知摩西, 於蘇來山上, 受上帝之默示.(舊約)

(摩哈麥特) 於麥加山上, 聽天神空唱.(可蘭經)

云云 등이 是也-라. 이제 우리 朝鮮으로써言하면 桓雄天王이 太白山頂 神壇樹下에 降하여 神市의 行化를 하고 또는 王儉이 壇樹下에서 生하여 朝鮮 開國始祖가 되어 壇君의 칭호를 得하였다. 大抵 朝鮮壇君은 上古 東九夷族의 君長이요 그 壇樹의 제도도 亦 最古하여 肅慎, 匈奴, 鮮卑, 契丹, 渤海, 女眞 등 凡 蒙古種 諸國의 神敎의 始祖로 된 것 같다.

支那 古代의 封禪, 社稷, 郊祀 등의 제도 의식은 帝舞 붙어 爲始하였는데 舞은 東夷之人 (見孟子)이요 壇君은 與堯並立하였은즉 舞의 類, 禮, 望, 徧 (見下) 등의 祭制는 恐호건대 朝鮮 壇君의 제도를 채용한 것이 아닌가 思한다. 茲에 同民族 同宗教인 東北夷의 壇制神事系統圖를 作하여 大方의 참고에 提供함.

四. 同種族의 東北夷 壇制神事 系統圖<12>

계통도

<13>

<6-13>

7.

잡지명: 별건곤 제12·13호

발행년월일: 1928년 05월 01일

기사제목: 壇君及其研究

필자: 崔南善 최남선

기사형태: 논설

壇君及其研究 (단군금기연구)

崔南善

1. 開題

朝鮮의 人文의 모든 것이 壇君에 비롯하였다 함은 우리의 오랜 傳統的 信念입니다. 이것으로써 歷史의 起頭를 삼으며 이것으로써 氏族의 淵源을 삼아서 아모도 또 조금도 의심하려 아니합니다. 壇君을 제쳐 노흐면 朝鮮이란 長江도 샘밋치 막히는 것이매 壇君이 소중하고 壇君을 소중하게 해야할 것은 朝鮮文化에 대한 全的 問題로 진실로 必然 當然한 일이지마는 壇君을 소중하게 함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미들 것으로 맞는 바게 그를 眞知 實解하려 하는 知的 努力인들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컴컴한 이대로 그만 저만함이 壇君의 久遠性을 위하여 한때라도 흠이 되지 하면 다행일 것입니다.

무엇으로나 소중하신 壇君을 맞는 이는 맞는 답시고 흐리멍덩한 속에 뒹서두고 이러 저런 생각이 엮는 이는 당초부터 모른체 해야 버리매 壇君의 眞面과 實價는 이렇저렇 그믐밤이 되고 이 허소히 버려 둔 틈을 타서 壇君에 관한 傳統的 信念을 흔들려 하는 야릇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시다. 그뿐 아니라 네로부터 잇든 그 懷疑 짝슨 新舊種種의 紀緣로써 조금 식커가며甚한 이는 壇君問題는 痛痒間 대스롭지 아니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잇는 過去의 價値와 生活에 잇는 傳統의 勢力을 도모지 모른다 하면 모르되 朝鮮의 民族及文化 一切에 대한 淵源, 性相 등을 밝힐 필요가 잇기까지 壇君問題는 온갖 朝鮮的 연구의 出發點 兼 湊會點일 바게 업슬 것입니다. 左인지 右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는 무엇으로든지 늦길 것입니다. <22>

2. 懷疑論의 兩派

壇君에 대한 懷疑的 態度에는 대개 두 波別이 잇스니 一은 壇君에 관한 古傳의 내용이 荒誕 不經하여 상식적으로 計料할 수 업다하는 舊派라 할 일ियो 一은 民族 感情의 요구로 후세에 성립된 것이라 하는 新派라 할이인데 둘이 創作의 動機와 粉本은 佛教 중에 잇다 하는 점에서 일치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新說의 提起者는 대개 絢爛한 背景으로써 巧緻한 辨證을 느러 노힘으로 얻는 드르면 果然을 嘆服케 할 것이 잇는 듯하지마는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論難은 대개 偏見曲釋 一知半解에서 나온 것임이 可惜합니다.

대저 壇君의 古傳이 常識의-後代觀念의 眼孔에는 미상불 虛誕怪妄하다 할만도 합니다. 그러나 人文에 관한 新科學과 및 그 進歩한 方法으로 考察하면 虛誕怪妄 그대로그 실상 原始 心理의 產物, 原始 世相의 映像으로 正直 又 確實한 오랜 傳承임이 表證됩니다. 또 膚見과 臆料에는 佛教的 思想 又 語句일 듯한 것도 가만히 正觀透視하면 낯낯지 久遠確實한 根據를 가짐이 判明하야집니다. (古記의 收錄者인 僧侶가 저의 私見이라 하여 약간 句語를 割注로 挿

入한 것이 잇기로 그것이 本文하고 沒干涉일 것은 두말도 할 것 업는 일입니다.) 이러케 常識的 獨斷的으로 하마 晦蔽할번한 壇君이 과학의 힘을 넘어 다행히 그 眞面目이 一層 明瞭해야 지는 중에 잇슴은 壇君 一項 뿐 아니라 그의 한가지 浮沈幽顯할 東方文化의 全視野를 위하여 김흔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理義는 如何間에 다른 생각을 품고 줄곳 否認하기 위해서 부인하는 이가 잇다 하면 그것은 學究하고는 本不相干할 感情的 態度니까 본대 우리의 알안 곳할 바가 아님니다.

3. 壇君學을 세우자

壇君을 信念的으로만 崇奉하기에는 近代人이 넘어도 理念을 조하합니다. 壇君을 民族感情的으로 把持하기에는 近代 科學이<23> 넘어도 인정업고 심술궂고 맛맛을 조하합니다. 太白山 檀木下의 神人으로 出現해야 國人을 推載를 마드신 이이니라 함으로는 壇君의 權威를 保維할 길 업스며, 거기 맞당히 客觀的 檢討와 科學的 徵憑을 짝짓게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壇君의 把持及消滅과 破壞及建立은 어대까지든지 學理的 證明을 가지는 事實的 根據에서 審理又判定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方法은

(1) 前時代 心理의 產物인 原始文化 現象으로-

(2) 神話, 傳說, 信仰, 觀念 등 民俗學的 通則으로-

(3) 言語, 民族 及 文化系統에 依하는 比較的 檢覈으로-

考查研究될 것이오 民族 心理學을 主로 하고 社會學, 經濟學, 史學, 地理學 등의 協辨으로 그 내용이 검토될 것입니다. 이러케 하는 期待가 朝鮮의 原始相, 朝鮮思想(理念)의 胚珠 及 朝鮮生活의 主軸, 原史期 朝鮮의 價値, 朝鮮을 통해서 示現된 人類意識 及 文化上的 特性, 朝鮮人 國民의 信念의 淵源 등에 관한 合理的 具體的 闡明에 잇슴은 다시 할 말도 아님니다.

4. 壇君의 最古傳承

壇君에 대한 現存最古의 文憑은 高麗中葉에 佛者 一然의 손에 採集된 「三國遺事」중에 잇는 左의 一篇입니다.

古朝鮮王儉朝鮮

魏書云 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經云無葉山 亦云白岳在白州地 或云在闕城東 今白岳宮是)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古記云 皆有桓國(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 太伯可以弘益人間 及授天符印三箇 遺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卽太白今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雄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顯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蒜二十枚 曰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身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呪願有孕<24>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 唐堯卽位元年戊辰 則五十年 丁巳 非庚寅也 疑基未實 都平壤城今西京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 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이 古記의 내용을 檢討함이 壇君學의 거의 全體요 壇君의 생활이 또한 一劍의 작용에 달렸거니와 그 자세한 論考 辨證은 여기할 것 아니요 다만 그 大意를 각 측면으로부터 약간 撫觀하여서 壇君이 民俗的 民族心理의 오랜 傳承일 것을 증명하기에 그치겠습니다.

5. 神話의 考察

壇君古記는 形式上으로 一篇의 神話입니다. 신화란 것은 原始人이 모든 現象을 神意神事로 보아서 神格中心으로 거의 解釋, 說明을 시험한 것이니 그름으로 신화라 하면 詩나 理論이나 學說에 갖가운만큼 實錄이나 歷史나 年代記나 人物誌 허고는 본대 딴 것입니다. 壇君이 설사 歷史的 實在人格일지라도 그 記傳이 神話로 생긴 바에는 記錄 그대로가 事實 아닌 것은 母論입니다. 또 설사 그 意趣는 사실일지라도 그 說話的 結構에 나타난 要素 及 順序가 그대로 實錄的 信文이 아닐 것은 母論입니다. 그름으로 形式이 이미 신화인 바에는 역사적 素性 여하는 別問題로 하고 묻저 또 主로 神話學的 考察을 시험함이 當然합니다.

그런데 比較神話學과 朝鮮國民 古史神話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據하건데 壇君古記에 나오는 意匠과 物素는 실로 朝鮮과 隣接 모든 民土에 공통으로 行하는 同系 文化內에 있는 普遍通有의 것이요 그것이 決코 後代에 個人이 佛教 가튼 것의 힘을 빌어서 창작한 것 아님이 분명합니다. 위선

(1) 宇宙를 上中下 三界로 보아 天上을 善神의 거주하는 光明界라 하고 거기 계신 大神이 人間의 禍厄을 보시면 그 庶子를 降生하여 救濟에 從事케 하심, <25>

(2) 降生하는 天帝子는 반드시 域內 最高大의 山頂에 神都를 베풀고 神政的(Theocracy)으로 人間을 理化함.

(3) 神婚 기타의 方法으로써 크게 鱗族의 同化 及 攝入을 힘씀.

(4) 天神과 人主의 사이에는 반드시 半神半人的 過渡 人格이 잇슴.

(5) 이러케 降世한 天帝子와 及 그 統緒를 바다서 軍師의 位에 잇는 社會規範의 總攬者는 반드시 天王, 天子, 神人, 聖人 등으로써 稱謂되었슴.

等으로만 말할지라도 이것은 北으로 蒙古 저 쪽과 南으로 日本 저 쪽에 널리 行하는 建國神話의 공통 「모티프」이며 域內的 일로만 말하야도 大壇君 뿐 아니라 夫餘, 句麗, 新羅, 駕洛 등의 創業談이, 또한 同工異曲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무슨 意味며 또 어찌 類同하나 하는 문제는 따로 두려니와 아모든지 壇君古記의 神話的 長久性 確實性을 여기서 認定하지 아니치 못할 것만을 말해 두겠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것이 죄다 後世의 僞造요 죄다 佛典을 藍本으로 한 것이리라고 放言할 사람은 업슬 것입니다.

6. 宗教的 考察

原始人 及 原始時代의 문화는 언제 어대서든지 信仰中心이요, 原始信仰의 내용은 呪力的(威靈的)觀念의 표현임은 우리가 民族心理學 및 宗教 發達史 등에서 만흔 證명을 어든 바입니다. 그름으로 原始文化의 精神的 方面을 대표하는 唯一한 遺物인 신화는 저절로 그 시대의 종교의 信條 내지 聖典인 一面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신화가 만일 오랜 歲월에 성립됨이 분명할 것 가트면 거기 나오는 話意와 物素는 저절로 原始宗教的의 모든 事象일 것이니 뒤집어 말하면 순수하고 古樸하게 원시 신앙을 반영한 것이면 그 신화-신화적 표현에 의하는 모든 傳承은 그것이 시간적으로 오랜 물건임을 의심할 수 업슬 것입니다. 三國遺事로 하야 알게 된 壇君古記는 미상불 종교적의 것이요 原始信仰態의 如實한 載傳이요 그것이 다른 아모대에서도 <26> 볼 수 업는 素朴한 信仰의 體系的 表示임을 봅니다. 後人의 손이나 佛者의 손으로 만드렷다 하기에는 넘어도 原始文化의 合理的으로 一貫한 사실이요, 아모 진보한 觀念의 投影을 석지 아니한 것이 못내 든든 탐탐합니다.-

(1) 壇君古記는 呪術宗教的(Magico-religious) 社會規範의 모든 특징-이를테면 祭政總攬의 君長이 人事는 莫論이요 風雲雷雨 가튼 自然現象까지도 자유로 治理할 權能者로 존재함 가툼.

(2) 壇君古記는 그 構成材料가 符印(Fetish), 祈禱(Prayer), 呪力(Magic), 忌(Taboo)와 神市(Sanctuary), 神壇(Altar), 神壇樹(Sacred tree)와 穀과 病과 刑과 善惡 등에서 보는 것처럼 모다 宗教-原始信仰의 事與物임.

(3) 壇君古記는 原始信仰의 諸相인 天空 太陽, 大地, 山岳, 動物, 植物, 祖先, 巫君 등의 崇拜 사실을 包有하였음.

(4) 壇君古記는 一篇의 命意가 순전히 朝鮮에 있는 宗教起原論-이른바 「以神說教」의 來歷 설명임.

(5) 壇君古記는 尋常한 사실 가튼 것도 대개는 종교적 行相의 한아씩으로 이를테면 建國이란 것은 종교적 중심의 생성을 의미하고 遷都란 것은 종교적 중심의 移動을 의미함 가름.

입니다. 壇君古記는 宗教中心, 宗教本位, 宗教基調, 宗教 卽 一切의 原始 社會相을 가장 선명하게 표현한 것으로 아모 後代的 斧鑿의 자국을 차저 낼 수 업는 것입니다. 神話的 聖典-聖典的 神話로 壇君記는 누가 지었슬 것 아니라 저절로 생긴 것임을 봅니다.

7. 歷史的 考察

壇君古記는 보통의 형식을 초월해서의 歷史인 일면을 가졌습니다. 原始時代의 文化 價値는 무엇이든지 神話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는 것이매 신화는 본대부터 그네의 歷史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基調가 관념적이요 주관적이요 주관 객관 混和的이지마는 원시시대는 觀念이 역사를 만든다 할 만치 그네의 밋는 바가 그대로 歷史過程으로 化하기도 하는 것이며 또 信念 보담 <27> 큰 事實이 업는데 이 사실의 정직한 기록이매 신화의 속에는 저절로 歷史值를 含存하는 것이며 또 신화를 만들고 옮기든 당시의 民衆이 스스로 이것을 역사로 觀念하기 때문에 사실에 잇서서도 역사적 가치가 만히 신화의 속에 反映 又 投托하게 됩니다. 더욱 壇君古記가치 純粹嚴正한 역사만으로 승인되어 오든 자에 잇서서는 이러한 傾向-歷史的 影響, 形迹의 攝收가 더 왕성하고 풍부함을 봅니다. 이제 壇君記에 나오는 骨子的 事實과 規範的 名稱을 보건대-

(1) 原始國家의 國土는 山中이라 함은 역사상에 실레도 만흔 일이어니와 言語上으로 보아도 山과 邑을 한가지 「*」이라 하고 城과 嶺을 한가지 「*」라 함이며 또 古山城으로 「기」를 并하여 그 語形을 가지함은 대개 고대의 나라는 魏志의 月支, 三國史記의 月城, 慰禮城, 日本史籍의 シラキ 등처럼 山城 즉 國인 사실에 因하는 것)

(2) 原始主權者의 位號는 天王이라 하얏다 함은 橫과 縱으로 同系文化인 內外諸國에 貫通하는 사실로 天帝子 人間主의 신념으로서 나온 역사적 사실임(下文에 再及할 것)

(3) 桓國, 太伯山頂으로부터 平壤, 唐藏京까지 國本의 移動(發展, 展開)이 끄치지 아니하얏다 함의 중에는 (一)朝鮮人の 移住者임. (二)그 針路가 北으로서 南進하얏슴, (三)그 國土가 山城으로서 野邑으로 내려왔슴. 내지 (四)原始時代의 國都는 日本 古代의 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種種의 理由에 因하여 자조 자조 遷轉이 되얏슴 등의 사실이 投影하야 잇는 것임.

(4) 國號를 朝鮮이라 하얏다 함은 支那의 文籍으로 보아도 東方의 國土의 稱號 중 最古 最普遍的 者가 朝鮮이기도 하거니와 朝鮮의 語義가 東方에 잇는 최초의 開明地임에서 그 由來의 한가지 歷史性을 認할 것. (古代 支那人에게 알려진 동방의 古部族-혹 古代 支那人에게 불리우든 동방의 稱謂는 朝鮮과 한가지 肅愼으로써 最古를 삼는데 肅愼이나 朝鮮이 어의로 初開明을 의미함에 잇서서는 똑가틈을 보며 내켜서 생각하면 周以前の 肅愼이란 것을 漢以來로 일층 雅化한 것이 朝鮮으로 肅愼과 朝鮮은 본대부터 一語兩譯에 不外할 듯도 함.) <28>

(5) 壇君古記로 因하여 提示되는 「古朝鮮」의 境域은 平壤으로부터 阿斯達까지 大洞江 左

岸의 극히 협소한 부분인데 이 지방은 原始國家의 興起地로 가장 풍부한 天惠와 適好한 條件을 구비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반도에 있는 最古의 開發地로 文化와 財貨의 계속적 淵藪인 곳임.

을 압니다. 壇君古記가 오랜 것이오 저절로 성립된 것이오 확실한 來歷 있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역사의 대세와 내외의 實例에 緊密한 合致를 보일 수 없습니다. 더욱 오랜동안 정확한 역사로써 傳信된 것이 아니면 이렇게 만흔 사실의 反映을 가졌을 수 없을 것입니다.

8. 社會學的 考察

朝鮮 最古의 기록은 맛당히 朝鮮人의 社會적 생활의 原始相을 傳하는 그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으로의 信憑性을 가짐에는 社會발달의 과정에 대하여 正當한 說示가 있음을 요할 것입니다. 인류의 群的 生活의 展開 通則은 朝鮮만을 데맞게 두엇슬리 업기 때문입니다. 이제 壇君古記 중의 主要部를 형성하는 壇君 誕生의 段에 就하여 그 構成分子를 檢覈하여 보건대

(1) 「神」인 桓雄의 「神市」에는 神이 아닌 者로 「一熊一虎同穴而居」가 잇섯다 하얏는데 이 熊과 虎는 動物崇拜의으로도 설명할 수 잇슬 것이지만은 내켜서 그 信仰의 歸趣로의 「도토편이슴」(Totemism)으로 보아야 그 意義가 더 환해 질 것입니다. 原始社會에서는 흔히 무슨 動物로써 種族내에 잇는 團體의 稱號를 삼고 그것을 團體의 祖先이라 하여 甚히 敬畏하니 이것을 「도토편」(Totem)이라 하며 이 「도토편」에 基因하는 信仰을 「도토편이슴」이라 합니다. 原始社會의 種族은 이 「도토편」단체를 分子로 하여 그 2개 이상의 結合으로써 編成하는 것입니다. 「神市」도 그 社會적 발전이 진행하여 種族의 편성으로 나아가려 하면 차차 幾多의 「도토편」的 基礎를 요할 것인데 熊虎는 그 代表의인 者요 또 熊이 더욱 두드러진 것임은 後世의 가장 有力한 王族-夫餘系諸國의 王族이 꿈의 「도토편」을 가진 듯함에서 알 것입니다. <29>

(2) 그 熊虎는 항상 神熊에게 「化爲人」하기를 祈願하매 「神」이 靈藥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不見日光百日」을 하면 人形을 어드리라 하여 熊은 이 「忌」를 직혀서 女身을 엇고 虎는 「不能忌」하야 人身을 엇지 못하얏는데 이 靈藥이란 것은 呪物(Fetish)로 따로 말할 것이어니와 「忌」란 것은 原始社會에 잇는 法律 兼 道德인 「타부」(Taboo)란 것입니다. 「타부」란 것은 宗教의으로 어느 規定한 사람에게 接近하거나 어느 일정한 물건에 접근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거나 어느 命令된 行위를 違越하지 못하는 忌諱(禁斷, 制止, 畏避)權의 部族長에게서 나온 것은 實行的 威力이 가장 큰 것입니다. 「化爲人」이란 어떻게 해석할 것이든지 간에 그 忌를 직히고 못직힌 結果는 그대로 願을 일우고 못 일우는 報酬로 나타났습니다. (熊虎의 「化爲人」은 대개 種族의 統攝力, 同化過程에 잇는 遠心求心の 兩 傾向을 나타낸 것으로 볼 것일가 합니다.)

(3) 熊女가 다시 壇樹下에 가서 孕胎하기를 「呪願」함으로 雄이 假化하야 婚姻하얏다 하얏는데, 이것을 一種의 神婚說話로 봄은 別問題어니와 社會學的으로 보면 이것은 原始社會에 잇는 婚姻의 一樣式을 엇볼만한 귀중한 재료인 것입니다. 人類社會의 基調는 婚姻이요, 婚姻의 形式은 群婚(Group marriage)으로부터 個婚(Individual m.)으로 나간 것인데 原始社會에서는 男女의 交媾가 심히 自由로워서 심하면 父女, 兄妹의 婚姻도 행하다가 차차 社會의 必要에 因한 制限이 생겨서 近親婚(Incest)이 禁止되고 同族婚(Endogamy)이 禁止되고 마침내 種族과 「도토편」을 달리하는 者로만 婚事를 하는 異族婚(Exogamy)의 制가 생기게 되 었습니다. 神인 雄이 假化하야 熊女로 더부러 成婚한다 함은 당시에 잇는 혼인이 허다한 原始社會에서 봄과가튼 異族婚인 것을 타낸 것이라 할지니 이 一段은 마치 日本의 古神話에

잇서서 이른바 天神族對 國神族間의 聯婚으로써 그 國制가 成立되었것다 함에 비할 것임니다. 그런데 婚姻의 목적이 夫婦를 일우거나 家庭을 만들음에 잇는 것이 아니라 「孕」-곳 아들 나키에 잇슴은 거기 夫婦關係 그것이 소중한게 녀여지지 않는 原始社會의 風貌를 볼 것임니다. <30>

(4) 神雄과 熊女의 交合으로써 壇君이라는 「子」가 생것다 하는데 이 交合에 잇서서 雄動的地位에서는 이가 男便이 아니라 女便이며 男子의 關係는 「假化」- 一時的 行爲에 그치고 女子는 「孕生子」- 그 結果에 대한 永久한 享受者가 됨 등은 原始社會의 通則인 母系 及 母權的의 證迹으로 볼 것임니다. 群婚(혹시 亂婚Inter-marriage, 雜婚 Promiscuity)의 社會에 잇서서는 所生兒가 母는 분명히 알되 父는 잘 모를 형편이매 親族의 피는 母의 體內로 홀은다는 信仰이 잇서서 血統의 繼承은 저절로 母親을 중심으로 하여 姓가름도 母의 것을 따르게 되니 이것이 母系(Matrilinal kinship)란 것이오 이러케 하는 家系傳承을 母系繼承(Modescent)이라 하고 이러케 성립된 社會를 母本家庭的(Matriolocal)이라 이르며 母親中心으로 血屬的 群團이 성립하여 母親이 家長 노릇함을 母權(Mother-right)이라 하고 그 時代를 母權時代(Period of M.)라 하는 것임니다. 이제 壇君誕生의 과정에 잇서서 桓雄이란 이는 孕胎의 期에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뒤가 업고 壇君은 熊母의 아들로의 存在만을 보이며 그 桓雄과 壇君과의 血屬關係에 「假」라는 條件이 부터잇슴은 아울러서 母權及母系的 사실의 投影일 것임니다. (母系及母權의 起因에 관하여 諸家의 所說이 紛紜하나 여기는 그 사실만을 볼 것임으로 그 理由는 비교적 널리 행하는 一說을 取하얏습니다.)

(5) 이러케 誕生된 壇君에게 朝鮮에 잇는 統治權과 國家生活이 開始되었다 하얏는데 이것은 얼는 말하면 異族婚의 制를 包容해서의 「도토텐」的 種族組織이 완성된 結果로 酋長制가 생기고 이 酋長制가 드되여 種族組織을 파괴하여 다음의 政治組織을 발전케 하는 社會過程을 표시한 것임니다. 이러케 種族의 組織이 鞏固하여 宗族이 一體로 意識되면 토지의 소유나 獵場 가튼 문제로 種族間의 전쟁이 생기고 전쟁의 結果로 國家의 영토와 개인의 소유가 생기고 교통에 因하여 貿易의 범위도 늘고 딸아서 衣服 器具 등 外部文化도 발달해 가고 또 一方에서는 耕作 -犁耨로 하는 그것이 이러나고, 一方에서는 家畜의 飼養도 생겨서 動物이 사람에게 役使됨에 딸아서 「도토텐」的 崇拜的 意味를 일케되고 이러케 차차 社會의 景象이 一變하여 進歩한 制度를 가지게 되는 것이니 (便宜上 桑田氏 「ヴェントの民族心理學」147頁 據함), 壇君의<31> 開國은 이러케 社會學的으로 보아서 그 의의를 든든히 붓잡을 것임니다. 그런데 壇君과 그 具稱인 壇君王儉은 事天者인 首長-巫君을 意味함은 君主의 起原이 「마직」에 잇다 하는 社會學上의 定理에 꼭 合하는 것임니다. (下文參照)

이러케 壇君古記의 내용이 그 材料로나 順序로나 社會學及民族心理學의 通則에 一致를 보임은 그것이 설사 普通의 意味로의 歷史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一種의 歷史(Proto-history)-朝鮮原始社會의 記錄으로 有力한 一傳承임을 首肯치 아니치 못하게 함이 잇슴니다.

9. 經濟史的 考察

「분트」流의 民族心理學 所說로써 말하자면 壇君古記에 映寫된 바 社會는 꽤 진보한 文化의 所有者임니다. 도시가 성립하고 法制가 발생하고 宗族의 지도자가 推戴되여 「도토텐이즘」의 時代도 마치고 英雄及神의 시대로까지 진입된 단계임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나타난 經濟狀態가 얼마나 다른 文化相으로 더부러 조화를 보였는가? 宗族이 이미 定着하고 국토가 平敞한 곳을 차지하얏을진대 거기는 무론 진보한 농업이 잇섯을 것이요 경제의 대세는 이른바 農業時代에 進入하얏을 터인데 古記는 이에 대하여 얼마한 徵憑이 되는가? 농업 발달의 정도에

대하여 詳確한 표시는 업스나 古記의 大意가 重農的이란 것보담 도로혀 農本的이란 함으로써 그 사회에 잇는 농업의 지위를 알 것임니다. 벌써 Hoe-culture를 지내고 Agriculture로 진전한 지도 오랫동안 것이 母論임니다. 古記는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1) 「弘益人間」을 위하여 天降한 桓雄이 「神市」를 건설하고 天政을 執行할 새 그 實際의 執行者는 風伯이요 雨師요 雲師라 하니 농업의 得失이 오로지 자연력에 달렸을 때에 風雨雲物이 농업상 관계로 어떻게 소중한 神格 노릇을 하고 또 이에 관한 呪術이 어떻게 야단스럽고 또 그것이 당시의 君長에게 어떻게 중대한 職司이엇슴은 比較民俗學에서 만흔 실례를 아는 바이며 <32>

(2) 「理化」의 綱領을 열거한 중에 먼저 말한 것이 「主穀」이니 아모것 보담도 農事를 重視한 줄을 여긔서 밝히 알 것이요. 三國志의 「舊夫餘俗 水旱不調 五穀不熟 輒歸咎於王 或言當易 或言當殺」이라 함으로서 이 民族에서 農業과 君王의 관계를 짐작할 것이며,

(3) 神으로부터 難願成就의 呪物로 出付된 것이 艾와 蒜 2種이라 하니 이리케 植物- 특히 蔬菜에 靈能을 認한 것도 重農民이엇기 때문일 것이며,

(4) 「化」의 條目을 들되 「百六十餘事」라 하니 이 三百六十餘事라는 數는 실로 太陽의 *度一週로서 어덧을 것으로 重農에 인한 실험적 지식의 一應用일 것이며,

(5) 아마 至難한 「부」로 課한 듯한 것이 「見日光百日」이니 이 至重한 太陽 「부」는 太陽이 最神聖物이요. 그 所以는 농업에 대한 절대 最高의 신이기 때문일 것

임니다. 桓雄天王이 天國으로부터 가지고 온 「符印三箇」란 것이 무엇인지는 표시된 것이 업스되 東明王篇에 神母가 朱蒙을 보낼새 五穀種을 싸서 주엇다는 話套로 溯推하면 穀種이 그 중의 중요한 一物이엇슴는지는 모르며 내켜서는 이른바 「益人間」이란 것의 具體的 內容이 본대부터 農業 普及 가튼 것인지도 모를 것임니다. 이는 桓族 出現의 역사적 의의가 狩牧民 중에 農業民으로 나왔슴에 잇는 듯 함으로써 생각나는 바임니다. 오랜 信史에 傳하는 바에도 朝鮮과 夫餘가 다 農業的 優越 國民임이 사실인 것도 참조할 것일 줄 압니다. 震域古信仰의 核心이 太陽崇拜요. 그것이 농업 경제에 최대 因由를 가짐은 새삼스레 말할 것까지 업는 일임니다.

10. 言語學的 考察

인문 과학적 모든 방법으로써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그 재료와 結構가 아모 것하고도 矛盾되지 아니하고 齟齬하지 아니함이<33> 대개 이러함니다. 그러나 辭說과 및 그 表現文字는 後代의 것이요 外來의 것이매 오히려 불안스러운 점이 잇다 하자면 잇을 것임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다행히 古傳成立 당시의 확실한 유물로 일편의 眼目을 짓는 소중한 名句가 들어 잇슴으로 모든 疑慮를 가져다가 그 최후의 판단을 이 璞玉의 透視와 正解의 맛길 수 잇슴니다.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壇君古記의 總收全結最後指歸인 「君王儉」이라는 一語의 古義眞義임니다. 傳하는 사실이 不實할지라도 이 語義의 支持가 튼튼하면 오히려 본래의 地步를 動搖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실이 이미 상당한 근거를 가졌는데 만일 이 名號의 內容이 거긔 증거가 되고 그 表裏가 될진대 名實이 相符하는 바에 다시 털끝 만한 의심이 그 사이에 容納될 리는 잇을 것임니다. 古記의 傳하는 사실과 壇君이라는 名號는 과연 능히 契合이 되는가 아니 되는가 이제 거긔 言語學的 觀察을 더하여 볼 맛게 업슴니다. 古代의 實名일진대 당시의 語形을 그대로 그리기를 저 新羅의 次次雄, 百濟의 於羅* 등과 가튼 것이니까 얻는 바로 音에서 義를 구하여 볼 것임니다.

(1) 古記의 내용으로만 보아도 당시의 社會相은 이른바 「지코-렐리어쓰」基調이엇스니까

그 統領者, 指導者는 이른바 「디신-맨」-巫君-巫字가 못 맞당하면 神人的 國君-漢文套로 쓰자면 師로서 君을 兼하였든 靈的 人이였스리니 壇君王儉은 이런 人物 及 地位에 相應하는 稱謂이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巫란 것이 後代에는 극히 賤劣하야졌지만은 愚蒙한 上代에 잇서서 神人이니 聖人이니 하는 것이 지방 말로 하자면 巫에 不外함이 어느 나라에서든지 - 朝鮮서도 명확한 사실인 즉 그 地位야 시대를 말하서 어떻게 승강되었거니 變할리 업슬 그 名義는 오히려 넷 그것을 傳함으로 볼 것이며 말하서 壇君王儉의 名義를 할 수 잇스면 現代의 活用語에서 縛잡을 수 잇서지라 할 것입니다. 이러케 探索해 볼진대 누고든지 지방 民間에서 巫를 부르는 말에 「당굴」이라는 것이 잇슴을 注意할 것입니다. (좀더 유심히 考究하시는 이는 이 「당굴」이 今義에 首를 이르고 古義론 天을 일우든 「*」과 語源的 관계가 잇서 본대 天人, 頭人의 의미에서 나왔슬 것까지를 생각하실 수도 잇슬 것입니다.) 兩湖之間이 더욱 두드러지고 다른 모든 지방에 共通도 하는 말이어니와 무당을 불러라 할 경우에 「당굴」을 불러라 하는 것 따위입니다. 혹시 이 말과 音相似되는 관계로 洪정에 쓰는 「단굴」이란 말과 混同하는<34> 이가 잇스나 「당굴」과 「단굴」이 語形으로나 用例로나 서로 風馬牛인 것은 조금 삶히면 얼는 알아질 바 임니다. *과 ㄴ, ㄹ과 ㄴ이 서로 通轉되고 더욱 國語漢譯上에는 흔히 그리됨으로써 보건대 위선 音理上으로 壇君의 語源이 「당굴」에서 나온 것임을 말함이 과히 無據치 안타 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 추측이 맞고 아니 마췌◆은 좀더 尤력한 證명을 要함이 母論입니다.

(2) 그런데 民族的, 言語的 특히 文化的으로 同源 及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 隣住民邦에 잇는 語源的 類同關係 如何를 삶히건대 위선 蒙古에서 恰好한 例證을 발견합니다. 蒙古語에 天을 「텅겔」이라 하는데 「텅겔」은 同時에 巫를 의미하며 漢書에는 이 「텅겔」을 撐犁라고 對字하였스니 그 古音에 「탕글」이 잇슴을 알 것입니다. 天과 巫를 가튼 思惟範疇에 너흠은 그때 사람의 心理上 當然에 부칠 것인 즉 蒙古의 巫天同語와 朝鮮의 그리함이 사실로도 우연한 것 아닌 동시에 「탕글」과 「당굴」이 語形으로도 본대 일치의 것임을 알 것입니다. 여기 대하야 魏志에 馬韓의 法俗을 적되 그 五十餘國이 나라마다 神邑을 別設하고 天神祭奉하는 이를 두었스되 그를 「天君」이라 한다 한 것이 잇스니 이 天君이 갈데 업시 「당굴」일 것은 職司뿐으로만 아니라 그 名號가 우리의 이른바 音義雙彰譯이란 譯例에 準하야 天君이 곧 「당굴」의 對字임이 분명함으로서 알 것이오 이는 그대로 당굴-텅겔-天君-壇君 등의 互相關係에 대하야 아모 것보담 尤력한 文獻的 徵憑이되는 것입니다. 이러케 「당굴」즉 壇君이 天人 卽 事天子쯤의 의미임은 거의 의심업슬만치 알아집니다.

(3) 그러면 「王儉」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영검스럽다」, 「큘스렵다」에 比對하면 혹시 少見多怪의 한탄이 잇다 할지도 모르매 그만두고 바로 古義 그대로를 더듬어 볼진대 古語의 「알」과 밋 그 轉形인 「암」에는 尊勝, 長上 등의 義가 잇고 「가」又 「감」에는 大人, 神聖人 등의 義가 잇는데 이 兩語를 결합하야 王者의 칭호를 삼음이 駕洛의 旱岐(阿利叱智)와 百濟의 於羅瑕에서 보는 바와 가튼 즉 王儉이 「암감」혹 그 類語의 譯對로 王號, 특히 巫君의 稱謂임을 짐작할 수 잇습니다. 그러면 壇君王儉이라 具稱함이 곧 天人聖君, 평평히 말하야 巫君이란 義에 不外함을 알수 잇고 이것이 어떻게 古記 全體의<35> 傳하는 事實-表現하려한 의미에 긴밀히 附合함을 보겠습니다.

(4) 그러나 理論은 어찌갓든지 남의 일은 어찌 하얏든지 震域古代에 사실로 巫君 가튼 것이 잇서(巫治時代가 잇서서) 元君이신 壇君이 또한 그리하실 것을 佐證할 類例가 잇는가 업는가? 新羅의 古代에 慈充(次次雄)이란 칭위를 가진 君主의 시대가 잇섯는데 慈充은 巫-니 國俗이 巫를 높힘으로 이러케 이르나니라 함은 新羅史家 스스로 明言한 바임니다. 이밧게 百濟의 於

羅, 駕洛의 阿利, 高句麗의 高鄒라 하는 王號들을 어원적으로 查究하여 보면 모다 神事に 관계있는 말임이 분명하니 대개 祭政一致期の 巫君으로서 옳을 것입니다. 이때도 오히려 이러하얏거든 하물며 훨씬 그 이전의 社會-原始的 國家에 神巫가 首長노릇을 아니하면 누가 하얏스리까.

(5) 다시 轉滋나 脫化한 方面을 향하여 그 補證 傍據를 차질진대 거의 指不勝擣할 것이 있다 하리니 국내에서로 말하면 古書에 壇君王儉을 혹 仙人王儉이라고 한 것도 있고 天帝子라할 대신으로 仙人之後라고 한 것도 있는데 이 仙人이란 것이 巫의 一類語인 「산이」(「선이」)의 譯對요, 「선양당」이란 「선양」이 또한 巫의 義임으로써 仙人王儉 즉 壇君王儉, 仙人之後 즉 天帝子로 意相痛할 것 가틈이 그 一例일 것입니다. 난밧그로 말하면 日本 古代의 王號 ミコ란 것과 王號 乃至 神號(통틀어 大人號)에 ミコト란 것이 巫의 ミコ와 通함도 또한 一例라 할 것입니다. 또 아모 것보담 포괄적의 큰 증거는 橫으론 震域으로부터 더부러 文化的으로 同係에 부치는 여러 民邦이 凶奴의 撐犁孤屠(譯天子)와 北燕의 天王과 契丹의 天皇帝와 日本의 天皇帝와 琉球의 天「伽倻志」처럼 모다 天으로써 王號를 지음과 縱으로 壇君으로 더부러 說話上으로 類型에 부치는 여러 部族이 解慕漱의 天王郎과 朱蒙의 天帝子와 赫居世의 天子와 加洛의 天干과 乃至 桓雄의 天王처럼 또한 모다 天으로써 位號를 일컫는 것이 다 足히 壇君王儉-天帝를 가르쳐주는 대사일입니다. 그러나 壇君王儉이 天君 혹 巫君의 義임을 밝힘에는 이보담 더 煩한 辨證을 要치 아니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케 내외를 通하고 古今을 辟여서 壇君王儉의 語源과 밋 그 用例에서 얻는 말하면 「마지코-렐지어스」君長의 稱號일 것을 알았스며 말하서 이 事理 兩全과 名實相符가 아모것 보담 유력하게 壇君古記의 原史的 가치와 한가지 傳承의 確度<36>를 自證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러컨마는 壇君記를 후인의 妄作가치 알려하는 이가 있다 하면 마음대로 눈을 가리고 太陽을 보지 말라 할 맞게 업습니다.

11. 結論

이상에 考察한 바를 收結할진대

- (1) 震域의 古代는 또한 呪力本位, 祭政一致의 社會이엇슴.
 - (2) 古傳를 통하여 알 수 잇는 時限의 안에서 震域의 古代는 農業經濟의 國民이엇슴.
 - (3) 神話의 型式에 聖典의 用을 겸한 壇君記는 一面에 잇서서 「도데이슴」시대에서 英雄 及 神의 時代로 進展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一種의 原史임.
 - (4) 壇君古記에 나오는 規範的 稱謂와 歷史的 地理는 다 確實한 事實의 根據 또 背景을 가진 것임.
 - (5) 壇君王儉이란 것은 要하건대 天帝子로 神政을 刱始하든 古君長의 稱號로 個人으로 憶念될 때에는 震域人文의 祖인 어른임.
- 을 압니다. 學的 良心, 誠意, 慧眼 앞헤 壇君은 그 威光이 減해질 것 아니라 더욱 朝鮮 生活와 朝鮮을 중심으로 하는 東方文化에 대하여 그 奧義와 秘機를 變적어릴 一大 存在일 것입니다.
- (이 立論의 體系를 삶히시는 材料로 拙著 「兒時朝鮮」(東洋書院發行) 及 「白頭山觀參記」(漢城圖書株式會社發行)를 一讀하시기 바랍니다. 또 姊妹論文에 下記 諸種이 있습니다.

壇君論 (丙寅五月以後東亞日報連載)

壇君神典의 古義 (戊辰一月以後東亞日報連載)

民俗學으로 보는 檀君 (戊辰一月中朝鮮日報連載)

檀君神典에 들어있는 歷史素 (戊辰一月中中外日報連載)

不咸文化論(日本文)(朝鮮思想通信社發行「朝鮮及朝鮮民族」中) <37>

<22-37>

8.

잡지명: 삼천리 제8권 제4호

발행년월일: 1936년 04월 01일

기사제목: 檀君陵

필자: 李光洙

기사형태: 기행문

檀君陵

李光洙

벌써 여러해 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나는 金性業 君과 단 둘이 江東의 檀君陵을 奉審하
라고 자동차 平壤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탄 차는 萬壽臺와 乙密臺를 거쳐서 牧丹峯을 돌아 흥부를 거쳐 海岩山 서쪽을 스쳐서
大城山 동쪽으로 동북을 향하여서 江東으로 가게 路次가 되었습니다.

萬壽臺는 高句麗의 옛 대궐터로 작년에 불에 탄 門趾가 발견되었고 乙密臺는 新羅의 國仙과
같이 檀朝이래의 朝鮮 고유의 修道傳說을 가진 乙密仙人의 遺址.

平壤 서울 자체가 東來 山人王儉의 宅이라 함은 檀君朝이래로 이 仙道の 旺盛하였음을 표하
는 말일 것입니다. 崔孤雲이 國仙*郎의 碑에 國仙道를 말하여 「吾東有道」라 하였음은 新羅
만을 가라친 것이 아니었슴은 물론이되다. 고구려 男兒의 心身을 단련하여 남북만리의 대제
국을 세우는 水魄을 갖호게 한 것이 또한 이 國仙道일 것이니 乙密仙人은 그 중 아마 큰 仙
人인가 합니다.<70>

乙密臺에서 牧丹峯으로 가는 松林中, 大洞江으로 면한 쪽에 麒麟窟이라는 것이 있어 東明聖
王에 관한 유적이라고 전하거니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永明寺는 본래는 고구려의 궁궐터라
고 하거니와 乙密臺와 牧丹峯의 사이 손스바닥만한 지면이 어떠한지 그리케 深邃하고도 陽明
하게 생겼을까 실로 자연의 驚異라 할만한 風景이어나와, 우리네 선인들은 이 풍경미를 잘 인
식하여 압해는 궁전을 지었고 뒤에 浮碧樓, 得月樓, 轉錦門, 玄武門 같은 것을 지어 비록 半
軍用, 半翫賞用이라 하더라도 이 자연의 미을 십분 咀嚼하고 또 보충한 것을 봅니다.

牧丹峯 앞에 永明寺 같은 야비한 건물이 있는 것은 참는다 하더라도 お牧の茶屋라는 飲食店
의 건물이 이 풍경의 가슴팍이를 차지한 것과 이 천하절경에 아까시아 나무를 亂植하여 놓은
꼴은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牧丹峯과 같이 몸집이 적고도 모양이 빼난 동오리는 비록 소나
무라 하여도 키 큰 나무는忌할 것이오 다박술 포기나 향나무 같은 키 작은 나무와 山草만을
남겨서 그 윤곽을 어지럽게 아니하도록 할 것인가 합니다. 더구나 꼭대기에다가 最勝臺라는
누각을 지은 것은 牧丹峯의 머리를 잘라버린 것과 같은 파경이니 만일 누각을 지으랴거든 峯

頭보다 훨씬 떠러져서 누각이 峯의 가슴에 의지하고 안기도록 할 것이요 峯의 기세를 누르도록 할 것이 아닙니다.

牧丹峯이라는 명칭은 太白에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古朝鮮에서는 나라에는 나라의 太白, 小白이 있고 고을에는 고을의 太白, 小白이 있습은 현재의 지명을 <71> 보아서 분명한 것이니 白頭山은 나라의 太白으로 백산의 머리로서 박머리, 또는 박마리라고 불렀던 것이요 지금 妙香山도 본래는 太白이어니와 平壤 서울의 지형으로 보면 牧丹峯이 太白이요 乙密臺가 小白임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太白이라는 한자를 붙인 산을 지금도 우리말로 함박 (한박의 音便일것)이라 하고 小白을 쪽박이라고 부르는 것은 江東 사람은 다 아는 배어니와 함박이라는 이름이 함박꽃을 연상하여 牧丹으로 변한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江東의 太白 小白이나 吉林의 小白山脈이나 또 서울의 負兒岳, 白岳이나 다 같은 계통의 생각에서 나온 山名일 것 입니다.

牧丹峯을 넘어서면 흥부라는 곧인데 이 흥부라는 지명은 興福寺라는 寺名에서 온 것, 興福寺는 본명 伊佛蘭寺로서 興國寺와 함께 吾土의 최초의 절이자 고구려 시대의 평양의 西大刹입니다. 지금도 大洞江의 물을 끌어들여 飲料와 舟運을 겸하였던 運河의 자취가 남아있습니다. 이 근방은 大洞江의 절벽의 후임한 구비로 길이 낮는데 실로 독특한 풍경을 가진 구릉지대라 일면에 고구려 시대의 赤瓦片이 보이고 海岩 거의 다가서 한 조발 속에는 高句麗宮址라는 木碑가 박혀있습니다. 牧丹峯을 북판에 두고 두는 土城山까지 앞으로는 外城까지, 東으로는 文殊山, 盤橋里, 土城 등지까지 四方 20리 내지 30리 巨한 大都會 엮던 것은 기록과 출토품으로 보아서 분명합니다. 平壤 서울 戶數 230,000 人口 1,500,000, 羅唐聯合軍이 陷沒시킨 平壤의 옛터전이 이것입니다.<72> 당시의 고구려인의 문화가 겨우 千有餘年을 지난 오늘 날에 江西五陵의 건축과 벽화와 得月樓의 세멘도石柱와 浮碧樓의 礎石 2개와 平壤博物館前의 礎石 2개와, 中城外城의 大洞江護岸工事인 두탑성 뿐입니다.

檀君이 그저께요 東明王이 어제께라

기똥 반만년이 눈감았다 뜰 새이니

無窮할 생명혀오매 꿈入 인 듯 하여라.

실로 1,000년이 暫間이요 5,000년이 한참입니다. 一民族의 생명은 「精神잇고 精誠잇는 노력만 잇으면」永遠無窮한 것이 기똥 5,000년사를 俯仰慷慨할 나위는 없습니다. 지나간 榮光의 回顧에 醉할 나위도 없고 지나간 설움에 恨嘆할 나위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장래를 쌓을 분이니 因은 반다시 果를 낳는 것이라 내 손으로 쌓는 因을 빼앗음은 하늘도 못하는 것입니다.

大洞江 몇 구비오 千구비오 萬구비라

흘러 흘러흘러 하늘 끝에 닿았서라

끓인 듯 이어 흐름이 저 강물과 같아라<73>

大城山은 平壤 서울의 鎮山입니다. 좀더 컷으면, 좀더 높았으면 하는 감도 있으나 그 線의 웅대함이 또한 聖山의 風度가 없지 아니합니다. 傳해 이르기를 이 산에는 못이 아흔 아홉 개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軍用貯水池인 모양입니다.

차가 江東 앞에 다달았을 때에 江東인사 수십인이 나와 맞아 주셨습니다. 그는 檀君陵을 찾아 온다는 나를 반갑게 여긴 것인 듯 합니다. 지금 세상에 일부러 檀君陵을 찾아 다니는 朝鮮인은 아마 극히 드물 것 입니다. 옛날은 옛날대로 崇明의 惡疾이 박힌 선인들은 人民으로 하여금 檀君의 이름 좇아 못 듣고 三皇五帝를 제 조상으로 알게한 까닭에 檀君陵邊이 寂寂 하였고 오늘은 오늘대로 그러합니다.

江東인사들은 檀君陵을 잘 守護하지 못한 책임을 누누히 변명하면서 우리를 檀君陵으로 인도 하였습니다. 함박, 쪽박이라는 江東太白, 小白이 나는 우리에게 문화를 처음으로 주시고 국가 생활을 처음으로 주신 조상이신 檀君陵 앞에 俯伏하였습니다. 나를 맞아 주신 이 지방 여러분도 같이 俯伏 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X상 앞에 었더린 불초한 후손들! 진실로 불초한 후손들이 아닙니까.

바로 陵곁에 집을 짓고 사는 村民까지 이 높으신 조상의 陵을 고맙게 생각 할 줄을 몰라서 鷄犬으로 하여곰 밟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悚悚한 일 입니다.

檀君陵이나, 아니냐하는 문제가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李朝에서도 해마다 江東縣令으로 하여금 致祭를 하여왔고 민간에서도 입에서 입으로 이 무덤이 檀君陵인<74>것을 전하여 왔으니 檀君陵이 아니십니까. 유식한 체하는 무리들로 하여곰 제 멋대로 檀君의 존재를 의심케하고 檀君陵의 존재를 의심케 하라 하시오. 그러하더라도 우리에게 국가생활을 처음으로 주시고 360事의 문화생활을 처음으로 가라치신 檀君은 엄연한 實在시요 또 檀君이 實在시면 다른데 그 어른의 陵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동안 江東의 檀君陵 밖에 우리가 檀君陵으로 생각할 곳이 없지 아니합니까. 그러므로 江東의 檀君陵은 우리 始祖 檀君의 陵寢으로 尊崇하고 守護할 것이 아닙니까.

朝鮮인은 祖先을 崇拜한다고 합니다. 간 곧마다 조상의 분묘 앞에는 많은 재물을 들어서 石物을 하여 놓고 祭閣을 지어 놓고 山直이를 두어 수호를 하고 춘추로 성묘를 합니다. 그러하신 바는 祖上의 祖上이신 檀君陵은 쑥밭이 되게 내버려두고 민족의 恩人인 모든 偉人의 분묘는 잇는 곧 쫓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다가 죽은 무명한 조상들을 위하여 족보를 꾸미기에는 힘을 쓰면서도 족보의 족보인 朝鮮인 전체의 역사와 위인의 전기를 발행하기 위하여 分錢을 내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못된 祖先崇拜는 마춤내 朝鮮을 못살게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느 재산 잇는 朝鮮인 이돈 10,000원이나 내어서 檀君陵을 修築守護케하고 朝鮮史를 編纂發行케 하고 朝鮮어의 사전과 文典을 발행케하고 檀君에게는<75>좋은 자손이요 우리에게는 높은 兄祖인 모든 민족적 위인들의 유적을 찾아 기념하고 전기를 編修하여 발행케 할 特志家는 없는가. 얼마 안되는 돈. 100,000원이면足할 일. 이만한 일을 할 자손은 없는가. 이만 일을 할 자손은 없는가.

江東인사들은 檀君陵의 修築存護를 위하여서 義捐金을 모집하였으나 某事情으로 中止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서시오, 한 사람이!

나는 이 날에 외람되게 이 지방인사들의 鄭重한 대접을 받고 함박 쪽박과 아달메의 하로를 우렁어 보고 限없는 感慨 속에 하로를 보내고 成川의 東明館과 3登의 32舊天을 거치어 水路로 비를 맞으면서 檀君의 옛 서울 平壤으로 내려왔습니다. 朝鮮문화의 발상지인 平壤, 朝鮮민족의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진 平壤 風景만으로도 朝鮮인에게 무한한 애착심을 주는 평양. 그러나 그 平壤은 1200여년 前 羅唐聯合軍의 손에 쑥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구려의 精髓分子 380,000人은 포로가 되어 唐으로 잡혀갔습니다. 漢族은 대대로 큰 怨讎인 고구려로 하여곰 再起의 力이 없도록 根絶을 시킬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잡이를 신라인이 하였습니다. 신라인은 三國 中에 가장 노예적 근성을 많이 가진 무리. 玉으로 부서진 고구려의 문화와 血統이 끊어지고 구차한 안전을 도모하는 신라의 혈통과 정신만이 남은 것이 지나간 1,000년의 불행이었습니다.<76>

<70-76>

IV. 한국 근현대 잡지 “영웅” 관련 자료

1.

잡지명: 대한협회회보 제2호

발행년월일: 1908년 05월 25일

기사제목: 英雄을 求호는 者 | 困窮호는 人을 崇拜호라

필자: 沈宜性 침의성

기사형태: 논설

英雄을 求호는 者 | 困窮호는 人을 崇拜호라 (영웅을 구호는 자 | 곤궁호는 인을 숭배호라)

沈宜性

貧賤憂戚호야 百不如意라도 欺心이 不起호면 善念이 自生호리라.

○ 困窮은 決코 憂戚을 做出호는 것이 安이라. 困窮은 英雄豪傑과 賢才鉅商을 養成호는 根源이니 古로부터 大名을 成호고 豪富를 致호는 者 | 困窮의 家에서 出生호는 者 | 率多호니 其 例를 證호건디 東西古今에 夥多호야 一一히 枚舉키 未遑호거니와 古諺에 有호디 貧賤家에 生호는 其 人은 多幸호고 富貴家에 生호는 其 人은 不幸이 莫甚이라 호얏시니 其 故何在오. 大抵 人人마다 貧賤困窮호는 境遇에는 自然히 萬事에 自由를 不得호는 故로 已를 欺호고 人을 驕호는 心이 發生호는 暇隙이 無호고 善念이 自生할 것이오. 善念이 已生호면 是를 基호야 百方事爲가 正道에 出치 아니함이 無호느니 勸苦로써 事에 從호고 忍耐로써 難을 當호는 故로 事業도 成就호고 大名도 顯著호거니와 若 此와 反호야 富貴家에 生호는 其 人은 人間萬事가 心과 如호야 何人이든지 自己에서 優勝호는 者 | 無호는 줄로 自許호고 世途의 辛酸을 不知함으로 學問을 修치 안코 事業을 做치 아니호야 一生을 終호도록 碌碌히 醉生夢死 中에 光陰을 釣호는 故로 西人이 有言호디 世上에 愚暗호는 者는 權貴富豪의 案頭에 多호다 호얏시니 此를 證호건디 貧賤困窮이 境遇에 在호는 者는 卽 皇天이 命我호야 幸福을 降生호섯싸는 觀念이 發生호야 奮發勉勵의 心으로 事業을 共濟호리니 事業은 卽 英雄行爲오 國家裨益이라. 國家를 愛호는 者 | 英雄을 求치 아니치 못호고 英雄을 <53>求호는 者 | 困窮을 崇拜호는 然後에 得할 줄로 確信할진저.

日本會津에 城主保科正之公이 一日은 山崎闇齋에게 向호야 問호되 君은 平生最樂호는배 何事인고 호거날 闇齋君이 答曰 王侯의 家에 生치 말고 貧賤家에 生호는 것이 樂의 第一이라 호얏시니 闇齋이 此 言을 一時警俗호는 語句로 惟호는 者 | 多호나 吾人은 以爲호디 闇齋君은 眞謹慎人이라. 一時警俗의 言으로써 眞實로 正道로 引導호자는 主義인 줄 思量호노라.<54>
<53-54>

2.

잡지명: 대한협회회보 제11호

발행년월일: 1909년 02월 25일

기사제목: 讀無名氏英雄傳

필자: 嵩陽山人 송양산인

기사형태: 논설

讀無名氏英雄傳 (독무명씨영웅전)

嵩陽山人

世或有無名氏之英雄乎아 夫 無名氏者는 古來厭世汚濁호야 潔身隱淪者ㅣ 不欲其名之顯於世호야 遁跡而藏名 故로 世人이 或稱之曰 無名氏라 호고 不然이면 或 其 人格이 碌碌庸鄙호야 無足可稱於世而與腐卉枯木으로 同歸於漸滅者는 自然爲無名氏矣어니와 今既以英雄之稱으로 加之호야 著之傳而載之史호야 其奇傑魁梧之氣와 踴大宏壯之蹟이 震耀宇宙호며 喧勝世界者ㅣ 尙曰 無名氏라 호면 是豈理也哉아 然則 此 無名氏 三字가 必然有趣有味之一別樣問題也로다. 蓋 無名氏之英雄은 何洲何地之生産이며 何時 何代之人物인고 豈非北美加拿大之革命黨<4> 一領袖로 西歷一千八百三十七年 [我憲宗三年 丁酉] 에 海軍島上에서 抛一身供犧牲호든 無名氏英雄 [次安毛雅] 가 卽 其人也로다. 噫라 法國人 迦爾威尼氏가 此 無名氏 英雄의 傳을 撰述호야 至今 吾人의 眼目에 供호얏도다.

既 曰 無名氏英雄은 次安毛雅라 호니 是는 非無名氏也라. 乃明明赫赫의 有名氏也어늘 何以 曰 無名氏也오 其必有所由然血然者矣리니 如欲言之인되 有不堪鼻酸眼熱호고 髮豎膽裂호야 不覺擲筆而一咤也로다.

蓋次安毛雅는 一代之英傑也라. 在年青頭黑之日에 何故勞勞乎跋涉風塵호며 衝冒雨雪호야 以 血肉一身으로 貢獻於愛國志士之舞臺호고 顛沛於刀山劍水와 豺林虎窟之中호야 畢竟은 演出悲絕慘絕奇絕快絕의 一場戲劇호던 此 英雄이 平生에 不可對人說破호 隱痛至恨이 抱在胸中호 故로 以如斯勃勃之英氣로 輒敢對人低頭호야 磨滅他名字호고 但 以沒沒沁沁의 無名氏로 自標也로다.

大抵 名之 曰 幽厲면 雖有孝子賢孫이라도 不能改호느니 我朝鄭北窓謙이 以若才德節行으로 終於沈淪岩穴者는 爲其父之有順朋也라. 今此次安毛雅도 以若英傑로 終於無名氏英雄者는 以其父 [史孟毛雅] 之 罪深惡極也라. 蓋 史孟毛雅者는 往在西歷一千八百二十五年 [我純祖 乙酉] 에 加拿大法人種 若干名이 謀欲脫英人之 羈絆호야 乃糾合同志호야 將樹立共和之政府를 如合衆國호야 計劃이 己定이러니 彼史孟者가 亦與其謀라가 被英吏之甘誘호야 慾火가 忽動於 金 十萬圓호니 可憐他革命黨性命을 斷送於史孟一人之手中호고 使加拿大全部生靈으로 至今 呻吟於他人羈軛之中케 호니 嗚乎라 史孟之罪ㅣ 大矣로다.

史孟이 負如此之罪惡호니 一船人民이 無不唾<5>罵怒辱 曰 是賣國 賊是賣友賊이라호야 燒毀其家產호며 擯逐於鄉里호야 不與之同國而戴天호고 至於其子 次安이 亦被逐於大學校矣라. 由是로 史孟이 與其妻子로 變姓名호고 逃居他地호되 所到之處에 人輒覺知호고 投以瓦石호며 驅以拳踢호야 極口惡罵에 使不得容接케 호니 史孟이 變名隱 蹤호고 以逃生疎空曠之地라도 宛如其額上에 曾有賣國賊之烙印호야 到輒被覺호니 噫라. 惡事之報應은 若有鬼神이 揚如柱之 炬火호고 追隨其後而呼唱之호느니 可不戒哉며 可不畏哉아.

嗟乎라 彼 史孟이 雖對其妻與子라도 諱其作惡호야 不敢吐眞 故로 懷中에 雖藏十萬圓金幣호나 羞愧而不敢出호고 山棲水息호며 風餐露宿호야 忍飢忍凍에 周行數月호다가 竟至伏劍自斃호니 所謂 十萬圓金錢은 渠不得一錢을 懷歸於黃土中호고 併與其家產而燒燼之호며 性命而拋棄之호며 妻子而苦毒之호고 所得은 只是千古不磨호는 賣國之賊之惡聲醜臭而已니 嗚乎라. 此足爲貪富貴 賣國賣友者之殷鑑也로다. 彼次安者는 原來忠孝之人이라. 方其父之被逐狼貝也에 慰藉其父曰 以吾父而豈有作此罪惡之理哉아 是必黷昧而被誣者也니 兒願爲父辨之라 호되 其父對子而不敢一語호고 但 飲恨溢愧호야 蹙蹙若喪家之狗러니 及其自斃之後에 探衣 袋則爲史孟斷案之十萬圓紙幣가 突然出來矣라 於是에 次安이 始知其父가 果然 負此千古難洗之罪惡호고 痛恨傷心에 不敢復對人而舉顏矣라.

假令 次安이 是個碌碌鄙夫면 必應將此十萬金額호고 與其母로 渡一葦之合衆國호야 自足做一生之生活安樂이로되 乃者次安은 非此等蠅營狗苟之徒라. 其 胸衿이 磊落如光風霽月故로 輒慨然以助革命扶國權호야 以贖父罪之萬호다가 <6> 脫不幸而徒犧牲此身이라도 亦所甘心也라 호야 於是에 誓其母兄而各相分離호야 蓬飄萍梗에 沫血洒涕호고 將此 十萬金圓호야 供饋革命之需用호고 乃不敢以蹤跡現而但以突凡精神과 軒昂肉身으로 爲如來之色相衆生相人我相호야 以現諸十千大千世界호니 此 人之所以不可思議호야 但 指稱無名氏而爲名氏者也로다.

嗟夫라 雖其志未得伸호고 自戕其三十青生於肉風血雨而無所怨호는 亦足以少償其父之罪債矣라. 余 讀至於此호야 每念世間에 不能無史孟者之賣國負心호니 願以此日誦於其側호야 使之有所懲愆則豈非其人之幸福이며 亦豈非其子孫之幸福歟아. 余 不能無感念於茲일시 特揭其事而供世之座右銘호노니 宜其省微而毋鑄錯焉이어다.<7>

<4-7>

3.

잡지명: 서북학회월보 제2호

발행년월일: 1908년 07월 01일

기사제목: 時世가 造英雄

필자: 本校學生 朴漢榮 (一時間의 作) 課程 본교학생 박한영 (일시간의 작) 과정

기사형태: 잡저

時世가 造英雄 (시세가 조영웅)

本校學生 朴漢榮 (一時間의 作) 課程

使天下之萬物而蠢動者는 春也오 使天下之萬物而閉藏者는 冬也라. 此와 同히 英雄으로 崛起케 호는 者도 亦 時勢也오 英雄으로 蟄伏케 호는 者도 亦 時勢也라. 故로 人이 其 時를 得호면 其 志를 得호고 其 時를 不得호면 其 志를 不得호는니 然則 英雄은 非人自造요 實時勢所造로다. 英雄云英雄云호니 其目也 非四며 其臂也 非六이오 抑亦其人也 非天上落來者며 非地中湧出者오 乃是平日溪山의 一漁父와 田野의 一農夫로되 但遇其有爲之時호야 能成其震世之功故로 其威焉撼乎天地호고 其名焉垂乎竹帛호야 世世稱之曰 某果英雄이오 英雄이 果某라 호는도다. 蓋 天下가 晏然호야 四陲에 警報가 不至호고 萬國이 禮節을 相崇호야 世世泰平

하고 人人咸悅이면 舉天之下에 無可以樹偉業之地오 無可以立奇功之事호리니 當此之時호야 縱有拿坡崙이 重出호고 華盛頓이 復蘇라도 勢必退與江湖之魚鴈而同樂이오 <13> 與雲山之麋鹿而同群호 而已로다. 嗚呼라 嗚呼라 我全國同胞의 祖先이여. 生而人不知焉호고 死而世無聞焉호니 是豈盡無英雄之天資호야 與歲月同老호며 與草木同腐哉리오. 實所遇之時然耳라. 今日時勢는 大不昔若호야 有志면 事可成이오 有爲면 功可收矣라. 故로 何國을 勿論호고 其 力이 衰老호면 我可使之一變爲少年을 如嘉富耳之於意大利오 其 勢가 離散호면 我可使之再合爲聯邦을 如俾士麥之於日耳曼也라. 若 今日之時勢가 尙依然如前호야 閉關而不開호고 鎖港而不放호며 電綫鐵道가 不能聯於大陸호며 汽船雷艇이 不能航於巨洋호고 武藝를 無地可用호고 器械를 無所可施면 雖無英雄幾人이라도 或可以自保自守어니와 今 西勢가 東漸호고 北隣이 南窺호야 風雲을 鞭호며 雷霆을 驅호미 彼 皆 今日英雄을 造호는 時勢를 得호는 能力이니 誠可畏矣로다. 然則 時勢는 英雄을 産호는 母라 可以稱道호지며 英雄은 時勢의 産호는 子라 可以決言호지라. 吾人도 此 時에 際生호얏스니 亦 英雄時代人物也라. 然이나 崑山之玉이라도 不琢不磨호면 難成至寶요 天府之土라도 不耕不耨면 未免荒蕪라. 人도 亦 然호니 雖其品資가 卓越호고 風儀가 峻嚴이라도 不能做英雄事業호야 國家를 不爲之扶호고 人民을 不爲之濟면 是는 天의 與호신 時機를 自失호미로다. 如此則家家가 盡是英雄이오 人人이 無非英雄이라도 有何補於國哉아. 噫我同胞여 勿謂有種호고 幡然喚醒호며 奮然振作호야 縱已戢之麟호며 舉已委之翅호야 敎育으로 回國力於頽敗之餘호고 實業으로 救民生於塗炭之中이면 我卽英雄이오 英雄이卽 我리니 勿失此千古惟一難再之時어다. <14>

<13-14>

4.

잡지명: 태극학보 제8호

발행년월일: 1907년 05월 24일

기사제목: 韓國興復은 英雄崇拜에 在호

필자: 友洋 崔錫夏 우양 최석하

기사형태: 논설

韓國興復은 英雄崇拜에 在호 (한국흥복은 영웅숭배에 재호)

友洋 崔錫夏

頃年에 日本에 有名호는 一政治家가 英國 大英雄 굴라드스톤 氏를 尋訪호야 互相 對語호시 굴氏ㅣ曰 日本人이 英雄崇拜호는 公德心이 有乎아 答曰 明治維新 후에는 此 公德心이 漸次 衰退호다 호되 굴氏ㅣ曰 此는 可惜호는 現象이라 何國을 勿論호고 完全히 立憲政治를 實行호려면 此 公德心이 第一 必要호니 今后로는 日本人은 英雄崇拜心을 養成호미 一大急務라 云호얏다더라.

友洋生이 曰 굴氏의 所論은 金石之論이라 可謂호리로다. 國의 文明程度의 如何를 勿論호고 其 國民이 人物을 崇拜호는 公德心이 有호면 其 國이 必興호고 此 公德心이 無호면 其國이 必衰호느니라. 今日 世界列強의 文明史를 觀호니 有名英雄과 無名英雄이 共心協力호야 造成

흔 결과라. 假使 當年 米國 獨立時에 華盛頓 部下에 無數흔 無名 華盛頓이 無흔얏스면 米國이 었지 其 目的을 達흔얏스며 獨逸帝國 成立時에 比斯麥 部下에 無數흔 無名 比斯麥이 無흔얏스면 獨逸이 었지 今日の 隆盛를 致흔얏스리오.

我韓同胞여. 昔日 阿弗利加 北岸에 雄據흔야 當時 天下에 莫强莫大흔 羅馬帝國으로 雌雄을 相決흔던 갈다고 國이 何故로 一朝에 如許흔 亡國의 慘狀을 演出흔얏느뇨. 是는 非他라 嚴冬雪寒에 十萬鐵騎를 率흔고 飛鳥도 能越지 못흔는 伊太利 알푸스 山을 踰越흔야 羅馬軍과 百戰百勝흔야 自國의 威名을 天下에 表揚흔 蓋世英雄 한니발 을 容納지 못흔 結果가 아닌가.
<15>

我同胞여. 我韓에 英雄을 崇拜흔는 公德心이 有乎아 無乎아. 此를 爲先 政治社會에 求흔니 可히 見흔 슈 無흔고 有志人社會에 求흔니 亦然흔고 平民 社會에 求흔니 亦然흔고 學生社會에 求흔니 亦然흔도다. 然則 此 弊習의 根源은 何處에 在흔뇨. 第一 最大흔 原因은 閥族制度에 在흔도다. 何者오. 閥族制度는 人物의 優劣로 標準을 不立흔고 階級으로 標準을 設흔 者ㅣ라. 故로 아무리 不世人傑이 有흔더라도 自己의 同班이 아니면 崇拜는 勿論흔고 嫉妬追擊으로 一大 快事를 設은지라. 故로 此 弊習이 各 社會에 傳染흔야 一大風潮를 作흔야 韓人의 腦中에서 滔滔暗流흔도다. 先日 某新聞에 韓人을 評論흔 語句가 如左흔니
韓人의 人物 如何는 決코 韓人의게 探問흔야 知흔 슈 無니라. 何則고. 彼等의 人物 評論은 公平흔 理想보덤 炎涼흔는 感情 中으로 出흔는 故ㅣ라.

此等 語句기 비록 誹謗心으로 出흔얏스는 其 批評 中에 多少 眞理가 包含흔 것은 非認흔 슈 無하다 ㅎ노라. 余ㅣ 曰 我韓人은 動必我韓에 人物이 無흔야 事業을 經營흔 슈 無하다 ㅎ니 此 言이 眞乎아 假乎아.

友洋生이 曰 英雄豪傑이 何代無之리오. 自國에 英雄이 無하다 흠은 英雄을 容納지 아니흔는 遁辭오. 自國에 英雄이 有하다 흠은 英雄을 協助흔고 崇拜흔는 公德心을 謂흔는 快言이라 ㅎ노라. 借問흔노니 英雄이라 흠은 英雄이 自稱흔는 語句긴가 世人이 造作흔는 語句긴가. 余는 思흔되 英雄이라 흠은 世人이 認許흔 名稱이라 ㅎ노니 然則 何故로 我韓 同胞는 한갓 我韓에 英雄이 無하다고 冷笑흔고 至誠血心으로 英雄을 製造흔지 아니흔느뇨 認許흔지 아니흔느뇨.
<16>

我韓의 將來 事業은 未知數ㅣ라. 非常흔 精力과 非常흔 方法을 要흔느니 었지 二三志人의 舌端筆端으로 全國 國民을 活動케 흔 슈 有흔리오. 반다시 健固흔 中心點과 偉大흔 原動力을 造作흔야 全國 國民의 精神을 統一團合흔야 一動一靜에 全國이 影響흔는 大機關을 組成흔야 其 最后目的을 庶幾可達리니 是는 卽 英雄崇拜라 ㅎ노라.<17>

<15-17>

5.

잡지명: 태극학보 제13호

발행년월일: 1907년 09월 24일

기사제목: 讀崔友洋英雄崇拜論賦次帝國山河

필자: 石蘇生 李東初 석소생 이동초

기사형태: 시

讀崔友洋英雄崇拜論賦次帝國山河 (독최우양영웅숭배론부차제국산하)

石蘇生 李東初

按青史而點朱 先地利而國泰 有國土者露陸 抱太西曰英海 物始盛於地宜 萬事成之自在 人傑出而鍾靈 文物新而進化 問如何耶帝國 蓋絕秀其山河 鎮峯嵩於萬丈 衛海擁於三面 山之佳兮水麗 必有人兮必勝 淑氣凝於舊都 瑞色蟠於新府 千年運之回斂 河兮清鳳兮鳴 福星昭于河南 英風起乎山東 把一椎而擊鼓 維新聲滿青邱 三千里之飯圖 廿百萬之同胞 驀地驚破獅睡 齊瞠目而振腕 進兮進兮前進 萬障除如風靡 公且平大權下 群生同樂萬歲 <48>

<48-48>

6.

잡지명: 태극학보 제18호

발행년월일: 1908년 02월 24일

기사제목: 無名の 英雄

필자: 農窩生 鄭濟原 농와생 정제원

기사형태: 논설

無名の 英雄 (무명의 영웅)

農窩生 鄭濟原

今夫 造天下者를孰不曰 英雄이리오. 英雄으로써 世界의 恩人오 삼으니 然則 英雄의 恩人은 誰乎아 ㅎ면 卽 無名の 英雄을 謂치 안니미 不可ㅎ니 蓋一個의 石이 雖大ㅎ는 足히 卼 高城을 築지 못ㅎ며 一個의 人이 雖偉ㅎ는 足히 卼 英雄이 되지 못ㅎ일식 高城으로 ㅎ야곰 如彼히 其 層高를 成樣은 無名の 片石에 在ㅎ이오 英雄으로 ㅎ야곰 如彼히 其 偉蹟을 成케 ㅎ은 無名の 英雄에 在ㅎ이라. 英雄의 事業은 一人 一個의 事業으로만 認知치 말 거시며 또 事業 卽 不啻라 곳 英雄의 自身도 또한 一人 一個의 得ㅎ야 成ㅎ 바가 아니니 彼 城樓가 雲霄에 聳出ㅎ도 樓下의 無數ㅎ 礎石을 據ㅎ야 聳ㅎ은 곳 無名の 礎石에 代表됨이오 此 英雄이 世界에 秀出ㅎ도 世界의 無數ㅎ 英雄을 賴ㅎ야 秀出ㅎ이 亦 無名の 英雄에 代表됨을 닐음이라. 是故로 華盛頓은 無數ㅎ 無名の 華盛頓 이 아니면 能히 卼 十三州의 獨立을 成就치<1> 못ㅎ며 俾士麥은 無數ㅎ 無名の 俾士麥이 아니면 能히 德意를 聯邦케 못ㅎ며 路得 으로도 無數ㅎ 無名の 路得 이 아니면 能히 宗教改革의 功을 成立지 못ㅎ지니 譬컨디 英雄은 金剛石과 恰如ㅎ야 비록 一塊라도 分拆ㅎ면 實로 多數의 同質, 同角度, 同分子로 由ㅎ여 阿屯體를 成ㅎ 바라 試觀ㅎ라. 懷中時辰表가 其 外面으로는 長短二針이 轉去轉來ㅎ여 簡單ㅎ디 不過ㅎ듯 ㅎ는 裏面을 窺ㅎ면 毛髮과 如ㅎ 螺線이며 比櫛과 如ㅎ 小輪이 繁雜ㅎ야 其 運動機關이 됨이니 이는 곳 有名의 英雄은 長短二針에 不過ㅎ는 無名の 英雄은 裏面에 螺線小輪과 如ㅎ식 英雄을 造ㅎ며 運動케 ㅎ는 英雄은 卽 世界에 隱ㅎ 農夫와 織工과 商賈와 役人과 兵卒과 小學校 教師와 老翁과 寡婦와 孤兒 等 無數ㅎ 無名の 英雄이 是라. 嗟嘻다. 彼等은 國의 生命이며 平和의 源泉이며 世界의 大恩人이라. 淸컨디 英雄을 愛ㅎ는 人은 無名の 英雄을 先愛ㅎ 거시며 英雄脚下에 頂禮코져 ㅎ는 人은 몬져 無名英雄의 脚下에 頂禮ㅎ 거시며 英雄에 出世ㅎ을 期望ㅎ진딘 無名英雄에 出世ㅎ을 先望ㅎ지라. 豈不聞乎아 一株의 樹가 雖大는 足히 卼 森林에 盛ㅎ을 當치 못ㅎ며 一個의 石이 雖崇ㅎ는 足히 卼 山岳이 되지 못ㅎ는니 然ㅎ은

로 此 世界의 英雄을 造호는 無名의 英雄이 眞英雄이라 謂호진저.<2>

<1-2>

7.

잡지명: 태극학보 제22호

발행년월일: 1908년 06월 24일

기사제목: 有大奮發民族然後 有大事業英雄

필자: 中叟 중수

기사형태: 논설

有大奮發民族然後 有大事業英雄 (유대분발민족연후 유대사업영웅)

中叟

氣象이 極慘則有時而哭호고 情節이 少舒則有時而歌호야 亂呼焉狂躍焉者를 謂之大奮發民族耶아. 曰 否否며. 號令이 得行則有時而喜호고 智勇이 或困則有時而努호야 叱咤焉震暴焉者를 謂之大事業英雄耶아. 亦曰 否否로다. 大抵 大奮發民族云者는 其歌也 其哭也 | 가 一己의 一時關係를 由함이 絶無호지라 我能自由焉歌호고 不能自由焉哭호며 我能獨立焉歌호고 不能獨立焉哭호며 我能富強焉歌호고 不能富強焉哭호며 我能文明焉歌호고 不能文明焉哭호야 一夫一婦之歌也에 全國 江山이 一齊歌呼호며 一豎一孺之哭也에 全國 林葱이 一聲哭泣호야 一歌之有思也이 其 國이 能興호고 一哭之有思也이 其 國이<9>能感호야 死生焉與同호고 休戚焉與同이 其非大奮發民族耶아. 大事業 英雄의 資格을 求觀할진디 臨時應變호는 謀略이 種種 不一호나 其 範圍는 大同호지라. 一喜一怒가 自己에 由치 안코 一死一生을 茶飯으로 視호야 大事業의 目的을 進取함이 一往無前호며 百折不回호야 千山萬嶽이 一時에 崩圯호더리도 不以爲意호고 怒濤驚瀾이 脚下에 號鳴호야도 不改其容호며 猛虎가 牙爪를 舞호야도 不動호고 霹靂이 頂上에 旋호야도 不驚호며 學世의 俗論이 囁囁하야도 我的 主見이 如苦호며 政派의 鎮壓이 紛紛하야도 我的 主見이 如故호야 惟是 慈善慈悲호 一心으로 一定호 目的地에 勇赴호는 者 | 曰 英雄其人이라. 雖如此호 英雄이 偏起호야 大事業을 經營호지라도 單純호 一二英雄의 能力으로 非常호 大功을 奏호기 決코 難호도다. 必也 一般民族이 大奮發을 加호야 一號令에 千萬人이 同聲을 諾호고 一舉手에 千萬人이 同情을 表호야 死生休戚을 一致可決호 後에야 大英雄이 此 中에서 生出호지오. 大事業이 亦 此 中에서 生出호지로다. 是故로 西人이 有言曰 世界는 鑄出英雄之冶工場이라 호니 斯言이 信矣로다. 現今 我國을 環顧호건디 大奮發호 民族이 有호다 謂호가. 設或 幾個 奮發호 同族이 有호더리도 亂呼狂躍에 幾近치 아난가. 嗚呼. 我民族 同胞여. 堂堂神聖靈苗로 血氣가 尙有호거든 土地家屋을 盡失호야 巢居호 處가 無호야도 奮發호 줄 不知호며 山林川澤을 盡奪호야 營作호 處가 無호야도 奮發호 줄 不知호며 爾를 奴隸로 使用호야도 是甘호며 爾를 牛馬로 鉗勒호야도 是順호야 毫絲奮發의 心이 無호니 人性이 有호고야 此를 可忍호리오. 第試思之호라 雖乳臭의 孩兒라도 已手의 執호 物을 他人의 手에<10>讓與호기를 不肯호은 天性이 固然할 쐤더러 設或 強奪을 被호면 大聲叫啼호야 期於更索호거늘 嗚呼. 我二千萬 同胞는 生命 財産을 盡數被奪호야도 一叫一啼를 不能호고 慘慘

黯黯한 地獄에 轉輾陷入하니 嗚呼라. 不忍言不忍聞者矣로다. 民族이 如此어니 大事業 英雄이 何處로 從야 出는 것인가. 單拳으로 破秦한 項羽도 麾下子弟 八千이 有하였고 呼風喚雨한 諸葛亮도 部下精兵 百萬이 有하였고 北米의 獨立主 華盛頓도 無名 華盛頓에 團體力을 賴하였고 試觀日本之維新也에 吉田翁이 挺身一呼이 伊藤 大隈 井上 後藤 板垣 諸子가 風起 水涌而出야 今日 效果에 至하였도다. 嗚呼라. 向者에 八千弟子가 無하였으면 項羽가 初不 渡江야할 것이오 百萬精兵이 無하였으면 諸葛가 初不抗魏할 것이오 華盛頓 部下에 無名 華盛頓이 無하면 北米 獨立을 不可期할 것이오 吉田 門下에 藤隈 諸子가 無하면 吉田의 名譽가 埋沒하여슬지라. 然한즉 英雄이 大英雄의 徽號를 得함도 全國 民族이 隨聲齊應함에 在하고 事業이 大事業의 結果를 得함도 全國 民族이 同心齊力함에 在하도다. 假使 今日 我國의 民族 程度로는 十百英雄이 一時에 輩出할지라도 如何히 成功할 兆朕이 無하도다. 拿坡崙, 訥耳遜은 曠世名將也로되 兒童을 驅야 隊伍를 編하면 必敗할 것이오 麥志倫哥倫布는 航海大家也로되 寸葦를 乘고 風濤를 遇하면 必危할지라. 今에 我國의 一般民族이 奮發을 大加야 曰 我的 體膚를 可損이언정 我的 自由는 不可失이라 하며 我的 手足을 可斷이언정 我的 獨立은 不可奪이라 야 一定한 幟鵠을 注目치 아니면 英雄의 着手가 無路할 것이오 設又 着手하더라도 甲乙의 覆轍이 在前하리로다. 然한 則<11>民族 同胞가 一朝一夕이라도 亟亟 奮發야 我를 活실 大英雄을 喚起하며 我를 救실 眞英雄을 求見할지어다. 英雄의 淵藪가 名區勝地와 深山別巷이 아니라 英雄을 胚胎하는 門이 卽 學校며 英雄을 製造하는 場이 卽 學校로다. 嗚呼라. 一般同胞여. 學校教育을 擴張야 大事業을 英雄을 養成하며 社會教育을 組織야 大奮發을 民族을 結合할지어다. 且 內外國 遊學하는 同胞여. 民族을 鼓動야 奮發心을 發生케 할 者 | 諸君이 아니며 英雄을 延攬야 事業的을 經營할 者 | 諸君이 아닌가. 昔에 德相 俾斯麥이 勝法凱旋하는 路에 小學校의 功을 先拜하였스니 功을 善知한 者라 謂할지로다. 今日 我國의 國權 挽回와 民權 恢復이 大英雄에 在하야 하나 大英雄을 產出하는 門戶는 學校라 할지오 學校를 擴張하는 原因은 民族 奮發에 在하야 하노니 嗚呼. 同胞여. 亟亟 奮發할지어다.<12>

<9-12>

8.

잡지명: 대한학회월보 제1호

발행년월일: 1908년 02월 25일

기사제목: 시대난 英雄之治爐

필자: 林彪 임표

기사형태: 논설

시대난 英雄之治爐 (시대난 영웅지야노)

林彪

語에 云 時代가 待英雄이라 하고 又 云 英雄이 待時代라 하니 如其時代가 待英雄이면 何不 時時產英雄하며 代代生英雄야 國焉而有英雄하며 人焉而爲英雄야 使其國家로 完如盤泰而 外侮不敢至하고 使其民族으로 安樂泰平而 干戈不相見야 以做共和世界也오. 且 或 英雄이 待時代이면 如何時代가 是英雄所待之時代而亦英雄可爲之時代乎아. 太古洪荒에 構木食實之日

이 是英雄所待之時代乎아 <27> 唐虞隆盛에 揖讓受授之日이 是英雄可爲之時代乎아 強弱優劣이 競爭是事之日이 是英雄所待之時代而亦可爲之時代乎아 於此三者에 居一於是矣리라.

噫라 今日은 是何等時代也오 以謂太古洪荒之時乎아 唐虞受授之時乎아 使普天之下圓顙方趾者로 自問而自解之라도 其 必不謀同聲曰 強弱競爭之時也라 ㅎ리로다. 且 問 今日 我韓에 有幾個英雄而待時代也오 有耶아 無耶아 如其有焉而不現則將待何等可爲之時代也오. 現今 祖國이 將亡이라 何不忍之甚也며 如其無焉而不現則嗚呼時代아 何薄於我韓之若是其甚也오 以謂非其時代而不產英雄耶아. 噫라 惟 我至公無私之蒼天이아 一視之下에 寧 有厚於彼而薄於此也리요. 余는 以謂英雄이 非三頭六身과 四目八臂之別樣人物也라. 天地鍾氣ㅎ며 山川이 育靈ㅎ야 生生種種ㅎ며 林林蔥蔥者ㅣ 孰不有英雄資格이리요마는 但 時代가 不常有ㅎ야 不遂一事業一功勞ㅎ고 寥寥無聞ㅎ야 與草木同腐於寂寞空山者ㅣ 問幾個英雄也오. 所謂 掀天動地之秦始皇 漢高帝와 席捲歐洲之拿破倫 比斯麥이 亦 非別樣人物이라 生秦漢之時而爲始爲高ㅎ고 際法德之時而爲倫爲麥이로다. 今日之所謂英雄者는 投入於世界之毒熱大爐ㅎ야 以鐵砲而鍊之ㅎ며 以干戈而磨之ㅎ며 以蒸汽而淬之ㅎ며 以電氣而光之則其堅也ㅣ 捏之金石而不鈍ㅎ며 其 明也ㅣ 陷之水火而不泯ㅎ리니 設此等爐冶幾萬千個於今日我韓則其間出來者ㅣ 莫非其回復我大韓ㅎ며 獨立我大韓之不鈍不泯之老鍊英雄일가 ㅎ노라. 嗚乎 英雄 英雄아 時代 時代여.<28>

<27-28>

9.

잡지명: 대한학회월보 제3호

발행년월일: 1908년 04월 25일

기사제목: 能行公議者其英雄乎

필자: 金淇驩 김기환

기사형태: 논설

能行公議者其英雄乎 (능행공의자기영웅호)

金淇驩

喟喟噓噓ㅎ고 立於宇宙之廣居ㅎ야 按搜人類社會之千源萬派ㅎ니 於古今數千載에 保有歷史之民族과 於東西屢萬里에 據有版圖之邦國이 其 興也隆也에 必有其爲ㅎ고 其 衰也亡也에 亦 必有其爲ㅎ니 其 爲는 何也오 公議之行與不行而已라. 夫 公議之爲物也ㅣ 德與天地로 參ㅎ고 明與日月로 并ㅎ고 勢與風雷로 爭ㅎ나니 故로 如行公議면 非徒一國之進於文明이라. 實 萬國이 賴而相安ㅎ며 如不行公議면 非徒一方之淪於衰亡이라. 實 萬方이 由而失均이니 公議之關於家國天下가 果何如哉아. 今舉公議之至重且大者ㅎ야 釋而解之ㅎ고 簡而明之ㅎ즉 一國에 有一國之公議ㅎ고 世界에 有世界之公議라 左列此兩個之公議ㅎ야 逐序而論之컨디

夫 世界之公議云者는 卽 萬國之公議也라. 今日之黃白兩種六洲萬國이 咸 曰 平和云平和云者는 平和가 實 萬國之公議也니 世界之唱外交家는 以此로 爲準則ㅎ고 萬國之立公法者는 以此로 爲精髓ㅎ야 注視線於此ㅎ며 傾愛囊於此ㅎ니니 誠醫一代之妙法이며 實保萬國之神案也라. 故로 富強이 如英 德 米 佛者도 曰 平和 曰 平和라 ㅎ며 危若累卵ㅎ고 弱如纖芥者도 曰 平和 曰 平和라 ㅎ야 雖 搏翼啄嘴舞爪張牙ㅎ야 攫取兎獐鼠雀之際라도 彼 爲鷹爲虎者ㅣ 必以平和로 爲文飾焉ㅎ며 雖 伏匿遁逃哀呼救憐之時라도 彼 爲魚爲肉者ㅣ <1> 必以平和로 作冤案焉

하나니 以此觀之컨디 彼强者富者는 實無怯於天下而怯平和之公議하고 彼弱者危者는 實無恃於天下而恃平和之公議는 도다. 以現今之支那及安南으로 證而論之컨디 彼兩國者 若不當今日之主平和之時代하고 當中古之那破崙鐵木眞之併吞時代런달 今日에 豈有安南王名色之形式이며 支那之芘分이 豈有不行於北清義和團事變之日乎아. 今日之平和云平和云이 雖不過口舌上虛飾假裝之談이나 然이나 若不以此로 爲皮面하며 飾文章이면 知其難能容於世界萬國之舌斧筆劍之中일식 於是에 彼鷹虎之五大強國이 以至仁至正之一幅幔平和之皮로 藏其爪匿其牙裸其身하야 以售其殘暴之政策이온 況不如此等之國이야 背此公議而能保國於斯世하며 爲政於今日乎아. 以若莫強之露西亞로도 輕蔑公議而行併吞政策이라가 見折於前日커든 又有甚於此而敵公議者乎아.

夫一國之公議云者는 始唱於遠見先覺之隣士偉人之口하며 繼和於憂國警時之朋友仁朋之舌하야 或現於演說之壇하며 或揭於新聞雜報之欄하며 其他雜出於著述詞章劇場舞臺及童謠婦諺之間하야 風傳於一郡一省之小區域하며 波及於一都一國之大領土하나니 爲其政府者 不採而施之가 可乎아 爲其國民者 不履而行之가 可乎아. 公議 一行之日에는 其國이 雖衰나 中興을 可期며 雖弱이나 獨立을 可望이며 自由를 可得이어니와 爲其政府者 既知而不施之하고 爲其國民者 徒說而不行之하면 其國은 垂亡而已며 淪滅而已라. 奚暇에 講保種保族之道며 論安身立命之策乎아 印度 波蘭를 猶難得作하리니 可不悚哉며 可不慘哉아. <2>

然則今日我韓之公議云者는 宜乎我二千萬同胞가 唯恐不聞이라 聞之면 卽行之호지며 唯恐不知라 知之면 卽施之호지어날 奈之何自知自覺者 有之而厭欲忘之하며 忌欲棄之者 多也오 自甘於印波之滅亡乎아 屈生이 已浸하고 伍子已刎하니 吳楚之濱於悲慘不忍言之地를 將何以回之復之乎아. 雖然이는 公議云者는 決非與國同亡者也며 與人同死者也라 雪釋水解而公議는 不解하고 金流石消而公議는 不消하나니 故로 波蘭이 雖滅이나 波蘭之公議는 不與之俱滅하고 印度雖亡이나 印度之公議는 不與之俱亡하얏나니 何以知之오 證之於我韓에 章章然知公議之不滅이로다. 今日我韓之公議는 卽當時印度波蘭之公議也라. 嗚呼라 印波之民族이어 不行其公議라가 至於今日之地位컨든 況我大韓이 繼又不行公議가 宜乎아 否乎아. 前鑑이 已照하고 後車를 可戒어날 二千萬仁兄義弟惠姊恩妹는 欲將何擇고.

今日我韓之公議는 曰教育이며 曰實業乎아. 此等事業이 非不曰公議也나 然이나 其公議之至大至剛至重至貴하야 可與天地로 參하며 可與日月로 并하며 可與鬼神으로 通하며 可與風雷로 爭호 者는 實維我二千萬同胞之一心團合하야 以復國愛族而已라. 故演講之壇에 志士之日說者 曰團合團合이며 新聞雜報之欄에 記者之日揭者 曰團合團合이며 其他著述詞章劇場舞臺及童謠婦諺之間에도 無不曰團合團合이라 하야 團合之風潮가 已著於各般社會하며 甚至於出洋在外者之間에도 唱和團合之公議者 於桑港海朝와 布哇上海에 可見矣라. 然則我韓은 可謂將行公議之國而不臻於印波之域乎아 哀我民族은 將不作滅國亡家之劣等種子乎아 將永<3>做缺裂支離之下等蠻族乎아 抑善行團合之公議하야 不受外人之斥罵而爲上等民族乎아. 噫唏慘矣라 我韓民族은 自數百年以降으로 承襲其四色相戕之餘洙者이며 繼續其班常相噬之遺波者也라. 禍源이 尙 今未盡涸하고 毒流가 尙 今未盡息하얏나니 何日에 能幻其骨脫其殼하고 恍然大覺하며 豁然大通하야 坦行團合之公議乎아. 以今日之社會로 言之컨디 知團合之效力者 不曰 不多며 行團合之公議者 亦 不曰 不衆이나 然이나 目的이 未盡善하고 行爲가 未盡周하야 有愛國之義黨하며 有附外之奴黨하며 有中立之佞黨하야 邪正이 不能相容하고 善惡이 不能兩立하야 如波蘭之末年에 貴族平民이 互相 軋礮타가 竟覆其國하고 如印度之季世에 諸部王侯가 互相 爭權타가 終陷於籠絡故策하야 國柄이 自歸於外人之掌中하얏시니 我韓도 如此乎아 有其因 則 必有其果하고 有其始 則 必有其終은 定理며 公例也라 其 爲韓國同胞者 甘於分派樹黨而各

立旗幟가 可乎아. 以故로 吾儕 學生이 深憂於此호며 疾痛於此호야 奮不顧學生之資格호고 以螳螂之弱臂로 欲拒數百年逆轉之巨轍호니 萬目所睹에 不曰 不愚며 不曰 不妄이나 然이나 學生도 亦 國民也라. 其 在國民之義務에 豈 忍默默於公議之不行也哉아. 於是에 吾儕 學生이 一起鼓舞호고 以團合 二字로 獻公議於二千萬同胞호노니 其 察之乎아. 今日之能行公議者는 斷斷是英雄이니 英雄을 其 不爲乎아.

以近古之事로 言之컨디 以土耳其之大로도 不能吞六里青山之小希臘호고 以西班牙之强으로도 不能服彈丸黑子之小荷蘭호니 以此觀之면 英雄이 非英雄이라 能行團合之公議者는 是英雄이니 借使孫吳로 爲將이라도 <4>金之不止호고 鼓之不進이면 雖 有百萬之衆이나 何益於用이며 孫吳가 可以爲孫吳乎아. 無車 則 造父도 不能御호고 無弓 則 后羿도 不能射호고 無團合之精神 則 意大利之建國 三傑과 美利堅之獨立 英雄도 吾必曰 不能有爲也라 호노라. 然이나 車非造父之所製며 弓非后羿之所造라. 分業이 有之호야 車工은 製車호고 弓匠은 造弓호고 團合之精神은 賢母良師와 朋友社會가 鼓之舞之호느니 故로 文은 行團合之公議者也오 武王은 收團合之效果者也며 管仲은 募死士 五萬호고 卻轍은 舉前行 四萬호고 蹇叔은 列陷陣 三萬호니 此三傑도 亦 先行公議者也오 齊桓은 以是而一匡天下호고 晉文은 以是而五合諸侯호고 秦穆은 以是而遂霸西戎호니 是亦 收團合之效果者也라. 嗚呼라 我韓은 果有其人乎아. 雖 有其人이나 爲愚人之排斥乎아 抑止有背公議之劣等種子乎아. 英雄兮 英雄兮여 時代가 且 晚호니 其 將奮袂而崛起哉 ㄴ더.<5>

<1-5>

10.

잡지명: 대한학회월보 제7호

발행년월일: 1908년 09월 25일

기사제목: 英雄會場에 快論半島文明

필자: 傍聽人 李承瑾 방청인 리승근

기사형태: 논설

英雄會場에 快論半島文明 (영웅회장에 캐논반도문명)

傍聽人 李承瑾

壁上에 掛一幅圖호고 望三韓半島之位置호니 北으로는 露西亞의 山脈이 歐亞大陸을<47>跨호야잇고 西으로 支那大陸이 亞細亞 東南部를 占호야잇고 南으로는 日本島가 海外에 茫茫호도다. 自古로 世界에 巨大호 人物과 燦然호 文明은 다 半島로 ຈұт 啓發되엿스니 若夫支那의 山東半島 로부터 齊魯의 文明 (孔孟의 文明) 印度半島로부터 佛教의 文明 아라비아半島 로부터 回回敎의 文明 小亞細亞半島 로부터 基督教의 文明希臘半島 로부터 헤루라스의 文明 伊太利亞 半島로부터 羅馬의 文明 이베리아 (葡萄牙 西班牙) 半島로부의 新世界 發見 前後의 文明을 啓發호 것은 歷히 事實의 證示호바 된자라. 夫三韓半島는 面積이 希臘半島 보다 大호고 伊太利亞半島보다 小호나 其 地形은 伊太利亞와 恰似호야 「東洋의 伊太利亞」라 可稱 할이로다. 其 江山之形勢를 論할진딘 長白山落脈으로 東金剛 西九月 南智異 三山은 半落호고 南錦江西大同은 二水中分이라. 漢水上 北岳下에 萬年皇都鼎定호샤 一大 都會되엿스니 雲裏帝城에 雙鳳闕이 壯麗호도다. 江山이 絶勝호야 大人物을 産出이라. 維我 皇祖全盛時에 忠

臣 烈士輩出호에 一戰 壬辰役에 豐臣軍이 落魂호고 再戰丙寅擾에 西洋艦隊喪膽되여 從此로 東亞半島의 聲威가 西歐까지 震動호니 此 所謂 巨大호 人物과 燦然호 文明이 半島로 부터 啓發된 것이로다. 嗚呼라 半島 江山이여. 物換星移에 日月이 幾何호. 江山이 久爲寂寞호고 英雄이 亦無消息호니 從此로 江山이 不靈乎아. 抑亦有靈而英雄兒를 不爲産出乎아. 胡爲乎如此호. 嗚呼 江山아.

曰勿論何代호고 非無英雄矣라 或 有時勢가 造英雄호고 英雄이 造時勢호야 時勢와<48>英雄이 互相有密按之關係호니 豈有國之將興에 有英雄호고 國之將亂에 無英雄之理乎아. 故로 江山之産出英雄兒는 何代無之리오. 然而英雄之成功與否는 不在於江山이호. 在於一心與否矣라 호노라. 參觀古今興亡史호니 英雄之出이 無時不有而至於成功與否호야는 不外乎此一心二字矣라. 試思호라 諸君아. 上古殷之臣億萬中에 不無二三個英雄이로되 竟敗於周之臣三千호고 近世 印度人 三億衆에 亦不無幾個英雄이로되 未免爲奴於英吉利之四千萬衆호고 現今 支那之四億萬衆에 亦不無十八省之英雄이로되 東敗西傷호니 其故何哉호. 無他라 英雄之心卽衆心之不合이 是也호 上古舜之治天下에 一夔足矣라 호고 中古漢之中興에 二十八將이 并起호고 近世 伊太利之建國에 三傑이 能之호였스니 其故何哉호. 無他라 英雄之心이 爲一故로 衆心이 亦從而爲一故也ㅣ니 不待明言而可知者ㅣ此也ㅣ로다. 夫我韓之二千萬衆에 十三道之英雄이 亦不爲不多矣로되 至今 無名은 其故何哉호. 無他라 自卑自屈에 無獨立之心호고 分黨列派에 無團合之體히야 彼 所謂 新教育 舊學問等 事는 屬之尋常句語에 有名而無實호고 又 所謂 東西班(양반) 新舊鄉(庶嫡)之優劣은 京鄉間陋習이 尙存호야 營營苟苟於虛譽浮榮호야 如是而駸駸然爲暗黑世界者ㅣ已爲有年埃러니 一朝桂庭之劔과 勉庵之虹이 大打擊 二千萬 生靈於夢昏之裏호고 大奮起十三道英雄於競爭之中호야 鯨濤洶湧에 或 爲擊楫渡去호고 虎跡이 縱橫에 孰不臥薪嘗之리오. 靑邱三千里에 迷雲이 漸開호고 昇平五百年에 風潮가 忽變이라. 東晉之清談은<49>已覺昨日之非호고 賈生之痛哭은 正當今日之勢로다. 一勝一敗는 天地之常理호. 一亂一治는 古今之通運이라. 否往泰來에 去舊就新호야 衆心團合이 其 堅이 如鐵호니 今日 我 韓半島之文明은 於此乎始矣라. 從此로 十三道 英雄이 亦繼起奮發호야 各自以謂得大功이라 할식.

教育家(師範)曰 夫我韓半島의 風土之良好와 人物之英秀와 典章文物之燦然이 爲世界之高等而遂立於世界之劣等者는 其故何哉호. 無他也ㅣ라 所謂俗土腐儒輩가 從事於尋章摘句호야 墨守舊習而全昧於 近世 新發明 精神的 物質的 文明 教育而然也ㅣ니 此不待明言而可知者也라. 故로 范蠡之十年 教育으로 能雪會稽之恥호고 須太仁之二十年 教育으로 能致伯林之凱旋호였스니 由此二子之事로 觀之컨넌 國家之急務가 必在於教育을 可知也라. 故로 近世 西哲이 有言曰從今天下는 落在教育家掌中이라 호니 斟酌古今에 文明之基礎는 不外於教育二字也라 호노라.

經濟家(財政)曰 一國之經濟가 發達則 其國이 興호고 經濟가 窘絀則 其國이 亡호느니 英米之富贍과 濠蘭之滅亡이 是也호. 且一軍之經濟가 富贍則 其 軍이 勝호고 乏絶則 其軍이 敗호느니 漢高之滎陽成臯之戰에 蕭何가 不絶糧道 故로 其 軍이 勝호고 古今 英雄 한니팔 之 간네ㅣ샤마 之戰에 糧道가 乏絶 故로 其軍이 敗호였스니 由此觀之컨넌 一國之興亡勝敗는 經濟之發達與否에 在호다 호노라.

法律家曰 人類가 社會上에 互相生活호는 規則과 國家가 世界上에 相互交際호는 法律을<50> 明瞭解得지 못호면 엇지 世界上 文明國 人物이라 稱호리오. 故로 法律의 緣起를 論할진 古書에 多載호였스니 尙書五虐之刑을 法이라 稱호고 漢高約法 三章을 法이라 稱호였스니 此ㅣ法의 原이호. 蕭何의 次호 律令과 劉劭의 制호 新律이 此ㅣ律의 原이라. 國際法은 自三代及春秋戰國以來로 隋唐明諸律에 考閱호면 可知할 者也호. 今日之所謂 刑法 民法 商法 等

은 歐米大陸에 發達되야 世界 列強에 主張호는 法이 되니 國家之文明은 在法律之明不明如何이라 호노라. (未完) <51>

<47-51>

11.

잡지명: 대한학회월보 제8호

발행년월일: 1908년 10월 25일

기사제목: 英雄會場에 快論半島文明 (續)

필자: 傍聽人 李承瑾 방청인 리승근

기사형태: 논설

英雄會場에 快論半島文明 (續) (영웅회장에 駭론반도문명 (속))

傍聽人 李承瑾

兵學家(軍人)曰 國家之盛衰는 青年의 健全호는 精神에 在호고 健全호는 精神은 健全호는 身體에 在호니 故로 智育 德育 體育中에 體育이 爲第一이라 故로 一國之強弱은 在於國民之健全與否호고 國民之健全은 在於體育之發達也 | 라 所以로 리크르고스 의<38>體育法則이 能成스파 르타之文明호고 羅馬人之武氣腕力이 能致世界之統一호엿스니 由此觀之컨디 一國之興亡勝敗는 在於人民體育之發達이라 호노라.

商業家曰 一國之文明은 在於商業之發達이라 於古에 有호는 試思호라 諸君아 希臘文明의 原因은 數種이 有호나 其中 最著호는 通商貿易으로 外國交通이 頻繁호야 智識을 多得호고 文物을 改良 發達호엿스며 其時 商業家로 諸賢이 輩出호야 至今 世界文明의 鼻祖되엿스며 孔門弟子에 子貢이 通商貿易으로 累致巨萬호야 夫子之轍還天下也에 子貢이 供호는 供호는 供호는 今日 英吉利之歐亞霸權을 掌握함도 亦是 商業發達의 所致라 故로 國家文明之發達은 在於商業이라 호노라.

工業家曰 夫物理化學의 研究는 其 實地應用으로 大功을 收호야 機械器具의 新發明은 生計에 非常호는 便利를 加호고 蒸氣電氣의 應用은 交通運搬에 莫大한 成功이 되여 雖 東西兩洋에 極端이라도 比隣과 갓치 往來호니 此 所謂 十九世紀의 進歩라 稱할 만호고 十八世紀 以前의 人은 夢想에도 不及호는 大發展이 되엿스니 國家之文明은 莫如工業之發達이라 호노라.

農業家曰 夫農者는 天下之本也라 故로 拓地殖民호야 治本於農則其國이 富強호는 今日 世界之富國北亞米利加 是也오 河流之灌溉로 農產物이 夥多호야 穀不可勝數라 호엿스니 世界最古之開明國 埃及이 是也라 夫 我韓은 風土와 氣候가 良好호야 服田力穡에 農民이 歌曰「耕田而食호고 鑿井而飲에 帝力이 何有於我哉」오 호니<39>國之文明은 先於農業之發達이라 호노라.

醫學家曰 噫라 扁鵲이 一去後에 世無良醫호고 又無良藥호야 人生七十이 古來稀라 所以秦皇漢武之雄으로도 未得良藥而欲求仙方호고 亞歷山顏淵之賢으로도 未得良醫而享年이 不多호야 大事業을 遂乃不成호엿스니 豈不惜歎哉아 如是而英雄豪傑이 歸於草露之間호고 同胞生靈이 陷於疾病之苦호야 滿目悲慘而世亡普濟之術 故로 范公이 嘗曰 願爲天下良醫호야 以救人之疾病이라 호더니 一自西醫學이 發達以來로 華佗之妙訣이 復見於世호고 彭祖之遐齡이 亦多其人이라 由是而今日德國之文明에 醫學이 最先發達호야 爲世界之有名호고 衛生之結果로 人多健

全하야 陸軍之強이 亦爲世界之一하니 由此觀之컨딘 醫學發達이 爲國家文明之起點이라 하노라.

政治家曰 嗟呼라 夫 大政治家者는 宇宙를 吞吐하느 氣概와 群雄을 涵蓋하느 才能이 有하야 其 膽略을 亂世에 施하느 足히며 掀天動地하고 治世에 施하느 足히며 福國利民하느니 此 大政治家의 所貴하느 者也 〓 로다. 若論 其人인딘 古今 東西에 歷歷可記라 鐵血政略으로 日耳曼의 聯邦을 統一하야며 歐洲의 霸權을 握하느 者는 德國 俾斯麥 이 是也오 中央亞細亞의 山川을 踐蹂하야며 露西亞의 雄威를 世界에 輝張하느 者는 자고르 의 鐵血主義 是也오 奄奄羅馬를 統合하야 伊太利 의 基를 開하느 者는 가부르 의 鐵血主義是也오 諸候를 九合하고 天下를 一匡하느 者는 管仲이 是也오 六國을 箝制하야며 <40>一國을 富強케 하느 者는 商鞅이 是也라 夫 政治家의 所貴者는 其 氣宇也 〓 目營四海하고 腦有湖海하야 其 六合을 縱橫하느 雄略으로 國家를 爲하야 萬丈의 光芒을 增하고 生民을 爲하야 無量의 幸福을 擴하느니 若是乎 政治家之難也로다.

傍聽人 李承瑾이 曰 以上諸君之論이 無非格言이오 果是英雄之行事也라 我韓半島 文明之啓發은 從此爲始요 其 大功을 論할진딘 無非諸英雄의 篤學力行하신 所以라 하겠소 然而吾之所謂英雄은 與諸公之所論으로 少殊하느니 何也오 勿論 何事業하고 以其實力으로 能其實行者를 謂之英雄也 〓 라 故로 無實力而欲實行者는 非英雄也라 卽 간웅也오 有實力而未實行者도 亦非英雄也 〓 라 卽 제웅 (偶人) 也니 然則 實力이 有하고 實行을 能히 할 者 〓 有하 然後에야 可히 半島文明啓發英雄이라 稱하깃소 諸君諸君아 此一句語에 滿場喝采하고 拍手大呼 大韓帝國 獨立萬萬歲하느니 是日은 卽 大韓英雄 總會日也 〓 러라.<41>

<38-41>

12.

잡지명: 대한홍학보 제11호

발행년월일: 1910년 03월 20일

기사제목: 大英雄 那翁의 戰鬪訣

필자:

기사형태: 잡저

大英雄 那翁의 戰鬪訣 (대영웅 나옹의 전투결)

此 一項은 邢破崙이 其 弟 쑤세후 에게 與하느 書簡中에서 摘錄하느 成功이니 某雜誌에서 譯抄함.

○ 理論 人은 實務에 慣習함을 從하야 次次 理論을 輕視하고 幾何學的으로 處世코자 함에 至하느니 詳言하면 數理의 一直線으로 進치 아니하고 다만 同一하느 方面으로만 進하면 可하다 흠이니라.

○ 計畫 何人이던지 當事할 際에 豫先計畫을 不有하면 不可하느니 計畫을 定함에는 細密히 審思熟慮를 要하리라. 若審思熟慮하느 必 〓 無하면 何事를 不問하고 善良하느 結果를 得치 못하 나니 余는 何事이던지 僥倖으로 來하느 者 〓 無함을 確信하노라.

○ 組織 組織이 其當을 得치 못하느 事業은 決코 成功치 못하나니 戰鬪의 術은 非常히 用意周

到한 防禦와 大膽機敏의 攻擊을 由하야 目的을 始達하느니 汝等은 余의 處事가 非常히 細密 思考함을 驚怪치 勿하라. 余는 不時의 事變을 防禦하기 爲하야 萬種事爲에 對하야 深思熟慮 티 아니함을 不得하노라. <55>

○ 報告 余는 汝等이 自己의 軍隊各部의 位置를 知得하기 爲하고 또 左排右烈한 各部隊를 集呼하기 爲하야 每日 一時間式 各部의 報告를 接受하기를 切望하노라. 此等用意가 無하면 到底히 軍隊의 詳情을 知기 難하니라. 此等報告를 接見함으로써 汝의 娛樂을 삼으라 自己의 軍隊로써 良好한 狀態을 有케 함은 自己의 熱心執務한 證據이니 足히 自己의 心を 慰홀지니라.

○ 自信 樂天安心하야 容易히 事物에 動치 勿홀지어다, 健康에 注意하며 何物에던지 恐怖치 勿홀지어다, 充分히 成功함을 斷然히 自疑치 勿하라.

○ 行政 行政上 問題는 決코 簡單치 아니한지라. 故로 但 計畫은 善良함을 得홀지라도 滿足한 效果를 得기 難하느니 若行政上問題에 精通하고 目的을 達코즈 하면 汝는 自己가 不愉快하게 感한 事에 對하야 充分히 研究치 아니티 못홀지니라.

○ 時 時의 損失은 可히 償티 못하리니 何事이던지 時間을 要하며 一世를 警動케 하는 大技術은 時를 要함이 大하느니 一八一〇年까지 成就함을 不得한 事는 如何히 하던지 一八〇七年에는 成就함을 得지 못하리라고 思惟하노라.

○ 訓練 汝의 軍隊는 訓練함에 注意하리 一個月間의 躡躑는 時或六個月間을 經하야 非常한 努力을 因하야 回復함과 如한 失策을 演出하는 事ㅣ 有하니라.

○ 細心 成功코자 하는 者는 새로 非常한 大膽이 업지 못홀 同時에 또한 새로 非常한 細心이 無티 못홀지니 事前에 有할 뜻한 災害를 防禦함은 다만 細心으로써 警戒를 加홀지니 <56> 如何한 不時暴風雨가 襲來하드리도 顛覆할 念慮가 無케 萬事를 用心整頓티 아니하면 不可하니라. 余는 一大事를 하고자 함에 當하야 먼저 三四個月間에 自己가 實行를 最良의 進路를 默想하고 非常한 災害가 起할 것도 計算中에 暗量한 然後에야 活動에 着手하노라.

○ 決心 勇氣로써 臨事하야 模範을 造하며 弱한 아음으로써 事機未熟하기 前에 實行티 勿하라. 大膽無懼하야 何事를 勿論하고 大膽의 外觀으로 進行홀지어다. 汝의 胸臆을 記證하는 手帖은 精細하고 確實한 者ㅣ니라. 軟弱한 事를 行티 勿하라. 此는 人을 支配하는 道ㅣ 안이니 一般의 規則으로써 部下를 嚴肅키 하기 前에는 親切한 態度를 視티 勿하라. 余는 오히려 一言으로써 汝等を 誡하노니 何오. 其曰能將其隊니라.

今人曰出自英雄肝肺中 一言一句最翫味

後人取法 奚特於戰 <57>

<55-57>

13.

잡지명: 동광 제31호

발행년월일: 1932년 03월 05일

기사제목: 英雄主義와 파시즘, 李光洙氏의 蒙을 啓함

필자: 金明植 金명식

기사형태: 논설

英雄主義와 파시즘, 李光洙氏의 蒙을 啓함 (영웅주의와 파시즘, 이광수씨의 몽을 계함)

金明植

1.

李光洙氏의 執着心은 매우 긴장한 모양이다. 자기의 「指導者論」에 대한 필자: 의 비판에서 發憤하여 李氏는 「金明植氏의 所論을 駁함」 『非常時代人物論』(이상 2論文은 출제예고만 잇었다) 『힘의 再組織』, 『힘의 찬미』, 『힘의 再認識』, 『古今偉人에 대한 懇談會 組織』 등등의 連續不絶한 사색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最善한 無抵抗의 抵抗은 抵抗의 의의를 가질 수 잇는 것이니 톨스토이를 버리고 간디를 가지는 것은 그만한 정도의 意味가 잇을 줄로 안다. 그러나 道에 이를려고 하면 魯에 머물지 말고 또 한번 변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朝鮮과 地理 및 氣候가 상이한 伊太利의 따눈치오는 文士요, 飛行士요 勇士다. 저는 파시즘의 先驅者요 파시스트의 猛將이다. 따라서 李氏의 英雄主義-指導者主義가 아니고 文士의 憧憬이 아니요, 勇士의 渴望이요, 실천이라 하면 朝鮮의 李氏와 伊太利의 따눈치오와는 무엇으로든지 좋은 대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따눈치오로 변하는 것은 톨스토이에 머무는 것만 같지 못하다.

2

그런데 李氏의 말과 같이 물질은 不感이요, 力은 不滅이다. 그러나 그들은 不變이 아니다. 可變이다. 그리고 李氏의 말과 같이 人生은 힘이요, 社會는 힘이요, 宇宙는 힘이다. 힘이 없으면 만물은 無요 空이다. 또 自由는 힘이요, 平等은 힘이다. 자유가 없고 평등이 없음은 힘이 없음이다.

그러나 自由는 意識만 필요이요 힘은 正義다. 「헤겔」이야말로 自由가 필연과의 관계를 정당히 述한 최초의 人이다. 「헤겔」에 잇어서는 自由란 것은 필연을 洞察하는 일이다. 『必然이 理解되지 아니하는 한에서만 필연은 盲目的이다. 一般이 夢想함과 같이 自然法則으로부터의 獨立한다는 점에 自由가 잇는 것이 아니요, 이 法則의 認識에 또 이 법칙과 함께 정하여야지고 잇는 이 법칙을 計劃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작용케 하는 일의 가능성에 自由가 잇는 것이다. 이것은 外部的 自然의 法則에 대하여 말할 수 잇을 뿐만 아니라 인간자신의 肉體的 및 精神的 實在를 規律하는 法則-겨우 우리가 表象에 잇어서는 구별할 수 잇는 2개의 法則에 관하여서도 말할 수 잇는 것이다. 그러므로 意志의 自由란 것은 사실의 지식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잇는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엔겔스)

힘! 그러타. 그러므로 反必然의 힘-反正義의 힘은 파괴요 죄악이다. 그들의 힘은 인류사회를 攪亂하고 人類文化를 壓殺한다. 人類의 自由를 박탈하고 平等을 蹂躪하고 모든 精神的 物質的 創造力을 파괴한다. 그리고 힘의 正義性은 시대가 부여하는 시대적 내용을 가진다. 封建社會에 대한 자본의 힘은 正義이였다. 그나마 그것은 벌써 正義性이 소멸되어 인류의 발전을 意識적으로 迫害하는 가장 큰 反動力이 되었다.

따라서 李氏의 『힘의 再組織』, 『힘의 찬미』, 『힘의 再認識』, 『英雄渴望』 등등의 反必然-反自由의 創意는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62> 없지 아니하다. 그리고 社會力은 물론이요, 自然力도 일정한 공간의 어느 物-어느 힘은 그의 可變性에 의하여 발생하고 성장하고 死滅한다. 社會科學은 新發見이지마는 周易의 變革原理는 3,000년 이래의 古典이 아니냐.

그런데 19世紀 初葉 즉 封建社會가 붕괴하고 資本社會가 형성되는 과도기에 있어서 絶對主義가 대두하였었다. 그것은 물론 새로 이러나는 부르주아 民主主義에 대한 반향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絶對主義者는 영웅이 時代를 맨드느냐 時代가 英雄을 맨드느냐 하는 현대의 小學生의 토론문제를 처음으로 實際行動 및 사실과 결합하여 敬虔한 태도와 장중한 어조로 제출하였었다. 그러나 엄숙한 社會的 必然은 그들의 *語와 反抗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진출하였었다. 그리하여 絶對主義는 粉碎되고 부르주아 民主主義는 凱歌를 불렀었다. 英雄主義는 살아지고 부르주아지의 市民主義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 부르주아 民主主義의 요소가 政治的으로나 社會的으로나 철저히 소멸됨과 함께 새로 대두한 파시스트의 強權主義-英雄主義는 前世紀의 絶對主義와 본질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대의 朝鮮에 있어서 총명한 부르주아지의 敏感이 英雄主義를 발견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물론 일찍부터 伊太利에 못소리니가 잇었고 폴란드에 필쓰쓰키가 잇었고 獨逸에 히트라가 잇었으나 日本의 内田良平和 赤松克磨 등은 요사이야 이름을 나타내었으니 후진 朝鮮에서 더욱이 政治的 刺戟에 대한 遲鈍한 感覺性을 가진 朝鮮人이 晚覺한 것은 이유가 없지 아니하다. 아마 李舜臣의 墓地問題는 더욱 朝鮮人의 英雄主義에 대한 感激을 도발한 듯 하다.

물론 壬辰亂 시대에 李舜臣이 없었으면 水陸並進한 外敵의 馬蹄에 全朝鮮이 여지없이 蹂躪되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一下級萬戶이든 李舜臣이 水軍統制使가 된 당시의 朝鮮情勢를 먼저 고찰치 아니하면 아니 된다. 만일 당시의 李舜臣이 萬戶이었으면 兵水使에 끄쳤으면 그리고 元均의 失策이 없었으면 李舜臣의 史實에 적지 아니한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元均의 卑恟과 猜忌와 耽溺은 元均 개인에 한한 생활현상이 아니요, 당시 支配階級の 公同한 生活哲學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또 李舜臣의 『微臣不死 敵不敢侮我』云云은 결코 李舜臣의 觀念的 객기의 표시가 아니요, 그것은 地理에 대한 自信과 비록 戰船은 거이 전멸되었다 할지라도 새로 제조하면 적의 그것보다 우수한 戰船을 제조할 수 있는 技術上의 자신이다. 龜甲船의 공격에는 敵船이 당할 수 없었다. 그것은 현대의 潛艇의 공격에 의한 戰鬥艦 및 巡洋艦의 위협보다도 더 큰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李舜臣의 지위와 李舜臣의 기술은 李舜臣의 史實을 만들어 낸 거이 전부 條件인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晉州 第二次守城에 金時敏의 智略과 用兵은 여러 번 적의 總司令의 대군을 破하였었지만 敵의 龜甲軍의 공격에는 건디지 못하였었다. 그것은 敵의 水軍이 李舜臣의 龜甲船에 건디지 못한 것과 다르지 아니 하였었다. 또 朝鮮의 陸軍이 敵에게 전멸된 것은 敵의 鳥銃과 敵의 七首 즉 日本刀에 당할 만한 武器가 없었든 까닭이다. 당시의 朝鮮에는 유일한 武器가 활(弓)이었으니 鳥銃이 생긴 뒤에 활은 遊戲의 무기로 戰爭의 武器가 아니다. 더구나 敵의 鳥銃 끝에 꽂힌 日本刀의 劍光은 얼마나 당시의 朝鮮軍의 心膽을 차게 하였을가.

뿐만 아니라 豊臣秀吉의 精銳는 日本을 통일한 百戰練軍이요, 朝鮮軍은 烏合之衆이니 相敵할 수 없는 것은 固然한 理勢이었다. 그리고 明軍의 苛誅와 無信無義는 朝鮮을 구원한 것보다 朝鮮을 屠戮한 것이 많은 시기도 없지 아니 하였었다. 그러나 水軍에 있어서 敵의 鳥銃이 위력을 낼 수 없고 또 日本刀가 가치가 없게 되니 主敵의 형세가 陸軍에서 보든 바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당시에 李舜臣이 없었고 또 그에 대신할 者도 없었으면

<63> 朝鮮은 日明兩國이 혹은 開城을 혹은 平壤을 경계로 하여 분할하였을 것은 물론인데 그리 되었드라 하여도 그 후의 日本 및 明의 國內情勢로 보아서 朝鮮은 다시 朝鮮人의 朝鮮이 되었을 것은 사실이요 또 당시의 朝鮮이 朝鮮人의 朝鮮이 되거나 滿洲人의 朝鮮人이 되거나 절대 다수의 被支配階級의 생활은 얼마나 다를 것이 없었다.

그리고 朝鮮人으로서 李舜臣의 功績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李舜臣의 功績을 기억함과 함께 李舜臣의 功績은 당시의 사회관계와 및 李舜臣의 技術 즉 龜甲船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요, 그와 동시에 社會的 關係와 技術的 發明과의 실제 사실에서 떠나서 抽象的인 觀念的인 표면에 나타난 사실만으로써 선전하는 英雄偶像崇拜의 反動思想을 警戒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5

물론 偉人의 役割-偉大한 個人의 特性 및 才能이 社會의 運命에 영향하는 것은 의심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어떠한 때에는 비상이 크기도 한다. 나폴레옹의 史實과 레닌의 史實을 아는 者는 누구나 偉大한 個人에 대한 감격과 崇敬을 금치 못할 것이다. 레닌에 대하여 지노비에프는 『만일 革命時代에 있어서 적어도 어느 個人의 이름이 화제에 오르는 일이 잇다하면 레닌이야 말로 그 사람이다. 10월 XX의 十分의 九는 레닌의 일이다. 그 뿐만 아니라 만일 懷疑하고 있는 무리를 확신케 하는 사람이 잇다하면 해매이고 있는 무리를 결단케 하고 鬪爭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잇다하면 그 사람은 레닌이다.』고 하였고 트로츠키는 레닌이 카프라의 凶器에 중상한 때에 『우리는 레닌이 죽을지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全生涯는 無益한 것으로 생각되어 살고 싶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그 人格과 그 역할을 認識하고 崇敬하는 言語로서 古今史上에 이 두 사람의 레닌에 대한 말과 같이 간절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레닌이 레닌이 된 것은 露西亞의 또는 세계의 歷史的 및 社會的 關係와 분리할 수 없는 일이요, 또 레닌의 理解한 필연에 대한 前生活史는 저의 지위와 거의 역할을 성취케 한 전부 조건이다. 즉 世界的 레닌은 1917년 전에 있어서 볼셰비키의 歷史를 맨든 레닌이요 평지에서 돌출한 레닌이 아니다. 이것은 레닌에 있어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孫文의 世界的 孫文도 그러하고 간디의 世界的 간디도 그러하다. 다못 그들의 방향의 다른 것 뿐이다.

폴레하노프는 偉人의 역할에 대하여 『... 이와 같은 영향의 可能性 그것도 그 정도와 마찬가지로 社會組織과 社會力의 相互關係와에 의하여 정하여야지는 것이다. 個人의 性格은(또는 개인의 재능은-필자:)社會的 關係에 의하여 그것이 許하는 時와 處와 정도와에 의하여서만 社會發達의 因素가 되는 것이다... 언제 어떠한 때에 있어서도 才能有無의 개인에 分配된 지위로부터 齎來하는 역할은-따라서 그 社會的 意識은 그 조직에 의하여 정하여야지는 것이다』고 정확히 論破하였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朝鮮內의 각 集團의 社會的 關係 및 社會的 역할을 그들 각각의 本質에 의하여 究明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이 각 집단의 소위 중심인물이란 者들의 役割을 주관적으로나 客觀적으로나 평가할 수 있다.

그들이 크면 얼마나 크고 적으면 얼마나 적을가. 朝鮮은 伊太利도 中國도 印度도 아니요, 또 時代는 激變하였으니 朝鮮의 世界的 무쏘리니도 世界的 孫文도 세계적 간디로 있을 수 없는 것은 결코 英雄主義로서 부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中國과 印度의 三民主義와 수와라자는 벌써 終焉을 고하였고 파시즘의 歷史的 運命은 伊太利에서부터 동요하고 있다. 封

建社會와 資本社會와의 중간기에 있어서 絶對主義의 운명은 길지 못하였다. 더욱이 현대思潮는 昔日의 그것보다 超絶한 속력으로 急轉 直下하고 있다. 過渡期的 中間現象에 대하여 感泣 雀躍하는 것은 自暴自棄의 自己慰安 이외에 하등의 歴史的 意義를 가질 수 없다.<64>
<62-64>

14.

잡지명: 동광 제38호
발행년월일: 1932년 10월 01일
기사제목: 聖者和 英雄(全1幕)
필자: 韓利職 한리직
기사형태: 희곡·시나리오

聖者和 英雄(全1幕) (성자와 영웅(전1막))

韓利職

時 현대

장소 극장

인물 헬마

노라

지배인

청년

군중

무대 배경-향하야 좌편에는 높은 곳에 철봉으로 얹은 창 두 개가 있는, 담으로 되었고, 우편에는 사면으로 된 단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부벽서와 그림이 붙어있다. 향하야 좌편 측면은 흰 담으로 되었고 그 곳에는 두 짝으로 된, 흑자색의 출입문이 닫기어 있는데, 그 문은 안에서 잡아닫기어서야 열게 되어 있다. 하면 무대-향하야 우편에는 무대가 하나 있는데, 그 무대-우에는 테이블 한 개가 놓여 있고, 그 옆에는 교자 두 개가 있고, 테이블 우에는 램프에 불이 켜져 있다. 이 무대에 등장하기 위하여는 본무대의 향하야 우편, 관중과 무대새에 터진 곳이다. 향하야 좌편에는 관람석. 밤 10시경. 막이 열리면 무대의 관람석에는 각층(신사 숙녀 로소 등등)의 팬들이 연극에 열중하야 있는데 명수는 만원에 가깝다. 무대의 무대에서는 「人形の 家」(입센작)를 연출하는데 헬마는 연미복을 입고 서 있으며 노라는 모자와 외투를 쓰고 입고 손에 여행가방을 들고 퇴장하려 한다.)

헬마. 집안과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간다구, 너는 세상사람들이 무어라고 말할지도 생각지 않는구나.

노라. 나는 그런 것은 생각지 않아요. 오직 내 자신이 그러케 하지 않아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뿐입니다.

헬마. 그것은 안될 말이다. 그와 같은 행동을 하므로 너는 신성한 의무를 버리겠단 말이나?

노라. 당신이 말하는 바 소위 신성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헬마. 그것을 모르는가. 너의 남편에게 대한 의무와 자식들에게 대한 의무말이다.

노라. 내에게는 따로이 신성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109>

헬마. 그러한 것은 없을 터이다. 대관절 너의 의무라 하는 것은 뭐냐?

노라.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의무입니다.

헬마. 무엇보다도 너는 먼저 안해며 어머니인 몸이다.

노라. 나는 그러케는 믿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한 인간인데 잊어서는 당신과 같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러케 되어 보고저 합니다. 사람은 대개로 당신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줄을 나는 압니다. 또한 책에도 그와 같이 써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절대로 사람이 말하든지 책에 써워 있든지 한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생각해 보고 내 자신이 그것을 밝히 알아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장하려 할 쯤에 연기가 어느듯 무대를 점령하며 밖에서는 「불이야!」하는 소리가 들린다. 무대위에 모든 사람들은 좌편 출입문으로 모인다. 연극하든 두 사람도 들었든 것을 버리고 황급히 그리로 향한다. 밖에서 「불이야! 불이야!」하는 소리가 또 들린다. 사람들은 더욱 출입문 있는 곳으로 모여든다. 출입문은 닫기었다. 방안은 컴컴한데 잇다금 흰해지군 한다. 방안에는 남녀가 혼잡하여 있는데 출입문에서 멀리 있는 사람(뒤에 있는 사람)들은 뭉킨 사람새에 틀어 있는 곳을 찾기에 황급하다.)

문에서 뒤에 있는 군중. 문 열어라! 빨리 문을 열어!

문 가까이 있는 군중. 밀지 말어요.(문에다 발을 버티고 뒤에 있는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나 듣지 않아서) 뒤에서 밀지 말고 물러가 주어요. 문을 열수가 없어요.

가운데 선 군중. (남자중) 아이고 힘세게 미네. 찌게지겟군(뒤에서 「문 열어라!」로 반주.)

여자중 우는 애기를 업은 젊은이. (뒤에서 미는 사람을 돌아보며) 이거 왜 자꾸 밀어요? 우리 애기가 건디겟소? (앞에서 「열 수 없다」반주)

對者. 내가 밀우? 뒤에서 작고 미니 나도 할 수 없어서 밀지요.

(뒤에 군중들 「문 열어라 빨리빨리」반주 동시에 갑자기 떠민다.)

애기 업은 여자. 아이고! 나 죽겠다!

문 가까이 있는 군중. 뒤에서 좀 물러나 주어요. 사람 찌게지겟군 원원! (문 가까이 있는 처녀 「아이고 어머니!」반주, 운다. 다른 여자들의 울음소리.)

(잇다금 화광이 무대를 점령한다. 그때에는 더욱 문으로 모여든다. 따라 더욱 소동한다. 조금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의 앞에 서고저 하나 앞사람에게 배척을 당한다. 여자의 곡성)

뒤에 선 군중. 문 열어라. (합하야 크게) 문 열어라.

앞에 선 군중. 물러나요, 문을 열 수가 없소. (문 가까이 있는 몇 사람이 일제히 내밀며(움쪽 안한다) 뒤에서 물러라.

가운데 선 사람들 중. 아이고 찌게지겟다. (남자) 아이고 어머니. (여자)

(그 통에도 어떤 작자는(팅중이 보이는 곳에서) 슬그머니 처녀의 손목을 잡는다.)

처녀. 어떤 놈이 남의 손목을 잡어? 아이고!

뒤에 선 군중. 손목이고 발목이고 어서 문 열어라. 우리는 죽겠다.

문 곁에 있는 군중. 물러 가야지 못 열겠다.

(그때에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활발히 연극하든 무대로 올라간다. 그는 외양으로는 다른 군중과 분간할 빠 없으나 태도가 매우 침착하다. 그는 이 극장의 지배인이다.)

지배인. 자! 여러분! 이렇게 덤비지만 말고 나의 말을 들어<110> 보시오. 이러한 자리를 당

하야 이러케 덤비기만 하여가지고는 일을 출 수가 없습니다. 이곳으로 행하야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군중들은 이곳 저곳에서 「밀지 말아」 「문 열어라」 「찌꺼지겠다」 「으악!」하는 소리만 할 뿐이다. 지배인은 크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기만하고 있으면 이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군중 가운데는 그를 돌아보는 자가 있다) 자! 보십시오, 지금(화광. 군중은 또다시 아우성친다.) 종용하야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치 않으면 곧 죽습니다. (종용) 우리는 저 문을 열기 전에는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다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문은 내밀기만 하여서는 절대로 열 수가 없고 잡아 단너야 비로소 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하여 일제히 몇 걸음식만 물러나 주어야 되겠습니다. (열렬히) 여러분이 다같이 세 걸음식만 물러나면 저 문을 넉넉히 열 수 있으며 이 사망의 함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 가까이 있는 군중.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자 빨리 빨리 세 걸음식만 물러나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양보하는 자는 없고, 오직 전보다 좀 침착성을 지킬 뿐이다.)

지배인. 자 이런 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서 용기를 내어 세 걸음식만 물러섭시다. (크게) 자 빨리 이리로 오십시오. (가까히 있는 사람 3,4인이 물러난다. 물러난 자리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으로써 또 메워지고 물러난 사람만 비어져나고 말 뿐이다. 비어져 나온 사람들을 자기자리를 빼앗은 자를 끌어내려하나 불능 혹은 성공 혹은 둘이서 싸운다. 그러는 동안에, 다시 문을 향하야 밀게 되었다. 동시에 「아이고!」 「찌꺼지겠다」 「밀지 말아」 「아이고 어머니!」 등등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남녀 합창대식으로 섞여난다. 무대는 소동 계속.)

지배인. 떠들지 말고 내말을 들으시오. 여러분들이 떠든다고(크게) 나갈 길이 생길 줄 압니까? (종용) 우리의 살길은 오직 여러분들이 몇 걸음식 양보하는데 있을 뿐입니다. (그는 양보한 사람의 자리를 빼앗은 자들을 둘러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손으로 가라치며) 당신이 한 걸음 더 문 가까이로 가면은 당신의 몸을 이 화재 가운데서 구원할 줄 압니까? 안 될 것입니다, 안 될 것이예요. (머리를 들며) 자 어서 세 걸음식만 일제히 양보합시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빨리빨리.

양보한 사람. 우리의 마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이상 그것은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물러서면 다른 사람은 더욱 닥아서군 하니 누가 양보할 것입니까? 그보다도 우리는 다른 방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중의 시선을 끈다.)

지배인. 우리는 저 문을 열기 전에는 절대로 살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보한 사람. (좀 더 물러서며 군중을 향하야) 여러분 우리는 저 문을 깨틀입시다. 그러면 우리의 나갈 길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군중들 옳은 말이다. 자 우리는 저 문을 깨트리자!

(이 말과 동시에 문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주먹으로 문을 친다. 군중 중에서는 「독기 가져 오너라」 「문을 찌개라」 「빨리 찌개」하는 소리가 난다. 그러나 문은 쉽사리 찌개지지 않고 뒤에서 세게 미는 바람에 문을 치든 사람은 두 주먹 쥔 손을 쳐들어 몸과 같이 문에 꼭 대이고 「아이고 가슴이야! 하고 아우성친다. 뒤에서는 아직 「빨리 문을 깨틀어라!」 「문을 때어라!」하는 말이 계속. 「아이고 어머니!」(女) 「나 죽소」(男) 등의 말이 반주)

문에 붙은 사람. 아이고 찌꺼지겠구나!

그 옆엿 사람. 뒤에서 밀지 말아! 사람 죽는다. (저속히 완화)<111>

지배인. 안됩니다 안됩니다. 자 이리로 향하야 내 말을 들으시오. (힘있게) 우리는 우리가 같이 양보하야 일제히 세 걸음을 이리로 오기 전에는 절대로 이 함정에서 버서날 수 없는 것입

니다. (중용) 내가 지금 한 방도를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한분도 빼놓지 말고 나의 명령을 복종 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제히 세 걸음을 물러나야 하겠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할 때 여러분이 일제히 한 걸음을 물러서고 「둘」할때 두 걸음을, 「셋」할 때 세 걸음을 뒤로 물러서면 우리는 밭서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손을 높이 들며) 자- 정신을 채리시오, 한 사람도 빼놓면 안됩니다. (손을 내리우며 몸을 굽히며 크게) 하나! (대 개 한 거름식 물러섰으나 그 중에는 안 물러선 자도 있다. 그 사람들을 가라치며) 빨리 물러서요! (물러선다. 문은 적이 동한다.) 둘! (일제히 밭걸음을 물림과 동시에 문은 사람이 꽤 나가리 만치 열리었다. 이것을 돌아다본 군중들은 기쁜 듯이 제가 먼저 나가고저 하여 반 열린 문으로 물리어 갔다. 문은 또한 닫기었다. 무대에는 또한 「빨리 나가자」 「밀지 말아」 「아이고!」 「찌꺼지겠다!」하는 소리로 소동.금번 소동에 자리의 변동이 많았다.)

지배인. (발을 구르며 분한 기색을 띠어) 소동하지 말으시오, 저 문은 열리지 않았습시다. (소 등완화)

군중중. 누가 저 문을 또 닫기게 하얏느냐?

지배인. 누가 일부러 닫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는 바람에 자연히 닫긴 것입니다. (힘있게) 여러분! (중용) 저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는 그 문은 열린대야 다시 닫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저 문이 완전히 열리게 하기 위하여 아무 다른 것을 생각지 말고 나만 보십시오. 자 전과 같이 또 한번 해야 봅시다. 세 걸음만 참으면 그만이니까 정신을 차립시다. (손을 번적 들며) 자! (손을 내리우며) 하나! (일제히 다리를 움직인다.) 둘! (또 뒷거름한다. 문은 첫 번과 같이 열리었다.) 조심하야 이제 한 걸음만 더 참으면 우리는 다 삽니다. 나만 꼭 봐요. (하며 팔을 높이 들어 「셋!」 소리를 내려할 즈음 밖에서 큰 난간이 불이 다 붙어 허무러짐과 동시에 큰 소리가 나며 창을 통하야 들어오는 화광이 무대에 충만하게 되자 군중의 마음은 공포의 환상으로 채워졌다. 그들은 다시 채 열리지 않은 문으로 황급히 뚫여들었다. 문은 다시 닫기고 소동)

지배인. 여러분! 중용하십시오. 정신을 똑똑히 차리시오. 그러면 우리의 나갈 길은 아직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몸은 피곤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도 피곤한 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즈막으로 최대의 용기를 내어봅시다. 자 나를 향하야 서서 준비를 하시오. (향하고 중용, 손을 높이 들었다 내리우며) 하나! (일제히 다리를 든다.) 둘! (또 다리를 움직인다. 문은 다시 저속이 열리었다. 그는 손을 번적 들어 「셋!」이라는 소리를 방금 낼려고 할 때에 별안간 지배인 앞에 천정으로부터 불덩이가 하나 떨어졌다. 이에 무대는 다시 소동화 하야 다시 닫긴 문으로 물리게 되었다.)

군중중. 이집은 지금 거반 문혀저간다. 우리는 빨리 저 문을 깨트리고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뒤에서 일제히) 문을 깨틀어라! (「아이고!」 「찌꺼지겠다!」 「밀지 말아」등의 말로 반주)

지배인. 오! 가련한 인생들아, (기운없시) 한 찰나만을 진정하지 못한단 말이가, 아! (군중은 여전히 소동하며 문 깨트리려 의론을 한다. 지배인은 갑자기 원기를 돋우어 크게) 너희가 살려면은 세 걸음을 물러서야 된다. (그는 쓸어진다. 방안은 계속하야 소동하고 오직 몇 사람의 돌아보는 자가 있을 뿐이다. 화광은 점점 전보다 자조 번쩍인다.

(그때에 군중 가운데서 한 청년이 단 우에 나타나서 지배인을 부른다. 그는 활발한 기상을 가지고 있다.)

청년. 거룩하신 이어. 당신은 최후까지 우리를 위하여 웨칩습시다.<112> 그러나 미련한 이 무리들은 아직도 나갈 길을 찾지 못하얏습시다. 저는 당신의 뒤를 이어 이 무리의 나갈 길을

열어 주고저 합니다. (쓰러진 이는 대답이 없다. 청년은 그를 버려두고 힘있게 발을 구르며) 여러분! 종용하고 내 말을 들으시오. (저속이 침묵) 자-여기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운을 다 쓰고 지금 기절하여 있는 이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힘쓴 이입니다. 여러분이 이이의 말슴을 들었으면 벌써 우리는 저 광명한 세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시기가 아조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죽었으나 아직 살아있는 그의 위대한 교훈을 실현해야 합니다. 자-

군중중. 그런 말은 우리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집은 방금 문혀져가는 중에 있다. 언제 우리가 물러날 수가 있느냐? (크게) 어서 빨리 저 문을 깨틀어라. (뒤에서 일제히) 문을 깨틀어라!

앞에 선 군중중 깨틀수 없소. (소동 계속)

청년. 어리석은 무리들아! 나는 너이들과 이론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는 방바닥에 널러있는 종이를 모두아 석냥을 꺼내여 불을 붙인다. 불붙는 종이를 들고) 자 누구든지 「불세례」 받기 원치 않는 자어든 물러나라. (불붙는 종이를 군중우에 뿌린다. 군중들은 짹 헤어진다. 그리고 그 불을 뿌린 청년에게 달려든다. 그럴때에 문은 짹 열렸다. 군중은 문으로! 문으로!) -幕- <113> <109-113>

15.

잡지명: 동광 제40호

발행년월일: 1933년 01월 23일

기사제목: 新年을 當하야 學生에게 보내는 公開狀, 英雄이 되라

필자: 李光洙 이광수

기사형태: 문예기타

新年을 當하야 學生에게 보내는 公開狀, 英雄이 되라 (신년을 당하야 학생에게 보내는 공개상, 영웅이 되라)

李光洙

우리는 역사의 계승자가 아니요 창조자다. 정신에 있어서는 멀리 三國時代의 화랑도의 유산을 계승할 것이 있으나 그밖에 우리는 三國時代 말엽 이후에서는 계승할 아무것도 없다. 잇다면 그것은 불명예의 부채다.

우리는 舊朝鮮의 폐허에 新朝鮮을 임무를 가짓다. 이 일은 이천만人이 다 할 일이지마는 그 주역은 우리 젊은 남녀학생들뿐이다. 그 이외 사람들은 다 보좌역이요 엑스트라다. 이러한 중임을 가진 우리 청년남녀학생은 어떠한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할까.

첫째는 이 사명이 임무를 자각하는 것이다. 1933년 元旦에 우리 청년남녀학생들은 목욕재계하고 천지에 향하야 이 사명을 맡은 것을 감사하고 맹서하자.

『우리는 일생에 쉬이지 않고, 굶히지 않고 있는 정성과 있는 힘을 다하야 이 임무를 다하오

리다.』

둘째로 1933년의 歲頭に 서서 금년 1년의 생활의 主義와 계획을 세우자.

1. 나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완전히 다하리라.
2. 나는 내 건강에 해로운 악습관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위생과 운동으로 이를 증진하리라.
3. 나는 모든 이기적인 본능과 싸와 「우리」를 나로 알도록 스스로 훈련하리라. 나 자신만이 나 내 가족만을 <2> 우리로 아는 것은 너무 적다, 너무 좁다. 그러나 전세계 인류를 우리로 아는 것은 너무 크다, 너무 넓다. 前者면 이기적이 되고 後者면 망막하야 공상적이 된다.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이는 오직 朝鮮이니 우리는 朝鮮만을 우리의 愛의 대상, 관심의 대상, 행위의 대상을 삼자.
4. 뜻이 같은 동무를 찾아 사귀자. 십만의 학생중에는 일천의 이러한 사람은 고를수 있을 것이다. 큰 일은 큰 힘으로야 한다. 큰 힘은 여럿이 뭉침에서만 난다.

우리는 생각하자. 농촌을 생각하자. 소상공업자를 생각하고, 의식주가 없는 빈궁한 동포를 생각하고, 朝鮮에 부가 없는 것을 생각하고, 과학자가 없는 것을 생각하고, 지도자가 없는 것을 생각하고, 공업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문학, 미술, 철학 등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朝鮮사람들이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모든 중심이 없는 것을 생각하야 스스로 그 중에서 어느 사람이 될 것을 작정하든지 그中에서 어느 사업을 할 것을 작정하든지, 또 그 밖에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찾아서 만날 것을 생각하자.

청년학생은 영웅이 아니되면 아니된다. 영웅이란 능히 나를 버리고 우리로써 나를 삼는 이요, 이제를 버리고 잇다로써 이제를 삼는 사람이요. 姑息의 樂을 버리고 분투, 창조의 苦로써 樂을 삼는 사람이요, 그의 의지가 그의 일생의 主義와 목표가 바람에 흔들리는 풀뉘, 비에 빛이 나는 발라놓은 담벼락, 酸에 변화하는 低級金屬 같지 아니하고, 한 번 선 뒤에는, 한 번 난 뒤에는, 한 번 작정한 뒤에는, 한 번 허락하고, 한 번 약속한 뒤에는 큰나무와 같이 큰 바위와 같이, 태산과 같이, 황금, 백금과 같이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구하는, 待望하는 영웅이란 이러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러한 영웅을 南朝鮮도 아니요 海島中도 아니요 오직 우리 청년남녀학생중에서 구하고 待望한다.<3>

<2-3>

16.

잡지명: 별건곤 제27호

발행년월일: 1930년 03월 01일

기사제목: 칼세이지의 愛國英雄 한니발

필자: 白菱生 백릉생

기사형태: 문예기타

칼세이지의 愛國英雄 한니발 (칼세이지의 애국영웅 한니발)

白菱生

1. 포에니 戰爭의 由來

때는 西曆紀元前 850년경 당시에 세계적으로 식민권과 상권을 가지고 있던 페니키아人は 亞弗利加的 北端 지중해연안에 一市를 세우고 부근 일대에 勢力扶植에 노력을 하였다. 이것이 나중에 유명한 갈세-지(칼다고)國의 기원이다.

칼세이지는 그 時에 本國으로부터 독립을 하여가지고 점점 융성하여 지중해 일대의 해상권과 상권을 그 손에 쥐고 따라서 그 兵力 富力이 건줄자가 업슬만한 지위에 이르렀다.

이 富에 대하여 침을 삼키고 있던 羅馬는 칼세이지에 대하여 간섭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兩者間에 물론 평화로운 해결이 될리는 업는 것이었었다.

그리하여 양국간에는 殺伐이 일어나게 되었스니 그것이 즉 유명한 포에니(푸닉)전쟁이다.

제1차 포에니전쟁에 칼세이지는 패전을 하였다.

뒤를 이어 칼세이지에는 내란이 일어났다.

이 내란을 평정하며 병력을 길으느라고 英雄 하밀칼은 3년 4개월의 세월을 허비하고나서 그는 羅馬에 대한 복수의 제1착으로 西班牙를 征服하는 길을 떠나려하였다.

그때가 西紀前 235년.

出征하려는 臨時에 하밀칼은 그때 겨우 아홉 살 맞게 아니된 아들 한니발을 國神祠堂으로 데리고 가서 慨然히 일으되

「네 나히 비록 어릴지나 고히 들을지어다. 저 羅馬는 우리 칼세이지의 원수이다. 너는 반듯이 그를 마음에 색여 造次라도 國讎를 갹할 것을 잊지 말지어다.」하고 엄숙하게 훈계를 하였다.

나히 비록 어리었스나 한니발은 이미 큰 뜻을 품었었다. 그는 憤然히 신의 압해 맹세를 하고 다시 西班牙 軍中에 들어가기를 아버지에게 청하였다. 그리하여 하밀칼은 어린 한니발을 데리고 원정의 길을 떠났다.

2. 西班牙 征服

西班牙는 如意하게 정복을 하였다.

하밀칼은 이리함으로써 넓은 반도와 만흔 재력과 굿세인 병력으로써 단숨에 羅馬를 못질으려는 큰 뜻을 품고 잊었다.<66>

西班牙정복의 대업이 거의 완성되여갈 지음에 앳폴사 老英雄 하밀칼은 南部蠻族을 토벌하든 조고마한 戰役에서 전사를 하고 말었다.

이때에 한니발의 나히 겨우 열아홉살이었었다.

그는 하밀칼의 功으로된 西班牙에 발을 디디고 서서 칼세이지의 뜻이요. 先人の 뜻이요. 또한 자기의 뜻인 羅馬侵入의 業을 계속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나히 어린 자기를 잘 알고 잇슴으로 爲先 모든 지휘의 권리를 그의 매형인 하스돌발에게 맡기여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한니발의 才略과 용기는 유명하든 그의 아버지 하밀칼보담도 더 이상이었었다.

그는 하밀칼을 딸어 西班牙征略의 陣中에서 자랐기 때문에 日夜로 하밀칼의 軍略을 目擊하고 겸하여 軍馬方面에 탁월한 천성이 잇섯슴으로 동양의 장군에 비한다면 三國때의 趙子龍이와 가튼 장수이었었다.

더구나 그는 체구가 매우 크고 힘이 限을 모르게 세었시 때문에 멧칠 동안씩 계속하여 먹지 안코 자지안코 싸흠을 하되 일즉이 피곤함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武將인 한편으로 그는 정치적 수완이 탁월하였섯고 회랍문화를 애독하였스며 度量이 넓기 때문에 무력으로 정복한 西班牙의 蠻民을 잘 교화시켰고 인정이 薄한 그 傭兵들을 완면히 手足과 갖치 교묘하게 조종하였다.

이러한 名將으로써 또한 才辨과 수단이 만흔 하스돌발과 손을 잡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점점 그의 地盤은 구더가기 시작하였다.

필경 그는 西班牙에 新칼세이지라는 一市를 건설하고 또 元來 良港이 만헛기 때문에 海軍을 양성하는 한편으로 만흔 銀鑛을 채취하여 병사들에게 불평이 업도록 급료를 주었다.

세력이 점점 뻗치어 나아가다가 필경은 당시 西班牙의 이벨스河以西에는 하나뵈게는 남지 아니한 사간탐市까지 占領을 하였다.

이 보담 조금 앞서서 하스돌발은 西紀前 210년에 刺客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당시 겨우 스물 여섯살인 한니발이 西班牙의 總督이 되었다.

사간탐이 점령을 당함에 羅馬는 강경히 항의를 하였다. 사실 한니발의 행동은 확실히 제1회 포에니전쟁의 조약을 무시하는 것이였섯다.

교섭은 결렬되고 제2회 포에니전쟁이 일어났다.

3. 伊太利 遠征의 出發

제2회 포에니전쟁은 일어나고 말엇다.

당시 한니발의 지위를 보면 그는 완전히 서반아의 독재군주와 가튼 세력을 가지고 잇섯다. 그는 조금도 본국의 간섭을 맞지 아니하였다. 그의 部下將卒은 한니발을 알되 칼세이지를 물으는 사람이 만히 잇섯다.

본국 칼세이지에서도 何等의 간섭을 하지 아니하고 羅馬와의 교섭이 破裂이 됨에 전부를 한니발에게 일임하였다.

紀元前 218년 봄에 한니발은 軍略上 伊太利의 德속이를 높이기 위하여 進軍을 하려할 지음에 爲先 본국의 防備를 위하여 일부 군대를 남겨두고 또 西班牙에도 2만인의 수비병을 남겨노코는 스사로는 보병 7만 기병 1만2천 象 37頭를 거느리고 도중에서 羅馬의 同盟諸國을 격파하면서 4개월후에는 피레니山下 <67>에 이르렀다.

한니발은 4개월간 싸흠에 軍兵의 太半을 밀고 겹하여 피레니의 높흔 峻嶺을 넘어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屈치 안코 5만의 보병과 9천인의 기병을 잇글고 피레니山을 넘어 로-누江沿岸에 이르렀다.

여기서 한니발은 라마의 同盟族인 풀族을 길길히 쳐물니치고 一軍은 무사히 알푸스山 밧헤 이르렀다.

세상에서는 나폴레온이 알푸스를 넘어 伊太利를 정복한 것을 그 矢嚆로 안다. 그러나 그 보담 1500여년을 앞서 한니발이 그 군병을 거느리고 알푸스를 넘어 伊太利를 정복하였다.

4. 알푸스山을 넘어

山은 험준하였다.

치올너 보면 峨峨한 高山峻嶺이 하늘을 주여뜨을 뜻이 소사잇고 더구나 山頂에 덩혀 잇는 皚皚한 白雲은 사람으로 하여곰 감히 犯치 못한 것 갓치만 우리보엿다.

그때에 길안내는 매우 適當한 一隊가 잇섯다.

그것은 알프스산밧헤 잇는 어느 種族의 部落에 內亂이 일어난 것을 한니발이 평정식혀 주었기 때문에 그 酋長이 報恩의 의미로 한니발에게 알프스山의 지리에 익을 一隊를 내어준 것이 었섯다.

그러나 길은 갈수록 어려웠다. 南歐의 溫帶에서 生長한 軍兵과 馬匹들은 알프스의 嚴寒에 못 익이여 모다들 쓸어지군 하엿다.

군병의 의기는 몇번이나 沮喪이 되엿다.

그럴때마다 한니발은 열열한 勸변으로 군병을 격려식혔다. 그 중에 유명한 한개를 들면 이러한 것이 있다.

「諸士여 이미 뜻을 決하고 피레니의 峻嶺을 넘어 로-누의 大河를 건너서 이미 조국이 원수 羅馬가 발알에 각가히 잇지 아니한가? 엇지하여 그대들은 갑작히 주저를 하는가? 생각하라! 알프스가 제 아모리 높다하여도 그 산정이 하늘에 다은 것이 아니다. 올으면 올으지 못할 바가 아니다. 土人들은 산간에 밧갈고 생활하며 여객들은 항상 이 산을 넘어다니지 아니하는가? 군인은 개인의 집단이니 그 보담 더 闊세인 힘을 가지지 아니하엿는가? 개인이 넘는 곳을 엇지 군인이 넘지 못한단 말인가? 분기하여라 분기하여라 非常한 功을 세우려는 자는 비상한 難事를 격거야 하는 것이다.」

山이 험준한데다가 각금 산간에 숨어 잇는 蠻族의 습격도 밧고 또 어느 때에는 만족의 拷임을 바더 막달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全軍이 전몰을 당할뻔한 적도 잇섯다.

그러나 그러할때마다 한니발의 機智로써 교묘히 버서서 飢渴은 10여일을 허비하여 산정에 올으게 되엿다.

산정에서 이틀 동안을 쉬이고 다시 엇새동안 허비하여 산 알에까지 내려왔다. 下山할 때는 올나올때 보담도 더 만흔 고초를 격것섯다.

이것이 한니발이 西班牙를 출발한지 실로 5개월만이요. *涉한 里程이 4천여리에 달하엿다.

그리하느라고 그는 군병도 반이상을 일허바렸다.

5. 伊太利를 大半征服

伊太리에 들어서 한니발의 활동은 습풀을 나선 범과 가뵈다. 누구하나 羅馬사람으로는 한니발의 <68> 용감하고 신출귀몰한 군병을 막을 자가 업섯다.

그의 戰蹟을 일일히 들어 쓰자면 삼국지 이상으로 장황하여질 것이다.

그럼으로 여기에는 그 간단한 경개만 소개한다.

伊太利에서 제일착으로 크나큰 戰勝을 한 것이 칸네-戰이엿섯다.(紀元前216)

이 接戰에 羅馬軍兵의 전사한 수가 보병이 4만5천 騎兵이 2만7천 포로가 2萬人이요 살아돌아간 자는 겨우 1만4천人에 지나지 못하엿다.

그리하면서도 한니발의 군병은 보병 5천에 기병 300명 밧게는 더 일치 아니하엿다.

한니발이 羅馬兵의 시체에서 어든 金銀製의 반지가 너말이엿섯고 그는 援兵을 청하기 위하여 그것을 本國 칼세이지로 보내엿다.

이 敗報를 들은 羅馬의 上下는 정신을 수습치 못하엿다.

羅馬의 멸망이 오늘 내일인가 하고 모다들 떨고 잇섯다.

한니발이 칸네-戰에 대승한 때에 그의 部將인 마하-발은 즉시로 羅馬府를 못지르기를 청하엿다.

만일 이 계책을 한니발이 췌더라면 그는 성공하엿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군병의 疲敝한 것과 또 본국에서 援兵이 올 것을 밧고 급히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엿다.

이것을 보고 마하-발은 「장군은 잘 싸워 승리를 어들 줄은 알으나 그 승리를 이용할 줄은 모른다.」고 長嘆하였다.

하니발은 더 나아가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불리한 持久戰을 계획하며 본국에서 원병이 일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본국에서는 하니발이 성공을 끄려하는 一派가 잇서서 원병을 보내기를 질겨아니하다가 필경 보낸다는 것이 中間海上에서 羅馬의 해군에게 전물을 당하고 말았다.

하니발의 軍運은 기울기 시작하였다.

하니발은 할 수 업시 西班牙에 남겨두고온 하스돌발(먼점죽은 매형과 달음)에게 來援을 청하였다.

하스돌발은 군대를 잇끌고 형의 예를 딸어 알푸스를 넘어 北伊太利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는 형의 소재를 알녀고 두 사람의 병사에게 밀서를 주어 보낸 것이 羅馬兵에게 잡히어 군사상 機密을 전부 발각당하고 말았다.

그러한 줄을 모르고 하스돌발은 南方으로 진군을 하다가 복병을 만나 전사를 하였다.<69> 그때의 羅馬兵의 대장인 니-르는 하스돌발의 목을 베어 먼저 잡은 두 사람의 군병에게 주어 하니발에게 보내었다. 하니발은 그것을 보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며 「아! 하늘이다 운명이다. 萬事休矣다.」(사진참조)하고 痛哭을 하였다. 이것이 에토-라스戰(西紀前207年)後요 하니발이 伊太利에 침입한지 11년만이 었었다.

6. 하니발이 歸國

이리하는 동안에 스키피오라는 젊은 羅馬의 장수는 군병을 잇끌고 칼세이지 본국에 상륙하여(西紀前204年) 하니발의 뒷길을 끈호며 到處에서 승리를 얻었다.

한수업시 하니발은 西紀前 205년에는 눈물 먹음고 羅馬를 흘겨보며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때야 羅馬의 上下는 비로소 가삼을 가다듬고 축배를 들었으나 하니발이 15년간 伊太利에 머물너 잇는 동안 그로 인하여 羅馬人이 생명을 잃은 자가 실로 30만명에 이르렀었다.

하니발이 귀국하여 일시는 스키피오와 회견을 하고 평화를 매짓스나 자마라는 곳에서 운명을 결정하는 일대결전이 일었었다. 이것이 유명한 자마戰이니 때는 역시 西紀前 203년이엇었다. 이 결전에서 하니발은 자기의 독특한 騎兵의 부족으로 참패를 하였다.

後世의 史家は 그것을 나폴레온과 와텔로 戰役에 비교하였다.

패전케 됴매 하니발은 적군중에 뛰어들어가서 奮戰決死하려는 것을 부하의 한 장수가 一團의 密集部隊를 作成하여 가지고 하니발의 뒤를 밋쳐 血路를 열어가지고 간신히 아드라멘탐까지 빠져나아갔다.

이리하여 제3회 포에니戰은 칼세이지의 多大한 양보로 西紀前 201년에 양국간에 맺쳐진 조약으로써 終局을 告하였다.

이때에 칼세이지의 국운은 매우 쇠진하였다.

탁월한 정치가를 요구하는 그때라 衆望에 딸어 하니발은 칼세이지의 統領官(지금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1억 惡政除去와 국력회복에 노력을 하였다.

이때에 하니발의 反對黨은 羅馬의 힘을 빌어 하니발을 제거하려고 밀사를 羅馬에 보내어 교섭을 하였다.

羅馬에서는 하니발이 다시 세력을 잡는 것을 두려함으로 하니발은 反賊이니 羅馬로 인도하라는 절사를 파견식혔다.

이 눈치를 알은 한니발은 절사가 도착하기 전에 비밀히 몸을 빼쳐 씨리아의 王 안티오크스에 게로 갖다.

안티오크스의 국빈으로 잇서 후한 대우를 받으면서 한니발은 다시 羅馬政略을 힘썼다.

7. 兩雄의 會見

이때에 羅馬에서는 씨리아의 안티오크스가 한니발과 羅馬政略을 꾀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섭하기 위하여 절사를 파견하였다. 그 중에 유명한 스키피오가 석겨 잇섯다.

영웅이 나라를 갈너 싸울때에는 비록 원수이나 평화한 때에는 서로 그리워하는 법이다.

스키피오는 에페사스에 잇는 한니발을 차저갔다.

한니발도 반가히 마졌다. 여러날 두고 서로 만나며 胸中을 吐露하다가 하로는 이러한 담화까지 잇섯다.

스키피오 「古來 영웅중에 누가 제1인 <70> 이 될고?」

한니발 「알렉산더 大王」

스키피오 「다음은?」

한니발 「피라스」

스키피오 「그 다음은?」

한니발 「그 다음은 나.」

이말에 스키피오는 우스면서 물었다.

「그러나 그대는 나오 결전에 패하지 아니하였나?」

한니발은 대번 대답하였다.

「그러타 만일 내가 그대와 싸워 익이엇스면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피라스를 내 우에 세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회견의 눈치를 알은 羅馬의 절사는 안티오크스와 한니발을 離間시키려고 안티오크스에게 한니발이 스키피오와 씨리아로 背叛할 계획을 세운다고 하였다.

안티오크스는 한니발을 불너 그 불의를 責함에 한니발은

「臣은 아홉살에 아버지의 업해서 神殿에 羅馬를 巢滅할 것을 맹세하였섯습니다. 그 뒤로 臣의 나히 方今 50에 갓잡되 일즉히 그 맹세와 그 뜻을 이즌 적이 업습니다. 近者에 대왕과 臣사이를 離間시키려는 자가 잇서 羅馬의 스키피오와 謀策을 한다고 참소한 자가 잇는 듯합니다. 그러나 羅馬는 臣과는 不俱載天之 원수입니다.」하고 辯熱을 吐하였다.

8. 蓋世英雄의 末路

西紀前 192년에 안티오크스는 羅馬를 쳐들어 갖다.

그는 한니발을 데리고 가지도 안코 그의 獻策도 쓰지 아니하였다.

필경 안티오크스는 羅馬軍에게 패전을 당하고 말었다.

이리됨에 羅馬는 여러가지 배상조건을 안티오크스에 제출한 중 한니발은 잡어 보내라는 것도 요구조건의 하나이엇섯다.

이리될 눈치를 채인 한니발은 민첩하게 씨리아를 빠져나와 自己가 미리서 後日을 생각하고 금은보배를 만히 숨겨 두엇든 크리-트島로 갖다.

그러나 한니발의 재물을 탐내는 여러 도적이 섬에 잇는 것을 알은 한니발은 다시 小亞細亞의 비니샤로 피하여 가서 王 풀샤스의 厚待를 입어 그곳에 머물너 잇섯다.

그때 마스침 풀샤스는 隣國과 交戰을 하든 때이엇다.

한니발은 풀샤스의 大將이 되어가지고 출전하여 대승을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羅馬에서는 「만일 한니발이 亞細亞에서 근거를 어드면 우리는 배개를 놓히
베고 잘 수가 없다.」고 하며 풀샤스에게 使者를 보내어 한니발을 인도할 것을 강경히 요구
하였다.

羅馬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풀샤스는 할 수 업시 羅馬의 절사에게 자기는 참아 그를 잡어 보
낼 수가 업스니 그대들이 가서 잡어 가라고 한니발의 잇는 곳만 같으켜 주었다.

사방으로 포위를 당한 한니발은 단신으로 엿지할 바이 업서 미리 준비하였든 독약을 마시고
조용히 죽음의 길을 떠났다.

그때가 西紀前 183년 한니발의 나히 64세.

蓋世의 영웅 不出世의 愛國志士 한니발의 일생이 통틀어 焦土風雨中の 일생이요 그의 혼백은
원귀가 되어 異域山川에서 길이 울고 彷徨하였다.<71>

<66-71>

17.

잡지명: 별건곤 제43호

발행년월일: 1931년 09월 01일

기사제목: 求婚 女子 三十萬人 突破한 人氣飛行家 린드백 夫妻, 大統領 以上の 二十世紀 英雄

필자: 外聞生 외문생

기사형태: 소식

求婚 女子 三十萬人 突破한 人氣飛行家 린드백 夫妻, 大統領 以上の 二十世紀 英雄 (구혼 녀
자 삼십만인 돌파한 인기비행가 린드백 부처, 대통령 이상의 이십세기 영웅)

外聞生

大西洋 橫斷 飛行 이래 4년이 지난 금일에도 의연히 린드의 인기는 非常하야 조금 외출만
하드라도 握手狂 「싸인」狂의 포위 공격을 받으며 물건을 사러가면 店頭에는 군중이 운집하
고 자동차만 타도 사람 때문에 교통이 杜絶되는 상태이다. 그래서 구경 가튼 것을 가려도
變裝을 하고야 간다니 人氣者의 悲哀도 어지간하다고 하겠다. 年前 미국 었던 잡지가 현재
米人의 인기투표를 하얏을 때 第一位가 린드백이요 후-버 대통령은 第三位였다는 사실로만
미루어 보드라도 그가 완전히 米人間에 偶像化되어 영웅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을 알 수 있
다.

린드가 뉴-욕과 파리간 최초의 무착륙 비행에 성공하기는 1927년 5월 21일이니 3,600마일을
33시간에 飛破하였다. 파리에서는 나폴레온 凱旋 이래 최대의 환영을 하얏고 佛大統領은 레
쥔.도놀의 최고훈장을 주느니 부랴셀에 갓을 때는 白耳義 황제폐하가 황후폐하와 同列하야 비
행장으로 가서 함께 기념사진을 백이느니 런던에서는 크로이든 비행장에 15만 대군중이 운집
하야 린드의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열광하야 殺到하니 1,200명 경관은 서로 팔과 팔을 엿걸
어 사슬을 지어서 비행기를 둘러막는 등 군중은 린드백.린드백 연설 연설하고 부르지졌다. 췌

朝에 이러나자 린드는 크로이든 비행장을 달려가 愛機를 점검한 것은 生死를 가티한 비행기가 昨夜 소동 때문에 고장이나 업섯나 하고 근심함이니 飛行家가 비행기를 사랑함은 당연한 일이나 그는 機體와 發動機를 가르쳐 『우리』라고 부른다. 그는 엇던 환영회에서나 혼자 몸이면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佛蘭西人은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는 아메리카를 떠날 때 紹介狀 6통을 가지고 온 巴里이라 10시 반이나 되어서 파리의 루.부루-지에 비행장에 도착하는 찰나 군중이 린드백 만세를 高唱하며 밀려드는 것을 보고 이 밤중에 이 만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러케 騷動하는지도 몰랐다는데 당시의 착륙은 전문가를 감탄케 하였다.

영웅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숨어 잇는 것이니 린드의 어머니 에반지에린.린드백은 아들의 大飛行에 대하여 이해와 신뢰를 가지고 출발 전 뉴-욕 비행장까지 餞送하고는 여전히 데드로로이트로 가서 教鞭을 잡았다. 린드가 와싱턴.뉴-욕에서 환영을 바들 때 어머니도 가티 자동차에 탔섯든 바 군중이 만세를 불러주어도 답례를 아니하는 고로 린드가 注意를 식히니까 『이것은 내의 光榮이니 내가 논하 가질 수 업다.』고 말하였다.

린드가 인기 높은 一原因은 橫斷機로 7월부터 10월까지 전 미국 18州 82도시를 방문 비행하여 비행거리 2만 2,350마일을 一回의 고장도 업시 어느 비행장에도 예정 시간에 꼭 착륙한 것이다. 그 동안 그는 69회나 공식연회에 출석하고 1,200마일 이상 행렬에 참가하고 510회의 연설을 전국이 방송하였다. 그 해 12월 2,100마일이나 되는 와싱턴.멕시코市間<10> 무착륙 비행을 27시간 10분에 성공하였다. 그때 미국 대사는 그의 丈人이니 翌年 봄 안嬢과 혼약이 성립되어 그 해 5월 27일 결혼식을 거행한 바 린드가 27세요 안이 22세였다. 이 결혼만큼 센세이썬을 이르킨 것은 근래 아메리카에서 볼 수 업는 일이였다. 술도 담배도 노름도 『연애 가튼 것은 할 틈이 업섯슴으로 여자에는 白紙』라는 소리를 드를 만치 淸教徒的인 린드인지라 양키꼴들의 반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니 『우리의 귀여운 영웅』이라고 떠들며 손 빨니 求婚한 여자 수가 놀나지 마라. 30만!! 그러나 린드는 一向 무관심하고 다만 航空에 정진할 뿐이였다. 부로-드웨이이쇼-꼴 샷치엘이라는 미인이 『나는 린드와 각금 夜會에도 가티 가고 자동차도 탔다나』 엇쩌다나 하면서 거긋소리로 신문을 騷動시킨 일도 있다. 全米의 寵兒도 언제까지나 독신으로 잇슬 수 업고 누가 행운의 新婦가 될고 하는 것이 문제 꺼리엿섯든 바 1928년말 米墨 무착륙 비행에 성공한 뒤 얼마 동안 在멕시코市の 米大使 도와이트.모로-氏 官邸에 客으로 잇섯슬 때 大使의 令嬢과 사이에 로맨스의 엄이 자라났다. 그런 줄은 아모도 몰랐다가 1929년 2월 12일 정오경 돌연 모로 대사가 미국신문 특파원 등을 대사관에 招集하고 타입프라이터-로 백인 紙片을 내여주고 드리갓다. 조히에는 『미쓰.모-로와 린드백 大佐 嚔◆이에 令番婚約이 성립되다』라고 써여 잇섯다. 이거야말로 米墨 교섭 이상의 豫期 못헛든 중대사건이라 數時間은 멕시코•시테이와 뉴-욕간에 전화전신선이 불이 나도록 뉴-스가 왕래하였다. 全米 각 도시에서는 호회를 발행하느니 실로 세계적 대사건이 돌발한 거나처럼 야단이엿. 스니 그것으로만 보아도 린드백의 인기는 알 수 있다.<11>

<10-11>

18.

잡지명: 삼천리 제3권 제9호

발행년월일: 1931년 09월 01일

기사제목: 아아 太平洋을 征服한 蒼空의 英雄 『린드·버크』, 전세계를 놀내이든 그는 었던 인 물?

필자:

기사형태: 소식

아아 太平洋을 征服한 蒼空의 英雄 『린드·버크』, 전세계를 놀내이든 그는 었던 인 물?

조선에도 오리라고

천재비행가 안창남(安昌男)씨가 중국혁명군에 참가하였다가 이역만리에서 전사하고 녀류비행가 리정희(李貞喜)양이 또한 하늘로부터 땅에 기어나리어 자동차운전수된 뒤 조선의 하늘에는 아름다운 비행기의 모양을 바라보기 힘들더니 이제 아메리카가 나온 세계적 비행가 「린드·버크」씨가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길에 반도의 창공에도 눈부시게 그 찬란한 은익을 날니리라고 한다. 동경-동래-서울-평양-안동현- 이러케 로순(路順)이 될는지 또는 조선은 제주도의 팔새매를 가비엽게 스치고 동경서 즉시 상해(上海)로 날는지 아직 자세히 알 수 업는 일이나 엿재든 금년 가을 강남기력이야 추천벽공(秋天碧空)에서 긴 소리내며야 추 장 먼하늘을 도라갈 때 세계적 「하늘의 왕자」(大空의 王者)는 절대한 과학의 경이를 던지면서 우리의 눈압홀 스쳐갈 것이다.

칠십칠시간에 태평양을

「린드·버크」는 사랑하는 안해와 가치 지난 칠월이십팔일 오후 한시 이십분(조선시간 이십구일 오전 세시 이십분)에 미국 와싱턴해군 비행장(華盛頓海軍飛行場)을 출발하여 이십륙일 네시간삼십분만에 일본북해도 근실(根室)에 도착하였다. 이 사이에 비바람세고 빙산(氷山)이 룡월염천에도 흘러다니는 북극부근(北極附近)을 비행하느라고 었든 때는 무인도(無人島)에 내려 폭풍을 피하기도 하고 또는 물가운데 떠러져 안개를 피하기도 하기 여러시간을 공연히 허비하여 실상 비행한 시간은 칠십 칠시간밖에 아니되었다. 이 사이에 날너온 전항공정(全航空程)이 일만일천일백키로로 (즉 칠천백마일이니까 조선리수로 치면 사만리에 달하여 실로 조선삼천리를 열씨번 왔다 갔다한 세움이 된다.

실로 이와 가치 「에스키모-」가 사는 북극양 상공을 날너 이 어려운 항공을 정복한 력사는 천구백이십년 아메리카 육군(陸軍)의 세비행기가 군함 여러척의 원조를 받아 겨우 날려온 이래 처음보는 장거이다.

대통령보다 더 인기잇서

미국 아히들에게 「네가 무에되고 십흐냐?」하고 무르면 「나는 린드·버크가 되고십소」라고

한다는 말과 갖치 실로 이천고에 뛰어난 청년비향가는 지금은 「후-버」대통령(大統領)을 내리 누를만치 인기의 절정에 있다. 그는 금년의 태평양비향을 결행하기전에 또한 태서양도 수물다섯나든 백면서생때의 몸으로 정복하고만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린드. 버-크」는 엇더한 청년이든가?

그는 장차 대통령의 사위가 될는지 모른다. 엇재서? 그의 안해 「안녀사」로 말하면 이 다음 공화당 대통령후보(共和黨大統領候補)로 지명되어 나을 상원외교계거성(上院外交界巨星) 「모로-」씨의 둘째딸인 까닭이다. 그러나 「린드. 버-크」에게는<58> 그런 것은 초개만도 못한 사실이다. 그는 실로 모든 명예와 황금을 바라지 않는 놀라운 인격자이다. 그는 친구백이년에 미국가주 「테도로이드」시에서 낫스니 금년이 스물아홉 아버지는 대의사와 지사후보(知事候補)까지 된 정치가요 어머니는 코롬비아대학을 마친 리학사(理學士)였다. 이 어머니에 이 아들!

년전 태서양횡단때에 파리(巴里)에서 실로 물결듯한 열광적 환영을 맞고 개선장군과 가치 미국에 도라오자 대통령 「쿨-니지」는 라디오를 통하여 그의 출생을 말하고 그의 인격에 대하여

勇氣, 快活, 勤勉, 剛毅, 眞實, 謙遜, 明敏, 熱心, 實力

등 열일곱가지의 미덕(美德)을 드려 그를 찬양하였다. 실로 그에게는 감격할만한 아름다운 행위와 인격이 있다.

그의 감상담

일본에 처음 도착한 「린드. 버-크」는 신문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비행중에 각국에서 이러나는 뉴-스를 드를수 잇섯습니까?」

「잇고말고요. 무선전신으로 세계사정을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엇든때는 폭풍우때문에 잘 들니지 안는때도 잇드군요.」

「당신 비행기는 얼마나한 항공력(航空力)을 가지고 잇습니까.」

「보통때는 약 이천 「키로」 (즉 리).」

「미국과 동양각국사이에 정기항공로(定期航空路)를 개척할 수 업슬가요?」

「할수도 잇겠지요. 그러치만 나의 이번 비해은 아모 항공회사와도 관계업섯스니까요.」

「무착륙 태평양횡단비행(無着陸 太平洋橫斷飛行)은 할 수 잇섯습니까.」

「무착륙으로도 되겠지요만은 리상으로는 한번쯤 착륙하였다가 나는 것이 푸로페라의 속력도 더나서 조흔줄 아오.」

스물다섯살에 태서양을 정복하더니 이제 스물아홉살에 또한 태평양을 정복한 미국의 건아(健兒) 「린드. 버-크」의 압해 우리는 크게 고개숙이어 인류문명을 위하여 치하하고 아울러 동반도의 우리 청년들도 어서 과학을 배워 「하늘의 패자」 되사이다 그러.<59>

<58-59>

19.

잡지명: 삼천리 제4권 제1호

발행년월일: 1932년 01월 01일

기사제목: 1932年の 英雄的 建設事業인 『半島突進隊』運動

필자:

기사형태: 논설

1932年の 英雄的 建設事業인 『半島突進隊』運動

丁抹에 비하여 조선의 농업은 약 50년을 뒤졌고 英國에 비하여 조선의 산업은 100년을 뒤졌고 獨逸에 비하여 조선의 교육은 수 세기를 뒤진 것이 사실이고 기타 정치, 문화 등 각 부문이 전부 뒤떨어져서 잇는 것이 萬人 所視하는 바와 같다. 그러면서 선진제국을 따라가는 조선의 템포는 여전히 완만하다. 그러기에 엇딴게 하여서든지 우리는 강대한 영웅적 노력과 矢石가튼 連力으로 그를 따라가고 마춤내는 그를 凌駕하여야 하겠다.

이리함에는 그리 할 만한 諸생산관계와 정치적 지반 등 선행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줄 안다. 그러나 그것만 念하고 잇을 때가 아니다. 우리들은 가능한 諸조건의 이용과 가장 효과적인 조직을 통하여 정예분자의 총동원에서 가능한 최대한도의 그 성공을 기어히 獲取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절대 필요한 일이고, 한시라도 유예하면 안될 일이다.

이리함에는 최전선에 우수한 모범적인 지도형태가 잇서 그가 先發隊 격이 되어 不絶히 각층에 작용을 이끄는 데서 전반의 성공을 어더야 할 것이다.

그는 첫째 노동규율의 합리와 생산방법의 합리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그 방면의 지도자를 介하여 爲先 공동경영농장, 공동경영공장과 또 교육방면의 案을 작성하기로 하고 그를 명명하여 『半島突進隊』라 하였다. 이 영웅적 사업에 의식분자는 참가하여 1932년의 반도를 약진의 반도로 꾸미기로 맹세하자.

압력으로 보건, 연극, 문예운동의 각 부문에도 이 운동이 미치게 하겠거니와 금월호에 발표되는 이하 3개안에 대하여 사회 諸氏는 진지한 토의와 실행이 잇서지기를 바라노라.(파인)<50>

集團農場의 組織과 經營

李晟煥

집단농장이라 함은 종래에 내려오는 분산적 개인경영의 소규모 농업을 공동적 집단경영의 대규모 농업으로 고치는 것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다. 요컨대 분산적 소규모의 경영과 집단적 대규모의 경영, 그 어느 것이 생산액을 만케 하며 더욱 상품부문을 만케하는 경제방면으로 본 이해관계와 또 그 어느 것이 빈소농의 생활을 향상하고 농촌의 상층계급을 극복할 수 잇느냐 하는 사회적 방면으로 본 우열관계에서 문제는 출발되게 되는 것이다.

이해타산에 잇서서 분산적 개인경영의 소규모 농업보다는 집단적 공동경영의 대규모 농업 그것이 훨씬 우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함은 外方 某國의 골호스 성적에 의하여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잇는 일이다. 그리고 이 집단농장의 발전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농업의 사회주의화의 途程에 잇서서 세계 識者의 주목을 끌고 잇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처지에 잇서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문제는 스사로 동일규범의 해답을 엿지 못할 것을 본다. 그것은 그보다도 먼저 조직경제제도가 안인 자유경제제도 밋해서 입안조차 가능하나 불가능하나가 중대하게 문제되는 까닭이다.

웨 그러냐 하면 집단농장의 경우에 잇서서는 그 경영상 필요불가결한 다섯가지 요소가 잇스니

1. 廣大면적의 경지를 要하는 것.
2. 대규모의 動力機械를 要하는 것.
3. 최신과학을 이용할 수 잇는 電力을 要하는 것.
4. 화학제조에 의한 비료를 要하는 것.
5. 비교적 宏大한 건축물을 要하는 것.

이상 다섯 가지는 업지 못할 필요조건이면서 이것은 국가적 대투자, 국가적 대시설이 업시는 결코 가능한 종류의 일이 안이다. 더구나 집단농장경영의 필요가 물자를 가지지 못한 빈소농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할 것에 잇다고 하면 아모 것도 못가진 그들의 힘으로서 엿지 이상의 조건을 가출 수가 잇을 것이라. 뿐만 안이라 국가가 비록 투자와 시설을 하자고 하드라도 1,2집단농장만에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그 亦 용이한 일이 안일 것이다. 그럼으로 이와 가튼 사업은<51> 국가적 내지 사회적 조직경제의 통제 하에서, 각 산업부문의 유기적 연쇄 하에서 뿐 가능할 일이라고 밋는다. 그러니까 現下 우리들의 처지로서는 집단농장경영을 생각하는 것 조차 일종의 유-토피아에서 지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장래에는 집단농장이 잇지 안느냐」 하는 제안 삼아 구차한 현실에서 라도 한구석의 시험이 필요치 안은 것도 아니다. 적어도

1. 협동적 勞作의 위력
2. 과학적 기술의 우월

이 두 가지만이라도 농민대중의 계몽을 위한 活교육이 되다면 이도 또한 가치 잇는 의도의 하나이 안될 수 업다. 이 의미에서 나는 三千里의 요구에 의하여 現下 조선에 잇서서도 힘쓰면 시험해 볼 수 잇는 집단농장계획안의 윤곽만을 초안하여 보기로 한다.

1. 集團農場의 組織은 엿더케 할가

집단농장은 10戶 이상 100戶까지를 小區로 하되 이 구역 내는 협동조합체로써 조직한다. 경지도 조합의 것이요, 기계농구도 조합의 것이요, 또 주택도 조합의 것이요, 작업장도 조합의 것이요, 생산물도 조합의 것이요, 판매처분도 조합이 하고 생활자료도 조합에서 공급한다. 부락 내에 政事—즉 행정, 재정, 교육, 위생도 모다 조합체 내의 집행기관에서 운전한다.

개인은 자연인이면서 조합원이 되고 조합은 전부락민의 가정이 된다. 마티 대가족주의와도 갖다. 이 구역 내의 조합원의 사회생활은 자치체에 의하여 영위되고 잇나니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남녀상하의 구별이 업시 평등하게 향유한다. 그러되 최고통제기관의 지도는 절대로 복종하는 윤리적 의무를 강조하게 된다. 이와 가튼 사회조직이기 때문에 이 부락을 이름하야 『協同村』이라고 한다.

2. 集團農場의 耕地準備은 엿더케 할가

농장인 限 토지는 절대조건이 된다. 그런데 토지가 국유화되지 못한 사회에서의 토지이용이란

돈 있는 사람 이외에는 지극히 곤란한 일이어늘 하물며 빈소농층으로서 되는 집단농장—더구나 일정한 연속된 광대한 지역의 경지를 요함이지요. 조선에서 집단농경영이 곤란한 점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기에서 부각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은 無邊曠野가 업슬 뿐 아니라 七塞八落하게 소구분된 경지가 殆히 일부 지주층에게 사유되어 있는 까닭으로 집단농장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경지의 획득은 진실로 難中之難事라고 안니 할 수 업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이 일을 하여보자고 하면 거기에는 多分の 역제와 무리가 잇지 안코는 안될 일이다. 이제 역제어 방법 두어가지를 세워 본다면

첫째는 國有未墾地와 貸付를 바더서 그것을 개간하여 점차 계획농장이 되게 하는 것이니 어데든지 國有未墾地가 광대하게 잇지 못한지라 부득이 특별지대의 선택이 아니면 안된다. 예컨대 咸北白頭山 下の 평원과 가튼 것일 것이다. 할 수만 잇다면 南北滿洲는 가장 조흔 지대일 것이다.

둘째로는 토지의 몰수 及 구입이니 이 경우의 몰수라 함은 엇더한 강제수단에 의하는 몰수가 아니라 재래 향촌에 흔히 잇는 각종 契有財産 혹은 門有財産 또 혹은 鄉有財産 등등에 속하는 일절 집단농장 구역 내의 토지를 각 조합원이 관계잇는 기관의 것이니 만치 조합원회의에 의하여 此를 조합의 소관으로 함은 결코 비합법도 안일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의 구입은 집단부락구역 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는 다른 조합원들이 물질적 내지 노력적 투자의 범위에 해당할 만한 토지는 此를 조합에 제공하고 그 범위 외의 것은 年賦償還制에 의하여 조합이 구입하기로 하고 그리고 집단부락 내에 거주치 안는 소위 不在地主의 소유토지는 이 亦 동일한 구입의 수속을 밟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잇서서 年賦償還方法은 如何한 계산으로 하느냐 하는<52> 것이 문제되나니 이것은 적어도 20개년 이상의 年賦償還으로 하되 地代—즉 토지자본의 이윤에 해당한 것은 집단농장 되기 전의 反當 수확의 10분지 4를 매년 현물로써 未償還부분만치 지불하여 가기로 한다.

예컨대 조합이 조합원투자에 의한 것 외에 지주로부터 구입치 아니면 안될 경지가 면적으로 20町步, 현지가로 6천원을 요하는 것이 잇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20개년 年賦로 상환하라면 조합은 매년 지가의 원금으로 3백원을 지불하고 그 외에 다시 地代로 제1년은 20町步의 20분지 19에 해당한 것을 토지구입 전 反當수확의 10분지 4의 현장을 주게 되고 제2년은 20분지 18, 제3년은 20분지 17 이와 가치하여 조합은 조합의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게 되고 20개년 만에는 완전히 조합의 소유로 도라가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문제되는 것은 (1) 이와 갓치 조합으로서는 매년 노력의 대부분의 결과를 토지구입조를 지불하는 불리가 잇슴에도 불구하고 頑強淸포한 지주들이 과연 이상과 갓튼 조건 하에서 손쉽게 토지를 내노할 것이냐 하는 것이요 (2) 집단농장의 생산고가 經理 상으로 수지가 마줄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 경우에 잇서서는 그것이 몰수거나 구입이거나를 물론하고

1. 封建父老와 頑冥한 지주를 극복할 수 잇는 강력적 조합의 조직력과 이론 及 수완가인 지도자를 가질 것.
2. 집단농장경영 前의 그 농장면적의 총생산고 내지 전부락 인구의 총수입고에 비하여 집단농장경비 후의 수입이 확실히 배 이상일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 협동적 노력과 과학적 기술에 의하여 상환방법에 차이는 다소 잇지만 全南 咸平郡 鶴橋面 下の 東拓所有住宅地 買戾組合, 日本 滋賀縣 下の 산업조합의 경지구입조합, 定州郡 西面 下에서 계획 중인 농민학교의 농장경영지 갓튼 것은 이와 갓튼 방식에 갓가운 실례이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조합본질이 다르지만 이와 갓튼 형식을 쓴 예가 상당히 만다.

3. 集團農場의 耕地整理와 農園配置

첫째 경지정리는 그 집단농장이 신개척을 요하는 지대일진대 새로 나무를 버히고 나무뿌리를 들추어 파내고 바위를 깎트리고 큰돌을 주어내는 등 정리가 수개년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안이한 기성경작지를 가지고 집단농장으로 계획하는 경우에 잇서서는 그 경지정리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재래에 수십 내지 수백인의 分으로 분열되었든 수백 수천의 토지등수를 농장구역 내는 전혀 一筆로 만드려 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迂曲한 淤人들을 직선으로 내고, 꼴불떨떨하고 다닥다닥하든 논드렁과 밭각담을 전폐하여 평면으로 만들고 여기저기 분산해 잇든 可用空地가 可用耕地로 이용되는 면적이 훨씬 증가된다. 다음에 灌溉의 편불편과 지세의 고하를 따라 전답의 구분을 짓고 수로와 농용도로의 선을 확정하고 住屋과 축사와 작업용의 지면을 한편으로 모라부친 그 다음 둘째로 농원의 배치이니 이것도 南鮮인 경우와 北鮮인 경우를 따라서 배치가 다르고 가튼 지대이면서도 평야인 경우와 경사지인 경우를 따라서 다를 것이다. 가령 중부조선의 非山非野한 지대에서 약 100町步의 집단농장을 경영한다고 하고 그 농장의 배치를 다음과 가지 한다면 한 표준이 될 것이다.

1. 畚 50町步
2. 田 30町步
3. 果樹園 10町步
4. 桑 園 5町步

5. 敷地 及 道路, 水路 5町步

이것을 다시 이용, 종류별로 제1구, 제2구 등 細小한 배치가 잇서서 농업과 공업과의 연락, 농촌과 도시와의 연락, 집단부락민의 노소남녀의 노동의 분배 등을 고려하여 적당하게 구분하고 배치할 것이다.(결론은 次號에)<53>

集團「工場」組織案

陳榮喆

요사이 돌격대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자자하게 들린다. 그리고 이 돌격대란 말은 그것이 쏘베트동맹에서 생긴 조직이며 일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돌격대라는 言辭를 사용하려고 하는 듯이 보인다. 원래 돌격대라는 것은 노동자농민의 X국인 쏘베트동맹에서 192—8, 1929년의 경제년도부터 시작된다. 생산확장의 경제 5개년계획의 진행과정에서 생긴 조직이다. 쏘베트동맹에서 처음 이 5개년계획안을 수립하였을 때에 전세계의 자본가들과 御用학자들은 「무지막지한 要毒한 빨씨뽀키」들의 우매한 대계획을 조소하였던 것이다. 당시 었던 빨루쵸아 잡지는 이와 가티 평하였다.

『백년의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그래도 경탄할 일인데, 5개년간에 이런 대계획을 수행하려고 하는 쏘베트의 푸로레타리아도 푸로레타리아며 黨도 었더케 된 듯 하다』고 「빨씨뽀키의 狂狗的 계획」을 誚笑하며 욕한 것이었다. 그러나 쏘베트동맹의 사회주의적 건설의 가치를 이해하고 세계의 노동자계급의 XX에 대하여 5개년 경제계획의 달성이 얼마나 중요한 계급적의의를 가지고 잇는가를 잘 이해하는 노동자농민대중은 그 계획을 자기들의 몸으로써 지지

하야 그 성공을 위하여 절대의 노력을 앗기지 안은 것이다. 그리고 쏘벳트의 노동자와 일반 근로대중은 자발적으로 분기하야 이 역사적 의의를 가진 경제계획의 급속한 실현을 엇고자 여러 가지 공장에서 혹은 집단에서 여기에 대한 자기비판을 하는 동시에 능률의 완전한 증진을 위하여 만흔 방법을 발안하였스니 여기에 말하려고 하는 돌격대, 즉 우다-르니키도 기중의 하나인 것이다.

엇던 공장이나 직장을 물론하고 그속에서 孩心的 분자가 되는 XXX원이나 혹은 XX청년은 아니지만 활발한 계급적 의식을 가지고 건설사업에 종사하여오는 다대한 대중이 있다. 이런 무리들이 爲先 노동의 규율을 엄수할 것, 될 수 잇는 데 까지 생산기술을 향상식힐 것, 생산품의 원가를 인하하기 위한 연구 등에 대하여 술선하야 시작한 것이다. 이와가티 광범한 근로대중의 창의에 의하여 생긴 노동의 사회주의적 방법 즉 사회주의경쟁(쏘치쏘레우노와-니에)의 발전에 應하야 필연적으로 생긴 5개년계획 수행의 가장 중심적 대중조직형태인 돌격대(브다르나야 뿌리카-다)는 콤포돌격대, 집단경영돌격대, 관통돌격대, 합리화돌격대 그 외형의 상위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리고 이 우라-르니키는 생산부문에만 잇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조직 속에도 잇는 것이다. 1930년 파중기에는 莫斯科를 중심으로 각 지방에 선전열차를 운전하야 극장에서의 돌격대, 영화에서의 돌격대, 푸로작가단의 돌격대, 신문기자 등도 이에 참가하야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시시각각으로 집단화하여가는 농촌에 신문을 실어가며 동시에 새로운 농촌의 생활상태 등을 예술의 소재로써 발견하여 온 것이다.<54>

지금 쏘벳트의 푸로작가동맹에서는 「돌격대를 문학에 동원하라!」고 부르짖으며 莫斯科와 레-닌그라-드에서는 가두에 돌격군 차가 통하고 돌격자동차가 질주하며 캄차카의 漁場에서는 漁撈하는 쏘벳트노동자의 사이에도 이 돌격대적 방법은 예외업시 채용되어 잇고 심지어 아해들의 유희에까지도 이것이 반영되야 쏘벳트는 지금 우다-르니키의 열로써 소진되고 잇다고 한다. 이와 가티 열성잇는 쏘벳트노동자들의 돌격노동은 (1행 략-원문) 성공을 하였다. 쏘생산의 양과 질은 현저히 향상하였스며 생산원가는 저하되엿고 모든 노동은 엄격한 규율적 행동으로써만 진행되고 있다.

一組織을 낫는다

쏘벳트노동자들은 그 의의 깊은 5개년계획을 진전하기 위하여 우다-르니키를 조직하였다. 노동운동이 발생하던 초기에는 금일에 우리가 보는 것 가튼 산업별적 노동조합을 보지 못하였스며 노동자나 빈농은 자기의 黨을 가지지 못하였섯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6행 략-원문)

조선에서도 노동자들의 힘이 약하고 경험이 적은 초기에는 노동자나 농민은 매우 유치한 XX 형태와 조직 받게 가지지 못하였섯던 것이었다. 그러나 (4행 략-원문) 각종각양의 조직형태는 생기게 된 것이다. (2행 략-원문)

왕년의 釜山과 京城에 잇서서의 양화직공들의 동맹파업이 이러났을 때에 노동자들은 자본가단의 도X적 태도와 XX의 비인간적 XX 까닭에 매우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되엿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難X苦鬪하면서도 최후의 승리를 엇기 위하여 각양의 수단을 취하였스니 그 쟁의가 지구 전에 드러가게 되자 양식의 부족을 늦기는 파업단에서는 一便 쟁의의 교섭을 계속하면서 一便으로는 그 파업 중의 식량을 엇고져 생산협동조합적 조직을 가지고 (1행 략-원문) 쟁의를 계속하였다. 양화직공 자신이 (10자 략-원문) 성의 잇게 맨드는 「구두」는 자본가들의 양화점의 (략-원문) 상품에 비하야 너머도 그 품질의 차이가 심하였스며 그 가격에도 차이가 심한 것이다. 파업중의 노동자들은 맞치 (략-원문) 열성 잇는 태도로써 자기네의 생산

을 지속하였다. 노동을 규율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생산품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려고도 노력하였고 생산품의 원가를 인하하려고 절대의 노력을 다 하였었다. 그리하여 파업이 해결된 후에도 노동자들은 자기의 「마치」로써 노동자를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一方 자본가단에 X對해야 온 것이다.

이와가튼 일은 조선에만 잇는 것이 아니라 日本에서도 다수한 실례를 볼 수 잇는 것이다. 東京에서 博文館 인쇄공장의 수천 노동자가 파업하였을 때에도 노동자들은 前記와 同様の 수단을 취하였으며 그 후에 博文館 자본가들이 XX的 노동자들을 馘首하였을 때—파업 당시의 주동분자라고 인정한—실업한 노동자들은 즉시로 「인쇄공동조합」을 조직하여 자본가단에 XX하며 對무산계급적 출판물을 청부하여 인쇄하며 좌익적 출판을 옹호하여 온 것이다. 이 인쇄공동조합은 지금도 계속하여 있다. 그러나 여기에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4행 락-원문) 더욱이나 자본주의사회의 생산협동조합적 조직은 그것이 소자본가적이란 점을 우리는 심심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파업 중에 임시적으로 할 수 업시 조직된 즉 파업의 승리를 위하여 생긴 생산조합이 소자본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파업 후에도 지속되야 그 경영과 생산을 하는 때에는 그것은 노동자적 대중적 조직을 떠나서 소자본가적 조직이 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前者 즉 파업 중에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며 그 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XX을 직접으로 승리에 인도하는 한 가지 큰 수단도 될지언정 후자는 결코 萬者와 그 성질을 가지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국가 내의 각 공장에서 노동자들이—계급적 의식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직공장이나 감독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하여<55>

教育突進隊, 理想的 高等學校의 組織案

주요점

(필자: 로써 한마디—교육의 근본문제를 논하려면 초등교육에서부터 논하지 아를 수 업다. 그러나 편집자의 주문이 중등교육안이니까 부득불 허리 잘린 감을 느끼면서도 중등교육 理想案을 하나 꿈이여 보기로 한다. 기한이 너무 바름으로 오래 생각할 겨를이 업어서 붓을 들고 안자 생각나는대로 적으려 한다. 물론 모순되는 것과 불철저한 점이 생길 줄 각오하나 그것은 후일 한가한 때 교정하기로 하고 爲先 이것으로 책임막이를 하는 수 받게 업다)

교명 유토피아高等普通學校

위치 시외(도시중심지대에서 10리 이외 20리 이내)

生徒수용량 천명 이상

건물 천명 수용할 기숙사설비와 오백명을 일시에 수용할 교실 及 운동장 설비. 실습실 몇 개 학제 6년제로 초급 3년, 고등 3년, 대학 豫科로 2년 증설. 연중 무휴로 半工半學制

입학시험 1.보통학교성적 2.지능측정성적 3.상식시험성적 4.건강진단서 5.성질과 근면에 대한 보통학교 훈도의 의견서와 학부형의 의견서.

이상 각종을 종합하여 보아서 일정한 수준 이상에 올라오는 소년들을 입격시킬 터이다.

개학이 되면 생도 전체를 기숙사에 유숙시키고 전생도를 반분하여 오전조와 오후조로 분별하겠다. 각반을 통하여 오전조는 오전 중에는 학과를 배우고 오후에는 실습과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겠고, 오후조는 또 그 정반대로 시간배당을 한다. 그래서 오백명은 오전에 공부하고 오백명은 오후에 공부하고 반일은 직업에 종사하여 자립하도록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학교와 연락을 취하는 농장, 공장, 상점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 농장, 공장 또는 상점에서 각기 일정한 생도를 고용해주되 오전에는 오후조를, 또 오후에는 오전조를 이렇게 역박구어 고용해주는 약속이 있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雇主 측에서는 다른 雇人을 쓰는 것과 별로 다른 것이 업으되 오직 생도 2인으로써 성인직공 1인의 일을 하도록 되어질 것이다. 곳 한가지 일을 오전에는 甲생도가 하고 오후에는 乙생도가 하게 될 것이다.

학교로써는 물론 오전조나 오후조나 교수 내용이 꼭 가틀 것이다. 곳 꼭 가튼 과목을 甲학생은 오후에 배우게 되고 乙학생은 오전에 배우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오전에 공부하는 학생은 오후에 실직에 종사하고 오전에 실직에 종사하는<56> 생도는 오후에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예외로 할 것은 입학한 후 1년 동안은 생도들으로써 실직에 종사하게 하지 안코 학교에서 실습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유토피아고등보통학교는 自作自給的인 동시에 직업교육과 상식교육을 겸한 것임을 아랏슬 것이다.

상식교육으로는 물론 국어, 산술, 지리, 역사 등 초보지식은 물론이고 상식적으로 천문, 지질, 생물, 물리, 화학의 초보를 배와주겟고 음악, 회화, 댄스 등의 예술도 음미할 수 잇도록 교양할 것이다.

직업교육은 각기 지원하는 직업대로 결정지어 그 이론 及 학술적 방면은 교실에서 또 그 기술은 실습실에서 배와가지고 실직에서 숙련시키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는 직업을 결정하는 일이다.

1개인의 일생 生業이 될 직업을 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직업선이 국한된 조선에 잇서서 또는 12,3세 되는 청소년 때에 직업을 결정한다는 일은 만흔 연구를 싸흘 일이다. 그럼으로 직업교육의 전제로는 두 가지 큰 요건이 잇스니 첫째 적당한 직업선택지도 及 此에 반하는 교육지도를 필요로 하고, 둘째 직업실습과의 완전한 설비를 필요로 한다.

직업지도 及 교육지도에 대해서는 拙著「朝鮮教育의 缺陷」종말편에서 간단히 논한 바가 잇는데 대체로 그와 가튼 프로그램을 세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 직업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의미보다 조금 별다른 뜻을 포함한다. 물론 직업실습은 개학일부터 신입생 전부에게 강요할 것이다.(물론 구입생들은 각기 所職이 잇스니까 강요여부가 업슬 것이다) 그러나 생도 전체에게 한가지 業을 실습시킬 것이 아니다. 쏜신입생을 조직적으로 등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을 다 실습시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가령 유토피아고등보통학교에 실습과로 농업, 목공업, 자동차공업, 사진업, 상업, 인쇄업 등 6개 실이 잇다고 하면 신입생 전체를 6등분 해 가지고 매조가 2개월간 식 1업을 시험해보고 순차로 他業을 시험해보도록 하면 1년말에 가서는 每생도는 이상 6개업을 다 조금씩 손대보앗슴으로 각자가 어느 一業에 가장 취미를 늦기며 또는 재조가 잇는가가 판명될 것이다. 그러면 이 결과를 근거로 해가지고 교육원, 직업지도원이 그 생도 및 학부형과 상의한 후 그 생도의 직업을 결정하고 따라서 제2호부터는 半日은 공부하고 半日은 이 결정된 직업에 취직토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半日 공부하는 때에는 계속적으로 상식 及 문화교육을 바들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특수하게 자기가 진출하는 직업방면의 전문적 학술을 學得하도록 될 것이다.

과외활동 이상에서 말했든 것처럼 생도 전체는 기숙사생활을 할 것인데 이 기숙사야말로 일개의 상호부조하며 자립자치하는 사회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 생활을 빠르게 진전시키는 동시에 생도들에게 상호부조와 공공생활의 도덕을 훈련하기 위하여는 제반의 시설이 업슬 수 업다.

첫째로 학생자치회의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아직 경험이 업느니만치 상당한 감시와 지도가 필요하겠으나 시일이 경과함을 따라 아주 생도들에게 내맞기어도 무방하게 될 것이다.

학생자치회 안에는 대략 아래와 가튼 몇 부가 소용되겠고 또 訓育上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집행부, 입법부, 사법부 3부를 기초로 할 터이고 그 미테 식당부, 영업부, 경찰부, 재판부, 출판부, 社論部, 연극부, 사교부 등등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업스리만큼 만흔 部系로 分하여 분업적 합작을 영위하게 될 것이니 곧 학교는 일종의 自治市 모양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은행, 우편소, 보험회사, 각종 구락부 등이 잇서서 생도들로 하여곰 此를 관리운전하게 하여 교육적 及 실질적 효과를 내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에는 각종 연구실을 두어서 생도들로 하여곰<57> 마음대로 연구하게 하되 특히 농사개량에 관한 연구재료를 충분히 공급하며 때를 따라 각종 전람회 또는 품평회를 개최하여 실질적 개량의 실천을 보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생도형편에 따라 초급 3년만 마치고 나갈 사람도 잇겠고, 고급까지 6년을 마치고 나갈 사람도 잇슬 터인데 그것은 학부형과 학교당국자가 상의하여 결정을 지을 것이다.

공부하는 성적은 생도들에게는 알릴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만 비밀히 보관해 둘 것인데 학력뿐 아니라 每생도에 관한 취미, 노력, 성질, 特長, 단점 등을 간략히 표시하는 기록을 만드려 두고 재학시나 또는 졸업 후까지 그것을 참고하여 지도에 노력할 것이다.

재질과 지능에 따라 학습기간에 다소 伸縮을 許할지니 천재는 6년과를 5년에 끝낼 수도 잇고 좀 더딘 사람은 7년 쯤에 끝내도록 편의를 보아줄 것이다. 졸업한 후에는 학교에서 每졸업생의 취직을 보살피주고 취직 후에도 계속적으로 조사감독하여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행하도록 고취하는 동시에 그들의 성공원인 또 혹은 실패원인을 잘 연구조사하여 압흐로 교육에 개량을 加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 것이다.

졸업생 중에서 특히 뛰어난 청년 수십명을 선발하여 大學豫科에서 계속 공부하게 하되 역시 半工制로 하여 자립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대학공부는 생도의 實程度 여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재질정도와 건강정도로써만 결정될 것이다.

밤에는 교실을 성인교육으로 이용할지니 爲先 문맹퇴치책인 간이야학을 열고 재학생들로 하여곰 분담하여 가르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여력이 잇스면 성인문화교육 及 직업교육까지 실시할 것이다.

너무 범박하게 된 느낌이 있다. 그러나 그러케 될 수 밧게 업다. 대강 우에서 쓴 범위를 가지고 그 기초 우에 원갓 세칙을 짜노호면 별로 손색이 업는 학교가 되여질 줄로 밧는다. 더욱이 교육이라는 것이 잘 되려면 근본원리만 세워 두고는 그 우에 실행세목은 당시 경험과 필요에 응하여 수시 결정하고 또 부단히 개선해 나아가지 아느면 아니 될 것이다. 이 의미에 잇서서 대체로나마 유토피아고등보통학교의 윤곽만은 그려진 줄로 생각한다. 오직 교육실무자 諸氏의 비판이 잇기를 바란다.(1931.12.9)<58>

西伯利亞의 朝鮮人集團農場, 「新世界」를 보고 와서

빼.사하로푸 記

우리 일행을 실은 조그만한 뽀-트는 바람에 식달니는 창랑을 헤치며 흐르는 물길을 조차 신쩐 스크호변으로만 그의 코쓰를 재촉하였다.

그곳은 하바롭스크로부터 150키로메터의 거리가 있는 지점이며 바로 그 호수 沿邊에 우리가 차자가는 『노-비미-르,(新世界)』이라는 집단농장이 있는 것이다.

농장의 주위는 오죽 鬱鬱蒼蒼한 밀림이 하늘을 뒤덮어 일광을 가리우고 (인적조차 드물게 보였다. 겨우 그 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산간의 小 경로도 자연 성장에 맞겨바린 무성한 靑草 속에 그의 자취를 감추고 말며 몇 세기를 지나친 대삼림 우호로 웃둑웃둑 머리를 내여밀고 있는 대소의 山岳群은 마치 洋上에 點在한 수 업는 『섬』들을 방불케 한다. 그리고 奇岩層出한 狹窄한 山頂은 일흠도 모를 맹금수의 사나운 동물들이 그의 들업는 隱家를 일우고 있다. 이갓흔 거즈른 지대, 음울한 삼림나라에 그들—쉬이지 안코 실향하지 안는 부즈런한 조선인의 一群 이주민들은 한 개 조그마한 집단농장을 건설하였다. 그들은 최초 沿海州로부터 아무—르 밀림지방에 이주하였던 것이며 이른바 『新世界』가 처음 발생하기는 지난 1928년 5월이었다.

그당시 하바롭스크 이주지에 7가족의 조선인이 다른 지방으로부터 모혀왔으며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일정한 계획과 조직을 가진 행동 밋해서 또다시 더욱 적당한 이주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몇사람 위원을 선정하여 가지고 알히린스크, 굴달가 등의 諸지방에 대한 實地 檢分을 맞치고 그 결과 맞참내는 신짚스크호변에 가장 이상적이랄 조선인경영의 유일한 집단농장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집단농장이 오늘의 존재를 가질 수 잇기까지에는 실로 눈물겨운 種種 相의 에 피소트가 그들의 생활사를 물드리고 있다.

이주의 첫날 신대지 개척의 첫새벽 그들 일곱 사람의 조선인들은 조그만한 小舟에 몸을 실고 호수를 향하여 자못 용감한 발길을 내여드르었다. 그들의 수중에는 오죽 몇가지 종자와 그에 필수한 약간의 農具만이 쥐어잇슬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개척하려는 호수에 밀착한 접근지는 千古斧鉞이 자취를 감춘 대삼림이 직면한 곳으로 오죽 『죽업』 갓흔 정적만이 그의 全圖을 지배할 뿐이었스며 그 어느 곳으로 귀를 귀우려 볼지라도 다만 一寸話의 人聲이라도 청취할 길이 바이 업섰다. 일흠모를 관목들의 커다런 지엽들은 머리 우를 천정가치 집웅하여 따듯한 일광을 文字가치 密塞하여 바리고 5년, 10년 전에 제대로 天壽를 마치고 스러잡바진 腐木 우에는<59> 毒葺靑苔 등이 뒤덮여 푸른 꽃, 괴이한 냄새가 더욱 酸鼻한 기분을 농후케 하였다. 그나 그뿐이라. 이곳저곳 굽어진 땅속 腐水가 고여 잇는 곳은 말만 드려도 몸서리가 칠 만한 大小無數의 파충류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잇섰다.

인간의 발자취 소리에 놀넨 그들은 불길한 울음소래를 發하면서 한숨을 쉰다.

색기를 시작한 나무줄기에는 다람쥐가 무리하게 등어리를 굽흐리고 왔다갔다 한다.

제1일의 조선인들은 유쾌하지 못했다. 밀림은 그들에게 불쾌함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였섰다. 그들은 호수—관목이 무성한 곳에서 좀 떠러진 곳에 천막을 처섯는데 밤이면 그곳에 도라왔섰다. 밤중에 그들은 잠도 못자고 삼림으로 전해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새들이 우는 소리, 섬가—에서 우는 갈매이 소리, 산곡에서 흐르는 잠잠한 물소리—어느것이나 그들에게 신비한 감을 던져주었다.

밤이 밝으면 그들은 활기있게 일을 시작하였다. 무엇보담 먼저 파종할 만한 토지를 선택하려고 했다. 그들은 狹—트를 타고 호수의 연안을 도라단였다만은 그들에게 파종할 만한 처소가 보이지를 안었다. 장소가 잇다면 그곳은 오랜 시일을 허비하지 안으면 안될 만한 삼림이 密立

한 곳이었다.

섬나라 토지는 우수하고 관목림을 개발하기에도 비교적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모험사업이 었었다. 대조수 때에는 전혀 섬은 수중에 침몰하게 되어서 파종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姿跡도 업시 된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 안코 실행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그해에는 호수도 업시 파종은 잘 되어었다. 전답의 일이 끈넋슴으로 집단농장원은 또다시 대륙으로 옮겼스니 그것은 住家用과 사업하기 위한 小屋을 지을 준비가 필요했기 때 문이다.

얼마 안되는 땅을 개발하기에도 못상한 힘이 들었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서 그들의 주택과 소 옥이 완성되었었다. 그들은 한 주택을 다- 갖치 시작해서 일을 쫓맛치고 또다른 주택으로 옮 기곤 했다.

同年 8월에 집단농장원이 다- 몰녀왔다. 그래서 계집애들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포도와 호도를 따고 젊은 여인들은 낙시와 그물을 가지고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었었다.

집단농장은 새로운 토지를 점차 획득하였었다. 음울하였든 삼림은 업서저가고 악취를 품든 괴 인 물은 말너지고 해볏도 잘 쬔여었다.

배암과 이상한 금수들은 의외에 침입자들에게 쫓겨서 깊은 山谷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3년 후에 훌륭한 가옥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얼마 안되어 그들의 이상대로 훌 른한 가옥을 건설하게 되었스니 摩天閣과 갖흔 건물이었고 그 속에는 구락부까지 잇게 되었 다. 구락부엔 벌서 문맹자의 연구회가 열니고 청년조선인크립은 壁신문까지 만들어내었었다.

집단농장은 농업기계가 충실하였다. 었던 농업기수의 의견에 의하면 그곳은 白米作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었스나 그들은 내년부터는 집단농장원들이 전부 白米로 먹을만하게 하겠다고 말하 였다.

「新世界」의 자랑할만한 것은 30마력의 트랙타-「인터나쇼날」이었었다. 그것이 나무로 짠 床 우에 노혀잇는 모양은 臺座에 타고 잇는 청동조각 갖혀었다.

집단농장의 일의 기초적 부분은 섬(島)의 일이어었다. 트랙타-는 크다란 긴 뽕트로 호수를 건 너었었다. 그들은 트랙타의 가치를 잘 알었스며 자기들에게 업지 못할 물건이라는 것을 인식하 는 동시에 자기들의 충실한 보조자를 주의해서 직했다.<60>

그들은 切株 제거의 문제를 협의하였다. 지방의 농사전문가는 아직 새로운 切株를 소량의 초 석을 투입하는 것이었다.—그러면 其 초석은 전부 뿌리에 흡수하여서 나무의 腐朽를 돕고 1년 후에는 切株가 건초분으로 변한다고—말했다.

이 방법은 아직 조선인들이 시험해 보지 안었지만 그 방법이 조흘 듯 하다는 것이었다.

날이 임이 저뜨러가고 하늘에 별들이 뵤작일 때 쯤에 뒤산 밋해서 무슨 소리가 들녀온니 그것 은 正敎信者의 기도소리를 회상식했다.

조선인들은 아직 건설 중인 집단회관 근처에 모혀서 회의를 한다.

우리들이 갖섯을 때엔 벌서 會集하여었다. 나무기름으로 켜노은 등불은 개회를 선언하는 張씨 의 얼굴을 빛최여 주었다. 청중은 땅에 안졌다. 노인들은 긴 수염을 내려쓰스면서 기-니 담배 八대를 물고 tit쓰 등을 짜고 안저었스며 여자들은 무릅을 맞치고 안저 잇섯고 젊은이들은 눕 혼 곳에 올라 안저었다. 농장원들에게는 싸베-트와 외국에 잇는 조선인들에게서 만흔 편지가 와었다. 그들이 모힘도 모혀드는 편지를 었더케 의논 처리할여는 까답이다.

농장원 중 한사람이 편지 읽는 것을 드르니 우서야 조홀넌지 성내야 조홀지 물을 질문까지 잊었다. 그 편지 내용엔 이러한 문구가 써여 이었다.

「너희들의 자손은 다- 죽었다는데 그것이 불량한 음료수의 관계라고 하니 정말이냐? 밀립 지방엔 조흔 물이 업느냐?」 다 읽기를 끝맞치니 청중은 웃는다.

張씨는 이러한 편지를 쓴 사람들을 상상했다. 계급이 敵은 만전을 다-해서 조선인 근로대중의 결합을 저해한다. 敵들은 집단농장의 불행될 만한 거짓말만 유포식히고 밀립지방의 식민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엇더한 수단이든지 쓴다.

그들은 독이 가득 찬 虛言을 꿈며서 집단농장에 가입하려고 오는 조선인들을 싸고 돈다. 그들이 장래의 共營農場員을 위협하는 수단이 그뿐이 아닐 것이다. 법도 이용할 것이고 飢餓도 이용할 것이며 不用한 폭력도 이용할 것이다.

張씨는 이전에 받았든 편지의 몇 통을 포켓트에서 꺼내여서 읽었다.

「우리들은 諸君에게 대해서 유감의 의를 표한다. 들은 즉 諸君이 사는 곳은 먹을 것도 업다구. 그리고 최후에 남은 가축까지 범에게 먹혀버렸다데」 집회는 하바롭스크에서 발행하는 조선신문 「前衛」를 통해서 이상의 편지 등을 폭로하게 되었다. 원고를 쓰기는 천재시인 박씨에게 부탁하였다.

집단농장의 樽工場—장방형의 밝은 건물—은 토밤에 못처서 멀니서 보면 눈에 싸흔 것 갓치 보였다.

공장 압페에는 機械鋸가 활동 중이었다. 鋸는 무서웁게 회전하였다. 樽工場의 일체 행복은 이 鋸에 걸니고 잊었다.

우리들의 안내자이며 집단농장의 젊은 활동가인 朴씨는 공장과 그 압페에 씨힌 丸木의 산과 機械鋸와 新樽의 바리케-드 등을 안내하여준다. 朴씨의 갈색 얼굴은 감격에 넘치는 표정이었다.<61>

<50-61>

20.

잡지명: 삼천리 제6권 제11호

발행년월일: 1934년 11월 01일

기사제목: 英雄論

필자: 元世勳 원세훈

기사형태: 논설

英雄論 (영웅론)

元世勳

傳하는 말에 依하면 聖人이라야 聖人을 안다고 하였다. 그러면 英雄이라 能히 英雄을 알 것이다. 그러나 貧者의 反面이 富者이고 常漢의 反面이 兩班임과 갓치 拙丈夫의 反面이 英雄

이라면 拙丈夫도 英雄을 能히 알 수가 있다. 曹操가 劉備에게 對하여 天下英雄을 論하다가 『天下의 英雄은 오즉 使君(劉備)과 操라』함은 英雄으로 英雄을 論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拙丈夫로 英雄을 論하는 것이다. 拙丈夫가 英雄을 論하는 것만치 論도 拙論이며 簡短하다. 英雄과 拙丈夫의 區別이 어데 있는가? 하면 나는 한마디로써 答하고저 한다. 『無所不爲하는 사람은 大概가 모다 英雄이오 有所不爲하는 사람은 大概가 拙丈夫이다』하는 한마디이다. 英雄이라는 말은 『잘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拙丈夫라는 말은 못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近來뿐만 아니라 往往 보고들이는 바에 依하면 잘난 사람들은 못하는 짓이 없고 못난 사람은 하지 아니하는 바가 있다. 共產主義者노릇도 하고 耶穌敎의 信者로 되며 正反對가 되는 甲에게도 同志가 되고 乙에게도 同志가 되어 到處에 信任을 받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잘난 사람이며 무엇이든지 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英雄이다. 그러나 拙丈夫의 種類는 한가지를 하기 爲하여 달은 한가지는 하지 아니하다가 못난 사람이 되고마는 것이다. <52>

어떤 분은 그러한 英雄들이 하는 바를 보고 政治家는 반듯이 變節하지 아니치 못한다고 論한 이가 있다. 그러나 그 論은 正鵠을 得하지 못한듯하다. 論者가 보기에 變節하는 듯하지만은 其實은 變節이 아니라 本來의 眞面目이 況惚燦爛한 故이다. 다시 말하면 變節이 아니라 無所不爲하는 英雄의 本色이다. 寡婦된지 數十年에 獨守空房하든 寡婦가 再嫁를 갖다면 毀節再嫁라 하겠지만 일홈만이 寡婦로 朝三暮四로 못男子와 交接하며 享樂하다가 終末에 그 어떤 一定한 男子와 正式으로 夫婦生活을 하노라고 宣言한다면 그 女子는 毀節 再嫁가 아니라. 暗娼의 生活에서 正式夫妻의 生活을 비로소 始作하는 것이다.

넷날 朝鮮時代에서 어떤 분이 여러 고을 원님노릇을 많이 하는데 아조 清白하야 民間의 돈 이라고는 한푼도 먹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愛民善治의 名官이라』 『清白吏』라는 名望이 朝野에 宣傳되얏다. 그 結果로 그는 어느 道の 監司가 되었다. 監司가 된 때로부터는 虐民 貪財하기가 無所不爲이였다. 그때에 그 監司의 愛妾이 監司를 보고 울었다. 監司가 그 愛妾의 우는 曲節을 물은즉 그 妾이 말하되 大監께서 여러 고을 원노릇을 하되 民財를 한푼도 貪하지지 아니 하드니 이제 이와같이 貪財虐民하시는 것은 必是 大監의 本心이 變하신 것이 라. 本心이 變하시고 어찌 오래 사시릿가? 내가 大監을 오래 모시지 못할가 하여서 우나이다. 監司가 그 말을 듣고 우스며 말하되 그것은 네가 아즉도 나의 本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여로 고을 원노릇을 할 때에 民財를 貪하지 아니한 것은 本心이 民財를 貪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貪財한다는 所聞이 나면 돈도 뭇푼 먹지 못하고 베슬도 울너가지 可할터임으로 그러하였거니와 오늘은 監司가 되었으니 베슬 높고 돈도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이제부터 먹는 것이 可 『나의 本心이라』하였다. 참으로 그 妾이 그 監司의 本心을 알지 못한 데서 變心인가 하여 哀嘆함과 갓치 政治家라기보다 잘난 사람 다시 말하면 時代的 英雄의 眞面目을 알지 안한는 데서 變節이라고 論한 것이다.

無所不爲의 英雄들과 有所不爲의 拙丈夫들아! 나의 拙論을 可하다 하는가? <53>

<52-53>

21.

잡지명: 삼천리 제7권 제7호
발행년월일: 1935년 08월 01일
기사제목: 英雄과 豪傑論
필자: 朱雲成 주운성
기사형태: 논설

英雄과 豪傑論 (영웅과 호걸론)

朱雲成

인류 유사이래 소위 역사의 폐지란 億兆創生을 수평선으로 하고 그들 위에 옷둑 옷둑 屹立하고 있던 英雄兒들과 豪傑男들의 足跡을 한점씩 남겨놓은 것이 역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영웅들의 품모가 눈앞에 나타날 때와 호걸의 옷자락이 펄럭일 때는 본능적으로 만인은 호응하게 되고 흥미가 惹起되는 것이다.

영웅이란 별 사람이 아니고 대중이 推尊하므로 된다는 설이 있으나 余는 반대한다. 대중이 推尊치 아니치 못할 特格을 임의 具有한 자가 즉 영웅호걸이다. 범인으로 천, 백일 연구해도 못할 소리를 英雄兒들은 능히 하는 것이다. 秦始皇이 6歲時 아버지의 등에 얹인 채로 왕 될 소리를 했다 하며 나폴레옹은 15歲時 부친의 임종석에 앉아서 세계정복을 맹서하였다 하며 아브라함 링컨은 14歲時에 米 대통령 될 政見을 말하였으며 朱元章(明 太祖)의 『鼓鳴白日三軍動, 鈎拔青天萬國寒』 이렇듯 서늘한 단 一句에서 百萬 병력을 격동시킬 詩句라던지 나폴레옹이 埃及 遠征에서 軍糧이 乏絶되고 군대는 飢渴에 瀕하여 패전은 기정 사실로 되었을 제 萬古 영웅 奈翁의 此 一句의 사자후를 들으라! 『피라미드 위에 4천년의 긴 세월은 오늘날 佛蘭西의 健兒들을 俯瞰하고 있다』 한마디에 飢軍은 大振하여 一舉에 凱旋을 한 것이었다. 넬슨 提督이 도라팔간灣의 맹호 나폴레옹군과 대전에 넬슨의 승전연설은 또한 비범하였다. 『英吉利는 바야흐로 제군이 각각 제 한 구실만 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 마디에 猛虎陣을 격퇴하고야 말았고 日本의 호걸 東郷 대장의 『皇國興廢在此一戰』도 雄句의 한마디이다. 忠武公의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도 굉장한 영웅아의 氣魄의 발로였고 무솔리니氏의 노동자를 향한 열변! 『余는 본래 부호명문의 출생이 아니다. 余의 實父는 제군과 같이 鐵片을 鍛冶하는 대장쟁이다. 余는 노동자의 후생으로 태어난 이상 어데까지든지 余의 손으로 伊太利를 鍛冶하고야 말리라』하는 웅변은 드디어 數十萬 당원을 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氏는 伯林 교외 광장에서 黃昏 연설 一句로 策◆一黨이 되었으니 『아- 13년간의<111> 실정이며! 조국 獨逸은 바야흐로 비애의 최저에 陷하였다. 이제는 음악과 예술이 獨逸을 위로하기에 不能하다.

余는 獨逸의 救主가 되련다. 그리하여 더럽히지 않은 내 손으로 獨逸을 구하련다. 순결한 백지와 如한 余에게 정권을 부여하라!』 한 마디에 獨逸의 군중은 맑은 一票를 히틀러당에 보낸 것이었다. 보라- 彼 영웅아들의 언동은 저땡땡 百퍼센트의 통쾌미와 지구라도 말아먹을 여력이 橫溢하고 있다. 이에서 영웅아의 그림자만 보아도 脉없든 팔다리에 생기가 오르는 듯 하여지고 절망했던 暗澹風雲도 雲捲青天이 되는 듯이 衆望과 衆願이 뭉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一角에 6척도 못되는 一영웅아가 앉았건만 그 波長은 족히 6洲 5洋을 잡아 흔드는 것이다. 이제 영웅의 개론은 그만하고 영웅과 호걸의 相異점을 또 좀 그려보려

한다. 영웅은 정의하자면 徹頭徹尾한 승리자를 말함이고 따라서 強力의 소유자요 기민한 관찰력과 부하의 統御力과 비상한 매력적 辯舌을 소유한 자이다. 호걸이란 영웅과 소이하다고 볼 수 있으니 승패간에 미소로 사는 자이며 心襄이 豪濶해야 孟子의 말한 浩然之氣가 잇는 자이다. 다시 말하면 영웅을 虎狼이라 할 것이면 호걸은 獅子라 할 것이다. 이제 예를 들어 분류하여 본다면 알렉산더, 씨자, 나폴레온, 成吉思汗, 비스몹, 카이젤, 히틀러, 무솔리니는 영웅의 부류에 속한다 할 것이요. 크림웰, 와싱턴, 웨링톤, 링컨, 크레만소, 로이드 조지, 맥드날드, 힌덴부르크, 伊藤博文, 李舜臣, 袁世凱 등은 다 호걸의 부류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말하자면 영웅은 인기를 좀더引하는 자요 호걸은 處世家로는 一点 張이나 그다지 인기는 적은 법이다.<112>

왜 그러냐 하면 영웅아들은 자기의 身命을 賭해야 매진하는 자이지만 호걸남들은 처세정책에 능하여 그렇게 위험한 尖端에까지 不登하는 까닭이다. 카이젤이나 나폴레온은 실패를 不關하고 그냥 勇進하는 이들이었으므로 그 역사를 보는 자로는 아조 통쾌 흥분을 感하는 것이다. 然이나 포앙카레 佛 대통령 같은 이는 그저 護身主義者로 만사에 실수만 없이 하려한 까닭에 아무 굴곡이 없는 무미한 역사가 되고 말어 지극히 평범무사한 맛없는 생애였다. 그래서 포앙카레 같은 일류 정치가가 없지만 佛國인으로 제일 인기가 없는 사람은 포앙카레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영웅아들에 성공하는 과가 있고 성공 못하는 과가 있음을 본다. 예를 들면 나폴레온 히틀러 같은 痛快無上의 破天荒적 성공을 하는 자가 잇는 반면에 西鄉南洲 金玉均 같은 박명 영웅들이 있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참조하는대로 영웅아들의 품모로 보아 성공을 엿볼 수 있다. 余가 생각하는대로 대성공하는 영웅아들은 殆히 미모남이었으니 알렉산더 초상이 그러하고 나폴레온이 미남자로 유명하였다 하며 금일 히틀러의 면모는 너무 아름다워서 伯林娘子群들이 침을 흘린다 하며 히틀러의 폭케에는 부녀들이 주는 돈을 미처 쓰지 못한다고 한다. 무솔리니도 얼굴이 보기 좋은데다 눈이 실지 대좌하고 보면 펍 인정미가 많은 눈떠라고 한다. 그밖에도 구약성경을 보면 따원왕 같은 만고의 대성공한<112> 帝王은 없는데 그 면모가 稀世의 미남이었다고 하였다. 대개 성공 못한 영웅아들을 예견하면 西鄉南洲의 면모가 아조 사오납고 吉田松陰의 사진을 보면 아조 면모가 못생겼고 吳佩孚 모다 敗北者들의 면모가 아름다운 자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영웅의 품값◆상 미모의 체구가 필요한 것임을 窺知하였다. 그런데 영웅의 자격으로 하나 필수 조건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사람을 한번 보고도 가히 近親할 人인가 遠交할 人인가 그 판단 眼이 없으면 영웅의 名簿에서 제명을 당할 것이다. 보라! 히틀러가 피벨스를 잘 보았기 때문에 성공했고 나폴레온이가 경찰 大臣(名은 미상)을 참모로 기용하였기 성공하였다. 金玉均 같은 사람은 사람을 알지 못한 까닭에 자기를 살해하려는 사람을 모르고 同伴하였다. 唐 明王이 安鹿山을 잘못 기용했다가 망하였고 西班牙 알폰소 황제도 사람을 잘못 맛내여 망명중이 아닌가? 이 의미에서 영웅 노릇이 얼마나 힘드는 것임을 可知할 것이다.

또는 영웅은 애정이 강하다. 그래서 古來로 영웅이 호색이라 했지만 실상은 애정이 많은 까닭이다. 나폴레온이가 戰陣에서도 날마다 姹世핀 부인에게 보낸 열광에 끌어오르는 戀信을 보면 얼마나 애정의 강한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성에 대한 애정만이 아니라 국가와 민중에 대한 애정만이 아니라 국가와 민중에 대한 애정이 또한 강하다. 히틀러의 눈에는 늘 독일을 향한 戀戀한 熱淚가 가득찬 까닭으로 금일 대독일의 최고 의자를 그 애정의 눈물로 매수한 것이다. 영웅은 또한 선전술과 組織能이 잇는 법이다. 자기 포부를 백퍼센트로 선전할 수 있어야 하고 또는 공고한 기반을 닦을 줄 아는 조직능력이 있어야 한다. 영웅은 또 극기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節操있고 規律있고 權威잇는 일상생활을 지속하여야 항상 만인의 頭座에

걸어 앉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공생활과 사생활이 합치하여야 진정한 영웅의 자격이라 할 것이다. 이제 끝으로 말하려하는 것은 인간이란 갖나서부터 모방으로 성장 발육됨을 알 것이니 어느 정도에서는 좋은 모델을 모방하면 그대로 되는 수가 있으니 고로 상술한 余의 영웅관을 피력함에 반하여 열혈청년제군의 분발이 있다면 幸甚으로 思惟한다. -完-<113>
<111-113>

22.

잡지명: 삼천리 제8권 제6호
발행년월일: 1936년 06월 01일
기사제목: 朝鮮 體系 英雄
필자: 安在鴻
기사형태: 논설

朝鮮 體系 英雄

安在鴻

朝鮮人에게 큰 問題가 있으니 朝鮮의 社會情勢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 속에서 朝鮮人은 무엇을 하면서 나아가느냐? 또는 나아가야 하겠느냐? 등이 하나이오. 現代의 國際情勢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어느 方向으로 움직여 가는가? 가 또 하나이다. 前者에 잇서 그 全面的 考察로서 어떠한 統計의 혹은 政治文化的 批判을 함을 要함이 主되는 者이오 그 部門的인 方法으로서는 그 歷史를 論할 수 있고 事件을 批判할 수 있고 人物을 紹介闡揚함을 要하고 혹은 어떠한 著述과 學術을 闡明吟味함을 要하는 것이오. 또 宗教는 어떠한 敎化의 團體들을 批判 論議할 수 있고 기타 現下의 모든 對策을 詮議 論策함을 要하는 것이다. 後者에 잇서 그 全面的인 觀察 展望으로 時局의 歸趣를 表明함도 조코 國與國의 關係와 特定한 事件中心으로 와 어느 思想體系 中心으로 等等 縱橫立論할 수 잇는 것이다. 現下의 사람들이 後者에 잇어 쓰기를 조하하고 듯기를 조하하고 그 關心을 적지안케 하는 듯 하되 前者에 관하야는 이를 等閑히 하는 편이다. 國際情勢를<53> 잘 아는 것은 現代 朝鮮人의 政治的 一要件이다. 그러나 朝鮮自體의 問題에는 차라리 迴避 혹은 等閑하는 傾向을 가지는 것은 그 原因이那邊에 잇는가? 朝鮮의 일은 目下에 잇서 워낙 손쉽게 下筆할 바 못되나 評論界의 現象이 그대지 조타고는 評價되치 안는다. 그 중에는 朝鮮것만 쓴다고 非議되는 편조차 잇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朝鮮 것을 쓰는데 그 方法이 問題되는 것은 혹 當然할 것이다. 그러나 朝鮮 것을 씬이 허물될 수는 없다. 國際情勢를 잘 紹介함은 물론 妥當하나 前代의 사람들이 즐기어 周漢唐宋의 이악이를 峻論하든 것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朝鮮의 歷代以來의 經歷하고 展開되었든 모든 일은 아주 뒤채여 밀려왔든 無視되어 온 文化的 荒蕪地帶인 것이다. 前代의 識者들이 이를 冷視하여 왔고 現代의 文教에서 이것이 除外되어 있다. 그리하야 兒童走卒의 외우고 짓거리는 바가 모다 朝鮮以外의 일이오 사람이오 事件인 것이다. 여기서 朝鮮을 아는데 그 옛 것을 아는 것이 現下의 한 主要科目이오 옛 것을 아

는데 科學的 體系를 嚴正히 세우는 것이 最終的인 課題이겠지만 그것을 素材대로 平面대로 알고 드는 것만도 매우 必要한 일의 하나이다. 그럼으로 여기에도 나는 重層並存의 特殊한 文化性을 主張한다. 卽 朝鮮 것과 朝鮮 일로서 우리의 過去 許久한 生活의 힘드리고 애써가 면서의 鄉土내 나고 情趣 기쁜 모든 人物 事件說語 및 一般史 등을 우선 잇는대로 알고 생각 하는 것이 한 課題이오 이것을 政治史로 思想史로 文明史로 社會史로 經濟史로 其他 모든 科學的인 方法에 의하야<54> 따로히 整理하고 批判하고 體系를 세워 新時代에 昇進하는 (下 略) 文化的 財産으로 삼음이 또 한 課題로 되는 것이다.

朝鮮 近世 수 백 년은 封建的, 孤立的 生活이 眞正한 民衆의 英雄의 征戰의 登場을 要치 안 게 되었었다. 英雄的인 資品을 타고난 巨偉한 人物도 民衆과는 沒交渉으로 골아 죽게 되었다. 英雄이란 概念은 물려 받았으되 英雄生活의 實際는 經驗해 본 적이 드물다. 뭇뭇의 實學派의 大學者가 史上에 빛나는 者 없지는 안흐나 大體로는 青春作賦도 白首窮經하는 迂儒腐儒 式的 「學者님」이 僻은 만헛었다. 朝鮮人의 英雄觀과 學者觀도 正當한 批判性을 떠나서 있 다. 客氣나 잇고 배스심 좀 부리고 혹은 耳懸鈴鼻懸鈴에 부품한 壯談도 하고 되도록 俗惡的 인 言動 속에 往來하는 者 坊間에서 이를 英雄이라고 추고 그와 뒤집어서 學者 혹은 學者님 의 稱號를 어떠한 人物들에게 부치되 그 認識과 語感이 아울러 妥當을 缺할 바 잇나니 英雄 도 英雄이 아니오 學者도 學者가 아니다. 現代의 意味하는 英雄과 學者는 坊間の 이른바 英雄과 學者로써 律할 바 아닌 것이다. 皮와 눈물이 없는 者 英雄이 아니오 人生과 社會에 透徹한 歷史科學的 洞察力이 없는 者 英雄이 아니오 民衆에 앞에서 그 時局開拓 意圖와 魄力 이 없는 者 英雄이 아니오 至難한 時局에서 그 究竟의 歸趣를 正觀正解할 眼識이 없는 者 英雄이 아니오 그 所信을 딸아 邁進하려 할 때 世俗의 非難에 진작부터 준옥드는 膽力이 적 은 者 英雄이 아니오 오직 流行을 좇고 時風에 阿諛하야 한갓 새로움만 자랑하되 스스로 定確한 主見이 없어 之北之南<55> 日東日西하는 者 英雄이 아닌 것이다. 學者와 英雄이 별 것이 아니니 多分으로 研究와 主張方面에 그치는 者가 學者인 것이오 多分으로 行動과 實踐 에 主力하는 者 英雄인 것이다. 古人은 千里馬를 조하하야 먼저 죽은 말의 뼈부터 사들였다 고 한다. 現代에는 英雄的인 人物이 僻은 만흔 줄로 聲聞되는 터이니 지금 구타여 죽은 英雄의 뼈를 사드리기까지는 갈 바 아니겠으나 그러나 英雄과 學者에 대한 認識을 함부로 하 는 것은 또한 世紀末的 現狀의 하나라고 할가? 이 一筆을 둘러 世間の 英雄氏들에게 부치고 써 그 眞英雄되기에 精進하기를 當부하여 둔다.<56>

<53-56>

23.

잡지명: 삼천리 제10권 제10호
발행년월일: 1938년 10월 01일
기사제목: 英雄 名將과 時勢
필자: 崔麟 최린
기사형태: 문예기타

英雄 名將과 時勢 (영웅 명장과 시세)

崔麟

項羽는 명장이다.

「力拔山 氣盖世

時不利兮騅不逝

騅不逝兮可奈何

虞兮虞兮奈若何」

의 一首시를 모르는 이 드물려니와 三國誌를 들쳐보면 그 시대의 雲霓같이 만흔 영웅과 명장 속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다.

명장이라 곱자면 첫째 역량, 둘째 재간이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시할 것은 덕망이다. 그가 한 번 이러나면 천하의 선비 칼을 잡고 모여드는 望風而集하는 그런 덕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후세의 사가의 기록을 보면 項羽에게 力과 才는 있으나 덕망이 없었음을 남우랬다. 그러나 나는 그를 그러케 보지 않으니 그가 큰 뜻을 품고 江東에서 이러날 때 벌써 8천의 자제가 그 뒤를 따랐다. 그 때의 項羽 나히 겨우 스물 넷. 24세의 청년을 위하여 생사를 바쳐주는 장사 8천이 있었다면 그의 인망을 넉넉히 짐작할 것이다.

項羽를 폭군이라 한다. 그가 秦나라 서쪽 咸陽에 대군을 몰고 드러가서 왕자 纘을 살해하고 300여리를 覆壓한다든 웅대 장려한 저 秦의 궁전에다가 불질르고 그리고 秦始皇의 무덤을 파헤치고 더군다나 30만인을 사역하여서 咸陽의 가진 보물과 어엽분 부녀자를 붓잡어 간 것은 아모리 暴秦을 타도하는 것이라 하되 도가 심했다고들 한다. 그러나 古今 興亡의 史上을 보면 그보다 더 처참하야 병마 지나간 뒤 萬目荒涼했던 咸陽 이상의 터전이<37> 수두룩하게 있습에랴.

그가 漢高祖인 劉邦과 8년 동안 70여 차나 대전을 격것스되 대개는 연전연승 하였으니 그 재간과 역량을 알 것이다. 더군다나 최종의 장면이 일대의 영웅아의 면목을 躍如케 한다.

그가 靈壁 최후전에서 적의 重圍에, 그것도 10중 20중의 重圍에 빠져 버리자 四面陣營에 그야말로 모다 楚歌 뿐이다. 말로가 다닥친 것을 알고 한밤중에 이러나 帳中에서 痛飲하고 시를 짓고는 放聲하야 실토록 울고는 800여기를 이끌고 겨우 血路를 뚫어 南方에 달녔스나 이미 28기 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더욱 남하하여 烏江(南京西南方朝鮮里數約12里)에까지 쫓겨왔을 적에 미리 배를 작만하고 기다리는 뱃사공이

「江東이 雖小나 亦足而王」

이리하야 천리 沃野에 수백만 대중이 있으니 거기 왕 노릇하기에 족하지 않으나, 하고 권하는 말에 項羽는 걸, 걸, 걸, 우스며

「하늘이 나를 망케 함이라. 내 이제 江東 자제 8천을 거느려 渡江했건만 이제 한 사람도 사라 도라움이 없다. 무슨 면목이 있어 江東 부형을 뵈랴.」

이리하야 烏江 江頭에서 불세출의 풍운아는 自剔하여 버렸다. 시대가 이미 자기 것이 아님을 알고는 생명을 스사로 버리는 그 豪膽 써 말로의 빛을 陸離케 한다.

諸葛亮도 큰 정치가이려니와 또한 명장이었다. 그는

集中思 廣充益

을 일생의 신조로 병사와 정치를 하였다. 集中思라 함은 오늘날 문자로써 하면 衆議를 모아서 즉 여론 또는 민론에 조차서 나랏일에 상함이요, 廣忠益 즉 公益-만백성이 다 잘 사는 길에

전력을 드렸다. 다난하든 蜀丞相의 지위를 그 아니면 누가 다 할제 있었으랴.

奈巴倫도 명장이다. 연전 불란서 갓든 때 드른 이야기지만은 지금도 불란서 시골 백성들은 「奈巴倫은 도모지 실재의 인물이 아니다.」<38>

「지어서 꾸며노흔 명장이다.」

라고들 한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사실이 너무도 훌륭하고 너무도 天馬行空하는 것같이 무소부지하니 도모지 인간으로서는 그럴 사실이 없을 것으로 국민들이 하도 이리듯한 불세출의 인물이 낮으면 좋겠다는 想望하는 마음으로서 일부러 가장하여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들 말한다. 그가 寒微한 귀족의 出로 소년 때 뜻을 품고 콜시카에서 뛰어나와 巴里사관학교에 드러간 뒤 學資없서 구멍 뚫려진 구두를 신고 다녔고 끼넛든 시계를 전당 잡히면서 공부할 때에 어느 누가 그가 全歐羅巴를 震撼하든 「제왕의 제왕」인 뽀나발드가 되랴고 생각하였으랴. 너무도 衆智에서 뛰어난 재략을 바라보고 또한 범인이 想倒못할 위업을 바라보고 불란서 시골사람들이 실재의 인물이 아니라고 믿는 까닭도 또한 일소만 할 일이 아닌 듯하다.

나는 일전 「奈巴倫傳記」를 보다가 이런 일구를 발견하고 감탄하였다. 병서에도, 「寡不適衆」

이란 말이 있거니와 원칙상으로 小兵을 이끌고는 大兵을 쳐 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함에 불구하고 奈巴倫의 전적을 보면 언제든지 小兵을 가지고 적의 여러 십만군을 격파한다. 그리하여 그 비밀을 드러려고 부하의 일장군이 물었더니 奈翁은 고개를 흔들며

「나도 小兵은 大兵에 익이지 못하는 줄 아노라. 나는 한번도 적보다 적은 군사를 가지고 익여 본 적이 없노라」

고 대답하기에 그 장군은 다시 일일히 예를 드려 어느 연대 어느 전장에서 몇 만명을 가지고 몇 십만의 적을 격파하였으며 또 어디선 어떻게 익였으며 하는 것을 말하였다. 그 때 奈翁은 다시 말하기를

「아니다. 그는 모르는 말이다. 내 수중의 장병이 적군보다 적을 때는 나는 적의 전체를 치지 않고 그 중의 일부분 - 즉 내 手兵보다 적은 일부분을 격파하고 또 그 다음을 격파하여 擊其一角으로써 전체의 승리를 어덧노라」

하였다. 일견 적병보다 小軍인 듯 하나 그 實 작전상에 각개 격파를 하였을 뿐으로 寡不適衆은 천고의 명언이라 하였다.

이밖에도 명장과 영웅이 서양사 중에도 많고 더구나 20년 전 歐羅巴 대전 때에 등장한 인물도 많았으나 略하련다.<39>

我國의 명장으로는 日淸 전쟁 때의 用上操六, 日露 전쟁 때의 兒玉源太郎, 乃木希典 등을 헤일 것이다. 그런데 명장이라 하지만 병서에 보면

擊 謀爲上 擊 兵 爲 下

라 하여있다. 즉 적의 모략 - 작전 계략의 근간 그것을 격파하여 버림을 가장 명장이라 하였고 그 다음을 실전에 나가 적군을 들부췌는 것을 위하라고 하였다. 川上操六이나 兒玉源太郎은 말하자면 모략의 명장이요, 乃木希典 같은 분은 실전의 명장이라 할 것이다.

영웅이 時勢를 만드느냐.

時勢가 영웅을 낳느냐.

내 그를 아지 못하되 어쨌든 지금의 東洋大局은 백년 만에 한 번 있을가 말가 하는 큰 破毀

와 큰 건설이 교체하는 풍운시절이라. 이 때에 후세인이 可謂 영웅, 可謂 명장 될 큰 인물들이 많이 날 것이다. 그러나 요컨대 그것은 후세인이 뒷날 불너줄 名詞일 따름이지 우리는 최선의 인물이 나와서 이 시대의 일을 처리하여 주면 좋을 뿐이다.

이 시대의 일은 오직 이 시대 사람들로 처리하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시대 일을 가장 잘 처리하는 인물이 그가 곳 명장이요, 영웅이 될 것이다.

드러안저 時勢艱難을 탄하면서 「나과륜이 있었더라면」 「項羽같은 인물이 나 이런때에 있었더라면」 하고 千言萬言을 하면 무엇을 하랴.

奈巴翁도 그 시대에 있어서의 奈巴翁이요.

項羽도 그 시대에 있어서의 項羽임을 이저서는 안된다.

(끝)<40>

<37-40>

V. 한국 근현대 잡지 “제국주의” 관련 자료

1.

잡지명: 개벽 제6호

발행년월일: 1920년 12월 01일

기사제목: 第三帝國主義는 무엇인가?

필자:

기사형태: 잡저

第三帝國主義는 무엇인가? (제삼제국주의는 무엇인가?)

第三帝國主義는 영어로 The third Empire라고 한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의 생활이 本能 그대로 左右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동물과 가티 肉의 세계 추악한 物質的의 세계로만 成立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 基督教의 天國이라고 하는 것과 가티 理想靈魂의 세계로만 된 것도 아니다. 그러면 第一의 帝國은 肉의 帝國, 第二의 帝國은 靈의 帝國이라고 하고 장차 우리가 바라는 帝國은 靈과 肉의 帝國 즉 第三帝國이라고 하는 것이다.<74>

2.

잡지명: 개벽 제52호

발행년월일: 1924년 10월 01일

기사제목: 非基督教大同盟宣言, 資本帝國主義者가 基督教을 保留하는 그 裏面

필자: 上海에서 金星 상해에서 김성

기사형태: 논설

非基督教大同盟宣言, 資本帝國主義者가 基督教을 保留하는 그 裏面 (비기독교대동맹선언, 자본제국주의자가 기독교를 보류하는 그 리면)

上海에서 金星

제작년 北京서 萬國基督教青年會大會가 열녇슬 제에 北京 一部學生界의 련함으로 反基督教同盟이 成立되어 눈이 부신 활동을 했든 것이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새로운 것이다. 그 때 그 일이 잇슨 이래 얼마동안 소식이 맥헛든 그 方面 활동은 요새 와서 上海에서 다시 머리를 들 게 되엿다. 지난 8月 上旬에 上海서 非基督教大同盟이라는 단테를 조직했는데 그 發起人으로는 基督教宣教會에서 세운 大學에서 3年 工夫하는 동안에 그 教育方針의 불털더, 무성의한 것을 분개하여 그 학교 내막을 숨김업시 新聞紙上에 發表하여 社會여론을 니르키려 하고 마춤내 그 학교를 떠나 나온 학생과 제작년 北京서 조직헛든 非基督教同盟員으로 잇든 몇몇 학

생과 그 밋 몇몇 학생들이었다.

그래 그들은 創立總會席上에서 吳稚暉先生을 청해다가 『强弩之末의 基督教』라는 題로 一場 雄辯을 吐하게 하고 同盟簡章을 通過한 후 니여 委員 5人을 선거하였다. 그 簡章 中 그 同盟의 事業을 3條로 分하야 1. 文字宣傳(刊行出版物 等), 2. 口頭宣傳(舉行講演會 等), 3. 研究(研究基督教及其所辦事業之內容) 으로 하고 그 第1次 事業으로 「覺悟」라는 週刊新聞을 發行하기로 하야 지난 8月 19日에 그 創刊號를 刊行하였다. 나는 지금 이 아래 그 同盟에서 天下에 發表한 宣言文을 번역해 내이려 한다. 이 宣言書에서 우리는 中國의 사정이 우리 나라와 얼마쯤 다른 것도 짐작 할 수가 있고 또 白人種의 침략이 中國을 얼마만치나 위협하는지를 짐작 할 수가 있다. 本國잇는 宗教信者나 不信者임을 勿論하고 한 참고거리가 될 줄 안다.<56>

非基督教大同盟宣言

一般的 意義上에 잇서서 우리가 一切의 宗教를 모다 反對하는 것과 갓튼 理由로 基督教를 反對하노라. 最初期文化의 유물인 各種宗教는 모다가 一個虛僞스런 和平觀念을 叫號하구 있다. 그러나 그들은 世上一切의 不和平한 癥結의 所在를 指摘해 내이려 하지 안이할 뿐만 안이라 저들 自身까지가 迷信, 妬忌, 紛爭으로써 現社會 不和平한 現象에 一을 加할 따름일다. 各種宗教는 또한 한층 더 나가 一個의 虛僞的幸福觀念을 주창하야 그들이 바라는 바 소위 幸福은 모다가 天宮, 西方, 天國 等の 未來世界에 둔 것이여서 現世의 肉體的物質的 의 奮鬪를 輕視할 뿐만 안이라 도로혀 쓸대 업는 짓으로 돌리려 하나니 그 理由로는 現世의 一切 生滅勞枯는 都是神이 決定하는 것으로 人力의 長短으로는 도저히 左右하지 못할 것이라구 그들이 밋는 까닭일다. 그래서 그들은 暴君에게 反抗을 하거나 富豪와 싸울 必要가 업다 하야 全世界 勞苦平民으로 하여곰 神만을 밋어 그 命을 安하게 하며 마음 속으로 다만 天國만을 바라다 보아 몸이 水火에 빠진 것을 돌아다도 보지 안케 만들려 하나니, 이 무슨 世界이며 무슨 罪惡이라! 各種宗教는 모두 다 이러한 꼭 가튼 罪惡을 짓고 있다. 그런 中에 特히 基督教는 組織이 더 強大하야 따라서 그 害毒이 또한 더 深廣한 것 일다. 그럼으로 이 덤에 잇서서 우리는 特히 基督教를 더욱 反對하려 하는 바이로다.

特殊 的의上에 잇서서 우리는 또한 基督教를 反對하지 아니치 못하겠도다. 封建時代에 잇서서 基督教는 特權階級の 用具이였다. 그것을 當時 資本階級이 特權階級을 撲滅하려 하는 同時에 이 基督教를 역시 攻擊하였든 것이였다. 그러나 그 때 겨오 餘端을 保存하였든 者들이 日後 資本階級 自身이 임이 特權階級化하여진 때에는 도로혀 이 基督教를 保留하고 此를 이용하였나니 첫재로 그들은 基督教를 本國의 工人階級을 癡醉식히는데 利用하야 工人들로 하여곰 社會의 貧富는 神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 階級戰爭을 니르켜 現社會制度를 破壞하려 하는 것은 도로혀 神意에 違反이 되는 일이라구 밋게 하려 하였스며, 둘째로 그들은 基督教를 被征服의 殖民地와 半殖民地의 民衆을 癡醉하는 데 利用하야 民衆으로 하여곰 그들이 끌고 온 兵艦軍隊는 곳 上帝의 福音贈送하려고 온 것이며 且教育及一切文化를 贈送하려 온 것이고 決코 金錢을 强劫해 가려고 온 것이 안인 줄로 밋도록 만들어서 被征服民衆으로 하여곰 그들을 向하야 永遠토록 그<57> 恩德을 찬양은 하되 決코 反抗할 생각은 꿈에도 업도록 하려한 것이였다. 資本帝國主義者가 基督教를 保留하는 2個 作用이 곳 이것이니 이것이 곳 우리 中國人으로는 不得不 基督教를 特히 反對하야 할 最大 理由일다. 神父와 목사가 先鋒이 되고 軍艦과 兵隊가 後峯이 되여 聖經每頁에다가 「槍炮를 실어 오고 銀金을 실어가자」 하고 색여 노릇도다. 80年 來에 이가튼 傳教通商의 現象을 우리가 엿지 니저버릴 수 잇스랴!

近年이래 그들의 布教方法은 날로 더 巧妙하여져서 教會, 學校, 醫院, 青年會, 社會服務團, 童子軍, 平民教育 等を 빙자하여 그 布教面目을 遮掩하며 따라 나날이 社會內部로 더 깊히 숨어들어서 無數한 青年을 迷惑 식히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가져오는 學校, 病院의 經費만을 보게 하고 그들 뒤로 投貨投資의 利益으로 가져가는 바 數十百倍의 돈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도다.

이 외에 더욱이 危險한 것은 一般 神父와 牧師라 하는 者들이 한 번 外國으로 나가기만 하면 간 곳마다 中國人의 愚蠢野蠻한 것만을 힘이 잇는대로 선뎌연설하여 寄附金을 騙取하기를 例事로 하여서 이 때문에 外國人이 中國人을 낮추보는 觀念을 日益月增케 하는 것일다. 그들이 中國에 와서는 布教 或은 教育 어느 것을 勿論하고 有意的 或은 無意的으로 다만 其 國際資本主義的 國際觀念만을 宣傳하여써 中國의 民族覺悟及愛國心을 破壞하니 이 또한 우리가 一般 宗教 中 特히 基督教을 反對하지 아니치 못할 理由일다.

우리 覺悟한 青年들아 가는 곳마다 크게 부르짖자!

非基督教大同盟 萬歲!

中國 民族覺悟 及 解放 萬歲

— (끝) — <58>

<56-58>

3.

잡지명: 삼천리 제8호

발행년월일: 1930년 09월 01일

기사제목: 朝鮮問題 等に 對한 日本學者의 所論, 元題 帝國主義와 殖民政策

필자:

기사형태: 대담·좌담

朝鮮問題 等に 對한 日本學者의 所論, 元題 帝國主義와 殖民政策 (조선문제 등에 대한 일본 학자의 소론, 원제 제국주의와 식민정책)

討議者

長谷川如是閑 = 評論家

矢內原忠熊 = 東京帝大教授

大內兵衛 = 大原社會問題研究所

松本重治 =

嘉治隆一 =

日時 去 6月 17日 於東京

如是閑=帝國主義와 植民政策에 對하여 討議합니다. 爲先 朝鮮이나 滿洲나 臺灣에 對하여...

矢內原=朝鮮을 보면 그 統治方針이 穩和政策이 조흔는지 斷壓政策이 조흔는지 하는 그 點

부터 생각하여 보아도 조할 것입니다.(中略-원문) 卽『朝鮮人は 작고 기어 오르니까 아조 斷壓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그들이 自覺을 가지기 前까지는 이 政策이 不得已하다고 또 이것은 植民地에 오래 잇슨 사람으로야 겨우 알아내는 事情이라고』<12>, 흔히 말하는데 아마 이것은 植民地에 興味를 가진 一部 사람들의 典型的 感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어 오르지 안토록 彈壓하는 편이 조타-함은 두 말 업시 帝國主義的 植民家의 典型的 見解와 가치 보입니다. 그러나(下略-원문)

長谷川=要컨대 帝國主義 以前의 植民思想이 지터 잇는 까닭이겠지. 卽 金融資本까지 가지 안는 幼稚한 植民政策의 하는 일들로 卽 小中資本家의 意見이 支配되고 잇는 때의 影響이겠요. 矢內原=그렇는지 모르지요. 現在 크게 反動政策을 말하는 大學 卒業生과 如함은 多數가 自己 父親이 몇 十年式 朝鮮에 가 잇는 中流階級의 子弟들이 만흐니까.

長谷川=小中商人과 如한 者들은 最初 國家의 保護를 바더 植民地에 가서 장사하고 잇섯스나 차츰 日本內地에 本店을 가진 大資本家의 活躍이 비릇하면서부터 壓迫을 맞도록 되어 옵니다. 卽 植民地에 잇는 大 及 中小資本家의 國家 及 植民地 住民에 對한 關係는 研究할 價値 잇는 問題일 것입니다.

福岡=그러나 植民地를 壓迫하는 點에서부터 말하면 大中小 어느 것이나 共通의 利害를 가지고 잇는 줄 압니다.(中略-원문)

矢內原=臺灣의 例를 볼지라도 日本內地에서 간 中小商工業者는 非常히 困境에 잇슴으로 漸漸 日本으로 도라와 버립니다. 그러기에 總督府는 此를 保護하여 주려 하면 本島人을 壓迫하지 안을 수 업게 됴므로 이것을 中止하고 잇는다<13> 합니다. 그러나 大資本의 편은 大大的으로 本島人을 彈壓하니까(下略-원문)

大內=그럴 터이지. 小中資本家は 大資本의 前衛에 서서 植民地의 사람들과 競爭한다고 생각함으로 그러케 尖銳化한다 할 것이지요.(此間中略-원문)

福岡=나는 8年 前에 한번 朝鮮을 通過하여 본 일이 잇는데 그 때는 釜山近傍의 勞働者는 全部 朝鮮人이든 것이 이번에는 日本人이 多數히 석기어 잇더구만. 이것은 朝鮮人이 國外에 나가서 적어진 까닭이릿까요? 勿論 國外에 나아가는 原因에는 여러 가지가 잇겠스나

矢內原=그러한 現象이 朝鮮 全體에 빠치어 잇는지 엇든지는 疑問이나 中國人 勞働者가 朝鮮에 드러와서 朝鮮人의 職業을 빼앗고 잇다는 事實은 드렸슴니다.

福岡=滿洲에서도 日本의 下級勞働者가 增加되어진 드시 보였는데...

嘉治=그런 事實은 드른 적이 업스나 日本側에서 萬一의 境遇에는 모든 事業을 日本人의 손으로 運用할 수 잇도록 準備는 되어 잇다는 말을 드렸슴니다.(中間略-원문)

矢內原=帝國主義的 植民政策으로는 더할 것 업시 日本에서 資本蓄積이 行하여지면 勞働人口가 過剩하게 됴므로 此를 植民地에 내어 보내어 內地에 잇는 資本蓄積의 過程을 圓滑하게 <14> 하려고 애쓰고 그 被害者를 植民地에 보내려 하는 일로 行하는 일이 잇는 법 함데다. (中間略-원문)

矢內原=朝鮮移民도 亦是 그러케 成功한 것 갓지 안터구만. 그 中에도 東拓이 하고 잇는 것만은 成功한 것도 잇스나 大體로 보면 滿洲와 別 區分이 업는 듯 하엿서요.

長谷川=오늘과 가치 帝國主義의 植民地政策이 必要로 되어 잇는 段階에서는 日本內地의 人口問題의 救濟라거나 小中商人階級 救助라는 등 意味의 植民政策은 틀닌 일이지요.

矢內原=今日の 形便을 보아 全혀 失敗라고는 할 수 업겠지요. 朝鮮에는 左右間 46萬人的 日本內地人이 移住하여 잇고 滿洲에도 20萬人的이 가서 잇슴으로 더구나 朝鮮人は 競爭力이 薄

弱함으로 相當히 壓迫을 맞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끈질 때가 왔다고 보아도 틀림없겠지요. 但只 如前히 朝鮮人の 經濟能力이 弱한 點에 드러부터서 無理를 하면 아직 多少의 餘地가 업는 것도 아닐 것이나...그리고 朝鮮의 경우로 말하면 극히 右翼의인 軍國主義的 見解는 朝鮮의 土地에서 先住民을 逐出하고 그 자리에 日本人으로 채울려고 한다. 즉 先住의 朝鮮人을 大陸政策 卽 帝國主義的 發展의 前衛에 세우려고 하는 터이나 1,800萬人の 朝鮮人을 全部 모아서 前衛로 쓰려 하는 생각은 成立하지 안니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第二에는 所謂 文治政策에 依하여 朝鮮人을<15> 懷柔하여 穩健하게 服從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大資本家들은 여기에 贊成하는 터이외다. 朝鮮에 居住하고 잇는 日本人은 此에 反對합니다. 卽 直接 利害關係가 衝突하는 일이 만함으로 結局 保守的으로 되는 것이야(中略-원문)

어제든 日本의 國情으로는 英國 對 印度와 가튼 關係를 臺灣 朝鮮의 植民政策의 우에 希望함은 不可能한 일이야.

矢內原=英吉利에서 除隊兵의 移住問問가 盛할 때 亞弗利加의 「젠야」地方이 그 候補地가 되어서 多數한 사람이 갔었다. 그래서 이들의 移住者는 卽 中小資本家라고 보아서 조흔 줄 생각하나 이것이 오늘에 이르러는 先住土人에 對한 最反動的 勢力이 되어 잇는 터입데다.

日本人도 臺灣에 約 20萬 朝鮮에 45萬 滿洲이 20萬이 移住하여 잇지요. 그래서 이것 € 今後에 더 發展할 餘地는 업겠지만 좀처럼 撤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다 保守的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만소. 그러다면 植民政策의 問題는 이러한 保守派의 「인터레쓰」가 中心이 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보지 안이치 못하리라.

그리고 朝鮮에 對하여는 朝鮮人 勞働者의 問題도 생각하여 두지 안으면 안됩니다. 朝鮮人은 結局 푸로레타리아가 되어 가도록 만들어 잇스니까. 滿洲에<16> 살나가도 苦痛을 맞고 本國에서도 中國人과의 競爭을 避할 수 업서서요, 朝鮮通이란 日本人이 朝鮮人을 自覺한 뒤가 아니면 穩安하게 取扱하여 줄 수 업다고 하지만 自覺하고 나면 그네들이 엇더케 될 것을 알고 말하는 것인지!

長谷川=一般的으로 半開國에서 統治權을 他國의 손에 맺긴 境遇에 先住民은 엇더케 될 것일가.

矢內原=大概 民族的 反抗運動으로 다를 것이나 朝鮮에서는 小市民階級 中心의 民族運動보다도 無產階級 中心의 XX運動편이 훨씬 더 强行하는드시 보입니다. 日本政府가 두려워하는 點도 여기에 잇다. 이 方面으로부터도 政府는 朝鮮에 內地人을 될 수 잇는대로 만히 심으 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長谷川=사실상 內地人은 그 意味의 防止가 될 터이니까.

矢內原=內地人을 植民하여 平素는 農業을 經營케 하며 朝鮮人에 接觸하며 平和主義로써 相交하다가 한편 때에는 祖國의 防衛를 만드는 和X兩方의 方略이 될 것이외다.(下略-원문)

嘉治=朝鮮의 勞働者와 日本의 勞働運動과의 關係는 엇더할가요?

大內=日本의 勞働運動이 發展에는 朝鮮人 勞働者를 分離식혀 생각할 수는 업겠지요.

嘉治=日本이 資本家は 最初 朝鮮人の 日本에 오는 것을 禁止하였스나 數年前부터<17> 內地 勞働者와의 競爭者라는 意味에서 歡迎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最近에는 朝鮮勞働者의 渡來로 內地勞働者의 地位가 下落한 結果 不穩한 形勢를 보이는 바가 만타은 것과 朝鮮人勞働者는 大部分이 共產主義運動에 다를 可能性이 잇슴으로 어러가지 意味에서 危險하다하여 制限하기 시작하여 關釜地方에서 說諭하여 歸國시킨다고 하는 모양입데다.

矢内原=日本の 労働者が 朝鮮人労働者に 如何한 態度를 가질가하는 일은 結局 兩者의 經濟關係에 依하여 決定될 줄을 아오. 19世紀半에 愛蘭에서는 經濟上의 變革이 있어서 多數한 移民이 英吉利로 갈려고 하다가 英吉利의 労働者에게 反對되어 送還되어 왔지요. 朝鮮의 問題도 이와 類似하지오.

長谷川=日本の 無産黨에서는 朝鮮労働者を 排斥하는가요.

嘉治=一般으로 그럴 理 업지요.

長谷川=外國歷史에 被征服國民이 征服國에 가서 労働運動을 니르킨 例가 잇슬가요.

矢内原=그야 잇서요. 英吉利에도 佛蘭西에도 —佛蘭西에서는 植民地에서 本國에 移住하여 온 「알제리아」人 黑人 그리고 世界大戰中에 渡來한 「苦力」등이 그 運動을 하엿지요(中間略—원문)

福岡=將來 朝鮮이 日本内地議會에 代表를 낼 可能性이 잇스릿까요? <18>

大内=朝鮮에 잇는 共產黨運動의 盛衰如何에 依하여 데모크라시 獲得의 運動의 盛衰도 決定되리라고 봄니다.(下略—원문)

備考=本稿는 지난달 17日 밤에 東京에서 植民政策에 觀心을 가졌다고 볼 學者 數氏가 모여 座談한 것을 筆記한 것이니 他山の 石이나 될가하여 日文에서 轉載하는 바이다. <19>

<12-19>

4.

잡지명: 삼천리 제17호

발행년월일: 1931년 07월 01일

기사제목: 英帝國主義와 印度運動

필자: 科學研究所

기사형태: 논설

英帝國主義와 印度運動

科學研究所

印度運動과 世界政局- 1930년으로부터 今年에 이르기까지에 時日은 資本主義 世界에<56> 잇서서 暴風의 時期이였다. 世界中の 主要 資本主義 強國은 남김업시 深刻한 經濟恐慌의 渦中에 싸워잇고 經濟恐慌은 政治的 危機에 轉化될 形勢를 띄이고 있다. 帝國主義의 貯水池이였슬 植民地는 本國 以上에 激甚한 恐慌을 바더 政治的 危機는 커녕 直接的 革命情勢가 漸漸熾烈한 炬火를 들고 잇는 中이다.

印度의 現在는 이런 意味로 가장 注目될때라고 말치 안을 수 업다. 英領印度의 面積은 塞이론島를 아올너 490萬軒平方, 歐羅巴의 全面積 半分으로 불수가 있다. 人口는 3억3천만, 歐羅巴人口의 4分の 3이다. 이럿케 큰 領土, 이럿케 많은 民衆의 覺醒은 그것만으로도 世界的 驚異다.

그러나 印度革命은 世界政局에 잇서서 意義를 바르게 判斷하기 위하여 現在의 世界政局이 엇

더한 土臺 위에서 展開되어 있는 것을 究明치 않으면 안될 것이다. 現今 世界에는 두가지의 틀린 體制를 가진 諸國이 對立하고 있스니 그것은 資本主義의 國家等과 소비엣트同盟과이다. 植民地는 帝國主義의 豫備軍이라고 레-닌이 말한것과 갓치 大資本主義 諸國의 存立에는 不可缺될 搾取源泉이다. 이 植民地에 잇서서 民族解放運動은 말할것도 업시 資本主義體制의 土臺를 崩壞식히는 것이다.

大英帝國의 中心 印度는 大英帝國의 中心 植民地이다. 英吉利의 領土로부터는 해가 지지안는다고 말한다. 그 領土의 大部分은 印度를 中心으로해서 그 周圍를 護衛하고 잇는 形狀이 되고 있다.<57>

지불알탈, 막르다, 스엣스, 아덴은 歐羅巴로부터 印度에 通하는 길직힘이 되고 南及東아프리카는 希望峯을 迂廻하는 海絡의 要備이고 싱가포르 東洋航路의 要衝이고 오스트라야大陸도 印度의 南東과 連絡되고 있다.

印度가 本國英吉利에 맞치는 貢物은 무엇인가? 印度는 本國의 軍隊를 보내고 租稅를 맞치고 資本의 利子를 支拂하고 商品을 사서 이 巨額의 金庫를 本國에 보내는 것이다.

이런 利益中에 엇던 部分은 數字에 表現식히지 안는다.

이것을 除하고도 年이 얼마마한 巨額의 貢物을 英吉利는 印度로부터 強要하고 잇는가를 보자.

英吉利의 統治費가 얼마나 드느냐 하면 1924-25년, 英吉利에 잇서서의 費用이 約1억4천만원이 되여있다. 印度에 대한 費用은 이것보다도 만다. 다시 말하면 印度가 負擔치 안으면 안될 英吉利의 統治의 費用이 3억원이다.

다음으로 印度의 貿易은 完全히 英吉利商人에게 獨占을 當하고 있다. 1925년에 印度가 外國에 판 商品이 8억원, 外國으로부터 산 商品이 8억7천만원,(中 8억5천만원은 英吉利製品)이다. 그 商品利潤을 1割노 보아서 1억5천만원이 英國商人의 품속으로 드리간다.

第三에 이 印度에 판 商品으로부터 남는 工業利潤은 1割5分으로 보아서 年1억2천만원이다.

第四에는 印度에 投下된 資本이 約100억원이나 되니가 그 利潤은 非常한 高率로 적어도 1割은 된다.

그러니가 資本收益은 年10억원이다. 其他 印度의 海運은 거히 英國船舶에 獨占이 되고 그 保險은 英國保險會社의 손을 通하여 있다. 이 種類에 利潤은 的確히 指摘키는 어려우나 1억원程度는 되리라.

이것을 合計한즌 다음과 갓흔 結論이 된다.

英吉利가 印度로부터 搾取하고 잇는 것을 數字로 表示식힐 限度를 가장 內部的으로 計算하고도 年16억7천만원이나 된다. (바르가 大英帝國의 中心點 印度 「世界經濟年報」 第二輯의 의함.)

印度가 업서지면 英吉利는 엇지되나? 이 印度로부터 搾取하는 利益이 大英帝國의 存在에 잇서서 엇더한 必要가 잇는지는 英吉利의 瞞조아自身이 잘알고 있다. 近來 保守黨內에 反對派를 形成해서 「合衆帝國黨」運動을 捲起식히고 잇는 로사미-아鄉은 말한다.

『印度는 英吉利帝國의 標的이다. 만일 印度를 일흐면 帝國은 崩壞치 안으면 안 <58>

(이하 59-62쪽 缺-국사편찬위원회)

<56-62>

자료집총서 ①: 근대시기 다문화 관련 지면자료집

한국 근대 잡지에 나타난 '민족' 관련 자료집

© 이춘복, 2010

1판 1쇄 인쇄_2010년 10월 18일

1판 1쇄 발행_2010년 10월 28일

엮은이_이 춘 복

펴낸이_양 정 섭

기획·마케팅_노경민 김현아 주재명

경영지원_조기호

펴낸곳_도서출판 경진

등 록_제2010-000004호

주 소_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272번지 우림필유 101-212

블로그_<http://kyungjinmunhwa.tistory.com>

이메일_wekorea@paran.com

공급처_(주)글로벌콘텐츠허출판그룹

대 표_홍 정 표

주 소_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49-6 정일빌딩 401호

전 화_02-488-3280

팩 스_02-488-3281

홈페이지_<http://www.gcbook.co.kr>

비매품(내부자료용)

ISBN 978-89-5996-099-6 93300

※ 이 책은 본사와 저자의 허락 없이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 전재나 복제, 광전자 매체 수록 등을 금합니다.

※ 저자와의 협의 하에 인지는 생략합니다.